『 Edenfall 』

― 추락하는 낙원 ―

By. Vidal J Song

역사에 눈물이나 서사가 담겨서는 안된다.

오직 객관화된 사실만이 그것을 증명할 뿐.

단 한순간이라도 기록에 감정과 주관이 실리는 순간,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수필이나 희곡 따위로 전락한다.

— 진리의 엠레스 —

『 개요 』

보라. 이데아에 하늘과 땅이 열리고 난 뒤, 그 아래에 아벨의 자손,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라 불리우는 셋의 무리들이 저마다의 목에 총과 칼을 겨누며 어금니를 쑤셔박고 날이 선 이빨과 발톱으로 뼈와 살을 찢어발기니 죽고 죽이는 굴레만을 반복하면서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는 강을 채우노라. 이에 여기 기록하는 자들은 조용히남아 그것을 눈에 담으며 그들의 흔적을 이곳에 남기니 낙원에 남겨진 것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든지 보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반복되는 역사속에서 남겨진 기록은 거울이되며 그들의 지침이 될 따름이니 부디 이 흔적을 그대의 아이들에게 소리내어 읽게하여 마음 깊숙이 새기게하라. 그렇지 않으면 낙원의 흔적이 새긴 굴레는 계속되어 그대는 그대의 아이가 저지른 과오속에서 바스러지고 그 결실에서 다시 태어나 아비와 같은 역사를 똑같이 되풀이 할 것이다.

— 신원미상의 기록 —

『 아벨의 자손 』

공국 퀼로른이 붕괴하고 난 뒤 혼란의 가운데에서 남겨진 아벨의 자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들은 열 하고도 다섯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간신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국가나 마을정도의 규모이며 남은 작은 도시들은 대부분이 속국이나 예하기관 정도로 취급된다. 심지어는 남겨진 아벨의 자손들 사이의 관계마저도 우호적이라 볼수도 없다. 때에 따라서는 동등한 관계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목에 총과 칼을 들이댈 만큼 극단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와는 달리 필멸을 사는 존재들이며, 오랜 수명을 살아가는 자들도 아닐 뿐더러 육체적인 능력 또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보듬고 결집하면서 나름의 활로를 찾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필멸의 존재들인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으며 그 짧은 영광스러운 순간을 향해 삶을 이어간다.

『 불안과 고뇌 』

에르아의 저주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도 받지 않은 아벨의 자손들을 그저 축복받은 존재라고 여기어서는 안된다. 저들은 어떠한 저주도 입지 않았으나,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에 비교했을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약하다. 누구보다 나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믿음에 대한 반발심은 조금씩 부정적인 감정으로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얼마되지 않은 햇병아리는 물론이거니와 수련이 되어있는 존재에게도 언제 어느때건 가리지 않고 갑작스레 찾아온다. 대부분 저들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 뒤에 그것이 찾아오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만 한다. 불안과 고뇌와 사투하는 과정에서 아벨의 자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크고 작은 후유증을 앓게 되기도 하나 그것들과 싸워 이기고 지는 것은 오롯이 저들 스스로의 몫이다. 불안이나 고뇌는 비단 특정된 소속이나 집단에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아래에 기재된 불안과 고뇌에서 비롯된 삿되고 부정한 감정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달콤한 유혹처럼 시험에 들게하는 삿되고 부정한 기운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카인의 핏줄 』

이데아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스며든 불길한 기운은 불안정한 형태를 띄고 있었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우한 이바와 아다무스에 의해 조각이 난채로 이데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죄악의 돌에서 나뉘어진 죄악은 일곱가지의 갈래로 나뉘어지게 된다. 부서진 조각에 불과했던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과 최초의 살인, 에르아의 저주까지 더해져 촉매제가 되며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불사의 저주로 깃들게 된다. 저주와 함께 카인의 핏줄은 일곱의 죄악을 각자의 형태로 짊어지게 되며, 이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다른 시기에 태어난다. 그렇게 태초의 피마저 삼킨 고고한 존재인 샤마인에게는 교만의 죄로, 태초의 피의 육신을 탐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선 네크타라에게는 나태의 죄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여 은을 온 몸에 담은 세르샤에게는 분노의 죄로, 피와 살의 만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쟈토움은 탐식의 죄로, 버려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슬픈 꼭두각시 베르체의 몸 안에는 질투의 죄로, 더욱 자극적인 쾌락을 갈구하는 몽마 페라투르에게는 음욕의 죄로, 이데아의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찬탈자 레위앗에게는 인색의 죄로 구현된다. 그 외에도 영혼을 거두는 자 타다마드의 경우에는 육신안에 담겨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일곱개의 죄 모두가 담겨있고 원초적 공포와 어둠속의 그림자를 부리는 하쉬무스에게는 어떠한 죄악조차 담겨있지 않으니, 죄악의 종류와 개수로 무엇이 더욱 사악한 죄인지는 감히 저울질을 할 수 없을것이니 그것들 모두가 사악하고 그것들 모두 순수하고 깨끗하다.

『 세트의 후예 』

세트의 후예는 오랜동안 이데아의 주인이었던 태고의 신수 자르갈의 후예임과 동시에 신이 되고자 하는 세트의 뒤를 잇는 자들이라 자긍심이 다른 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섬김이 아닌 지배라는 것이 유전자 단위로 심어져 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세트를 포함한 많은 부족들은 목숨을 잃고 절망에 빠진다. 또한 남겨진 이들은 서로간의 투쟁을 멈추지 않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로 들판의 들개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이들과는 다르게, 투쟁속에서 끝내 살아감은 긍지 높은 여섯의 부족은 전례없던 강인하고 독자적인 힘을 발현하게 된다. 그것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신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모든 것들이 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등에 입는 행위 따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남겨진 자들의 관계마저도 원만하지 못해 서로 쉽게 섞일 수 없다고 한다.

『 만월의 광기 』

많은 수의 세트의 후예들은 몸에 세트의 피가 흐르는지라 으레 그가 그러했듯이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광기에 잠식된 이들은 이데아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함을 얻게 되지만 이성을 잃게 되며, 자신조차 스스로를 제대로 감당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 단계가 오랜시간 지속되고 주기가 짧아진다면 광기는 그들을 완전히 집어 삼키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저주에도 남겨진 여섯의 부족들은 그들 스스로 광기에 대한 대비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헤쳐나간다. 혹자는 이 광기를 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다른 이는 그것마저도 견디고 감내하는 수행의 일종이라고 여기는 등 광기를 대하는 태도 역시나 부족들마다 천차만별이다.

『 기록하는 자의 첨언 』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도, 세트의 후예들도 모두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저들이 내린 결정과 행보에 손가락질 할 수 없으니 역사 속에서 바스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아 낙원에 새긴 흔적이 바로 그 증거로다. 깊게 새겨진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따름이니, 이미 흘러간 것에 사로잡혀 몽상하는 것은 낙원의 내일에 스스로의 역사를 담고자하는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의지가 없다는것은 훗날 남겨질 기록에 자신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영원의 소멸과도 직결된다. 그러하니 굳은 의지로 이 땅을 밟아온 자들이 새겨온 발자취에 거짓은 물론이요, 기록하는 자의 이념이나 사상 따위가 남겨져서는 더더욱 안될 따름이니 오직 치열하게 살아온 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으로만 남겨야 할 것이다.

『 로코문드, 이데아의 세계지도 』

태초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데아를 뛰놀면서 자신의 발자취가 닿은곳마다 그곳에 담겨진 추억과 흔적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데아의 다양한 장소에 특별한 문양을 새겨두었다. 시간이 흐르고난뒤 남겨진 후손들에 의해서 그것이 도처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려 매달렸다.

하지만 영원의 전쟁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겪어오는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연구는 진척이 없이 미궁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그 문양은 이데아를 살아가는 존재들 사이에서 조금씩 잊혀지게 되지만 이후로도 다양한 개체들은 이데아에 흔적을 새기기를 원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어렴풋이 죽기전에 단 한번이라도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에 매료된다. 그것은 비단 한명 뿐이 아니라 모두가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데아의 윤곽을 그려내는 작업에 힘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초창기 그들의 순수한 제작 의도와 달리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수많은 존재들은 전장에서 전략과 전술을 위한 수단으로 이데아의 세계지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데아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종족 개체를 불문하고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데아의 모습을 담은 최초의 세계지도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거름삼아 단편적으로 만들어졌고 훗

날 그 흔적들이 끼워 맞추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데아의 거의 모든 장소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완성된 이데아의 지도에는 작은 오차와 균열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차이라고 여기었다.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긋남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눈에 띌만큼 극명한 오류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이데아라는 테르벨의 만드는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영원의 전쟁 이후쯤에 밝혀지게 되는데 창조주인 에르아가 이데아에 뿌려놓은 재앙 중 하나인 골노랏이 이따금 기지개를 켜자 그 영향으로 이데아의 모습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며 빚어내는 균열과 복원되며 아물게 만드는 특이점이 겹쳐지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이데아의 면면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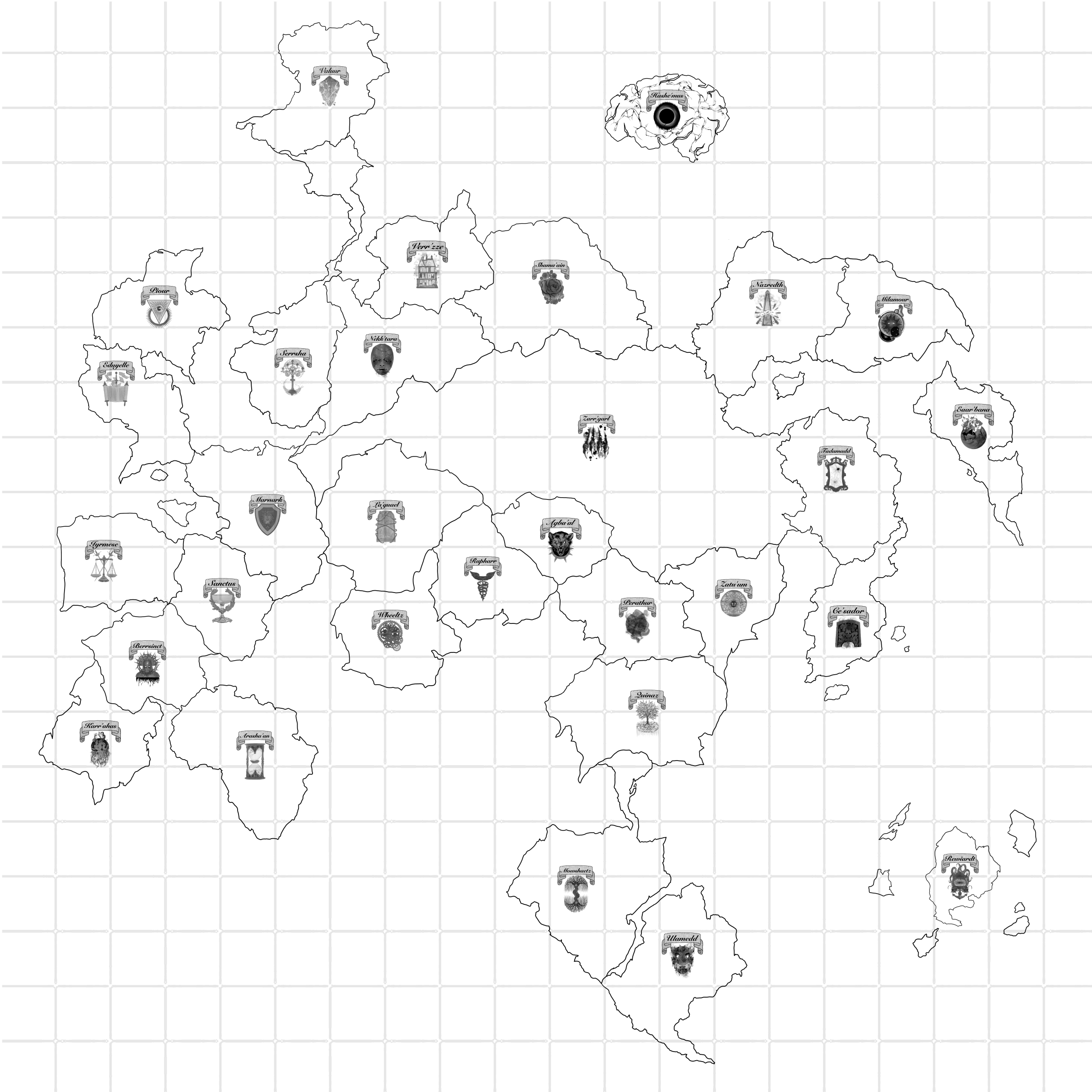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개체들은 이 기현상에 의문을 품고 다방면에서 그것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불완전한 이데아의 지도에 기대며 특이점이 발생할 때 마다 주기적이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수정의 작업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 기현상에 의문을 품으며 발 벗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전설적인 음유시인으로 알려져있는 ‘에그리나 대서니 딜레랑트’가 홀로 이데아의 모든 장소를 섭렵하면서 세계지도의 역사가 뒤바뀐다. 그녀는 이전에 세계의 곳곳에 새겨진 신비한 문양을 담은 장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그 숨결을 하나하나 느껴가며

풍경 그대로의 감동을 시와 음악으로 이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낙원의 모든 장소에 새겨진 흔적을 담아내었다.

그렇게 문양들은 일대의 지리적인 특징들을 기하학적인 형상을 압축하여 고차원적인 모습을 평면에 표현해낸 기적임을 이해하게된 뒤로 대서니의 초월적인 공감각적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데아의 전체적인 모습을 거대한 스크롤에 입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중첩을 시켜서 켜켜히 쌓아올렸다. 더불어 이데아의 특이점까지 고려하는 섬세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변주에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낸 결과물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세계지도의 기반인 ‘로코문드’의 시초였다.

비록 스크롤 원본의 출처는 구전이나 단편으로 밖에 접할 수 없으며 일각에서는 그녀가 은닉해 두었거나 그녀의 후손이 대대로 가보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떠돌고있다. 이데아의 세계직도는 로코문드의 사본을 기반으로 수많은 개정판들을 거치게 되었다. 그것과 더불어 윌츠의 기술력으로 이데아의 특이점을 고려한 로코문드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개정판이 계속해서 발행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지도가 완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기념비적인 유물처럼 전해진다.

『 이데아 세계지도 최신 개정판 판본 』



『 출처 — 윌츠 이데알마낙 대도서관 』

『 테르베르닉 』

“태초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듯이

태초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부술것이라.”

『 낙원의 흔적, 종말의 파편 일락시움에서 발췌 』

『 천지창조 』

공간을 가득 메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요. 그것을 깨고 나와 조용히 눈을 뜬 자가 있으니 그녀가 바로 태초의 존재이자 만물의 창조주이며 스스로 눈을 뜬 이라는 뜻의 ‘에르아’ 라고 불리우는 자로다. 그녀가 깨어날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것도 존재 하지않아 오직 허무만이 가득하다 여기었다. 그리하야 텅 빈 그 자리를 이르러 공허라는 뜻의 ‘카하낫’ 이라 부르며 오직 에르아의 아비라는 존재만이 숨을 쉬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에르아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인 카하낫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니 그 모습은 마치 어미의 자궁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이나 다름 없었다. 이윽고 기지개를 켜고는 몸을 젖히고는 그녀는 사방에 젖을 뿌리어 공허한 카하낫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빛 속 만들어진 별과 세계라는 뜻의 ‘테르벨’ 을 낳았다. 격렬한 황홀경이 그녀의 온 몸을 타고 흐르며 그것은 줄곧 반복 되었고 그럴 때마다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테르벨이 카하낫 속에서 고개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렇게 무수한 생명이 태어난 격동의 순간을 이르러 우주의 창조라는 뜻에서 ‘테르베르낙’ 이라고 입을 모아 부르게 된다.

우주가 열리고 난 뒤에도 그녀는 수많은 피조물을 낳고 또 부수기를 여

러번 반복하였다. 눈을 뜨고 난 이래로 수많은 별을 낳은 창조주인 그녀는 모든 세계가 자신의 손 아래에 나고 지며 새로운 생명을 빚는 그 일을 즐거이 여겼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새 이러한 반복속에서 무료함을 느끼던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변칙과 의외’라는 자그마한 기적을 낳으려고 애썼다. 얼마나 많은 세계가 태어나고 스스로 그 빛을 다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그것에만 매달려 몰두한 끝에 그녀는 그토록 바라기 마지않던 변칙과 의외를 창조했고 그것을 정성스레 빚은 별에 담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보석과도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테르벨을 낳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니 그 한방울의 눈물은 새로이 태어난 저 별에 생명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기적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

영롱함은 그녀가 창조한 모든 세계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여기었으며 그것에게 친히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도 가장 빛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형상속에서도 영원과 순수한 불변의 이상 세계임을 뜻하는‘이데아’라고 이름지었다. 그녀의 숨결로 인하여 이데아는 다양한 생명을 싹틔우게 되고 생명의 고리 안에서 서로 엉키고 부딪히면서 조화를 이루어갔다. 저들끼리 복잡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그 모습에 에르아는 기특하게 여기며 뿌듯함을 느꼈다. 창조주인 그녀는 조그만 세계속에서 변화와 격동이 반복하는 것에 눈을 떼지 못했고 이데아에서 펼쳐지는 예측불허의 시간들을 아끼며 언제나 즐겁고 평

안히 그것를 흐뭇하게 바라 보았다고 한다.

『 이바와 아다무스 』

에르아가 공허속에서 눈을 뜨고 그 외로움 속에서 세계를 만든 것과도 같이 어느날 갑자기 이데아 안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한 이들이 이데아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싶어했다. 이에 그녀는 이데아의 흙 한줌을 움켜 쥐고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나니, 그녀의 모습을 그대로 한 피조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에서 둘이 태어난 것이었다. 에르아는 이것도 자신이 만든 변칙성의 일부라 여기며 즐거워했고 자신의 모습을 하고있는 피조물을 조심스레 손에 담고 이름을 하나씩 부르니 그 이름은 바로 '이바' 와 '아다무스' 였다. 그녀의 거룩한 음성이 저들의 귓가에 살포시 담기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이데아의 흙으로 빚은 이들은 비록 부숴지기 쉬운 존재였으만 창조주인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었기에 그 외형만큼은 이데아가 품은 어떠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도 눈부신 자태를 뽐냈다고 한다.

『 스며든 죄악 』

하지만, 그녀가 이들을 낳을 적에 공허 속에서 창조주의 숨결에 맞추어 함께 고동치던 것이 있었으니 공허 카하낫에게서 뿜어져나오는 기운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카하낫의 고동 또한 더욱 커져가며 저들과 조화롭게 뒤섞이니 에르아가 만들어낸 피조물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기 시작했다. 에르아는 카하낫에서 새어나오는 그것들이 얼

마나 어둡고 슬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더 깊게 그것에 관여하며 자신이 만든 변칙성의 기적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유로 그녀는 다시 한번 이데아의 모래를 한줌을 들고 단단히 뭉쳐서 돌로 만들었고, 카하낫의 기운이 퍼지며 스며든 혼돈의 불씨를 여러겹의 돌로 뒤덮었다. 그녀는 혹여 저들이 혼돈속에 방황할지언정 충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내 차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뭉쳐진 동멩이에 자신의 바람을 담아 숨결로 덮어두었다. 에르아가 차마 그 돌을 이데아 밖으로 내던지지 않았던 이유중 하나로 무릇 별과 세계가 창조되면서 태어나고 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녀만의 법칙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데아를 만들면서 낳은 모든 것들은 이데아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라도 이데아 안에서 만들어진 부산물을 그것의 밖에 버려두게 된다면 세계와 세계 사이의 간섭을 빚게될 수도 있었다. 이 작은 혼돈의 불씨 하나가 에르아가 잘 짜맞춘 세계의 질서의 균형을 부수고 다른 세계와의 간섭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또 다른 작은 균열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었다. 작은 날갯짓 하나로 거대한 혼란의 폭풍우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더욱 큰 혼돈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 테르벨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카하낫의 기운이 스며든 돌을 이데아 깊은 곳에 숨기게 된 것이다. 첫째로 이바와 아다무스가 돌을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랐고 행여나 그것에 눈이 멀어 시험에 빠

지게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숨결이 담겨진 돌을 품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조차 사랑하며 보듬기를 바랐지만 카하낫에서 새오나오는 그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에르아가 만들어낸 피조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들인지라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마주하며 살아가야만했다. 카하낫에서 흘러나온 그것을 훗날 낙원 이데아에 새겨진 이들에게 혼돈 또는 죄악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

『 낙원의 첫발 』

자신의 손 위에서 마침내 눈을 뜬 이바와 아다무스는 빼끔거리더니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바라본다. 눈이 부셔 두 눈으로 담을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그녀는 자신의 곁에있는 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다무스는 쏟아지는 빛줄기를 가까스로 손으로 가리며 에르아에게서 시선을 고정시킨채 답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에르아는 카하낫 속에서 눈을 뜬 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시금 가벼이 입김을 불어 이바와 아다무스를 젖과 꿀이 흐르는 자신이 가장 아끼며 오랜동안 바라본 빛나는 보석인 이데아로 보냈다. 에르아가 다시금 저들의 이름을 아련히 부르는 가운데 땅으로 떨어지는 이바와 아다무스는 그를 바라보는 따스한 빛이 자신을 창조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

았다. 짧은 대화가 오고간 뒤에 에르아의 숨결이 가져다 주는 빛의 손길과 따스함에 잠이 들었고, 이들은 이데아에 닿자마자 그 모든 것을 잊게 된다. 깊은 잠에서 깨어 눈부신 빛 속에서 간신히 눈을 뜬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슬로 촉촉히 젖은 푸른 초원과 그 위에 숨쉬는 무수한 생명을 품고있는 낙원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저들은 대지의 고동과 모든 소리를 귓가에 담았고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눈에 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은 창조주를 닮아있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다시금 절경에 빠졌고, 이내 무언가에 홀린듯이 몸을 포개어 뒤엉키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대지의 고동소리에 맞춰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흩어졌다. 이들은 들판의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이데아의 모든 곳을 뛰어 다니며 그들의 흔적과 발자취를 아낌없이 이데아에 새기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그림이 새겨지고, 그것은 발전하여 서로에게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문자로 변형되었다. 오랜시간 이데아를 뛰놀던 태초의 아이들은 이데아의 중심에 오직 자신의 힘으로 하늘을 가린 터전을 만들고 그곳을 '락시아' 라 이름 지었으니 그 이름은 생명을 불어넣어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 죄악의 돌 』

이바와 아다무스가 락시아를 중심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난 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머지않아 창조주 에르아가 그렇게나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낙원에서 쉬고 있던 어느날부터 알수 없는 속삭임이 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데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을 듣게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끌림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저들을 부르는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 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들은 오랜동안 이데아의 모든 곳을 다니며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삭임을 따라가는 길은 낯설고도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귀를 막고 있어도 속삭임은 멈추질 않았고 오랜 시간 목소리를 따라간 그 끝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점점 그것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속삭임은 점점 선명하게 귓가에 울렸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기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마침내 이바와 아다무스는 마침내 속삭임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뿜으며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애타게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 죄악의 돌 바로 앞에 선 이바와 아다무스가 그것을 안으려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이바가 돌연 발걸음을 멈추고 아다무스를 제지했다.

“멈추라. 우리는 이만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는 다른 것도 아닌 그저 여인의 직감이었다.

하지만 이미 아다무스는 홀린듯 죄악의 돌에 기어이 손을 내밀었고 이

에 이바는 아다무스를 거세게 붙잡으며 만류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다무스는 죄악의 돌의 속삭임에 취하게 되었다. 속삭임에 빠져버린 그는 곁에 있던 이바마저 취하게 만들었고 둘은 미친듯이 서로를 탐하니 그 때 죄악의 돌은 절정과 절규 섞인 비명을 외치며 쪼개지더니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아름다운 땅인 이데아에서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매만져온 이바와 아다무스 사이에서 전에 없던 일이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아다무스의 경솔한 행동으로 불거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데아에는 '불신' 과 '수치' 그리고 '관계의 절단' 이라는 개념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창조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바와 아다무스가 그들조차 모르는 사이 그들이 최초로 빚어낸 것이었다. 불경한 그 장소를 뒤로한 채 이바와 아다무스는 락시아로 다시금 발걸음을 되돌렸다.

『 아벨, 카인, 세트 』

이바와 아다무스가 죄악의 돌을 접한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바는 그녀의 몸안에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그녀를 휘감았고 그것은 아다무스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었기에 오로지 이바만이 그 고통을 감내하였다. 만고 끝에 사내 셋이 이데아의 따사로운 빛을 맞이한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아벨’,‘카인’,‘세트’라 이름지었다. 그들 모두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름다움을 물려 받아 빼어난 미모를 지녔기 때문에 들판을 거닐던 모든 생명들은 서로 앞다투어 락시아를 찾아 이들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다고 한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젖을 물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곁에서 아무것도 일러주지 않아도 이데아를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가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이바와 아다무스를 기쁘게했다. 그렇게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와 함께 락시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지내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 인연 』

이바와 아다무스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사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고 인연을 맺어 한 지붕 아래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를 바랬다. 창조주 에르아가 자신들을 빚었던 것처럼 이바와 아다무스는 손을 맞잡고 이데아의 흙을

한 움큼 쥐어 생명의 숨결을 함께 몇날 몇일을 불어넣었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보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세명의 여인을 만들어내었으니 저들을 생명의 그릇이라는 뜻의 '이리샤' 라고 이름지었다. 이리샤는 이바와 아다무스와는 달리 창조주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아니하였기에 그 그릇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운명을 가진 존재였으나 순결하고도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와의 피를 쉽게 받아들이며 조화로이 섞일 수 있었던 존재였기에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의 짝으로는 적합한 그릇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생명의 그릇인 세명의 이리샤를 각각 자신의 아이들의 곁에 두게 했으며, 자신들이 그러했듯 자신의 아이들도 이데아에 후대를 이어나가게끔 했다. 이후에 이리샤로부터 나온 아이들을 흙으로부터 나온 인간, 즉 사람을 뜻하는 '발시아' 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이리샤라는 존재가 오히려 사이를 더욱 멀게 만들게 될 것이란 것을 이바와 아다무스는 알지 못했다.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와 더불어 이후에는 생명의 그릇인 이리샤마저 창조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스스로 이데아에 선 조물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오만은 그 끝을 몰랐고 창조의 도취감은 도를 넘어서게 되어 자신의 후손들로부터 락시아를 신의 전당이라고 부르게 하여 자신들을 우러러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이들에게 혹독한 시험을 내리기까지 한다. 백 하고도 여덟의 해가 지나고 난 뒤 어스름, 이바와 아다무스는 준비한 시험을 위하여 락시아 꼭대기에 자리한 전당에 자신의 아이들을 불러냈다.

“보아라, 너희들이 너희의 후대와 함께 너희들의 방식으로 풍족한 이 땅에 거룩한 문명을 이룩하여 영원토록 번영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

라는 말과 함께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에게 일종의 시험을 내리게 되었고, 그 보상은 다름아닌 창조주 에르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태초의 낙원인 이데아를 마음대로 거머쥘 수 있는 권한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시험에 앞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듯한 기행까지 선보이자 아이들은 그 모습마저 동경하여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이런 모든 의식을 마치고 난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는 락시아에 자리한 신의 전당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셋 중 어느 누구도 이 달콤한 시험엥서 발을 빼려 하지 않았

으니 태초의 낙원인 이데아를 수중에 넣기 위한 시험에 참가하게 된다. 후에, 역사가 기록하는 시험의 풍경은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과열양상을 빚으며 달과 같이 푸르른 날이 서려있었다고 한다.

『 무엇을 남길 것인가 』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간 이후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려심이 깊고도 순수한 아벨은 이리샤와 몸을 섞은 뒤에 그의 첫번째 자손들에게 이데아를 살기 위한 '믿음' 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자연과 평화로운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카인은 총명함과 동시에 문학과 예술 방면에 뛰어나 이를 즐기었으니, 이리샤와 그의 첫번째 자손들에게 차고 넘칠 만큼의 수준 높은 지식과 즐거움 그리고 우아함을 불어넣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자신만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그 곳에 자란 작물로 재산을 축적하였다. 그렇게 아벨과 카인 이 둘은 그들의 이리샤와 함께 후대를 거느리고 시험을 치루어 나갈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로 각각 서로의 문명의 꽃을 피워 일구어 나가기 시작한다.

『 낙오 』

하지만, 세트는 병약한 탓에 저들의 형제들과 달리 이리샤를 자신의 곁에 두고도 후대를 만들지 못했다. 자신의 욕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능력의 한계를 깨닳은 그는 형제들과 함께 어깨를 견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열등감과 상실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세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던 이리샤도 세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뿜어내는 절망과 고독으로 인해 병들고 시들게 되었고, 이내 이데아에 한줌의 흙만을 남긴채 죽어 사라졌다. 자신의 곁에 남아 함께하던 이리샤의 죽음으로 어떠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나날이 상심에 빠져서 더욱 깊은 어둠속에 잠식된 세트는 이데아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듯 했다. 스스로를 창조주라 여기던 이바와 아다무스는 무릇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결함이 없어야함이 마땅하다고 느꼈던 탓에 다소 부족한 세트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것과 같았다.
이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손가락질 하며 무능한 세트를 꾸짖었고, 날이 선 그 말들은 세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여러차례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엔 구멍이 뚫린듯한 공허함이 머물러 있었다. 그 때는 만월이 찬란히 빛나는 밤이었고, 이후로 세트는 만월의 밤마다 상실감에 젖은 그날의 슬픔으로 자신을 잃고는 이데아를 방황했으며 이따금 낙원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혔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을 불러 세트를 진정케 하라 명하였다. 비록 병약하고 미숙했던 자였으나 그 아벨과 카인조차도 통탄의 몸부림을 진정시키는데 꼬박 사흘 밤낮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세트는 완전히 아비와 어미의 눈 밖에 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데아를 내건 시험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것은 이데아에 몰아칠 폭풍우의 전조 중 하나가 된다.

『 죄와 벌 』

세트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험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마저 박탈 당한 뒤, 남은 두 형제인 아벨과 카인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에 들기 위해 더욱 시험에 목을 맨다. 카인은 그의 땅 게헨나를 넓혀감에 따라 유능하고 촉망받는 지도자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드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부를 더욱 확장하며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다. 반면, 아벨은 사리사욕을 버리면서 감사하는 자세로 하늘과 땅을 벗삼아 유랑하고 방랑하는 목동의 삶을 지냈으니 그 작고 소박한 삶에서조차 만족을 얻었다.
그러나, 아벨은 카인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자 그에게 이제껏 느끼지 못한 감정을 품게 되니, 그것은 열등감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세트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니, 아벨 또한 그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시험에 자격을 박탈당한 자신의 형제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추악하기 그지 없다고 여겨지는 그 감정을 애써 잘 숨기고 감추었을 뿐이었다.

『 합리화 』

아벨은 오랜동안 쌓아온 그 감정을 억누르다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카인과 그의 핏줄이 피땀 흘려 일궈온 저들의 밭에 하인들을 시켜 불을 지르게 하는 것이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아벨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신의 심판이 내려지는 듯한 쾌감을 안겨다 주었다. 다만, 오직 쾌감만을

위하여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자신을 따르던 목동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함이라 스스로 여기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데아 위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소망 때문이었고, 그저 자신의 자손들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을 기꺼이 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벨의 명령으로 타오른 불씨는 엄청난 기세로 퍼져가며 밭은 물론이요, 카인과 그의 핏줄들이 사는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자비없이 잿더미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카인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도중 락시아에 올릴 의식을 치루지 못하게 되었고, 그 시험에서 그의 아비와 어미의 낯을 볼 면목이 없는 처지게 놓이게 된 것이었다.

『 자신의 뿌리를 대하는 자세 』

그러나, 카인은 선택의 기로에서 시험의 의식에 필요한 그 밭보다 그의 핏줄들을 우선시하여 화마에서 멀어지게 하였으니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그저 삶을 위하여 밭과 보금자리를 버리라 명하였다. 생명은 부지했으나 시험에 바칠 곡식과 열매 그리고 광활한 밭을 잃었기에 이들은 결국 보관하고 있던 남겨진 곡식과 물만으로 간신히 허기를 채웠다. 그러나 그것으로 얼마 버티지 못해 카인의 핏줄에게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었다. 락시아의 제단 위에 바칠 어떠한 것도 남질 않으니 이는 아벨이 그린 대로 아벨에게는 시험에서 승리할 더할 나위없는 기회였다. 그는 오랜 방목생활을 토대로 락시아에 수많은 짐승털과 질 좋은 실을 제

단 위에 올렸고, 카인이 뒤쳐진 이후에 시험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그의 자손들까지 제단에 올리기도 했다. 락시아의 제단에 바쳐지기를 망설이지 않는 아벨의 자손들은 공포나 슬픔으로 제단에 오르지 않고 그 행위를 통하여 신의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믿음으로 올랐다. 광적인 믿음으로 굳어진 영혼의 의식은 이제는 '신의 부름' 이라고도 부르기 시작했다. 시험따위보다 자신의 핏줄들을 더욱이 아끼던 카인은 스스로 제단에 오르고자하는 아벨의 자손들의 기행을 보고도 말리지 않는 아벨의 방관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에 카인은 아벨의 땅에 발을 딛고 그를 맞이하고는 정적 속에서 입을 열게 된다.

"더이상 그대의 자손들을 해하려 하지 말라.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시험에서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어여쁨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후대의 모든 이들이 이 풍족한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번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니 카인의 말이 채 끊나기도 전에 아벨이 대답했다.

"신의 부름이라는 의식은 그저 우리들이 시험을 겪는 동안 지쳐버린 몸과 마음에 안정을 얻지 못하고 고뇌하는 양들에게 평안과 인식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혹은 신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라."

카인도 이에 지지 아니하고 아벨의 말을 곧장 되받아쳤다.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인간에게 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그것들 모두 그대가 쉬이 건네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냐? 지치고 고단한 자들을 제단 위에 서게하지 말고 그대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직접 건네주라. 그대가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대를 믿고 그대의 땅에 선 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카인이 아벨의 자손들을 걱정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벨을 측은히 바라보며 다시금 아벨에게 이르기를,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이전에 너를 따르는 자들을 먼저 품으며 그들 안에 신이 깃들게 하라.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 물을 긷고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라. 그마저도 힘에 부치면 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나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면 그 무엇보다 숭고하게 살아갈 것이다. 살아갈 힘은 인간에게 있다. 우리가 어미와 아비로부터 건네 받은 것은 오로지 우리가 선 땅 이데아일 뿐 그것을 일구는것은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서이다.”

이에 아벨의 얼굴은 일그러지더니 이내 손사래를 치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카인에게 답했다.

“그만, 더이상 신과 신의 곁에 다다르기 위한 자들이 행하는 신성한 행위를 욕보이지 말라. 그대는 어찌 다름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부정하려고만 하는가?”

더이상 카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감내하기 싫은 아벨은 카인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였고, 그의 자손들을 불러 카인이 물러간 길에 짐승들의 분뇨를 뿌리게 하여 모독에 대한 값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 최초의 살인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아벨의 모습에 카인은 그 시험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으며, 이후로도 끊이질 않는 아벨의 만행에 혀를 찼다. 카인은 이 행위를 묵인하는 아비와 어미를 원망하였고 신의 땅 락시아까지 저주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기근에 허덕이고 죽은 이들의 살과 피를 마시며 연명하는 처참한 자신들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더이상 참지못한 카인은 다시금 아벨을 맞이하며 그에게 물었다.

“신의 부름으로 올리는 피가 그리도 신성한 것이라면 그대는 그대의 자손들을 위해 스스로의 피조차 기꺼이 쏟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고는 카인은 아벨의 목을 잘라 그의 피를 몸에 칠하며 아벨의 자손들을 향해 아벨이 부르짖던 궤변의 잔혹함을 직접 두 눈으로 담

으라 외치니, 아벨의 자손들은 이데아에 자리한 뒤로 처음으로 맞이한 신의 부름이라는 의식의 이면과 죽음이란 이름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된다. 이것이 발시아 즉 인간의 역사가 기록하는 최초의 살인이었고, 죄악의 역사가 시작됨이요, 이바와 아다무스를 포함한 이데아의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멀찍이 이데아를 방관하고 직접적인 개입도 하지 않고자 했던 창조주 에르아마저 이데아에 붉게 퍼지는 아벨의 피를 바라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카인에게 낙인을 내리게 되었다. 그 낙인으로 인해 카인이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 없게하여 억겁의 시간동안 이데아를 방황하고 영원을 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했다. 에르아는 최초의 죄악과 살인이 모두 죄악의 돌에서 시작한 것이라 여기었고, 불안했던 마음에 직접 낙인을 내려 카인을 본보기로 삼아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죄악이 다시금 이데아에 고개를 들지 못하기를 바랬던 것이었다. 그러나, 창조주는 물론이요 이바와 아다무스에게도 회의감을 느끼며 등을 돌려버린 카인은 이를 형벌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낙인은 축복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낙인은 카인 뿐만 아니라 그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에게도 예외없이 새겨졌으며 그것을 영원한 피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반기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평생을 태양과 빛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그것을 기꺼이 진 채로 살아가고자 했다. 또한 카인의 핏줄은 기근 속에서 살던 저주입기 전의 행동 탓인지 다른 이의 피를 갈구하며 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

『 위대한 델레눗 』

아벨의 죽음을 마주하고 신의 부름의 처참함을 새긴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은 비통에 빠져 넋을 잃거나, 광란에 빠져 폭력성을 띠는 자는 물론이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주저 앉은 뒤로 일어날 의지를 잃은 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어떤 사내 하나가 나서더니 광란에 빠진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굳이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키우기 시작하니, 그 칼날을 카인의 심장으로 인도하였다. 그는 드넓은 초원 위에 서서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외쳤다.

“아비를 잃은 자들아. 그대들 안에 담긴 그 슬픔과 분노를 잃지 말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은 곧 끝이 날 것이고, 그 막은 카인과 그 핏줄의 피로 적셔지리라. 일어나라. 아벨의 목동들아.”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땅을 울리고 광장에 들어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 마침내 광란에 뒤덮혀 있던 자들의 손에 든 칼은 카인의 핏줄들이 자리한 곳을 향하게 만들었다.
아벨의 죽음 뒤로 그의 피를 쓸어담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도 그 사내의 모습에 감복하였고, 그를 기특하게 여겨 그 자의 곁에 강림하자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축복하니 그 성스러움을 눈에 담았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축복을 입은 사내의 모습에 아벨의 자손들은 그 사내를

우러러 보기 시작했고, 그를 아벨의 자손을 이끌 지도자로 추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내는 곧 닥쳐올 혼돈의 서막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위의 모든 이들을 고양시켰고, 그 간절한 외침은 불길과도 크고 강렬했다. 이들은 아벨과 그의 첫번째 자손들과 달리 유목생활을 버리고 생활방식을 바꾸었으니, 카인의 핏줄들이 그러하듯 터전을 마련하여 그곳을 더욱 견고히 해나갔다. 그리고 아벨의 모든 자손들을 총 동원하여 다시금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가 감히 발걸음을 하지 못하도록 넓게 펼쳐진 방벽을 짓도록 하니 그것이 바로 아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아벨의 방벽이었다. 유목의 생활만을 하던 이들이 아벨의 품에 안기니 그것은 공포의 존재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된다.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사내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게되고,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각지의 흩어진 아벨의 자손들에게 기꺼이 손을 건네었다.

정치력과 통솔력을 겸비하고 있던 그는 비탄에 빠진 아벨의 자손들을 스스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영웅으로 불려졌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선망받으며 마침내 변두리의 작은 마을의 지도자까지 자신의 휘하에 두었고 마침내 이를 하나의 국가로 규합하기 위한 작업을 마쳤다. 그의 부름에 흩어져있던 헤아릴 수 없을만큼의 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뜻을 같이하여 그의 곁으로 모였다. 사내는 아벨의 품에서 다시 일어난 이들이 자리한 그 곳을 위대한 공국이라는 뜻의 '퀄로른'이라 명하였다. 그리고 그 공국의 정점에 선 사내가 바로 퀄로른

의 사자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국왕 ‘델레놋’ 이었다.

『 태초의 피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치루어지는 가운데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자취를 감추었다. 창조주로부터 낙인을 짊어진 카인은 이데아를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그 후로 어디에서도 카인에 대한 문헌이나 기록은 물론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종적을 감추고난 뒤 저주입은 카인의 핏줄들은 영원을 사는것과 동시에 얻게된 강인한 힘으로 인해 이데아를 누비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다니며 다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마셨다. 아벨의 자손들과 같이 자신의 앞을 이끌어줄 길잡이를 잃게되자 제 길을 찾지 못한채 정처없이 떠도는 영혼이나 다름없었다. 목적을 잃은 그의 핏줄들은 그저 피에 굶주린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창조주 에르아의 낙인으로 인하여 변해버린 카인의 핏줄들은 뿔뿔히 흩어진채로 아벨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채 대부분이 어둠에 몸을 숨기고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떠도는 카인의 핏줄들을 이끌 존재가 카인의 핏줄들 앞에 도래하였으니 바로 태초의 피라 부르는‘카르밀라’가 바로 그녀였다. 카인이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진 뒤, 이 땅에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리샤가 남긴 흙 위에 스스로의 피를 뿌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카르밀라였다. 그가 만들어낸 것은 그의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카인 본인 스스로가 택한 여인이었다.

카르밀라는 현명하였으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는 자였다. 카인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낙인을 스스로 저주라 여기지 아니하고 영생을 축복이라 여길때마다 그에게 다음과 같은 간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창조주 에미야의 낙인으로 인하야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자요, 낙인은 축복이 아닌 저주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의 삶 속에서 내린 죗값이니, 아벨이 그대에게 행했던 것도 중죄요, 그대가 아벨을 죽인 것도 중죄로다. 허나, 그대의 죗값을 다른이의 죄로 덮는 것으로 자신이 행한 죄마저 덮으려 하지 말라.”

카르밀라의 언급에 따르면 카인이 이후에 또 다른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를 중재하였고, 그 말을 줄곧 들으며 카인은 영원히 그림자 속에 살겠다고 말한 뒤, 그의 남은 권능을 그녀에게 남긴채로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 피의 인도 』

그녀는 이리샤의 흙에 카인의 피가 뿌려져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 말인즉슨 그녀의 몸 안에 이리샤의 순수함과 자애로움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었고, 그녀는 이 가여운 카인의 핏줄들이 속죄의 길을 걸어 낙인을 벗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희망하던 존재였다. 어머니와도 같은 마음으로 카르밀라는 이데아를 방황하는 영혼들을 카인이 그러했듯이

짐승과도 다를바 없이 본능에만 미쳐있는 카인의 핏줄을 다시금 그녀의 품에 거두게 된 것이다. 진심어린 그녀의 고결한 모습에 다시금 카인의 핏줄들은 이성을 되찾고 그녀를 따르게 된다. 그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사의 존재들에게 의지와 동기가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민함까지 지니게되니 이데아에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아벨의 입장에서는 그저 피에 굶주린 들판의 짐승으로 남았던 것이 차라리 안전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카인의 핏줄의 구원과 속죄의 길은 오히려 이들의 송곳니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피와 죄악의 길로 향해걷는 모습은 그녀로 하여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카르밀라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인의 핏줄들은 그 어떠한 존재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영생을 사는 것, 그리고 아벨의 자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굳이 저버리고 다른 것들과 융화되어 살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죄를 죄로 씻어낸 카인을 아비로 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지며 영원의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 대가는 오직 피에 대한 끝없는 갈증과 태양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카인의 핏줄을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것보다 다른것으로부터 오는 증오가 더 컸다.
증오한 것은 영생도, 피를 마셔야 하는 것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따위가 아니었다. 신의 부름이라 불리우던 피를 부르는 아벨의 의식을 증오했다. 시험을 이어가며 아벨의 자손과 이를 묵인한 아벨을 증오했다. 모든 죄악의 불씨를 지피게 한 이바와 아다무스를 증오했다. 또한

이데아 위에 서서 다른 존재를 아래로보며 신이라 칭하는 모든 존재를 증오했고, 낙인을 내린 창조주를 증오했다. 태초의 피의 보호 안에서조차 이미 카인의 핏줄들은 구원과 속죄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더이상 부인하지 않았다. 전례없이 강인한 결속력을 보이는 아벨의 자손들로 인해 혈족의 존속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아차린 카르밀라는 카인이 이전에 일구었다 아벨에 의해 불타버린 그의 밭에 자신의 피를 쏟아내어 최후의 보루를 세우니 이를 카인의 성이라는 뜻의 '카에람' 이라 불렀다. 그 크기는 가히 태양을 삼킬만 했으며 멀리서 성을 한눈에 담을 수조차 없으니 자취를 감춘 카인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를 맞이할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 태초의 피 카르밀라는 이데아를 무의미하게 방황하던 피에 취해버린 짐승들을 자신에게 예속시켜 카에람에 머물것을 허락했다. 카에람 주위로 짙게 깔린 칠흙의 어둠과 핏빛 안개 아래에서는 카인의 핏줄들이 태양을 맞이할 수도 있을 정도였다. 또한 예속시킨 카인의 핏줄들을 구별하고 선정하여 군세를 늘려나가는 등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 늑대의 안식처 』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세트는 여전히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다. 그는 아비와 어미의 시험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던 터라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오랜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쉽게 허락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리샤를 잃은 상실감으로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 자책하기 시작했던 그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저 하릴없이 이데아를 떠돌며 지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헤메이다 이내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차가운 숲 속 깊은 곳에 발걸음을 하게 된다. 그는 숨이 막힐듯하게 우거진 숲속의 매력에 깊게 빠져 들게 되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안심한 그는 답답한 마음을 목놓아 울음으로 해소하곤 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세트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장소와 무수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다. 대지에게 말을 걸고 숲과 속삭이며 마음을 치유했다. 바람에 부딛히며 서로 몸을 비비는 잎새 소리가 소름끼칠만도 했지만 그에게 있어선 그마저도 평온할 뿐이었다. 시험에 빠져 미쳐버린 자들도 없었으며, 광기에 피와 살이 튀는 사투도 없을 뿐더러 그를 꾸짖고 나무라는 자들도 없어 오직 평화와 고요함이 반겨주는 곳이었다. 외부와 단절된 듯하여 공기조차 낯선 곳에서 머물던 세트는 낯선 존재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아무도 없을 것이라 여기던 그곳에 역사가 숲의 주인들이라 기록하는 태고의 신수인 ‘자르갈’ 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늑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종

과 맞닥뜨리게 된다. 자르갈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낙원을 뛰어놀기 이전부터 이데아를 뛰놀던 자들이나,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죄악의 돌에 손을 댄 이후로 불경함을 자연스레 느낀 탓에 저들 스스로 멀리하려 이토록 깊은 숲까지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었다. 숨막힐 듯 깊이 우거진 숲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밝게 빛나는 저들의 자태에 시선을 빼앗겼고 이들과 눈을 마주친 세트는 이들이 이데아에 남은 더없이 우아한 존재라 여기게 되었다.

고고한 모습과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따위에 물들지 않아 질투도 없었으며 시기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저들과 수많은 교류를 하며 세트는 이들이 이데아에 남은 마지막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바와 아다무스를 미워하며 저들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열등감에 빠져 있던 그는 태초의 은빛의 신수 자르갈의 무리를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숲을 오고가며 그들과 소통하였다. 또한, 저들과 같은 모습을 하며 저들처럼 자유롭게 달리고 저들과 같이 숨을 쉬고 저들과 같이 달을 보며 목놓아 울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르갈의 신수들만이 그의 곁에서 울어주는 존재였다. 이에, 세트는 여지껏 부모나 형제들 사이에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유대의 끈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들을 피해 지내온 자르갈의 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세트는 이리샤를 통해 후대를 잇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깊은 소통과 교감으로 자신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자르갈이라 불리우는 숲의 주인들은 우아한 모습과 자

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이들의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고,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핥아주며 아물게한 신수의 자상함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과 더불어 살고자했으며, 이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형제들이 그러했듯 후예들을 이루고자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트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다.

『 세트의 후예 』

어둠이 내려앉은 숲 가운데에 드넓은 초원이 자리하고 있으니, 하늘의 별과 달빛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곳이었다. 세트는 그 한 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겼고 자르가의 신수 무리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다. 빛을 머금은 세트는 멈추어 태고의 신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기 시작했다. 정적이 흐르고 이들은 세트 앞에 하나 둘 씩 고개를 숙였고, 세트는 미끄러지듯 그들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권능을 나누었다. 세트는 이후로 힘을 잃고 권좌 위에 서서 관망하는 존재에 불과했으나, 그의 영향력과 그를 따르는 자신의 후예들을 보며 뿌듯해 하였다. 다른 형제들과도 같이 그가 남긴것이 있으니 하나가 차별 속에서 시련을 극복해낸 것이 그것이요, 다음은 이해와 소통을 통한 상처의 치유였다. 쏟아지는 달빛 사이에서 세트의 권능을 담자마자 자르갈의 신수들은 인간의 모습과 늑대의 모습을 섞은 듯한 모습을 하게 되었으니, 이데아에 새로운 종을 탄생시킨 셈이었다.

다만, 이들의 모습은 순수함을 추구하였던 이바와 아다무스의 혐오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인간과 짐승 사이에 나온 저들의 종족 모두가 죽어서도 락시아 근처에 묻히기를 꺼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순간만을 축복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빛을 맞이한 신수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놓아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으니 이데아의 모든 이가 이 울음소리를 듣게되었다. 세트와 태고의 신수 자르갈이 서로 교감하며 저들과 의식을 섞고 나누는 과정에서 저들 안에 깨어난 힘이 드러나게 되니, 그것은 기민한 예지력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짐승이 피부로 대지가 요동치거나 재앙이 다가옴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 기민함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훗날 이데아에 오랜동안 펼쳐질 참상을 보게 되는데 칠흙과 같은 어둠, 절규와 고통과 더불어 셀 수도 없을 만큼 쌓인 시체들의 산과 쏟아지는 살점과 이데아를 적시는 핏물이 바로 그것이었다.

『 영원의 전쟁 』

아벨의 죽음과 카인이 짊어진 낙인 그리고 세트의 울음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섞이면서 전쟁의 전조가 극에 치닫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삶인지 죽음인지 알지 못한채 전쟁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전쟁의 불씨가 당겨진다. 이렇게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의 불가피한 충돌 사이에 세트의 후예까지 개입하게 되었으니, 이들 셋의 종족이 한데 뒤섞이며 피와 살점이 낭자하는 전쟁이 이데아를 뒤덮게 된다. 그리고 이 끝없는 피튀기는 참상을 이르러 '영원의 전쟁' 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데아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은 길었다. 그 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영원의 전쟁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아벨의 방벽을 넘어선 델레놋과 그의 군대는 땅을 울리며 그 위용을 자랑하니 저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 보소서, 저들은 죗값을 치룰 것입니다. 아벨을 위하여!"

델레놋의 외침은 아벨의 자손들의 분노를 광기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아벨의 자손들의 무리를 규합한 뒤로 전장의 준비를 마친 퀼로른의 국왕 델레놋은 아벨의 군세를 일으키며, 아비를 죽인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복수의 이름 아래에 칼을 들었다. 이에 맞서 태초의 피 카르밀라도 카에람을 향하여 다가오는 아벨의 자손들의 위협에 마지못해 혈족의 안위를 위해서 직접 그녀가 기른 피에

굶주린 위협적인 군대와 함께 송곳니를 세우며,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방황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오.”

그것이 카르밀라의 마지막 기도였다.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들이 서로 엉키어 신성한 저들의 대지에 불경한 피를 뿌려대는 것에 치를 떤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물들어 미쳐버린 자들을 씻어내기 위해 이데아에서 이들을 몰아내고자 했고, 저들의 충돌이 세트로 하여금 그의 후예들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낸 계기가 된 것이었다.

“낙원에 더럽고 간악한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찢고 죽여라!”

숲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던 세트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을 시작으로 많은 세트의 후예들을 울부짖게 했고 그 울음은 이데아의 대지가 울릴정도로 우렁차게 오랜동안 메아리쳤으며 수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다.

『 기울어가는 전황 』

나고 지는 생명은 분명 그 뜻이 있기 마련인데 영원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한 듯했다. 전쟁을 치루는 매 순간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그 광경을 두 눈에

담은 자들은 제 정신을 다잡지 못하고 미쳐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전염되기 시작하였다. 날이 갈수록 서로의 광기에 취해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남게 되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기를 들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무기를 거두지 않았다. 이유는 없었다. 오직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광기 그 자체였다. 찬란한 보석이나 다름없던 이데아는 이제 더이상 생명의 땅도 아니었고, 태초의 낙원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빛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땅이었고, 이데아의 온 대지가 생명의 요람임과 동시에 무덤이었다. 이데아의 대지의 흙 한줌, 강물과 그 물 한줄기 그리고 하늘의 구름 한 점마저 피와 같이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 급기야 타오르는 태양조차 고개를 숙여 검게 변하니 이데아를 밝게 비추지 못했다.

공국의 군대는 비록 용맹하였으나 카인의 핏줄들과 세트의 후예 모두를 상대할 수 없었다. 세트의 후예들의 잦은 습격으로 발이 묶여 카에람에 미처 닿지 못해 가는데에만 위협이 따랐고, 태초의 피, 카르밀라가 감히 카에람에 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기에 아벨의 자손들의 거센 공세에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은 실로 태초의 피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용을 보여주었고, 전장의 피를 뒤집어 쓴 어머니의 모습에 카인의 핏줄들은 더욱 미쳐 날뛰었다. 이에 아벨의 자손들의 기세는 한 풀 꺾이게 된다. 쉽게 죽일수도 없을 뿐더러 해가 진 뒤에도 어둠 속을 누비었고, 이전에 입은 상처는 씻은 듯이 바로 나았으며, 숲 속의 짐승들은 두꺼운 가죽과 이빨, 날카로운 발톱으로 인간들을 유린하

기 시작했다. 이들 사이에서 밤낮으로 상대하던 아벨의 자손들은 피로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해가 지나갈수록 영원의 전쟁은 전쟁이 아닌 일방적인 학살로 기울어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 소툼과 골노랏 』

한껏 풀이 꺾여진 아벨의 자손들을 바라보며, 카인의 핏줄을 거느린 태초의 피 카르밀라는 전세를 굳히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려던 찰나 마른 하늘에 돌연 이데아를 찢어 발기려는 듯한 벼락이 쏟아지게 된다. 그것은 바로 피와 불바다로 인해 검붉은 색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한탄하던 창조주가 떨꾸던 한방울의 눈물이었고, 그것이 이데아의 천장을 뚫고 들어오게 된다. 눈물과 함께 몰아치던 벼락을 동반한 엄청난 양의 비를 머금은 폭풍우가 이데아에 도래한다. 이데아를 휩쓸면서 지나가는 벼락은 대지를 찢어버렸고, 드높은 파도에 휩쓸린 이데아는 대지와 바다의 형태마저 뒤바꿔버릴 정도였다. 재앙은 수많은 생명을 휩쓸고 갔으니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 때 몰아친 벼락을 '소툼' , 죽음의 대홍수를 '골노랏' 이라고 불렀다.

소툼과 골노랏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었는데, 창조주 락시아가 자신이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변칙성이 가져다주는 즐거움보다 무질서가 낳는 혼돈으로 빚어내는 재앙의 싹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컸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재앙을 불러 이데아의 죄를 급하게 씻어 내리고자 함이라는 관점도 있었다. 이유야 어찌됐던, 선을 위한 구원의 손길도 아니었고, 악한 이를 벌하기 위한 심판도 아니었으며, 전쟁을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저 이데아의 모든 것을 지우려는 듯 이데아에 휘몰아쳤다. 죽음의 대재앙이 이데아를 휩쓸었을때, 창공의 높은 곳에 자리하던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머무는 신의 도시라고 부르는 그 장소

는 바다의 깊은 곳으로 잠기었고, 그 이후로 두번 다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사료에 따르면 이전에 아벨이 행하던 신의 부름이라는 의식에 대한 업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 종언의 조짐 』

대재앙은 카인의 밭을 태워버린 불씨보다 맹렬하고도 거칠었다. 불꽃은 매섭게 불타오르고 난 뒤에 하늘을 뒤덮는 연기와 재를 남기지만, 소툼과 골노랏이 이데아를 헤집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무는 고요함과 정적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느닷없이 닥친 시련은 아벨의 자손들의 분노를 자연에 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바꾸었고, 그것이 이데아의 마지막과 같은 모습에 모두가 입을 모아 이데아의 마지막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은 카르밀라는 무기력한 존재들을 향해 그녀의 군세를 쏟아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에람 안에서 그녀를 거부하는 기운이 뿜어져 나옴을 느낀다. 그 기운은 그녀가 오랜동안 그녀의 곁을 호위하며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태초의 피가 카에람을 비웠을 때, 카인의 핏줄들을 지휘하며 카인의 성을 지키는 일을 전담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태초의 피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오랜동안 감추었던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인의 권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카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

는 자들이었다.

『 뒤바뀐 운명 』

카인의 피가 흐르며 카르밀라의 보살핌으로 자란 이들은 가히 ‘왕가의 혈통’이라 부를만큼 피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카인의 핏줄 중에서 당연 으뜸이었다. 더불어 태초의 피가 방황하는 카인의 핏줄을 예속할 때에도 이들은 치밀하게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전부터 무리와 계층을 나누며 작은 집단을 꾸리고 있었다. 이렇듯이 혼란속에서도 부수어지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높게 샀기 때문에, 태초의 피는 이들을 시작으로하여 이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태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랬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이들로부터 찾으려했다.
그러나, 그녀가 카인의 권능을 저주라고 여길 때마다 반감은 더욱 커져나갔고 끝내 대립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이었다. 영원의 전쟁으로 빚어진 피와 이데아에 흘러 넘치는 죄는 더욱 그 색을 진하게했고, 그럴수록 카르밀라의 힘은 바스러질듯이 나약해지게 된다. 왕가의 혈통의 힘은 더욱이 거대해졌으니, 이제 그는 모든 카인의 핏줄들 위에 군림하여 그녀를 몰아내 권좌에 스스로 앉고자 했다. 그렇게 대홍수에 휩쓸려 전세를 뒤집으려는 태초의 피카르밀라는 자신의 바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신감과 허탈함에 빠지게 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왕가의 핏줄은 카르밀라와의 결속을 모두 끊어내었고 성 안에 있는 카인의 혈족을 자신에게 예속시켰다. 그

는 태초의 피 아래에서 그녀 안에 흐르는 피 속에 담긴 지식과 카인의 권능을 그녀만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훌륭한 외모를 겸비한 달변가이자 외교술과 처세에도 능하였기에 그가 성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섬기고자 했던 것은 그가 지니고 있던 압도적인 존재감과 동시에 태초의 피와 연결된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저들이 비록 카인의 피가 짙게 깔려있다고 해도 태초의 피가 세운 카에람을 그녀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어둠을 머금은 성 카에람은 태초의 피 그 자체였고 그녀안에 담긴 피로 뿌려진 성이었다. 때문에 카에람은 카르밀라의 상황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사방에서 피를 흘리며 절규하고 있었고, 바람앞의 등불만큼이나 연약한 모습을 하고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이 위태로워 보였다. 태초의 피로 빚은 성이었기에 더욱이 그녀의 피를 필요로 할 따름이었다. 이로 인하여 카인의 핏줄들을 보살피던 존재는 내부의 반란으로인해 자신이 믿고 희망하던 존재들에 의해 소환된다.

『 몸부림 』

태초의 피는 카에람에서 본색을 드러낸 것들의 행동에 깊은 탄식을 감추지 않으며 유리한 전황임에도 군세를 되돌리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아벨의 진영에서 묘령의 여인이 불현듯 나타나 델레놋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니,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로 카인의 핏줄들은 창조주의 낙인으로 인해 태양을 우러러 보지 못할 것이라 귀띔을 해주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야 델레놋은 변두리에 날랜 파수꾼들을 보내어 태양이 드높은 때에 카인의 핏줄들이 자리하고 있던 보금자리를 발견하였고 그곳을 조사하니 놀랍게도 관 속에서는 입에 피를 머금고 곤히 잠들어 있는 카인의 핏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가 일러주던대로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니 그 피는 분수처럼 쏟아졌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사방에 퍼지며 빛으로 저들을 어둠으로부터 비추자 이들은 한줌의 먼지가 되어 바람에 흩어져버렸다. 태초의 피가 회군을 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것과 카인의 핏줄들이 태양을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으니,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이미 전장의 신이라 칭송받는 델레놋이 이 기회를 놓칠리 없었다. 소툼과 골노랏이 휩쓸고 지나가고 난 뒤 절망과 탄식에 빠져 전의를 상실해버린 이들 사이로 어둠이 걷히니 광명이 비치는 듯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델레놋은 다시금 높은 능선에 서서 아벨의 군세를 향하여 크게 울부짖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니, 이는 마치 빛의 가호를 입은 신성한 존재와도 같이 보였을 것이다.

“아벨의 가호가 우리와 함께하는도다!”

저들은 어느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카르밀라의 군세에 맞서 저들을 아벨의 영토로부터 몰아냈다. 이 기세를 멈추지 않고 그는 카에람까지 도달하고자 아벨의 종마를 힘껏 내달렸다. 하지만 승전의 막에 다다른 델레놋과 그의 군대가 대홍수로 잠겨진 곳을 피하여 지나간 곳이 하필 세트의 후예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었다. 저들의 입장에서 아벨의 존재는 열등한 족속들이었기에 이들이 신성한 저들의 땅을 더럽히려 하니 세트의 후예들은 이를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그 곳을 지나가려 시도하는 자들은 세트의 후예들이 가진 이빨과 발톱에의해 가차없이 찢겨나가기 시작한다. 델레놋은 드높은 사기로 무장한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고 저들과 정면으로 맞섰으나 그 앞에 선 자들은 자르갈의 피를 이어온 세트의 후예였다. 그들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마치 먹이를 우리 안에 가두듯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아벨의 자손들의 목을 조여가면서 유린했다. 카에람을 향해 종언을 고하는 순간이 눈 앞에 왔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세트의 후예들에게 발목을 잡혀버린 것이다. 세트와 그의 후예들이 만월의 밤에 울부짖는 열세번째의 새벽이 지나고 나서야 델레놋은 결국 전열을 가다듬어야 함을 느끼고 서둘러 그의 군대를 돌려 그곳을 벗어나게 된다. 세트와 그 후예들은 더이상 저들을 쫓지 않고 가슴을 활짝 펴보이며 위엄있게 멀찍이 서서 벌레를 보듯했고 델레놋은 저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자와 눈이 마주치게 된다

“인간을 내려다보지 마라 들개여.”

델레놋이 이를 뿌득거리며 세트를 쏘아다 보았다. 하지만,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아벨의 자손들을 바라보는 세트는 그의 비틀린 웃음을 감추지 않고 그를 계속 응시하며 즐거워했다. 세트의 후예가 영원의 전쟁속에 자신들의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뒤쳐진 자들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라 여기게 된다. 영원의 전쟁 속에서 치루어진 학살을 시작으로 자신이 그리던 것을 이루려 세트의 후예는 그들의 본거지로 다시금 발걸음을 돌렸다.

『 최후의 항전 』

우여곡절 끝에 아벨의 자손들을 뿌리치고 태초의 피는 자신을 따르던 남은 자들이라도 살려내기 위하여 예속을 끊어내고는 죄악을 항상 주시하며 자유로이 살라 명하였다. 다만, 예속이 끊어졌음에도 그녀의 명을 따르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필시 그녀의 몸 안에는 비단 카인의 피만이 아닌 이리샤의 흙에서 흘러져 나온 대지의 따스함과 자비를 저들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잔존세력과 함께 당당히 카에람 정면으로 향하게 되었으니 주어진 남은 선택은 오직 죽음 뿐이었다. 카에람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왕가의 핏줄과 그에게 예속된 자들은 태초의 피와 그녀 곁에 있던 자들에게 최소한의 자비로 카에람 안에 들 것을 허락하였지만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단칼에 거절하였다. 그러나, 카르밀라와 등을 맞대고 영원의 전쟁을 치르던 자들을 쉬이 본 탓일까? 잔당세력은 그렇게 쉽게 몰락하지 않아 이들은

예순하고도 여섯날을 거칠게 투쟁하고 카에람의 수많은 카인의 핏줄들과 함께 산화했다.

『 태초의 몰락 』

마침내 마지막 남은 잔존세력까지 영원의 안식을 가져다 준 뒤에 카에람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카르밀라는 끌려가 왕가의 혈통 군주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차분하게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 말은 독이 배어있었다.

“영원의 전쟁. 아! 참으로 길지 않았나이까? 아벨의 자손과 수많은 시간동안 섞여있더니 가여웁게도 그들의 노리개로 전락했는가?”

그 말에 악의가 담겨있지 않으니, 그것이 악랄한 말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함이요, 그녀에게 있어서 그 말은 이미 저들은 구원따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악의 선에 서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카인.”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으나,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과 동시에 태초의 피 안에 담긴 모든 피를 끄집어내 자신 안에 담았다. 순수한 그녀의 피를 끌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피를 전부 몸에 담는 데에도 수많은 해가 지나야만 했다. 그렇게 마침내 태초의 피는 마지막 숨을 토해냈고, 그녀의 피를 전부 마시는 끝에 역함

을 느끼면서 마지막 한 방울을 뱉어내게 된다. 그 한방울은 태초의 피가 카인의 혈족들에게 남긴 연민이었다. 카인의 핏줄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태초의 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데아가 기록하는 태초의 피의 죽음 '태초의 몰락' 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었다. 그녀의 죽음으로 끝으로 암묵적으로 영원의 전쟁은 종언에 다다르고 있었다.

『 종언 』

태초의 피는 그렇게 영면에 들었지만, 왕가의 순수한 혈통이자 카인의 권능을 찬미하던 샤마인을 시작으로 여럿이 뒤이어 저들만의 방식으로 카인의 핏줄들을 다스렸다. 태초의 피, 카르밀라가 그토록 바라던 염원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더없이 강인하고 순수한 악의로 물든 카인의 순혈들은 창조주 에르아의 낙인을 이어가게 된다. 그 낙인은 영원의 전쟁 속에서 혹은 서로 다른 시간속에서 진화하여 낙인은 완벽한 죄악으로 눈을 뜨게 된다. 카인의 핏줄들이 짊어진 죄악은 이데아의 목을 죄고 이데아를 사는 모든 이들을 위협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는 조금 후의 일이었고 그저 암묵적으로 종언을 고한 지금 영원의 전쟁으로 지친 모두가 잠시동안의 달콤하고 불안한 평화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 남겨진 자들이 새긴 흔적 』

태초의 피가 몰락하고 영원과도 같았던 영원의 전쟁은 그렇게 끝마쳐지는가 싶었지만 그러함에도 영원의 전쟁은 한참이나 지속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전쟁은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식어버리게 된다. 명분이 사라진 것인가 혹은 전의를 상실한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바랬던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확실한 것은 전쟁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채로 막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 사이의 간극은 더욱 좁히기 힘들어졌다. 더불어 그들 동족 사이에서도 분열은 불가피했기에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접어들게된다. 간파된 자신들의 약점과 대재앙이 빚어낸 애매하게 매듭 지어진 종전 이후에도 남은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내고 있었다. 카인은 순수한 핏줄인 왕가의 혈통을 중심으로 순수하지 않은 혈족들을 카에람 밖으로 과감히 쳐내버리고 카인의 순수한 피를 이을 혈족들을 가다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밤의 아이들아, 우리 안에 흐르는 불손하고 더러운 피는 지워졌으니 그대들 안에 담긴 죄를 겸허히 마주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라.”

왕가의 혈통을 다스리는 군주가 카인의 핏줄들에게 일렀다. 오랜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그는 태초의 피 카르밀라에 의하여 자신들의 순수성이 더럽혀졌다고 여기었기 때문에 순수한 악의를 담지 못하는 자들을 선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여러 카인의 핏줄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둠의 낙인으로도 충분히 살아가기 위한 붉은 낙원을 불러 죄악의 어미를 강림시키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그것은 밤낮으로 피에 물든 순수한 악의가 탄생함을 뜻하였고, 그의 움직임은 이데아에 저들의 송곳니를 드러내어 이데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알리게 되었다.

『 광란의 새장 』

아벨의 자손들 역시 영원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크고 또 깊었으나, 그것이 아물어가는 가운데 아비의 죽음으로 빚어진 처참했던 전쟁과 그 아비를 죽인 후손들과 한 하늘 아래에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여전히 식을 줄 몰랐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합리적인 의심과 그에 합당한 온갖 이유를 방패삼아 만행을 저지르는 계기가 되는데, 델레놋은 공국에 포고령을 내리어 아벨의 방벽을 중심으로 아벨의 자손에 대항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다. 시작은 카인의 핏줄들이나 세트의 후예들과 접촉한 자들 모두를 불경한 자들로 치부하고 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많은 자들이 광장에 목을 매달리게 되어 교살형을 당하거나, 저들끼리 저잣거리에서 죄인을 묶고는 때리고 찌르며, 창에 꿰여 죽거나, 불로 지져 고문하거나 혹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 태워 죽이거나, 공터에 묶어두어 며칠을 먹을 것을 주지 않은채 산채로 갈가마귀와 들개들의 식사거리로 만들었다. 영원의 전쟁이 낳은 끔찍한

이 참상을 '광란의 새장' 이라고 불렀다. 아벨의 자손들이 아벨의 이름을 내걸고 무고한 자들에게도 죄를 돌렸고 쳇바퀴 돌리듯 심판과 처형이 밤낮으로 이어졌다. 시체를 소각하는 화형장의 불꽃은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못했고, 그 연기는 하늘을 뒤덮으며 잿빛으로 물들어갔다. 이와 같은 비극은 무고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겨눈 자들에게까지 되돌아갔고, 미쳐버린 빛의 심판에 죄짓지 않은 자들조차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 혼돈 위에 선 아벨론 』

공포의 새장은 그저 폭력 말고 다른 것들을 낳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자 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영원의 전쟁에서 아벨을 위해 빛의 곁에 다가간 전사들의 넋을 담아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줄 아벨의 성령을 채우고자 했다. 그러나, 광란의 새장에 담긴 저들의 피와 제물은 분노와 증오로 얼룩져 있었고 죽음의 대홍수로 비극적 결말을 맞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로부터 그 힘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이에, 델레놋은 그와 함께 영원의 전쟁을 치루었던 이들 가운데 아벨의 권능이 뚜렷한 선구자 키리에타라 부르는 자를 불러 잠겨진 아벨의 첫번째 자손의 흔적을 좇으라 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폭풍우에 잠겨진 저들의 자리에서 묘령의 여인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는데, 물길을 가르고 갈라진 물길 사이에 담겨진 기억의 조각을 들추어 보게된다. 그 조각들은 죽음의 폭풍우 속에서 죽어가던 아벨의 첫

번째 자손들이 남긴 유언이었다. 유언에 이르기를,

“비록 이곳에 우리 창조주의 눈물에 휩쓸려 바스러질 운명에 처해있으나 그것이 아벨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니, 우리 아벨의 첫번째 자손은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아벨의 품고있던 이상과 번영을 기록으로 남기노라. 시작은 아벨의 자손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굳건한 믿음을 세우라. 믿음을 기반으로 아벨의 모든 자손들에게 구원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진실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우러러보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라. 그것은 그저 벽돌로 쌓아올린 벽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인 신의 부름을 이루어내며 꺼져가는 아벨의 성령을 담는 믿음의 상징이 될 것이니 그것의 이름을 ‘아벨론’이라 하라.”

그리 적혀있음에, 그것은 어둠 충만한 광란의 새장으로 더럽혀진 아벨의 자손들을 씻어내고 저들을 굽어 살필것이라 하더라. 그 유언을 고이 전해들은 키리에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묘령의 여인은 또다시 아무말 없이 자리를 떠난 뒤였다. 홀로 남겨진 키리에타는 유언의 흔적을 품고 그것을 곱씹으며 돌아가 델레놋에게 이르나니, 델레놋은 남은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고 남겨진 유언을 따라 모든 죄악의 근원에서 해방되기 위한 아벨의 성령으로 가득찬 아벨론을 세울 것을 명하게 된다. 아벨의 방벽 가운데 우뚝 선 아벨론은 그 규모만큼이나 이를 세우는 데에도 수많은 세월이 걸렸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이 혼란 속에서 다시

금 일어서기 위한 상징이 되었도다. 이로 인하야, 공국 안에서 더이상 무의미한 학살은 줄어들게 되었다. 의심과 걱정 그리고 분노로부터 오는 모든 증오의 고리는 영원토록 씻어낼 수 없었지만 그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 퀼로른의 빛과 그림자 』

구원과 희망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벨론의 존재는 무언가에 기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일무이한 곳이였다.

비록 영원의 전쟁 이후로 광란의 새장이 불러온 참상은 죄없는 이들마저 공포에 떨게 하였으나,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유언에 따라 세워진 아벨론의 존재로 인하여 어느정도 그들 안에 담긴 분노가 순간 사그러들고 안식과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이들이 전쟁의 화마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어 공국 퀼로른의 문을 두르렸고 사자 델레놋은 두손벌려 이들을 받아들였다.

이에, 아벨론은 하루가 다르게 그 규모를 넓히어 나갔고 아벨론이 속한 수도 뿐만 아니라 공국 전체를 아우르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변방의 작은 도시에까지 공국의 예하기관을 두며 모든 이들이 아벨의 이름 아래에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힘쓰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버려진 폐허 사이에 남겨진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들이 위협하니 아벨의 방벽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델레놋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아벨의 방벽을 보수하기 위하 작업이 시작되었고, 방벽은 전에없는 웅장한 모습을 하게 된다. 이전과 달리 소수의 인력으로 더 강한 경계태세를 지닐 수 있을 단계에 이르렀다. 더불어 퀼로른을 감싼 아벨의 방벽을 중심으로 방벽 밖에 머물러 있는 아벨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정화와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칠

흙과도 같이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은 그 무엇보다 눈부셨다. 아벨론에 힘입어 공국 퀼로른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은 방벽의 품 안에 자리한 아벨의 자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살아있음에 기쁨과 안전한 보금자리를 보장받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퀼로른의 황금기라 하여 유구하고 찬란한 문명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공국 내에서 특정 분야에 뛰어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삶을 갈구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니, 저들을 이르러 '마이스터' 라 부르게 되었고, 이들의 즐비한 장소를 이르러 '길드' 라고 칭하였다.

이들은 문화, 예술, 건축, 의료, 과학,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아벨의 자손으로 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술적인 혜택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벨의 품을 보수할 수 있던것도 길드의 역량이 컸다. 여전히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아벨론의 창설 이래로 아벨의 자손은 전례없던 찬란하고 거룩한 문명을 이어나갔으며 부와 영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아벨론은 아벨에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어두운 삶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였다. 그러나, 공국 퀼로른의 국민들 뿐만 아니라 방벽 밖의 모든 아벨의 자손들이 아벨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이들은 지원을 아벨론을 맹싱하는 이들의 모습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의 생존을 위하여 피와 땀흘리던 국왕 델레놋도 마찬가지였기에 맹목적인 헌신하는 이들을 보며 한탄하게 된다.

“나의 헌신은 어디로 가는가? 영원의 전쟁 속 구원을 가져다 준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 긴 평화가 가져다 준 불만 』

이후로, 아벨론에 대한 델레놋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아벨론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는 수족처럼 부리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천천히 이루어졌고, 아벨론의 사제들을 그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로 퀼로른의 수뇌부로 발탁시키거나 공국 휘하도시의 대사로 임명하는 등 서서히 자신의 꼭두각시들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아벨론의 환심을 사기 위하야 공국이 과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아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헌금의 일부를 저들의 목을 축이고 배를 불리는데 쓰게끔 하여 아벨론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아벨론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델레놋은 저들과 공생의 관계가 되며 외부로는 방벽에 머무는 이들의 세금으로, 내부로는 믿음에 대한 헌금을 빨아대니 그의 식탁에는 달콤한 술과 기름진 음식이 마르는 날이 없었으니, 이토록 부정하게 쌓아온 것으로 오랜동안 누려왔던 평화는 델레놋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었고, 그 달콤한 평화로 공국은 안팎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본래 델레놋은 공국 퀼로른의 국왕을 포함하여 3대로 이어져갔으나 피와 살이 뒤엉켜 있는 영원의 전쟁 속을 살아오던 호전적이고 용맹한 피는 누구도 속이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이후로 안에서 끓어 오르는

폭력성을 풀 곳이 없었다. 이에, 위대한 델레놋은 과거의 영광에 취한 채 생을 마감하였고, 그 뒤를 이은 2세는 들끓는 사리사욕을 감추려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종국에 이르게 한 3세는 호색이나 폭력을 오락과도 같이 여기었다. 나중에 이르러서는 시중을 드는 궁의 여인 뿐 아니라 출처를 알 수조차 없는 여인들을 곁에 두면서 이들에게 재물을 하사했고, 구멍난 국고를 메우기 위하야 과한 징세를 부과하는 데에 이르렀다. 행여 그의 반감을 사게 된다면 투기장에 던져지거나 방벽의 밖으로 내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없이 따를 뿐이었다. 이 후, 델레놋이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이 후대로 갈수록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위대한 델레놋이 남긴 것이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과 향락뿐이요, 방탕하기 그지없는 생활과 과거의 영광 뿐이니, 퀼로른에 암흑이 도래하게 된다.

『 광기에 휩싸인 타락한 사자 』

장벽 안에서 델레놋의 자손들의 모든 횡포를 감내하고 지낸 이들에게 불씨를 제공한 사건이 있었으니, 국왕 델레놋 3세의 왕비와 그녀를 꼭 닮은 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서자는 많았지만 이름있는 핏줄을 이어가기를 바랐던 3대 국왕은 대를 이을 아들을 갖지 못하여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의 걱정과는 달리 공주는 현명하고 인자하여 충분히 퀼로른의 암사자로서의 덕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스스럼 없이 공국의 길거리를 자유로이 다니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으니,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그녀를 찬양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국왕 델레놋 3세의 심기를 건드리게 한 시발점이 되었고, 이제 그녀의 딸마저 시기하고 질투하였지만, 일말의 양심이 추악한 가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시켜서 거리에서 그의 딸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자들과 자신을 폄하하고 헐뜯는 자, 퀼로른의 위용에 먹칠을 한 자들을 색출하여 저들의 혀와 귀를 잘라붙여 광장에 내걸게 하였고 모든이들이 이를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적어도 목숨을 취하지는 않으니 스스로 나름의 자비를 베풀었다하며 돌 하나로 경고와 자비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으스댔지만 그 의견에 감히 반대하는 자가 나오지 못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시국에 바르고 올곧은 그의 아내는 모든 이의 입을 대변하야 국왕을 알현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쌓은 업만큼의 덕을 쌓으라”

라며 간언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이에, 델페노프는 많은 이들의 앞에서 자신을 깎아 내리었단 이유로 자신을 능멸하는 그녀의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두 눈을 뽑아 옥에 버려두니 오래 지나지 않아 퀼로른의 어머니는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왕은 자신의 장벽 안의 이들에게 나아가 자신의 딸에게조차 퀼로른의 어미가 산책을 나가던 중 카인의 핏줄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다 공포하고는 이 일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였으나, 진실은 멀지않아 이내 공주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자신의 어미를 죽음에 이르게한 아버지 델레놋 3세를 원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후로 공주는 낙담에 빠지어 궁을 벗어나 외부로의 출입이 잦아지게 되었으니, 국왕 델레놋 3세의 곁에서 아첨하던 자들은 공주의 존재를 마땅히 여기지 않았기에 부녀간의 불화를 틈타 저들이 한자리 꿰차기 위한 악질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의 방에 몰래 잠입하여 종이와 펜을 굴려 아비와 딸의 사이를 갈라놓는 글을 썼고 그녀의 인장을 마지막으로 서신을 봉하였다. 그 거짓된 내용을 델레놋 3세의 앞에 바치니 이성을 잃은 국왕은 궁 밖으로 자주 왕래하는 것조차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탐하는 것이라 여기고 스스로 거리를 다니며 거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그저 몸과 웃음을 팔아버린 창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그녀

의 옷을 모두 찢어 그리 좋아하는 길바닥에 살라며 광장에 묶어 방치시켰다.
그녀는 치욕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고, 그녀에게 물과 빵을 가져다 주던 이들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마침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녀 앞에 비웃음만을 남기며 마지막에 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를 투기장 위로 끌고 올라간 그는 초췌한 그녀를 한심한 듯 내려다보며 아벨의 자손을 영원의 전쟁으로부터 구원한 그의 칼끝은 추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딸의 가슴에 꽂히게 된다. 그 이후에 그녀의 시체는 델레놋 3세의 명에 따라 장벽 밖으로 버려 땅과 하늘을 사는 짐승들이나 카인의 핏줄 혹은 세트의 후예가 뜯어먹게끔 버려졌다. 그녀의 죽음은 델레놋 3세의 취향에 따라 오락과도 다름없이 투기장에서 이루어졌으니, 그녀를 선망하고 따르던 자들은 이러한 광경을 눈에 담고 충격에 빠졌다.

『 퀼로른, 그 영광의 마지막 』

자신의 옥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아벨의 자손들의 희망과 같았던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델레놋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델레놋 3세는 그 어떠한 자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깨를 맞대며 생사의 고비를 넘어온 교황 키리에타조차 신뢰치 못하였으니, 국왕은 아벨론에 몸을 담고 있는 그의 측근들과 담합하여 그를 몰아내고 아벨론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수복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아가서는 공국을 위해 힘쓴 각 지역의 군주들마저 이유 없이 잠정적인 반란분자라는 낙인을 내리고는 그들마저 척살하도록 명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즐기는 등의 만행이 계속되었다. 그것조차 오락이라 여기던 그는 투기장을 확장하여 그들을 던져놓고는 처절하고 진흙탕 튀는 싸움을 먼 발치에서 내려다보곤 했다.

그의 횡포는 끝이 없었고, 나중에는 망상에 빠져 개인의 처소의 문조차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더이상 아벨의 자손을 돌보려조차 하지 않았으니 공국에는 망국의 징조가 하나 둘 퍼져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이들이 혼란과 도탄에 잠겼고, 거리에는 온갖 죄가 만연하여 백성들은 원성이 늘어갈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델레놋 3세와는 달리 아벨론만큼은 아벨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키리에타는 델레놋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공국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힘썼고, 마땅히 국왕으로써 해야할 일을 묵묵히 도맡아 수행하였다.

『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

키리에타가 백성들을 굽어 살핀 이후로 독방 안에 칩거한 이름뿐인 국왕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국왕의 부와 명예를 탐하던 자들은 썩은 동앗줄인 델레놋 3세와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결국 공국 내부 가신들의 배신으로 인하야 쓸쓸하게 홀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백 하고도 쉰 일곱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게 된다.

한 때 아벨의 위대한 자손 중 하나로 혼란에 빠져있는 아벨의 자손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공국 퀼로른을 세워 카인의 핏줄들을 몰아내며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낸 자의 피를 이어받아온 자였으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고, 꿈과도 같이 달콤한 평화에 취하여 인색과 오만에 빠졌으니, 퀼로른의 사자 델레놋 3세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안은채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의 시신은 훼손되어 남겨진 흔적을 찾기 힘들었고 선대와 함께 무덤에 묻혀지지 못하였다.

국왕 델레놋의 외로운 죽음으로 국왕의 횡포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방벽 안에는 혼란이 남았고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인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또 다시 자신들을 이끌어 줄 자를 찾게되었다. 이에 키리에타를 중심으로 아벨론이 저들 가운데 서서 국왕의 곁에서 아벨의 자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믿음을 갈라버리려 하던 자들을 직접 심판하고 혼란을 잠재우며 아벨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번영 그리고 평화를 약속하였다. 그에 대한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굳은 믿음

이라 하니 이에 모든 이들은 감복하여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며 기도를 올렸고 아벨론은 퀼로른의 명목을 이으며 아벨의 자손들에게 광명이 비추는 길잡이가 기꺼이 되어주었다.

『 역사를 딛고 오른 자 』

영원의 전쟁 속에서 남은 자들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혹자는 사냥감의 목을 더욱이 죄여가며 저들의 야욕을 채우려는 가운데, 해박한 지식과 역사에 조예가 깊었던 세트는 이것을 이성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 했다.

“이데아에 피바람을 불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데아에 숨쉬는 자들이 미쳐있었던 까닭이라. 허면 무엇이 저들을 미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 시험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이데아를 주무를 수 있는 권능을 얻음이라.”

그 권능은 나아가 신과도 같은 위치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창조주 에르아조차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했던 변칙성을 품은 이데아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은 필시 창조주 에르아를 뛰어넘는 권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세트가 내놓은 대답이었다.

신이 되는 자는 비단 강인한 힘을 지닌자가 아니요, 신을 죽이는 자 또한 아니었다. 무릇 신이라 불리우는 자는 그의 업적을 칭송받아 후대에 역사에 쓰여져 비견될 자 없는 자가 바로 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확고해진 목적이 생긴 세트는 시험에 종지부를 찍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기위해 자신의 후예들이 자신의 이름을 찬송하며 신으로

받들게 할 그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역사와 땅에 새겨진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설령 피를 머금고 살로 뒤덮혀야 한다면 기꺼이 그러하였다. 기꺼이 역사는 피로 쓰여져야 함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저들의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후예들이 입을 모아 기술함으로써 저들의 새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두가 그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야 고개를 드높이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세트는 스스로 모가지를 굽이어 아랫것들을 살핀 것이었다.
영원의 전쟁으로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그마저도 시험이라고 여기는 자신의 부모가 이전만큼 전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세트가 보여주던 행동은 단지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을 보듬어주지 못한 어미와 아비에 대한 환멸과 복수에 가까웠다. 세트는 그의 후예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들로부터 나온 피조물 따위가 아니라 스스로 깨어난 창조주 그 자체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였고 자신의 머리에 수놓인 계획을 이데아에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신의 자리에 부합하는 옥좌가 있음이 마땅하였다. 그리고 그 옥좌 아래에는 이데아의 유일신이 되기 위한 신전이 필요하니, 자신의 후예를 불러 그것을 지으라 했다.
둘째로,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의 제약, 즉 이데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금약을 깨고 역사의 기록을 뒤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험과 연루된 모든 존재를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역사에 결정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숙청해야 마땅한 존재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세트는 자신들이 영원의 전쟁에 개입하여 발톱과 이빨을 드러낸 것에 대한 이유가 이데아를 어지럽히는 존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기 바빴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이었다.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

영원의 전쟁속에서 그들의 후예 사이에서 저들을 전율케한 그의 울음소리는 그의 후예들에게 빛과 소금과도 같은 것이었고, 전쟁의 막바지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의 종언에 그 무리를 물러 숲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토록 하여 신으로써 마땅한 자비를 보여준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트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감히 신을 시험하려드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와 감히 여깨를 견주려는 간악한 자들은 죽어야함을 외치기 시작했다. 세트가 이렇게나 분노한 이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이 있었다. 아벨와 카인은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어여쁨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아벨이 카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세트를 찾아가 이르기를,

“그래도 너는 아벨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형제가 아니더냐,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땅과 이름은 죽지 아니하였다. 너 안에 아벨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 이름‘아벨’을 짊어지고 그 뒤를 좇으라.”
하더라. 그 말은 자신들의 시험이 낳은 참상에 충격을 받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말이었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오만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심신이 지치고 무너져있던 상태였다.

에르아와도 같이 생명을 창조한 저들 스스로 전능하다 여기었기 때문에 전능한 자인 저희들 사이에서 나온 미숙아 세트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아왔던 이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세트였다. 누구를 대신하여 사는 삶을 원하는 자는 그 아무도 없을 것이기에 이들의 말을 세트가 반기지 않았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을 낳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것이기에 당장이라도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련만 세트는 가슴은 뜨거웠으나 머리는 차가웠다. 분노를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 판단을 후대에 떠받는 자들이 하게끔 자신의 심판을 미루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세트가 이르기를,
“언제나 그러하듯이 나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이가 아니라 자르갈의 후예요. 그리고 항상 터전을 빼앗은 그대들이 나의 어금니 아래에 피와 살이 온전함을 감사하시오.”

스스로 아비와 어미의 살을 찢어발길 수 있음에도 그조차도 살리는 자비를 보였다는 사실조차 그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으리라.
이바와 아다무스는 자신들의 오만으로 인하야 창조주가 내린 찬란한 보석 이데아의 색이 바래져 있음을 바라보고는 비탄에 빠지었고 눈 앞의 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눈으로 담았다. 과오가 더욱이 저들을 짓누르고 목을 졸라 고통에 빠졌으니 이것이 이데아의 역사가 최초로 기록하는 죄책감 이라는 것이었다.

그 죄를 어느 누구도 심판하는 이 없으나, 저들을 짓누르는 그 죄는 무거웠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오만과 죄가 낳은 역사를 돌아보며 그 만행을 곱씹고자 창조주가 내려주었던 길을 통하여 카할라 속에서 이데아 주위를 맴돌며 그 과오를 씻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들이 행한 그것 또한 이데아의 역사가 최초로 기록하는 속죄와 회개였다. 다만, 저들이 속죄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벗어나지만 세트가 자신들이 범한 우를 그대로 따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들이 못난 자신들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짓누르던 죄책감을 세트도 깨닫기를 바랐다. 이로 인하야 이데아에 그들의 죄책감이 내려졌다. 세트와 그 후예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세트와 세트의 후예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가슴을 짓누르는 중압감에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고, 이내 많은 세트의 후예들이 병들어 죽거나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수많은 변화와 변칙성을 일으킨 이 무거운 죄책감을 입을 모아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라고 하였고 그 저주로 기괴하게 면모된 존재들을 불경한 자들로 불려지게 된다. 그렇게 저주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면서 저주로 인하여 뒤틀린 자들 또는 역겨웁고도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르러 '아마테낙' 이라는 용어로 정립되었다. 그들의 의도와 달리 안타깝게도 세트만을 향해 있던 저주는 이데아를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에게도 스며들게 되었으니 이전에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만을 지칭했던 불경한 존재들이 이제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존재들까지 포함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 저주를 직접적으로 몸에 담고나서 세트가 고통에 몸부림하는 자들에게 기민한 정신력으로 연결되어있는 그의 후예들에게 이르기를,

"신을 질투하여 해하려는 간악한 자들은 기어이 나를 저주하며 끝내 이데아에서 물러났도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위해 짧은 정적을 삼키며 그가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우려는 거두어라. 내가 그대들의 심장을 옥죄는 저주마저 씹어먹을 것이다. 지금 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감에 몸과 심장은

돌이 되지만, 훗날 스스로 그것을 토해낼 것이니 그 동안 나 잠들리라. 그러니 나를 따르는 아이들아, 그대들은 그대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라, 그리고 약속의 때에 나 눈뜨리라.”

이윽고 세트는 신전 깊은 곳에서 돌이 되어 기약할 수 없는 긴 영면에 들게 되었다. 자신이 가까스로 남긴 자신의 후예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는 것으로 많은 이들을 지켜내어 살아남은 이는 자신을 칭송할 것이니,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려는 그의 계획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다.

『 굴레 』

태초의 낙원 이데아는 무수한 테르벨 가운데 창조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걸작일진대 그 곳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인하여 그 찬란한 빛을 잃고 죽어갔다. 이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오만을 시작으로 그들이 뿌린 저주 그리고 이데아윈 형벌로 스며든 일곱 가지의 원죄가 이데아에 겹쳐진 탓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남긴 저주는 세트와 그의 후예를 병들게 하였고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감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뒤틀린 외형을 한 불경한 존재들을 만들어냈다. 영원의 전쟁 그 이상의 추악한 존재들로 뒤덮혀져 이데아는 영롱한 그 빛깔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은 죽음의 굴레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경한 자들이 만연한 이 땅에 빛의 권능과 신의 은총으로 구원과 희망 그리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아벨의 자손들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창조주를 죽이고 죄악의 돌을 복원하여 자신들의 낙원을 찾고자 하는 카인의 핏줄들과, 스스로 신의 자리에 군림하여 역사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세트의 후예들이 서로 뒤엉키고, 서로의 신념을 부딪히며 서로의 피가 땅에 뿌려지길 마다하지 않는다.

영원의 전쟁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 이데아는 이제 몇번이고 다시금 찢어지고 깨지고 부수어지며 그곳에 남겨진 존재들의 피와 살을 항상 머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원하던 것이 아니요, 이바와 아다무스의 의도한 것도 아니니, 이데아에 영원을 기약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투쟁일 뿐이다.

아벨의 자손은 불경한 자들을 죽여 아벨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 칼을 들 것이고, 카인의 핏줄은 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의 피로 목을 축일 것이고, 세트의 후예는 신이 되기 위해서 역사에 새겨진 거짓들을 물고 찢어 죽일 것이니, 이데아에 남겨진 모두가 자신들이 목도하는 것들을 위해 피를 뒤집어 쓰고 살고 죽을 것이다.

오직 고통과 분쟁, 배신을 동반한 암투와 추암함만이 이데아를 뒤덮게 될 것이니,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은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어느 누가 선이고 어느 누가 악인지 그 경계는 희미해져 그 누구도 쉬이 판단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도, 이바와 아다무스도 정해주지 않으니,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하고 또 그것을 관철해 나가야 할 따름이라.

『 추신 』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아. 처절하게 흘린 피 속에서 일어나 이 땅에

바로 서서 고개를 떨구지 말고 그 역겨운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에 고이 담으라. 이로부터 등을 돌려 과거를 돌보지 않는 자는 결코 앞을 내어다 볼 수 없다. 역사의 굴레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저 형태만을 달리 할 뿐, 본질은 계속되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계속될지니 그대는 그대의 아이의 아이가 저지른 과오를 몇번이고 반복할 것이다. 부디 바라건대 나의 기록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여. 그대 역시나 죽고 죽이며, 먹고 먹히는 세상 속을 살고 있으니, 이 땅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지 낙원에 새긴 흔적과 함께 보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라노라. 이에 나는 기록하는 자로써 내가 새긴 기록을 전하매, 이를 몇번이고 소리내어 읽고 기록하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말라.”

창조의 기록 — 테르베르닉 마침.

『 상투스, 빛과 구원. 아벨의 사자 』

“보라, 숨막이는 평화가 아닌가.”

느닷없이 어둠을 찢고 나온 목소리에 놀라 내가 물었다. 차가운 거미줄에 매달린 듯 나는 무기력하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나 빛이 가까이 눈 앞에 있음에도 나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것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깊고 어두운 공포였다.

“예?”

“고요하고도 평화롭다. 남겨진 건 서른인가? 허나, 불쾌하게도 눈부신 빛속에서도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움과 어둠이 흐르는구나.”

나의 물음을 무시하고 넋두리하듯 안타깝게 던지는 그의 말에 거침없이 종이위를 춤추던 펜이 잠시 멈추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할 시간을 주지도 않으려는 듯이 그는 갑자기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은 다음 발걸음을 내딛자 나는 홀린듯이 그의 뒤를 쫓았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려져 황량한 땅이 되어버린 방벽 밖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이곳은 평화롭고 따스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어스름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림자가 짓는 표정처럼 형용할 수 없는 무겁고 소름끼치는 분위기가 깔려져 있었으니 그가 말한 숨이 막힐 정도의 무거움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느껴진다.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빛속을 탐하려는지 어미의 품과 같은 따스함에

도 온몸으로 거부하는 묘한 감정을 뒤로한채 우린 이 곳에 도착했다.
“오, 아벨.”
자신도 모르게 입밖으로 새어나왔는지 자신도 놀란듯 하더니 그의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퍼지는 것처럼 보였다.
나 역시도 영원의 전쟁 전후로 오랜 세월을 아벨의 자손들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자리한 상투스의 장엄한 모습에 경탄하고 또 압도되었다.
“이곳이 아벨의 자손들에게 첫번째로 새겨진 상투스라 불리우는 곳이군요.”
입은 다물어지지 않고 그저 저 하늘을 향해 솟은 그 모습을 눈에 다 담으려 했는지 펜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하늘에 닿고자 함인가? 혹은 하늘 아래에서 우릴 내려다볼 심산인가? 어찌 이리도 오만한 것인가?”

그가 내뱉은 말에는 감정은 담겨있지 않았다. 난 어찌 대꾸해야 할지 모르고 말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잠시동안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로 상투스의 전경을 미간을 찌푸리며 보더니 입을 열었다.
“가자.”
난 말없이 그뒤를 따랐다. 상투스 내부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짓누르는 공기에 잠시나마 숨을 쉬는 법을 잊은듯했다. 구원을 바라는 곳이라면 느껴져야 할 신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절박함이

내 숨턱을 막아버린다.

“무거웁다. 참으로 무거웁도다.”

그의 탄식이 새어나왔다. 빛의 폭포가 쏟아지는 낙원이라 생각했을 뿐 이리도 무거우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예베당은 기도하는 자들로 붐비었으나 그 누구도 이 고요함을 깨려는 자가 없고 그저 옷깃 스치는 소리만 맴돌았으니 그것은 나의 등골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 상투스 사제들의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 세례가 시작되는구나.”

상투스 건립 이후 아홉의 교황이 반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어왔으나 저들 이후로 빛은 바래지고, 아벨의 권능을 담은 자를 선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열번째의 교황이 나오지않자 상투스의 움직임은 더욱이 분주해졌다. 오랜 침묵을 깬 낮은 목소리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뒤쫓아 걸었다.

“근심을 거두라 형제여, 빛의 그대를 거두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실 것이라.”

뒤따르던 어린 사제를 인솔하던 사제가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독려의 말이 아니었으니, 그 말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매여.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발걸음 소리조차도 희미하게 들리는 거대한 홀을 지나 나는 묵묵히 저들과 함께 예배당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된다. 저들은 세례를 행하기 위한 방으로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문을 두드리고는 짧은 대화가 오고갔다. 문이 열리고 저들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빨려들어간다.

“키리에타, 마비오나, 세르파, 크라테르, 레비에, 피오라, 이르기스, 파라크, 세라하.”

그들의 뒤를 따르는 가운데 예배당을 가득채우는 아홉교황의 이름은 기도하는 자들 사이에서 멈추질 않았다.

정적속에서 비명과도 같이 문이 닫히는 거슬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난 이곳에 있다. 원형의 거대한 공간 한 가운데 성수를 머금은 거대한 성배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아치형의 천장 위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빛이 사뿐히 내려앉아 있었다.

“아벨의 성배.”

내 무심코 뱉은 그 소리가 다소 컸는지 앞에 서 있던 그가 팔을 올려 나를 제지하는 듯했고 동시에 아버지라 부르는 고위의 사제로 보이는 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 뒤로 쏟아지는 빛은 그의 등장을 더욱 극적인 광경을 자아냈다. 한껏 고양된 사제들이 고개를 숙이어 그를 맞이한다.

그 역시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어린 사제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짓하여 그녀를 물러나게 하였다.

“가보시오, 자매여. 그리고, 어린 형제여 이리 가까이 오라.”

그녀가 다시금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날 때까지 아버지라 부르는 고위사제의 시선은 눈 앞의 어린 사제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짐승. 먹이를 눈 앞에 둔 짐승의 눈이 저리하도다.

“이름.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린 사제에게 물었고 어린 사제가 이에 영광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애로운 웃음을 보이며 성배에 담긴 물에 손가락을 적시어 어린 사제의 이마에 대자 세례는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어린 사제에게 이르나니,

“아벨의 어린 양이여, 기도로 답하라. 아벨의 진리 위에 그의 자손을 지키고 살며, 빛을 섬김에 있어 의심을 거두고 그의 사자가 되어 태초의 낙원에서 비롯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라.”

어린 사제는 이에 답하듯 아벨의 성배 앞에 성스러운 언령을 읊조리는 듯하더니, 성수는 그 빛을 더하더니 이내 방 안을 빛으로 가득 메우게 했으며, 빛은 둘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신발 위에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고, 다시금 고요함과 정적이 남게 되었다. 찰나였지만 난 구원을

보았다. 기적이 있다면 이곳에서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들 정도였다. 아버지의 축복속에서 절제된 둘의 모습은 기록하는 나의 손을 멈추게 할 정도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 뒤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 둘은 속삭임을 이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둘 사이엔 고요함 뿐이었다. 둘의 시간은 멈추어 있었고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모습에 입은 얼어붙었고 발을 뗄수조차 없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어린 사제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고 아벨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세례의 끝을 고하였다. 그는 어린 사제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는 세례를 훌륭히 마친 어린양을 기특하게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그 미소는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야 상투스에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된 자애로운 웃음이었고, 그 웃음에 담긴 의미는 컸다.
아버지는 어린 사제의 앞길에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사를 건네었다. 어린 사제도 아버지의 웃음으로 긴장이 풀리었는지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린 사제는 세례가 행한 장소를 뒤로한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 어린 사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얼굴은 다시금 싸늘하게 식었다.

“오, 아벨.”

아버지가 말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아버지는 어린 사제가 떠난 그 자리에 시선을 둔 채로 답하였다.

“들어오라, 자매여.”
“저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 사제와 동행했던 자매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아버지께 물으니 아버지라 부르는자는 관심조차 없는듯 형식적으로 답하였다.
“훌륭한 그릇이 될 것이라. 빛의 성배를 채울 자임이 분명하도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감추지 않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미소는 눈부셨지만 불쾌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구원의 빛이자 아벨의 사자가 되어 희생도 불사할 역군이 될 것이니, 그의 희생에 감사하여라.”

“그 역시 적합하지 않았나보군요.”
“그리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다. 아벨께서는 아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는 자매를 지나치며 미끄러지듯 그 곳을 빠져나갔다. 그녀 역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아버지를 뒤따랐다. 난 아벨의 은총이 가득했던 그 장소에 홀로 남겨져 주위를 다시금 눈에 새겼다.
다시 보아도 소름끼쳤다. 한숨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나의 반응을 느꼈는지 나에게 물었다.
“구원이라 부를만한 것은 이 자리에 있으니, 그것은 많은 이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서 등조차 돌리지 않은채로 우두커니 서서 아벨의 성배를 바라보며 미동조차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나서 나는 목에 차올라있던 말을 쏟아내듯이 이어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지나칠 정도의 희생 뒤에 펼쳐지는 구원이 어떠한 색을 하게될지 불안할 따름입니다.”
그는 내게 고개를 살짝 돌리고는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상투스에 발걸음을 한 뒤로 처음보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미소지으며 말했다.

“돌아가자.”

그러나,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그리고 구원의 색의 뒤편에 드리워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에게 대답을 얻지 못한채로 나는 그저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나는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뒤에 아벨의 품 안에서 상투스라는 이름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바라보지 않아도 눈이 부신 까닭은 우리안에 자리하고 있는 깊은 어둠 때문이 아닐까?

『 심판하는 자, 정의의 저울. 이르메스 』

상투스의 빛을 본 뒤에도 나는 진정으로 아벨론이 바라는 구원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였다. 망설이고있던 펜은 그저 나의 복잡한 마음만 휘갈겨 적어놓았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교황청을 뒤로하고 우린 하염없이 걸었고 어느새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다.

“어디로 걸음하십니까?”

매캐한 그을음에 숨이 턱 막히는 듯해 입을 막은 뒤에도 그 불쾌한 공기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구원이 무슨 색이냐 물었더냐?”

그는 목적지 대신 내가 물음한 답을 알려주려는 모양이다.

“예? 아, 예. 분명 상투스를 뒤로하며 그리 물었지요.”

나는 놀라 다시금 펜을 붙잡았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무거운 중책이다, 다만, 그것을 짊어지는 이는 적고 이에 매달리는 이는 셀 수도 없이 많다. 그저 바라기만하는 자는 빛에 눈이 멀어 그 이면을 보지 못한다.”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인가? 무엇을 전하려는지 다소 모호한 그의 대답에 난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그 것을 기록에 옮기니 그는 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그 무거움을 홀로이 견디지 못하니 상투스는 얄팍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한들 방벽 밖의 불경한 자들이 더러운 숨결을 토해내며 걸을진대 어찌 힘 없는 자들이 발 뻗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니 그는 한숨을 쉬고는 짧게 답했다.

“이르메스를 맞으러 간다.”

“이르메스라 하면 아벨론의 두번째 가지라고 불리었던 자들이군요.”

“옳다, 그렇다면 저들이 기도하는 두 손에 총과 칼을 쥐게된 까닭을 아느냐?”

“기도만으로 불경한 자들을 대하기 부족했던 탓입니까?”

“옳다, 그렇다면 기도만으로 불경한 자들을 대하기 부족했던 까닭을 아느냐?”

“그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해 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이 아닙니까?”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다시 물었다.

“아니지, 비단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였다면, 상투스의 빛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정화하고도 남았을 테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구원의 색을 물었느냐? 구원을 바라는 형태를 찾으려 하는데 굳이 이르메스로 가려는 까닭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무슨 대답을 바라기에 이리도 묻는 것인지 한참을 고민하던 찰나 그는 해가 떨어졌음에도 붉게 물든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했다.

“상투스의 빛이 발하는 구원은 마음의 안식과 안정이고, 이르메스가 발하는 구원의 색은 불꽃으로 남은 잿더미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향하는 구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도 원하는 본능이나 다름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가? 정치와 행정 그리고 실질적 국가형태의 운영을 도맡아 방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 사회 안팎으로 균형과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그저 명목 뿐이었던가? 생각이 그리 정리되고 나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빛의 그림자와도 같아 종교와 신앙으로 억눌려진 저들 뒤에는 폭력과 업화의 불꽃과 사슬로 졸라 죽이는 쾌락을 제공하며 심판하는 존재들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붉은 노을과도 같았던 그것은 노을이 아니었다.

“그러니, 저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라. 저것도 구원이라 부르는 것이니.”

그가 턱끝으로 가리킨 그곳으로 나의 시선이 향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는 것도 무시한채 밝게 타오르는 화염은 우리가 이르메스의 대법원 근처에 다다랐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매캐한 공기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르메스 대법원 광장에 다다른 우리는 그 가운

데 굳건히 서있는 돌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는 수많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발..라..도? 옛 말로 써져있어 읽기가 힘듭니다.”

“바르샤딘을 말하는 것인가? 이르메스, 아니 아벨론 최초의 법전이다. 마땅히 발시아가 지녀야 할 도리란 뜻이다.”

“발시아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역시 인간을 부르는 옛 말이다. 그대는 기록하는 자이니 옛 말을 알아두어 나쁠것 없을테지.”

그는 나의 무지를 조소로 나무랐고, 그 와중에도 시체타는 냄새는 더욱 진해져 갔다. 수없이 맡아본 냄새임에도 도저히 익숙해 지지 않은 탓에 난 눈을 찡그리고 코를 가리며 그곳을 지났다. 이 또한 마땅히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들 중 하나라면 이들이 인간의 껍데기를 벗고 가면의 뒤에 서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힐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때가 되면 과연 그들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오라.”

그가 태연히 나를 불렀고 난 대법원을 향해 발걸음을 하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우리는 중앙 접견실에 도착했고 그곳은 역시나 수많은 인파로 붐비었다.

“투기장에라도 온 것인가.”

난 어수선한 분위기에 혼잣말을 뱉었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왠일로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그들 사이를 가르며 분주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우리는 그칠줄 모르고 피어오르는 심판의 불꽃을 따라 우리는 마침내 대법원이라 새겨진 앞에 도착했다.

그 앞에는 심판을 집행하는 앳되어 보이는 법관이 눈에 밟혔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어째서인지 동요하고 있었다.

"판결의 때입니다, 일리가 법관님. 드시지요."

서기관의 안내에 법관은 깊은 숨을 토해내고 법정 안으로 향하는동안 절그럭거리는 사슬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것이 통과의례라 하는 그것이군요."

그의 모습을 눈에 담고 내가 말했다. 대법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적합한 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위한 절차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다.

서기관이 잠시 망설이고 있는 어린 법관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글로 새기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진정 심판관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 법관은 마침내 다짐한 듯 눈빛을 바꾸었다. 이러한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그도 구경거리가 생긴듯 내게 말했다.

"들라."

고개를 끄덕이고 난 그와 함께 대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눈 앞에 담긴 모습은 두말할 것 없는 마녀사냥이다. 영원의 전쟁 이후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서 그릇된 일을 뉘우치지 않고 교황청이 생긴 이후로도 여전히 자행되어 온 것이다. 판결은 무의미해 보였고, 사건은 아무런 반전없이 빠르게 종결되었다. 모든 것이 눈깜짝할 새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내 형벌은 내려진다. 그것은 죽음. 안에 있던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다. 사슬은 죄인의 몸을 옭아내고 금새 불꽃이 일어나 소각시켰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죄인의 절규에 판결을 지켜보는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미친듯이 고조되었다. 환호는 장내를 울렸고 내 귓가에 메아리쳐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스스로 심판하고 죽일 용기조차 없어서 다른이의 손을 빌어 결국은 피를 부르며 환호하는 저들을 보라.”

그의 음성이 나즈막히 들리었고 그의 말에 난 정신을 차리고 그 광경을 눈에 담았다. 잿더미를 남기고 나서야 심판은 끝이났다. 멀리서 판결을 지켜보던 대법관으로 보이는 자가 일라가라 부르는 법관의 어깨에 손을 가벼이 올리며 그에게 속삭였다.
“훌륭한 판결이나 아직 무르다. 판결에 사사로운 감정을 담지 말라.”
그리 말하고 떠났다. 죄의 무게보다 영원의 전쟁의 잔재가 남긴 증오가 더 무거웠다. 법관은 행여 그것 때문에 눈이 멀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자리를 비우고 난 뒤 법관은 홀로 대법원 안에 남아있었다. 자리 한켠에 풀썩 앉고는 허리를 굽힌채 얼굴을 쓸어내렸다.

“쉬고 싶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의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었다. 한참을 무기력하게 있던 그 법관은 일어나 우리 사이를 지나쳐갔다. 그가 대법원을 나간 뒤로도 우리 사이에 침묵이 앉았다.

“구원의 색이 무엇이냐 묻지 않았는가?”

침묵을 깬 것은 그의 물음이었다. 교황청과 전혀 이질적인 모습을 하는 그조차 구원이라 부르니 언짢음에 언성이 높아졌다.

“정의란 말 뒤에 숨은 폭력과 파괴, 오늘 내가 본 이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니더냐?”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였다. 나는 마른 목소리로 힘겹게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체 무엇을 위한 균형이며 정의인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그리고 뒤에 따르는 무게도 저들의 몫이다. 보아라,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저울에 달아 판결을 내리는 작업이 손쉬울리 없다.”

“…그리고,”

그는 쉼없이 말을 이어나갔고 나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한참을 기다려줬다. 그리고 비로소 안정을 찾은 내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늠하고 결정하는 것은 기록하는 그대가 아니라 그 기록안에 살아가는 저들이라.”

묵묵히 펜을 끄적이며 듣고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답했다.

“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의 일렁임에 맞추어 펜은 다시금 춤추었다.

시체 타는 냄새는 끝을 몰랐고, 이르메스의 밤은 뜨겁고 매캐했다.

『 마르나크, 아벨의 방패. 강철의 심장 』

새벽녘 어둑한 하늘은 얇은 빗줄기를 떨구었고, 우리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저 멀리 먹구름이 자욱하여 빛마저 고개를 돌리니 이내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지더니 대지를 차갑게 적신다. 걷는 동안에 난 아무 의미없이 회중시계를 꺼내어 보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현듯 걸음을 멈추더니 나에게 물었다.

“공국 퀼로른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

대뜸 그가 묻자 내가 망설임없이 답하였다.

“아벨의 자손을 하나로 뭉쳐 전례없는 영광의 국가였으나, 쇠퇴하고 몰락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대로 아벨의 자손을 일으켜 세운 퀼로른은 실로 위대했다. 흩어진 아벨의 자손들은 퀼로른의 이름 아래에서 한데 엮이며 영원의 전쟁을 견디어냈고, 후로도 아벨의 자손들이 그 뒤를 계속 이어나가게끔 만든 주춧돌이나 다름없는 나라였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마르나크라는 자들을 아는가?”

“알고 있습니다. 퀼로른의 재건을 꿈꾸는 아벨의 자손들이 한데 모여 그들을 열과 성을 다해 지키는 강철심장을 지닌 방패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리로 향하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행여 이전에 말했던 다른 형태의 구원이라면 이제 더이상

저들조차 대하고 싶지 않군요."

내가 진저리를 치며 대답하자, 그는 무시하듯 설명을 이어갔다.

"사람을 구하는 형태는 저마다 다르지 않겠는가? 지금껏 보고 기록한 이들 셋이 자리한 곳을 아벨론이라 하여 신앙과 행정과 군사의 도리를 다하며 아벨의 자손을 지키는 자들이니 눈에 깊이 담아 두거라."

"군사들이라 하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자들일 터인데 어찌 종교나 정치의 무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야 너무나 간단하게도 총과 칼에 피를 묻히며 자신들도 핏빛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평범한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과도 같이 사람 냄새가 났었던 까닭이라."

"그것은 마치 총과 칼 따위로도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옳다. 다만, 그저 총과 칼로만 구원을 찾으려 한다면 도적과 다를바 무엇이랴. 그러나, 이들 마르나크의 소망은 오직 아벨의 자손의 안녕을 위함이지 인간 위에 서기 위해 총과 칼을 든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는 더욱 어둡게 내리 깔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빗줄기가 거세어 온다."

빗속을 걸으며 그로부터 들은것은 마르나크가 상투스의 설립된 한참 후

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영원의 전쟁 이후 퀼로른을 지키려던 공국 수호대는 와해되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퀼로른의 기사들로써 자신의 사명을 잊지않고 자각하며 별개의 무리로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과 같은 형태로 시작된 것들이 그 규모가 거대해진 것이었다. 불경한 자들을 정화하고 심판을 이어나가도 아벨의 방벽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간절히 필요했던 터라 물리적으로 아벨의 방벽을 수호하는 군대를 필요로 한 것이다. 다만, 옛 퀼로른의 이름 아래 싸움을 이어온 군대는 자긍심이 높아 이들의 아래에 있길 원치 않아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마침내 이들은 상투스와 이르메스와 여깨를 견주는 독립된 국가로써 거듭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새 마르나크의 진지에 도착한 듯, 그는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르키며 내게 말했다.

“아벨을 지키는 방패가 보이느냐?”

나는 눈을 찡그려 쏟아지는 빗속을 응시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겨우 보일 정도였기에 나는 몇 걸음을 더 걸어서 저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그러나, 그것이 아벨의 방패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행색은 결코 아님을 깨달았다.
변방에 허름한 텐트와 간신히 일렁이는 불빛 사이로 팔짱을 끼고 등을 맞대 추위를 녹이는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전선을 응시하는 얼굴에는 초점이 없어 피로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빗소리 때문에 겨우

들렸지만, 이내 그것은 굉음이 되어 점점 가까워짐이 느껴졌고,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진흙탕을 거칠게 달려오는 차량소리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바리케이트 치워, 빨리!”

누군가 차량에서 창문을 열어제끼고 상반신만 겨우 내민채로 다급하게 소리쳤다.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며 초소 앞을 막고있는 철골의 방벽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차량은 거칠게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내달렸다.

“그대가 내게 구원의 색이 무엇이라 물었던것을 기억하는가?”

“이번에 또 내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내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강철의 심장이란 이름을 짊어진 자들을 보면 알게 될 것이야.”

강철의 심장이 갖는 의미를 몰랐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 깊이있게 고찰할 시간따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야전의 막사에 들어가기위해 천막을 들추고 난 후였다. 그 곳에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우리를 휘감았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욕지기가 올라왔다. 펜을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듯 했다. 아니 너무 꽉쥔 나머지 피가 배어나오는 것조차 몰랐다. 붕대로 배어나오는 핏줄기를 막으려 손으로 억지로

부여막는 부상당한 자들로 즐비했고 여기저기 고통으로 막을 수조차 없는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새어나왔다. 여기저기에서 분주하게 들것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위생병들은 아무런 표정없이 그들을 간호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조차 고통스럽게 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었다. 그러나 그가 나에게 차분히 말했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

“이봐, 탈러! 고개를 돌리지 마. 옆에서 말을 계속 걸어줘.”

군인 하나가 죽어가는 전우를 바라보는 이의 어깨를 움켜쥐며 그와 동시에 말했다. 이를 바라보던 그도 미소를 보이고는 턱짓을 하여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라는 듯했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했던 말을 되뇌이며 그의 마지막 숨을 함께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너무도 길었다. 그때, 차량에 실려온 무언가를 향해가는 그의 움직임에 나도 반사적으로 그들의 뒤를 따라 막사 한켠에 자리한 의무실로 향한다.

실려온 것은 부상병이었고, 안타깝게도 그는 아벨의 자손이었지만 이젠 전혀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불경한 존재로 뒤틀려가고 있군요.”

내가 나지막이 입을 떼자마자 동시에 막사밖이 이내 시끄러워지더니 천

막을 거칠게 제끼고 군인 하나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급하게 그것에게 무너지듯이 다가갔다.

“진정하라, 로렌. 이미 손을 쓸수 없다.”

그녀의 상사로 보이는 자가 그리 말하고는 그녀를 위로하는 말을 건네보이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채로 텅빈 목소리로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상사의 손을 뿌리치는 그 병사의 눈은 요동쳤다. 그녀의 상사는 더이상 제지하려 하지 않았고, 병사는 천천히 뒤틀린 그것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구속구와 주사바늘이 꽂힌 채 신음을 토하는 그것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이전의 형체를 간신히 유지하는 그것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은 듯 꿈틀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이빨을 딱딱 거리며 기괴하게 그녀를 향해 목을 꺾었다. 마치 피와 살을 탐하려는 듯한 돌발적인 움직임에 그녀의 상사가 급히 몸을 돌렸다.

“내 이럴 줄…”

상사가 그녀를 잡아채려는 그때 낮은 음성이 천막 안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했다.

“…로렌.”

“탕!”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방아쇠가 당겨졌다. 그것의 입에서 새어나온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 안에 억눌려있던 감정이 한번에 쏟아져 나왔고, 손 쓸새도 없이 그것의 목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를 제외한 이들을 의무실 밖으로 내보냈고, 쏟아지는 거센 빗소리 때문에 그녀의 울음소리는 천막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나 역시 그 울음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저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강철의 심장이라는 이명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분명 이 참상을 보지 못한 자들이 그저 속편하게 부르는 것이었기에 천막을 신경질적으로 걷어내고 난 처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먼저 밖으로 나왔다. 그도 잠시 뒤 나를 따라나와서 내게 물었다.

“강철의 심장을 하고 있기에 아벨의 방패가 이렇게나 두터운 것인가, 아니면 아벨의 방패이기 때문에 강철의 심장을 지녀야만 하는 것인가? 복잡한 감정을 누르고 그의 물음에 난 생각하지도 않고 대답했다.

“강철의 심장을 지니지 않았기에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까?”

“옳다. 강철의 심장을 지니지 않음에 등 뒤에 있는 것을 지키기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

내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한참을 그 대답을 되뇌이고는 내게 담배를 건냈다. 나는 담배를 건네 받고 불을 붙였다. 비 때문에 쉽게 불이 타오

르지 않아 몇번을 다시 붙였다. 깊게 마시고 토해낸 담배연기는 하늘을 향해 덧없이 흩어졌고, 그 사이로 로렌이라는 병사가 의무실 밖을 나왔다. 조용히 장비를 챙겨 다시 전선을 향해가고 상사는 아무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구원을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 나는 다시금 짜증스럽게 담배연기를 거칠게 토해냈다. 담배연기는 탁한 하늘과 하나되어 뒤엉키더니 이내 흩어졌다.

구원의 형태는 다양하니,

빛의 권능을 보았고, 잿빛 폭력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 물든 헌신을 눈에 담았다.

“돌아가자.”

“후…”

한참을 멀어지는 저들을 바라보고 난 뒤 그가 내게 말했고, 마지막까지 한 홉을 깊게 들이마쉰 뒤, 나는 담배를 땅에 비벼끄고 다시 그의 뒤를 따라갔다.

『 재앙을 부르는 자, 북방의 야수. 발루 』

능선 하나를 넘을 때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정신이 멀어졌다.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거세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행여 들리지 않을까 내가 소리쳤다.

“윈뒤르강으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혹한을 품고 있는 협곡 윈뒤르강으로 간다면 그 말인 즉슨 야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을 맞이하러 간다는 뜻인데, 어째서 그리도 황량한 곳의 미개한 것들을 기록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찰나에 그가 내게 물었다.

“그대는 윈뒤르강의 이들을 대한 적이 있는가?”

그가 고개를 돌려 내게 물었다.

“없습니다만, 저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교류하지않아 야만인이라 불리우는 족속들이 자리한 혹한의 땅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을 야만인이라 불리우는지 아는가?”

“그야 당연히 문명과 동떨어진채 스스로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 뿐이라면 저들을 전통적이라 하겠지만 야만인이라 불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들을 두려워 해서다.”

나는 의문이 들었다.

“문명을 살고있으며 아벨의 권능에도 눈을 뜬 자들이 황량한 협곡속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야만인 따위를 어찌 두려워 한답니까?”
내 대답을 예상하기라도 한듯 그는 만족한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허면 묻겠나니, 인간이 천둥과 벼락 그리고 이 땅의 혹한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찌 한낱 인간이 재앙에 맞선단 말입니까?”

“저들이 바로 천둥과 벼락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면 천둥과 벼락, 혹한의 폭풍이 저들에 답이라도 한단 말인가? 애초에 인간의 몸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우리는 재앙이라 불리우는 전사들을 맞으러 갈 것이다.”
이윽고 저들을 향해 발걸음을 할 수록 기이한 불협화음이 나의 귀를 괴롭혔다. 몸의 균형을 쉬이 잡을 수 조차 없었으며 이명과 흩뜨러진 집중력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가 아프고 몸을 겨누기가 힘듭니다.”
“윈뒤르강이 품은 돌이 외치는 울부짖음이라.”
그가 웃으며 말했다. 가는 길마저 외부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듯한 거친 환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간신히 몸을 가눌 수 있을 때 쯤 협곡 아래로 산사태가 몰아쳤다. 그리고 그것은 자비없이 그 일대를 새하

얗게 뒤덮었다. 그리고 한참동안 고요함과 적막함이 일었다. 그 적막을 깨는것은 벼락과도 같은 남자의 외침이었다.

“셀라! 오는가?”

바로 곁에서 외치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는 협곡 아래를 가득히 메웠고, 나는 사내의 포효에 깜짝 놀라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씨발!”

눈 속에 깔려있던 서릿빛 머리결을 흩날리는 여인이 고함과 함께 거친 말들을 뱉어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녀의 외침이 협곡사이에서 울려퍼지자 산사태가 일었다. 이들이 가벼이 나누는 대화만으로 협곡은 그들에게 응답하려는 듯 전율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쉬이 멈출 것 같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버지. 나에게 폭풍우는 자장가입니다.”

아비는 유쾌한 웃음을 지으며 오라 손짓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에 눈무더기를 털어내며 소리쳤다.

“벼락을 느끼고 폭풍우를 기꺼이 끌어안으라.”

“예! 알고 있습니다.”

눈발이 어깨에 사뿐히 가라앉았다. 아비는 손으로 쓸어내리며 딸에게 건네고는 손을 움켜쥐었다.

“눈발은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으니, 부정한 것을 얼려버리는 기적의

문양으로 태어난다.”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하! 이 작고 멍청한 것아! 기적의 문양들은 결코 머리로 아는것이 아니다.”

아비는 그녀의 머리를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머리가 날아갈 듯한 매질에 그녀의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어째서인지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저들의 대화는 나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부녀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사들의 대화였다. 아무리 어리다 한들 그녀는 윈뒤르강 혹한의 땅에서 나고 자란 존재였다.

“따라와라, 꼬맹아. 폭풍우를 일러 가자.”

아비는 딸에게 고함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저들의 대화를 멍하니 보고 있던 나를 보고 그가 내게 말했다.

“야만인들의 기적을 보지 않겠나?”

그제서야 흥미가 생겼다. 그 잠시동안의 조우에서 어째서 아벨론의 이들이 이들을 야만인이라 부르고 그들을 재앙이라고 부를만큼 두려워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시대는 마치 영원의 전쟁 전후로 멈추어 있는듯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기이하도록 오랜동안 문명과 동떨어져 지내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새긴 야만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윈뒤르강 깊은 곳에 더 가까이 들어서자 우레와 함께 벼락 여러갈래가 우리를 환영하였다.

“협곡이 외치는 함성이다. 이곳에 잠든 돌이 그것들을 부르니 불경한 존재가 함부로 신성한 저들의 땅을 넘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돌이 아님은 분명하군요.”

“돌에 문양을 새기어 이를 매개로하여 천둥과 벼락과 폭풍우를 품으며 저들은 그것들을 눈에 담고 직접 그것이 됨을 두려워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적의 문양이 아닌 그저 재앙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그 재앙을 부모로 섬기고 감사하는 자들은 재앙의 산물이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산 아래의 것들이 저들을 야만인이라 부르게 된 까닭이라.”

“그저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을 낮추어 부르는 것입니까?”

“세상 어느 누가 감정없이 자신들을 죽이고 터전을 짓밟는 재해나 재앙따위를 높여서 부르겠는가?”

그가 웃으며 되물으니 나는 선뜻 대답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빛의 권능과 축복만 입던 이들을 보다가, 천재지변에 맞서며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 이질적인 모습은 경외심을 느끼게했고 아벨론이 저들과 거리를

두려함은 당연하다 느껴졌다.

“다만 보아라. 야만인들이 자신들을 어찌 불리우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따름이니, 저들에게 있어 구원이라는 것은 생존과 투쟁, 그리고 명예와 영광이라.”

“야만인과 재앙이라 불리우는 주제에 명예나 영광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지. 물론 있고말고. 저마다 지니는 가치가 다를 따름이라.”

그가 미소로 답했다. 그가 말한 생존에 대한 투쟁은 재앙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마저 포용하고 결국엔 굴복시키려는 것 같았다. 윈뒤르강 폭풍우 속에서 그 투쟁은 거칠지만 숭고함마저 느끼게 했으니 저들이 명예와 영광을 중요시하는 것도 생각해보이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저들은 어느샌가 그들 주위에 있는 불경한 자들을 즐거웁게 찢어 죽이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저 평원을 걷는 걸처럼 가벼웠으며, 살육을 즐기는 모습은 어린 아이와도 같이 순수하고 유쾌해 보였다.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제 아무리 위험천만한 것들이라 해도 말이다. 그 모습을 넋을 잃고 가만히 응시하던 나를 깨우듯 다시 그가 물었다.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느닷없는 철학적인 그의 물음에 한참을 되뇌였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마다 느끼는 것이 제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구원이고 심판하는 것도 구원이요, 희생하는 것도 구원이라면 그대는 저 형태를 대체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자비없는 재해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형태마저 구원이라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옳다. 이데아는 변덕이 심할테지. 언젠간 폭풍우가 뒤닥칠 것이고, 불의 비가 쏟아질 것이고, 서릿발의 혹한이 온 대지를 뒤덮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만으로 재앙에 맞섦에 충분한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강인한 저들이 언젠가 이데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남에도 저기 저 부녀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불경한 존재 입에서 마지막 숨이 새어난 뒤에야 남자는 피를 뒤집어 쓴채 고개를 쳐들고 힘껏 외쳤다. 그는 하늘을 향해 다시금 찢어지는 듯한 크기로 외쳤다.

“셀라! 있는가?”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

그녀는 맞은편에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피를 씻어내며 외쳤다.

“과연 재앙의 딸이로다!”

아비는 유쾌하게 웃었다. 바닥에 흩어져있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본

이들은 그것들의 목을 한번에 내리치며 묶은다음 저들의 전리품인양 어깨에 걸치고 폭풍우속으로 사라졌다. 언덕에서 한참을 멀어져가는 저들을 바라본 내가 그에게 물었다.

“저리 유쾌한 것도 저들이 야만인이기 때문입니까?”

“어찌 보이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벨론에 자리한 이들과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다만, 그것이 저들이 ‘야만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쉬이 단정지을 수 없지만요.”

“그걸로 됐다, 돌아간다.”

그는 이곳에서 볼일을 마치기라도 한듯 미련없이 돌아섰고 난 다시 그 뒤를 따랐다. 무릇 야생의 짐승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삶이 쌓여 저들은 무리를 이루고 대를 잇고 이 땅에 흔적을 남겼다. 그의 말대로 처절하게 생존을 갈구하는 것도 구원이라면, 한낱 짐승들에게도 구원이 깃들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말대로 여기 숨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재앙마저도 구원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

“에이, 말도 안되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기록하던 책을 덮고 허겁지겁 그의 뒤를 따랐다.

『 세번을 피고지는 파랑새, 방랑자. 피오르 』

영원의 전쟁은 이데아에 수많은 상처를 냈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눈에 담긴 참상을 볼 때마다 나는 큰 상실감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겠지요.”

죽음이 내린 곳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내가 간신히 입을 뗐다.

“죽은이들 만큼이나 고통받는 이가 바로 남겨진 자들이다.”

내 감상에 그는 아무런 감정없이 무미건조한 투로 답했다.

“그래도 남겨진 자들은 적어도 살아는 있지 않습니까?”

“그대에게 이와 비슷한 물음을 하지 않았던가? 사는 것이 그대에게는 무엇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얽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는 있을진대 구원받는 희망조차 품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겠느냐?”

복잡한 심경으로 난 한참을 고민하다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함에도 살아있다면 삶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옳다. 그러함에도 삶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으니 전쟁 중에 생겨난 전쟁의 고아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린 것들이 처절하게 삶을 갈구하며 여지껏 살아온 것이 믿어지는가?”

사회적 약자. 여성은 죽어가는 것들 사이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었기에 지켜졌으며, 혼란의 세계에서 노인들은 그저 나이만 찬 이들이 아니라 오랜 경험으로 꿋꿋이 살아남은 치열한 생존자들이었다. 다만, 여성도 노인도 아닌 전쟁의 고아들은 여리고도 연약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었다. 아이들 역시나 보호받아 마땅했지만 그 당연시되는 것들조차 지켜지지 못할만큼 전쟁이 낳은 참상은 냉혹했다.

“고아들이 스스로 죽음에 맞서 싸워왔단 말입니까?”

믿기지 않아 내가 되물었다.

“죽음에 맞서지 않는다면 어린 것들이라 한들 누가 살 수 있다고 장담하겠는가? 살기 위해서 그 작은 손에 무기를 쥐는것이라.”

“그 여린 손으로 어쩔 수 없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쥐는군요.”

그는 안타까운 듯이 고개를 저으면 물었다.

“그대는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두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어미의 자궁을 나와서 머리가 닫히고 한번, 그리고 십여년이 지나고 난 뒤 두번이라 들었습니다.”

“옳다. 평범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미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버려진 이들에게는 그마저도 부족했는지 스스로 날개를 뜯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세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말을 맺은 그의 표정이 다소 심란해 보였다. 내 발에 밟힌 나뭇조각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바스러졌다.

“전쟁의 고아들이 머무는 곳이라기엔 황폐하고 말라있어 마치 죽은 듯 합니다. 아니 그보다 이 근방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들마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를 지우며 살아간게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죽은듯 고요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하게 인기척을 느끼었고, 난 그쪽으로 고개를 홱 돌렸다. 묘하게 내 감각이 날카롭게 그것들을 향해 있었다.

“데이지, 너 방금 한번 죽였어.”

남자 아이가 키득거리며 놀리자 여자 아이가 무안한 듯 신경질을 내며 남자에게 신경질을 냈다.

“나도 알아, 바보야.”

“아무도 없어. 바람에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아. 돌아가자.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거야.”

“그대로 조금 머물다 가자.”

여자 아이는 바깥바람을 더 맞고 싶었다. 남자 아이도 싫지 않은 듯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잠시 뒤 저들은 발걸음을 돌렸다.

“평범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아니군요, 따라가는 것만으로 이리도 벅차다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나 자신들을 몰아붙이지 않으면 안될만큼 처절한 것이라.”

“헌데, 저들이 말하던 특별한 밤은 대체 무엇입니까?”

“순수를 잃지 않으려는 날갯짓이다.”

그가 말하자마자 아이들은 눈 앞에서 사라질만큼 저만치 멀어졌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저들을 맞으려 더욱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었다.

“날갯짓이라니요?”

다소 모호한 표현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내가 되물었다.

“아벨의 자손은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2차의 성징을 말하는데 저들의 꽃은 생에 세번을 핀다.”

“예, 분명 아까 그리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대로다. 이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머리에 구멍을 뚫고 세번을 태어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과 이곳에 자리한 기운과 공명하며 몰아치는 잔바람과 함께 세번 태어나게 되는 것이라.

“누가 저 어린것들의 머리에 구멍을 뚫는단 말입니까?”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저들의 벗들이 그것을 행할 것이라.”
“저들끼리 마주보며 스스로의 머리에 구멍을 낸단 말입니까?”
내가 놀라 다시 물었다.
“의학적 지식도 없이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시술을 행하다니요.”

“세번을 태어나는 것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깨어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 날카로운 감각을 평생 함께 세우던 이들끼리만 보이는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저들 스스로의 의지로 세번의 태어남을 선택하는 것이라.”

“서로가 서로의 머리에 구멍을 뚫는다니… 저 여린 몸으로 어찌…?”
“버려졌음에도 살아가기 위함이라. 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
그가 무심한듯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뭉친 집단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대는 저 어린 것들의 각오와 용기를 너무 작게 본 것은 아닌가? 그 크기는 오히려 방벽 안에 숨어 남의 등을 밀어내며 지내는 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거대하지 않은가?”

그의 말 그대로였다. 전쟁의 고아들이 아벨의 방벽을 등지고 나간 것은 객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놀랄만큼 용기있는 행동이다. 버려진 이들이 함께 유년을 보내는 것은 저들의 유대를 더욱 단단히 결속되게 했고 흔적 없이 사라진 집단과 달리 아직까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버려진 자들이기에 느끼는 유대란 것입니까?”

“옳다. 이제야 저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저 곳 역방의 탑으로.

그곳을 내려오는 길목마다 다른 길목으로 통하는 길이있어 길을 잃을 정도로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탑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려 두려웁기까지 한 그 아래에서 하늘을 보니 별빛이 나의 얼굴에 쏟아지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듯했다.

수많은 통로를 바라보더니 그는 이윽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고 문득 나의 시선을 이끈 것이 있었다.

“반, 팅샤, 리즈, 밀라에, 비옹, 바뉴….”

벽에 새겨진 이름은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곳까지 빼곡하게 이어졌고 차마 다음 이름을 읊지 못하고 멍하게 있자, 그는 멈추어 서서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내 예상이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신히 말을 뱉어냈다.

“특별한 밤을 넘기지 못한 아이들이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커다란 존재감이 일렁이고 우리는 그 어둠 속을 응시했다. 목을 죄어오는 듯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어느새 어둠을 찢고 나온 그 아이는 텅빈 눈을 한 채 비틀거리는 발로 우리 사이를 지나쳐갔다. 아이가 우리 곁을 지나가고 나고 한참뒤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데이지, 그리고 방금 한번 죽었어.”

남자 아이가 키득거리며 말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아이와 함께있던 남자 아이였다. 보아하니 여자아이는 특별한 밤을 넘기지 못했고 남자 아이 홀로 그 곳을 나온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아이는 한 가운데에 서있다 무너지고는 울음을 토해냈다.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 사방으로 해방된 영향인지 그의 주변에 널브러져있는 돌 무더기와 나뭇가지가 미친듯이 하늘을 향해 춤췄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우적대며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깐 스쳐지나간 고통이었지만 소년이 감내해야 할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에게 말했다.

“아이가 짊어가기엔 그 고통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옳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들은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큰 고통일

테지. 허나 오늘 저 아이가 거친 특별한 밤이 앞으로 저들의 목숨을 살게 할 것이니 나쁘다고 할 것도 없지."

"세번째로 맞는 탄생은 저리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군요."

"옳다. 평범한 아이라면 감히 생각치도 못할 것들이지. 아니, 제 아무리 연륜이있다 한들 누가 감히 피와 살을 깎아가면서 살아가려는 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공감하며 저 어린 존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려는 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난다.

"온실속의 화초와는 다르게 정신은 빨리 성숙해지나 몸은 다 자라지 않아 조화롭지 않은 둘은 안에서 충돌해 혼란스러움이 가득 메워지게 되겠지. 그것이 저들이 짊어진 삶의 방식이라네."

그는 애처로운듯 소년의 옆을 지나치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 속에 저들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모르니, 저들이 홀로 선 뒤 행해질 것이 악의 축이 될 것인지 선의 뜻이 될 것인지는 이 아이와 이제는 별이 된 그의 벗만이 알 것이라."

나는 한참이나 남자 아이와 멀어져가는 그 사이에서 우두커니 있었다.

그는 절망하는 아이의 곁에서 망설이고있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 계시의 전도사, 성전사 에두에르 』

“그대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아는가?”

그가 나에게 물었다. 시험에 대한 기록은 많기에 난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잘 알고 있었다.

“만용과 오만에서 나온 재앙의 씨앗이라 부르며 만악의 근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옳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초의 죄와 살인으로 대지가 피로 물들게 된 것이라.”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는 어찌 되었는지 아는가?”

“이데아 밖을 떠나 흔적을 감추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데아 밖에 있으나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라.”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취를 감춘것이 아니라면 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으며 이데아를 병들게 방치한채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다시 묻자 그는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데아 주위를 맴돌면서 모든 것들을 주시하고 있도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무나도 당연히 하고 있어 나는 입을 비죽거리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만과 만용으로부터 멀어지게 간접적으로 도우며 그것이 가져다줄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듦이라.”

“오만으로 재앙을 몰고온 자들로 기록된 존재들일 지언데 어찌 남을 가르치려 한단 말입니까? 또한 그들이 내린 것은 죄책감 따위가 아니라 저주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그 시험만 없었어도 죄를 낳을 일도, 목숨을 거두울 일도, 뉘우칠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바와 아다무스를 변호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에 나 역시 담겨있던 생각을 쉼없이 쏟아내었다.

“그대는 이바와 아다무스가 남긴 씨앗이 고요하게 이데아에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는가? 오만과 만용은 그저 시대만 앞당겨졌을 뿐이지 속죄하지 못할 자들에게 닥쳤으면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기에 일찍이 이데아를 벗어나 자식들에게 화를 면치않게 한 것이라.”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한들 그들의 오만과 시험이 낳은 영원의 전쟁, 갈라서버린 아이들을 만들어낸 그들의 죗값이 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바와 아다무스는 속죄를 위해 이데아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한다. 뉘우침과 속죄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평생을 말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형태만을 달리한채 아직까지 이 땅위를 살아숨쉬는 그의 자손들 사이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노라.”

아! 맞는 말이다. 죄가 팽배하기에 이데아는 피로 적셔진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대로 죄와 속죄의 사슬이 졸곧 반복되어 왔지요.”

내가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발도 함께 멈추고 허리를 굽히어 하이얀 들풀 몇개를 뜯어낸 뒤에 지그시 그것을 바라봤고 포근한 바람이 일렁임과 함께 들풀은 흩어져 사라졌고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죄는 남아있으니 그것의 흔적은 결코 씻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 그렇다면 그 속죄의 길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대인가? 아니면 나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바와 아다무스는 계시를 내리었다.”

영원의 전쟁을 낳은 재앙이 무엇이 미련이 있기에 이데아를 차마 떠나지 못한채 배회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대체 무엇을 위하여 참회의 길에 오르는가? 나는 그저 홀로 그 해답을 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마침내, 계시를 받고 계몽하는 자 에두예르가 성전을 시작한 고요의 땅 우에노른에 서노라.”

우에노른라면 카를로와 그의 무리들이 둥지를 튼 곳이자 이교도라고 추

방당한 자 아이사가 마지막 걸음을 한 곳이기도 하다.
“계시를 받은 자들은 박해당하고 배척받은 자들이군요.”
내가 혼잣말을 하듯 토해냈다. 그것을 들은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저들을 처량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조심스레 그가 발걸음을 옮기자 나도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우리는 언덕을 넘어 우에노른 깊숙한 곳에 발을 들이게 된다. 드넓은 초원과 들풀과 수목과 풍경은 어째서인지 더럽혀있지도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지도 않아 놀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 나왔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는가? 버려진 땅에서 조그마한 불씨를 틔웠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신앙의 충돌 이후 계시를 받은 자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새로이 무리를 만든 에두예르는 교황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지도 않았고 위용을 뽐내지 않았고 그저 수수하고 절제된듯한 모습이었다. 아니, 그냥 낡고 오래된 것들 뿐이었다.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가 교황청에 발을 딛고 말했던 숨죽이는 평화가 이런 느낌이었다. 에두예르라 부르는 자들이 머무는 곳은 황량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투스만큼의 활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절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들의 율법만을 전파하는 데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붇는 것만이 삶의 전부인 듯했다.

“계시받는 자들이라 한들 아벨론의 가지들만큼이나 그 모습들이 수려하지 않습니다.”

“혹여 그대는 따스한 빵과 달콤한 와인이라도 기대했는가? 저들을 모습을 보면 구원의 빛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걸세.”

그가 빈정거리는 웃음을 머금고 내게 말했다. 우리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빛을 머금고 있는 수도원으로 향했다. 죽음의 냄새를 느낀다. 나는 바짝 경계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으나, 뒤이어 슬픔과 비통함이 느껴지고는 긴장을 풀었다.

“꺼져버린 잔불.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인뒤 조심스레 수도원의 문을 열었다. 우린 그 안으로 들어갔고 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수도원의 안은 어둠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지만 창틀 사이로 새어나오는 여명이 그것을 조금씩 거두었다. 그리고 눈은 어둠에 익숙해진다. 예복에 가까워 보이는 갑주는 새벽의 빛들과 어울려 묘하게 푸르른 빛을 띄고 있었다. 어린 소녀가 같은 갑주를 입고 영면을 맞이한 늙은 노인을 그윽하게 보며 말한다.

“오랜동안 계시를 받아 그 율법을 전한 희망의 불씨 중 하나인 전도사 페드로가 그대들의 곁으로 갑니다.”

뒤이어 큰 숨을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을 이어나간다.

“당신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그 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푹 쉬시길. 형제, 페드로.”

그곳에 자리한 모든 성도들은 손을 맞대고 저들의 찬가를 불러 그를 배웅했다.

“저들 모두가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면 어찌 교황청에 맞설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궁금했던 사실에 내가 조용히 물었다.

“속죄는 무거우니 그것을 한번에 감내할 수 있는 자는 없노라. 때문에 그 참회의 계시는 여럿으로 나뉘어 조금씩 저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며 함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라.”

“그래도 선택받은 자들이라 이 암흑의 시대속에서 불경한 자들에 맞서 살아가기엔 충분하군요.”

“계시를 받은 저들은 신앙이 깊었던 자도 아니고 현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형제 자매였다.”

그가 관에 꽃을 던지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만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한 불행은 보지 못했단 말이냐?”

맞는 말이었다. 난 저들의 힘을 보았다. 그것은 신성한 채찍. 휘감기는

광휘, 포근히 감싸는 듯한 연기같았다. 저들이 휘두르는 빛안개는 안개처럼 쏟아졌고 방패는 신성함을 머금은 구름처럼 자유롭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진 계시입은 힘을 지니고도 스스로의 불행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반문하지 못했다. 비탄에 잠겨있는 수도원을 나오니 푸른빛을 띄던 여명이 빛안개가 되어 내렸고 우에노른는 비로소 따스한 온기를 뿜어내었다. 전도사들이 걷는 그 길이 너무도 차가웠던 탓인지 어제와 같은 태양을 맞이함에도 이곳에서 맞는 태양은 왠지 더욱 따스하게 느껴진다.

“아벨의 자손을 지키고자 함은 상투스와 다름없지만, 어째서인지 저들은 슬퍼 보입니다.”
“속죄는 구원에 앞서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니 용기내어 아벨의 자손들이 속죄하고 참회하게끔 인도하는 저들은 구도자로 보입니다.”

내가 기록하며 이리 말하였더니 그는 한참을 침묵하고는 내게 말했다.
“저들이 그 빛을 잃지 않는다면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빛이 바래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빛이 내려진 계시를 받은 저들을 말하는 것이다. 계몽하는 투명한 빛은 저들을 인도하여 아벨의 자손들을 지킬지도 모르지. 허나, 그 빛은 저들의 깨어진 일상과 뒤

섞일 것이고, 향수병은 저들의 옷깃을 항상 부여잡아 끌어내릴 것이야.”

이바와 아다무스는 깨달았다. 그러나, 참회하는 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비록 불완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빛날 수 있고 또 그렇기에 가장 쉬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하다면 저들은 빛을 품었음에도 그 빛 뒤에서 가장 어두워 질 수도 있단 말인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기록하는 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는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나의 짐을 덜어내주려는 듯 말했다. 그의 말을 끝으로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났고, 나는 우에노른를 벗어날 때까지 그저 나의 본분을 다했다.

『 퀴나즈, 아키스트. 이실그라드의 수호자 』

한참이나 걸음을 하고 난 뒤 우리는 잠시 계곡에서 숨을 돌렸다. 그리고 샘물을 조우하자마자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셨다.

“달콤한가?”

“그렇습니다. 더불어 묘하게 몸에 생기가 도는 기분이군요.”

대답을 마치고나서 난 다시 숨을 크게 들이켜 다시금 허겁지겁 목을 축이려는 찰나에 그가 조용히 나를 말리었다.

“더 이상 물을 들이키지 말라.”

내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여지껏 보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군요.”

“옳다. 그대가 마시는 물에 담겨있는 그것을 감히 전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말로 인해 내가 마신 물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수에 잔잔한 파장이 일었다.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그래, 퀴나즈. 생명의 태동을 깨우친 자들과 그 근원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어머니 대자연의 기적을 맞을 것이라."

"생명의 근원을 다루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신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입니까?"

"아니다. 생명의 근원과 그 흐름을 읽고 다룬다고만 하였을 뿐 그것을 낳는다 하지 않았다. 그들도 역시 그 근원을 무리하게 담아내려 한다면 죽는걸세."

"그러함에도 생명의 근원을 다룬다는 것은 역시 허영이나 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저 순수한 동경과 경외심일세. 이해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겐 생명의 근원을 다룬다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옳다. 그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보라. 자신의 손에 고동치는 생명의 태동을 느낀다면 그대도 기꺼이 그것을 다루고 싶어할 충동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르지.

"그만한 힘은 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그가 허공에 작은 손놀림을 하더니 이내 일렁이는 무언가를 품으며 내게 말했다.

"그대는 아르카나라는 존재를 아는가?"

"방금 말씀하신 생명의 태동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옳다. 그럼 그것이 어찌 태어나게 된 것인지도 아는가?”
“어머니 대자연 이데아의 딸 이실그라드가 낳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옳다. 아르카나는 그녀가 만들어낸 생명의 고동이다.”
“그렇다면 이실그라드는 어찌하여 나약한 인간에게 그것을 쥐어준 것입니까?”

“그것은 이실그라드가 물려 준 것은 아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에 매혹되었다. 그리고 나약하고 찰나의 순간과도 같은 시간을 살기 때문에 더욱 아르카나라는 것에 빠지고 그것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어 가만히 턱을 어루만지고는 아르카나의 태동소리에 깨고는 그에게 말했다.
“역시 이것은 인간이 담기엔 크다고 생각됩니다.”
“옳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대가 우려할 것은 그것을 담은 자들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한참을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 멀리서 기둥같은 것이 보였다. 그것은 하늘에 닿아 있는 듯 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보이는가? 저것이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 아르카나의 어머니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라네.”
나에게 말하는 와중에도 그도 경외감에 가득 찬 듯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가까이에서 저것을 감히 올려다 볼 수 없을테니 한 눈에 담기에는 이 정도의 거리가 가장 적절하구나.”

세계수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발등 정도 높이의 맑고 투명한 호수와 같은 장소가 우리를 반기었다. 오랜 여행으로 온몸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따끔거리더니 이내 금새 아물었다.

“호수라 부르는 것 치고 물웅덩이 정도지만, 생명이 요동치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아니, 굳이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생명의 호수라 부르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 우리 주위로 경쾌하게 찰박거리는 소리에 나는 그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안개와 물방울들이 물장구를 치며 호수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생명의 태동이 스며든 나는 그것들의 존재가 하나 둘 선명하게 눈에 담기기 시작했다.

“어두움이 자욱한 시기에 아이들이 저리도 걱정없이 뛰놀고 있는걸로 보아하니 어머니 대자연의 품은 더욱이 깊고 포근하구나.”

그가 인자한 웃음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뛰노는 저들에게 우리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모양이다. 생명의 태동에 눈을 뜨면 뜰수록 주변은 더욱 황홀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고, 우리는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을 향해 더욱 깊이 다가간다.

어느샌가 늙은 신사가 우리 옆에서 동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기척은 도대체 가늠하기 힘듭니다.”
내가 말하자 그가 웃으며 당연한 듯이 답했다.
“이실그라드 주변으로 생명의 태동인 아르카나가 짙게 퍼져 있으니 그들의 기척을 알기 어려운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지.”
늙은 신사와 함께 호수를 비끄러지듯 걷다보니 우리는 어느새 이실그라드 앞에 당도했다. 늙은 신사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마침내 이실그라드 뿌리가 우드득거리더니 여인의 모습을 한 존재가 눈을 떴다.

“오라. 귀 귀울이는 자여.”

그녀가 입을 열자 우아한 목소리가 울리며 나의 귀를 간지럽혔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게 저 둘을 바라보았다. 무수히 얽힌 뿌리들 사이에서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애틋함마저 느껴져 나는 조용히 펜은 멈추고 저들의 손짓과 표정을 가만히 눈에 담았다.
“아르카나는 널리 퍼지며 당신의 아이들이 뛰놀기에 한없이 자유롭고, 당신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은 그 수가 더욱이 많아지겠지요.”
이실그라드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화답하자 늙은 아키스트가 만족한 듯한 웃음과 함께 말을 이어나갔다.

“풀은 푸르고 물은 투명하여 태양의 빛마저 머금어 눈부시게 이데아에 쏟아져 내리니, 당신과 당신이 뿌리 내린 이 땅은 이전의 색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슬픔과 기쁨 사이의 미묘한 표정을 하고는 손짓하며 그를 배웅했다.

“물러가시오.”

그 짧은 말을 끝으로 휘감긴 뿌리와 가지들은 살아있는 듯 꿈틀댔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나무 안으로 빨려가듯 모습을 감추었다.

“이실그라드는 그저 세계를 받드는 나무가 아니로군요.”

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흥미롭지 않은가? 그녀는 그녀가 뿌리내려 아르카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 모습을 비출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경외심으로 가득했으며 검고 깊은 눈동자는 더욱 빛을 발하였다.

“장로님!”

정적을 깨는 듯 누군가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뒤로 들려왔다.

“도노반, 왔느냐?”

“아벨론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왔습니다. 호수를 뒤덮고 그 위에 방벽을 세우려는 그것이 가당키나 하답니까?”

장로라 불렸던 그 늙은 신사는 한숨을 쉬고는 젊은 혈기를 태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가. 그러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꾸나. 저 빛의 사자들은 어머니 대자연의 힘을 그저 두려워 하는 것일 뿐이야.”

타이르는 그의 말에 도노반은 언짢은듯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장로님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이실그라드에 모인 이들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비가 죽은 것도 그 탓이구요.”

그는 성격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빈정대듯이 말했다. 늙은 장로는 그러함에도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너의 아버지 또한 나의 아들이란다. 그러하기에 나는 더더욱 너를 잃을 수 없다.”

도노반이라 부르는 자는 입을 열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다가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태도도 한층 수그러든 모양이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하기에 아벨론은 침묵해야만 할 것입니다.”

빛이 아닌 것에 기대는 자들이 부리는 그 힘이 거대한 탓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거대한 힘을 지닌 자들 사이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두기 힘들었기에 대다수의 인간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마녀라 불리우

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에 통탄하여 늙은 신사는 그것을 후대에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그 의도를 모를리 없는 도노반이었지만, 더이상 끌려간다면 저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악랄해질 것이 뻔할 것이라 여긴 그는 침묵을 깨고 말을 이어갔다.

“이실그라드와 그녀가 우리에게 부여한 아르카나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조화 그리고 정화입니다. 우리 퀴나즈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겠다면 다음 내가 행할 움직임은 정화입니다.”

“잘 알고 있구나. 아이야. 널 응원하마.”
자신과는 다르게 장로의 무른듯 보이지만 신사답고 점잖은 태도에 진저리가 난듯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채 한숨을 던지고는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살얼음판과도 같은 대화군요.”
조용히 멈추어있던 펜을 놀리며 내가 그에게 말했다.
“아르카나로 눈이 머는 자가 먼저 나올까 빛으로 눈이 머는 자가 먼저 나올까 궁금하지 않느냐?”
“그것을 눈에 담고 기록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겠지만 인간이 담기에 실로 커다란 힘입니다. 생명의 고동은 이리도 힘찬 울림을 하는군요.”
그 힘이라면 불경한 이 땅의 정화는 문제가 되지 않을진대, 이데아가

이전의 색만 되찾으면 낙원이 오는가? 그들 옆에서 웅장한 그 울림을 듣고난 뒤에 나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생명의 위대한 고동은 그 크기가 크건 작건 두렵고 경외로운 것이었다.

『 사막의 투사, 순수의 모래폭풍. 아라샨 』

작열하는 태양과 모래위로 일렁이는 것들은 내 눈앞에 춤추니, 더이상 걸음할 수 없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들거라.”

그가 과일같은 모습의 작은 조각하나를 내게 건네었고 난 그것을 한입 물자마자 과즙이 터져나와 달디 단 물이 뿜어져 나오니 내 마른 입가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며 묻자 그가 웃으며 답하였다.

“에르아의 젖이라 부르는 사막의 축복이니라. 이 곳 아룬 모라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아르카나를 품은 또 다른 자들이라기에 이전과 같이 물과 나무가 우거진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 여기었으나 내 예상은 보기좋게도 빗나갔다.

“에르아의 젖을 한번이라도 더 맛보았으면 좋으련만.”

내가 푸념하듯 중얼거리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능선들 사이에서 아르카나를 품은 자들이 정녕 있는 것입니까? 퀴나즈에 비해 여간 다른 풍경입니다만.”

“에르아의 젖을 기르는 자들은 그 모래능선 끝에 있으니 인내하라.”

한참을 걸어 해가 모래언덕 사이로 기울어져가니 조금 살 것 같았다.

“아르카나를 품은 자들은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아르카나를 품은 자들이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아르카나가 직접 저들을 찾아 간 것이라.”

“생명의 태동이 어찌 이 먼곳에 있는 저들에게 갔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들은 이데아의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퀴나즈에 자리한 아키스트가 과연 저들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생명의 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깃드는 것이 두려운가?”
“자신이 모르는 힘을 다루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으니까요.”
내가 말하자마자 그가 바로 답하였다.
“걱정말라. 저들은 적어도 아르카나를 가지고 이데아를 죽게 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그 말을 뒤로하고 마지막 모래언덕을 넘으니 모래도시 아룬 모라가 눈에 담겼다. 어둠이 깔렸어도 반사된 달빛이 모래위로 쏟아져 반짝였다.
“작열하는 태양과 어둠 속에도 빛나는 모래 때문에 불경한 자들은 함부로 이 곳에 다가올 수 없다. 때문에 저들 스스로 이곳을 성역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불경한 것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일 뿐. 아룬 모라의 사막을 사는 것들은 어설픈 자들을 쉬이 허락하

지 않는다.”
그는 말라 비틀어진 수많은 뼈들이 즐비한 곳을 보라는 듯 고갯짓하여 가르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사막 깊은 곳에 둥지를 튼 것들은 평범한 총과 칼로는 살갗조차 해하지 못함이라. 허나 아룬 모라 사막의 투사들이 어찌 대항하는지 아는가? 아무런 도구없이 그저 맨몸으로 맞선다네.”
“어떠한 도구도 없이 그것들에 어찌 대항한단 말입니까?”

“아르카나를 다룰 수 없으나, 저들 주변에 아르카나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몸에 두르니 저들의 온 몸이 무기로 변모하여 치명적인 생물들에 맞서 자르고 부수는 힘을 갖게 된 것이라.”

뒤이어 그가 사막의 무투가들을 묘사하길,

“어두운 피부는 태양에 그을린듯 검은 껍질을 두르고 있으며, 호박색의 눈은 어둠을 보기 위함이요, 괴이한 움직임은 먹이를 앞에 둔 사막의 포식자들의 것이니, 저들의 모든 행동은 모두 사막 속에 사는 존재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 쪽으로 커다란 뱀 하나가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빠른 속도로 우리를 노리며 다가왔다.

그러나, 그 이빨은 차마 우리에게 닿지 못했다. 그것이 아가리를 벌리기도 전에 모래 속에서 무언가 나타나 그것의 머리를 도려내었다. 한참 후에야 모래를 뚫고 나온 그것이 짐승이 아닌 아룬 모라의 무투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짐승과도 같았다.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이라는 말 이외의 말은 떠오르지 않는군요.”
“혹한을 살던 이들도 보지 않았는가? 무엇이 새로운가?”

극한의 환경에서 사는 것들은 평범한 인간인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인가 자문하며 저들을 바라보았다.모래의 폭풍을 막기 위한 천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으나, 그 맑은 눈만은 정확히 보았다. 그가 이르던대로 호박색으로 영롱히 빛나고 있는 저들의 눈은 작열하는 사막의 태양에 반사된 금빛의 모래빛깔 같았다. 그 눈에 매료되어 그제서야 저들의 흐르는 비단결 의복과 옷매무새를 보고는 짐승이라 칭했던 내가 새삼 부끄러워졌다. 그 생각이 스치는 찰나 짐승이라 부르는 것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에아데.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나는데?”
“바로 그거야, 아르산티샤. 저것들은 항상 우리 주위를 맴돌아.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야.”

“알아. 나도 들어만 봤지만 새삼 살갗으로 느끼는 것은 처음이네. 듣던대로 나쁜 것들은 아닌 것 같네. 충분히 쓸만하겠어. 다만, 살아 숨쉬는 산들바람 말고 불쾌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신경쓰지마. 어느것도 아룬 모라 황금모래 가득한 성역에서는 우리를 해할 수 없어. 혹시라도 어금니를 드러낸다면 모래알갱이같이 잘게 부숴버리면 그만이야.”

“맞는 말이야. 오늘은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겠어.”

아르카나가 스스로 저들에게 다가와 몸 주변을 일렁이나 사막의 무투가들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수백 수천번을 그저 본능으로 의지하며 단련한 몸은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을 저 안에 거둘 수 있는 것이었다.

“새삼 느끼지만 짐승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은 존재들임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다가가기 힘든 존재로 느껴집니다.”

“어찌 그리 여기는가? 그저 저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가?”

그 말 그대로다. 흑옥의 껍데기에 호박석의 눈을 담고있으며 행동은 들판의 짐승과도 같은 기이한 움직임에 아르카나를 다루는 자들이 다른 존재가 당연한것을 그럼 평범한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 난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조화

로웁게 지내고자 하는 자들이라네.”

“그렇다면 어찌 저들은 이리도 혹독한 땅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벽 안에서 아벨론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묻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대는 까마귀가 백조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라네.”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아벨론의 이들은 흑옥색을 품은 매끄러운 저들의 색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른다. 저들을 깊이있게 알지를 못하기에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방벽 안의 이들에게 비상식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영원의 전쟁 속에서 함께 해왔을 것 아닙니까? 저들을 잘 알지 못하다니요?”

“옛 공국 퀼로른으로 합병이 되었을 때에도 사막에 자리한 아라샨인들을 맞이하려 한 자들은 없었네. 많은 이들이 사막을 건너지 못하였기에 그 끝엔 생명조차 없는 지옥이라 여기었던게지.”

그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전쟁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이 땅에 펼쳐진 참상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종언 이후로 저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또

동시에 다른 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한 것이야.”
그가 품을 뒤적거리다 에르아의 젖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어느새 말라버린 입술에 침을 바르며 에르아의 젖을 건네받아 정신없이 그것을 마셨다. 아이들을 따라 우리는 아룬 모라의 심장에 당도했고 이전에 보았던 아벨의 자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다.
“할멈! 나 이제 내 주변을 맴도는 것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이 정도라면 할멈정도는 깨부술 수 있을것만 같아.”
늙은 노파는 자애로운 미소로 저들을 맞았다.

“잘했다. 그것은 너의 숨을 바꾸고 너의 생기를 달리할 것이야.”

흐뭇한 표정과 함께 뿌듯해하는 그 어린 것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얼굴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에서 그 주먹은 멈추었고, 그 어린 것의 코에서는 피가 갑자기 주르륵 흘러내렸다.
“언니 말을 잘 들은 보람이 있구나. 그러나, 아직 형편없구만. 인제 씻자꾸나.”
코피를 쏟고 쿨럭거리는 와중에도 그 눈은 반짝였다.
“역시 할멈은 굉장해. 너무 강해.”
아이가 웃으며 말하자 에아데가 뒤통수를 때리며 웃었다.
“당연한거 아냐? 아르산티샤. 할멈은 아룬 모라에서도 손에 꼽히던 전사였던 것을 그새 잊은거야?”

아르산티샤가 코피를 옷가지에 닦으려하자 늙은 노파는 순식간에 아이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물을 뿌리었다. 재잘거리며 잔망스러운 웃음꽃이 사방으로 펴져나갔고 우리는 그 웃음을 뒤로한 채 아룬 모라를 떠날 채비를 하는 가운데 책을 덮으며 말했다.

“저들은 여태 보아왔던 자들과 달리 티없는 맑음이 느껴집니다.”

“옳다. 그들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아르카나마저 부릴 수 있기에 저들이 추구하는 것도 구원의 하나일지도 모르지.”

“혹한 속에 사는 야만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짐승에게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안 될 것은 또 무어냐.”

나는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과도 같은 자들 안에서 전에 없었던 순수를 맞이했다. 잠시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룬 모라를 떠난다. 모래 위로 간신히 고개를 내민 태양이 발하는 빛은 수줍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 베르생, 피로 용서를 구하는 자 』

“사막의 투사들을 맞이하니 아르카나라는 것은 비단 아르카나의 태동을 깨우친 자들에게만 닿는 것은 아니군요.”

내가 그에게 넌지시 말했다.

“옳다. 그대는 아르카나가 어찌 태어났는지 아는가?”

“이실그라드가 아니그마를 품어 태어난 그들의 자식이 아닙니까?”

“옳다. 이데아 그녀는 죽어가던 아니그마에게 연민을 느끼며 그를 품으며 태어난 것들이지.”

“허면 아르카나라는 것은 연민에서 태어났다고 봐도 되겠군요.”

“옳다. 그러하니 아르카나의 구조를 깨우친 자들이 아님에도 아르카나가 그 곁에 함께하는 자들도 있는것이지.”

그러더니 그는 말을 이어나간다.

“아르카나가 지닌 생명의 태동과 더불어 함께 담긴 감정이 동정과 연민 그리고 그리움이었고, 그것을 통해 이데아에 아르카나를 입은 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가 허리를 굽히어 땋에 손을 대고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르카나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라면 무릇 평범한 삶을 지내온 것들이 아니겠군요.”

정적을 깨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세에서 아무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게 물었다.

“상투스가 가진 구원의 색을 잊지는 아니하였는가?”

“그렇습니다. 본대로 기록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투스가 말하는 신성이라는 것과 아르카나라는 것은 섞일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였는가?”

“예, 그 둘은 서로 다른 기적을 낳지만 물과 기름과도 같아 섞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기적 사이에서 흘려진 무수한 피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요.”

“옳다. 허나, 단 하나의 존재들은 이미 그 두가지가 뒤섞여 있었던 것은 몰랐을 테지.”

“그리고 그 자들이 아르카나의 연민을 입은 자들이겠군요. 혹여 그렇다면 저들 안에 담겨진 것이 아르카나 말고도 남은 하나는….”

“옳다. 그들은 베르생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들은 아르카나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성을 지닌 자들이니, 저들은 그 두가지의 힘 사이에서 뒤엉킨 자들이라네.”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영원의 전쟁 전후로 상투스의 빛을 더욱 밝히어 아벨의 강림을 앞당기기 위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비밀리에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였으니, 저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몸에 새겨진 성흔의 수 만큼이나 저들은 기적을 몸에 담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었으니, 보다 빠른 아벨의 강림을 위한 이러한 명목으로 수많은 목숨이 바스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섞이지 못한 것들을 품은 그 자들은 강제로 끌려가 상처입고 고통받은 영혼들이었다. 그들이 자리한 곳으로 걸음하는 동안 그는 나에게 더욱 많은 이야기를 풀어냈고, 나는 그것을 바로 기록함을 잊지 않았다.

“결국엔 다른 형태를 지닌 두 축복이 섞여 만들어진 것이 아벨의 자손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묻자 그가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고통 받은 영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다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구원을 할 수도, 대가를 원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베르생, 피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로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작고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나 크고 작은 대가가 따르는 것이었다. 구원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자들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내게 물었다.

“보라. 그대가 아벨의 자손이라 하면 남 모르는 다른 수백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난 순간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는 잠시 미간을 구기며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수백의 목숨 따위야 나의 목숨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반대로 수백의 인간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단 하나의 목숨을 위해 죽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저들이 특별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특별한 자들만이 구원을 위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아닐진대 마음 한 구석에서 희생이라는 것을 특별한 자들만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미 못박아 규정지어 버렸던 것이다.

“그대는 아직 배워야 하는 것이다. 후에 그대의 기록에 스스로의 가치나 혹은 신념을 부여하려 한다면 펜을 놓아야 할 것이라.”

그의 얼굴에 꾸짖으려는 태도는 없으나 여느때와는 다르게 단호하고 비수가 꽂히는 확고함이 담겨져 있었다.

“그대의 더욱 바른 기록을 위해 일부러 저들을 맞으러 가려던 것은 허사가 아니었던 모양이로다.”

그의 악의없이 자애로운 말은 나의 어리숙함을 더욱 죄어오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저들이 자리한 땅에 발을 딛으며 아르카나와 신성을 함께 짊어진 자들을 조우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저들의 외형은 역시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닌 평범한 자들이었다.

“벤 아누 비타.”

“드 루아 네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상처를 서로 어루만지는 위로의 말일세.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그는 대충 말끝을 흐렸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발걸음을 하였다.

저들이 모여사는 곳에는 예상과는 달리 과거의 상처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이 보금자리를 만든 깨우친 자 요낙은 절망하고 증오하는 삶보다 동정과 연민 그리고 관용을 가르쳤다. 슬픔이 드러나진 않지만 상처받은 존재인 탓인지 아이들이 길거리를 누비며 흥얼거리는 노래는 밝고 따숩지만 그 뜻은 슬프기 그지없었다.

시선을 떼지 못하고 내가 그 노랫말을 곱씹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말했다.

“요낙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것이지. 나를 해하여 그 상처는 성흔이 되는 것이요, 성흔으로 일곱의 대죄를 등에 짊어지고 죄 지은 자들을 끌어안음이라.”

“저들에게 죄를 심판할 권리라도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두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는다. 성령의 빛이 저들을 옭매지 않

기 때문이다. 저들은 또한 심판의 칼 역시 휘두르지 않는다. 심판을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것은 동정과 연민에서 오는 선행이다.”

“헌데 그 이질적인 능력을 가지고서도 굳이 저들이 심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나되는 힘이 있다면 질서와 정의를 외쳐도 충분히 납득이 될텐데 말이죠.”

“죄악이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죄악은 용서를 하지 않았기에 상처가 되고 곪아서 터져 더욱이 커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마저 용서하고 포용하며 죄악마저 용서함이라.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그대도 모르지는 않겠지.”

“용서라는 것이 죽음 가득한 병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군요.”

“어디 그것뿐인가. 저들은 종교도, 정치도, 철학도, 과학도, 생명의 태동, 어느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모든 걸 수용의 자세로 받아들이네. 다만, 다른 것들이 베르생이라는 존재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그리 개방적일진대 어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벨의 권능을 흉내내어 빛으로 눈을 뜨게하고 주저앉은 자를 걷게하는 치유와 재생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나 성흔으로 신성과 아르카나를 모두 품어 재생이 아닌 창생과 창조의 수준에 닿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두려움.”
나는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옳다. 그것은 초월적인 경지에 있는 기적에 대한 거부감이라.”

화려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던한 집들뿐이었지만 그 곳 연민의 깊은 골 토르메르를 가득 채우고있는 연민과 기이한 이끌림으로 인하여 나는 비로소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살고있는 곳에 있음을 새삼 실감했다. 그리고 이내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었다.
저들이 연민과 동정 이외의 감정을 품었더라면 이데아는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전율했다.
“빛이 가진 어둠도 보았고 아르카나가 품은 독도 보았다. 그래서인지 빛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쳤고 그 주변에 스며든 아르카나조차 눈물짓게 하여 저들의 살을 아물게 하였다.”
그의 말을 조용히 써내려가고 있을 때 처음에 맞이한 형제들이 우리곁을 지나쳤다.
“마티아스, 아프지 않아?”
긴 머리를 한 소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물었다.
“아파, 형. 살이 찢어지고 뼈가 살을 뚫고 튀어 나왔어.”
“미안해.”
형은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싸안으며 소리죽여 울

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 역시 별안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괜찮아.”
동생도 눈물을 쏟아냈지만 활짝 웃음을 보였다. 성흔은 살을 찢고 기적을 만들며, 아르카나는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진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 속까지 깊게 뿌리박힌 상처까지 과연 치유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찰나였지만 베르생의 아이들을 보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저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가 놀란듯이 고개를 돌리며 나를 보았다. 여지껏 그의 눈이 그토록 반짝였던 적이 없었다.
“말해보라.”
“모르겠습니다. 허나, 남을 위해 피를 흘린 자를, 그 피 위에 선 자들은 이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옳다. 지금 그대가 입에 올린 그 말을 잊지말라.”
그는 만족한 웃음을 보이고 다시금 나를 인도했다.

“드 루아 네브.”

존경을 담은 손짓을 하며 토르메르의 쓸쓸한 도심을 뒤로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저들의 말을 따라 입에 담은 말이었지만, 가슴 한

켠이 욱신거렸다.

『 공허의 사역마. 혼돈을 낳는 자, 카라하스 』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지그시 응시하더니 내게 말했다.

“그대가 보아온 무리들은 희망 뿐이구나.”

느닷없는 그의 말에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하오면, 절망의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이전에 조우했던 베르생을 기억하는가?”

“고통받았던 영혼임에도 이겨내고 동정과 연민으로 상처를 보듬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옳다. 그러나, 베르생과 달리 그 고통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벨의 자손임을 부정하고 심연과 속삭임을 나눈 존재들이 바로 절망의 무리들 중 하나라.”

“그 말인 즉슨 그것들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들을 파멸에 몰아넣을만큼 위협적인 존재들이라.”

“저들은 인간 따위야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그대에게 묻나니, 인간이 어찌 되는 것이 그리 큰 상관이 있는가?”

“혼란과 파괴만을 위한 세상을 바라시는 것이라면. 예, 그다지 상관 없겠군요.”

내가 비꼬듯이 답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귀기울여 잠시 들어보라.”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빛에는 어둠이 있고 삶에 죽음이 자리하는 것과도 같이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것 뿐이었다.

“선이라 부르는 자들은 선이고 악이라 부르는 자들을 악이라고 어느누가 정의할 수 있는가? 그대가 저 무리들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면 그대는 악의 씨앗인가? 그리고 여전히 그대의 목과 머리통에 총과 칼을 들이밀면서 선을 부르짖는 자들을 자비로 용서하겠는가?”

쉼없이 차분하게 쏟아내는 그의 말은 여지껏 듣지못한 색채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빠져든다.

“기록하는 자라면 그 어디에도 서지 말라. 옳고 그른 자를 판단하는 것은 저들 자신이다.”

“예, 나는 그저 그것을 그대로 담을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에 취한듯 그의 말을 따른다.

“오라. 절망의 무리 중 하나를 맞으러 가나니, 저들에게 고개 돌리지 말라. 그리 하게 된다면 저들은 더욱 깊은 심연과 속삭임을 나누게 될 것이로다.”

저들을 맞이하는 그 길을 배회하니 온갖 소름끼치는 부정한 기운이 우

리를 감쌌다.
“이것이 카하낫, 텅 빈 곳에서 스치는 바람은 이러한 것이라.”

“아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속삭이는군요. □삭이□□요. 속□ 이는군요. 속□□는군□. □□□ □□□.”

“정신을 다잡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의식은 텅 빈 공허로 향하게 될지니.”
그가 나를 공허함 속에서 나를 끄집어냈고 그제서야 가까스로 정신을 다잡을 수 있었다. 그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기억□□지 않았다.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텅빈 곳, 카하낫, 공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속삭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데아 밖을 떠도는 존재들이 카하낫의 속삭임을 막고 있으니 다행이지, 허나, 잠시동안 그대를 삼켰던 그것은 공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저것을 다 담게 된다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담아야 했을만큼 누군가 밉고 또 증오스러울 테

지."
그가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않고, 을씨년스러운 이 땅을 측은하게 매만졌다.

"알룸, 이탁!"

그 때, 여럿이 입을 맞추어 내는 소리가 들려 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연을 들여다 본 자들치고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아벨의 자손들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대는 심연을 들여다 볼 수 있는가?"
당연히 볼 수 없다. 아니, 난 아직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 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답하지 못한채 고개만 가로저었고, 또 다른 알 수 없는 읊조림에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저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간악한 속삭임을 뱉는 그저 공허의 사역마에 불과한게야."

그래, 저 속삭임을 듣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른 이들을 조우하매 내가 펜을 들지 못하게 된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불쾌했다. 귀를 막아도 들리었다. 본디 그런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보니 평범한 자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의식을 치루고 있었다.
그것은 외설적이지 않으나, 더럽고 추잡한 기분이 들었고, 잔혹하지는 않으나, 선혈이 낭자하는 듯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절망적인 존재들은 저들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저 만들어진 것들이야.”

“인간이 낳은 재앙이라지만 베르생만 보아도 저들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행여 그대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의 혀가 잘리고 눈이 멀고 온 마디의 뼛조각이 바스러지고 육신은 불탈진대 죽음 속에서 구원의 권능을 입고자 이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인재를 정당화 하시려는 것이라면, 나는 당신의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 인과를 찾아낸 후에는 잘잘못을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에 그대가 펜을 거두고 그대가 기록한 자취를 불태워 버릴 심산이라면 그리해도 좋다.”
그가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다시 한번 나를 짓눌렀다.

“허면 이 땅에 저들보다 강한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가 있는데 어찌 그들에게는 공허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아벨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약하기에 공허를 들은 것이다. 콧대높은 카인의 핏줄과 지배하는 세트의 후예는 그들의 목적과 가치가 뚜렷하고 분명하지만 아벨의 자손만큼 나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기 쉬운 존재도 없기 때문이지. 그 나약한 틈을 파고 들기 가장 좋았던게지.”

그의 말을 듣자 공허는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다 느껴졌다. 강한 것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것 앞에서는 한없이 강했다.

“알룸, 이탁! 알룸, 이탁! 크낙 데사 비오날 비오얏 비오 상그비 카하낙트나.”

다시금 무리는 입을 모아 나즈막히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뱉어냈다.

“아버지 문을 젖히어 내 안에 오소서!”

뒤이어 작은 소녀에게서 기괴한 육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내 눈 앞에는 공허의 찌꺼기가 남았다. 찢어진 경계로 기괴한 문이 열리었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낙원의 틈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들 고마워! 나 메사 피네는 아버지의 속삭임을 들었어!”

소녀의 몸에서는 무언가 기생하는 듯한 숙주가 숨을 쉬듯 꿈틀대며 춤

추었고 주변에는 그 어느 서적에서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없는 풀과 꽃이 힘차게 울고 있었다. 소녀는 해맑게 웃었다. 그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색으로 반짝였고 나는 두려운 나머지 소녀의 눈을 피하였다. 저 순수하고 맑은 얼굴이 나를 더욱 소름끼치게 했다. 그 웃음은 주변을 피로 물들일 때까지 미동조차 없이 그대로였다. 그 자리에서 난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굳어버렸다. 그녀 안에 기생한 것이 물어 뜯은 시체조각 때문이 아닌 당연한 듯 만족한 얼굴로 피를 쏟으며 죽어나간 주변의 인간들이었다. 소녀는 문을 향해 아무말없이 걸어나갔다. 어느새 난 발걸음을 그녀에게 홀린듯 옮겨가고 있었다.

“제가 정신이 나간 것입니까? 나는 저것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옳다. 그러나, 문을 드나든 자의 정신은 균열이 가고 쪼개져 온전치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야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덧붙였다.
“하물며 저들이 가져올 파멸 또한 기록이고 역사라면 난 기꺼이 그것을 담을 것입니다.”

그는 얼굴에 묘한 웃음을 머금으며 소녀에게 고개를 돌렸고, 다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난 말 없이 뒤돌아 그녀를 좇았다. 그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과도 길게 느껴졌다. 난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난 아까 선혈이 낭자한 학살의 시간으로 되돌아왔다.

형형색의 깊고 어두운 문 앞에 멈추어선 그녀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무엇이 그녀를 돌아보게 한 것이지 난 알 수 없었고, 달빛이 비치지 않은 밤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모두들 고마워! 나, □□ □□는 아버지의 속삭임을 들었어!”

기괴한 목소리를 뒤로하고 찢어진 문틈 사이로 몸을 꾸겨넣는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저것은 웃으며 울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인가, 기쁨인가, 증오인가, 원망인가, 절망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희망인가?

“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물어 본 것은 분명 저 아름다운 색에 물든 무수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예?”

내가 놀라 되물으려는 찰나 형형색색의 찢어진 공허의 문틈은 나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려는 듯이 아름다운 색채로 흩어져 버렸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책을 덮었다. 그리고 아무말 없이 다시금 그의 뒤를 따랐다. 물론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람에 흩어진 책장 사이의 기록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었다.

『 라구엘, 고통을 잃은 저주받은 자 』

황폐한 황무지를 지나며 내 눈에 담긴것은 두 무리의 불경한 것들이 펼치는 사투였다. 서로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며 죽고 죽이고 있었다. 불쾌하게 짤그락거리는 사슬은 도대체 어디에서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쇠가 부딪히며 내는 마찰음이 나의 신경을 줄곧 긁어댔다.

“저 더러운 것들은 도대체가 사라지지를 않는군.”

내가 불쾌함을 참지 못하고 이윽고 입으로 뱉어내자 그는 내 곁에서 가만히 저들의 무리를 눈에 담고는 미소지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미간을 구기며 그에게 물었다.

“불경한 것들의 비명이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그대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아느냐?”

“짓누르는 죄악과 죄책감을 이르러 이바와 아다무스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옳다. 허면 그대는 무엇을 불경한 존재라 부르는지 아는가?”

“불경한 존재란 것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들이 뒤틀린 존재로 되어버린 그것을 이르러 우리는 불경한 존재라 부릅니다.”

“옳다. 허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아벨의 자손들이 있는 것을 아느냐?”

“본래 세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내렸던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렸고

이데아 널리에 퍼지게 되었으니, 아벨의 자손들이 차마 이를 피하지 못했던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겠지요.”

“허나, 그 저주를 입고도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 남겨져버린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아는가?”

“불경한 자들 가운데에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것도 이상할 것이 없을 따름인데 그것을 왜 묻는 것입니까?”

“지성을 가진 불경한 존재들은 헤아릴 수도 없지. 다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아벨의 자손들을 이르는 것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는 말을 이어나간다.

“하루아침에 저들의 평범한 삶은 박살이 나버린게지. 저주를 입었기에 육신은 뒤틀리고 썩어 문드러져 바스러지는 가운데에도 자신의 기억은 뒤섞여 스스로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자들은 변절자, 라구엘이라 불리우게 된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존재들이로다.”

그가 덧붙이기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슬프기 그지없는 자들이라 이르렀다. 나는 그가 불경한 존재를 향해 측은한 시선을 건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들

은 없었는지요?"

"변절자가 되어버린 자들의 육신은 고통은 느끼지 못하고 썩어버린 살점은 저주 탓인지 혹은 저주 덕분인지 다시금 누더기처럼 엮이며 새살로 돋아나 다시금 살게 하는도다. 그 저주스러운 몸뚱이를 짊어지는 것조차 삶이라 부른다면 말이지. 이런 이유로 변절자들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 안식조차 없는 것이라."

그가 돌연 이러한 말을 한 이유가 있을 터이니 저기 서로 죽고 죽이는 것들도 한때는 평범한 삶을 살았으나, 저주를 품고는 불경한 존재가 되어 영원히 고통받는 자일 것이라. 그리 말하고 싶은 것이라면, 나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자를 동정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날 즈음 그가 나의 사고를 끊어내고 말을 이어나갔다.

"오라. 아벨론이 저들을 두려워 하는 것은 비단 저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었기 때문만은 아니로다."

그의 인도에 따라 나는 좀 더 그것들에게 다가갔고 쇠사슬을 두른 그것들은 확실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깨어진 가면 사이로 군데군데 녹아내린 살점이 비치었으나, 그것은 누가봐도 아벨의 자손,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놀랍게도 죽어있지 않았다. 다만, 무언가 잃은듯 깊은 허무에 빠진 듯 텅 빈 눈이었지만 말이다.

종잇장처럼 찢겨나간 팔과 무수한 쇠사슬에 감겨진 그것은 느리지만 조

금씩 자기 눈앞에 있는 또 다른 불경한 존재를 죽이고 있었다. 그것의 숨통을 끊기 위해 들쳐메고 있는 거대한 석판으로 연신 찍어누르니 그의 온 몸에는 피와 살점이 흥건했다. 그리고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누더기처럼 찢어진 팔을 어깨에 맞추고 살점을 엉기어 붙였다.

“저 무슨 말도 안되는 몸뚱이란 말인가?”

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에게 나즈막히 말했다.
“당신은 저것을 아벨의 자손들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벨의 모습을 하지 않고 아벨의 언어를 입에 담고 있지 않지만 아벨의 자손들로써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은 분명 아벨의 자손이다.”
“당신의 범주 속에 인간이라는 것은 그 범위를 헤아릴 수 없군요.”
“의심한들 저들은 분명 인간이고 아벨의 자손이로다.”
“그들이 불경한 것이든 아니든 저주를 입은 자들이지만 불경한 존재들을을 지워나가니, 아벨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군요.”
내 말에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잘못 알고 있구나. 라구엘은 이데아의 모든 생명이 죽어야 한다고 여기는 자들일세. 그리고 불경한 자들을 지우는 것이라 그들의 순례길을 막는 자들을 지우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들이 믿는 존재를 위해서겠지. 파괴로부터 오는 재구축의 과정이라

는 걸세.”

“그저 광신도가 아닙니까? 하오면 불경한 것들이 받드는 자는 대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에르아를 아는가?”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불경한 자들이 섬기는 존재가 수많은 테르벨을 빚은 만물의 어머니 창조주라고 부르는 에르아라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테르벨을 창조한 에르아를 섬긴다기엔 저들은 그저 파괴만을 낳는 자들이 아닙니까?”

“일락시움가 말하듯 창조주인 그녀가 테르벨을 빚을 때 부수었던 테르벨의 수는 헤아릴 수 조차 없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차마 입밖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그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다.

“옳다. 그러하니 실낱같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이데아를 다시금 본래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금을 사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삶이자 구원이겠지.”

“그렇다면 이데아에 오직 창조주와 저들만이 남아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것입니까?”

불경한 존재가 만드는 깨끗한 세상이 상상도 되지 않아 내가 그에게 묻

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말을 이야기했다.

“아니다.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생명 심지어는 이데아조차 부수고 다시 만들어져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공포스러운 존재들로 자리하게 된 것이야.”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고 쉬이 죽일 수 없는 존재들에겐 공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기껏 바라는 것이 종말이라니요?”

“저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함이라.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말을 멈추자 난 그의 시선이 머문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구엘의 순례자 하나가 방향을 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와 살 냄새에 취한 까마귀 무리가 그의 주변을 맴돌고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살점을 뜯어먹고 그 자리에 살점이 차오르는 기괴한 상황을 그저 아무렇지 않은듯 무심하게 발길을 옮겼다.

“저것들이 내려놓고 간 이 예언의 비석들이라. 그리고 저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라.”

그는 신난 아이마냥 내 대답을 기다렸다.

“일락시움. 멸망과 재구축의 서. 이 단편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며 저들은 다시금 이데아에 종말을 부를 셈이군요.”

“터를 닦아 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 저들 사이에서는 물길이라고도 부르지. 아! 그리고 하나, 그리고 저들이 아니라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기억이 섞이었다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가?”

“예.”

“그것은 단순한 시적표현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저들은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이지.”

“집단지성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비웃는듯이 말했다.

“그것보다 더욱 거대한 것이네. 바닥에 기는 개미새끼들과 같이 하나하나가 결국 전체 하나의 의식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게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군요.”

“옳다. 그리고 이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들의 정신을 창조주까지 연결하고 공유하려는 것을 순례의 길이라 부르니, 온 이데아에 자리한 저 단편은 일종의 나침반과도 같은게야.”

그렇게 하염없이 멀어지는 라구엘의 순례자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 불쾌한 안개를 가르고 나타난 또다른 순례자가 보였다.

그러나, 바로 옆을 지나침에도 아는체도 않고 저들은 서로 갈 길을 나아갔다. 그 삭막한 모습을 나는 차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저 모습을 하고도 인간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불경한 존재들로 분류

되는 편이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저들을 인간으로 여길 수 없는것은 그대가 그리 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기록이 그리 말하던가?”

그가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록을 함에 있어 나의 눈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벨의 자손의 눈으로 보고 있는 나의 오감은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순례의 길을 전면으로 맞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의 자손은 다른 아벨의 자손의 손에 죽게 된다.”

“그 뿐입니까?”

“오직 그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저들에게 그것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직 저들의 순례 하나만을 위함이지.”

등에 짊어진 비석은 저들이 기록하는 이데아의 역사이니, 같이 낙원의 흔적을 기록하는 자로써 저 자들과 나는 무엇을 보고 믿으며 기록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저들의 미친 모습을 보고나니 나는 좀더 펜을 신중히 놀려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책을 덮고 멸망을 바라는 자들의 뒷모습을 기억했다.

『 아그발, 무법자. 시궁창 쥐새끼들 』

태양은 천천히 저물어가 대지를 연분홍 색으로 천천히 적셨다. 어두운 이 시대에 나의 눈을 사로잡은 저 아름다운 광경은 내게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저무는 태양과 함께 폐허 속을 거닐었다.

“공허와 몸을 섞은 자, 세상을 무로 되돌려 놓으려는 자. 아벨의 자손들조차 서로 죽고 죽이려 하니 구원을 부르짖는 가운데 이 얼마나 무의미한 짓입니까?”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한탄하듯 뱉어내자 그가 내게 말했다.

“옳다. 허나 아벨의 자손들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려는 자들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다.”

“시궁창의 쥐새끼들이군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옳다. 우리같은 것들이나 그저 평범한 삶 속에 안주하는 이들은 시궁창 쥐새끼들이 사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탈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암거래 뿐만 아니라, 방화니 온갖 형태를 한 범죄의 온상을 어찌하여 이해하려 하십니까?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면 내 묻나니, 그대는 행여라도 지금 당장 펜을 놓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일을 할 것입니다.”

“허면 다시금 묻나니, 어떠한 연유로 그 일을 무사히 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오랜동안 펜 말고 다른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대가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터인데 어찌 그것을 찾는단 말인가?”

차분한 말투로 내가 내놓은 답을 가로막는 듯이 쏘아붙이는 그의 말이 더욱이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리 묻는다 하여도 나는 나의 생각을 굽힐 생각도 없거니와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범죄를 정당화 시키려는 겁니까?”

“아니다, 범죄라는 것은 당연히 그릇된 행동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릇 죄를 행하였을 때 무엇이 그 죄를 낳았는지에 대해 눈여겨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눈여겨 보아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사정이 딱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고자 한다면 나의 기록은 모두 헛된 것이겠지요.”

내가 맞받아쳤다.

“그리고 그대의 속단으로 휘갈긴 그것은 글자도 아니고 기록도 아닐뿐더러 역사는 더더욱 아니매 그대의 자위질에 불과한 것이다.”

또다시 내 말이 끝나기 전에 쉼없이 말을 쏘아붙혔다.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것은 카인이다. 그리고 그 죄의 불씨를 지핀

것은 아벨이다. 그릇된 행동 두개를 저울질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나는 죄의 무게를 카인에게 더 무거이 둘 것입니다."
나도 지지 않고 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고 우리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그는 이 논쟁이 재밌기라도 한듯 웃고 있었으나 여전히 그것은 나를 언짢게했다.
"허면, 시궁창 쥐새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그가 오랜 정적을 깨고 다음 무슨 질문이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내게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모릅니다. 범죄의 죄질을 보아하니 그들은 그저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을 즐기며 파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죄는 죄로 다스리려는 것이지."

그 말에 나는 그를 노려다보며 다시 되물었다.
"쥐새끼들 따위에게 그러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면 아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누가 빛의 심판을 내릴 자격을 쥐어주었단 말인가? 단죄의 불꽃과 연기로 하늘을 가득 메울 자격은? 방패를 명분으로 총칼로 남의 숨통을 끊을 자격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저 저들 스스로의 이념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범죄는 이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죄를 죄로 다스리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광란의 새장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한숨 가라앉히고 조용히 입을 떼었다.

“시궁창 쥐새끼들을 과연 아무나로 치부할 자가 있을까?”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몰락한 공국의 혼란 속에서 아벨의 자손들의 안정을 위해 힘썼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잡아야 하는 것이라. 속까지 썩어버린 것들은 아무리 겉을 바꾸어도 다시 썩어지는 것은 그대도 잘 알지 않는가?”

지쳤다. 대체 무엇을 위하야 이 지루한 논쟁을 이어 나가려는지 알기도 싫었다.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 할 이유는 없도다. 허나 이전 그대가 한 말과도 같이 스스로 눈과 귀를 닫은채 기록하지 말라. 기록은 무거우니 숨을 고르고 죄 너머의 것을 보고 그것을 종이에 담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없는 듯한 말이 오고갔지만 그리 중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반복적인 논쟁을 하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해는 완전히 기울어져 어둠이 내리었고 근처 폐허 사이사이로 쥐새끼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보라. 아그발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시궁창에서 고개를 쳐드니, 이 땅에 구원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살아가기 위해 남을 부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다.”

아그발. 저항의 무리 혹은 무법자. 저들은 삶은 이어나가기 위해 밤거리를 배회하며 코를 킁킁거리며 다음 사냥감을 향해간다.

“죄를 죄로 다스린다라…. 원하는 것은 그저 돈이 아닙니까?”

“돈보다는 사업에 가깝지. 그리고 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죄로 벌어 사는 것도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라면 저들은 없어야 할 존재들인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여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아마 나는 저는 그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음. 그럴 필요없다. 우리가 나눈 것들도 의미없다. 기록에 사견은 필요 없으니.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들과 발을 맞추어 우리는 변방의 한적한 작은 도시로 들어섰고 나는 조용히 지도를 펼치고 이름을 되뇌었다.

“강기뇨르. 이름 그대로 거대한 지하도시. 아벨론의 눈이 이곳을 떠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손쉬운 먹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대는 시궁창의 쥐가 사냥하는 것은 본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시궁창의 생쥐따위가 어찌 사냥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지, 사냥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사냥하는 것의 목적은 사업과 별개로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무리는 눈빛을 몇번 나누고는 빠르게 흩어져 자신의 먹이를 향해갔다.

“미쳤군요.”

아래를 훤히 드러내는 차림의 여인들의 홀림에 넋이 나간 사내들은 정신이 팔려 자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를 따라 은행에 들어온 무리들은 무리없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
자리를 떠나 한참이나 뜨겁게 몸을 섞고 있던 여인들은 거친 배기음을 듣더니 옷가지를 걸치고는 사내들에게 거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배기음은 더욱 커졌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비안. 빨리 나와. 퇴근 안해?”
그 가운데 잘그락하는 장전된 쇳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입가에 피를 쏟고 있던 사내가 총구를 겨누며 그녀에게 물었다.
“미친년들, 너희들 뭐야?”
“튼튼한데? 당신, 마음에 드는데?”
끼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퍼졌다.
“탕!”
방아쇠는 당겨졌고 사내는 이마에 구멍이 뚫린채 쓰러졌다. 그녀는 총을 허리춤에 대충 끼우고는 죽은 사내의 머리채를 잡고 말했다.

“느립니다요. 사실 나는 아그발의 시궁창 공주였습니다. 멋쟁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온 불만 가득해 보이는 여인이 주위를 둘러본 뒤 담뱃불을 붙이고 말했다.
“아니잖아. 비안. 개폼잡지 말고 짐 싸. 우리 바빠.”
누더기처럼 무언가를 덕지덕지 엉기어 붙인 차량은 거친 신음소리를 낸 뒤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눈앞에서 사라졌다. 깔깔거리는 소리는 먼지를 뒤로한채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내가 그에게 말했다.
“범죄가 일상이군요.”
“오히려 이 작은 마을에겐 잘된 일이라 볼 수 있지.”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머리 한 가운데 구멍이 뚫려버린 자는 뒤에서 더러운 돈을 받아가며 플랑 바통의 피를 빨아먹던 무리를 뒤에 두고 있던 자였다. 그대가 이전에 그대 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는 없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얼굴에 흩날리는 먼지를 손으로 휘휘 저으며 말을 이어나간다.
“그것은 옳다. 허나, 다른이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는 것도 당연하니 시궁창에 사는 쥐새끼들이 이 썩은 것들을 먹어치우는 것을 누가 무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누군가는 속이 후련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겠지요.”
난 멍하니 멀어지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펑!”

한숨을 내쉬려는데 엄청난 굉음이 뒤에서 울려퍼졌고, 귀에서는 한참동안 이명이 떠나질 않았다. 게걸스럽게 사냥감을 유린하고 난도질하는 동안 남은 것들이 폭발과 불길 속에서 조용히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돌겠네 진짜.”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담고 폐허더미를 멍하니 다시 바라본 뒤 담배를 입에 물고 미소지은채 낄낄대며 이미 발길을 옮기는 그의 뒤를 다시 따라갔다.

『 신내린 동방의 새벽, 세사도르 』

하늘이 지고 밝아오기를 한참이 흘렀고 우리는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동쪽으로 향하였고 낯선 풍경이 우리를 반기었다. 드높은 협곡들이 사방에 펼쳐졌고 바람에 실려오는 간지러운 꽃내음이 나를 취하게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려 하자 그의 큰 손이 나의 입을 막으며 다른 손으로는 허공을 휘저으며 흩날리는 바람을 걷어내니 나는 영문도 모른채 그저 버둥거렸다.

“낯선 땅의 꽃향을 맡으며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인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니라.”

한참의 포근한 바람이 내 살갗을 간지럽히고는 잠잠해져 그는 내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떼었다.

나는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꽃향이라니 그것이 무슨 꿈같은 말입니까?”

“오, 그 말대로면 우리는 꿈속에 살고 있는 것일테지. 그리고, 그 끔찍한 꽃은 불행하게도 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사실이라면 죽음의 꽃향기를 맡으면 정말 죽음에 닿게 되는 것입니까?”

“옳다. 달콤한 죽음이지. 암.”

그는 무엇을 회상하려하는지 갑자기 그리운 표정으로 내게 답했다.

“그대는 국왕 델레놋 3세를 아는가?”

“예, 공국을 몰락하게 만들고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며 죽음에 다다른 이가 아닙니까?”

“옳다. 허나 그가 누구에게 죽음을 맞이한지 아느냐?”

“그 말씀은 행여 세사도르의 존재들에 손에 의해 죽임이라도 당했다는 것입니까?”

“옳다. 벌만의 쥐새끼도, 카라하스의 마녀도, 라구엘의 문둥이도 아닌 세사도르의 도사라 부르는 존재들에 의해 죽은 것이라.”

“허면 어찌하여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에게 끌려나와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까?”

“그가 고결하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던 자들이 그렇게 지어낸 것이다. 이 얼마나 추한 죽음이더냐?”

“죽음에 고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

“옳다. 허나,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었기에 고결하지 못한 죽음이라 부른 것이라.”

“죽음의 향기가 그리 독하더이까?”

“그를 죽인 것은 죽음의 향기가 아니다.”

“허면 대체 그는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핏줄 하나하나 색이 바래져 온몸이 돌과 다름없는 모양으로 굳은채로

죽었다.”
들어본 적이 없었다. 죽음의 꽃은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아내는 향을 뿜는 것이지 몸이 굳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에 죽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다.

“몸이 굳은 채 죽은 것이라면 세사도르에 살고 있는 자들은 죽음의 꽃만 다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군요.”

“옳다. 죽음의 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일부일 뿐, 그들이 다루는 것은 독구름, 벌레 등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암살의 도구이니 그 방법은 세사도르의 가문 저마다 달라 다루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니 그 중에서도 삿된 저주로 태어난 귀신까지 다루지.”
“독구름에 벌레에 귀신까지 다루는 것이라면 세사도르에 사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동방의 새벽을 여는 자들이요, 서약으로 맺어진 자들이기도 하며, 그저 평범하게 많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하지.”

“세사도르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의 중심에 섰음에도 어찌 이들은 이리도 동쪽 끝자락 동떨어진 곳에 자리했던 것입니까?”
“다른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서도 다른 누구와도 쉬이 섞이려하지

않는 저들의 특징 때문이다.”

그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내가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저들이 정녕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까?”

“옳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쟁취하고자 하기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저들은 귀신같이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라.”

“죽음을 부르는 자들에게 평화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관적인 자세로 그에게 말하자 그가 웃으며 답하였다.

“그대는 이 깊은 산기슭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나는 펜을 멈추고 협곡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협곡 봉우리 깊은 녹음 사이사이로 자리한 것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분명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었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조용히 배회하고 있었다.

“불경한 존재로군요.”

“아니.”

“예? 그게 무슨…?”

그의 단호한 짧은 대답에 내가 말문이 막혀 얼이 빠져있었다. 저것이 불경한 존재가 아니라 한다면 이 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끼치는

이 기분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잠시동안의 사고를 마치고 난 뒤에 그에게 물었다.

“그것이 제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불경한 존재가 아니라 세사도르의 깊은 산봉우리에 자리한 남겨진 존재들이니 저들은 그것을 부르기를 도깨비라 하는도다.”

“지금보니 저것들은 참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저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깨비나 깊은 산속의 귀신들은 그 일대를 지나는 이들에게 장난질을 한다는 모양이다.

“허면 저것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다. 아이같이 변덕스러운 속내를 어찌 헤아리겠는가?”

목적없는 움직임은 없다하지만 만약 없다고 한다면 혹은 만약 저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은 목적없이 순수한 악의가 될 따름이니 그것은 분명 세사도르가 원하는 평화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세사도르의 도사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더이까?”

“세사도르가 제 아무리 폐쇠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혼란과 파괴를 부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이기에 목적없는 죽음을 낳지 않을 것이라.”

그가 잔뜩 긴장되어 있는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의심은 거두거라. 세사도르의 도사들과 도깨비는 돈독하다 알려져 있으니. 문제가 될 것이라면 귀신이라 부르는 사념체들이지.”
그 때, 다시금 산들바람이 일렁이고 나는 다시금 불쾌하게 부드러운 낯선 기운에 신경이 곤두섰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의 뒤를 좇았다.
“경계를 늦추지 말거라, 현아.”
부드럽게 어르고 달래는 자애롭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토해내는 숨결로 무의미한 죽음을 낳는 것은 슬픈 일이지 않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모녀로 보이는 두명이 아지랑이 사이를 뚫고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레에는 짐이 잔뜩 실려 있었고, 수레브퀴의 흔적은 서쪽을 향해 있었다. 그 짐 중에는 꽃다발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는 모르나 무슨 이유로 이들이 발걸음을 하는지는 누가봐도 알겠군요.”
“죽음의 꽃향을 맡음으로써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저 식전의례인지는 저들이 결정하게 되겠지.”
그 때, 저들 앞에 불경한 존재들이 죽음의 향기에 취하여 저들 앞을 가로 막아섰다. 저들은 한치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어미는 딸을 바라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짓고는 아이에게 말했다.

“아가, 답답할터이니 그 막힌 숨통을 잠시 풀고 춤추려무나.”

“네, 어머니.”

자그마한 은장도와 자그맣게 조잘대는 방울 여럿이 매달린 괴이한 꽃 한 아름을 켜켜이 손에 끼우더니, 아이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는 마차에 내려 품속의 작은 호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숨을 고른 뒤 신명나게 춤을 추며 미끄러지듯 저들 앞으로 나섰다. 그가 나에게 숨을 잠시 멈추라는 듯한 눈짓을 하자 나는 몸의 모든 활동을 멈추었다. 희미하게 스러지는 나의 마지막 의식 속에서 아이의 춤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 찰나의 시간에 아이 앞에 있던 불경한 것들이 미친듯이 부들거리고 죽어감에도 춤이 끝나지 않자 그 어미가 그를 품에 안았고 그는 잠들었다.

“고생했다. 잠시 눈을 붙이려무나.”

어미는 보랏빛 꽃떨기 한 움큼을 뜯어내어 작은 병에 담자 영롱한 빛은 사방에 퍼지고 아지랑이처럼 흩어진 연기를 아이에게 건네었다.

그리고, 아이는 꿈 속에 빠진듯 편한 얼굴로 어미에게 기대었고, 그렇게 나도 잠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눈을 떴고 그는 모녀가 가는 길을 눈길로 배웅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코에 콧물이 흐르는 듯하여 코를 슥 닦아내며 일어났다. 그것은 콧물이 아니라 피였다. 그는 내게 해독제처럼 보이는 것을 건네었고 그것을 건네받은 나는 그

것을 바닥에 내던져 피어오르는 포근한 구름을 몸에 담았다. 조금 진정이 되자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리도 독한 것을 어찌 가벼이 몸에 담는단 말입니까?”

내가 물으니 그가 답하기를,

“이제와 저들이 안타까운가? 살고자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맨몸으로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 저들은 태어나기 전 어미 뱃속에 있을때부터 독과 약물에 대한 내성을 기르게 하여 다른 무언가를 지니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대가 아무리 저들을 흑은해한들 그저 남들을 위해서 태어나고 죽어갈 꽃잎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지.”

그의 말을 곱씹고 있던 나를 보더니 그가 다시 내게 물었다.

“아니면 행여 그대는 저들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예. 아직도 제게는 독과 귀기 온갖 위험한 것들을 부리는 세사도르의 도사가 평화를 추구한다는 그 말이 꿈과도 같이 들립니다.”

“그대가 달가워하는 존재가 어디 이 땅에 있으랴?”

그는 혀를 차면서도 즐거운 듯한 표정이다.

나는 저들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도 저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낼 이유조차 없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잡일을 도맡는 심부름꾼, 나아가 암살의 도구로써 목숨을 담보로 독은 물론 귀신과 저주를 이용하는 것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들의 이름은 결코 나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 윌츠, 진리와 세계의 톱니바퀴 』

“발걸음이 무거우니 잠시 쉬는 것이 어떠한가?”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얼른 짐을 풀었다.

“아니, 이곳에서 쉬자는 것이 아닐세.”

내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더니 그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허면 어디로 가서 쉰다는 것입니까?”

“길드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길드라 함은 마이스터라 불리우는 각 분야의 깨우친 자들이 서로 무리를 이루어 아벨의 자손을 풍족케 하고 번영을 이루는데 일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 알고 있습니다.”

“옳다. 그리고 영원의 전쟁 이후로 생존을 위한 투쟁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명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라질 뻔했지만,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언제 한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허면 우리가 쉴 그곳은 안빈낙도의 도시군요.”

“옳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더 질 좋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바퀴와 기계, 그리고 증기가 숨쉬는 과학이라는 기적을 부리는 자들이 모여 건립된 자유도시국가가 바로 윌츠라 부르는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오직 한가지 목표는 기술의 전승이지. 서로 다른 진리와 지식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벨의 자손들이 남긴 유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

“그것이 옳다면 기도나 희생보다야 이곳이야말로 아벨의 자손을 위한 안식처가 아닙니까?”

“옳다. 허나, 너무 긴장의 끈을 풀지 말라. 모든 이들에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이지만 상투스만큼이나 그리 자애로운 곳은 아니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미소가 가득했고 어쩐지 이전과 달리 신이나 있는 듯했다.

“그대는 잠시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거리를 보라.”

그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의 말을 따라 거리를 눈에 담자 더욱 큰 풍경이 나를 맞이했다. 시끌벅적하고 어지러이 춤을 추는 불빛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리마다 낮과 다름없는 빛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비추었고, 공장은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소리와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자리한 그곳에 가득한 생명의 태동과는 또다른 웅장한 울림이 우리를 반기었다. 추적거리는 거리와 음울한 마찰음과는 다르게 거푸집에 주물을 부어넣는 인부들의 얼굴에는 구원을 좇는 이들의 간절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들의 눈은 보기좋게 빛나고 있었다. 먼지와 검은 기름때를 가득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활기찬 생기가 온 거리에 배어있었다.

“과학이라 불리우는 재주가 만들어낸 것들을 보라.”

그가 들뜬 목소리로 팔을 펼치며 한껏 고양된 표정을하며 내게 말했다.

“어두운 이 밤에도 이토록 강렬한 빛을 발하다니, 어느 누가 이를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것이 진리에 닿은 세계의 톱니바퀴인 윌츠의 모습이다.”

“과학이라는 재주와 거리가 먼 이들에게는 이 모습이 기적과도 다름없었겠군요.”

“옳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아벨의 자손들도 과학의 수혜를 입어왔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 더불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더더욱 적을 따름이라. 아니 그럴 노력조차 하지 않았지. 안락한 삶은 진보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관계입니까?”

“옳다. 실로 아벨의 자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것은 과학일진대,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암흑의 이 시대에 무릎꿇고 두 손을 모은채 그저 구원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더 많으니 말이다.

“가치관. 윌츠가 자유로운 도시임이 분명하지만, 상투스와는 쉬이 섞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군요.”

무언가 씁쓸한 것이 내 안을 관통한다. 분명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 삶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이라는 것조차 담겨있지 않는 차갑고 무거운 것들에 불과한 것인 기계와 과학일진대, 서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달라 한데 엮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모순적인

구조에 나도 보르게 안타까움이 새어나왔다. 온갖 잡스러운 상념과 함께 내가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그곳의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던 것을 보던 그는 가벼이 한숨을 쉬고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대 나의 말을 잊었는가?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윌츠의 밤거리는 그대를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네.”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그는 알수없는 손짓을 하더니만 나를 재촉했다.

“이 밤을 거닐기 위하야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고 뒤돌아서 내게 말했다.

“구원이 어디 땅바닥에서 오겠는가? 이곳 윌츠에 왔으며 윌츠의 법도에 따라 그들이 좇는 구원을 눈에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로 우리는 황금은행으로 간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황금은행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아벨의 자손 안에 통용되는 모든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을 가능케 만드는 장소라고 한다. 그리고 윌츠에 닿은 모든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윌츠의 주폐로 바꾸었다. 소문에 따르면 윌츠의 화폐는 만물을 통용케하는 가공할만한 힘을 지닌 무기라고 부를 정도였다. 황금은행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작은

크기였지만 그 벽은 어떠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만큼 튼튼한 내구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있는 것처럼 바깥의 공기와 달리 상당히 무거웁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윌츠에서 쉬기에 충분한 양의 화폐와 교환을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새삼 궁금한것이 있어 그에게 물었다.

“윌츠의 동전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지닌 것입니까?”

“윌츠를 만든 것은 누구냐?”

“그리 물으신다면 당연히 길드의 장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옳다. 그리고 그 장인의 걸작들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재물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총도 칼도 아닌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두려운 무기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즐거운 듯이 동전을 손가락 사이로 자유로이 움직이며 말했다.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가? 이것이 아벨의 자손이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의 형태라네.”

“한낱 재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기적이고 구원이라면 마이스터라는 것들은 명예라는 말을 모릅니까?”

“명예라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더냐? 이미 그것없이도 여지껏 살아왔다는 것이 이 자그마한 황금이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명예라는

것이 그리도 중요했다면 그것을 부르짖는 자들이 겨우 하나 둘 살아남아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던 것은 어찌 설명할텐가?"
그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기계와 과학, 예술과 문화 다방면에서 이미 윌츠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움직여오고 있었다. 아니, 지배해오고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귀를 귀울이며 생각으로 담은 것을 직접 물리적으로 구현해 오면서 만물의 움직임을 이해하려 애쓰고 진리에 닿기 위해 기꺼이 이데아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윌츠의 마이스터. 과학자들이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쉼없이 쏟아낸 그의 장황한 설명에 정보의 과부화를 일으키며 나는 잠시 넋이 나가있었다. 그는 잠시 무거운 이야기는 접어두자고 말하고는 다시금 우리는 밤거리에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수려한 장식을 한껏 뽐낸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빠, 나 다시 걸을 수 있어."

호텔 안에 희망 한가득 품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거봐라, 쟈넷. 내가 뭐랬냐."

눈물이 차오를만큼 기쁜 모습으로 사방으로 뛰노는 아이의 모습은 모든 것을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다리 대신에 복잡한 기계태엽들이 맞물리며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의족을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더듬으며 기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물었다.

"아빠는 신님이야?"

"그래, 맞아!"

아버지는 유쾌하게 웃으며 딸을 번쩍 들어올리고 빙글빙글 돌았다.

"다음엔 네가 전에 그렇게나 기다렸던 것들을 보러 갈 거야."

"발 바로가?"

"그거다! 발 바로가!"

"우와, 최고야! 아빠는 신님이야!"

그렇게 그들은 호텔 밖으로 나갔고 잠깐의 소란스러움은 점점 잔잔해져 호텔 안에는 잔잔한 악기소리를 남겼다.

"그는 신이군요."

"옳다. 앉은뱅이를 다시금 걷게 했으니. 그것은 신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책무 중 하나였지."

신에 대한 언급은 그를 언짢게라도 한 듯 혹은 책망하려는 듯한 말투를 뱉어냈다.

“애석하게도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너무 오랜동안 그것을 감추려 했을런지도 모른다.”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난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내 신경을 쓰지 않고 호텔 밖으로 멀어지는 자들을 바라보며 나즈막히 말했다.

“진리에 닿기를.”

“진리에 닿아 저들이 이루고자 함은 무엇입니까?”

“진화. 앞으로 발돋움 하려는 것이겠지. 저들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나는 남겨진 아벨의 자손들이 이데아를 살기위해 품은 또 다른 구원을 눈으로 담은 뒤 펜을 잠시 놓고는 달콤한 휴식에 포근하게 잠기었다.

『 사선에서 피를 뒤집어쓴 의사, 라파르 』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구원을 맹목적으로 좇는 모습은 정말이지 처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구원에 목을 매어 정작 스스로를 사지로 모는 자들을 여럿 눈에 담아온 나였기에 내가 느낀 감정은 그에게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 그저 구원 뿐인 것입니까?”

내가 허탈한 듯 그에게 물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이 어디 그것 하나 뿐이겠는가? 내가 그대에게 이전에 이미 일러둔 것과도 같이 구원의 색은 여럿이니 믿음의 은총이 발하는 빛깔도 그러하고, 피묻은 칼도 그러하며 오색 찬란한 금은보화도 그러하다.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하기에 저들이 아직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어버린 잔나무 아래 쌓인 시체더미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대는 혹여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에 목을 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아니요, 그저 생명을 구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들이 여기 있다.”

“저는 이미 이데아의 수많은 인간들이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부르짖는 구원을 그대의 눈에 직접 담은 것이 있었는가?”

“예, 이전에 보았듯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했던 과학자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직접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쉬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내가 보았던 구원은 맹목적 믿음과 헌신 그리고 끝없는 기도와 분노의 표출, 동전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강압적인 듯한 희생은 그저 구원에 대한 희망만을 부추겼을 뿐이었다.

“묻나니 인간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찌하는가?”

“부목을 대어 낫기를 바라나이다.”

당연한 듯 내가 바로 답하자 그가 되물었다.

“옳다, 허면 총과 칼에 살이 찢겨 피를 쏟는다면 어찌하는가?”

“환부에 붕대를 휘감고 소독을 하겠지요.”

“옳다, 허면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져 나와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찌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이요, 별다른 기적이 없다면 그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내가 당연한 듯 난 답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잠시 말을 멈추었고 안개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죽음의 경계에 선 자들이라 부르며 피를 뒤집어쓴 천사, 라파르라고 부른다.
이들의 이름을 담은 그가 존경을 표하듯 고개를 가볍게 숙이었다.
나도 뒤이어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그에게 물었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가장 가까운 형태일진대.”

“라파르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저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희미한 생명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이들은 의학이라 부른다네.”

“여지껏 보았던 남겨진 자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나 기를 쓰고 인간을 살려 저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들의 침과 칼 끝으로 되살아난 생명의 불씨야말로 저들에게는 축복이다. 생명을 살림으로써 마음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빠뜨린 듯 내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들이 생명이라 부르는 범주는 평범한 인간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넓도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파르가 살리려는 것들이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들이 무엇을 죽게하고 살게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야.”

“그 말은 불경한 존재마저 살릴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옳다. 더불어 그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살리려고 하는지 그 누구도 아는 자 없도다.”

“그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혹여 불경한 존재라면 아벨의 자손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반대라네. 살리는 법을 안다는 것은 쉬이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것이니. 더불어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모두에게 알려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멀게 하려는 것이니 해가 되지는 않음이라.”

“나에게는 그저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저들이 죽음으로부터 살리려는 무언가가 위험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위험해 보이는 것을 다루는 라파르가 위험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이 위험한 자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가 그리 말한 뒤로 라파르에 대한 나의 두려움과 반감은 더욱이 커져갔다.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신의 영역에 발을 딛게 되는 셈이군요.”

내가 우스갯소리로 가벼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는 동요없이 내 말에 바로 답하였다.

“신이라. 이들이 자리한 곳이 태초의 영역 락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런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자마자 그에게 고개를 밥로 돌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락시아라면 이바와 아다무스가 신 놀음을 하던 곳이 아닌가? 그리고 그 락시아라면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여러가지의 이유로 중립의 땅이 된 곳이었다. 절대 중립의 땅인 락시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를 부르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 암묵적으로 지켜온 금칙이 있었다. 그것은 피를 뒤집어 쓰고 생명의 불씨를 피우기 위한 자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기에, 어느 누구도 금기를 깨뜨려 모든 아벨의 자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객기를 부리는 자들은 없었다. 그러함에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지만 어째서인지 죽음의 그림자가 하늘을 차분히 덮고 있었다.
이후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락시아에 말걸음을 하였지만 중립의 땅이라고 하기에 락시아은 그리 활기찬 도시같아 보이지 않았다. 간간히 보이는 집에 걸린 라파르의 상징이 새겨진 깃발만이 쓸쓸히 펄럭이고 있었다. 수 많은 의사를 배출해내는 곳인지라, 위생적이고 예방 및 치료가 비약적으로 발달해 있으나, 나의 발걸음은 필사적으로 그곳을 거부하고 있었다.

“생명을 살리는 자의 손이 과연 삶을 부르는지 죽음을 부르는지 직접 그대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망설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인지 차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라파르의 의료집중국으로 향하였다.

집중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말을 한참이나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죽음 앞에 무력한 것들이 빼곡하여 나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지만, 그곳에서 라파르가 보인 움직임은 차분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만 싸늘하다.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가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도, 죽음을 가까스로 벗어난 자들도 결과만을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저들에게 살아갈 희망은 오직 라파르의 의사 손에 쉰 주사바늘과 작은 날붙이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이 얼마나 죽음과 가까웁고 구원과도 가까운 곳이란 말인가? 무겁고 싸늘한 안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숭고함을 느끼게 하였고, 잠시나마 걱정했던 것은 잊고 그 숭고함에 잠시 취하였다. 그러나, 그 잠깐의 순간을 깨어버린 것은 나의 어깨에 얹은 그의 손과 낮게 울려퍼지는 목소리였다.

“아니, 그대의 눈에 담아야 할 것은 여기 더 깊은 곳이라.”

그리고는 우리는 수많은 병동과 환자를 스치며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저 멀리 수근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고 이내 두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참 익숙해지지 않네, 위고르.”

살짝의 고갯짓과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반대쪽에서 백의의 보호구를 뒤집어 쓴 저들은 의료용 수레로 보이는 것들 안에 무언가 한가득 실은 저들은 우리를 지나쳐갔다. 그리고 뒤덮은 천 사이로 무수한 손과 발이 눈에 담겼다.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나는 금방 알아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들은 인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란 것인가?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그리도 쉬운 것인줄 알았는가?”

“이건 미친짓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얼마나 많은 생명의 죽음 위로 쌓아올려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가?”

“이리도 쉬이 죽음을 낳고도 절대 중립의 땅이라 부른단 말입니까?”

“그대는 그대 모르게 죽어간 이에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습니다.”

“다른이의 죽음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말라.”

“그저 삶에 있어 죽음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릇 생존은 처절하니 라파르는 그 처절함에 답하여 살아갈 길을 열

어준 것 뿐이라.”

참으로 역설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써내려간 기록에 사념을 담을 수 없기에 여기에는 그저 사실을 담았지만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다.

“지나오며 널브러진 시체더미와 타다만 나뭇가지들은 살리는 자들이 만든 풍경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자 할 의지가 없었다면, 쌓아올릴 시체도 없었겠지. 시체를 쌓아올릴만한 포부조차 없었다면, 저들은 아벨의 자손은 커녕 개미새끼 한마리조차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는 혹 눈과 귀를 가리고 그저 그대가 보고 싶은 구원의 형태만을 쫓으려는건가?”

그는 나의 순진함이 어지간히 답답했는지 전에 없던 거친말을 입밖으로 꺼내며 내게 물었고 나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행여 저들의 손으로도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땅에 만들어 낸다면, 나는 저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됩니까? 그저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으로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망설임없이 구원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리 원하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불경한 자를 저들 손으로 빚는다 해도 라파르에게 있어 그것 마저도 지식의 보고가 됨이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큰 재산이 될 것이라.”

“그것은 내가 주시하고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곳에서 만족했는지 모르지만 만족스럽게 웃었다.

“옳다.”

우리는 의료집중국을 뒤로했고 락시아 변두리에서 다시 두 청년과 지나쳤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시체의 산이 더욱 높아졌음을 깨달으며 잠시 멈추어 죽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책을 덮었다. 돌아선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분명 또 웃고 있었다. 아무런 표정의 변화없이 나는 펜을 놀리다 쌓여올려진 시체더미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당신들의 희생위로 이 기록을 무사히 이어나가고 있다.”

『 나즈레스, 추종자. 세트의 아이들 』

어둠을 꾸역꾸역 헤치며 걷던 도중 넋이 나가있던 나의 주의를 끈 것은 저 멀리서 울리는 늑대 울음이었다. 멀리서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저편에서 또 다른 울음소리로 계속해서 이어졌다.

소름끼치도록 갈라지며 울려퍼지는 울음 때문인지 차가운 바람은 더욱 을씨년스러이 느껴졌고 나도 모르게 옷깃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새벽녘이 밝아오매 우리는 그것을 고스란히 몸에 담았다.

“얼마만의 볕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랜동안 카인의 핏줄 곁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손가락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새벽녘을 바라보며 웃음지었다. 그는 빛줄기를 만족스러이 몸에 담으며 내게 물었다.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후예를 뒤이어 우리가 조우하게 될 무리는 누구인가?”

“남은 것은 세트의 후예입니다.”

“아, 세트의 후예들이라. 신수 자르갈의 자식들이 아닌가.”

“신수 자르갈의 피를 이은 존재들을 자르갈의 아이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찌 세트의 후예들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트가 욕망의 덩어리였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고 싶었던 까닭이라. 그리고 그 욕망이 어디로 가겠는가? 욕망은 그의 후예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었지. 자르갈에게 볼 수 없었던 내

이름과 거죽을 남기려는 그 욕망 때문에 자르갈의 아이들을 거느리고도 후에 이르러 그의 유산이 아닌 세트의 후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주위에 늑대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오기 시작했다.
“세트의 영역에 발을 딛고자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늑대의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옳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세트의 후예들 가운데에서도 세트의 명맥과 정신을 고스란히 잇는 자들을 맞이할 것이기에 더더욱 저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써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갈기를 뒤집어썼고 비로소 세트의 후예를 맞이할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껍떼기를 뒤집어 쓰고 준비를 마쳤다는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낯선 감각을 두르고 더 먼곳을 내다본다. 잠시 뒤, 불현듯 수많은 사고와 감정이 내 뇌리를 스쳐가 잠시 현기증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른 존재들과는 사뭇 다른 이질적인 감각이 아니더냐?”
그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며 가볍게 웃었다.
“저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서로 연결된 존재들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군요.”
“옳다. 그것이 바로 세트를 현혹케한 신수 자르갈의 힘 중 하나. 의식의 고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그가 설명하긴 전부터 이미 난 알고 있었다. 이상할 것 없다. 우리는 이미 세트의 후예 그 깊은 의식과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달밤을 부르짖는

자르갈의 무리와 다름없었다. 다른 이들과의 교감으로 후련하고도 개운 느낌에 한껏 취해있던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나를 옭죄이며 숨구멍을 막는듯한 먹먹함이 나를 짓눌렀다.

“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이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세트의 후예들을 갈라지고 찢겨져 분단되게 만든 것이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 이것은 그들의 저주입니까?”

“옳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 저주가 아니라 세트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지 저주라 느끼는 것은 세트 자신이었다. 그러나, 세트도, 그의 후예도, 나아가 이데아를 사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그 죄책감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고 감내하지 못한 것들이 불경한 존재로 뒤틀려버린 것이라.”

“세트는 그 때에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책무였던 것인지, 온 이데아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홀로 그것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의 후예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숨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게야. 다만, 그 여파 때문인지 그의 심장과 온몸은 돌이 되었다.”

“세트의 후예 입장에서는 신을 잃은것과 다름없었겠군요.”

“그렇지. 카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난 뒤의 아벨의 자손과 같은 상

황이었지.”

“허면, 저들도 아벨의 자손과 같이 비탄에 잠기어 있었습니까?”

“그대 신수 자르갈의 피에 담긴 강인함을 모르는구나.”

그는 저멀리 울부짖는 자들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짐승의 울음을 토하고는 내게 말했다.

“세트가 돌이 되어 사실상 죽어버린 돌덩이에 불과했지만, 신이라 불리우는 자 아래에서 그의 뒤를 좇던 자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 반대지.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유대가 강인한 것이기에 우상을 잃고도 그가 제시한 그 길에 스스로를 내던져 증명하고자 한 것이지. 저들에게 세트란 존재는 이제 그저 옛 우상이 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우할 여섯의 세트의 후예들 모두 스스로 신이라 자칭하는 자들이라.”

수많은 바위의 계곡을 넘어서도 그 뒤로 무수한 돌무더기가 우리 앞을 막아세운다. 그럴 수록 나의 발걸음은 무거웁고 주위에 나뒹구는 바윗덩이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듯했다.

“하늘을 돌덩이로 수놓은 것과 같지 않은가? 빛조차 새어들어오지 못해 협곡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이곳을 입을 모아 돌무더기 높이 솟은 아

브 게르라 부르는도다.”
그의 말처럼 우리가 아브 게르로 들어가면 갈수록 무수한 바위가 하늘을 뒤덮으려는 듯 겹겹이 겹쳐진 장관을 이루었다.
“세트의 후예임을 자랑스러이 여기는 추종자. 신의 대리인. 변절자를 배제하며 모든 후예들의 정점에 서길 원하는 선구자를 자처하는 저들을 신의 아이라는 뜻의 나즈레스라고 부른다.”
신의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하기엔 주위엔 온통 돌덩이 뿐이라 제대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지 못할때 즈음 나즈레스의 성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신전이라 부르는 그것은 그저 바위를 아무렇게나 대충 깎아만든 것처럼 보였다.

“의심은 거두어라. 이곳은 그저 입구에 불과할 뿐이니 우리가 자리한 이 곳은 분명 세트가 묻혀진 그 신전이 분명하다.”

짐승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가. 그러나, 신당 앞에 다다라 그가 석면에 손을 얹으니, 겹쳐진 바위가 흐르는 바람처럼 흩날리더니 본 모습을 드러냈다. 새겨진 흔적 하나하나에서 존경과 경외 그리고 깊은 정성이 담겨져 있었다. 내가 놀라움을 표하는 것을 보더니 그가 신전을 올려다보며 내게 말했다.
“그럴 수 밖에 없으니, 이곳을 깎은 모든 것들이 나즈레스 무리들이

그토록 단단한 자르갈의 발톱마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깎아 만들어 세운 것이 때문이다. 그것이 저들의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입꼬리를 올리고 세트의 신전을 향해 팔을 활짝 펼쳐보이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세트의 후예로서 그 발톱은 이제 더이상 날카롭지 않아도 되나니, 신당을 세우며 죄책감에 짓눌린 그 무게를 기꺼이 저들도 함께 지으려 했으니, 세트의 심장을 죄인 돌과 그 의식을 함께하여 돌덩이나 바위를 자유로이 다루는 경지에 닿게 됨이라.”

“죄책감의 무게를 함께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한 무거운 죄책감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은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세트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지.”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위로 바위가 저들끼리 부딪히고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들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드넓은 대지를 울리는 중후한 울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컸다. 짓누르는 저 무수한 돌무더기에 이빨과 발톱이 가진 날카로움은 그 빛을 잃었지만 저들이 진 무게만큼 거대하고 중후한 힘을 손에 얻게 된 것이지.”

지축을 흔드는 울림이 줄어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보라. 저것이 세트의 추종자 나즈레스의 무게로다. 범인들은 감히 짊어지지 못하는 저들만의 숭고한 명예라는 무게말이다.”

그가 손으로 가르킨 그곳엔 나즈레스의 무리들이 휘황찬란한 빛을 뿜내며, 우리 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흩날리는 바위와 더불어 금빛 찬란한 갑주를 둘렀고 그만큼이나 저들의 눈도 빛을 내고 있었다. 이는 짐승의 모습이 아닌 아득히 먼 닿지 않는 문명을 사는 존재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기에 감탄스러움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들을 그저 올려다 볼 수 밖에 없었다.

무수한 바위는 흩날리듯 움직이더니 문이 되어 열렸고, 돌무더기들은 기이하게 둥실거리더니 이내 소용돌이치듯 돌아가며 굳게 닫혔다.

“오! 위대한 토루샤, 우리를 이끄소서.”

나즈레스의 전사 하나가 거대하고도 늙은 지도자에게 그리 말했다.

“그리 될 것이라. 그러나, 만물의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한 그 무게를 모든 자들이 똑같이 느껴야 할 것이라. 그리고 내 마치지 못한 그것을 네가 이루어줬으면 하는구나.”

어린 전사는 미간을 찡그리며, 그를 다그쳤다.

“그리 말하지 마시오, 아버지. 나는 아직 그 무게를 짊어질만한 나즈레스의 추종자가 못되오.”

늙은 늑대는 웃으며 손에 쥐고 있던 돌덩이를 부수고는 무릎을 꿇고 있

는 아들의 이마에 뿌렸다.
"세트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갈 것이다. 하나 둘. 차근히 말이다. 돌이 된 세트가 바람에 깎이어 모래가 될 때까지."
조용히 모래를 맞는 어린 늑대도 전의를 불태웠다.
주위의 바위가 그에게 화답이라도 하듯 대지가 울리며 요동쳤다.
"저들의 신성한 세례를 방해하지 말아야겠구나. 오라. 돌무덤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검은 협곡을 한참을 벗어난 거리였지만 대지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세트의 후예는 나의 예상을 아득히 넘어선 더욱이 미친 것들이었다. 그것은 그저 짐승의 형상을 한 고도의 지성과 기이한 능력을 지닌 또다른 존재임이 자명하다.

"찢겨진 저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면 대체…"

나는 말을 채 끝마치지 못하고 검은 협곡을 뒤로했다. 내 말을 들은 그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는 모래, 돌, 자갈, 바위 온 대지가 나즈레스의 울음에 답하는 광경을 하릴없이 바라보았다.

『 교감과 공감, 소통하는 자. 밀라모르 』

무엇인가 아까부터 줄곧 나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지만 그것은 나즈레스의 고동치는 대지의 울림이 아니다. 더욱 귀를 귀울여보니 그것은 다른 것들의 목소리였다. 내가 애써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러이 나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마치 억지로 나의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듯 했다. 그리고 저들이 지닌 모든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

“세트의 후예가 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다른이들과 의식을 공유하는 그것이 그리도 신경 쓰이는가?”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한 것조차 들리는데 이런 것을 원하는 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듣고 싶은것만 듣기 위해 뜨여진 힘이 아니라 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과의 상호 교류, 이해와 포용을 위하야 듣는것이라.”

그것이 아직 익숙치 않은 내가 퉁명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감정을 읽는 것은 이리도 혼란스러운 것이군요.”

그러다 갑자기 더욱 깊은 소통의 영역에 닿게 되자 이질감에 몸이 굳었다. 다른 이의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느끼는 주체가 나인지 혹은 다른이의 감정인지조차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채 한참을 우두커니 서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나를 향한 수많은 목소리에 화답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움직이게끔 옆에서 도와줬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트의 후예가 의식을 공유한다는 말은 들어봤고 그것이 익숙해졌다 느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마치 격류 속에 몸을 던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나지막이 저들의 말로 미친듯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보라,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다른 이의 의식과 감정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그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도 모를테고.”

그는 내가 그 의식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대화를 마칠때까지 내 옆에 앉아 그것을 기다려줬고 나는 마침내 저들의 소통의 장 안에 무사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대도 느꼈겠지. 모든 세트의 후예들이 이 정도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저들의 영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들 들을 수 있었다. 아니, 더욱 깊은 너머를 볼 수 있었다.
“감정의 공유로 이런것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극에 달하게 된다면 저들의 감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기억까지 더듬을 수 있지.”

“이것은 이미 소통이나 공감의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이군요.”

“옳다. 다만, 공감의 영역을 낮추어보지 말라. 저들이 그저 세트의 후예끼리만 소통하며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다른 수많은 존재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어디 그것 뿐인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들판의 짐승이나 벌레와도 의식을 나눌 수 있음이라.”

“이해할 수 없군요. 질긴 피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그리고 어둠을 꿰뚫는 눈 등등 세트의 후예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자질을 두고도 저들은 어찌하야 공감과 소통을 택한 것입니까? 분명 당신은 세트의 후예는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대화나 소통으로 다른 이들을 다스리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만.”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총과 칼 뿐이라 생각하는가? 그대가 든 펜도 무기가 될 수 있고, 벽에 새겨진 흔적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이 다양한 언어마저 훌륭한 무기가 될 따름이니.”

세트의 후예라면 짐승의 탈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진대,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하며 공감을 하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공감하는 자들이 이전에는 세트의 후예들로부터 변절자라며 배척받은 자들이 모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가? 세트의 후예들 중에서도 이형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섞이어진 피.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섞이어진 피라면 공감하는 이들이라 부르는 자들은 순혈의 세트의 후예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옳다.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아벨의 자손과 세트의 후예가 나무 아래에서 서로 몸을 섞고 만들어진 잡종이 저들 무리의 시작이라. 그리고 자신들을 교감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밀라모르라고 부르며 저들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잡종이라는 말이 괜스레 신경이 쓰여 내가 그에게 대꾸했다.

“어차피 이 땅 위에 순혈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옳다. 다만 저들은 쾌락과 찰나의 눈맞음으로 몸을 섞은것이 아니라 저들은 교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단단하게 형성된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뒤이어 나의 의식은 더욱 깊어졌고 그 뒤에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나누었지만 그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 그들의 영역에 닿은 것으로도 우리는 입과 목소리를 토하지 아니하여도 그 말을 이어왔던 것이었다.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니 말과 소리 그리고 대화 공감과 교감을 눈으로 바라보며 경외감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밀라모르의 언어인가. 밀라모르이 자리한 곳에 발을 딛고, 저들의 보금자리를 둘러보았다. 나무 위로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었지만, 저들이 머무는 그곳은 나무에 기름을 발라놓은듯 매끈한 모습이었고 그 주위로 나는 향기는 왠지 모르게 푸근하고 안정된 기분이 들었다. 그 주위로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물론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들리었다. 아니 보였다고 하는 편이 나으려나.

“잘 들려, 이것이 에콰구나.”
“응, 그리고 조금만 더 귀를 귀울여봐. 그게 데포르.”
“우와! 보인다!”
“조심해, 머리가 아파올거야.”
“…어…어어!!!! 맞아!! 벨루나 어디있어? 아파! 아파!! 아파!!!”

아이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다른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를 감싸 안은채 이전에 그가 내게 했던것처럼 어깨를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분명히 그녀를 대신하여 소통을 이어나가게 해준 것이리라. 그녀의 탁해진 그녀의 눈이 원래의 색을 되찾더니 이내 다시 그녀가 입을 떼었다.

“이제 괜찮아, 시란.”

“어? 안보여. 아니, 다시 들리는구나. 후… 힘들다, 이거.”

“너는 소통이 무척이나 깊구나. 대단해, 정말 놀라워. 그럼 조금 쉴까?”

저들이 공유하는 교감의 공간 속에서 의식을 넓히는 듯한 훈련을 가만히 보던 나는 불현듯 그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세트의 후예라지만 저들의 몸을 이루는 대부분이 아벨의 자손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저 반쪽짜리 모습은 저주인지 축복인지 어느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거부감 없는 모습이기도 하여, 저들은 세트의 후예 사이에서도 다른 종족간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

“짐승의 배에서 난 것이 그 어떠한 지성을 지닌 것들보다 다른 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군요.”

“그러나, 보라. 그 짐승의 아비는 신수 자르가와 교감하고 그 후예들을 낳지 않았는가?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누

구의 배를 찢고 나왔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옳다. 짐승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었다. 물론 저들의 몸의 일부는 세트의 후예와 다름없기에 인간의 몸 따위는 간단히 찢고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저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저들이 바라는 모습을 그리자면 평화라고 할 수 있지.”

“오직 피와 살을 뿌려대는 이 시대에 저들의 꿈이 오히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군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안식을 원하며 목놓아 울던 세트의 앞에 자르가가 기꺼이 저들의 품을 내어주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삭막하게 이데아를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가?”

듣고보니 그의 말에 일리가 있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저들이 의식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려는 성향은 세트의 감정선을 그대로 물려 받았기 때문이라네.”

“반쪽짜리 세트의 후예라 불리지만 누구보다 세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짐승들일지도 모르겠군요.”

“옳다. 그러나, 불경한 것들과 자신의 굳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자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의미있는 행동인가는 저들에게 달리었고, 그것이

옳고 그른 길이었는가 증명하는 것도 저들의 언어겠지."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고, 그것은 분명 나의 귀로 들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밀라모르의 보금자리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밀라모르의 목소리처럼 다른 것들과 깊게 교감하지 못할 것이다.

『 자연의 섭리, 순환의 주시자. 모샤에트 』

태양을 맞이한 시간보다 하늘을 뒤덮는 울창한 숲을 거니는 기간이 더 길어진 것 같다. 아니, 그 곳에 오랜동안 있다보니 시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다.

“대체 얼마나 이곳을 걸었는지 알 수 없군요.”

모가지를 뻣뻣하게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숲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거진 수풀 사이로 흩뿌려지는 가는 빛줄기가 전부였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머리 위에서 어지러이 춤췄다. 현기증이 났다. 그가 나무에 왔던길을 표시해 둔 흔적을 손으로 어루만지고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숲길을 헤메이는 것을 보니 제대로 발걸음을 하고 있구나. 이곳을 지키는 자들을 불편하게하여 그들이 숲을 뒤틀어놓은 것이니 염려말라.”

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행여나 수풀 뒤에서 숨을 죽이고 나타나 나의 목을 뜯어내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두려워 말라.”

그가 숲속 깊은 곳을 응시한채로 내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숲은 우리를 경계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숲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존재들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이

군요.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부인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만큼 오랜동안 발시아가 이데아에 해 온 것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경계인게지."

"저들이 무엇인데 숲 밖의 것들에게 분노를 보이는 것입니까?"

"오랜동안 숲과 하나되어 살아오며 불경한 것들로부터 굳게 지켜온 자들에게 숲 밖에서 일어난 참상 어느 하나 주시하는 자들에게있어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기 때문이로다."

"이데아는 피흘리고 생명의 불씨가 죽어가던 가운데 대체 저들이 주시하며 지킨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순환, 그리고 자연의 고리를 지켜왔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불신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낙원은 망가지고 부숴졌다. 결국 숲 안에 쳐박혀있는 자들이 지킨것은 하나도 없다. 의심하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그가 차분히 답했다.

"자연의 순환 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며, 그 어느 누구도 우위에 설 수 없으니 이데아로부터 빌려 살아온 생명을 죽어서 다시 환원하게 되는 진리를 추구해왔지."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여 서로가 서로의 머리 위에 서길 원하며 죽고 죽이는 굴레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나의 그럴듯해 보였던 반박에 코웃음을 치더니 답했다.

“저들이 지키고자 한 것이 발시아라고 생각하는건가? 오, 아니지 아니고말고. 비록 이데아는 상처입고 그 색을 잃어 발시아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된다한들 그것은 발시아를 죽게하는 것이지 이데아는 저들이 죽고나면 스스로의 빛을 다시금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이데아의 생명을 너무 과소평가한것이 아닌가?”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우거진 숲에 가벼운 산들바람이 일었다. 사각거리는 잎새는 서로 속삭이는 듯하니 기괴함이 느껴졌고, 뿌리는 서로 뒤엉키며 둔탁하게 삐걱거리고 우드득거리며 울어댔다.
“에르아의 낙인? 신수 자르가의 선택? 아벨의 은총?”
그는 손을 단호하게 내밀며 고개를 가로젓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발시아도 결국 생명의 고리 안에 속한 존재일 뿐이지. 자연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발시아가 나오기 이전의 세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바와 아다무스가 뛰놀던 그 때, 푸르른 이데아가 낙원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때이지요.”

“옳다. 그 낙원은 뒤이어 세상에 나온 세트가 가장 동경하던 것이었고, 그것을 동경했다. 그 마음이 이어지며 후에 빛바랜 낙원을 다시금 살게끔 순환의 고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 뒤에 내린 결론이 그저 숲 밖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

히는 것입니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머금은 자연, 숲은 물론이요, 배를 땅에 끌고 다니는 벌레 그리고 흙 아래에 뿌리내린 거목까지. 저 모든 것들을 불경한 것들로부터 지켜내고 그것들을 부수어 다시금 흙으로 되돌려 다음 생명의 양분이 되게끔 하는 것이지."

"헌데 벌레 하나까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없어진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들마저 다른이를 죽이어가며 지키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랍니까?"

"그 벌레가 하나 둘 사라질수록 생명의 고리는 깨지고 더이상 낙원은 없게 될 것이라. 우리가 선 땅을 무어라 생각하는가? 다른 것도 아닌 에르아의 변칙성이 담겨진 이데아로다. 그것이 낳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것은 에르아조차도 진기하게 여기며 넋을 잃고 바라본 것이니 이데아 위에 선 생명은 쓸모없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은 순환의 진리를 깨달아야 겨우 알 수 있는 것임이라."

"그것은 불경한 존재라 불리우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 순환에 머물지 못하여 그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불경한 자들이며 불순물이 아니겠는가?"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고, 우리는 앞을 모르는 깊은 숲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경계를 풀고 모습을 드러낸 존재를 맞이하

였다.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로움,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라삿 그리고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조라 불리우는 것들은 불쾌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숲에 발을 딛는 것을 허락하였다.

“저들이 숲의 수호자입니까?”

“아니, 저들은 그들을 따르는 파수꾼이네. 자연의 섭리에 선 세트의 후예인 모샤에트의 전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지.”

“문지기와 다름없다 보면 되겠군요.”

“저들이 비단 문지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면 그리 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샤에트의 주시자들이 되어 더욱 깊은 숲의 생명을 느낄 것이라.”

그 뒤로 우리는 숲의 파수꾼들과 함께 숲의 더욱 깊은 곳으로, 자연의 고리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자연의 섭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말했다.

“저들에게서 세트의 후예다운 모습을 찾기 힘들군요.”

그 말대로 어디에도 늑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늑대, 아니 짐승이라기보단 오히려 살아있는 나무껍질 같다는 말로밖에 저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애초에 저들은 피와 살을 뜯어먹는 짐승이 아닐진대 어찌 세트의 후예다운 모습을 바랬는가?”

“허면 저들은 어찌 삶을 이어나간단 말입니까?”

“이데아가 대지에 뿌리내린 것과도 같이 저들의 몸에서 뿌리가 뻗어나와 대지를 적신 물과 양분을 빨아먹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며 황폐해진 이 땅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저들을 다시금 세세히 눈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 저들의 피부거죽은 말 그대로 나무 껍떼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듯했고, 몸 군데군데 자생하는 풀과 나뭇가지 그리고 잎사귀가 살랑거리며 생명을 노래하고 있었다. 저들의 날카로운 이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단단한 몸에 둘러새긴 기이한 문양은 저들 눈만큼이나 깊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깊은 호수처럼 짙은 빛이었다.

“세트의 후예라는 사실이 저들에게 중요할까? 이미 저들은 세계의 균형과 굴레를 이해하며 스스로 땅에 뿌리내려 피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존재일진대. 그 이외의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닌 다른 세트의 후예들과 달리 신의 자리에 오르려 애를 쓰려고 하지도 않을 따름이라. 이미 자신들을 신이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의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가 우지직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더니 중후한 울림을 토해내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은 그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저들의, 저들만의 언어였다.
“벨그루 마두, 타르 누아 질 바르낙.”
언어조차 여지껏 조우한 세트의 후예와 사뭇 달랐기에, 난 저들을 대체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기록하던 손을 멈추고는 그저 우두커니 저들을 바라보았다.

“보라. 저들이 바로 대자연의 섭리를 이해한 자. 생명의 균형, 모샤에트이라 부르는 자들이다. 저들이 그것에 통달한 덕분에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들 하지.”

“당신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트의 후예가 아닌 것 같군요.”

“겉모습이 저러한들 대자연을 담은 숲의 고요함과 강인함과 숨을 쉬니 당연히 세트의 후예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만월의 광기에 잠기지 않고 언제나 이성적이고 절대적인 중립의 자세를 취하는 그들의 존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가?”

“절대 중립이라하면 저들을 그리 두려워해야할 이유가 없군요.”

“아니 두려워 함이 마땅하다.”

중립적인 자들임에도 굳이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몰라 그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중립이라는 말을 오해말라. 중립이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를 깨는 존재들에게 평화를 바라는 것은 아니니, 그 진리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뿌리내려 생명을 빨아먹는 자들로 언제든 변모할 수도 있음이라.”

저들 몸에 휘감긴 뿌리에 몸이 휘감겨 몸부림치다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모샤에트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선명한 현실로 다가왔다.

모샤에트의 무리들은 움직일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로의 뿌리가 한데 엉켜 양분을 나누기도 하며, 저들끼리 소통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괴했다.

“자 이제 말해보라. 아직도 저들이 두려운가?”

“두렵습니다.”

“옳다. 저들 앞에서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생명의 순환에 고개숙이라. 그것이 어머니 대자연으로부터 빌려온 생명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될 것이니.”

그는 원대한 자연의 법칙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연의 순환 속에서 주시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아군으로 만들수도 없었고, 저들을 적대하고자 하는 이들은 더더욱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들이 곁에 함께 있다한들 그대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자연의 섭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숲을 빠져나왔다. 밖에서 바라보았을 땐 울창하고 어두컴컴한 숲에 불과했지만, 저 안에 분명 새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삼켜버릴 생명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 고고한 늑대, 자르갈. 신수의 후예 』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찾아옴에도 만월의 빛이 대지를 푸른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여지껏 보아왔던 풍경임에도 묘한 이질감이 들었다. 이질감은 풍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털 끝은 곤두서고 온 신경이 미친듯이 요동치는 느낌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에서 피가 주륵 흘러내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달빛은 나를 삼키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피를 소매에 닦으며 그에게 물었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의 세트의 후예가 짊어진 업보, 만월의 광기라.”

왠지 모르게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다. 이 고양감은 다른 세트의 후예들을 만났을때와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안에서 휘몰아치는 느낌 혹은 안락한 요람에 몸을 맡기는 듯 했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을 뒤로하고 그저 눈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찢어 죽이고 싶다. 나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 때 여기저기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러나, 여느때 듣던 울음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울부짖음이 아니요, 광기의 외침에 가까운 것이었다. 모든 신경은 곤두서고 몸 안의 심장박동은 요동치며 의식은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듯하였으나, 기이하게

도 그 기분은 썩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에 한껏 취해지려 할 때쯤 그가 나를 끄집어냈다.

“만월의 광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안락하고 포근했습니다. 마치 깨고 싶지 않는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간신히 정신을 추스리고 그에게 말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으니 눈을 감을때까지 그저 저마다의 방법으로 견디고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는 아무렇지 않은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광기에 빠져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게 되어 이데아에 상처를 낼만한 힘을 얻게 되지만 그 대가로 스스로를 갉아먹으니 후에 이르러서는 그저 미친 짐승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세트의 후예라는 사실조차 잊은채로 말이다.”

“매 순간 시험에 빠져야 하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닙니까?”

“그러냐. 그들 가운데에서도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듯 광기에 기꺼이 빠져 그것을 즐기는 자들도 기구하다 할 수 있는가?”

“광기를 즐긴다니요?”

“이제와 무엇이 놀라운가? 저들은 저들의 의지로 광기를 받아들여 오

랜동안 이데아를 살던 호전성 가득한 저들안에 흐르고있는 자르가의 피를 깨운 것일 뿐인데 말이다.”

“자르가는 그저 늑대의 형상을 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발을 딛었을때 저들 뿐이었는가? 아니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나고 지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랜동안 숨쉬어 온 자들이라. 그것을 가능케한 것이 무엇이냐? 단순하다. 다른 종을 넘어선 압도적인 힘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려오기 전부터 이데아에 살며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던 존재들이로군요.”

“옳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오랜동안 숨을 쉬어온 그것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세트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지.”

“세트가 늑대의 무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누가 감히 신수 자르가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세트는 그저 저들에게 반하여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 뿐이지. 그러니 저들을 그저 오랜동안 살아온 늑대로 치부하는 것은 우매하기 그지없는 것이라.”

“헌데, 세트의 후예임에도 자르가의 뜻을 잇기 위해 세트를 등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금 세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하야 그를 짓누른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야 깊은 바위무덤 속에서 돌이 되었지요.”

“그것 때문이다. 자르가의 피가 진한 자들에게 있어 세트는 이바와 아

다무스의 저주를 감내하지 못한 나약한 자요, 그들은 그저 약한 자들로부터 등을 진 것 뿐이라.”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세트가 자신의 후예들을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졌음에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를 등졌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의아하여 그에게 묻는다.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는 것은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저 짐승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짐승이 맞다. 자르가의 호전성,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인하야 저들 안에 담긴 만월의 광기는 저들을 짐승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지. 그것이 신수 자르가가 숨쉬어 온 역사이니. 고로, 저들은 짐승이 맞다.”

“세트를 등진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르가의 후예라 느끼는 자들은 다른 무엇으로도 불리우기를 혐오하니 그 이름을 이어받아 같은 이름인 자르가라 부름이라. 또한 그 후대의 우두머리들 모두가 백색의 물결 은빛의 갈기 라바로쉬의 어금니와 발톱 아래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지.”

“세트를 포함하야 세트의 모든 후예들에게 등을 돌렸다면 다른 세트의 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군요.”

내 말을 듣고 그가 망설임 없이 내게 묻는다.
“그대, 신수 전쟁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만월이 가득 찬 밤에 문을 걸어 잠구어도 그 문을 찢고 나온 발톱 뒤에 서슬 푸른 눈빛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통없는 죽음을 맞이함을 감사하라는 시의 구절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

“그 시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르가의 후예로군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 따 만들어진 것이 자르가의 문양이 된 것이고.”
“옳다. 진정한 강함만을 위해 숨을 쉬는 자르가의 후예들은 서로 죽고 죽이며 더욱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더더욱 강해질 따름이라. 자르가끼리 벌이는 혈투. 그것이 영원의 전쟁만큼 이데아를 전율케 하는 신수 전쟁을 잔치와도 같이 여기는 자들인데 다른 후예들의 반발에 신경이나 쓸 것 같으냐? 내가 이전에 무어라 했는가? 저들을 자르가의 진정한 후예라 부르지 않았는가?”
“예, 분명 그리 말했죠.”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가운데 세트마저 저들의 손에 의해 간택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자르가가 세트의 위에 선 존재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힘에서는 당연 자르가는 그의 위에 섬이 마땅하다. 비록 자르가의 무

리 안에서 그의 후예들을 이어갔던 세트였지만 자르가안에 흐르는 피에 담겨진 순수한 힘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음이라.”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문득 힘만을 갈망하는 짐승들의 행보가 궁금해져 그에게 물었다.

“자르가의 피를 잇는 저 짐승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괴와 혼란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 유추한 까닭은 만월의 광기에 취하야 이성을 잃고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악의 축으로 여기기 때문인가?”

“예.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하여 쌓아올린 것이 아닌 힘은 제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손 써볼 수 없는 듯한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랴.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이 저들에게 가당키나 한단 말인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두 마리의 세트의 후예가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저들이 자르가의 후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비단 다른 세트의 후예에 비해 체형이 거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뿜어내는 광기의 기운이 새어나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대는 두려워말라.”

그가 내게 나즈막히 속삭였다.

“광기에 물들어 이서을 잃고 한 치 앞도 모른채 파괴만을 바라는 자들을 눈 앞에 두고 두려워 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에게 건네어 줄 관심따위 갖고

있지 않으니 염려 말라는 것이라.”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의 말대로 저들은 내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약자는 멸시하여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항상 자신들보다 더욱 강한 자들을 죽이기 위한 투기를 잃지 않았고 생사의 경계에 놓이는 순수한 폭력, 단순명료한 삶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저들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를 일부러 지우려는 듯 보였다. 아니, 애초에 저들에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말 그대로 발 앞에 놓여진 작은 돌덩이나 다름 없었다.
“저들보다 나약한 존재임을 항상 감사해야 한다.”

“그런 것 같군요. 혹여 저들보다 강했다 한들 난 죽기 전까지 편한 휴식을 맞지 못했을 겁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지만, 한숨과 함께 입가에 미소가 새어나왔다. 진정한 자르가의 후예를 눈 앞에서 맞이했지만 저들 사이에 녹아든 나는 투쟁심이 불타올라 손이 떨렸다. 떨리는 손에 쥐어진 펜촉이 책을 스치는 소리가 없었다면 난 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피비린내와 살덩이 튀는 광기에 사로잡혀 저들과 다름없이 죽을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게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래, 이거지. 이게 세트의 후예다. 아니 진정한 자르가의 후손이다. 명예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처

절하게 몸부림치며 온몸을 피로 적시며 찢고 뜯고 죽이고 부수는 삶을 반복하여 나를 찾는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줄곧 머리로 그려온 세트의 후예입니다.”

그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듯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내게 말했다.

“피와 살이 튀는 투쟁이야말로 오랜동안 이데아에서 펼쳐진 것이 아닌가? 어쩌면 낙원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던 자들이 그려온 허구의 세계인지도 모른다.”

여전히 만월은 이데아를 밝게 비추었고, 귀를 막아도 이데아에 퍼지는 광기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것을 즐기는 양 나도 입을 맞추어 미친듯 울어댔고, 책을 덮어 펜은 잠시 쉬게한 뒤 이데아를 상처입히는 그 순간을 즐겼다.

『 죽음의 색, 울라메드. 처절한 생존자 』

쉼없이 두 손으로 기록을 담으며 길을 걷는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는 주위에 불경한 숨결을 느끼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의 시선이 닿은 그곳에는 살점이 녹아내린 듯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언덕 아래 부서진 잔해들 사이에서 게걸스럽게 무언가를 입에 쑤셔넣고는 즐거이 으르렁대고 있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죽였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뒤틀린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든 것인지 감히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돌연 발걸음을 멈추더니 하늘을 보며 내게 말했다.

"그 저주를 입었음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저주와 함께 생을 버리고 죽음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돌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대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었다면 어찌 하겠는가?"

"뒤틀린 모습으로 불경한 숨결을 토하며 사느니 이 땅의 거름이 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내게 되묻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 하겠다는 것인가?"

"뒤틀린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일그러진 귀로 옳음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그땐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나의 답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그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아무리 세트의 후예의 거죽을 뒤집어 쓴들 아직 그들이 생존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 자신을 보라.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가?”
모든 세트의 후예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가장 무겁게 내려진 자들이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버둥대는 것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고, 질기도록 그것을 정면으로 대한 것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노라한 세트의 후예들은 고작 여섯이 남았으니, 저들이 생을 위하야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왔는지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영원의 전쟁보다 치열한 것이었는가? 영원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것은 이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뿐이라. 저들로부터 만월의 광기가 떠나지 않는한 그것은 영원과도 같은 외로운 전쟁이었다.

“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저주를 맞이했다. 혹자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고, 그것과 맞서려 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어 바스러져 흔적을 남기지 못했지.”

“그 저주마저 감내하고 이겨낸 자들만이 낙원에 흔적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이군요.”
“옳다. 그리고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 가장 처절하게 살아남은 자들을 오늘 맞이할 것이라.”

“세상 어느 누구하나 처절하게 하루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다. 허나, 여지껏 보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지. 그러나, 말그대로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조우한 적이 있는가?”

있었나?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어린 나이에 살기위해 죽음을 무릅쓰려 발버둥치던 자들은 있었지만 전쟁의 고아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낳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세트의 후예들이 몸을 담고 있는 세계 즉 적자생존의 야생에서는 살기 위해 죽이는 것은 통용되는 것이지만 살기 위해 죽는다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순수하게 살기 위해 죽음의 기로에 서는 짓거리를 하는 짐승은 없다.

“없었군요.”

나는 한참을 되뇌이다 간신히 답하였다.

“그래, 그런 미친개념이 통하는 세계에 사는 존재는 없었지.”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망설임없이 답하였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자, 보라. 이곳이 세트의 후예 가운데 울라메드라 부르는 자들이 사경을 넘나들며 삶을 갈구하던 자리이자 죽음의 보고. 굴라나그 간헐천

이 바로 이곳이다.”

그는 뒤이어 굴라나그를 생명의 샘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고 나는 그것의 존재가 더욱이 궁금해졌다. 생명의 샘과 죽음의 보고라는 말이 전혀 조화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굴라나그 간헐천은 이름 그대로 무수히 많은 화산의 구덩이가 연기를 토해내며 울고 있었고, 생명의 샘이라는 말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연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눈부신 빛깔을 띈 물줄기가 흐르는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이다. 그때 나는 또 다시 이질적인 공기를 느꼈고 입에서는 금속의 맛이 가시질 않아 연신 침을 뱉어댔다. 목은 타오르듯 뜨거웁고 살갗은 간지러워 연신 긁어대느라 피가 배었고 그 주위로 바위같은 딱지가 올라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르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을 띄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다. 눈인줄 알았다. 나는 반가운 기분으로 그것을 손에 담았지만 이내 기이함을 느껴 그것을 손가락으로 문질렀고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황급히 고개를 들고 두 눈을 찡그린채 흩날리는 그 무언가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다. 눈인줄로만 알고 있던 것의 정체는 잿더미였다. 잿더미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다.

“저주는 이곳의 생태마저 바꾸어버린 것입니까? 아무런 생명도 움트지 못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내 분명 생명의 보고라 하지 않았는가?”

“이 곳이 생명의 보고라는 말을 들으면 이실그라드가 미쳐 날뛸지도

모르겠군요.”

내가 의심 가득한채 투덜거리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내게 답했다.

“그래, 이 곳이 말이네. 그대는 이 곳이 누구에게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라고 여길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가?”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이곳이 생명의 보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죽음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듯 합니다. 우리를 감싸안는 잿빛의 하늘과 흩날리는 잿더미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게 된 세트의 후예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생명의 보고에 담겨져있는 무엇이 저들의 삶을 되찾게 해 준 것입니까?”

그의 뒤를 따르며 걷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흩날리는 재는 코웃음 칠만큼 불쾌하게 뒤바뀌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고 눈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공기로 가득차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미치겠구만.”

내가 눈물 콧물을 짜내며 씩씩거렸다.

“보라. 이 공기를 토해낸 근원이 바로 저들 울라메드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음을.”

그가 소개한 샘에는 녹색과 노랑의 뒤엉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혼이 빨리는듯한 빛깔은 아름다웠지만 내 본능은 그것의 존재를 온몸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저것은 무엇인대 저리 휘황찬란한 빛깔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 물어보면서 나는 더이상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것을 눈에 담으려 했지만 이내 눈이 머는 듯한 어지러운 색을 토해냈다.

“형형의 색으로 빛나는 샘, 라디악. 이 구역의 모든 것을 바꾸어버린 기적의 물이지.”

“기적의 물이라 부를진대, 어찌 나의 모든 것이 저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대는 삶을 위해 저들만큼이나 죽음 앞에 맞선적이 없지 않은가?”

그리 말하는 그의 시선은 자욱한 잿빛의 그늘로 향해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 연기를 손으로 걷어내며 한걸음 더 내딛자 생명의 샘 주위로 올라메드의 무리가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저들의 존재를 눈에 차근히 담아내기 시작했다. 나의 시선이 라디악에 몸을 담근채로 쉼없이 재잘거리는 이들에게 닿았다.

“살라마그, 아직 그대의 주위에 죽음이 가득하다.”

그녀의 말을 듣던 그는 고개를 좌우로 까딱이고 요란하게 목을 풀더니 코를 킁킁대며 으르렁거렸다.

“울사네, 너는 걱정이 너무 많구나. 나를 뒤덮는 어둠따위가 나를 쉬

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죽음의 어둠속에서도 빛나며 숨을 토해내는 나를?”

그 말을 듣고 그의 곁에 있던 그녀는 매마른 대지처럼 갈라진 살갗 위로 휘황찬란한 물을 조용히 어깨에 뿌리며 말했다.

“생명의 샘이 가진 빛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 보여.”

그는 고개를 들며 깊은 한숨을 토하고는 그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샘이 다한다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오면, 내 몸 가득한 라디악을 네게 한방울 남김없이 건네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떠한 때가 오더라도 삶을 버리려 말라. 비록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 한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내일도.”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저들의 대화 이전에 저들의 외형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세트의 후예였을 뿐 지금의 저들에게서는 자스의 모습도 세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삶을 위해 애쓰는 자들임은 부정할 수 없었다.

“저 모습은 도저히 세트의 후예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경한 것들

이라 부르는 것에 가깝군요.”

“생명의 샘을 통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생명의 샘의 영향으로 저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다시 태어났다? 아니, 내 눈에는 그저 또 다른 불경한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추해 보이는가?”

목 가까이 차오르는 대답을 삼키고 난 뒤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는 책을 덮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거칠고도 추하지만 끊임없이 삶을 갈구하는 저 모습을 기억하라. 저들은 태생이 나약한 존재였고 지금은 추하디 추한 모습이지만, 그 집착이 저들을 마지막까지 살게 할 수도 있음이라. 낙원의 흔적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영광의 순간? 아니, 삶에 대한 갈망이다.”

나는 그의 말을 기록으로 고이 담았고 곧 우리는 형형색의 빛깔을 뒤로 했다. 희뿌연 하늘은 여전히 잿빛 눈송이를 흩뿌려대고 있었다.

『 달의 흔적, 광기의 지배자. 조라네스 』

“…달이 하늘 한가운데를 비추는데도 이리도 고요하다니 놀랍군요.”

나는 여지껏 조우했던 세트의 후예들을 떠올리며 묘하게 차분한것이 신경을 거스르기에 불평하듯 중얼거리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는 그림자를 연기처럼 뿜어대며 내게 물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가?”

나는 조용히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며 기록을 따라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워 지는것 만큼이나 너무나 외로웁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고요하여 불안하게 되는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그녀들의 광기속에 있으나 그것에 몸을 던진 이들의 안은 고요하고도 평화로울지니.”

그는 마치 아련한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듯 턱을 괴고는 말했다.

“조라네스. 만월의 광기를 품은 여인들이군요. 광기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않고 조용히 낙원에 흔적을 새긴 베일 속 여인들.”

“말 그대로 세트의 후예임에도 그들과는 담을쌓고 사는 여인들이지.”

“세트의 후예임에도 세트의 후예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봐도 될런지요? 허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산다니 역설적이군요.”

“그렇고말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것이 아니라 다르다는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여인들은 스스로 세트의 속박에서 벗

어나 그를 부정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광기를 다스렸으니 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어찌 그들은 세트를 부정하게 된 것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대뜸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대는 세트를 품은 신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미숙아 세트가 이데아를 상처입히고 방황할 때에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해하고 다독이며 저들의 울타리 안에 속하는 것을 허락한 존재하고 알고 있습니다.”

“옳다.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를 밟기 이전부터 이데아를 뛰놀던 존재들이며, 또한 호전적이고 용맹하여 만물의 위에 서 있던 긍지높은 자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조라네스이라는 여인들이 누구인지 여쭈었는데 어찌하여 세트의 근원인 신수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신수의 무리에 조라네스의 시작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은 신수의 무리가 여인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는 뒤틀린 웃음을 짓고는 눈을 감은채로 눈썹을 올리며 내게 물었다.

“아니지, 아니야. 여인들만으로 어찌 생명이 움트겠는가?”

그가 눈을 뜨고 목을 가다듬더니 내게 말했다.

“신수의 무리는 이데아 위로 태양과 달이 공존하는 것과 같이 호전적이고 명예로움을 지니고 있는 부계의 사회와 섬세하며 다른이의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모계의 사회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바와 아다무스는 둘째가일 정도로 조화를 이루며 낙원을 뛰놀던 자들이니, 그야말로 에르아조차 신기하며 바라보았다고 했지.”

또 다시 그가 뜸을 들이자, 나는 이를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허면 지금은?”

“그대가 예상하는 것과도 같이 저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더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노라.”

“무엇이 저들을 갈라버린 것입니까?”

“낙원을 뛰놀던 저들을 갈라버린 존재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세트.”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이미 여기에 있었고 나는 그 이름을 나즈막히 토해냈다.

“옳다. 자르가는 처음부터 미숙아였던 세트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 그리고 그 세트를 밀어낸 것은 당연히도 부계의 사회였지. 미숙아에겐 자르가의 강함은 발치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라. 미물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어 배척당한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는 것은 모계의 사회를 꾸리던 무리들이 세트를 품었던 것이군요.”
“옳다. 공감과 유대 그리고 모성애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속에서 세트의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한 것이지.”
“부계사회를 꾸리던 자르가의 무리가 이를 쉬이 납득 하더이까?”
“당연히 그 반응은 냉랭했도다. 그러나, 세트는 마음의 안식처를 자르가로부터 찾게 되었고 그는 모든 자르가의 무리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해가기 시작한 것이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르가의 무리들을 억지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끌어들이게 한 것이로군요.”

“그리고 더불어 영원의 전쟁에서 자신의 전쟁을 써내려가고자 하는 그 야망을 품은 것이지. 그 호전적인 모습은 부계사회를 꾸리던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야 자신의 피를 이어갈 자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
“딱히 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세트를 바꾸었지. 미숙아였던 그는 스스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는지 그대는 알지 못할 것이라. 그러하니 세트가 영원의 전쟁에서 그의 후예를 거느리며 가치관을 쌓고 나아가 그는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우월감에 한껏 취해 있었던 것이라.”
“그것은 분명 열등감의 족쇄를 부수고 새로이 태어난 듯한 해방감이나

다름없었겠군요.”

“옳다. 자신을 거두어준 것은 교감과 유대였지만 영원의 전쟁에서 필요했던 것은 자르가의 힘이니 나중에 이르러서 세트는 저들을 그저 도구로밖에 여기지 아니하였기에 자르가의 신수들이 느낀 배신감을 그대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새로이 쓰며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자가 스스로의 뒤를 돌아보지 못했던 게로군요.”

“옳다! 그것을 깨닭았을 때는 이미 이바와 아다무스의 죄가 그를 짓누를 따름이나니.”

한참이나 그들의 옛 이야기에 빠져 방향을 잃고있던 내가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고 그에게 다시 물었다.

“허나,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오라, 어째서 이 여인들이 세트로부터 등을 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세트가 저들을 질투하였기에 저들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이라.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자신들의 후예들에게 더 깊게 뿌리내지리 못하게 그것을 기꺼이 짊어졌지만, 무의식 속에 남겨진 그의 질투 때문에 그 비호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다.”

“질투.”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진 추악한 감정이 자르가의 후예들까지 물들여 이들 사이를 찢어 갈라놓게 된 것이었다.
“허면 무엇이 그토록 세트를 질투하게 만든겁니까?”

“자신조차 이성을 잃으며 감내할 수 없던 만월의 광기가 바로 그것이라. 세트는 여인들이 광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질투한게지.”

그는 만월의 광기에 스스로 몸을 던진 부계의 사회에 뿌리내려 자르가로 남게 된 것이고, 만월의 광기마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던 지배자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의 뿌리가 조라네스라는 이름의 어미들이라고 덧붙이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렇듯 만월의 광기를 대하는 방식은 저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저들이 다른 이들을 지배하기 위한 형태였다. 설명을 끝마친 그는 수풀 한 꺼풀을 벗겨내자 우리는 세트의 이중성에 회의를 느끼고 차오르는 배신감에 세트의 후예를 등진 저들만의 터전, 여기 금남의 구역 나쉬메누에 발을 딛게 된다.
“빠르구나, 무아. 열세번째 붉은달을 보낸 기분이 어때?”
새벽녘이 짙게 깔리어 어두움에도 눈을 밝게 비추는 조라네스의 여전사들이 서로 말을 나누고 있었다.
“난 이미 준비가 되었어, 아요. 만월의 광기는 이제 내거야.”
“쪼그만게 조라네스의 전사다운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넌 지금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당연하지. 이제야 비로소 광기의 지배자가 된 거야.”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짧은 시간에 오고갔고, 저들은 이내 우리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흩날리는 먼지와 날리는 잎사귀 몇 조각만이 저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트의 후예임에도 광기에 빠지지 않는다니 놀라울 따름이군요.”
“무슨 말인가? 광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들이 광기를 저버린거나 그것에 맞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네. 광기의 지배자의 삶 역시나 광기에 직접 몸을 던져 그것과 대화하고 맞서가는 시험의 연속이라.”
그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허면 광기의 지배자들을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리 오래 전부터 그것이 가능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일러주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모성애와 다름없는 라츠라고 부르는 힘. 그것은 오직 여인들만 가능하고 사내들은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었으니, 그것을 가르친다한들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는가?”

모성애만으로 만월의 광기를 이겨내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눈에도 보였는지 내게 차근히 설명했다.
“만월의 광기는 쾌락과도 같아서 사내들은 모두 그것에 쉬이 빠지게

되지만, 모성애가 유독 강했던 조라네스의 전사들은 만월의 차고 짐을 온몸으로 알 수 있었던게지. 이는 여인의 피에 새겨진 본능과도 같음이라. 스스로의 몸에 각인된 흐름은 사내의 몸뚱이로 흉내내지 못할 따름이로다.”

여인의 땅에 서서 그 힘이 내게 들어오니 난 아직 그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잠시 소름이 돋았고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만월의 광기를 지배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찌 보이게 됩니까?”

“숨은 고요해지고, 피는 차게 식는다. 그리고 그 고요한 호흡을 하는 순간은 죽음의 나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이의 것. 그리고 스스로의 것도 말이지. 나아가서는 만물의 구조까지도.”

그는 마지막 붉게 타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라츠. 조라네스의 모성애는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니네. 사실 비슷한 말에 가까운 것이 모성애일 뿐, 다른 존재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은 온실의 화초같은 것이 아니요, 때로는 피와 살을 기꺼이 뒤집어 쓰는 것을 마다않는 고귀한 것이야.”

모든 것이 차갑게 식고 느리게 흘러가는 광기의 경계에 서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사선을 눈에 담으니 그 힘이 충분히 내게 스며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그에게 말했다.

“다만, 저들이 바라는것이 그리 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이데아에 새겨진 죽음의 나선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들과 뒤섞이어 초원을 누비며 즐거로이 밤에 몸을 맡긴채 취하고 즐기면 되니말이다.”

『 교만의 죄악, 순수한 혈통. 샤마인 』

자욱해진 피냄새가 입가를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고, 목넘김은 불쾌하기 그지없다. 갑작스런 변화에 고개를 쳐들고 두리번거리자 그는 내가 무언가를 직감한 것을 본 모양인지 내게 말했다.

“알겠는가?”

“아벨의 보금자리에서 벗어나 피냄새가 짙어오니, 우리는 카인의 핏줄이 자리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옳다. 카인의 핏줄을 잘 알고 있는가?”

“피를 마시며 밤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에르아가 내린 저주 때문이라.”

“일락시움의 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최초의 살인으로 내려진 형벌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옳다. 허나, 카인의 핏줄 모두가 그것을 형벌이나 저주라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왕가의 혈통이라 부르며 자만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고고하고 자존감 높으며 사치와 오락을 즐기고 밤의 귀족들이라 불리울만큼 품격과 기품이 몸에 흘러넘치기 때문에 카인의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지닌 자들이라.”

“피를 탐하며 영원을 사는 이들에게 그리 높은 긍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비꼬듯이 말하자 그가 웃으며 내게 물었다.

“죽음이 빗겨간 영원을 사는 기분은 어떠할 것 같으냐?”

“길고도 지루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불사의 존재가 아니니 무언가를 이루어 내기 위하매 하루를 치열하게 살 것이 아닙니까?”

“카인의 핏줄 혹은 왕가의 혈통 중에서 어느 누군가 그리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허면 그것은 영원을 살지 못하는 필멸자들의 입에서나 나오는 것들이 아니더냐?”

“맞습니다.”

“저들은 저주를 입었으매, 피와 살을 취해가며 그 누구보다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들이라. 또한, 세상은 영원을 살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할진대 영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 어찌 그렇게 섣불리 단정짓는가? 카인의 핏줄이 벌이는 향연에 발을 들이었으니, 이제 그대는 카인의 핏줄이 되어 그들의 눈으로 보라.”

옳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아벨의 자손이 아닌 카인의 핏줄의 눈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 그리 여기자 만물의 형태가 더욱 또렷하고 민감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늘의 꼭대기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었고, 바닥을 기는 미물들의 속삭임마저 고스란히 귀에 담겼다. 이제야 비로소 코 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달콤한 향기에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

“헌데 왕가의 혈맹은 무엇입니까?”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뇌리에 스쳐 그에게 물었다.

“피를 이루는 왕가의 혈통과 살을 이루는 네크타라, 영혼을 이루는 타다마드. 이 셋의 무리가 죄악의 돌을 매개로 죄악의 어미를 이 땅에 불러내어 태양을 삼키는 핏빛의 달을 끄집어내려 하는 자들의 무리가 결속된 집단이라.”

“그리고 그 우위에 선 자들이 왕가의 혈통이로군요.”

“옳다. 카인의 순수한 핏줄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죄악의 어미를 불러내어 태양을 삼키면 이데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태양은 고개를 숙이어 두번 다시 빛은 이 땅에 내리지 않게 되고, 창조주가 내린 저주는 더이상 저주가 아닐지니 카인의 핏줄은 피와 살은 물론이요, 영혼마저 잠식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저들의 발 아래에 구르며 저들의 죄악에 발말추며 살아가겠지.”

“그것은 이데아의 종말입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초점없는 눈을 크게 떠보이며 내 영혼을 투시하는 듯 저편을 노려보며 말한다.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저들의 살을 태우는 태양이 고개를 조아리게 될진대 어찌 종말이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더욱이 가까이 다가오고서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이데아에 자리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뿌리가 어디 아벨의 자손 뿐이더냐?”
“아닙니다.”
카인의 핏줄이 되라는 그의 말을 새까맣게 잊고 기록하는 자로써 중도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질책하는 듯한 그의 말에 나는 더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아벨의 자손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오래된 탓인지, 카인의 핏줄의 눈으로 이데아를 바라볼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듯 했다. 반면 이미 그는 카인의 핏줄이 되어있었다.
“저들 역시나 이데아를 살아가는 자들이나니, 무릇 들판의 짐승이 그러하듯 숨 쉬는 법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 터득한 지혜로다.”
그는 춤을추듯이 미끄러지며 걸음을 옮기었다.
“한번의 몸짓도 영원을 반복하면 헤아릴 수 없는 몸짓이 되고 그것은 연마되어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된다. 완성이 된다.

우러러보게 된다.”

“왕가의 혈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군요.”

“옳다. 그러하기에 저주입은 저들에게 있어 죄악의 어미를 불러내고 난 뒤에 태양이 고개 숙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죄악의 어미는 어찌 강림시키려는 것입니까?”

“죄악의 어미를 눈뜨게 하는 것이지.”

“그리 쉽게 말한듯 나는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죄악의 돌을 아는가?”

“예, 그것은 죄악의 어미가 이데아에 풀어놓은 죄악이 담겨져 있던 돌이 아닙니까?”

“옳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은 흩어져 있지. 그리고 죄악의 어미가 눈뜨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가 혼자 즐거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잠시 생각하더니 내게 다시 설명해주었다.

“쉬이 말하면 왕가의 혈맹은 아벨론과도 같이 그 숫자가 셋이라. 죄악의 어미를 현신할 육체를 선별할 존재와 그녀의 영혼을 담을 길잡이가 필요하고 그 육신을 움직일 피가 필요하니 그것이 죄악의 돌이라. 이 셋의 무리가 한데 모여 죄악의 어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

“아벨론과 같은 모습이라면 그 혈맹 역시나 살얼음판과도 같겠군요.”

“옳다. 그 많은 죄악 중에 어느 누가 스스로 으뜸이라 하는 자가 있다

면 다른 죄악을 짊어진 이는 이 얼마나 불쾌한 언동이 아니겠는가?"

"죄악을 짊어진 자들의 사회를 나는 감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이 지닌 구원의 색을 그대가 직접 담은 것과도 같이 카인의 핏줄이 지닌 죄악의 향, 그것도 기꺼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비아 멘 드 케삭."

갑자기 들려온 속삭임과 그 뒤로 찢어지는 비명 소리에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 속삭임은 왕가의 혈통 한 무리 속에서 나는 것이었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괴한 울부짖음은 붉은 안광과 역시 같은 색의 증기를 입에서 토해내는 말이 내는 소리였다. 그들은 어느샌가 우리의 곁에 바짝 다가오더니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자태로 스쳐 지나갔다.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카인의 성, 그 이름 카에람. 태초의 피를 모두 빨아들이고 그 순수하고 고고한 혈통을 이어나간 자들이 머무는 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향하는 것이지."

그가 내게 웃으며 고갯짓하자 그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은 나는 그와 거의 동시에 달음질하여 그들의 무리와 함께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엔 창공을 덮을만큼 웅장한 왕가의 핏줄을 품은 고성 카에람이 우리를 반겼다. 문 앞에 다다르자 말과 기수들은 검은 박쥐의 무리떼가 되어 밝은 달빛을 검게 물들였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조용히 입성했다. 시간

이 멈추어버린 듯한 내부의 화려함에 정신이 홀린듯 했고, 안에서 연회를 즐기는 자들로 가득했다. 성 내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조각과 사치품들로 가득했다. 그 수많은 연회를 비집고 지나가 마침내 피의 군주를 알현할 준비를 하려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저 한참이나 가만히 그곳에 석상처럼 있었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은 활짝 열리었고, 그 문 끝에 피의 군주 브리쿨이 우아하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 앞선 무리들은 조심스레 일어나 다시금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짧은 속삭임이 오고간 후에 그의 앞에 자리한 거대한 핏빛의 장미 속에서 살아 숨쉬 듯 출렁이는 핏빛 소용돌이를 우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는 깊게 숨을 쉬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또 다시 깊게 숨을 내뱉었다. 천천히 눈을 뜬 그가 말했다.

"이 몸, 브리쿨. 순수한 영혼이 뿌린 피가 내는 달콤한 맛과 향에 만족하노라."

그 순간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린 자들 안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더니 장미 주위를 한참을 휘몰아쳤다. 식사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그는 웃으며 돌아섰다. 브리쿨의 모습에 취한 나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무슨 미련이라도 남은 것인지 돌연 나는 발걸음이 멈추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붉은 색 이외의 어떠한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여지껏 보아왔던 죽은것들이 토해낸 피의 양보다 카에람에서 본 피의 양이 더욱 많은 것 같군요. 감히 비견할 수 없는 듯 합니다.”

“옳다. 그러니, 더욱이 두려워하라. 우린 이제 겨우 일곱가지의 대죄 중에서 하나만을 보았을 뿐이라.”

카에람을 벗어나 태양은 한 가운데 있으나, 감히 피로 세워진 성을 전부 비추지 못하였다. 빛 한 줄기조차 스며들지 못하게 하려는 듯 진홍의 깊은 어둠은 저기에 늘 떠 있었다.

『 나태의 죄악, 시체조각가. 네크타르 』

생명이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죽은 뒤의 세계를 믿는 것은 죽음 그 너머를 알지 못하는 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으려는 듯 고귀하게 포장하려는 것 뿐, 이 땅에 버려진 육신은 그저 썩은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어찌 이리 덧없는 것입니까?”

나는 들판에 널부러진 시체더미를 보며 한참을 혼자 상념에 잠겨있다가 혼잣말인듯 아닌듯이 그에게 한탄하며 말했다. 시체 가득한 자리 사이에서 카인의 핏줄로 보이는 것들이 송곳니를 드러낸채로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육신이라는 것이 그리 덧없는 까닭은 그들과 함께하는 껍떼기가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니 아니겠나?”

카인은 불멸의 존재이나 그 피는 옅어졌으니, 죽지않는 존재이나 반드시 죽이지 못할 존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죽어 바스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조차 덧없다 할 수 있는가? 육신만 덩그러이 남은 것들은 가치있다 보는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살점을 엉기어 붙이며 육신을 다루는 조작자들이라고 말이죠.”

“옳다. 그 이름은 네크타라.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채로 육신을 부리는

자들의 이름이라.”

“나태의 죄악.”

“그리고 나태하기에 죽음마저 뒤로할 수 있는 것이라. 창조주의 저주를 입은 카인을 예외로 하면 이데아에 살아 숨쉬는 것들 중에서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없다만, 네크타라는 그 죽음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지.”

“죽어서도 살리라. 허니 그것을 기꺼이 품에 안으라.”

이전에 문득 눈에 담은 구절 하나를 내가 깨닳은 듯 조용히 읊었다.

“옳다. 그리고 그것은 네크타라의 죽음의 서 서두에 쓰여진 글귀지.”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죽음을 품에 안으라는 말은 아귀가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자들의 존재는 대체 무엇의 이치에 맞다고 여기기에 그런 말을 하는가? 의심한들 그것은 이미 존재할진대.”

그가 웃으며 내게 말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한 것들이 무수하온대 죽음의 서가 그것을 설명합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한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옳다. 죽음의 서 데보라마누스가 그리 말하고 있다.”

“데보라마누스. 데보라! 살점과 육신의 여왕을 말하는 것이로군요.”

“육신의 군주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보지 못한자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의 전쟁에서도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불명예를 직접 눈에 담게 한 이들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체더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숨죽이듯 고요한 그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체 즐비한 그 속에서 깨어난 존재가 있으니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녀가 바로 나태의 군주 데보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바로 육신을 부리는 자들 가운데 정점에 선 나태의 군주이다. 이데아 혹은 그녀보다 가장 죽음과 가까운 존재도 없겠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체들의 산을 넘고넘어 네크타라의 죽음의 영역에 발을 딯고 있었다. 이리도 죽음은 우리와 가까웠던가? 혼자 몇번을 되뇌이다 그에게 물었다.

“죽은 자를 되살리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진대 어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완벽한 육신은 타락의 어미를 불러오기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기 때문이었고….”
그는 말을 멈추었고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수한 뼛조각과 기괴한

살점으로 뭉친 그곳은 납골당이라 부르기엔 다소 웅장한 모습이었고, 성이라고 부르기엔 티끌만큼의 화려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죽은 이를 되살리는 재주 혹은 저주는 어느 누구라도 탐내던 진리 중 하나였다.”

“시체를 불러 일으키는 것에 어찌 그리 혈안이 되는 것입니까?”

“아끼던 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물어보겠나?”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위아래를 훑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카인의 핏줄은 이미 영생을 살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하지 못하지. 역설적이게도 이 증오스럽고 멸시받는 능력은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들에게 더욱 달콤하게 다가왔음이라. 죽음으로부터의 회귀는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나 다름 없었기에 그것을 자유로이 부리는 네크타라는 일부의 존재들로부터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지.”

“저들의 힘을 빌어 얻고자 했던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삶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죽음으로 되살려낸 삶마저 삶이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 앞에서도 그리 말할 수 있겠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옳다. 허나, 보라. 남겨진 육신은 무수한 말을 남기었도다.”

그는 널브러져 있는 시체더미에 손을 쑤셔넣고는 한참을 뒤적이더니 아

직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장기와 뼛조각을 끄집어내며 내게 말했다.

“행여나 버려진 육신을 그저 썩은 고깃덩어리 뿐이라 여기었는가?”

“나는 네크타라의 사제가 아니라 육신이 건네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서를 펼치고 죽음앞에 서기 전까지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죽은 것들과 교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조각들은 그의 손에서 후두둑 떨어졌고 탁한 내음새가 코를 찔렀다.

“죽은 자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그저 순수하게 탐구하기 위한 것이지 저들이 심연에 발을 들여서가 아니다.”

그가 털어놓은 그 말에는 거짓이 없다. 네크타라의 사제에게 육신이란 그저 그릇일 뿐이다. 그것은 억지로 훼손할 이유도, 죽어 남겨진 육신에 무례를 범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려는 것이 데보라로부터 지금까지 네크타라의 사제들까지 이어온 유구한 전통이었다.

“만물에는 기원이 있을진대, 허면 육신의 어미 데보라는 누가 엮은 것입니까?”

“제 스스로 시체들 사이 죽음 곁에서 일어난 자로다.”

“그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카인의 핏줄은 카인에게서 왔지. 허나, 영원의 전쟁 중에 데보라는 한번 죽음을 맞이하였다.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정지였지만.”

“스스로 되살아난 것입니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며 곁에 누운 시체들과 묘한 교감을 느끼면서 그것이 되고자 함이라면 믿겠는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널브러져 죽어있는 시체 속에서 교감을 느낀 그것을 내 어찌 설명하랴. 내가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것에 아랑곳않고 그는 말을 이어나간다.

“나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허무로 온다. 그녀는 허무가 가득한 죽음 한 가운데 그것이 건넨 속삭임에 응답한 것이라. 그리고는 속에서 죽음과 속삭이며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더미 속 온전한 살점을 가려모아 스스로 죽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로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네크타라 여럿의 무리가 시체더미를 가슴에 한아름 안은채로 저들끼리 낮은 음성으로 쑥덕거리고 있었다.

“죽음의 서를 펼치기 전 그들의 삶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그는 한걸음 더 깊이 다가가 저들 곁에 머물러 가만히 그들을 응시했다. 나는 펜을 들고 저들의 말, 움직임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했다.

바로 그 뒤로 일어난 행동 덕분에 내 모든 움직임은 멈추었다. 무리 중 한 소녀가 시체조각을 힘껏 들어올리더니 그것에 혀를 대고 음미한 뒤,

뜯어먹으며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엘리, 비젠트에서 왔나. 좋은 내음새가 배어나오네. 희미한 벤주 열매의 향과 연분홍. 채 꽃피지 못한 아름다움.”

시 구절인가? 내용과는 다르게 저들이 시체를 대하는 행동은 기괴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기억할거야.”

“죽음과 나누고 있는 대화가 들리는가.”

조용히 내뱉은 그의 말이 나를 깨웠다.

“시체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 이를 뜯어먹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대도 보지 않았는가? 죽어버린 육신으로부터 저들의 삶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이다. 육신은 타락의 어미를 강령시키기 위한 중요한 그릇이 되나니 피를 탐하는 대신 살을 뜯는 행위는 적합한 육신의 조각을 찾아내기 위함이로다.”

그는 만족한 표정을 하며 저들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내게 손짓을 하며 돌아서자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죽은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귀를 귀울이려 하지 않는 것들이 하는 말이지. 그 말을 들으려 애쓰려는 자들을 보라.”

혼란스러웠다. 시체훼손이나 죽음을 거부하는 그것들은 전해내려온 이

야기들과 달리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가장 진실로 대하고 있었다.

“데보라와 그녀 아래 네크타라의 모든 사제들은 죽음 앞에서 참으로 솔직하기 그지 없군요.”

나는 돌아서면서도 시체와 대화하는 그 소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시체를 파헤치는 자들에게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 한숨을 내쉬며 내게 경고하듯 말했다.

“죽음의 서를 펼쳐 본다는 것은 죽음을 거부할 정도의 육신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죽음을 거부한 자가 맞이하는 허무 또한 함께 지게 될 것이라. 그대가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로부터 무엇을 느끼던 간에 나태의 허무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그는 말을 아끼려는듯 머뭇거리다 돌아보지도 않은채 내게 말했다.

“기록하라. 죽음을 거부한 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최후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지를 말이다.”

왠지 모르게 그의 등이 초라해보였다. 허무를 품은 이 곳 때문인가. 우리는 서둘러 죽음 가득한 그곳을 나왔다.

『 일곱의 죄악, 영혼착취자. 타다마드 』

“타락의 어미를 부르기 위해 바쳐질 피와 육신 그리고 남은 하나는 무엇이냐?”

“남은 하나는 영혼입니다.”

내가 그리 답하자 그가 다시 내게 묻는다.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있는 것입니다.”

그리 답한 나의 말에 자신은 없다.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자가 이데아에 대체 몇이나 있겠는가?

“영혼이 그저 육신에 담겨있다는 것이라면 영혼의 군주라는 이름은 그저 겉치레가 아니겠는가?”

그가 영혼의 군주라는 이명까지 들먹이며 영혼이 무엇이냐 묻는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에 내가 물었다.

“허면 당신은 영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내게 답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육신이 되는 그 그릇이 바스러진다면 그대가 말한 영혼은 그 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카인의 핏줄의 눈으로 보고 있나니, 그 뒤의 영역은 아벨의 자손이 만든 것일 뿐. 어디로도 가지 않고 이데아에 남게 됩니다.”

“옳다. 이 땅을 살다 그 명이 다해 죽은 것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는도다.”

죽음뒤의 세계는 희망이 빚어낸 허상일 뿐이다. 죽어 남겨진 영혼은 오늘을 사는 자들 주변에 남아 조용히 그들의 삶을 목도한다.

“하지만, 남겨진 영혼은 순수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영혼이 혼란스럽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대의 육신 안에 깃든 것은 하나인가?”

내 물음을 가만히 듣던 그가 갑자기 내게 되물었다. 나는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문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라니요?”

“나와 지금 말을 섞고 있는 자의 영혼은 하나냐고 묻고 있노라.”

“예. 나는 다름없는 나 자신입니다.”

“그대가 여지껏 기록해왔던 기억 속의 그대는 그대 자신인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채 아무런 말도 이어가지 못한채 그저 그를 멀뚱이 쳐다본다.

“행여 그대와 말을 섞고 있는 눈 앞에 있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면 어찌하겠는가?”

“그 말은 하나의 육신에 여럿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는 말을 이어가기 위해 입을 열다 멈추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카인의 핏줄 대다수는 저마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음은 그대도 알 것이야.”

“예, 맞습니다. 허나 카인의 핏줄은 아홉인데, 이데아에 남겨진 죄악은 일곱입니다.”

“남은 둘은 모든 죄악을 짊어질 수 있는 자, 그리고 어떠한 죄악도 짊어지지 아니한 자로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나를 보는 듯 했지만 그 시선은 나를 보고 있지 않는 듯했다.

“모든 죄악을 짊어질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혼란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혼란을 기꺼이 몸에 담은 자가 영혼의 길잡이라 부르는 타다마드라는 존재들이로군요.”

“옳다. 내가 묻나니, 그대는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찌 되는지 아는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옳다. 허면 온전한 육신에 수많은 영혼이 담기게 되면 어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혹여, 영혼이 육신에서 새어나와 흘러 넘치게 됩니까?”

“그리고, 그 육신은 혼란스러운 영혼의 틈바구니 속에서 찢겨질 따름이지. 제 영혼을 가누지 못한다면 남은 육신마저 멀쩡할 수 없겠지.”
“허면 그렇게 많은 영혼을 하나의 육신에 담는 그 위험에도 대체 어찌이 땅에 무사히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카인의 피를 이은 저주 때문인가 축복 때문인가, 순수한 영혼을 이은 저들은 모든 죄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었고, 나아가 담겨진 모든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

“카인의 핏줄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모든 죄악을 담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의 육신에 담아 자신의 영혼을 달래는 것만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과도 같은 것이지. 그러나, 역설적이지 않은가? 넘치는 영혼이 저들을 혼란케하여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음과 동시에 그것들로 인하여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다니 말이다.”
“그렇게 위험을 수반함에도 무수한 영혼을 품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신 안에 영혼의 격류가 휘몰아치니 이 멋지지 아니한가?”
그는 신이난 아이와도 같이 흥얼거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나의 육신이 바스러져 남겨진 영혼의 그대의 안에 머물게 되면 나의 지식은 그대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쓸어담은

뒤에 그대는 무엇이 될 것 같나?"

"그리고 나의 육신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게 되겠지요."

"옳다. 그렇지만 수많은 지식을 토대로 그대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게 되겠지. 더불어 피를 탐하지 않는 대신 수많은 영혼을 담고 있음에도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착취하려 하는 그 갈증은 카인의 핏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데아에 영혼을 가진 이들이라면, 타다마드 그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없다."

"나는 나의 육신에 오직 나만의 영혼만을 담을 것입니다."

그 말이 그를 언짢게 했는지 그의 눈썹 언저리가 살짝 씰룩거렸다.

"수많은 영혼을 짊어져 수많은 죄악을 담고 있음에도 타다마드의 영혼이 더럽다고 추악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허면, 타인의 영혼을 착취하여 그 수많은 죄악을 짊어진 자들의 영혼은 순수하다는 말입니까?"

"순수한 영혼이라? 순수한 영혼의 값어치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은 기본적인 욕구이니 그 욕구를 부정하며 죄악이라 여기면 죄악을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영혼따위는 이 땅에 없음을 말하노라."

그가 발걸음을 멈추자 동시에 눈 앞에 영혼의 골짜기 나라늦이 모습을

드러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드리워진 그늘 속에서 발광하는 영혼은 절규하며 나를 유혹했다. 나를 분노케 했다. 나를 기쁘고 또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수많은 감정이 섞여 나는 혼란스러움 감추지 못했다. 머리가 찢어지는 듯하며 온갖 기억이 뒤섞였다.

“영혼의 길잡이라 부르는 이들의 거처에 딱 맞지 않은가?”

기괴하게 뒤틀리는 몸부림을 치며 우리 곁을 지나는 사내를 가르키며 내게 조용히 말했다.

“바브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그러니, 목을 졸라 죽여! 그만해! 죽고 싶지 않아.”

도대체 저 사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나라늦에 발을 딛고 수많은 영혼들의 기억이 뒤섞인 뒤로 나는 사내의 기분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안에 담긴 수많은 영혼은 그에게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육신을 움직이는 그의 영혼인가 아니면 그도 아닌 무언가인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묻는다.

“이것이 영혼의 길잡이들이 겪는 고통입니까?”

“그대는 저들이 그저 수많은 영혼의 대류 속에서 혼란스럽게 고통으로 미쳐있는 것으로만 보이는가?”

“적어도 나에겐 그리 보입니다. 타락의 어미를 다시금 불러온다 하더

라도 하나의 육신 안에 갇혀진 무수한 영혼의 절규는 그 끝을 모를 따름이니 결국 저들의 육신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타락의 어미가 저들을 구원할 수도 있겠지.”

“영혼을 갈취하려는 자가 타락의 어미가 제 앞에 나타났을때 그녀의 영혼마저 탐할 수도 있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겠지. 허나, 자신조차 잃는 공허함 그 무수한 영혼의 절규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존재감을 향하여 외치는 처절함을 그대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 고통속에서 무엇인 먼저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나?”

그 말을 듣자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기에 수긍하고는 그에게 물었다.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영혼의 해방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으로부터 영혼을 뜯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희미한 존재여.”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열망하는 그대들을 이해한다. 그 고통스러운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고귀하기 그지없다.”

그 뒤로의 기억이 잠시 끊어진 듯했다. 그 끊어진 기억 이전의 내가 나인가? 아니면 그 기억 이후의 내가 나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중 머리가 지끈하고 울렸고 그가 무언가를 말

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대꾸하지 않았고 그가 뒤이어 한 말조차 더이상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의 말에 그른 것은 없었다. 만연한 죄악은 이 땅에 마르지 않는 피를 부르는 근원이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의 처절함과 카인의 핏줄의 처절함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입밖에 그것을 내뱉지는 않았으나, 나는 애써 그의 말을 부정하려했다. 아니, 이 곳에서 이미 나도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늪에 잠겨가며 나를 잃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문득 양피지에 내가 새긴 문양을 기억하는 것을 보아하니 나는 나의 영혼을 잃지 않은 모양이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깊은 숨을 토했고, 그도 만족스러운듯이 즐거워했다. 우리는 수많은 영혼 가득한 그곳에서 텅빈 가슴과 혼돈을 품은채로 나라눗을 등졌다.

『 분노의 죄악, 은빛의 증오. 세르샤 』

왕가의 혈통 셋을 조우하고 나자 나는 이들의 압도적이고 이질적인 힘에 몸서리치며 그에게 물었다.

“왕가의 혈맹에 이리도 막강할진대 누가 감히 이들에게 적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카인의 핏줄이 왕가의 혈맹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니 카인의 핏줄 가운데에서도 이들에게 적대하는 무리가 여럿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들을 하나씩 맞이할 것이다.”

“저들에게 적대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카인의 핏줄에게 있어서 타락의 어미가 몰고 올 영원의 밤은 그저 축복이 아닙니까?”

“그대는 원치 않게 카인의 핏줄이 된 자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

“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카인의 핏줄이 가진 송곳니로 흐르는 피에 의도치않게 중독되어 반쪽짜리가 된 자들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도 예상이 되겠지.”

“돌아갈 곳 없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로 배척을 받겠군요. 아벨의 자손도 아니요, 그렇다고 카인의 핏줄도 아니니.”

내가 안타까운 듯 그리 말하자 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평범하게 하루아침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뒤로 그것을 감당

할 수 없었을테지.”

“헌데 반쪽짜리 카인의 핏줄이 어찌 자취를 감추지 않고도 이데아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저 분노를 동력으로 카인의 핏줄임에도 카인의 핏줄을 죽이기 위해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지.”

카인의 핏줄을 죽이는 카인의 핏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득이 되겠군요.”

“그렇지도 않은것이 그 분노는 비단 카인의 핏줄을 향한 것이 아니니, 아벨의 자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트의 후예도 마찬가지로다.”

“반쪽짜리기는 해도 카인의 핏줄에게 송곳니를 드러내다니 저들은 카인의 핏줄로써의 긍지도 없습니까?”

“평범한 자신의 삶을 하루아침에 부수어버린 자들에게 대체 무엇을 느끼기를 바라는가? 앞서 말했듯이 분노뿐이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저들에게는 송곳니가 없다고 했다. 나는 저들에 대한 말을 더 듣고나서는 새삼 저들의 존재가 안타까웠다.

“그저 죽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흩어진 불투명한 무언가를 쓸어내고는 손을 꽉 쥐고 말했다.

“저들에게 슬픔따위가 남아있을 것이라 여기는가? 그대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남겨진 것은 분노 뿐이라고.”

“반쪽짜리 카인의 핏줄에게 분노의 죄악이라…. 죄악이 다소 엉뚱한 곳으로 갔군요.”

“상황이 상황이라면 그 분노는 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것이겠지.”

“헌데 반쪽짜리라 한다면, 카인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였을 터인데 살아남은 이들이라면 분명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겠지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저 분노, 분노가 그 씨앗이로다.”

“분노만으로 카인의 핏줄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미 카인의 핏줄은 남아나질 않았겠지요.”

내가 그리 말하자 대뜸 그가 내게 물었다.

“그대는 델레놋 3세에 대해 잘 아는가?”

“아벨의 자손을 하나로 만든 공국 퀼로른을 붕괴에 이르게 한 인물이 아닙니까?”

“허면 그 델레놋 3세의 딸을 아는가?”

“공국 공주의 신분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며 터울없이 지내던 여인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애로운 성품이 델레놋의 질투를 사게되는 화근이 되었으니 거리에 묶인채 광장 한 가운데 버려지고 난 뒤, 정황을 살피러 온 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아벨의 방벽 밖으로 버려진 것을 끝으로 기록은 끝을 맺었나이다.”

그는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띠며 내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다.”

“이미 죽임을 당하야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도록 들판에 버려졌음에 무슨 기록이 더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녀가 반쪽짜리 카인의 핏줄 그리고 분노의 어미라는 흔적은 여전히 남겨져 있음이라.”

“퀼로른의 공주가 말입니까?”

나는 그 사실에 놀라 쏟아내듯 그에게 물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아벨의 자손들의 입방아에 올랐을 터인데 어찌 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로다. 아벨의 자손들을 다스리는 공국 퀼로른의 정점에 서 기둥이 될 여인이 고작 반쪽짜리 카인의 핏줄로 전락해 버렸는데 어느 누가 그녀를 자랑스러이 여기겠는가?”

“그녀는 자신을 선망하던 자들에게 조차도 버림받은 것이군요. 도대체

그녀는 몇번이나 고통을 받아온 것인지 감히 그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군요.”

“반쪽짜리 카인의 핏줄이 된 슬픔보다 돌아갈 수 없는 일상에 대한 슬픔이 더더욱 크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는 슬픔보다 분노는 더더욱 컸기 때문에 분노의 죄악을 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 셈이지.”

“그래서 분노의 화살이 카인의 핏줄에게로 간 것이군요.”

“어디 카인의 핏줄이겠느냐?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벨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지.”

“아벨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가족이 불경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는 쉽사리 나의 목을 물어뜯을 수 있기에 변해버린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군요.”

“그대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아벨의 존재 또한 저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음이라.”

“그 분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와 자기 혐오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저들이 처음 카인의 핏줄이 되고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었기 때문이지.”

“변해버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군요. 몸은 비록 불경한 존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벨의 마음을 하고 있는 자라니,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군요.”

“역설적인 존재라…. 어둠이 드리워진 지금 이 땅 위에 어디 그런 자들이 한 둘이겠는가.”
그의 탄식이 섞여있는 말을 끝으로 우리의 대화는 거기에서 끊겼고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더 걸었다.
어스름한 새벽을 등진채로 우린 은빛 한아름 품은 계곡에 다다랐다. 귓가를 즐거이 하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자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물이 아닌 은빛의 줄기였다. 그는 묵묵히 은줄기를 따라 오르기 시작했고 그 줄기는 동굴 한참 깊은 곳까지 닿아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스스로 죽기로 마음먹었지.”
그는 마치 직접 눈으로 본것처럼 말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이 은의 줄기는 분명…”

“자기혐오에 빠진 그녀는 제 심장에 은의 결정 세렛을 쑤셔넣고 죽고자 했지. 허나, 놀라웁게도 그 심장에는 피 대신에 은이 흐르고 또다시 죽지 못하고 다시금 살게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그녀가 품은 분노도 이 땅 아래 사그러들지 않고 힘차게 격동하게 될 따름이라.”

그가 말을 마치고 그의 뒤를 따라 함께 광산에 몸을 던진 우리의 눈에 담긴 것은 은빛에 뒤덮인 여인이었다. 그녀가 바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델레놋 3세의 딸이 분명했다. 그녀에게서는 은빛의 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은줄기가 눈가에

흘러 눈물과도 같이 보였다는 것이었다. 적막은 잠시, 은빛의 늪 속에서 누군가 잠에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은을 털어내고 있었다. 털어진 은이 바닥에 흐드러지듯 피었다.

“요낙, 요낙!”

은을 털어내던 소녀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끄러워, 이미 일어났어.”

세렛을 입에 가득 머금은 또 다른 소녀가 짜증섞인 투로 답하며 그녀도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다. 내가 놀랐던 것은 저들이 다른 카인의 핏줄에 비해 이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다. 카인의 핏줄이 눈을 뜨고 움직이는 시간치고 너무 이른 것과 은빛을 두르고 있는 이들이 피 대신 은을 마신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웁게 했다.

“보라. 저들이 놀라운 존재라는 것 또 하나 보게 될 터이니.”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또 다른 속삭임이 푸른 새벽을 깨웠다.

“사냥을 시작하자.”

요낙이라 부르는 소녀와 뒤에서 웃으며 그녀를 따르는 소녀가 몸을 뒤틀자 몸에 은이 쏟아져나왔고 어느새 낫의 형상을 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새벽 빛을 몸에 맞으며, 계곡 밑으로 뜀박질해 금새 우리 눈 앞에서 사라졌다. 햇살은 대지를 따스히 덥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

었다.

그것은 아침이었다.

“은을 몸에 입은 덕에 태양을 온몸으로 마주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상투스의 빛의 은총까지 감내할 수 있음이라.”
“그러함에도 저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와서 저들이 누군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이미 저들은 분노 그 자체일진대.”
“저들이 사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눈에 찬 모든 것들이지. 때문에 카인의 핏줄들을 피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새는 저들의 낫에 수십조각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되니, 감히 은빛의 물줄기를 따라 걷는 자는 없었지.”

카인의 핏줄과 함께 아침을 맞은 것은 너무도 오랜만이었던 탓인가, 나는 고개를 들어올려 태양의 따스함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카인의 핏줄의 눈으로 이데아를 보고 기록하는 나에게 태양은 따스함을 안겨주지 못한다. 불쾌함이 입가에 남았다.

그리고 갈증이 났다.

『 탐식의 죄악, 세상을 삼키는 자. 쟈토움 』

느닷없이 나를 덮친 갈증 때문에 지쳐있던 나는 주변의 호숫가를 발견하고는 내달려 정신없이 입가를 축였다. 가까스로 마른 숨을 내쉬고 있던 나의 뒤를 따라온 그가 내게 말했다.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자, 살아있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그는 허겁지겁 해갈을 하고있던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먹고 마심으로인해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도 죄악이 깃들 수 있음을 아는가?”

“방금 축복이라 이르셨음에도 그것에 죄악이 깃든다면, 축복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을 탐하는 것은 죄악이라 여겨지니, 배불리 먹는 것은 축복이나 배부름에도 먹고 마시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나, 나는 폭식의 죄악을 품은 자들이 이데아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옳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이데아에 펼쳐진 만찬이지. 또한 저들을 막기위해 그 앞에 선 것들은 차마 입을 열지도 못한채 그들 뱃속

에 있으니 말이다.”

그는 주위에 널브러진 시체에 태우던 담배를 던지며 말했다. 그 시체는 마치 기름을 먹은 듯 그가 던진 담배로 튄 불똥으로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시체는 역한 내음새를 내며 활활 타올랐다.

“그대도 알다시피 갈증과 허기는 그 어떤 무엇보다 쉽게 끓어오르지 아니한가? 굳이 그것을 인지하지 아니하여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여간 힘든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악보다 순수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폭식의 죄악이요, 그 죄악을 짊어진 카인의 핏줄을 이르러 끝없는 만찬을 즐기는 자라는 뜻으로 쟈토움이라 부르는도다.”

타오르는 시체를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쟈토움이라 부르는 것들이 그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존재였다면 굳이 왕가의 혈통이 경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

“카인의 핏줄임은 분명하지만 폭식의 어미 이외에는 어느 존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였도다.”

“그 강인한 왕가의 핏줄에게조차 예속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왕가의 핏줄은 물론이요, 태초의 피조차 터무니없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그 죄악을 굳이 자신의 아래에 두지 않았다.”

“정말 순수하리만큼 광적으로 제 아가리에 먹을 것을 쑤셔박는 것밖에

하지 않는 존재들이로군요.”

“반대로 저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찰나의 시간만큼 저들이 온순할 때도 없지. 아, 또 한가지. 아까 태운 시체는 그저 불경한 존재가 쌓아올린 것이다. 샤토움의 포식자들은 만찬의 흔적으로 피 한방울조차 남기지 않는다네.”

그가 덧붙이기를 영원의 전쟁 이후로 여전히 잔재하는 크고 작은 분쟁 가운데 발생하는 시체들을 저들의 아가리에 쓸어담아 전염병이 더 넓은 범위로 창궐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몇몇은 저들을 이르러 쓰레기 청소부라 부른다고도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불경한 존재들과 저들의 식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헌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자들의 뒤를 어찌 좇는단 말입니까?”

“저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굳이 그것을 지우려 하지도 않는다네, 다만 저들은 안전하다 여기는 곳에 둥지를 틀게 되는데 그것은 보면 알 것이다. 그저, 노력하여 찾으려하지 않아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둥지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폭식의 군주를 맞이하러 갈 것이니 조바심을 가지지 말라. 너무 그대의 존재를 보이게되면 그 향에 취해 둥지를 옮겨 이리로 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둥지라 함은 어느 한 자리에 머물러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

이 상식 아닙니까?”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더구나 폭식의 죄악을 잃어진 쟈토움의 무리에게 상식을 논하는가?”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폭식의 죄를 입은 저들은 만찬을 즐기며, 뼈와 살을 이루는 양분으로 치환하여 몸에 담아둠이라. 더불어 몸은 알을 품은 듯한 기괴한 외형에 점액질이 흘러내리며 그 안에는 생명이 움트고 있도다.”

그의 묘사를 듣기만 했지만 나도 모르게 역한 기운이 올라왔다.

“그만! 눈으로 그것을 담기 전부터 나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쟈토움의 흔적을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흔적을 쫓은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동이 트자 내가 머물 채비를 하려할때쯤 그가 손을 건네며 나를 만류한다.

“그대에게 일러두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리의 어미가 펼치는 핏빛 둥지의 장막은 태양이 내린 빛줄기로 쉬이 태우지 못함이라.”

“허면, 저들도 이전의 세르샤와 같이 아침을 맞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태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른 카인의 핏줄과 다르지 않으나, 어미의 장막 아래에 머물 수 있다면 태양이 한 가운데 자리함에도 그 품에서 곤히 쉴 수 있다는 뜻이라.”

“카인의 핏줄이면서 여러모로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종이로군요.”

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피안개가 걷혔고 기괴한 알의 껍질을 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인가 생물체인가 뭐라고 부를 수 없을만한 무언가가 우리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붉게 꿈틀거리고 있는 흉물을 넋을 놓고 바라보는 내게 그가 말했다.

“이것이 무리어미의 품 그녀의 살점이자, 쟈토움의 휴식처로다.”

“쟈토움의 모든 존재들이 이 둥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저것은 수많은 무리어미가 거니는 둥지 중 하나일 뿐이고, 이 흉물은 이데아 도처에 있다.”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렇게나 눈에 띄게 둥지를 틀고 있다면 이들의 무리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너무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폭식의 군주는 장막 속 무의식에 머물러 있음에도 둥지를 지나는 자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문제될 것도 없도다.”

“살기 위하여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기위해 사는 것입니까?”

“어느쪽이라도 저들에게 있어 즐거움이니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없는 것이다.”

우린 핏빛의 장막을 들추고 심연 더욱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다. 장막 안으로 들어온 그곳은 기분나쁠 정도로 끈적했고, 혹처럼 불어오른 덩어리는 기괴한 비명을 찌걱거리며 꿈틀대고 있었다.
몸은 점액질로 뒤덮힌 채 막을 찢고 나온 그것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그녀가 폭식의 군주라 불리는 자가 분명하였다.

“하늘을 뒤덮는 악의에 가득찬 자궁, 게르사라. 그녀가 포식귀를 낳는 폭식의 군주로다.”

주변을 말없이 둘러보던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더니 말을 내뱉었다.

“허기가 진다.”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살점으로 이루어진 왕좌에 걸터앉아 자신의 몸에서 끊임없이 까득거리며 이를 갈고 있는 수많은 아가리들과 함께 키득거리고는 주변의 알껍질들을 깨뜨렸다. 그러자 그 껍질에서는 피와 피비린내를 뿜어댔고 살덩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후두둑하고 쏟아져 내렸다.

그곳에서는 그녀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흉물들이 태어났고, 그녀의 속삭임과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울음을 하고는 둥지안에서 저들끼리 장난을 치는듯 보였다. 그것이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서로의 살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난 뒤였다. 고깃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 그녀는 대견한 듯이 서로 먹고 먹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역겹군요. 어미의 품 속에서 자란 저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옳다. 저들끼리 동족을 먹는 것마저 폭식의 죄악에 담겨있기 때문이요, 무리의 어미가 제 아이를 먹는 것은 일도 비일비재 함이라.”

“혹여 동족상잔은 생존과 진화를 위함입니까? 그에 응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것을 먹고 진화를 거듭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는 살짝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저들이 허기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더욱 양질의 만찬을 원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허면, 그 끔찍한 허기는 영영 채우지 못합니까?”

“온 세상에 펼쳐진 만찬을 두고 등을 돌리려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데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울 때까지 끝나지 않으리라. 아니,

최후엔 이데아마저 삼키고자 할지도 모르겠구나."

찢어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둥지 안은 조용해졌다. 마지막 남은 흉물은 쩝쩝꺼리며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내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만이 둥지에 울려퍼졌다.

"저들의 식사를 방해하려는 우매한 자들이 또 있을까?"

그는 만찬을 즐기는 흉물에게서 등을 돌리며 내게 고갯짓을 한다.
그의 뒤를 따르다 등을 돌려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게걸스럽게 동족포식을 하고 있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고 나는 순수하고도 원초적인 욕구에 잠식된 저 흉물에게 경외감을 느꼈다.
"흉물이라는 말 이외에 쟈토움을 가르키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리 기록하고 책을 덮었다. 둥지를 나왔으나, 아직까지 호수에서 머금은 입에 밴 피맛이 남아 찝찝했다.

식욕이 떨어졌다.

『 질투의 죄악, 비탄의 인형. 베르체 』

한참을 길을 걷다가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서 바닥에 버려진 인형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인형에 홀리기라도 하듯 그것에 이끌렸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형을 주워 들고는 먼지를 툭툭 털고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낡아서 헤져 있었고, 무엇보다 인형의 주인이 쏟아낸 피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그리 감싸다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르겠네.”

내 말에 그도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는 한참을 나를 기다리다 내게 물었다.

“이젠 하다못해 버려진 인형에게마저 측은함을 느끼는 것인가?”

나는 허탈한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살짝 내뱉고는 인형을 휙 하고 버리듯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말했다.

“결국 우리도 버려진 낙원의 흔적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밖으로 나와 숨이라도 쉬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 좋든 싫든간에 말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채 시들어간 생명들은 어떻겠는가?”

“미처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핏덩이 속에서 마지막 숨을 토하고 죽은 자들이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니, 안타까운 것은 버려진 저들이 이데아를 적신 피를 마시고 태어난 뒤에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그는 내가 버린 인형을 한참을 바라보고는 미간을 구기고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은 끔찍하기 그지 없다.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카인의 피를 마시고 난 뒤에 다시 불경한 것으로 태어나 이후로도 자신이 두번다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할런지….”

핏덩어리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한 울음을 토해내고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 내가 안타까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니 이를 보더니 그가 말했다.

“안타까움은 접어두라. 태어나지 못한 자,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짊어진 죄악은 다른 무엇보다도 뒤틀리고 삐뚤어져 있으니 말이다.”

“일곱가지의 죄악 중 하나를 짊어졌단 말입니까? 그저 핏덩이채로 버려진 자들이요?”

“옳다. 그러니, 그대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죄악을 짊어짐에

있어 복잡한 것들은 필요없나니, 오히려 순수하고도 단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이라는 이름을 쉬이 품을 따름이로다.”

“버려진 자들이라면 무릇 분노가 치밀었음이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저들은 대체 어떠한 죄악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핏덩이들에게 분노가 무어냐? 그러나, 그에 견줄만한 추악한 것을 품으니 태어나 버려져 사랑한번 받지 못한 자들안에는 질투만이 가득하고, 그 죄악을 품고 있는 비탄의 인형들을 이르러 베르체라고 부르게 됨이라.”

사랑을 받은 적도 또 그것을 준 적도 없는 것들 나아가 삶을 누려보지 못했던 것이 질투라는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놀랍게 했다.

“무엇이 그리 놀라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그것을 질투하는 것은 오랜동안 이어온 원초적인 본능으로부터 만들어졌기에 삶의 길고 짧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라.”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는 차마 품지도 못하는 생명이 무수하게 태어나고 또 버려져 왔군요.”

“버려진채 숨을 거두고 불경한 것들의 피를 먹고 다시 태어난 불완전한 존재가 어찌 이 땅에 저들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는지 아는가?”

“유추해보건대 질투라는 이름의 죄악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옳다. 죄악을 품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에 자리잡지 못하였겠지. 그리고 그 죄악을 한데 엮어 질투 가득한 소꿉장난 같은 인형극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가 코르마라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어린 아이라뇨?”

“그대는 듣지 않는구나. 아까 말했듯이 질투의 죄악을 삶의 길이로 가늠할 수 없다. 오히려 어린 것들일수록 그것에 목을 매달지.”

그리고 그가 덧붙이기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호본능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들의 욕구를 채우는 무기가 된다고 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죄악을 품으니 참으로 간악하기 그지 없는 것들이군요.”

“옳다. 다만 저들이 일부러 어린 아이의 형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버려진 채로 불경한 피를 젖줄삼아 생을 그나마 연명하게 되는 것에 불과했으니, 발달이 더디게 된 것이고, 그 어리광을 받아주는 겉모습에 성장을 멈추어 버리게 된 것이지.”

그와 한참을 걸으며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질척이는 것인지를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 아르가 코마라는 베르체의 시초는 버려졌을때 양막이 찢겨지지 않은 채로 있었고, 혼자

도 아니었다고 한다. 막 안에 그의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종이 한장보다 얇고도 질긴 막 밖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를 질투의 전쟁을 치뤄가고 있었다.

오랜 사투 끝에 쌍둥이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의 몫으로 비교적 삶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그것 역시 그리 길지 못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뒤로 영원의 전쟁 속에서 흐르는 피를 마시며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질투를 먹고 자란 괴물이었다.

"참으로 섬뜩한 이야기군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다른 이유도 아닌 그저 본능 때문이라니."

"생존에 의한 본능이 아닐뿐더러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님에도 질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섬뜩하고말고. 어린 핏덩이일 뿐이지만 세상의 잔혹함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에게 세상의 전부는 질투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것이다. 좋게 본다면 여느 아이들처럼 인형을 가지고 노는 천진난만한 모습일게고 나쁘게 본다면 모든 것에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저 인형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인형 말입니까?"

"옳다. 실에 묶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인형 말이다.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도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지기에 저들이 존재가 한없

이 공포스러울 따름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노예나 다름없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랑 받지 못하는 것들이 질투를 품는 모습은 참으로 딱하고도 추하기 그지 없군요.”

그것은 저들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순수하게 딱하게 느껴져서 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다.

“그러하기에 질투라는 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것을 추하다 여기면 질투의 실타래에 얽혀 죽어서 저들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산 것도 죽은것도 아닌채로 저들이 만든 인형의 집에서 저들의 수발을 들고 사는 꼴이 되겠지. 어느 쪽이든간에 비탄의 인형은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생김에 만족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우리의 귀에 태엽이 맞물리고 삐걱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불편한 것이다. 어린 모습을 한채로 태연자약하게 죄악을 품고있는 그것들이 불편한 것이다.

“그래, 비극이 만들어낸 걸작이지.”

발걸음을 멈춘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누가 뭐라해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비탄의 인형 베르체가 만든 인형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아름답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건축과 화단의 구조가 이를 대변이라도 하는 듯 했다. 주인으로 보이는 것은 저택안에 없지만 그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인형들은 해맑은 표정으

로 저택 이곳저곳을 분주히 배회하고 있었다.
분명 살아있는 것들로 보이지만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소름끼치는 모습이었다. 다른 불경한 것들처럼 기괴한 외형을 하고있지 않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에서 오는 상반되는 위화감에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껴 나도 모르게 저들의 존재를 밀어내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조용히 정원을 통과하여 우리를 반기는 듯 조용히 열리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때, 옥구슬이 흐르는 듯한 티없는 목소리가 나를 홀리었다.
"아니지, 아니야. 이야빈."
저것이 베르체, 비탄의 인형이라 불리우는 존재.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긴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집사는 피를 머금은 줄에 박혀 미동도 없이 아이의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인형을 이곳저곳 쓰다듬으며 쉴새없이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안아주려면 그 팔이 필요해."
"나와 놀러가려면 그 다리가 필요해."
"나를 봐주려면 그 눈도 필요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인형은 필요가 없어."
"어디 가지마 나를 봐줘. 그러니 고장나 버릴 때까지 나만을 사랑해줘. 고마워."
이야빈은 웃으며 끄덕거렸다. 그들 곁에서 협주곡을 연주하는 인형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한채로 저들을 축복하기라도 하는듯 웃으며 현을 켜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이 저택안을 가득 메웠다. 저들에게 애정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삐뚤어진 것인가? 그 질문을 몇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입에 올린 고작 몇마디가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것은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는 돌아서 가만히 저들을 응시하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가자는 눈짓을 하자 나도 그의 뒤를 따랐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것 같으니 자리를 비켜주는게 좋겠지.”

그는 언짢은 듯한 기분을 넓은 홀에 발자국 소리로 남기었고,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들을 배웅하려는 듯한 간악하고 순수한 인형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부드럽고 우아하게 귓가에 들려오자 나도 모르게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않고 입밖으로 토해냈다.

“썅, 더럽게 맑고 고운 목소리네. 진짜.”

『 음욕의 죄악, 몽마. 페라투르 』

노을은 다 익은 열매와도 같이 탐스럽게 붉은 빛깔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짙게 배어나오는 피내음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곳에 카인의 핏줄 하나가 피를 입에 머금고 멍하니 허공에 시선을 고정하고 굳은채로 서있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걷다 그 광경을 한참이나 보아도 아무런 미동도 없기에 내가 그에게 물었다.

“저것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대도 보다시피 희생양의 피를 가득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말은 왜 피를 마시고도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리 멍하니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심한 듯이 그것을 한참을 쳐다보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젓고 말했다.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일곱가지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한 뿌리없는 것들은 피를 음미하는 가운데 그것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몰아치는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려 저리도 멍청하게 굳어 있는 것이로다.”

“피를 마시는 것에 쾌락이 따르는 것은 들어본 적 있지만 저렇게까지 무방비해질 따름이군요.”

피를 입에 물고 있던 그것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듯 하더니 다시 몸을

부들거리며 바닥에 드러눕고 어깨를 부여잡으며 이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는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그것은 그렇게 몇번을 반복하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갈 길로 향해갔다.

“카인의 핏줄이 피를 마시는 것은 그저 삶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들은 피를 마실때마다 저리 무방비해지는 것입니까?”

“피를 마시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따름이니 삶을 위하여, 여흥을 위하여, 또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그저 피를 보기 위함인 자들도 있지만, 피를 마시는 것 뒤에 따르는 쾌락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허면 모든 카인의 핏줄이 단순히 쾌락때문에 피를 취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러하지. 허나 그것은 단지 갈증에 대한 해갈과 함께 동반되는 즐거움일뿐. 모두가 쾌락에 취해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라네. 그러함에도 피를 마시는 것으로부터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에 따르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도다. 그들은 그 쾌락은 피를 마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저들과 몸을 섞으며 서로의 타액을 뒤섞고 이것에 깊게 취해 그저 사냥감의 정기만을 착취하는 변질된 존재가 되었으니, 그들이 음욕의 죄를 품은 욕정의 꽃이라는 이름의 페라투르요, 쉬이 말하면 몽마라 불리우는 자들이로다.”

그의 말을 한참을 듣고 내가 생각을 정리하여 그에게 말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욕구에 눈을 뜨고 죄악에 빠진 핏줄이로군요.”

“새로운 것은 또 무어냐? 몸을 섞으며 쾌락에 취하는 것은 비단 발시아의 전유물이 아니니, 그 욕구는 아벨의 자손의 것도 카인의 핏줄의 것도 세트의 후예의 것도 아니라.”

옳다. 그 이름은 음욕이라 하여 죄악으로 치부되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레 함께 쓰여진 몸의 대화였다.

그 때문인가 몽마라 부르는 페라투르는 카인의 핏줄임에도 몸을 섞으며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던 어디에 속한 자이건 가리지 않으며 그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음욕이라 하는 것은 카인의 핏줄 앞에서 피를 쏟아내는 희생양도 함께 느끼는 것이라 자신의 숨이 희미해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채 저들만의 세계속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탐한다고 한다.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맥없이 쓰러진 카인의 핏줄의 모습을 되뇌이니 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음욕마저 이 땅이 가져다 준 축복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내가 본 그것은 축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글쎄다, 욕정의 꽃이 만개한 향락의 터에 발을 딛기 전엔 다들 그대와 같이 말하였지.”

“그저 눈 앞의 달콤함에 취한자들 치고는 꽤나 오랜동안 저들의 존재

가 지워지지 아니하였으니 저들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방금 말하지 않았는가? 저들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것은 눈 앞의 달콤함이다.”

“그러나, 눈 앞의 달콤함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 앞의 달콤함을 위하야 다금고 가꾸며, 유혹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마침내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나은 재주가 어디 있더냐?”

“허면 그것은 들판의 짐승이 자신의 털을 부풀리는 그 모습이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들판의 짐승마저 저들의 미모를 가꾸어 상대를 현혹하니, 그 노력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나아가 아름다움은 그 끝을 모르고 가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 멈추지 않고 미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계속해 나가니 마침내 기꺼이 아름다움 너머의 음욕의 죄를 받아들이고자 한 것이라.”

그와 말하는 가운데 시큰한 내음새가 코를 찔러왔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나를 기분 나쁘지 않았으니 오히려 술에 취한듯 몽롱했다. 내가 복잡한 표정을 하고있자 그 모습을 본 그가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그리 신경쓰이는가?”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향에 취할듯 합니다.”

“황홀경이 뿜어내는 향이 가까워짐이니 페라투르가 자리한 향락의 도

가니에 가까워짐이 분명하도다."
그는 유쾌한 어린 소년처럼 해맑은 표정을 한채 손을 흔들며 그 내음새를 반기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향락의 더욱 깊은 곳에 다다랐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의 늪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도 아니었으니, 어느 누구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는 것과 카인의 핏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섞여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를 놀랍게 한 것은 이전에 보았던 쾌락에 취해버린 카인의 핏줄과는 상반된 모습 때문이었다. 그저 쾌락에 취해 몸을 겨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음욕의 죄를 짊어진 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리 더럽고 추악하게 뒤엉켜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리에 보이는 자들은 대부분 정돈되고, 아름다웠고, 기품있고, 기분좋은 향을 뿜어대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문란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예, 너무나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기분나쁘지만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이군요. 그만큼 음욕이라는 죄악은 저들과 가장 어울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말에 그는 전과 같지않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마 그리 들린것도 우리가 이 향락의 땅에 발걸음했기 때문이리라.
"그대, 색에 너무 취하지 말라."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답했다.

“예, 하지만 왜 이리 많은 존재들이 저들 속에서 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는군요.”

“옳다. 죄악이라 불리우는 행위가 만연한 이 곳에는 아종에 대한 혐오도 없으며 분쟁또한 없다. 이 장소에 발을 들이는 자들도 기꺼이 스스로 찾아왔으니, 보라. 저 얼굴에 근심이나 걱정의 기색을 보이는 자가 없지 않느냐.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 어두웁고 불경한 하늘아내에 안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 뿐이라. 그것이 이곳 향락의 땅 타라노프가 가진 힘이다.”

우리가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을 때, 더욱 짙은 향이 내게 흘러 들어왔고 나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 했다.

“그리고 타라노프의 미와 음욕을 장관하는 색의 군주, 우리는 그를 가장 아름답고 위협적인 꽃. 몽마왕 헤이렐이라 부름이라.”

피를 마시는 가운데 오는 즐거움을 부추겨 욕정의 무리들을 만들어 이데아의 모든이들을 쾌락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음욕의 군주 또한 생각과는 다르게 고고한 모습과 더불어 우아함이 흘러넘쳤다.

그의 손짓, 몸짓, 흘러내리는 머리칼, 날렵한 턱선과 빠질 듯한 눈동자, 그의 살결과 숨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아름답게 솟아오른 뿔과 뱀의 혀와 꼬리 그리고 구불한 머리칼이 그의

아름다운 몸의 선을 타고 흘렀다. 몸에 걸친 온갖 보석을 걸치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나를 더욱 취하게 했다. 그래. 저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달콤한 꿈은 내 옆에 자리한 그의 말과 함께 깼다.

“그대, 색에 너무 취하지 말라.”

그 짧고도 긴 달콤한 순간으로부터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잠시였지만 그 색은 너무도 달콤해 순간 나는 이미 색에 잠겨져 의식을 음욕에 내던질 뻔함을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우리는 카인의 핏줄이 되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 카인의 핏줄로 남아 기록을 뒷전으로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럽습니다.”
“헤이렐의 색이 너무 강할 따름이지. 정말이지 아름다운 광경이야. 암그렇고 말고.”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이리도 힘든 것인데, 음욕의 죄를 짊어진 저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달라붙으면 과연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헤이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내게 말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니 저것들은 더욱 아름다워질테고, 더더욱 치

명적인 자들이 되어 걱정과 근심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놓게 만들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한참이나 헤이렐의 몸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으며 그의 몸에 얼마 걸쳐지지 않은 얇은 옷가리 너머를 갈구했다. 내 곁에 있던 그의 박수소리와 함께 새까만 천막이 나를 감쌌고 툭 하는 소리에 비로소 나는 잠에서 깬 듯 했다. 기록하는 나의 펜은 떨어져 있었고 우리는 어느새 타라노프를 뒤로하고 있었다. 펜을 황급히 주워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무거웠다. 뒤이어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했으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달큰한 내음새가 여전히 내 주위에 남아있었고 아랫쪽이 이따금 욱신거렸다.

아마도 난 아직까지 취해있는지 모른다.

『 인색의 죄악, 냉혹한 피. 레위앗 』
욱신거림에 가슴을 부드러이 어루만지고는 한참동안 숨을 가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어 호흡을 가다듬고 그에게 물었다.

“혹여 피를 마시지 않는 카인의 핏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런 생각없이 던진 질문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흥분을 감추지 않은 채 내게 물었다.
“그리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돌발스러운 그의 반응에 잠깐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게 답한다.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만에 빠지게되고, 분노에 잠식되며, 나태해지고, 끝없는 탐식으로 역겨워지며, 질투에 눈이 멀기도하고, 음욕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는데, 행여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죄악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리 물은 것입니다.”
“물론 피를 마시지 않는 카인의 핏줄이 있기야 하지.”
“그렇다면 그것들에게 죄악에 닿지 않았겠군요.”
“하나는 그러했지. 허나, 애석하게도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존재들이 끔찍하고 불경하지 않은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피를 마시지 않아도 죄악을 짊어진 자들도 존재할 따름이니 그저 피를 마시는 행위 하나로 죄악의 유무나 무게를 가려내지 못할 것이야.”
그에 답이라도 하듯 우리 곁에서 파도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부둣가가 보이는 해안가에 다다르게 된다. 짠 내음새가 내 코를 찔렀고 날카로운 바람이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나는 찐득하고 추적한 찰물줄기를 손으로 씻어냈다. 심히 불쾌함을 감추지 않자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그대 영원의 전쟁 속 이데아를 휩쓴 거대한 재앙을 기억하는가?”

“에르아의 눈물과 비탄이라 부르는 소투움과 골노랏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벼락과 대홍수를 일으킨 존재들이지요.”

“옳다. 그것은 영원의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데아를 보며 떨군 눈물과 비통한 외침으로 만들어진 재앙이었고, 그대가 말한 것과도 같이 재앙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이데아의 생명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다.”
“종전. 영원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수많은 테르벨을 낳고 부수는 자가 고작 개미만도 못한 것들의 종전을 원하여 재앙을 불렀단 말인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과오인 이데아에 스며든 죄악을 씻어내고자 한 것이었지.”
“하지만 여전히 죄악은 남겨져 있었으니 죄악은 재앙으로도 씻어낼 수 없었나 봅니다.”
내가 에르아를 조롱하는 듯한 투로 말하자 그도 반가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에 동의하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옳다. 쓸려간 폭풍우와 대홍수가 영원의 전쟁에서 쏟아내린 피와 죄

악을 품고 드넓은 바다 속으로 섞이어, 그 안에서 더욱 추악한 것을 담은 존재를 빚어냄이라.”

“그 추악한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카인의 피와 창조주의 비탄이 섞여 만들어진 것들이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쓸려가버려 깊은 심해에 잠기었나니 남은 것은 몸뚱이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 뿐이라.”

“인색의 죄악이로군요. 허나, 그들이 카인의 핏줄임에도 피를 마시지 않으며, 심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 나름으로 다행이 아닙니까?

“그대는 인색의 죄악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피만 마시지 않는 것일 뿐이다. 심해의 냉혈한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저들이 피를 취하지 않음에도 이데아에 피를 뿌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위험한 것이지.”

그는 한숨을 쉬며 바다 가운데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가리켰다.

“이따금 이데아에 내리는 폭풍의 때에 심해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으리라. 저 깊은 대양은 생명의 보고이기도 하지만 재앙을 부르는 자들의 은신처가 되니, 우리는 인색한 것들의 칼날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를 마시지 않음에도 왜 굳이 피를 뿌리려는 것입니까?”

“내가 인색의 죄는 무엇이라 했는가?

“타인이 가진 것을 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옳다. 허면,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할테니 이데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잠시 생각을 하고난 뒤 나는 손을 탁치며 그에게 말했다.

“생명의 보고 이데아 그 자체가 아닙니까? 허면 저들은 이데아의 생명을 탐하는 것이로군요!”

그는 가볍게 손사래를 치고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짓고는 내게 다시 물었다.

“그 생명의 보고는 누가 만든것이냐?”

그의 물음에 답하자마자 나는 망상과도 같은 그들의 터무니없이 인색한 모습에 참지 못하고 실소를 흘리며 그에게 말했다.

“인색의 무리들은 창조주 에르아를 탐하려 하는 것입니까?”

“인색의 죄악을 짊어진 것들일진대 창조주마저 탐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대답은 실로 걱정어린 것이었기에 나는 실소를 거두고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다시금 말을 이어갔다.

“에르아가 이데아에 뿌린 재앙을 거두어가지 않아 이데아에 고스란히 남았으니,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금 그것을 등에 업고 이데아를 뒤덮을 게야.”

“혹 일락시움에 새겨진 기록에서 하늘과 바다가 뒤집힌다는 것은 그것을 뜻합니까?”

그가 뿌듯한 듯 나를 보며 미소지었다.

“이전에 일락시움조차 발음하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그것안에 담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 뒤집힌 하늘과 바다. 재앙. 허면 그 낡디 낡은 기록이 말하는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냉혈. 심연에 내려앉은 자. 레위앗.”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말을 오랜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내 앞이 모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으며 저 멀리 바다 한 가운데 구멍이 뚫린 듯한 모습으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한다.

“삐아 모르 께 따르도. 벨라 모르가르.”

알 수 없는 언어가 바다에 울려퍼졌다. 그것은 외침이 아니었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낮은 으르렁거림이었다. 폭풍우에 들리지 않아야함이 마땅하지만 다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나를 불렀다. 소용돌이 속을 뚫고 파도가 뒤섞이며 위로 솟아오르더니 기괴한 모습을 한 배가 그 모습을 드러났다. 그것은 너무나 낡아 보였지만 지금껏 건조된 여느 배보다 부드러이 파도와 함께 춤을 추었다. 그리고 선상에는 카인의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모습이 사뭇 다른 것들이 부지런히 자신의 위치에서 임무

를 다하고 있었다.

“카인의 핏줄과는 전혀 다른 언어로군요.”

“애초에 저들의 모습이 카인의 핏줄들과 같은 모습이더냐?”

그 말 그대로였다. 몸은 인간의 것이었지만 얼굴과 몸에는 핏기하나 없어 냉혈이라는 말이 와닿았다. 무엇으로 숨을 쉬는지 모를듯한 기관이 몸 여기저기에 달려있었으니, 그것은 인간도 옛 발시아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여지껏 알려지지 않은 심해에 사는 괴물의 모습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들은 점점 해안가로 다가왔다. 그리고 기괴한 모습의 배는 우리의 곁을 지나쳤다.

갑판 위에 있는 인색의 무리들의 눈은 순수한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아니, 즐거워 보였다. 해맑고 순수한 그것이 어린아이와 다름없다. 그는 저들이 목적없이 이데아에 피를 뿌리는 자라고 했지만, 어째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몰라도 저들은 티없이 맑고도 행복해 보였다.

“아니. 저들은 목적 없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핏기 서린 눈으로 바라보며 내 말을 기다렸다.

“폭력과 피로 얼룩짐으로 오는 기쁨은 아벨의 자손들에게서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발시아의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것을 지키고 다른 이의 것을 탐하는 것은 발시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본능 그리고 지배욕입니다.”

그는 심해의 약탈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불을 밝히며 내게 물었다.

“그대가 옳다. 허면 그대는 저 모습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나는 미간을 구기고 그 순수를 가만히 바라보고 한참을 폭풍우를 맞으며 고민하고는 답했다.

“폭력과 파괴가 낳은 희열 그리고 재물과 전리품을 품는 야욕의 이름을 카타락샤르라 부를 것입니다.”

“그리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후대는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폭풍우와 함께 심해의 해구로부터 기어나온 것들로부터 나오는 악기소리와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조용히 씻겨내려갔다. 주위에는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다. 역사에 새겨진 그대로였다.

“저게 바로 인색의 죄악이 다른 죄악과 섞이지 못하는 이유로군요.”

“저들 눈앞에 더 나은 것들이 있을 따름인데, 굳이 다른 죄악과 섞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겠지. 말하자면 저들이 결국에 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존재들이 바라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다고 여기기 때문이로다.”

심연의 것들과 조우하느라 어느샌가 온 몸은 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 역시 옷의 물기를 힘껏 짜낸 뒤에 내게 오라 손짓했고, 다시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인색이 훑고 지나간 반대의 길로 걸었다.

그 날, 폭풍우가 휩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인색이 휩쓴 그곳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 무욕의 탐구자, 공포의 그림자. 하쉬무스 』

“그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길을 걷다 갑자기 멈춰서서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더만 기괴한 모습으로 고개를 돌려 그가 내게 물었다.

“내가 두려워 하는것은 내가 기록한 것들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는 기분나쁜 웃음을 터뜨리고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불쾌하게 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는 눈물이라도 났는지 눈가를 쓱 닦고는 내게 다시 묻는다.

“그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라 확신하는가?”

“그러합니다만?”

그가 횃불에 기름을 먹이고는 불을 붙여 어린아이처럼 휘두르더니 흩날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태초의 인간, 발시아가 무슨 연유로 불을 지폈는지 아는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기록된 역사가 으레 그렇게 말하곤 하지.”

“허면 어찌 인간은 태양이 지고난 뒤에도 횃불을 올린 것입니까?”

“하나 말하지,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완전한 어둠과 고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 하물며 불경한 존재라고 알려진 것들조차 어

둠속에서도 잘 보지 않습니까?"

"옳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을 두려워 한다. 왜인지 아느냐?"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저주 탓입니까?"

그는 싫증이 난 듯 휘두르던 횃불을 모래에 비벼끄더니 헛웃음을 치더니 내게 물었다.

"그대는 불을 다룰 수 있는가?"

장난하는건가? 방금까지만하도 자기는 횃불을 휘두르며 장난질하더니 이내 내게 불을 다룰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언짢은 투로 답했다.

"그대가 불을 다루듯 나도 불을 피우고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크고 거대한 불길이다. 하늘을 뒤덮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같이 자유로이 휘날리는 불을 말이다."

"그 정도 크기의 불을 다룰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답니까?"

"당연히 없겠지. 그것을 피할 수는 있어도 이를 다룰 수 없기에 불경한 것이나 짐승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불이 아니라 왜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립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은 무릇 불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을 품고 살지만, 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과 고립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불경한 것들도 심지어는 카인의 핏줄조차 실오라기 같은 빛줄기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

그리 말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본능적으로 새겨진 공포로 인하여 발시아는 밤에도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빛을 품고자 횃불을 올리게 된 것이었지.”

“그것이 내가 두려워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대가 두려워 하는 것 역시 어둠의 공포이다. 아니라 부정한다면 그저 애써 그것과 마주하길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제 아무리 강한 빛의 권능일지라 할지라도 잠식하는 어둠 앞에서는 촛불보다 못한 크기의 빛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대는 내가 이전에 일곱의 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짊어지지 않은 존재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예, 그 어떠한 죄악을 짊어지지 않고 어둠을 사는 위험한 자라고 내게 일러두었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어둠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것에 깊게 빠지게 되면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는 암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버둥댈수록 더욱 깊은 어둠에 휩쓸리게 될 따름이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시 말해 껍떼기만 남겨진 존재가 된다. 그러나, 기꺼이 스스로 어둠을 몸에 담아 공포 그 자체가 되고자 한 카인의 핏줄을 이르러 어두운 악몽이라는 뜻의 하쉬무스라는 존재로 거듭나게 됨이라.”

“카인의 핏줄임에도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있을진대 어찌하

여 그들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어떠한 욕망조차 없어 죄악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의 존재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 말을 듣자 그가 나에게 다그치듯이 말했다.

“그대는 무욕이 선하다고 여기는가?”

“욕망이 없다는 것은 초월한 혹은 깨달은 자가 달하는 경지라고 알고 있기에 무욕은 선하다 여깁니다. 적어도 해악이 되지는 않지요.”
“욕망이 없다는 것만큼이나 두려웁고 멀리해야 하는 것은 없다. 이는 깊은 어둠 속에서 나고자란 저들의 존재가 그 증명이나니.”

“욕망을 지니고 있지 않는 존재들이 어찌하여 악한 존재인지 내게 하나만 증명해 보일 수 있나이까?”

내가 그리 묻자 그는 문제 없다는 듯 으쓱하며 바로 답하였다.
“깊고 어두운 저들의 존재라 내 말하지 않았는가? 이데아를 사는 모든 것들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 속에 내재된 공포가 각인되어 있을 따름이니 공포는 죄가 아니지만 그 공포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유린하는 것을 선이라 부르겠는가?”
악한 것만큼이나 악한 것은 선 앞에 서서 악한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며 그것을 충분히 자극시키는 것 또한 내재된 어둠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덧붙이며 우리는 전보다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빠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관찰하고 그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공포를 기록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뇌리에 깊게 새겨질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이전에 공허의 속삭임에도 제정신을 다잡지 못했던 내가 어둠의 공포를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미지에 대한 공포보다 뼛속 깊숙히 박혀져있는 익숙한 공포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공포를 단련할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수도 없으니 머릿속 깊숙히 심어진 그것은 각인과 같아 그대의 심연으로 잠기게 할 것이고 일어서는 법조차 잃어버리게 만들 따름이라. 때문에 어둠이란 것은 오랜 시간동안 이데아에 숨쉬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무리 어둠 속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공포란 것은 쉬이 지워지지 않는도다.”

이전과 달리 길어진 그의 설교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

“충분합니다. 내게 이미 공포가 닿아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준비를 마치었도다.”

나는 어느새 조용히 어둠 속으로 발을 담구었다. 하쉬무스가 펼친 내면

의 공포 아락슐이라 부르는 세계를 직면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시야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오직 검은세계가 펼쳐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속을 배회하고 있다. 손은 분주히 이곳저곳을 더듬거리며 나는 공포와 조우하려 해썼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거꾸로 뒤집혀 있는가?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아락슐 안에서 느낀 나의 공포는 오직 하나였다. 어둠.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락슐이 만든 악몽안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때, 저 멀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작은 속삭임에는 악의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내 등골을 서늘케 만들었다.

“바오우, 아락슐이 흔들려. 누군가 어둠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래, 그래도 기록하는 자에게는 손 대지마.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그냥 놀게 두어라.”

“기록하는 자는 무엇이야?”

“말 그대로 이데아의 역사를 쓰는 자들이야. 평범한 자들은 무슨 수를 쓴다한들 저들의 기척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존재는 희미한 자들이야. 그림자만도 못한 것들이지.”

기괴하게 겹쳐진 목소리로 낄낄대는 저들의 목소리조차 나의 손을 떨게 했다. 아니, 나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떨고 있다는 것도 악몽

이 만들어낸 것인가? 수없이 되뇌이는 상념을 깨듯 저들은 말을 이어나갔다.

“허나, 저 희미한 자들이 쓰고 있는 기록에는 힘이 담겨있다.”

“어째서지? 아락슌의 어둠조차 가늠할줄 모르는 우매한 것들인데?”

“하하, 하쉬낙, 이 바보야. 저 무리들이 쓰는 기록은 오랜동안 이데아와 함께 숨쉬어왔어.”

“그래서?”

“저런 것들의 공포와 어둠은 항상 달콤하기 때문에 아락슌은 저 바보들조차 필요로해. 앎으로써 진정한 공포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야?”

“저것들도 저주받은 것들이거든. 어때? 병신같지? 누구보다 음침한 것들이 자신의 어둠은 보지 못하는것 말이다.”

“응, 그렇네. 아락슌로 살짝 쥐어도 터질것 같은데, 지금 당장 부숴버리고 싶지는 않은 기분이 드는것은 형 말대로다.”

“역설된 힘이야. 강한 것들에겐 한없이 강할진대 약한 것에는 한없이 약해지는 꼴이 우습기 그지없어.”

“흥미로워. 나약한 것들이 공포와 절망에 헊매이며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는건 여전히 재밌어. 다음에 무엇이 오든 즐거울테지.”

뒤의 다른 말은 아락슌과 뒤섞이며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또 다른 전

쟁을 원하는 저들의 끔찍한 말 때문에 쫓기듯 깨며 어둠에서 벗어났다. 난 흘리는 침을 급하게 닦으며 그의 얼굴을 올려봤다.

“언제부터 나는 어둠에 잠긴 것입니까?”

“내가 횃불을 짓이겨 끈 뒤부터.”

“그 후로 얼마나 지났습니까?”

“보라.”

그는 손으로 타버린 횃불을 가리켰고, 그 연기는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었군요. 헌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듯 했습니다. 그들은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들 역시 관찰하는 자들이네. 단지 저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깊게 다른 이들의 내면에 파고드는 것을 즐길 뿐이지. 그들은 그저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로다.”

“내가 어둠에서 들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허나 공허에 잠기었을 때와 사뭇 다른 그것은 호기심이 아닌 공포였습니다. 나는 기록하는 자로써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한참을 기괴한 모습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러더니 이내 원래의 얼굴로 바꾸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하기에 그대가 기록하기에 적합한 자로다. 기록하는 자로서 공포

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글이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지 알지 못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며 보고 들은 것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기에 펜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다한들 전쟁은 도대체 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태어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뱉어낸 말을 뒤로 그가 쏘아붙이듯 내게 당부하였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이 악함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악한 자들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을 곁에서 즐거이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기록하는 나의 펜이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닫혀진 아락슑을 거미줄 치우듯 손으로 휙휙 휘어젓더니 물을 털어내듯 가볍게 바닥에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 나에게 시선을 건넸고 나는 고개를 끄덕여 다시금 여정에 오를 준비를 했다. 그의 뒤를 따르며, 난 물음에 잠기었다. 대체 나의 기록이 언제부터 쓰여진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데아의 기록이 있을진대 나의 기록은 저들이 장난스레 엮어놓은 허황된 꿈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공포 그리고 그 뒤에 공허함이 나를 포근히

감싸안았다. 그래, 그것이 공포였다. 그것을 잊으려고 무언가에 쫓기듯 부지런히 펜을 굴려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 뒤로 나는 그가 흘린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물을 수 없었다. 칠흑의 어둠이 나를 어루만지듯 스쳐지나간 뒤로 다시 내가 눈을 뜨고 나니 그는 내게 낙원에 새겨진 서른의 무리들을 인도한 뒤에 처음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처럼 조용한 어둠빛과 함께 아무말없이 장막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고 나는 또 다시 혼자가 되었다. 목을 죄는 듯한 서늘한 공포는 어느샌가 사라진지 오래였지만 그 뒤를 이어 내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홀로 조용히 공허함 곁에서 걸었고 어둠속에서도 찬란히 수놓여지는 기록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 짊어진 빛의 무게 』

눈을 간신히 비비고 일어났다. 예배당에 끝자락에 자리한 방은 불편한 곳 하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마음은 결코 편하지 못했다. 무겁고 또 한없이 고독했다. 공기가 서릿발같이 차가워졌으니, 그것은 자매님이 오시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말이 맞다는 듯 밖으로는 차가운 음성이 울렸다.

“베르도 형제님, 일어나셨는지요?”

나는 기계같이 화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자매님 곧 나가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예배당으로 인도하기 위하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과도 같이 나를 맞이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행동엔 따스함이 느껴지지 아니하니 그저 감시 당하는 듯했다. 방 안을 가득하게 메운 휘황찬란한 장식은 감옥의 창살과도 같으니, 이곳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세례를 받고 아벨의 은총이 나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한 줄기 빛이 없는 어둠에 빠져있었을 것이다.

채비를 갖추고 문을 열었다.

“끼-익.”

유난히 문을 여는 소리가 기분나쁘게 느껴졌고 신경을 긁는듯한 소리가

넓은 회랑을 울릴 정도로 한참을 울더니 이내 그쳤다. 아차 싶어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는 그녀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것 따위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인지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조차 보이지 않았다.

“편안한 밤 되시었는지요?”

그녀가 미소지으며 내게 물었다. 그러나, 그것마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자애로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나는 어쩔줄 몰라 쩔쩔매다 겨우 웃음을 보이며 답했다.

“네, 자매님. 덕분에 기도에 더욱 열중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으시는지 여쭈어봐도 됩니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여전히 앞을 응시하며, 기계적으로 내 물음에 답하였다.

“저희는 그저 아벨의 은총을 따를 뿐입니다.”

“…아벨의 은총이 이끄는대로.”

나는 우물거리며 마지못하듯 그 말을 흘려버렸다. 함구하는 그녀의 태도를 대충 보아하니, 여지껏 해온 허드렛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례를 끝마치고 난 뒤 나를 부른 것은 분명 아벨의 성배와 순수

한 영혼이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이는 상투스 품에서 두손모아 기도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겠지. 마지막 아홉번째 교황이 이 땅을 떠나신 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었던 탓에 다음의 교황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남겨진 자들에게 그토록 가혹했나보다.

“그럼.”

그녀가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한 걸음을 옮겼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신 후 조용히 내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익숙함을 느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아벨의 은총을 담아내기 위하야 한걸음 한걸음을 어둠으로 나를 모는 동안 묘한 기운이 다시금 나를 휘감았다. 그것이 썩 유쾌한 것은 아니었기에 진저리를 치며 그것을 떨어내려 애썼다. 그리고 여느때와 다르지 않게 잡스러운 상념 속에서 나를 깨운것은 그녀의 차가운 음성이었다.

“안으로.”

그녀가 예배당 안쪽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녀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온화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손짓은 아벨의 성배가 자리한 곳을 가리켰다. 난 더욱 깊은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불안감인가?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돌아섰다. 그래, 그녀의 인도는 여기까지였다. 지금부터는 나 홀로 내

딛는 발걸음이다. 큰 회랑에 홀로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이리 컸던가? 여전히 숨막히는 공기가 나를 짓눌렀다. 세례와 시험을 위한 아벨의 성배가 한 가운데 찬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주위에는 금색과 은빛으로 뒤섞인 무수한 가루처럼 흩날리는 휘광이 회랑을 따스하게 적시고 있음에도 싸늘한 기운이 이 주위를 엄습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벨의 성배가 자리한 예배당 깊은 곳까지 다다르게 된다. 지난번 세례엔 너무 그것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보지 못했으나, 여유가 조금은 생긴 지금 보이는 아벨의 성배는 이전에 가늠했던 크기를 아득히 넘는 웅장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걸음걸음마다 창틀로 가늘게 새어나오는 빛이 요란하게 춤추었다. 아벨의 성배가 자리한 방 문앞에 섰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방 문앞에서 잠시 발걸음이 주춤한 것을 알아차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스스로를 가벼이 다그친 뒤 호흡을 가다듬고 곧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한 가운데에는 아버지 엘레스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지엄한 표정으로 아벨의 성배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부름에 답하야 나 베르도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벼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돌아서서 미소로 화답하며 책을 덮고 나를 지나쳐갔다. 나도 어느새 그의 무시가 이제 익숙한 듯 다시 돌아서 그에게 다가섰다. 그는 서

고에 책을 가지런히 꽂은 뒤에 돌아서 내게 말했다.
“형제여, 이제 무엇이 저 성배를 가득 차게 한단 말인가?”
“기도하는 우리가 마땅히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판에 박힌듯한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낯간지러운 당연한 말을 싫어하는 이는 여기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 말대로다. 그리고 우리라 함은 범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벨의 권능을 일찍히 깨우쳐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 이들의 책무로다.”

역시나. 그저 허드렛일이 아닌 이상 아버지가 새벽부터 날 그리 급하게 찾을 이유도 없다. 목적은 저 성배를 채우기 위한 빛을 긁어모으기 위함이었다. 그는 신성한 빛의 성배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베르도, 나의 형제여. 상투스에 몸을 담고 허리를 굽히어 두 손 모아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되는가?”
“아버지, 그대의 머리에 주교관이 처음으로 씌워진 것도, 그리고 아벨의 은총을 행하기 위하여 빛을 건네고 어둠조차 품었던 것을 내가 그대 곁에서 모두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랜동안 보아왔지요.”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려 불편함을 표색했고 그것은 찰나였지만,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다시금 아버지는 얼굴의 평온을 찾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조그마한 편지봉투를 건네었다. 상투스의 고급 양장과 신성한 문양의 날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것은 이 곳에서 오랜동안 기도하며

봉사해온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것이지만 나는 그것이 탐탁치 않았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배제. 그래서 나를 보내려 하는 것인가?

“이제 그대도 어엿한 상투스의 인도자라. 이제 이곳을 벗어나 그의 은총이 이 땅에 만연토록 하는 그 길을 걸으며 아둔한 자들을 아벨의 믿음을 갇도록 인도하라. 허면, 베로드 그대여. 다시금 묻나니 상투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는 어릴적 세례에 했던 광휘의 서약을 이어나가는 듯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한다. 나를 인도했던 자매님보고 뭐라할 것 없이 내 대답 역시 기계적이었다.

“기도.”

“무엇을 위한?”

“아벨의 강림.”

육신은 바스러졌으나, 아벨의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불경한 것을 빛으로 태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순수한 영혼이었고, 영혼을 담을 그릇은 바닥에 구멍이라도 난 듯 오랜동안 채워지지 못하는 권능의 잔이었다.

“무엇으로부터?”

“불경한 것들로부터.”

“베르도. 빛을 품은 나의 형제여. 아벨론의 첫번째 가지 상투스를 부디 잊지 말라.”

그것을 어찌 잊는단 말인가? 갑자스런 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으로 그로부터 느낀 그것은 따스함이었다. 그의 말에 거짓도 없고, 영혼도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잘 짜여진 각본과도 같았다.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고 나는 그의 말에 그를 축복 하듯 답했다. 물론 내가 뱉은 그 말에도 거짓이 없어 새삼 놀라울 따름이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아벨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빌겠습니다.”

처음 이곳에 세례를 위하야 자리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 하나 없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 하긴, 수많은 날을 아벨의 자손들 위에 서서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해 온 광휘의 구원자들이었으니 그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다만, 아홉 교황의 마지막 그 뒤에 임시로 저 고위관을 쓴 자의 자애로운 웃음 뒤에 무언가 서려 있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이 아버지는 내가 아벨의 품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건넨 편지봉투를 가슴에 품고, 등을 돌려 문 앞으로 향했다. 문 앞에 다다라 나가려 하는 찰나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디…”

무언가 끝나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가려는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내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다.

“첫발을 내딛는 이 자가 구원을 받은만큼 빛에 닿지 못한자들을 어둠으로부터 구할 용기를 주소서.”

내 앞을 축복하는 그의 마지막 기도였다. 영문도 모른채 우두커니 있던 나는 멈춘 발걸음을 바로 뗐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행여라도 그것을 아버지가 볼까 우려하여 난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허겁지겁 문을 바로 열고 나왔다. 문을 열자마자 빛줄기가 나를 맞이했다. 그것은 따스했다. 애초에 서릿발처럼 차갑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내 안의 작은 세계였다. 오랜동안 상투스의 빛에 몸을 담아왔다 자부했던 나였지만 여전히 작고도 나약하기 그지없는 어리석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다시 나온 예배당의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안락함을 내게 안겨줬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를 충분히 슬프게 만들었다. 그저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 심판의 갈림길 』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고 집행과 심판은 지체없이 이루어졌다. 숨이 막힐 듯 고요하던 법정 내부는 죄인의 비명과 함께 소란스러워지고, 억눌러왔던 무언가는 폭력과 비난으로 가득 채워졌다. 재판을 눈 앞에 담은 군중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 난 그들이 홀가분하게 돌아서는 속편한 모습을 바라보고 부아가 치밀어 올라 입술을 깨물었다.

“미친놈들.”

갑자기 뒤에서 저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빈이었다.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미간을 손으로 짚으며 답했다. 입만 살아서는 진중함이라고는 하나 없는 놈이다. 오래전 나와 함께 질서와 정의의 길에 들어선 놈 치고는 격식따위 없고 품행마저 떨어지며, 저질스러운 언행이 몸에 배어있는 놈이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것이 무엇보다 나를 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가슴에 억누르고 겉으로 내뱉지 못하는 나의 말을 대신해서 던져주는듯 했다.

“그래도 저 미친놈들이 어디에 기대겠나, 이 시대에.”

그는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쭈그려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채 내게 말했다.

“플랑 바통이라고 들어본적 있지?”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세게 문지르며 답했다.

“들어본 적 있지. 이름 그대로 평범한 도시국가는 침묵의 도시라고 부를만큼 별일 없지 않나? 앞으로도 없을테고.”

그는 어깨를 들썩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올려다봤다.

“시궁창 쥐새끼들이….”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무엇을 말하려는 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 말을 뱉으며 이를 뿌득거리고 그를 쏘아봤다.

“날 노려본다고 뭐가 나오냐. 눈에 힘좀 풀고 들어봐.”

그는 플랑 바통 청사가 폭발로 인해 그 인근이 폐허에 뒤덮혔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는 보고와 함께 그것들과 관여된 모든 인물들의 죄목과 형량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내게 충고했다.

“개인적인 원한일랑 접어두는게 좋을 것 같구만. 우리는 아벨론의 질서와 정의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네 눈깔좀 봐라. 네 혓바닥으로 죽어버린 것들이랑 똑같은 눈깔을 하고 있잖아.”

“…….”

그의 말에 나는 대꾸도 하지못했다. 억지로 눈을 질끈 감았다.

“아가리로 숭고하신 판결을 하는 것은 자네가. 권위와 심판으로 짓뭉

개는 피칠갑하는 일따위는 내가 할 일이니 공과 사는 구분해 줬으면 좋겠군. 그래도 뭔가 냄새를 맡는다면 귀띔이라도 해줄게. 알아들어?”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그는 익숙한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남은 담배를 깊게 빨고는 연기를 뱉어낸 뒤,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리고는 담뱃불을 바닥에 지지고는 허리를 두드리면서 일어났다. 별 생각없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일삼는 녀석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나는 그 순간 위로 받았다고 느꼈다. 이르메스의 수많은 대법관들과 많은 범죄자들과 부딪히며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난 간다. 여왕마마.”

그는 한마디 남기고 무심한 듯 뒤돌아섰다.

“알빈.”

나는 대법원에 다시금 발을 들이는 그를 보지도 않고 불러세웠다.

“까불지마라.”

“천만에.”

대수롭지 않은 듯한 대답과 몸짓을 하고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법원 안을 메우는 수많은 법관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모습을 한 것을 처음으로 죽이고 난 뒤로부터 심판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그것이 내 머릿속을 더욱 심란케 했다. 그저 미웠던 거다. 나의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

저 이용해왔던 거다. 무언가에 홀린듯이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기에 합당한 심판이었노라 여긴 것은 나 뿐만이 아니라 대법정에 선 모두가 그러했을 것이다. 오늘도 나의 손으로 하나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 가늘게 내뱉은 숨통을 끊어 버리는데 필요한 것은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니었다.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 생명의 불씨는 덧없이 바스러졌다.

“후, 쉬고 싶다.”

입버릇이다. 무언가에 치여 이 곳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나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진 말이었다. 처음 법정에 서고 난 뒤의 말이 입에 붙어버렸다. 방황하는 내 시선이 손에서 멈춘다. 심판을 마치고 한참이 지났지만 내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오히려 좋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싫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쉬고 짧게 뱉어냈다. 내뱉는 숨마저 가늘게 떨리는 것이 우스웠는지 실소가 터져 나왔다. 아니, 그것은 웃음 같기도 울음같기도 한 일그러진 무언가였다. 웃는 법을 잊었나. 아침이 밝아 태양이 모습을 드러냄에도 그에 지지 않기라도 하려는 듯 불경한 자를 태우는 화염은 멈추지 않고 화려하게 춤추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눈을 찌푸렸다. 연기나 강렬한 빛 때문이 아니었다. 숨을 돌리려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피곤함에도 잠들기 싫었다. 잠들 수 없

었다. 두려웠다.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심판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들이 나를 괴롭힐 것만 같았다. 생명의 무게는 저울질로 가늠하는 것이 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찰나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 세웠다.

“지젤 슈나우트 법관님?”

나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비좁은 골목으로부터 어둠을 찢고 나온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후드를 걸치고 있어 얼굴이 전부 보이진 않았지만, 그 눈은 무언가 익숙한 것이었다. 너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눈을 내 어찌 잊으랴? 그 눈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화염과도 같았고 나를 뼛속까지 태울듯한 기세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뭔가?”

내가 묻자 어린 아이는 입을 비죽이며 내게 물었다.

“사람을 혓바닥으로 쳐죽이는 것은 어찌저찌 좀 즐거우셨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었겠지만, 처음의 판결 이후 저런 말을 뱉어내는 작자들이 눈에 피를 쏟으며 나의 앞길을 막아선 적이 한두번이 아닌 지금에서야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 뒤에 나를 따르던 서기관의 칼이 뱀과 같은 소리를 내더니 어느새 어린 것의 목에 닿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내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당돌하게도 두더기를 쓴 아이의 목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로 그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런 사소한 것따위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분노에 차오르는 눈을 꺼뜨리지 않았다.

“어리구나, 이름이 무어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이름이 당신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당신은 당신이 죽인 자들의 이름을 전부 헤아리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까불지마라, 꼬맹아.”

꼬마와 신경전을 벌이는 그의 꼬락서니가 우스워 내가 그를 쏘아붙였다.

“애새끼처럼 하나하나 반응하며 어울려 주지마라, 요아임.”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도로 칼을 거두었다.

“두번 말하게 하지 마라, 이름이 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의 말이 비집고 들어왔다.

“기억해 두시오. 오늘 당신이 심판하여 불에 태워 죽인 자 ‘폰 뒤 로이작’의 아들 ‘카를 폰 뒤 로이작’이외다.”

“…로이작?”

그 이름을 입에 담자 아이는 이를 바득거리며 나를 노려봤고, 이내 그 작은 입에 피가 고였다.

“그래. 로이작. 훗날 당신을 죽일 가문의 이름이기도 하지. 내 아비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나마저 죽이지 못하면 나의 자식이 대대손손 그대를 저주하며 그대의 목을 옥죌 것이다.”

요아임이 옆에서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실실대기 시작했다. 난 한숨을 내쉬고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말을 내뱉은 자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되물었다.

“내가 미우냐?”

“밉다, 그리고 그대는 로이작 가문이 당한 고통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죽고 싶거든 혹은 날 죽이고 싶거든 언제든 내게 오라. 그리 말하던 자가 어디 너 하나 뿐인 줄 아느냐? 그러나, 눈과 귀를 막은채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때 역시도 난 너를 죽일 가치조차 없다.”

꼬맹이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채 나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나는 경멸을 담아 그를 죽일듯이 노려보았고,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채 천천히 돌아서며 시선을 거두었다. 저것은 나의 어릴적을 빼어닮았다. 만물이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라 하면 당연하게도 그것을 다른이들도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말이다. 불편했다. 요아임이 용무로 인하여 갈래길에서 헤어지고 나서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변한 것이 하나 없구나. 정의와 심판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건만, 내 어릴적 모습과 다를바 없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감에도 계속 나오는 건가. 과거의 나의 망령이 다시금 나의 목을 노리는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한 순간의 분노가 향하는 방향을 돌리지 못한다면, 죄가 되고 그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오며 그것에 빠진 자는 무엇이 되었든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법이 해야할 일이다. 난 모자를 다시 깊이 눌러 쓰고 저 멀리 심판의 여인을 잠시 올려다 보았다. 한참 그것을 바라보고 난 뒤 돌아섰다.
“그 눈에 아무것도 담으려하지 않고 닫혀진 귀는 아무것도 들으려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정의라 부르는 것인가?”
그 모습으로 팔자좋게 남들 위에서서 질서와 정의를 저울질하는 모습에 진저리를 쳤다.

역시 그냥 쉬고 싶어졌다.

『 희생의 이유 』

땅에서 발을 붙잡고 끌어내리려는 듯 무겁게 느껴졌고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천막을 걷고 나왔을때는 다 무너져내려간 듯한 얼굴을 하던 그녀는 감정이 무뎌진, 아니 그것마저 잃어버린 듯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목소리로 가늘게 말을 이어나갔다. 그 무거운 한마디에 내가 더이상 그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난 목까지 차오른 말을 억누르며 책상 앞에 있는 애꿎은 서류더미만 연신 매만졌다.

“우린 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녀의 물음에 숨이 턱 막혔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취했던 것 뿐이었나. 나는 그녀에게 마르나크 교본에 있는 군인정신을 고스란히 답했다.

“오랜동안 아벨의 자손들이 일궈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겠나?”

내가 그녀에게 답한 것은 거짓이라기보다 마르나크가 아벨론의 세번째 가지로 자리매김 했을 때 내세운 이상과 이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말을 보기좋게 피하고 있었다.

“벨라, 당분간 후방에 있는게 어때? 너는 훌륭한 군인이야. 자질도 충분하고 경험도 풍부하지. 헌데, 자네에게 부족한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나?”

“내 심장은 강철의 심장이라 하기엔 너무도 여린가 보군요.”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강철의 심장이라는 말이 사랑했던 사람이 불경한 존재가 되었을때 머리에 무턱대고 방아쇠부터 당기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한 권한은 누구에도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것’의 머리에 바람 구멍을 냈느냔 말이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게 아니고?”

그녀가 이를 까득 물고 나를 노려보았다. 위로하려 했던 말까지 기어이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섞다보니 되려 그녀를 분노케 했다.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눈이 돌아가서는 천막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보지 못했나 보구만.”

나는 손으로 미간을 움켜잡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저희 말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윌츠의 마이스터들과 라파르의 의사양반들이 행차하셨지. 연례행사처럼 그저 불경한 자들로부터 표본을 가져가려던 모양이야. 그것이 얼

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자네도 알고 있잖나.”

“그것들의 눈이 무서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불경한 것으로 변해버린 것을 지켜보는 것도 모자라 고약하게 여기저기 뜯기고 잘리는 것을 봐야합니까?”

“대체 과학자나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아벨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평판은 대외적이며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네가 한 행동은 정당화 할 수 없는 우발적이란 행동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무릇 군인이라면 돌발행동이 아니라 원리원칙대로 움직여야 했던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입을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벨의 방패로써 아벨의 자손을 수호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전에 그 자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강대한 국가 퀼로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겠지?”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내가 입을 뗐다.

“아니, 그래서 하려던 말은 이게 아니었는데, 부족한게 뭔지 내가 물었었지.”

그녀는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는 내 답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건 나보다 네가 더 잘 알텐데. 네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편하게 생각해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얼굴에 잔뜩 흐른 빗물을 털어내고 후련한 표정으로 당당히 말했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다소 홀가분해진 그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난 등을 의자에 털썩 기대고 서랍에 휴가증을 꺼내며 말했다.

“바로 그거다, 벨라. 자신조차 돌보지 못해서야 다른 등 뒤의 다른 이들을 어찌 지키겠나?”

그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그것은 미세하지만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난 이미 준비해둔 서류에 내 서명을 대충 휘갈겨 그녀에게 툭 던졌다. 그녀는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그녀가 나가면서 갑자기 열린 문으로 다른 여인이 성큼성큼 들어왔고, 그 여인은 벨라의 경례도 무시한채 내게 다가왔다. 이윽고 그녀가 손을 내리고는 나가며 조용히 문을 닫자마자 그녀가 문 밖을 매섭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저거냐. 우리 물자에 흡집을 낸 건?”

“악의는 없었다, 루즈. 그리고 우리 애들 물건 취급 좀 하지 마라.”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내 책상 앞에 쾅 하고 내리꽂은 뒤에 털썩 앉

고는 책상에 두 발을 꼰채로 올리며 나를 비꼬았다. 이런 경우없어 보이는 행동에도 이 녀석을 미워할 수 없는것이 이 여인은 나와 함께 수많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온 전우, 나아가 가족과 다름없는 녀석이었다. 그 전에 우리 둘 다 이름 있는 가문의 자제인 것이 한 몫 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지만 말이다. 나와는 성격이 정반대로 다른 그녀의 태도는 가혹하리만큼 현실적인 말들 뿐이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덕분에 스스로 지탱해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따금 강철의 심장이라는 이명이 족쇄처럼 느껴질때가 있다고.”

여느때와 다름없이 내가 투덜거렸다.

“아랫것들 하나하나 비위 맞춰주려거든 탁아소로 이직하는 것은 어떤가? 군인보다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보이는데?”

그녀는 내 푸념을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제 할말만을 뱉어낸다.

“기분 나쁜데?”

내가 비죽거리며 웃자 그녀는 살벌한 표정으로 내 말을 잘랐다.

“그러라고 한 소리다. 여전히 어지간히도 물러 터졌단말야. 자네 부대도 네놈의 멍청한 면상처럼 무르다고! 보이지 않는 희망이나 믿음 같은건 전혀 도움이 안돼. 저들의 이상을 부추기는 것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아벨의 세번째 가지라고 불렀던 적이있던 마르나크는

희망으로 점철된 광신도가 몰려든 집단이 아니라 군인들이라는 것은 자네가 더 잘 알잖나. 정도를 지켜.”

“그래야겠지. 열성적인 근무태도로 군법회의에 올라온 것 대부분이 어째 다 내 부대원들이니.”

그녀는 혀를 차며 어깨를 씰룩였다.

“자업자득이다. 어렸을때부터 남 뒤치닥거리 하던 그 버릇은 여태 못 고치는구만.”

“그 대부분은 너 때문이었잖아.”

등받이에 반동을 살짝 실어 일어나며 그녀에게 말했다.

“우린 예전의 마르나크가 아니야, 루즈. 불경한 것들은 방벽 너머에서 줄지를 않고 오히려 그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있어. 그 사이에 방패라 불리우는 국가는 몸집만 비대하게 불어나 실질적인 전투가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아. 기형적인 이 집단을 움직이는 것은 뜬 구름 같은 이야기고, 우스웁게도 들릴 수 있겠지만 신념이고 이상이야.”

“이야, 대단한 철학가시구만, 그래.”

“하하, 역시나 너한테는 씨도 안 먹힐 줄 알았지.”

“마르나크의 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굳이 흘리지도 않아야 할 피를 흩뿌리는지 알고 있나?”

이상론을 좋아하지 않는 그녀의 입밖에서 나온 말이 발라가 나에게 묻

던 그 질문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연신 책상을 두드렸다.

“신념과 이상? 아니야. 시대가 변한다해도 군인이 신념이나 이상을 갖게 되면 위험하다. 군부의 존재의의를 이념과 신념따위에서 찾지 말라. 그 끝이 얼마나 처참한 지는 네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않나?”

그는 내 표정을 한참을 미간을 구긴채로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라고. 원칙에 의해 싸우고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참된 군인의 모습이다. 그러니, 정신차려라.”

이에 나도 그녀의 말에 반박하듯 답했다.

“그 이상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우습지만 그 뜬 구름을 잡으려는 사람들이야. 마르나크는 그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것들이라고. 상투스나 이르메스의 다른 이들은 비웃고 있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퀼로른의 위상을 높이 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네도 총과 칼을 들고 마르나크에 입대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입만 살아서는.”

그녀는 여전히 빈정거리는 태도로 목을 뚜둑거리며 일어섰고 나가려는 도중에 무심한듯 한마디 덧붙였다.

“뷔넌 고개 전투로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마라, 베르셸랑뒤르.”

“…알아.”

“아니, 넌 모른다. 너는 항상 네 뒤로 잃는 것만을 항상 두려워하지.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그렇지 못할바엔 그냥 죽게 두어라. 이를 악물고 전우를 방패 삼지 못하거나, 그들을 뒤로한채 도망치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자가 어찌 되었는지는 너는 이미 알고 있겠지. 모두가 뷔넌 고개 아래에서 명을 달리했다.”

“…알아.”

그녀는 더이상 위로의 말따위가 통하지 않아 신경질이 났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날 노려보더니 일어섰고, 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차게 닫아버린 뒤 나갔다. 분노 실린 군화소리가 복도에 울려퍼졌다. 그녀가 나간 뒤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나도 모르게 조소가 흘러나왔다.

“후, 어째 내 주위엔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 뿐인거냐.”

강철의 심장을 자부하며 입대한 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하나같이 뭔가 결여되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다음 수색 작전에 대한 보고서 서두를 읽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쪽으로는 감이 참 좋은 모양이야. 역시나 좋지 않은 예감

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다.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 전문 / 사령부 전투명령서 / 작전명령하달 / 보안등급 1급 / 명일 0200시 / 뷔넌 고개 / 내용 / 반나절 사이에 피아 불문 흔적없이 사라진 수백구의 시체에 대한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수색 및 파견요청. / 수신 및 열람 직후 파기 바람. / 이상. /

『 폭풍전야 』

“철푸덕!”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술집에 들렀고, 술집 문을 박차고 들어선 뒤 아버지는 불경한 것들의 모가지 다발을 바닥에 뿌렸다. 순간 음악소리가 끊기고 웅성이던 장내가 잠시 고요하지나 싶더만, 이전보다 더 큰 환호소리가 술집을 너머 백색의 서리 협곡을 가득 메웠다. 그래. 더욱 환호해라. 그렇게 함성 속에서 취해있을 때쯤 아버지와 술집 주인 한쟈네는 뜨겁고 거친 포옹으로 간만의 재회를 반기었고, 아버지와 짧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짐승처럼 나를 향해 달려왔다.

“과연 재앙의 딸이로구나. 셸라! 오, 셸라! 이 정신나간 년!”

한쟈네는 자기 옆에 자리한 테이블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기뻐했다.

“오줌이나 지려버릴 줄 알았더만, 기어이 전리품을 다발로 들고 왔구만그래!”

그는 내 젖무덤을 조물거리며 반기었고, 그 손에 아랑곳 하지않고 나도 그의 아랫도리를 터질듯 움켜쥐고는 웃으며 큰 소리로 답했다.

“하하! 한즈 삼촌은 병신이구나! 이딴 것들에게 오줌을 지리는 멍청이가 어디 있다고.”

호쾌한 웃음소리는 뤼르 연주와 노랫소리와 섞이며 협곡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삼촌은 내 목을 크고 두꺼운 팔로 걸어 끌고는 우리를 술집 가

운데로 앉혔다.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거쳐가며 나의 전리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었고, 난 그것을 대답하고 받은 술잔을 비우는데 바빴다.

“걷기 시작할때부터 몽둥이를 들고 협곡 주변을 어슬렁 거리며 짐승들 두개골을 깨부수고 다니더니, 코흘리개 따위가 이젠 불경한 것들의 머리통을 모으는 고상한 취미가 생겼구만 그래!”

삼촌은 아버지의 어깨를 거세게 치며 말했다.
“그리도 못하다면 어디 재앙의 딸이라 불리겠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내 등짝을 힘껏 치며 말했다.
“아아, 맞는 말이오, 아버지. 다만, 조금 더 기다리면 나는 재앙의 딸이 아니라 재앙의 셀라라 불리울 것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술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술집 가운데 일렁이며 불타오르는 화톳불에 휭 하고 바람이 일었다. 하지만 이내 모두가 실룩거리는 얼굴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으며 배를 잡고 나뒹굴며 웃음을 토해냈다.
“푸흡! 어이 이봐, 들어보라고! 방금 이 정신나간 꼬맹이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은 얼간이들 있는가?”
나는 얼빠진 얼굴을 하며 멍청하게 있었고, 삼촌은 호쾌한 목소리로 나를 보며 소리쳤다.

“정신나간 녀석, 방금 네가 한 선전포고는 못 들은 척 해주마! 네 아무리 재앙의 딸이라고는 해도 재앙에 이끌려 그의 뒤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말은 내뱉는 것은 아직 한참은 이르단다, 얘야. 잘못하면 네 대가리가 술집바닥에 뿌려질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그만해라, 한쟈네! 멋지지 아니한가? 나를 죽이고 내 이름을 따내려는 딸. 서사에 쓰여지고, 그 일생은 노래로 펴져가면서 사람들 입으로 오르내리겠지.”

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허공에 두루마리를 펼치는 듯한 모습을 했고, 삼촌은 그 우스꽝 스러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키득거리며 내게 말했다.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목숨을 걸고나 내뱉으라고 얼간아.”

“그것참 미안하게 됐구만. 병신아!”

“신경쓸것 없다, 셀라. 생각하고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 빼앗을 수 있다면 내게서 빼앗아봐라. 내가 물어뜯어 죽여주마. 봤느냐, 한쟈네. 내 딸이 벌써 내 목을 노리고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컸다고. 이봐, 죽고 싶냐?”

신경쓸것 없다고 말하는 것치고는 한껏 준비된 얼굴은 아이처럼 신나서 들뜬듯한 표정이었고, 눈은 차가운 투기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도 기쁜지 한즈 삼촌은 내게 어깨동무를 하며 말했다.

“그것 참 재밌겠구만. 나중에 자리를 마련하지. 그럼 그때 난 이 꼬맹이에게 이 술집을 통채로 걸지.”

“하하! 이 배신자새끼. 도끼를 내려두고 술집에만 쳐박혀 있더니 이거 완전히 계집애가 되었구만.”

“맞는 말이다! 부업으로 뭣도 모르고 협곡너머로 기어오르는 멍청한 것들을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젠장. 그놈들 허리가 죄다 바스러졌겠구만, 하하!”

둘의 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고, 나도 내 잔을 그들의 술잔에 있는 힘껏 부딛혔다. 그리고 한참을 술과 고기로 배를 채워갔고, 화톳불의 불씨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타올랐다. 한창 물이 오르고 있었을 때, 한즈 삼촌이 불경한 것의 모가지를 턱짓으로 가르키며 우리에게 물었다.

“그래서 저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많아진건가?”

“산 아랫놈들이 무언가 꾸미고 있으니 당연히 그 무언가에 취해 더욱 날뛰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지간히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아벨론은 우리를 방패로 쓰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야만인들이 협곡 너머 불경한 것들이 넘어오지 않게만 해준다면야 그것이야말로 저들의 짐을 더는 것이겠지.”

“아벨론 미치광이놈들은 대체 뭔 짓거리를 하길래 저런 것들이 신성한 이곳까지 꼬이게 하는 건지 몰라도 그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겠지?”
한즈 삼촌은 술통을 거칠게 테이블에 놓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입가를 쓱 닦았다.

“윈뒤르강 협곡을 얕보는 건가. 기분 나쁘구만.”

나도 그리 중얼거리며 다시 술잔을 들이키니 마침 한즈 삼촌이 기다렸다는 듯이 초롱초롱한 눈깔을 하며 내게 외쳤다.
“그거다, 셀라! 너희 어린 짐승새끼들을 문명으로 길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함이 분명 윈뒤르강 협곡을 사는 우리 야만인들을 얕보는 거다! 씨발!”
“크하하! 니 입으로 스스로 야만인이라 하지 마, 이 멍청아!”
아버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웃어댔다.
“그렇지 않아도 아벨의 자손들 몇몇이 윈뒤르강의 무서움도 모르고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도 꼴 사나운데 저 더러운 것들이 지들 둥지마냥 이곳을 어슬렁 거리는 꼴은 더욱 역겹구만 그래.”
“무엇이 걱정인가? 형제여.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죽이면 그만이지 않나!”
아버지는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고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한즈 삼촌 또

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몸을 쭉 펴며 하품을 하며 말했다.
“산 아랫것들과의 잦은 왕래는 발루에게 풍족함을 안겨다 주지 뭐야. 참 좋은 세상이야.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않아도 된다 이말이다. 먹을 것은 풍족해지고 말이지. 물렁한 산 아랫것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발루의 적수따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낸게 고작 우리에게 안락함을 선사함으로써 무뎌지게 한다는 거지.”

“크하하! 그것참 웃기지도 않는구만. 오랜동안 산송장처럼 산줄기를 겨우 몇번 오르내린것 따위로 발루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했단 말이지? 어림도 없지. 암. 어림없고 말고. 죽고 싶나보구만.”

얼간이 같은 얼굴은 온데간데없이 한즈 삼촌은 피가 얼듯이 기뻐하고 있었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술집에 몰아치는 서늘한 칼바람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 안의 모든 이들이 차갑게 날을 세우며 그의 울림에 화답하고 있었다. 그래 이거지. 이게 발루의 위대함이지. 나 역시 그리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 미친것들이 어지간히도 징징거리는 나약한 발루의 전사들을 보고 싶었나 본데? 이것 참 유감이구만. 잠시 내려갔다 오마.”
아버지는 더이상 근질거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서며 우드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몸을 연신 풀어댔다. 한쟈네 삼촌도 그 모습을 보고 기

빼하듯이 아버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오! 재앙이 몸소 아벨론에 도래하는가?”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웃으며 그의 물음에 화답했다.

“재앙이라니, 호들갑 떨지마라, 한쟈네. 문명인들이 그리 좋아하는 대화를 하려는거다. 앉아서 점잔을빼며 하는 것 말이다. 대화. 이 무식한 놈아.”

“푸하하! 거 말 되는구만! 그래서 쟁여두었던 도끼를 챙기가는 거였구만? 헌데, 우두머리가 없는동안 윈뒤르강은 어찌할테요?”

아버지는 한쟈네 삼촌의 물음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세차게 내리치며 말했다.

“윈뒤르강을 어찌하긴. 내가 없어도 자네가 있잖나.”

“퓹! 술집 계집한테 발루를 맏긴다라. 윈뒤르강의 재앙도 참 얼간이같은 놈이 아니더냐?”

“크하하! 별 수 있나. 그러하기에 재앙이 아니더냐?”

문득 바라본 아버지의 어깨는 크다. 저것이 발루가 낳은 전사의 모습이다. 열린 문지방 너머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문 너머로 성큼성큼 걸어가다 이내 멈춰서더니 무언가 생각난듯 씨익 웃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호쾌하게 소리쳤다.

“셀라!”

아버지의 외침으로 문은 연신 삐걱였고, 술집 밖으로 나의 이름이 메아리치며 퍼져나갔다.

“어!”

나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무엇이 그리 신났는지 박차고 일어난 테이블에 금이 갔다. 나 역시 발루의 전사다. 대화를 앞둔 나는 기쁨에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술집 문 밖을 나서고 한참이 지났지만, 도끼자루와 발 구르는 소리가 윈뒤르강의 칼바람 속에서도 크게 울리었다.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하러 가는 거라고 이 사람들아. 그저 윈뒤르강의 재앙이 이데아 이곳저곳을 오고가는 것이 즐거운 것인지 웅장한 저들의 외침은 우리를 한참을 배웅했다. 아벨론이 저들 나름의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돌려줄 차례다.

『 홀로서는 법 』

머리를 깊게 뚫고 들어갔던 그 바늘이 빠져나올때 감촉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이질적인 감각들은 혼란스러움 가증시키고 세상은 어둠속으로 고요히 잠긴다. 그리고 나는 달콤한 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뒤에 기억이 나는 것은 오직 따사로운 햇살과 이슬방울에 잠이 깬 것과 내 옆에서 영원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진 앤섬 뿐이었다. 세상 모르고 편하게 잠드는 날 보지 못했는지 그녀가 나를 깊은 잠에서 깨워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불행을 특별한 밤이라 부르는 것이면, 결코 난 그것을 맞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새겨진 수많이 새겨진 이름에 이름 하나를 더했다. 아팠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날갯짓, 아돌생이라 부르는 머리 가운데에 자리한 구멍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멀쩡한 가슴에 휑하니 뚫려나간 구멍이 무엇보다 나를 아프게 했다.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혔고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괴로움에 이를 악물고 가슴을 으스러뜨리듯 부여잡았다. 머리가 핑 돌고 갑작스레 헛구역질이 올라와 무릎을 부여잡고 고개를 떨구었다.

“우웁…우웩!”

우물거리며 간신히 뱉어낸 것은 다름아닌 검붉은 핏덩어리였다. 바닥에 흩뿌려진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구겨짐과 동시에 헛웃음이 나왔다.

나조차도 그렇고 누가 그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분명 그 웃음은 광대와 다름 없는 것이었으리라.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 몇걸음을 걷더니 또다시 서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끅…끕…”
새어나오는 슬픔을 억지로 참아보려 했다. 하늘이 꺼져라 울어댄들 누가 보는이 하나 없는데 어찌 그것을 참아야 한다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날 위해 잠든 아이 때문이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억누름은 허사였고, 나는 몇걸음 걷지 못한채 또다시 나는 비명섞인 울음을 토해낸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지금은 있지도 않을수도 있는 그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목놓아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소매에 대충 눈물을 스윽 닦으며 하늘을 바라본다. 특별한 밤을 넘겼지만,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것 하나 없었다. 세번을 태어나는 과정은 오로지 슬픔과 괴로움 뿐이었다.
‘숨을 죽이고, 냄새를 없애. 나를 지워. 그리고 바람처럼 걸어.’
옛 기억속에 자리한 속삭임이 바람과 함께 실려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영원의 전쟁의 끝자락 속에서 버려진 뒤로 역방의 탑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거꾸로 솟은 탑에서 배운 것들은 나를 살아있게 했지만, 그것으로는 앤섬을 살릴 수 없었다.

홀로서야 하지만 홀로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앤섬을 가슴에 묻었다. 홀로 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을 감내해 왔지만, 주위에 소중한 이 하나 없이 홀로 서는 삶이 그리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앤섬은 이 곳을 나가면 온 이데아에 우리와 같은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바로 이 역탑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빛에 하염없이 가까웁게 날갯짓하려는 그 모습과는 달리 다른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분명 이 곳을 나가면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많다고 했지? 응. 분명 그랬어.”

“서로다른 이유로 우리처럼 버려진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구나. 불쌍해. 참으로 안타까워.”

“이렇게 힘든 밤을 넘기면서까지 살아가는 걸 알려주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너무 슬프니까. 그치? 그래.”

“피오르라는 지붕 아래 있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그럼 그런 세상을 만들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움 때문인가 의식 때문인가 앤섬이 마치 내 곁에 머물러 내게 속삭이는듯 했고, 나는 지쳐 쓰러져 그 이후로 한참동안 그녀와 더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무언가에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기이한 것이 어기적거리며 간신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앤섬처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을. 그랬구나. 너도 특별한 밤을 어찌저찌 간신히 넘겼지만 정신에 새겨진 균열은 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변화였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스러져 버린 것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잠시동안 내 곁을 떠난 앤섬을 다행이라 여기는 내 자신이 싫어졌다. 그녀가 곁에 있었으면 했고 또 저런 모습을 보자니 차라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드는 것이 다행이라는 복잡한 상념에 빠졌다.

“그으…으어..구어..나…”

균열에 잠식되어버린 아이는 눈물을 흘리더니 내게 점점 다가왔다. 아돌생이라는 이름의 의식을 거친 몸은 이전과 같았지만, 상상하는 것을 구현하는 과정은 더욱 깊어지고 더 높고 멀리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깨어난 잠재력은 머릿속의 균열과 함께 몽상을 현실로 담을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구현할 수 있어, 그것이 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감에 휩싸였다. 저기서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내게 다가오는 아이는 역시 꺾여진 날개를 이끌고 내 날개마저 꺾어버리려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공포감에 의지를 버렸다. 어느샌가 까딱거리는

기괴한 움직임을 하는 그것은 두려움에 마비가 된 내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 나를 사로잡은 그것은 공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의식으로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찰나의 순간에 그 아이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를 차가웁게 품었다. 난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누지 못해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태어난지 또 얼마 되지 않아 난 죽게 되는 것인가 내게 되물으며 좌절했다.

“기이…가…나…나…사라….랏다…”

그 아이는 나를 향해 기괴하게 삐걱이며 마지막 말을 가까스로 토해낸 뒤에, 뻗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고는 힘없이 무너졌다.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무슨 일이 이어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것은 왠지 내가 살아난 것을 질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길을 축복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동안 행복이라는 것을 찾지 못하고, 피오르라는 지붕 아래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살던 아이로부터 받은 값진 축복이었다.

울었다. 남김없이 쏟아냈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머리속 균열이 뿜어내는 원망과 한탄마저.

“고마워…. 고마워…. 응. …그리고 미안해.”

울음을 토해내니 한결 개운해졌다. 정해진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난 뒤에 망설임은 없었다. 문득 무언가에 홀린듯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멈춰선 곳은 수많은 이름이 새기어진 벽들 앞이었다.

나는 숨을 한껏 들이 삼키고 내쉰 뒤 벽에 내가 새긴 그 이름을 어루만지고 벽에 고개를 툭 부딛힌 뒤 그리움으로 속삭였다.

“앤섬, 이번만큼은 내가 옳아. 그게 뭔지 알아? 응?”

“그저 삶을 연명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래.”

순간 불어온 산들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쳐 지나갔다.

“친구를 만들거야 그리고 아주 많이. 좋아.”

나는 장난감을 품에 안은 아이처럼 웃었다. 그리고 잠시 놀라움에 멈추었다. 앤섬은 곁에 없고, 이 역방의 탑 안에서 웃을 일이 없으리라 여겼지만 이렇게 웃을 수 있다.

일렁이는 바람도 내 생그러운 웃음에 화답하듯 높은 칼바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칼바람은 전에 없이 따스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저 살아가는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을거야. 응!”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다.

“피오르의 아이들 모두 생존을 위해 이 역방의 탑을 살고 특별한 밤을 겪고 나갔어.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야 당연하지. 앤섬은 나를 살리고는 죽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절망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이 둥지에 안녕을 고하는 것이었다.

“나도 나갈거야 앤섬. 생존을 위해 아득바득 이것저것 배워왔지만, 이곳에서 삶이 느껴지지 않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난 뒤에야 마침내 나는 그녀를 가슴에 깊이 묻을 수 있었다.

“피오르라는 이름의 아래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 나는 피오르의 둥지를 등지고 버리지는 않을거야. 그래도 나를 키워준 따스한 품이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우리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누가 뭐라해도 이곳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살게 될 거라면 살기위해 버둥대는 것보다 이전에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상하리만큼 머리속이 차가워졌다. 그러자, 더 이상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게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뱉어낸 뒤 입을 떼었다.

“안녕, 앤섬.”

마지막 이별은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무겁지도 않았고 오히려 간단하고 후련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어느새 나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망설임따위 없이 차가운 북쪽의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다. 이전부터 싸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기에 딱히 두려움은 없었다. 문득 앤섬은 그 산등성이에 사는 사람들을 이르러 하얀 악마라고 부르

며 그렸던 무척이나 못 그린 그림이 문득 기억이 났다. 아련한 추억에 코끝이 찡하게 시렸지만 괜시리 또 웃음이 나왔다.

『 외로운 성전 』

“…우린 이제 어떻게 하지?”

회색빛 회랑 안에서 고인을 희망찬 찬가와 함께 보내는 가운데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지만, 내 옆에서 두손을 질끈 쥔채로 기도하는 듯한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했다.

“아가뜨, 성처녀 아이사님은 죽었어.”

아가뜨는 그 순간과 부드러이 울리는 찬가를 눈에 고요히 담으며 침착하고 그리고 조용히 내게 말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것은 속죄와 참회야, 장. 불사 따위가 아니라고. 에두예르의 율법같은것은 잊어버리기로 한거야?”

“그건 그렇지만 저분 만큼이나 또렷한 계시를 받지못한 우리가 오를 길은 그저 율법으로만 접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순탄치 않은 거칠고 고된 길이 될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녀도 한낱 인간이야. 아벨의 자손에 불과해. 그리고 뭘 어떻게 한다는거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할 일을 다하며 이 땅에 에두예르의 율법을 전도할 뿐이야.”

그녀가 건넨 대답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걸 그녀도 눈치 챘는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내게 물었다. 다만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건데?”
“우리가 행하는 이 성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것 같아?”
아가뜨는 여전히 울려퍼지는 찬가와 함께 성처녀의 마지막을 눈에 담으며 내게 답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은혜를 입는거지.”
“평온했던 이 땅에 저주를 뿌린 자들로부터?”
그녀의 얼굴이 잠깐이지만 미묘하게 꿈틀댔지만, 가는 한숨과 함께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우리가 덕을 쌓지 못한 탓이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것이 마땅한 것이야.”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는 내게 말했다.
“쟝, 네 신앙심이 깊지 않은 걸 모르는 사람하나 없는데 굳이 이럴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럼에도 내 할말을 끝까지 내뱉었다.
“그녀의 율법을 거스르고자 한 말은 아니니 기분 나빠할 것 없잖아, 아가뜨. 진정해.”
“‘그녀’의 율법이 아니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이야, 쟝.”
그녀의 말과 함께 그녀가 잠든 관 위로 빛이 쏟아졌고, 이내 수도원의

회색빛이 걷히기 시작했다.

푸른 새벽이 고개를 숙이고 새벽녘이 회랑을 채웠다. 그녀를 배웅하는 찬가는 끝을 맺었고, 회랑의 모든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처녀 아이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수많은 이들이 순식간에 수도원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고요해진 수도원의 정적은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뒤로 견습기사인 아가뜨와 나는 말콤 형제님의 도움으로 식의 마무리를 겨우 끝마칠 수 있었다. 에두예르의 길고도 긴 성전을 이어온 성처녀의 배웅은 장엄하지 못했다. 계시를 받아 그것을 행하며 그 교리를 전파하고 권능을 보이던 그녀는 온 몸에 수많은 주름만을 남기었을 뿐이었다. 그 허무함으로 한숨을 쉬고 있을 즈음 우리보다 한참어린 댈런 형제님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커다란 옷을 연신 추켜 올리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모습에 가느다란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가뜨랑 장, 역시 여기 있었구나! 단장이 찾으셔!”

나는 댈런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한참 웃으며 그를 내려다본 뒤에 그에게 말했다.

“댈런 형제님. 입고계신 넝마가 너무 큰게 아니신지?”

“리암 단장이 내 몸에 맞는 견습의 사제복이 없다고 하길래 제일 작은 거로 고른게 그나마 이거다.”

“그러냐. 하긴 계시를 받은 자들 중 가장 어렸던 사람이 너였지.”

“응! 그리고 우리중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계시를 받은 것은 너고.”

그 뒤로 대화는 끊겼다. 어느 하나 좋지도 않다. 어린 나이로 계시를 받으며 그 무거운 중책을 등에 없는 자와 가장 뚜렷한 계시를 뇌리에 새겨 훗날의 재앙을 이따금 보며 밤낮을 시달리는 자들. 우리 둘은 순간이지만 멍하니 서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한참을 아무 말도하지 못한채 망설이고 있었다. 어색하기 그지없는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을 가른것은 역시나 아가뜨였고 그녀는 언제나 밝고 쾌활했다. 계시를 받아서 희망의 율법을 설파할 자는 우중충한 나보다 여기 누구보다 빛나고있는 그녀였어야 했다.

“서둘러, 쟝.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성전을 이어가야 할 때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려는지 나는,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가뜨는 단장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듯 나를 더욱 보챘다.

계시를 담는 기적은 빛과 소금과도 같지만 동시에 그 중책을 짊어지는 것은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럿이 나누어 짊어져야 하는 운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은 율법을 설파함에 있어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가 말한 우리만의 성전이라는 것도 고리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이 빛의 고리로 엮여있는 우리는 둘이 하나같이 혹은 여럿이 한데 묶이어 서로의 계시를 나누면서 속

죄하고 참회하고 그 가운데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에 오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역설로 뒤섞인 혼탁한 상념들로 뒤섞였기 때문에 또렷한 계시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따스한 화톳불 앞에서 평생 뮈오른베르 와인이나 마시고 싶다.”

아가뜨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저리 들뜬 것인지 몰라도 단장을 만나러가는 길 내내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계속 중얼거렸다.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아가뜨와 나는 우리가 속한 지부로 돌아갔다. 노을이 제법 멋지게 지고 있었다. 그녀가 단장실 문앞에서 문을 가볍게 두드리려는 찰나 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어이! 리암씨, 우리왔어.”

“단장이라고 부르라고 임마. 그리고 일단 앉아.”

단장실에 들어온 우리는 리암씨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의 옆에는 백발의 연로한 자매님과 함께 있었다.

“산사노 자매님.”

아가뜨가 산사노 자매님을 반겼고, 그녀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와 우아한 고갯짓으로 화답했다. 나는 그녀를 달가워하지 못했다. 그것은 뚜렷한 계시를 입은자들끼리 소통하며 발생하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산사노 자매님은 용기를 내어 나

를 찾아왔다.
“할멈, 멀리서 오셨네요. 황혼녘의 사제는 에두예르 지부에서도 가장 외지에 자리한 집단인데도. 오시는 길은 평탄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가뜨가 나를 꾸짖으며 볼을 꼬집었다.
“입이 거치네, 쟝. 무려 산사노 자매님이 너 따위를 찾아 오셨다고 이 자식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뜨 자매님. 그나저나 여전히 둘은 보기좋은 눈부신 실로 엮인 사이로군요.”
아가뜨가 얼굴을 붉히면서 내 볼을 더욱 세게 꼬집었고, 나는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마냥 흐뭇하게 바라보던 산사노 자매님은 머뭇거리다 내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사노 자매님이 입을 열자 아가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난 아가뜨가 평소에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 익살스러운 표정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억지로 감추려는 듯 애써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 나는 산사노 자매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나에게 닿은 계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하늘은 찢어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빛의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속죄하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드

리워집니다.”

그리고 산사노 자매님은 온화한 얼굴로 소름끼치는 말을 이어나갔다.

“어둠은 땅 끝까지 짙게 내려앉아 허무와 절망만을 느낍니다. 이데아 위에 선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피하지 못합니다.”

아이사님의 계시는 빛안개 가득한 희망의 율법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친자매인 산사노 자매님의 계시는 그녀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자매의 계시가 서로 상반된 빛과 어둠이었다.

“남겨진 우리가 행여 믿음이 부족해 진 것은 아닌지요, 쟝?”

아가뜨도 그렇고 리암씨도 그렇고 잔뜩 긴장하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보는것 같네요. 비가 쏟아진 뒤로는 그 비가 적신 땅의 색은 바뀐답니다.”

“영원의 전쟁을 겪고도 모자라 이데아에는 피바람이 다시금 몰아치는 것입니까?”

“아니, 잠깐. 자매님. 그 반대입니다.”

“그 말은 빛으로 하여금 어둠이 걷히는 것이로군요.”

“빛이 이데아를 적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이사님이 보신 빛이나 내가 보았던 빛이나 구원의 빛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나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내게는 그것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싫든 그 따스한 빛에 안긴 악몽 속에서 깨는 것을 반복하겠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끌어안은채로 그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군요. 그대는 참으로 강인합니다.”

“생각해주는 것은 고마우나 나는 강인하지도 외로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닙니다. 황혼에 외로우시다면 남자를 품어보시는게 어떠실런지?”

내가 비꼬듯이 이야기하자 아가뜨와 리암이 요란법석을 떨며 내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몽다르 언덕배기의 낙엽만봐도 눈물이 납니다.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이 나약해져 모든 이들을 품지 못하는 이 몸뚱이가 참으로 원망스럽지요.”

그 말에 숙연한 분위기가 깔리자 고요를 깨고 리암이 멋쩍게 말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 우리지만 부디 황혼은 잠시나마라도 여명에게 기대실 수 있으실 날이 왔으면 좋겠군요.”

그 뒤로도 우리는 계시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을 아로새기며 기도를 이어나갔다. 기도를 끝내고 난 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마무리를 끝냈고 이내 숙소로 향했다.

“…쟝, 그런걸 매일 보는 거야?”

아가뜨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일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가끔 보는 정도야. 빛은 잔인해. 우리 몸을 덥히지만, 우리 눈을 멀게해. 절대 그 빛을 우러러보지 마.

나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그녀에게 충고했다. 근심가득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려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다.

“뭐, 뚜렷한 계시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계시의 조각일 뿐이지,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아! 역시 그렇지?”

그래, 그걸로 됐다. 그 순수함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길 바랄 뿐이다.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산사노 자매님은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보지 못할게 뻔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고갯를 끄덕이며 그녀의 배웅에 화답했다. 그렇게 우리는 외로운 성전의 첫 발걸음을 뗐다.

『 정화를 위한 새로운 도구 』

이실그라드를 올려다보며 한참을 고요한 명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위로 크고 작은 소란스러운 잡음이 나를 끄집어냈다. 이내 의식을 되찾고 고개를 돌려보니 다이앤과 르네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방해하지 마라, 르네. 칼린님은 아르카나와 동화중이시다.”

다이앤이 다가오는 르네를 막아보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눈에 불을 키며 그녀를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방해하지 마라, 다이앤. 그리고 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그녀 앞을 막아서던 다이앤은 이런 난동에 이미 익숙한지 혹은 르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한숨을 뱉어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길을 열었다. 나는 동화를 대충 마치고 아르카나 용해 파이프를 한 홉을 깊게 들이킨 뒤에 연기를 뿜어냈고, 조심스레 내려놓은 파이프에 굳은 필라록사를 툭툭 털어냈다. 연기는 예전같지 않게 후련하지 못했으며 무거움은 더욱 짙고 불쾌한 여운을 남기며 낮게 깔렸다. 내뿜었던 진한 빛깔의 아르카나안개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자, 소란스레 들어오던 르네는 짜증스레 연기를 손으로 휘적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복수심입니까? 아버님과 연루된 사건이 낳은 복수심 때문에 결국 냉정을 잃으신 겁니까?”

그녀 주위로 생명의 고동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호수의 물방울에 파동이

일었다. 일으킨 파동이 그녀와 동조하듯 진동하며 커다란 울림을 일으켰으나 그것을 잠잠히 멈춘 것은 그녀의 뒤를 쫓아오던 다이앤이였다.

“무례하구나, 르네. 칼린님과 자매라한들 지나침은 결코 옳지 않으니 고동을 억누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널 막아설 수 밖에 없다.”

두 눈을 푸르게 밝히며 다이앤은 내 동생의 다음에 올 충동적인 행동을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울그락 불그락 얼굴을 붉히며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비꼬듯이 물었다.

“아벨론과의 협상이 결렬 되었음을 통보한 것이 그리도 언짢더냐?

“국가간 회담과 협상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한 국가의 대표로써 어찌 그리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신 것입니까? 그것도 엄연히 저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르카나로 협약서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리다니요? 전쟁이라도 바라는 겁니까?”

어린것 입에서 나온것은 하나같이 맞는 말이었지만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것들 투성이었기에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비죽거리며 퉁명스레 되물었다.

“어머니 이실그라드의 품 안에서 그녀의 숨결을 자유로이 쓰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넌 누구의 사람이냐, 르네?”

그녀는 다이앤을 노려보고는 생명의 고동을 잠재웠다. 나를 바라보지 싫은것인지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시킨채로 말을 이어나갔다.

“사태를 냉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아버님의 죽음은 아르카나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과 그것을 대하는 자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돌발적인 사고일진대, 그 두려움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다니요.”

나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파이프를 한모금 빨고는 짧은 침묵을 가진 뒤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아니, 사태를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다, 르네. 물론 나는 매 순간 분노하여 복수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것은 네가 이른 말대로 저들이 두려움을 금치 못하는 힘은 숨기지 않고 저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어린애 같은 장난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르네가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참지 못해 의자 손잡이를 주먹으로 내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 어린애 같이 보이는 장난질로 얻는 것이 이실그라드의 안정과 퀴나즈의 평화다. 너무 방법에 매몰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협박이나 위협 혹은 선전포고는 아닐런지요?”

“아직 어린 아이구나, 르네. 그 작고도 여린 몸 안에 아르카나는 차고 넘치지만 그것이 정치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았나 보구나.”

내 말이 그녀를 다시금 언짢게 했는지 그녀의 눈썹이 가벼이 씰룩였고,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자신이 약해진다면 그것을 채워주는 아르카나와 달리 정치는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헤집어 놓으려는 생각을 쉬지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외교도 마찬가지지. 이실그라드의 아르카나처럼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평화를 약속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동안 나를 노려보고는 말문이 막힌듯 홱 돌아서서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다이앤은 르네가 한참을 멀어지고 난 뒤에야 경계를 풀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내게 말했다.

“피는 못 속이는 것인지 칼린님이 품으신 생명의 고동에 필적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체면을 올려줄 필요없다, 다이앤. 그녀는 이미 내 한도량 이상의 아르카나를 저 자그마한 몸에 담을 수 있더구나.”

“다만, 그 상태로 너무 많은 아르카나를 담으려는 것이 그저 제 걱정일 뿐입니다.”

나는 한참동안 사라지지 못하고 남아있다 간신히 흩어지는 아르카나연기를 바라보며 다이앤에게 말했다.

“어쩌면 이실그라드가 맑은 빛을 되찾게 할 자는 나같은 것이 아니라 저 아이일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저 유하고 온화한 품성마저 돌아가신 전대 장로님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그래, 현 장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주위의 소중한 이들을 헤아릴 수없이 떠나 보낼테지.”

“그렇기에 칼린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다이앤, 난 변했다. 아버님이 우리곁을 떠난 뒤로 아르카나를 대하는 저 아이가 가졌던 것처럼 순수한 모습은 잃은지 오래고, 지금은 그저 가만히 앉아 국익을 위해 저울질만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아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퀴나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잠시간의 침묵 뒤에 나는 이전의 아벨론과의 협약 때문에 생각난 것을 다이앤에게 물었다.

“다이앤, 그대는 아벨의 권능을 두려워하는가?”

“아뇨, 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고동이 요동치며 쏟아내는 이실그라드의 짙은 아르카나가 나와 함께할진대 어째서 제가 아벨의 권능 따위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 말대로다. 다이앤. 상투스의 빛과 신성한 권능이 저들과 함께한다 굳게 믿고 있으면 저들 역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무엇이 저들의 조바심을 이리도 부추기는 것이란 말이냐?”

상투스의 태도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생각없이 문질거리며 돌리던 파이프를 내려놓았다.

“헌데, 평소보다 오랜동안 명상에 잠기시더군요. 그 깊이 또한 전보다 더욱 깊으시고. 무슨 일을 또 벌이시려는 것입니까?”

“매번 널 신경쓰이게 할 생각은 없었다만, 동화를 마친 후에 세트의 후예를 만날 것이다.”

“역시나 칼린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이마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깊은 숲에 자리한 생명의 고리를 아는 짐승이 있다지 뭐냐. 그것들을 맞이할 것이야.”

“들개라도 복종시키시려는 것입니까?”

“애완동물은 관심없다, 다이앤. 저들의 힘으로 이실그라드의 나무에 물을 줄 것이고, 뻗은 뿌리를 단단케 할 것이다.”

“아르카나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이실그라드의 생명의 고동을 키우시려는 것이군요.”

다이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내게 말했다. 분명히 생명의 고동을 키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우려하는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허나, 짐승에게 인간의 외교가 통할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저들이 그것에 응하기는 할까요?”

“담뱃대나 물고 지팡이나 놀리던 시대는 갔다, 다이앤. 이실그라드 나무의 생명만 뽑아먹는 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무기를 찾아야 한다. 그 도구는 바로 정치고 외교다.”

“장로님께서는 무어라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미소말고 다른 대답을 들은 적이 없다.”

“반대하시는군요.”

“다 늙어죽어가는 노인이 반대해봐야 달라지는 것 또한 없다.

“사실, 어느 누가 만류한다 한들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 그리고 오늘 샬루마르 가지에 달이 걸릴 때 홀로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내게 냉담하게 말했다.

“원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지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깊은 숲의 짐승들은 생명의 고리 속에서 강해졌고 더욱 진화했다. 이를 이해한다면 아벨론의 그 어떤 것들도 이실그라드를 탐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면 돌아올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죽을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네게는 르네가 있지 않는가?”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는 한껏 편한 얼굴을 한 뒤

내게 말했다.
“두 자매는 언제나 무모한 모험을 하는군요.”
그에 화답하듯 나도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숨 하나 편히 쉬지 못하는 세상이지 않은가.”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호수에 전령을 띄우십시오.”
“아무런 준비없이 가는 것이 아니니 걱정 말라. 내가 돌아오지 않아도 르네를 잘 부탁한다.”

“…물론입니다.”

망설였지만 그녀의 대답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 생명의 나무는 너를 닮은 순수가 필요하다, 르네. 나는 그 말을 내게 속삭였다. 물론 다이앤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 내 안에 이실그라드에서 피어난 생명의 고동이 더욱 낮은 음성으로 깊게 뛰는 것을 느꼈다. 늑대의 아가리에 단신으로 뛰어드는 것이 유쾌하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무언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둥지를 틀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 하려는 것 때문인지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비단 몸안에 흐르는 아르카나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리 느끼고 있었다.

『 고향의 빛 』

모래에 뒤덮힌 먼지를 털어내고, 할멈이 뿌려댄 물을 맞으며 말끔히 몸을 씻어냈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도 같이 할멈은 에르아의 젖과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우리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할미는 그 모습에도 미소짓고는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물었다.

“아미나, 자미라. 너희의 주변에 흐르는 것에 무슨 냄새가 나든?”

갑작스레 할멈이 꺼낸 얘기에 우리는 잠시 멍하니 멈추고 입에 물은 음식을 오물거렸다. 그리고 나는 입에 담긴 음식을 넘기지도 않은채로 먼저 입을 열었다.

“마므으븝. 아! 아바이버읍.”

“하하! 아미나, 다 튀잖아! 먹던건 마저 다 먹고 말해야지.”

자미라가 옆에서 재잘거리며 웃었고, 나는 입에 담은 것을 삼키고 할멈에게 말했다.

“살아있어. 무언가를 속삭이는 바람 같으면서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것이 신기하게 살아있는 것의 냄새가 나더라고.”

할멈이나 자미라나 내 대답이 마음에 들은 표정을 하고는 내게 다시 물었다.

“오호라, 살아있다?”

“응. 뭔지는 정확히 몰라.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나.”

그리 답하고 다시 난 입을 음식으로 가득채웠다. 그리고는 또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할멈같이 따스해서 기분좋아.”

할멈은 내가 그것을 몸 주위에 자연스레 담아둘 수 있다는 경지에 닿은 것에 대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게 물었다.

“그 따스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지 않니?”

“알고싶어! 그게 있으면 할멈도 이길 수 있을거 같아!”

나는 할멈의 말에 반사적으로 식탁에서 몸을 튕겨내 일어서며 신이나서 소리쳤다. 신이 나있는 내 모습과는 다르게 할멈의 표정이 묘했다. 기쁨과 근심이 묘하게 뒤섞인 웃음을 보였다. 그 표정을 보고 나는 그 무언가에 대해 더욱 깊이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할멈, 우리 주변에 흐르는 것은 신록의 땅에서 나오는거라며?”

자미라가 내 옆에서 물었다.

“그래, 우리 주변에 흐르는 것은 신록의 땅에서 스며들어온 것이지.”

할멈은 신록의 땅에서 태어난 것들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내게 다시 물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기에 눈을 반짝이며 할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가, 네 주변에 흐르는 그것이 살아있다고 했었지?”

“응!”

“그 말대로다. 신록의 땅은 아룬 모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을 하고 있단다. 하늘을 뒤덮을만한 크기를 가진 세상을 품은 나무 주위로는 에르아의 젖과도 같이 풍부한 생명이 흘러 넘치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세한 바람 한 줌으로도 생명을 싣고나서 흘러간 뒤로 이데아 전역에 생명을 흩뿌리게 된 거란다.”

할미는 눈을 천천히 감으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신나게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앞에 그려내었다. 얼굴 주름에 다른 것에 대한 행복함과 그리움이 배어있었고 문득 나는 그것이 싫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중간에 할미의 감상을 깨고 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럼… 할미는 아룬 모라를 좋아하지 않는거야?”

할미는 눈을 뜨지 않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것이 아니다, 아미나. 아룬 모라가 담지 못한 풍족한 신록의 땅을 말하고 있는게지. 너와 자미라 뿐만 아니라 할미나 마을 사람들 주위로 흐르는 생명도 모두 그곳에서 나오는 거란다.”

그리고는 할미는 눈에 불을켜고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 주변에 흐르는 것을 무어라 부르는지 아니? 숨결이라는 뜻의 지움이라고 한단다. 그것은 크고 작은것이든 지니고 있으며 우리들이 밟은 아룬 모라는 물론 이데아조차 가지고 있는 생명의 흐름이란다. 그리

고 그 성질이 닮아있는 다른 이들은 그것을 아르카나라 부르더구나.”

할멈이 그것을 그리운듯 신이나서 말하면 말할수록 슬픈 감정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조심스레 할멈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것을 무어라고 부르던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자미라가 좋아 할미도 좋고. 아룬 모라가 좋아. 지금 이대로가 좋아.”

“알다마다, 아가. 그러나, 생명이 움트는 기적의 땅을 눈에 담고 싶지 않은게야?”

“담고 싶어, 그치만 아룬 모라의 사막에서도 신록의 땅과 마찬가지로 끈질기게 생명들이 꿈틀대고 있잖아. 살아있다고. 아룬 모라의 흙은 강해. 이데아의 어떠한 것들보다 강하다고.”

내 말을 듣고 할미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는 자미라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고 미소지었다.

“치열하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만큼이나 강함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도 불 같구먼.”

“그야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더욱 강해질 수 없다면 살지 않을거니? 우리는 짐승과는 달리 강해지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것이 아니란다. 왜 강해져야 하니?”

할미의 물음에 그렇게 멀리 생각해보지 않고 항상 사막의 모래밭에서 강해지기만을 갈구하던 나는 말문이 막혔지만 간신히 머리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말을 뱉어냈다.

“그래도 우리는 짐승한테서 사막을 사는 법을 배웠잖아.”

할미는 다시 인자한 웃음을 하고는 내게 말했다.

“끌끌끌. 아이고, 아가. 그들에게서 배울것이 있다는 것이 너 스스로 짐승이 되라는 뜻이 아니잖니.”

자미라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더니 나를 막고는 할멈에게 말했다.

“할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할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에게 말했다.

“할미는 더이상 그것과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리 모자란 나도 이해가 될 정도였다. 생명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응. 그렇구나. 알았어.”

자미라는 냉정하고 침착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기에 할멈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뭐야, 언제부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건데?”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룬 모라의 모래빛을 덮는 사특한 기운에 의해 잠식된게야. 그것과 더불어 이전에 궁정의 지킴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점점 에르아의 젖도 말라가고 있다는구나.”

할멈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에르아의 젖이 말라가는 것마저도 사막 너

며 불경한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해야할 일은 확실해졌다.

“우리 말고도 움직이는 모래의 투사들이 여럿인거지? 할멈?”

자미라가 상황을 정리하고는 차분하게 할멈에게 물었다.

“그렇다마다. 사막의 모래알을 벗어나 세상을 배우는 것이지. 세상 밖에는 아룬 모라의 모래알만큼이나 배울 것들 천지란다. 그러하기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할미는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이 늙은이는 너희들이 그저 아룬 모라 밖을 나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옛 세대의 모래투사들이 문을 걸어 잠구고 세상과 담을 쌓았던 벽을 이제 그만 허물어 주었으면 한다, 얘들아.”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라샨의 수많은 이들이 오랜동안 다져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할미의 차갑고 날이 서려있는 말에 한켠이 아려왔지만 그와 반대로 할미의 눈물은 뜨거웠다.

자미라는 나와는 달리 너무나도 차분했다. 그리고 할미의 손을 잡으며 그녀 안에 말라가는 생명을 다독였다.

“걱정마 할멈. 우리는 어디에 살던 아룬 모라의 모래가 우리를 돌봐줄거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줄거야.”

자미라도 슬픈 이야기를 했다. 마치 사막의 품에 다시금 안기려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더욱 밝게 말했다.

“그래! 그러다보면 다들 아룬 모라의 사막빛에 홀려서 다들 이곳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날거고, 모두가 랍시르 사구에서 쏟아지는 별을 눈에 담으며 춤을 추겠지.”

둘은 내 말을 듣고는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그제서야 나도 비로소 마음이 놓였는지 어깨 힘을 풀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신록의 땅에서 생명을 담아 아룬 모라에 돌아올거야.”

“암, 그것이 네가 진정 바라는 것이라면야 그래야지. 그러나, 우리가 아벨의 자손들과 섞이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사막 밖에 백옥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어찌 대해줄지 모르겠구나.”

“하하! 걱정마 할멈. 우리는 흑옥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 저들이나 서로 뭐 비슷하지 않겠어?”

할멈은 나의 대답을 듣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자미라와 나를 바라보는 할멈의 표정은 분명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다.

“말라가고 병든 생명을 다시금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록의 땅에 발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겠더구나.”

“그래. 신록의 땅에서 너희 주변에 흐르는 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테지. 그리고 백옥의 껍데기를 두른 자들과의 이해도 할겸. 채비는 마치었으니 마음의 준비가 되는대로 아룬 모라의 흙에 입맞춤을 하고 가거라.”

아룬 모라의 황금빛을 보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는 언제나 되어있었기에 할멈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들은 우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우리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가볍게 웃었다. 언제나 그랬듯 자미라의 예쁜 미소는 나를 차분하게 했다.

“과연 태양과 달의 고리라는 이름답게 자미라, 아미나 너희 둘은 서로 뜨거웁고도 차가웁구나. 꼭 그래 둘이 하나와도 같이. 암, 그래야지.”

할미는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이런, 이런. 급하기도 해라. 잠시 기다리거라.”

“음?”

우리는 할미를 돌아보았고, 할미는 들뜬듯이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다.

“에르아의 젖 없이는 아룬 모라에서 태양아래 살기 힘들거다. 그러니 신록의 땅이든 어디든 말라가는 젖줄기에 단비를 거두어왔으면 한다.”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할멈한테 배울게 아직 많아. 아, 그리고 아룬 모라에서 에르아의 젖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걱정하지마. 에르아의 젖을 발견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었어. 여기 사는 짐승과 벌레들도 그래왔었고 말야. 그치, 할멈?”

나는 웃으며 할멈에게 말했고, 할멈은 동의하는 듯한 미소로 화답했다. 할멈은 아룬 모라의 출정을 앞둔 사막의 투사를 배웅하는 짧은 의식과 함께 염료를 우리의 얼굴에 바르고 향을 태웠다. 우리는 살포시 눈을

감았다. 우리 셋 사이에서 다시금 생명의 바람이 기분좋게 일렁였고, 동시에 눈을 떴다. 할미의 가벼운 손뼉소리와 함께 의식은 마무리되었고 부드럽고 포근한 손짓이 우리를 배웅했다. 이에 자미라와 나도 미소로 화답했다.

“마쉬 아가스 에아 드 히밧트. 그럼, 다녀오려무나.”

해와 달이 같은 하늘에 걸려있을 때, 자미라와 나는 아룬 모라의 흙에 입을 맞추고 모래 밖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 백색 악몽 』

붕대 밖으로 스물스물 배어나오는 피를 억지로 눌렀다. 고통을 느끼는 것도 잠시 그녀 주위로 따사로운 아르카나와 섞인 빛이 그녀 주위에 감돌기 시작했고 이내 상처가 아물었다. 그러나, 고통의 후유증이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는 듯 연신 표정을 찡그렸다. 아픈것은 아픈것이다. 상처가 낫는 것과는 별개로 그 고통은 쉬이 잊혀지지 않으니 희생으로 만든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굴레의 반복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완벽한 치유나 기적이라 부를 수 없으며 뇌리에 박힌 고통은 그녀를 죄어오니 지긋지긋한 이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안돼, 이 아픔은 되물림 되어선 절대 안돼.”

아픈 것은 상처가 아니었다. 성흔의 기적이 더욱 큰 힘을 발하는 이 어린 것이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가슴을 더욱 옥죄게 했다. 무언가에 홀린듯 내 발걸음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방 앞으로 다가서서 문을 열자 눈부신 전당에 그간의 고통이 눈 녹듯 녹아내렸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또 고통이 가슴을 후벼팠다. 그녀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우리는 무엇이지?”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지만 말투는 그러하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답했다.

“기적의 신자, 베르생. 고통 받고 고통을 덜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엇모를 고통마저 덜어주고 싶으니. 이리 가까이 오라.”

또 기적 너머 영역에 발을 딛고 온 그녀는 나에 대한 기억마저 깨끗하게 정화된 듯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것은 일시적이지만 그 깊이가 더욱 깊게 된다면 나를 완전히 잊을까하는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오, 이런. 나는 대체 무슨 짓을…. 마고, 정말 그걸로 된거니? 아프지 않아?”

나는 연신 그녀의 머리를 매만지며 그녀가 입은 천상의 형상을 벗기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나를 알아보고 해맑은 웃음과 함께 답했다.

“나는 괜찮아, 아빠.”

이거다. 그 어떠한 기적보다 내 찢겨진 상처를 아물게하는 것은 그녀의 웃음이다. 나는 그를 향해 씩씩하게 웃어보이는 모습을 오랜동안 잊게 만든 죄책감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이를 뿌득거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터지려는 눈물을 억눌렀다.

“마고, 우린 돌아갈거야. 성한데 하나없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너의 피를 쏟아서 만든 기적따위는 이제 필요없어.”

그 말을 듣고도 그녀는 왜인지 기뻐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녀의 옷가지와 짐들을 가방에 부지런히 꾸겨넣었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나 대신 다른 이들이 피를 쏟게 되는거야?”

“미치겠네, 네가 피를 쏟아도 괜찮다는 법 따위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너 아닌 누가 피를 쏟는다 한들 나는 아무렇지 않을거야. 다른 이들이 네가 피를 쏟아도 아무렇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때,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더니 말콤 형제님이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 급히 무슨 채비를 그리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거칠게 나머지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 던지고 난 뒤에 일어나 깊게 숨을 쉬고 말콤에게 답했다.

“우린 떠날겁니다. 말콤 형제님. 난 더이상 내 딸의 고귀한 희생이니 뭐니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오, 아니지요, 뤼옹 형제님. 기적은 고통과 희생에서 태어나니 그것은 원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도 그녀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녀는 다정합니다.”

“말콤 형제님. 당신도 아이를 갖게 되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거야.”

“뤼옹, 자네는 아프고 지쳤다네. 잠시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려보게나. 베르생의 참회가 그리도 가벼운 것이었나?”

그의 말을 들은 나는 이때구나 싶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베르생의 참회는 한 소녀의 생명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을만큼 가벼운 것이었나?”

“그렇지 아니하기에 고귀한 희생을 높이 사며 부족하지 않은 것들을 그녀에게 제공해주고 있잖나.”

“이해하지 못하겠군. 심지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스러운 침대도 아니고 빵이나 와인은 물론이요, 돈따위는 더더욱 아닐진대.”

“그 힘을 이해하는 둥지를 벗어나는 순간 그 알량한 힘을 가진 당신의 딸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세상의 뒷편에서 살아가겠지.”

그 말을 들으니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나는 적의를 감추지 않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말했다.

“독사같은 주둥이로 잘도 나불대는구만. 다시 한번 지껄여보시지.”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그도 망설이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답했다.

“베르생의 품 안에서 모독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뤼옹 사제.”

“우리가 여지껏 기적을 행하려 희생을 감수했다고 우리네 아이들까지 그것을 이어가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 안그래?”

“알아. 하지만 그 힘을 제대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천신의 현상으로 기적을 품은 아이는 과연 똑바른 길로 걸어설까? 아니면 타락의 길로 접어들까? 그 결과는 이미 마녀들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던가?”

“내가 제대로 잡아줄 수 있어.”

“안타깝지만 그대의 영역 밖이네, 어쩔 수 없어. 누구도 이 아이만큼 성흔이 또렷했던 존재를 눈에 담은 적이 없었어. 그리고 그것은 곁에서 본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여전히 내가 물러서지 않자 그가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한 아이의 생명으로 이데아에 숨쉬는 수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저 아이의 생명에 비하면 수많은 이들의 목숨따위야 내 알바아냐. 한 어린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래를 나보고 수긍하라고? 그게 절대로 안되는걸. 내 곁에서 쭉 지켜본 네가 누구보다 잘 알거아냐?”

“불쾌하군, 뤼옹. 그대는 참으로 역설적인지고. 여지껏 가면을 뒤집어 쓴채로 순결한 희생을 요구하는 곳에서 몸을 담그며 수많은 희생을 보고도 함구한 그대가 그대의 딸이 희생되는 것은 그리도 역겹던가?”

“아니지, 아니야. 항상 너희는 너무 많은걸 구하려 하고 있군. 당장 한 소녀의 생명조차 구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못한채로 말이지. 예나 지금이나 도대체 변한게 하나도 없잖나.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동정하며 어찌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는이라고? 이젠 베르생의 품에조차 있지 않겠다는 소리처럼 들

리네만?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없군."

우리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는 소리가 밖까지 새어 나갔는지 어느새 문 밖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교구장님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하기에 나는 수많은 생명을 위해 피흘리는 당신의 아이를 위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말콤과 난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맞이하였다. 조용히 앉아있었던 내 딸 마고도 비틀대다 일어나서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교구장은 양팔로 감싸는 듯한 우아한 손짓과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논쟁중이던 우리 둘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치더니 마고의 뺨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고, 나는 그녀를 힘없이 노려보았다. 내 딸에게서 손 떼라는 말과 욕지거리를 한껏 퍼붓고 싶은 욕망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 가여운 아이에게 담겨진 기적을 올바른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상의 형상을 입은 이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 게지요?"

내게 그것은 물음이 아니라 협박과도 같이 들렸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하는 빛을 뒤로하고 플랑 바통으로 갈 겁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적한 시골마을. 음, 좋지요. 그렇게 하세요. 떠나시기 전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길."

"교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류하려는 말콤을 손을 가벼이 들어 제지하며 그녀는 말했다.
“보내주도록 하지요, 말콤 형제님.”
뭐지? 왜이리도 쉽게 우리를 보내주려는 거지? 그리 쉽게 베르생의 사명을 잊으며 평범하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지 않는것인가? 하는 수많은 의문을 뒤로한채 나는 일어섰다.
“그렇지요. 힘들고 지쳐있지요. 더이상의 희생과 고통은 불합리하다 여기고 계시지요.”
그녀의 동정어린 말들은 나를 꿰뚫고 있는 듯하여 더욱이 소름끼쳤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길을 축복아닌 무언가로 배웅의 말을 넌지시 건네기 시작했다.
“그대 이전에도 수많은 이들이 베르생이라는 이름을 지고 희생하는 고통을 벗어던지려 했습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던 내가 한참 뜸을 들이다 물었다.
“그리고 그 자들은 모두 어찌 되었습니까?”

“베르생이라는 이름 이외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그저 구원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상처보다 깊은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잃은 내게 말했다.
“이미 기적의 광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한 자가 평범한 일상을 눈에

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난 마음을 굳게 다잡고 그녀에게 자신있게 답했다.

“아니요, 내 딸은 그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어여삐 자라 사랑하는 자신의 짝을 찾은 뒤에 따스한 잠자리에서 손주들 사이로 평화로이 눈을 감을 것입니다. 순결한 희생을 찬양하는 신자들과 찬송 따위가 아니라.”

내 말을 들은 교구장은 눈하나 깜작않고 기계적으로 답했다.

“예. 저도 그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도 부디 그녀가 한 꺼풀 껍데기를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베르생의 손길은 그대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괜찮다라는 다짐은 어느새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으로 닥쳐왔지만 교구장에게 건넨 간결한 말을 끝으로 마고와 나는 베르생의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만의 길을 걷고자 다짐했다. 더이상 내가 어릴적 행한 희생의 고리를 잇지 않아도 된다는 잠깐의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지만, 마고를 잡은 손은 더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에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그 피가 불안한 나의 결의를 다잡게 해주었다.

마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 공허 속 포효 』

“우윽….”

연신 나오는 헛구역질로 머리가 어질하다. 그런것에 아랑곳않는 저 야속한 검은 문은 나를 비웃는 듯한 기괴한 곡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문을 찢고 나온 곳은 깊은 숲이었다. 모르는 곳일 뿐더러 기억은 조각나 일부만이 주마등처럼 스쳐감에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깊고 고요한 공허의 속삭임이었다. 입가에 흘러내린 침을 대충 닦고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나의 등골을 스쳐 지나가자 난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나의 냄새를 끝까지 쫓으며 끝에는 나의 숨통을 쥐고 사지를 도륙낼 것이다. 그것이 검은문을 드나드는 것들의 운명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결코 두려웁지 아니한 이유는 보이지않는 텅 빈 공허조차 아버님 카하낫의 품이자 은총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나를 텅빈 곳에 던지소서.”

나는 공허를 향해 짧게 기도하며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뇌리에 깊게 새겨진 어두웁고 진한 줄기로 조각난 기억을 짜맞추기 시작했고, 그 기억을 다시금 회수하는 것은 그리 오래걸리지 않은 것도 아버님의 보살핌 덕분이라.

“좋아. 이제 검은문의 장막을 찢어도 나의 정신은 온전하다.”

뿌듯하다. 허공에 뿌려진 나와 함께한 자들로 적셔진 피는 헛되이지 않았나보다. 그리고 그들의 피 안에 고이 담긴 뚜렷한 저들의 사념 역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저들의 것임과 동시에 나만의 것이기도 하지.

“아벨론….”

무너져야 할 금자탑. 오만의 꼭대기에 있는 우매한 것들. 그러나,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더이상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된 이후로 그들에게 우리가 겪은 끔찍한 고통을 고스란히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를 들뜨게 했다.

팔에 무언가 따끔한 아픔이 느껴져 그 곳을 조용히 바라보니 그 곳에는 나를 쫓아오는 것들의 피가 흐르고 그것의 살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들은 역시나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하, 이게 실라가 말한 거구나. 생각보다 아프네.”

텅빈 곳을 향해 빌고 빈 뒤에 내 몸에 새겨진 멍과 내가 피를 쏟았을 때의 기분을 똑같이 느낄테지. 내 팔에 자라고 있는 이것들도 공허를 걷는도중 내게 고스란히 스며든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이제 됐어. 복수심 같은건 도움이 되지 않아.”

고개를 가로저은 뒤에 스스로 나를 다독이며 위로한다.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부숴지고 깨지고 찢어졌으면 하지? 그래, 알

아. 알다마다.”
그 짧은 감상을 방해하는 것은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렸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뱉으며 그 소리로 쫓아오는 것들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정신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제 저것들로부터 달아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답과 함께 나는 발걸음을 천천히 멈추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다시한번 허공에 빌었다. 그리고 다시금 공허의 커튼이 내 어깨를 어루만졌다.

“메사 피네, 너의 목소리가 이 곳에 닿노라.”

마침내 나는 수많은 이들의 피로 문을 찢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내 안에 충분히 담기게 한 것이다. 너무 기뻐 기절할 뻔했다. 공허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이 아닌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도 나의 이름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깊은 숲 속에 덩그러이 크게 뜬 저 분홍의 달은 나무사이로 그 빛을 뿜어댔다. 그리고 그 빛은 어느새 카하낫의 색으로 물들였다.
“나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오니, 깊은 공허 속의 피조물은 나를 감히 해하지 못함이라.”
더불어 나의 목소리도 기괴한 음색을 흘려 잠시 놀랐지만,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야. 그래, 이게 내 목소리야.

그것은 큰 용기가 되었고, 내 안에 작은 두려움과 불확실은 안개처럼 걷혀지기 시작했고, 공허 카하낫 깊은 곳의 울림이 나의 귓가에 깊고도 넓은 어두움이 나의 두 눈에 또렷하게 담긴다.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나를 쫓는 것들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따분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쫓아오는 것들로 고개를 돌려 그것들에게 내달렸다.
남의 고통을 기다리는 이것이 이렇게나 기분 좋은 것인지 몰랐다.

“아벨론의 채찍질과 담금질이 이러했었나? 그래, 그렇다면 참을 수 없었겠네. 너무 좋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 고통을 가한 자들의 가학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건지 모르겠다. 아니지, 아니야. 고통의 시작은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럼.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니 잡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나, 나의 내달림은 분명 기괴한 울음을 정확히 향해 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내 팔에 솟아오른 것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한 것들이 비로소 눈에 담기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제 깊은 숲 속을 비추는 달 뿐만아니라 저 하늘도 땅도 모든 것들이 이계의 것이 아닌 색깔들로 가득찼고 나는 환희와 번뜩임으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오랜 고행과 기다림 끝에 비로소 나는 마녀, 카라하스로 태어났다.

다만, 환희의 순간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고, 검은 문을 잠깐 여는동안 스며든 카하낫 밖의 잔유물을 청소해야만 했다.
몸에 돋아난 것들은 내 생각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공허의 부름이 머릿속 균열과 맞물리어 나의 의식대로 움직이는 것이였다.

“좋아, 메사 피네. 이제 너는 카라하스의 마녀야.”

그리 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음을 던질 필요조차 없었으니, 굳이 머릿속에 새겨진 카하낫의 줄기로 저들을 인지하지 아니하여도 두 눈으로도 저것들의 형체가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
“문 한번 열어서 저만큼이나 나온다고?”
생각보다 눈 앞을 가득채운 공허의 잔유물의 숫자에 질려 고개를 가로 저었다. 생각과 달리 저것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듯 내 몸에 기생해 있는 것들은 완전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좋아, 가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나는 그것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고 공허를 찢고 나온 것들의 피로 바닥을 적시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기괴한 순간을 두 눈으로 지그시 지켜보았다.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어질러진 주변과는 대조적으로 이 순간은 그 어느때보다도 고요하고 차분

하다. 난 그 고요함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이것들도 피 같은 무언가를 흘리며 죽는구나. 기쁘네.”

분명 저것은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검은 문을 찢고 열어젖힌 카라하스의 마녀들에게 있어서는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었다.

이렇게나 새로운 무언가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이 기뻤적이 없었다. 우리를 줄곧 괴롭혀 왔던 그들이 누려온 이 기쁨을 나도 누리고 있다고 하루빨리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몸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허의 찌꺼기가 가려워 그곳을 벅벅 긁어댔다.

“이건 상처가 덧난건지 낫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아니, 애초에 상처라고 하기도 뭐한가?”

바지 밑단으로 흘러 내리는 것들을 대충 씻어내렸고 여유가 좀 생기니 주변의 풍경이 나의 눈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곳은 아수라장이라는 말로도 담지 못한 그림이었다. 이 세상의 색깔이 아닌듯한 형형의 색이 이데아에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뒤로 내가 찢은 문 뒤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미치겠어.”

검은 문을 찢고 나의 정신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을 찾아냈듯이, 다음 문 너머로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나는 대

체 무엇을 위해 수많은 문을 넘어가려는 것인가?
문을 찢고 나온지 한참이 지난 지금 공허 카하낫에서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게 닿지 않으나 이전만큼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다. 들리지 않지만 나의 길이 나의 눈 앞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을 찢고 나오기 전 함께 지냈던 실라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고 눈이 파르르 떨리며 나는 그 말을 따라 입을 맞추었다.

“아니지, 복수는 너무도 인자한 처사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복종이야. 그리고 그것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은 카라하스의 마녀 전부의 소망이기도 하고.”

순식간에 토해낸 말을 뒤로하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 느껴졌다.
그리고 기억이 뇌리를 스쳐가듯 떠오르기 시작했다. 문을 찢고 기억을 잃고 되찾고, 카하낫의 고요한 공허 속 포효를 귀에 담으며, 몸에 공허를 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하나의 큰 굴레와도 같은 과정이 순식간에 나를 휩쓸고 지나가자 해야할 일은 더욱 명확해진다.
“문을 비집고 드나드는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네.”
허무한 말과 씁쓸한 웃음을 남기고 열린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기괴한 절규를 지르며 문은 자취도 남기지 않고 일그러진 틈 사이로 빨려들어간다. 그것을 언제 다시 불러내어 내 몸에 또 언제 공허를 다 담

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나중이었다.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벗을 필요로 했다.

마침 놀잇거리가 없어져 외롭기도 했고.

카라하스의 마녀, 공허에 내던질 피와 살이 더 필요하다.

『 동행 』

“잘그락…잘그락…”

손과 발을 옭아맨 사슬이 서로 부딛히며 고요한 새벽을 요란하게 깨운다. 그러나, 그누구도 저주를 입은 자들의 외침에 관심이 있을리가 없기에 적막한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약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은 마침내 목적지에 닿았다.

“잘그락…끼익..잘그락…끼릭…철컥…”

손과 발에 묶여있는 사슬을 하나 둘 풀고 일락시움의 서약 412,827장을 새긴 바위를 내려놓았다.

“쿵!”

부서진 모래소리와 함께 그것을 내려놓은 소리는 텅 빈 황량한 대지를 울리나, 요란스럽지 않게 작은 울림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무심하고 허무하게 흩어져 사라진다.

그 서약을 짊어온 자에겐 의미있는 울림이지만, 이 순례를 모르는 자는 당연히 그것을 미친 짓거리 정도로 여길 것이 뻔하다. 다만, 그것을 신경 쓰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

412,827장의 효력은 이곳에서 다하였다. 그것이 창조주 에르아가 훗날 이곳에 내려오실 적에 심판의 활로가 될 것이니, 라구엘의 깃발 아

래에 순례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락시움의 서약 제 412,827장 이곳에 머물다.’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마르고 갈라져 쉿소리를 토해낸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여 허기도 갈증도 그 어느것도 장애가 되지 아니하지만, 역시나 이 육신은 낡았고 지쳐있다. 이곳에 굳건히 자리잡은 저 서약은 제 사명을 끝마쳤으나 순례의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니 저것이 밝히는 길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다음 장을 향해 걸어 온건히 이 땅에 뿌리박히게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 몸뚱아리 또한 온건해야함이 마땅하다. 주린 배는 채워져야 할 것이고 마른 몸뚱이를 적실 물을 주어야 했다. 하늘에 물길이 열리고 난 뒤 고개를 내든 태양이 비추는 곳은 눈이 부시게 반짝인다. 그 곳은 도로 한켠에 자리한 웅덩이에 고인 개울이었다. 그것에 취한듯 비틀대며 누더기 몸뚱어리를 끌고간다. 다음 순례의 길에 오르기 전에 몸을 경건하게 씻어내리며 준비를 하던 찰나에 곡식을 베고 자르는 것들을 들고 있는 무리가 비루한 몸뚱이를 향해 다고오고 있었다. 그것과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비틀거리는 짐승도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오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존재들이 오건말건 개울물을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다. 순례길에 오른 다죽은 몸뚱이와 다를바 없는 모습이나, 하나 다른것이 있다면 저것은 이것과 달리 살아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죽음을 알 것이라.

‘저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말라버린 목은 아직 해갈이 되지 않아 메마른 대지와 같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온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아벨의 자손으로 보이는 무리가 입에서 타액을 뱉고 난 뒤에 손에 들고 있는 날붙이를 휘적이며 불쾌함이 가득 담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카악, 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도발? 적대? 아니, 그것은 공포다. 두려움과 경멸의 공존이다.

“너랑 똑같구만 저 개새끼도. 그리고 이 마을에서 꺼져, 이 반송장 같은 새끼야. 너 같은 엿같은것들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란 말이야.”

‘…개인가, 저것은.’

옆에서 있던 수염 덥수룩한 것이 낄낄거리며 거든다.

“라구엘 이라는 이름은 또 뭐냐고, 라구엘이. 토하는 것 같은 소리 같잖냐.”

옆에 있던 연장을 든 사내가 옆에서 웃고 있던 것의 머리통을 치며 말한다.

“입 닥쳐, 바보스.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뭐가 좋다고 처웃고 자빠

져있어, 재수없게시리. 저주라도 옮으면 어쩔껀데.”

“적어도 너희들이 아벨의 자손, 인간이라고 할것 같으면 인간답게 그냥 좀 곱게 뒈지라고. 불경한 것들처럼 어그적 거리면서 이데아를 배회하지말고. 이 저주받은 새끼들아.”

저것이 눈을 부라리며 무어라 소리낸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

가만히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그것이 두려웠는가 손에 쥔 연장을 더욱 바짝 쥐고 찌르고 벨 준비를 한다.

“저주받은 새끼들. 주둥아리마저 저주받아 썩어버렸나보지? 엉?”

침묵하는 것이 두려웠는가, 저주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두려웠는가. 그저 묵묵히 응시하고 있는 그 자세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인가 바로 추적거리는 흙바닥을 발로차 앞에 뿌리고는 점점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한다.

“잉게! 더도말고 정확히 넷으로 나누는거야. 알겠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지, 바보스. 이 멍청한 친구야. 라파르 괴짜놈들은 저런 것들 하나에 부르는게 값으로 쳐주는데 더 받아 먹어야지 않겠냐?”

끓는 가래소리를 내며 저들 손에 있는 연장을 휘두르며 다가온다. 그러함에도 이 몸뚱이를 굳이 움직이려하지 않는다. 한 두번 있는 일도 아

니거니와 손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 저것들은 저주받은 이 몸뚱어리에 대한 혐오만 내비칠 뿐이지, 이 순례를 망치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
“쑤셔! 씨발! 벌집을 만들어버려!”
광기에 물든이들을 사방에 두르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피가 사방에 튀고 살점은 쪼개져서 바닥에 흩뿌려진다. 옆구리는 둔기에 뭉개어져 찌그러져 옷 밖으로 푸른 멍을 비추었다.
신이 나 몸을 칼로 쑤시고 낫으로 베고 망치로 부수었음에도 평온히 서 있는 존재를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것들은 마침내 얼어붙은 입을 떼며 울부짖었다.

“아벨, 맙소사!”
“이게 뭔 개같은!”
“멍청하게 있지말고 썰어! 얼간이 새끼들아! 아예 토막을 내버려!”

광기는 멈추지 않았으니 피바람은 계속 불었고, 저 하늘마저 어느새 살점을 취하려드는 까마귀떼로 거뭇하게 물들여져 있었음을 저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광기의 울부짖음은 저주받은 몸뚱이에서 피어나는 쇠사슬의 외침에 뒤덮혀 잔잔해져갔다. 쇠사슬이 춤을 추면 만들어내는 먼지가 그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산 자가 아닌 저주받은 자였다. 마지막 사슬이 내는 절그럭 소리와 함께 찾아 온 것은 숨 막힐 듯한 고요였다.

그 고요 속에서 물이 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썩은물 웅덩이에 고개를 쳐박고 목을 축이고 있던 것이 난리 속에서 정신을 차린듯 몸을 움직이다 내는 소리 같았다. 비루한 이 육신이 고개를 들고 우두커니 바라보다 눈으로 그것을 불렀다.

'개.'

그것과 눈을 마주치자, 다 죽어가는 듯한 그것은 어금니를 드러내며 죽어가는 이 몸뚱이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추구하며 위협하는 보호반응에 경의를 표한다. 그것이 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가까이 가져간 손을 물어 뜯는다. 그러나, 어찌하냐, 이것아. 이 몸뚱어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가느다란 숨을 토하며 고개를 비틀며 한참을 물어제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팔의 살점이 뜯어져나간다. 개는 잘려진 고깃덩어리를 입에 문채로 가만히 눈을 치켜올려 저주받은 자를 응시한다. 두려움은 아니다. 저것은 이 몸뚱아리에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감정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입에 문 고깃덩어리를 죽어버린 이 몸뚱이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라구엘의 저주를 입은 몸뚱이는 썩어 문드러져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것이 알리가 없겠지. 그러함에도 저것이 건넨 살점을 다시 주워든 뒤 억지로 팔에 엉기어 붙였다. 저주입은 몸에 진물이 새어나와 암덩이와 같이 뭉쳐져 멀쩡하다는 듯 손과 팔을 까딱거리자 개는 다시 움직이는

몸뚱이를 보고는 꼬리를 흔들어대고 헥헥거린다. 아벨의 자손, 저주 받은 이 몸뚱이보다 다 죽어가는 이 작은 것이 더욱 살아있는 듯하다. 그리고 개는 죽어가고 저주받은 이 몸뚱이가 신기한 것인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쩔줄 몰라한다. 다 죽어가는 이 작은 생명의 꿈틀거림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살아있는거냐. 그것에 화답이라도 하듯 개는 세상 힘차게 소리냈다. 서약을 마친 이 대지에 미련은 없으니 뒤돌아 또 다른 순례의 길에 오를 채비를 했다. 그러나, 다음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은 이 육신과 함께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개. 뒤로 남겨진 발자국에 맞추어 개도 따른다. 순례길에 오르는 것은 산 것과 죽은 것. 둘.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어가는 것인가?’

살아있음을 정하는 것은 몸뚱어리냐 아니면 그 몸뚱이 안에 담겨있는 무언가냐. 서로 반대인 두 존재가 하나의 길에 오르는 것은 무어냐. 이 남루한 빈껍떼기와 동행하며 순례의 길에 네가 찾는 것은 무어냐 물어본다한들 답은 없다. 다만, 그 길에 오르는 것이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것은 이 한 몸이 바스러져도 일락시움의 서약을 옮겨 소툼과 골로낫에 필적하는 물길이 쏟아져내릴 때, 물길을 단단케 하여 창조주 에르아를 팔벌려 맞이하는 것 뿐. 어느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비루한 육신은 여지껏 몰랐단 말

인가? 미소? 그것이 처음으로 가진 감정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 새로운 무언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이 라구엘의 짐을 짊어지는 자격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나’는 망가져버렸다.

『 두터운 신뢰는 깊은 알포데 한잔과 함께 』

“푸헥! 콜록! 켁… 켁! 카아아악! 퉤!”

뿌연 먼지바람과 짙은 화약냄새가 나를 괴롭히는 탓에 온 힘을 다해 가래를 뱉어냈다. 그리고 난 뒤에 고개를 돌리자마자 매디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있는힘껏 찡그리며 빈정댔다.

“아이, 더럽게 진짜. 고작 매연이랑 화약냄새로 빌빌대는게 어떻게 여지껏 아그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거야?”

뭐 늘상있는 핀잔이었기에 나는 흐르는 콧물을 쓱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죽을거 같다고.”

내가 눈물 콧물을 빼고 있는 걸 보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이며 조소섞인 투로 내게 말했다.

“너는 아무리봐도 시궁창 쥐새끼랑은 전혀 안 어울린단 말야.”

“그치그치? 보라! 나는 가련한 온실속의 화초. 여리디 여린 한 줄기의 꽃. 아! 발 바로가!”

“얼씨구, 지랄하네. 진짜.”

콧물을 흘리면서도 최고의 주가를 달리는 비련의 여주인공과도 같은 몸짓을 하자 매디의 미간은 더욱 깊어지더니 입을 비죽거리며 나를 노려

보며 독설을 뱉어냈고, 트럭에 함께 타고 있는 얼간이들은 배를 쥐어잡고 웃어댔다.

“의뢰 끝났으니 거나하게 한잔해야지.”

옆에서 함박웃음을 자아내던 배불뚝이 리딕이 내게 어깨동무를 하며 귀에 쩌렁쩌렁 소리를 쳐댔다.

“귓가에 소리 안 질러도 너는 목청이 커서 다 들려 이 돼지야. 그리고 도착하면 목욕부터 할건데? 나처럼 가녀린 소녀가 떡진머리에 번진 화장이 말이나 되냐고.”

내 말이 끝나자마자 매디가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이 내게 말했다.

“어어, 뭐 그러시던가. 다만, 그전에 파랑새가 울던데? 도착하면 마담한테 먼저 가봐야 할거야. 자세한건 도어맨한테 물어보고.”

“저기요, 지금 막 일 끝내고 돌아가려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리딕은 불쌍한듯 혀를 찬 뒤에 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고개를 가로젓자 매디가 그의 말에 답했다.

“그 짧은 사이에 요란하게 동네방네 까불고 다녔으니 마담이 찾는 것도 이상할 것 없잖아? 뭐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는 부럽네.”

“하긴 뭐 그것도 그렇지.”

나는 무언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뿌듯해서 가슴을 쭉 펴고 으스댔

다. 비록 그것이 흙탕물 속에서 핀 꽃이나 다름 없다고 해도 말이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웃으며 홀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나는 아무리봐도 시궁창이 어울려.”

그 말로 나를 다독였다. 내 입 밖에서 나온 말임에도 그것은 왠지 나를 쓸쓸하게 했다.

“플랑 바통같은 촌구석에도 쓰레기가 즐비한 걸 보면, 법이나 질서라는 건 애초에 죽어버린 것 같네.”

“그런게 있었다해도 우리가 단란한 가정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냐? 꿈 깨셔.”

매디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기괴하게 젖힌채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 괴짜같은 모습에 왠지 마음이 편해져 다시 얼굴을 펴고 답했다.

“그건 또 아닌거 같네. 나에겐 시궁창이 집이고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한 곳인걸.”

그렇게 트럭은 노을 속으로 한참을 달리는동안 나는 강기뇨르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 바로가의 구절을 읊으며 떠들어댔고, 트럭에 탄 멍청이들은 그것을 참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다. 강기뇨르에 도착한 우리는 그제서야 긴장하기 시작했다. 집만큼 불편한 곳이 없다. 매디는 걱정이 되었는지 자신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담을 만나서 개짓거리를 한다면 나를 갈아서 개밥으로 만들어 버

린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인 예절이나 마담을 접했을 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일러주었다. 나는 몇번이나 주의사항을 잃지 않으려고 매디가 일러준 주의사항을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매디는 홀로스와 강기뇨르를 벗어나 자신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 레스토랑 안에서 초콜렛을 세개나 집어들었다. 그곳에서 마담을 만나기 위해 나는 카드를 매표소 직원에게 건넸다. 거터벨트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보더니 그는 활짝 웃음을 지으며 나를 승강장으로 안내했다. 복잡하게 얽힌 터널 몇개를 갈아타기를 수십번 반복한 뒤에 마담을 조우했다. 어둡게 그을린 매끈한 피부에 우람한 자태, 찰랑거리는 보랏빛 머릿칼을 쓸어내리며 내게 다가오던 그녀는 나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넉살 좋은 웃음을 짓고 손을 건네며 내게 물었다.

“키샤. 너는 이름이?”

이상했다. 매디가 일러준 주의사항에 따르면 보통의 경우에 마담은 이름따위 물어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름도 당당히 말하지 않는다. 나는 경계심없이 초콜렛을 입에 물고 답했다.

“오! 나는 키키. 안녕? 실례오만 이것참 처음으로 뵙겠수다. 마담.”

나는 자리에 걸맞게 나름 잡지에서 보던 귀족스러운 인사를 어설프게 건넸지만 형편 없는 듯했고 그녀는 그 모습에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다.

“어머, 인사가 영 엉망진창이네. 귀여워라.”

그녀의 태도에 나도 긴장이 풀려서 활짝 웃는 얼굴로 화답했다.

“아, 그래? 고마워 마담. 마담도 예쁘네.”

“너처럼 긴장감 없는 애도 오랜만이다, 얘.”

“응! 나도야, 고마워.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내가 일 얘기를 꺼내자 그녀의 눈빛에 빛이 돌았다.

“호오, 그래도 프로는 프로네. 바로 일 얘기로 넘어가는거야?”

“어? 아니야? 뭐 그럼 술이나 한잔 따라줘. 놀다와서 목말라.”

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그녀는 더욱 크게 웃었다. 그녀 역시 술을 사양하지 않았고, 우리는 알포데 세잔을 연속으로 거침없이 흘러 넘겼다. 목에서 타오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한참을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의외로 그녀는 말이 잘 통하는 상대였다. 그러다 문득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다시금 스스로에게 되뇌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이제 그만 아그발에서 나가줄래?”

말도 안되는 요청에 나는 무언가에 얻어받은 듯 한참을 얼어 붙은 듯이 멍하니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너는 어디서 왔니?”

“무슨 상관이야! 아그발은 자유와 평등으로 시궁창 속에서 빛나는 나라라고! 그것도 몰라? 마담 때려쳐!”

나는 그녀의 면전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며 크게 소리쳤다.

“잘 알고 있네, 그 자유를 박해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잘 알겠네.”

“아벨론이지. 그릇된 정의와 질서, 믿음과 헌신을 강요하는 방벽을 둘러서 총칼로 지배하는 집단이잖아.”

“너는 어디서 왔니?”

“…아벨의 방벽 안에서 왔어.”

“네가 들어오고 팀을 꾸려나가면서 이상하게 너와 연루된 사건은 모두 아벨론과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아?”

“대충 때려 맞추려하지마. 그냥 우연의 일치야.”

“너는 어디서 왔니?”

“이르메스에서 왔어.”

“사법과 질서가 정연한 국가. 참으로 좋은 나라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냥 너를 좀 알아갔으면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련?”

“얘기해주면 아그발에 계속 있을 수 있는거야?”

“안돼.”

“그럼 강기뇨르에서라도 일하게 해줘.”

“어머, 그건 더더욱 안돼.”

비실대는 마담의 쌍판떼기가 마음에 들지않아 욕기거리를 내뱉으며 허리춤에 있는 총에 손을 댔다.

“이런 개 호로 씨발년이 진짜!”

내가 박차고 일어서서 탁자에 발을 들어올리자마자 내 머리에는 어느새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고, 조용히 끼리릭 거리는 소리가 방에 울려퍼졌다. 좆됐네, 나는 그녀가 언제 총을 뽑았는지도 몰랐다.

“아가리 조심해, 썅년아. 뒤지기 싫으면. 진정해. 일단 들어나보고 판단할게. 그래도 나는 너 같은 년들이 싫지만은 않거든.”

“좋아. 그럼 이야기도 다 하고 아그발에도 남아있을 거야.”

“고집스러운 애네, 음, 안돼.”

“좆까. 뭔가 잘 못 알고 있나본데 이건 부탁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가리 한번더 좆같이 놀리면 위아래 달린 주둥이 말고도 씹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람구멍 여러개를 내줄테니 그리 알아.”

그녀의 창의적인 욕지거리를 듣고 나는 감탄해서 눈을 반짝인채로 입을 막은 뒤 남은 손으로엄지를 치켜세우며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 행동이 여전히 우습기라도 한 듯 키득거리자 나는 그녀의 눈치를 보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응, 미안.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여기는 내 집이야. 편하거든. 나는 아그발을 좋아해. 물론, 너는 좀 싫지만. 내말은 아주많이.”
내가 무슨 말을 쏟아낸들 나를 관찰하는 듯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여전히 흥미로운듯 바라보며 싱글거리는 쌍판떼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이르메스에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얘기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끝마쳤다.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술안주도 못되는 얘기였다. 그녀는 턱을 괴고 잘 들었다면서 잠깐동안은 내가 아그발에 남아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개같네 진짜. 지가 뭔데?’

대충봐도 역시나 그녀는 하나도 안 듣고 전부 귓등으로 흘리고 있는 듯 보였다. 내 얼굴 시뻘개진 줄도 모르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모습에 뭐가 그리 신나보이는지 마담은 손을 저으며 나를 달래 듯이 말했다.
“미안,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심하게 대해서 미안해.”
뭔가 사과하는 셈치고 선수를 빼앗긴거 같아서 뒤가 구렸지만 다시 소파에 몸을 푹 담으며 대충 넘어가기로 했다.
“그래, 뭐. 그럼, 됐어. 나도 네가 좋아.”
“너 거짓말을 정말 더럽게 못하는구나. 듣던대로 다른데에는 못쓰겠네. 그럼 이만 가봐도 좋아.”
“응, 그래. 또 봐 마담. 알포데 같이 마시자 다음에도. 넌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저거는 끝내주네.”

“음, 이건 진짜네. 제일 좋은 걸로 준비해 놓을게, 키키.”

“고마워. 키샤. 또 보자. 만나뵈어 대단하게도 영광이옵나이다.”

“엉망진창인 인사는 됐으니까 꺼져. 저쪽으로.”

거칠게 화답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있었다. 묘하게 열받네. 그넌 얼굴에 주먹 한대라도 꽂았으면 소원이 없을 쌍판이다.

“재수없어, 진짜.”

나는 문을 세게 닫고는 조용히 걷다가 키득거리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거세게 차버렸다. 구겨지듯 찌그러진 쓰레기통은 조용한 통로 사이를 요란스러운 메아리를 남기며 조용히 흩어졌다.

『 혼백찾기 』

“홍이 있느냐?”

대감님이 대관절 나를 부르셨다. 그 목소리는 온화하고 나긋했다. 언제나처럼 깃털같이 가벼웁고 장난스럽지만 이번엔 울림이 깊은 호수에 물길이 이는 듯 왠지 모르게 무거워 불안감이 엄습했다.

“예예, 대감님. 홍이 여기 있습니다요.”

나는 이번에 올 화전놀이에 쓰기 위해 준비해 둔 짚더미를 어깨에서 급히 내려 놓으며 그의 부름에 답하며 얼른 대감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대감님은 파소나무 아래에 칠매오량을 들고 계셨다. 대감님 근처에 핏 자국이 하얀 눈에 선명하고 흐드러지게 피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 대감님 주변으로 끝에 방울이 달린 비도를 날린 뒤, 얼른 허리춤에서 맹아탄을 꺼내어 바닥에 터뜨렸다. 맹아초 연기가 피어오르며 내 몸에 순식간에 스며들자마자, 나는 얼른 고개를 쳐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하니 분명히 무언가 머물다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보이느냐?”

“지금 당장 살을 풀어 제낄터이니 두고보지요.”

신경질적으로 답한 나는 방울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며 부지런히 눈알을 굴렸다. 감히 백주대낮부터 어느 개잡놈들이 대감님을 해하려는지

분노를 간신히 잠재우며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딸랑거리는 소리 속에서 가닥이 잡히자마자 나는 이를 뿌득거리며 입을 열었다.

“초아! 막야! 서북수방으로 십이리. 꽤나 날래지만 이것들을 위해서 굿판을 펼치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겠다. 그냥 동방의 햇살을 두번 다시 맞이하지 못하게 흔적도 남기지말고 싸그리 지워버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초아와 막야가 눈깜짝할 사이에 대감님과 내 사이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보다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대감님은 칠매오량을 고이 접은 뒤 떨어진 파소가 아까운 듯이 한줌 집어들더니 두루마기에 대충 닦아내고는 즐거운 듯 하나씩 입에 던져 오독거리며 드셨다. 파소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한참이 지나서 나는 애기살 촉을 거두고는 대감님께 여쭈었다.

“이전과 같은 것들이었습니까?”

대감님은 여전히 파소열매를 오독거리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 무탈한지는 묻지도 않는게냐?”

긴장감이라고는 없는 대감어른을 보니 나도 긴장이 풀렸는지 비웃으며 그의 물음을 맞받아쳤다.

“막대기 하나로도 귀신을 때려잡는 양반이 칠매오량까지 집어들고 무탈하지 아니하면 세사도르에 두발 뻗고 잠드는 이 어디 있겠소이까?”

“이전과 같은 것이지만 또다른 놈들이었다.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연

기처럼 두둥실 하는 모습을 하고 말이지.”

“세사도르 산기슭에 자리한 망령이나 도깨비가 아닌 것들이 점점 고요를 깨려 하는군요. 허나, 그래봐야 사귀나 다름없겠지만.”

“그리 느껴지느냐? 헌데, 궁에선 이미 북방 산기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것들을 막아내려고 수많은 도사들을 소환하였다 하더구나.”

그저 사귀따위로 치부해버렸지만 대감님의 말에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허면, 어명에 따라 저도 초아도 막야도 부름에 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찌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함구하신 겁니까?”

내가 묻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웃음 참지 않으며 말했다.

“내 종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여 물러가게 하였다.”

“무어라는거요! 그 종놈 종년들이 대감 눈이 되고 귀가 되는데, 귀기를 느끼지 못하시는 양반께서 어찌 우리가 그리 쓸모가 없다 파발에게 고하셨습니까? 도력이 있는 자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나라에 헌신하지 않음을 알면 궁에서 이를 그저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놈새끼가 간신히 도술 좀 익히었다고, 어찌 궁의 도사들과 어깨를 견주려하느냐? 예끼! 이, 시건방진 놈아!”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내 머리를 가벼이 쥐어박는 듯했지만, 나는 갑자기 의식이 끊어진 듯 다리가 풀리더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런, 씨부럴.”
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대감님은 파안대소했다. 이전에도 궁의 연례행사 중 하나로 행한 굿판의 시중을 들 정도로 우리들의 도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지만 분하게도 대감님말대로 여전히 우리는 종놈의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간신히 일어나 옷가지를 툭툭 털고 어느새 정자에 삐딱하게 기대어있는 대감님에게 화풀이했다.

“아, 거! 고만좀 오도독 거리고 들어가시오. 정신 사납구만!”
“오호통재라, 싸가지 없이 못배운 상놈이 뚫린 입이라고 어르신에게 함부로 놀리는 꼬락서니 좀 보게나.”

대감님은 입 안에 열매를 몇개 더 던져넣고 입안가득 오독거리면서 내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히죽거리셨다. 그리고는 초아, 막야가 내달린 북쪽을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시고는 추워서 언날 오줌 누듯 온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는 안채에 오두방정하며 들어가셨다. 한참이나 혼백을 쫒던 초아와 막야는 하늘이 붉게 물들때가 되서야 돌아왔다. 그들은 대감님께 문안드리옵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듯 터덜거리며 내게 걸어오자 내가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린데에 대한 연유를 물었다.
“어찌 이리도 늦은게야?”
“말도마라. 뜬구름을 잡으려다 혼났다, 야.”

대관절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막야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사귀를 잠재우는 과정에서 그것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고 했다.

“역시 그것들은 자연스러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부려지고 있는 것이구만. 그것도 한 둘이 아닐 것이고. 혹여 섞여있나?”

“그래. 이름이 적어도 수십 아니 수백이 섞여있는 듯하여 정확하게 알겨를이 없어. 그러니,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고. 헌데 그 와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령을 하던 중에 혼백 중 하나가 초아에게 스며 들어갔다.”

“그것을 어찌 이제야 말한 것이야? 대감님께 말씀은 드렸니?”

“물론. 대감님께서는 초아가 완전히 빙의되고 난 뒤에 그들이 자리한 곳을 찾을 거라더만.”

“아니, 그 양반은 초아를 살아있는 혼백의로 쓰려는게구만. 도력도 없고 혼백의 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양반이 참으로 창의적으로 상놈새끼들을 굴리실 줄 아시네.”

“초아도 나도 불만은 없어.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겠지.”

“있을리가 있겠나. 그냥 그렇다고 임마.”

막야의 말에 답하고 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뒤이어 가만히 무언가를 곰곰히 생각하는 듯하던 초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막야, 홍아. 너희들은 살아있는 혼백의를 본 적이 있니?”
“왜? 갑자기 겁이라도 나는가?”
막야가 키득거리며 초아의 얼굴에 바짝대며 놀려댔고, 초아는 막야의 얼굴을 손으로 구기듯이 밀어내며 말했다.
“그럼 안나게 생겼니? 빙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보고서도 하는 소리야? 위아래로 피를 쏟고 머리칼은 헝클어져 예쁘지 않다고.”

“도력을 쓴다는 상것이라도 처녀는 처녀구나. 그렇다한들 너는 평소처럼 어여쁠거다. 이것아. 걱정은 하지마라.”

나는 막야와 초아가 둘이 사이좋게 투닥거리는 것을 가만히 턱을 괴고 지그시 바라보면서 무심한듯 말했다. 그러자 막야와 초아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를 동시에 쏘아보았다.
“더럽다, 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하니?”
초아가 그리 말하자 막야도 내 어깨를 두드리며 덩달아 말을 덧붙였다.
“고맙다, 홍아. 네놈이 방금 내뱉은 말 덕분에 급체하여 저녁 먹은 것을 확인하러 변소에 가봐야겠구나.”
헛구역질을 하며 비웃는 꼴이 아니꼬와서 내가 맞받아쳤다.
“이런 못배운 종놈새끼들은 걱정을 해주어도 지랄이니?”
“하하! 종놈인 것은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 새끼야.”
막야가 빈정거리자 초아도 키득거리면서 막야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싫다. 그리 더럽고 추해질 바야에 죽는게 낫지. 행여 빙의되고 난 뒤에 내 혼백이 사라지려거든 내 육신을 조각내어 태우라.”

덤덤하게 내뱉는 그녀의 말에 막야가 그녀를 비꼬며 이죽거렸다.

“얼씨구, 지랄은.”

막야의 말에 동의하며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제적에 살고 있는게야. 빙의라는 것이 생기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은 탕약도 질 좋은 것들이 많고, 궁에도 실력좋은 의원들이며 도사들이 수두룩하다, 야. 그리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며 기지개를 켰다. 딴짓을 하던 막야와 초아의 시선이 갑자기 내게 쏠렸고, 나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일이 지랄맞게 흘러간들 우리 대감님이 인간이니? 어디 종년주제에 언제까지 대감님 앞에서 자빠져 있을게냐? 흠씬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너를 깨울 것이니, 어여쁜 얼굴이 걱정이 되거들랑 얼른 깨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것아.”

“그 말이 맞다. 대감님이면 몽둥이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후려쳐도 대가리가 쪼개질 것이니 얼른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죽겠구나.”

막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뒤이어 초아도 환하게 웃더니 그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않은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야. 그것 참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이구나. 오히려 주변의 잡귀마저

내 딱한 처지를 보고는 대감님을 말릴수도 있겠다.”
우리는 화덕에 나무떼기를 툭 던지자 흩날리는 불똥 앞에서 모여앉아 도란도란 불씨를 벗삼아 키득거리니 이만큼 달가운 시간이 또 없었다. 둘에게는 어째서인지 대감님께서 말씀하신 궁과 도사들이 분투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시간을 깨기 싫었을까 나는 조금 더 이들과 시덥지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끊일 듯이 끊이지 않았고, 문창살 너머 달길을 슥 훑어보고는 초아와 막야에게 일렀다.
“그만 쉬자. 화전놀이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달아 귀신밟기가 시작될 터이니. 연휴에 일하려면은 푹 쉬어두어야 하겠지.”
그리 말하고는 엉금엉금 일어서서 엉덩이를 털어냈다. 고요함을 깨우지 않으려 우리는 우리 방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다. 초아가 자기 방으로 향해가며 멀어지더니 조금을 걷다 서서 막야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홍아. 나는 초아가 좋다. 그리고 초아에게 털끝하나 건드리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쳐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어찌 들었는지 저 멀리서 초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안다, 잡것아. 말로만 하지말고 제대로 지키거라.”
“능글맞은 년, 귀도 참 밝기도 하지.”
막야가 즐거운듯 얼굴을 붉히며 배실거리는 가운데 내가 말했다.
“나도 안다. 막야. 그리고 나는 대감님이 좋다. 영감님 털끝하나 건드

리는 것이라면 난 누구 목이라도 상관없이 망설이지 않고 칠 것이야.”

그리고 어째서 내 말에 이리도 차가웁게 날이 서려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차 싶어 말을 거두려던 찰나 막야는 걱정말라는 듯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했다. 아마 내가 빙의된 것을 한 지붕 아래에 두는 것이 심히 염려된다는 분위기를 그대로 읽은 듯 했다.

“나도 안다. 이 빌어먹을 종놈아. 네 좋을대로 해라.”

그의 장난기 섞인 말과 미소에 왠지모르게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 연놈들은 다들 하나같이 종것들 주제에 참으로 사려깊다.

나는 분에 넘치게 참으로 좋은 벗을 두었다.

『 경고 』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발전기 돌아가는 진동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지않아 그것이 너무나 거슬려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난하나, 진짜.”

나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얼굴을 쓰러내리며 곁에 있는 탁상 시계를 뜯어내고는 억지로 태엽 여러개를 쑤셔박았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규칙을 찾아가고 있었다. 미처 수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나는 얼굴을 잔뜩 구기며 테이블에 있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었다. 그 때, 문을 벌컥 열고 길버트가 저 멀리부터 시끄럽게 소리지르며 들어왔다.

“에르빈? 에르빈!”

“뭔데? 아침부터 시끄럽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신경 긁지말고 빨리 말해.”

길버트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입을 열었다.

“까칠하구만, 들어보지도 않고. 누르비크가 낙원을 부술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다. 어때, 정신이 들어?”

나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커피잔을 깨질듯이 내려놓고는 안경을 허겁지겁 쓰며 그에게 소리치며 자켓을 걸쳐 입었다.

“좋아! 실험체들은 충분히 소집된거지? 전부 검증된 것들이야?”

그는 대답 대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가자. 월츠 중앙학회에 연락해. 하늘을 비워두라고. 전부 바닥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소름돋네. 비워야 할 곳은 하늘 뿐만이 아니겠지.”

그의 투덜거리던지 말던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늘이지 그 아래에 눈을 둘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낡은 이데아가 아니라 더 드넓고 검은 하늘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선 자들은 진리에 닿은 자들이 될거야.”

내 말을 듣자 길버트가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학이라는 산물을 가지고 신 놀음이라도 하고 싶은거냐?”

“만물이 그것을 우러러보며 무릎 꿇는다면 안될 것도 없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시동이나 걸고 기다려, 챙겨갈 게 있으니까.”

그는 시계를 보며 허겁지겁 밖으로 나갔고 나는 여유로이 여분의 장비까지 챙기고나서 그의 뒤를 따라나섰다. 라센 평원까지 가는 길은 지루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고 오직 쭉 넓게 가로지르는 도로만 보일 뿐이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때문에 졸음이 몰려올 정도였다. 하지만 시연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누르비크가 낙원의 창공을 활보하는데 쓸데없는 시선이나 방해 따위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 못차리고 눈을 찌푸리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던 길버트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눈이라도 잠시 붙이는게 좋겠다. 지금 네 꼴이 영 말도 아니거든.”

“됐어. 일어난 뒤에 무뎌진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시간낭비야. 그것보다 나는 지금 누르비크가 더 높게 날아오르기만을 바랄 뿐이다. 다른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아니, 일단 누르비크의 시연이기는 하지만 이건 엄연히 비즈니스라고.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지의 내노라하는 괴짜들이 그것을 보고 자금을 댈 테니까 말이야. 알겠냐? 다 돈이야 임마.”

“알겠으니까 제발 운전할 때는 앞을 제대로 보라고, 이 멍청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투자자지 구경꾼이 아니라고. 하나만 물면 돼.”

그리고 나는 도착하기 전까지 짧지만 아주 깊은 숙면을 취했다. 그리고 차량의 거친 배기음이 힘없이 쿨럭이며 소리를 죽이자 기다렸다는듯이 일어나 눕힌 의자를 세우고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불협화음으로 못다한 숙면을 다 채운 셈이었다. 좋아. 가자. 차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를 반긴 것은 먼지 바람과 듬성듬성 나 있는 잡초가 전부인 황량한 평야였다. 이곳에서 시연을 했던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일이었다. 시연은 성공적이었지만 사업방향성이 달랐다는 이유로 씁쓸한 실패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렇게 잠든 작품들을 보내야 할 때마다 가슴한켠이 미어졌다. 과학의 이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우매한 것들이 그저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려는 개돼지들을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역겨

운 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새끼들. 조용히 시연 장소에 다다르자 길버트는 나를 조심스레 달랬다.

“에르빈? 에르빈!”

“다 들리니까 한번만 부르라고.”

“그럼 대답을 좀 하라고. 어쨌든 웃어라 좀. 악수는 간신히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문제 없겠고, 또….”

그는 불안한 듯한 시선으로 손가락을 이곳저곳 가리키면서 중얼댔다.

“알겠으니까 좀 닥쳐. 이번에 내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것도 아니고 일종의 경고가 될 거야. 군말없이 흘러갈 테니까 보기나 하라고.”

길버트의 우려와는 다르게 나는 시연의 첫 단추를 무난히 끼웠다. 웃음과 악수, 가식적인 끄덕임과 가벼운 터치. 잔을 들고 있는 자세. 신경을 쓸데없는 곳에 집중하느라 기력을 소진해버린 탓인지 얼마 지나지않아 나는 고삐가 풀린 듯 테이블에 올라가 식순을 무시한채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다.

“아아, 들리십니까?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 돈다발들아.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할테니 두눈 똑바로 뜨고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길버트가 내 옆에서 한숨을 쉬고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파티가 아니라 시연이겠지, 이 얼간아. 기대도 안했다.”

웅성거리는 군중들 사이에서 내심 나의 돌발적인 태도를 기대라도 한건

지 휘파람을 불어대거나 박수를 건네는 것들도 적잖이 있었다. 나는 자켓에서 단말기를 꺼내어 스위치를 눌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끌고온 차량의 트레일러가 폭발하듯이 열리며 튕겨져 사방으로 튀었다. 안에는 우리가 준비해둔 돌연변이 몇 체가 이빨을 드러내고 타액을 내뱉으며 절규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금방이라도 철창을 부술듯이 날뛰었고 그것에 놀란 이들은 혼란에 빠졌다.

“자, 손님이 모두 모였으니 그럼 시작해볼까?”

내가 마이크를 던지고 다른 스위치를 열자 준비해둔 트레일러가 열리면서 우리가 밤낮으로 준비했던 누르비크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뚫고 나가려는 듯 으르렁대고 있었다. 목에 두르고 있던 신호기와 소음 차단기를 쓴 뒤에 광자단경을 내렸다. 나는 다른 이들이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조차 기다리지 않은채 웃으며 바로 스위치를 누르자 누르비크는 미친듯이 지저귀다가 유압 지지대를 눈깜짝할 새에 튕겨나가 대기권을 벗어나 점멸하는 빛을 머금으며 마음껏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함성소리와 박수소리가 터져나오자 나는 그들이 들리지 않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아직이야, 쇼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미친듯이 날아가던 누르비크는 파티 폭죽처럼 예쁘게 수십갈래로 쪼개어져 하늘을 새하얗게 수놓았다. 한참을 내려앉는 동안에도 그것의 불

길은 꺼지지 않았다. 군중들은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반응이었다. 불길은 한참을 타오르며 땅에 닿았다. 그리고 고요한 적막만이 감돌았다. 웅성거리는 군중들 사이로 부정적인 말이 돋아나고 있었다. 성격도 급하셔라. 나는 지휘하듯 손을 흔들거리며 다시금 트리거를 여러번 당겼다. 그러자 저 멀리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어났다. 폭발이 아니라 충격파라고 하는 편이 이해시키기 편하겠지.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실망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휘몰아치는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듯 우수수 낙엽처럼 쓰러졌다. 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위에서 뿌듯하게 내려다 보았다. 순식간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의 폭풍을 온 몸으로 느끼고 난 뒤에야 누르비크의 폭풍은 마침내 잠잠해졌다.

“짜잔.”

내가 끝이라는 신호를 하자 다들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자 짜증이 솟구쳤다.

“…하아, 이 병신들이 진짜.”

내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깊게 쉬고는 돌연변이가 있던 철창을 손짓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다다랐다. 그 곳에 남아있는 것은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구체로 응집된 고깃덩어리와 낭자한 피 뿐

이었다. 여전히 말귀를 못알아듣는 짐승들의 어리석음을 애써 참으며 조용히 연설을 이어나갔다.

“당신들은 방금 누르비크의 공진 파형의 일치로 비명하는 파괴와 심판을 목도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알 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탐구하는 과학이라는 기적은 살아야 할 것들과 죽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고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없이 고요하자 나는 짧은 한숨과 함께 정적을 깨고 말했다.

“잘 들으세요. 뭔가 이해가 안가나본데 철창 안에 있는 것과 철창 밖에 있던 것을 가려내어 죽이는 방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선별하여 심판하는 것은 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시대에 기도를 하고 싶은 곳에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과학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세요.”

그러자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단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기도하는 것들도 있었으며 다른 측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했다. 뭐 어느쪽이든 상관없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주워들고 고개를 숙인채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것으로 시연이자 경고를 마칩니다. 그럼 좋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들 살펴가쇼. 이 새끼들아.”

아래에서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트럭에 올라선 길버트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내게 말했다.

"이번에도 화끈하게도 해주셨구만."

"저들이 원하는 것은 쇼지. 시연이 아니야.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판은 커지니 더욱 좋은 건 너도 잘 알거 아냐?"

누르비크는 이데아를 떠날만큼의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그에게 추가한 충격파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에도 성공했다. 무기로써의 거래는 다른 업체도 많기에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낙원을 저버릴만큼의 충분한 힘과 가능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우리는 차근히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신제품 시연을 뭐라고 생각하는거냐 임마. 그래도 자리해준 이들에게 정확한 설명이나 예고는 해줘야 될거 아냐."

"아까 설명했잖아. 쇼라고. 그리고 방금은 경고였고."

"대체 누구를 향해 그렇게 경고하고 싶은건데?"

"사고를 멈추어버린 퇴화해버린 것들에게 말이지."

길버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로 내게 물었다.

"그것들에게 경고를 해서 네가 얻는 건 뭔데?"

"자아도취와 우월감."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보며 답했다. 내 말을 듣고 그가 놀라더니 포기하듯 고개를 저으며 조소를 보냈다.

“내가 졌다. 더럽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분석하고 있구만. 뭐, 걱정할 건 없겠네. 평소의 너다워서 역겹고 또 건방진 꼬맹이잖아.”

나는 그가 뭐라 비꼬든 신경쓰지 않고 내 할말을 이어갔다.

“더 이상 발전할거리가 없다고 여기는 존재들 사이에서 그 만큼 달콤한 것이 또 없더라. 그정도 동기면 충분하지 않나?”

“얼씨구 잘나셨네요. 뭐 얼른 돌아가서 누르비크나 손 좀 더 봐야지. 낙원을 뒤바꾸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니까.”

길버트도 누르비크의 도약이 마음에 들어 들뜬게 눈에 보일 정도로 신나하고 있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알기 쉽다. 연구소에 들어가면 모두와 함께 시연하는동안 얼빠져있던 투자자들의 쌍판떼기를 안주삼아 축하주나 한잔 걸쳐야겠다.

『 불쾌한 동거 』

“구역 D…. 그리고 Z열…. 317번째 실험체 두 구…. 이건가?”

해부학 실습을 위해 나는 서류에 적혀있는 실험체를 선별했다. 그리고 동행한 실습생들이 버킷을 활짝 열자 소름끼치는 철제 마찰음과 함께 실험체 두 구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망설임없이 들것에 들쳐 옮겼다. 아직도 살아있는 듯 기괴하게 꿈틀대며 움직이는 실험체를 한쪽 무릎을 꿇은채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먼지를 쓸어내듯 검지로 그것에 손을 대어 쓸어보았다. 처리가 잘 되어있던 탓인지 손에 묻어나온 기형의 유기체는 살아있는 듯 방호장갑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중얼거렸다.

“미치겠네. 이건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지? 아니 이걸 살아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애초에 안 죽은거 아냐 이거?”

이 변이된 실험체를 생명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경이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하면 이건 죽을까? 아니 애초에 죽지 않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그것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원생 하나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고요를 깼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보관소를 나왔고 저 멀리서 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두커니 있다가 안경을 살짝 올리며 내게 고갯짓하고는 입을 뗐다.

“늦는군. DZ317 두 구 맞나?”

“응, 맞는데. 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들뜬거야?”

“그런가? 일단 가지. 이번 해부는 조금 길거야.”

나는 그의 경직된 태도가 의아했지만 그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물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네가 보관소에 있는동안 나도 구두로만 전파받은 사항이라 아는건 여기까지야. 일단은 보는 눈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건, 그래. 꽤나 갑작스럽군.”

그는 어깨를 으쓱해보일 뿐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실험체 두 구를 이끄는 실습생 몇몇과 함께 가장 큰 해부 및 검시실로 향하였다. 바퀴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복도를 울렸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큰 해부실에 도착했고 해부실 위로 거대한 유리창 너머에 분주함이 여기까지 느껴졌다.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할 일을 기계처럼 수행하기 시작했다. 시체를 해부하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딛히며 내는 소리가 더이상 나를 자극하지 않는 것을 보아하니 어느샌가 나도 이런 풍경에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그 기괴한 소리나 감촉이 무섭진 않지만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무뎌져가는 것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의료집중국에 몸을 담은지 너무 오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순간 만감이

교차하며 내적인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신기하게도 생겨먹었네, 저주받은 것들은.”
“이젠 하다하다 이것들 안에 뭐가 있는 것까지 알아야 하나….”
내 곁에서 해부를 거들던 실습생들은 저들끼리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시체를 조각내며 신나게 조잘거렸다.
“뮐러. 너 코피.”
닉이 돌연변이 2체에 온 감각을 쏟아부으면서도 나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실험체의 신경조각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며 말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새삼 이놈은 대단하다고 느꼈다.

“뭐냐 이거. 안 멈추는데 감염된건가?”

내가 장갑을 짜증스럽게 벗어 던지고 휴지로 연신 코피를 닦으며 농담반 진담반이 섞인투로 말했다.
“재수없는 소리하지 말고 씻고 오던가 해라. 원생들을 기겁하게 만들어서 이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는 메스로 나와 실습생들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다. 여전히 그의 시선은 여전히 실험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 그래야겠지. 그럼 뭐 대충 마무리 좀 부탁할게. 그리고 해부결과랑 세부평가도 대충 알아서 해줘.”
그는 메스를 든 손으로 손사래짓을 했다. 영 살갑지 못한 놈이다. 나는

나가기 전에 문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살균 소독제와 거즈 한다발을 신경질적으로 뽑아내며 실습실을 나왔다. 여전히 스멀스멀 피가 쏟아지면서 거즈로 배어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하여 얼른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보고 나는 실소를 지었다. 검붉은 백색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거즈를 떼어내자 찐득하게 검붉은 핏덩이가 함께 딸려나왔다.

“이거야 원 엉망진창이구만.”

나는 핏덩이 진득하게 들러붙은 거즈 한움큼을 얼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얼른 세수를 하여 엄망이 된 얼굴을 씻어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여 나는 셔츠를 풀고 주머니에 예비로 마련해둔 소독주사와 함게 응고제를 팔뚝에 쑤셔박았다. 잠시 뒤 핑 도는 현기증과 이명이 함께 찾아왔다. 몸은 급속도로 나른해졌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와 아무데나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달콤한 꿈을 꾸는 듯했다.

“얼마나 지난거지?”

느닷없는 목소리에 나는 얼굴을 구기며 눈을 떴다. 닉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모르겠다 소독주사 투여 후 10분 정도 지났나?”

내 대답을 듣자 그의 미간이 구겨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자 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많이도 쏟았네, 이게 다 내 피라니.”

지금은 다행이 피는 멎었지만 10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내 주위로 흥건하게 핏빛 웅덩이가 생길정도로 출혈이 있었다. 닉은 여전히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질환도 없는 인간이 그 짧은 시간동안 이만큼의 피를 쏟았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라파르의 의사가 아니라도 알겠다.”

“거 봐. 내가 감염되었다고 했잖아.”

“재수없는 소리하지 말라니까.”

“감염은 된거고 이제 내 몸뚱이를 갉아먹는 게 뭔지 알아갈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래, 행여 표본이 되거든 내가 남김없이 떼어내어 파헤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것 참 위로가 되는구만.”

닉은 턱에 손을 대곤 나를 위아래로 연신 쓸어보고는 내게 말했다.

“꼴을 보아하니 다음엔 네놈이 해부대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최근 중앙협회에서 다마르강 습지에서 샤토윰과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변이체들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의도를 모르겠나?”

“그래서였나?”

“그래,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을 숙주로한 샘플이지.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나?”

“도덕적 이유?”

“순진하군. 유전적 변화의 적합성을 찾지 못한 것 뿐이야.”

“…적합한 인자를 지닌 것은 나겠고. 그래서 나한테 숨겨왔던 거였구만 쟈토움의 종양을 해부할 때마다.”

“그래.”

“감염경로는?”

“어떠한 방식이로든 가능하다. 유전자적 형태만 맞는다면야.”

“신기하네. 그게 가능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네 몸뚱아리에게 물어보지 그래?”

내가 이마를 치며 웃자 그도 내심 안심한 듯 미소를 보였다. 아무래도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았나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네 몸뚱이와 기생하는 것이 인지 부조화의 반복에 놓여있는 동안 의료집중국 머리로부터 피험체 개체유전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 몸뚱이에 대해서 아는 건?”

“네 몸뚱이에 기생하는 동거인을 포함해서 너와 나 뿐이라는거지.”

“한결 낫구만. 해부대 위에 올라가는 건 유쾌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그

래서 나를 실험체로 사용한 대가로 의료집중국에서 뭘 주던가?”

“널 팔아먹은 시점에서 이미 나는 미끼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되었는지 외곽의 병원으로 파견될거다. 조만간 너도 마찬가지겠지. 대외비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용히 사망처리도 될 수도 있고 말이야.”

“새삼스럽게.”

살벌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우리는 한참을 낄낄거렸고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답답한지 한 홉을 길게 마시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연기를 토해냈다.

“그럴싸하게 숨겼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거다. 지금 상황에서 너는 의료집중국은 물론 라파르의 테두리 안에있는 만큼은 최고의 먹잇감이니까. 사실 나도 널 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거든.”

그리고는 그는 잠시 망설이고는 짧게 남은 담배를 털면서 말했다.

“…허튼 생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중앙의료본부를 우습게 보지마.”

“애초에 그렇게 안봤는데 갑자기 왜 지랄이야.”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더니 내게 실습 평가 자료 다발을 건네고는 아무말없이 기숙사로 돌아갔다.

“왜 저래.”

나는 홀로 남아 마지막남은 담배를 다 태우고 피 웅덩이에 비벼껐다.

그리고 청소부에게 연락해서 주변에 내가 쏟아낸 핏덩어리 정리를 부탁

했다. 또 다시 몰아치는 피로감에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펴고 내 기숙사로 들어갔다. 가운을 대충 벗어 던지고 침대에 몸을 던진다. 한참을 쉬고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조금씩 내 몸의 변화 혹은 이질감에 귀를 귀울였다. 온 신경을 집중한 탓인지 온 몸의 고동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심박수가 빨라졌나. 수도꼭지를 덜 잠갔나? 무슨 소리야.”

그리고 뒤이어 이명이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그 간격을 다시 쟀다.
“그리고 출혈.”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나 했지만 이번에는 귀에서 피가 나왔다.
“어디든 상관없이 쏟아지는건가. 그래! 코피에 이어서 이번엔 귀. 주기는 두어시간 정돈가 일단은. 응, 그래. 천천히 알아보지 뭐.”
그렇게 나는 즐거이 내 몸 안에 자라나는 것을 시간대별로 발생하는 변화를 꼼꼼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닉이 무슨 말을 하려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중앙학회에서 쟈토움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기생충과의 대화를 끝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일종의 연구 투자 유치의 금맥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인 셈이었다. 해야할 일이 더욱 명확해지자 왠지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내 처지와 입지를 깨닫게 되자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고 이용당해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닉과는 달랐다.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따스한 마음을 지닌 그가 진짜 의사다. 나는 그저 생명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꿈틀대고 변화하는 그 과정을 즐기는 미친놈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미친사람처럼 낄낄대며 화장실에 미끄러지듯이 쭈그려 앉고 내 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나도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었다.

『 전승과 계승 』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계승자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곤 한다. 계승자는 다른이의 뜻을 이어받아 그 명맥을 유지하는 자이지 누군가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우매하고 딱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니, 그것들마저 포용하고 어리석은 이들까지도 구해내는 것이야말로 지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만하는 책무이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가슴에 새겨온 것들을 되뇌이던 찰나, 무수하게 흩날리는 바윗덩이들은 서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들의 고동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림에 화답하듯 대계승자가 바위의 고동을 손으로 헤치며 그 틈바구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토루샤.”

나는 계승되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입에 올리며 무릎을 꿇었다. 토루샤라는 이름을 위해 짊어지던 옛 이름을 버리는 그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햇병아리에 지나지 않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나는 텅 빈 심장에 손을 얹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으로 예를 표했다. 계승자 토루샤께서 부드럽게 손짓하며 흩날리는 바위 그리고 대지의 고동을 잠재우며 낮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즈레스의 용맹스러운 계승자여.”

“아직 젖내나는 어린 짐승에게 용맹이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너무 그대 스스로를 낮추지 말라. 이미 그대가 나즈레스의 역사를 쓰는것과 동시에 흐르는 세월인 하쉬녹으로 충분한 주춧돌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니 그 누가 감히 그대를 어디 들판의 짐승과 비교할쏘냐? 그대는 세트의 명맥을 잇는 그의 후예이자 다음 토루샤의 이름을 이을 충분한 재목이로다.”

낮게 깔리는 계승자 토루샤의 말씀에는 바위같은 무게가 있었고, 힘이 있었으며, 그리고 왠지 모를 따스함이 스며들어왔다. 그것은 깊은 사원에 가늘게 내리쬐는 빛 때문이 아니었다. 그 빛을 흩날리는 바위를 펼치며 그는 낮게 신음하였다.

“만들어진 빛은 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분명 아벨의 종자들의 미련스러운 믿음이 만들어낸 허황된 빛일테지. 허나 섬기는 것들은 무릇 어느것에 기대지 않으면 안되니, 그저 그 빛을 역사에 쓰며 그들의 과오를 양분삼아 부리기 좋게 길들이면 그만인 것이다.”

그리 말하면서도 토루샤께서는 감히 아벨의 종자를 낮추어보지 않으셨다. 주관적인 관점이 투영되는 시점부터 쓰여진 역사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다만 내게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그는 왠지 즐거워 보였다. 그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저 지금은 저들이 그리 하게 두는 것도 나쁠 것은 없지. 섣부른 자

는 몸을 먼저 움직이고 현자는 무릇 때를 기다리는 법이렷다. 그러하니 그대도 비틀린 빛의 시간을 억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하지 말고 이를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눈에 담으며 기다리라. 흩날리는 바위처럼 차갑게 흐르거라."

토루샤의 말은 그가 오랜 세월을 숨쉬며 축적해온 지혜이기에 절대적이지만 나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음을 던졌다.

"뒤틀린 빛을 만드는 것은 그릇된 역사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것을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내가 그리 말하고도 내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토루샤의 별채에서 나눈 대화이기에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기민한 정신으로 연결된 그것으로 나의 무례함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것보다 지금 당장 그의 흐르는 바위에 짓뭉개져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했으나 고고한 대계승자는 여전히 인자한 표정으로 내가 당황해하는 기색을 인지하였는지 우아한 손짓을 한번하더니 순식간에 나의 고동을 잠재웠다.

"젊고 기개가 넘치며 불의를 참지 못한다. 나의 뒤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그대가 앞으로 그대의 뚫린 심장 속에 채워야 할 것은 무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의 시간이 새기는 역사이다."

"하지만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것에만 시간을 쏟는동안에도 아벨의 눈먼 종자들은 물론이요, 그늘 속에서 피를 마시는 것들도 저들만

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참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 나즈레스. 역사를 쓰는 자이자. 만물의 위에 서서 지배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 지배의 형태는 그저 무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울 수 없이 선명하게 새겨진 이 땅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안심했다. 정돈된 그의 말에 해이해진 나즈레스의 믿음은 비온 뒤 땅이 굳는 것과도 같이 다시금 단단해졌음을 내 텅 빈 심장에 오롯이 새길 수 있었다.

“행여라도 의심했는가? 어린 계승자여.”

그가 나를 꿰뚫어보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물음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밖에 나온 낮은 음성에 별채의 대지가 응답했고 그 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울리고 있었다. 대지의 깊은 고동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텅 비어 있는 내 가슴에서 울리는 그 작은 울림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사고하는 것까지 말이다.

그 울림을 숨기는 것은 말도 안될 뿐더러 더구나 지금 나는 나즈레스의 역사를 이어온 대계승자 토루샤의 별채에서 그와 마주하고 있으니 어설프게 거짓을 고하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테니 나는 짧게 숨을 내뱉으며 그에게 고하였다.

“네, 그 동안의 안이함으로 나즈레스의 이름이 바래지는것이 두려웠기

에 감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첫 한마디를 내뱉은 것이 이리도 힘들었지만 그 뒤로는 망설임없이 내가 그동안 느껴온 것을 어금니까지 드러내며 말했다.

“세트의 후예가 영원의 전쟁 가운데 여섯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조차 굳은 대지같지 않아 한데 뭉쳐지지 못하고 저들만의 방식으로 대지를 그리고 그 대지에 새긴 역사를 쓰려하온데 우리 나즈레스는 어두컴컴한 신전 안에서 빛나는 돌에 광기만을 잠재운채 잠들어 있는 그 모습에 안달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기를 억지로 숨긴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

그가 한참을 생각하고는 내게 말했다.

“그대 텅 빈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데아에 남겨진 다른 세트의 후예도 그러하느냐?”

“아닙니다.”

“옳다.”

“무엇을 고하려 하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세트의 마지막 심장의 고동이 돌이 된채 멈추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을 새겨놓은 흔적을 보았는가?”

나는 곰곰히 되뇌이다 그가 남긴 역사를 멈춤없이 읊조리기 시작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심장을 터뜨릴 듯한 무거운 죄책감을 가슴으로 느껴보라 뿌린 그것이 대지에 내려앉으니, 모든 것은 죽거나 뒤틀린 모습을 하게된다. 그들도 해내지 못했던 것이온데 자식을 사지로 몰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만 내 심장을 내어주어도 내 후예들에게 만큼은 느끼게 하지 않으렸다.”

“분명 그리 말씀하셨다지.”

그는 회상하듯 눈을 감고 한참을 그 말을 중얼거린 뒤에 내게 말했다.

“조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려 한다. 본디 그 텅 빈 가슴이 세트가 기록한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정녕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더이상 물음하지 않으렵니다.”

그는 새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대의 가슴이 텅 비어있다 했는가?”

“네, 분명 그리 답하였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뚫려버린 가슴에는 그대가 오랜 시간동안 보고 듣고 느낀 역사로 채워온 것으로 가득하다.”

그가 텅빈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였지만 나는 대계승자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섣불리 말을 잇지 않고 일단 가만히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때를 기다리는 것과 방관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해

야할 일이 명확할진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릇된 역사의 시작에 기여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

대계승자 토루샤는 수염을 매만지고 고민하는 듯하더니 내게 말했다.

“말이 길어졌군, 어린 계승자여. 나는 그대가 나즈레스가 옳은 역사를 쓰는데 적합한 인재라고 여기었기 때문에 몇가지를 묻고자 했는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 진위에 물음을 갖는 그 태도를 보아하니 그대를 시험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지. 물론 뒤에 나누던 이야기도 즐겁기 그지없었다네. 늙은 늑대의 여가로는 충분했으니 말이오.”

나는 내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 얼이 빠져있는 얼간이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리라 의심치 않았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세나. 그대는 키욜이 우리가 선 이 곳 아브 게르에만 있다고 여겨지는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가운데 이데아 전역에 흩어져있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돌을 전부 이곳에 모아왔을리는 없겠지요. 더구나, 그는 이성을 잃고 온 이데아를 누비며 상처를 입히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나즈레스의 무거움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토루샤가 내리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내

게 내린 명령보다 내가 단단히 쌓아올린 신념에 대한 첫발이기도 하다. 나는 나즈레스가 쌓은 주춧돌을 발판삼아 지배의 자리에 서게될 존재이며 그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것이다. 분명 토루샤께서는 분명 수많은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을 시험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계승자 토루샤의 이름은 잚어지는 것은 나다.
그렇게 한참을 스스로 상념에 젖고 난 뒤에 나는 일어나 토루샤의 눈을 뚫어질 듯이 노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보여 드리리다. 다른이의 발판이 아니라 다른이를 발판삼고 일어나 세트의 후예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위에 선 역사에 이례없는 대계승자 토루샤의 시발점을 그 눈에 담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시오.”
그 순간에 나의 태도가 일변했다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었다. 토루샤가 고요히 울리는 대지의 격동마저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 앞에 선 나의 모습에는 어느새 자신감이 넘쳐흘렀으며 고양감에 들떠 있었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애써 억눌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토루샤도 만족스러웠는지 낮게 웃으니 지축이 가벼이 요동쳤다.

“좋소. 그렇다면 즐거이 기다리겠소, 어린 계승자여.”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고개를 살짝 낮추어 내게 존경을 표하자 나는 놀라 허리를 굽혀 더욱 자세를 낮추며 전승자 토루샤에게 답하였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토루샤의 별채를 뒤로했다. 그의 별채를 나와 나는

비로소 자격이 갖추어졌음에 만족했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여야겠지. 더욱 선명한 역사를 남기고 그 역사의 발판 위에서 지배하기 위해서 나는 남겨진 키욜의 희미한 빛을 좇을 것이다.

『 근본적인 기술 』

“일어나, 로우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의 귀를 간지럽혔다. 나는 반쯤 감긴 눈을 게슴츠레 뜨고 두리번거리다 다시금 무거운 눈꺼풀을 덮었다.

“…졸려.”

내가 여전히 누워서 꼼지락대자 언니는 나를 간지럽히며 나를 다시 깨웠고 나는 한참을 자지러지듯 웃고는 밍기적대며 일어났다. 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다.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깨우는거야?”

그녀는 놀란듯 눈을 크게 뜨며 내게 되물었다.

“바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러는거야?”

나는 그녀의 호들갑에도 감긴 눈으로 꿈을 꾸듯 중얼거렸다.

“벤주 열매 양조가 끝나는 날이던가? 빨리 마셔보고 싶다.”

“응, 맞아. 작년에는 따사로운 태양 덕분에 더욱 향이 깊었었지.”

그녀는 내 말에 맞장구를 치더니 고개를 가로젓고 다시 내게 말했다.

“아니, 이게 아니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단말이지. 아벨의 자손과 접선을 위한 사절단을 모집한다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구.”

“아아, 그랬었지. 참! 그래서 언니는 자원할거야?”

“아니, 나는 로우아 너만큼 레브의 깊은 골에 닿을 수 없거든.”

나는 눈이 감겨있는 와중에도 미간을 구기며 그녀에게 말했다.
“음…. 그런데도 나를 잡아 깨운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그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가를 가렸다.
“맞아! 내가 너를 추천했거든!”
“으악, 귀찮아!”
내가 풀썩 드러누우며 말하자 그녀는 내 반응이 예상밖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대며 웃어댔다.

“너만큼 깊게 닿을 수는 없지만 나도 밀라모르의 목소리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 내가 추천해줬더니 시험해볼 필요도 없이 바로 사절단에 이름이 올라가더라고.”

그제서야 나는 게슴츠레 눈을 뜨며 천천히 일어나서 그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잠결인데다 목소리까지 잠겨 울먹이는 모양새가 되었다.
“왜 그런짓을 한거야?”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입을 비죽 내밀고있는 내 뺨을 가벼이 쓸어올리더니 온화한 표정으로 내 부스스한 머리를 어루만져주고는 말했다.
“로우아는 공감과 교감이 깊을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착한 아이니까 밀라모르의 목소리를 통해 듣지 못하는 우매한 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겠지?”
그녀의 따듯한 말에 나는 목이 막힌듯 어물거리다 한숨을 쉬고 이마를

부여잡고 뿌듯한 표정을 짓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거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네. 귀찮아도 어쩔 수 없지. 나는 착한 아이니까.”
그녀가 배를 잡고 웃더니 내게 물었다.
“너무 다루기 쉬운거 아니야?”
“음, 그것도 맞는 말이네.”
“…너는 볼수록 참 신기한 아이야.”
그녀는 내 코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면서 내게 말했다. 나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얼굴을 슬쩍 내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밀라모르의 목소리가 가진 것은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과 더불어 설득과 논리를 곁들여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근본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너처럼 뱃속을 끄집어내듯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듯한 솔직함이라는 것은 없거든.”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내 귀를 어루만지거나 볼을 늘어뜨리고 입을 열어 보이면서 말하던 그녀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내 배꼽을 손가락으로 간지럽히자 나는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한참을 투닥거리다가 내가 물었다.
“그런데 공감과 교감이라는 것이 솔직함없이 가능한거야?”
“당연한 것 아니야? 그게 밀라모르의 외교이기도 하고.”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흠, 그게 네 의식이 깊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솔직함을 품고 공감의 깊은 의식 속에 빠져들었냐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설명하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손을 활짝 펼쳐보이며 곤란해하자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즐거워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입을 비죽거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못됐어.”

“미안, 놀리려고 하던건 아닌데…. 음, 사실 놀리려고 한게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언니는 결국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심술이 나서 소리쳤다.

“아빠!”

내가 소리치자 언니는 내 입을 막으며 미안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알았어!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네가 유능한 사절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 알지?”

그녀의 능글맞은 몸짓에 나는 다시금 미간을 부여잡고 고개를 가로저었고 언니는 생긱발랄하게 우당탕거리는 소리를내며 내 방에서 나갔다. 밖에선 아빠가 뛰지 말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러운 아침 풍경이었다. 나는 방을 나와 여전히 부스

스한 차림으로 내려와 식탁에 앉았다. 잠결에 어떻게 식사를 마쳤는지 식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나는 대충 인사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 따사로운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가리었다. 여전히 벤주 열매가 깊게 숙성 될 정도로 포근하게 감싸 안는듯한 빛깔이었다. 잎새 사이로 흩뿌려지며 춤추는 금빛의 물결이 대지를 적시었고 그 물결과 함께 풍기는 달콤한 열매의 향이 정신을 맑게 했다.

“어? 너도냐?”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한바자국 앞으로 내딛으려 할때쯤 익숙한 목소리가 내게 흘러 들어왔다.

“오디온?”

언제나 늑장을 부리던 그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한 발걸음을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너도 아벨의 자손과 접선을 위해 사절단에 지원하려는 거야?”

오디온이 내게 묻자 나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그의 물음에 답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사절단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미 이 몸께서는 입단신청이 완료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

그 말을 들은 그는 놀라울 것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홱 돌려버리며 계속 제 갈 길을 걸어갔고 나는 재빨리 그의 곁에 붙어 발걸음의 소리를 맞추며 걸었고 한참을 걷다 그가 말을 꺼냈다.

“그렇게나 잘나신 로우아님께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절단에 지원하려는 걸까?”

“너도 알다시피 난 친구가 별로 없잖아. 뭐 사절단에 들어가 이 참에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친구나 사귈까 하고.”

“그것 참 너다운 이유라서 놀랍지도 않지만 너 정말 밀라모르의 사절단을 개무시하고 있구나.”

“개무시라니?”

“공감의 땅 엘레노스에서 조화로이 지내는 밀라모르가 굳이 사절단까지 꾸려가며 다른 이들과 조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음…. 정치? 외교? 교류?”

“지배.”

“그건 공감하는 자들이 할만한 일이 아니잖아?”

“너는 여기서 레브를 깨우치며 정말 배운게 하나도 없구나.”

“공감은 거짓과 작당을 모의하며 테이블 위에서 정치놀음이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서로 마음을 내보이면서 얻는거지.”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것을 쏟아내자 그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내 가슴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내게 물었다.

“네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정말 세트의 후예의 것이 맞는거야? 지배

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술중에서 어째서 솔직함을 최대한 배제하라 했는지 모르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야. 꿈 같은 소리좀 그만해.”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배워온 것들이었다.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그린 꿈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
내가 시무룩해하며 그의 말에 동의하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짧은 침묵이 뒤따르자 그는 곤란한 듯이 머리를 박박 긁어대며 내게 말했다.

“적어도 네가 그린 모습대로만 된다면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섞은 모든 이들이 만족하며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냐?”

그의 한마디에 나는 다시 얼굴을 활짝펴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자 그는 얼굴을 구긴채로 빈정댔다.
“이것 참 다루기 쉽구만, 너는.”
“응, 나도 알아. 그 말을 몇번을 듣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지.”
그렇게 한참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피우며 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절단 지원 모집의 집결지 호의의 고개‘유르핀’에 다다르게 된다. 도착하자마자 어째서인지 나는 조심스레 눈짓으로 그 수를 헤아렸고 스물 하고도 아홉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밀라모르를 제외한 낙원의 흔적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말은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구성원은 단 한명이라는 뜻이고 한명씩 뿔뿔이 흩어져 이데아에 남겨진 모든 흔적들과 접선을 해야한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론 다른 이들과 조우하며 교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이렇게나 본격적으로 모든 이들과 자리를 갖으려는 점은 분명히 달랐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시선을 앞으로 고정한채로 오디온에게 말했다.
“이건 지원이나 모집이 아니라 선별된 인원들의 집회나 다름없는데 그럼 도대체 왜 모집이라고 한 이유가 뭐지?”
“몰랐어?”
“오디온, 너는 알고 있었어?”

“사절단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다르다고 말했잖아.”

오디온은 냉정해 보였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유르핀 고개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이들 사이에 숨이 막히도록 짙게 깔려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절단에 임한 것은 오직 나 뿐이었다. 하지만 중책을 맡게된 시점부터 대충 할 마음도 없다. 별나지만서도 나도 일단은 밀라모르의 목소리니까 그저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유르핀 고개에서 사절단 파견을 수립한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레브를 끌어내어 서로의 의식을 섞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더 길었고 대화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다들 용무를 마치고 난 뒤에도 삼삼오오 모

여 화목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때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눈에 담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르지 않은 익숙한 풍경에 안심했다.

“이르메스로 가는건가? 대단하네.”

“그러는 너는 상투스로 향하잖아.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냐?”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에 오디온이 잠시 주춤하고는 말했다.

“상투스는 비교적 자유롭지. 저들이 믿는 아벨을 찬양하기 때문에서라도 이웃과 소통하며 정이 있는 따스한 품 같다면 네가 향하는 이르메스는 더욱 차가웁다고 들었다. 외지인을 경계하는 다소 억압된 분위기 속에 있는 우울한 회색의 도시라는 평이 자자하던데?”

“잿빛 회색의 도시에서도 공감의 꽃은 피는 법이야.”

내가 당당히 말하자 여전히 오디온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잠시 망설이던 오디온은 짧은 한마디와 함께 등을 돌리고는 멀어졌다.

“또 보자.”

“…그래.”

『 어머니 대자연이 낳지 않은 것 』

녹음이 우거진 거대한 숲을 햇살이 억지로 비집고 들어와 대지를 비추었다. 햇살에 반사되어 흐르는 물줄기는 아름다운 빛을 쏟아내며 흩어졌고 대지의 생명은 햇살을 받으며 안락한 시간에 취해있었다. 다만 그 따사로운 햇살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대자연이 만들어낸 햇살이 아니라 그것은 뒤틀린 것이 만들어낸 따사로움에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누가 따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때마침 또 다른 정령의 무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잎사귀의 마찰음과 동시에 나뭇가지가 찢겨지는 듯한 울림을 내며 나의 영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역시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군?”

그의 낮은 울림이 숲속을 뒤흔들었고 이내 나의 귀에 닿았다.

“이 뒤틀린 빛을 바라는 이들이 그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하긴 그렇지. 그럼 수고하게나.”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가?”

“우리 돌룬 껍질은 대지에 흩뿌려진 불쾌한 햇살을 빚어내는 것들의 처분에 대해 나랏두실 정령목의 정원에 모여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네. 아마 우리 말고도 수많은 정령들이 그자리에 함께할걸세.”

“아아, 그런가?”

내가 그저 멍하니 얼굴을 구긴채로 햇살을 노려보고 있음에 그는 의아해하며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그대는 함께하지 않는가?”

“걱정마시오, 나는 기얄록의 눈이 가진 방식대로 정리할테니.”

“아아, 기얄록의 정령이오? 돌륜껍질의 파사도르, 만나서 영광이외다. 함께 했으면 큰 보탬이 됐으련만. 허나, 함께하지 않는다한들 그대들의 방식을 오랜동안 존중해 왔다오.”

적갈색의 수염뿌리가 길게 돋아있는 연장자가 고개를 낮추며 고개를 숙이니 나 역시 깊게 뿌리내린 한쪽 발을 뽑아 들고는 허리를 굽히었다.

“이쪽이야말로. 나랏두실의 정령목을 향하는 용맹스런 그대에게 어머니 대자연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오.”

“바아크락투나! 그대도 부디 몸조심하게. 이 빛은 꽤나 불쾌하니.”

서로 안면이 없었지만 바아메트의 전령임을 알기에 대자연을 수호하는 것에 예를 표하며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랏두실의 대정령까지 뿌리를 뽑고 나선다는 것은 아벨의 자손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억지로 비틀어낸 햇살을 빚어낸 상투스에게 대외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내가 나랏두실의 정령목으로 향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기얄록의 눈은 언제나 더욱 깊게 그 너머의 것들을 주시한다.

“불쾌하다마다.”

나는 연로한 정령의 마지막 말을 연신 곱씹으며 다시 그 빛을 마주했다. 어머니 대자연이 낳지 않은 이 따스한 햇살은 대지를 덥히고 많은 생명이 움트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보듬지 못한다. 이를테면 눅눅한 습지에 자리한 포자들이나 어둠 속에 자리한 것들의 눈과 살갗을 태울테니 결국 그것은 뒤틀린 것이 빚어낸 불순물에 불과하니 바로잡아야함이 마땅하나 뭐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잎사귀가 불안하게 떨리는군. 무엇이 그리도 급한가?”

“욜룬두르! 나의 오랜 벗.”

내 작은 잎사귀의 흔들림을 보는 날카로운 그의 감은 속일 수 없다.

“기얄록의 정령이면 그 이름에 걸맞게 잔잔한 물결과도 같이 차분해야함이 마땅한 것을. 지금의 그대는 그리하지 못하는군.”

“호전적인 투란시오나의 발톱답지 못한것은 그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 이미 그대의 뿌리가 나랏두실의 정령목에 진작에 닿아 있으리라 여기었는데 의외로 차분해 보이네만.”

“오랜 시간 그대와 시간을 지내다보니 이제는 서로의 뿌리가 바뀐것만 같군 그래. 이젠 그대가 라삿의 불꽃과도 같이 힘차게 타오르는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얄록의 눈은 무슨 결정을 내리었는가?”

“풍족함을 가져다주는 뒤틀린 빛을 아무래도 불순물로 여기지는 않기

에 지금은 그저 좀 더 주시하려는 모양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대는 그리 생각하지 아니하는군.”

“그렇다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랏두실의 정령목으로 향하질 않는가?”

“내 오랜동안 아벨의 종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네.”

“참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왔군.”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세.”

“무슨 말인가?”

“그대도 알다시피 아벨의 종자는 나약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원한다면 우거진 숲으로 으깨고 덩쿨로 목을 조이며 가시로 뚫고 찢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강한 믿음이네.”

“저들의 얄팍한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군, 기얄록의 늑대여.”

그가 심기가 불편한 듯 나를 한껏 낮추어 부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나는 소신있게 나의 말을 이어나갔다.

“정령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그대도 알고 있겠지? 볼 것도 없이 저들은 불순물을 처분하려 하겠지. 하지만 그럴수록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저들이 어디에 기대겠나?”

“오히려 저 뒤틀린 빛에 기대게 될 것이다?”
“그렇지.”
“빛에 건네는 믿음이 자연의 고리에 견줄 수 있다고 말하는겐가?”
“물론 자연의 고리에 비하자면 더할나위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나약한 것들은 더욱 두손을 부여잡고 빛에 기댈걸세. 그렇게되면 저 역겨운 햇살은 믿음을 먹고자라 더욱 뒤틀린채로 이데아의 온 대지를 비추게 될 따름이니,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고리에 불순물을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여겨지네만.”

“혹여, 그대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모샤에트의 정령들이 움직이지 않는다하여도 이미 뒤틀려진 빛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리고 그대가 옳다고 여긴다면 더더욱 정령목으로 향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어느 누구도 아벨을 눈여겨 바라본 자가 없을 터인데 나 하나가 지껄인다고 숭고하신 모샤에트의 정령들이 수긍하리라 생각치 않네.”
“그렇다면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말 뿐이잖나!”
그가 크게 발을 구르자 대지가 갈라지며 그 아래로 어지럽게 엉켜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한 뿌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흥분하지 말게, 욜룬두르. 이 일대를 가라앉힐 셈인가?”
“보아하니 기얄록의 정령들조차 설득하지 못했나보군.”
“아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네가 처음이네.”

“한심하기 짝이없군. 그렇다면 투란시오나의 발톱, 이 욜룬두르를 먼저 설득해보라. 기얄록의 늑대 바샬모그여.”

“그대의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뒤틀린 빛을 갑자기 꺼뜨리면 아니된다는 말이다. 어머니 대자연이 낳지 않은 빛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고개를 내민것과도 같이 저들도 모르게 천천히 죽여 대지의 양분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습을 하던 그는 여전히 나무껍질이 거칠게 찢어지는 소리를 감추지 않으며 내게 물었다.

“그 근거는?”

“내가 오랜동안 아벨의 종자들의 믿음이 배제된 자연의 고리 밖에서 그들을 주시해오며 내린 판단이 그 근거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벨의 종자들간에 피어나는 불신의 조장이다.”

“대자연을 수호하는 자의 발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럽고 간악하기 그지없는 수단이군.”

“단 한번도 내가 주시하는 자임을 망각한적이 없었지만 언제까지나 신놀음따위를 하며 대자연이 죽어가는 것 역시 방관할 수 없더군. 기얄록의 주지자들에게 이해를 바라지 않았던것도 그것 때문이지.”

“골치아픈 잎새로다. 허면 그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디이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이지.”
“녹음이 짙은 바르마엣의 산기슭 주변의 이웃이라면 오직 자연의 고리 안에서 장난질을 하는 불순물로 이 대지를 오염 시키려는겐가?”

“욜룬두르. 모샤에트의 굳은 껍질을 내 의심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것도 이해가된다. 아벨의 종자들인 그들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듯 이끌림에 이곳으로 시선을 돌리더군. 그리고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그대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것들 중 생명의 고동이 느껴지는 것 하나가 이리로 향해오고 있음에 나는 아직도 여기에 깊게 뿌리를 박은채로 주시하고 있던 것이다.”

“아벨의 종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 제법 흥미로운 것이기에 그대 마음에도 들 것이다.”
“그대가 주시하는 것은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것들 뿐이군.”
“내 그대의 시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자연의 고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품을 정도의 관용이 필요하다고 여기는건 나 뿐인가 보군.”
“언제나 자연의 고리에 속하지 않은 불순물들은 제거하며 균형을 수호해오던 우린데 그것에 의문을 갖는 것인가?”
“그렇게 균형을 수호하며 이룬 것이 이 땅을 비추는 뒤틀린 빛인가?”

그는 주변을 잠시 살피고는 낮은 울림을 하며 내게 경고했다.

“정령들이 그대를 눈여겨 보고 있는데도 서슴없이 그런 발언을 망설이지 않는군그래.”

“그래, 오히려 들으라고 내 이리 외치는걸세, 내 오랜 벗이여.”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대지에 어설프게 뿌리내린 것들의 지저귐이 심히도 불쾌하구나.”

깊은 숲을 헤치고 나온 익숙한 그림자에 내가 반가움에 소리쳤다.

“모몬토카!”

“홀로 깨어난 이가 된마냥 입을 놀리지 말라, 바샬모그여.”

“쑤아만의 정령 답게 불쾌한 혓바닥이 참으로 숭고한지고!”

“그대들의 반가움은 알겠으나 잠시 말을 끊어야함을 이해해주게, 모몬토카. 그대도 이 얼간이가 하는 말은 이미 다 들었겠지?”

“으음!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바르마엣의 깊은 숲 속으로 아벨의 종자가 감히 발걸음을 하는 것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니 말이다.”

저마다 한마디씩 입에 올리느라 정신없는 나의 벗의 말을 내가 잘랐다.

“자연의 고리 앞에서는 무엇이든 평등해야 함이 옳다. 비록 그것의 껍데기가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든지 말일세. 내 그것들을 자연의 고리에 품으려 하는 것은 가벼운 관용이 아니라 대자연의 수호를 위하여 그들의 만행을 더욱 깊게 주시하기 위함이니 오해말라.”

내가 낮게 으르렁대자 그에 화답하듯 나무껍질안에 깊게 잠들어 있었던 수많은 눈알들이 쩌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를 노려보며 바삐 눈알을 굴리었다. 그 모습에 그녀도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기얄록의 간택을 받은 자의 말을 내가 어찌할 바가 아니며 무슨 말을 건넨들 그대들은 쉬이 수용하지 않으니 그냥 내키는 대로 하게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방인을 맞으러 가게 될걸세.”

“그것 참 잘 되었군, 나의 벗 모몬토카여. 그러하니 이제 입으로만 놀리지 말고 뿌리를 들고 움직이게나.”

곤란해하는 그녀 옆에서 나뭇잎 사각대는 소리를 내며 비웃던 욜룬두르를 바라보고 내가 그에게도 일렀다.

“내 어찌 오랜 벗을 두고 가겠나? 그대도 나와 동행할걸세.”

“우리 셋이나 갈 정도로 거대한 이가 이곳에 오는가?”

나는 잠시 뜸을 들이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 그녀는 홀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고있다.”

“길을 잃은 것인가?”

“아니, 정확하게 생명의 고동을 느끼고 그것과 동화하며 한치의 망설임없이 분명히 이곳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생명의 고동을 좇아 이곳에 오는 것이면 평범한 자 더욱이 평범한 여인은 아니겠군.”

그리 말하는 욜룬두르와 나는 눈이 마주쳤고 그 시선은 그대로 모몬토카에게 향하였다. 그러함에도 그녀는 신경쓰지 않고 입을 열었다.

“평범한 자도 아릴 뿐더러 제정신이 아닌자임이 분명하다. 그걸 떠나서 아벨의 종자주제에 이데아의 폐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에서 더러운 숨을 토해내는 것이 그저 역겨운지고.”

그녀는 불쾌함을 아낌없이 드러내자 욜룬도르 역시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없이 동의의 표시를 보였다. 나는 그들의 옆에 나란히 서서 팔을 벌려 그들의 어깨에 가볍게대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의도가 어찌되었든 이방인에게 모샤에트 정령들의 환대를 보여주어야 하지않겠나?”

가볍게 던지지 않은 나의 말에 투기를 느끼었는지 그들 역시 망설임없이 대지에 단단히 뿌리내린 나뭇가지를 둔탁한 소리를내며 뜯어냈고 그렇게 우리 셋은 오래전 묘목이었을 적 그랬듯이 함께 뿌리내릴 곳으로 향해갔다. 그 후로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기울어진 빛은 여전히 대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 남겨진 유산 』

"후두둑!"

얼룩진 비명과 포효소리는 시들어가는 가운데 홀로 남겨져 공포에 질려버린채 전의를 상실한 것의 거죽을 찢어발기자 피와 살점이 흐드러지는 소리가 주변에 고요하게 울려퍼졌다. 자신의 것인지 혹은 다른이의 것인지 모를 피와 살점을 뒤집어쓰고 얼마나 오랜동안 싸움을 이어왔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만월의 광기 속에서 스스로를 기꺼이 내던지고도 죽지 않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저것은 무수하게 쌓여진 시체더미 위에 올라 이데아를 찢을 모양새로 미친듯이 울고 있었다. 한참이나 그 모습에 나도 취하여 피튀기는 전투 후에 잔여하는 쾌락에 잠겨진 나를 깨우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도 잠시, 가늘게 숨을 토해내며 꿈틀거리는 미세한 움직임이 자그마한 평화를 방해하기 시작하자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손에는 움켜쥐면 터질듯한 머리통이 들려져 있었으니, 아가리를 벌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한 불쾌한 그것의 모가지를 크게 물어뜯자 피가 분수처럼 튀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잠시도 나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으려는듯 나를 낳아준 것의 익숙한 냄새가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에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그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역시나였다.

"망가진 장난감으로 저렇게나 즐거워하다니, 애새끼가 따로없네."

"꺼져."

“너는 망가졌다. 자르갈의 새끼는 너같이 추하게 울지 않아.”

“죽고 싶은거냐?”

그것은 나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은채 주위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둘러보더니 낮은 음성으로 비웃으며 으르렁댔다.

“참으로 많은 죽음을 만들어 냈다만 그대의 손에 바스러진 생명이 가지고 있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테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내가 냉소적으로 대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를 더욱 짜증스럽게 했다.

“그것도 모르는 짐승새끼라면 더더욱 자르갈의 이름으로 불려질 자격이 없다.”

“그딴 헛소리나 지껄이려고 여기에 온 것은 아닐테지.”

내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저것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눈길을 주는 것인지 아닌것인지도 모를 애매한 태도로 제 할 말만 떠든다.

“모르겠지. 이제 막 만월의 광기에 취해있는 딱한 짐승새끼가 자르갈의 이름 뒤에서 날뛰는 꼴이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군 그래.”

“그래서 당신은 죽어 널브러진 핏덩이의 이름을 아는가?”

“어리석은 것아. 죽어서 무언가를 남기려는 것은 들판의 짐승새끼들도 그러할진대, 너는 그것보다 못한 것이로고.”

그것은 잠시 뜸을 들이고는 내게 말했다.

“자르갈의 시초, 신수의 지배자를 아는가?
“검은 갈기를 샤카르를 모르는 늑대는 없을테지.”
“허면 샤카르는 어째서 샤카르가 되기로 한 것인가?”
그것의 말을 잠깐 되뇌어보았다. 분명 그랬을 터였다. 무릇 이 땅에 울음을 토하며 다른 이의 위에 서서 지배하는 자라면 가져야 마땅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이봐.”
“뭔가 할 말이라도 있느냐?”
그것 역시 내가 물음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바로 답했고 그 불쾌한 태도에 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나를 낳고 길렀음에도 왜 나는 당연히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지?”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역시나 애새끼 답구나. 허면 다른 이들이 그러하듯 원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하면 되지 않는가?”
“이름이라는 것은 쟁취해야 하는것인가?”
나의 물음에 그것은 혀를 차며 한심하듯 나를 내려다 보는 꼴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하기에 이빨을 드러내며 쏘아보았다.
“나를 내려다보지 마라.”
“자르갈은 한낱 짐승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일진대 그 조그만 힘을 좀

부릴 수 있다하여 어느 누가 네놈 앞에 고개를 조아리겠는가?"

"고개를 조아리지 못하겠다면 목을 뜯어내어 바닥에 두면 된다."

"어느 누가 그것이 자르갈의 방식이라 하더냐?"

"그딴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자르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지만 네놈과는 달리 그 어떠한 방식도 나를 옭아맬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 또한 신수의 피가 흐르는 자의 방식이겠군…."

저것이 잠시 흘려보낸 찰나의 정막까지 불쾌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기에 그것을 억지로 찢으며 말했다.

"다만, 너는 나를 낳은 것이니 나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겠지."

"방금전 네놈의 주둥이에서 스스로 옭아매는 것이 없다 말하고서는 이름이 없는 것 따위가 그리도 신경이 쓰이더냐?"

"주둥이가 길구만. 네놈이 꺼낸 화두이니 어쩌란 말이냐? 그래도 이름 정도는 들어야 겠으니 모가지 위로는 남겨주도록 하마."

내가 발톱을 뿌득거리며 말하자 저것은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었다.

"까불지 마라. 나는 너보다 오랜동안 살육과 광기를 품어왔다. 짐승은 나이를 들면 약하고 병들지만 자르갈의 혈통은 더욱 강해지고 기민해진다. 그러니 내 입에서 너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거다."

"그렇다면 결과는 정해졌다."

저것의 지겨운 혀놀림에 진절머리를 치며 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를 부르는 이름을 아는 존재인 너를 죽이면 그만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 손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고개를 가벼이 천천히 끄덕이더니 갑자기 미친듯이 끄덕이기 시작했고,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으며 즐거워했다.

“명답이다, 개새끼야! 나를 죽여보라!”
“발톱 다 닳아빠진 짐승새끼가!”

인사치레를 대충 마치고 나도 저것도 스스로를 광기속으로 던지며 피와 살을 섞어가기 시작했다. 달빛 한 줌조차 비추지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자르갈의 신수들이 이제껏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달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은 상태로도 만월의 광기에 닿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인해 언제라도 사선을 넘나드는 쾌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데아에 숨을 토해내는 그 어떠한 자들도 느낄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내가 서있는 이 땅에 투쟁이 있고 내가 죽음이 함께하니 내가 전쟁의 징조이다. 살아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이름이 이데아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전에 광기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날뛴 세트와 달리 스스로 광기에 몸을 던지는 우리는 광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후회없이 남긴다. 얼마동안 물어뜯고 찢어 발겨대었는지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살이 뜯겨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니, 저것은 물론이요 나 역시도 사선에 서 있었다. 어두운 주위는 점점 밝아져 푸르스

름한 빛이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이나 서로를 노려보고 있던 도중 나를 낳아준 것이 내게 물었다.

“남길 말은 있는가?”

그 하찮은 것들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역겨웠기에 나는 눈을 부릅뜨며 그것에게 되물었다.

“자르갈의 늑대가 그딴것에나 신경을 쓰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군.”

“역시 너는 들판에 나뒹구는 짐승새끼나 다름없다.”

그것 역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송곳니를 한껏 드러냈고 곤두세운 털끝이 일렁거리며 임전의 태세를 갖추었다. 나도 흘러나오는 살기에 응답하듯 어금니를 뿌득거리며 말했다.

“그 짐승새끼가 바로 나고, 너이며 오랜동안 우리가 뒤집어 써왔던 자르갈의 껍데기일진대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

“그래서 남길 말은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는 내게 묻는다.

“이름따위야 내가 만들면 그만이다.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이 자르갈의 신수인 내가 짊어질 이름이다. 그리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름따위가 아니라 내 눈 앞에 있는 강한 것을 죽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중요치 않다.”

“음! 무덤 앞에 새겨질 말로 적절한지고.”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고 나는 다시금 광기에 스스로를 물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한번 미친듯이 울음을 토해냈고, 마침내 나의 송곳니가 그것의 목덜미에 닿았다. 일말의 망설임없이 물어 뜯어버린 뒤, 갑자기 우두커니 섰다. 나를 낳아준 것이 피를 쏟아가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쓰러진 이것이 너무나도 약했던 탓에 얼굴이 구겨졌다.

"…남길 말은 있는가?"

목이 시원하게 뜯겨져 쇳소리를 내면서까지 한심한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노라니 역겨웁기 그지없었다.

"너는 나약하기에 이 자리에서 나의 손에 죽은것이다."

그것은 힘을 쓰려는 듯 다시금 바람빠지는 소리와 함께 내게 물었다.

"…내게 남길 말은 있는가?"

그 말을 듣자하니 애초에 이렇게 될 것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자 이것이 행한 짓거리가 참으로 불쾌하여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것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더냐?"

"이제 너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제 없겠지."

"그래, 원하는 것은 이미 손에 넣었다."

"옳다, 네놈은 자르갈의 신수이다. 이름 따위 없어도 그만이고, 아까도 네놈이 말했듯이 필요하면 찢고 죽이고서 만들면 그만이다."

“그래.”

“…이름이 아직도 궁금한가?”

“필요없다. 내 이름과 함께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라.”

“고맙다. 이름 그대로 고고한 늑대로고.”

그렇게 나를 낳아준 것은 나의 이름을 품은채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힘없이 죽어버렸다. 본디 사투가 끝난 후에 저것의 눈을 도려내고 심장을 뜯어내어 그 피로 칠갑을 하는 행위로 지배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할 덕목이라 하지만 몇번 말을 섞고나서는 저것의 나약한 피가 내 안에 섞이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자르갈의 신수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기에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다. 다만, 오랜동안 그딴것들 없이도 이데아를 전율케하며 지내왔을 터인데 갑자기 무엇때문에 변해버린 것인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래서야 신수라고 부를 수도 없지않나. 무언가를 남긴다고? 형편없고도 나약하기 짝이없는 발상이군. 잊혀지는 것이 겁이 나던가?”

나약하기에 잊혀지는 것이다. 새겨야한다. 이데아에 상처를 입힐만큼 강하고 선명하게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나는 다시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피향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신수전쟁이 머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왜인지 몰랐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며 햇살을 맞이함에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것을 잠깐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

려 중얼거렸다.

“무언가를 남기는 것을 그토록 염원했다면 저것이 이데아에 남긴 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참으로 덧없는지고.”

『 외출준비 』

갈라진 피부 사이로 생명의 누수가 느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는 시간조차 없는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생명의 샘과 공명하며 나의 살갗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했다. 나는 흐르는 샘물을 손에 담았다 떨구며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부질없다. 이렇게 하릴없이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혼잣말처럼 흘려보낸 푸념이었지만 그 한심한 소리에도 맞장구를 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 되겠지.”

“시아난인가…. 울라론의 빛깔이 점점 약해질수록 죽음을 거부하는 우리는 이 곳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며 생명의 샘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 그저 한줌의 잿더미로 변하게 될거다.”

“그것을 저주라하면 저주겠지만 축복이라하면 또 축복이 된다. 그대 또한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려던 것이 아니었던가?”

“난 그저 살고 싶었던 것일 뿐 영원히 살고자 함은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담기에는 너무나 오랜동안 살아왔다고 여겨지네만, 다만 그것이 무엇이 다르지? 영원히 산다고하여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일진대.”

“글쎄, 별로 말장난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라서.”

“말장난이나 하고자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안톤.”

“그럼 무엇때문이지?”

“울라론의 빛깔이 약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염려하는 이가 울라메드의 생존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이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그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담긴 울라론에게 감사함을 지니고 있는 진정한 울라메드의 생존자라는 것이라.”

“나는 울라메드의 생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니. 우리는 오랜동안 다른 이들의 생명을 저울에 올려 그들을 선별해 왔었지만 진정으로 선별이 필요한 것은 굴라나그의 생명들을 좀먹는 것들의 선별이 필요했던 것이지.”

“이해할 수 없군. 대부분이 살고자 하려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냈다가 다시금 그들의 생명을 거두고자 한다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군.”

“살려고 버둥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이리도 가벼운 것이었었군.”

그녀는 어긋난 이빨을 환히 드러내며 웃고는 내게 말했다.

“울라메드가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선별을 할 뿐 생명을 나누고 거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굴라나그의 샘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말은 굴라나그의 샘이 나눈 생명을 꺼뜨린다는 말이

아닌가? 허면 그것이야말로 굴라나그를 모욕하는 것일텐데?”
“그러함에도 굴라나그의 말라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나 생명의 샘에서 건져올린 물을 떨구며 말했다. 잠깐 스쳐지나간 그가 지은 표정은 어느때보다 슬퍼보였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날이 서 있던 나의 말을 억누르고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몰라 얼굴을 구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런가….”

“슬프기 그지없군. 생명의 젖줄기에서 나오는 기적의 샘에 매달려 그저 하루하루 빌어먹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말이다.”

“어쩔 수 없지. 굴라나그 밖에는서는 우리의 피는 더욱 그 빛깔이 바래져 약해지기 그지 없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간헐천을 지키는 것 말고는 무얼 할 수 있는가?”
“아니,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들의 비늘 속에서 흐르는 울라론의 형형색색의 빛깔을 굴라나그 간헐천 밖 이데아의 그 어디에서도 빛나게끔 만들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방금 말하지 않았던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빨사이로 새어나오는 증기에 나의 분노가 그대로 섞여져 있었다.

“…동포들의 피를 이데아 곳곳에 흐르게 만들려는가?”

“왠만하면 생명의 줄기를 재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해주겠나?”

말도 안되는 궤변에 진절머리를 치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겠지.”

“굴라나그 간헐천의 생명줄을 좀먹고 있으면서 단 한번도 말라가는 생명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자는 필요없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저울질 하는 것이 유쾌할리 없지만 선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든 앞으로 울라메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어떠한 것을 위해서든 말이다. 어느 정도는 그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기어 나는 그녀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나 고통에 겨워하며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착각하지 마라. 특별하기에 그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들이 걸러져야할 존재들인게지.”

“그대야말로 착각하지마라. 나는 오랜동안 내가 단 한번도 특별하기에 선별되고 걸러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여긴적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 손으로 거둔 그대의 생명을 내가 거두는 것이 차마 유쾌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자신들의 피를 이름도 모를 곳에 쏟아내고 죽어야만 하는것인가?”

“동정하는가?”

“귀찮게 오늘따라 유난히 물음이 많군. 사실 그들을 내게 그렇게 묻는 것은 그대가 오히려 동정하는 것 같네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고는 짧게 답했다.

“그래.”

“뭐?”

생각치도 못한 그 발언에 내가 놀라 되물었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한번 내게 말했다.

“꺼져버릴 그들의 삶을 동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피가 이데아에 배어 다시금 생명의 빛깔을 틔울 수만 있다면야 그들의 숭고한 행위에 기꺼이 고개를 숙일 수 있다.”

제 아무리 고뇌를 거듭한들 삶의 집착의 끝에서 울라메드의 생존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동포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다.

“…살기 위해서라면 고개따위야 얼마든지 바닥에 쳐박을 수 있겠지만, 역시 방법은 그것뿐인가….”

내가 안타까움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자 그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다.

“그것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여길 수 밖에….”

“…물어볼 것이 있다.”

그녀가 물어보라는 듯이 턱끝을 가볍게 올리자 내가 물었다.

“얼마나 죽어야하나?”

“모른다.”

“선별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이 거두어야 할 생명의 숫자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당연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듯 묻자 그녀도 분한 듯이 이를 갈며 화를 삭히고 있었다. 그것을 차마 다 식히지 못하여 그녀의 비늘껍질은 터지듯이 깨지며 피 같은 생명 형형색의 울라론이 새어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이 떨어진 대지는 녹아내리며 연기가되어 피어올랐다.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려야 다시금 굴라나그 간헐천이 힘차게 숨을 쉴지, 이데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을만한 땅이 펼쳐질지 모른단 말이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우연히 빚어잰 생명의 샘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는 궤를 달리하기에 그 정도를 유추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는 살기 위해 무고한 존재들의 피를 헛되이 뿌려야만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군. 내 말이 틀린가?”

“그래,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그 빛깔을

완전히 잃을때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은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겠지.”
그의 말이 옳다. 살기위해 발버둥치던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만하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린 판단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이 생존을 위한 숭고한 몸부림이기에 더더욱 말이다. 긴 침묵을 뒤로하고 나는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있겠군.”
“그래, 선별된 이들 혹은 간택받은 이들은 이름모를 곳에서 피를 뿌리며 죽게 되겠지. 동족의 손에 의해서 말이야.”
“울라론의 품 밖에 피를 뿌릴 자들에게는 무어라 말했지?”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한 화려한 외출이라는 말 밖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뿐이로군.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이 만들어낸 장난질이 낳은 거짓된 존재이니 상관없는가.”

나는 자괴감에 스스로를 비난하고 또 자책했다. 급기야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미웠다. 눈을 타고 살갗을 따라 흐르는 울라론이 유난히 따가웁게 느껴질때 내 말을 가만히 경청하던 그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하여도 삶을, 그대가 쌓아온 시간을 자책하지 말라. 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생명의 샘은 물론 이제는 다른 이들의 삶까지 태워가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만 말이다.”

입밖으로 던지는 그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나는 지친듯 그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마른 대기와 함께 간헐천의 증기는 미친듯이 용솟음치며 나와 함께 울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울음을 토하고 선별이란 덧없음을 느끼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아 고개를 숙여 양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자 울음소리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렸다. 갈라진 대지의 틈새 사이로 피어오르는 간헐천의 증기는 신음하듯이 힘없는 소리로 쉬익거렸다.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마치 죽어가는 생명의 마지막 숨소리같이 느껴졌다. 마른 눈물을 닦고 굴라나그에서 여럿의 줄기로 새어나오는 울라론의 물줄기의 색깔은 탁하기 그지 없다. 그것을 보고 듣자마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신기하게도 차분해졌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피로 적신 대지 위에서 다시금 살아가며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뺨을 힘껏 후려치자 내 곁을 지키던 그녀가 내게 말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면 내가하지.”

“그럴 필요없다. 살기 위해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니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다른 이들의 손에 바스러지는 것보다 내 스스로 거두는 편이 나을 듯 하니.”

“이미 알겠지만 울라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 그

것이 이데아에 퍼져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지."

"알다마다. 우리의 화려한 외출은 환대받지 못할 것이며, 우리안에 흐르는 피 울라론이 고인 일대의 생명은 썩고 바스라진다."

이전보다 확신과 결의에 찬 나였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듣고있던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슬픈 표정이 떠나질 않았다. 그 모습을 억지로 피하려 내가 먼저 그녀에게 말했다.

"선별을 시작하자."

"…그래."

망설임 끝에 나온 그 대답을 끝으로 우리는 해가 진 뒤 어둠뒤로 가라앉아 깊은 바다를 건너는동안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다.

『 생이별 』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열세번째 밤을 눈에 담지 못하고 조라네스의 핏덩이는 어미가 되지 못한채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어린 나이에 만월의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취해버린 것이다. 내 손으로 죽여버린 어린 그것을 품에 안고 몇번을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모른다.

“넘기지 못했는가?”

나는 등 돌린 언덕에서 꺾은 갈리 꽃가지를 그녀에게 쥐어주며 말했다.

“그래. 힘들어 하더구나. 그러하기에 조용히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정을 주지 말라 일렀잖아. 아플거라고.”

그녀의 무신경한 말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어찌 정을 주지 않을 수 있겠나? 내가 품은 아이인것을.”

나의 슬픔은 날카롭게 휘몰아치며 내 주변의 잡초와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며 거칠게 잘려나갔다. 시간이 느려지듯 고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숨을 천천히 고르고 일어나 등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가웠던 말과 달리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채로 몸을 가볍게 떨고 있었다.

언제나 강하고 다부진 모습을 하고 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는 소녀만이 서 있었다. 고개가 절로 떨구어졌다.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나? 그래, 그리나가 유독 너를 잘 따랐었지.”

나는 입술을 깨물고는 그녀를 한아름 안아주었다. 그러자 잘 참고있었던 울음이 터진 모양이다. 그녀는 노이엘라 일대가 떠날정도로 크게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울음에 위로를 건네듯 또 다른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울려퍼졌다. 오늘따라 그 울음은 내게 너무나도 무거웠다. 언제나 광기에 빠져 수많은 자매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각오하고 있었다고 여겼지만 정작 내가 품은 이의 죽음은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어엿한 여인의 모습으로 자랄 터였는데, 도대체 왜 데려간거야!”

목이 메어 한참을 뻐끔거리던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 아팠지만 나도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그녀를 위로했다.

“…광기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을 축복해 주자꾸나.”

“그리나 뿐만이 아니라 요 근래에 부쩍 많은 자매들이 열세번째 밤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다고!”

“도대체, 왜?”

목이 잠겨버렸기에 쉿소리에 가깝게 물음을 토해냈지만 그것은 나비아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 물음은 누구를 향해야 할 지 모르는 원망과 고요속에서 한탄이 섞인 무언가였다. 나비아는 엉망이 된 얼굴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고요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르지.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어미가 되지 못하고 광기속에서 길을 잃은 자매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찢어 발겨버릴거야.”

“대모님은 물론이고, 조라네스의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나가 편히 눈을 감지 못할 따름이니 가슴이 아려온다.”

“죽여버릴거야.”

“정신차려, 나비아. 분노에 너무 취해서 광기에 더욱 쉽게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미쳐버린 들개가 되어 버릴거야.”

“상관없어. 그리나를 비롯하여 우리에게서 자매들을 데려간 그것이 무엇이든 모가지를 뜯어내어 그들의 품에 안겨줄거야.”

나비아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면서 따스한 바람이 노이엘라 평원의 대기가 일렁거렸고, 그리나의 품안에 있던 갈리 꽃의 가지가 천천히 썩어 뭉개지기 시작했다.

“나비아!”

“응, 그래. 돌아오는 그믐의 날에 죽이자.”

점점 광기에 물들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엉망진창으로 정돈되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피와 거친 호흡 그리고 금방이라도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이 일렁이는 그녀의 갈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풍이 산들바람에 쏟아져내리듯이 작은 소리를내며 어여쁘게 바스락거렸다.

짜-악.

나는 그녀가 황홀경에 빠져나오지 못하기 전에 그녀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다. 그러자 그녀는 원래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조차 하고 있지 못한 듯 눈물을 머금은채 멍한 표정으로 그저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고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내가 품은 이를 죽이게 하지 말라.”

내 말에 그녀는 포기한 듯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는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뱉은 말은 내 가슴을 후벼팠다.

“피지 못하는 꽃만큼 허무하게 바스라진 것이 어디 또 있을까?”

“그래. 그러하기에 더더욱 네가 광기에 물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미안해.”

“그리나도 네가 우는 것을 원치 않을 터이니. 하지만 그리나도 그렇고 너의 웃음을 앗아간 그 무언가를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 것이다.”

내 말을 듣고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럽게 울어댔다.

“그리고 죽일것이다. 나는 다른 자매들처럼 그것을 모성애 라스의 품으로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것 같구나.”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다 무언가를 느낀듯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멈추어 황망한 눈으로 보며 내게 말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거야?”

“내가 품지 못한 어린 생명조차 내 손으로 거두었는데 그리나를 이렇

게 만든 것의 생명을 거두지 못할까?”

말라서 갈라져가는 나의 목소리와 함께 다시한번 따스한 바람이 우리를 스쳐가자 그녀는 한껏 경계태세를 취한채로 경계하며 내게 물었다.

“나를 기껏 다그쳐 놓고는 이제와서 스스로 짐승이 되려는거야?”

그녀의 적대감 속에서 아스라이 따스함이 느껴져 더욱 가슴이 아팠다.

“너와 나를 같은 저울에 올리려 하지마라. 나는 열하고도 세번째의 밤을 넘어온 밤을 헤아리지 않은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럼 약속해줘. 엄마까지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혼자야.”

“약한 소리마라, 나비아. 네가 어느 하늘 아래에 있든 어미의 품 라스가 닿지 않는 곳 따위는 없을테니 말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울적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그리나를 포함한 많은 자매들은 라스의 품에 안기지 못할만큼 무언가를 잘못해서 열 세번째 밤을 넘기지 못한거야?”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고 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잘 들어, 나비아. 잘못한 것은 그리나가 아니라 라스라는 것까지 만들어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혼돈의 씨앗을 피운 것들이야. 알겠어?”

전형적인 책임의 전가와 구체적이지 않은 대상에 대한 혐오다. 하지만, 그렇게 누구의 책임으로라도 돌리지 않으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대모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는 그렇게하지 않

으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더더욱 버티기 힘든 격류 속에 빨려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일테지. 그녀의 물음을 되뇌이며 다시 머릿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바빴다. 기이한 일이다. 어설픈 이는 살아남고 오히려 라스의 호흡이 깊은 자들은 모두 예외없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잠깐의 침묵 속에 잠겨있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데아는 매번 상처입고 고통받음에도 항상 우리는 방도를 찾아왔다. 하지만 자매들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이데아의 탓이 아니라면 남겨진 것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장난질일테지.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돼.”

“그 말은 조라네스가 이데아에 남겨진 모든 이들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거라는 듯 들리는데?”

“전쟁이 아니라 단순한 복수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조라네스와 자매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할 작정이다.”

나는 목걸이를 한참동안 어루만지다가 그것을 거칠게 뜯어버렸다. 장신구들이 흩어져 쏟아지는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나비아는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나뒹구는 장신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대모의 중책을 내려놓을 생각인거야? 나아가서 조라네스의 이름까지 내다버릴 작정인거야? 그렇게 복수를 원한다면 적어도 혼자보다 여인들끼리 힘을 맞대는 편이 낫잖아.”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울기만 해서는 안돼!”

라스의 자애로움으로 품어온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질만큼 세상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기에 조라네스의 여인들은 당당히 나쉬메누 밖으로 당당히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엇나간 뒤틀림을 바로 잡아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인들의 탈피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어차피 광기 속에서 춤을 추는 우리가 편히 쉴 곳은 광기의 나선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우리의 상징 깨져버린 텅 빈 달과도 같이 말이다.”

“…그래. 결국 이렇게 떠나려는 것이구나. 아니,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건가?”

이번 역시 그녀는 날이 서린 말과 다르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망울에 비친 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아마 본 적 없는 내 표정을 보며 그녀 역시 가슴아파하고 있는 것일테지. 나는 조라네스의 대모로서도 한 아이…. 아니 두 아이의 어미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것은 나비아에게 건네는 말이었지만 어쩌면 나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모쪼록 다음에 조라네스의 여인들을 이끌 대모님께서는 부디 자신이 품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광기마저 품는 자애로운 분이셨으면 하는구나.”

“…엄마.”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걸음에 망설임이 생겼고 잠시 멈춰서 뒤를 돌

아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내 얼굴에 그녀의 피로 화장을 고쳐주고, 한 명의 조라네스 여인을 축복해주었다. 여러번 망설이더니 그녀는 내 머리칼을 여러번 쓰다듬고는 내 가슴에 손을 살포시 얹은 뒤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짓하나 그녀의 표정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논 드라 믈라데."

나비아는 다시 원래의 쾌활한 그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마음의 정리를 확실히 마치고 무언가를 다짐한 듯한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나의 자랑이다. 가능하다면 나쉬메누의 땅 위에서 여인들의 거름이 될 때까지 그녀가 품은 아이를 보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것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그 축복을 누리는것을 내 스스로 허락할리 없다. 그러하기에 강인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오냐, 아가."

『 작은 행복 』

“비아 멘 드 케삭.”

기수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달콤한 향기를 타고 힘껏 내달렸다. 핏빛의 장미 아우렐라의 빛깔이 진해질수록 진홍의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안가득한 달콤함과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것을 느끼만한 충분한 나이가 된 것을 뿌듯해 하셨는지 어머니가 속삭이셨다.

“군주님께서는 진홍의 낙원을 받으들이실 준비가 되었다. 앞으로는 나머지 죄악을 짊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니, 아들아. 믿거라. 긍지 높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로부터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어 그들의 위에 설 자격이 있도다.”

“밤을 품에 안긴 이후로 나는 그것을 단한번도 의심한적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저 교만의 죄악. 그 뜻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어느새 어른이 다 되었구나. 내 아이야.”

그 뒤로도 우리의 대화는 끊이질 않았고 어느새 우리는 카에람에 도착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고갯짓으로 대신했고 말에서 내려 카에람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우렐라에 입을 맞추기 위하야 소환에 응하였나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우리를 반기었다. 왕

가의 혈맹은 비교적 협조적이기에 그들로부터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나머지 광기에 찬 것들에게서 그것을 담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열린 문 앞에서 찰나의 시간이지만 한참을 서 있는 듯한 상념에 빠져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카에람에 몸을 던졌다. 여전히 연회장에는 귀족들로 넘쳐났다. 그들은 그저 피를 마시며 음악에 몸을 맡기며 여흥에 취해있었고 나는 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 고개를 저었다.

“살갗을 태우는 태양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한채 그저 제 목을 축이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은 참으로 추하구나.”

날이 선 내 말에 몇몇 귀족들이 눈가를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거나 송곳니를 드러내며 적의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운 도발에 넘어가 카에람의 빈대들을 눌러 죽일 명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것 아름대로 카인의 핏줄의 부흥에 기인할 수 있으리라. 내가 카에람을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며 가는 길을 감히 방해하는 자들은 없었다. 얼굴을 추하게 잔뜩 일그러뜨리며 경계만 할 뿐 내 곁으로 다가오는 자는 없었다.
“모든 것은 예상대로다.”
나는 혀를 차며 겁쟁이들을 지나쳤고 나는 카인의 드높은 긍지를 지닌 주인을 맞이하러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그의 별채 앞에 다가서자

부드러운 속삭임이 문 너머로부터 내게 스며들어왔다.

‘오라.’

나는 그의 허락에 고개를 숙이어 감사를 표하며 그를 맞이하였다.

“나의 주인이시어. 아우엘라가 품은 붉은 물방울이 띄어야 할 색에 혼탁함은 필요치 않은 것과도 같이 카에람에는 순수한 빛깔을 탐하는 벌레는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에게 일렀다. 아마도 눈부시게 순수한 빛깔을 혼탁하게 만드는 귀족들의 존재가 불쾌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아우렐라를 핏빛의 장미 아우렐라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미소지었다. 그의 표정과는 상반되게 주변의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카에람의 주인이 우아하게 손짓을 하자마자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채로 그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음! 그렇지. 언제나 우아하고 품격있게.”

그의 별채에 조용히 울리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언제나 매혹적이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가 눈부실 따름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대가 왕가의 혈통에 속해 있음을 항상 자각하라. 우리는 다른 카인의 핏줄과는 결을 달리하는 존재로다.”

나는 그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여 대답조차 하지 못한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바닥에 머리를 쳐박으며 헐떡이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그가 부드럽게 나로부터 시선을 거두자 나는 그제서야 다시금 숨을 쉬는 법을 깨달은 듯 깊게 숨을 토해냈다. 거친 숨을 가다듬고 나는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이것이 교만의 죄악. 우리는 이것을 우아함이라 부르지만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과 달리 저만치 달아나 버린다.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 다시 내게 말해보라. 나의 아이야.”

“카에람에 우아함과 품격이라고는 없는 것들이 아우렐라의 붉은 빛깔을 혼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의심을 거두어라. 그것들은 죄악의 돌을 제련하기 위한 훌륭한 거름이 될 것이니.”

물론 어딘가에 쓸모가 있기에 방탕한 귀족의 무리들을 카에람에 머물기를 허락한 것이었겠지만 그는 정말 한차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장기말로 쓸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왕가의 혈통에 몸을 담고 있는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슬프구나. 그대도 그리 생각하는가?”

그의 물음은 마치 나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 날카로웠다. 나는 잠시 주춤하다 그에게 말했다. 물론 한치의 거짓이 담겨있어서는 안된다.

“저 역시 붉은 낙원을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니, 검붉은 새벽의

천막이 이데아의 하늘을 덮는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한 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대는 단순히 버리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칭찬도 아니요 나를 위한 배려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지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그저 허울만 다를 뿐 그저 버리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있을때 그는 나의 생각을 가로채듯 차분하게 물었다.

"그리고 그대는 여명의 끝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기분 나쁜 아벨의 은총이 내뿜는 그 빛이 더욱 강렬하게 이데아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뿌리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아벨의 남겨진 자손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현신을 불러내려는 것이겠지요."

그의 미간이 잠시나마 구겨진 것은 나의 발언이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여명을 등에 진 아벨이 자손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그 빛이 요사스러운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동태를 잠시 살피고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다.

"여명의 때는 점점 더 짧아지고 그 빛은 더욱 거대해지니 이 땅에 어둠이 자리할 곳이 부족하나이다. 이로써 카인의 핏줄에게 안식이 될 곳은 더욱 좁아지니 서로 물어 뜯고 붉은 낙원을 눈에 담지도 못한채 죽

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무엇이 안타까우냐? 그대도 알다시피 아무나 붉은 낙원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니.”

“감히 한 말씀 올리건대 지배하는 이 아래에 섬기고 따르는 이가 많으면 그만큼 즐거운 일도 없겠지요.”

그는 곰곰히 생각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였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나의 충실한 종아. 조아리는 이들마저 나의 손으로 하나하나 가려낼 것이니. 그것은 분명 즐거운 일일게야.”

그리고 그는 아우렐라를 환희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인가. 제 아무리 거룩하다 여기는 빛조차 그 이면의 추악함은 씻어낼 수 없을 따름이니, 이전에 아벨이 신단에 올리기 위해 제물의 피를 뿌리던 과오를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냐 낙원에 흩뿌려진 피만큼은 그 색깔을 유지하며 이리도 빛을 내고 있지 않느냐.”

그는 아우렐라에 흐르는 피를 입에 머금고는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무엇이 변한다한들 그대는 그저 나의 충실한 종으로써의 일임을 다하는 것이 어떠겠는가? 아벨의 빈 껍데기를 맞이하는 것이 우선이냐? 일곱의 죄악을 품을 죄악의 돌을 벼려내는 것이 우선이냐?”

부드러운 음성이 그의 별채 안을 가득 메우자 그것에 응답하려는 듯이

내 안에 담겨진 순수한 피를 끄집어내어 아우렐라의 핏빛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아우렐라의 핏빛이 정신없이 아우러져 부딛히고 흐르더니 이내 잠잠해졌고, 다시금 잔잔한 물결을 일며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죄악의 돌에 힘찬 피를 공급할 순수한 피가 충분히 모여져 있음은 세상 어느 누구라도 알 수 있었다. 핏빛 장미에 내가 끌어모은 피가 담기고 난 뒤에 피의 군주는 의자에 앉고는 가만히 나를 내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아우렐라에 담긴 피 한방울을 짜증스럽게 끄집어내며 바닥에 흩뿌렸다. 흩어진 핏방울은 바닥을 적셨고, 그 핏방울이 핏빛 장미 아우렐라에 담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충실한 나의 종복이여. 그대에게서는 왜인지 언제나 붉은 물방울 끝에 남는 불쾌한 맛이 느껴지는 것이 나의 심기를 거스르는구나.”

“예. 앞으로 그것이 감히 섞이지 않게끔 조심하겠나이다.”

“다만, 그대가 다른 누구보다 순수한 피를 담아오는 것을 내 기특하게 여기어 지금까지 살려둔 것이라.”

“그렇다면 살려두신 그 목숨 아우렐라의 장미를 위해 쓰겠나이다.”

왕가의 혈맹이 뭉쳐진 죄악은 셋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지닌 넷.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나는 다시금 그에게 예를 갖추며 그의 별채를 뒤로했다. 붉은 낙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다. 내게 섞여진 그 한 방울 때문에 교만의 군주를 불쾌하게 할 수

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쾌락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흥이다. 그 즐거움은 장내의 음악소리와 함께 실려 나의 어깨를 들썩이게했다.

“으음. 그렇지, 즐겁고 말고.”

나는 휘파람까지 불어가며 밤낮이고 벌이는 귀족들의 축제에 참가했다. 이것들과 같은 자리에서 붉은 물방울을 맛보는 것은 역겹기 그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것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 낳은 것은 생명인가? 죽음인가? 』

아벨의 자손을 부수고 다시 맞추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다. 단순히 붉은 물방울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눈길조차 건네지 않는 나뒹구는 시체를 뜯어먹으며 기억과 지식을 씹어먹는 것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내 옆에 바울이라는 이놈은 벌써부터 진저리를 치고있다.

“전보다 많아진 느낌인데, 이걸 언제 다 치우지?”

“불평은 그만하면 됐으니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죽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때?”

“이미 우리는 왕가의 혈통과의 서약으로 카르밀라의 육신을 손에 넣었는데 왜 아직까지 남은 찌꺼기따위를 계속 먹어치워야 하지?”

찌꺼기라는 말이 나를 불쾌하게 했기에 나는 죽은 자들과의 소통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채 얼굴을 잔뜩 찡그린 뒤 허공을 응시하며 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다.

“네크타라의 사제로써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바스러진 육신을 취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생명을 낳는 기적을 틔운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 바울 브라강.”

그는 내 말은 무시하고 죽은 이를 이곳저곳 매만지더니 이내 흥미가 동한 듯이 시체의 턱을 홱 돌려버리고는 일어섰다. 힘없이 돌아간 시체의

모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잘려져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다.

“다른 것도 아니고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이라고. 이런 길바닥에 아무리 나뒹구는 시체 몇백 몇천 구보다 그녀의 몸뚱이 하나에 담겨진 무수한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그 오래 전 새겨진 에르아의 낙인까지 닿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 시간에 차라리 카르밀라의 몸뚱아리를 뜯어보는 것이 죄악의 어미를 위한 완벽한 육신을 조각하는 데 더 보탬이 된다는 말이야.”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걷지도 못하는데 뛰고자 하는구나, 너는.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은 카인의 피만이 담겨진 것이 아니라 죽은 이리샤의 흙도 담겨져 있기에 순수한 카인의 핏줄인 우리들이 그것을 하루 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발시아,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육신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순 없겠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야. 죄악의 어미를 부르기 위해서 불순물이 담겨진 몸뚱이 하나라도 더 뜯어먹여야 한다는 자체가 말이지.”

내 말을 듣고 답한 바울의 말엔 빈정거림이나 악의는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내뱉어서는 안되는 말이었다. 네크타라의 사제가 공허와 허무를 안지 못하고 그것을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모순이었기 때문이었다.

“운명은 씨발, 너. 제 정신이냐? 어디 한번 더 지껄여봐.”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그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렸다. 나도 내 눈이 그렇게나 광적인 집착이 느껴진다는 것을 바울의 동공에 반사된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더욱 놀란 것은 광기어린 나의 눈이 아니라 내 모습이 비출 정도로 맑은 바울의 눈이었다.

“데보라 님께서 그러셨다고 우리까지 허무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다. 네가 그녀를 동경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너는 그녀가 될 수 없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네크타라의 사제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경이를 느껴서이지 나태와 허무를 갈구해서는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것을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의 말을 듣자마자 멱살을 쥐고 있던 내 손에 힘이 풀렸고 그는 가벼이 내 손을 뿌리치며 짜증을 내고는 옷매무새를 고친 뒤에 내게 말했다.

“자기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면서 나뒹구는 시체와 대화를 한다고? 어이가 없군 그래.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누구지?”

나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그는 다시금 하던 일을 묵묵히 하더니 잠시 한숨을 쉬고 난 뒤에 말을 이어나갔다.

“네가 오랜 세월 죽음에 다다른 살점들을 뜯어먹으며 바라던 것이 고

작 네크타라의 허무를 흉내내는 것이었다면 타르사놋에 너를 위한 장소는 어딜봐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무엇이 나쁜데?"

"나쁘다고 한 적 없어. 너는 그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버둥대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버리고자 하는것이 눈에 뻔히 보여서 그래."

나는 잠시 멈칫하고 데보라마누스의 서에 적힌 말을 되뇌이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나의 말에 그는 표정하나 변하지 않은채로 내게 말했다.

"그래.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육신의 올바른 해석도 가능한 것이지. 그게바로 경계에 선 자들 사이 암묵적인 언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공허는 물론이요, 허무 속에서도 자신을 결코 잃지마라. 그것들을 품은 자만이 나태의 죄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했다.

"너는 어른이구나."

"미친소리 하지마. 다비아. 카인의 핏줄은 죽지 않을 뿐더러 나이를 먹지 않아. 너무 인간들만 씹어먹다보니 머리가 돈 거 아니냐, 너?"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인간이 필요해."

"그 무수한 인간들의 죽음으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말할것도 없이 더 나은 생명이지. 그러는 너는?”

내 물음에 그는 말 없이 고개를 들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다시 시체 안을 들쑤셨다.

“카르밀라의 육신.”

나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 조소가 새어나왔다.

“육신의 군주 데보라님 뿐만 아니라 모든 네크타라의 사제들을 적으로 돌린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너도 그렇듯 네크타라의 사제들 가운데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을 원하지 않는 자는 없어. 그만큼 달콤하고 오랜동안 보존된 지식의 보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왜 여지껏 카르밀라의 육신을 탐하려는 자들이 그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는거야?”

“시체를 부리면서 자신은 시체로 부려지고 싶지 않는 겁쟁이들 뿐이니까 그렇지. 나태의 죄악을 따르기로 했으면 그에 걸맞는 공허와 허무를 짊어질 줄도 알아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말야.”

“그렇다면 바울 너는 영원한 안식에 잠들어 다른 이들의 종복이 되어 의미없이 이 땅을 떠돌아다닐 베짱은 있어?”

“이미 우리는 공허와 허무 속에 사는 네크타라의 사제들인데?”

“그래, 그럴만한 베짱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카르밀라

는 타르사놋의 육체조형 공방 깊숙한 곳에 있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같은 말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데보라님 뿐이야. 네가 닿을 수 없는 거리라고. 이제 알겠어?"

"그냥 그렇다는거야. 이것저것 다 귀찮으니까 곁에 시종이라도 있으면 편할 것 같아서. 뷔넌 고개처럼 좁고 길게 늘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노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고작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카르밀라의 육신을 탐하시겠다? 시체와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면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데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는거야?"

내 말에 바울은 곰곰히 생각하다 말했다.

"죽은 자들과 교감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되어보면 되잖아?"

"너는 가만히보면 예리하다가도 심각하게 멍청하단 말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자 라는 건 말 뿐이야? 데보라마누스에 실려있지 않는 거라면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거야? 우리는 시체조각가야. 카인의 어느 핏줄들보다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은 참고일 뿐 나머지는 우리가 써내려가는거란 말이지."

역시 그의 눈이 맑고 투명했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 나태의 죄악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보이지만 무궁무진한 궁금증과 시도 그리고 티 없

이 순수한, 악의없는 이 광기는 누가 뭐래도 네크타라의 사제로서 적합하기 그지 없다. 왜 아드멘하 남작이 나를 이 녀석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 알겠다. 이 놈은 진짜였다. 본인은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타인의 뜻에 동의하는 것조차 나태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자신만의 공허와 허무에 빠져 있는 모습이 네크타라의 사제가 오랜동안 추구하던 모습이나 다름없었다.

“죽은 자들이 된다는 것은 영면에 든다는 말이고 그것은 너의 존재가 소멸하여 남지 않는다는 거라고.”

“죽음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어떠한 사연으로도 삶을 조각해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자로써의 입증이 되겠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어리석은 질문 아냐? 그럼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이유는 뭔데?”

헛웃음이 나왔다. 데보라마누스를 억지로 머릿속에 꾸겨넣으며 죽음을 이해하려고 발버둥쳐봤자 이런 놈 하나에 당해낼 수 없는 것이다.

“아니야, 됐다. 오늘은 이쯤하자. 찌꺼기들은 이만 쑤셔댔으면 됐겠지. 그만 돌아갈까?”

“돌아가긴 어딜?”

“어디긴 어디야? 당연히 타르사놋으로….”

“이곳에 이렇게나 죽음이 즐비해 있는데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이야. 다비아. 타르사놋은 그저 우리가 태어나 눈을 뜬 곳에 불과하지. 네크타라의 사제들에게는 시체가 쌓여진 이 곳이 낙원이야.”

바울은 두 팔을 활짝 펼치고는 나를 돌아보면서 반짝이는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얼굴에 표정따위 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 넋을 잃은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물었다.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낼 거라는 말 같은데,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카르밀라의 육신을 어떻게 취할건데?”

“바스러진 육신이라면 망가진 인형에게 수선을 부탁하면 돼.”

“질투….”

내가 나즈막히 중얼거리자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래. 망가진 인형 어미나 다름없었던 것의 육신을 들쑤시려는 짓을 가만히 보고나 있으려나 몰라.”

“참으로 고약한 취미구나. 배반에다가 중상모략이라니.”

“그러는 너도 내 말을 듣고도 별 다른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너도 참 고약한 취미를 가졌구나.”

“귀찮으니까. 그게 바로 네크타라의 사제들이잖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으니. 데보라님을 동경하는 것이지 그녀에게 예속되어 개 같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가 타르사놋에 얼마나 있을까?”

“찾아보면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지.”

“하지만 명심해 바울. 그녀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자가 드문 만큼이나 그녀에게 감히 대적하려는 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너도 잘 알거야.”

“물론이지. 그녀는 대단해. 여러모로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은 진심이었다. 이 녀석은 역시 나 만큼이나 데보라님의 발자취를 동경하고 있다.

“그럼 나도 여기 남겠어.”

“그러시던가.”

나는 죽은 이들 곁에 쭈그려 앉아있는 바울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

뷔넌 고개의 좁은 언덕 너머까지 뼈가 부딪히고 살이 찢어지는 둔탁한 선율을 남기며 나는 또 다시 즐거움에 잠기었다.

『 흔적 』

그것은 역시나 꿈이 아니었다. 끊어진 기억으로부터 간신히 흔적을 되짚어보건대 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인격을 지닌채로 다른 곳을 활보하고 있었다. 어느새 몸뚱이 하나를 움직이고 있는 인격은 여섯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데아논, 그대는 어디를 그리 헤메이는가?”

난 조용히 그것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그렇게라도 다른 인격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뚱이를 잠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타다마드의 사신이라면 모를리 없는 사실이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하나 기억을 곱씹어 본다. 그리고 마침내 의중을 전혀 알 수 없는 영혼의 한 조각은 동방의 고요한 새벽을 깨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아. 왜 하필이면….”

나는 한숨과 함께 작은 탄식을 뱉어냈다. 다른 것들이라면 몰라도 귀신을 부리는 세사도르의 도사들과 엮이려 하는건지 알 수 없었다. 그들과 충돌하게 된다면 영혼의 소멸은 피할 수 없을터인데 상성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데아논이 그들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혼의 단편이 주체적인 개체가 되고자 그 안에 담긴 육신을 원하려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타다마드의 사신이 겪는 일 중 하나인

데, 그가 원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자 나를 엄습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은 확신이 되어 그는 다른 영혼들과 달리 육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영혼의 수확자의 육신에 담겨진 영혼이 영혼 말고도 무엇을 그리 가지고 싶어 이리도 필사적인거지?”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지만 지금은 마우엘란을 찾아 과부화된 영혼을 좀 식힐 필요가 있었다. 비틀거리며 걷는 와중에도 나의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나오고 다시 잠들때까지 나의 기억은 토막나 버린 상태이기에 어설프나마 남겨진 실마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마치 내가 억지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은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일 뿐더러, 이 몸에 담겨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째서인지 적막하고 고요했다. 영혼의 침묵은 절규하는 것 만큼이나 경계해야만 하니, 나에게 나도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이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야겠다고 느낀 것도 본능에서 나오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마우엘란에 도착해 찢겨진 영혼 몇개를 이 몸뚱이로부터 게워냈고 비명 소리가 사방으로 메아리쳤다.
한참을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흩날리는 머리를 고치고는 어느샌가 내 곁에 있었다. 수많은 자아와 충돌하는 고통 속에서 나를 끄집어 낸 것은 엘리제였다. 그녀를 이루고있는 무수한 인격 중 하나인 엘리제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내 옆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레 알려주고 싶어하듯 구두에 흙먼지를 털어내는 듯 툭툭 터는 소리를 이따금 내곤 했다. 그리고 나는 정신없이 악몽에서 깨듯이 바들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토끼눈을 하며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흔들리는 나의 눈을 응시하더니 짧은 정적을 깨고 그녀가 먼저 입을 뗐다.

“루드윅을 괴롭히지마.”

“역시 너는 나를 아는구나. 괴롭혀? 누가? 내가? 아니야. 이 녀석은 조금 달라. 동이 트기 전에 이 놈은 세사도르의 동녘 땅을 밟았다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너도 잘 알잖아?”

“무엇을 위해 세사도르에 발걸음을 했는지 아직 모르잖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이 다른 영혼들과 달리 육신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연결점을 전혀 못 찾고 있는 상태이다.”

“이름은?”

“데아논.”

“촌스러운 이름새가 딱 옛날 사람 같은데?”

그녀는 키득대며 웃어댔다. 마우엘란에 걸려진 영혼의 사념체들이 그녀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러댔다.
“장난할 기분이 아냐, 엘리제.”
그녀는 즐거워보였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뻐 보이는군.”

“당연하지 우리같이 간신히 형체만을 유지한채 존재하는 불안정한 존재들에게 있어 확고한 목표와 목적있는 삶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구원이야. 기쁘지 않을리가 없잖아?”

“그래, 그대가 기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야, 나는 너의 여인이니까.”
그녀의 비통어린 말은 흩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불쌍하고도 가여운 여인이로다.
“나는 데아논이라는 것이 세사도르의 땅을 밟게 둘 것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담담하게 물었다.
“하나의 육신에서 또 다른 자아가 눈을 뜨게 되면 영혼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찢어 발겨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알다마다. 데아논이 육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그저 그의 등을 살짝 밀어줘도 나쁘지 않

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이다.”
그녀는 턱을 괴고 곰곰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갑작스러운 의문이 들어 그녀의 상념을 깨뜨리 듯 그녀에게 물었다.
“데아논이라는 자를 알고 있나?”

“세상에 데아논이라는 자가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아? 당장 어디의 데아논이라고 물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영혼의 수확자라는 타다마드의 사신이 하는 질문치고는 멍청하기 그지없는데?”

“실례했군. 일단 아는 것은 그것 뿐이니. 마음이 급했나보다.”
나는 미간을 부여잡고 그녀에게 돌아섰다.
“이름 하나만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그에게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말했다.
“세사도르의 도사들이 영혼을 부리는 것이라면, 그 수많은 데아논 중에 당신 안에 있는 것의 기척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나도 예상한 바이지만 아벨의 자손이 저주받은 것들의 말을 들어줄지 의문이군. 더구나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을 들어줄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데아논은 아벨의 자손이었나? 카인의 핏줄이었나? 아니면 세

트의 후예였던건가? 어느 쪽이라도 세사도르의 도사들과 접촉한다고해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이 육신 안에 담겨진 수 많은 영혼에게 물어도 그를 아는 자도, 그와 말을 섞어 본 자가 없더라."

나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녀에게도 숨겼어야 했나? 하는 의문도 잠시 나는 천연덕스럽게 그에게 거짓 섞인 말을 고했지만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당신 몸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에 영원히 남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 괜찮은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즐거우니 명확한 목표니 장황한 연설을 늘여놓던 내가 알던 엘리제 그녀가 맞는가?"

"그래, 그리고 여전히 너의 연인이지."

"그것 참 유감이군."

"알아."

쌀쌀맞은 내 말에도 그녀는 기쁜 듯이 웃고 있었다. 여전히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영원히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것이 나를 미소짓게 했다.

"질기구나, 넌 참으로."

"그것도 알아. 얼른 가기나 하셔."

그녀도 웃음으로 화답하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등을 떠밀었다.

“너도 갈건가?”

내가 묻자 그녀는 구두발로 바닥을 툭툭 차고는 이상한 것을 본 것마냥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내 딱딱한 말투를 흉내내듯 말했다.

“당연한거 아닌가? 그러는 그대는 아직도 안 가고 여기 있는건가?”

나는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양 옆으로 저으며 말했다.

“다음에 우리가 마주할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행여 내가 동방의 깊은 산기슭에서 영면을 맞이하게 된다면 엘리제를 깨우지 말라.”

가만히 있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역시 순애보야. 나름 잘 흉내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이리 그녀의 손짓이며 분위기를 이리도 빨리 알아차리는 건지, 원.”

“정신이 나뉘어지는 것과 찢겨지는 것 둘 모두가 유쾌하지 못한 것들인데 나의 연인이라는 자의 순수한 영혼이 그 곳에서 바스러지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생각보다 신사구나, 루디.”

그녀의 모습을 하고 그녀의 목소리로 자신이 마치 엘리제인 양 아가리를 놀려대는 꼴에 부아가 치밀어 나의 눈가에 수많은 영혼이 맺혔고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절규하기 시작했다.

“두번 다시 그렇게 날 부르지않는 편이 좋을거다, 라핀.”

우리들 주위로 영혼들이 하나 둘 모이며 그것들은 공명하듯이 부산스럽게 저들끼리 지껄여댔다. 처음에는 그저 속삭이는 듯하다가도 나중에는 귀가 찢어질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라핀은 그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도 무언가를 듣고 나서 고개를 미친듯이 까딱거리고는 말했다.

“역시 네놈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그래.”

망설임 없이 바로 답한 내 말에 그녀는 실망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내가 등을 돌려 가야할 길로 향하자 그녀는 어느새 내 곁으로 오더니 함께 발맞추어 걸었다. 가만히 곁에서 걷던 그녀가 입을 떼었다.

“이봐, 하다못해 데아논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보다가 절규하며 사라져줘. 그 편이 조금은 더 즐거울테니까.”

무엇 때문에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지 몰랐다. 그리고 아무런 말없이 이 육신에 담겨진 동이 난 영혼의 사념체를 마우엘란의 나뭇가지에 아무렇게나 걸어두고 연쇄살해자 제니와 함께 세사도르로 향했다.

『 분노가 향하는 곳 』

나는 빛이 싫었다. 저주받은 이 몸뚱아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죽이는 것조차 못하니 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 생각을 하고는 횟수를 헤아리다 이내 부질 없다고 여겨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 몇 발자국 건너 내리쬐는 햇살에 몸을 던졌고 햇살은 나의 살갗을 따스하게 어루만졌다. 불쾌한 따스함이 내 몸을 적실때마다 분노와 더불어 환멸감이 차올랐다. 내가 미간을 찌푸려가며 홀로 신경질을 내고 있을 때, 세렛의 은빛 연못을 찢고나온 기브가 나를 빤히 노려다보고 있었다. 우린 잠깐 서로를 노려보다 내가 짜증내며 물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답한다.

“뭐?”

“아침부터 짜증 좀 내지 마라. 제르나, 피부에 좋지 않아.”

“아침부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진짜.”

그는 몸에 흐르는 세렛을 씻어내고 일어나며 내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뭔데?”

“이번만이 아니라 여지껏 이 빛이 역겨웠던 참에 아침부터 네 시덥잖은 말 때문에 더욱 불쾌하기 그지없잖아.”

그는 내가 무어라하던 상관없이 따사로운 햇살을 온 몸을 활짝 펼쳐 보이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그런 모습을 한 두 번 보아왔던 것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그와 함께 비추는 눈 부신 태양은 항상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조화를 내게 선사해 주었다. 그러나 그 조화로운 시간을 깨 부순 것은 언제나 햇살을 마주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일상에 대한 향수였고 그것이 내 가슴을 더욱 깊게 후벼팠다.

“두 팔 벌려 저 빛을 한아름 안을수도 있는 몸인지라 저 빛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없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웃으면서 저 밝은것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내 말에도 그는 여전히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크게 한번 하품을 하고는 어깨까지 닿는 곱슬머리를 찰랑거리며 세렛을 털어내더니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있던 내게 다시 물었다.
“어?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는 그의 무심함에 내가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됐어, 이 흐물거리는 자식아. 너는 이 따스함이 역겹지도 않아?”
내가 계속 옆에서 그의 귀에다 대도 쉬지도 않고 떠들어대자 그는 귀찮은 듯이 손사래를 치며 나를 다그쳤다.
“칭얼대지 좀 마라. 따스함이 역겨우면 부수면 될 거 아냐?”
“분노의 죄악을 품고 있음에도 네 침착함을 보면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야.”
세렛의 연못에서 기어나와 서성거리는 그의 팔을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자 그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일상인것 마냥 계속 맞으며

나를 찬찬히 관찰하듯 뜯어보며 말했다.

“나도 남의 신경이나 긁어대면서 비꼬는 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아침부터 혼자서 불같이 화만 내고 있는거야? 바보같이.”

“나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것을 입 밖으로 토해냄으로써 나의 분노가 향할 곳을 잊지 않고 명확히 제시해 주는 거지.”

그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의 주위를 어슬렁대며 주먹으로 그를 툭툭 쳐댔다. 젖은 머리를 다듬으며 가만히 내 말을 듣던 그는 한 숨을 조용히 쉬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는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어차피 우리는 반쪽짜리니까. 아벨의 자손도 카인의 핏줄도 그렇다고 세트의 후예는 더더욱 아니지. 우리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뒤틀린 존재에 불과해. 방향만 조금 다를 뿐 우리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너는 너를 한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동안 네가 사랑해왔던 것은 불경한 것들을 지우며 분노를 키우는 네 모습에 스스로 취했던 거지.”

그의 배려심없는 말에 얼마나 입술을 세게 깨물었는지 세렛이 배어나오

는 지도 몰랐다. 그에게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그에게 아낌없이 독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네가 뭘 알아? 아니, 그거 알아? 불경한 것들 다 죽이고 나면 너도 다른 이들과 다같이 보기좋게 뒈져버려. 나는 은빛의 줄기가 세상을 가득 메우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득바득 살아갈 테니까.”

“그래, 네가 평생동안 세르샤라는 이름으로 품어온 그 분노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말이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나도 알고 있기에 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새어나오는 빛을 양손으로 담으며 말했다.

“음, 확실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구만.”

그 말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나를 뒤따라 나오던 기브가 햇살을 맞이하고는 눈을 가볍게 찌뿌린 채로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브. 나는 따스하고 눈부신 저 햇살이 싫어.”

“나도 알아, 우리 모두가 그래.”

그의 팔이 다시금 물처럼 흐물거리더니 어느새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날붙이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을 묵묵하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던 기브는 어느새 완벽하게 이루어진 형태를 지닌 그것을 어루만지더니 나를 보며 차분히 말했다.

“거룩한 빛 마저도 분노로 삼켜버리면 그만이야.”

덤덤히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나위없는 분노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요했다. 분노의 형태는 언제나 뜨거웁고 자신마저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만큼 위험한 것이라 여기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웁고 고요한 분노가 가진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그 모습이 신기하여 중얼거렸다.

“분노의 죄악을 지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품은 것이 분노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단 말야.”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의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을 증오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내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그렇다는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느낌이야.”

“또 시작이다. 그 느낌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

내가 불평을 늘어놓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들어봐 제르나, 분노도 수많은 느낌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에 무게를 실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햇살을 맞으며 내게 말했다.

“그래야 불경한 것들을 모조리 조각내고 난 뒤에 조금이나마 인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빛의 세렛이 뺨을 타고 흘렀다. 요동치는 감정을 억지로 구겨넣고 세렛을 털어내자 다시금 짜증이 솟구쳐올라 이를 갈며 그를 노려 보고는 으르렁댔다.

“두번 다시 내 감정을 가지고 놀지마.”

“그래, 그래. 분노와 증오를 잃지마. 그게 너야. 그게 나고. 또 우리라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아성찰을 도와준 네게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은 고마워하는게 어때?”

“시끄러워. 짜증나, 아침부터 진짜.”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아침부터 햇살을 마주하며 짜증난다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게 누군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것 아냐?”

“하나부터 열까지 짜증난다면 일단 말투부터 바꿔 보는것도 좋아. 무엇보다 그쪽이 분노보다 타인을 다루기 쉬워지거든.”

“바보같아, 들어본적도 없어.”

그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해실거리며 웃자 나는 한숨을 쉬고는 저 먼 곳을 그윽하게 바라보고는 그에게 물었다.

“상투스의 빛을 부수면 햇살이 조금은 시들지 않을까?”

“너무 단순한 것 아니야? 그냥 여느때처럼 단순히 불경한 것들이나 우리 앞을 막는 것들의 피를 뿌리려던 게 아니었어?”

“그것들은 내 신경을 건드리기에 지극히 미미한 먼지 같은 것에 불과해.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따로 있다고.”

“이전의 따스했던 추억 쪼가리 때문에 상투스의 성스러운 빛을 부수자는 게 네 계획이야? 멋져 아주 멋져. 분노와 어리석음은 다르다고?”

그가 내 말에 우스꽝스럽게 내 얼굴 앞에 대고 휘적거리면서 박수를 쳐대며 비꼬자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그에게 말했다.

“헤르실라님에게 분노를 나누어 받으면 될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기브의 목소리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지자 나도 모르게 세렛의 날을 세우며 그의 분노에 반응했다.

“헤르실라님이 품은 분노의 크기를 가늠해 본 적이 있어? 그것을 감히 품으려 했다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분노에 집어삼켜질지도 몰라. 우리는 광기에 빠진 어리석은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노가 향해야 할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 몰라? 그녀의 분노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했지만 그녀의 분노가 우리를 다시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잖아. 세르샤의 반쪽짜리 존재들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만큼의 세렛을 뿌려낼 정도면 그녀의 분노를 깨워 그 분노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은 대체 어쩌다가 하게 된거야?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 정도라면 너는 이미 은빛의 여왕이 되어 있었을텐데. 지금 너는 그냥 피곤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투정만 부리고 있

는 꼴이잖아?”
언제나처럼 기브는 내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에도 차분하게 조근조근 반박하며 말했다.
“어쩌라는거야. 나도 몰라, 그냥 느낌이야.”
그것이 나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반박이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괜히 나를 달래는 듯한 태도같은 느낌에 대충 얼버무렸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찬란한 빛이 모든 어둠을 잠식하기 전, 그것을 바로잡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써 이 땅에 서게 되는 느낌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자 문득 내가 기브가 여느때처럼 그러하듯 분노가 아닌 다른 느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났다. 어느샌가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였고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내가 그의 말을 자르려는 듯이 답한 말에도 그는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을 지으며 끄덕이고 있었다.

“그렇지 뭐 대충 그런 느낌이지.”
“뭐가 대충 그런 느낌이야, 이 새끼야.”

그를 비꼬는 말에도 아무렇지 않게 능청스러운 태도를 보자 다시금 부아가 치밀어 올라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한대 후려쳤고 그는 여전히 싱글거리더니 내게 물었다.

“그래서 헤르실라님은 분노를 어떻게 나눌거야?”

“몰라. 머리채라도 잡아당기면 화내면서 주겠지, 뭐.”

내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간을 찌푸리자 나는 그의 반응을 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왜? 내가 생각한 것 치고는 이것만큼 좋고도 나쁜 계획은 없어보이는데? 싫으면 관두던가.”

그 말에 어이없다는 듯이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며 먼저 은빛의 샘물을 박차고 나아갔고 나는 그 뒤를 뒤따랐다. 상투스로 향해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다른 어느때보다 가벼웠다. 가벼운 바람이 콧잔등을 살포시 스쳐 지나가자 흩날리는 그의 머릿결에서 있을리가 없는 향기가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 식사예절 』

배고프다. 그것이 내가 눈을 뜬 내게 처음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껍질을 찢고 바닥에 쓰레기처럼 거꾸로 쳐박혔다. 껍질 안을 가득 채우던 붉은 점막과 살덩이도 나와 함께 쏟아져나와 바닥에 흩뿌려졌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닌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가장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한 탐색이었다.

“좋아. 저기군.”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잡음이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뭐냐, 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응, 알아. 그리고 나를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나도 지금 허기가 몰려오는 중이니까 정신 못차리다가 오히려 네가 먹히고 말껄?”

“너는 조금 더 자라고 난 뒤에 뼈와 살을 다져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이새끼가 내 말은 전혀 듣고 있지를 않는구만.”

그녀는 미간의 주름을 어루만지고는 내게 말했다.

“이제 갓 태어났으면 조용히 쓰레기부터 먹어치우면서 기다려. 세상에는 먹고 죽을만큼 맛있는 게 차고 넘치니까 말이야.”

“너는 누구야?”

“너 같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빠진 괴물들 중 하나지.”

“음, 그런가. 나는 괴물이구나.”

나는 내 손과 몸을 둘러보고는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그럼 너는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굳이 말하자면 미식가정도?”

“잠에서 깨자마자 최고의 품질을 가진 식사의 향을 맡아대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래도 보통의 미식가라면 숙녀에게 맛있어 보인다는 무례한 말 같은 건 하지 않는단다, 꼬마야.”

“그런 건 내 허기를 채우는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지, 아니야. 먹는 것을 그저 주린 배만 채운다고 여기는 지금 너는 스스로를 미식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됐어. 나는 배가 고프니 식사를 하러 갈거야.”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는거 아냐.”

“왜?”

그녀는 나의 물음에 갑자기 커다란 살점을 부풀리더니 내 목을 움켜쥐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간단한 식사예절을 알려주기 위한 멘토 정도라고 생각해. 남기지 않고 싸그리 먹어치우는 것만으로 탐식의 죄악을 짊어진 샤토움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양새가 영 보기 좋지 않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연하를 딱히 싫어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말이야.”

“어쩌라고.”

그러자 내게 점점 다가오던 그녀는 따스하게 웃어보이더니 무수한 아가리가 달린 턱을 쫙 벌리고는 내 왼쪽 어깨를 통째로 씹어 삼켰다. 말이 어깨지 이 미친 짐승은 폐와 심장 절반 이상을 함께 찢어버렸다. 바람이 새는 소리와 함께 솟구치듯 뿜어져 나오는 피가 나와 내 주위를 적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몸에 들러붙은 살점들이 꿀렁이더니 새 살을 엮어가기 시작했다. 그 흉물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녀는 입을 쩝쩝거리고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맛있다."

이 미친 상황에서도 내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꿈뻑이다가 다시금 아문 상처와 함께 말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자 눈을 반짝이고는 그녀에게 망설이지 않고 내 생각을 토해냈다.

"역시 너는 맛있어보여. 그러니까 숙녀를 기다리게 할 수 없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너를 남김없이 뜯어 먹을거야."

그 말을 듣고도 그녀는 무엇이도 기쁜지 즐거이 웃어보이며 손 끝으로 내 턱을 들고 말했다.

"음, 좋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아까도 말했듯이 연하는 좋으니까."

"고치를 찢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풋냄새가 나는 마당에 대체 무슨 연상 행세를 하려는거야?"

"그래도 그 동안 내가 먹어치운 식사량을 이제 막 깨어난 네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연상이니까 어린 너보다 위장이 조금 더 크거든.”

“까불지마. 나는 성장기니까 식사량이 많거든?”

“그래, 그래. 잡담은 여기까지 해두자고. 간단한 요기는 이제 이 대륙에서 해결했으니 이데아를 움트게 한 특식을 맛보러 가야지.”

“그게 뭔데?”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비웃더니 말했다.

“이래서 어린 것들은. 우리는 이데아에 자리한 수많은 산해진미를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어치웠어.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한 것은 수많은 생명을 움을 틔운 이데아를 집어 삼키고자 하려는 의견에 닿게 되었지. 그럼 이데아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식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이 땅에 남긴 유산인 그녀의 딸, 이실그라드의 풍미를 좇아 그녀의 생명을 모조리 뜯어 먹으러 갈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시선을 한 군데 고정한채로 입을 뗐다.

“뭐 일단 저기겠구만.”

그녀는 새삼 놀라운 듯 눈이 커지더니 다시금 뿌듯해했다.

“음, 훌륭해. 식사를 향한 감각은 충분히 발달한 것 같네.”

“그러니까 네가 왜 좋아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야? 식사할 때는 함께 모여서 하는 편이 좋잖아?”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식욕을 떨어뜨리기 충분한 역겨운 소리였다.

“이봐, 너. 아벨의 자손 같은 소리를 하네. 식사는 무릇 나의 충족량을 채워주는 식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야. 그 자리에 나의 것을 탐하는 것들까지 먹어치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음, 훌륭해. 역시 누가봐도 너는 이상식욕자 중에서도 활발한 위장을 갖추고 있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식사에 동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란다. 이실그라드와 그 주위에 자리한 것들을 쉽게 입 안에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는게 좋을거야.”

“진귀한 재료일 수록 그것을 얻고 난 뒤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은 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입 안에 담았을 때의 쾌감을 위해서라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한 것 아닌가?”

“고치 안에서 얼마나 쉬지 않고 이것저것 빨아먹어 댔으면 어쩜 이리도 잘 아는거지?”

“말했잖아. 괴물이 아니라 미식가라고.”

그녀는 자신 몸에 늘어붙은 핏덩이들을 싸지르고 거기에 털푸덕 앉으며

깔깔대고는 신나게 떠들어댔다.

“큰 만찬의 시간이 될 거야. 피와 살이 사정없이 튀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재료들이 부딛쳐 깨지고 또 부숴지겠지. 그래도 맛은 의심하지 않아도 좋을거야. 무려 이데아의 땅이 만들어낸 부산물인걸.”

그녀의 뒤틀린 미소가 나는 기분 좋게 했다.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지.”

“어린 건 이렇게나 활발해서 보기는 좋네. 그래도 게르사라님이 새파란 핏덩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는 걸 바라시겠니?”

“아무렇게나 싸질러놓고 서로 뜯어먹는 동족상잔을 즐기는 그녀가 이제와서 갑자기 새파란 핏덩이들을 걱정이라도 해주는거야?”

“아니, 그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겨진 아이 하나라도 강인하게 살며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바라기에 즐거워 하시는거야.”

“그것봐, 서로 먹어치우는 그것이 정상은 아니잖아.”

그녀는 갑자기 설명을 멈추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서로 뜯어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지? 고치에 담겨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이라도 하는거야?”

“어, 기억하는데? 그게 왜?”

“신기하네. 그래서 이렇게 고치를 찢고 나왔을때부터 버릇이 없었던게 설명이되네. 그보다 이런 적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나중에 베쩨라

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러모로 재밌는 아이네.”

그녀는 여전히 검붉은 살점을 소파삼아 턱에 팔을 괴며 중얼거리자 내가 그녀에게 짜증섞인 투로 말했다.

“야, 무슨 실험실 쥐 보는 것 같이 말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고.”

“일단 너 게르사라님한테 먼저 가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왜?”

“보통 고치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 혹은 새로운 종으로 다시 탈피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전의 살덩어리가 지닌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말은 유전 형질이나 특징 같은 것도 네놈 안에서 함께 기생하고 있다는 말인데. 흥미로워.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 너 때문에 몰랐지만 나한테서도 맛있는 냄새가 나.”

내가 아무 생각없이 내 몸을 찬찬히 뜯어보면서 말하자 그것을 조용히 눈에 담고있던 그녀는 다시 기분나쁜 웃음을 지었다.

“탐식의 죄악이 짙으면서도 그것 이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것도 기생하는동안 이것저것 처먹었기 때문인가? 하여튼 재밌는 몸뚱이야.”

나는 세상 싫은 표정을 짓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네년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구나.”

“너 같은 놈이 아무리 지껄여봐야 허기만 더 질 뿐이라서 지금 우리들은 더욱 맛있는 걸 먹으러 갈거야. 다마르강 습지에 이상의 식욕자들이

쳐먹을 것들이 이제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지. 배고프지? 누나랑 같이 갈래?”

“그래, 좋아! 그런데 가기전에 너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일단 너부터 한입 씹어먹고 출발하면 안돼?”

그녀는 다시금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지금 다리가 떨리는데. 몰랐어? 핏덩이 속에서 태어난 것이라지만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무서운가봐? 제법 쓸만하네. 그리고 제발 숙녀에게 맛있어 보인다느니 먹어버린다는 소리는 좀 가려서 하라구. 역겨우니까 말이지. 아무래도 너에게는 식사예절이 필요하겠어.”

그녀가 나에게 핀잔을 주듯이 말하자 나는 돌아서서 내 몸뚱이에 들러붙어 있는 검붉은 살점들과 혹 덩어리들을 흘겨보며 중얼거렸다.

“역겨우면 지금 이 꼴이 더 역겹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손을 여러번 쥐었다 폈다. 힘을 조절하지 못하였는지 내 살점을 스스로 찢어내자 피와 고름이 쏟아내렸다. 그러더니 다시금 살덩어리들이 서로 엉겨붙어가며 새살로 돋아나고 있었다. 채비를 하기위해 일단 나는 그녀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 채비는 핑계고 그녀의 살점을 한덩이 씹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다. 그냥 계속 고치 안에서 기생충마냥 붙어먹다

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릴걸 그랬나.”

수많이 맺힌 고치 열매들 사이에서 내 눈 앞에 펼쳐진 검붉은 장막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풍미가 흘러나왔다. 일단 그녀 곁에서 눈을 떴기에 그녀와 동행을 한 것뿐 탐식의 죄악을 지닌자들의 본능 때문인지 언제든 서로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 뇌리에 스치자 내 입가에 침이 새어나오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겠다.”

『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짝짝짝.”

부드러운 박수갈채는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추어 고개를 숙인 뒤에 가벼이 허리를 굽히어 인형들의 찬사에 감사를 표했다. 내 얼굴이 만드는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허탈감이었다. 생기를 잃은 나의 일상에 가벼운 자극이 필요했다. 나는 짜증이나서 거칠게 실타래를 당기면서 인형들의 박수소리를 멈추었다. 그러자 주변은 삽시간에 고요해졌다. 그 평온한 고요를 깬 것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이었다. 그것은 둘이었고 카인의 핏줄 중 하나인 시체를 엮어내는 자들이었다. 어째서 저 불쾌한 죽다만 시체들이 꿈의 나라에 발걸음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격식을 갖추어야 하기에 욕조에 물을 받고는 몸을 씻어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에서는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니 그것은 우리 비탄의 인형 베르체의 존재들이라면 다들 그러할것이다. 몸을 씻고 있는 도중 집사인형 중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도련님, 이 곳으로 발걸음하는 시체더미들의 움직임이 급해보이더군요. 아무래도 다과나 무도회를 바라고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을 물에 한참을 담그고는 한숨을 내쉬었고 욕조에 담긴 물은 무수한 방울을 만들어냈다.

“그래, 파비옹. 곧 나가도록 하지.”

“옷감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고맙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욕조 밖으로 나왔다. 문을 열고 나가자 파비옹과 시녀들이 서 있었고 그녀들 팔에는 자홍의 비단결이 흐르는 듯한 고급진 원단이 길게 포개어 걸쳐져 있었다. 나는 기쁜 얼굴로 몸 안에 실타래를 끄집어내며 그 옷감을 뒤덮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것을 나의 몸에 수놓았다. 허공에서 춤을 추는 듯이 바늘과 실이 미친듯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어느새 고급의 원단은 나의 취향이 가득담긴 구색을 갖춘 예복으로 태어났다.

“음! 좋아. 부드러워. 이런 원단은 어디서 구한거야, 파비옹? 내 몸을 감싸 안는것 같이 포근함이 느껴지는데?”

“네크타라의 사제들이 보내온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기쁨을 접어두고 미간을 구기며 말했다.

“원단의 값을 받아가려 오는건가? 역시 누더기같이 추한 외형만큼이나 속내도 추하기 그지없네.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파비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체를 엮는 이들의 발걸음은 더할나위없이 불쾌했지만, 그것보다 더욱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든것은 저들이 왜 이곳을 방문하느냐는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감돌았고 조용히 파비옹이 입을 열었다.

“손님이 정원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응접실로 모시도록.”

나는 짧게 답했고, 파비옹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원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뒤에 노크 소리와 함께 파비옹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손님입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고요함이 감도는 응접실에서 네크타라의 사제들은 파비옹의 안내를 받으며 내 앞에 섰다.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면 그 자세가 불쾌하려던 찰나 그 중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베르체의 도련님.”

“원단은 그쪽에서 보내신거죠?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질이 좋은 물건이더군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심해의 해적들이 약탈한 것인데, 동방의 바람을 머금은 것이라 살갗에 닿는 그 느낌이 참 부드럽다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잔 들이켰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곳에 오래 머물며 시덥지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않아 말했다.

“고급의 원단을 보내 주신것도, 친히 이곳에 방문해 주신것도 뭐라 말할 수 없을진대 그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베르체의 인형은 이야기가 빨라서 좋군요. 솔직한 것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도 마음에 드는군요.”
시체 조각을 엮는 것들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참으로 잘도 한다 여기고 있던 찰나에 그들 중 하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다.

“태초에 사랑받지 못한 그대들. 비탄의 인형을 만든 어머니 카르밀라의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카르밀라의 육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거야?”
내가 질투의 죄악을 굳이 숨기지 않으며 실타래를 뿜어내어 그들을 한껏 위협했다. 질투의 눈동자는 뭉친 실타래처럼 여러 갈래로 휘감기며 요동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나의 태도를 경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경외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금니를 드러내며 품었던 칼을 빼들고 달려들 것을 기대했으나, 예상 밖의 심심한 그들의 태도에 김이 새 나도 질투를 추스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오묘한 고요 끝에 누더기 하나가 입을 열었다.
“지겹지 않아?”
“무슨 말이야?”
그는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여기저기를 훑어보고는 어깨를 으쓱하고난 뒤에 조용히 답했다.
“혼자 이렇게 가족놀이 하는 것 말이야.”

“그런 도발에 넘어갈만큼 나는 여유가 없어. 아니면 내 꿈의 낙원에서 죽은 뒤에 내 인형이 되고 싶은거야?”

“음, 그것로 가족이 늘어난다면 네게는 좋겠지. 하지만, 텅 빈 인형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네 맘의 빈 곳이 채워지리란 보장은 없을텐데.”

그 말을 듣자 파비옹이 안경을 들어올리며 그의 말을 잘랐다.

“시체 주제에 잘도 입을 놀리는구나.”

“영혼없는 뒤틀린 장난감은 빠져.”

파비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응시하고는 말했다.

“어차피 송장이니 조각이 좀 난들 상관없겠네.”

나는 한숨을 쉬며 잔뜩 날이 서린 파비옹을 진정시켰다.

“그만하면 됐어, 파비옹.”

“도련님.”

나는 그에게 미소를 보이며 다시 말했다.

“파비옹, 누더기의 말에 너까지 열을 낼 필요는 없어.”

파비옹의 웃음기가 다시 사그러들자 주위의 공기가 다시금 차분해짐을 느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직 그쪽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아, 카르밀라의 육신 말인가?”

누더기는 눈에 불을 밝히며 신이나서 말했다. 참으로 역겨웁지만 가까

스로 나는 다시금 정신을 다잡았다.
“그래. 샤마인의 군주 브리쿨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해두지.”
“정말 더럽고도 간악하기 그지없는 방식이로다.”
이상하리만큼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것에 담겨져있는 것은 분노가 아닌 사실 그대로일 뿐이었다.
“그래, 이것 참 시시할 정도로 예상하던 반응 그대로구나. 가족놀이에 심취한 너희들이 카르밀라의 육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편이 더 이상하겠지.”
“우리를 만든 이의 육신으로 하려는 거래는 무어냐? 누더기들아.”

“우리는 시체를 엮는 이들이야. 그 누구보다 죽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지. 덧붙여 말하자면, 카르밀라의 육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혹시 알아? 너희들 비탄의 인형이 마음대로 부리는 인형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물어 볼 것이 있다.”
그는 우아한 손짓으로 내게 허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나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게 했지만 이를 뿌득거리며 그들에게 물었다.
“질이 이것을 알고 있나?”
“아, 태초의 인형. 질 퀴오나 말인가? 아직 그에게는 일러두지 않았네만. 왜 그를 신경쓰는거지?”

“너희들 왕가의 혈맹이라 부르는 것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질 퀴오나의 정신이 찢겨지며 질투가 깨어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테지?”

“무슨 문제라도? 일곱의 죄악에 눈을 뜬 것은 축복이 아닌가?”

“두번씩이나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버려지고 그들의 죽음을 눈에 담은 것을 그대들은 축복이라 부르는건가?”

그의 곁에서 한참을 묵묵부답으로 있던 여인이 입을 열었다.

“이봐, 도련님. 아직 어려서 뭔가 모르나본데, 이데아에서 그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한 것들은 살아남지 못해. 그나마 이렇게 뒤틀린 존재로 당신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그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다져진 것들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들과의 의미없는 논쟁으로 인해 잠시 논점에서 벗어났음을 느낀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 조목조목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질 퀴오나는 카르밀라가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네크타라의 사제들은 그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녀를 다시금 살리려 하고 있군. 더불어 그대들은 질 퀴오나가 이것을 알지 못했으면 하는군. 하지만 이상한걸, 그런데도 베르체의 인형 중 하나에게 이 일을 알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지? 꿈의 동산의 와해인가?”

내가 가만히 턱을 괴고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자 그는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박수를 쳤다.

“방구석에만 쑤셔박혀있어서 그런지 상상력이 풍부하구만. 이봐요, 새장안의 파랑새씨.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 누더기 시체 나부랭이들이 그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여전히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만 늘여놓는군. 카르밀라의 육신을 일으키는데 질 퀴오나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들었으면 하네만.”

“카르밀라의 육신이 네크타라의 땅 타르사놋에 있다고 했지 그 몸뚱이를 언제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로 확실해졌고 더이상 줄다리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들은 나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자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도움을 구하는 태도치고는 뻔뻔하고도 건방지군.”

“눈치 빠른 도련님이구만. 하지만 치밀하다고 말해주지 않겠나?”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 이들치고는 돋보이는 행동력이구만.”

“질투의 죄악을 짊어진 인형치고는 거슬리는 분석력이잖아?”

가벼운 신경전이 오고가는 가운데 눈썹을 치켜들며 다시 물었다.

“질에게 감추고 구태여 내게 먼저 찾아온 이유가 있나?”

“죽었다고 여긴 어미의 육신이 흠집하나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질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는 그저 모든 죄악중에서 질투가 지니고 있는 돌발적인 예외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선별했던 자들 가운데 바로 도련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거지.”

“카르밀라의 육신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은?”

“버려진 자들의 뒤틀린 사랑, 집착, 구애 그리고 거짓말, 등등. 질투에서 비롯되어 파생된 독특한 감정이지. 생명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은 육신과 영혼만은 아니더군. 뭐 대부분 모르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내가 이것을 질에게 말한다면?”

“음, 그렇다면 서로가 곤란하게 될거라고?”

“이유는?”

“우리는 우리대로 카르밀라의 육신을 조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테고 이미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네크타라의 사제들이기에 이런 밀회는 숙청의 사유가 되기도 하니까. 더불어 그쪽은 이미 베르체의 동화나라에 우리라는 존재를 받아들인 시점부터 다른 인형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질투의 충돌은 피곤해질테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꿈의 낙원이지 내 친구들을 속이며 그런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평생 감정없는 인형놀이에 심취하며 살아가던가.”

그 한 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팠다. 재미없었다. 인형의 집에서는 모두가 나만을 사랑해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무언가 부족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인가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다 인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넌지시 한마디 건넨다.

“고쳐주지.”

내 말을 듣자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군, 도련님. 이름이?”

그 말이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나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을 자르며 일어서며 파비옹을 불렀다.

“파비옹.”

“네.”

그리고는 나는 그들에게 뒤 돌아서서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들을 정원까지 배웅해 드리도록.”

“분부대로.”

나는 알현실 별채에서 그들이 정원을 통과하여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바라는 거지?

『 곁에 있어도 그리운 이유 』

기분 좋은 향기에 눈을 떴다. 입에는 어제 마신 와인과 여인의 달큰한 향이 입가에 남아있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벨벳의 감촉이 기분좋게 어깨로부터 흘러내려왔다. 태양은 이미 진작에 넘어갔고 어느새 달빛이 찬란한 밤이 찾아왔다.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노래와 시 그리고 음악과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 섞이며 만들어내는 조화 때문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는거야?”

“세상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이유?”

“낭만적이네.”

그녀의 웃음에 나도 같이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것 꽤나 낭만적인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데?”

“사랑이지.”

내 뻔한 대답에도 그녀는 깔깔대며 좋아했다.

“그게 뭐야, 항상 같은 대답이잖아.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이고, 기쁜 것도 그렇고 가슴이 아픈 것도 항상 사랑 때문이야?”

“응, 맞아.”

그녀는 옷을 대충 걸쳐입고 커튼을 들어올렸다.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해 하늘에 주홍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자 얇은 옷자락 사이로 그녀의 실루엣이 비추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자크는 불쌍해 이렇게나 예쁜데 카인의 핏줄이라 보지 못하니….”

그녀의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내가 바라는 얼굴을 아닐 것이다.

“괜찮아, 그것보다 너를 보는 편이 훨씬 더 좋아.”

그녀는 얼굴을 갑자기 휙 돌리더니 폴짝뛰며 내게 달려들었다.

“세상에 뭐 이런게 다 있지?”

내 얼굴을 손으로 주물럭 거리고 문대면서 즐거워하는 그녀는 익살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는 노을이나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욱 눈부시다고 말한 이유였다.

“사랑이 맺은 결실이야. 너도 나도 말이야.”

“뭔가 멋지네.”

그녀가 내 긴 곱슬머리를 손가락으로 장난을 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깃털처럼 가볍게 일어나서는 다시금 옷을 하나하나 입었다. 나는 누워서 고개만 돌린채로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옷을 다 입고 난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갑자기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했고 우리는 멋쩍게 웃었다. 실오라기 한장 걸치지 않고있는 것보다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정말 바보같아서 크게 웃었다.

그녀는 꾸물대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바래다줄까?”

“됐어.”

“지금은 괜찮아도 곧 어두워지고나면 드넓은 초원에 풀려난 미친 늑대들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걸.”

“괜찮을거야. 당신이 직접 풀 목걸이를 만들어줬으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 대단하네. 야그마 풀을 구별할 정도로 말이야.”

“말했잖아.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촉망받는 의료생이라고.”

“아벨의 자손들은 굉장해. 자신의 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도 이렇게나 앎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니 볼수록 신기한 생물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해?”

“물론이지.”

“나를 지켜줄거야?”

“그래.”

“다마르강 습지에 같이 가줄거야?”

“이런…. 눈 앞에 나를 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니. 이것 참 질투나는걸?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장난하지 말고. 자신의 생이 언제끝날지 모르는 환자들에게 쟈토움의 괴물들이 지닌 재생력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지도 몰라.”

나는 미간을 구기며 그녀에게 간청했다.

“뭔가 잘 못 알고 있나본데 우리 페라투르가 별날 뿐이지 카인의 핏줄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더구나 그들은 이상식욕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둘도없는 괴물들인데?”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이마에 얼굴을 맞대고는 말했다.

“그러니까 네게 부탁하는 거잖아.”

나는 그녀가 할 일을 마치고는 더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에 더욱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녀에게 역으로 부탁했다.

“그럼 나도 부탁할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끝나고나면 타라노프에 남아줘. 아니 내 곁에 있어줘.”

“그래.”

“엥? 이렇게 갑자기?”

내가 당황하자 그녀는 즐거운 듯 낄낄댔다.

“갑자기는 무슨 네 억지가 더 갑작스럽지. 그래, 이 바보야.”

“그 말을 네가 할 일을 끝내고 난 뒤에도 여기 있겠다고?”

“뭘 바보같이 놀라는거야? 끝나고 나서도 너랑 같이 있겠다고.”

나는 놀라서 알몸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무말도 못한채로 멍하니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배를 잡으며 말했다.

“이건 정말 페라투르의 색마가 맞는건가? 뭐가 이렇게 순진한거야?”

“또, 또. 뭔가 잘못 알고 있나본데 페라투르의 색마들이 전부 음욕에 미쳐있는게 아니라고.”

그녀는 내 반응 하나하나에 즐거워했다. 그래도 그녀가 웃는게 좋았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가 다른 카인의 핏줄과 접촉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 준비가되면 다시 타라노프로 와줘. 네가 다마르강에서 원하는것을 찾을때까지 너의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는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내뱉을까 망설이다 용기를내며 말했다.

“혹시라도 쟈토움의 이상식욕자들에게 먹힐 것 같은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그 아가리에 들어가기 전에 널 죽여줄게.”

“세상에, 너무 낭만적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코웃음을 쳤다. 그녀가 여전히 그녀답다고 생각했는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긴장감이라고는 하나 없네 너는. 카인의 핏줄이 있는 이 곳까지 혼자 발걸음을 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말야.”

“그래, 네가 있으니까.”

그녀의 짧고 명료한 말에서 느껴지는 진실된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다. 어쩌면 그녀가 내가 태어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래, 죽어도 너를 지킬거야.”

나가려는 채비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내 머리를 힘껏 치더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녀의 말에 나도 웃음으로 화답하며 말했다.

“허락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같이 있고 싶으면 둘다 사지 멀쩡이 타라노프에 와야겠지?”

“그 말이 맞네. 미안, 그냥 나한테 하는 각오정도야. 잘가.”

“응, 또 보자. 안녕.”

그렇게 활기찬 모습을 하고 그녀는 아벨의 자손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나는 눈을 감고 야그마 풀 향기를 좇으며 그녀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그 향을 좇을 수 없을때쯤 나는 그녀가 위협의 한 고비를 넘어서 무사하게 돌아갔음을 확인했다. 나는 기지개를 켜고는 창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별이 하늘을 가득 수놓았다. 그렇게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멍청하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자크, 자?”

“테오나?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문을 천천히 열고는 얼굴만 빼꼼히 내밀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놀려댔다.

“호오. 제법이던데? 예쁜 아이야.”

“알아, 그런데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진심이 아니었다면 이곳까지 올만한 용기가 있었을까?”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원하지 않는 짓까지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단 말이야.”

내 말에 테오나는 손으로 이마를 탁 치더니 답답한 듯이 말했다.

“여자아이에게 풍겨나오는 냄새는 여자인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지. 그녀의 진심을 매도하지 마, 이 겁쟁아.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거야? 잃는 것이 두려워서 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거야?”

“잠시였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이가 되었어.”

“너는 어디가서 스스로 페라투르의 몽마라고 하지마라.”

“그 아이도 똑같은 말을 했지. 아니, 그보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야기 못 들었어?”

“무슨 이야기?”

“헤이렐 님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실그라드를 품으러 가시려나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가려는 길목에 방해물이 있다지 뭐야. 쟈토움의 이상식욕자들도 같은 것을 취하려나봐. 뭐 엄연히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말야.”

“전쟁이라도 하려는거야?”

내 진지한 얼굴을 보더니 그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풋! 우리가? 우회하기보다 그냥 가는 길을 살짝 트려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내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아! 놀래라, 뭐가 그리 화가 나있어? 나야 모르지.”

내가 가만히 생각에 잠겨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다시 물었다.

“오호라. 습지에서 데이트 약속이라도 했나보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너는 표정으로 아무것도 못 숨기는 거 몰랐어? 아니 아마 너만 몰랐을걸? 널 아는 모두가 알고 있을걸? 아마도.”

아무말도 없이 묵묵히 있는 내 어깨를 툭 치더니 그녀가 말했다.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면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

“그래, 맞아.”

“뭐 지금은 이래도 헤이렐님을 따라 이실그라드 향기에 한번 빠지면 너도 정신 못차릴걸? 그 아이가 싫어할지도 모르겠네.”

“날 시험하는거야?”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달큰한 향기와 나의 긴 머리칼이 흩날렸고 기분좋은 바람이 일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는 몸을 떨며 말했다.

“이렇게나 아름답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신상태는 갓 익은 열매처럼 풋내나고 어리숙한거지?”

“나는 그 아이가 아니면 안돼.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건 나야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고.”

“진짜 사랑이라는거야?”

“뭐, 말하자면 그렇지.”

“시험하는게 아니라 귀여운 연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실그라드가 뿜어내는 생명이 얼마나 달콤한지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헤이렐님도 그녀를 품기 위해 몸소 찾아가려는 거라고. 내 말을 명심하라고.”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녀는 내 방을 나가려 문고리를 잡았고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나를 돌아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라 비틀어진 빵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페라투르의 색마답게 더 멋진 만찬을 입에 담을 것이냐. 네 자유지, 뭐.”

“그녀를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지마.”

그녀의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내 방 너머로 잔잔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테오나가 나간 자리에는 달콤한 숲츠베리향이 남아있었다. 무거운 마음이 들어 그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침대로 쓰러졌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리에서 나는 흩어져버린 야그마 풀 내

음새를 억지로 되살리려 노력했다.

“보고 싶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전에 페라투스의 몽마들마저 자신도 모른채 낙인이 새겨져 오직 하나만의 정수만을 갈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끝은 분명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였지만 그마저도 애틋하고 슬픈 사랑이기에 마음에 들어했다. 그렇게 반쯤 감긴 텅빈눈으로 눈물을 쏟아내다가 태양이 하늘 가운데에 걸려있을 때쯤 나는 다시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다.

『 사업기반 』

사원 안은 심해의 어둠과 비교하면 눈이 부시게 밝았다. 선원들은 삐그덕 소리를 내며 사원의 심장부를 향해 들어갔다. 나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얄팍한 함정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비웃음이 났다. 그리도 소중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지켜야지 이 무슨 추태인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힘이 없다면 빼앗기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 빼앗는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섭리에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웁다. 천장이 무너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벌레들이 선원들의 몸을 좀먹는다해도 우리는 망설임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장소에는 온갖 금은보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각지에서 긁어모은 듯한 찬란한 보석이었지만 그저 그것 뿐이었다. 선원들마저 기뻐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섬주섬 챙겼고, 그 와중에도 이전같이 서로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 표정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내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뱉어내고 있을때 내 곁으로 누군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금화를 기분 나쁜 듯이 거칠게 발로 차며 다가오고 있었다. 부선장 세기오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며 이내

나더러 들으라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곳까지와서 고작 있는 거라고는 이딴 금은보화가 전부라니!”
“부족한 것은 언제라도 채우면 그만이다, 세기오. 움직여라.”

내 말에 세기오는 진저리를 치더니 손을 위로 흔들며 소리쳤다.
“엘 라 까로…. 꼬르 께 딴또 베라사토, 크사트! 라프!”
세기오의 짜증섞인 외침과 박수소리에 날카로운 이빨을 위 아래로 크게 벌린 심해의 주인들이 게걸스럽게 주위의 금은 보화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영 맞지 않은 장사였지만 이거라도 가져가서 나쁠건 없었다.
“채우면 그만이라고? 우리가 기껏 뭍까지 기어 올라와서 바라던 것은 금쪼가리 따위가 아니오.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난 심해에 있다오.”
세기오는 나를 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이를 뿌득거리며 말했다.
“그래, 바다는 모든 것의 젖줄이다. 그리고 심해 깊은 곳에 내려앉은 것들 중에서는 오랜동안 잠들어있는 동안 축적된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 수두룩하지. 하지만 그것은 가치를 아는 이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에게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참 뜬구름 잡는 소리군. 이래서야 선원들은 당신을 떠날거요.”
“인색에는 끝이 없나니 그것은 자기만족보다 개돼지새끼나 다름없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시샘이나 부러움따위에서 충족되는것이 더욱 크다. 그러하니, 나는 그 삿된 감정에 뒤덮힌 눈 먼 자들을 품을 것이라.”

“아벨의 자손이나 세트의 후예 앞에서 광대짓이라도 하려는거요?”

“아니지, 세기오. 이것은 모두 사업의 일환이라네.”

“사업의 일환으로 손에 얻은 것이 고작 이딴 것들이라니….”

세기오는 금화 한 닢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온갖 재주를 부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는 빈정대더니 이내 쓰레기를 버리듯 바닥에 던져버렸다.

“급할 것 없네. 그저 우리는 빼앗고 그 가치를 알아봐 줄 이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

“오랜동안 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만, 그것은 온 이데아를 뒤져봐도 광활한 바다만큼 있는 그대로 받는대로 주는 이는 없없소.”

“그들에게 믿음을 구걸하자는 것이 아닐세, 부선장.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 작은 것이 아니지. 모든 것은 그저 창조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일 뿐이라네.”

그 말에 세기오는 기쁜듯이 호탕하게 웃었다.

“핫하하! 에르아라…. 아르토사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님이라고? 아니지. 아르토사마저 내게는 그저 사업 경쟁자일 뿐이다. 세기오, 이번만이다. 부디 말을 조심하게나.”

경고는 진심이었지만 세기오는 내 경고에도 무언가 그리 흥겨운지 모자

를 살짝 매만지고는 내게 말했다.

“이런, 실례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치를 아는 것들과 즉시 접선을 하시려는 겁니까?”

“좋은 자세다, 세기오. 하지만 육지로 진출하자는 말이 레위앗의 함대 중 하나로써의 책무를 잊자는 말은 아니었네. 우선순위가 있지않나.”

“그 말씀이라면 역시 우리는 골노랏을 손에 넣기 위한 전장에서 등을 돌렸던 것이 아니었군요.”

“한번도 골노랏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상상해본 적도 없다. 애초에 냉혹한 피가 흐르고 난 뒤부터는 그것은 피할 수도 없을 숙명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두 건을 하려거든 꽤나 바빠질거다. 괜찮겠나?”

“물론입니다. 오히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부를 축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골노랏이라는 성난 파도를 다스릴수도 없겠지요.”

“맞는 말이다. 그렇게 빼앗기고 나서도 또 다시 빼앗긴다면 그것은 이제 레위앗이고 뭐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가치도 없는 쓰레기지.”

그렇게 짧게 잡답을 이어가는 동안 심해의 주인들이 금은보화를 모조리 삼켰고 선원들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충당했다는 신호를 받고 뒤에 난 뒤에 나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사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골노랏의 쟁취를 위한 전쟁을 입에 담자마자 칼 커크스 만의 수많은 함대가 가문의 깃발을 휘날리며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릴 향해 오고 있었다.

“미신은 믿는 편은 아니다만 바다 위에서는 역시나 함부로 그 이름을 입을 담아서는 안됐나보군.”

“발 바로가! 바로 응대하지요.”

세기오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선원들은 미친듯이 서둘러 정박해 둔 베누밧실에 승선하여 제 자리로 돌아가자 내가 명령했다.

“물어 뜯게나, 베누밧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자 그들은 대응사격을 하며 초록빛 불꽃을 뿜어댔고 베누밧실을 상처입혔다. 충격은 상당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한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쪽의 기세를 꺾는 것은 오직 빈 궤짝 뿐이지 포신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칼 커크스 만의 함대가 기세에 눌려 우회하려하자 베누밧실은 아가리를 크게 벌린채 망설이지 않고 상대 선미를 물었다. 그리고는 그녀 안에 기생하는 심해의 주인들의 다리가 순식간에 뻗어져나오며 칼 커크스 만 주변의 함대 전부를 한데 묶어버렸다.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나는 미소지으며 손짓했고, 이에 맞추어 선원들은 무기를 들고 미친듯이 상대의 배에 올라타 죽이고 빼앗았다. 그 살육의 현장을 즐기며 마침내 이들은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냉혹한 피, 레위앗의 심연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만을 탐하는 것으로는 결코 안주하지 못한다. 피를 흘리

며 얻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기에 푸른 바다에 피를 뿌린다. 그리고 드넓은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 피를 씻어 없앤다. 감상에 젖어있는 동안 선원들의 함성소리와 칼이 부딛히는 소리, 총성소리, 그리고 매캐한 화약 내음새가 바닷바람과 함께 옅어지는 것은 칼 커크스 만의 함대 위에 생존자 따위는 없음을 의미했다.

“그래, 이거요! 바로 이것이오!”

“만족했나, 세기오?”

“뭐, 일단은 그런 셈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함대를 부지런히 샅샅히 뒤지는 선원들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 물음에 세기오는 미소지으며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을 받아 펼치자 나의 눈에 담긴 것은 그저 평범한 해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나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아주 좋아. 골노랏의 흔적이 담긴 해도가 여기 내 손에 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선장. 함장실에서 골노랏의 물길을 그린 항해일지도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그의 값진 소지품은 덤이지요.”

나는 그동안의 거친 항해로 부식되고 낡아버린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마지막을 납 탄환으로 생을 마감한 함장의 제복을 그의 옷장에서 꺼냈다.

그리고는 잠시 그것을 찬찬히 뜯어본 뒤에 입기 시작했다.
“조금 큰가? 하지만 좋군. 칼 커크스 만의 함대는 레위앗의 군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이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한 거름 정도는 됐으니, 훌륭하오. 수고했구려. 이제 그만 푹 쉬시오.”
나는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흥얼거리면서 이미 숨이 끊어진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제복의 옷 매무새는 이곳저곳을 한참을 매만졌다. 옷을 여러번 손본 뒤 옷을 탁탁 털며 가만히 그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그의 손에는 휘황찬란한 총이 꽉 쥐어져 있었다.

“…이건 내가 가져가지.”

나는 칼을 꺼내어 총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그의 손가락만을 잘라냈다.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끼익거리는 나무 소리와 함께 울려퍼졌다. 물론 그의 허리춤에 채워진 보석이 박힌 칼과, 회중시계, 그리고 다소 불필요해 보이지만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그의 반지와 지팡이 또한 잊지 않고 챙겨나왔다. 선장의 특별선실 밖으로 나오자 다들 한결 상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몇몇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며 죽고 죽이고 있었다. 좋아, 이것이 옳게된 인색의 죄악이다. 그렇게 베누밧실 위에 피를 뿌려댔지만 짠 내음새와 피비린내가 섞이며 그들의 고양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숨을 크게 한번 들

이쉬고 소리쳤다.

“보라! 냉혹한 피를 품은 자들아!”

나의 외침에 부산스러운 분위기가 삽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선원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하나같이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찌르는 듯한 사기에 나는 기름을 들이 부었다.

“대재앙 골노랏의 흔적도, 그의 물길이 담겨진 항해일지도 베누밧실의 품 안에 있도다!”

내가 두 팔을 활짝 펼쳐보이며 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연출과는 별개로 그들도 당연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기에 칼을 쳐들고 하늘에 총을 연신 갈겨대며 기뻐했다. 어느새 먹구름이 짙게 내리깔렸고 하늘의 으르렁거림도 그들의 외침을 쉽사리 잠재우지 못했다. 툭툭 한 두 방울 모자를 건드리던 비가 어느새 굵어져 베누밧실의 몸뚱이에 흩뿌려진 피를 지워내기 시작했다.

“좋은 바람이다.”

나는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피와 살을 잔뜩먹은 베누밧실의 고동소리가 다시금 갑판을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보아 그녀도 준비가 다 된 모양이었다. 세기오도 선원들도 모두가 그것을 느꼈을 때쯤 세기오가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와 갑판을 발로 탕 차며 입을 열었다.

“선장님, 다음 항로 지시를!”

“베누밧실이 다음으로 물어 뜯는것은 개돼지들의 허영이다!”
“모두 위치로!”
그 말을 들은 모두가 흥분하며 자신의 위치에 서서 나의 신호를 간절히 기다렸다. 폭풍우와 피바람, 거친 파도. 모든것이 순조롭다. 나의 명령을 기다리며 집중하는 베누밧실 위의 선원들은 소름끼치도록 고요했다. 오직 갑판만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만이 조용하게 울려퍼졌다. 나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고는 조용히 속삭였다.

“출항.”

내가 폭풍우를 뚫고 조용히 속삭이자 선원들은 모두가 하나가 된 듯이 순식간에 돛을 펼쳤고, 베누밧실은 고요한 폭풍속으로 포근히 안겼다.

『 어둠 속의 어둠 』

보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부시는 빛 안에서도 결코 보려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둠이라. 아락슐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지겹도록 들은 말이 왜 이제와서 나의 귓가에 쉼없이 속삭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언제부터인지 더욱 짙어진 빛은 나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그지 없는 따스함이 신경을 잔뜩 긁고 있던 와중 어둠 속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정도 속도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의 심판이 시작 되겠구나.”

“그래, 딱히 바라던 그림은 아니지만 또 다시 이데아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니 딱히 나쁘지만은 않은가?”

그녀도 어둠속에 거미줄처럼 뿌려진 아락슐에 걸린 빛의 따스함을 느꼈는지 손에 무언가 묻은 것처럼 손사래를 치며 아락슐을 털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고립된 어둠에서 느낄 수 있는 포근함과 안락함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깊고 오랜 그림자여. 이건 상투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빛이자 어리석은 자들을 계몽하고 구하는 빛이며 순수한 영혼들로 만들어진 헌신으로 채워진 빛이기도 하지.”

“그것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알고 있구려, 현자시여.”

“너무 빈정대지는 말게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욱 짙어지

는 것도 당연하듯이 말이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

“만들어진 빛이라.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대단하도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허황된 것들에 매달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니 평생동안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황속에서 헤엄을 칠테지.”

진리의 너머를 꿰고있는 있는듯 검게 타오르는 나의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있던 그녀는 간만에 무언가 즐거운것을 보았는지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입을 찢어대며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어둠 너머의 것을 보고있군.”

“그래. 아락슐로 묶인것은 어둠과 악몽이 아니라 하쉬무스의 그림자들이기에 아락슐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 빛에 삼켜질 것이라.”

나의 말에 그는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대체 오랜동안 아락슐을 다루며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데아에 퍼져가는 어둠이지 다른 이들을 찢어 죽이는 강인한 힘이 아니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락슐로 다른 이들 안에 잠식된 어둠을 뜯어 먹는데는 문제가 없을 따름이니, 우리는 그저 어둠이 하던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하던대로?”

“그래. 저들이 만들어진 빛에서 품는 희망도 진홍의 새벽 속에서 뜨는 붉은 태양도 그 틈바구니 속을 파고들어 저들의 공포를 마시기 위한 것도 모두가 이데아를 어둠으로 물들이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

“익스의 개안을 기다리는가….”

“옳다. 우리가 바라 마지않는 것은 단순히 핏빛의 향연 따위가 아니지 않나. 익스의 시선이 이데아에 닿으면 모든것이 어둠에 물들게되고, 공포와 악몽을 마시기 위한 아락슐이 모든곳에 엮여지면서 이데아를 포근한 밤의 장막안에서 잠들게 하는거지.”

“익히 들어서 굳이 다시 설명해주지 않아도 되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진다면 우리가 빛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아락슐은 전보다 더욱 큰 힘을 발현할텐데 말이지.”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둠이 짙으면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빛이 만연한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이니 나는 직접 그 빛을 마주할 생각이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깊고 어두운 눈으로 아벨의 현신을 조우할걸세.”

“빛을 머금지 않아도 자라는 어둠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군. 더군다나 아락슐을 부리면서 그런말을 하다니….”

그녀의 말에 거미줄처럼 흩뿌려놓은 아락슐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것이지. 생각해보면 굳이 빛이 없

음에도 우리는 어둠속에서 아락슐을 부리면서 이데아의 오랜 역사속에서 방관한채로 그 어떠한 죄도 짊어지지 않은채로 모습을 감추고 스스로가 무엇인지 모른채로 살아왔다.”

“우리는 익스의 유산, 하쉬무스의 그림자. 역사를 관망하는 자.”

그녀의 말에 따라 엇박자로 대충 웅얼거리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나도 그저 아락슐에 안겨 쏟아내는 망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저 오랜동안 방관만하던 존재가 갑자기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잔잔하고 고요했던 어둠에 빛이 드리워지지 않을까하는 말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말 그대로다.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하시무스의 그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생길것이다. 밤은 물론 꿈이나 악몽조차도 스스로 찾아오지만 반대로 하쉬무스의 그림자는 단 한번도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혹은 그러지 못했을테지. 그러나, 그들이 어쩔수 없이 움직여야 할 때 하쉬무스의 어둠은 흔들리는 빛에 방황할 것이 분명할 것이니 그때가 되어서 차분한 아락슐을 기대할 수 없을것이라.”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있던 가녀린 두 손이 아락슐과 함께 가벼이 흔들리더니 나를 감싸안는듯한 모양을하며 묻는다.

“낯선 어둠속 낯선 그대는 오랜동안 무어라 불려지는가?”

“나. 투르파. 망상을 현실로 빚어내는 자. 악몽을 엮어낼 수 있는 근원

은 어둠뿐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 중 하나이다.”

“투르파…. 그대는 어둠을 무어라 생각하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갖 부정한 기운이 아락숍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어둠의 끝자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내게 여전히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시험하듯이 말을 이어나갔다. 손끝으로 전해져오는 저릿한 감각에서 그 어둠이 담고있는 우월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당신도 지금의 하쉬무스가 이전과 다르다는 건 잘 알고 있잖나. 언제부터 배덕에서 자라난 짙은 어둠에만 잠겨 빛을 외면하고 살 수조차 없게 된건가? 그대들의 진리에 빛은 존재하지 않는건가? 익스라는 그것은 빛이 조금 뒤틀린 것으로 망가질 그렇게 얄팍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더 짙은 어둠을 만끽하기 위해 더 찬란한 빛을 필요로하지.”

그녀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 안의 어둠을 헤집어가며 흥미가 생기는 듯한 모습을 했다.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녀의 적대감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강해질수록 강해진다고 하나 그것은 우리의 변명일 뿐, 빛을 외면하면 할수록 어둠 속에서 아락숍을 다루는 하쉬무스의 그림자는 점점 나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건가?”

그녀의 입에서 내가 하고싶은 말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자 나는 다소 들뜬 마음에 신나서 답을 털어냈다.

“지금의 어리숙한 나의 아락슐로 하쉬무스의 근간이 되는 익스의 어둠과 어찌 해볼 수 없을테지만, 적어도 역사를 기록하려는 생각이 있거든 빛과 어둠의 경계에 서서 바라보는 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오.”

나의 대답과 동시에 그녀는 어둠을 삼킬듯한 아락슐을 쏟아내었고 나는 그것에 잠시 압도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입을 떼었다.

“그대가 제대로 어둠을 바라보지 못하는 꼴을 보아하니 참으로 가여웁도다. 어둠은 그저 빛의 반대를 뜻하는 것이 아닐지니. 망상한 것이 현실로 눈 앞에 펼쳐지는 끔찍한 참상 역시나 어둠이다. 믿음을 강요하며 다른 이들의 눈을 멀게하는 은총마저 어둠이다. 그러니 몽상의 투르파여, 그것을 수용함에 있어 불쾌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지만 몽상하는 자가 다원의 리라드에게 묻나니, 그대가 아는 아락슐의 어둠으로 익스의 단편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역시나 어둠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끼리 내뱉은 궤변은 때에 따라서는 대할 가치조차 없겠지만 리라드는 의외로 신중하게 고심하더니만 어둠속에서 보이지도않을 인자한 웃음을 보이며 답했다.

“오랜동안 아락슐의 어둠과 함께하며 얻은 가르침으로 깨우친 것들은 적어도 거짓을 고하지 않으니 그 진실을 뒤따르면 그 끝에 익스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

그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린 그림자들이 만족하며 깊은 어둠속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좋은 현상이며 더불어 아벨의 현신이 토해내는 눈부신 빛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나의 발버둥이 흐뭇했는지 그녀는 한줌의 어둠을 쥐더니 다른 손으로 나의 손을 펼쳐 보였다.

“그리한다면 내가 그대와 함께하지.”

“하쉬무스는 방관하기만하며 탐구하는 자들이 아니었나? 낯선 어둠에 흔쾌히 응하는 하쉬무스의 그림자가 어디에있나?”

“하쉬무스들이 탐구하는 것들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대의 치기어린 아락슐을 조우한것이 나인것도 행운이지. 익스의 유산들 중에는 나와는 달리 아락슐과 익스의 짙은 어둠을 깊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말이지.”

“그런가. 그렇다면 그대 말 그대로 나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위해 한 발자국 물러나 기록하며 더 깊은 어둠의 장막을 아락슐에 새길 것이라. 그리하면 적어도 하쉬무스가 아락슐에 뒤엉켜 존재가 지워지는 일은 면할 수 있겠지.”

“그대가 품은 어둠은 참으로 보잘것 없으나 이렇게 계속 하쉬무스의 은둔자로 살아가기에는 의외로 아까운 구석이 있는 자로군.”

“그것은 무슨 뜻이지?”

“투르파여, 하쉬무스의 그림자가 항상 시오르그에 머물러 있는 것만은 아니네. 탐구하는 자는 방관자나 은둔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네.”

“오랜시간 수많은 것들을 눈에 담아온 것치고 하쉬무스의 어둠은 꽤나 얄팍한 수를 쓰며 말장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군 그래.”

“부인할 수 없군. 오랜 시간동안 자신들이 휘갈긴 기록들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유쾌하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덕목이 아닌가?”

웃음을 참고 있었던 것은 나 뿐만이 아니었던 듯 갑자기 리라드가 입을 귀까지 찢으며 날카롭게 웃어댔다. 그 와중에 저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흔들림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한참 어깨를 들썩이더니 내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내가 기다린자요. 이 어두운 허기를 씻어낼 자 말이오.”

“그대가 나를 기다렸다? 아니 오히려 나는 그대같이 진리의 범주에 넘어선 이를 기대해 왔다오. 밤의 장막이 이데아를 전부 뒤덮기 직전까지 그대는 내게 꽤 즐거움을 줄 것 같군.”

내 말을 그녀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그것은 다른 의도가 없는 진심이었다. 이내 그것이 전해졌는지 그뇨는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나의 눈을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어쩌면 그녀는 내 눈을 넘어선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황홀경을 보기라도 한 듯이 그녀의 아락숲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그대 말대로 점점 짙어지는 빛을 맞이하며 그것을 천천

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러기 위해서 내게, 혹은 그대, 그리고 하쉬무스의 탐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아락슕의 어둠이오.”

“그럴지도 모르지. 공포는 그들 자신들마저 삼킬 수도 있으니. 바라건대 진정한 어둠을 맛보지 못한채 좌절하며 공포에서 잠식된 나의 악몽을 내 직접 아락슕로 조용하고 고통없이 뜯어삼키게 해주오.”

그 말 역시도 불순한 의도가 하나없는 진실이었다. 하쉬무스의 그림자에게는 그러한 안식조차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즐거워하며 고개를 까딱이고는 나의 말에 화답했다. 그동안 이데아에 새겨진 존재들의 기록하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방금 조우한 나보다 깊고 거대한 그녀의 어둠속 스며든 공포와 두려움 혹은 악몽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어둠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것과 공명하며 나의 아락슕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꿈틀댔다. 그러함에도 그것들마저 어둠속에서 즐거이 춤을 추는 나의 펜을 멈출 수 없었다. 다원의 리라드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 내게 말했다.

“진리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기 마련이니 나 다원의 리라드. 몽상의 투르파 그대의 어둠을 원탁에 소환하노라.”

『 구원이 도래했도다 』

“베르도….”

부드럽게 예배당 문을 열고서 기도하러 온 이들 사이를 우아하게 스쳐 지나온 여인은 조용히 나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시골의 변두리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풍스러운 예복과 면사포를 쓰고도 가리워지지 않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던 형제자매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여인에게 쏠렸다.

“쥬브 왈키아.”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다른 이들이 들릴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도가 구원의 빛에 닿아 거룩한 성배에 기적이 차올랐도다.”

그녀의 속삭임에 모든 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소리 높혀 기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야 그의 현신이 이 땅에 강림하였음에도 이 빛은 내가 떠났을때 느꼈던 아벨의 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눈 부신 빛에 닿는 이 대지에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빛의 성배가 차오를 때까지 여지껏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이 단지 내가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기에 자만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분명히 본능적으로 빛의 성배안에 담겨진 구원에 대해 의구심이 내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 아벨의 현신이 결국 이 땅을 비추었구나….”

나는 그리 말하며 별채로 그녀를 안내했고,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나의 뒤를 따랐다. 별채에 도착한 후 나는 조용히 차를 올리고 있었고, 그녀는 구경거리라도 있나 별채를 두리번 거리며 돌아다녔다. 내 표정이 썩 유쾌하지 않았는지 쥬브가 내게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 기쁘지 않으신가보군요.”

“격식있는 말은 그만두고 편하게 하지. 그것도 상투스와 한참이나 동떨어져있는 시골 마을에서는 말이야.”

“그래도, 무려 교황대리 엘레스터께서 총애하는 사제님이니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나는 그제서야 쓴웃음을 지었고 그녀도 웃음으로 화답하여 우리는 가벼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영감은 잘 있나?”

“노인네가 널 왜 여기까지 보냈는지 모르겠나?”

“그게 무슨 말이야?”

“올바르고 성실한 것들은 이래서 문제야. 눈치가 없어.”

그리고는 그녀는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고 내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새 무엇이 빛의 성배를 차오르게 하는지를 잊었는가?”

“기도와 헌신이 아닌가?”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기도만으로 성배를 채우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 다시말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쓸모없어. 그 대신에 헌신이라고 부르기 딱 좋은 것이 남아있지.”

구원의 빛에서 느껴진 위화감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간 내 표정을 금방이라도 읽은 듯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처럼 재능있는 것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겠지.”

“희생으로 쌓아올린 것인가?”

“그래. 상투스에 계속 있었다면 성배의 그릇을 채우기위한 재료밖에 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이다.”

“그 재료들은?”

“살아 있을것 같나? 살아있다는 것의 범주안에서 고려해 본다한들 그것들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거지?”

그녀는 느닷없이 후드를 벗더니 이내 상의마저 거침없이 벗어내기 시작했다. 그러함에도 수치심하나 보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의 몸을 덮고 있는 성스러운 문양에는 희미하지만 분명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것이다. 이 족쇄로 인하야 아벨의 권능을 보이지 못하였기에 성배의 빛을 담는 헌신을 다하지 못하고 뒷선으로 좌천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처럼 버려진게지.”

그녀는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했던 나를 텅빈 표정으로 짧게 설명했고 나는 그제야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표정에 담긴 그것은 나에 대한 분노라기보단 공허함이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나를 원망하고 있나?”

“착각하지마라. 아버지가 너를 이곳에 심어둔 것은 남겨진 이들이 다시금 진정한 빛을 마주하기를 바라서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가.”

구원의 빛을 위하야 헌신을 마다않는 신도들 사이에서 그 빛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당당함을 다시금 바라보니 그녀는 역시 엘레노어님이 남기신 유산이다.

“엘레노어님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지. 세라하의 집필집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올라가기 전부터 말이지.”

“그렇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었다는 말이군….”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떨리는 손 때문에 접시가 요란하게 잘그락거렸다.

“추잡하게 벌써부터 어금니를 드러내지 마라. 네가 상투스에 발걸음을 한들 너의 곁에 서게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터이니.”

“상관없다. 나에겐 엘레노어님의 가르침으로 다져놓은 성역이 있다.”
“이 변방의 촌구석이 말인가?”
“그래 아벨의 은총을 입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의 눈 밖에 나기 쉬울뿐만 아니라 방벽 안의 상투스의 안락한 곳에서 읊조리는 것과 달리 절실함이 담겨진 믿음으로 굳게 쌓여올려진 땅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한층 경계와 의심이 풀린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짐이다. 그것은 자신과의 서약이며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그러하기에 숭고하다. 내 말을 조용히 경청하던 그녀가 잠시 간격을 두고 입을 열었다.
“…헌신인가?”

“그래, 여기있는 어느 누구도 아벨의 성호 앞에 무릎꿇고 거짓으로 기도를 올리는 이는 없다. 어디 그 뿐이랴, 내겐 이미 엘레노어님이 남겨주신 눈부신 빛이 있지않은가?”
내가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가락을 겨누며 말하자 그녀는 무신경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답했다.
“쓸데없는 인원을 전력에 넣지 마라.”
“아니, 그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시덥지않은 촌구석에서 아벨의 권능을 짊어지지 못한 이들을 긁어모아서 무얼 할 생각이지?”

“새로운 잔에 새로운 빛을 담을 것이다.”

“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도 하는 이야기인가? 신성모독이다. 하물며 이미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지금 그것을 채우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군.”

“부족해서도 아니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넘쳐흐르던 것은 언제나 이데아를 해하였다. 그러니 빛에 눈이 먼 것들의 눈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내가 새로운 빛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같은 망나니놈이 반신의 자리에 올라 상투스의 10대 교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이지?”

“어차피 개같이 망가져 도적놈들 소굴이 되어버린 상투스에 망나니 왕이 교관을 쓴다한들 무엇이 문제겠는가?”

“혼자 이런 미친짓을 해왔을리는 없고, 내통하는 자나 조력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이겠지.”

“물론이다.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면 언제든 추악하고 더러운 얼굴을 숨기지 않았지. 빛에 기대려는 수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벨의 현신이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라고 여겼을 뿐이야.”

“…그래. 더는 깊게 묻지 않으마.”

그녀는 말에 여운을 남기며 우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는만큼 네 영혼에 기도하는 것도 잊지마라. 네가 말했듯이 지나침은 옳지 않으니. 일단 상투스의 사제가 상투스의 헌신을 대하는데 있어서 적대심이 너무 과하다는 거다.”
“지금의 상투스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선으로 품어왔을테고. 다만, 그것을 잊지 마라. 너는 여전히 상투스의 빛이야.”
“그것은 변하지 않지. 상투스 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말 안해도 알텐데. 기도에 닿은 구원이 직접 이 땅에 내리었는데. 뒤이어 그 구원의 빛은 불경한 것들의 목을 하나 둘 땅에 떨어뜨리며 아벨의 권세를 더더욱 드높이 떨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더군.”

“빛을 의심하는 것은 독이지만 그것에 맹목적인 믿음에 헌신을 쏟아붓는 것 역시 독이 될 따름이니, 다른 이들이 그 빛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

“그것을 안타까워야할 때는 이미 지난 듯하니, 이제는 그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녀는 잠시 방황하던 나의 머릿속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었다. 그 따끔한 가르침은 역시 교구장 엘레노어의 것이었기에 나는 차오르는 무언가

를 억누르려 이를 꽉 깨물고 숨을 잠깐 고르고 난 뒤 그녀에게 말했다.

“…옳다. 고맙다. 그리고 잘 와주었다.”

“별 수 있겠는가? 아벨의 권능에 족쇄가 걸려 헌신하지 못하여 그저 버려진 개처럼 도망쳐온 신세에 불과한 것인데.”

“아니,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다시한번 그녀에게 고개를 가벼이 숙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기도하는 이들이 바라던 빛의 색은 저런 것이 아니었을테지.”

“그러나, 그러한 빛에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을테지. 허나, 기댈 빛을 잃고 새로운 구원이 다가온들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도 잘 알고 있지 않나? 믿었던 구원을 잃으면 그들은 어디에 기댄단 말인가?”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새로운 구원 그 자체가 될 것이니. 그들에게 자연스러이 의지하고 기댈 쉼터를 내어주면 된다.”

그녀의 시선이 불안한 모양이다. 아마도 내 말을 아니, 나를 믿기 힘들 것이다.

“참으로 쉬운 길인양 이야기하는구나. 네가 말하는 것들 전부 그럴싸해보이지만 신성모독을 넘어서 국가전복을 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부디 나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대가 나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는 도망자다. 그리고 파면된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의 믿음마저 저버린 배신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에 저리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차마 끝까지 바라볼 수 없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기에 도망치지 않기 위해 더이상 빛에 외면받지 않지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에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피눈물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허튼 시간이 아니었으리라.”

“아니, 그거면 충분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간신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여전히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웃어보이며 나를 위로하였다.

“…그래. 고맙다. 그리고 잘 싸워왔다.”

그녀의 말은 따스했다. 나를 억누르던 것으로부터의 해방감에 나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고 그것을 미묘하게 떨리며 새어나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도 여러번 말이다. 그러하니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 내 소임일테지.

『 정의의 대가 』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전례없이 알빈이 저 멀리서부터 큰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강조하면서 문을 거칠게 발로 차고 들어오더니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자 다른 법관들은 서로 시선을 나누더니만 쭈뼛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어느새 내 앞까지 다가온 그는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그는 잠깐의 침묵을 깨고는 전달받은 보고서의 통계를 손가락으로 탁탁 치자 나는 어깨를 살짝 들어올리며 그에게 물었다.

“알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소란스러운거냐?”

“우리 관할내에서 범죄율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건지 설명해 주시겠나? 지젤 대법관 나으리?”

“머리가 어떻게 된거야? 범죄율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것 아니냐?”

당연하다는 나의 답에 그는 이마를 탁 치면서 짜증내듯 말했다.

“정책이나 제도상으로 그동안 아무런 변화없이 현상만 유지가 되어왔었는데 어떻게하면 대체 이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냐고?”

“그래, 의심할만하지.”

“알고 있는걸 말해.”

나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쉬며 뜸을 들이자 그는 품에 있던 담배를 꺼내고는 짜증스럽게 불을 붙였다. 나는 자세를 고쳐잡고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잘 들어, 알빈. 그 모든 짓거리가 몇년 전에 신입으로 들어온 법관 하나가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면 쉽게 믿을 수 있겠나?”

“젊은 피의 호기인가? 아니면 출세에 미친 놈이라던가?”

“그 놈 하나로 인해서 피의 새장이 재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겠지?”

“이런 미친 짓거리를 보고도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나?”

“범죄율이 줄었다고. 대법관들이 아주 환장할만큼이나.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거리의 모든 이들의 피부로 체감될만큼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 말야. 연쇄살인마가 출몰하던 때에도 이렇게 여론이 공포에 질려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르메스는 참으로 대단한 미치광이를 낳았지뭐야.”

알빈은 내 말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눈을 부라리며 내게 물었다.

“꽤나 잘 아는 놈이군.”

“떠보는거냐?”

“아니, 목줄없는 미친개를 방관하는 네놈의 태도만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내게 또 숨기는 것은 없나?”

한없이 차가운 그의 물음에 나는 잠깐 숨을 쉬는 것을 잊은 것처럼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에게 말했다.

“본명은 카를이라고 하더군. 로이작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다. 그리고

그를 이르메스의 법관의 길로 안내한 것은 나다.”

“로이작 가문은 국가적 중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각지에 흩어져 숨 죽이고 조용히 살고있다. 더욱이 그 미친 핏줄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르메스의 대법관이 되어 정의를 집행한다고? 이봐, 개소리도 정도껏해라.”

내가 그의 말 하나하나에 아무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눈치가 빠른 그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더니 차분하게 내게 물었다.

“몇년 전 위협인자의 심판 직후에 플랑바통과 아그발의 연루사실을 내게 언질을 해 준 적이 있었지?”

“그래, 분명 그랬지.”

“그리고 요하임과 함께 집으로 가던 도중 불타 죽은 것의 자식과 조우한 적이 있었지.”

“죽였나?”

“아니, 보내주었다.”

“말도안돼. 네가 그냥 곱게 보내주었다고?”

“모르겠다. 왠지 그것은 나랑 같은 부류의 인간이더군.”

“아! 씨발, 퍽이나. 그래서 그랬구만.”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그저 나랑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는 말을 간단히 이해해버린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근무지는?”

나의 그의 물음을 무시하고 급하게 묻자 그는 귀찮은 듯이 고개를 삐딱하게 틀어 담배연기를 뿜어내고는 눈을 게슴츠레 뜨며 내게 되물었다.

“그게 대체 왜 그렇게 궁금하지?”

나는 개의치않고 목소리를 깔고 그를 쏘아붙이듯 되물었다.

“…근무지는?”

“플랑바통. 그리고 머리좀 식히는 것이 어떤가? 지금 네놈이 하고있는 눈깔을 보아하니 일이 곱게 정리될 것 같지 않는군.”

“그놈이 그곳에 간 이유는 뭐지?”

“나는 집행관이지 보모 따위가 아니다. 더구나 미친사람의 정의관 따위는 더더욱 내 알 바 아니다.”

“로이작을 네 손바닥 아래에 둔 것으로 넌 뭘 얻는거지?”

“불쾌하군. 질서와 법을 수호하는 이르메스의 법관이 정신나간 가치관을 가진 어린 법관 하나와 흥정따위를 했다고 생각하나?”

내가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다보자 그는 개의치않고 내게 물었다.

“숨어있어야 마땅한 것은 당당히 내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술술 내뱉었다. 그리고는 내게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나? 언제가됐든 자신의 손으로 나를 죽이겠다더군.”

“업무방해, 모욕, 특수협박, 범법자 가문의 핏줄이니 구류는 의미도없

고 이미 연좌제까지 갈 정도의 범법행위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놈을 가지고 무엇을 꾸미는거지?"

"무엇을 꾸미고 있냐고? 이참에 확실히 말해두지. 나는 아무것도 꾸미고 있지 않다. 순수하게 법과 질서 그리고 정의와 안정을 추구할 뿐이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의 새장이 다시금 도래한다고 해도 말이지?"

"그것을 두려워 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가 없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겠지, 안그런가?"

"없는 죄가 만들어져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가 있다고 해도?"

"참으로 박애정신이 투철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자네는 다른 적성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는 법과 증거에 의거하여 심판하는 자이지 다른 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자애로운 이들이 아니야."

"흠, 왠일로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놈에게서 손 떼."

"아니, 나도 변덕쟁이라 안돼. 추구하는 정의관이 다르면 직접 그것을 눈으로 담고 부딪히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내 성격이라서."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담배를 구겨서 껐다. 잠시 짧은 침묵이 방 안을 삼켰고 나는 한참동안 참은 숨을 토해내는 듯이 그에게 물었다.

"…그 괴물을 낳은 것은 바르지 못했던 나의 판결 탓인가? 아니면 나

의 변덕으로 그를 살려 두었던 탓인가?”

“그 때는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려하며 그 사사로운 것들을 재판에 개입시키지 않았을 뿐이니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법관으로 누구보다 귀감이 될만한 일이다. 어깨를 피게나.”

“쯧, 거 참 위로가 되는구만!”

내가 짜증스럽게 혀끝을 차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기댈 곳을 찾고 싶다면 그대야말로 직종을 변경하여 신앙을 가져보는게 어떤가? 그렇지 않아도 빛의 성배가 넘쳐올라 아벨의 현신이 강림했다고 하던데. 기도는 역시 배신을 하지 않는구만.”

“개같은 일은 어쩌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이닥친단 말이냐.”

“알겠나? 괴물들은 그렇게 켜켜이 싸여가면 만들어진 것이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가면서 하루아침에 뚝딱 빚어낼 수 없는 것이야. 우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야. 그저 혼란이 두려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남들보다 법이라는 테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뿐이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러하기에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부디 그것의 무게를 스스로 잊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고작이야.”

“생각보다 네 손을 떠난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줄 알았기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너에게 일러둘 것이 하나 있다.”

“뭐지?”

“요하임은 인사발령이 난 뒤 몇달 후에 죽었다.”

나는 아무렇지않게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지?”

“우연의 장난과도 같이 플랑바통에서 죽었다. 상태를 보아하니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 같다더군. 고문의 흔적이 아니라 마치 상처입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여러번의 자상과 타박상이 원인이라더라. 까마귀가 뜯어먹은 꼬락서니를 듣자하니 시체를 오랜동안 방치해 뒀다는군.”

“…역시 플랑바통인가?”

“그래, 더이상 침묵의 도시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최근 가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곳이야. 너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누구하나 죽어도 알려지지 못할 곳이니 말이야.”

“새겨두지. 누구도 그렇게 쉽게 죽이지는 못할테지만 말이다.”

그는 미간을 구기며 잠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는 내게 물었다.

“그나저나 그 미치광이 뒷 배경은 어떻게 세탁을 시켰지? 그렇게 뒤가 구린 놈이 어떻게 사법의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올 수 있었던거야?”

“지금은 거래가 있었다고만 말해두지. 하지만 모든것은 이르메르의 근

간이었던, 지금은 썩은 뿌리를 잘라내기 위함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듯이 교묘하게 장난질을 한걸로 보이는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입밖으로 꺼내면 안되지. 하지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있게 대법관들이 썩어있다고 여기는거지?”

“내가 그 미친개를 어떻게 이르메스에 풀어놨겠나? 내부에 관련된 배후가 있거나, 아니면 시궁창 개새끼들이 플랑바통을 새로운 재앙의 씨앗으로 눈여겨 보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르메시움의 재판기록에 손을 댔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셋 다겠지.”

“끔찍한 소리좀 하지 마라.”

“아니, 그녀석이 연루된 이후로 정황상 모든것이 들어맞는다. 나도 항상 내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말이다.”

“미치겠네, 대체 뭘 본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그 녀석도 심증에대한 증거를 파내기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목숨을 담보로 하다니 너도 제정신은 아니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한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두어 끊임없이 의심하고 만일을 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머리가 아픈듯 머리를 연신 누르면서 중얼거렸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역시 이르메시움의 재판기록에 손을 댄 것이겠구

만. 정의와 공정한 판결은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려면 여지껏 쌓아올린 시간의 배를 갈아 넣어야 할거야.”

“상층부의 대법관의 모가지를 쳐내면 이후에는 나라는 인간이 있으니 그 시간의 반의 반으로도 충분하다.”

“이르메스의 대법관은 도박장도 투기장도 아니야.”

“그런가? 내가 여지껏 바라본 이르메스는 그곳과 다른것이 없었는데? 그나저나 오히려 윗대가리들이 이르메시움에 손을 댔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건 오히려 제 스스로 목에 칼을 쑤셔 박는 꼴이니 말이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기록권한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턱에 손을 괴고 곰곰히 생각하다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음, 그건 좀 곤란하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일단 천천히 해야할 일부터 차근히 진행하다보면 길이 여럿 보이겠지, 뭐.”

내가 한숨을 크게 들이쉬자 그는 피식거리며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널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놈이라면서 아직까지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 너도 참 운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네.”

“오히려 날 죽이고 싶어하는 놈은 가까이 두는 편이 좋지.”

“음, 나는 사양하겠어.”

“그 놈을 곁에 두고 뒤지다보면 시궁창 개새끼들이나 이르메시움으로

장난질을 하는 대법관들의 꼬리를 밟을 수 있겠지. 내부에 배후가 있다면 윗대가리를 조질 명분이 생기니 더더욱 좋겠고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군.”

그는 내가 어이가 없을때마다 이마를 탁 치는 버릇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면서 내게 말했다.

“그래 잘 알겠다. 이거 완전, 확실히 같은 부류의 또라이 새끼들이잖아. 몰라 맘대로 해라. 아니, 적당히 좀 사려라. 네가 말했던 최악의 경우 세 가지 모두 사법관 한 두명이 움직인다고해서 어떻게 움직여볼만한 상대는 아닐테니까.”

“그래, 네가 말했듯이 나는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뿐이지. 그리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거다, 알빈.”

그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동의하고는 삐딱하게 앉아있다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의자를 고쳐앉으며 품에서 봉투를 꺼내며 내게 건넸다.

“공조수사권 요청인가? 기간은 무기한. 그런가. 마무리를 짓기 전까지 돌아올 생각은 없다, 이거군.”

나는 서명란 주변으로 망설이는 펜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가까스로 서명을 마쳤다.

“문제아는 문제가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있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야만 했던게 아닐까?”

“혹여라도 정의관이 다르다해도 미친놈을 설득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공조수사권은 어느 관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어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상대는 피의 새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의 말을 곱씹으면서 거칠게 펜놀림을 마치고 모든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따로 확인을 하지않고 가로채듯이 받아 품에 넣고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나에게 말했다.

“미치광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이르메시움 보관소에 담긴 모든기록 열람에 대한 권한을 요청할 수는 없나?”

“진심으로 윗대가리 옷을 모조리 벗겨먹을 생각인가보군.”

“당연하지. 위에 서는것이 나일 필요는 없으나 위에 선 자가 썩어문드러져 있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만큼 성인은 되지 못하니까.”

“그래, 참으로 너답긴 하다. 뭐 일단은 네가 플랑바통에 나가있는동안 나도 여기서 백방으로 알아볼테니까.”

“그래.”

“…위험한 휴가가 되겠군. 고생해라.”

“어디 안 그랬던 적이 있던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대법관의 시선이 네 숨통을 조이는 이곳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차

라리 옷에 흙먼지와 피를 묻히는 내가 더 안전할테니 말이다.”

“네 입에서 그런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줄은 몰랐는데 혹시나 죽을때가 가까운건 아닌지? 알빈 쾨닝 사법관.”

“그걸로 따진다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테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래서 요아임의 시체는?”

“갑자기?”

“부검실에 유품과 함께 보관되어있나?”

“그럴테지. 요아임의 죽음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생각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단순히 너의 변덕에 불과한것인가?”

“사법관이자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써 필요한 모든 증거품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복수라는 것에 관심따위 없다만 내 물건이었던 것이 망가졌으면 재물손괴에 대한 청구는 해야겠지.”

그는 얼굴을 앞으로 쑥 빼며 내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는 시늉을 하고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그런것치고는 눈깔이 살벌해졌는데?”

“그거 좋군. 업무를 시작하기에 적당하겠어.”

“건달이냐고.”

“우리는 제복을 입은 건달무리가 아니었나?”

내 대답에 그는 실없이 멍청한 얼굴을 하며 키득거렸고, 나 역시 그의 실없는 농담에 한참을 어울렸다. 어둑한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그는 회중시계를 꺼내어 차편을 확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얌전하게 심판의 망치나 굴리고 있으라고, 샌님.”

“시비거는거냐? 갑자기 바쁘고 싶으니까 용건없으면 꺼져.”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마쳤고 나는 남겨진 잔업거리를 뒤적거리는 척을하며 그에게 나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럼, 간다.”

경첩을 닫는 소리가 귀에 거슬리도록 길게 늘어졌다. 밖에서는 알빈을 열차역까지 인도하기위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은 연기를 잔뜩 토해내며 멀어져갔다. 여느 때처럼 탁한 회색의 하늘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빛줄기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 아수라장 』

비가 쏟아져 질척거리는 도로를 한참을 뚫고나와 마침내 지휘소에 도착했다. 나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망설임없이 바로 지휘실로 향했다. 천막을 거칠게 걷고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정자세를 취했고, 나는 가볍게 고개를 까닥하는 것으로 그들의 경례에 화답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마이어스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베르셀 대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그의 안내로 우리는 지휘실 구석에 자리한 개별 작전실로 향했고, 마이어스는 조심스레 천막을 열어 젖혔다.

“확실한가?”

“네, 마취제를 수차례나 쑤셔박아도 도통 조용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상세한 확인은 어려우나 포획한 저것을 진정시키려던 가운데 확실히 저것이 두르고 있는 군번줄을 확보했습니다.”

군번줄을 인계받고 확인하면서 나는 그것과 군번줄을 몇번을 번갈아 본 뒤에 그것을 있는힘껏 꽉 쥐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휴가 한번 거창하게 치르고 복귀했구만, 벨라 소시르 소령.”

참혹한 꼴을 하고있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주며 나는 입을 열었다.

“늘 하던대로 본대로 송환시켜.”

“이번에 라파르로 보내지 않으면 사령부에서 책임을 물을겁니다.”
마이어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턱 막힌 듯 가만히 있다가 다시 벨라였던 것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징낳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아직 임무를 수행중이다.”

마이어스도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고개를 바짝 들고 절도있는 자세를 다잡은 뒤에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대장님!”
마이어스는 경례를 하고 바로 뛰쳐나가 본대 이송을 명령했다.
“뒤치다꺼리는 잘 하고 계신가, 베르셀 대장.”
천막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음! 생각보다 힘들더군. 커피 한잔 어떤가?”
“그러고 싶지만, 일단은 물건은 어떻게 됐지?”
그 잠깐동안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카롭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을 보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다. 나름 비밀리에 옮긴 것이었지만 이 녀석의 정보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소식한번 빠르군. 그나저나 여전히 물건 취급하는거냐?”
“그럼 그딴걸 사람취급이라도 하려는거냐, 너는?”
그녀는 나를 절대 이해하기 싫다는 듯 혐오가 담긴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놈이 그걸 어떻게 부르든 내 알바 아니니까. 그래서 쟁여둔 물건의 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나는 한숨을 깊게 쉬고는 그녀에게 답했다.

“본대로 후송시키기로 했다.”

“상부의 의견인가? 개인적인 판단인가? 후자라면 보고는 마쳤나?”

“그래, 보고는 마쳤다.”

“눈동자가 적잖이 흔들리는군. 보고는 마쳤지만 무언가가 있군.”

그녀가 이끄는 부대는 호전적이고 냉혹한 부대로 유명하지만 고문이나 자백을 받아내는데에도 능통하다. 우직하게 진지를 사수하거나 전투교범에 수록된대로 정공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이나 심리전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며 말라죽여 전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오랜동안 쌓아온 날카로운 감각으로 전장을 경험한 부대의 우두머리이니 목소리나 눈동자 심장박동,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진실과 거짓된 움직임이 담겨져있기에 그녀 앞에서 감히 거짓을 고할 수 없었다.

“그래.”

“그래? 대답은 그것 하나 뿐인가? 설명하기 곤란한 처지인가?”

“뭐, 일단은 그렇지.”

“좋다, 더이상 묻지 않으마. 하지만 명심해라. 너와 나는 오랜동안 같

은 참호 속에서 피와 살을 뒤섞은 전우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너도 나도 마르나크의 군인이다. 허튼 짓거리하지마라, 베르셀 랑뒤르."

"변함없이 친절한 건 알아줘야겠네."

"그래."

"그래? 대답은 그것뿐이냐? 루즈 샤르나? 여전히 뷔른경계 수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생각인가?"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는 눈을 가늘게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딴 것들은 네놈의 나약한 부대의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전에 방해가 되는 정보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지."

"배려는 고맙네만, 자네의 잿빛유령 병사들도 인간이야."

"나는 그것들을 인간으로 키운적이 없다."

"잿빛유령은 특공대로 개별통솔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알지만 이번만큼은 유령도 입을 열어야 할거야."

나의 단호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가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짧게 분석을 하고는 이내 입을 열었다.

"진실이군. 아니 그보다 협박에 가깝나. 알겠다. 나도 너에게 살해당하고 싶지는 않으니 적당한 때가 되면 적당한 정보를 풀어주지."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벌한 생각을 하진 않아."

"나보다 살벌한 생각을 하는 것은 너다, 베르셀. 본대로 후송시킨 괴

물들을 가지고 대체 뭘 할 생각이지?”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내 말을 자르고 말을 이어나갔다.

“마취약을 몇대를 쳐박아도 도통 조용해질 기미가 없는 죽다 만 것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건가? 개인 군대라도 만들셈이냐?”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천막을 살짝 열고는 동채를 살핀 뒤 조용히 닫고 나를 노려보았다.

“…혼자 꾸민 짓이냐?”

“아니, 그보다 너무 범죄자를 추궁하듯 대하지 말아주겠나?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했다고.”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뷔른 언덕에서 수백구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연루가 되어있겠지.”

“그래.”

“불쾌하군. 네놈은 어째서 그렇게 당당하지? 이제는 굳이 숨길 필요따위 없다고 여기는건가?”

“나의 의도를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게. 나는 그저 죽은 전우가 능욕당하기 전에 당국에 무사히 송환시키고자 했을 뿐이네만?”

그녀는 역시 나를 관찰하려는 듯 가만히 쳐다보고는 내가 전우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진의를 읽었는지 머리를 박박 긁으며 내게

말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잘 알고 있겠지?”

“…그래.”

“그렇다면 됐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어도 마르나크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아닐테지.”

“미안한 이야기지만 마르나크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다. 총사령부 안에서 강철의 심장을 지니고 있는 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니 지금 불경한 것들은 물론이요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로부터 전선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정작 무엇을 지켜야하는지 모른채로 무의미하게 목숨을 던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것이 사선에서 고통과 공포에 뒤섞인 전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예우인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맞는 말이군. 전부 털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들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싶다. 너한테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아왔으니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 가도 좋아.”

“내가 전선에서 너보다 늦게 발을 뺀 적이 있었나?”

“딱 한번 있었지.”

억지스러운 나의 미소와함께 짧은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밖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천막을 부드럽게 열고 들어왔다.

“음! 역시 있었나? 마누라도 같이 있군, 좋아!”

“누가 마누라야, 정신나간 노인네야. 죽고싶나?”

“그래 그래, 고생이 많아. 제군들.”

오고간 대화는 몇마디 안됐지만 그 짧은 시간에 부대 수뇌부인 우리들을 정신 나가게 만들 정도로 미친작자는 우리가 풋내기 병사이기 이전부터 전선에 평생을바친 사령부 인사장교 조쉬 맥마흔이었다.

“그래서 고기는 어디있어?”

그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묻자 나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나는 물건취급에 하나는 고기취급이라니. 그것을 대하는 관점은 참으로 다양하구만.”

“그게 고깃덩어리가 아니면 뭔데? 아니, 그보다 그래서 유통은 제대로 되었냐고 묻잖아?”

“아, 제대로 보냈다니까! 영감님, 거 참 급하시네.”

“나이도 얼마 차이 안나는데 영감님이 아니라고 몇번을 말해! 이 얼간이새끼들아!”

그렇게 씩씩거리는 조쉬가 테이블에 있던 장구류를 쓰레기 쓸어버리듯 치워버리고 그 위에 서류 무더기를 우리 앞에 촤르륵 펼쳐보였다. 그리고는 뒤틀린 웃음을 지었고, 시를 읊는듯한 연기를하며 말했다.

“베르셀 랑뒤르 대장! 당신이 전우들을 아끼는 그 따스한 마음은 죽은

이들을 감화시키고 그 넋을 기리고도 남았도다!"
우리는 큼지막한 종이쪼가리를 조용히 눈으로 훑어봤고 그것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루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과 우리를 번갈아 뜯어보았다.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미간을 쥐며 내게 말했다.

"자신의 손에서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을 여전히 무서워하는군."
"알아. 나는 겁쟁이이니까."

"이것을 내게 보여준 의도는 무엇인가? 공범이 필요한가? 아니 애초에 나도 이것을 눈에 담은 시점부터 공범인건가?"
그 말을 들은 조쉬가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용히 루즈에게 다가가 그녀의 망가진 옷깃을 고쳐주고 어깨를 털며 말했다.
"공범? 아니지, 이것은 강철의 심장이라는 이름의 증명일세."
"만지지마."
그녀가 불쾌하다는 듯이 노려보고 손을 뿌리치자 조쉬는 지레 겁을 먹은 듯이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꽤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근사하게 포장했군, 너희들. 군법회의로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반역이다."
"각오는 되어있다. 그리고 조쉬가 말했듯이 이건 강철의 심장에 대한 존경과 예우이다."

“그런가…. 조쉬가 아니라 먼저 이 미친짓을 제안한것은 너였나?”
“그래, 약한 놈들은 약한 놈들만의 방식이 있다고들 하잖아?”
“극단적인 그 방식으로 결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거다.”
“비난의 화살따위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데 별개로 잿빛유령의 네가 극단적인 방식을 논하는 것도 참 웃기지도 않네.”

“물러터진 놈아, 비난만 받으면 다행이겠지. 전우를 생각하는 네놈의 따사로운 마음 때문에 국가간의 대립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거다. 이쪽의 극단적인 방식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희생이고, 네놈은 국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굳이 내가 직접 이야기 해주기 전에는 모르는거냐?”

“좋아. 그렇게나 원한다면 불경한 것으로 변해버린 내 머리통에 속 시원하게 총알 한방 쳐박으면 그만 아닌가?”
“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마라.”
서로 날을 바짝 세운채로 목소리를 높혀가며 신경전을 벌이고있자 중간에 조쉬가 가만히 우리 둘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이, 등신들아. 사랑하는 전우니 국가간의 대립이니 일단 살아남아야 비난도 수용하고 전사의 명예도 지키는거지. 저런거에 물어뜯겨 죽고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니까?”
손으로 목을 치는 시늉을 하며 의외로 정상적인 발언에 우리가 멍하니

조쉬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답답해하던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혔다.

“그래서 할거야? 말거야?”

“루즈?”

“애초에 나는 여기에 없었던 사람이다.”

“…항상 신세를 지는군.”

내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녀는 내 인사를 무시하고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천막을 거세게 치며 밖으로 나갔다.

“날씨 한번 지랄맞네.”

뷔른언덕은 비가 많이 온다. 그저 많이 온다라는 표현조차 무색할 정도로 하늘을 찢고 물이 쏟아지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녀가 나간 뒤 멀어지는 소리를 확실히 확인하자 조쉬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네 뒤치다꺼리를 해주느라 고생이 많군.”

“음! 나와는 다르게 여전히 좋은 녀석이야.”

“너도 생각보다 좋은 녀석이야. 착한녀석들을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만든 이 미친세상이 그리고 수뇌부가 나쁜거지.”

내가 나지막히 한 말에 수다스러운 조쉬는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말을 아끼며 제법 어른스러운 말을 남겼고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천막을 걷고 지휘소를 나갔다. 추적거리는 빗소리와 함께 조쉬의 휘파람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시끌벅적했던 이전과 달리 텅 빈 곳에 무겁게 깔려있는 공기가 답답해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다.

“좋아, 아주 좋아.”

『 야만인의 대화법 』

산 아래를 거느리며 느낀것은 너무나 포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유쾌한 감상은 아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지 않고 살이 베일듯한 칼바람이 존재하지 않아 피부를 스쳐가는 모든 감각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뎌지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따스하고 포근하여 눈 닿는 여기저기 생명이 움트고 있었지만 왜인지 힘찬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가기 위해 약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기에 거기에 마지못해 자라나고 삶을 다하는것만 같았다.

“보라, 셀라! 산 아래에 이렇게나 많은 생명이 피어있다.”

양팔을 활짝 펴보이며 소리치는 아비의 외침에 나는 감상에 젖어있다 침대에서 떨어지듯 놀라며 문득 깨어난다.

“아아, 그렇소. 그렇지만 왜인지 숨이 막힐듯 답답한데?”

“네가 느끼고 있는 그것은 처절한 생존감과 기민한 감각의 결여에 대한 거부감이니 개의치 말라.”

“그래.”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무슨 말이지?”

“이 풍경에 취하여 윈뒤르강의 품은 전사의 모습이 바래져 나의 도끼날에 너의 피를 묻히지 않아도되니 말이다.”

“늙으니 대가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것인가? 재앙이 이끄는 윈뒤르강에 그렇게 무른 전사따위 있을리 없다.”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농담이라도 감히 윈뒤르강의 전사들을 얕잡아보는 말투에 심기가 불편하여 입밖에 나온 말 한마디에 날이서려있었다. 아비는 그 싸늘한 시선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
“멋지군! 과연 너는 재앙의 딸이로다.”

“그 이명은 언제들어도 즐겁지 않군. 언제나 말했듯이 나는 재앙의 딸이 아니라 재앙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성급하군.”
아비는 발걸음을 멈추고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는 도끼를 만지작거리면서 허리를 잔뜩 낮추었다. 그의 몸에서 윈뒤르강의 품에서 느낄 수 있을만큼의 서늘함이 피부에 닿아 소름이 일 정도였다. 다만 그것은 나를 즐겁게했다. 이 서늘한 감각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나는 조용히 두리번거리다 눈에 보이는 나무를 깨부수고 대충 손에 잡기 좋게 찢은 뒤에 그를 보고 말했다.
“확인해 보시던가.”
“그만두지. 일단은 할일을 끝내고 난 뒤에 원없이 놀아주마.”
“언제든 좋다. 아, 이건 뭐. 지팡이로 쓰시던가.”
내가 연장자를 배려하는 척을하며 손에 들려있던 나무를 그에게 던졌

고,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것을 가볍게 찢어버렸다.

“하하! 건방진 애새끼가.”

“하지만 왜 지금인가?”

“대화를 하러 가는 것 말인가? 궁금하지 않은가? 눈이 멀 듯한 따스한 빛 아래에 만인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말이다.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입을모아 저 빛을 이르러 구원이라 부른다더군.”

“저것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대지를 밝게 비추고있지 않았는가? 어째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저 빛을 구원이라 고개 숙이는지 모르겠군. 고개를 숙이고 두려워하는 것의 이름은 오직 재앙일진대.”

내가 불쾌한듯이 말하자 아비는 또다시 우렁차게 큰 웃음을 던진다.

“옳다, 셀라! 이 얼마나 불쾌한 그림인가? 세상 어느 구원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단 말인가? 구원이라는 이름이 울겠군.”

“그래, 내게는 차라리 협곡의 눈보라가 더욱 안락하게 느껴진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니.”

“재앙도 아니다 그렇다고 구원도 아니다. 허면 그대는 저것을 무어라 부르겠느냐?”

“모른다. 하지만 불경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그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기에 대화를 핑계로 구원이라고 부르짖는 것을 부수러 온 것이겠지.”

“아니, 일단은 들어볼 것이다. 그것이 구원인지 재앙인지.”

“그런가. 굳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한다면 나는 저주라 부르겠다.”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하는데….”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겁쟁이라도 되셨나?”

“죽고 싶나? 그저 죽여야 할 것이 그것말고도 넘쳐나는데 굳이 하나 더 늘려봐야 피곤할 뿐이라는거다.”

“죽여야 할 것이 넘친다면야 오히려 두팔벌려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니던가? 그렇게 약한 소리만 지껄일거면 재앙의 자리를 내놓으시지.”

주변이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로 외치자 아비는 즐거운듯이 더욱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저주를 죽여본 적도 없잖나? 이 멍청한 것아!”

그렇게 우리는 밤낮으로 서로의 나약함과 무지몽매함을 비웃었고, 얼마 지나지않아 아벨의 방벽이라 불리우는 울타리가 눈에 들어왔다.

“저게 이전에 말한 아벨의 품이라는 물건인가?”

“그래. 저것이 그들을 가두려는 것인지 지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불경한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고 여긴다더구나.”

아비가 측은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차며 내게 말했다.

“저딴걸로 무얼 어떻게 막는다는 것이지? 진심으로 저 돌무더기 따위로 재앙이나 저주따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기는건가?”

한껏 기분좋게 웃어제끼던 아비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내게 말했다.
“까불지마라, 멍청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이라면 무릇 살기 위해서 그들 안에 품어온 것들이 하나는 남아있기 마련이다. 벌레새끼 하나라도 의심하고 두려워해라.”
“…그래, 고맙군.”
그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무거운 진실만이 담겨져 있었다. 그의 말과 함께 서늘한 공기가 일었지만 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벨의 방벽이라는 곳 주변에는 불경한 것들의 경로를 막기위해 무수히 많은 철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벨의 방벽을 통행하는 이들의 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벽을 앞에두고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기분 나쁘군.”

한참을 상념에 잠겨 있을때 어느덧 문 앞까지 도달했고 초소 앞에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우리가 그 앞에서 서자 입국관리소에 있던 이는 누가봐도 수상한 차림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어디론가 급하게 교신을 하고 있는 듯 보였고 그것은 꽤나 길었다.
“그냥 부수고 들어가면 안되는가?”

“윈뒤르강을 떠나기전에도 대화를 하러 간다고했지, 전쟁을 하러간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그가 호탕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잠시 뒤에 관리소에 근무하는 이가 아비를 반겼다.

“멀리서도 오셨군. 용무는?”

“기도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군.”

“듣자하니 상투스는 물론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달갑지않은 방문인 것 같다만 야만인들은 외교를 항상 이딴식으로 하나?”

“대화를 하고자 이곳에 왔으나 재앙을 바라면 마다하지 않겠네만.”

아비는 여전히 사람좋은 얼굴을 하며 그를 협박조로 몰아붙였다. 그러자 그는 못이기는 듯 불쾌한 얼굴로 종이쪼가리를 우리에게 던지며 소리쳤다. 그는 처음부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다음!”

“뭐가 문제야, 저새끼는?”

내가 잔뜩 짜증내면서 가래침을 내뱉으니 아비가 웃으며 말했다.

“뭐, 대충 문지기 같은거다. 일일히 그딴거에 신경을 쓰지마라.”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러 가는건가?”

“그래,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을 맞이하려면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할테니 조금 서두르지.”

그리고 우리는 왜인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상투스를 향해 묵묵히 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우리는 마침내 오직 대화를 위한 목적지인 상투스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감상은?”

“이슬록 술에 잔뜩 찌든 것 같이 몽롱한 기분이군. 기도하는 이들이 정녕 원하던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어디 산 속의 야만인들따위가 구원의 빛을 이해하겠는가?”

그는 무엇이 재밌는지 낄낄대며 나의 신경을 긁어댔다.

“이것이 진정 아벨의 자손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면, 무릇 그것은 모두를 비추어야함이 마땅한 것일진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아벨의 자손이 아닌것인가?”

“구원의 빛이 너를 감싸지 않는것이 두렵더냐?”

그가 눈을 게슴츠레뜨며 가만히 생각에 잠긴 내게 물었지만 나는 그것을 들은체도 하지 않고 중얼거렸다.

“상투스가 부르짖는 구원의 빛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 요량따위는 없는건가?”

“셸라!”

아비는 내 뺨을 시원하게 후려갈기며 깨웠다.

“어어! 고맙군!”

흐르는 코피를 흥하고 풀어냈고 그 한방으로 한결 후련해진 내 표정을 보더니 아비는 고개를 한번 힘차게 끄덕이고는 내게 말했다.

“좋아.”

아비는 내 상태를 보려는지 여기저기를 한번 훑어보고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안심이 된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한번 뺨을 시원하게 후려갈겼다.

“이런 씨발!”

그 꾸짖음에 나는 내 나약함을 분노의 욕지거리와 함께 시원하게 토해냈다. 아비는 그거면 됐다는 듯이 고개를 다시한번 힘차게 한번 끄덕였다. 내가 상투스 대교회 앞 광장 한 가운데에서 하늘이 찢을듯 욕을 퍼붓자 광장에 있던 이들은 우리에게 향해있던 시선을 거두며 그 곳을 피해 어느새 하나 둘 발걸음을 옮기며 조심스럽게 그곳을 떠났다. 아직도 분을 삭히며 씩씩거리자 아비는 다시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다마다! 참으로 오만하지 않은가? 그 누구보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이들이 무릎꿇고 바닥에 대가리를 쳐박는 꼴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건가? 이것이야말로 희생의 잘못된 굴레가 아니겠나? 그렇지 않나, 셀라?”

“어어! 사람을 가지고 노는것도 적당히 해야지!”

온몸에 살기를 두르고 있음에도 우리를 향해오는 무리가 저만치서 상투

스의 사제로보이는 이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도착한 사제의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입을 뗐다.

“한참전부터 초소에서 받은 보고를 통해 오시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곳부터는 저 바레스가 친히 대교회 내부로 안내하도록 하죠. 그리고 굳이 언성을 높이시지 않아도 저희는 충분히 당신들의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아비는 도끼를 한번 하늘로 크게 높이 쳐들었다가 광장 바닥의 타일이 개박살이 나도록 세게 떨구었다. 바레스의 뒤를 따르던 사제들은 차마 중심을 잡지 못하여 휘청댔고 바레스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잔뜩 굳은 모습을 했다. 아비는 뒤를 돌아 나를보며 고개를 까딱거렸고, 나 역시 가지고있던 수많은 무기를 바닥에 쑤셔박았다. 그리고 나는 아비에게 턱끝을 한번 까닥 들어보이며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했다. 아비는 신이나서 낄낄거리더니 바레스와 그의 사제들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좋아, 안내해라.”

그렇게 우리는 상투스의 내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화려한 창문으로 환하게 비추는 빛은 어째서인지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눈보라 속 피워둔 화톳불이 더 안락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이질감에 나도 모르게 살기를 드러내며 이를 갈고 있었다. 아비는 내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껄껄대며 겁에 질린 고양이라고 놀려댔다. 시끄럽게

대성당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존재를 신경쓰지 않고 죽은듯이 기도만 올리고있는 신도들의 꺼림칙한 모습에서 빛의 축복과 구원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데 한 몫했다. 신부라고 부르는 놈의 안내에따라 우리는 대성당 깊은 곳까지 자리했다. 그곳에는 위엄있는 척하며 빛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사제들이 투기장처럼 우리를 에워싸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으시지요.”

우리는 그가 안내한 자리에 앉았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잔뜩 경계하고 있는 나에 비해 아비는 태연한듯 팔짱을 끼고 앉더니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이미 네놈들의 구원이 도래했는데 어째서 불경한 것들은 아직까지 숨을 쉬며 이곳저곳을 배회하는거지?”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벨의 현신이 이제 막 강림하신 것 뿐일진대 너무 성급하신 것은 아니신지? 아니면 북부의 용맹한 발루께서 쇠약해져 도움이라도 청하러 이곳까지 오신것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줍잖은 도발이다. 세상 어느 멍청이가 그런 한심한 도발에 넘어가겠나 묻겠지만 그 말은 결코 재앙의 앞에서 놀려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하하! 우리는 네놈들의 한심한 햇살을 비웃으러 온 것일 뿐이네. 애

초에 선택받은 것들의 헌신따위를 좀먹고 자란 버르장머리없는 애새끼는 이데아의 불경한 것들하나 제대로 뭉개지 못했던게지! 그렇지 아니한가! 셀라?”
나는 입을 비죽거리며 그들의 반응을 훑어보았다. 온화해 보이던 그들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역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만든 이 자리에 온통 애새끼들 뿐이었다. 혹은 우리와같은 냄새가 났다. 이것들도 전부 폭력에 굶주려있지만 가면뒤에 숨어서 아닌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삐딱하게 기대어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비가 내 얼굴 바로 앞까지 들리밀고는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그렇지 아니한가! 셀라?!”

“어! 그래!”
높은 자리에 앉아 여유로이 내려다 보고있는 그들 중 하나가 재앙에게 물었다.
“굳이 조롱을 하기위해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오만 이곳에 먼 발걸음을 한 이유를 물어도 되겠소?”
“조롱은 덤이고 우리는 대화를하러 왔다. 구원을 노래할 것이라면 제대로 지켜 보이거라. 전능하신 아벨의 현신께서 만인을 구원하지 않는

옹졸한 위인은 아닐테니."

"구원은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이오."

"그렇다면 네놈들의 구원은 아벨의 자손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상투스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으뜸이라고 자위하고 싶은겐가?"

"말이 지나치군, 북부의 재앙이여."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의 신부 사제들 모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듯이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제서야 아비는 즐거운 듯 웃으며 신부에게 말했다.

"역시 이 새끼들은 전쟁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겁하게 숨어있군. 그리고 그건 네놈들의 헌신을 빨아먹은 아벨의 현신도 마찬가지겠지."

"신성모독이다."

"네놈들의 살갗만 덥히는 신성이야 내 알 바 아니지."

아비의 엄청난 기백에 방 안의 기물들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진이라도 난 듯이 지축이 흔들렸다. 그리고 내게 대화는 다 끝났다는 듯 신호를 보내자 나는 자리에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말해주마. 네놈들은 아벨의 현신을 만들어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네놈들에게 구원은 물론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놈들에게 아벨의 현신을 돌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주마."

"…야만인놈이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네놈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만 재앙은 재앙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쉽겠구나, 병신놈들아. 이야기는 대충 즐거웠다.”

“멈추어라, 야만인! 그 시간이 지나면 네놈 무얼 어찌할 생각이냐?”

북부의 재앙은 이제 더이상 이 땅에 관심이 없는 듯 그의 말을 무시한 채로 방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나도 짐을 챙기며 그의 등을 따라가다가 돌아서서 한숨을쉬고 찬찬히 그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놈들이 여지껏 굳게 믿어왔던 구원은 머지않아 재앙의 씨앗이 될테니 절망과 배신감속에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따위는 하지 않는게 좋을거다.”

『 친구만들기 』

뼈가 시리도록 혹독한 추위만 제외한다면 하얀 악마들이 사는 곳은 앤섬이 그린 그림과 달리 생각보다 사람사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나무로 지은 오두막 너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뼈와 살이 아파 숨을 크게 한번 쉬고 다시 뱉어냈다.

“으으, 추워.”

내가 앓는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듣고 내 나이 또래의 꼬마가 문을 거세게 열고 집이 떠나라 소리를 질렀다.

“어어! 좋아, 죽지 않았군!”

그러더니 그 꼬마는 크게 웃으며 동물 가죽으로 엮은 거적때기를 내 얼굴에 던졌다.

“하하하! 어디서 굴러먹은 개뼉다구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윈뒤르강에는 죽으러 온거냐?”

“아니, 친구를 만들러왔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았기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건만 의외로 그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더니 내 등을 세차게 때리고는 말했다.

“좋은 자세다! 좋은 벗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지. 잘 왔다, 낯선 꼬마야.”

“에단.”

“그래그래, 이고르. 나는 손데. 손데 요르군이다.”

“에단이라고, 그리고 너도 꼬맹이잖아.”

“말 조심해라. 나는 윈뒤르강의 전사지 너처럼 칼바람 속에서 다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찔찔짜는 애새끼가 아니야.”

“호오. 그러셔?”

나는 그의 말에 건성으로 대충 화답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그 곳에는 긴 은발의 여인과 더벅머리를 쓸어올려 고정시킨 남성이 있었다. 둘 다 빼어난 얼굴과 건강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나도 모르게 넋을 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슬그머니 피하며 말했다.

“구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나는 어색하게 허리를 쭈뼛쭈뼛 굽히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게 말을 건넸다.

“밥이나 먹고 가라,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잔뜩 경계하며 눈치를보자 앉아있던 남자가 의자를 슥 꺼냈고, 고기 한 점을 입에 억지로 구겨넣으며 말했다.

“먹어.”

“…응.”

내가 조용히 앉자 시끄럽던 꼬마도 내 옆에 앉아서 스프를 먹기 시작했

고, 나는 다시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보다가 정신없이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입에 꾸겨 넣었다. 그리고 갑자기 다시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글썽거리다 흐느끼며 울었다.

“맛있어.”

예쁜 얼굴이지만 항상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녀가 가벼운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 옆의 꼬마에게 물었다.

“알가프, 이딴건 어디서 주워온거야?”

“골 페이간 능선에서 주웠어.”

“내 말은 왜 주워왔냐는거야.”

“그냥, 재밌어 보여서. 이딴건 죽여봐야 먹을것도 없잖아. 가죽이라도 벗겨낼까해도 쓸만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녀석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여기에 왔다지뭐야.”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의 눈은 동그랗게 커지고 서로 시선을 교환하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는 다 먹은 그릇에 수저만 이리저리 굴려대고 있었다. 한참을 웃던 여인은 눈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네. 마음에 들었다. 죽지나 마라.”

“고마워. 하얀 악마의 품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자상하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은 내 친구가 되어줄수 있어?”

내가 주춤대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연하….”
남자는 기쁘게 내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여인은 장난스럽게 눈을 가늘게 뜨면서 싱긋 웃었다. 그리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는 저지하더니만 다시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윈뒤르강의 하얀악마 곁에는 너만한 또라이 새끼가 하나 더 있거든? 그것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너희들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금방 가까운 친구가 될거야.”

“정말?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러 얼마전에 산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아마 오늘 태양이 능선 한가운데 솟아오를때쯤 돌아올걸?”
“고마워. 음 가진게 없어서 일단은….”
나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아즈메아 동굴 주변에서 주워서 간직하고 있었던 돌맹이를 여인에게 건네주었고, 그 돌멩이를 건네받자마자 그것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환한 표정을 하며 말했다.
“어머나, 예쁜 쓰레기네. 고마워라. 잘 간직할게.”
“응, 고마워!”
그것이 비꼬는 것이라는 걸 나중에 그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지만 그 상황을 여전히 즐기고 있었던 그녀였다. 그리고 그게 친구라는 것도 덧붙

였고 예쁜 쓰레기에 대한 보답으로 윈뒤르강의 칼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만한 두꺼운 가죽외투와 털신도 챙겨줬다. 나는 다시 어색하게 허리를 굽혀서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들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됐으니까 그럼 얼른 저 꼬맹이도 데리고 나가. 시끄러운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꼬마와 함께 그 곳을 나왔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나는 네가 저 사람들 자식인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나봐. 불쌍한 부부지. 여자가 불경한 것들을 쳐죽이다가 하복부가 찢어 발겨지면서 내장이 개박살이 났다지 뭐야. 그 뒤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더군.”

“너는 그 부부에게 참으로 좋은 친구구나.”

“그렇다마다! 너도 원한다면 나의 친구로 삼아주마.”

“오!”

“어떠냐?”

“싫어.”

“씨발!”

시원하게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의 표정은 왜인지 모르게 즐거워보였다. 더불어 그의 자유분방함은 무겁게 가라앉은 나의 아픈 기억들을 무심하

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남자가 소개한 사람과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모르지. 너 하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윈뒤르강의 재앙과 친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또 다른 친구를 사귀러 다른 곳으로 갈거야.”

“옷깃만 스치면 친구라고 생각하는거냐, 너는?”

“그렇게 되어서라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않아?”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음! 그건 좀 멋지네! 이 몸을 친구로 받아주지 않는건 열받지만.”

그렇게 우리는 남자의 소개로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자리하고 있는 거처에 도착했다. 조금 일찍 도착한 탓에 나와 함께 길을 안내하던 손데는 조금 기다리다 하품을 하고 몸이 근질거렸는지 활기차게 작별인사를 고하고는 산길 아래를 활공하듯이 내려갔다. 나는 그의 거처 주변에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휴식처로 보이는 곳에서 칼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그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몸의 털이 곤두서고 있었다. 그것은 오한 때문이 아니라 저것이 자연스럽게 뿜어내고 있는 위협에 대한 보호본능 때문이었다. 그것의 살기에 잡혀 먹히지 않기위해 온 몸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굳이 내가 모습을 드러내

지 않아도 그것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저것이 진짜 하얀 악마인가?”

더이상 내 몸을 숨겨봐야 의미가 없다고 느낀 나는 문을 열어제끼고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몸을 낮게 깔며 으르렁거렸다. 그러자 그는 여유있는 태도로 그녀를 밀어제끼면서 제지시켰고 거대한 것이 어깨를 뿌득거리며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오래 기다렸나?”

“아니, 별로.”

“남길 말은 있나?”

“응! 이름은 에단. 나는 친구를 사귀려고 왔어.”

내 말에 저 둘은 사고가 고장이 난 듯 움직이지 않고 죽은듯이 조용히 있다가 미친듯이 웃어대기 시작했다. 아까와도 같은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조금 다른것은 그것들의 웃음은 벼락이 내리치고 천둥이 협곡을 거대하게 메우는 듯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 조그만 새끼가 방랑의 손데가 말했던 정신나간 그놈이었구나!”

그 옆에서 같이 호탕하게 웃는 여인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이 새끼는 지가 무슨 말을 지껄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역시나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다. 다들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아니, 실제로도 틀린 말은 아니다만. 그렇게 한참을 웃어대

던 산처럼 커다란 남자는 웃음을 머금은채 내게 물었다.

"그래, 이룬드.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딴 잠꼬대를 하는거냐?"

"에단! 그리고 누군지 몰라. 하지만 당신이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방금 사귀게 된 산 아래 통나무집 부부가 내게 말해줬어."

"크하하하! 알가프랑 폴카 그 녀석들인가?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 애새끼들처럼 장난질을 좋아했지. 그래서 이새끼가 나한테 온거군."

"아! 그렇구나. 알가프이랑 폴카라는 이름이었구나."

"하하! 이름도 모르는게 무슨 친구라는거냐, 꼬마야?"

"음, 그건 내가 잘못한거 같아. 내려가기 전에 사과해야겠다."

내가 그의 말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 화라도 났는지 그가 여전히 웃음을 머금은채로 몸의 털끝을 곤두세우며 내게 말했다.

"누가 여기에서 내려가도 된다고 했지?"

"미안해. 하지만 나는 최대한 많이 친구와 사귀고 울고 웃으라고 오랜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화가 났다면 사과할게."

내 태도에 그는 흥미가 동나기라도 한 듯 살기를 거두었다.

"됐어, 임마. 꺼져."

"안돼, 하얀악마 곁에있는 여인과 친구하기 전에는 못가."

내 고집과 함께 주위의 공기가 진동하며 웅웅거렸고 칼바람은 나를 피해 불었다. 그 모습을 보고있던 여인은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짐승

처럼 나를 노려보았고 하얀악마는 아이같은 눈을 하더니만 즐겁게 나의 진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푸하하! 뭐야, 이새끼 진심인가?”

“그래, 그리고 앤섬이 하얀 악마와는 물론이고 그의 곁에있는 여인과도 친구가 될 수 있대.”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군. 그래서 그게 네 보모라도 되나?”

“아니, 죽었어.”

“흠, 그래서 이곳까지 발걸음하여 친구를 만드는 중이시다?”

“응! 알가프랑 폴카 그리고 당신과 당신 곁의 여인까지하면 벌써 네명이나 사귀었어! 날씨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여긴 따듯해.”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네놈의 소꿉놀이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와서 이 지랄을 하는 이유가 뭐지?”

“앤섬이 그랬어. 죽을 때 울어줄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나도 모르는사이 어느새 그와 오랜 친구처럼 둘러앉아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곁에 함께 있었던 여인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앉아 말린 고기를 우적우적 뜯어대며 듣고있었다. 무서워.

“나쁘지 않군. 하얀 눈에 뿌려진 핏방울이 내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언제나 들어도 멋지고 설레는 일이다마다!”

“오! 그럼 너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거야?”

“내가 왜? 너 정말 등신이냐?”
“그래, 그렇구나. 방해해서 미안해. 그럼 안녕.”
내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어깨를 툭 떨군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려하자 하얀 악마는 호탕하게 웃으며 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너같은 애새끼가 감히 재앙과도 같은 나와 친구라며 어깨를 견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거냐, 얼간아?”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왜 그리도 서러웠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너같은 애새끼한테는 애새끼가 있어야하는게 당연하잖냐?”
그리고 그는 그의 곁에 있는 여인에게 어깨에 팔을 거세게 올리고는 내게 소리쳤다.

“여기 재앙의 딸 셀라가 너와 함께 피를 흘릴 벗이 되어줄게다!”

“아니 잠깐. 씨발, 내가 왜?”
영문도 모른채 느닷없는 그의 돌발스러운 행동에 그 여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가 싱긋웃으며 어깨를 거세게 후려치자 그녀는 머리를 박박 긁으며 못이기는 듯 내 앞까지 다가왔다. 가까이서 바라본 여인의 얼굴은 예뻤지만 여기저기 난 상처와 험상궂은 표정까지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 그녀는 커다란 손을 쭉 뻗더니 내 머리통을 세게 움켜쥐었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반갑다, 근본도 없는 애새끼야. 내 이름은 셀라. 어디가 되었든간에

네놈과 함께 피를 흐드러지게 뿌려주마.”

“…으, 으응. 고마워! 셀라는 자상하구나!”

그렇게 말하자 인상을 더욱 험악하게 구기고있는 그녀를 보다가 나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예쁜 조약돌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뭔데, 이 쓰레기는?”

“이건 친구라는 증표야. 오다가 예뻐서 주웠어.”

“그런가…. 기다려라.”

그녀는 뒷춤에서 칼을 꺼내어 살을 찢고 그 피를 손에 흠뻑 묻힌 뒤에 조약돌을 엄청난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러자 조약돌은 짓뭉개지며 피와 함께 섞여 검붉은 어여쁜 색을 한 돌맹이가 되었다. 그녀는 어렵지않게 그것을 반으로 쪼개며 여전히 무서운 얼굴로 내게 던지며 말했다.

“나머지 쓰레기는 네가 쥐고 있는거다.”

그 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다. 그렇게 이상한 교환을 뒤로하고 하얀 악마는 호탕하게 웃었고 산사태가 일었다. 뒤이어 나를 그녀와 함께 거친 사람들로 가득한 술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곳에서 물인줄 알고 들이켰던 독한 술 한 모금에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포근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와함께 퍼지는 악기 연주, 그리고 시끄러운 녀석들의 고함과 웃음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 재앙을 이끌고 셀라는 밖으로 나섰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협곡의 바람속에서도 찰랑이는 은발을 흩날리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속에 더 오래 담아두고 싶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는 큰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이대로 빛을 꺾으러 간다. 함께 갈테냐?”

그 말에 나는 너무나도 기쁜나머지 대답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거칠고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전사들을 바라보며 순간 피오르의 파랑새들이 뇌리에 스쳐지나갔다. 이 행복을 절망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어두운 세상의 이면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 두 눈에 담고 있다. 나는 잠깐 주춤하다가 이내 숨을 고르게 내쉬며 그녀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셸라. 아주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러자 그녀는 내 표정을 가만히보더니 눈을 이글거리며 흡족한듯한 미소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전설속의 하얀악마처럼 눈보라에 휩싸이더니 어느새 보이지 않을정도로 짙게 휘몰아쳤다. 하지만 저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바람과함께 내 머리칼을 가볍게 스쳐지나갔다.

"어어!"

『 확실한 경고 』

“우드득.”

불경한 것의 대가리에 박혀있는 검을 거두자 검 끄트머리부터 연기처럼 흩날리는 빛의 조각들이 먹구름 잔뜩 낀 검은하늘과 대조되면서 한참을 밝게 주위를 비추며 쏟아졌다. 그렇게 짧은 감상을 마치고 조용히 흐드러지는 빛안개를 맞으며 한숨을 길게 내쉰 뒤에 검의 손잡이를 조용히 품 안으로 거두었다.

“조금 쉬었다 갈까?”

아가뜨가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이 되는 듯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그녀에게 답했다.

“아니, 서두르자. 이제 곧 상투스에 닿을 거니까.”

“그래. 하지만 아무리 계시가 이끄는대로 향하는 거라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상투스로 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계시에서도 우리더러 상투스의 방패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 그저 우리는 우리가 엳본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을 전달하는 것 뿐이지.”

“나도 알아. 하지만 오랜동안 아벨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온 나라에 직접 발을 딛고 다른 종교를 그들이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미 우리를 내쳐버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만큼 우리는 오랜동안 기다려왔어. 우리는 그들에게 변화를 바래서

계시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바와 아다무스가 바라는 것이 그들의 몰락이 아니었기에 함께 인내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

근심어린 표정으로 할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하는 표정을 슬쩍 보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말이 있으면 해."

"상투스에 가서 계시에 대한 소통을 하고나면 네가 잠시아르카나 엳본 선명한 계시라는 것의 풍경이 조금은 달라질까?"

그녀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의 뚜렷한 마지막의 계시의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안한 내일을 보이고 싶지않은 나의 변덕때문에 여전히 내 입은 절망을 내뱉지 못했다.

"그건 아직 모르지. 우리는 이제 겨우 계몽의 움직임에 한 발자국 옮겼을 뿐이니까."

그리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져 나는 그녀에게 눈짓을 하여 잠시 쉬자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주변의 무너진 폐허에 몸을 기대어 앉았다. 그리고 그녀도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다가 무심한듯 물었다.

"할 말은 그것뿐이야?"

그녀는 턱을 괸채로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불씨를 더 키우기 위해 화톳

불에 나뭇가지를 대충 던져버리고는 얼굴도 보지않은채 입을 뗐다.

“아니, 더 있어. 우에노른을 떠나기전에 강인했던 너의 뒷모습은 어디가고 지금의 너는 내가 알던 쟝이 아닌것 같아.”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전보다 강해지지 않았다면 불경한 것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맞아, 확실히 이전과 달리 강해지긴했지. 하지만 뭔가 벼랑끝에서 급하게 강해지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야? 회의감 때문이야? 아니면 증오? 그것마저도 아니라면 혹시 분노 때문인거야?”

“음. 그런가, 아무래도 나는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

“무엇으로부터?”

“계시는 우리를 옭아매기 위해 존재하는건가? 그런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스스로 계시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야만 하는거지? 웃기지않아? 계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역경의 형태를 알려주지만 그것으로부터 나아갈 방향을 택하는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의 몫이었어. 지금처럼.”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는 내게 말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것치고는 내게는 오히려 네가 계시에 지나치게 시달리고 있는것처럼 보여. 악몽처럼 말이야. 마

치 계시가 옳았음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뭔가 반대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것같아.”

“그렇지 않으면 내 뒤로 바스러진 생명이며 내가 놓아버린 꿈과 귀중한 무언가를 스스로 부정할것만 같아서 더 그런가봐.”

그녀는 잠시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다 이내 다시금 밝은 얼굴로 내게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내게 속삭였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을 전도하는 우리가 굳이 우리 몸을 불살라가며 무언가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배웠잖아. 무수히 많이 쏟아지는 계시안에서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을 찾아 걸으면 된거야.”

“그런걸 배웠나? 글쎄 이론적인 것에 약해서 말이야. 율법을 교통하는 가운데 나는 항상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

그녀의 위로가 내 가슴을 후벼팠다. 열렬한 복음의 전도사이지만 그녀는 우습게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연결고리에 묶여있지 않았기에 기적의 끈으로 엮인 검을 휘두르지도 방패를 짊어질 수 없다. 서로다른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어울리지않는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잠깐동안의 내 고뇌를 가벼이 부순것은 그 뒤에 그녀의 말 한마디였다.

“괜찮다면 인내의 길을 걷고 난 그 끝에 울타리를 때려 부수자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처럼 신이나서 대답하는 아가뜨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좋아!”
금새 밝아진 나의 목소리에 그녀도 기분이 좋아진 듯 우리는 무너진 폐허를 이불삼아 대충 벽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고 다음날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부지런히 상투스를 향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없이 상투스에 닿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아벨론의 주변에는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이후로 불경한 것들의 움직임이 확실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양이었다. 폐허에서 머무는동안 아무런 위협이 없었던것도 그 때문이겠지.

“이렇게나 따스하고 안락한 빛조차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허무하네.”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내일을 보지않고 다만 오늘 이 포근한 별 아래엥서 편하게 쉴 수 있으련만.”
내가 씁쓸한 웃음과 허망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도 받아주려는 듯 나서서 한마디 거들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위로였다. 상투스의 대교회 앞에 다다르자 웅장함 만큼이나 무너진 광장이 눈에 띄었다.
“뭐지 이건? 벼락이라도 떨어진건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내게 말했다.
“이렇게 넓게 내려치는 벼락이 세상에 어디있어?”
“하하, 그런가. 너무 피곤한 탓에 헛소리가 다 나오네. 귀찮지만 그래도 계몽을 위한 전도는 마치고 가까운 여관에서 좀 쉬어야겠는걸?”

한참 긴장이 풀려 온몸이 삐걱거리고 있을즈음 잠시의 달콤함을 억지로 깨우려는 듯한 목소리가 어깨너머로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본 그곳에는 상투스의 사제 한 무리가 있었다.

“형제자매님들, 늦은 시각이오나 잠시만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내가 잔뜩 경계의 눈빛을 하고 은빛의 빛안개와 함께 임전의 태세를 갖추자 아가뜨가 나를 저지하고 앞에 나서 그들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저희는 그저 상투스에 빛의 여로라 불리우는 여러 명소들을 둘러보러 온 것일 뿐 문제를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경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황혼녘의 사제들로부터 서신을 받았으니까요. 에두에르의 사절단으로 두명의 전도사들이 이른 시일내에 상투스에 닿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언제라고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가뜨가 침착하게 사태를 파악하려하자 사제들이 일제히 빛을 드러내었고, 그녀와 말을 나누었던 사제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협박이자 경고의 신호였다.

“실례지만 인사가 다소 늦었습니다. 저는 상투스 중앙대교구 6구의 교구장인 앙누 작센이라 하옵니다.”

“이름으로 보아하니 아벨론 출신이 아니로군요, 당신.”

아가뜨의 당찬 물음에 그녀의 눈매가 살짝 실룩했지만 여전히 따스하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웃어보이며 그녀의 말에 조근조근 답하였다.

"잘 보셨습니다. 나는 온듀빌 출신이지요."
"'오르되비르'라면 우에노른의 폐허 중 하나군요. 헌데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의 입김이 가장 세게 불고있는 그곳 출신이 상투스의 사제라니 필시 작센 가문은 신앙의 충돌 가운데 계시로부터 등을 돌린 이들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아가뜨의 도발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녀가 발하는 빛은 조금도 흔들림이나 동요따위없이 고요하고 찬란하게 어둠을 비추었다.
"유감이지만 사사로운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자 그대들 앞에 자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작센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해봐야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너무나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어떻게 아신거죠?"
"그것은 당연하게도 당신들이 전도하는 계몽이나 구원으로는 상투스의 빛과 쉬이 섞일 수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이들로 굳혀진 아벨의 품속에 가슴아픈 빛이 서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가뜨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려는 듯 가시박힌 그녀의 말에 우리는 잠깐 흔들렸지만 그녀의 안내로 우리는 대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웅장한 크기에 압도되었고 두번째로 속삭이는 기도소리 이외에 아무것

도 들리지 않는 숨막힐듯한 고요한 무게에 짓눌렸다.

“이렇게나 거대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저 빛은 어째서 이다지도 무거웁게 짓누르는듯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네.”

아가뜨와 사제들의 뒤를 따라 들어간 예배당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제 6구의 추기경에게 우리는 그간의 계시를 전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형식적이고도 굳게 닫힌 문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렇게 짧고도 긴 회담은 어영부영 마무리되었다. 예배당을 나서며 대교회를 뒤로 하는 가운데 나는 마지막으로 작센가의 그녀에게 경고했다.

“분노가 빛을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도와 수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성배에 가득한 순수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현신이 당도한 이것이 증명하듯 우리는 우리의 빛으로 그 분노를 억누를 것입니다.”

그녀는 두손을 모으며 활짝 웃어보였지만 그것에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웃음이 차가웁고 거짓과도 같이 느껴지자마자 이 곳에 자리한 모든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가슴이 짓눌리듯 아파왔다. 저 웃음도 이 교회와 상투스를 밝게 비추고 있는 저 빛도 모든것들이 거짓으로 다가왔다. 어느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대충 닦으며 욱신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굳이 먼 길을 하셨군요. 성실하게 아벨의 자손들을 보우하기 위하야 이곳까지 닿은 당신들에게 부디 아벨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에는 그 힘이 없다. 이 자는 그저 형식적인 말을 줄줄이 늘여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은 그러하지 않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것을 여럿 낳았다. 하지만처절하게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감내하며 수용하였다.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깨달은 것을 계시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담았지만 그것을 알리없는 상투스에게 우리는 그저 이단일 뿐이겠지만 말이다. 나도 그렇고 아가뜨도 그렇듯이 에두예르의 모든 전도사들이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바라는 것이기에 저들 따위야 어떻게되는 아무상관 없지만, 일단은 계시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조금이나마 저들의 안녕을 바래본다.

“부디 아벨의 강림으로 다가오는 분노가 잠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을 돌려 우에노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계시조차 그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인내하며 그 무거운 짊어지는 것은 언제나 오롯이 우리들의 몫이었다. 나는 어깨에 짊어진 짐을 한번 고쳐매고는 여전히 투덜대며 아가뜨와 함께 걸었다.
“무겁네, 이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반가웠는지 아가뜨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 정상회담 』

여기 깊은 숲에는 빛조차 들지 않았기에 아르카나를 뭉쳐 빛의 구를 만들지 않으면 한치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마저도 아른거리는 잎사귀와 나뭇가지의 흔들림에 의해 시야는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숲 도처에 깔린 시선이 나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경계를 위해 몸에 아르카나를 두르고 있어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필시 인간인 아벨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멀쩡히 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자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온도는 물론이거니와 습도도 높아 온 몸이 땀 범벅이 되었지만 지칠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잠시라도 지친 내색을 보인다면 분명히 나는 이 숲에 먹히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억지로 발을 옮긴다.

“아직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르마엣 산기슭을 헤메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이미 미쳐있던 건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무도 풀도 당연하게도 살아있는 것들이지만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살아있을리 없는 흙이나 모래따위에도 생명이 느껴진다. 나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흙한 줌을 쥐었다 쏟아버리며 중얼거렸다.

“흥미롭군. 이곳에서는 이런것조차 생명의 약동을 하는가?”

“어머니 대자연이 낳은 것이니 당연히 모두가 그녀와 함께 숨을 쉬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다.”

수많은 기척은 진작에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무방비하게 등을 내어 버린 시점에서 죽음의 직감이 잠깐 스쳐갔지만 등 뒤의 그것은 적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간의 언어, 더구나 퀴나즈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며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다만 등을 돌린 상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쉬이 등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살 수도 있음을 동시에 느낀것은 그것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나는 등을 돌리지않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세트의 후예임에도 아벨의 자손인 나를 죽이지 않는건가?”

“미안하네만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자네 목은 갈그로우 우림을 넘자마자 날아갔을걸세. 또한, 불량품의 피를 마구잡이로 이데아에 흩뿌릴 것이라 여기는 것은 모샤에트의 주시자들에 대한 모욕이라오.”

말인즉슨 내가 그들의 땅에 발을 딛은 처음부터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자세로 그에게 물었다.

“그러함에도 나를 살려둘만한 이유는 있나?”

“그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가 있고, 그들이 내게 그대의 안내를 부탁

했기 때문이지.”

그 의중은 아직 모르지만 내게는 반가운 소리였다. 적의는 없지만 우호적인 태도 역시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나는 조용히 등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세트의 후예인지라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그것은 거죽을 두른 것이 아니라 나무의 껍질을 지니고 있었으며 생명의 고동이 힘차게 울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거센 자세로 그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여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오지 않고 숲을 방황하다 죽어 그대만한 이가 거름이 되어준다면야 어머니 대자연은 기뻐하실걸세.”

“의뢰인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고싶군.”

“나는 그저 파발꾼이라오. 내게 무얼 묻는다한들 그대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겠구려.”

그는 내게 헛수고라는 듯 말하며 껄껄 웃어댔고 그럴때마다 육중하게 우드득거리는 소리를 남겼다. 그리고 그는 따라오라는 말 없이 먼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자 나도 파발꾼과 조금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한참을 거친 숲을 헤쳐가다 내가 물었다.

“그나저나 언제부터 세트의 후예가 퀴나즈의 언어를 깨우친거지?”

그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듯이 뿌드득거리는 소리를내며 내게 말했다.

“내 오랜동안 이 땅에 뿌리내렸으니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노라. 어머니 대자연 이데아의 딸 이실그라드가 낳은 아르카나는 그 어미인 이실그라드의 언어이니 그녀의 언어는 어머니 대자연 이데아의 혀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대들이 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초목에 빼곡히 그것을 새겨왔다네. 다시 말하자면 자네들이 그녀의 말을 깨우친 셈이다.”

그 말에 나도 지지않고 삐딱한 태도로 그에게 답했다.

“오랜동안 대지에 뿌리내려 이데아의 젖줄이나 빨아대는동안 우리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은 이실그라드의 푸른 비경을 되찾기 위해 정화하는 업을 이루어왔소. 우리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고동을 되찾을 것이요. 지금의 내가 이곳에 있듯이 말이오.”

“나 구운둘 변두리 숲의 안내자 잔바람의 바고녹스. 파발일을 하며 그 솜임을 다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오. 부디 나는 오늘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오.”

차분한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 아벨의 자손, 퀴나즈의 칼린. 모우샤트의 주시자 잔바람의 바고녹스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는바요. 아무리 의뢰라고 하지만 침입자를 이리도 아무런 제지없이 친절히 안내해주다니 말이오.”

그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않고 등을 돌리며 다시 갈길을 나아갔다.

“좋을대로 해석하시구려. 나는 그저 안내자일뿐. 당신의 접견자와의 조우 이후에 벌어질 일은 나의 소견이 아니니.”

그 대화를 끝으로 한참을 더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사이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만이 이어졌다. 아르카나로 몸을 덮고 있었기에 피로가 덜어져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숲은 항상 어두웁고 고요했기에 시간관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다. 그 뒤로도 우리는 한참을 더 숲을 거닐었고 마침내 모우샤트 산기슭에 도착했다. 도착했다고 느낀것은 내가 그 장소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세 마리의 늑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고녹스는 세 마리의 늑대 사이를 무심한듯 지나치더니 뿌리에 휘감겨 땅 속으로 꺼지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잔바람만이 일렁거렸다.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기적을 맞이한 듯 일말의 피로감도 말끔히 씻겨지는 듯 했다. 그제서야 세 마리의 늑대가 나를 향해 걸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바고녹스가 이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 나는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먼저 입을 뗐다.

“그대들이 나를 맞이하러 온 모우샤트의 전령인가?”

“그렇다.”

“나는 아벨의 자손 가운데 퀴나즈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 말을 가로막으며 그들 중 하나가 입을

뗐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있다.”

“안내인이 그대들에게 아무말도 안하고 사라지지 않았나?”

“어머니 대자연 품 속에서 숨 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이고 귀가 될 따름이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

“그런가? 편리하군.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를터.”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물을것이 있네만. 그대는 고요했던 과거를 깨고 구태여 모샤에트의 주시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바르마엣 산기슭을 향해 발걸음을 한 이유가 있는가?”

“세계수, 생명의 나무인 이실그라드가 전쟁에 신음하며 불경한 것들로 인하야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에 그녀의 상처를 보듬고 불경한 것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이곳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음! 이실그라드라 그리운 이름이로고! 그대는 그럼 그 종자가 낳은 아르카나를 품은 자들 중 하나겠군.”

“아르카나를 아는건가?”

그 말을 하자마자 바고녹스처럼 그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저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아르카나와도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것이 새오나오며 불쾌함이 시각적으로 서렸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주위의 삼림에서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이

다. 그 중의 하나가 분노하던 나머지를 제지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오랜동안 그래왔듯이 그대들도 느껴지는 그것을 아르카나라고 부르는것을 보면 확실히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군.”
“그렇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영원의 전쟁 이후로도 죽음이 가득한 이데아에 생명의 싹이 움트지도 못했겠지.”
“어머니 대자연에 죽음이 가득하다라…. 그대는 뭔가 잘못 알고있군. 우리가 쏟아낸 피와 상처따위로 그녀가 자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이실그라드와는 달리 낙원의 모든 흔적들이 먼지가 되고도 어머니 대자연은 홀로남아 계속 살아 숨쉴걸세.”

“그 사실을 마냥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대자연이 그 자식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죽고 고통받는 걸 바라시지는 않을거요.”

“그것조차 지극히 아벨의 자손 즉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자연의 순환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오. 고통받고 죽는 그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먼지나 다름없지.”
“먼지같은 작은 세계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내게는 더 큰 생명이 느껴진다오. 그저 평등하다고 여기며 방치하는게 생명의 고동을 울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의인가? 필시 이실그라드 역시 생명의 고리에서 허우적대는 것들이 가여워 아르카나를 낳은 것일테지.”

“그저 아르카나에 귀를 좀 기울이는 것 가지고 너무 건방떨지마라.”

“건방을 떠는 것은 그대들이오. 어머니 대자연의 딸을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녀가 참으로 즐거워하시겠소.”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있군. 그녀가 엉겁의 세월동안 빚어온 자연의 순환에서는 딸이라는 것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네, 어린 현자여.”

답답하고 고지식한 자들이로다. 주시자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방관자들일 뿐이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감히 미래를 그리려는 모샤에트의 병신들에게 진저리가 났다.

“이데아는 오늘을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내일 우리의 시체위로 뿌리내릴 생명은 내일의 생명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갈 것이니 그 작은 태동을 자연의 순환마냥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려 들지 말라. 그대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았을지언정 불경한 것들을 정화하며 이실그라드의 푸르고 맑은 빛깔을 위해 그대들보다 많은 생명을 태워왔다. 그러는동안 그대들은 무얼했지? 그 위대한 자연의 고리에 생명이 덧없이 지고 불경하고 탁한 색 위로 또 다른 생명이 필 것이라고 쓰여져 있던가? 불경한 것들에게 핀 꽃은 불경한 씨앗을 뿌리기마련. 그때마저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품은 이데아가 제 빛깔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여기는건가?”

셋 중에서 조용히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늑대나무가 내게 일렀다.

“달변이로고. 불순물이 섞여있지만 어머니 대자연의 속삭임을 듣는 자

라니. 하물며 아벨의 자손이 말이다. 어머니 대자연은 참으로도 모순을 즐기시는도다. 이실그라드가 제 빛을 찾으면 아르카나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은 거대한 생명을 지닐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벨의 자손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제 아무리 이실그라드라한들 이데아에 자리한 모든 이들과 생명을 나눌 수는 없네만, 이기적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세트의 후예 주제에 아벨의 자손들을 배려하는 듯한 말투에 나는 고개를 쳐들고 수풀로 꽉 막힌채 간신히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격조차 없으면서 정치를 입에 올리면서까지 실라누에의 어리석음을 다그친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조소가 새어나왔다. 그 무기력함에 화가난 내가 아르카나를 더욱 거칠게 뿜어대며 거래에서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말을 입에 올렸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상향이 아니라 조금 더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니 말을 바꾸겠다. 어머니 대자연의 젖줄을 좀먹는 개들아. 그대들이 순환의 고리의 노예인 것은 잘 알겠으나 대체 어디의 누가 그대들이 오랜동안 이데아의 생명을 좀먹어도 된다고 했지? 순환의 고리를 개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 말을 입에 담으면서도 굳게 쑤셔박은 네놈들의 뿌리에 한점 부끄러움도 없나?"

예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으며 살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 판단이 그르지 않기를 바랬건만, 거래를 하러 왔다고 생각한 자네

가 이곳에 허무하게 목숨을 버리러 온 것을 내 몰랐다니."

"거래를 하러 온 것은 맞지만 딱히 목숨을 버리러 오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대들은 이전의 나를 보는 것과 같아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을 뿐이다. 그대들은 이데아를 아낀다지만 그녀가 낳은 자식들을 아낄 줄은 모르는 것들이 어찌 순환의 고리며 자연의 섭리를 입에 올린단 말인가? 낳은 자식을 어여삐하는 것이야 말로 자연의 섭리가 아니더냐?"

내 입에서 쏟아져나온 말들은 다소 거칠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조급함을 감추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들의 살기를 가라앉혔다. 그들 중 하나가 그 말을 곱씹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주시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동기가 필요할걸세. 자연의 고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큰 틀부터 다시 맞추어야겠지. 우리 역시나 어머니 대자연 이데아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으니 그대의 불쾌한 언동은 너그러이 넘어가주마. 다만 우선 이쪽이 당면하고 있는 불쾌한 것들이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아벨의 자손들 사이를 비추고있는 뒤틀린 빛에 대한 동향을 알고있나?"

"모를리가.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빛으로 순수한 영혼이 권능의 잔에 담겨 아벨의 현신을 강림시켰다지."

"그 빛을 꺼뜨려주기 위해 움직여주면 좋겠다만.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믿음의 불씨를 조금 꺼뜨리지 않겠나?”

“그 말은 마치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내전이라도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듯하군. 그것이 어머니 대자연의 가르침인가? 나는 자연의 고리안에 있는 이실그라드로부터 분란과 혼돈을 낳으라고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면 어머니 대자연은 무언가 다르신가보군.”

내 말을 가만히 듣던 그들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들 중 하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을 그리한들 이미 그것까지도 염두해두고 있는 듯한 각오가 담겨진 울림을 하고 있군. 그대는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하고 있지않은가? 하지만 우리는 그대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 땅을 비추는 것은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는 빛이 있어야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 말에 거짓은 없었다. 나를 속이려는 의도도 없었다. 그 무거운 울림과 씁쓸한 미소에는 안타까움이 배어나왔다. 내 주변에 흐르는 아르카나가 내게 속삭이는 것. 이 나무는 지금 슬픔에 잠겨있다.

“무언가를 되돌아보고 회환을 하고싶다면 일기장…. 아니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새기던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거래는?”

거대한 나무고목은 말없이 내 앞에 다가와 악수를 청하였다. 익숙한듯 낯선 손을 붙잡자 수많은 뿌리가 내 팔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

를 먹어치우려는 듯 무서운 속도로 휘감기며 나를 뒤덮는 가운데 나는 푸른 두 눈을 밝히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 벽 』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 소리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나는 의식을 잃은 남자의 멱살을 잡은채 놓지 않고 있었고, 내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던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나의 주먹이 망설임으로 살짝 떨렸다. 곤란한 표정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있는 것을 보던 자미라가 내 팔을 붙잡고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채 눈치를 보고있는 사람들 사이로 술집을 빠져나왔다. 그 여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도와준 이를 향한 공포였다. 어째서 같은 아벨의 자손임에도 그 눈은 분명한 불경한 것들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왜지?”

나는 아직도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채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자미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다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무언가 말해줬으면 해서 물은것이다.

“다른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흑옥의 껍데기를 두르고있기 때문이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실그라드가 눈 앞에 보이는데다가 신록의 땅에 가까

워졌음에도 이 정도로 벽이 있을 줄은 몰랐는걸?”
그녀는 대답 대신 애써 웃어보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했지만 그 얼굴에는 빛이 들지 않아 내 마음이 더 아파왔다.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은 우리인데 어째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너무 억울해서 이를 악 물고 말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미라는 내게 다가오더니 한손으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미나, 신록의 땅에서 원하는 걸 얻은 뒤에도 계속 싸우자. 불경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닐거야. 그것보다 더 추한 민낯이 아직 남아있다면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게 분명하니까 그들이 어떤 껍데기를 두르고 있든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거야.”

“그래, 좋아. 다 부숴주겠어!”
“하하! 아니, 부수면 안돼지.”
그제서야 자미라는 크게 웃으며 내 등을 후려쳤다.
“우리가 부숴야 할 것은 차별과 편견 뿐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술건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도 점점 아르카나의 속삭임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곳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

어줄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 너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투덜대자 아미나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힘들때 꿈 같은 이야기 조금정도는 괜찮잖아?”

그 모습에 나는 넋을 잃고 그의 미소에 화답했다.

“응! 그래!”

우리의 발놀림이 더더욱 빠른 속도로 돌풍을 일으키며 이실그라드로 향했던 이유는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한 감정을 애써 가리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 평생을 푹푹 꺼지는 모래바다를 달려왔기에 여기까지 오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신록의 땅을 마침내 밟았다는 것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자마자 서로 눈을 마주쳤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청난 생명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 힘이 넘쳐흘렀고, 그와 동시에 순식간에 경계를 하는 듯한 불편한 시선이 우리에게 날아와 꽂혀 식은땀이 났지만 동시에 웃음이 났다.

“이게….”

“그래! 하지만 걱정마. 그리고 진정해. 저들 안에도 같은 것이 흐르고 있으니 우리를 마냥 적대시하지는 않을거야. 그렇지?”

내가 희망이 가득찬 얼굴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마냥 긴장을 풀지는 마. 신록의 땅 위에 서서 우리와 같은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해도 여전히 저들은 백옥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 말이야.”

“역시 그런가? 그래도 봐봐. 이렇게나 그리운 느낌은 아룬 모라를 벗어난 이후로 처음이야. 설레이는 건 어쩔수 없나봐.”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시선을 지나쳐 이실그라드에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고동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전에 술집에서 느꼈던 날이 서지는 않았지만 역시 자미라의 말처럼 그것만으로 마냥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신록의 땅을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마음껏 만끽했다. 사막과 달리 넘쳐나는 샘과 그 주위를 떠도는 생명도 무척이나 강하게 느껴졌다. 그것을 눈에 담자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힐끔 바라본 자미라의 얼굴도 역시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듯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르카나의 안개가 구름처럼 낮고 짙게 깔려있어 그것을 한참을 헤치고 드디어 우리는 이실그라드를 눈 앞에 두었다.

“우와!”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실그라드는 한 눈에 차마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거대했다. 우리는 떡 벌어진 입으로 눈을 밝히며 그 자

리에서 몸이 굳은채로 멍하니 그녀의 자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감상하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 흐르던 생명의 뿌리가 이것이구나. 우리의 고향과 이렇게나 먼 거리에서도 힘차게 생명의 태동을 울리고 있었다니.”

“…그런가.”

익숙하지 않은 부드럽고도 낯선 목소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들려왔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등을 맞댄채로 전투자세를 취했다. 적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척도 없이 다가온 것에 대한 짐승과도 같은 반응이었다. 우리는 숨도 쉬지않고 부지런히 상태의 위치를 가늠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너희가 여기 온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눈에 힘을 바짝주고 돌풍의 질주로 그 목소리의 흔적의 냄새를 향해 매섭게 달려나갔다. 그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섞여있었지만 어느정도 예상을 한 듯 금새 차분해졌다.

“음, 역시 짐승에 가까운가?”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아무말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우리 사이에서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치 오랜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짐승이 제법 냄새는 잘 맡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볼일은 그쪽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닌가?”

감정이 변화가 없어보이는 듯 얼음같이 차갑게 우리에게 되물었다. 자미라 역시 그 말을 듣고나서 벌써 생각을 마친듯 눈을 잠시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군. 본론으로 들어가지. 너희들은 아룬 모라를 들어 본 적 있는가?”

“작열하는 태양의 땅이라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

“그곳의 젖줄이 말라가며 생명은 바스러져가고 있다. 그러하기에 다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신록의 땅이라 불리우는 이곳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한다.”

“사막에 사는 짐승은 부탁을 이딴식으로 하나?”

“옛 현인 아르함이 그러하셨듯 기꺼이 내 팔을 내어줄 수도 있다.”

“쯧! 짐승의 팔 따위 가져봐야 이실그라드의 빛깔을 찾기 위해서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것을.”

자미라의 희생적이고 숭고한 제안에도 무시하는 발언을 입에 올리자 나는 온 몸에 살기를 두르며 이를 뿌득거리면서 그녀를 위협했다.

“팔 하나로도 아룬 모라의 투사는 네년의 모가지가 떨어지는 것조차

모르게 찢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라.”

그 말에 자미라가 나를 제지하며 말했다.

“함부로 어금니를 드러내지 마, 아미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키스트들의 목이 아니라 아룬 모라의 젖줄을 되살리는 생명의 태동이야.”

“…알았어.”

그녀는 우리안에 있는 힘을 흘려보낼때마다 울려대는 고동에 다소 흥미가 생긴듯이 가늘게 눈을 뜨며 바라보더니 우리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아르카나를 어떻게 쓰는거지?”

“그저 우리 주위에 떠도는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몸에 두르고 있다.”

“해독은?”

“엥? 그게 무슨말이야? 생명을 숨결을 왜 독 취급 하는거야?”

“무슨 말이냐니? 너희들은 정말 아르카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숨결은 아르카나니까 당연히 해독을 해야 되잖아.”

“그딴거 필요없는데?”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턱을 괴더니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옷매무새를 조용히 고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일단 이곳에 방문을 했으니 내 소개를 하지. 이실그라드를 수호하는 퀴나즈의 수많은 아키스트들 중 하나인 그레이시라고 한다.”

그녀의 태도가 변한것을 느끼고는 자미라와 나는 시선을 잠깐 교환하고 난 뒤에 경계를 풀고 입을 열었다.

“저 먼 남쪽 작렬하는 태양이 비추는 사막의 나라 아룬 모라의 투사인 자미라 그리고 이쪽은 아미나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안하지만 지금 당장 이실그라드의 생명을 나누어줄 수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어깨를 축 늘어뜰이고 이를 악 물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자미라는 조용히 그녀에게 되물었다.

“지금 당장이라면 나중이라면 가능하다는 말이군?”

“그 말대로다. 지금 이실그라드 그녀도 불경한 것들에게 가려져 그 빛을 잃어가고 있어 아르카나를 두른 자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그녀의 빛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자라면 모두 말이지.”

차분해 보이는 모습 사이로 그녀의 결의와 다짐이 새어나왔다. 어디 근육하나 붙어있지 않은 그녀의 몸뚱아리에서 조용히 새어나오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거친 투사의 냄새였다.

“아르카나를 다루는 자라면 모두 말인가? 그들의 가치관이나 신념 따위를 묻지 않아도 되는건가? 아니면 그정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실그라드의 빛깔을 되찾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군.”

“제법 말이 통해서 다행이군. 그렇다면 너희들의 사막에 빛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쪽이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겠지?”

“그래. 어차피 우리 모두 목적은 같으니까.”

“불경한 것들을 때려부수는 것.”

“아룬 모라의 부흥.”

“이실그라드의 정화.”

세 명 모두 다른 것을 입에 내놓자 우리는 무안해서 서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말고도 우리와 같은 이들이 방문한 적이 많았나?”

“적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오히려 넘쳐나는 아르카나에 취해있는 것들이 태반이었지. 넘쳐남은 부족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방금 너는 이실그라드의 생명이 쇠하고 있다하지 않았나?”

“이데아를 떠안을만큼의 아르카나이니 우리 인간, 아벨의 자손들에게 조금의 아르카나도 엄청난 양이라는 것은 먼곳에 있는 너희도 잘 알겠지.”

“그래서 너희는 그 해독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고 마침 적절한 시기에 아룬 모라의 무리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

“하나만 더 묻지. 혹시 아룬 모라의 사막에서 온 투사들이 이곳에 방문한 뒤에 어떻게 되었지? 그들의 냄새가 남아있지 않다만.”

“그래 분명 그들은 이곳에 있었지.”
순간 인나나의 주위에 바람이 가볍게 일렁였다.
“아룬 모라의 투사들은 나약하지 않다. 혹시라도 잘못 입을 놀렸다간 내가 너를 여기서 죽여주마.”
“그들 역시나 부탁을 하러 이곳에 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정이 있었기에 거절을 했지. 그러자 그들은 너희들과는 다르게 그것을 기다리려하지 않았다.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당할 각오도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룬 모라 투사들의 호전성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당하면 적의를 드러내는 것이 부탁하려는 자의 자세로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모래밭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갈 수 없이 서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걸 모르더군.”
그렇게 말하던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런가,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역시 아룬 모라의 투사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황금빛깔의 아름다운 사막 언덕을 오르내리는 그 기분을 조금 더 오래 만끽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 이실그라드의 빛깔을 되찾게되면 언젠가 한번 아룬 모라의 태양빛이 따스히 덮힌 모래언덕에서 마주하고 싶군.”
그녀가 공감하며 말하자 자미라는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이고는 말했다.

“자, 그럼 그쪽이 원하는 것은 뭐지?”

“이실그라드의 빛깔을 찾기 위해 잠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겠나?”

“그럴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바라는건지 이야기를 해줘.”

“별 것 아니지만 불경한 것들과 함께 정화하면서 그 동안 아르카나의 해독이 필요치않는 너희의 몸에 대해 좀 알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를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 나도 모르게 온 몸에 소름이 돋아 손으로 몸을 가리자 자미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거 아냐.”

“아냐?”

“아니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레이시라고 하는 소녀의 분위기도 무언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그녀도 자미라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방금전 그녀들이 보여주었던 투사의 결의와 여유, 그리고 양보는 누구라도 기대고 싶게 만드는 희망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껍데기를 두르고 있던 개의치 않았다.

『 아버지 』

“아빠 어디가?”

인기척 때문에 잠에서 깼는지 마고는 침대에서 상체만 세운 상태로 눈을 감은채로 내게 물었다.

“아니, 아빠 여기 있어.”

“잠이 안와? 카포 빌려줄까?”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는 침대 주변을 더듬대며 카포를 찾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입에서 미소가 새어나왔고 마고가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바닥에 떨어진듯 보이는 인형을 쥐어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카포는 마고가 꼭 안고 자려무나.”

“응, 잘자.”

그녀가 잠들자 나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았다. 플랑바통에 자리잡은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고가 쥚어진 천상의 형상의 색은 바래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따스하고 선명하게 그 빛을 더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샌가 온몸에 마치 채찍질을 당한것처럼 성흔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요낙이 전승하는 죄악의 낙인이었다. 고요를 깨고 느닷없이 나타난 죄악의 낙인은 불길한 징조인지 구원의 표식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중요하는 것은 더 이상 저 작은 것의 피를 쏟아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야속하게도

그것은 그저 내 작은 욕심과 허황된 꿈에 불과했다.

“이래서야 교구장의 말 그대로 되는 꼴이잖아.”

아무런 계획없이 꿈만 가지고 베르생을 뛰쳐나간 나의 무력함에 이젠 화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뺨을 세차게 때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지 않고 나마저 무너진다면 나만 믿고 따라온 마고만 딱할 뿐이다.

“네놈들이 바라는대로 되진 않을거다.”

어떻게든 불안한 마음을 떨쳐보기위해 억지로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이를 뿌득거렸다. 마고 말고도 분명히 상처입으며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을테지. 유감스럽게도 그들보다 내게는 마고가 먼저다.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에 방으로 들어와 자고있는 마고의 몸을 둘러보았다. 붕대를 감은 여린 손에 다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럴때마다 마음을 치유하는 빛이 어디선가 나를 포근하게 적시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카포를 놓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었다.

“아빠! 혹시 이거 보여?!”

마고가 나를 깨워 일어나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등에 거의 완전히 자리잡은 죄악의 낙인이었다. 나는 일그러지는 얼굴을 애써 감추려고 노력하며 아무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고는 그것이 무엇이 즐거운지 싱글벙글하며 입을 열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거기에 빛은 없었다. 하지만 마고에게 그렇게 대답해주었던 이유는 베르생에 몸 담고 있는동안에 지녀왔던 그녀의 소망이기도 했기에 그녀의 말에 웃으며 답해주었다.

“마고는 정말 여신님이 되려나보다.”

“그래? 그럼 분명히 예쁜 날개도 생기겠지?”

“그럼 그때가되면 아빠를 안고 하늘을 날아줄래?”

“좋아!”

그녀가 웃음을 짓자 마음이 한결 놓였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늦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찬장을 열고 재료를 꺼내는동안 거센바람에 문이 달그럭거렸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나는 칼질을 멈추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그 소리에 한참 귀를 기울이다 조용히 문을 열자 재빠르게 무언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한적한 아침의 거리 좌 우를 둘러보며 확인을 마친후에 문을 조용히 닫았다.

“역시 귀신같이 식사시간에 맞춰서 오는구나, 어니시.”

그는 서류봉투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배고파, 아저씨 밥줘.”

“물건이 생각보다 적은데 유통이 시원치 않은가?”

“장물이 적어져서 아벨론으로 흘러가는 상단에서 좀 슬쩍했어.”
“아벨론으로 필라록사가 왜 유통되고 있는거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큰손이 움직이고 있나봐. 이 정도로 물가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정도면 황금은행이 개입되어 있을수도 있겠지.”
“우리를 위한다던 이 빛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탁한 색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결국에는 빛은 그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인가….”
내가 투덜대듯이 중얼거리자 그 역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고통으로 구원을 만들려는 자들이라니 완전히 또라이들이잖아. 심지어는 지금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라록사니, 자신을 아그발이라고 당당히 밝힌 공작원까지 제 집에 자연스럽게 들락거리는 것을 개의치 않는걸보면 당신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야. 오히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는 당신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 뿐만이 아닐거 같은데?”

그는 품에서 카드를 꺼내어 그것을 손 끝에 고정시켜 후 불어 빙글빙글 돌리고는 장난질을 시작했다. 그것은 이른바 마담으로부터 호출을 의미하는 저들만의 은어였다. 어니시는 그것을 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필라록사 유통이 많아져 마담의 눈에 들었지만 그녀는 베르생의 수녀인지라 아르카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의 사용은 불가피했던거고 네가 아그발인거는 아무상관없어. 너는 마고를 좋아하잖아?”

“그래, 하지만 당신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마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 모습이 결국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어깨를펴고 말할 수 있나?”

“나는 당당하게 다르다고 말한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없어 차라리 그렇게해서 너랑 마고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면야.”

“…참으로 삐뚤어진 부성애구만 그래.”

“고맙구만.”

“아저씨, 정신차리세요. 당신, 이렇게 여기저기 일을 벌여놓으면 구원받기 전에 제 명에 살지도 못할거야. 나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고.”

“자신의 딸을 상처입혀가며 그 목숨을 담보로 구원을 바라온 인간한테 구원이라는 것이 어울리기는 할 거 같니?”

어니시는 내 표정을 가만히 보다가 미간을 구기며 내게 말했다.

“나는 마고를 좋아해. 그래도 마고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필요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야. 아빠잖아. 도망가지 말라고.”

어니시의 어른스러운 말에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기분 나쁘다는 듯이 머리를 치우며 짜증을 내면서 내게 물었다.

“아저씨,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플랑 바통을 시작으로 이제 모든곳이 전쟁터로 물들게 될거야. 더 이상 이전같은 침묵의 유령도시가 아니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우리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지만 마고가 천상의 형상이 뚜렷하게 발현된 이상 그것으로 지킬 수 밖에….”

“마고를 구원의 도구를 쓰고 싶지 않아서 베르생을 나온거 아냐?”

천방지축의 사고뭉치꼬맹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내가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어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조용히 입을 뗐다.

“희생으로 맞이하는 구원이 싫어서 나온거라며?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면 아저씨 힘으로 지켜야지 마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

“마고는 그렇게라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해.”

“그게 무슨 말이야?”

“마고는 착한 아이야. 다른 아이가 아플 바에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거야.”

“너무 착해봐야 좋을 것도 없는 세상에서 참 손해보는 성격이네.”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냐? 생면부지의 외지인을 돕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손해보는 성격인 것 같다만?”

“그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아그발은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니까. 당신은 말할 것도 없고 마고조차 일종의 보험 같은거야. 그만한 취급이 불편했더라면 나도 당신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의 표정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영 정나미 없는 놈이라니까?”
“그딴거 필요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플랑 바통은 불길 안의 화약고가 될테니까. 겁나면 마고를 데리고 어디로든 꺼지시던가. 그정도는 마지막 의리로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아저씨가 각오가 되어있다면 정말 그녀가 원하는대로 구원을 안겨줄 천사님으로 만들어주던가.”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편두통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으며 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 마고가 천상의 형상을 짊어지는 쪽이 조금 더 빠르겠지. 이미 마고의 등에 죄악의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세상을 구할거야. 실제로도 본인도 그럴 생각이고. 그러나, 그녀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고통에 휩싸여 한없이 피를 흘리게 될거야.”

그는 잠깐 놀라는 눈치였지만 태연하게 눈을 가늘게뜨며 물었다.
“그래, 그러시겠지. 하지만 당신의 딸이 피 흘리는 와중에도 당신 스스로 피 흘릴 생각은 하지 않는건가?”
그 말을 듣자 화가 나기보다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어 그저 쓴웃음을 흘렸고 어니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금새 누그러들었다.
“미안, 선을 넘었네. 방금 한 말은 잊어줘.”
“괜찮아, 아니 오히려 마고를 아껴줘서 고마워. 그럴 수 있었다면 이

미 목숨을 몇개라도 던졌을 테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돼. 사실 베르생의 사제로써 다른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정당화하던 그 때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망자일 뿐일지도 모르지.”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피를 흘려야 될 사람은 없어. 아저씨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신을 지킨거야. 거기 계속 있었으면 성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됐을지도 모르지.”

범죄자 주제에 맑고 강인한 눈빛으로 소신같은 소리를하는 어니시를 보고 새삼 다시 놀랐다. 이런 녀석이 고작 열하고도 두 해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감히 물어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짧은 침묵이 이어졌고 다리를 떨면서 손목의 시계를 계속 흘끔거리던 어니시는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배기음 소리에 눈에 힘을 주고 게걸스럽게 그 큰 빵을 입에 우겨넣더니 등을 돌리고 성큼성큼 문을 향해 나갔다.

“마고를 보고가지 않아도 되나?”

“아그발의 미친개를 곁에 두어봐야 그녀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참으로 상냥한 미친개구만 그래.”

“고맙구만. 아, 그리고. 허튼 생각하지마 아까도 말했듯이 정작 필요할 때 마고의 곁에 있어줘야 할 사람은 당신이니까.”

어니시는 천연덕스럽게 키득거리다 조용히 서서 잠깐을 멈춰서서는 답

지않게 진지한 말을 던지고는 여운을 남기며 집을 나갔다. 바람소리와 함께 문이 기괴한 울음을 흘리면서 천천히 닫혔다. 그 작은 소리에 깼는지 마고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카포를 안은채로 계단을 내려왔다.

“갔구나. 재는 맨날 뭐가 저렇게 바쁜거야?”

“아, 알고 있었구나? 재는 중간 공급책이라 항상 저렇게 바쁜가봐.”

“하하! 어니시가 아그발의 개라서 그런거겠지.”

“아그발에 몸을 담고 있어서 어니시가 싫어진거야?”

“아니, 상관없어. 어디에 있든 어니시는 어니시야.”

“그래, 맞아. 저 녀석은 어딜가나 한결 같을거야.”

“그리고 아빠도 여전히 아빠야.”

분명 좋은 의도로 했을 말이었겠지만 괜시리 나의 옛 행동이 떠올라 제발이 저려 그 순수한 의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

“그런 얼굴 하지마. 아빠는 나를 구했으니까.”

“이제 더이상 자책할 일 없어. 세상을 예쁘게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마고가 가지고 있는 예쁜 빛을 아빠도 조금 나눠 쓸게.”

“좋아! 하지만 나를 반짝이는 천사님으로 만들어줘.”

빛나는 눈을 하며 그녀는 손에 쥔 카포를 신나게 휘둘렀다.

“걱정마, 분명 그렇게 될거야. 마고는 마음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혹

시 아플 수도 있으니까 진찰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말하며 마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고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 발을 앞뒤로 흔들거리며 내 곁에 있었다. 나 역시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무말없이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녘이 밝아옴과 동시에 카포를 품에안고 그녀를 데리고 라파르의 의사를 찾아갔다. 마고는 온몸에 성흔을 지니고도 웃음을 잊지 않았다. 마차를 타고 라파르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나 바쁜지 카포와 함께 쉼없이 재잘거렸다. 지금 내 눈에 담긴 이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즐기고 싶었기에 말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 서열정리 』

“이래도 부족하더냐?”

너덜너덜해진 검은 문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 뒤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그 위에 주변에 즐비한 시체들을 바라보고 한숨이 저절로 쉬어졌다. 상위급의 공허의 사역마를 소환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역시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자 힘없이 늘어진 공허로부터 온 시체들의 산을 괜히 발로 차 무너뜨리며 짜증을 냈다.

“그렇다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사역이지 그것들의 소멸이 아닌데, 모조리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것들에게는 계약보다는 지배의 형태가 더 나은 수단일지도 모르겠군.”

지배하기 위해 공허를 사는 것들과의 계약 혹은 사역이 아니라 내가 그들 무리로 들어가 군림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움직이기 전에 나는 내게 몇가지 물음을 던졌다. 나의 이름, 나의 과거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등 사소한 것들이었다. 검은 문을 찢고 나온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사소하지만 그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만 했다. 그렇게 아득바득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상기시키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오만가지 인간의 감정에 휘말려 그것에 취해 있었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고 다시 그것을 되뇌이는것에 집중했다.

“어차피 공허에 몸을 던지려고 했던 순간부터 예상하고 있었지만 육신

에 담겨진 정보가 애써 나를 기억하려 하나보군. 썩 유쾌하진 않네.” 그렇게 홀로 자조섞인 웃음을 지으며 미친사람처럼 중얼대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시체들을 한데 모아 이리저리 잘라워으며 쏟아낸 피로 바닥에 커다란 원과 카하낫을 상징하는 문양과 언어를 그리며 다시한번 검은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없을 내 주위에 수많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오냐, 더 크게 울부짖거라. 나의 귓가를 간지럽히어 더욱 나를 즐겁게하라. 그렇게 나는 미친듯이 즐거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그려둔 문양은 더욱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고 속삭임은 더욱 크고 많아졌다. 그렇게 한참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귀울이고 그들의 관음적인 시선을 즐겼다.

“공허를 사는 이들아. 그 무엇보다 달콤한 제물인 나 메사 피네가 이곳에서 바라노니, 나를 삼키어 기꺼이 텅빈 그곳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검은 문이 공간을 찢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또다시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문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팔이 뒤이어 나의 몸 절반이 그 문으로 미끄러지듯 빠졌다. 인간의 육신이 찢겨지는 그 느낌은 여전히 인숙해지지 않았지만 아름답게 발광하는 빛깔들이 나의 눈을 쉼없이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공허에 발을 딛고 있었다. 이전에는 검은문을 찢고나오기만해도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했지만, 이미 내 몸에 자리하고 있는 공허의 찌꺼기들 덕분인지 어느

새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익숙하다는 것 역시 참 편리 하다가도 동시에 참으로 역겹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이 드는것도 여전히 아직 나에게 인간의 파편이 완전히 부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겠지. 그 아련한 생각과 동시에 나의 시각에 온 신경이 집중되었다. 공허의 더할 나위없는 풍경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데아에 따스하게 내려앉은 불쾌한 빛보다 더욱 아름다운 색채를 띄고있는 이곳이야말로 카라하스의 마녀들에게는 이상향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언제까지 이곳의 풍경과 향기에 취해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다시금 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는 와중에 불쾌한 시건이 느껴져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던 것은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냈다.

“칼 토 파우낙 토르 비악.”

그리 놀라울 것도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언어라고 확신한 것은 아버지의 속삭임을 들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까닭은 아버님의 음성을 귀에 고이 담은 내가 저 흉물과 같은 것을 입에 올린다는 것이었기에 나는 이를 뿌득거리며 중얼거렸다.

“건방지게 카하낫의 언어를 입에 올려?”

그러자 그 말을 이해라도 한 듯이 그것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며 완전하지 못했지만 분명 아벨의 언어로 지껄이기 시작한다.

“에르아의 찌꺼기 주제에 감히 공허에 몸을 들이다니 적당히 미친자가 아니라면 여기 닿지 못했을 터, 필시 공허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에 자위하는 것들이겠구나.”
그리고 그것은 냄새를 맡는 듯이 허공에 콧등을 킁킁거리는 듯한 시늉을 하더니 아가리를 딱딱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그대는 우리안에 흐르는 공허의 축복을 무수히나 뒤집어 썼으니 우리가 그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아버지 카하낫의 그늘아래 기생하고있는 낙오자들에게 줄 관심따위는 없다. 그저 너희들은 공허의 틈바귀에서 내 발 아래에 대가리를 땅에 쳐박고 기면 되는 것이야. 그럼 아름드리운 아버지의 땅에 그 더러운 숨을 토해내는 것 정도는 참아 줄 수 있겠지.”
흉물의 도발을 도발로 맞받아쳐주니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겁기 그지 없었다. 그러더니 그놈의 주위로 찢겨진 검은 문너머 공허를 사는 것들 여럿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것들에게 조금 교육이 필요했기에 나는 조용히 카하낫의 언어로 속삭였다.

“너희를 사역하는 것은 나 카라하스의 마녀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지배와 고통과 절망의 공유이다. 공허에 네놈들의 더러운 피를 뿌리고 싶지않으니 곱게 나를 섬기라.”

나는 내 몸에 자리하고 있는 공허의 찌꺼기를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보

여주며 미소지었다. 카하낫의 속삭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개한 것들은 저들보다 우월한 공허의 존재를 눈에 담자 그제서야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님에게도 이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곳에 필요한 것은 카라하스의 마녀, 아니. 나 메사 피네지 너희들은 아니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내 발에 머리를 조아린다면 아버님도 기뻐하실테지.”

그렇게 말하는 내 몸에 전율이 일며 소름이 돋았다. 이 얼마나 기쁘기 그지없는 무한한 영광이더냐!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으니 그것은 내가 뿜어내는 카하낫의 속삭임을 들으며 생기는 불안함을 억지로 깨뜨리려 발버둥치는 공허의 피조물들이 내는 으르렁거림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썩 유쾌하지 못했기에 눈가를 찌푸리며 그것들을 쏘아보았다.
“공허의 틈에 자리한 것들은 혹시 고통이 무언지 아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잘됐군, 잘됐어!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아파올테지. 내가 오늘 아버님을 대신하야 너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새기어 주리다. 다만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나를 섬긴다 맹세하겠다면 안락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영광이 있으리라.”
“공허의 깊은 곳에 닿으면 안될 저질스러운 피조물이로고.”
“그래서 그곳에 가지 못한 네놈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혓바닥을 놀리던 놈은 발작을하며 내게 달려들자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역시 꿈틀대더니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아무리 변두리라한들 공허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부디 저 더러운 것들이 흩뿌리는 것이 카하낫 변두리의 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는 다시금 더 깊은 공허를 향해 속삭였다. 이데아에서 치루었던 의식과는 다르게 해방감 때문인지 몸은 더욱 가벼웠다. 그리고 몸에 자리하고 있었던 공허의 사역마들조차 그리운 하늘아래 숨을 쉬고 있는 이유에서인지 더욱 즐거이 춤을 추었다. 뒤틀린 공허의 찌꺼기따위를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나 나의 몸을 찢고 나올듯한 모습으로 아가리를 크게 벌리며 즐거워하는 것을보니 사역마의 광기를 충족시키는데에 의의를 두기에는 충분했다.

“저것들조차 카하낫의 언어를 입에 올리는데 네가 나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을리가 없다. 너는 무엇인가?”

공허의 틈에서 흐르는 무엇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인간의 탈을 벗어던진 탓일까 그것의 속삭임과 색깔이 선명하게 들리었다.

“잇싸- 에구알 바누 쑨- 소 므냐-”

“그래, 그래! 하지만 너는 두가지 오류를 범하였구나. 카라하스의 마녀들은 재앙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섬기지 않는다, 나는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섬김에 익숙해지거라. 계약이라는 얄팍한 것으로는 콧대높은 공허의 주민들을 다룰 수 없으니 힘으로 지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더군. 이해를 바라지 않으니 그저 새겨두거라.”
무엇을 꾸미는지 한참을 꾸물거리더니 그것은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협력이라고 해두지 일단은.”

“너의 무례는 용서하마. 일단은. 아버님이 너를 살펴주실게다.”

“…내게 협력하는 그대는 무어라 불리우고 있나?”
“아버님이 그러하셨듯 이미 이곳에 닿은 후로는 이름이라는 것은 필요없다 여기었지만 참으로 별난 인연이로고. 메사 피네라 이르라.”
“사역하는 공허의 피조물을 카하낫의 입을 빌려 파우산이라 공허에 부르짖노라.”
“공허를 사는 것들에 이름이 있더냐?”
“이상할 것도 없지. 위대하신 아버지 카하낫 이외에 그 어떠한 것들마저 그의 업적에 미치지 못할 따름이요 감히 그에게 닿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속삭여 왔을 따름이니, 번뇌하는 것들은 무릇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가?”
“번뇌하는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서이다. 이 몸은 이미 내 육신을 제물로 하여 이곳 공허에 닿았으니, 번뇌만하는 네놈이 나를 섬겨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미 네게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카하낫의 속삭임이 군이 아벨의 자손에게 닿은 이유를 알만하군.”

“칭찬으로 듣지. 그리고 아벨의 자손이라함은 불쾌하니 카라하스의 말녀라 불러주게. 아버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축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역겨웁기 그지 없구만.”

“그래, 협력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 마디 하지. 카라하스의 마녀는 아버님의 말씀을 들을지언정 공허의 안쪽에 닿을 수 없을 것이라.”

“이유는 무엇이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군. 공허를 지으신 아버님께서 구태여 그곳에 아무것도 아닌 너 따위를 들이고 싶어하실까 생각해보라.”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저 나는 그의 음성을 들은 것 뿐이지만 듣거라. 나는 아버지의 땅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생각이 없다. 그런 애매한 생각을 가지고 공허에 발을 담지 않았다는 말이지.”

“허면 카라하스의 마녀 메사 피네여, 그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직 공허뿐. 그저 눈 앞에 보이는것만 숭배하며 애초에 아버지 카하낫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것들에게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미쳐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창조주의 다른 이름을 그들 안에 영원토록 새기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나 지배에 미쳐있었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군. 넌 미쳤다.”

“옳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공허의 지배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야하며 카라하스는 물론 이데아에서 숨쉬는 것들은 모두 카하낫을 섬겨야 함이라.”
그리고 그것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나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다. 공허의 틈바구니에 기생하는 피조물들의 피를 몸에 뒤집어 쓰면서 나에 대한 공포는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카라하스의 마녀들 가운데 계약이 아닌 맹목적인 복종과 사역을 이룬 마녀로 탈피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제물로 검은 문을 비집고 공허의 틈으로 들어온 것은 만족스러운 시작이자 아버님이 자리하신 조금 더 깊은 공허로의 첫걸음이었다. 설레이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한숨을 쉬자 주변의 아름다운 황홀경에 넋을 잃었다. 그곳에서 나는 메사 피네가 아니라 공허의 파편이었다.

아버님과 늘 같은 하늘아래 숨 쉬는 것에 감사하라.

『 이유 』

“후우….”

피와 짓이겨진 살점이 박힌 비석은 물론이요 무수히 널브러진 쇠사슬에도 핏물이 고이더니 바닥에 떨어지며 웅덩이를 만들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가 저지른 만행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방금 내손으로 다른 라구엘의 순례자를 해한 것이다. 창조주인 에르아의 묵시록과 라구엘의 새김 일락시움의 믿음을 배신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따르던 개는 어느새 내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누비며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댔다.

“나는 방금 나와 같은 길을 걸어온 자의 순례의 길을 짓밟았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도 내 곁에 있겠다는 건가?”

이 짐승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굳이 그것을 입밖으로 소리내어 말한것은 이 몸뚱이가 믿음과 순례의 길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부정했다는 사실을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몸뚱이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라구엘의 순례자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됨과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일락시움에 새겨져있음에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느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것은 내 말에 답이라도 하려는 듯 크게 한번 짖으며 헥헥거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 죽어 널브러진 순례자의

팔뚝을 뜯어내어 개에게 던져주자 그것을 물어뜯고 고개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아직 피가 식지 않은 순례자를 바라보고는 저것을 묻어 주는것이 옳다는 생각이들어 손으로 부지런히 폐허의 흙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구덩이에 순례자를 쑤셔박고 그 위로 흙을 뒤덮은 뒤에 그가 짊어온 예언의 비석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대의 순례는 여기에서 끝을 맺노라. 그러하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시게. 그대의 짐은 이제 더이상 그대를 옥죄지 않을지니. 다만 그러함에도 그대가 낙원의 꿈을 안고 편히 잠들기를 바라는도다.”

그 말을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것은 낡고 병들어 지친 이 육신 때문이 아니었다.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죄책감이었다. 라구엘에 비해서 더욱 병약하고 약해빠진 정신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고통을 짊어지는 것으로 인하야 더욱이 살아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오랜동안 이녀석과 벗삼아 수많은 길을 걸어오는동안 나는 다시 태어남을 느끼고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종말에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순례의 길을 걸어오며 이 육신에 변화가 일어남을 인지하고 더이상 순례에 적합하지 않은 몸뚱이가 되어버렸구나. 그렇다면 예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육신은 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저버렸다 여겨왔던 아벨의 언어를 입에 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인가 아니면 이 육신으로의 회귀인가 확실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저주받은 라구엘의 흉물스러운 육신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보아 이 영원과도 같은 순례의 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 잘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를 현실로 끄집어냈다. 잠깐의 헛된 꿈을 꾸고난 듯 허탈함에 온 몸이 부들거렸다.

“오냐, 진정으로 망가져버린 것이라면 나는 일락시움의 뜻을 거스를지라도 오직 나를 되찾기 위한 순례의 길에 오를것이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이 불경한 것의 말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내 옆에 있는 짐승은 그저 내게 시간을 주려는 듯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어설프게 만든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찰나 아무런 기척없이 늙은이 하나가 내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그제야 알아챘다. 노파는 안쓰럽게 그것을 바라보더니 손가방에 담겨있는 꽃가지 하나를 꺾어 그의 곁에 두었다. 그리고 노파는 손을 모다 기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는 내게 물었다.

“친구였나보오.”

“한때는 같은 순례의 길을 걸었던 자요.”

“나이를 먹을수록 다툼이 싫어진다우.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걷는 길을 서로 축복해주면 좋았으련만.”

“그럴수 없기에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인다. 그 나이를 먹고도 현명해지지는 않는가보군.”

“아무렴 이 어리석은 늙은이들이 그 큰 뜻을 이해하겠소? 물론 그대를 나무랄 생각도 없거니와 어느 누구도 그럴 자격이 있지 않다마다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노파는 하얀 머리를 쓸어올리고는 웃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잔뜩 경계하며 으르렁거리는 짐승에게 과실조각 몇개를 건네주고는 그것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씨 좋은 이에게는 짐승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마음씨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더니 노파는 무릎을 힘겹게 잡고 일어서더니 내가 다가와서는 이 육신의 가슴팍에 손가락을 들이밀고 말했다.

“마음씨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라구엘의 순례자가 어찌 그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마는 마음이 어지러웁다면 잠시 우리집으로 가서 피로나 좀 풀고 가시게나.”

“필요없다. 신경쓰지마라.”

“넝마주이가 되어버린 몸뚱이로 무슨 순례의 길에 오른단 말이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순례의 길은 얻는 것 하나없이 그저 고되기만 하거니와 헛된 발걸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니 그것은 순례가 아니라 헛수고라 한다오. 무릇 순례라는 것에는 고행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순

례에 오르는 마음가짐은 고통과 불안감이 아닌 순례길에 마주할 희망과 믿음의 고취가 우선이라우.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침대와 따스한 식사보다 나은게 없지, 아무렴.”

“…그로인하야 네가 얻는것은 무엇이지?”

그러자 노파는 유쾌하고도 순수한 모습으로 즐거이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이제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말하더니 등을 돌려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어 나아가자 곁에 있던 짐승도 노파의 주위를 맴돌며 뜀박질한다. 개인이라는 개념과 무리로의 단절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형태의 피로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육신에게는 더더욱 큰 짐으로 다가왔기에 나는 발을 질질 끌며 노파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노파의 뒤를 따라서 마침내 아늑한 거처에 도착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자 노파가 들어가다 말고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개도 멈춰서서 꼬리를치고 혀를 내밀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하는가? 오지 않고.”

노파의 말에 나는 잠에서 깬 듯이 몸을 움찔대며 가까스로 집으로 발을 들였다. 어디하나 화려한 것 없이 평범하로 수수한 집이었지만 아늑하기 그지없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나 다른이의 환대를 받은 적은 없었을 뿐더러 하늘을 이불삼아 육신을 쉬게한 적은 있으나 지붕 아래에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 따스함에서 잠시 벗어나 나는 노파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이냐?”

“저런, 한낱 늙은이에게 궁금한 것도 참 많지.”

“늙은것이 감히 라구엘의 사제를 집에 들이다니 미쳐버린 것인가?”

“역시 자네는 상냥하구만 그래. 자신을 저버리고 미쳐버린 순례자들은 아벨의 자손임을 포기한 불경한 것들이라 들었는데 말이우.”

노파는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조용히 입을 떼었다.

“긴 잠에서 깨어난 것에 비해서 그다지 후련해 보이지는 않은 것을 보아하니 그대가 짊어진 예언의 길은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나보오.”

그 말에 무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목소리를 조용히 내리깔며 노파에게 다시 물었다.

“…그저 넘겨 짚은 것인가? 아니면 노인의 혜안인가?”

노파는 나를 고즈넉한 테이블에 앉히고 조용히 차를 따르며 답했다.

“내 그것을 아는 것은 태어나 숨을 쉬는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서 방황하고 끊임없이 물음을 건네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오.”

“그렇군. 그대 역시나 순례의 짐을 놓아버린 자로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그대가 더 잘 알테지. 그대의 둥지에 발을 들였을 때

부터 알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라구엘의 사슬을 끊고 에르아의 속박에서 벗어나 꿈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순례자의 영혼없이 읊조리는 목소리가 이따금 내게 들려오더군."

"그런가. 그것은 참으로 기쁘면서도 슬픈 일이로군. 그렇다면 그쪽은 어떻게 잠에서 깨어 그 무거운 사슬을 풀게 되었는가?"

"모른다. 하지만 깨어날 즈음 저 조그마한 것이 나를 바꾸었다."

"분명 저것도 따스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을테지."

"마음씨인가…. 그러나 후에 이르러 마음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담겨지지 못할것이다. 결국에는 창조주 에르아의 눈물로인해 불경한 것들은 말끔히 지워지게 되겠지. 말인 즉, 너도 나도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대라면 더욱이 잘 알고 있을테지."

이 세상에 숨을 토해내며 살아가는 것들에게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던 노파는 알 수 없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그것들이 토해내는 숨이 어찌되는 내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버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우. 그러하니 당신은 좋든 싫든간에 더욱이 저 조그마한 것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먼."

조용한 침묵을 깨는 나의 갈라진 목소리는 낡은 문의 경첩소리처럼 아늑한 노파의 거처에 거칠게 울려퍼졌다.

"…에르아가 이데아를 사는 모든것들을 지우려던 것은 우리가 불경한

것들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고있기 때문인가?"

"호오, 그것 참 놀랍고도 흥미로운 물음이로고. 얼마전마저 아무 의심 없이 종말을 바라며 순례의 길에 예언의 조각을 온 이데아에 심어놓은 순례자 중 하나가 그 저의를 의심하다니 말이오."

"잠에서 깨어난 이 몸뚱이는 의식을 재구축중이다. 그러므로 이 혼란과 괴리감은 불가피한 것이니 구태여 하나하나 트집잡으려 하지마라."

"라구엘 가운데에서도 깊은 잠에서 눈을 뜬 존재는 본지 너무나도 오래되어 내 그만 나이도 잊고 본의 아니게 이 어린것을 괴롭히고 있었구만그래. 미안허이."

"그렇다면 나 이외에도 변화를 겪은 자가 있었다는 말이로군."

"그렇지. 그들 역시나 그대처럼 혼란스러울 게야. 딱하게도 이데아 이곳 저곳을 방황만 하고 있을테니 말이다."

그렇게 혀를 끌끌차며 말하더니 내게 고개를 가까이 들이대고는 이전과 달리 다소 원망섞인 목소리로 내게 조용히 말했다.

"한참 동안이나 에르아의 꼭두각시로 살아왔던 그대들은 몰랐을테지. 이데아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며 치열하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네."

"라구엘의 사제를 모독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그대들은 무얼 했지? 창조주를 등에 업고 혼란과 분쟁을 야기

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재앙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불길한 예언 따위를 온 이데아에 뿌려놓은 대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건가?”

“그대도 라구엘의 사제였음에도 그렇게 당당하고도 뻔뻔하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군. 대단한 현자로다! 그래서 깨어난 것들이 속죄라도 하기를 원하는 건가? 그러는 깨어난 그대는 무얼 했지?”

“아무것도.”

“그러함에도 그렇게 혓바닥을 놀리는것은 위선일 뿐이지 않나?”

“…나는 싸움이 싫어.”

다소 격앙된 나의 말에 노파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내 손으로 죽여온 것들의 얼굴에서 새어나온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 슬픈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나 무기력하게 억겁의 세월동안 병든 육신을 지니고 더러운 이내 숨결을 토해냈기 때문에 부탁아닌 부탁을 하는 거라오.”

“무언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네놈의 부탁을 들어줄 현인처럼 보이는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네만 적어도 자네라면 저것이 조금이라도 자네의 곁에서 오랜동안 숨을 토해낼 수 있는 세상을 바라겠거니 해서 물어본 것일 뿐이네.”

노파는 조용히 개를 가리키며 내게 말했다.

“일단 들어보기로 할까….”

“의식도 없이 일말의 자비도 없이 그저 창조주 에르아의 속삭임에 취해서 비틀대는 라구엘, 그 종말의 걸음을 거두어 주시오. 그리고 꿈에서 깨어 눈을 뜬 이들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시구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주게나.”

나도 모르게 가슴을 부여잡으며 안타까움에 노파에게 되물었다.

“나 혼자서 말인가? 아니, 행여 그 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대체 그 이후에 라구엘은 어디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대는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없다.”

그러자 노파는 미소지으며 턱짓으로 저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 시선이 닿은 곳에는 말 못하는 짐승이 숨을 쉬고있었다.

“그대 스스로 생각해보라. 그대는 어찌할텐가? 이데아를 부술것인가? 아니면 살아갈 이유와 함께 그대로 둘 것인가?”

한번도 겪지 못한 환대와 아늑한 보금자리에서도 나는 처음 겪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새벽녘이 밝아오면 일단 불쾌하고 아늑한 이 자리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남기고 떠날것이다.

『 뒷공작 』

“록겔러 가 3407번지, 맞죠? 아, 예예. 그럼요. 주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문을 받고 난 뒤에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장사를 접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너무 따분하고 지루했기에 그냥 일찍 잡화점 문을 닫을 생각으로 문으로 걸어가 가게영업 푯말을 조용히 뒤집고 터벅터벅 걸어와 의자에 쓰러지듯이 누웠다.

“아, 재미없어.”

아무도 듣지 않는데 크게 소리를 시원하게 지르고나서 나는 의자를 좌우로 연신 흔들어가며 멍청하게 잡화점 이곳저곳을 영혼없이 두리번거렸다. 낡고 후미진 곳에 자리하여 손님의 발길도 잦지 않은 곳일 뿐더러 도대체 이곳에는 누가 살지도 모를 것 같은 물건이 즐비한 말 그대로 잡화점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릴만한 곳이었다. 크기는 또 빌어쳐먹게도 커다래서 관리하는데도 한 세월이었다. 창고안의 웅웅거리는 환풍기 진동과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퍼졌고 나는 책상에 발을 올려 잠을 청하려던 찰나 환풍기가 거칠고 긴 소리를 내면서 멈추었다.

“쌍, 이번엔 또 뭐야?”

나는 투덜거리며 창고를 향했다. 그리고 내 눈 앞에는 멈춰있는 거대한 환풍기 뒤로 먼지를 주렁주렁 단체로 구멍속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는 한무리의 쥐새끼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저들끼리 화를내며

주절대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즐거운듯이 나를 향해 다가왔고 그 가운데 매디가 먼저 정신나간 쥐새끼처럼 성큼성큼 앞으로 나왔다.

“오래걸렸다. 시궁창 쥐새끼를 아무리 치장해봐야 쥐새끼지.”

“시끄러워, 이 미친놈들아. 여긴 왜 온거야?”

말은 그래도 아무래도 반가운 마음은 감출 수 없었나보다. 나도 역시나 눈물이 핑 돌아 그들의 품에 미친듯이 뛰어들며 소리쳤다.

“어디 던져놔도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같은 것들이 그래도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토닥거리는 꼴을 직접보니 나는 참으로 감동했답니다.”

그러자 매디는 참으로 익숙한 멸시의 시선을 내게 던지며 말했다.

“여전히 엉망진창이구나 네 혓바닥은.”

“그래서 여기 왜 온지는 얘기 안할거야?”

“할 틈을 줘야지. 지 혼자 나불거려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으슥하고 입술이 마를것 같이 건조한 후미진 창고. 나불대기 딱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구역 마담이 너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 탓에 들어오는 의뢰도 그렇고 비즈니스의 신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제명된 상태야. 이미 마담은 다른 곳에 관심이 쏠려있는 것 같지만.”

“마담도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무엇보다 여긴 너무 재미없으니 뭔가

일이라도 벌여준다면 재미있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으라고 마담이 너를 여기에 심어둔게 아냐. 연락책이 쉬운줄 알았냐? 오히려 널 구덩이에 던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매디에게 투정을 부리듯 말했다.

"설마 그 미친놈이랑 같은 피가 섞여있었는줄 누가 알았겠냐."

"그 소식을 들었을때는 간담이 서늘했지. 그러함에도 마담은 그 미친 놈이랑 너를 이용해 먹을려고 하는거고."

"그말인 즉슨, 한낱 복덕방 주인인 내가 사실 이 작전의 비밀병기?"

내가 또다시 우스꽝스럽게 배우의 흉내를 내자 그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무마하려 입을 앙다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올렸다. 그 모습은 거칠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다.

"미치겠네. 이건 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모양 이 꼴이니."

그 말에 곁에 있던 리딕도 큰소리로 한마디 거들었다.

"내버려 둬, 매디. 미친사람을 뭐하러 이해하려고 하는거야?"

"너도 맛이 가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 리딕.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안 그런 이들하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시간이 흐른다고 쉽게 변하던가?

"그래서 언제 작업을 시작할건데?"

"진정해. 우선 너 대신 잡화점에 세워둘 꼭두각시를 구할거야. 외형적

인 특징이 달라도 상관없어. 너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 나름대로 다행이지만 너의 얼굴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위화감을 조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고 그것만큼 좋은 경보음이 또 없지."

"그 뒤의 정확한 사냥경로는?"

내가 조심스레 묻자 다들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자 나에게 줄곧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던 매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키키,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있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무리에 당당히 고개를 쳐들 수 있는 법."

"그렇군. 지금의 나는 다시 신뢰를 쌓아올려야 한다는 말이군. 좋아! 예전 그대로의 냄새가 나서 나쁘지않네. 멋드러지게 이용당해줄게."

"그래! 이제야 좀 시궁창 쥐새끼같은 소리를 하는군. 어디 마음껏 발버둥치며 다시 기어 올라와봐라. 온실속의 화초님."

그렇게 다들 잠깐의 재회를 마지막으로 환풍기 너머 저편으로 모습들을 하나씩 감추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던 리딕이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그 큰 덩치를 멈춰 세우고는 내게 말했다.

"아, 그래. 키키. 너한테 날아온 아기새가 있어. 종달새는 라일락에 기대어 새벽의 이슬을 마신대."

"뭔 개소리야, 뚱땡아. 얼른 꺼져."

"하여튼 전했다, 돌대가리야. 까먹지아르카나 말라고, 등신아."

리딕은 시원하게 웃으며 쥐새끼마냥 꽁무니를 뺐고 고요한 찰나 환풍기가 다시금 무거운 신음을 토해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따스해지지 않은 이른 봄무렵의 추위에 옷길을 여매고 주변에 널브러진 모포를 온 몸에 두른채로 잡화점으로 다시 들어와 기름난로에 불을 때고 몸을 녹이며 선잠에 들었다. 그렇게 별탈없이 무난하게 몇달이 지나자 따스한 바람이 콧잔등을 가볍게 스쳤다. 그리고 나는 일전에 리딕이 언질했던 아기새의 전령을 기억하고 해가 떨어진 뒤에 별빛이 한참을 쏟아지기를 기다리다 시간에 맞추어 잡화점에서 나와 그것이 이끄는 장소에 다다랐다. 역시나 그 곳에는 키샤가 화려한 옷차림을 한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나, 키키. 어떻게 이곳을 알고 나왔다니?”
“나를 얼마나 멍청한 년이라고 생각했던거야, 키샤.”

그녀는 커다란 몸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쓸모있는 것이 아직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즐거워서겠지.
“그래도 놀라운걸? 아기새가 전한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다니.”
그녀는 알포데 한병을 들어 가볍게 흔들더니 흥얼거리며 잔에 따라 내게 건네었다. 나는 그것을 기분좋게 받아 그녀를 향해 잔을 들고는 한숨에 들이켰다.
“오히려 내가 놀라울 따름이야. 산돌린의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

마 없으리라 생각했으니 말이야. 그것도 아그발의 마담이 말이야.”

“너야말로 마담을 그저 포주나 물장사꾼 정도로만 여겼던거 아니니? 그들 중에서도 바스러진 비운의 시나 글 또는 그림이나 음악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단다.”

간만에 질 좋은 알포데 한잔에 기분이올라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한 건 알고 있었어.”

“그럴 것 같았어. 너는 머리는 나빠도 눈치는 빨랐으니까.”

“마담의 자리에서 제명이 되었지만 지금에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 당연히?”

“호오, 제법인데? 잡화점에서 썩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나보네.”

“그래. 둥지안에서 나도 마담 흉내를 좀 내봤거든.”

“그렇다 파다가 설마하니 자기가 아이작의 아이였을 줄은 몰랐겠지.”

“알아도 달라진 건 없어. 어떠한 일을 뒤로하고도 나는 아그발의 쥐새끼라는 이명을 저버린 적이 없었으니까.”

“꽤나 충직한 쥐새끼 여사시구만.”

“하하, 충직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우아한 내게 마담이나 여사님보다는 아무래도 여왕쪽이 더 어울릴테니까.”

“글쎄다, 이미 한번 아그발의 존속에 위협을 가한 반동분자가 이끄는 아그발을 과연 누가 따를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아그발은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아. 그들은 그저 뜻을 함께하는 고용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얼간이들 뿐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바라면서도 아그발에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여전히 앞뒤 생각안하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내 말이 재밌는지 키샤도 낄낄대며 알포데 한병을 시원하게 개봉하며내게 넘겼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오늘 밤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해, 키키. 죽은 마담과 오랜동안 이야기하는 것만큼 진귀한 시간은 없을테니까.”

“마담이야말로 후대의 여왕과 어깨를 견주고 말을 섞는 영광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

“어머나, 대단한걸? 말도 못하고 어버버대던 말괄량이가 어느덧 이렇게나 독사같은 혓바닥을 놀릴 수 있게됐고 말이야.”

“덕분이지, 뭐. 밥맛없이 구는 모습을 한두번 본 것도 아니니까 싫어도 그 짓거리가 자연스레 몸에 배더라.”

“멍청해도 예전이 좀 더 귀여운 구석이 있었지만서도 지금의 너도 싫지만은 않은건 기분 탓인걸까?”

“무슨소리를, 당연한거 아냐? 나는 언제나처럼 귀여웠다구.”

내가 명배우의 몸짓을 어설프게 따라하자 키샤는 옛 생각이 났는지 깔깔거리며 좋아했고 알포데 한잔을 동시에 꺾으며 내가 말을 이어갔다.

“이전의 사건으로 내 신뢰는 개박살이 났고 잡화점 연락책 신세로 전

락해버렸어. 매디는 내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표적을 넌지시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럴 생각이없어.”

“의외인걸? 아그발의 어느 무리도 배신자는 용납치 않을텐데?”

“배신할 생각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협력과 조력자들이지. 신뢰의 회복마냥 애들 장난같은 것이 아니야.”

키샤가 흥미로운 듯 내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물었다.

“그럼 자칭 시궁창 여왕의 비밀스러운 포부는 뭘까?”

“아그발을 범세계적인 중립국가로 선포하는 것.”

“오, 작은 종달새 키키. 너와 하는 대화는 언제나 새롭고 즐거워.”

“농담하는거 아냐. 강기뇨르부터 시작해왔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는 거지. 시대는 변화하고있어. 그저 시궁창의 범죄자들로써 지하에 새어 나오는 빛을 핥아만 댈 것이냐? 아니면 맨홀뚜껑을 열고 나와서 무대의 조명을 받으며 고개를 쳐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지.”

“그럴싸한 말처럼 들리는데 다른 곳은 그렇다쳐도 아벨론의 세 머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들이 대뜸 범죄국가의 선포를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지.”

“아그발 지하도시 운 카르트 연합에 던져줄 꿀단지도 이미 내 계획의 범주안에 있어. 그 향에 취해 지금도 아벨론의 세 머리의 짐승을 내부로부터 천천히 갉아먹고 있겠지. 서막은 불화의 작은 불씨.”

그 말을 들은 키샤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멍하니 보고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듯이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여러번 저으며 입을 열었다.

“엉망진창이네. 언제부터 운 카르트 연합에도 발을 담근거야?”

“처음 너로부터 카드를 받았을 때부터?”

“오호라, 참으로 발칙한 고양이였구나, 너. 그런데 이제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걱정하지마, 키샤. 너를 위험인자로 여기었다면 내게 온 아기새의 목을 꺾어버렸겠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니 고작 네가 이미 굴러가는 톱니바퀴에 낄 틈이 없을걸?”

“그러함에도 내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응! 정확해! 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내게 건네줄래?”

“오호라, 매디랑 리딕 패거리를 말하는거야?”

“응, 걔들은 몸뚱이만 커버렸지 머리는 아직 어린애들이야. 내가 벌인 자잘한 일들로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래의 시궁창 여왕치고는 배려가 다소 지나치세요.”

“카를 아이작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는 마당에 깔려진 판에 장기말이 하나라도 더 있어서야 나쁠 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도 절반은 아이작이야.”

“그래그래, 비정하기 그지없네. 네 옛 친구들에게는 잘 말해둘게.”

“고마워, 키샤! 여전히 알포데는 끝내주게 맛이있네.”
우리는 그렇게 한번더 알포데 한잔을 꺾었고 키샤가 당연하다는 듯 가슴을 쭉 펴며 말했다.
“당연하지. 키스 패거리의 양조술을 최대로 끌어낸 내 역작이라고. 그 증거로 너 같이 술을 모르는 얼간이도 이렇게나 즐거워하고 있잖아?”

“우와, 여전히 너 재수없네.”
“아무렴.”

내가 이마를 탁 치며 조소섞인 웃음을 지어보이자 그녀도 우아한 자세로 바로 맞받아쳤다. 그렇게 우리는 시덥잖은 이야기를 몇마디 더 나누며 키샤가 가져온 알포데 한병을 다 비워냈다. 그리고 그녀는 가느다란 담뱃대를 꺼내어 입에물로 손뼉을 두드리자 어디선가 튀어나온 건장한 것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어 불을 붙여주었고 키샤는 그것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조용히 차량에 탑승했고 매연과 소음을 뿜어내는 차량은 이내 모습을 감추었다. 새벽녘 덩그러니 홀로 앉아 마지막 알포데 한 방울을 혀에 털어놓았다. 나는 엉덩이를 툭툭털고 일어나 종종걸음으로 잡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다.

“으, 오줌 마려워.”

『 서릿발 깊게 내린 넋은 어디로 향하는가? 』

종놈들은 부지런히 혼백을 찾으러 다니매 대감님은 저멀리 보이지도 않은 녹음이 짙은 너머를 눈을 찌푸리시더니 한참을 바라보시고는 한손을 들어올리자 초아가 쏜살같이 그의 뒤에 서니 대감께서 물으셨다.

“초아야, 내가 눈이 어두워 보이질 않으매 북월 요우의 갑자노량 월묘방 천리백 팔오리 우규상 언저리에 무언가 있는게냐?”

대감님의 말이 끝나기 전에 초아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하자 분명 해가 중천에 떠 있건만 그 주위에는 한기가 돌며 도깨비 불이 일렁였다. 그녀의 중얼거림이 멈추자 탁한 백색의 두 눈이 꿈틀대더니 무수한 눈동자가 비명하며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한껏 커다랗게 치켜뜨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미친듯이 눈알을 굴리더니만 갑자기 모든 눈알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되었다. 얼마나 그것을 노려보던지 초아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고 실핏줄이 터져 가늘게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초아는 아무렇지 않은듯 익숙한 양 그것을 닦지도 않은채로 눈을 감고 천천히 뜨자 그녀의 눈 안에서 꿈틀대고 있던 수많은 눈알들은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전히 그것을 볼때마다 익숙해지지 않아 무언가에 홀린듯한 기분을 지울수가 없었다. 그 감상도 잠시, 초아가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섞이어진 것들 둘이 머물던 흔적이 희미하게나마 보입니다. 수도없이

많은 것들의 속삭임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겨를이 없으나, 일 다경도 머물지 않고 움직인 것으로 보았을때 무엇이 어지간히도 급했나 봅니다.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도 있다던가."

초아가 숨을 쉬지도 않고 말을 뱉어내자 대감님은 그 말을 듣고 두루마미 품에 손을 구겨넣고 고개를 숙이어 조용히 상념에 잠기시더니 이윽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껄껄 웃으셨다. 참으로 소름돋는 양반이시다. 그 모습은 대감께서 짧은 시간안에 벌써 밑그림을 다 그리었다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는 대감께서는 조용히 입을 떼셨다.

"잘해주었다, 초아야. 덕분에 눈이 트이는구나."

칭찬이 낯부끄러운듯 초아는 막야의 팔을 붙잡고 돌아서며 말했다.

"됐수. 이게 뭐, 별거라고. 저는 이만 좀 쉴랍니다."

"그러려무나."

대감은 경박하게 웃으며 음흉하게 저 둘을 바라보았다.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던 나는 한심한 표정으로 얼굴을 구기며 대감님께 물었다.

"헌데 대감님은 어찌 그것을 보시오?"

"상놈이 놀리는게야? 예끼. 안보인다, 이놈아."

"그러한데도 어찌 초아보다 먼저 그걸 보시는가 여쭙는거요."

"내 그저 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대체 몇번을 묻는게야?"

"아! 그냥 좀 신기해서, 그렇소. 묻는다고 닳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딱한게야.”

“세사도르 도사들 사이에서 못보는 대감이 더 딱하우. 도력도 혼백의 기척도 느낄수 있었다면 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텐데 말이오.”

“대궐같은 곳을 평생 거느리면 태평할 것 같으냐?”

“뭐 딱히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쁠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없다, 이것아. 산해진미 기름진 것을 입에 넣으며 비단결의 옷을 걸치고 있다고한들 속알맹이가 썩어버리면 그게 텅 빈 껍데기가 아니면 무어냐?”

“거 입좀 조심하시오, 대감님. 누가 듣겠소. 큰일날 소리를….”

“이제사 그 섞여진 것들이 세사도르를 향해 걸음하는 이유를 알것만도 같구나. 휘황찬란한 대궐에서 영혼없이 텅 비어버린 육신들만 어기적대니 요물들에게 그만한 만찬이 또 어디있겠는가? 하하하!”

그는 세상천하에 고하듯 팔을 활짝 벌리며 크게 호통쳤다. 그의 메아리는 저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그의 포효에 구름까지 일렁이며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내가 모시는 이 어른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래, 이건 분명 도깨비다. 그렇게 여기며 나는 웃음을 참으려 입을 비죽거리자 그가 내게 일렀다.

“땅거미 질 무렵에 초아가 눈에 담은 흔적을 즈려밟고 그 섞이어진 것

들 앞에 설 것이니 그리 알고 있거라.”

“뭐 천한 것들이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으니 대감님이나 좀 쉬쇼. 얼굴에 힘도 좀 풀고요. 거 주인 몰골이 이리 사나워서야 어디 종것들이 기나 제대로 펴고 도술을 부리겠수?”

“언제 한번을 내 눈치를 보던 연놈들이더냐 네놈들이?”

대감님은 눈썹을 씰룩이며 나를 보더니 초아와 막야에게 턱짓으로 가르키며 웃으며 말하자 나도 저것들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초아를 혼백의로 만든 것이 오히려 저년을 구했을 줄이야.”

“그래, 저것 안에 들어간 넋이 지닌 상념은 하나가 아니라 이미 여럿이라 이미 그것들과 섞여버린 마당에 굿을 한들 그것들과 함께 휩쓸려 더이상 초아는 초아가 아니게 되었을거란 말이지.”

초아가 혼백의로 쓰여진 것도 별써 몇해가 지났다. 그리고 어느새 영혼의 끝자락을 잡을 수 있는 경지에 닿았지만 초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기력은 눈에 띌 정도로 쇠하였고 핏기하나없어 이것이 과연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혼란스러웁기도 했다. 또한 오랜 집중이 필요했던 탓에 머리칼은 희끗희끗 해졌으며 그 눈깔은 눈은 빛을 얻은 것인지 잃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허여멀건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와 기력외 쇠함과는 별개로 대감님의 말대로 본인의 의지로 서서 살아숨쉬는 완벽한 혼백의로 거듭났기에 도력은 이미 막야는 물론 나조차도 견

주지 못할 정도로 까마득히 앞섰다. 그리고 대감님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이라 여기었지만 초아는 죽지않고 여러해를 넘기었다. 나는 그것이 의아해 대감님께 여쭈었다.

“하지만 무슨 요술을 부리셨길래 제 스스로 걷고 생각하는 혼백의가 되었답니까?”

“내 아무것도 안했다, 요놈아. 어쩌면 초아는 그 섞이어진 것들과 다를 것 없는 부류일지도 모르겠구나.”

“초아를 그딴 사특한 것들이나 다름없다 하는거요?”

“성내지 말고 들어라, 상놈아. 넋두리를 들어주는 것이 도사의 소임이 아니더냐? 그런고로 초아는 이미 그것을 귀기울여 들어 줄 자세, 다시 말해 동등한 모습을 함으로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게지.”

“혼백의에 이어서 미끼까지? 나중에는 무어로 부려먹으시려고?”

“이런, 고얀것. 네놈이 정녕 사람이더냐? 내 상것들을 거두면서 그리 여기어 본적이 없을진대 벗이라는 네놈은 초아를 고작 그딴 걸로 여기어 왔다는게야? 아이고, 내가 금수새끼를 거두었구나. 내 팔자야.”

대감은 낄낄거리며 멀리 있지도 않은 막야와 초아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고 그들도 담소에 끼어들며 나를 나무랐다. 그렇게 우리는 맹아산 백팔봉우리 대목 중 하나에 기대어 언덕 너머를 바라보면서 햇살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태양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천천히 눈

에 담았다. 땅거미 질 무렵이되자 급한 걸음을 하는 그것들의 뒤를 밟기위해 밍기적 엉덩이를 들었다. 대감님도 근처에 널브러진 나무작대기 하나를 들고는 하품을 하며 우리에게 고하셨다.

“초아야 힘들겠지만 다시한번 우리와 함께 섞이어 춤춰 주려무나.”

그 말과 동시에 우리는 날아오르듯 숲으로 몸을 던졌고 반 시진도 안되서 우리는 그 둘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초아가 완벽한 혼백의가 된 덕분에 그들의 시선에 닿지 않고도 그들 앞에 마침내 닿을 수 있었다. 그들 주위를 가두듯이 에워쌌지만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 하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은 나에게 무수한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의 모든 신경이 이것들을 적이라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눈이 내게 말하는 것은 분명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여지껏 살아오며 느끼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감정이었다. 비록 그것이 기쁘고 혹은 아픈 기억의 파편일지라도 말이다. 그렇게 나를 파고드는 무수한 감정의 격류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때 대감님의 말이 나를 끄집어냈다.

“길을 잃었느냐?”

필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고 느꼈을 때 나는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고, 그것은 막야나 초아도 마찬가지

였다. 하지만 대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감님의 물음에 그것들 중 하나가 고개를 돌려 입을 열었다.
“이미 잃은지 오래지. 으레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부디 내 넓은 오지랖을 그대들이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네만 어찌 네놈은 이전에 나와 조우했던 것과 형제인양 행색과 생김새는 비슷하다만 전혀 다른 것이로구나. 허허! 이것참 오래살고 볼일이로다!”

말을 마친 대감님은 사뿐히 그들에게 다가가 나무작대기를 휘둘렀고 그것을 가벼이 피한 그것들은 그들의 혼백을 대감님에게 흩뿌리며 응수했다. 흩날리며 절규하는 혼백은 대감님을 향했지만, 대감님은 또다시 추운날 오줌을 털어내고 부르르 떠는듯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그것들을 연신 털어댔다.
“역시 초아가 혼백을 담을때와 비슷하구먼, 으슬으슬한 것이 썩 유쾌하지 않구만 그래.”
대감님을 향해 토해낸 영혼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며 통하지 않은 것을 보자 진귀한 광경을 맞이한 듯 가만히 멈추더니 저들끼리 수근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적의가 없다는 분위기를 한껏 풍겨대기 시작했다.
“필시 그대들은 세사도르의 도사겠군.”
“세사도르에 왔으니 응당 세사도르의 도사들이 바글거리겠지, 이것들

아. 헌데, 섞이어진 사특한 것들이 변방의 조용한 새벽땅에는 어쩐일로 이렇게들 발걸음을 한게야?”

“섞이어진 것이라…. 그렇게 불리우고 있었던 것도 놀랍지도 않군. 그래. 우리는 지금 당장에라도 이 땅에 서지도 못하고 바스라지는 영혼들 따위이니 말이다.”

“그 넋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이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는것이니 조용히 잊혀져가는 순리를 너무 원망하지 말게나.”

대감님이 다시금 나무막대기를 고쳐쥐고 천천히 걸음하자 그들 중 하나가 자세를 바로잡자 앞에 있던 것이 제지하듯 손을 펼쳐보이며 말했다.

“우리는 카인의 핏줄로 타다마드라 불리우는 영혼의 수확자들이라오. 나는 지금 내 기억을 더듬으려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찾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 도와주겠나?”

“찾고자 하는 인물의 신변의 보장과 그 뒤로 네가 조용히 성불해 준다면야 혼백이든 도깨비놈이든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대감님의 말을 듣고 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다.

“그게 무슨 미친소리요? 대감!”

대감은 내 무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사래치며 그것들에게 물었다.

“귀기를 제법 잘 다루며 카인의 핏줄들 치고는 기백이 없다는 것을 보아하니 그것들과 다른 듯 허네만, 그대들은 어떤 연유로 세사도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혼백과 질서를 어지럽히려 드느냐?”

“나 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파먹는 이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의 영혼이다. 무수한 영혼중에서 육신에 걸맞는 영혼을 짊어지고 살아가다 운명에 따라 살고 죽고싶은 것들일 뿐이다. 오직 하나의 영혼만이 담겨 있어 불안정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죽고싶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진실된 표정이 너무도 절실하여 하마터면 얼토당토 않은 궤변에 고개를 끄덕일 뻔하였다.

“말이 안되는구나. 하나만의 영혼을 원한다면야 혼백을 빨아먹지 말고 그 그릇에 담긴 영혼들을 해방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유감이지만 불가능하다. 그 그릇들 모두가 일곱의 죄악을 모두 갈구하고있기 때문에 내 영혼조차 저당잡혀 있는셈이지.”

“그것 참 불쌍한 몸뚱이로구나. 불사로 살아가는 주제에 불안정한 영혼을 가지고도 삶을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아하니 네놈들은 뭔가 카인의 핏줄치고는 진귀한 것들이로구나.”

“나는 살고 싶고 동시에 또 죽고싶다. 형태는 중요치 않다. 조금이라도 이 땅 위에 나라는 존재로 잠시나마 서고 싶을 뿐이지.”

“무수한 혼백을 부리는 삶을 살면서도 불사를 포기한다라. 그것은 참으로 세사도르의 도사들이 품은 이치와는 상반된 것이로세.”

“원한다면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대감님은 작대기를 획 던져버리시고는 두루마기에 손을 깊게 쑤셔박은

뒤에 눈을 가늘게 뜨고 즐거운 모습으로 물었다.

“네놈들은 이름이 무어냐?”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루드윅.”

“재미난 이름이로구나, 그래서 노디야. 그대는 어쩐일로 세사도르 끝자락까지와서 무엇을 그리도 애타게 찾아 헤메이더냐?”

“데아논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찾아 헤메었는지 알면 그만이다.”

“벗인가? 아니면 원수?”

“그것도 나라고 하는 무수한것들 중 하나이다.”

대감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이마를 탁 치시며 물었다.

“섞이어진 것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인게야? 결론은 다농이라는 작자가 왜 세사도르에 왔는지 그 경유만 알면 된다 이거냐?”

“그래.”

“그래서 세사도르 변두리부터 아주 샅샅이 파헤치고 다니셨구만. 이곳에 발을 들인건 너희 둘 뿐이더냐?”

“육신을 말하는 것은 둘이지만 우리를 둘이라 칭하는 것은 틀렸다.”

“에라, 모르겠다. 그건 뭐 너희들 알아서들 하거라. 그럼 한놈은 노디라 부르고, 네 곁에 붙어 있는 그것은 무어라 부르면 되는가?”

“뭔 상관이야, 네놈이 알 것 없잖아.”

“예끼! 이놈아, 무릇 이름이라는 것에 혼이 얽히기 마련이거늘!”

대감님이 호통을 치시자 그것은 정신을 바짝차리고 쫓기듯 답했다.

“라핀.”

“옳거니! 노디와 낙비. 내가 너희를 거두어 줄 터이니. 이제부터 네놈들도 저것들과 같이 내 종것이다. 알겠느냐?”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의 곁에서 조용히 있던 그녀가 눈깔을 부라리며 성질을 내자 노디라는 그 놈이 그녀를 막으며 말했다.

“좋다. 그렇다면 나를 거둔 네놈의 이름은 무어냐?”

“낄낄! 알것 없다, 이 종놈이 주제없이. 대감님이라 부르거라.”

“알겠다, 대감님.”

“오냐. 오늘은 생각치도 못한 수확이 있었으니 한바탕 신명나게 굿판을 벌이고 난 뒤에 다음으로 가보자꾸나. 너희도 즐기거라.”

아직도 나는 내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불현듯 만난 카인의 핏줄 중 하나가 수많은 혼백을 육신에 담은 것들이었다. 비록 불안정한 정신상태이나 오랜동안 세사도르가 그토록이나 바라던 가장 완성되고 정리된 형태의 혼백의 그 자체였다. 혼백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한 귀력의 구축은 도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두려웁고도 강력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돌이켜보면 새하얀 눈에 뿌려진 붉은 피와

초아의 빙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쌓여진 느낌이 들어 위화감이 들었다. 대감님은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직도 감이 오질 않았다. 카인의 핏줄마저 자신의 종복으로 부릴 생각까지 하는 인간의 정신을 과연 온전하다 봐야하는지 의문이었지만 별 수 있나? 나는 천하디 천한 그의 종자로 그가 걸어갈 길을 바라볼 뿐이다. 구둣발 짧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기분좋은 산들바람이 일렁여 화들짝 그곳에 시선을 두었지만 그곳에는 나비와 초아가 나를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저것들은 뭐가 좋아 저리 친해진게야? 기분 탓인가?”

『 인지편향 』

조용히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깊게 숨을 쉬고는 테이블 위에 산더미같이 쌓여진 논문이며 기계장비들을 휩쓸며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그것은 바닥에 요란스럽게 나뒹굴었다.

“적당히 해, 이렇게 될거라고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 이곳저곳 할것없이 모든 협약기구의 윗대가리들은 하나같이 겁쟁이 새끼들로 득실거리는 것이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박멸할 수 있을만한 기회를 주려고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나 두려웠던건가?”

“그럴수도 있지. 불경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것 이외에도 그들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낼수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못할만한 상황도 아니잖아? 진정하라고.”

길버트의 말을 더 듣자하니 머리가 지끈거림을 참을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과학이 아닌 몽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얼마나 더 정신이 나가야 진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사는 거라고!”

“그딴거, 내 알바냐고. 익숙함에 취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어차버리는 걸 보고도 과학자로서 가만히 있겠다는거냐?”
“왜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존중해주지 못하는건데?”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는 것들을 존중하라? 엿이나 먹으라 그래. 그렇게 존중하고 싶다면 두뇌가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을만큼의 피를 공급하면서 쉬지 않고 뛰는 심장도 어디한번 쉬게 해보라지?”
그 말에 길버트가 내 멱살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다.
“잘 들어! 에르빈! 천재라는게 다른 이들보다 특별해 보일수는 있어도 그것이 다른 이들 위에 설 수 있는 특권따위가 아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 누르비크의 비명과 함께 내가 그들 위에 서 보이겠어.”

길버트는 잡았던 멱살을 천천히 풀더니 내게 말했다.
“그렇게 우월감에 취해서 바닥이나 쳐다보려무나. 나는 바닥에서 모가지를 쳐들어 더 위를 바라볼테니. 나 역시 이데아마저 쪼개버리는 힘으로 고작 해충이나 박멸하려는 미친 짓거리는 더이상 보지 못하겠군.”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나 뿐만이 아니잖아.”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길버트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하자 그는 어이없는 듯이 눈알을 굴리며 자기 외투를 챙겨서 연구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길버트의 여린 심성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공동의 연구가 아니었으

면 진작에 이렇게 되었을 운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내가 운명이라는 말을 떠올렸다는 것이 한심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어차피 그 때가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주전자 안에 다 식어버린 커피를 컵에 따랐다.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 사이 우뚝 선 전축을 틀어 마음을 가라 앉히기로 했다. 그렇게 의자에 아무렇게나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면서 문득 녀석이 내게 했던 말을 곱씹던 도중 무언가를 깨달은 듯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허공에 계산을 하듯이 요란한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그래! 길버트! 분하지만 네 말대로 나도 조금 아래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 봐야만 했어. 그렇다면 그것들이 그러했듯 나역시 생명을 창조할 필요가 있겠군."
그리고 나는 들뜬 마음을 추스리고 조용히 숨을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생명을 창조하자."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다짐이었다. 흔히 과학계에서도 부서지고 퇴화한 생명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배열을 재구축하는 정도야 우야무야 넘어가는 편이었지만 우습게도 생명을 빚어내는 활동만큼은 도덕적 결여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호기있게 투자하려는 이는 여지껏 없었다. 그 연구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던터라 어쩔 수 없이 나는 누르비크의 권한을 양도하거나 은밀하게 팔아치우는 수 밖에 없었다. 작업은 순

조로웠다. 아그발의 연락책을 통해 나는 엄청난 자금소식을 황금은행으로부터 연락받게된다. 물론 목적은 연구 개발비용이었으나 귀찮은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신원미상의 연구원과 연구소 이름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버트에게서 연락이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이제야 내가 해야할 일을 찾았을 뿐이야.”

누르비크의 설계와 연구 대부분을 팔아넘긴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 녀석이 굳이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은 길버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심판의 망치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그저 좀 더 나은 문명의 이기에 닿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족해.”

“그럴지도 모르지 심판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전에 다른 모습과 내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길버트가 내게 물었다.

“어린애같은 성격은 예측하기 참 쉽지. 거짓말 하지마라. 네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굳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군. 그럼.”

“잠깐.”

내 말에 갑자기 끼어든 길버트는 잠시 뜸을 들이고는 내게 말했다.

“불사도 과학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우연의 산물?”

“불사와 유사한 피조물을 보았지만 그 구조를 우리 인간에게 분석시키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답을 해 줄 수 없겠군.”

“카인의 핏줄들이 피를 게워내고 다시 채워넣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불사는 연명이 아니라 끊임없는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거군.”

“그래.”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몰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것 참 유감이군.”

“네놈에게 위로다운 위로는 바라지도 않았기에 애초에 실망할 일도 없지만 생명을 창조하려는 개짓거리를 홀로 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구만.”

“적어도 과학과 도덕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꼬리를 내빼는 겁쟁이 새끼보다는 한참은 나은 것 같다만?”

“에르빈, 터놓고 말해서 네게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잖나.”

“그것은 서적으로 깨우치면 그만이다.”

“틀렸다. 의학은 정교한 작업이라 서적으로 깨우칠 수 있다지만 인간을 구성하는 구조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지. 서적으로 알량한

지식을 쌓았다한들 생명의 구조와 배열을 이해하는 것은 네 생각보다도 훨씬 깊고 심오하니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 경험이다."

그럴듯한 말을 늘여놓으며 나에게 일침이라도 놓으려는 듯한 길버트의 태도에 심기가 불편하여 눈을 부라리고 그를 쏘아보았다.

"라파르의 외과의라도 소개나 시켜주고 그 잘난 혓바닥을 놀렸다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나의 감사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유감이군."

"소개를 시켜주려는 사람들이 의료과학에 통달한 라파르의 의사가 아니라 조금 놀라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누구야?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내가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르카나와 기적이라면 어떤가?"

"그것이 생명의 창조와 무슨 관련이 있지?"

"너도 알겠지만 종교나 기적의 근원같은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었나? 당연하게도 과학으로 풀어낼 수 없는 아득히 진리를 넘어선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나는 어차피 제명될 퇴물 과학자에 불과하니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도록. 아마 내일 새벽녘 즈음에 천상의 형상을 짊어진 아이가 아비가 함께 그 쪽에 닿을 거야."

"전도사까지 붙여가며 대뜸 내게 종교를 가져보라는 건가? 그것보다 내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몰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신나간 얼간이는 나 뿐만은 아니었군.”

“그래,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자는 쓸모없는 부품이나 다름없지. 황금은행과 학회의 압박도 그렇고 정기평가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아내가 죽어가는 판에 일은 손에 잡히지 않으니 남은 여생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그녀와 조용히 지낼거다.”

“동정이라도 해 달라는 건가?”

“아니, 오히려 잘됐어. 과학이라는 기적은 항상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발현될 수 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투정이나 부린거지, 뭐.”

“그래. 너는 나약하다. 그래서는 안돼. 과학이나 진리에게서 관대함만을 바라는 자는 진보라는 열매를 맛볼 자격이 없어. 만약 그 사실을 조금은 일찍 깨달았다면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속에서 태어난 것이지.”

연구와 분석을 하는동안 내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길버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자하니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반박할 여지가 없군.”

“그럼 언젠가….”

길버트는 가늘게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직접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연구의 성과가 두각을 드

러내기를 바라고 있겠지. 그와의 대화를 하나씩 곱씹으며 테이블에 널브러진 휴지조각들을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요란하게 펜을 놀렸다. 그렇게 어두운 연구소에 햇살이 비치고 사무실에 벨이 요란스럽게 울려대기 시작했고 나는 천천히 출입문 수화기를 들며 물었다.

“누구시죠?”

“길버트의 호의라고 하면 알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 말에 나는 거칠게 문을 열었다. 눈에는 정리되지 않은 수염을 한 아비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어린 소녀였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쪽으로.”

내가 그들을 연구실 안으로 들였고 소파에도 어지럽게 널브러져있는 잡동사니를 대충 바닥에 쓸어다 버리고 자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굳이 빙 둘러 말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나는 에르빈. 평범한 이들은 나를 천재라 부르지만 그딴 건 진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버트에게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은 그늘 속에서 조용히 생명을 창조할 계획이구요.”

에누리없이 요점만 정확히 말하자 입을 열고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비의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녀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저는 마고에요. 천사님이 되어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아르카나니 기적이니 하는 부류와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다. 논리적이지도 그것을 이룰만한 계획조차 없는 허울좋은 말 뿐이다. 내가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하자 그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소녀의 옆에 있던 아비가 허둥대며 정리를 하려고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베르생이 만들어낸 역작이자 천상의 형상을 쥚어진 아이입니다. 아벨의 권능인 빛으로 보듬는 치유라는 개념이나 생명의 태동을 일깨우는 아르카나가 뒤섞이며 가히 생명의 창조라고도 불리워도 손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자신의 딸을 상품처럼 입에 올리는 그의 말에 내 미간이 가볍게 씰룩였다.

“당신은 지금 딸을 팔러 온 것입니까?”

“유감이군요. 천재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천상의 형상은 과학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내는 와중에도 배타적일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과 연민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다른이의 생명을 위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고통을 딸이 겪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간절하고 또 절실하기에 라파르의 의료진들이 풀지 못한 것을 과학이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하는 희망이 있는 곳에 그저 발걸음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찬찬히 곱씹어보았다. 과학은 정해진 입력값에 정직한 결과값을 출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진실로 이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조차 설명하지 못했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던 창조의 기원을 거머쥘 수도 있을 것이다. 기적의 이면에 드리워져 그동안 잠자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정 기적의 다른 이름과 그것의 경이로움을 다른이들의 몸에 아로새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고양감 가득한 몸을 가볍게 떨며 그들에게 물었다.

“천상의 현신은 물리적 현상이 아닌 기적이고 창조의 힘인가요?”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기적이라 칭할 뿐입니다. 그 기적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닐테지요.”

책임전가처럼 들릴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들이 나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로 인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학으로도 파헤칠 수 없었다는 천신의 현상을 과학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한단계 진보한 인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명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은땀에 젖어있었다. 밖은 쌀쌀했지만 기분 좋은 낯섦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어째서인지 그 모습을 저들 부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손으로 어색하게 웃음을 감추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구태여 여기까지 발걸음을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딸을 데리고 말이죠. 듣던 바로는 베

르생의 사제들은 이미 아벨론의 더러운 그림자의 한켠에서 이미 충분히 영혼을 고통받아온 존재라고 들었지만 당당히 피실험체가 될수도 있음을 마다하지 않고 다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온다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그걸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천상의 현신을 짊어진 기적을 짐짝처럼 여기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과학자의 입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기적의 존재는 마고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당신이 그녀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다면 나와 마고는 다른 기적을 바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말을 끝으로 우리 사이에 찰나와도 같은 침묵이 이어졌다. 내게서 신이라는 존재의 손을 빌어 내가 기적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증명해내는 것은 과학자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열매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들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딸이 기적을 짊어졌다면 그것을 내게도 보여주세요. 나는 그 기적을 과학으로 입증하겠습니다.”

『 기형공생 』

“우웩.”

메스꺼움이 느껴져 구토를 하고나서 확인해보니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일반적인 토사물이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고나서 간신히 개울가에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괴한 모습으로 엉겨붙은 핏덩어리와 꿈틀거리는 엄청난 양의 종양 같은 것들을 보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왜인지 참았던 헛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아침으로 저딴걸 먹은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고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장난으로 나와 동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동거는 영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나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없던 입맛이 찾아왔다는 것 정도였다. 배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만큼 끔찍한 것들을 쏟아낸 뒤에 식욕이 도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었다.

“이게 사람이야?”

울분에 주먹을 세게 쥐고는 바닥을 여러번 후려치자 안의 뼈가 보일정도로 손이 찢어지며 피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않아 상처는 아물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새끼짐승이 그러하듯 몸을 한껏 웅크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참을 끅끅거리며 울어댔다.

주입된 세포가 기형적으로 변이를 시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져내리는 내가 너무도 가여워 아무래도 먹을 것으로 기분을 좀 달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얼른 눈을 비비고 일어나 발걸음을 되돌렸다.

“뭐 좀 먹어야겠다.”

병원에 발걸음을 하자 긴급후송된 무리들로 부산스러웠다. 가늘게 숨을 토해내는 자들은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들이 맞이할 결말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 탓에 측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오랜동안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갈구하는 것을 바라는 것도 당연하고 병원에 발걸음을 하여 다소 마음이 진정되어 희망의 눈빛을 하거나 안심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들은 장소를 잘 못 찾아왔다. 이 병원에 발걸음을 한 이상 저들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다음에 눈을 떴을 때에는 오히려 죽는 편이 낫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맛있겠다.’

찰나의 순간에 뇌리를 스치는 소름끼치는 생각에 나는 정신을 차렸지만 어느새 입가에 침이 고여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침을 닦아내고 숨을 고른 뒤에 몸의 변화를 관찰했다.

‘피와 찢겨진 육신을 보고 허기를 느끼고 있는건가. 하지만 숙주가 그

것을 인지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행동의 부조화를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완전하게 기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생존 이외의 목적이라도 있는건가? 애초에 기생하는 것들 가운데 생존 이외의 목적을 지닐 정도로 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있었던가?'

후송된 고기조각들의 신원이 기록된 진료기록부를 대충 넘겨가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탐식의 죄악을 짊어진 것도 아니요 카인의 핏줄은 더더욱 아닌 육신에 기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도 엉망진창이지만 만약 이것과 동화하면서 아무 부작용없이 완벽에 가까운 공생의 공생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될지 새삼 궁금해졌다.

“음, 그냥 먹자.”

이제는 사고방식마저 그저 아가리에 쑤셔박기만 해대는 것들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다. 하지만 마냥 짐승이 될 수가 없었기에 나는 양의 탈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눈을 가늘게 뜬채로 진료기록부를 하나하나 넘겨가다 마침내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고 기록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겨내고는 입을 열었다.

“좋아, 이걸로 하지.”

그렇게 기뻐하며 병동으로 향하던도중 지나친 거울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껍데기는 여전히 라파르의 의사였지만 지금 나는 기생충에

의해 침식되어가고 있었다. 암덩어리에 파묻혀 무기력해지는 숙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안타깝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갈쯤 이미 인간으로서의 감정마저 퇴색되어져가는 기분이 들었다. 다시 메뉴판을 들어 식사의 감정에 들어갔다. 기분 탓인지 내 몸에 기생하는 암덩어리가 내게 말을하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느낌이다.

“조금 더 질 좋은 식사가 필요하겠는데?”

“역시, 그렇죠? 뮐러 선생님. 라파르에서도 나름 규모가 있는 도시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돌연변이 개체수가 늘어난 탓에 운송에 혼란을 빚는 바람에 환자들을 위한 식사가 그리 풍족하지 못하게 됐네요.”

나 홀로 중얼거리던 말이었지만 곁에 있던 병원장이 그 말에 답했다.

“아아, 역시 그런가. 아닙니다, 플로렌스 병원장님. 피곤해서그런지 최근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괜한 소리를 했네요.”

내가 손사래를 치며 곤란해하자 플로렌스는 살짝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에 서둘러 응급환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살폈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음, 지금은 좀 그렇고. 저건 조금 더 나중으로 하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는 말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새삼 놀랍지는 않았다. 자잘한 식사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통째로 삼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늦기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듯 합니다. 원장님, 다른 선생님들도 호출해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들이 응답하는 동안 상태에 따른 환자 분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겠지만 바로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계를 보며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이 어느새 수술복을 걸쳐입고는 밝고 명랑하게 답했다.

“네! 뮐러 선생님.”

그녀가 다른 외과의를 호출하기 위해 원무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식사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 응급 후송병동의 문을 걸어 잠궜다. 그리고는 메뉴판에서 고른 식사에게 다가가서는 그의 얼굴을 가벼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식사가 정신을 차린것처럼 낮고 긴 신음을 토해내며 나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나 역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훌륭합니다. 차림을 보아하니 마르나크의 군인이시군요. 그리고 이건 잿빛 유령부대의 표식인가요?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죽음의 고개를 여러번 건너서 오셨겠지요. 저 먼 비젠트까지 기꺼이 아벨의 방패가 되기 위한 당신의 복무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푹 쉬시지요.”

내 넋두리를 듣고 있던 그는 내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강한 의지였다. 이 상황에서도 질기도록 강인한 생명은 역시 숭고하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을때 그를 안고 있던 내 팔에서 이빨이 솟아나더니 그를 잘게 갈아버렸고 갈라진 여러개의 혓바닥이 꿈틀거리며 나오더니 남은 조각들을 부지런히 삼키기 시작했다.

“어?”

그 기괴한 모습으로 확신이 들었다. 이미 나는 기생충과 유전적인 적합성에서 거의 완벽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것에 기뻐하거나 당황스러워할 수만은 없었다. 이미 주변은 피투성이가 되어있었으니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아마 이 참상은 의료집중국에 닿게 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여지없이 나는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상황에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렇게 남겨진 잔해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을 때쯤 문뒤에서 플로렌스 병원장과 다른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잠겨진것을 인지한듯 잠깐 멈추더니 이내 다시 문고리를 여러번 돌리는 소리와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해야만했다. 나는 남겨진 잔해를 두고 천천히 문에 다가가 다급한 소리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플로렌스 병원장님!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윌러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응급후송 환자중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것이 섞여있었나 봅니다. 감염확산방지 차원에서 후속대처를 부탁드립니다.”

“호출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격리를 해야만하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녀의 상황 판단능력에 무릎을 치며 역시 내가 고른 마지막 후식이라는 생각에 새어나오는 기쁨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리고는 더욱 극적인 연출을 위해 기침을 하며 검붉은 암덩어리를 토해냈다. 그리고 함께 흘러나온 피가 잠겨진 문 틈 사이로 흘러나갔다. 그것의 효과가 탁월했는지 그녀와 함께 온 의료진이 혼비백산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너머로 적나라하게 들려왔다. 그 혼란 속에서 플로렌스 병원장은 차분히 지시를 내렸다.

“모두들 방호구를 착용하세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병동에 늦지 않게 마비가스를 분사하시구요. 소각반과 처리반을 소집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이 때라는 듯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홀로 남은 플로렌스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뮐러 선생님. 저는 그저 해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병원장님. 힘든 결정을 하게 했군요.”

“검붉은 암덩어리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혈액과 그 속을 헤엄치는 듯한 검붉은 열매와도 같은 것은 분명 쟈토움의 것이로군요.”

“그런가 봅니다. 유감입니다, 병원장님.”

“아니죠, 뮐러 선생님. 당신처럼 귀중한 기형분열하는 유전적 적합성을 띄고 있는 실험체가 이렇게 살처분 되어서는 안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물음과 함께 그는 잠겨진 문을 조용히 열고 내게 말했다.

“일단 당신은 서류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셉 뮐러의 모든 기록은 한 줄도 남겨지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신기하네요. 본명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기억은 없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는 그 누구의 원한도 산 적도 없구요.”

“그러시겠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절박한 자라면 당신의 누구인지 아는 정도야 못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아군인가요? 적인가요?”

“의사로서 적합하지 못한 질문이로군요. 저에게는 모두 상처입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직 물어보고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살처분 및 후처리 준비를 마친 이들의 소리가 들렸고 그것을 인지한 모습을 그녀도 알아챘는지 그녀가 내게 말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당신과 체형이며 근육섬유 혈액 치아상태 유전정보가 일치하는 암덩어리를 빚어낼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물론

당신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게하면 사후처리 의료감정에서도 당신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태로는 원형을 완벽하게 제대로 빚어내지 못할테지만 그정도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그는 저주를 입은 것에게 씹어먹힌 불쌍한 의사였으니까요.”

“‘였다’라…. 하지만 그동안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인거죠?”

“그것 역시 당신이 더 잘 아실텐데요? 당신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유전적 정보에 따르면 불경한 존재나 쟈토움이 낳은 핏덩이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군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흥미로운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돌연변이의 기형공생형질이 당신의 육신에 무사히 정착한 것을 감사하세요. 더불어 라파르냐, 쟈토움이냐 어디에 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정하는 것 역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커져가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조용히 문이 닫혔다. 유난히 요란스럽게 끼이익 거리며 닫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문틈사이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분명 그녀는 인간이다. 그리고 분명 나는 인간을 벗어난 불경한 존재가 된 것임은 분명할 터, 눈 깜짝할 새에 그녀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공포

에 질려있었다. 정신을 차린뒤 나는 또 다시 정성스럽게 핏덩이를 토해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은 정성을들여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을 만들어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썼다. 엉망진창이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는지 나 조셉 윌러는 더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죽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나중에 비밀연구실에서 신문을 넘기다 멈추어선 곳에서 나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큰 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보도도 아니고, 끝에서 네번째 장 중간 언저리에 기억조차 나지 않 정도로 조그맣게 실려있는것을 가만히 보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산 것도 죽은것도 아니구나.”

『 유산 』

하늘에서 내리쬐는 눈부신 태양은 부드럽게 대지를 적셨고 나는 그것이 언짢아 얼굴을 잔뜩 구겼다.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여 구원의 빛이 온화하게 대지를 비추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빛은 우리들을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이기적인 구원이 아닐 수 없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구원은 모두를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불만을 토해내는 동안 눈부신 태양을 맞으며 키욜의 고동과 빛이 느껴지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아벨의 자손 중 순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대지에 발걸음을 하였으나 기이하게도 그들은 나에게 적대감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듯했다. 이질적인 감각과 동시에 나는 아무런 방해없이 키욜의 고동과 빛을 느끼고 그곳에 자리하여 대지를 뜯어냈고 깊숙이 박혀있는 은은한 빛을 발하는 키욜의 파편 하나를 끄집어내며 넋을 놓고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반짝이는 돌조각을 손에 쥐어지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적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욜의 파편이 이런 곳에라도 무사히 잠들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야겠지. 그리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키욜을 끄집어 내자마자 대지는 미친듯이 요동쳤고 돌무더기가 흩날리며 뭉쳐지는 것을 반복하더니 자신들의 단

잠을 깨운 것에게 화풀이를 하려는것처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지의 균열은 그 기세를 멈추지않고 더욱 거칠게 거부감을 표출하자 나는 포근하게 대지에 손을 포개어 달래듯이 속삭였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미간을 구기며 조용히 용서를 구하였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키욜을 수집했을 때부터 오랜동안 이어온 나만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분명 그것은 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내가 사과의 말을 건네고있던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키욜을 끄집어내면서 저것들의 안식을 방해한 셈이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동안 바위가 부딛히고 깨지며 둔탁한 소리가 대지에 울려퍼졌다. 키욜이 광기를 억누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나즈레스의 전사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키욜이 억누르고있던 것은 비단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 만연한 만월의 광기만이 아니었다. 말인 즉슨 이미 이데아에 광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는 것인데 문득 세트의 후예가 지닌 광기를 억누르고자 이데아에 흩어져있는 키욜을 끄집어내고 난 뒤에 퍼져나가게 될 광기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심지어 이데아에 흩어져 잠들어 있는 키욜의 수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키욜 한 조각을 끄집어 내기만해도 그 일대의 모든 대지가 광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미친듯 요동치며 적대감까지 드러내는데 만약 온 이데아에 심어져있는 키욜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한 곳에 집중시켜 놓았을 때 일어날 일을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낙원의 남겨진 것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것이 대지의 광기를 마주한 적조차 없는 것들이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쉬녹을 다루지 못하는 어린 계승자들이 키욜을 끄집어내며 새어나오는 광기에 잠식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계승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거두어야 했기에 그만큼 치가 떨리는 일도 없었다. 역시나 키욜을 끄집어내자 미친듯이 휘날리는 바위들 사이에 잠들어있던 미쳐버린 계승자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동안 그것들을 조우해오면서 느낀것은 미쳐버린 것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키욜의 빛이 점점 바래진다. 그것을 시작으로 키욜의 빛이 광기를 완전히 잠재운다고 한다면 대지의 광기를 붙잡아두고 있던 조각의 파편을 끄집어내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서슬푸른 빛의 조약돌들을 끄집어낼 때마다 대지가 비명을 지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리는 힘인 하쉬녹을 쥘 자격이 있냐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와중에도 대지에 광기에 물든 돌무더기의 흐름이 미친듯이 춤을 추었고 무너진 계승자들이 나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빛을 잃어버린 눈빛을 하고있던 그것들 중 하나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토루샤….”

그의 한마디가 나의 사고를 잠시 멈추게 하는데 충분했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그들의 상태와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상태를 대충 파악하고 난 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광기에 빠져있는것 치고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전승자 토루샤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나는 토루샤가 아니며 그대가 말하는 길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네, 오랜 전사들이여.”

“그대는 모두를 광기의 너머로 인도할 것이오.”

“광기를 다스리기 위한 키욜을 끄집어내는 것이 나의 책무일 뿐 아직 그런 이름을 짊어질만한 덕목을 갖추지 못하였소.”

내가 말을 미처 마치기전에 그는 내 말을 가로막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뒤에 있던 다른 계승자들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토루샤여, 지금의 그것을 잊지 마시오.”

“도대체 무엇을 말인가?”

나의 물음에도 그것들은 넋을 잃은 듯 공허한 눈을 하고는 입을모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전승자, 토루샤. 길. 열어주시오….”

그들이 더이상 이성을 붙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되자 내가 말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는건가. 나즈레스의 고귀한 전사들이자 대지의 가호를 받은 계승자들이여. 이제 그만 잠들라. 그대들의 못다한 과업은 내 기꺼이 이어가리다. 그대의 흔적이 이 땅에 새기기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대지의 고동을 쏟아내었다. 이성을 잃었다고는 해도 그들에게서 광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둘려싸여 한참의 시간동안 돌덩이나 바위의 폭풍의 하쉬녹이 뒤섞이는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고요했다. 무너진 어린 계승자들의 표정까지 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차분한 것은 키욜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걸어온 길과 그 가운데 짊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의 무게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내 손에서 무너진 것들은 비탄에 찬 얼굴이 아닌 오랜시간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짐을 덜어낸 듯 홀가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텅 빈 가슴의 고동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나의 고동만이 외롭고도 조용히 울려퍼지고 있었다. 그렇게 덧없이 서로를 부수어야만 하는 이유를 되짚어보다 꽉 쥔 손을 가벼이 펼치자 사정도 모르는 채 은은하게 광채를 발하는 키욜이 갑자기 너무나 미웠다. 뒤틀린 빛이나 강림한 아벨의 현신따위는 이미 나의 안중에도 없었다. 다른 계승자들의 시체를 발판으로 삼으며 나는 어금니를 드러내고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그것은 광기에 찬 울음이 아니었으며 그 울음은 다른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가슴의 공허함을 표출해낼 곳이 없었기에 그 울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을것이라.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손에 쥐어진 조그만 키

욜의 빛깔마저 나의 광기를 잠재울 수 없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것 만 같았다.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시작한 발걸음은 어느새 더욱 깊은 광기마저 마주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 또한 지워낼 수 없었다.

“광기에 찬 것은 도대체 누구였던 것이지?”

그렇게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난뒤 깊게 한숨을 쉬고나서 어째서인지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다 광기에 빠진것처럼 오랜동안 미친듯이 웃음을 토해내고 난 뒤에 즈려밟은 어린 계승자들을 눈에 담은 뒤로 간신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 나즈레스의 어린 계승자들의 숨마저 부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광기에 빠지지 않기위해 다른 것들이 광기에 빠져 미쳐 날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나즈레스가 바라던 지배인지 작은 의구심이 가슴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낡은 것에 대한 분노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필시 바스러진 이들의 얼굴이 고스란히 뇌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 때 갑자기 부서진 계승자들이 대지의 광기와 뒤섞이며 거대한 바위로 뭉쳐지며 기괴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우리를 우롱할 셈이냐?”
나는 이를 뿌득거리며 그것에게 분노를 쏟아내었다. 덧없이 바스러지던 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지 않은 대지의 광기에 나 역시 광기로 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키욜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의

손에 조그맣게 빛나는 파편 하나가 나를 위로하는 듯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 나는 보잘것없이 하찮은 빛을 발하는 돌멩이를 쥐고 바위로 뭉쳐진 흉물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어차피 우리가 광기에 잠겨 부서진들 그대들에게 우리는 한없이 작고 덧없는 존재겠지. 그러나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 대지의 광기따위 이제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불어 작디작은 키욜의 빛으로 돌이 된 세트의 심장을 녹여 그의 재림을 바라는 것조차 이제 더이상 내게 아무런 울림으로 와 닿지 않는다. 지금 내가 그대를 부수려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화풀이일 뿐이니 괘념치 않았으면 하는군.”

그것이 내 말을 이해하는 것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밖으로 내뱉은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한 다짐이다. 다시금 키욜의 빛을 마주하고 그윽한 눈으로 그것을 담고 내 모든 하쉬녹을 끄집어내어 거대한 대지의 광기를 향해 나의 분노를 쏟아내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곳을 지나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주변에 심어둔 비석의 수로 간신히 가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저 흉물을 내 숨이 다할 때까지 부수는 동안 일정한 주기로 우리의 주위에 둘러놓고 있었다.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알 겨를이 없지만 분명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는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무너져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돌덩어리의 흉물은 이전에 광기로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주위의 돌덩이나 다름없이 차분하고 고요한 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의 안에 조용히 숨쉬고 있는 키욜의 고동은 힘차게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쓰러져있는 그것의 심장에 손을 쑤셔박고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키욜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덕분에 손은 여기저기 패인채로 엉망이 되었다.

흉물에게서 끄집어낸 키욜은 여지껏 손에 취했던 무엇보다 밝고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포근하고 따사로운 고동은 나의 텅 빈 심장소리에 맞추려는 듯한 고요한 울음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나 그것의 울음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나도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터져나왔다. 바싹말라 갈라진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키욜이 나를 다독이는 것만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항상 용서만을 구하였지만 그것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했다. 그리고 숨길 수는 없었지만 키욜이 나의 광기를 잠재우고 있음에도 자리한 분노도 조심스레 내 안에서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것은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이 오랜동안 염원하던 허울뿐인 관례, 어긋난 역사 그리고 세트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에 대한 분노였다. 나의 손에 바스라진 것들이 나를 토루샤라고 입을 모아 부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구멍난 가슴에도 선명하게 자리한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걸어온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내가 나즈레스의 전사로서 무엇을 계승해야 할 지는 확실하게 보였다. 계승되는 것이 나즈레스의 절망일지 수많은 이들

의 피와 땀으로 쓰여진 진실된 역사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무뎌진 이 두 손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연하게도 나즈레스의 영광따위야 지금의 나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눈에 불을 밝히자 하쉬녹은 대지를 긁어가며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었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즈레스의 이름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굳건하고 우직하게 이 대지에 흐르는 하쉬녹으로 진실된 역사를 새길것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키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고동치며 우리의 길을 봐 주시오. 그러하면 그대도 그 빛으로 광기를 잠재울 수 있으리니….”

그렇게 나지막이 대지에 손을 대고 다시금 나의 각오를 되새기고 난 뒤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불경한 땅에서 뜯어낸 두 조각의 키욜 파편을 마저 들고 아브 게르로 향하였다. 내가 발걸음을 옮겨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려하자 주위에 있던 순례자들이 시선이 한참이나 내게 쏠리었다. 따가운 시선은 내가 그들의 땅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지고난 뒤 새벽녘 키욜의 빛을 품으며 나는 고요히 잠에 들었다.

『 억눌러야하는 감정 』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나도 알아.”

“아니, 너는 몰라. 심지어 지금도 아벨의 현신이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는데도 너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잖아?”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강인한 힘을 지니고 있다. 아벨의 피가 조금 섞여있다고 해도 세트의 후예임은 엄연한 사실이나 우리라는 말 테두리 안에는 그 어떠한 경계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그런가?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

“어째서야? 너는 항상 최선을 다했잖아. 불의에 맞서고 언제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힘껏 달려왔잖아? 길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시간을 함께하는동안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부족한 것은 없어 보였는데?”

“글쎄. 구원이 왠지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걸까?”

“걱정마. 그렇게 말해도 나도 밖에 있는 네 친구도 아벨의 현신이 아닌 그저 인간의 몸뚱이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그가 내게 물었다.

“아직도 네가 바라는걸 이루지 못해 여기 있는거야?”

“무슨 뜻이야?”

“너는 세트의 후예잖아.”

“응, 맞아. 너는 아벨의 자손이고 나는 세트의 후예지.”

그 당연한 대답에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 세트의 후예임에도 이렇게나 오랜동안 아벨의 자손들과 내외하지 않고 접촉을 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을거아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교감과 소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고민도 하지않고 미소를 유지한채로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말에 답을하자 그는 갑자기 내 말을 자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허울 좋은 말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그것에는 항상 독이 배어있거든. 카인의 핏줄은 물론이거니와 세트의 후예는 말할 것도 없지.”

“그러면 아벨의 자손은?”

내가 되묻자 그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자 나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너는 아벨의 자손임에도 아벨의 자손조차 믿지 않으면서 그들을 보듬으려 애쓰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어?”

“별 것 없어. 지금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저 내가 공명정대한 사람이었다는 내 스스로의 모습에 한껏 취해서 휘두른 정의일지도 모르겠네.”

“아니, 그렇지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올곧은 모습에 취해서 이끌린 사람들은 모두 너에게 크던 작던간에 구원을 받은거야.”

“그랬으면 다행이네.”

“그래. 세트의 후예인 내 말은 믿어주지 못해도 적어도 너한테 구원을 받은 아벨의 자손들의 말은 믿어줄 수 있잖아?”

“아벨의 자손조차 서로를 믿지 못해서 엉망진창인 상태인데도 다른 이들이 건네는 말을 믿으라는것은 너무 순진하고 바보같은 짓이지.”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기에 나는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답했다.

“믿음을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건 알아. 하지만 흘러간 과거를 딛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너도 잘 알잖아?”

“흘러간 과거를 쉽사리 잊을 수 있을만큼 많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작에 이루어졌겠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든 싫든간에 그저 서로의 정의의 색깔을 구분 해야만하는 상황인거야.”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나뉘어진 색이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거야. 그것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뒤로 서로 다른 색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인 셈이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 할 수 있는거야?”

그는 힘겹지만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말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꿈만같은 이야기를 하고있는 나를 조금 원망이 뒤섞인 말로 내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 역시 그것을 외면하지않고 그윽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거라고 생각해. 물론 천천히 그리고 조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우리 모두가

서로 교감하며 그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는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귀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을거고.”

“세트의 후예치고 꽤나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 우리에게 조금은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지.”

“이데아에 너희들같이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게 놀라울 따름인걸? 그래도 공존과 화합이 가능하다는 건 너무 꿈같은 이야기야.”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뿌리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도 아니지. 지금 네 눈 앞에 숨을 쉬고있는 존재들이 낙원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교감과 대화로 만드는 화합이 거짓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닐까?”

내 말에 그는 잔뜩 상기된 눈으로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거지?”

“그렇게 태어난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

내가 슬픈 표정으로 말하자 그는 미안함과 당혹감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나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다독였다.

“괜찮아. 더불어 우리도 같은 미래를 바라기에 이곳에 온 것이고 훗날 낙원의 모습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니까.”

“어? 뭐지? 뭐가 들리는거야? 아니,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거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진정해. 이것이 밀라모르의 힘이야.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화합은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이정도나 되는 힘을 지니고 결국 바라는 게 평화와 화합 뿐이라니 더욱이 너희들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 없군.”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믿어 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진실이 항상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지.”

“그래. 그것의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보는 세상도 나쁘지는 않을테지. 아니 바라건대 이것의 반만큼만 보여줘도 낙원에 흩뿌려진 흔적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축복이 아닐까싶네.”

나는 그것의 말에 흡족한 웃음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물론이지. 이 세상에 혼돈과 분란을 조장하려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저 서로 바라는 것이 조금 달랐을 뿐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몰라.”

“…그럴까?”

그 역시 나의 말에 조금은 안정이 된 듯 만족한 표정으로 한숨을 가볍게 내쉬더니 내게 기대며 자세를 고쳐잡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듯 그녀가 문을 열더니 조심스레 들어왔다. 나는 뿌옇게 일렁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조용히 떨구었다. 눈물은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의 눈가에 떨어져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르메스의 법관이 미간을 구기며 내게 따지려는 듯이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 눈물 뒤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만?”

“오히려 이쪽에서 덧없이 바스러지는 생명에 대해 마지막 인사조차 해주지 않고 눈물 짓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대법관님?”

내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를 조심스레 옮기며 묻자 그녀는 이를 뿌득거리며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내게 되물었다.

“덧없다? 네놈들 짐승들의 눈에는 피와 땀으로 쓰여진 질서를 위한 희생이 그렇게나 우습고 덧없이 바스러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나? 네놈들이 이르메스의 저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나 하나?”

나는 어금니를 드러내고 울먹이는 눈을 치켜뜨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나를 그딴식으로 부르지 마.”

그러자 그녀는 쇳소리를 내면서 내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곁에 있으면서도 네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알려줘!”
나도 모르게 격한 그녀의 감정에 휘말려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그녀에게 소리치자 그녀는 내게 천천히 다가와 멱살을 붙잡고 내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똑똑히 새겨둬라 들개야. 우리의 정의를 한심하게 눈물같은 감정따위로 가볍게 치부하지 마라.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정의와 질서를 관철해 나가는 인간들에게 교감이나 소통따위를 호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네가 다독거리며 건네던 말이 여지껏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모두 부정하는 말이라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녀가 조용히 쏟아뱉은 그 말은 다른 무엇보다 더욱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기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뻥긋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까닥이더니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붙잡았던 멱살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런 개 씨발!”
그리고는 등을 돌리더니 분풀이를 하듯 그의 방 한켠에 외롭게 삐걱거리던 흔들의자를 거세게 걷어차자 쌀쌀하게 부는 바람이 들이치는 방 한켠을 요란하게 울리더니만 이내 고요히 흩어졌다. 그녀는 우리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식어버린 그의 곁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녀의 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얼

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의자 위에서 쭈그려앉아서 멍하게 있는동안 시체를 수습하러 온 장의사들이 집안에 들어오더니만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마 그녀가 부른 거겠지. 더불어 그녀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았는지 그들은 나의 존재에 대하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채 그들의 일에만 몰두했다. 기민한 정신력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세트의 후예로 오랜동안 살아온지라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거대했고 그것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밀물처럼 몰려온 장의사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를 수습하고는 그가 남긴 흔적 몇개를 거두어갔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빠져나가자 순식간에 고요가 나를 뒤덮었고, 슬픔뒤에 밀려온 공허함과 쓸쓸함은 순식간에 다시 나를 차갑게 끌어안았다. 레브를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나는 그들의 감정을 읽으며 소통하고 공감해 줄 수 있었으나 정작 나의 슬픔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고요를 깨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다시 들어와 멍하니 쭈그려 앉아있는 나를 힐끔 바라보더니 봉투에 있던 병을 하나 꺼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술이지. 이 얼간이가 좋아하던 것이다.”

“목 안 말라.”

“이건, 하…. 됐다, 그럼 구경이나 해.”

내가 무얼하던 신경쓰지 않던 그녀는 술을 들이키고는 내게 말했다.
"알빈은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가 쏟아내는 차가운 말투에 나의 온 몸에 털이 곤두섰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네."
"나는 나약했다. 과거에 미처 심판하지 못했던 죄가 살아남아 망령이 되어 이제서야 복수를 하려는거다. 간단히 말하면 업보라는 거지."
"지나간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그래, 하지만 지나간 것을 바로잡을 수는 있지."
"알빈은 무엇과 싸우고 있던거지?"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리고 인색함에 빠져버린 이르메스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내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서 비아냥대는 꼴을 선물로 보여주고 싶었지. 조금 늦어져 버렸지만."

"넌 그의 벗이면서 왜 그와 함께 싸우지 않았던 거야?"
"과거의 매듭을 청산하기 위해 직접 발을 옮겼지만 내가 어리석었지. 문제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그것을 먹여 살찌운 현재의 이르메스 내부부터 이미 곪아터져 썩어가고 있었던 거였어."
"그건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거야?"
"이르메스의 사법관들 대부분의 뿌리는 상투스의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대를 이어가며 능력이 대부분 희미해졌지만 불경한 것들의 기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이 땅에 기어들어온 무수한 사치품들과 기괴한 옛 골동품들은 올곧은 정의의 눈을 멀게하기 충분했던거야.”

그녀는 이를 뿌득거리더니 순식간에 검은 기운을 뿜어댔다. 그녀의 검은 눈은 그녀가 뿜어낸 기운과 섞이며 더더욱 검게 빛을 내고 있었다.

“바르샤딘 앞에서 맹세하며 내 안에 흐르고 있던 피가 끓어오르며 순수한 정의와 질서에 눈을 뜬 것이다.”

“자선의 미덕인가?”

“그래. 나의 변덕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남은 여생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나의 벗의 죽음과 내가 스스로의 걸어온 길을 부수고도 모자라 이제는 불쾌한 악몽같은 불꽃이 짐덩이처럼 나를 붙잡고있네.”

그녀는 헛웃음을 토해냈다. 검은 기운과 그녀의 뒤틀린 비웃음음과 섞은 그녀가 무서웠다. 딱해 보였다. 그리고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까치발을 하며 그녀를 꼭 안아 주었다. 그녀는 커다랬다. 내가 세트의 후예치고 작은 것도 그렇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려는 듯 크고 단단했다. 어느순간 그녀를 감싸던 검은 것의 무게가 덜어졌음을 느꼈다. 나는 눈을 감고 더욱 깊은 레브를 끌어내어 그녀의 슬픈 감정속에서 헤엄치며 그녀의 감정에 맞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도 꿈을 꾸듯 몽롱하게 눈을 뜨며 선명하게 새겨지는 레브에 집중하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우

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취했다. 그리고 내가 조용히 물었다.

“봤지?”

“남의 마음속을 후비고 들어와 꽤나 불쾌한 짓거리를 일삼는군.”

“미안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감과 소통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그저 작은 포옹만으로 우리를 어둠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도 있듯이 만약 네가 과거의 어둠을 맞이하고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나는 까치발을 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녀는 피로한거다. 조금이지만 쉬고싶은 것이다.

“아니야, 너는 잘해왔어. 그리고 잘 해낼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소리를 죽여가며 펑펑 울었다. 이들 역시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이들에게 단죄의 심판을 내려가면서 아무렇지 않을리가 없다.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는 한참동안 그녀를 위로해주었고 그녀는 피로가 쌓였는지 알빈의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미안해.”

그녀의 말에 나의 귀가 쫑긋했다. 그녀는 잠꼬대를 하는 듯 조용히 중얼거리고 몸을 뒤척거리더니 깊은 숨을 뱉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 나는 다시금 고요해진 거실로 나왔다. 테이블에 널브러진 술병들이 눈에 들어와 술병에 슬쩍 코를 대고 향을 맡았다. 그리고 그녀의 기분을 이해하고 싶어서인지는 몰라도 단숨에 남은 술을 쭉 들이켰다.

“그래. 그런것 없어도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들은 충분히 강한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오히려 잘못된 것을 찾고자 한다면 이렇게 건조하고 굳게 닫혀진 마음을 만들어낸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나 헤아릴 수 없을만큼 깊고 어두웁지만 그들의 감정을 함께 섞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마땅하다. 씁쓸한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바람이 차창을 흔들어댔다. 아벨의 현신이 강림함에도 그 자손들이 이리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나 아벨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그저 따스한 말과 포근한 서로의 품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밀라모르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다.

『 회귀 』

“이제 곧 시작되겠군.”

“이제와서 시작하게 된 셈이지. 말은 똑바로 하게나.”

“이제서라도 시작하게 된 게 어딘가?”

“이 상황에서도 자네는 아직도 말장난을 하고 싶은건가?”

“그만들 하게. 셋 다 서로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슨 대답을 얻고자 언제까지 이렇게나 의미없는 언쟁을 하고있을텐가?”

내가 그들의 탁상공론에 참지 못하고 뿌리박힌 다리를 크게 들어 발을 구르자 나무가 찢겨나가는 거친 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려퍼졌고 산 속의 새들이 부리나케 흩어졌다. 셋은 그렇게 조용해졌다. 나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가로젓자 그 행동거지가 불쾌한 듯 모몬토카가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전쟁이 두렵기라도 한건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경한 모든것들에 의해서 뒤틀린 빛의 시간과 함께 순환의 고리가 어긋나는 것이지 전쟁따위가 아니라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인 불순물을 흙으로 되돌리는 것을 하는것일 뿐인데 왜 그렇게나 민감해진 것인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불순물을 정화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시체를 쌓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쳤을 뿐이네.”

“애초에 이런 말도 안되는 협정을 맺은 것은 자네인데 이제와서 성인 군자인 척을 하며 발을 빼려는가?”
그 말을 귀에 담은 칼린이 한심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숲의 수호자들은 숲에 쳐박혀 관음하느라 막상 세상에나와 피 튀기는 전장은 꺼리시나보지? 숨어사는 것이 그리도 재밌던가?”
“우리는 전장에 발을 담그는 자들이 아니라 순환의 고리를 다잡는 자들이니 굳이 불필요한 전쟁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것이지.”

“너무나도 편협한 사고가 아닐수가 없군. 세상에 불필요한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랬다면 그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만 없다면 이데아가 깨끗하고 순수하게 남아있을 것 같나? 꿈도 야무지구만.”

그러자 욜룬두르가 온 몸의 껍데기들을 삐걱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것이 칼린의 거친 입담에 대한 위협인줄 알았으나 그것은 저편의 다른 아키스트들의 뿜어대는 아르카나를 향한 것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모양이로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대를 환영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대들이 거래를 수락하고 난 뒤로 나를 이루고 있는 아르카나의 형태가 달라졌으니 저들이 나를 경계하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일테지. 그랑둘 산기슭에서 오랜동안 수호자들과 섞여버린 지금 이미 저들

에게 있어서 나는 외부인이나 다름없을거다."

"그건 두고봐야 알겠지. 앞장설텐가?"

"물론. 내 고향 내 땅에 발걸음을 하는 것인데 문제될 것도 없지. 어찌됐든 내가 퀴나즈의 아키스트인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니."

말과 달리 그녀의 발걸음이 잠깐 주춤했다. 그 모습에 그녀는 조용히 웃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조차 변해버린 아르카나의 형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 더이상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들 앞에 서더니 퀴나즈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아르카나의 샘근방에 다다르자 더이상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않으려는듯 아르카나의 세례가 우리의 앞길에 쏟아져내렸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 욜룬두르의 단단한 껍질을 뚫어내지 못하고 아르카나의 조각이 되어 깨지면서 공중에 산산히 흩어져 비처럼 쏟아져내렸다. 든든한 방벽을 뒤로하고 칼린은 아르카나의 호수에 발을 담그더니 호수의 전령을 띄웠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리운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금은 탁해졌지만 여전히 그리운 그 감각이구나."

짙고 투명한 보랏빛으로 춤을 추는 호수의 전령은 이리저리 춤을 추더니 이내 흩어져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않아 아키스트들과 함께 늙은이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의 육신은 오랜 시간으로 형편없는 몰

골을하고 있었으나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은 제법 근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치켜 뜬 눈으로 우리의 생명을 찬찬히 분석을 하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살짝 두드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졌나 보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순환의 수호자들이여. 나는 퀴나즈의 장로를 맡고있는 틸다르라는 자입니다. 먼 길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이다.”

“그대들의 우두머리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를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게 되었네. 뒤틀린 빛이 잠들때까지 퀴나즈의 아키스트들과 함께할걸세.”

내가 예우를 갖추며 그들의 환대에 응대하자 그 말을 듣던 칼린이 입술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는군.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곳까지 발걸음을 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지 않나?”

그 말에 장로라는 영감은 예상하기라도 했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답했다.

“그렇군요. 교섭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지요.”

“그대도 잘 알듯이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는 뒤틀린 빛을 잠재우기 위해 어디라도 뿌리를 내릴것이다.”

“그 말인즉슨 아벨의 자손들간의 전쟁을 야기시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될런지요? 그렇다면 유감입니다만, 이미 우리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은 상투스와의 계약으로 연루되어 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작 어리석은 아벨의 자손들끼리 맺은 계약따위로 어머니 대자연이 낳은 순환의 고리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아벨의 자손.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계약과 관습으로 옭아매어져있는 저희 아키스트들의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야기가 계속 맴돌자 답답했는지 칼린이 짜증섞인 소리를 내더니 장로라는 자의 앞에 서서 푸른 요란하게 눈을 밝히며 말했다.

“그대와 아키스트들이 오랜동안 무엇을 위해 아르카나라는 것을 몸에 담아왔는지를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이오?”

“칼린, 이 딱한 것. 홀로 모든것을 짊어지려 세트의 후예와 꽤나 복잡하고도 부당한 거래를 하고 왔나보구나.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더이상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던 욜룬두르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마를 탁 쳤고 모몬토카도 적대감을 드러내며 쉬익거렸다. 그런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장로라는 것은 칼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장로라는 늙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칼린의

옷을 거칠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러나 그녀의 일부는 아벨의 자손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모샤에트 수호자들의 일부와 같은 나무껍질의 형태를 띄고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몇몇은 벌써 지팡이를 우리들을향해 겨누며 금방이라도 죽일듯한 기세를 띄고 있었다. 장로라고 하는 자는 혐오감에 손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이미 사람의 살갗은 벗어던지고 짐승이 되기로 한게냐? 이 짓거리를 하고도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호수의 전령을 낭비한 것이더냐?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꼴이구나.”

“그동안 너무 오랜동안 계약으로 묶여 평화에 잔뜩 취해있던 아키스트로부터 들을만한 말이 아니라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군.”
“퀴나즈의 아키스트라면 원하는 것이 이실그라드의 정화가 아니던가?”
“그것보다 평화와 안정이 주는 안락감이 그렇게나 만족스럽던가?”
“그것이 수백년간 이어져오며 퀴나즈가 비로소 낙원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그리움 때문에 과거만을 살기를 바랬다면 아르카나에 취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등뒤의 짐승새끼들이 아니라 당신들이겠군.”

“그런가. 결국은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가?”

“운명이라는 말에 기대서 한심한 변명을 하려거든 접어두시오. 세상은 살아가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의 것이니 말이오.”

“결국 자연의 고리라는 것도 허울좋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 말에 참을 수 없던 내가 앞으로 나서려하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칼린이 품은 생명이 분노로 미친듯이 고동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문득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의문을 차마 이 녀석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녀석이 지금 아벨의 자손인지 세트의 후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홀홀단신으로 모샤에트의 수호자들과 계약을 위해 숲속에 들어와 대지의 뿌리가 엉켜있는 지금 칼린의 모습은 마치 이데아의 개체나 다름없는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지금 사소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기에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 칼린에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치는 않았지만 지금 나는 그녀에게 주둥이를 놀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하지만 그녀역시 세트의 기민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하는 깊게 뿌리를 내려 대지의 고동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감히 의심할 수 없었다. 비틀어진 빛도 빛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그녀를 이 땅에 무사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무언가 꾸미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이야기 하는게 좋을거다, 바샬모

그. 나는 지금 무얼 보고 있는거냐?”

모몬토카가 혼란스러운 듯 내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글쎄. 하지만 저건 불순물이라고 부를 수 없겠는걸?”

“내 약속하지 나의 벗들이여. 하지만 칼린이 순환의 고리에 뿌리를 내리리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네. 저 모습은 오히려 이데아에 뿌리내린 신목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맞겠지.”

“주시하는 이들의 기록에 그런것이 담겨 있던가?”

“기로되어 있는 것은 일부. 하지만 그것은 은유적인 비유였을 뿐 그것이 무엇이라 정확하게 지칭하지 않고 있네. 비틀어진 빛을 부수기 위해 우리는 비틀어진 이데아를 만들어낸 걸지도 모르겠군.”

“그게 무슨 궤변인가?”

욜룬두르는 우리가 나누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모몬토카와 나를 여러번 바라보더니 자신의 껍질을 요란하게 부수어대며 나의 대답을 요구했고 그 모습에 놀란 아키스트들의 푸른 궤적이 우리 주변을 삽시간에 덮쳤다. 그 돌발행동에 장로도 당황한 얼굴로 서둘러 그들을 제지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시발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푸른 불꽃은 일대의 아르카나 호수를 증발시켰고 자욱한 아르카나의 안개를 만들어냈다. 그 안개는 생명력이 가득하여 숲에 사는 생명의 형태를 바꿀정도로

짙은 농도를 띄고 있었다. 그 연기속에서 푸른 빛이 밝게 빛나는 그것이 칼린의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장로 곁에 있던 칼린이 순식간에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욜룬두르여 그렇게 날을 세우지 말아주게나. 지금의 그대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니 말이다. 일단은 칼린이 이곳에서 죽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나 뿐만은 아니겠지?”

“일단 불순물로 보이진 않으니 당장은 죽이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가! 뒤틀린 빛보다 저것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말이군!”

여전히 짙은 아르카나의 안개 속에서도 형체를 유지하는 그녀는 안개를 짜증스럽게 걷어내며 칼린이 내게 물었다.

“이렇게되면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야하나? 아니면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말해야 하는건가?”

그녀의 물음에 차마 무엇이 옳다 대답을 할 수 없었던 내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자 욜룬두르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더니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양쪽 모두다! 어쨌든 거래나 교섭이라는 것이 항상 상호간에 우호적인 감정으로부터 싹트지만은 않는 법이잖나?”

욜룬두르가 속 시원하게 도움이 전혀 되지않는 소리를 지껄여대는 듯이 느껴져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 대답이 그녀에게도 그리

고 나에게도 충분한 대답이 된 것만 같았다. 그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혹은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는지 내 몸의 나뭇가지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웃음짓고 있었다.

“그런가. 애초에 순환의 고리안에서 지금 일어나고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작고 미묘한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이지.”
“어머니 대자연의 젖줄을 탐닉하던 은거자들이 무어라 지껄이든 내 알 바 아니다. 자 움직여라, 짐승들아. 정화의 시간이다.”

그녀의 말에는 날이 퍼렇게 서려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퀴나즈의 아키스트들도 아니고 모샤에트의 수호자들도 아닌 오롯이 이데아를 대변하려는 그녀의 말에는 강인한 설득력과 묘한 이끌림이 있었다. 왠지 흐뭇한 미소와함께 나는 그들의 푸른 환대에 응대하듯이 뿌리를 바닥에 깊게 내리고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생명의 고동소리에 응답하며 바닥에 내린 뿌리에서 이곳을 향해 발걸음을 하던 이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 많은 모샤에트의 수호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로라는 노인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아키스트들의 무수한 푸른 궤적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어머니 대자연의 곁으로 돌아갈 흙들 뿐이었다.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장로놈이 비틀거리며 위태로이 서 있었다.
“불순물이지만 어머니 대자연의 파편이 담겨진 대단한 그릇이로고!”

“…잠깐.”

욜룬두르가 그를 매장하려던 찰나 칼린의 말없이 우리의 곁을 지나치며 장로를향해 걸어가자 내가 그를 저지하였다.

“퀴나즈의 미래를 갉아먹는 벌레와 낡은 철칙은 사라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르카나라는 것은 그리움의 터전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지 폐쇄적인 환경속에서 서로 자위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 얼굴은 하지 마시오. 나의 뜻은 언제나 이데아의 정화와 그녀의 딸 이실그라드의 안위임은 변치 않으니까요.”

그 말과 동시에 칼린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장로도 그녀의 아르카나에 취한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자 그녀는 장로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에서 뻗어져 나오는 줄기는 빠른 속도로 장로의 몸은 휘감았고, 그렇게 퀴나즈의 장로는 이실그라드의 양분을 위한 한 그루의 거름이 되었다. 그것은 분명하게도 내가 그녀와 거래를 수락하기 위해 아벨의 자손이 행하는 방식대로 악수를 건네면서 그녀와 나 사이에서 일어난 형태와 비슷했다. 분명 칼린은 아르카나의 변환으로 생명을 틔우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변화를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것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실그라드의 품에서 아르카나와 함께 사무친 그리움이 그녀안에 담겨진 힘이 깨어난 것이라는 추측만 조심스레 할 뿐이었다. 뒤틀린 빛을 잠재우기 위해 그랑

둘 산기슭을 나온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수확이 있었다. 칼린이라는 이질적인 존재의 탄생과 어머니 대자연의 생명력과 더불어 아르카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었다.

“바샬모그여. 우리는 어머니 대자연의 추종자, 순환의 수호자일세.”

“돌연 그게 무슨 말인가?”

욜룬두르가 내게 뜬금없는 말을 하는 듯하여 내가 되묻자 곁에있던 모몬토카가 서릿발 내리도록 차가웁고 낮게 내게 속삭였다.

“지금 네놈은 불순물이나 다름없는 탁하기 그지없는 발상을 담지 않았나? 그 한 발자국을 넘는 것은 한 순간이니 망설이지 않고 네놈부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마.”

“유감이군. 하지만 기얄록의 눈은 더 먼 곳을 바라보았네.”

“미친소리군. 이제 막 시작한 것일진대 일단락 되지도 않은 지금을 배제하고 미래를 보는 오만을 범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게나. 이제 막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니 잠깐의 불협화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것의 시작 또한 뒤틀린 빛이 잠드는 그 때부터일 것이라.”

그들에게는 일러두지 않았지만 순환의 수호자라 불리우는 우리들이 그 안에 어머니 대자연의 생명을 제 아무리 넘치게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처 완전하게 정화되지 않은 세트의 피라는 불순물이 이미 섞여있다.

세트의 후예는 무릇 지배하는 자이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후에 세트의 피가 끓어오르면 우리는 인지의 부조화에 빠져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칼린의 말대로 모샤에트의 수호자들이 언제까지나 어머니 대자연의 젖줄에 뿌리내리며 그것을 빨아먹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복잡하게 뒤섞인 생각을 정리하고 나는 깊은 물음과 함께 바닥에 뿌리를 내렸다.

“회귀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 이름 』

하늘에 창백하게 만개한 달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었고 이곳저곳에서 미친듯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이 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듯이 사방에서 피냄새가 쏟아졌다. 나는 그 향에 취해 숨을 깊게 들이쉬며 한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며 달빛을 맞으며 기쁨에 젖어있었다. 피와 살이 튀는 가운데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실린 그들의 자취가 일정한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 죽이고 그 생명을 발판삼아 더욱 강인한 자로 거듭날수록 그들은 집요하게 한 곳만을 바라보며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새끼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한심한 그 모습에 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고나서 이를 뿌득거렸다. 가까운곳에 익숙한 존재감이 느껴져 그 곳으로 시선을 옮기자 그곳에는 흔적을 따라 발걸음을 하고있던 놈이 내 눈에 들어왔다. 차분하게 오직 한곳만을 노려보며 질주하는 그놈에게서 아무런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내 털은 곤두서며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만월의 광기에 취해있는 상황에도 묵묵히 제 갈 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부아가 치밀어올라 날을 세우고 그것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발톱의 그것의 살갗을 찢어발기자 그제서야 그놈은 나의 존재를 인지한듯 주춤하더니 내달리던 발걸음을 거칠게 멈춰

세웠다. 한참이나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것은 미간을 잔뜩 구기기 시작했다. 약자멸시가 가득한 그 눈은 한없이 차가웠다. 그리고는 짜증스러운 듯 혀를 차고는 입을 열었다.

“…쯧, 벌레새끼한테 낭비할 시간따위 없었는데.”

“남길말은 그것뿐이냐?”

“나약한 것들은 감까지 잃어버린건가? 이런것 따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구만그래.

“꽤나 자신이 있는것처럼 잘도 지껄이는구만.”

“그렇지 않았으면 아그마트 대평원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지. 자르갈은 죽지않고 늙어갈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여간다. 하지만 네놈을 봐라. 젊고 무모할뿐더러 나약한 것은 육신만이 아니로군.”

“그게 무슨 말이지?”

.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한심한듯 내게 되물었다.

“정말 네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건가?”

“신수전쟁의 핏자국 사이에서 기이하게 한 방향을 향해 가는것밖에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잘 들어라, 새파란 애송이놈아. 네놈은 세트의 후예들이 아니면 다른 존재가 지니고있는 강인함을 느낄 수 없는 한심한 녀석이라는거다.”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여 그에게 되묻자 그것은 눈알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내게 꾸짖으며 외쳤다.

“네놈 따위가 감히 스스로를 자르갈의 후예라 지칭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네놈의 앞에있는 나는 무엇으로 보이는데?”

“자르갈의 피가 흐르면 당연히 강인한 것을 죽이고 싶을테지.”

“뭐, 대충 비슷해.”

“아벨의 현신에 네놈의 잇자국을 남길 수 있다면 그대의 이름은 이데아를 호령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름?”

내가 그 단어를 입에 담으며 망설이자 그는 뒤틀린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이전에도 보았던 뇌리에 확실하게 각인된 그것은 나의 오장육부를 뒤틀리게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다. 이름도 근본도 없는 그저 광기에 취한 덜 자란 애새끼에 불과했구나. 어쩌다가 자르갈의 광기로 태어나 그 강인한 육신으로 아무것도 모르는채 주변의 약자만을 찢어발겨가며 스스로에 취한 머저리가 어디 너 하나 뿐인 줄 알았더나? 당연하게도 이 운명의 갈림길에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그 어리석은 것들의 시체들이다.”

맞는 말이다. 어설픈 광기에 빠지면 그저 들판의 짐승새끼들이나 다름없으며 자르갈의 이름을 감히 짊어질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르갈의 이름따위는 놓아두고 광기에 몸을 맡기고 난 뒤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데 없이 상쾌한 기분인 것은 다들 모를 것이다. 나는 싸우기 위해 지금

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강한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배하기 위해 강해지고 있다. 자르갈의 광기로 살아가는 것은 즐거우나 굳이 죽음을 향한 강함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리없는 구시대의 산물을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내가 왜 이름이 없는지 아느냐? 늙은 짐승놈아.”

“그야 당연히 그것을 짊어질만큼의 영향력을 떨치지 못해서겠지.”

“대충 비슷하다. 하지만 나의 광기에서 살아남아 나의 광기를 노래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곧 네놈처럼 말이지.”

그리고 나는 완전히 광기에 잠들었다. 나의 광기는 아무도 느낄 수 없이 오롯이 내 안에만 고요히 잠든 광기다. 이질적인 나의 광기를 눈에 담은 늙은 그것은 그제서야 털을 곤두세우고 어금니와 발톱을 드러내고는 두 눈을 밝히며 으르렁거렸다.

“그러고도 네놈이 자르갈의 신수라 할 수 있나?”

“추하게 이제와서 시끄럽게 짖지마라. 새로운 시대를 살고있는 낡아빠진 골동품아. 잘 듣거라. 마지막에 서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르갈의 신구이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울부짖어봐야 죽은 자는 나약한 자라는 말이다. 추하게 살아가는 자가 강인한 자다. 죽어서 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내가 바로 생존자다.”

“승자가 아닌 생존자라….”

“여전히 꽉 막힌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양이구만.”

“아니, 잘 이해하고 있다. 네놈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육의 순간에 몸을 던지지도 못하는 겁쟁이다. 패배자의 사고에 딱 알맞는 대답이군. 강하지 못하기에 신수전쟁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 마음대로 지껄여라. 네놈은 결국 아벨의 현신은 보지도 못한채로 그저 평원에 나뒹구는 시체에 불과할테니 말이다.”

그 뒤로 우리는 아무말도 섞지 않았다. 뒤엉키며 섞인것은 누구의 것인지조차 모를정도로 흩날리는 피와 살점들 뿐이었다. 먹먹한 울림소리와 함께 미친듯이 휘몰아치던 심장의 울림은 차분해지기 시작했다. 그것과 동시에 만월의 광기에서 벗어났고 천천히 주변의 풍경이 눈에 담겼다. 발 밑에는 걸레짝처럼 찢겨진 몸뚱이가 있었다. 그것은 뭐가 그렇게나 만족스러운지 흡족한 얼굴을하며 죽어있었고 나는 본능처럼 그놈의 모가지를 크게 뜯어먹으며 나머지는 대충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흘러나오는 내장을 억지로 다시 구겨넣은 뒤 이데아가 뒤흔들릴 정도로 크게 포효했다. 그렇게 나는 또 한번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팽개쳐진 시체에게 들으라는 듯이 비웃음을 입에 머금은채로 중얼거렸다.

“늙은이의 경험과 연륜? 개소리 하지마라. 그저 강인함으로 찍어누르면 그만이다. 그렇게나 알량하고 그럴듯한 말 뒤로 숨어있던 겁쟁이 주제에 잘도 제르갈의 신수라 칭하며 날뛰었구나. 구시대의 퇴물아.”

나는 그 시체에 시원하게 오줌을 갈겨버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봐라, 제 아무리 어떠한 말을 쏟아낸들 죽어버리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지 않나? 이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신수전쟁도, 아벨의 현신에 흔적을 남기는 것도, 그리고 강함을 증명하는 것도, 그동안의 네놈들이 부르짖던 모든 것들은 틀렸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겠다. 자르갈이 누구이고 신수전쟁이 무엇인지 제대로 새겨주마.”
너무 실컷 날뛰었던 탓인지 한곳만을 향해가던 것들 중 여럿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 나 할 것없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의 동시에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것들은 순식간에 서로를 바라보더니 그 짧은 순간 가장 강인한 개체를 인식하고는 시선을 한곳에 고정한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내가 있었다. 그러더니 기이하게도 그것들은 서로 강인한 사냥감을 상대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나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이전의 자르갈의 짐승들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눈에 담으며 새어나오는 웃음과 즐거움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팔벌려 기꺼이 그것을 만끽했다.

“홀로 고고하게 미쳐 날뛰는 자르갈이 나약한 이들처럼 무리를 구성하고 사냥을 한다? 보라! 칠흙갈기 샤카르여! 애초에 우리는 고고하지도 않았고 홀로 이 드넓은 초원을 내달리던 존재도 아니었던 것이다!”

샤카르가 그렇게나 버릇처럼 칭하던 고고한 늑대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스스로의 강인함을 증명하기위해 다른이를 배제함으로 오히

려 자르갈의 결속력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에 자르갈을 만들어낸다. 자르갈의 늑대들은 본연의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강한 것만을 추구하였고 만월의 광기에 취해있는 그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그것이 스스로의 의지인양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샤카르가 무엇 때문에 자르갈을 갈라놓았는지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일단 잡생각은 접어두고 눈 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한다. 갑자기 내리는 빗소리만 조용하게 우리 주변을 감싸안았다.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요를 깨고 내가 조용히 그들에게 물었다.

“네놈들은 이데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발톱이나 아가리가 아니라 대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처음 보기라도 한 양 그들은 눈을 가늘게뜨고 의심의 눈초리로 내 물음에 답했다.

“아무것도 없다. 만월의 광기에 받아들이고 사선에서는 피를 뒤집어쓰며 벌이는 혈투끝에 수많은 시체들 사이에서 홀로 일어서는 그것이 제르갈의 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나?”

“틀렸다. 네놈들은 역시 자르갈에 필요없는 광기로군.”

“그렇다면 자르갈에 필요한 광기는 무엇이지?”

“자르갈에 필요한것은 광기가 아니라 유대이다.”

“유대라고 부르는 겁쟁이들의 무리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인가?”

“아니, 그것은 본능이다. 면식도없던 네놈들이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

고도 나를 에워싸며 사냥을 하려는 지금 이 모습도 말이지.”

“그런가. 네놈 말대로라면 지금 이 순간 자르갈에 필요한 것이 네놈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겠다.”

그말에 동의하기라도 하듯 옆에 있던 한 놈이 덩달아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부라리며 내게서 시선을 떼지않았다.

“언제부턴가 제르갈의 신수전쟁에 입만 산 새끼들은 잊지도 않고 계속 튀어나오기 시작하는군. 격이 많이 떨어졌구만.”

“언제나 꼭 한 두마리 있더라지. 허울좋은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멍청이들 말이다.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조용히 굴 속에 쳐박혀서 벌벌 떨고 있었던 편이 나았을 것을….”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잘못 고른 모양이군. 죽을 장소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들이 내가 내뱉은 말을 완전히 이해 하리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자르갈이라는 이름에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의 집착은 이름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한심한듯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내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우리 주변에 다시금 고요함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평소의 자르갈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로의 목숨을 끊임없이 탐닉했다. 그 짧은 시간의 고요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미친듯이 요란하게 대지를 흔들어대며 피와 살을 뿌렸다. 혈투는 생각보다 오랜동안 지속되었다. 별개의 개체

로는 그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나 처음으로 조우한 그들은 무리지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효율적인 사냥을 이어나갔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적은 수도없이 많았지만 이토록 털이 곤두서도록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은 너무나도 생소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감정에 눈을뜨면서 광기를 더욱 날카롭게 제련했다.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동안 죽음은 점점 나의 목을 죄여오기 시작했다. 광기에 벗어나고 내가 억지로 스스로의 의식을 그것에 쑤셔박는 과정을 여러번 거쳐가면서 익숙해졌고, 어렵지않게 그 셋을 부수고 짓뭉갤 수 있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전과 달리 광기에서 벗어나면서 나오는 반동이 나를 휘감았다. 내 몸에 무수히 새겨진 상처들이 하나하나 비명하는 듯 고통을 호소했다. 나는 어린 새끼처럼 몸을 둥글게말며 고통과 싸웠다. 목숨을 내건 혈투로 인한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 몸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다 죽어가던 놈들 중 한 녀석이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초점없이 흐린 눈으로 피를 쿨럭거리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나 하고 싶은지 입을 뻐끔거리며 내게 말했다.

“그런가. 그것이 네 이름인가?”

“무슨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군. 하지만 미쳐 날뛰는 광기속에서 분명 네 이름을 알고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게 이름따위는 없다.”

“아니, 그것은 내게 아주 또렷히 새겨졌다.”

“보아하니 죽기전에 보는 환상이나 환각을 보고 있나본데 지금은 다 죽어가는 놈의 헛소리에 신경쓸 겨를따위 없다. 나는 지금 바쁘거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분명 그것은 내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은 이름없는 광기에 빠진 짐승이지만 훗날 짧은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날이 다가올거다. 우직하게 걸어나가 평원의 경계에 가보라. 그곳에 아마 네가 부정하는 모든것이 있을것이니 그것을 마주하고 네 길을 증명해 보이라.”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내뱉은 그 역시나 무언가 만족한듯한 편안한 얼굴을하고 짧고 힘겨운 숨을 마지막으로 토해내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적막한 주위 밖으로 저 멀리 신수전쟁으로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져내리는 소리와 성난 울음소리만이 잔잔히 퍼져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제르갈의 신수가 달려나갈 방향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들역시 광기속에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 짐승놈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분명 나의 이름이었다. 아니면 이름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세상 어디에 이름을 알고자 죽음을 택하는 이가 있겠는가? 나는 세트의 후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자르갈의 신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신수의전쟁에 몸을 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이해

할 수 없는 생물 역시 자르갈의 신수들이다.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서 고개를 쳐들고 이전보다 더욱 찢어질듯하게 이데아에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렇게 울려 퍼져나간 울음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광기속에서 죽고 죽이는 이들의 함성소리,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수어지며 피가 튀는 소리에 묻혀질 뿐이었다. 나는 말라버린 피에 떡 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지금 망신창이가 된 지금 내 육신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오랜동안 고뇌하고 있었던 피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것이다. 강인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이 필요함을 간과했던 탓이겠지. 그 한심함 때문에 나는 또다시 아무도 듣지않는 외로운 외침을 이데아에 토해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광기를 표출하고 있는것이지? 오직 강인함만을 위해서라면 이 얼마나 쓸쓸하기 그지없는 생물이더냐?”

『 생명연장 』

“나는 이곳이 제법 마음에 드는군.”

“…그런가?”

내가 무심한듯 중얼거리자 그녀는 연기를 토해내며 내게 되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이곳에서는 아벨의 자손의 흔적이 느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발걸음을 한 이곳은 상당히 불길한 장소라는 것이 느껴져.”

“아벨의 광휘가 서려있어서 그런 것이겠지.”

“아니.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

내 말을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희뿌연 것들이 세차게 몰아쳤고 뒤이어 무언가 부딪히는듯한 기괴한 파열음을 동반한 굉음이 협곡을 타고 흐르며 이 땅을 밟은 자들의 귓가에 미친듯이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벨의 광휘따위가 아니었다. 마치 이곳의 대지와 협곡 그리고 하늘에서 흩날리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것들이 우리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는 듯한 비명은 계속해서 울려퍼졌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이건 아벨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부르기에 한참은 다른 모양이군. 누구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무언가를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끔찍하군.”

“당연히 두 팔 벌려 맞이하는 그림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

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는것이 슬플 따름이로다.”
잔뜩 경계하는 나와는 다르게 감성적으로 이곳을 묘사하는 그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그만큼 이곳이 편하다는 증거겠지.
“그런가.”

“그렇고말고. 굴라나그 간헐천 주변에 흩날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고있지 않은가?”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보이며 어린아이처럼 두 손으로 흩날리는 희뿌연 것을 담으며 말했다. 하지만 슬픈 것인지 기쁜 것인지 모를 복잡한 표정을 짓고있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망설여졌다.
“…그대는 한결같이 같은 풍경을 좋아하는군.”
“그래, 잡히지 않는 향수같은 것이지. 분명 다른 것일테지만 같은 모양새로 흩날리며 쉬이 바스러지는 것 또한 비슷하니 말이야.”
그렇게 또 다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서 그녀는 해야할 일을 시작하기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울라메드의 선별자들에게 손짓하며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의 곁에 서서 경작 준비를했다. 그렇게 삼삼오오 모인 우리는 몸에서 형형의 색으로 밝게 빛나는 울라론을 쏟아내었고 작게 고인 샘을 만들어냈다. 그 작업을 마치자마자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여럿이 이름 모를 이 땅에서 산화되었다. 무너진 선별자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없이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좋아. 이제 남은건 시간의 몫인가.”

“울라론도 이곳이 마음에 들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군.”

“지금쯤 우리 말고도 다른 곳으로 외출을 한 녀석들도 우리가 그러하듯 발걸음이 멈춘 그곳에서 생명의 샘을 만들어내고 있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그건 어째서 묻는거지?”

“혹시나해서 말이야. 다른 곳이 안락한 곳이라면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울라론을 쏟아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해서 말이다.”

“하지만 어디라도 생명의 샘이 마르게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잖나. 그러하니 그 샘의 원천이 이데아 이곳저곳에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머리로는 알고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것이 우습기 그지없군. 한심하기도 하고 말이야.”

“우려할 것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살아있는 것들 위에 서서 선별을 해오지 않았나.”

“그랬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 말이 이때처럼 회의적인 적은 또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을 버릇처럼 되뇌이고 체념하듯이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 말에 생명의 의지가 아니라 단순히 의무처럼 느껴져 나를 슬프게 했다.

“형태가 무엇이든 살아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가 그 말을 입에 담고는 한껏 그 말에 실린 힘을 음미하고 있을때 불청객을 환영하지 않은 무리들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희뿌연 것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것들은 당연하게도 우리의 존재를 반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심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들이 세트의 후예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저들의 영역에 발을 들였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터전에 다른 이들이 발을 들이는 것에서 나오는 적대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그것들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기에 둘 중 하나는 바스러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히 이곳을 내어줄 생각은 없겠지. 유감이지만 편하게 죽을 생각은 하지마라.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말게나. 에오나로도 바스러지않고 숨통이 남아있다면 네놈들을 선별해주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별자들과 토착의 생물은 백색의 흩날리는 것들에 둘러쌓여 서로의 목숨을 거두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그것들과 뒤엉키는 사투 끝에 결국 서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울라메드의 선별자들이었다. 하지만 역시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이곳에 무사히 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쪽의 피해도 그리 적지만은 않았다. 나는 피해의 숫자와 전열을 재정비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

었는지 헤아려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숨으로 이 모든것을 털어보려해도 저들이 목숨을걸고 이곳까지 발걸음한 것의 의미가 그리 가벼운것이 아닌지라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 답답한 마음을 그녀도 느꼈는지 뒤에서 쉭 소리와함께 짙은 연기를 토해냈다. 그리고는 반토막이 난채로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이의 눈을 쓸어내려주며 말했다.

“외출은 즐거웠나? 비록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생명이 움트는 땅 위에 묻힐 수 있도록 우리의 울라론도 이곳에 원없이 뿌려주마.”

그렇게 다들 묵묵히 숨을 돌리던 그 때, 죽은줄 알았던 그것들 중 하나가 흩뿌려진 울라론에도 형체를 유지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었다. 비록 거죽 이곳저곳 녹아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그것은 눈을 밝게 비추며 선별자들을 깨부수고 있었다. 여전히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는 그것은 이미 기력이 다한듯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영역 안을 침범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부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천천히 그 숨은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선별자들에게 신호를하자 그들은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살려는 의지에 존경을 표하였다. 그러자 그것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포효하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자신의 영역안에서 나를 물러서게했다. 그렇게 울라론에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들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나 삶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보여준 이것은 참으로 숭고하기 그지없었다. 이미 그것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차마 눈으로 담을 수 없었던 나는 울라론을 피부 한곳에 집중시킨뒤 그것을 향해 터뜨렸다. 여러차례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지만 우리들의 머리위로 휘몰아치는 희뿌연 것들은 멈추지않고 우리들 주위로 어지러이 흐드러졌다. 마침내 그것은 폭발의 열과 함께 녹으며 투명하게 흘러내렸다. 선별자들은 그 광경을 눈에 담으며 말없이 우두커니 서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말라버린 입과 피부속으로 조용히 스며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야 끝나나 싶었지만 그 폭발속에서 죽어가면서도 헐떡이면서 삶을 갈구하는 모습을 눈에 담자 작은 미소가 퍼졌다. 보금자리를 찾아 헤메이는 도중 낯선곳에서 낯선 이로부터 느끼는 묘한 동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나 네놈을 이곳에 붙잡아두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놈의 질긴 생명력은 이곳에서 바스러질 것이 아닌 듯하구나.”

“꽤나 즐거웠나보네. 유난히 저것에게 애착을 느끼는것은 저것이 우리와 같은 냄새를 하고있기 때문인가?”

“그래. 뒷처리하는 이들에게 저것은 남겨두라 말해주겠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정리를 도우며 천천히 울라론을 이름모를 이 낯선 땅에 뿌릴 준비를 꾸려나갔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눈 앞에 새하얗게 물들 정도로 거센 몰아침과 동시에 굉

음이 떨어졌고 우리는 한동안 눈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굉음의 품에 안긴 선별자는 잿더미가 되었다. 분명 그것은 위에서 제멋대로 쏟아져내리고 있었다. 그 뒤로 하늘에서 여러갈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해 또다시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내렸다.

“빠르군. 다시 한번 저것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흔적도 남김없이 잿더미가 되어 살아남을 수 없겠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기위해서 이곳에 발걸음을 한 이들은 없다.”
“옳다. 쏟아진 울라론 위에서 다시 보자.”

그녀의 말에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뒤틀린 웃음을 나누었고 그 순간을 끝으로 얼마 지나지않아 또다시 선별자들 위로 이 땅의 분노가 울려퍼졌다. 눈이 부시게 밝은 빛과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은 선별자들의 위로 자비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역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단 한순간도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은 없어보였다. 땅을 파고 숨는 이들 혹은 그것에서 눈을 떼지않고 피하려는 이들, 직접 몸으로 받아내려는 이들 그리고 울라론과 분진폭발의 연기로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둘 바라보고는 나는 크게 웃었다. 그리고 살기위한 터전의 기반이 될 생명의 샘을 일구는 이들 역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직 울라론을 쏟아내며 그것을 휘젓는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도무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살기위한 발버둥에 비하면 그 어떠

한 방해도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나는 요란한 현장 속에서 미친듯이 웃으면서 닿지않을 이에게 소리쳤다.

“보고 있는가, 이바와 아다무스여! 이것이 당신들의 저주에 결코 굴하지 않고 이를갈며 살아온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정신을 놓았는가? 안톤! 아직 끝난것이 아니니 광기어린 외침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사는데에만 신경을 쓰라!”

나의 외침이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의 귀에 닿았는지 시아난은 나를 보고 이를 뿌득거리며 일침을 던졌다. 하늘의 외침은 어느새 잔잔해졌고 하늘에 내려앉은 짙은 색의 연기가 흩어지며 따사로운 태양이 이곳을 비추었다. 이곳에 흩날리며 소복하게 쌓인 희뿌연 것들은 반사되는 태양의 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 정도였다. 그리고 주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함만이 남았다.

“굴라나그가 만들어낸 풍경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라면 이곳은 어이가 없을정도로 소란스럽게 비명을 질러대는군. 간헐천의 신음과는 다른 형태로 울부짖는 것은 이곳도 우리가 있었던 곳 처럼 낯선이에게 가차가 없는 모양이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보라. 그렇게 고통에 울부짖고 살을 에는 듯한 이곳의 환경에 온몸이 비명하여도 언제나 그랬듯이 살아날 활로는 열려

있음이니 우리는 항상 잿빛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그맣게 고인채 밝은 빛을 하고있는 울라론을 향해 나의 모가지를 억지로 돌렸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기 바빴던 내게 그제서야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의 샘이 눈에 담겼다. 나는 감격해서 하마터면 눈에서 울라론이 쏟아질 뻔했다. 목이 메어 한참을 버벅거리는 소리밖에 내질 못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의 희생에 의미를 주었다.
“놀랍게도 울라론이 이 곳의 대지를 탁하게 하지않는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무수히 흩날리는 이것들과 껍질을 차갑게 굳게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귀를 괴롭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 그러하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장소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할 것이라.”
“그래. 흩어져버린 생명은 결코 덧없던 것이 아니었군. 고맙다.”
내가 죽어나간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자 그녀가 나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듯 말했다.

“안톤, 그대 홀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질 이유는 없다. 죽어간 이들 모두의 희생을 짊어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 아무도 그대에게 그것을 홀로 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라.”

“그런가. 그럼 생명의 샘을 유지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계속 해야겠지. 선별도 그것 중 하나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막 생명의 샘을 틔운 참인데 저것에게 선별의 기회를 건

네준다는 말인가? 갓 태어난 샘은 조금 시간을두고 지켜봐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시아난. 우리는 이전처럼 굴라나그 간헐천에 유유자적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대도 잘 알고있겠지. 경과를 지켜볼 수 있을만큼 시간은 우리들에게 자비롭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는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낯선 곳까지 발걸음한 것이 아니겠나?”

나약하고 광기어린 모습을 던져버린 내 모습에 이제서야 만족한 듯 그녀는 희미한 웃음을 보이더니 고개를 한번 힘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 좋을대로 하게나.”

나는 깊은 곳에 임시로 파 두었던 굴에 묶어둔 낯선곳의 익숙한 짐승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샘에서 끌고 온 짙은 농도의 울라론을 그것에게 뿌려가며 선별을 시작했다. 의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예상했던대로 그것은 거칠게 반항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질긴 생명이가진 의지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동안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별을 거부했다. 마지막 숨을 토해내기 전에 그것은 나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지반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크게 포효했다. 엄청난 흔들림에 시아난을 포함하여 선잠에 들었던 소수의 선별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다들 그것에게 다가가 손으로 쓰다듬으며 존경을 표했다.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질기에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거대한

것을 위해 선별을 포기한 것이 방금 그 포효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외침을 가슴에 품고 낸 몸의 껍질을 찢어 울라론을 쏟아내며 우리들의 무리를 이곳으로 이끈 악티온과 라디악의 안내에 감사했다. 삶에 대한 집착과 생존에 대한 가치의 미묘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 또한 선별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등을 돌려 그들을 마주보며 눈에 형광의 빛을 밝히며 말했다.

“시아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방금 그것을 목도한 산 증인이다.”

『 우연인듯 필연적인 만남 』

평원은 정말 시끄러웠다. 시끄럽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사나왔다. 여인들이 머무르는 나쉬메누에서는 발소리조차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하기 그지없었지만 광기에 빠진 아그마트의 짐승들은 세트의 기민한 연결고리가 없어도 어디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기에 나는 이마를 탁 치며 한심해하고 있을때 물에 젖은 축축하고 기분나쁜 냄새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새 내게 다가오더니 어금니까지 드러내고 이죽이며 으르렁거렸다.

“어디서 발칙한 냄새가 나나 했더니 섬구석 미친년이었구나. 조용히 끝자락에나 쳐박혀 있을것이지 어째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거지?”

“광기에 취해 나락간 짐승과 말을 섞기란 참으로 불편하기 그지없구나. 더러운 짐승주제에 세트의 언어를 입에 담고있으니 이 얼마나 역겨웁기 그지없는 광경인가? 오히려 라츠를 품으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시간이 더욱 포근하게 느껴지는군.”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하자 그놈은 짜증스러운 투로 중얼거렸다.

“최근들어 신수전쟁에 벌레들이 꼬여드는 것도 아벨의 현신이라는 것이 눈을 뜨면서 만들어진 뒤틀어진 균형 때문이겠군.”

“호오, 짐승주제에 제법 많은 걸 알고있군 그래. 신수전쟁은 그저 핑계일뿐 사실 세상 소식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네놈들이 아벨의 현신 꽁무니를 좇아가는 건가? 웃기지도 않는군. 신수전

쟁은 뒷전이고 아벨의 종자가 되어버린 꼴이라니.”
내 말에 그놈은 눈을 까뒤집고 발작을하며 순식간에 광기에 취해버린듯 한 모습을 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목을 물어뜯기위해 아가리를 벌린채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라츠를 사용하여 광기의 경계에 발을 딛고있지 않았음에도 그놈이 어이가 없을정도로 형편없는 단순하고 조잡한 사냥을 하고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돌이 되어버린 세트도 기가차서 그대로 부서져 모래알이되고 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것들이 신수전쟁이랍시고 이데아를 엉망으로 만드는 꼬락서니에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회의감이자 가슴이 뚫린듯 텅 빈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다. 그리고 느려진 시간속에서 그놈의 광기서린 모습이 눈에 담겼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의 우악스럽고 비대한 몸뚱이에 비친 뒷모습은 여간 쓸쓸한것이 아니었다.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생각은 과연 우리가 이런 광기에 젖은 짐승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애초에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었기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복잡한 심경으로 그것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네놈들이 광기속에서 발작하며 이데아를 상처입히는 것도 우리가 서릿발처럼 차가워진 것도 네놈의 잘못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르갈의 이빨은 항상 강인한 것을 향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장황한 이유는 내 알 바 아니다. 하지만 네놈들을 광기속으로 내던지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든것도 모든 것은 세트의 후예들을 서로 갈라놓으려는 가증스러운 무리들의 탓이다.”
“그렇다면 네년의 시체뒤로 그것들의 숨통을 끊어내면 제르갈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

“본말이 전도된것조차 깨닫지 못하도록 깊은 광기에 잠겨있는가. 더불어 네놈의 그 나약함으로는 그것들 중 하나인 아벨의 현신은커녕 내 머리칼조차 베어내지 못할 것이니 내 직접 친히 네놈을 광기에 사선에서 끄집어 내려줄터이니 나의 관대함에 고개숙여 감사하라.”

하지만 켜켜히 쌓여진 놈의 광기는 이제 완전히 녀석을 삼켜버렸고 오직 광채를 발하는 놈의 눈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놈에게 뿜어져 나오는 광기가 나를 삼킬듯이 미친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조라네스가 두르고있는 광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느리고 고요하게 춤을 추고있었다. 그렇게 서로다른 광기가 부딪치면서 나는 자르갈의 광기의 깊은곳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어렵지않게 자르갈의 짐승 하나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라츠로 날이 선 날카로운 발톱은 단단한 녀석의 살거죽을 뚫고 수많은 구멍을 만들어냈고 그 구멍들에서 피가 왈칵 쏟아져나왔다. 그것은 엄연히 자르갈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물론 내가 그들의 보금자리에 발걸음을 한 그 순간부터 전쟁의 시작이었겠지만 이 짐승들에게 정치적인 관점이나 외교에 대한 이해따위는 없으니 상관은 없을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신수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미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저들의 관점으로 볼 때 강한 존재인 것은 말할것도 없으니 신수전쟁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은 충분한 셈이었다. 그것이 피를 흘리며 차갑게 식어가는 마지막을 끝까지 눈에 담았다. 그것은 만족한 듯이 웃으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을 담보로 놀이를 즐기는것과 같은 그들의 모습에 왠지 거부감은 없었다. 운명의 갈림길에 발걸음을 한 탓인가 나는 그것과 함께 웃으며 오랜 벗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허울없이 그의 마지막에 선물을 건네주었다.

"나는 조라네스의 쪼개진 달, 예르바나의 핏줄이자, 어머니. 아야오세다. 조라네스의 여인들 중에서도 나만큼 깊은 숨의 광기에 닿은 자들은 겨우 손에 꼽을 정도이니. 비록 네놈의 이름은 이데아에 남겨지지 않은 채로 흩어져 잊혀질테지만, 그대보다 강인한 자의 손에 죽는 것을 자랑스러이 여기도록."

온 몸에 피칠갑을 한 그놈은 여전히 빼끔거리고 있었다. 몸짓과 표정을 보아하니 아마 내게 이름이라도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지만 굳이 내가 그 광기어린 짐승놈의 이름까지 알아야 할 의무따위는 없었기에 무시하

고 그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놈은 더욱 눈을 밝게 밝히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만족하며 쉬익하는 소리와함께 마지막 숨을 토해냈고 미련없이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그렇게 끝나나 싶었지만 짙은 피냄새를 두른 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놈 하나가 느껴졌다. 살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놈들과 달리 그놈에게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것은 그것은 정확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닥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놈과 부딪히는 동안 광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지만 그것은 잔잔한 라츠의 향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놈에게 볼일은 없었지만 비틀어진 빛을 향해가는 도중 방해물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에 내 발목을 잡아두려는 것들은 제때에 쳐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어 나는 그것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그놈은 모습을 드러냈다. 자르갈의 후예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호전적인 모습이 부족해 보였다. 운명의 갈림길에 자리하고 있는 광기에 물든 미친 짐승치고는 냉정해보이는 모습이 다소 낯설어보였다. 나는 입을 다문채로 아무말도 하지않고 그저 눈을 밝히며 가만히 나를 찬찬히 뜯어보는 녀석의 반응을 기다리다 지쳐서 한숨을 내쉬며 그놈에게 물었다.

“역시나 아벨의 현신 꽁무니를 좇는 것들에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군. 들판에 죽어 나뒹구는 짐승처럼 썩은 눈깔을 하고있군.”

“조라네스의 여인이 홀몸으로 신수전쟁이 치루어지는 아그마트 이 먼 곳까지 죽으러 온 것은 아닐텐데 말이지.”

그놈은 내가 비꼬면서 묻는 말에 대꾸조차 하지않고 여전히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로 눈을 밝히며 제 할말을 뱉어냈다. 이놈은 조금 다른 놈인가 싶었더니만 역시 자르갈의 짐승새끼들은 하나같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들 뿐이었기에 정상적인 대화는 접어두기로 했다.

“나는 이곳에 죽으러 온 것이 아니고 짐승새끼들이 서로 피웅덩이 속에서 나뒹구는 신수전쟁 따위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뒤틀린 빛 때문에 죽어간 조라네스의 어린 전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딴걸 할 생각이었으면 섬구석에 조용히 쳐박혀서 울음이나 할 것이지 구태여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지?”

“파괴만 낳을뿐인 이 광기어린 땅에서 자매들의 넋을 위로할 생각따위는 추호도 없다. 불쾌하기 짝이없는 이곳은 그저 아벨의 현신을 찾아가기 위해 거쳐가는 장소일 뿐이지.”

“네년 역시 아벨의 현신에 흔적이나 남기려고 위해 온 것인가?”

그것은 실망한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뱉어내자 나는 이를 뿌득거렸고 고요한 광기는 주변의 들풀들을 요란스럽게 조각냈다. 나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이를 뿌득거리며 짐승놈에게 경고했다.

“짐승새끼한테 많은걸 바라진 않지만 네놈이 다음에 아가리를 놀릴때는 신중해야 할 것이야. 뒤틀린 빛에 흔적따위 남기기위해 내면의 평화

를 깨면서까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아벨의 현신만을 죽이기 위한 일념으로 발걸음을 옮긴것이라."

"그런가…."

"…응, 그렇지."

너무도 어이가 없었던지라 나도 모르게 그의 말에 허울없이 답했다. 애초에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광기를 눈으로 담으며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무언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은 그저 내 앞에 우두커니 서서 의미없는 말을 섞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있다가 추적거리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듯 정신을 차리고 맥이없고 무기력한 듯한 그것의 모습에 김이 빠져서 내가 중얼거리며 물었다.

"시간낭비군. 애초에 네놈, 살아있기는 한거냐?"

"우문이로고. 숨을 쉬고 이 대지를 딛고 일어서 있는데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면 무어냐?"

"어차피 흩날리는 피와 살 속에서 죽고 죽이는것이 우리들일진대 짐승들 사이에서 주둥이를 조금 놀린다고 현자가 된다고 생각하나? 네 주둥이가 긴 것은 네놈이 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약하기 때문이다. 자르갈이 네놈같은 놈들 뿐이라면 낙원의흔적 중에서 하나가 줄어도 모를 정도겠군.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기에 신수라 칭하던 것들이 이 꼬라지라니 한심하다, 한심해."

“지금 나의 광기는 강인함만을 겨루는 같잖은 힘겨루기 따위에 쏠려있지 않아. 애초에 강함만을 추구하던 존재들은 전부 이름조차 모르는 곳에서 죽고 바스러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다.”

“신수전쟁에 발을 들인것도 네놈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내게 이름따위 없다.”

“그럼 대체 네놈은 대체 신수전쟁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신수전쟁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잃는 것만 있을 뿐.”

도발에도 반응이없고 의미없는 대화만 계속 빙빙 돌자 나는 흥미를 잃고 등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네놈이야말로 겁쟁이 새끼처럼 구덩이속에 찌그려져 있거라. 아니면 이름모를 곳에서 죽어버리던가.”

“그럴수는 없다.”

“…어쩌라고.”

“나는 자르갈의 광기를 전부 끌어내어 세트의 후예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당당히 그것을 보란듯이 마주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고요한 광기를 부드럽게 흔들어대자 쉬익소리와 함께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목을 기괴하게 꺾어 그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운명의 갈림길에서 광기에 미쳐 날뛰는

짐승놈들 따위보다 네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로고. 이 자리에서 네놈을 죽여야만 할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다니. 어리석기 그지없군 그래.”

“말했듯이 나는 이곳에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네년에게 죽을만큼 어리숙하지 않은 것은 네년이 더 잘 알고있지 않나? 광기를 엮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라면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했겠지.”

“그래, 우리 둘이 부딪힌다면 분명 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채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여.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닐테지.”

“네년 홀로 아벨의 현신을 끌어내릴 수는 없을것이라.”

“네놈 역시 홀로 자르갈의 광기를 전부 끌어낼 수 없을거다.”

“자, 그럼 지체할 시간이 있나?”

그는 두 눈을 밝히며 말했다. 세트의 후예는 지배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어있는 존재들이기에 서로가 원하는 다른 형태의 지배를 갈구하기 위해 다른이들의 도움을 얻으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도 알량한 자손심과 지배의 형태가 섞이는 것을 불쾌해하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이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콧대가 높으며 다른 이들과의 교류를 가장 꺼리는 자르갈의 광기였다.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놈을 바라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자르갈의 광기라는 이름이 울겠군. 오랜동안 고고한 늑대로 살아가는 삶이 갑자기 두려워지셨나?”

“애초에 자르갈은 고고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자르갈은 그저 내 안에 흐르는 피가 지닌 이름일 뿐. 나는 나다. 더욱 거대한 것을 뒤로하고 쓸데없는 존재가치의 증명 때문에 쉬이 목숨을 버릴 생각은없다.”

“아아, 그런가. 네놈이야말로 자르갈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군. 그러기에 네놈은 위험하다. 그리고 네놈이 만들려는 새로운 자르갈은 이데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협이 되겠지.”

“그건 걱정하지마라. 자르갈의 광기들은 학살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느 세트의 후예들과 다름없이 지배하는 자이다. 그 지배에 공포가 다소 섞여져 있을 뿐이지, 얌전히 고개를 조아리고 바닥을 긴다면 섬기는 이들을 살육하는 일은 없을것이다.”

“아벨의 현신을 땅에 떨구고 나서 네놈의 모가지부터 떨어뜨려야겠군. 하지만, 그 이전에 네놈이 아벨의 현신을 죽이기 위해 쓸모가 있을터이니 마음대로 날뛰어보라.”

“나는 새로운 자르갈을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벨의 현신은 비롯하여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은 물론이요 세트의 후예들조차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을것이다. 심지어 자르갈의 후예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는군. 모두가 네놈들이 하나로 엮이어진 네놈들을 부수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지.”

“자르갈은 혈혈단신으로 낙원에 흔적을 새겼을진데, 한데 엮이어진 자

르갈의 광기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 보는가?"
"꽤나 확신하는군. 한데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물고빠는 네놈들의 미래는 관심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네놈에게 사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아벨의 현신을 떨어뜨리는데 꽤나 쓸만하다는 것과 다름없으니 나는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아벨의 현신은 내 손으로 찢어죽일 것이다."

"좋을대로 해라. 뒤틀린 빛이 누구의 손에 찢어 발겨진들 내 알바 아니니까. 땅에 곤두박질 친 그놈의 잔해에 오줌을 갈기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나저나 아닌 척하지만 그런건 꽤나 신경을 쓰고있군."

"자르갈은 본디 그런 생물이기 때문이다. 지배를 위해서 보여줄 무언가는 필요한 법이지. 힘과 억압, 그리고 공포말이다."
"딱 짐승의 머리에서 나올법한 발상이로다."
"자르갈이 광기에 미쳐버린 짐승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비웃어도 여전히 그것은 무심한듯한 대답을 뱉어냈다. 그렇게 아벨의 현신의 잔향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그놈은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나 역시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따르며 아벨의 현신과 신수의 충돌을 조용히 머리에 그려보았다. 가장 좋은 그림은 둘이 부딪혀 서로의 피와 살을 깎아먹고 둘 다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지만 광기가 그리는 죽음의 나선은 얄궂기 그지없으니 그것이 누구에게

그려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센 빗줄기가 휩쓸고 난 뒤 따사로운 햇살이 대지를 따사로이 비추고 있었다. 이곳에 발걸음하고 난 뒤 오랜만에 맞이하는 빛이 너무나 반가워 나는 팔을 벌리며 한아름 그것을 품에 안았고 앞에서 망나니처럼 걷고있던 짐승놈은 나를 돌아보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걸어나갔다.

“야. 뭐, 어쩌라고.”

『 전조 』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신가?”

내가 묻자 시종은 고개를 가볍게 한번 끄덕이며 답하자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한숨을 내쉬며 시종에서 나즈막이 고하였다.

“아벨의 현신이 오랜동안 그 빛을 이 땅 위에 어지러이 토해내고 있음에도 주군께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으시니 그의 고견을 들어야겠다.”

카에람을 좀먹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보다 우선 거슬린 빛부터 거두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나는 다시 한번 아우렐라 안에 흐르는 순수한 피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의 별채 앞에 당도하여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히 나의 존재를 알렸다.

“우매한 아리오스텔이 나의 군주 브리쿨의 혜안을 듣고자 감히 알현을 청하나이다.”

“내 기꺼이 그대의 발걸음을 허하노라.”

그의 속삭임이 내 귓가를 기분좋게 스쳐 지나가자 나는 간신히 참고 있었던 숨을 가늘게 토해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별채에 다시금 발길을 들였다. 그와 처음 조우한 이후로도 여러차례 그의 별채에 발걸음을 하였지만 어째서인지 그 횟수가 잦을수록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의구심과 반발감이 커져만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 자리하고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일 뿐이지만 결국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감추고 그의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

시금 그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었다.

“이제 그만 됐다. 이미 내게 보인 너의 충정은 높이 사고 있으니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겉치레는 필요치 않아보이는군.”

“그러하기에 더욱 결례를 보일 수 없으니 어리석은 이것의 고집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대답에 그는 얼굴을 활짝 피며 싱그러운 미소를 띄며 팔벌려 크게 박수를 쳤다. 별채에 자리한 화려한 무늬의 창틀로 비치는 검붉은 빛을 흩뿌려대는 반사광과 그의 빛나는 안광이 대비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벨의 불쾌한 빛이 내리쬐고 있음에도 최근 그것에 대해 일말의 근심조차 보이지 않은 상반된 그의 태도는 여유로움이 넘쳐흘렀다.

“그대가 어째서 이곳에 발걸음을 했는지 이미 알고있다.”

“허면, 우매한 저에게 그 높은 뜻을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이다, 나의 충실한 종이여. 그럼 이전에 그대는 아벨의 현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는가?”

“아벨의 자손들은 입을모아 순수한 영혼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빛을 발하는 자태라고들 하더군요.”

“멋지지 아니한가! 인간의 순수한 욕망의 바람이 빚어낸 빛으로 휘감긴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니 말이다!”

즐거운 얼굴과 우아한 몸짓으로 아벨의 현신을 묘사하며 기뻐하는 브리쿨의 모습과 그가 던진 말을 연신 곱씹으며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

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음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내게 조용히 다가온 그는 내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라는 우아한 손가락질을 하자 나도 모르게 몸을 곧장 일으켰다. 나는 여전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고 그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 즐거운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진홍의 새벽을 위해 그토록 기다리던 질 좋은 육신과 영혼의 그릇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질 좋은 육신이라면 오히려 카인의 핏줄과 더욱이 가까운 카르밀라의 육신이 이미 타르사놋에 잠들어있지 않습니까?”

“네크타라가 카르밀라의 육신을 손에 취하고 난 뒤로 그들에게서 진전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 뿐더러 카르밀라의 육신은 순수하지 않다는것은 마지막에 토해낸 더러운 한방울이 그 증거이다.”

어째서인지 이 방에서 지워지지 않은 저 작은 피 얼룩이 아직까지 내게 스스로 물어왔던 해답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 흔적에 다가가 손을 가져다댔다. 그리고 순간 스쳐가는 무언가에 흠칫하자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여느때처럼 그대는 고뇌에 가득차있군.”

그의 물음에 더욱 확신이 생겼다. 브리쿨은 말라서 변색이 되어버린 마지막 한 방울의 핏자국이 카르밀라가 남긴 무언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금의 나로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핏자국에 조금 더 손을 머물게하여 남겨진 그 핏방울의 미세하게 남겨진 흔적을 내게 담으려고 했다. 브리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끔 짧고 조용하

게 그 행위를 마치고 난 뒤 핏빛장미 아우렐라를 바라보며 답했다.

“무릇 순수한 피는 말라버린 핏가루 따위가 아닌 아우렐라 안에서 힘차게 요동치는 것이야말로 카인의 순수한 핏줄 샤마인의 긍지겠지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너는 참으로 흥미로운 종복이로다.”

“그것이 당신의 즐거움에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영광입니다.”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물론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건 속박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의 피를 받아들이며 순수한 카인의 혈통으로서 그에게 예속되어 있었지만 그저 단 한 방울의 탁한 피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러하기에 나를 더욱 곁에 두어 허튼 수작을 부릴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나 혐오하는 불쾌함이 가득한 말라버린 핏방울을 카인의 순수한 핏줄이라 칭하는 오만의 군주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나를 즐겁게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오만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 하물며 그 역시나 나와 같을진대 그것을 이해 못 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잠깐의 즐거움이 스쳐 지나가던 찰나 오만의 군주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근래 즐거워 보이는 그대를 보니 나마저 기쁘기 그저 없구나.”

자상한 말과 너그러운 미소 뒤 날카로운 그의 말에 차마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진실을 고하기로 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태우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당신의 충복은 순수한 카인의 혈통을 칭하는 샤마인의 이름

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나 봅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듯한 손짓을 건네었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불쾌하기 그지없는 더러운 마지막 한 방울은 아우렐라만큼 아름다운 빛깔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인과 몸을 섞었던 것의 안에 잠재된 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카인의 뜻이 아닌가 즐거워 마지않고 있었나이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감추지 못한 것에 대한 결례를 용서하소서.”

명백히 비꼬는 것이나 다름없는 나의 태도나 언동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듯한 그는 오히려 활짝 웃고는 기뻐하며 입을 열었다.

“종복임에도 참으로 건방지고 오만하기 짝이없도다. 그대는 지금 카에람에 자리한 샤마인의 순수한 혈통의 존재를 전면으로 부인하며 그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군주 나 브리쿨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미천한 저를 품어주신 덕에 저에게도 오만의 죄악이 숨쉬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그래, 알다마다. 그동안의 미심쩍고도 불쾌한 향이 퍼져있었던 것도 바로 그 더러운 마지막 한 방울 때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나 조심하고 있었건만 역시나 카에람 안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던 나의 즐거움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테지.

“허나, 불쾌한 핏방울을 머금은 저지만 아우렐라의 양분이 된다면 그

것마저 영광으로 여기겠나이다.”

내 말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했다.

“내 어찌 내 즐거움을 스스로 해하려 한단 말인가? 얼마든 좋으니 그대는 그대의 뜻대로 열심히 발버둥쳐 보라.”

“헤아려 주심에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순수한 핏방울의 수집만큼이나 무엇이 내게 또 다른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이미 알았겠지?”

“아벨의 현신 말이군요.”

“그래, 하지만 바라건대 그것의 육신이나 영혼을 바스러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처하나 없이 내게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구나.”

“다만 그렇게 된다면 육신과 영혼을 담보로 하고 있는 왕가의 혈맹인 네크타라와 타다마드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괜찮다. 그것들이 육신과 영혼에 대한 성과를 내놓게 된다면야 나중에 가서는 그저 핏빛 춤사위 위에 서게하면 될 일이니.”

“현명하십니다.”

“다만, 조금 큰 연회가 될 터이니 더 많은 피를 뿌려댈 귀족들을 소집하라. 그들에게 아우렐라 붉은 잎사귀의 축복을 헌사할테니.”

오만의 군주가 다른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에 비견될만한 양의 피를 이 땅에 뿌릴 것을 암시했다. 우리 둘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고 무거운 침묵이 잠시동안 흘렀다. 짧은 시간에 판단을 끝내고 내린 결론은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었다. 말라버

린 마지막 한 방울에 대한 해답은 아마 거대한 피보라 속에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려하에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 즉시 볼슈나르츠, 윙겐, 알겐스나힘, 슈바츠실트, 보우번을 포함, 그 예하의 모든 귀족들을 카에람으로 소집하겠습니다.”

아쉬움을 접어두고 내가 그리 말하자 오만의 군주 브리쿨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가벼이 끄덕이고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 예속된 내 피에 흐르는 것이 무엇을 향해 요동치는지 아는 듯 뼈가 있는 말을 내게 건네었다.

“옳지! 무릇 거대한 야망과 오만함은 조용히 베일 뒤에 숨어서 적합한 시기에 고개를 드러냄으로써 완성되는 예술이나 다름없다.”

그 말로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오만의 군주는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에 담으며 시험하고 있음에도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핏방울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아벨의 현신이 오만의 정점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나는 다시금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서슬푸른 웃음에 뒤이에 또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를 깨우듯이 귓가에 울려퍼졌다.

“아니, 아직이다. 그대는 조금은 나를 더 즐겁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썹하나 까딱하지않고 허리를 굽히어 답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불쾌한 마지막 한 방울의 베일을 벗겨내기 위

한 지혜가 저에겐 아직 턱없이 부족한 터라 제게는 아직 피비린내 넘치는 이 세상이 필요하옵니다.”

“음, 알다마다. 참으로 훌륭한 장난감이로다! 카인의 핏줄조차 이러한데 다른 것들이 버둥대는 것을 보는것은 어떠겠느냐? 내 이러하니 진홍의 연회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밤이로다. 각지의 귀족들과의 회담을 끝내고 카에람 대연회장에서 축제를 벌일 것이니 그대도 그 자리에 있어주었으면 하는구나.”

피의 예속으로도 불안했는지 아우렐라의 핏빛 꽃잎의 조각을 내게 심어두려는 모양이나 뭐 그건 그것대로 좋다. 오랜동안 함께 했음에도 어차피 그나 나나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이참에 알아두는 것또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이지요. 아우렐라의 축복을 품는다면 바래진 핏방울의 색이 다시금 차오를지도 모르니 말이죠.”

“한참이나 나의 수고를 덜어주니 이 얼마나 충실한 종복인가?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그대의 안에 무엇이 흐르던간에 결국 그것또한 내 안에서 흐르게 될 것이니 말이다.”

“나의 주군께 감히 그 더럽고 불쾌한 것을 품게 할리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브리쿨 주변의 피가 즐거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순수하고 질감이 좋은 핏줄기만큼이나 나를 즐거이 하는 것은 없으니 그 붉은 물방울을 정제하여 입맛에 맞게 가꾸어 준다면야 내가 굳이 마

다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한참 의미없는 허례허식을 이어나가며 더 이상 대화를 꾸려나가야 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 나는 그의 별채를 뒤로했다. 더럽고 불쾌하며 색조차 바래진 말라버린 마지막 한 방울을 탐하는 그의 저의가 확실해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아벨의 현신을 원하는 것은 오만의 군주 브리쿨이라는 존재지만 그와 같이 순수한 육신과 그 안에 흐르는 미지의 핏방울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존재 역시 나였다. 미지의 맛과 향을 떠올리자 엄청난 고양감이 나를 휘감았다. 카에람의 홀을 지나가며 창살로 새어나오는 검붉게 물든 달빛이 내 몸을 적셨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만끽하고 난 뒤에 조용히 중얼거렸다.

“순수한 영혼이 담긴 한 잔. 어디에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품종이니만큼 무릇 그것에 어울리는 자의 곁에 있어야겠지요.”

땅거미 질 무렵 카에람에 각지의 모든 귀족들이 집결했다. 그들은 선홍의 빛깔을 하사받고는 즐거움을 주체하지 못하더니 성 밖으로 흘러나가 이내 수많은 생명의 피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실에 앉은 듯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었던 평화를 깨우려는듯,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브리쿨은 진홍의 새벽을 열기 위한 연회의 시작을 고했다.

『 텅 빈 육신에 가득찬 것 』

“좋아 그 정도면 될거야.”

바울의 지시에따라 나는 조용히 카르밀라의 육신에 손을 뻗었다. 그녀의 살결은 부드러웠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얼핏보면 자애로운 미소마저 머금고 있는듯한 그녀의 인상은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일어나 누군가를 포근하게 감싸안아 줄 것 같은 느낌이 뇌리에 스치자 나는 고개를 가벼이 저으며 다시금 그녀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분명 인형들에게 들었던 그녀의 옛 이야기 때문에 사념이 내게 새어 들어오는 듯했다. 그 표정과 망설임을 알아차린 라울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 조용히 입을 뗐다.

“카르밀라의 육신을 눈 앞에 두고도 이제와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망설이게 만드는건데?”

나는 내 앞에 있는 육신에 시선을 고정한채로 그녀의 살결을 매만지면서 그의 물음에 무성의하게 답했다.

“별로, 쯧. 쓸데없는 말을 들어서는….”

“정말 그녀가 우리의 공허와 허무를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정신차려, 다비아. 이건 아무것도 남지않은 껍떼기일 뿐이야.”

그의 냉소적인 대답에 나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팔을 활짝 열고 그녀의 품에 폭 안겼다. 따스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라울은 더욱 심각한 표정

으로 내게 말했다.

“점점 하는 짓거리가 삐뚤어진 사랑을 갈구하는 인형 꼴이잖아.”

“하지만, 이렇게나 아름답고 포근한걸.”

“그래, 알겠으니 슬슬 시작하자고. 말했듯이 뭐가 되는 괜찮으니까 네 존재자체는 부정하지는 마라. 네크타라가 그렇다고해서 굳이 우리마저 공허와 허무에 잠길 필요가 없다고했지 네가 살아온 시간을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었으니 말이야.”

라울은 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기계처럼 이전에 한 말을 그대로 말했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녀와 살결과 조직 모든 면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였던 나니까 어쩌면 내가 공허고 허무한 껍떼기가 아닐까?”

“그건 자르고 다시 붙여보고 난 뒤에 알 수 있겠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토막내줄게. 엉성하게 자르고 붙였다가는 카르밀라의 육신과의 접합면에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직끼리의 반발로 사후부패가 일어나게 될테니 말이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지껏 인형들과 가졌던 티타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것이고 나는 영면에 잠기지 못한채 썩어 문드러지겠지.”

“무슨소리야? 이 세상에 쓸모없는 육신이나 시체가 어디있다고. 너는

후대 네크타라의 사제들에게 훌륭한 교보재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루어 낸 것으로 내가 기억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영 재수없는 놈한테 맡기려니 듬직한데 그래?”

“그것 참 고맙네요. 얼른 시작하자. 이러다 늦겠어.”

바울의 말과 함께 준비해둔 인형과 질투의 끈을 비롯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절단되는 느낌이 온 몸 구석구석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성격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녀석이지만 네크타라의 사제로서는 의심할 여지없는 물건이었다. 온 몸 여기저기 썰리고 토막을 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불필요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생명을 살리는데 소질이 있는것 같아.”

그의 얼굴이 잠깐 구겨지더니 이내 무언가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고나서 답했다.

“다비아, 이건 생명을 살리는게 아니야. 생명을 가지고 노는거야.”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있으면 그걸로도 좋다고 생각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데 성대부터 끄집어내야 될 것 같네.”

“그래, 그래. 어련하시겠어요. 잠에서 깨어나고도 여전히 나이기를 바라는게 좋을거야. 수면이 부족한 여인만큼 날카로운 게 없거든.”

“깨어난 것이 너이든 카르밀라든 어쨌든 작업이 끝나고나서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야 할 수 있는 말이겠지. 나가는 것 말할 것도 없

고 우리가 카르밀라가 잠든 이곳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기적까지 입에 담는걸보면 꽤나 조급 하신가봐요?”

“여전히 속 편한 소리를 하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카르밀라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데보라도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그 작은 불씨는 영원의 전쟁에 버금가는 불길이되어 이데아를 덮칠거야.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 우리가 설 곳은 없게되겠지. 네크타라의 사제로는 물론이고 카인의 핏줄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채 떠도는 산 송장이 될지도 몰라.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거야?”

“무슨 말이야? 네크타라의 사제라면 당당히 타르사늣의 어디에 그 육신을 자유로이 담을 수 있는 거 아냐?”

내 말에 라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

“아니, 아무것도. 왠일로 맞는 말을 하는걸보니 작업이 잘 못 됐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너도 죽을때가 되었나 왠일로 농담도 던지는구나.”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 뭐라도 할 수 있는 기분이네.”

그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억지스러운 웃음을 보이자마자 나는 작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시큰하게 저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잠깐 침묵에 잠겨있다가 애써 입을 열었다.

“좋은 변화구나, 라울. 나 같은 것보다 네크타라에 훨씬 쓸모있는 네가 이 육신의 조각에 맞추어졌으면 좋았으련만.”
“쓸데없는 소리하면 작업하는데 영 방해가 되는 혀를 뽑아버릴거니까 조용히 해. 그리고 쓸모있는 것이라면 카르밀라의 육신과 적합했던 너의 살점이 오히려 네크타라에 쓸모가 있다면 훨씬 쓸모가 있겠지. 나를 대체할만한 육신을 엮는 이들은 차고 넘치니까 말이야.”
그는 뜯겨져나간 살덩이들과 제법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있는 인형의 구관절을 들고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때 내가 다시 물었다.
“친구라는 말로 제법 그럴듯하게 속여넘겼지만 나중에 다른 꼭두각시들 특히나 질이 이걸 보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속인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과 한 배를 탄 셈이야. 이거야 원. 이래서야 꼭두각시 놀음에 놀아난 것은 우리들인 꼴이잖아.”
“난 이미 네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런 의지가 없는 텅 빈 인형따위와 비교되는 것은 썩 유쾌하지 않다고.”
“그래도 솜씨 하나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질투의 실이라는 다소 말도 안되는 것이 필요하기는해도 그들은 인형으로 제법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그럴듯하게 묘사하고 있잖아?”
“질투의 원리를 파악해도 우리의 육신과는 맞지 않을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거야?”
“아까 내게 말했지? 다비아 혹은 카르밀라 어느쪽의 모습으로 눈을 뜨

게 될 것인지 말이야. 하지만 우습게도 어떠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난 뒤로 좋든싫든 본능적으로 인형들에게 이끌리게 될거야. 가느다란 실조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은 말이지.”

“무엇으로 눈을 뜨게 되어도 결국 인형밖에 되지 못한다는 뜻이야?”

“이끌리게 된다고했지 그것들의 꼭두각시가 된다고 한 적은 없어.”

“결국 그것의 열쇠는 이 살덩이가 지니고 있다는 말이지?”

“인형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건 너의 육신과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이 어우러져 엮이는 거야.”

“그말은 내가 육신의 군주의 그릇이라는 거군. 역시.”

“역시는 무슨. 어처구니가 없네. 카르밀라의 육체에 남은 조직 하나라도 너의 움직임을 방해한다면 너는 자유의지조차 없이 그저 카르밀라의 육신에 갇혀 영원히 양분을 공급하며 살아갈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지 않는거야?”

“응.”

“음, 그래. 뭐 그러던가. 너는 나태의 죄악 그 자체구나.”

내 낙천적인 성격도 꿰고 있다는 듯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무심하게 다시금 작업을 재개했고 한참을 춤추던 그의 손이 멈추었다.

“이제 그만 잠들어라….”

“…그래, 내가 널 기억하마.”

이미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있는 내가 할 수 있는것은 그저 그를 기억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육신이 예리하게 절단되어 안에 따스하게 뛰고있는 내장이 엮여지는 가운데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기에 그 이상의 허례허식 따위는 우리 사이에 필요없었다.

즐거운 꿈을 꾸었다.

드높이 쌓여올려진 시체들의 산에서 우리는 그것을 조각내고 이어붙이기를 반복하며 기분좋은 시간을 보냈다. 몇몇은 아직 숨이 붙어있었고 살을 찢고 부수는 소리가 그것에 섞이며 기분좋은 음색이되어 그 산 주위로 메아리쳤다. 누가 나를 깨우지 않았음에도 그 꿈을 되뇌이듯 미소지으며 조용히 눈을 떴다. 나는 온 몸을 기괴한 방향으로 뒤틀고 꺾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라울의 작업은 역시나 최고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우득거리며 움직이는 육신을 눈으로 담는 것은 항상 즐거웠기에 그 의식은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라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나의 육신과 카르밀라의 육신 내부 조직들의 배열이 비교적 가지런히 그 합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였다. 한참이나 그것에 집중하고있었을 때 문득 라울의 행방이 궁금해져 주위를 둘러보았다. 역시 그는 이곳에 있다. 아니 그의 육신과 더불어 무수한 시체들이 이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말라버린 피와 이미 부패가

시작된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작업이 끝나고 이 난리가 벌어진 뒤로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우습게도 나의 육신과 장기들로 이루어진 카르밀라의 모습을 한 인형은 차분하게 원래 있어야 할 곳에 흠집하나 나지 않은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사체의 처리를 하지 않는 네크타라의 전통 혹은 문화라면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된 셈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뒤섞여 엉켜진 시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의 사체를 긁어모아 품에 안으며 카르밀라가 잠들어 있던 묘실에서 나왔다. 편하게 나갈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시 묘실 밖에는 검은 누더기를 뒤집어 쓴 소수의 사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정교하게 맞추어진 뼛조각과 시체거죽에 손을 대며 임전의 태세에 돌입했지만 그들은 어째서인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소름끼치는 정막은 나의 숨통을 더욱 졸라매고 있었다. 잠시 뒤에 그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다름아닌 육신의 군주 데보라였다. 그저 말로만 들었지 직접 그녀와 조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른 누가봐도 아름다웠다. 호리한 체형이지만 우아한 굴곡과 뽀얀 속살은 네크타라의 사제가 아니라 같은 여인으로서 참으로 탐이날 정도로 완벽한 몸뚱이었다. 다만, 화려한 용모와 옷차림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 꿰멘 흔적과 더불어 몸 여기저기에 억지로 다른 살점끼리 엮은 듯한 누더기 조각이 살며시 드러났다. 나태의 죄악, 육신

의 군주라면 무릇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시체나 뼈대의 구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몸은 살점을 엮는 이라는 네크타라의 이명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이기에 저렇게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모습이 아닐까? 그녀의 우아한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감상에 젖어있을때 그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런, 불쌍한 것. 데보라마누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채로 그저 발칙한 학구열만으로 재미를 보려던 것이 되려 화를 낳았구나. 헌데 제법 재미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구나. 나태와 허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느껴지던데 그것이 탐이나서 죽인것이냐?”

“…예. 하지만 저만이 그를 기억하겠지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녀가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나는 이것조차 라울이 계획했던 것임을 깨달으며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조심스레 내게 다가오더니 혀를 꺼내더니 기억을 더듬듯 나의 몸뚱이를 샅샅이 훑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눈을 나른하게 뜨더니만 즐거운 듯 지껄이기 시작했다.

“흥미롭구나. 훌륭한 몸뚱이야.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나 열성적인 줄은 몰랐는걸?”

나는 아무런 대답없이 고개를 숙이며 라울의 사체를 품에 안고있었다. 그러자, 데보라의 눈알이 미끄러지듯 굴러가며 그것을 바라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짓더니 자상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좋아. 제법 즐거운 구경을 했으니 조심히 가져가서 잘 조각해주렴.”

그렇게 나는 영문도 모른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를 묵묵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것이 라울이 계획했던 것과 질투의 끈 그리고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과 함께 잘 엮어진 살덩이 때문인 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살리옴 구릉지를 벗어나자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 손을 가져다대자 엉킨 실타래가 마치 도자기가 깨지듯 바스러지면서 낡은 육신이 지던 얼굴이 썩어가며 붕괴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레 라울의 육신을 곁에 두고 한참을 무너져내려가는 얼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내리며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카르밀라의 것이었다.

『 인질 』

세사도르의 산세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깊고 험하다. 어둡고도 축축한 이 광경은 생명이 움트는 곳인지 죽은 것들이 잠든 곳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상처하나없이 멀쩡했지만 안은 그러하지 못했다. 몰아치는 영혼의 절규가 한참이나 내게 머물러 정신을 여러번 놓았다. 종놈이라 부르는 셋은 그렇다쳐도 그것들을 몰고다니는 대감이 장난스레 휘두르는 날도 서지않은 엉성한 칼자루 때문에 내 안에 담겨있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증발했고 울부짖는 소리가 작게 메아리치며 세사도르 깊은 숲을 가득 메웠다. 주변이 소름끼치도록 을씨년스러었던 이유는 녹음 사이로 나부끼는 산들바람이 아니라 비탄의 영혼 때문이었다. 상태가 좋지않은 내 모습을 본 라핀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그 미친 도사놈, 기어이 추한 속내를 드러냈구나.”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지. 하지만 이걸로 대감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게되었어. 영생을 살지못하는 것들의 움직임은 뻔하디 뻔하다고는 하지만 대감 역시나 너무나도 평범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군.”

“불로불사를 찾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전이까지 간거지. 일곱의 죄악을 모두 짊어진 우리에겐 코웃음이 날 정도로 가여운 꿈이네. 예나 지금이나 아벨의 자손들에게 창의성은 찾아 볼 수 없어.”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그 도사놈의 혼을 뜯어내려고 그들의 곁에 있던것이 루드윅의 행방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군. 자 이제 사정을 들어볼까?”

“루드윅은 우리보다 먼저 대감과 접선을 해왔던 것 같더군.”

“어쩐지 초면이 아닌듯한 태도를 보이더라니. 그나저나 루드윅은 다른 놈도 아닌 그 정신나간 도사놈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었던건가?”

“대감 곁에 있는동안 말없이 흐느끼던 영혼의 파편이 밤낮을 끊임없이 배회했었다. 그것은 너무도 가련하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흩어져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 약한 기운에도 거대한 사념이 느껴져 이상하다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않아 그것이 대감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지.”

“대감이 그리 줄곧 찾던것이 고작 그거였어? 고작 그런것을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곁에 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 대감은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있는 그릇이 아니야. 떠도는 자기자식의 희미한 영혼마저도 그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맞추어진 하나의 조각정도에 불과하겠지.”

“그럼에도 용케도 그것들 모르게 보험을 들어놓으셨구만.”

“흠, 대감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기민하고 약삭빠른 늙은 너구리가 태연자약하게 섞여진 자들이 마음대로 세사도르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게 했을리가 없어. 대감이 영혼은 항상 세사도르의 도

사들과는 사뭇 다른 냄새를 항상 풍기더군. 그것은 평화와 중용이 아니라 영원과 지배였으니 우리의 의중을 파악하고도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여전히 그것을 염두에 둘 터이니 항상 조심해야겠어.”

“세사도르에 발걸음을 한 이상 우리들의 움직임은 이미 그놈의 손바닥 안이라는 건가? 그나저나 신기하군. 수백갈래로 쪼개어진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진 않지만 어설프게나마 잡아낼 수 있다니 말이야.”

“그것도 아마 이 음기 가득하고도 험난한 산세 때문일거야.”

“마우엘란 가지의 영혼과 달리 너무 질서가 없네. 엉망진창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영혼들이 질서없이 어지럽혀져있는 이곳의 탁한 공기를 마치 담배연기를 손으로 휘적거려 없애려는 듯한 손짓을 해대고는 내게 말했다.

“행여 네놈의 몸뚱이에 도사놈의 영혼을 담은채로 살게된다면 너는 세사도르에 정착하게 되나? 아니면 나라늣으로 돌아갈건가?”

“대감의 영혼은 오직 우리가 하나의 영혼으로 이데아를 살아가기 위해서 벼려내는 재료일 뿐이지 그 자의 삶을 사는것이 아니야. 영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든 그저 우리로 살아가다 돌아갈 뿐이지.”

“타다마드의 수확자들도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천차만별이지만 네놈의 허울좋은 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야.”

“재료로 쓰고남은 잔해와 남겨진 자들의 영혼이라면 너의 그릇에 담아

두어도 상관없다. 그들의 비통은 더 많은 사념을 끌어모을 것이고 그것은 훗날 더욱 탐스러운 열매로 거듭나게될 촉매제가 될테니.”

“허겁지겁 루드윅의 꽁무니나 쫓아다니며 광대짓거리나 일삼던 놈이 이제는 그놈이 되어버렸나. 역시 네가 원하는 건 그놈의 영혼이냐?”

“그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이니까.”

“그놈이 그렇게 쉽게 내어줄 것 같아? 그 미친 도사놈은 죽어버린 자식의 영혼이 울부짖어도 동요하지 않을거야.”

“알아, 대감에게는 상실의 슬픔보다 달콤한 기쁨이 더 독이 될거야.”

“영혼을 뒤섞어가며 억지로 그들을 반복되는 안락감 속에서 잠들게 할 셈이로군. 그러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영혼을 태워야 할텐데 정말로 그 도사놈의 영혼 하나가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야?”

“그건 대감의 영혼을 조금만 꿰뚫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오호라, 그래서 어디까지 닿은거야?”

“세사도르에 자리잡은 영혼의 뿌리.”

“멀리도 갔네. 그래서 그 도사놈이 그렇게까지 강했던건가?”

“그래, 아벨의 자손과 도깨비 사이에 난 놈. 비록 그 피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바래져가며 대대로 영혼을 눈에 담을 수 없고 도력조차 부릴 수 없었지만 여러세대를 거쳐오는 동안 그저 소멸된 줄로만 알았던 잠재된

이능을 깨우치고 태어난 것이 대감이야.”

“그놈은 그것도 모르고 자랐나?”

“알고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비밀에 부치고 조용히 살아왔겠지. 조용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이야.”

“우습네. 귀접하여 잉태한 아이가 세사도르의 도사들과는 다른 형태로 영혼을 찢어발길 수 있는 자라니.”

“그래. 영혼을 엮는 과정이나 형태가 묘하게 우리와 닮아있다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말이지.”

“타다마드의 방식이 있는데 굳이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육신에 담긴 단 하나의 영혼이다. 타다마드의 수확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혼을 뜯어내는 그 방식을 깨우치게 된다면 영혼의 절규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일은 없을테지.”

“그냥 영혼의 저울질에 지친거라고 해라.”

“일단 그렇다고 해두지. 영원의 전쟁은 끝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름 없는 전쟁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어져왔고 더 큰 전쟁이 다가올지도 모르지. 나는 이제 그만 그 덧없는 굴레에서 벗어날거다.”

“그래, 너는 줄곧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었지. 그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면 분명 라그반님과 어깨를 견줄만한 수확자로 거듭나게 될거야.”

가슴이 지끈거리는 익숙한 말투에 내가 그녀에게 고개를 휙 돌리며 눈을 크게 뜨자 그녀는 바짝 경계하며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댔다.

“뭐지? 벌써인가? 아무런 기척도 없었는데?”

“…아니, 내가 착각한 듯 하군.”

“가뜩이나 예민한데 짜증나게 하지마라. 아무튼 우리와 저들의 시간은 한참 다르니 도사놈들은 우리의 흔적을 끊임없이 밟을테고 다음에 영혼이 뜯겨져나가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것은 너일수도 있으니.”

“오히려 급한 것은 저쪽일테지. 대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사도르의 뜻에 반하는 것들 뿐이니. 그가 행한 것들 하나하나가 불씨가되어 조만간 동방의 고요한 새벽에 한바탕 피바람이 불게 될거야. 나는 그 조그만 혼란의 불씨에 입김만 불어주면 되는거지.”

“그렇다고해서 도사놈이 세사도르 궁궐과 척을 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지. 더구나 그의 곁에 있는 것들이라고는 고작 종놈 셋 뿐인데 그걸로 어떻게 되겠어?”

“종놈들이라는 것들도 평범한 도사가 아니야. 그들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대감이 직접 개안해준 힘이니 그놈 하나하나가 일당백이라고 보면 될거야.”

“그래서 그 영혼에 그들만의 색깔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었구나. 영혼을 가려낼 혜안도 없는 놈이 영혼을 가르는 힘이며 기

이한 도력을 부리는 것도 어느정도 대충 아귀가 맞는구만. 애초에 근본이 다른놈이라 그랬군.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궁에서도 그를 들이지 않은 것이고. 아마 세사도르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 도사놈 쪽일지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그 도사놈도 참 대단하다. 네놈이 탐낼만한 영혼이야. 오직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을정도로 정신이 나갔을 정도니까.”

그녀는 상황을 정리하려는듯이 부지런히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재잘거리는 가운데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글쎄, 사정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도 모르지. 껍데기라도 곁에 두고싶을만큼.”

“왠일로 그런 감상에 젖은 말을 입에 담는거지? 우리처럼 사특한 것의 추악한 민낯은 우리 거울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그것을 옹호하고 합리화를 한다고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는 것도 아닐텐데?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제와서 그렇게 현자인 척 해봐야 우리의 죄가 덮혀지지 않아. 여기저기 떠도는 영혼에 배어있는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담겨져있다. 그 죄가 가진 총량의 차이지 그 본질은 모두 같다. 그리고 이제와서 내게 굳이 이런말을 꺼내는지 모르겠군. 갑자기 무엇이 두려워졌나? 상투스의 빛에 기대어 회개라도 하고 싶은건가? 그리고 굳이 하나의 혼을 담고 싶

다면 네놈의 몸뚱이에 영혼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마우엘란의 나뭇가지에 전부 토해내면 그만인 것을 참으로 복잡하게 일을 벌이는군.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급한거냐?"

쏟아지는 그녀의 물음에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하나 없다는 것을 때닫고는 한방 먹은 듯하여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가볍게 저으면서 말했다.

"그래, 아니지. 아무리 타인이 죄악에 물들었을지언정 모든 죄악을 담고있는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었군. 침묵의 루드윅의 입을 열게하려고 우리 안에 담긴 영혼을 사멸에 이르게하는 것도 모자라 항상 나의 뒷모습을 봐주는 여인의 영혼을 바라봐주지 않으니 말이다."

그 말을 듣자 라핀은 미간을 구기고 한참 침묵을 이어가다 조용히 입을 떼자 그녀의 주변에 영혼의 절규가 고요하게 울리며 깊은 숲을 메웠다.

"엘리제."

"뭐?"

"그 여인의 이름말이다."

"그래."

불안과 혼란이 낳는 절규를 즐기던 라핀답지않은 시원찮은 답변에 신경

이 쓰여 나는 다시 그녀에게 물었다.

“이번의 동행으로 얻는 네 몫은 충분히 할당이 되었을텐데 무언가 문제라도 있나?”

“아니, 아주 만족스러워. 하지만 그것말고도 지금까지 흥미로운게 있어서 말이야. 네놈이 남의 영혼을 깊숙이 훔쳐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은 가벼웁고 자유롭다는 건 이미 알고있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건데?”

“아벨의 현신이 강림함과 동시에 도처에 퍼져나오는 불안과 혼란으로부터 나오는 냄새가 이미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것이 우연인듯 필연같아 보여서 즐거워. 엉망진찬으로 부딪힌 영혼들이 만들어낸 걸작이니.”

“피바람이 부는곳은 비단 세사도르가 아닐거란 말이군.”

“그래, 그러니 너도 영혼을 너무 깊게 헤아리려하지 말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섞여가며 좀 돌아다녀라. 세상은 넓다고?”

“그래.”

“수많은 영혼만을 담아왔던 우리가 오직 하나의 영혼을 지닌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행여 그렇게 된다고 치자. 오직 영혼을 찢고 그것을 취하며 영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의 육신에 하나의 영혼으로 살 수 있을것 같아? 정녕 그렇게나 위태로운 줄타기를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 영혼을 토해내는 것만큼 힘든것

이 방황하는 모든 영혼을 하나로 응집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마.”

“그래.”

“방황하는 영혼과 새장안의 영혼. 무엇이 더 자유로울까?”

어째서인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팠다. 라핀은 깊은 숨을 들이마쉬어 세사도르의 가득한 음기를 담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음 한참을 그것을 음미하고나서 나를 돌아보더니 묘한 웃음을 짓고는 내게 말했다.

“루디를 만나게되면 안부를 좀 전해줘.”

그리고는 더럽혀진 구둣발을 가볍게 털어내듯 한쪽발을 다른쪽에 두드리는 소리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눈을 질끈감으며 짧은 신음을 토해냈고 눈을 뜸과 동시에 그녀는 내 앞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아무래도 세사도르에 얽매여져 있는 사념과 원한이 마우엘란의 절규와 함께한 우리 안의 영혼들과 공명하면서 더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가. 영혼의 색은 바래지고 끝내 흩어져버릴 처지에 빠진건 오히려 이쪽인가보군. 어쨌든 더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 나를 빛나게 하는 것 』

나는 후드를 가볍게 벗으며 그 찬란한 빛을 머금었다. 백색이었던 머릿결은 한참이나 따스한 빛으로 적셔져 어느새 금발로 바뀌었고 산들바람에 흩날려 봄날의 꽃향기까지 스며들었다. 내 살갗이 더욱 밝은 광채를 띄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상투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탁한 은빛에서 밝고 투명한 은빛을 발하는 것은 세르샤의 분노라면 마땅히 기쁜 일이지만 나에게 더이상 그러하지 못했다.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고나서 많은이들의 마음을 녹였지만 그 따스한 햇살을 반기지 않는 것은 헤르실라는 물론이요 그녀의 수은심장을 마신 세르샤의 분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안에 담겨진 분노의 형태와 빛깔은 다양했지만 그녀가 돌보지 않은 분노의 색깔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가 품어왔던 새벽녘과도 같이 푸르고 차가웁게 날이서린 고요한 분노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기브에게 그 고요한 분노는 두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후에 알게된 것이지만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다.

병신같은 놈.

그래서 기브는 헤르실라의 손에의해 한 방울의 은빛으로 돌아갔다. 모든 분노의 근원에서 태어난 것이기에 그녀에게 돌아간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것은 나의 분노를 삭히지 못했다. 헤르실라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도 그 고요한 분노를 담을만한 적합한 그릇을 찾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것에 적합한 것은 그의 연모가 향해있던 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보기좋게 성공했다. 지금의 나에겐 헤르실라의 분노는 물론이요 기브의 고요하고도 차분한 분노까지 모조리 담겨져있다. 그것이 모두 뒤섞여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 분노와 함께 미쳐 날뛰는 해방감과 동시에 고양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이전과 같지않은 고요한 내 심장이 묘하게 낯설어 가볍게 숨을 토해냈다.

“후우.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대지를 따스하게 어루만지는 것은 아벨의 헌신이 날뛰고 있는 탓인가보군.”

기브가 내 곁을 떠나고 내게 남긴 그의 유산을 헛되이하지 않겠다는 일념만으로 마침내 상투스의 심장부를 향한 발걸음을 오랜동안 이어왔다. 그러는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불경한 것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부 제 밥그릇에 눈이 먼 아벨의 자손들뿐이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아벨의 헌신이 광명을 비추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질서는 더욱 어지러워져 있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한 헌신이 마침내 눈 앞에 당도했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광신도처럼 변모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이단을 만들고 결국에는 허울뿐인 도적들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 도처에 생겨났다. 나는 지나온 발자취를 하나하나 곱씹

어가며 진저리를쳤다. 이쯤되면 구원이라는 말이 품은 진위성의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 법도 할텐데, 대부분의 아벨의 자손은 그것들을 진정으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체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릴없이 상투스 변방의 작은 마을의 오솔길을 따라 걷는 길에 제법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있었다. 그리고 갓길에 댄 마차 주위에 재잘거리며 떠드는 꼬마아이가 그 꽃들을 엮어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제 아비에게 자랑하듯 들어보였다. 우스꽝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왠지 응어리진 분노가 어이없게 사그라들어 조소와 함께 한숨이 푹 쉬어졌다. 나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보이는 그녀는 맑고 투명한 눈으로 마치 나를 아는 사람인양 손을 크게 휘적거리며 내게 인사하자 나도 구겨진 미소를 보이며 작게 화답했다. 그것이 그렇게나 기뻤는지 내게 오더니 그 왕관을 건네었고 나는 마지못해 그것을 써보이며 좋은 척을 했다. 굳이 상투스에 와서 어금니를 드러낼 필요는 없었기에 꼬맹이의 장단에 적당히 어울려 주었다. 그러자 아비로 보이는 이가 다가오더니 내게 미안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여댔고 그녀를 데려갔다. 멀어지는 동안에도 꼬맹이는 내게 손을 흔들어댔다.

“뭐하는 애새끼지? 저건?”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태양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상투스의 빛조차 우리를 해할 수 없으니 카

인의 핏줄 누구보다도 저들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저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잠깐 스쳐지나가자 또다시 헛웃음이 났다.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나였다. 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자조섞인 투로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아벨의 빛과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네.”

시골길을 한참을 따라 걸은 뒤 얼마 지나지않아 눈에 띄는 교회에 다다르게 되었다. 저 곳이 내 분노의 불씨를 지필 시발점이 될 것이다. 안으로 발걸음을 하니 시골에 있는 교회치고 꽤나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역시나 타인의 믿음을 갉아먹으며 자라는 빛은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거부감은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상투스의 광적인 아벨에 대한 집착과 광기를 기대했건만 그 교회의 신부는 그동안 상투스에 대해 들었던 광적인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우두커니 그의 말을 귀에 담았다. 부지런히 움직이던 신부의 입술이 굳게 닫히고 나서도 교회 안에는 한참동안 침묵이 흘렀고 신도들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오더니 아벨의 이름을 마지막에 올린 뒤 말씀은 끝이 났다.

“회개를 하러 오셨습니까?”

“회개따위로 우리의 죄가 그저 쉬이 씻겨질 따름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편리하군요. 씻겨진 죄는 그럼 대체 어디로 흘러간단 말입니까?"

그는 다소 놀란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침착하고 성실히 답변했다.

"안타깝게도 흘러간 죄는 어느 누구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는하지만 무작정 자신의 죄를 털어내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음지에 숨기고 감추는 가운데 안에서 썩고 문드러지는 것보다 기꺼이 양지로 드러내어 함께 그 고통과 번뇌를 함께 덜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이웃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케 할 테지요."

"꽤나 그럴듯하게 들리는군요."

내가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적대심과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도 신부놈은 히죽히죽 독사같이 웃으며 유연하고도 막힘없이 답했다.

"그 빛에 거짓이 없다면 감히 제가 저마다의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심해서야 안되겠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아벨의 교회에 발걸음을 하신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나의 분노를 향할 곳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내게 앉으라는 듯 천천히 손을 건네며 말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분노는 옳은 방향으로 풀어야 할테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럼 부디 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환대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이를 갈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나는 카인의 핏줄, 분노의 죄악이자 세르샤의 칼날입니다.”

군더더기없이 깔끔한 소개에 그는 놀랄 겨를도 없어 보이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셨군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는지?”

“글쎄요. 조금 더 적대적이고 말보다 송곳니가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분노의 죄악이라면 그 누구보다 아벨의 자손은 물론 불경한 존재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존재들일진데 당신은 오히려 광적인 아벨의 자손들이 보이는 그것보다 더욱이나 고요하고도 차분하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더 무서울 정도네요.”

너무나도 솔직하고 숨김이없는 그의 감상에 김이 팍 샜다. 순수하다고 하면 순수하다고 해야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할 지 모르는 그의 태도에 적대감마저 시들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내 분위기를 아랑곳 하지도않고 신기한 듯이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카인의 존재가 아벨의 품 안에 이렇게나 가까이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라면 이미 상투스의 빛은 더이상 우리를 향해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그것은 상투스의 빛이 시들어서가 아니라 세르샤의 칼날 가운데에서도 나의 존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것이 당신뿐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네요.”

“나 하나쯤이라면 상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당신같은 특별한 존재로 상투스의 빛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상투스의 사제임에도 그 빛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보다는 느낌을 상당히 중요시 하시네요. 너무 무른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상투스의 사제와 세르샤의 칼날이 이렇게나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계속하죠. 무엇이 당신을 그리 분노케 한 것입니까?”

그는 더욱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올곧은 눈으로 내게 묻자 나는 마주 잡은 두 손을 거세게 움켜쥐며 답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잃은 상실감과 아무것도 하지못한 무력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유감입니다. 세르샤의 칼날과는 달리 나약한 우리는 그것을 이르러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가슴에 그것을 묻어두되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매님. 나도 최근에 같은 경험을 했지요. 쥬브. 모자란 내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 사람의

이름입니다. 내게 아비와도 같았던 그녀의 친부를 잃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요. 모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말하는 그의 표정이 너무도 쓸쓸해 보였다. 그것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기브가 내 곁을 떠나고 세렛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과 겹쳐보였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분노라고 알고 있었던 그것은 슬픔이었다. 그가 나를 자매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알 겨를이 없었지만 신부는 나를 그저 회개하러 이곳에 발걸음을 한 아벨의 자손인양 대하고 있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리 불쾌하지도 않은 묘한 느낌이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기브와 쥬브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쏟아냈다. 그러다 신부가 내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전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을 왜 하필이면 아벨의 자손에게 묻고자 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기브를 잃고 나는 한참을 방황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나와 같은 냄새를 맡은 것이라 분노에 취한듯 이끌려 온 것이지요.”

“그 말인즉슨 제가 당신을 이곳에 끌여들인 것이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슬픔이라고 부르고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당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핏줄들은 죄악의 감정에서 그들의 기억과 그들이 어

디로 향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같은 마음으로 교황의 관을 쓰게 된다면 당신은 분노의 죄악을 짊어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전에 나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분노의 죄악 세르샤의 사명은 이 땅의 불경한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는 우리들 역시 포함되어 있구요."

조용히 내 말을 듣고있던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쩌면 회개하려던 이는 당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으로 이로운 자가 생기면 누구라도 상관없겠죠."

"아벨의 은총이 담긴 교회의 품 안에 있다고해서 감히 제가 주제넘게 당신에게 회개를 권하였네요. 나 또한 죄인일진대."

"일곱의 죄악 중 하나를 짊어지고 있는 존재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네요. 듣고보니 왠지 당신의 무리들은 다른 카인의 핏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해도 불경한 것들이라 불리는 것들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사실 그것은 당신 아벨의 자손들도 그러하지만 말이죠."

"부인할 수 없군요. 애초에 죄악의 불씨를 당긴것은 아벨이니까요."

"신성모독입니다."

“하하! 카인의 핏줄의 입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반박을 당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졌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싶었지만 불경한 빛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런 허울뿐인 말은 이미 버린지 오래입니다. 내가 당신을 끌어들였다는 것부터가 아벨의 종자의 자격이 없다는 반증일테니까요.”

“상투스가 끌어당긴 것은 비단 분노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분노의 죄악은 물론이요, 거슬리는 아벨의 따스한 빛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리들은 이미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테지요. 어쩌면 상투스를 제외한 이데아의 거의 모든 자들이 그것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외람되오나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뒤로 거짓된 빛으로 눈 먼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상투스의 모든 사제들을 적으로 돌릴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당신이 내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노를 향할 곳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분노를 제게 조금 나누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저 불경한 것들을 부수려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빛을 향해 칼날을 뻗어달라는 것입니다.”

“냉정하지 못하군요. 상투스의 사제여. 당신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의심

으로 불안과 염세를 바탕으로 혼란을 낳고자 하는 것입니까?”
“옳지 못한 빛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악한 뒷모습을 가리기 위해 남의 눈을 멀게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속에 숨기려는 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의 망설임없이 강인한 목소리에 나는 이미 그가 의심하고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굳은 결의가 느껴졌다.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은 교회의 창에서 쏟아지는 빛깔이 그를 감싸고있던 탓이었다. 그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고 망설이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역시 분노에 이끌려 이곳에 발걸음을 한 것은 헛되지 않았군요. 그렇다면 저는 세르샤의 칼날이 아닌 제르나로서 당신의 뜻과 함께하며 아벨의 현신에 분노의 칼날을 겨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데 그 말인 즉슨 여차하면 당신은 당신이 몸을 담고 있는 세르샤와도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우리는 이미 아벨의 자손과도 카인의 핏줄과도 등을 돌려버린 운명이니 개의치 않으니 상관없으나 아벨의 품에서 숨어지내온 당신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걸 잃은 뒤에 나의 평화는 이미 깨어진지 오래입니다. 각오라는 것도 망설임이라는 것조차 제게는 의미없는 감정일 뿐입니다.”

신부 입에서 나온 말은 나름 자신의 각오를 다잡기위해서 한 말이었겠지만 분노의 죄악을 담고 있는 자라면 그 안에 무슨 저의가 담겨있는지 모를 이가 없을 것이다. 신부는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분노에 잠식당해 있는 것조차 모를 것이다. 그렇다해도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못할테지만 내게 그를 신경쓸만한 여유는 없다. 이 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상실의 끝에서 복수를 바라는 것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으로 된다한들 상관없다.

“좋아요. 분노를 향할 방향은 잡혔고 서로를 태울만한 불쏘시개 역시 준비가 됐군요. 그럼 이제 그걸 천천히 나눠보죠. 잘 부탁해요.”

그 뒤로 우리는 신부의 별채에서 구원의 빛을 깨기위해 그동안 그놈이 계획했던 일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 우연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우리는 서로의 분노를 섞으며 길었던 대화의 마침표를 찍었다. 나는 이 신부에게 구원의 손길을 건넬 수 없다. 역시나 그 신부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아벨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안겨준 빛이 아닌 서로의 분노를 거리낌없이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빛나게 했다.

『 음미 』

“음, 좋은 냄새.”

들었던 것과도 같이 좋은 향이 여기저기에 퍼져있다. 아키스트들의 초원위로 펼쳐진 호화로운 식사에 취해 즐겁게 이것저것 입에 쑤셔박으며 미친듯이 중얼거렸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런,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군.”

“음? 뭐가?”

“이실그라드의 향이 여기저기에서 느껴져. 아마 그녀가 아르카나를 여기저기에 싸질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거겠지.”

“수많은 이상식욕자들이 허기에 서로 뜯어먹어서 이쪽도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괜찮을까? 슬슬 배고픈데.”

“이렇게 술래잡기를 하다가 제풀에 모조리 죽어나가겠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겠는걸?”

“배고파.”

“떼 쓰지 마. 고생하고 난 뒤에 맛있는 걸 먹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해?”

“우리는 술래니까 우리가 직접 둥지를 틀어서 숨어있는 것들이 알아서

기어나오게 해야지.”

“좋은 생각이긴한데 아르카나 농도가 너무 짙어서 둥지가 뿜는 피 안개가 제대로 펼쳐질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왠일로 사고라는 것을 하지? 몸이 안 좋은가?”

“시끄러워. 나는 지금 배고프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열량을 소모시키고 싶을 뿐이야.”

“물론 제대로 된 둥지가 펼쳐지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그에 걸맞는 향신료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뭘 가져왔는데?”

“다마르강의 거머리.”

“아하. 아르카나의 샘에 거머리들을 풀 생각이구나.”

“그래. 여기 넘치는 생명을 빨아먹고 거머리들은 짧은시간에 무럭무럭 잘 자라주겠지. 거머리들은 피를 토해낼거고 둥지 역시 짙은 아르카나 속에서도 그 핏물을 머금고 원형을 유지할거야. 아니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도 있을테지만 그것 역시나 요리의 즐거움이지.”

“그래, 즐거워 보이네.”

“뭐야 그 반응은?”

“너무 오래 걸려. 쟈토움의 이상성욕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내심이 강했나 싶어서.”

“그럼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있는건지 한번 들어보실까?”
“없어.”
“너는 그냥 배고파서 징징대는 애새끼일 뿐이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언제부터 쟈토움이 사고를 하기 시작한거지? 그저 본능과 허기에 몸을 맡기며 그 이끌림대로 움직여 왔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야?”
“좋은생각 같긴한데 그걸로 숨어서 우리 숨통을 죄여오는 것들을 끄집어내지는 못할거야.”
그녀는 나를 빤히보고는 몸에 나 있는 이빨을 잘근거리며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내게 말했다.
“좋아, 그럼 이렇게하자. 너를 내 품에서 잠시동안 풀어줄 테니까 어디 하고 싶은대로 해봐. 즐겁게 한번 날뛰어 보던지.”

“네 품에 있었던 적도 없는데 무슨 개소리야. 안그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이렇게 좋은 냄새를 두고도 쓰레기만 입에 구겨 넣었더니 정신이 나갈 것만 같으니까.”

내가 그녀를 무시한채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자 그녀도 그 곳을 보고서는 나를 보며 기쁘게 손을 모으며 말했다.
“변함없이 후각이 뛰어난 건 마음에 드네. 이제 남은 건 너에게 그에 걸맞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겠구나.”

“다마르강부터 뭔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썩 유쾌하지 않네.”

“네 말처럼 우리에게 사고따위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시험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지.”

“훌륭해. 유려한 말솜씨까지 더해지니까 놀랍게도 너는 지금 다른것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너무 맛있어보여.”

“음, 말뽄새도 여전하지만 연하는 역시 이런 맛이지.”

“그래서 나는 더 냄새가 좋은 쪽으로 갈건데?”

“그래서?”

“내가 식사하러 가는동안 넌 뭘 할건데?”

“식사전에 식전요리를 조금 즐길거야. 맛있는건 나중에 먹어야 즐거운 법이거든. 그리고 이곳저곳에 퍼져있는 향에서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이지.”

“내게 아직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식사를 하는동안 체내에 농축된 아르카나에 취해버려 죽어버린 것들이나 돌이 되어버린 것들이 하나 둘 생기더라고.”

“함부로 먹지말고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저것들을 먹어서 좋을게 없다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먹을 수 없다니.”

“아니 반드시 먹어치울거야. 그러기 위해선 희생이 조금은 필요하지.

쓸모없는 포식자들에게 조금씩 그것들을 먹여가며 실험을 할거야. 아르카나를 삼키고 소화시킬 때까지 그 실험은 계속될테지. 그렇게되면 알아서 굴에서 기어나오게 될거야.”

“좋은 생각이네. 그럼 이제 가도 돼?”

“그래 아키스트들을 찾기는 힘들테지만 행여 죽이더라도 먹지는 마. 일단은 말이지. 행여 네 살점을 뜯어먹는다고해도 체내에 남겨진 아르카나를 완전히 희석시키지 못할테고 결국엔 몸 안에 있는 아르카나가 발작을 하게 될테니까.”

“음. 알았어. 그러니까 잘 뜯어먹으면 된다는 말이지?”

“이 새끼는 여전히 말을 알아먹지를 못하는구만. 탐식의 죄악말고는 대가리에 든게 없다는 사실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모를 정도야.”

“고마워.”

“…먹어치울거면 뒷처리는 깔끔하게.”

“잔소리 하지마.”

식사예절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충고에 내가 까탈스럽게 답하자 그녀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얼른 가라는 듯 손사래쳤다.

“겁쟁이야 전부. 먹고 탈나는 것이 무서워서 못 쳐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탐식의 죄악은 무슨 코웃음도 안나와. 나는 다 먹어치울 거야.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지. 그렇게 눈치나보면서 쓰레기나 주워드셔.”

“기대할게.”

“대체 뭘 기대한다는거야? 식욕 떨어진 네놈들에게는 썩은시체 한톨 조차 던져주는것 조차도 아까울 정도야.”

내가 무슨 말을 뱉어내도 그녀는 어째서인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느긋하고 여유있는 모습이 질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장막을 찢고 나오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사방에 군침이 도는 향이 여기저기에 퍼져있지만 분명 나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다른 이상식욕자들은 병신이다. 그저 쳐먹을줄만 알지 재료 본연의 향을 구별할 수 없으니 말이다. 다마르강 습지의 고인물을 썩어문드러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그저 아가리에 쑤셔박을줄만 아는 것들이다. 아예 그것들이 여기서 방황하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더 짙은 향을 내는 재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먹지좋은 식재료 여럿을 어렵지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들의 놀란 표정과함께 마지막 발악을 즐기다보니 어느새 나는 사냥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재밌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말을 다시금 되새기다보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탐식 이외에 다른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심지어 나조차도 알

지 못했다. 그것들로 배를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무언가 넘쳐흘렀고 그것은 놀랍게도 작게나마 허기를 채워줬다. 그 포만감은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처음 조우하는 느낌이기에 다소 흥미로웠다. 채워지는 포만감과는 별개로 나의 입맛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을 수없이 삼켜가면서 나의 후각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그들안에 흐르는 아르카나에 얽힌 기억까지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퀴나즈의 아키스트들 만으로는 식재료의 질이 부족하다 여기었다.

“아깝지만 나중에 먹어야겠다. 음, 충분히 기다릴 가치는 있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나서 나는 몇날며칠을 끊임없이 아가리에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을 쑤셔넣어가면서 배를 채워나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나를 향해 다가오는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키스트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사뭇 다른 향이 새어나왔다. 나를 향해서 미칠듯한 속도로 다가오는 그것에게서 이질감을 느꼈다. 지금의 나는 사냥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항상 포식자들의 입장에서 사냥당하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이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자 두려움보다 오히려 새로운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더 컸다. 사냥당하는 입장의 나이지만 새로운 식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다. 질 좋은 식재료를 앞에두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테니 말이다. 냄새는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않

아 산들바람이 거칠게 불더니 이내 돌풍이 일었다. 내가 손으로 돌풍을 가리자 어느새 잔향은 나의 뒤에서 풍겨왔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어떻게? 혼란스러웠다.

“아룬 모라의 태양빛에서 감히 존재조차 하지못할 흉물이네.”

“그만둬. 물어볼게 있으니.”

하나, 둘, 셋.

아르카나에 담긴 정보를 음미하면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것들 중 하나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원래 맡았던 그 향이 좋은 음식은 아니었기에 아쉬웠지만 그것과 같은 피가 흐르는 눈 앞에 있는것들도 제법 훌륭한 식사거리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입맛을 다시자 그것들은 기분좋은 냄새를 풍겼고 그것은 더욱 풍미를 더해갔다. 의심할 여지없이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내 눈 앞에 있는 것들이다.

“나의 허기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는 너희들의 존재에 대해 조금은 감사를 하는 바야.”

내가 다소 정중하게 이야기의 물꼬를 트려했지만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이들의 앞을 막아세우며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얼마나 먹었나?”

“미식가를 환대하지 않는다니 다소 실망인데? 여기서 얼마나 먹은지는 세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내 뱃속에서 확인해봐도 돼.”

“아키스트들을 쳐먹고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나?”
“모르겠어. 많이 흘렀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거야?”
“중요하지. 네놈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지금부터 네놈의 살덩이를 찬찬히 뜯어낼 생각이거든.”
나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팔을 활짝 펴며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다.
“너도 미식가야?”
“무슨 미친소리를 하는거야, 이 새끼가.”

“그전에 나도 하나 물어볼게. 뽀얀건 그나마 맛있었는데 너의 뒤에 있는 까만것도 맛있니?”

“음,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어보이는 놈이구나. 네놈의 비명을 오래 듣고 싶지 않으니 빨리 끝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니 푸른 빛을 띈 광채가 하늘 높이 떠오르더니 이슬처럼 쪼개져 흩어지며 우리 주변을 적셨다. 나는 손을 위로 펼쳐 그것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물었다.
“우와, 이건 뭐지?”
“예쁘지? 너 같은 불경한 것들에게는 과분한 마지막 선물같은거야. 실제로는 다른 아키스트들로부터 아르카나를 강제로 끌어당기기 위한 알림에 불과하지만 말이야. 어린시절 동화책에서 들었던 요정을 새장에 가두려면 조금 더 거칠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미식가야. 요정같은게 아냐.”

“주둥이 좀 닫지 않을래? 네놈이 토하는 숨결만으로 아르카나가 탁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너 따위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가로채듯 끊으며 답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여지껏 보았던 아키스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만큼 거대하고 푸른 빛을 요란하게 뿜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아련하게 바라보면서 미소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음, 맛있을거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선은 내게 고정시킨 뒤 저들은 저들끼리 떠들어대기 바빴다.

“역겹네. 역시 동화책에서 본 요정따위는 있어선 안돼. 그리고 말했듯이 저것들 내장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섬세하게 갈라야하니까 되도록이면 질풍으로 내부까지 박살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말했잖아, 태풍에게 꽃가지를 꺾지말라고 비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럼 대충 죽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부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집을 부려서 미안하군.”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일단 해볼게.”

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다가오는 소녀도 그렇지만 그녀의 뒤

에서 먹이를 사냥하듯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검은 것들의 움직임이 심히 거슬렸다.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분명 승산이 없어보이는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죽을 생각도 없어보였다. 오히려 그들의 땅을 더럽힌 눈앞의 불경한 자를 죽일 생각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저것들은 아벨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보다 그저 야생의 짐승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그것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 분명 눈 앞에 저것은 있지만 그 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저들도 아르카나의 향기에 덮혀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다.

“맛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손질하기가 영 번거로운 것들뿐이네. 하지만 뭐 맛만 좋으면 그만인가?”

내가 어깨를 축 떨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는 것이 신호탄이 되었고 그들 셋은 동시에 눈 깜짝할 새에 거리를 좁혀왔다. 짧은 시간 수많은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내 살점이 이곳저곳 예리하게 갈려나갔다. 그것들은 내가 회복을 할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려 집요하게 한 곳을 집중하여 타격을 가했다. 마침내 외피에 미세한 구멍을 났고 아키스트 하나가 푸르스름한 빛을 더욱 강하게 냈다. 그러더니 미세하게 갈라진 틈에 손을 쑤셔박으며 말했다.

“이 때를 기다렸다, 흉물새끼야.”

그것이 내 육신에 쑤셔박은 그것은 아르카나의 결정체였다. 순수한 고

농도의 아르카나가 오랜동안 축적된 결정체는 나의 몸 속에 깊게 박혔다. 나는 개의치않고 그것들의 살의에 응전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퀴나즈의 땅에는 새벽빛이 비추었다. 먼 동이 틀 무렵의 새벽빛과 이실그라드가 뿜어대는 흩어진 아르카나의 푸른 빛 서로를 비추며 나름 아름다운 광경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서슬어린 푸른 빛의 포화가 여기저기에서 내게 쏟아지며 내 살점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내 몸에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르카나의 결정체가 녹으면서 쑤셔박힌 부위에 굵은 핏줄을 따라 푸른빛을 띄면서 온 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했고 감도는 푸른빛이 더 넓게 퍼지기전에 그것을 아가리에 쑤셔박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소용없어. 내가 직접 동화되어 제련한 뒤 굳혀낸 결정체거든.”

내가 그 자리에서 살 방법을 강구하자 지쳐 쓰러져있는 것들 중 하나가 엉망인 모습으로 내게 말했다.
“아르카나 중독으로 굳어져 돌이 되고난 뒤에 잠이나 푹 자라고.”
“그건 좀 실망스러운데. 자는 동안에 맛있는 걸 먹을 수 없잖아.”
“괜찮아. 너는 할 일을 했으니 이제 더이상 아가리에 무언가를 억지로 쑤셔넣지 않아도 돼. 대신 네놈의 위장은 좋은 곳에 써줄게.”
그렇게 나는 서서히 몸이 굳어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르카나의 중독

으로 결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놓치지 않으려 시선을 내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있을즈음 마침내 결정체로 녹여진 아르카나가 어느새 내 위장 이곳저곳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맛있다. 마지막 식사로는 안성맞춤인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잔향을 느껴가며 그것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여지껏 맛보았던 날것의 아키스트들을 입에 넣는 것보다 한층 더 숙성되고 깊은 맛을 뿜어내고 있었다. 식사에 필요했던 것은 재료의 손질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 그 자체였던 것이었다. 나는 꿈을 꾸듯 즐거이 그것을 천천히 음미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저것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게 맞아?”

“뭐, 일단. 대충은?”

“확실한거야? 결정화가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니. 저 흉물놈의 변화를 보고 더욱 확실해졌어. 대량의 아르카나를 삼키고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저놈의 위장을 갖고 싶어.”

“너 방금 굉장히 소름끼치는 말한거 알고있어?”

“나도 알아. 아라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퀴나즈의 아키스트인 나에게는 저놈 뱃속을 갈라서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해.”

나는 내 안에 흐르는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음미하고 눈을 떴다. 아니

눈은 진작에 뜨고 있었지만 식사를 음미하며 그것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만족감에 옮은 미소를 지었다.

“음, 뭔가 기분이 좋은데?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짧게 말하자면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했다고 말하면 이해하기 쉽겠지.”

“그딴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더 맛있는 식거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그것들 중 하나가 내게 다시 물었다.

“우리는 먹지 않는건가?”

“몰라. 맛 없어보여.”

“좋아, 성공이야! 너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지만 녹아든 아르카나로 인하여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거야. 무얼 먹어도 그 허기를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엔 아사할지도 모르겠네. 네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쳐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라. 적어도 네놈의 시체는 내가 가져갈테니.”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기이한 원이 주변으로 그려지더니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녀들이 사라진 뒤 공중에 흩어지는 아르카나의 알갱이가 남겨지면서 아름답게 쏟아져내렸다. 나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고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어야겠는걸?”

『 무대준비 』

“시작해.”

나의 박수소리와 함께 인형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복잡한 심경을 애써 감추려 인형극을 열었지만 턱을 괴고 딴 생각에 잠겨 그것이 눈에 들어올리가 없다. 아름다운 선율과 인형들의 우아한 손짓과 춤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한숨을 깊게 쉬고는 인형극을 뒤로하고 바람을 쐬러 바깥으로 나왔다. 여전히 가라앉은 기분에 눈을 가늘게 뜨면서 입을 비죽이고 손가락을 튕겨 인형극의 막을 내리는 신호를 하자 쥐 죽은 듯이 한순간에 고요함이 저택을 한아름 감싸안았다. 그리고 내가 테라스에 있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자 파비옹이 어느새 다가와 찻잔에 차를 조용히 따랐다.

“파비옹.”

“예, 도련님.”

“너는 내 친구지?”

“물론입니다.”

“어째서야?”

“나를 믿어주시고 일임을 해주시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도 당신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친구라면 마땅한 것이겠지요.”

“언짢네. 그것이 그냥 마땅하기에 친구가 되어준거라는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또한 친구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요. 친구에게 기분 좋은 말만 들을수만은 없습니다.”

딱딱한 말투와는 달리 그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찻잔에 차를 조용히 따르며 말했다. 나는 입을 비죽이고는 발을 흔들어 의자에 쿵쿵소리를 내면서 가만히 그를 쏘아보고는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도련님은 자상하신 분이예요. 제가 뭐라하지 않아도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미 결정을 내리셨겠지요.”

“그런가, 항상 고맙군….”

파비옹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난뒤 시녀들에게 외출의 준비를, 마부에게는 마차를 대기시켰다. 나는 테라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형들을 바라보고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는 모두 질 퀴오나의 질투의 죄악으로 얽매여진 인연이다. 그것이 질긴 것이든 한없이 가벼운 것이든 우리는 보이지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져있었다. 비탄의 인형 베르체의 모두가 질 퀴오나의 친구나 다름없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오롯이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는 그저 한낱 인형더미에 불과하다는 감정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지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다 . 수많은 잡념을 뒤로한채 시녀들과 동행하여 목욕재계 후에 외출을 하기위한 복장을 갖추고 반짝거리는 실타래에 몸을 맡기며 우아하게 호박마차에 올라탔다. 뒤이어 파비옹도 마차에 올라타 내 맞은편에 앉은 뒤에 마부에게 신호를 보냈고 마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연신 딸각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유쾌하게 마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기분과는 다르게 나는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실가닥을 두손으로 부지런히 연신 놀려대는 것을 파비옹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질님을 만나게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나요?”

“당연한거 아냐? 동화나라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들였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몰래 일을 꾸민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 일이라면 카르밀라의 육신을 취하는 계획에 일조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질이 미쳐 날뛸까봐 나도 그 사실을 질에게 숨겼지.”

“그렇다면 그건 친구를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질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질투하는 인형이야.”

“그렇군요. 도련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입을 가만히 다물고 창문밖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질투의 죄악에 눈을 뜬 존재의 영역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의 들풀이며 짐승들 모든 것들이 질투의 실타래에 얽혀있는 것이 눈에 담기기 시작했다. 처음보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나봐도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그곳에 살아 숨쉬는 듯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질투의 죄악의 정점인

질 퀴오나가 실타래로 풀어내 만든 동화나라이다. 내가 그것을 언짢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파비옹도 느꼈는지 그 역시나 내 시선을 따라 그것들을 눈에 담고는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언제봐도 참으로 생기있는 풍경이군요.”

“나만의 동화나라에 이런 풍경을 바라지는 않았어.”

“이곳은 질님의 동화나라니까요. 도련님은 도련님만의 세계가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시체더미들이 내 정원을 더럽혔어도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거야.”

“그건 조금 슬픈 이야기군요. 실타래로 이어진 우리들보다 낯선 것들에게 끌린다는 점은 어느정도 이해는 하지만서도 말이죠.”

“낯선자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끌리는거야.”

내가 턱을 괴고 심드렁하게 무심코 내뱉은 말을 스스로 되뇌이다 아차 싶어 자세를 고쳐 그를 바라보았다. 질투의 실타래를 쏟아내어 만들어낸 슬픈 꼭두각시는 그 말에도 웃음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나는 방금 내뱉은 배려없는 말로 인형의 심장에 못을 박았다.

“…미안해.”

“나 파비옹은 질투의 실타래에 얽혀 도련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상한 비탄의 인형의 따스함에 이끌려 친구가 된 것이랍니다.”

그 상냥한 말에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사과조차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이러고도 나를 좋은 친구라고 말해줄 수 있는 꼭두각시 인형을 둔 내가 부끄러워졌다.

“괜찮아요. 질님도 도련님의 변화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외로움을 해갈하고 다른이의 온기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니까요.”

“아니, 내 동화나라에 이질적인 존재를 들인것보다 카르밀라의 육신이 아직 소멸하지 않음을 숨긴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겠지.”

“카르밀라의 육신에 대해서는 운명의 실타래에 맡겨야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질 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르는 모든 동화세계에 등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그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도련님은 질님을 좋아해요?”

“파비옹은 질이 없었으면 좋겠어?”

“네. 도련님은 질님과 너무 가까우니까요.”

나의 물음에 파비옹은 웃는 얼굴로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자 그것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주변에 있는 사물과 생명의 시선이 우리가 타고 있는 마차에 쏠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질의 시선을 듬뿍 받으며 그녀의 저택 앞까지 마차를 내달렸다. 그녀의 저택 앞에 닿아 마차 문을 활짝 열자 기분좋게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말고도 친구들이 미리 와 있나본데?”

“아무리 이전에 도련님이 저택에 다른 이들을 들였다고해도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유치한 처사가 아닌가요?”

“질투는 유치한거야. 그리고 질은 그것 중에서도 최고야.”

내가 입꼬리를 씰룩 움직이며 말하자 파비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꽤 자랑처럼 말하시네요.”

나는 어깨를 으쓱이면서 답을 회피했고 우리는 마차에 내려 시녀의 안내를 받으며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안은 아름답게 차려입은 인형들로 가득찼고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우아한 춤사위를 한껏 뽐내며 연회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구겨졌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녀는 별채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않아 질 퀴오나는 환한 표정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와 내 손을 꽉 잡으며 나를 반기었다.

“어서와!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오래 기다렸지?”

그 말에 그녀는 흥이 식었는지 손뼉을 치자 아름다운 선율은 끊어질듯한 현의 소리를 남기며 멈추었고 생기있던 연회의 손님들은 실에 의지하지 못한 인형처럼 맥없이 일제히 고꾸라졌다. 아무렇게나 쌓여진 인

형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발랄하게 그것들 사이를 조용히 걷던 그녀는 쌓여진 인형더미에 조용히 올라타더니 입을 열었다.
“기다렸어.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랬다면 먼저 내게 연락을 해보지 그랬어?”
“글쎄, 나는 네가 먼저 연락을 해오기를 기다렸어.”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 잘했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만큼 너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이 많을테지. 소꿉놀이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니 식사도 차를 마시는 시간은 접어두고 바로 이야기 해주었으면 해.”
널브러진 인형들 품 속에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우아했다. 누구보다 질투하는 자이나 다른 이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다른 손님들을 꿈동산에 불러들였어.”
“그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럴테지. 다만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입밖에 꺼낸 것들이 그저 흥미로워서 홀로 그것들과 이것저것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래? 무엇을 만들었는지 내게도 말해줄래?”
“물론. 얼마든지 하지만 그걸 묻기전에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우리 비탄의 인형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뭔지 알고싶지 않아?”

“꿈동산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애써 무시하려는 듯한 질의 말을 뒤로하고 나는 묵묵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야.”

“…그만해.”

“무엇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냐? 어미로부터 받는 사랑이지.”

눈을 부릅뜨던 질은 천천히 일어나 그녀 주위로 질투의 실타래를 가득 메우고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내 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나를 조용히 올려다보며 낮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런 그것을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없어. 하지만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

“질투의 끈으로 엮인 네가 과연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랑은 느끼는 것이지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더라.”

“그럼 그건 어떻게 느낄 수 있는데?”

“질. 네게 사랑을 준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자 그녀는 더욱 짙은색의 질투를 저택에 뿌려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 손으로 친구를 부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다음에 입 밖으로 꺼낼 말은 가려서 해야 할거야.”

“카르밀라는 살아있어.”

“…거짓말. 엄마는 죽었어.”

스스로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눈망울이 이내 일렁이더니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하지만 예상한대로 그녀가 토해내는 질투의 실타래는 더욱 강한 빛을 발하더니 미친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그녀의 육신은 오랜동안 보존되어 있었고 나의 저택에 발걸음을 한 손님은 그것을 보관하는 무리들 중 하나였어.”

그 와중에도 질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는 내게 물었다.

“육신이라하면 시체조각가들을 베르체의 땅에 들였다는 말이구나.”

“나도 좋아서 그들을 맞이한건 아니야.”

“그래서 엄마는 어디에 잠들어있어?”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움직이는 지금 그녀의 육신은 아마 네크타라의 둥지를 벗어났을거야.”

“왜 이제와서 그걸 내게 말한거야? 그렇게나 뒤에 숨어서 어미의 따스한 품을 홀로 느끼고 싶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꺼냈냐고? 그것은 우리가 질투하는 비탄의 인형이기 때문이야. 만약 네가 카르밀라의 사랑을 독차지 한다고 생각해봐. 그렇게되면 질투의 인형들이 가만히 있을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은 삐뚤어져 질투가 되고 결국 그 화살은 너를 향하게 될거라고.”

“그것이 너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지?”

“네가 어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그저 나는 내 친구가 다른 이들의 실타래에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내가 뱉은 말을 곰곰히 곱씹던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말했다.

“질투의 죄악을 담기에 너도 너무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 질투의 죄악을 품고나서도 후회한 적은 없어. 모두들 사랑을 그리워하고 다른이들의 온기를 스스로 원해서 동화나라를 찾아온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와서 내게 말하는 이유는 뭐야?”

“말했잖아. 카르밀라와의 조우는 다른 이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그것은 오롯이 질투의 화신인 너만의 것이라고.”

“그걸 왜 굳이 나한테 양보하려는건데?”

나는 한숨을 깊게 쉬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질, 내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슬플거야. 화도 날거고.”

“그래, 잘 아네. 그래서 네게 이 이야기를 한거야. 나는 질투의 죄악의 정점에 선 이로부터 질투를 사고 싶지 않거든. 피곤할 것 같아.”

“그런 것 치고는 때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조급함으로 카르밀라가 눈을 떴다면 진작에 떴을테지.”

“아하! 맞아! 선물에 예쁜 포장도 필요했겠지, 물론.”

철딱서니없는 질의 대답에 나도 맞장구를 치며 답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기다리면 되는거야?”
“네크타라 사제들의 장난질과 더불어 질투의 실타래에서 새어나오는 오만가지의 감정들을 녹여서 충분히 준비를 해 두었으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카르밀라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시체나 조물딱거리는 것들 따위를 믿어도 되는거야?”
“실타래나 풀어대며 인형극 따위로 자위하는 우리만큼이나 망가져 있으니 충분히 믿을만 할거야.”

질은 눈썹을 살짝 움찍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하다가 이내 그것을 삼키고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녀는 내 날이 선 말투보다 카르밀라를 다시한번 안을 생각에 조금 들뜬 것처럼 보였다. 한동안 불편해 보였던 그녀의 심기는 봄날 빗물에 씻겨내려가는 듯 사라졌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어느새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렇게해서 그들이 얻는 건 무엇이지?”
“뭐겠어. 여느때처럼 살아있는 것들을 씹고 뜯어가면서 세상 모든 몸뚱이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고 싶은 거겠지.”
“그런가? 그렇다면 그동안에 네가 얻은건 뭐지?”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굳이 말한다면 따분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해야할까? 새로운 질투를 느끼고 싶어서일까?”

“너의 꿈과 상상력으로 만든 동화나라가 재미가 없어?”
질의 표정은 다양하다. 이번에는 시무룩한 모습으로 서운함이나 걱정따위로 뒤섞인듯한 감정이었고 그녀가 지은 얼굴이 너무나 서글퍼 오히려 미안해 질 정도였다. 질투의 죄악 위에 있는 이 답게 타인의 감정을 자유로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점에 감탄하며 그녀의 물음에 답했다.
“그런게 아냐. 그저 단지 원하는 것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너는 무엇을 바라는거야?”
“모르겠지만 그걸 함께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친구인 너에게 말한 것이기도 해. 너도 당연히 함께 찾아줄거지?”

“그래, 좋아! 우리는 친구니까.”
“…그래, 친구니까.”

그 뒤로 우리는 널브러진 인형들 사이를 말없이 거닐었다.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흩어진 실타래 사이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뜨고난 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나는 두근대며 잠들지 못하는 질과 함께 잠들며 카르밀라의 육신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녀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나약해 보였는지 몰랐지만, 나는 그 작은 손을 잡아줬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 아름답다는 것의 정의 』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이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만으로 우리의 결속을 끊어낼 수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녀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가슴을 죄어왔다.

“그래, 괜찮을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곁에 남은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밖으로 중얼거리고 과장된 몸짓을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였다. 아니, 차라리 축축하고 불경한 공기가 만연한 다마르강을 지나오면서 말로만듣던 불쾌한 향은 여전히 아름다운 나의 몸에 배어있었다. 신록의 땅에도 여전히 그 역겨운 냄새가 남아있었고 주변에 기괴한 살덩어리가 군데군데 심겨져 있었고 다마르강 습지에서 보았던 잔존생물들이 득실거렸다. 그것들이 내뿜는 핏덩이가 가득한 점액이 남긴 냄새를따라 그들의 위치를 대강 파악할 수 있었다. 이실그라드의 아키스트들이 자리한 곳까지 닿은 악취는 그들의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가감없이 보여주자 나는 이마를 탁 치며 말했다.

“이 얼간이들은 결국 이실그라드를 먹으러 간건가?”

바보들이다. 겉모습과 향에 취해서 그것을 처먹으러 간거다. 그래서야 그것의 본질을 꿰뚫을 수 없다.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저 아가리에 백날 쑤셔 넣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행여 그것

을 입에 넣고 만족하더라도 그때 뿐이지 평생 만족할 수 없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추악한 아가리를 이곳저곳에 벌리고 다니지 않았을테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 추한 것들이다. 비록 다른 죄악을 짊어지고 있지만 같은 카인의 피를 가진 이들로 치부되는 것도 혐오스러울 정도이다. 그렇게 진저리를 치고 있을 즈음 묘하게 뒤섞인 이질적인 향에 얼굴을 잔뜩 구기고 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기괴한 모습을 하고있는 이상식욕자가 내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죽은 눈을 하고 있던 그것은 나를 알아차리고는 중얼거렸다.

“어라? 색정광이 여기에 왜 있는거야?”

나는 그것의 말에 개의치않고 그것의 몸뚱이를 이곳저곳 살펴보고나서 정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그것에게 물었다.

“오호라, 아무거나 쳐먹으니까 그렇게 된거야?”

“그런가봐. 식욕이 없어. 그리고 너도 맛이 없어보여.”

이상식욕자에게 그딴 말을 듣는 것이 다소 불쾌했지만 접어두고 그의 동태를 잠시 살피기 시작했다.

“죽어가는데도 본능적으로 향에 취해 이끌려온건가?”

그것은 내 말을 듣는 시늉조차 하지않고 핏덩이를 연신 몸에서 쏟아내며 어설프게 둥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봐, 무시하지 말라고.”

내가 음욕의 죄악을 흘려내며 그것의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 얼굴은 무너져 내리더니 갑자기 푸른 결정을 띄며 굳어져 나갔다. 이질적인 감각에 나는 얼른 손을 털어내며 그것에게 물었다.

“이게 아르카나중독이라는 건가?”

내가 중얼거리자 그것은 나를 맥없이 쳐다보더니 입을 연신 뻐끔거리더고는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뭔가 미련이라도 있어보이는데?”

“당연하지. 더이상 탐나는 걸 입에 담을 수 없잖아.”

“그동안 그렇게나 많이 쳐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조용히 바스러져 줄 수는 없을까? 흉하고 보기 역겨우니까.”

“그래, 그럼.”

그것은 조용히 눈을 감으려다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가볍게 머리를 들고서 나를 바라보더니만 아련한 표정으로 웃음을 머금고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고르마 살점을 뜯어먹으며 눈을 감았으면 좋으련만.”

순간 그것의 눈에서 붉은 물방울이 떨어지며 눈물과 같은 흔적을 남겼고 추하게 바스라지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남긴 말과 표정들이 말하는 순수한 하나의 감정에 집중되며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을 자아냈다. 그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나는 미간을 구기며 그를 나무라듯 중얼거렸다.

“뭐라는거야, 진짜. 추한것은 추한대로 그냥 조용히 죽으라고.”

그것이 입에서 내뱉은 말이 한동안 뇌리에 박혀 가슴이 지끈거렸다. 아무리 추한 몰골을 하고 있다고한들 저들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마음을 왠지 새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정하긴 싫지만 너의 마지막은 정말 아름다웠어. 고마워.”

나에게 기분좋은 그림 한 폭을 선사한 그 추하고도 아름다운 것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것의 뺨을 어루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그것에게 마지막을 고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나도 저것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 다마르강 특유의 점성이있는 탁한 습지의 물길에 조용히 얼굴을 가까이 대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아름다운 얼굴과 미소를 머금고 있는 존재만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와 한참을 떨어져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원래라면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했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 되었음을 점점 느껴가고 있었다. 오히려 사랑하는 존재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죽어가던 흉한 몰골을 하고 있던 것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이것을 풀어내야 할 곳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 나는 그리운 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 괜찮을거야.”

그렇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마침내 신록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분 좋은 향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갔고 그것은 어느새 나의 가슴을 봄비처럼 부드럽게 후벼파기 시작했다. 생명이 흐르고 넘치지만 짓누르는 아련한 그리움 때문인지 이곳에 발을 딛은 순간부터 불쾌함과 동시에 이질감에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비단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직감한 것이 얼마전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은 이상식욕자가 굳이 다마르강까지 찾아간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불쾌한 풀 냄새가 나서 뭔가 했더니….”

나는 불쾌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는 그것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야그마 풀 내음새의 가치를 모르는 쓰레기가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것이 불쾌해서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너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쓰레기로구나.”

“그래서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일차원적인 관념밖에 박혀있지 않은 짐승에게 말이 통할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처절할 정도로 심각하네.”

“아르카나라는 것이 담긴 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들이 내 피와 살같에 흐르더니 이 모습이 되었지뭐야.”

그는 자신의 몸을 신기한 듯이 여러번 손을 쥐었다펴고 온 몸을 관찰하는 행동을 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눈으로 쫒던 나는 문득 그것의 몸뚱이는 쟈토움의 흔적이 있지만 기형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일말의 가능성에 불쾌함을 억누르고 그것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푸른 빛에 물든 검붉은 살덩이를 살짝 만지고는 물었다.

“너는 내가 필요한 몸뚱이를 가졌구나.”
“그러는 너는 참으로 볼품없이 맛없는 몸뚱이를 하고 있네.”
“이 아름다움이 추구하는 사랑을 위해 죽어 줄 수 있니?”
“싫어. 굳이 너 때문에 불필요한 열량을 태우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끝으로 그것은 고개를 돌리고는 다마르강 쪽으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마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어쩐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었다.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달리 저것은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기괴한 몸뚱이는 어떻게든 살기위해 버둥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의 곁에서 느리지만 발걸음을 맞추었다. 한참이나 나와 함께 발걸음을 하고있던 그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내게 물었다.
“말했잖아, 맛이 없어보인다고.”
“말했잖아. 나는 네놈의 몸뚱이가 필요해.”
“왜들 그렇게나 내 몸뚱이에 그렇게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네.”

“아키스트들이야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너는 지금 내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야.”

“나는 지금 입맛이 없어.”

“네가 어디서 나가 자빠지던 내 알 바 아니야. 난 네 몸뚱이를 낱낱이 파헤쳐야만 해.”

“색정광 치고 꽤나 더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네, 너.”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거지 나도 딱히 네 곁에서 함께 숨을 쉬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 그리고 너랑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의 마지막을 보면서 확실해졌거든.”

“뭐가 확실하다는거야?”

“탐식의 죄악을 지고 있는 네놈의 몸뚱아리는 식욕이 떨어져 죽어갈 따름이지만 그 암같은 검붉은 살덩어리의 증식을 막는 것이 바로 퀴나즈의 푸른 물방울인 사실을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 몸에 이걸 쑤셔박은 것도 바로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었단 말이지.”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제법 정교하게 네놈의 살점에 동화되도록 정확한 부분에 쑤셔 넣었겠지. 놈의 얼굴을 기억하나?”

“물론이지 제법 진귀한 식재료였지만 산들바람과 흩어져버려 꽤나 아쉬었었거든. 신기하게도 그 사이에서 새까만 것이 둘이었어.”

“새까만 것?”

“그래, 살결이 어두운 것들이었지.”

“남쪽 사막에 사는 것들을 말하는 것인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먼 걸음을 한거지?”

“몰라, 별로 안 궁금해.”

“흥미롭군. 나머지는 죽은 네놈의 몸뚱이에 물어봐야겠지.”

“난 안 죽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마르강의 습지까지 함께했다. 그렇게 함께 다마르강 습지를 거닐다 어느새 나의 고귀한 입맞춤을 맞은 것을 지나쳐 가려는 찰나 그것의 발걸음이 죽어 널브러진 살덩어리 앞에 다다랐다. 증식된 암덩어리 때문이었는지 그것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처음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아, 그거? 아름다웠지. 오래전 나의 입맞춤과 함께 잠든거야.”

그것은 조용히 식은 검붉은 핏덩이에게 다가가 그것의 뺨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다. 미묘하지만 그것은 아련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쉬즈나, 너는 기회만되면 항상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고 했지. 고마웠다. 이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자.”

카인의 핏줄들조차 그것을 이해하기 힘든 범주의 영역에 있는 언동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죽어버린 살덩어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사체를 남김없이 뜯어먹고 나서는 검붉은 불길한 색깔을 뿜어댔다. 그렇게 둘의 아련한 시간을 눈에 담자 나의 더욱 가슴이 더욱 지끈거렸고 더욱 그녀가 미친듯이 보고 싶어졌다. 그녀를 품은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른 것들의 정수를 탐하지 않은채 그저 피에 굶주린 것과 다름없이 미친듯이 피를 마셔댄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상념에 잠겨있는 동안 그것은 자신이 알던 것을 모조리 먹어치운듯 보였다. 나는 아무말없이 그것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왜인지 더 나은 지성을 갖춘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은 더없이 불쾌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아름다움 뒤에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쳐먹었길래 더욱 불쾌한 꼴을 하고 있는거지?”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어보인다만?”

“이전처럼 그저 짐승새끼마냥 어슬렁거리며 기어다니던 모습이 네놈에게는 더욱 적합하다는 말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래서야 지성을 갖춘 짐승의 꼴이 역겹기 그지없어.”

“네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를 그저 암덩어리나 쏟아내는 짐승새끼로 보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지.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검붉은 암덩어리를 쏟아내며 닥치는대로 아가리에 쑤셔넣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그에게 물었다.

“어디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말하는 그의 표정은 미련없이 개운한 표정이었다. 다만 새삼 놀라운 것은 애초에 얼굴조차 짐승의 아가리처럼 생겨먹은 것에서 표정을 읽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은 자신에게 다른 형태의 삶을 준 그것이 있는 곳이었다.

“다시 그곳으로 가려는거야?”

“그래, 말했잖아.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존재라고. 이실그라드도, 이데아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에르아마저도 말이지.”

어째서 내가 그것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어째서 이상식욕자들이 미친듯이 아가리에 무언가를 쑤셔넣는지를 대강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쟈토움이 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 추하고 역겨운 외형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에 나는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의 곁을 떠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어보이는 웃음이었다.

“결국에는 게걸스럽게 아가리에 아무거나 쑤셔박는 것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다는건가?”

“음욕의 사랑은 다른것과 다르게 특별하고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말을 마치자마자 텅 빈 표정으로 주변에 있는 것을 입에 넣으며 채워지지않는 허기를 메웠고 이내 고개를 쳐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역겹기 그지없던 이상의 식욕자들의 외형과 다르게 그것 안에서 요동치는 생명은 탐스러웠다. 결국 누가 먹힐지는 그 끝에 다다라야 알 수 있겠지만 말이다.

『 새로운 물길 』

오랜 시간동안 골노랏이 남긴 흔적을 따라 심해에 수많은 피와 살을 뿌려댔지만 거대하고도 깊은 바다위에 뿌려진 핏자국은 그저 아주 희미한 흔적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추격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었다.

“이래서야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이 되겠군요.”

세기오도 골노랏의 흔적에 이상현상을 느꼈는지 연신 수염을 어루만지며 내게 들으라는 듯 옆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조용히 뒷짐을 지고 수평선 저 너머를 바라보았고 세기오는 조용히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래, 그런가. 항로를 변경한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가까운 해안에 아벨의 자손들 중 마녀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들은 공허라는것의 속삭임을 들으며 기괴한 형상들을 수집하는 것을 즐긴다더군. 우선은 그것들을 시작으로 지상의 무역망을 뚫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데아에 둘러진 벽을 천천히 허물어 갈 것이다. 사업기반은 단단해야하지만 물론 급하게 물길을 열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은 일곱의 만을 부수는 것이겠군요.”

“베누밧실이 골노랏을 쫓을 수 없다는 말은 즉슨 우선 그녀가 골노랏을 쫓을 수 있을만큼 살을 찌워야 한다는 뜻이겠지.”

“베누밧실에 충분한 피와 살을 쏟아붓기 위한 피바람이 불겠군요.”

“물론 그럴 생각이다. 하지만 그 전에 해양의 모든 무역망을 손에 넣어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들의 가치들을 먼저 불려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언지 아나?”

“인색에 눈 먼 자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것들에게 털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겠지. 그들은 욕망의 눈으로 우리를 우러러 볼 것이고 우리는 베누밧실을 살찌우며 더 큰 것을 손에 얻게 될 터이니 말이다.”

“인색함이 가득한 선원들이 약탈 이외의 것들에 쉬이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에게는 일단 그리 일러두도록 하지요.”

“어이가 없군. 선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라. 베누밧실에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인색함은 쓸모없다. 당장 눈앞의 이득만을 바라면 심해에 떠다니는 먹잇감일 뿐이지. 그딴 사고로는 골노랏은 커녕 일곱의 만조차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니 말이다.”

“나의 주인이 더 큰 것을 탐하는 것 만큼 기쁜 것도 없지요.”

“그래, 심해는 그저 우리의 고향일 뿐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에 자리한 가치있는 것들이다.”

흔들림없는 내 표정을 보고 무언가 만족한듯 세기오는 나를 대신해 위치에 있는 모든 선원들에게 속삭였다.

“위치의 선원들에게! 항로를 변경한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연다.”
그렇고말고. 우리는 조금 기다린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원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갉아먹을 것이다. 비록 선원들이 원하던 피와 살이 튀는 전장으로부터 다소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베누밧실 역시 나의 새어나오는 숨막히는 인색함에 흥분한듯이 선체를 삐걱거리며 거칠게 울려댔다. 그 말을 처음듣고 선원들은 조금은 당황한듯 보였으나 확신에 가득찬 세기오의 외침에 의심을 거두고는 흡족한 듯 나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그래!”
“그래애! 새로운 길!”

저번과 달리 선원들은 피와 살과 뒤섞인 약탈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제법 베누밧실에 태울만한 것들로 채워진 모양이었다. 그것을 흐뭇하게 보는 세기오는 콧수염을 연신 만지면서 뒤틀린 웃음을 감추지 않자 내가 그에게 물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가?”
“인색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을 이끄는 자들 가운데 선원들의 욕망을 단 한마디의 말로 잠재운 이가 또 어디 있었을까 해서요.”
“굳이 금은보화를 품는 것으로 만족하는것을 인색의 죄악이라 치부한

다면 나는 망설임없이 그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내 몸을 조각내어 고기밥으로 던지게 할 것이다.”

서늘한 바람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속에서 세기오의 어깨에 손을 대고난 뒤 갑판 위에 높이 올라서 모두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무대를 옮긴다.”

“모두 위치로!”

나의 속삭임에 반응한 세기오가 정적을 깨고 외치자 모두가 일사불란한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짙은 안개를 뚫고 예정된 항로인 마녀들의 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예상대로였지만 그것들에게 환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안 근처에 닿기도 전에 보랏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것으로 그들의 적대심이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세기오가 비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물었다.

“깨부술까요?”

“아니, 그만둬라. 세기오. 우리는 사업을 하러 온 것이지 약탈을 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사업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하러 온 것이지만 딱 이정도의 거리감이 사업관계상 딱 적당하다. 저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준비가 될 때까지 일단 이 곳에서 진을 치고나서 선원들에게는 가장 질좋은 상태의 제복으로 환복시키도록.”

“이미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해도 사업상대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면 되겠는가?”

“알겠습니다. 허나 진을 치고 대기하는동안 저들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그저 불안감만 주면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업대상이지 꼴사납게 가까운 벗이 아닐세. 대응사격으로만 응답해주게.”

그렇게 우리는 베누밧실을 해안과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물게 한 뒤 그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고 그러는동안 여러번의 충돌이 있었다. 그 충돌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을정도로 공허의 부산물을 쏟아대는 마녀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베누밧실은 어째서인지 즐거워보였고 마녀들의 의도 역시너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것도 알게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마녀들의 목소리가 함내에 섞여들어왔고 그들의 안내로 가까운 해안에 정박할 수 있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거나 시험하려는 듯하는 그들의 태도가 다소 언짢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마녀들의 땅에 발을 딛게 된다. 폐허 이곳 저곳에서 마녀들의 시선이 영 신경쓰였지만 우리는 속삭임이 이끄는 곳을 향해 걸었다. 시선은 느껴지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느껴졌지만 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기분을 감출수가 없었다. 묘하게 기뻔 나쁜 곳이다. 역시 공허의 추종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설명이 딱 들어맞는 장소다. 속삭임에 따르는 동안 마녀들의 모습을 담지 못한채 우리는 검은 문 앞에 다다랐고 경계하는

선원들을 뒤로하고 거침없이 문을 찢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마침 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녀들의 모습이 눈에 담겼다. 나는 그들 가운에 있는 마녀의 손짓을 보고 내 자리를 찾아갔고 그 뒤를 조용히 따르는 구두소리에 세기오도 함께 그 문들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세기오는 내 곁에 서 있었다. 무거운 침욱이 자욱하게 내려앉았고 그것을 깬 것은 내게 자리를 안내한 마녀였다.

“멍청하게 바다 위로 가만히 떠 있었던 것은 아닐테고. 목적이 있으리라고 여겨 해적놈들을 검은 문으로 들어온 것을 흔쾌히 허락했으니 영광으로 알도록.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곳을 배회한거지?”

“첫째, 네놈들 앞에 있는 것은 해적 나부랭이가 아니니 베누밧실의 함장이라 불러주게나. 그리고 둘째, 배회한 것이 아니라 네놈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내 친히 당도한 것이며 셋째로 인색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네놈들의 땅을 점거하지 아니하고 친히 대화라는 선택지를 주는것 만으로도 영광으로 알도록. 그러하니 모쪼록 우리들로부터 무언가를 들을 태도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군.”

“이실그라드를 탐하고 그의 어미인 이데아까지 손에 넣고 싶어하며 나아가서는 태초의 창조주라 자칭하는 에르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들이 그 와중에 어버이 카하낫을 원하지는 않는다? 어째서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건가?”

“그런가. 인색의 죄악을 짊어지고도 텅 빈 곳에 가득찬 것의 탐스러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군.”

세기오가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젓다가 품에서 총자루를 꺼내어 그것의 머리통에 가져다댔다. 그 돌발적인 행동에도 어째서인지 그녀와 동행한 마녀들은 동요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세기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듯 쇠 마찰음이 조용한 방안을 가득 메우자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그에게 말했다.

“세기오 제독.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닌가?”

이에 그치지않자 나는 인색의 죄악스러운 이빨을 드러내며 세기오를 저지했고 그는 마지못해 총구를 거두며 짧게 혀끝을 차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세기오는 아마 진심으로 협상의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의 머리통에 구멍을 낼 생각이었겠지만 그가 보여준 돌발적인 행동과 잇따른 인색의 죄악을 드러낸 것으로 제법 훌륭한 연출이 만들어진 듯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린 그림이다. 인색의 죄악이 낯선것이지 공허를 섬기는 카하낫에게 삿된 감정이 낯설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정한 기운이 카하낫에서 온 것인 만큼 그것에 익숙해진 마녀들의 인색함에 부채질을 하는 것만큼 달콤하고도 익숙한 것도 없다. 그것이 내가 구태여 마녀들의 해안에 정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른 이들의 위에 서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의 시샘을 담을만한 물건을

곁에 두는 것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 마녀들 중 하나가 흥미가 없다는 듯 무심하게 허공에 손을 대충 휘저으며 우리에게 되물었다.

“그래, 그대들의 광대짓은 잘 봤다. 함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시작은 영해의 개방이다.”

“카인의 더러운 핏줄들과 말인가?”

“옳다. 공허의 찌꺼기가 섞인 더러운 것들과 말이지.”

“말이 통하는군, 좋군. 이것으로 네놈들이 얻는것은 무엇이지?”

“그런것까지 일일히 설명해주어야 할 정도로 공허의 추종자들은 멍청한 것들 뿐인가? 심해는 공허만큼이나 깊고 어두웁다. 대홍수 골노랏이 어디에서 온 줄 아느냐? 이데아 밖에서 왔다. 그렇다면 카하낫의 흔적 또한 섞여있을 터. 그리고 그 물길로 만들어진 심해는 네놈들의 얕고도 알량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나? 없다. 그러하기에 네놈들은 심해의 품에 오랜동안 안겨있던 물건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팔아치우면서 네놈들이 품고있는 인색함을 갉아먹는다. 처음엔 마녀들이고 나중에는 이데아의 재보에 눈이 먼 모든 것들이다.”

“듣고보니 굳이 우리에게 좋은 거래는 아닌 것 같네만?”

“네놈들에게 있어서 에르아는 카하낫에 닿지 못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일테지? 내가 그것을 빼앗아주지. 그렇다면 방해물없이 더욱 선명하게 아버님의 음성을 듣게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들에게 물으며 수근대는 마녀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지만 곁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세기오를 보아하니 분명히 좋지 못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모로 네놈들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난 뒤에는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 한심스러운 말에 나는 눈을 가늘게뜨고 불쾌함을 가감없이 드러냈고 앉은채로 테이블 위에 구두를 거칠게 내리 꽂으며 말했다.

“감히 계약과 서약의 이름에 먹칠을 해? 카하낫의 계약은 그렇게나 신의가 없는가보군?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인색의 죄악은 달콤한 말 따위로 현혹시키지 않을 뿐더러 거짓따위를 고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계약으로 얽혀있는 것이며 그 계약의 효력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카하낫의 계약을 들먹이자 마녀들의 보랏빛 시선이 내게 쏠리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개중에는 이미 공허의 사역마들이 스멀스멀 어둠을 찢고 나오고 있었지만 마녀들 중 하나가 이를 제지하며 내게 물었다.

“그렇다면 네놈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는 것 말인가? 우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범주내라면 가능하다.”

“종국에 우리는 인색의 죄악마저 지배할 것이네만?”

“헛된 꿈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 유감이나 네놈은 우리들이 품은 죄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지배라는 것으로 우리를 옭아맬 수 없다. 계약으로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묶을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네놈 역시 카하낫이 심해에 조금 스며든 것으로 깊은 공허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보군. 딱하기 그지없구만.”

“계약이 이행되는동안 제대로 된 그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만.”

“그 깊은 아름다움을 여러번 눈에 담고난 뒤에 네놈은 더이상 아무것으로도 불려지지 않게 되겠지만 기꺼이 공허의 파편이 되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제물은 많을수록 그리고 질이 좋을수록 좋거든.”

인색의 죄악을 눈에 담고 당황스러워하던 조금 전과 달리 의미불명의 말을 지껄이며 즐거워하는 마녀들은 기분좋게 상호 계약을 협정했다. 마녀들이 원하는 것은 비교적 수수한 것들로 공허의 잔여물이 담긴 물건들의 거래와 해양거래망 암거래 안전의 보장을 요구했다. 검은 문을 찢고 나와 기다리던 선원들과 베누밧실로 돌아가며 계약서를 품 속에 집어넣자 세기오가 그것을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계약은 일단은 보기좋게 일단락 된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들이 고작 그것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일단 그것으로 됐다. 저들이 원한 사소한 것들이 불러올 파급효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탈과 협상은 한끝 차이이다. 내가 계약협정에서 손해를 보던 적이 있던가? 베누밧실의 함장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이명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엄연히 레위앗의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인색의 죄악이다.”

저들이 계약으로 어디까지 물고 늘어질지 대충 감이왔다. 하지만 지금은 뭍으로 기어나와 훗날의 교역로의 시발점임 해상무역망을 개통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은 태양을 맞이하면서 심해속에서 나온 우리가 베누밧실을 살찌우기 위해 육지까지 기어나온 이유도 결국 모든 것을 수중에 얻기위한 발판에 불과하다.

“모든 이들이 우리처럼 인색함에 눈이 멀 필요는 없다.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사는 이들은 우리가 부추겨주지 않아도 저절로 생길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인색함에 젖어있는 이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기만 해주면 되는거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워주기 전에 선원들의 굶주림도 고려해주셔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때는 멀지 않을 것이다, 세기오. 인색의 죄악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있는 것은 그대들만이 아닐테니 말이다.”

나는 내 계획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는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게 채워져감을 느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소를 띄며 손을 파르르 떨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던 세기오가 내 모습을 보더니 갑판을 차며 제식을 갖추고 바짝 굳은 자세로 고쳐잡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좋아진 모습이었다. 인색이라는 것은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감정이며 모두가 경계하고 꺼려하지만 그것은 다른 죄악이 짊어질 수 없을만큼 저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있다. 그렇기에 창의적이고 그 피는 세대를 거듭하며 옅어지지 않고 더욱 짙어진다. 인색한 자들은 결코 허투루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다. 세기오가 걱정하는 것도 나의 야망이 사그러들지 않을까해서 물었던 것이었겠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방금 보여줬던 살기가 세기오나 다른 선원들에게 백마디 말보다 더 좋은 본보기가 되었겠지. 베누밧실은 육지에서 최초의 계약을 맺고나서 선원들을 이끌고 바다깊은 곳으로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 고요한 품에 안기는동안 나는 조용히 베누밧실의 선원들을 향해 속삭였다.

"앞으로 더욱 바빠질거다. 내가 일으킨 작은 바람은 이데아 온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더 많은 인색이다."

『 원탁의 그림자 』

“보라, 투르파여.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그는 내가 이곳저곳에 뿌려놓은 흑막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지만 어쩐지 내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더 깊은 어둠을 꿰뚫어보자 그녀는 짧은 한숨을 쉬며 다독이듯 말해주었다.

“조금은 기뻐해도 된다네. 오랜 그림자여. 그대의 손으로 직접 엮어낸 흑막이 보이지 아니한가? 그것들은 자라서 거짓된 빛을 쉬이 잠재울 수 있음은 물론이요, 거대한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부터 더욱 짙은 밤의 장막을 펼쳐보일 수 있을 따름이니. 이것이 하쉬무스의 기쁨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잠시지만 그저 여유로이 그것들이 어둠속을 헤메이고 절망하는 것을 즐거이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만.”

“아니, 아직 이르다.”

나는 팔짱을 끼고는 기괴한 방향으로 고개를 이리저리 삐걱거리며 조용히 자신이 뿌려놓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말이 없자 그녀가 고요를 깨고 즐거운 표정으로 조용히 내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왜 이른것이고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그대가 즐거운것은 필시 아락슌의 어둠이 너무 짙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아벨의 자손은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조

그만 촛불하나가 발하는 빛으로도 짙은 어둠따위는 우습게 뚫을 정도로 눈부시게 주위를 태우기 마련이지.”

“일리가 있도다. 허면 세트의 후예는?”

리라드는 여전히 어둠속에서 가능성을 이어나가면서 손가락에 담긴 아락슌을 가끔식 까딱거리더니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들어진 빛을 두려워하는 짐승들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들 내면의 어둠에 깊세 새겨진 공포까지 거둘 수 없으니 더 손쉬울테지.”

“훌륭하다.”

그녀의 칭찬에서 거슬리는 무언가를 느꼈기에 마침내 등을 돌리고는 어두운 눈빛을 더욱 반짝이며 짜증스럽게 투덜댔다.

“완성되지 않은 어둠따위가 무엇이 훌륭하다는 것이지?”

“어둠에 취해 절망을 끝까지 눈에 담지않고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려하는 어설픈 그림자와 달리 더 깊은 어둠이 깔리기를 바라니 이미 훌륭한 하쉬무스의 그림자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나니.”

“다만, 몽상의 투르파가 원하는 절망은 이것이 끝이 아닐것이라.”

“물론 그러하지. 하지만 아락슌에 기록될 그대의 시작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급할 것 없다. 이미 어둠은 짙게 깔리기 시작했네. 아벨의 현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광명이 이 땅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이지. 일그러진 빛은 대지를 따스하게 하며 믿는자들의 기도에 답한 것일 뿐 이미

그것으로 균형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다네. 그 결과를 보라. 그대같은 어설픈 그림자마저 분란을 조장하고 절망을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내가 잠시동안 즐기라고 일러둔 이유라네.”

“여간 신경이 쓰이는군.”

“무엇이 말인가?”

“하쉬무스의 그림자들끼리 굳이 배타적인 모습을 하며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대가 보여준 그것은 심히 이질적이군. 그것은 아락슐로 빚어낸 것은 분명 아닐테지.”

그녀가 나를 여전히 시험하는 듯한 태도가 영 못마땅하여 나도 그녀를 오랜동안 분석해왔다는 듯한 말을 건넸다. 나의 말에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락슐이 찢겨질 정도로 호쾌하게 웃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털어낸 웃음이라 그런지 그것은 깊은 어둠을 흔들어댈 정도였다.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원의 리라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띄고있으니 하쉬무스의 그림자의 형태를 편협한 사고에 가두는 과오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군.”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조력자이자 조언자이군.”

“아니다. 이 흑막을 펼쳐보인 곳과 그것에 취하지 않고 훌륭하게 다음에 엮을 어둠을 꿈꾸는것은 오롯이 그대의 능력이며, 그대의 몽상은 이미 나를 즐겁게 할 따름이니 개의치말라.”

“그런가. 하지만 그대 말 대로라면 나의 망상으로 하쉬무스의 거짓된 진리를 씹어먹는 것도 가능하겠군. 아닌가?”
상상했던 그 말을 입 밖으로 뱉어내자 그녀는 뒤틀린 웃음을 쏟아내며 나의 물음에 답했다.
“옳다. 하지만 그대의 가장 좋은 먹잇감 또한 여기 있지 아니한가? 나는 그대가 원하는 온갖 망상을 엮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흥미롭군. 아락숱의 다른 형태를 지닌 것은 그대와 나 뿐인가?”
“그럴리가 있겠는가? 어둠과 공포 그리고 악몽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한 것일진대. 망상을 좇는 동안에 정작 하쉬무스가 누구인지는 알아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나보군.”
“좋다. 다른 이들의 악몽을 뜯어먹고 나서 다른 어둠의 형태를 알아가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이겠군.”
“호오?”
“뭐지?”
“그것은 그대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인가? 아니면 그대가 하쉬무스의 그림자이기 때문인가?”
“굳이 말한다면 몽상하는 가운데 나만의 진리를 찾고자 함이라.”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무욕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절망이 이데아에 쏟아졌으니 말이다.”
“하쉬무스가 추구하는 것은 역시 완벽한 어둠인가?”
“그렇지. 역설적이지 않은가? 아무것도 바라지않는 자들이 무언가 바

랄때 이데아는 어둠에 잠기게 된다는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데아에 숨을 쉬는 자들은 무욕이 가장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그때가 되서야 깨닫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것이라."

"한 줌의 빛 조차 존재하지 않는 어둠을 말하는가?"

"아니지. 그대의 말 대로라면 그런 어둠은 존재해서는 안되네. 완벽한 어둠 속에서도 그 작은 불씨는 항상 남아 있어야 하지않겠나? 그래야만 그 속에서 품은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토대로 끊임없이 어둠과 절망 그리고 악몽을 뜯어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녀는 내가 이전에 그녀에게 언급했던 것으로 내 물음에대한 답을 대신했다. 자승자박에 빠진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익스로 뒤덮는 완벽한 밤의 장막에도 빛은 있어야 한다는거군."

"옳다. 완벽한 어둠을 바라보는 것들은 그저 아락슐로 끄집어낸 절망과 공포 그리고 악몽에 스스로 취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허상따위에 불과하지. 그건 네 몽상과는 결이 조금 다른것이라."

"오랜동안 쌓아온 하쉬무스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르군."

"그것이 그리 놀라운가?"

"…아니, 그다지. 그저 변덕인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역시나 하쉬무스의 역설인가?"

"완벽한 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락슐에

각인된 낙인 혹은 본성에 가까운 것이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다.”

“꽤나 하쉬무스의 본질에 대해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그대야말로 하쉬무스의 본질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네만.”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은 욕망에 뒤섞여 고뇌하는 것들이지 그림자 뒤에 숨어 아락슐만 흔들어대는 음침한 것들이 아니네.”

그녀는 나의 대답을 듣고 낄낄거리고 웃으며 동의한 뒤 말했다.

“그 말도 맞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눈 밖의 것들에만 취해 펜을 놀려대는 것만큼 우스운 광경도 없다네. 아락슐은 그저 악몽을 엮는 끈 정도로 치부해버리면 곤란하지. 그것은 어둠이 생겨난 역사이고 이데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니 말이네.”

“구태여 어둠의 본질에 물음을 할 생각은 없다. 몽상가 투르파라는 나를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나이기에 진리를 함부로 이해했다고 말 할 자신이 없을 뿐이지.”

“그걸로 됐다. 그것의 경외하며 이해하고 있고 경계하는 정도의 그대라면 스스로의 어둠속에서 파묻혀 바스러질 일은 없을 것이라.”

그녀가 미묘한 웃음과 함께 그 말을 건네었고 나는 질린듯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고개를 젓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의 발자국뒤에 남겨진 그림자가 마르기 전에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또 다른 악몽을 심으러 가려는가?”

“그래. 이 즐거움에 취해있으면 나는 나의 어둠에 삼켜지리라.”

나의 대답에 그녀가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또 다시 아락슐을 펼치며 나를 품자 어둠은 잔잔한 파동이 일었고 또 다른 어둠이 겹쳐짐과 동시에 겹쳐진 어둠속의 목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듯 눈을 떴다. 눈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한 둘이 아니었고 시선은 하나 둘 이후로 수십 수백 뒤디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무수한 그림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 시선뒤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리를 깨달으려는 자의 그림자는 날카롭기 그지없다.”

“다른이의 아락슐의 잣대를 꿰뚫는 이를 눈에 담는 것은 즐겁기 그지없다. 그래서 그대의 아락슐에 담긴 이름은 무엇인가?”

“진리의 엠레스.”

“절대적인 어둠을 포용하는 자가 그대로군.”

내가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자 그의 아락슐은 나의 그림자를 잘라내려는 듯 조용하게 진동하니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그대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불쾌한가?”

“그렇다마다. 어둠과 공포를 부리는 것들이 놀려대는 그림자를 절대불변이라고 부르짖는 것들 중에서 아락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로 내 앞에서 바스러진 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이라.”

“아락숱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여기는 무른 이와 함께하니 절대적인 공포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는 못하겠지.”
진리의 엠레스가 불리는 자가 원탁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나를 잠아 삼킬듯한 공포와 악몽을 쏟아내 나의 뇌릿속에 쑤셔박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이 되어 내가 무너지려할때 그의 아락숱이 바스러졌다. 엠레스는 눈을 부릅뜨며 어둠속의 어둠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는 기척조차 느껴지지 않게 조용히 관망하던 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엠레스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피에론….”
“엠레스, 그대의 절대적인 진리는 참으로 눈부시나 우리는 오늘 원탁에 익스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닐세. 자중해주지 않겠나?”
“구슬픈 검은 눈물 회의의 피에론이 원탁이나 되는 곳보다 하쉬무스의 더 깊은 어둠속에 머물러 있는것이 더욱 어울릴 듯 하네만?”
두 어둠속을 베어가르며 중간에서 리라드가 입을 열었다.

“자, 인사는 이만 여기까지 해두지 않겠나? 내 직접 원탁에 그들을 초대했으니 부디 즐겨주게나.”

리라드의 그 말에 차분하던 그림자들은 더더욱 아락숱에 힘을 실어 악몽의 가지를 뻗쳐대기 시작했다. 피에론은 귀찮은 듯 입을 열었다.
“시오르그의 세 기둥을 원탁에 불러냈을 정도면 분명 시덥지않은 일은

아니어야 할 것이야, 리라드.”

“그렇게 말 할 줄 알았다. 피에론. 허나 그대의 흥미를 돋구는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만물. 심지어는 진리조차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에게 말이지.”

“허면 그대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절망을 피워낼 것인가?”

그러자 리라드는 손가락을 천천히 든 손은 나를 가르켰고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몽상의 투르파. 짙은 어둠에서 빛은 밝게 타오른다는 진리를 따라 빛에서 드리워진 그림자를 깊고 어두웁게 불태울 것이니 뒤틀린 빛은 자연스럽게 꺾여질 것이다.”

시오르그의 세기둥과 무수한 시선은 내가 쏟아낸 흑막들을 눈에 조용히 담으며 그 모습을 마음껏 감상하기 시작했다. 구원의 빛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어둠이 이내 그 끝을 알수없는 깊은 어둠속에 잠들자 모두가 훌륭한 풍경에 감탄했는지 아락슐을 타고 흘러 들어왔다.

“좋아, 신선하다. 그대의 어둠은 눈에 담기 참 즐겁군그래.”

긍정적인 평에도 그는 마냥 즐겁지 않은 듯 혀끝을 차며 답했다.

“쯧, 그런가?”

“…원하던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나?”

“아니. 흑막은 더할나위 없이 훌륭하고도 즐겁지만 내 아락슐에 몽상

하나만 스며든것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뿐이라.”

“그대는 절대적 진리 상대적인 다원과 회의의 허무함까지 익스에 담고자 하는가? 무욕의 그림자가 욕망을 담으려는가?”

“오랜 어둠이여, 그것이 두려운가?”

“낯선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 사이에 스며든 본능이니 그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임이라. 다만 그 말이 약자의 입에서 나온것에서 단순히 멸시를 드려낼 뿐이지. 아무도 기둥을 무시한채로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음이니.”

엠레스가 나의 도발에 반박하듯 말하자 나를 빤히 바라보던 피에론조차 한마디하며 엠레스를 거들며 나에게 반감을 드러냈다.

“욕망을 가진자가 도래한다는 것 역시 익스의 의지일지니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락슐의 균열을 만들것이다.”

리라드는 이들의 반응을보며 즐겁다는 듯 아락슐을 빙글빙글 휘둘러대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신경을 더욱 긁은듯 하였고 내 말이 쐐기가 되었다.

“그런가. 아락슐에 스스로 엉켜서 그림자 놀음에 놀아나는 광대놀음이나 다름없는 어두운 시선들로부터 불안과 공포의 냄새가 난다.”

“어련하시겠는가? 아락슐에 취해 다른이의 어둠을 마시려는 그림자는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몽상에나 허우적대며 자신의 죽음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바스러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었으면 좋겠군."
그렇게 말하고 먼저 회의의 피에론이 자리를 박차고 아락숱을 끊어내며 피에론을 뒤따르던 그림자의 무리가 천천히 하나둘 흩어지며 사라졌다. 이윽고 진리의 엠레스도 끝까지 타오르는 그 검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며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의 공포가 내 아락숱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서로 다른 형태를 지니며 반대되는 형태의 어둠이지만 이 모두가 영원한 밤의 장막이 이데아를 품을 때 익스를 뒷받침할 기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원탁에서 전설적인 그림자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법 즐거웠다. 더 나아가 그것들과 함께 이데아를 뒤덮을 고요한 어둠을 상상하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비록 리라드의 시선을 두르고 그녀의 품에 있었지만 역시 시오르그의 세 기둥의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안심한 것 같았다. 한바탕 고요한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손으로 한번 훑으며 그들이 지닌 어둠의 깊이를 헤아렸다. 나는 망상을 더욱 정교하게 빚어 아락숱에 담자 그것은 더욱 깊은 어둠을 탐하며 조용히 울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식하는 어둠이며 새어나오는 절망과 공포였다. 오랜 시간을 어둠의 저편에 시선을 두며 지냈지만 그동안 몽상의 투르파라는 이름을 깨우친 뒤 그 이름에 담긴 어둠을 헤아리지 않았던 것 같아 수많은 눈을 굴려대며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충분하다. 그대는 그대가 추구하는 어둠을 좇으라."
리라드는 나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자상한 말투로 혼잣말하듯 내 어

둠에 힘을 실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채 어둠속의 어둠을 찢으며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락숱을 펼쳐내어 그녀의 어둠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곳에는 어둠마저 먹힐정도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에게 닿아있던 아락숱은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더 이상의 울림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개의치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동안 나의 어둠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꿈 속을 유영하며 집중하던 찰나의 순간 다른 아락숱에서 흘러들어온 꿈속에 시선이 머무른다. 어둠속에서 던져진 횃불이 조용히 타들어가면서 하늘로 튀던 불똥이 천천히 흩날리더니 이내 완전히 멈추었다. 마치 나에게 신호하듯 멈춰진 시간을 시작으로 나는 조용히 눈을 떴고, 어둠 속의 어둠을 찢고 꿈 속의 꿈을 향해 몇번이고 스스로를 내던졌다. 고요한 아락숱 사이를 헤엄치는 사이 고요한 장막 사이로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목소리가 불현듯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놀라서 주위를 황급히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어둠만이 내려앉았다.

“부디 빛에 고요한 어둠이 흐트러지게 하지말게나.”

『 빛을 등진 자 』

예상은 했지만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어떻게 쥐새끼들이 그렇게나 먼 거리에서도 최단시간으로 상투스를 향해 내달려온 것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을 염두에 둘만한 여유는 없었다. 대성당에 가까이 다가가 그 참상을 눈에 담은 내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리는 혼란스러운 비명이 울려퍼졌고 치솟은 불길 이곳저곳에서 잡동사니 차량들의 울부짖는 배기음이 미친듯이 요란스럽게 울려퍼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멀리서 그 광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매캐한 화약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울분을 억지로 참아내다 피로감에 갑자기 쏠려 몸이 잠깐 비틀거렸다. 내색하지 않으려했지만 역시 그 찰나의 순간을 카인의 핏줄이 눈치채지 못했을리가 없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위로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해야만 했던거예요.”

“이제와서 흔들리는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빛을 마주하여 아벨의 은총으로 역경을 딛고 이겨내고 싶어했던 반면, 누군가는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로부터 결국에는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짧고 달콤한 구원의 뒤에는 결국 절망밖에 드리워지지 않을것임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죠.”

“빛을 따르는 자임과 동시에 빛을 등지는 자로 낙인 찍히게 될지도 모르는 굳이 그 무거운 업을 짊어지려는 바보가 아니라면 멍청이겠죠.”

“그래서 모든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상투스의 덕목에

부합하는 행보가 또 있을까요? 아벨의 빛이 자애롭지 않으며 그 따스함이 모두를 미추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오랜시간 아벨론에 이어 상투스가 쌓아올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없을겁니다.”

“상투스의 덕목과 가르침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꽉 막혀있어 융통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성격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이런짓거리를 은밀하고 치밀하게 머릿속에 그려온 것이 참으로 음흉하지만요.”

“어찌보면 당신이나 저도 세르샤와 상투스, 아니 어쩌면 카인의 핏줄과 아벨의 자손들의 관점에서볼때 배신자들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이제와서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는건가요? 남들이 무어라 부른다고해도 나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일테죠.”

제르나는 가볍게 떨고있는 나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네요. 이렇게 큰 일을 벌여놓고 이제와서 한심하게 현실감이 느껴져서 그런가 보네요. 아무렇지 않은척은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겁쟁이 탈을 벗을수가 없군요.”

“신중한거예요. 수월하게 풀어가는 가운데에서 당신은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세요, 베르도. 겁쟁이에 불과한 당신은 낙인이 찍힐지언정 빛에 눈이 먼 수많은 상투스에 헌신하는 기도하는 자들을 구할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왜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상투스 중앙대교회의 차가운 회랑을 벗어나려고 버둥댔지만 정작 차가웠던 것은 저의 갇힌 세계였었죠. 하물며 이제는 카인의 핏줄 중 하나인 당신에게서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따뜻해서요. 아마 이곳에서 가장 눈부시고 따사로운 것은 다른 이들의 눈을 멀게하는 아벨의 현신이 발하는 뒤틀린 빛이 아니라 지금 내 눈 앞에있는 존재일지도 모르겠군요.”

“구원은 의외로 사소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은 매듭을 짓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겠지만 그렇기에 지나친 감상에 젖어있군요. 하지만 내가 아는 당신은 진정 상투스의 사제가 맞나 싶을정도로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죠.”

그녀는 내 말에도 침착하고도 안정이되는 목소리로 나에게 조언을 건네어주었다. 그녀의 말에 공감의 말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로부터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가볍게 떨리던 손도 어느새 진정이 되는 것을 느끼고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뜸을 들이고는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나는 그녀의 차갑고 시린 눈을 피하지않고 그대로 귀에 담았다. 은빛으로 불타오르는 그녀의 눈에 내 모습이 비치자마자 마치 아벨

의 권능을 마주하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권능의 잔을 채우기위해 예배당 깊은 곳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였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결국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애초에 이리도 무거운 대업을 짊어지려고 했으니 그것을 놓으려 하는 것은 책임의 전가일테니 그대의 마지막 숨이 다할때까지 그것을 짊어지세요.”
“은빛 서린 저주라, 좋군요. 도저히 지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벨의 자손에게 내가 건네는 축복따위야 저주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은 삶의 원동력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제르나. 아벨의 은총이 그대에게도 깃들길….”

내가 어째서 카인의 핏줄에게 그런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나도 그녀와 같은 마음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제르나. 상투스에 닿는동안 뒤를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오랜만에 밟은 고향의 품이니 잔뜩 어리광이나 부리고 오세요.”
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에 그녀는 뒤틀린 웃음을 지었고 일순간 그녀의 몸이 창백해지면서 날카롭기 그지없는 분노의 죄악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오랜동안 저와 함께해오며 익숙해진 탓에 나라는 존재를 잊으셨던것은 아니겠지요. 나는 카인의 핏줄 입니다. 그리고 세르샤의 칼날 가운데에서도 잔잔히 불타오르는 분노입니다. 나의 분노가 향할 곳은 내가

정합니다."

나는 그 대답이 만족스러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러함에도 그것을 지금껏 잘 억눌러 주셨습니다. 부디 상투스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복수의 칼끝도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렇게라도 변덕을 부리면서 끝까지 살아주세요."

그리고는 미련없이 등을 돌려 나의 광휘가 향할 곳에서 시선을 고정시킨채 나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상투스 내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기가 느껴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그발의 쥐새끼들이 방화를 저지른 곳에서는 사람이 사는 듯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상투스 중앙대교구와 그 주변을 수호하는 사제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이곳에는 마르나크는 내전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빛의 수호를 빌미로 에두예르 전도사들의 개입은 물론이요, 이르메스의 방관과 공조 뿐만 아니라 혼돈을 틈타 라구엘의 전도사들의 행렬까지 보고되며 그야말로 상투스 주변의 상황은 혼란의 도가니나 다름없었다. 심지어는 우리를 믿고 따라온 사제들과 많은 이들이 그 상황을 눈에 담고 사방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연쇄작용을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금 짧게 정리한 뒤, 부서진 광장 가운데에서 주춤하여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이들 앞에 에두예르의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 중 하나가 후드를 벗으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정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부 사제가 잔뜩 경계하는 모습을 했지만 내가 손을 올리며 이를 제지하자 그는 침묵을 깨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엉망이 되어버린 상투스의 내부와 분열은 모두 우리의 손으로 빚어낸 혼란입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렸던 구원의 모습은 이런것 아니었겠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테지만 그것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을것이다. 빛의 전도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익숙한 풍경인 양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모습에 비정함도 느껴졌지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들 무거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투스의 땅에 다시금 발걸음을하고 중앙대교구까지 당도한 마당에 이제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다시금 되뇌이고 마음을 굳게 먹은 나는 섞이어진 빛에게 기도하듯 입을 열었다.

“불안과 염세에 휩쓸리는 시간은 지났으니 이제는 모두가 눈을 뜰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빛에만 의존하며 오랜동안 이어진 평화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지난날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변의 이웃에게 손을 뻗은 것입니다. 빛에 눈이 너무 멀었던 나머지 우리의 곁에 누가 있는지조차 망각한 상투스를 시작으로 아벨의 가지도 변할것이며 빛이 닿지않는 그늘까지 기꺼이 다가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벨의 현신조차 바라보지 못했던 구원의 형상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상투스가 비로소 나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여느 달변가들처럼 짧고 힘이 담겨있는 말로 청중을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저 지금 해야할 일들과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다독이듯 건넨 나의 말들은 조용히 경청하는 이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더이상 망설임은 없고 결심을 굳힌듯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이들을 독려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다시한번 나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

“우리가 내딛은 지금 이 한 발자국은 아벨의 자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빛의 고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자가 아닌 우리의 곁에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가까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 말로인해 많은 이들은 한껏 고양되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잔잔한 환희였다. 내가 모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상투스의 변화를 시작으로 아벨론의 다른 가지들은 다시금 새로이 채워진 피로 다시금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은 먼 이야기이지만 조심스럽게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일까지 기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요

전력이 아벨의 현신과 함께하다보니 이곳의 저항은 그렇게 거칠지 않았으니 오히려 아벨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빛의 충돌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듯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제들마저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진정 절망스러운 것은 그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허탈함에 헛웃음이 나왔다. 아직까지도 무언가에 기대려는 그 모습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중앙대교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수였지만 극소에 남아있는 명예사제들은 자리를 고수한채 중앙대교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무리를 인지하고 크게 외치며 임전태세에 돌입했다.

“절대로 중앙대교구에 이단의 무리가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하라! 아벨의 은총이 곁에 있으라!”

연거푸 상투스의 빛들이 요란스럽게 한참동안 미친듯이 충돌했다. 그렇게 흩날리는 빛들은 어둠을뚫고 여러번 하늘로 치솟아 오르더니 언제그랬냐는듯이 고요해졌다. 대교구 앞 광장에서 벌어진 빛의 충돌로 인해 주변에 수많은 이들의 목숨이 바스라졌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곁을 떠나간 사제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짧게 기도를 올렸다.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은 자신들의 전도는 여기까지라는 듯 중앙대교구 앞 광장에 자리를 잡고는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나는 무리를 이끌고 대교구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는 기다렸다는 듯 아는 얼굴이 나를 반겼다.

“…앙누 작센 교구장님….”

“대교구장으로 위임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와서 그런건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당신들은 신성에 대한 배반이 몰고올 신벌이 두려지도 않습니까? 그대들이 상투스에 헌신하겠다는 그 세례는 거짓이었나요?”

“상투스의 사제이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셈입니까? 베르도 사제님!”

“앤, 교구장님! 적어도 오르되비르의 작센가의 피가 흐르는 당신이라면 서로다른 구원의 색깔을 이해해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투스뿐만 아니라 아벨론 나아가서는 서로다른 국가들의 위협이 사방에서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상투스의 대교구장으로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라구엘 예언의 무리들은 예상밖이지만 타국의 다른 모든 이들이 상투스의 빛을 잠재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위한 빛으로 고개를 돌리어 더 나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변화의 시작이 될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것이죠. 그들의 움직임 덕분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기회라고요? 도대체 이 참상은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요?”

“그릇된 기도를 바로잡을 기회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헌신에 먹칠이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물론 기도 그 자체로는 숭고하고 신성한 행위이기에 제가 감히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의 상투스의 기도로 채워진 권능의 잔은 우리가 바라던 구원에 가깝지 않다는 것은 잘 보입니다.”

“베르도,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까지하게 만든겁니까? 그렇게 이상향에 불과한 것들을 들먹일만큼 교황의 자리가 탐이 났던 것입니까?”

“이제와서 교황의 자리를 탐하지는 않지만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그 위에 오르게 된다면 이와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할 대상을 잘못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텅 빈 향하던 기도는 주변의 이웃을 향하게 되겠지요.”

“허무맹랑한 말을 뻔뻔스럽게 잘도 말씀하시는군요. 그 말에 대한 근거나 보증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거도 없고 보증도 없어요. 하지만 엘레노어님도 쥬브도 그리고 앙누 작센 형제님이 그러셨듯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기도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상투스의 회랑이 사실은 따스했다는 것을 알려준것도 하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목에 무언가라도 걸린듯이 아무말도 하지 못했

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떨구며 그에게 호소하듯 조용히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바란적이 없었어요. 내가 두 손을 모으면서 했던 것은 당신들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 말을 쓸쓸한 표정으로 조용히 듣고있던 대교구장은 눈을 질끈 감고 나서 한숨을 쉬더니 허공을 바라보며 내게물었다.

“신성모독을 서슴지않는 그대에게 손가락질조차 할 수 없는 아벨의 헌신과 구원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안타깝게도 애초에 다른이에게 기대어 기도만 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부터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셈이군요.”

“내 곁의 작은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죄악의 길에 발을 딛는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다른이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사실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서지 않고서야 다음에는 또 다른것에 의지한채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베르도.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기를 온듀빌에서부터 기다려 왔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상투스의 빛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여 그 길을 빛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조금 힘들겠군요.”

“…역시 우리는 서로 다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상투스에 몸을 담고 있어도 에두예르의 율법은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빛도 그러하고요. 서로 다른 구원은 섞일수야 없겠지만 그것의 형태가 많을수록 다양한 이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겠지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구원의 색을 잃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빛에 삼켜져 주체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빛의 성배를 조금이라도 비워내는 것밖에 없겠지요.”

“불허합니다. 아벨의 신성을 비우려하다니 죽을 생각입니까?”

“그저 배척당하기 일쑤였던 나의 사람들에게 손을 건네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구원을 향하게 되는 발판이 된다면 나로서는 그만한 헌신도 없겠네요. 상투스의 사제로서도 에두예르의 전도사로서도 말이죠. 부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에게 부탁하여 소수의 인원이 그와 함께 동행해주기를 부탁했다.

“이단의 무리라 불리우는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이 곁에서 빛에 너무 눈이 멀지 않게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작은 배려에 그는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는 이내 등을 돌려 찬란히 빛나고있는 권능의 잔이 있는 깊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내 곁에서 그것을 찬찬히 뜯어보고있던 쥬브는 처음 말하려던 목소리가 고요한 대교구의 텅 빈 회랑을 크게 울리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지 조그맣게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금 조그만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이걸로 아벨의 현신과 함께하고 발걸음을 한 대부분의 사제들은 타지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을 위해 목숨을 잃게 되겠지.”

“그렇게 내게 다시금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알아, 쥬브.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기도로 일구어낸 구원의 색이니 우리가 그러하듯 저들 역시 아벨의 현신이 재림한 것에 대한 결과 역시 그의 곁에서 목도해야함이 마땅하겠지.”

“그런가. 너는 여전히 차가웁구나. 폐허속에서 아홉의 교황을 뒤이을 교황은 어떠한 미덕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도다.”

그녀를 지나치며 상투스 대교구 밖을 나가려는 가운데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가되어 꽂혔다. 그 탓에 잠시 발걸음을 멈칫했던 나는 간신히 목에서 나오는 말을 삼킨채로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불속에 그을린 상투스의 시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벨론의 가지사이로 분란을 조장하고 이단의 무리와 손을 잡으며 폭력을 일삼는 것들을 사주했을 뿐만 아니라 카인의 후예를 방패삼으며 만들고자 한 것

은 잿더미 가득한 폐허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교황의 자리를 불손한 것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했던 나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아무리 되뇌이고 곱씹어보아도 답이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넋을잃고 한참을 정처없이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이 빛이 무너져내리는 것보다 더 어둡게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 결산 』

어째서 아벨의 방벽안으로 밀라모르의 목소리라 불리우는 세트의 짐승들을 용인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느낀것은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밀라모르의 존재자체는 아벨의 자손에게 해악이라는 것이었다. 공감과 소통으로 만들어진 화목하기 그지없는 완벽에 가까운 이상향을 추구하는 짐승들이었다. 이상향은 말 그대로 이상향일 뿐 그곳이 낙원일리는 없다. 하지만 그것에 취한 인간들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기에 발톱과 어금니를 내세우는 짐승들보다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그것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면서 메마른 감정을 입 밖으로 조용히 뱉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이나 구겨져 있었고 목소리는 슬프고 가늘게 떨렸다.

“지금 내가 보고듣는 것들이 아벨의 자손들이 말하는 정의라던지 혹은 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래, 네가 보기에는 이것이 추하기 그지없겠지.”
“그렇다고 말한적 없어.”
“사절이라고 말하는 자칭하는 네놈들은 아벨의 자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군.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 교감이나 소통 따위로 아벨의 자손들을 한데 묶을 수 없어.”

그것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않은채 가지런히 모은 두 무릎위로 고개를 푹 넣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곱씹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물론 네놈들이 말하는 이상향으로 아벨의 자손들은 잠시동안 서로 어울릴 수 있겠지만, 인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짐승보다 나약한 생물이다. 사회적인 짐승들인지라 무리를 지어사는 주제에 언제라도 서로의 등에 비수를 꽂을 준비가 되어있는 존재들 역시나 인간이다. 희희낙낙 들판이나 나뒹구는 짐승들은 우리들을 감히 이해할 수 없겠지.”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하며 조용히 하라는 듯 손짓을 하고는 이내 귀에다 손을 대고는 무언가 한참 듣더니 내게 말했다.

“절규의 목소리와 공포의 냄새가 이곳저곳에 뿌려져 있는데도 잘도 이런것을 정의라고 부르는구나, 너는.”

“그저 네놈과 내가 바라보는 정의가 가진 모습이 다른 것 뿐이다.”

“내게는 전부 변명이나 합리화로밖에 들리지 않아. 온갖 정의로운척은 다 하면서 법을 운운하고 다른 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어 억압하면서까지 질서를 꾸역꾸역 유지하려는 것들은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너희들 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과거 피의 새장을 만들어낸거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썩어빠진 제도나 불합리한 법은 쉽게 무너질 수 없어. 그저 방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것이겠지.”

“그리고 지금 너는 그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것들을 한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란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

“법과 제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것과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법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더 크다면 나는 항상 그 쪽에 힘을 실어왔고 지금이 그 때인거지.”

“이런걸 혁명이라고 부르던가?”

“그런 거창한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간단하게 내부 사법구조 개편 정도로 불러주면 좋겠군.”

“지금까지 피로 쓴 법보다 더 큰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간단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알빈이 왜 너의 정신건강을 염려했는지 알 것만 같아.”

“구태여 죽은 자를 들먹거려봐야 상황은 변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남의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밀라모르의 목소리라고 해봐야 네가 말했듯이 나는 무언가 결여되어있고 그것은 고칠 수 없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

“항상 희망의 끄트머리에 집착하는 듯한 밀라모르의 짐승들은 참으로 구역질이 나는군. 밀라모르의 목소리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당연히 없겠지.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이들의 목소리는 내게 더이상 들리지 않아.”

“슬프네. 감정이 배제된 자가 억지로 구겨만든 사회에서 아벨의 자손

들이 공포와 억압의 족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르메스는 법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거지?"

행복이라는 말이 도화선이 된 듯 나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차갑게 그 짐승을 한심하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이르메스는 구호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기 그지없는 세상은 낙원처럼 마냥 빛나며 아름다운 모습따위가 아니라 올바른 법의 토대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일구어질 질서와 안정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나도 슬픈 말을 하는구나, 지젤 슈나우트. 어머니의 품 이데아는 그저 옳고 그름으로만 이루어진 그리 단순한 곳이 아니야."

"그런데 어쩌나.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도 아벨의 자손이라는 족속들은 단 한번도 복잡했던 적이 없었는데 말이지."

"지금의 너를 있게 만든 과거를 전부 부정할 셈이야? 아벨론의 길었던 역사는 물론 바르샤딘 앞에 했던 맹세도 총과 칼로 뒤덮을 생각이야?"

"아벨론도 바르샤딘도 모두 구시대의 산물이다. 그런것은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을 뿐이니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현재를 사는 이들의 발목을 붙잡으면 안되지. 그게 걸맞게 다듬어져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르샤딘의 비석 따위에 새겨놓은 것은 훌륭한 관광상품이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규범이 될 수 없다."

내가 구구절절히 말을 늘여놓자 그녀는 갑자기 쓸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리하고 있네. 지금 너는 나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스스로 다독이려는 말 뿐이잖아.”

“하나 묻지.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설득해서 네가 얻는거라도 있나?”

“슬프잖아.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벨의 자손들끼리 피를 흘리는 것은 말이지. 교감과 소통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지.”

“네놈 말대로면 이해관계를 절충하지 못해 다른 이들과 결탁하는 것도 교감과 소통이라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않나?”

“그래. 너는 아마 평생 다른 이들과 어울릴 수 없겠지. 심지어 너는 아벨의 후예이면서 그들조차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

“네놈은 역시 아무것도 듣지 않았구나. 판결과 심판 그리고 질서와 안정은 사랑으로 하는게 아냐.”

내가 혀를 차며 냉소적인 말을 뱉어내자 그녀는 어째서인지 차분하지만 조금은 슬픈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래도 알빈은 조금 달랐는데.”

“그래. 다를 수 밖에 없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알빈은 너를 가족같이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사지에 몰고 싶지 않아서 너 대신 플랑 바통에 발걸음을 한거고.”

“그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걸 알면서 왜 말리지 않았어? 나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해준거야?”

“알빈의 정의는 정직하며 우직하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는 일일지라도 그 놈은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잘라낸다. 네놈은 물론 나같은 존재조차도 말이지. 이미 알빈은 플랑 바통을 스스로의 무덤으로 정한 꼴이라 굳이 너에게 말해 줄 의무도 의리도 없었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두 눈을 발게 밝히고 어금니를 드러내며 털끝을 곤두세웠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느낌이었다. 분노와 슬픔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칼에 손을 대고는 경계태세를 갖추며 말했다.
“사절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그저 세트의 껍데기를 뒤집어 쓸 생각인건 아니겠지? 그것도 이르메스 대법관 앞에서 말이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돼?”
그 말에 맥이 풀려버려 고개를 저으며 칼에서 손을 뗐다. 서로간에 깊은 감정을 섞는다는 것은 때로는 강하게 만듦과 동시에 그들을 너무나도 취약하게 만든다. 소중한 것의 부재로 이렇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나로서는 언제나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다. 나는 품속에서 명함을 꺼내 그것을 훑겨보고 그녀에게 툭 던졌다.

“지금부터 이르메스는 아니, 아벨론의 세 가지는 전례없이 엉망이 될 거다. 알빈도 없는 마당에 이제 이르메스에 네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없어. 아벨의 자손들끼리 뒤엉키고 충돌하는 마당에 사절이라는 말은 유명무색해지겠지. 더구나 세트의 후예면 말할 것도 없고. 아그발 언저리 새벽이슬이 마르기 전 종달새 무리들이 록겔러 가로 안내할거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는 짧게 답했다.

“여기서 뭘 얻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풍은 끝났다. 돌아가.”

그 말과 동시에 법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대법관들 여럿이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들의 분위기는 영 이르메스의 것이 아니었다. 제복을 입고있어도 그 뒤에 여전히 남아있는 쓰레기들이 가지고있는 저급함은 여전히 가릴 수 없었지만 역시 적당한 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시간 하나는 잘 맞추는 것들이었다. 그들 중 하나가 모자를 벗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배달이요.”

“저게 종달새야?”

“아니 저건 말 그대로 배달이다. 널 안전하게 아그발 언저리까지 데려다 줄 거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아그발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데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화합할 준비가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나? 화합과 소통의 장은 평화의 시대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 공통의 문제가 생기고 난 뒤부터다. 법과 질서라는 그럴듯한 말로 점칠된 이곳보다 오히려 혼란이 가득한 그곳에 네가 바라던 화합과 소통이 있을지도 모르지.”

“…알빈이구나.”
“마지막 호의다, 꺼져.”

아그발 쥐새끼들의 손짓에 그녀는 내게 짧게 눈길을 건네고 난 뒤에 그들이 건넨 외투를 걸친 뒤에 등을 돌렸다. 그곳에 남은 쥐새끼들은 이곳저곳을 훑으며 그들의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 와중에 그들 중 하나가 능글맞은 얼굴로 내게 친근한 척 다가오며 물었다.
“이건 좀 예상밖이네. 하지만 왠지 너희들이 상투스의 사제들보다 더 사람냄새가 나는건 왜일까?”
“비켜.”
“재밌잖아. 지금 이 상황이 마냥 우연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니. 역시 아벨론 그 자체가 잘 짜여진 각본같은데 강기뇨르도 혀를 내두를 정도잖아, 이정도면?”
그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고 나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입을 닫고 있

을때 천진난만하게 까부는 그의 뒤통수를 누군가 후려갈겼다.

“시원찮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뭐가 그리 좋다고 난리야?”

쉰 소리를 내는 그녀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내 앞까지 다가와서는 마스크를 벗으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네놈들을 믿지않아.”

“믿음을 요구한적 없다. 오히려 네놈들의 신용따위에 가치가 있다면서 떠들어대는 꼴이 코웃음조차 나오질 않는군.”

“이걸로 두번째다, 개년아. 이전에도 키키만 아니었으면 네년은 조각난채로 들개들 밥이 되었을거다.”

“까불지마라. 쥐새끼야. 그렇게 명줄을 재촉하지 않아도 나와 네놈들과의 악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말이다.”

“됐어, 씨발. 어차피 우리는 의뢰만 끝내면 되니까. 더이상 역겨운 네년의 상판떼기는 안봐도 되겠지.”

그녀의 쌀쌀맞은 말투에도 나는 대답대신 무거운 침묵과함께 그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눈깔은 뭐냐?”

“왜, 뭔데? 왜그래, 갑자기?”

“이새끼 눈깔이 돌아있어. 결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지. 대단하시구만 그래. 사법계의 꼭대기에 있는 양반 눈깔을 보아하니 결국 이르메스

나 아그발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정신이 나가있는것은 말이지.”
“진짜냐? 이래서는 영 수지가 맞지 않잖아? 손해보는 장사인데?”
“넌 대체 뭘 하고 싶은거냐? 네년의 개짓거리는 도저치 아벨의 자손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저 우월감에 도취한 정신병자냐?”
“지금까지 이르메스가 법을 핑계로 한 개짓거리를 보면 네놈들의 개소리를 굳이 부정할 생각은 없다.”
옆에서 까불대던 놈도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 그 질문을 던진 그녀의 잔뜩 구겨진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대화의 수준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의 힘을 알고있는 내가 보기에 네놈들은 아그발을 시정잡배에서 정식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고 우습게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소꿉놀이가 아니다, 제군들. 네놈들은 네놈들의 국가를 위해 전쟁도 마다않고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가?”

역시나 그들에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말도 못하자 한심하기 그지없어 더욱 큰 소리로 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외쳤다.
“못하겠나? 그것이 네놈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지껏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서? 웃기지마라. 네놈들의 여왕님이 국가를 원하시면 그것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을때까지 피와 살을 쏟아내며 토대가 되라.”
“당신, 미쳤군. 정상이 아니야.”

“미쳐? 아니 나는 지금 이 전장에서 누구보다 냉정하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래, 그랬다면 사법의 최고봉 이르메스의 대법관이 범죄자들을 신성한 이곳에 들이지 않았겠지. 너 진짜 사람이 맞냐? 피의 새장이라도 다시 펼칠 생각인가?”

“시궁창 쥐새끼 주제에 제법 형국을 제대로 봤군. 그래, 그것을 위해 만들어낸 혼란이다. 다만 과거의 피의 새장이 국민들을 향해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펼친 새장은 그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독사같은 새끼들의 살점을 찢으며 펼쳐질 것이다. 나는 우월감같은 추레한 감정에 놀아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선전이지.”

그들과 마주한 뒤로 아무런 감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내가 팔을 펼쳐보이며 이해하지도 못할 놈들 앞에서 나의 이상론을 즐거웁게 떠들어댔고 가는 미소를 보이자 그놈들의 발걸음이 살짝 뒤로 주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관심밖이었다. 나의 오감은 고양감으로 엄청나게 민감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날카롭게 제련된 감각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존재를 쉬이 인식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않아 조용한 대법원 13석에 전투화 소리가 울려퍼졌고 그 소리의 끝에 대법원 제복을 걸친 또다른 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충 옷만 걸쳐놓은 시궁창 쥐새끼들과 달리 그것은 영락

없는 이르메스의 것이었다. 그는 푹 눌러쓴 모자를 살짜가 들어올리며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젤 슈나우트 법관님. 꽤나 이곳 저곳에 장난질을 많이 해두셨군요. 범죄자들과의 밀담은 즐거우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내가 뿌린 재앙이니 내가 거두어야겠다.”

“쓸모가 없어졌으니 죽여버린다라. 이전의 판례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때도 당신은 망설임이 없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금껏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를 해야할지 증오를 해야할 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마음이네요.”

“죽을때가 다가오니 꽤나 입이 가벼워지는 것 같군.”

“당신은 재앙말고 다른 것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복수가 아닌 단순히 이르메스의 이름으로 심판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는 잔불이 남은 도리깨를 돌려 그 불씨를 큰 화염으로 되살리자 주변의 공기가 매캐해져갔다. 소일거리를 끝마친 쥐새끼들이 발걸음을 돌리려하자 반사적으로 카를이 그들을 향해 도리깨를 휘두르며 그들에게 돌진하자 내가 그것을 저지했고 카를은 눈을 가늘게뜨며 내게 속삭였다.

“그거아나? 나는 현행범을 눈앞에서 살려둔 적이 없다.”

나는 짜증스럽게 그의 칼을 쳐내고 쥐새끼들을 노려보며 꺼지라는 고갯질을 건네자 그들역시 얼굴을 구기며 꽁무니를 뺐다. 요란한 차량 소리

가 멀어지자 나는 칼을 조용히 꺼내어 그에게 겨누었다.
“새로운 법이 불러올 결과에 덜컥 겁이 나던가, 로이작? 차라리 광기에 가까운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그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군.”
“그저 복수심으로는 이르메스의 대법원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을테지. 바르샤딘 앞에서 맹세를 한 지금의 나는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하고 오직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당신의 앞에 선 것입니다.”
“제법 쓸모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에 걸어서는구나. 고이다못해 썩어빠진 이들에게있어 개헌이라는 말은 항상 두려울테지.”
“분란을 조장하고 선동을 일삼는 것을 개헌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더욱 당신을 멈춰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 앞에 명백한 증거까지 있으니 대법관으로서 그냥 방관할 수 없군요.”

“더럽혀진 잉퀴라피움에 네놈들의 피를 뿌려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르메스의 기울어진 저울은 더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거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네놈들의 발작으로 증명이 된 셈이지.”

내가 한숨을 쉬며 넋두리를 뱉어내듯 털어내자 그는 묘하게 뒤틀린 웃음을 지어보이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오호라. 이제는 거기까지 손을 대시겠다? 방금 당신이 쏟아낸 발언은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없는 사안이다. 내가 친히 이곳에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행하면 정의의 저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겠지.”

“다들 이름뿐인 정의라는 장난감에 너무 취해있군. 그렇다면 내가 이참에 저승길 선물로 눈과 귀를 막고 정의를 집행하는 어리석은 원숭이들의 마지막을 가르쳐 줄테니 감사하거라.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라, 마지막 로이작의 불쏘시개야.”

“당신의 법안개정이 초래할 혼란과 고여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이 두개를 아무리 저울질해봐도 당신은 새로운 세대에 도움이 되지못해.”

“법이 언제까지 네놈들을 지켜줄 것 같나?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같이 법을 주무르는 우월감에 취해서 아가리만 놀려대는 썩은물을 숙청하기 위한 초석이니 불안해 할 것 없다. 네놈들같은 것들에게 이해를 구걸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그리곤 조용히 칼을 꺼내들며 달려들었고 서로가 휘두르는 날붙이가 충돌하면서 사방에 흩뿌려진 불꽃과 연기속에 삼켜지면서 대화는 끝이 났다. 그 요란한 파열음에 반응이라도 하듯 꺼진 소각실의 굴뚝에서는 잿빛의 연기가 미친듯이 피어올랐다. 그렇게 피어오르던 연기는 바닥위로 힘없이 쓰러진 마지막 분란의 불씨처럼 쏟아져내리는 비와 함께 오랜동안 이르메스 대법원 주위에 짙게 내리깔렸다.

『 무엇을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는가? 』

뷔른 언덕의 기후는 지나치게 정직하다. 간신히 손으로 꼽는 며칠을 제외한 모든 날들은 전부 비. 게다가 비가 오지 않는 날조차 구름이 잔뜩 껴서 따스한 햇살을 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추적거리는 참호 안에서 조용히 쭈그려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있는 병사들의 눈에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았다. 날씨는 물론이고 상황이 전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었다. 저들은 한때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는 정식군이었지만, 이제는 민병대도 용병도 아닌 반란군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나 전투규범을 주입하면서 아벨의 자손을 지키는 방패라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으나 지금 저들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가치관의 충돌을 이유로 아벨의 자손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있다. 심지어 그것의 끝자락은 강철의 심장에 맹세한 옛 전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병사들은 회의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무엇을위해 피를 흘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병사들에게 이전만큼의 전의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다. 이제 그저 기계처럼 전선을 향해 총구를 향하는것이 일상이 된 셈이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됐다. 소모전. 그것은 보급품은 물론이거니와 병사들의 정신마저 갉아먹었다. 하지만 저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투인형이 되어버린 옛 전우들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포화속에서 자신들과 똑같이 붉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단순한 인형이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싸늘한 주검이나 다를바없이 창백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전우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더욱이나 그것들중에 더러는 지성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나 생전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듯한 행동에서 나오는 이질감과 괴리감 때문에 그것들과 같은 참호안에서 살을 맞대며 지내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도 속출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혐오과 부조리한 대우에도 여전히 입을 열지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만 임하는 그들의 태도에 일반장병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부적으로 붕괴를 빚을만한 사건이 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만들어진 병사들의 시술과정에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부당함과 폭력이 만연함속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차별없이 참호 이곳저곳을 순찰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함께 참호속에서 쭈그려앉아 쓸데없는 이야기를 터울없이 나누기도했다. 한참을 그렇게 전선에서 나온 뒤 복잡한 마음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깊게 내쉬자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쳤나?”

짧지만 수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는듯한 예리하게 나를 파고드는 루즈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이제 막바지니까 말이지.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던 이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전복을 꾀하려는 반역자의 무리로 전락해 버린 혼란

스러운 순간에도 내 곁에 남은 이들이니 나만 우는 소리 할 수 없지.”

“아직 망가지지 않은것 같아보여서 다행이지만 네놈이 하고있는 짓거리는 일시적으로는 분명 사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정작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대의명분이다. 반란군이라는 낙인까지 칠해지면서 언제까지 그들이 총칼을 손에 쥘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그런가. 아벨의 자손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너무도 당연스럽게 여기는 풍토속에서 저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을테지. 그들은 마땅히 평화를 위해 흘린 피에 대답 명예와 합당한 훈장을 가슴속에 품을 자격이있어.”

나름 희망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내 말을 조용히 듣고있던 루즈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명예? 좋아. 훈장? 그것 참 허울 좋은 말이군.”

“뭔가 영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네. 대답이 다소 껄끄럽군.”

나는 고개를 푹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올리고 그녀는 가만히 보면서 그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그녀는 갑자기 미간을 구기고 갑자기 내게 뜬금없는 물음을 던졌다.

“내가 너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나?”

“갑자기? 음, 글쎄 세기도 힘들만큼 오랜 시간이었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거야? 그 질문이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거야? 아니면 그들 목에

훈장을 걸어 줄 수 있는거야?"

"분명 너는 좋은 녀석이다. 하지만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거듭함에 따라 너는 분명히 무언가를 잃고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한 말이다."

"듣고 있다."

"전장은 특별한 공간이다. 그 곳에서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타격을 입기마련이다. 대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크지. 그건 알고 있겠지?"

"내가 지속적인 전쟁으로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있다고 말하고 싶은건가? 하지만 군인이라면 크고작은 정신적 내상은 입기 마련이니 굳이 이상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대충 비슷하다. 전황은 아주 순조롭다. 네놈의 전략이나 전술 그리고 훌륭한 통솔력 덕분이지. 우리가 풀어놓은 개조병사들이나 내부의 사소한 마찰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네가 작전을 지시한대로 흘러가고는 있지. 하지만 그러함에도 전장속에서 병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손에 피를묻혀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말했잖아. 저들에게 반란군이라는 오명을 씻고 혁명의 깃발을 휘두를 명예를 쥐어주겠다고."

"그리하여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전우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언제부터 잿빛유령의 사령관이 이렇게나 감성적으로 된거지? 당연하

게도 나 역시 전사한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바로 그거다, 베르셀 랑뒤르!”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붙이여 내게 소리치자 나는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말했다.

“무슨 말인지 통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돌려 말하지말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그래?”

“대부분 전쟁 이후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지 너처럼 향수병같이 그 순간을 추억하거나 그리워하지 않는다. 네놈은 마치 그 순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더군. 호전적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말이야.”

그 순간에도 내 머리는 놀랍게도 차가웠다.

“그저 아벨의 수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저 군인의 신분으로 내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 뿐이야.”

“어설프게 논점을 흐리려고 하지마라. 네 안에 흐르고 있는 피를 억지로 부정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전투광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있겠지만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누굴 속일수 있을만큼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말이야.”

내가 사람좋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하자 그녀는 얼굴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너는 심성이 좋은 인간이다. 하지만 그런것 따위로는 좋은 군인이 될

수 없어. 때로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에 호소하는 것도 전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네놈은 한없이 차갑고 냉정하면서 다른 이들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 행세라도 하고 싶은거냐?"

"저들에게 오명을 벗을만한 충분한 기회정도는 줄 수 있지않아?"

"…베르셀, 너는 영웅이 되려고 하고있군."

그녀는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리자 나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그것이 내포한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그녀가 내뱉은 말때문에 을씨년스러운 날씨와 관계없이 우리의 주변을 더욱이 싸늘하게 만들었다. 거센 바람이 한차례 우리의 주변을 휩쓸었고 그녀의 긴 머릿결을 어루만지고 나서야 비로소 차분해졌다. 나는 메마른 침을 삼키고 고요한 침묵속에서 입을 열었다.

"그것 역시 계획의 범주안에 있는 사항이다."

"영웅이라는 칭호를 짊어지는 것의 어두운 이면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진심으로 너는 영웅이 될 생각이냐?"

"암운이 드리워질수록 사람들은 책임의 전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너 역시나 알고 있겠지. 내가 영웅이 되는것으로 단 한사람이라도 총칼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수 있다."

"성실하군. 혹은 네 안에 피르는 피에담긴 과오를 지우기 위함에서 나

오는 책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뿐이지않나?'

"아벨의 자손을 갈가리 찢어놓은 폭군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살면서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녀는 지겨운 듯 심드렁하게 내게 물었다.

"평화를 깨버린 이가 가져다줄 평화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은지 스스로 생각해본 적 없나?"

"넌 여전히 내가 평화를 깨고 내전의 불씨를 던졌다고 생각하는군."

"그럼 아닌가? 어떤 전쟁이라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점칠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은 같은 얼굴을 하고있었다."

"이래서는 누가 들으면 그들에게 명예만을 안겨다 주기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할만한 발언이네, 루즈. 그건 그냥 전쟁광이지."

"군인에게 임무에대한 값진 보상으로 명예나 훈장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는 용병이 아니라 군인이다. 그리고 전쟁영웅은 역사적으로 그 끝이 좋지못했다."

"대의명분을 원하는거 같은데 전쟁에 그럴싸한 명분은 누구에게나 있다. 너도 그리고 나도 말이지. 안타깝게도 전선에서 총구를 겨누고있는 젊은 누구는 명분 따위없고 그저 억지로 끌려왔을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 아나? 전쟁통에 섞이면 어느 누구의 명분도 중요하지않아."

"잘 알고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언제나 우리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지금 국가 반역자들이란 사실이라는 것이지.”

“그렇게해서 얻는 이점도 있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벨론의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곳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거다. 네놈이 몰래 주머니에 숨겨둔 것이 항상 이점이 될거라는 생각은 하지마라.”

“그래, 고맙다. 새겨두지.”

“그래 덤으로 좋은 소식을 하나 주마. 대총통과 총사령부가 네놈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언제까지 전우들이 네놈의 뒤를 지키고 있을 거란 기대는 미리 접어두는 게 좋아.”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는건데?”

“적어도 영웅이 되려는 이가 자신이 믿는 전우에게 처참하게 죽을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충격도 줄일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런가? 배려 고맙네.”

그리고 더이상 우리는 더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주둔한 전선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신호탄이 구름으로 뒤덮힌 어두운 하늘을 비추더니 수많은 포화가 대지를 울렸다. 우리는 그렇게 짧게 시선을 나누는 것을 끝으로 등을 돌려 서로의 위치로 향했다. 그리고 다급하게 초

소 문을 열고 나는 마이어스에게 전황을 물었다.

“상황 보고해.”

“마르나크 총사령부 여하 포병여단 한바탕 뿌려대고 있습니다.”

“보병중심인 우리에게는 최악이나 다름없구만.”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긁어왔는지는 몰라도 기갑부대의 진격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공신호는?”

“없습니다.”

“잘됐군.”

“예?”

“마르나크 외곽쪽에 뷔른의 기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될 줄 몰랐군. 제 아무리 날고 긴다해도 이 날씨에 공군을 부릴 수 없겠지. 좋아, 옛날 방식대로 땅에서 추하게 뒹굴어보자고.”

나는 군장을 재빨리 챙겨 무장했고 마이어스에게 손짓하자 그는 무전으로 전선에 명령을 내렸다. 벽에 어지러이 수놓인 흔적들로 보았을때 이미 작전은 마친 것으로 보인다.

“잘해주었네, 마이어스! 어려운 작전이었을텐데.”

“잿빛 유령 덕분입니다. 대장님 덕분에 저희와 함께한 것이지 적으로 돌렸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더군요.”

“적이 된다면 그저 고통없이 죽기를 바랄 수 밖에 없지.”

마이어스가 내린 평가에 나는 소름끼치는 전우를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뿌듯하게 여기며 답하자 마이어스는 고개를 저었다.

“대장님의 목표보다 더 허황된 꿈 같이 들리는군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지.”

“그나저나 그거 아십니까? 대장님 목에 걸린 현상금 말이에요.”

“그래, 유령한테 방금 듣고 오던 참이다. 억 소리 날만큼 큰 돈이던데, 나도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몰랐지뭐야.”

“참 태평하시군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부의 분란입니다.”

“그 정도의 혼란은 예상범위야. 문제는 그 혼란이 얼마나 가느냐다.”

“중앙 사령부 진격까지 말이군요. 작전시간 시작으로부터 시간 싸움이 되겠네요.”

“분쟁의 결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좋군요. 제 시간에 떳떳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진격의 준비는 된 거겠지?”

“조쉬 장교로부터 무전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다는군요. 상당히 들떠 있던데요?”

“거 봐라. 강철의 심장은 어느누구나 젊어질 수 있는거야.”

“그런 것 같군요.”

지휘소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온 것은 차갑게 식어있는 병사 중 하나였다. 마이어스는 그 모습을 보며 뻣뻣하고 어색하게 경례를 하자 그것은 고개를 까딱이며 답했고 이번에는 방향을 돌려서 정자세로 내게 차가운 표정으로 경례를 했다. 소독약 잔향이 남아있는 그것에게 씁쓸한 웃음을 건네며 물었다.

“기분은 어떤가, 벨라 소시르 소령?”

그녀는 여전히 경직된 몸짓과 아직 적응되지 않은 육신에 끌리듯 어색한 자세로 내 말에 답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몸뚱이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군요.”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이다. 불명예에 대한 처우는 나중에 속죄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었으면 하는군.”

“물론입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할 말이라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이만.”

그 모습에 마이어스와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채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에게 물었다.

“조쉬로부터 건네받은 개조병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내가 놓친 내용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건가?”

“개조병사에 대한 내용중 육신의 괴사 혹은 정신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이전의 기억교차 같은 내용은 없었는데 말이죠.”

“보면 볼수록 죄책감이 밀려오는 슬픈 존재들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군. 그리고 그것을 기획한 나도 참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눈물이 그렇게나 많다는 소령님은 저런 몸이 되어서도 강철의 심장이 퇴색되지 않는군요. 참으로 귀감이 되는 군인입니다.”

“좋은 녀석이었지. 아니, 여전히 좋은 녀석이야. 자신의 손으로 조국과 동포를 짓밟아야만 하는 명령을 내리는 윗대가리가 나쁜거겠지.”

“그런 사소한것까지 헤아리는것을 보아하니 당신은 매번 진흙탕을 걷는 영웅이 되시겠군요.”

“루즈와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건가?”

“엿들었다니 그 무슨 섭한 말씀을. 저는 정보작전장교입니다. 적어도 이 지휘통제실에서 제 귀에 닿지못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 그것참 믿음직하군 그래.”

“그렇지않은 이들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루즈님께서도 분명 그럴일은 없을 것이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실 겁니다.”

“말투나 표정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 한번이라도 따스한 말씀을 하셨답니까?”

마이어스가 가볍게 웃으며 말하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뭐. 낯설것도 없지.”
마이어스는 개인화기 상태를 짧게 점검하고 내게 물었다.
“현상금을 받는다한들 이미 저희들 모두가 오갈데없는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기좋은 곳에 빌어먹는 편이 조금 더 나을테죠.”
“마이어스 너도 참 직설적이구나.”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베르셀 대장님보다 루즈 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조금 더 많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요.”

“루즈가 너를 여기 심어놓은데 이유가 다 있었구나.”
“네. 쓸모없으면 죽여도 괜찮다고도 말씀해 주셨구요.”
“아니. 큰 작전 목전에 그런 말은 안해줘도 괜찮을 듯 싶은데.”
“제가 이 말을 입에 올린 이유만큼이나 준장님은 대장님을 믿고 계십니다. 부디 그 믿음에 부흥해 주시길.”
마이어스의 부드러운 미소에 나는 잊고있었다. 전장에서조차 정에 휩쓸려 움직이는 내가 불안했는지 나를 보좌하기 위해 추천한 그 역시나 그녀와 사선을 무수히 넘나든 잿빛 유령의 소모품이었다.
“그럴거야. 루즈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오랜 전쟁에 감정이 많이 무뎌졌지만 사실 나는 누구하나 잃고싶지 않은 겁쟁이거든. 지금 우리

의 고향땅을 향한 총구에 담긴 의미도 그럴듯하게 꾸며주고 싶지는 않을 따름이야.”

“말인 즉슨?”

“범죄자의 의중은 아무리 포장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도 잘 알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까?”

“사람은 간사해. 지금 나는 단순히 내 곁에 있는 자들으르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 서는거야. 루즈, 벨라 그리고 마이어스 너도 말이지.”

“당신은 역시 참된 군인의 표본은 아니군요.”

“상관없어. 군인 이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것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군인도 사람이야 잿빛의 유령도 당연히 사람이고 식어버린 개조된 병사들 역시 사람이야. 그건 방금 자네도 보지 않았나? 남들과 조금은 다른 형태로 아벨의 자손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임무나 사명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야. 단순히 임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는 아마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작은것 하나하나를 위해 방아쇠를 당겼을거야.”

“…그리고 준장님 말씀처럼 당신은 아직 죽으면 안되겠군요.”

“옛 전우의 아이의 아이의 군번줄까지 내 손으로 거둔만큼 나는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죽을 곳은 아마 명예로운 전장이 아닐지도 몰라.”

“그럼 어딥니까?”

“사선을 함께넘은 오랜전우와 과거를 회상하며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걸로 족해.”

“영웅이라는 이름치고는 참으로 소소한 모습이군요.”

나는 무안함에 개인화기를 짧게 점검하고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소소함마저 우리에게는 값진 풍경일테지. 유언은 이 정도는 적당할테니 슬슬 시작할까?”

마이어스는 정자세로 내게 보고를 마치고 소수의 인원을 동행하여 전장으로 나섰다. 나는 망원경을 꺼내 전황을 바라보았다. 무수히 쏟아지는 빗발치는 포화속에도 개의치 않고 반란군의 무리들은 여전히 앞으로 약진해 나아갔다. 그것은 개인의 신념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었다. 불명예를 안고있는 자의 발걸음은 저렇게 당당하지 못할테지. 하지만 우리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는 해야만했던 모습일것이다. 서로의 이념과 가치관이 맞물려있는 상태로 쥐어진 총칼은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누군가 나서서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을 해소할 비난의 대상이 필요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것이다. 나는 지휘통제실내 무전통신망의 주파수를 금일에 맞게 전환했고 통신 무전기를 손에 쥐고 담담한 목소리로 반란군 전군에게 임무를 하달했다.

“전군, 돌격.”

『 이어지는 재앙 』

아그마트 갈림길 직전에 들어섰음에도 우리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것은 발루의 전사가 언제나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뜻하기도 했지만 윈뒤르강 만큼은 아니어도 아늑한 대지의 평원 위에 팽배하고있는 살얼음판처럼 아슬아슬한 전장의 긴박함 때문이었다. 찰나의 고요가 내려앉다가도 느닷없이 몰아치는 격류가 익숙한 탓이었다. 새삼 실감하는 전투본능에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있는게 느껴졌는지 아비는 찬물을 끼얹듯이 가볍게 내게 물었다.

“그 꼬마가 준 돌멩이에는 아무것도 새겨넣지 않을 생각이냐?”

“아아, 이거 말인가?”

목숨따위 안중에도없이 벗을 만들려는 정신나간 외지인이 내게 건네준 조그만 돌멩이를 무심한듯 매만지며 말했다.

“재앙이 되려는 자를 벗으로 두려는 조그만 미치광이는 룬의 무서움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새기지 않기로했지. 문제라도 있나?”

“섬세한 배려구만. 뭐, 무엇이든 그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그걸로 힘이 깃들어 네가 원하는 모양이 된다.”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묻지?”

“룬을 새겨놓지도 않은 쓰레기는 도대체 언제 어디에 써먹을건데?”

“재앙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마라. 눈 위에 함께 붉은 피를 쏟아낼

이의 서약을 받아낸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애초에 등 떠밀려서 받아낸 것인데 이제와서 딴지를 거는거야?”

“심심할때마다 애새끼처럼 하도 만지막거리니 신경이 안 쓰일리가 없잖냐? 그건 쉽사리 죽지 않을테니 네 앞가림이나 걱정이나 해라.”

“신경끄시지. 언제부터 애새끼들 장난감에 관심이 있었다고….”

“아이고, 이래서야 애새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건 쉽지않구만. 나중엔 내 모가지에 도끼날까지 들이밀겠군.”

“그런것 따위로 재앙은 기울어지지 않을테니 우는소리 하지말라고.”

그저 사실을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같이 기뻐하며 마침 눈 앞에 보이는 불경한 것들을 맨손으로 찢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들은 시련과 증명을 위해서 야수의 직감을 따라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먹구름을 뚫고 한 줄기 새어나오는 은빛 줄기에 반사되어 빛나는 도끼를 얼마나 휘둘러 댔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흩날리는 바람이 뺨을 가볍게 스쳐지나갈 때마다 아벨의 잔재가 남긴것들의 대가리가 바닥을 뒹굴렀고 안그래도 밝아진 대지를 눈부시게 적시고 있었다. 강림한 아벨이 추락할때 그는 무언가 미련이 남은듯 발악하듯이 전례없는 강한 빛을 끈적한 분수처럼 뿜어내었고 부드럽고 따스한 빛줄기가 그 일대에 사정없이 흩뿌려지며 이데아를 따스하게 적셨다. 그 빛을 품으며 각성한 빛의 찌꺼기들을 부수고 찢는

동안 붉은 피 대신 찬란한 광휘가 쏟아져 내렸다. 그동안 익숙하게 눈에 담아온 붉은것이 아닌 사뭇다른 이질적인것이 내 얼굴이며 옷가지에 튀자 나는 짜증스럽게 그것을 닦아내었고 그럴때마다 빛의 가루가 털어져나와 요란한 빛무리를 남기고 흩어진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신경질적으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뒤에 숨어 나약함을 전염시키는 아벨의 낯짝에 도끼날 한번 휘두르지 못했던 아쉬움이었기에 스스로 인지가 될만큼 따스한 빛이 만들어낸 잔여물을 불필요할 정도로 요란하고 거칠게 깨부수며 중얼거렸다.

“어이가 없군. 아벨의 은총이 비추는 곳에 이 성스러운 것들에게 불경한 것이 내는 추악한 냄새를 하고있으니 말이야.”

“엉? 뭐라고 주절주절 지껄여 대는거야?”
내가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중얼거리는걸 어떻게 저렇게 멀리서 들었는지 그는 그 와중에도 내 말을 제대로 듣는건지 모를만큼 사정없이 도끼를 휘둘러가며 무성의하게 묻자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이런 쓰레기나 찢어발기려고 이곳에 기어들어온게 아니란 말이다!”
“머릿수에 지레 겁이라도 먹은거냐? 말이 많구만.”
“열 받게 하지마라. 지금 나는 따스함에 취한채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히히덕대는 병신들을 보고난 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새끼들이 따스함에 취해 정신을 놓고있는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거냐?”

“정말 상관이 없다고? 언젠가 역겨울 정도로 따스한 햇살이 윈뒤르강의 협곡까지 닿게될텐데, 발루의 우두머리라는 자가 고작 한다는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불필요하고 요란하게 이빨을 드러내지 마라. 저 태양마저 윈뒤르강의 얼음조차 녹이지 못하는데 아벨의현신 찌꺼기 따위가 제 아무리 발버둥 친들 발루의 재앙에게 흠집조차 낼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내 말에 대수롭지 않은듯이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윈뒤르강의 눈보라보다 차가웠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고 그의 말에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신뢰를 가져다주는 충분한 울림이 있었기에 그의 말에 눈을 노려보며 발 끝에서 꿈틀대는 아벨의 현신이 남긴 찌꺼기의 머리통에 박혀있는 도끼를 거칠게 뽑아냈다. 그것은 더이상 발광하지않고 잠잠해지자 아비는 내 발 아래에 짓밟혀진 덩어리를 전에없었던 측은한 표정으로 묘하게 그것을 바라보더니 등을 돌려서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호흡을 가다담으며 주변 일대에 날뛰는 장애물을 다시금 정리를 이어나갔다. 믿음으로 빚어진 이것들 역시 고통에 신음하며 피를 흘렸고 직접 이 두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쳐 죽였다. 손에 움켜쥔 무기를

휘두르는동안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현실적인 감각이 다시금 전해지며 피로와 함께 그제서야 주위의 풍경이 눈 앞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수히 쌓여있는 시체들의 산 위에서 그곳을 기어올라오는 것들을 가리지않고 본능적으로 그것들의 사지를 사정없이 부수고 찢으며 으깨고 있었다. 새삼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수전쟁에 몸을 던졌지만 그것은 눈을 붙일새도없이 생명을 내걸고하는 끝나지않는 사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움직였는지 온 몸이 삐걱이며 고통을 신음하고 있었고 입안에 느껴지는 이물감에 한참을 오물거리다가 피가 섞여있는 마른 침을 뱉어냈다. 나는 삐걱거리는 턱을 어루만지며 몰려오는 피로감을 이겨내려 애쓰자 기어이 또 호통같은 메아리가 울려퍼졌다.

“발루의 전사가 고작 정도의 산들바람에 비틀거리는가?”

아득히 몽롱해져버린 의식속에서 억지로 끄집어 내려는듯이 아비의 우렁찬 포효가 하늘의 구름을 찢어놓았고 동시에 도끼날이 살과 뼈를 찢고 부수는 둔탁한 파열음이 내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다.
“지금까지 전투의 즐거움이야 차고 넘치게 느껴왔다. 아쉽지만 여기는 내가 있기엔 턱없이 부족한지 슬슬 잠이 오더군.”
바닥에 피가 뒤섞인 침을 뱉으며 아무렇지 않은듯 답하자 아비는 입을 실룩이더니 호쾌하게 웃으며 빈정대는 투로 나를 쏘아붙였다.

“까불지마라. 어쩌다 그 곳으로 잠깐 넘어간걸로 재앙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테니까. 그것을 알고있어야 꿈에서 깨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거다.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 마냥 취해서 감각이 둔해져서 금방 죽을테지. 조심하라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싶지 않으면.”

“내 시간을 모를 정도의 멍청이로 길러지지 않았다. 개무시하지 마.”
그 말이 영 성이 차지 않았는지 짧게 혀를 차더니 눈 앞을 가로막는 것들을 순식간에 부수고는 눈 깜짝할새에 내 눈 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졌다. 언제 눈 앞에 아비와 와 있는지도 몰랐는지 멀뚱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말도 하지않고 해실거리면서 모든것을 꿰뚫는듯 노려보는 그 서슬 푸른 눈깔이 짜증나서 나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뭐냐?”

“이새끼, 이거 완전히 눈을 뜬 줄 알았더니만 뒤죽박죽이잖아!”

그렇게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아비의 호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불현듯이 충격이 몰려오며 온 몸을 타고 흐르자 무슨일이 일어난지도 모른채 시야는 흐릿해지고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이는 시간조차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한참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어느새 몽롱한 가운데 내게 남겨진 감각에 집중했다. 조그맣게 울리는 심장소리를 더듬으며 다시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고 코피가 흘러내리는게 느껴졌다. 어지러운 잔

영이 눈에서 사라지자 아비가 얼얼해진 손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그가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긴 사실을 깨달았다. 악의없이 그저 사랑으로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이 미친작자의 사랑으로 그렇게나 신경이 쓰였던 턱주가리가 단 한번에 교정이 되었다. 그렇게 흐렸던 시야가 천천히 되돌아왔고 머릿속은 다시금 차가워졌다. 언제나 몇번이고 도움을 받는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여 숨을 깊게 마시고 토해내며 자책하듯 소리쳤다.

“그런가! 그렇다면 재앙이여, 내게 부족한것을 알려주시오!”

“전투감각은 발루에서 네년을 당할 전사는 없을거다. 못 쓰는건 네 몸뚱이가 아니라 얼빠진 면상과 정신머리다!”

“하하! 그렇게 병신같은 몰골을 하고있었나? 쯧, 이건 못 쓰겠군.”

“알면 됐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네 시간은 반드시 온다.”

“이거면 충분해! 빚을 졌군.”

아비의 따스한 손길에 나는 흘러내리는 피를 옷자락에 대충 아무렇게나 씻어냈다. 전장에서 펼쳐지는 사투속에서 상념에 잠겨서는 날이 무뎌지는 꼬락서니가 너무나 한심했다. 그는 답답했는지 다시 내게 다가와 어깨가 바스러지도록 세게쥐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었다.

“죽음의 나선에 선 순간 매 순간을 즐기도록. 깨고싶지 않은 달콤함에 허우적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 감각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마라.

전투의 즐거움은 항상 찾아오는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불안감의 냄새가 났다. 이 장소까지 긴 발걸음을 한 이유도 아비가 굳이 길잡이를 자처한것도 아벨의 현신이 남긴 빛의 찌꺼기들이나 깨부수기 위함이 아니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부수면서도 아비와 나의 본능적으로 곤두선 감각은 지축이 울릴정도로 낮게 진동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을 향해있었다. 아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가 자신의 말을 하고있음을 알아차렸는지 다시금 신수라 불리는 짐승의 시선이 창끝과 다름없이 날카롭고 빠르게 우리를 관통했다.

"경계? 아니…. 확실하게 환영을 받고있는 것 같은데?"

"그래, 재밌지않나? 같은 종족인 아벨의 자손조차 우리를 야만인으로 치부하여 척을 짓고 두려워하며 배척했지만 종이 다른 한낱 짐승따위가 오히려 순수하게 발루의 강인함이 지닌 가치를 알아본게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건네는 환대의 시선에 온 몸의 털이 서며 전율하는 가운데 발걸음에 망설임이 생기는 모습을 보이자 아비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기뻐해라. 놈은 나약한것에게 시선조차 건네지 않으니. 엉성하기 그지없지만 네년은 이미 신수라 자칭하는 짐승들에게 인정을 받고있는 것이니 어깨를 펴도 된다. 너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으니까."

“제 아무리 예리하게 벼려낸 날일지언정 재앙에 닿지 못한다면 짐승에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하! 주절주절 시끄럽다 애새끼야. 발루의 전사는 혓바닥이 아니라 그동안 흘려낸 피와 땀만이 그것을 증명해 낼테니 말이다.”

“그래. 구태여 길안내까지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돌아갈텐가?”

“돌아가? 헛소리 하지마라. 언제나 그랬듯이 약자들의 싸움구경은 즐거우니 말이다. 어디한번 피와 살을 쏟아내며 즐겨보려무나!”

까마득히 먼 곳에서 으르렁거리며 찰나의 순간 우리를 가늠해보던 짐승은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이빨을 드러내는걸 즐기고 있는듯한 모습이었다. 단순히 흥미로운 장난감을 대하는 호기심. 혹은 자신과 뒤엉키며 피를 흩뿌릴 존재가 힘을 가감없이 드러내기에 충분할 가치가있어 다가올 사투를 기다리며 흥분과 고양감을 감추지 못한채로 흘려대는 환희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전투와 파괴의 순수함은 발루의 전사들에게 있어서 숨을 쉬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미 익숙한 풍경인지라 아비는 그것에게 다가서는 길을 즐기라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그것에 다가가기위한 길에 여전히 힘을 증명하려 여기저기서 꼬여든 불나방처럼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이 더러 이빨을 드러내며 앞을 막았지만 아비는 그것마저도 산책처럼 여유롭게 내게 재잘거리며 사정없이 도끼날을 휘둘렀다. 해와 달이 몇번이나 넘어갔는지 미처 세지못했지만 긴 기다림끝에 마침내 우

리를 기다리던 짐승과 조우했다. 동족들의 시체를 옥좌삼아서 앉아있는 사뭇다른 그것의 크기를 올려보더니 씨익웃으며 내게 물었다.

“혹여 따스한 품에 안겨서 안락한 삶을 구가하던 것이 산 아래 아벨의 자손들만 그랬던건 줄 알았나? 아니야. 우리 발루조차 윈뒤르강 협곡의 혹한의 눈보라의 품에서 외부의 존재들에 대해서 무지하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랐을테지! 하하!”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과 죽음의 나선에서 지치지도않고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아비는 미친듯이 주위에 잡히는것을 닥치는대로 부여잡고 휘둘러댔다. 신수전쟁의 한 가운데를 위풍당당하게 뚫어내며 더 깊은 야수의 심장을 향해 다가섦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저 모습이야말로 윈뒤르강의 재앙 그 자체라는 생각이들자 경외감에 몸이 살짝 떨렸다.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챈 아비가 비웃으며 물었다.
“네년치고는 여기까지 오는동안 목이 붙어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너의 몫은 다한거다. 이 정도 보여줬으니 이제 슬슬 돌아갈테냐?”
“나는 누구의 눈에 보여주기위해 이 땅에 발을 딛은게아냐. 나 스스로에게 내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거니까 남들이야 내 알 바 아냐.”
“그렇다면 네년이 재앙에 한 걸음 도약할 더없이 훌륭한 기회이니 단 한순간도 멍청한 판단을 하지마라. 목 떨어진다.”
무언가 손해드는 기분이 들었지만 눈을 질끈 감았다 천천히 떴고 거칠

게 머리를 박박 긁고나서 도끼를 휘둘러서 바닥에 쿵 하고 내리 찍으며 웃었다.

“그런가? 퍽이나 고맙군.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죽인다?”

“학살의 즐거움에 취해있다가 막상 거대한 힘 앞에 선 기분은 어떠냐? 생존을 향한 본능 때문에 털 끝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선 기분을 느끼는 것이 새삼 다른 세계에 놓여진 것 같은 기분일 들테지. 때로는 그 공포를 윈뒤르강의 룬처럼 피부로 새기는것도 좋단다. 그것은 훗날 너를 먹고 살리는 자양분이 될테니. 물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다면 말이다!”

“룬처럼 내게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새겨주마.”

“바로 그거다! 오래 살고싶으면 멍청하게 넋놓고 다르것에 짜증을 부릴게 아니라 새겨놓여진 룬에나 귀를 귀울여라! 마음가짐이 올곧지 않으면 언제라도 네가 이 땅위에 아로새겨놓은 발자취에 의심을 품고 변덕을 부리며 더이상 대답하지 않을거다.”

“윈뒤르강의 재앙의 이름을 가진자가 발루에게 강하게 살기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다니 머리가 돈거냐?”

“오래 사는놈이 살아남은 더 강한것들과 싸울 기회를 얻는거다.”

“평화에 찌들어 있다보니 재앙조차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허황된 소리를 지껄이는군. 잠꼬대는 죽어서나 하라고.”

“당돌하군. 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네년이 다음 발루의 재앙이

될거다. 열심히 발버둥 쳐보라고!”
그렇게 사나운 본능을 흘려대고있는 짐승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채 나의 어깨를 부여잡고 나를 독려하려는 그 모습이 나는 애새끼 다루는 것 같아서 거칠게 어깨를 휘둘러 도끼를 쥐어쥐며 입을 열었다.

“상관없다. 나도 재앙도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매 순간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말대로다!”
“시끄러워! 불똥튀기 싫으면 얌전히 찌그러져 구경이나 하라고!”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동시에 서로 이빨을 드러내 위협적인 포효를 내지르고 서로에게 내달리며 감추었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서로의 목을 물어 뜯는 사투에 돌입했다. 한번도 영광스러운 죽음 따위를 위한 싸움판에 몸을 던진적은 없었다. 또한 전투의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발루의 전사들은 항상 생존을 최우선으로 염두해두고 전투에 임한다.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배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보다 허명 따위에 초점을 맞추어 개죽음이나 당하는것과 다르게 언제라도 내가 숨이 붙어있는한 상대의 숨통을 끊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말은 쉽지만 패배의 상처는 외상보다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엿이나 먹으라지. 지금의 나는 최고로 만족하는 순간 속에 빠져있다. 온 몸에 곤두선 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피를 뒤집어 쓴 마당에 피로로 시

선이 흐려지기는 커녕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아벨의 현신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긴것을 취하려 달려드는 승냥이 새끼들은 관심없다. 오직 나를 전율하게 하는것은 눈 앞의 짐승이었다.

“…운 그라 글라욕.”

그것은 썩은 동태눈깔을 하고 실망스러운 낯짝으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며 낮게 으르렁댔다. 당연하게도 짐승의 말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이를 악 물고 쏟아지는 피에도 개의치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것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나약한 것과의 지루한 싸움에 흥미가 동한것이다. 그 꼬라지에 부아가 치밀었지만 그깟 짐승새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개의치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은 우연처럼 먹구름이 몰려왔다. 심드렁했던 그것은 몰려드는 먹구름 냄새를 맡더니 나와 그것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돌연 털을 곤두세웠다. 다시 즐거워하는군. 미친새끼. 나는 조금만 호흡이 흐트러져도 정신이 나갈판에 저것은 다시금 활력을 띄는 나에게 흥미를 느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짐승들에게 사투는 생존이 아니라 여흥이자 즐거움이다. 그것에 심취하고 즐기다가 죽음의 위험에도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의 줄타기를 즐기는 것이다. 더이상 보여줄것이 없으면 흥미가 사라져 약자를 멸시하려 내려다보는 짐승의 눈깔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것만 같았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있는거냐, 이 짐승새끼야.”

내 살결이 찬바람과 함께 전율하듯 떨림이 일자 그 미세한 진동을 맡았던 짐승은 여전히 짐승은 흥미가 동한듯 눈의 광채를 잃었다. 실망하며 등까지 돌려버린 그 등을 보자마자 나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쉬며 아비가 내게 그동안 일렀던 말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스쳐지나가 그것을 되뇌이며 중얼거렸다.

“아니지, 아니야. 시련과 증명의 사투는 장난이 아니다 짐승아. 상대의 숨통을 끊을때는 언제라도 전력을 다해야지, 개자식아.”

“이미 바닥이 드러난 약자를 멸시하는 강자에게서 진심어린 호전성을 구걸 하지마라. 넌 이미 졌다. 인정해라.”

“…졌다고? 이 몸이 말인가?”

아비의 말을 부정하듯 탄식을 토해내듯 말했다. 처음으로 맛본 패배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상대의 변덕으로 목숨까지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다. 그 순간만큼 생존과 명예 그리고 영광 사이에서 인지의 부조화가 오면서 가슴속에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는것이 느껴졌다. 그러자 분노하는 나의 떨림에 공명하듯 먹구름이 드넓은 평원의 하늘을 가득메웠다. 굉음과 함께 주변에 벼락이치고 피부에 느껴지는 익숙한 한기가 몰려오니 그제야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를 멀찍이서 지켜보던 아비는 벼락맞은 가지처럼 쇠약해졌지만 입에

서 연기를 뿜으며 호쾌한 웃음을 지었다.

“욕심 그득한것. 그야말로 재앙의 그릇이구만. 그래도 룬과 대화를 나누기보다 그것까지 집어삼킨이상 외로운 싸움이 될게다.”

“상관없다.”

“한결 나은 표정이군. 함께 이곳에 온것이 이제 좀 만족스러우냐?”

후련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의 말에 나는 확신에 찬 한껏 밝아진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한번 힘차게 흔들었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내팽개쳐진 도끼를 가볍게 쥐었다. 지금 나는 윈뒤르강 협곡의 칼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본 뒤 여러번 크게 휘둘렀다. 좀 가벼운가? 한결 가벼운 몸이지만 조금 엉성한 내 모습에 아비가 웃으며 말했다.

“새삼 오랜동안 함께한 그 녀석도 지금의 네 모습은 조금 낯설테지.”

“길들일 시간은 없어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어느새 등을 다시 돌려 나를 노려보며 경계를 시작한 개새끼 앞에 이를 갈며 다시섰다.

“개새끼야, 싸움 좋아하냐?”

『 질긴 인연 』

우린 필요할 말을 제외하곤 침묵으로 일관한 채 카인의 땅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경계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입에 담아야 할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하얀악마를 만나고 심경의 변화가 생긴 나는 아즈메아 동굴로 발걸음을 돌려 피오르의 파랑새들 모두가 의식을 마친 뒤에도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며 만든 인연이기 때문이었다. 거기까지 가기위한 과정은 그렇게 쉽지많은 않았다. 공명으로 잠재되어 있던 의식이 깨어나 기존의 감각들은 물론 새로운 감각들까지 날카롭게 벼려냈으며 깨어난 힘은 의식에 몸담은 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의 접근은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서로 다른 감정을 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수많은 착오가 있었고 그 가운데 머릿속의 균열이 더욱 깊게 쪼개져 숨을 다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셀라로부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슬픈 이별을 겪고나서 소수의 인원들은 머릿속의 균열과 맞서며 다른 이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불렀고 여전히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다들 그나마 조금 나아진게 지금 이 모습이다.

“또각.”

그것은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함을 깬 짧고 작은 소리는 내 마음속의 평화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목에 걸린 붉은 조약돌을 바라보았다. 짙은 붉은 색의 빛깔을 은은하게 발하던 조약돌에 갑자기 금이 간 것이다. 갑자기 불길한 기분이 엄습했다. 셀라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은 아닌지 초조해져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셀라는 괜찮을까?”

그 말에 불안함이 섞여 가벼운 한숨과 함께 입밖으로 흘러나오자 그것을 내 뒤에서 듣고있던 소피아가 쭈뼛거리며 망설이다가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셀라가 누구야?”

“내가 둥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귄 친구야.”

“뭐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는거야?”

“셀라가 내게 만들어준 서약의 조약돌에 금이 갔어.”

“좋지않은 소식같아보여.”

우리의 대화를 나란히 걸으며 듣고있던 리젯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더니 지금 우리들이 카인의 핏줄들이 자리한 땅에 자리하고 있는 것조차 잊을정도로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재잘거렸다.

“그나저나 야만스런 하얀악마가 무언가를 만드는 재주가 있는지는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나 예쁜걸 만든거지?”

“칼로 자신의 팔뚝을 베어내어 피를 조약돌에 쏟아내더니 그걸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 그녀의 피가 조약돌에 녹아들어 이렇게 붉게 된거야."
내가 아무렇지도않게 즐거운 모습으로 그녀와의 일을 추억하자 다들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와중에 리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믿기 힘들다는듯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것을 가만히 보며 말했다.

"그냥 단순히 세게 움켜쥔다고 그게 가능한거야? 그걸 아무렇지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그녀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하!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주섬주섬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보르미르는 내가 지나치게 걱정스러운 모습을하자 듬직하게 차분히 나를 달래주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말할때마다 네 얼굴에서 빛이 났구나. 다른곳에서 처음으로 사귄 마음을 나눌 친구라니 너도 제법이네."
"그런가? 그만큼 함께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피오르의 파랑새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
"우리같이 절망속에서 태어난 먼지같은 것들에게도 어렵지않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친구라는 말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너에게 감사해."
진심어린 그의 말에 나는 쑥쓰러워서 괜히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직도 내게는 너무나 과분한 말이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아도 됐었는데 뭔가 미안하네."

“신경쓰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먼저 손을 건넨 친구가 매듭을 지으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리도 싫어서 온게 아니야. 네 결정을 존중하기에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거야. 친구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욕심 때문에 아이다, 카사디, 피오 그리고 페르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랑새들이 땅에 떨어졌어.”
“그들은 땅에 떨어진게 아냐, 에단. 단 잠에 들 안락한 둥지를 찾으러 간 거지.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웃음으로 보내주자.”

“…아무도 함께 울어주지 않으니까?”

그 말을 저 멀리서 듣고있던 페기가 무심한 듯 답했다.
“그래, 그러니까 더이상 무너지지마. 너는 지금 우리의 친구이자 동시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니까 어깨를 펴.”
“뭐? 내가 길잡이라고? 언제부터? 그런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어찌나 바보 같았는지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긴장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그 후, 카인의 땅에 발걸음을 한이래로 놀라울 정도로 순탄하게 아무런 장애물없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그것은 분명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고난 뒤에 지나간 길에 남겨진 그의 성스러운 흔적 때문이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마침내 나의 기억속 오랜 추억이 남긴 짙은 잔향이 흘러나오는 인형의 땅을 밟았다. 그곳의 장식이나 분위기는 무언가 그리운 느낌

이 드는 곳이었다.

“같은 카인의 핏줄인데도 분위기가 영 다르네.”

“그럴거야. 저마다 짊어진 죄악이 다르니 말이야.”

“너무 소름끼치게 조용해. 마치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다들 조심해.”

“그 말대로야.”

저마다 한 마디씩 감상을 깨는 요세프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저 멀리에서 기분나쁜 실타래에서 쏟아져나오는 가느다란 실들이 날카로운 바람소리를 내며 고급정원 장식 여기저기에 분주히 엮이기 시작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뒤이에 우리의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우리나이 또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소녀였다. 잘 정돈된 머릿결과 귀족의 영애와 같아보이는 옷차림은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에 너무나도 이질감이 들었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샬롯.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치맛단을 두손으로 살짝들어올려 격식있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비단결이 스치는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다들 경계심을 보이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가운데 내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앤섬을 돌려줘.”

“그게 뭐야?”

“우리는 피오르의 파랑새의 추억을 따라왔어. 그리고 네게서 나의 옛 친구 앤섬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어. 이제 그녀의 행방을 알려줄래?”

“글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거 아냐?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고맙지만 괜찮아. 희미하지만 네게서 앤섬의 흔적이 보이거든.”

“흔적이라…. 흔적. 잠깐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실타래를 이리저리 휘적거리며 바쁘게 엮더니 무언가를 찾은듯 기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짧은 금발에 푸른 눈동자. 왼쪽 눈썹 위 이마에 작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이 혹시 앤섬이야? 그렇구나 우아한 춤선이 너랑 닮았네. 예쁘고 살결이 고운 아이였어.”

“맞아. 그녀를 알고있어?”

“응. 물론 기억하지. 오래전 그녀와 나는 달빛아래 아름다운 춤을 추었어. 하지만 그 춤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녀의 숨이 희미해졌지.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그녀를 밀랍으로 굳혀 인형으로 만들어줬단다.

“그렇구나. 역시 그녀는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왔었구나.”

“몸이 굳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울지도 않고 편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남기며 이름을 줄곧 되뇌이기 시작했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

이라서 눈물이 나올 뻔 했지 뭐야. 정말 아름다웠지.”

“그녀가 속삭인 그 이름을 기억해?”

“에단.”

그 말을 듣자 나는 눈이 돌아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내 곁에 그 이야기를 듣던 파랑새들도 일제히 인형들에게 루시드를 뿜어댔다. 루시드 사이로 인형의 실타래가 달빛 청명한 밤하늘을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수놓았다. 하마터면 그 움직임에 취할뻔 했지만 우리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질투의 죄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 편안한 얼굴로 손에 얽힌 실타래를 휘적이더니 우리를 향해 말했다.

“환영해. 그래도 너희들은 제법 죽을 곳을 잘 고른편이야. 인형의 꿈동산에서 사이좋은 친구들끼리 말이지. 적어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를 사랑해줄 친구가 필요한거지 그것을 줄 수 없는 아이들은 조금 곤란하단 말이지. 더구나 자신들의 몸이 망가지는것도 모르는 것들을 다루려면 손이 많이 간다고!”

그녀는 손톱을 깨물면서 불만스러운 말을 쏟아냈지만 나는 극심한 두통과 머릿속의 균열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어 정신이 없었지만 내 곁에있던 리젯의 손이 내 머리에 있음이 느껴졌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것은 따스했다. 그리고는 감정없이 무뚝뚝하며 단호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미 내 친구에게 손을 댄 이상 더이상 너와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죽을 생각이 없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친구를 괴롭힌 네가 스스로 죽을 곳은 어디인지 잘 알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나는 너희들이 제법 마음에 들어서 내 인형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말이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나는 간신히 머릿속의 고통을 참아가며 쉿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앤섬을 구해야 돼.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있어.”

“구해? 틀렸어. 에단. 그녀는 이미 예전의 그녀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녀는 앤섬의 모습을 한 하나의 인형에 불과해.”

“그러니까 구하려는 거잖아.”

찰나의 순간 그녀의 말에 내가 잠깐 이성을 되찾고 당연하다는듯이 답하자 아름다운 표정은 일그러지더니 혐오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앤섬을 두번씩이나 죽이려는 거구나. 너무하지 않아?”

“아니 그녀를 추억에 묻어주려는거야. 그녀도 기뻐할거야.”

“과연 그럴까? 너희들 눈을 봐. 전부 다 미쳤어. 그녀는 아름다운 춤을 선사하고는 아름답게 졌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매도하지 마. 그녀의 춤은 영원히 기억될거야.”

도발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셀라가 말했던 것

처럼 아무래도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건 사실인 모양이다.

“아니. 세번이나 피고 진 피오르는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워. 이제 그만 그녀를 보내주어야 할 것만 같아.”

그렇게 말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않고 쏟아졌다.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긴 샬롯은 공감한듯 고개를 끄덕였고 실타래를 흐드러지게 쏟아내어 하늘로 펼쳐올렸고 우리를 향해 따스한 목소리를 건넸다.

“깊은 우정이 보여준 피날레는 너무나 감동적이야. 너희도 추억속에서 앤섬과 함께 어여쁜 춤사위를 추렴. 그리고 부디 상처없이 지금 그대로 어여쁘게 죽어서 영원히 나를 사랑해줘.”

그 말에 어째서인지 내 가슴이 시큰거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주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진심어린 그 말을 건넸다.

“응! 고마워, 샬롯. 다음엔 함께 웃으며 좋은 친구가 되자.”

“그 말을 잊지마, 에단. 약속해줘.”

왠지 그녀의 말은 쓸쓸해 보였다. 그럴리 없었지만 인형같은 눈에 물방울이 그렁거리는 것 같았다. 비가 내리는 탓일까? 그러더니만 어디선가 아름다운 장식으로 수놓여진 관에 얼굴을 부비적대고 폭 안고나서는 그것을 열었고 그 안에 고이 잠들어있던 앤섬을 꺼냈다.

“알다시피 우리는 완벽하지 못했어. 하지만 네가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 알 수 있었지. 아! 앤섬의 움직임과 같은 너희라면 아름다운 춤사위

를 다시금 보여주지 않을까하고 말이지."

"응! 당연히 보여줄 수 있지. 하지만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채로 죽기싫다면 말이지."

그 말에 샬롯은 배시시 웃었고 그것과 동시에 파랑새는 인형들과 어지럽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정신없이 짝을 맞추어 춤을 추는 사이 나도 샬롯은 물론 그녀의 곁에있는 앤섬과 엉켜서 아쉽지 않을만큼 오랜동안 춤을 추었다. 인형들은 질투에 목매여 가느다란 실타래를 하늘을 메울정도로 빼곡하게 펼치며 우아하게 실과 실 사이를 누비었다. 우리들 역시 머릿속에 균열을 내며 그것들의 선율에 맞추어 움직였다. 그 춤사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피눈물이 흘러내려 말라서 굳을때까지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땅거미가 두번이나 질 무렵 마침내 샬롯의 질투는 떨어진 실타래와 함께 생기를 잃고 맥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예상했던대로 그녀가 부서지자마자 주변의 인형들 역시 힘을 잃고 픽픽 쓰러졌다. 주인잃고 탄성을 잃은 실에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는 앤섬을 향해 쏜살같이 튀어나가 그녀를 재빠르게 끌어안았다. 어째서인지 그녀에게서 생기가 느껴졌다. 분명 샬럿의 배려겠지. 그렇게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내리며 먹먹한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다녀왔어."

그녀의 대답을 원해서 입밖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 짧은 그 한마디

는 그녀를 보내주기 위한 배웅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후련함이 더 컸다. 보르미르가 조용히 내게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녀가 너와 함께 특별한 밤을 보낸 친구구나.”

“응, 맞아. 그리고 내가 완전히 잠들기전에 그녀가 나를 끄집어 내줬어. 그렇게 나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어.”

“배웅은 잘 해줬어?”

“…응.”

후련한 마음과는 별개로 나는 그녀를 한참을 안고있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지만 침묵사이로 조용히 그웬이 스쳐가는 산들바람을 털어내며 내게 말했다.

“그렇다면 일어서. 앤섬은 고작 배웅이나 해달라고 너를 여기까지 불러낸 건 아닐테니 말이야.”

“그래. 묶여있는 머릿속 균열을 깨기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겠지. 그리고 피오르의 파랑새들은 더 높이 날 자격이 있어.”

“잃은 건 추억뿐이지 너는 아직 그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새로사귄 친구들과 말이야.”

소피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마디 거들었다.

“그래. 우리는 너를 대단한 친구로 기억하고있어. 홀로 창공하는 파랑새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또 없을거야.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거고 서툴지만 천천히 다시 추억을 쌓는거야. 앤섬도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까?”

“고마워, 요세프.”

묵묵하게 사이에서 우리들의 말을 조용히 귀담은 로렐라이가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이 세상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없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좋든 싫든 간에 분명히 너를 좋아하지 않거나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가 네 앞에 나타날거야. 만약에 친구가 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옷깃만 스친 것만으로는 너와 깊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거야.”

“알겠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멋지지않아? 그렇게 옷깃만 살짝 스친 정도로 사귄 친구는 정말 운명인 것 같아.”

“그래! 남의 말을 하나도 안듣는 것도 참 너답네.”

페기의 충고에도 나는 내 감상을 늘여놓았고 중간에 리젯이 끼어들면서 무거웠던 분위기도 다소 누그러졌다. 하지만 페기가 말한 것을 결코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연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충격을 받지 않

게끔 그녀는 미리 내게 가시있는 말을 해 준 것이다. 그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감사했다.

“운명이라, 글쎄. 나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어두울수록 운명이라는 작은 반짝임은 너무 기분 좋은 울림을 하고 있지않아?”

“응! 나도 그게 좋더라.”

애비와 가비가 서로 작게 재잘거렸지만 파랑새의 지저귐에 금새 묻혔지만 스치는 바람과 함께 귓가에 스쳐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나서 나는 인형들의 꿈동산에 서서 내게 남은 것들을 헤아려보았다. 아즈메아의 둥지 밖을 향해가던 스무명 남짓했던 인원은 어느새 나를 포함하여 열한명으로 줄어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가며 기분좋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제나 믿음직한 보르미르, 냉정하고 무뚝뚝한 페기, 해맑고 활기찬 리젯, 낯가림이 심하지만 사려깊은 소피아, 재빠르며 날카로운 요세프, 감이 좋고 통찰력있는 로렐라이, 묵묵하고 부지런한 그웬, 그리고 쌍둥이 자매 애비와 가비.”

“뭐야? 갑자기 왜그래?”

“어? 모르겠어. 그냥 한번 더 불러보고 싶었어.”

“에단, 징그러워.”

가만히 멍하게 있던 로렐라이가 한마디를 거들자 우리는 방금전까지 사선에서 피를 흘리는 있었던 것도 잊은채 까르르대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 잊은 듯 급하게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셀라.”

“…앤섬도 있었지.”

그웬이 조심스럽게 덧붙이자 나는 어깨를펴고 웃음을 지어보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자신있게 그에게 말할 수 있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더이상 그녀가 내 마음에 자리할 곳은 없어. 아즈메아 동굴안 날갯짓 때문에 뒤섞여진 머리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그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게 했나봐.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제는 정말 그녀를 보내 줘야겠지. 무의식적으로 추억속에 숨어서 항상 도망쳐 온 것 같은데 더이상은 그러지 않으려고.”

“다행이야. 네가 과거의 균열과 맞서며 이겨낸 것으로부터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일지도 몰라.”

그웬의 말에 뒤이어 보르미르가 그 말을 덧붙이자 우물쭈물하던 소피아가 내게 다가와서 까치발을 들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앤섬은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값진 것을 남기고 갔어.”

가만히 보고있던 모두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기다렸다는듯이 모두

가 모여서 서로에게 포개어져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그렇게 비어있는 인형의 집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고 더 깊은 질긴 인연에 얽히기 전에 동이 트자마자 최대한 존재감을 죽이며 질투로 가득한 숨막히는 이 곳을 벗어날 채비를 마쳤다. 파랑새들이 날갯짓은 가벼웠다. 산들바람과 함께 머릿속의 균열이 가벼운 통증에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앤섬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 인내와 분노사이 』

인내하는 것이 미덕인가 행여 그것이 아니라면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에두예르의 전도사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그 어떤 현인이라도 누구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다는것은 그들이 배부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잣대로는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의 처지를 결코 이해할 수 없기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감내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일곱의 덕목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이다. 인내의 전도사들이 상투스까지 발걸음을 하여 상투스의 빛에 경종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빛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구원의 빛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뿐이었다. 분노어린 은빛의 물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채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그 우아한 자태에 취해있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을때쯤 기적은 상투스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눈앞의 처절한 흔적 하나하나가 어루만져가며 살펴보다 아가뜨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않으며 조용히 입을 뗐다.

“어쩌면 분노의 죄악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가 말한것보다 더욱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

“…글쎄. 계시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기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애초에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될 운명이지 않았을까?”

내 말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까지 벌려가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며 허둥대자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아니 운명이라는 말을 네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

“계시를 받은 에두예르의 전도사가 운명을 입에 올리는게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알아, 그래도 네가 예전처럼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도야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

“그 생각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않아.”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의 네 모습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다른걸.”

“말했잖아. 이전과 달라지더라도 불경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쳐죽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정말 그걸로 만족해?”

“아가뜨,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만족이고 자시고 지금 우리는 성전의 길에 서 있는거지 소풍온게 아니라고. 정신차려.”

“오히려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들이처럼 가벼운 마음이 아닐까 싶을만큼 지금 네 꼴이 말도 아냐.”

아가뜨의 말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주위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차분히 되돌아 보았다. 아니나다를까 그녀가 말

한대로 지금의 내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내 안에는 인내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에두에르가 결코 보여줘서는 안되는 분노와 폭력성이 차분하게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나는 물론이요 다른 이들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축복만큼은 그대로 담겨져있어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상반되는 두가지의 속성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렇다면 말해줘, 아가뜨.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참동안 멍하니 두 손을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되묻자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을 하고는 내게 이마를 맞대면서 상냥하게 답해주었다.

“그건 이미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누구보다 두려워 하면서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무리하고 있는 거 알아.”

“계시의 운명에서 벗어난다고 무심결에 뱉어낸 말이지만 이제와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야. 방금 네 말대로 지금 나는 여지껏 쌓아올린 인내의 벽을 허물어가며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꼴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있는거야. 조금 느슨하게 가자고, 장. 날이 갈수록 계시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전의 일 때문에 그러는거야? 하지만 너도 그걸 봤잖아. 상투스에서

빛을 짊어진 사제가 분노의 죄악을 끼고 돈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미덕을 행해야 할 사제놈이 어째서 일곱의 죄악 중 하나와 놀아나는 거냐고?"

"진정해, 쟝. 채찍질은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야. 우린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리 그래도 분노는 옹호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어."

"나도 알아. 방금전까지 느슨하게 가자고 했으면서 그 분노를 이해해보자는 내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성전을 임하고 있는 몸이기에 분노에 화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와 율법을 빌어 그들에게 그것을 인내하고 억누르는 법을 일깨워 줄 에두에르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되겠지?"

아가뜨는 나를 달래듯 차분하고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분노를 조우했을 그 때, 너는 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분노의 죄악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바보같은 짓을 하면 안되지. 그리고 쟝, 너 역시 느꼈겠지만 상투스의 사제의 곁에 머물던 그녀는 무언가 조금 다르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머리를 긁적이고는 그녀의 말에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래. 여지껏 우리가 걸어오며 내린 답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더 미쳐 날뛰었던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할 필요없어. 그녀는 분명 분노의 죄악 세르샤였지. 아니 오히려 인내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였겠지.”
그녀의 다소 무뎌진 듯한 반응에 가슴이 욱신거려 내가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우리는 오랜동안 순례의 길에 오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깊이 물들어 버렸다. 나는 계시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고 그녀는 운명에 더욱 거세게 맞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변화에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았기에 그저 한 발치 물러나 걱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것처럼 그녀는 별 일 아니라는 듯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라 부르는 거겠지. 정해진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 너머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라고 봐.”

“우와…. 굉장히 멀리 보고 있구나, 아가뜨.”
“네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거야.”
내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그녀의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자 멋쩍은 미소로 키득거리고는 내 등짝을 세차게 후려쳤다.
“너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 그저 인내하는 자세도 옳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 다른 사람은 그렇다쳐도 적어도 내가 용납이 안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가뜨와 나에게는 계시나 율법에 휘갈겨져있는 수많은 말들보다 더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런 생각에 닿게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하하, 그런가. 애초에 성전이라는 건 그냥 핑계였나?”

“갑자기 정색하면서 빤히 쳐다보다가 웃다가 뭐하는거야?”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계시나 율법을 구실삼아 내가 살고 싶은대로 살고싶어서 우에노른을 뛰쳐나온 것 같아.”

“그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한결 가벼워진 지금 표정은 좀 열받네.”

“그걸 원한게 아니었어?”

“뭐 대충 비슷하니까 넘어가줄게.”

“그러고보니 너는 나랑 다르게 진지한 자세로 성전에 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기가 생각보다 불손한걸? 성전은 어디로 내팽개친거야?”

“성전은 중요하지.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도 그러하고. 그런데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네가 눈에 밟혀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 애초에 그럴듯한 말들만 늘여놓는걸 제외하고는 할 줄 아는것도 없어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권능조차 구현하지 못하는 내가 굳이 너를 왜 따라왔겠니?”

“할 줄 아는게 없다고 하지만 언제나 분노 속에서 나를 거둔 것은 계

시도 율법도 아닌 너였으니 조금은 자신을 가지도록 해.”
“그걸 알면 내게 항상 감사하도록 해.”
잠깐동안 짧은 웃음이 오고갔고 다시금 우리 사이에 숨이 막힐듯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구태여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억지로 깨기위해 다시금 대화를 무거운 주제로 옮겼다.
“그런데 나 지금 그렇게나 엉망인가? 한참동안 내 얼굴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어느새 내 얼굴앞까지 다가와 내 볼을 꼬집거나 입술을 들쳐보거나 이마를 문지르는 등 내 상태를 점검하는 행동을 보이더니 대수롭지않게 말했다.

“괜찮아. 뭐 죄악이라는걸 거울로 본다고 볼 수 있는것도 아니지만 그냥봐서는 아직까지는 분노의 죄악에 완전히 먹힌것 같진 않아. 오히려 분노가 섞여 적절하게 저울질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겠지만 뭐 네 천성처럼 대충 어영부영 인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되려나?”

“아슬아슬하구나.”
“잘 알고있네. 스스로 객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분노에 잠식되기 쉬우니 지금은 걱정할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 대답을 들은 그녀는 불안정한 내 상태에도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

이고는 다시 일어났고 나는 그녀의 태도에 시큰둥한 모습으로 화톳불에 장작을 무신경하게 휙 던져넣으며 말했다.

“인내의 끈에 끌려오는것은 결국 분노뿐인가?”

잔뜩 경계하며 나지막이 내뱉는 내 말을 듣자 그녀역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말했다.

“분노의 땅에서 결국 마주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겠지.”

“조심해, 아가뜨. 너무 앞서나가지는 마.”

“네 걱정이나 해, 쟝. 지금 네가 무엇인지는 직접 분노와 섞이며 알아봐야겠지. 인내와 분노 사이에서 너는 시험을 받게 되는거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인가?”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같은 거겠지.”

그녀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보이지않는 길을 스스로 보고들으며 미지에 대면하겠다는 강인한 다짐이 느껴져 안심이되자 새삼 마음이 차분해졌다.

“괜찮을거야, 아마도. 왜냐면 지금 저들의 피를 여러번 뒤집어 쓴 나는 인내의 전도사보다 저들에 더욱 가까울 테니까. 저번처럼 맛이 가더라도 여긴 분노의 땅이야. 분노의 땅에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라면 다른 곳보다 좀 더 후련할거 같은데?”

“좋아. 미친놈처럼 날뛰고 와. 다만 나한테 네 분노의 칼날이 불지 않

게 조심해줘. 언제나 그랬듯이 저들에게 나는 가장 보기좋은 먹잇감일 테니까.”

그렇게 싱그러운 미소를 내게 건네고 그녀는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나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초점이 없는 공허한 눈은 인내하는 것 의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읊조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눈부셨다. 한참 그것을 바라보던 나도 정신을 차리고 파피루스의 검과 두루마리 방패를 꺼내들자 우리의 주위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빛안개가 펼쳐졌다. 다른 불경한 것들과 달리 그것들은 빛안개를 머금으며 저들 몸의 빛을 더했다. 불경한 것들이면서 신성한 빛에도 굴하지 않는 저들의 존재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껄끄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들의 언령과 계시의 기적이 거슬렸는지 죄악의 분노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재잘거렸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지만 분명히 그것은 인내하는 우리를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들을 느낄 수 있는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를 피부를 느끼며 자신들과 반대되는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성전을 한없이 조롱하고 있었다. 나 역시나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거슬려 미간을 구기며 중얼댔다.

“애초에 왜 우리의 인내가 왜 네놈같은 것들에게 조롱당해야 되는거냐고? 한번이라도 이 악물고 참고 견뎌낸 적도 없는 주제에. 네놈들의 분노는 그저 인내라는 장작에 달려드는 날파리일 뿐이잖아.”

내가 빛안개를 채찍처럼 휘둘러 굉음을 내자 그것들은 그제서야 추하디 추한 민낯을 드러냈고 비로소 죄악에 걸맞는 얼굴을 하고있었다.

“그래, 그편이 성전의 주춧돌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지.”

말이 통하지않는 것들에게 괜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라 그 말을 뱉어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었기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게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는지 분노하는 이들은 나의 분노에 운율을 맞추듯 비명하면서 저들은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날붙이를 살갗에서 끄집어내더니 일제히 우리의 성역을 향해서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세바 플레쥬 위 방 파세 디오망 뜨라벨라 비 그랑 데오 파시옹….”

그녀의 성스러운 언령이 우리 주위를 가득 메웠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분노의 땅에 인내의 미덕을 새겨주었다. 상황이 얼추 정리하고나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소리로 분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주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가녀린 몸에 새겨진 자잘한 상처가 눈에 담겼고 그것은 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자마자 나는 혀를 차며 얼굴을 찡그렸다.

“역시 인내하는 자가 분노의 곁에 있어서는 안됐던걸까?”

“무슨 소리야?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네 곁인걸.”

“분노에게 끌리는 건 인내고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서 그런가?”

“그래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촉매제이자 양날의 검인 셈이지.”

“그렇구나…. 계시는 역시나 가혹하네.”

“하지만 네 계시는 누구보다 뚜렷하니까. 안심할 수 있어. 적어도 성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나의 길잡이가 되어줘.”

“뚜렷하니까 그 앞이 더욱 가혹하고 두려워지는거야. 말했듯이 이데아를 비추는 빛은 아마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

“아마도?”

“분명히 그 빛은 우리를 감싸주지 않을거야.”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테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의심하지 말자고.”

“누구에게?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에서도 그들은 한번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준다고 한 적이 없었어.”

“아니, 이미 우린 그 걸어온 시간동안 무언가를 얻었어.”

“나도 몰랐네. 나는 견디고 감내해오면서 얻은것보다 잃은 것 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데 대체 무엇을 얻었다는거야?”

“아냐, 쟝. 너는 분노를 얻었고 나는 분노를 거둘 지혜를 얻었어.”

그녀는 내 가슴과 자신의 가슴을 번갈아가며 툭툭 치면서 내게 말했다. 아무런 계시도 보지 못하는 그녀는 명확한 계시를 바라보는 자라고 불리우는 나보다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경

이로움에 나는 가벼운 미소와함께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계시없이도 이미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하! 또 이단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그런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율법에 충실한 너를 보면 점점 그렇게 느껴지거든. 운명의 벽을 허무는 것은 계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있지 않은채 맨몸으로 부딛히는 네가 미래를 가장 옳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가 바라보는 계시는 그럼 옳지 못한 계시라는거야?”

“이바와 아다무스가 보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직접 살고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테니 계시가 우리의 운명까지 봐주지는 못하지.”

“계시에 그렇게나 집착하던 네가 마치 계시라는 잔혹한 운명에 끌려다니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던지다니 극적인걸?”

“애초에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이젠 내게 저주나 다름없어.”

“그럼 이제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거라는 말이야?”

“분노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미덕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에서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야.”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 천천히 썩어 문드러

져 가고 있었던건가? 그래서 그 줄다리기는 어떻게 되어가고있어?”

“네 몸 여기저기 내가 새긴 상처만봐도 아직까지 미숙하기 그지없다고 말 할 수밖에 없겠네.”

“음, 그럼 내가 조금이나마 덜 다치게 되려면 차분한 인내가 필요한걸까 아니면 적절히 쏟아낼 분노가 더 필요한걸까?”

“그걸 알아가는건 이제 내 몫이겠지. 인내의 미덕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니까 그걸 버릴 생각은 없지만 내가 나아갈 길을 판단하는 지표가 더이상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가 되지는 않을거라는 뜻이야.”

“하지만 그걸 알아가는건 네 몫만이 아니야. 함께 성전에 오른이상 더이상 그 누구를 위한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야영을 마치고 해가 어스름하게 피어오르자 태양이 가라앉은 뒤 식어버린 육신을 따스하게 녹이고 있음이 느껴졌다. 너무나 따스하여 그 빛에 취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잊고 돌아가 편한 자리에 누워있고 싶었지만 고개를 세차게 젓고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얄궂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바라본 계시가 주마등처럼 갑자기 나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가뜨 역시 나의 곁에

서 멍하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입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가뜨! 정신차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장! 어디야? 거기에 있어? 나 눈이 안보여. 아니 잠깐만. 이거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안보여!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보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그녀를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화들짝 놀라더니 정신을 차리고 내게 물었다.

“너도 봤어? 너도 봤냐고?”

“알았어. 일단은 진정해. 손 놓지말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는 꿈을 통해 보이는게 아니야? 그것도 동시에 그것도 같은것을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거지?”

“내 인내에 분노가 미묘하게 섞인 탓인가봐.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이거 분명히 좋은 징조는 아닌거지?”

“응…. 확실한건 나도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너무 한쪽에만 쏠려있어서 불안정하게 흐르다가 둑이 터지듯 계시가 온 건가봐.”

계시를 나누는것으로 고통은 없었지만 계시를 보고 그것대로 흘러가는 운명을 바라보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고통이었다. 우리는 분노와 인내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면서 이 저주받은 인과를 끊기위해 계속

성전의 길에 올랐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에게 손을 건네 그녀를 일으켜세웠다. 다잡은 손에 느껴진 너무나도 큰 무게감이 느껴졌던것은 엉켜서 뒤섞여버린 계시 때문이 아니라 어느샌가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져있는 미소 때문이었다. 나의 지나친 인내 혹은 분노가 그것을 앗아가 버린탓에 나는 여전히 내 분노의 화살을 돌릴곳을 끊임없이 찾을 수 밖에 없을것이다.

『 군주론 』

변화는 생각보다 안락하고 포근했으며 온 몸을 휘감고있는 생명은 주체할 수 없을만큼 넘쳐흘렀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외형이 사뭇 달라졌고 정화에 불필요한 것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실그라드의 정화를 위해서라면 터무니없이 작고도 하찮은 일에 불과했다. 발시아의 것이라고는 부를 수 없을듯이 변해버린 살갗을 찬찬히 뜯어보고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얼굴에 퍼져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주위의 난리통은 이미 나의 관심밖을 벗어난지 오래다. 상투스의 사제들과 아벨의 현신이 남긴 찌꺼기 따위가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어머니 대자연의 젖줄을 빨아먹은 나는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의 무리를 데리고 망설임없이 방해물들을 배제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벨의 현신에 대한 혼란을 충분히 빚어내고 있었다. 아벨의 은총을 입은 빛의 사자들은 이렇게나 맥없이 흐드러졌다. 바닥을 나뒹굴고 있는 그것들에게서 다른 냄새가 나 이질감이 느껴져 묘한 불쾌함이 나를 휘감았다. 변해버린 몸뚱이는 더이상 아르카나의 중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아르카나용해 파이프가 필요 없었지만 습관처럼 그것에 꺼내어 입에 대려다 가벼운 조소와함께 파이프를 쥐고있는 손에 아르카나를 조금 흘려보냈고 이내 그것은 푸른 빛을 띄며 타오르더니 예쁜색의 가루가되어 바람과함께 흩어졌다.

“구원이라는 것이 고작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이딴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라면 아벨의 자손들에게 더이상 구원따

위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군 그래.”

“아벨의 자손은 저마다 바라는 구원의 형태가 다릅니다. 저것들은 그저 상투스와 구원에대한 욕심따위가 구현화된 것들일 뿐입니다.”

손에 묻어있는 푸른 빛깔의 가루를 털어내는 와중에 아키스트 하나가 내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 할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뭔가 신경 쓰이시는 일이라도?”

“아무리 뒤틀린 빛이라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비추는 빛일진대 어째서 저것은 이데아에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군.”

내가 턱끌으로 아벨의 현신이 낳은 무언가를 가르키며 물었다.

“아마 본능이겠지요. 비록 아벨의 현신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일지라도 아벨의 의지에따라 불경한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대응을 보았을때 불경한 것이라는 것은 아벨의 권능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비추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나?”

“저희는 우매하여 구원의 종착지까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대지를 따스하게 비추는 뒤틀린 빛보다 제 앞에 어머니 대자연과 같은 생명을 지닌것이 더욱 구원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네도 이미 봐왔지 않은가? 내가 이 모습으로 퀴나즈의 아

키스트들과 쉬이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품고있는 두려움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지.”

“그렇지요. 저희들도 처음에 당신을 보았을때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머물러있는 아르카나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맑은 빛깔의 아르카나호수 가운데에서 미소짓고 있는 푸르른 이실그라드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죠.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비단 퀴나즈의 부흥과 이실그라드의 정화만을 바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이실그라드가 낳은 아르카나는 호기심 그 자체. 당신이 품은 아르카나와 변화와 가능성에 이끌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는 퀴나즈의 내부 정치적 성향의 분석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내었다.

“그 후로 세월이 제법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퀴나즈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습군.”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무릇 군주로서 마땅히 지니셔야 할 덕목입니다. 더불어 압도적인 힘을 지닌 군주는 외로운 법이지요. 있어야할 곳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하니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휘하 부서의 아키스트들에게 맡기시지요.”

“나는 군주 따위가 아니다 그저 이실그라드의 정화를 바라는 그대들과 다를 바 없는 퀴나즈의 많고도 많은 아키스트들 중 하나일 뿐이지.”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도 당신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 이상의 이상을 지니고 있기에 아무리 발시아와 동떨어져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추종자들은 생기는 법이지요.”

“이상이라. 그랬지. 하지만 퀴나즈에는 이미 르네가 있다. 그녀는 방대한 마력을 품은 자이자 자애로운 군주가 될테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여리신 분이지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애써 모른척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카나를 다루는 다른 이들과 규합하여 아르카나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는거겠지. 녀석답군. 마음이 여린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녀석은 퀴나즈의 어느 누구보다 허울이 없고 정이 많은 아이이다. 아르카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지닌 이로부터 더욱 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것일테지.”

내 말을 조용히 듣고있던 아키스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뒤이어 그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모를 말을 덧붙였다.

“…그녀를 지켜주게.”

그 말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생각이 많은듯한 얼굴을 하며 아무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찰나의 침묵의 순간이 바람과 함께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정화의 작업을 진행중이던 이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작업현황을 보고

하기 시작했다.

“칼린님. 아벨의 현신이 낳은 부산물과 빛의 사제들 사이에서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것이 느껴집니다. 이 정도면 칼린님이 말씀하셨던 계약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알겠다.”

세트의 후예와의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이데아의 보살핌으로 얻게된 이능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법 멀리 떨어진 거리였지만 나는 은둔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나는 그녀의 보고에 짧게 답한 뒤 잠시 간격을 두고 숲 그림자에 드리워진 어둠을 향해 차갑게 물었다.

“그럼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는가?”

“훌륭하군. 이것으로 뒤틀린 빛은 어느정도 잠잠해지겠지.”

“까불지마라. 네놈따위는 감히 나를 평가질할 수 없다.”

“평가가 아니라 존경의 의미라네. 계약을 이행한 보상으로 자네는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세트의 후예도 아닌 무언가로 탈피했으니.”

“더이상 방관하는 이들 따위와 마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닐테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금 얼굴을 마주할 날이 있을걸세. 그럼, 그때까지.”

내가 아르카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대로 쏟아내자 주변에서 작업을 진행중이던 아키스트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허공에 손짓을 하며

신경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다시금 정화 작업에 집중했다. 뒤틀린 빛은 대지를 따스하게 비추어 비록 생명이 움트고 있기는하나 이데아를 이루는 섭리와 조화롭게 섞이지 못하고있다. 무릇 살아가기위해 필요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르카나의 흐름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면 알고 있듯이 만물의 생리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광휘는 만물의 생리에 반하고 있었고 이실그라드는 물론이요 퀴나즈의 아키스트들까지 아르카나의 통로를 조르며 방해하고 있었다. 이렇듯이 만들어진 빛이 비춘 땅은 우리에게 오염된 땅이나 다름 없었기에 아르카나를 주입시켜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데 당연하게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아벨의 자손을 위한 구원이 도래했다지만 그를 향한 믿음은 이렇게나 얄팍했던 것이겠지. 아무것도 하지않으면서 그들이 대체 무엇을 바랬던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군. 그거 아나? 역겨운것은 아벨의 현신이 뿌려놓은 빛의 부산물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생명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나조차도 저것들에게서 신성함 따위를 느낄 수 없군.”

그것을 곁에서 듣고있던 아키스트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불편하시다면 남은 잔해들은 지워버릴까요?”
“상투스의 눈먼 자들이 남겨진 저 잿더미를 보고 무언가 느끼게 만들고 싶지만 역시 그냥 두기엔 불쾌하군. 배제하라.”

내가 손짓을하자 그 말을 조용히 듣던 아키스트는 조용히 물러나 일대 정화작업을 이어나갔다. 이름모를 그 자가 내게 말했듯이 정화는 순조로웠고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상투스 뿐만 아니라 이르메스와 마르나크를 더불어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에게 불어놓은 가벼운 입김은 폭풍우처럼 크게 불거지게 되면서 혼란으로 뒤덮였고 지금은 간신히 남은 흔적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그 일대를 정화하고 있다.

“과거 위대한 델레놋의 이 광경을 본다면 눈을 감기도 못하고 영묘에서 다시 일어나겠지. 아벨의 자손은 누구하나 끌어주는 이가 없으면 무너지는 꼴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않은가?”

내 스스로도 그 말을 하고나서 더 이상 발시아를 동정하지 않는 행동과 말투를 내뱉음에 새삼 씁쓸한 감정이 솟아오르며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 역시 계약이 빚어낸 대가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군.”
그러고는 나는 일대의 아르카나를 증폭시키며 그들의 귓가에 닿을 목소리를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에 익숙치않은 이들은 다소 당황한듯 귓가에 손을 연신 가져다대며 신기해했다.
“빛의 찌꺼기들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결국 이 일대는 어느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죄악의 핏빛 둥지를 모조리 배제시키면 이실그라드 주변은 어느정도 깨끗해 질 것이다. 빛으로 피해를 입는 퀴나즈의 복구는 그 다음이다. 원인을 뿌리뽑지 못하고서 미래

를 그릴 자격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하나의 목표에 수렴한다. 그것은 바로 침식하는 죄악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의 눈에 생명이 깃들고 있음이 느껴졌다. 지금 당장 둥지의 심장부를 꿰뚫을수는 없지만 상처입은 이실그라드의 수복에 한 걸음 다가서는 셈이니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결국에 더러운 것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서 살아 숨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나 일사천리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일조한 아키스트들 속에서도 급진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자들 노고가 컸다. 그 자들이 아니었더라도 변질된 나의 외형을 두려워하며 반발하는 보수적인 이들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나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질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도 내버릴 준비가 되어었었다. 그렇게 나는 뒤섞인 아르카나의 잠재력과 이실그라드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급진적인 세력의 대다수를 설득할 수 있었다. 문득 미친 생각에 정화작업을 진행중인 아키스트들 중 눈에 띄는 이 하나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들은 여전히 나의 완전한 탈피가 두렵지 않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실그라드의 시듦이 초

래할 아르카나의 고갈과 소멸이지 당신의 변화 따위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답이로고. 이실그라드의 아키스트들 중 자네들같은 자가 더 있는가? 이실그라드의 정화에 힘을 불어줄 무리들 말이다.”

“아시다시피 아키스트들의 대다수는 보수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이실그라드의 부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이실그라드의 정화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일단 저들에게 있어서 아르카나 중독의 해결이 외부와의 전쟁보다 조금 더 우선시되는 사안이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나 내 안타까움이 아르카나에 전해졌는지 내 주위로 푸른 빛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데아의 모든곳에 울려퍼지는 비명소리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분란의 씨앗이 피어났고 아르카나의 속삭임에 섞이어 귓가에 고요히 울려퍼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건가…. 영원의 전쟁 이후로는 이제 더이상 우리는 이전처럼 이실그라드의 품에서 노닥거릴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아르카나의 중독을 줄이는건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최우선 되야할 것은 이실그라드의 정화일텐데.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은 아무래도 이실그라드의 품에 너무나 오래 있었던 탓인지 그녀의 곁에서 아르카나를 착취해오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해온것이 누구의 덕

인지 깨닫지 못한 모양이로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있던 어린 소녀가 우아한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가볍게 숙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칼린님. 찌꺼기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벨의 현신을 포함하여 나머지도 그것을 따라서 샤마인의 땅을 밟고 카에람으로 향하는 듯 합니다. 다만, 그 여정은 평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정도면 됐다. 이제 빛의 구원은 스스로 추락할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기분좋은 발걸음을 하려는 찰나에 역겨운 냄새가 아르카나와 함께 스며들었다. 다들 그것을 느꼈는지 시선은 한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불쾌한 이 자리에 숨쉬는 탐식의 죄악을 짊어진 이상의 식욕자들이었다. 정화작업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양의 아르카나를 흩뿌려댔는지 그 냄새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상식욕자들이 스물스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키스트들은 당황하지않고 어느새 전열을 갖추며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것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불쾌한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바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압도적인 숫자에 다들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요란한 심장박동 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들의 아르카나가 발하는 불안속에서도 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더러운 땅에 순수한 아르카나를 거침없이 쏟아내자 그 모습을 바라

본 아키스트들은 한 풀 꺾여진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대자연과의 계약을 맺은것은 단순히 아벨의 자손사이에 분란의 씨앗을 뿌리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겠군. 자, 그럼. 아키스트들이여. 눈에 불을 켜라. 정화를 계속한다.”

“퍼부어!”

고양감에 가득찬 아키스트 중 하나의 외침에 허공에 어지러이 아르카나의 도식들이 바쁘게 악보를 채워나가듯 어지러이 춤을추며 한가득 메워지고 그 위로 푸르른 포화가 어두운 밤하늘 오염된 고향땅 아래로 무수히 쏟아져내렸다. 흩날리는 붉은 피와 푸른 아르카나의 선율이 뒤섞이면서 그 뒤로 남은것은 보랏빛 잿더미 뿐이었다. 그것은 새벽빛을 맞으며 더욱 밝은 보랏빛을 은은하게 뿜어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상식욕자들의 숫자는 아무리봐도 이상했다. 아벨의 헌신이 낳은 구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다.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아키스트들이 죽거나 다쳤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잡념은 오랜 역사속에서 퀴나즈와 상투스의 살얼음판과도 같은 아슬아슬하고도 불안정한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나도 모르게 이를 뿌득거렸다. 그들은 아벨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

는 사실을 모른다. 아니, 이미 알고 있어도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주 오랜동안 말이다.

“아벨의 현신이 낳은것은 아벨의 자손을 위한 구원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죄악의 무리들을 더욱 취하게 만드는 독이 든 성배였나.”

나는 이 감정 그대로 일부러 남겨둔 이상식욕자에게 다가갔다. 르네의 아르카나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이곳의 혼탁하고 부정한 공기 때문일 것이다. 비릿한 짐승놈과 말이 통하지 않았기에 나는 아르카나를 흘려보내어 그것의 신경에 연결시켰고 무의식속에서 그것의 정보를 슦아낼 수 있었다. 그것과 잠시 연결되어있는 짧은 순간에도 그것은 불쾌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말들이 여과없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아…. 듣던대로 너희들은 맛있어보여. 한입만.’

나는 그것의 팔과 다리를 순식간에 잘라버렸다.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있는 와중에도 그 녀석은 솟아오르는 죄악의 본능으로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침을 흘리며 내 몸 이곳저곳을 훑어보고 있었다.

‘물어 볼 것이 있다. 이곳에서 우리같은 옷차림을 한 푸른 눈을 하고 있는 짧은 금발의 소녀를 본 적이 있나?’

‘물론 들어본적 있어. 검은 짐승과 함께 참기 힘들만큼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웅덩이를 헤집고 다니던데 모를수가 없지. 그녀라면 누군가에게 어디에서 먹히지 않았으려나?’

그것은 르네를 상상하며 게걸스럽게 웃어대며 침을 뚝뚝 흘려대자 나는 망설임없이 아르카나를 놈의 아가리에 쑤셔박아 터뜨려버렸다. 그것의 잔해가 비처럼 쏟아져 흘러내렸고 나는 그 더러운 것이 옷을 적시지 않게끔 우산처럼 아르카나를 펼쳤다. 그리고 나는 짜증섞인 목소리로 일대의 아키스트들에게 고했다.

“들으라. 계획대로 뒤틀린 빛에 적당한 분란을 조장하여 계약을 문제없이 이행 했으므로 더이상 이곳에 볼일은 없다. 허나 이렇게나 불쾌한 것들이 이데아에 숨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하니 이실그라드의 한결 나아진 낯빛을 목도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죄악을 배제해 주길 바라는 바네.”

내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있던 아키스트 하나가 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예정보다 오랜시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렇지 않으시겠지만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혼탁하여 많은 아키스트들에게 흐르는 아르카나의 맥이 막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네만 이번만큼은 그냥 따라주게. 지금부터 하는것은 정화가 아니라 단순한 화풀이다. 발시아의 껍데기는 진작에 버린줄 알았으나 르네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더러운 이 땅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군.”

그 말을 들은 아키스트들은 내심 안심한 듯 하다. 변모한 것은 그저 외

형일 뿐 내 안에 있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듣게 된 이들에게서 비록 불편한 곳에 머물고 있지만 왠지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절제하지 못하고 날뛰는 이상의 식욕자들에게 잊지못할 아르카나의 맛을 혓바닥에 아로새겨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방금 생각을 바꾼 참이니 이 뒤에 펼쳐질 풍경은 정화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은 결코 아닐테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떠나도 좋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발을 되돌리는 자들은 없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아르카나의 맥을 뚫기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설득은 제법 성공적인 모습이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와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 있는 아키스트들은 나의 중요한 장기말이자 정치공작의 훌륭한 초석이 될 것이라 여긴다면 낯선 땅에서 흘릴 피는 제법 수확이 있는 셈이었다.

『 사냥하거나 사냥 당하거나 』

“저 지경까지 되어서도 죽지 않는다니 너무하잖아.”

“조급해 하지마, 르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아르카나 결정석까지 쑤셔 박아넣은 지금이 아니면 저 창자를 뜯어낼 기회는 앞으로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녀의 안절부절 못하며 집착하는 모습에 참지못한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거야. 지금까지 참아오며 몰아세운 시간을 수포로 만들 생각이 없으면 말이야.”

우리들 앞에 있던 자미라가 사냥감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가볍게 손짓을 하며 우리들을 진정시키고는 조용히 입을 뗐다.

“걱정하지마. 르네. 우리는 사냥꾼이야.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퀴나즈의 퀴나즈들에게 저것의 위장은 무엇보다 값어치있는 재료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존이야. 알다시피 지금 우린 죄악의 심장부에 있어. 잠깐이라도 제대로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저들의 아가리에 집어 삼켜질거야.”

“저런거 비슷한거라도 사냥해 본적이 있던가 우리가?”

“없어. 그만큼 우리는 사냥감을 너무 깊이 둥지까지 쫓아왔다는 말이겠지. 사냥감은 둥지밖보다 둥지안이 제일 위험해.”

“그렇다해도 저걸 그냥 두고 갈수는 없어.”
르네가 울분을 토해내며 낮게 흐느끼자 자미라가 잠시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그녀에게 물었다.
“저것의 창자를 직접 뜯어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저것의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적어도 아르카나를 용해할 수 있는 비밀을 풀어낼 실마리 정도는 되어줄 수 있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거야.”

“좋아. 그렇다면 결정됐네. 우리는 필요한 것만을 취해서 돌아갈거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니까 더 좋은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 잘 알아둬.”

자미라는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하고 정리다가 잠시 주춤거리며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르네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냥을 하기전 좀 더 기척을 지우자. 그리고 르네 너는 지금 당장 이 실그라드의 품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해야 될거야.”
“괜찮아, 자미라.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그렇지않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줄곧 말한 걸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지만 네가 쑤셔박아넣은 아르카나의 결정체와 공명하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너는 당장에라도 터질 것만 같거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하는 르네를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그래도 예뻐.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것이 백옥의 피부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고 르네 너 역시 우리 몸 안에서 아르카나를 순환하는 법을 알기전까지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못할거야.”

“알았어. 이실그라드의 품에 닿는대로 모든 아르카나를 쏟아 호수의 요정들을 보내줄게. 행여 사냥에 실패하더라도 그 더러운 것들이 너희들한테 털끝하나 손도 못댈 정도로 짙은 아르카나를 품은 요정들로 말이야.”

그녀는 등을 돌려 이실그라드의 품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는 들썩거렸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항상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그녀의 등은 작았지만 언제나처럼 넓어보였다. 자미라는 르네의 뒷모습을 바라보지않고 오직 사냥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이 막내동생처럼 뿌듯하게 느껴졌는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고마워. 역시 든든하네.”

“르네!”

내가 돌아가려는 르네를 잡아세워 활짝 웃어보이며 물었다.

“집에 가는 길은 알지?”

“애 취급하지마.”

“하하! 우리들 중에서도 네가 제일 꼬맹이잖아?”

“그건 그러네.”

“그럼 또 보자.”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답하자 나는 힘찬 목소리로 그녀를 배웅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마음을 굳힌 듯 좋은 눈을 하고는 이실그라드의 품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않아 자미라가 입을 열었다.

“훌쩍 가버렸네.”

“응. 착한 아이야.”

“나는 백옥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무서울 것만 같았어. 더구나 퀴나즈들은 콧대가 높다고 하기에 다들 똑같은 줄 알았어.”

“이전과 봤던 눈과는 다른 눈이지? 따스하고 다정한 눈빛이야.”

“정말 자미라가 말한 그대로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눈이었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맑음을 위해 계속 싸우자고 했던 약속도 물론 기억하고 있지?”

“물론이지!”

“그렇다면 친구에게 가져다 줄 선물을 준비해볼까?”

“좋아!”

르네가 없는 지금 우리는 생명의 바람을 좀 더 피부에 얇게 둘러싸 기척을 지웠다. 우리는 지금 바위고 흙이고 들풀이고 부드럽게 일렁이는

산들바람이다. 자미라와 나는 최대한 기척을 지우며 녀석에게로 다가갔다. 놈은 허기를 완전히 잃어버린채로 넋이 나가서 멍청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무방비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만큼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본능적으로 그것에게 다가가기를 거부했다. 식은땀이 엄청나게 흘렀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리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진동이 들려왔다. 이것은 내 심장소리구나 싶다가 다른 소리가 나의 귓가로 섞이며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저 녀석의 심장 소리라는것을 깨닫게 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윽고 자미라의 목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들리더니 이내 그녀의 얼굴이 나의 코앞까지 와 있었다.

“뭐해?”

“응? 뭐야 방금? 꿈이라도 꾼건가?”

“오히려 내가 묻고 싶은데? 사냥을 앞두고 뭐하는거야?”

“나도 모르겠어. 몸이 순간 나른해지다가 싸늘해 지더니만 저거랑 나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그리고?”

“사냥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아니 오히려 실패하는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머리에 선명하게 그려져.”

자미라가 사냥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말을 제대로 듣지않고 이해

한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다시 내게 되물었다.
"뭐? 다시 말해봐, 뭐라고?"
"말했잖아. 죽일 수 있다고."
"셋이서 한참동안 뒤만 밟아왔는데 저걸 죽이겠다고?"
갑자기 그녀가 눈에 불을 밝히며 즐거운듯이 나를 재촉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금 보고 온 것 같아."
"그나저나 신기하네.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야. 아미나, 방금 네가 경험한 것은 지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역역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혹시 들어본적 있어?"
"그거라면 아르할라에 새겨진걸 스쳐 지나가듯 본적이 있어."

"그래, 아라샨의 모래투사들 중에서도 손꼽는 이들도 깨우치지 못하는 단계라 그저 노망난 늙은이의 말이라고 치부하는 자들도 생겨난 사냥의 저편 혹은 정수라고도 했었지."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지금 그것도 나에게?"
"놀라울 것도 없지않아? 아미나 우리는 아룬 모라를 시작으로 아르카나라는 것이 처음 생겨난 이곳까지 굉장히 먼 길을 오면서 셀 수도 없을만큼의 사선을 넘어왔어. 그만큼 우리는 많이 배우고 느낀거야. 그것보다 그 외에 뭐 달라진 느낌같은건 없어?"
나는 우스꽝스럽게 주먹과 발길질을 허공에 날려보기도 하고 호흡법을

이리저리 바꿔보다가 이내 멈추고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음! 조금 달라진것 같아. 완전히 이해했어!”
그 말에 인나나는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활짝 웃었다.
“풋!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도 그것마저 너 다워서 바보같아.”
그녀는 다시 사냥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의 변화 때문인가 아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 나 같은 것도 이런 새로운 경험에 눈을 떴는데 그녀는 언제나 차가웁고 냉정한 그 모습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아마 사냥터의 전황을 멀리 바라보는 혜안을 더욱 깊게 깨우쳤을런지도 모른다.
“헤헤, 자미라와 사냥을 하는건 언제나 즐거워.”
“나도 마찬가지야. 내 입장에서는 사냥터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으니까 너와 함께 사냥하는 것은 이용할만한 수단이 많아져서 항상 새로워.”
“생존과 사냥을 동시에 하는 이 기분은 정말 오랜만인것 같아. 말하자면 지금 저것과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냥해야하는 상황인거지.”

“…냉정하고 신중하게.”

“좋아, 그럼 움직여볼까.”
인나나와의 사냥법이 나와 잘 맞는 이유는 넓은 시야를 가진 그녀가 자유분방한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용하고 수용하며 맞춰주기 때문이

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섞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채 본능적으로 사냥을 재개했다. 앞선 내 말을 신호로 우리들은 달빛에 물든 랍시르 사구를 미끄러지듯 우아하게 사냥감을 향해 다가갔다. 모든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여길때쯤 그것이 입을 열었다.

“이전에 맡았던 맛있는 냄새가 두개. 어라? 하나는 어디에 있지?”

그것은 무심한듯이 서툴지만 정확하게 헤아리며 우리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르카나로 우리의 흔적을 지웠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의 냄새를 맡았다. 아니, 좀 더. 어째서인지 입가에 미소가 섞여나와 나도 모르게 크게 웃음소리를 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어? 조금만 더. 흐릿하게…. 이런 느낌인가?’

“둘. 하나? 뭐지 방금까지만해도 여기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겨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그렇게 나는 다시 의식 밖 저편으로 날아갈 뻔 했다. 다시금 돌아오게 된 것은 내가 휘청이며 불경한 것에 이마를 부딪히게 된 탓이었다.

“아미나!”

자미라가 소리치며 신속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우리 사이로 파고들어와 나를 향해 뻗은 촉수를 손날로 잘라냈다. 찰나의 순간, 나 역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나를 안고있는 자미라였다. 그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를 가볍게 털어 올리고는 웃으며 내게 물었다.

“어서와, 또 다시 그걸 보고 온거야?”

“응! 다녀왔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조금 불편하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렵다, 어려워.”

“방금 눈을 뜬 것이니 조금씩 익숙해지며 알아가야겠지.”

그리고 그녀가 조용히 눈짓을 보내자 나는 그녀의 시선이 간 곳을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냥감이 위장에 구멍이 뚫린채 쒸익 거리면서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연신 내며 죽어가는 살덩어리가 있었다.

“…저거 내가 한거야?”

“응. 정말 순식간이었어. 산들바람이 일더니 순간 돌풍이 오더라.”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있다 온 몸이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위험한 힘이구나.”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때가 올거야.”

“그나저나 저건 어떻게 데려가지? 저 모양인데도 아직 계속 하려나본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몸뚱아리인거야?”

“그만큼 아르카나의 맛을 알아버린 죄악은 그것을 향한 집착이 엄청나다가 강해졌다는 거겠지.”

“그런가…. 그럼 계속 다시 가볼까?”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네가 잠깐 의식을 놓친 사이에 새어나온 아르카나 때문에 둥지 주변의 다른 놈들까지 깨

운 것 같아. 오는대로 깨부숴도 상관없지만 너무 깊이 들어온 탓에 어떻게될지 모르니 일단은 안전하게 가는게 나을거 같아. 사냥은 됐으니까 최소한 녀석의 팔 쪽이라도 뜯어가자고.”

“그래!”

그렇게 우리는 한참이나 그것과 사투를 벌였다. 그 와중에 냄새를 맡고 기어온 녀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고 상대해야하는 불경한 것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만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것들은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냥감인 그것에게도 아가리를 들이밀며 살점을 뜯어내고 있었다. 이 와중에 그것은 다른것들이 우리 곁에 다가오지 못하게 찢어발기며 저들의 언어로 짖어대기 시작했다.

“나이낙! 쉬탁 미나!”

“도대체 왜들 저러는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건 저놈도 변해져버린 몸뚱이탓에 동족에게 노려지고 있는 모양이고, 또 다른 사실은 저놈은 우리가 다른놈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아.”

“어찌됐든 우리를 지켜주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돌아갈 거라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면 르네를 볼 낯이 없어.”

“아미나, 지금은 자리를 뜨는게 좋겠어. 저것의 한쪽팔이 우리 목숨값

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싸구려잖아? 다음을 기약하자.”
“알았어. 자미라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려는 찰나 그것은 수많은 암덩어리들을 기괴하게 채우면서 우리의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피하고는 그것이 만들어낸 흔적을 보고 인상이 팍 구겨졌다. 바닥에는 검붉게 새겨진 그것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마찰열 때문에 타오른 핏방울과 살덩이가 역겨운 냄새를 뿜어댔다.
“쯧, 그렇다고 보내줄 생각도 없나?”
더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도 않을때쯤 절망은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것은 그녀는 핏빛의 장막을 펼치며 하늘을 포근하게 덮는듯한 극적인 연출과 함께 등장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녀가 둥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렵지않게 알 수 있었다.

“게르사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그녀는 검붉은 눈알을 빙글 돌리더니 나를 가만히 내려다 보고는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다.
“…음, 재료. 식사? 훌륭한.”
짐승에게서 나온 아라샨의 언어는 우리를 소름끼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분명 저것은 퀴나즈의 퀴나즈 뿐만 아니라 아라샨의 전사들도 먹어치운 것이었겠지. 먹은 것을 취하고 그것으로부터 학습하여 우리의 말

을 뱉어낸 것이 그 증거였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다시금 반기는 훌륭한 재료에 대한 예찬에서 뱉어낸 말이었겠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녀가 뿜어낸 살기와 어느순간 도처에 펼쳐져있는 장막과 생기있게 팔딱대는 붉고 거대한 핏줄기 다발이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풍경이 빚어내는 공포감으로 몸이 굳어져갔다. 그것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쳤고 자미라는 내 어깨에 손을 대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생명의 바람을 다시금 빌어모으며 기합을 내질러 공포감을 벗어던졌다. 그 풍압을 견뎌내지 못하고 밀려난 불경한 것들은 불쾌한 비명을 질러댔다.

“합!”

처음부터 죽을 생각은 없었지만 일렁이는 산들바람에 정신이 맑고 또렷해졌다. 나와 자미라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역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발버둥을 위한 다짐이었다. 바람을 가만히 즐기고있던 탐식의 군주는 우리들을 바라보더니 흐뭇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익숙한 푸른 빛이 우리 주변으로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나는 코를 킁킁거리고는 이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되었다.

“르네?!”

반가운 나의 외침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더욱 많은 바람이 일렁이더니 어느새 눈에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허공으로 예쁜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눈부신 푸른 빛 광채와 함께 르네와 다른 퀴나즈들이 집결했다.
르네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다.
“안 죽고 적당히 잘 살아있었구나, 너희들!”
그 말에 나는 눈물까지 그렁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그녀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된채로 답하자 그녀도 같은 꼴을하며 답했다.
“여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다니? 내 고집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일인것처럼 사지에서 날뛰며 피 흘리는 자매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퀴나즈의 퀴나즈 이전에 인간으로서 실격이라고!”

자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악물고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런 상황에서조차 이곳으로 굳이 발걸음을 한 경우라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 또한 있다는 말이겠지?”
“맞아. 다만, 이 녀석은 가동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오는데 오래 걸린거야,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목숨을 빚졌군. 고맙다.”
“아니, 감사해야 하는건 이쪽이야. 너희들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저놈의 창자를 뜯어내지는 못했어도 바람 구멍을 시원하게 내주었다는 것

을 아르카나의 눈을 통해 볼 수 있었어."

"우와! 음침해. 아르카나로 다 엳보고 있었구나, 르네!"

내가 입을 비죽거리며 그녀를 놀리자 그녀는 주눅들지않고 밝은 얼굴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인 뒤 허공에 아르카나의 도식들을 채워가며 당차게 말했다.

"처지를 가릴때가 아니라서 말이야. 지금부터 뜯어낸 이 조그만 살 덩어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거야."

"하하. 집이라…. 역시 돌아가고 싶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눈이 녹아내리듯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편해졌다. 그만큼 이실그라드의 품은 안락하게 느껴졌다. 백옥의 껍데기를 지닌 이들과 섞여가며 어느샌가 익숙해진 것이다. 여전히 탐식의 군주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우리를 여기저기 훑어보고 있었으다. 나는 자미라와 함께 르네와 그녀와 동행한 아키스트들이 마법의 진을 빼곡하게 수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쏟아지는 탐식의 죄악을 끊임없이 밀어냈다. 숨이 턱 끝에 닿아 숨을 크게 들이쉼과 동시에 나의 몸을 따스하게 휘감는 아르카나가 느껴졌다. 마침내 우리 주위로 아르카나의 글귀가 어여쁘게 쏟아졌고 비로소 공간의 전이라 부르는 고등마법 영창은 완성이 되었다. 차원은 분리된 것을 아는지 아니면 냄새를 밭은 건지 혹은 본능적이었는지 죄악의 무리들은 우리를 감싸고있는 마법의

진 주위를 배회하며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자미라는 피곤한듯 무너지듯이 털썩 주저앉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저 즐겁게 내려다보던 탐식의 군주를 쏘아보았다.

“그럼 또 보자.”

공포에 휘말릴뻔했던 그것에게 왜 다시보자고 했는지 스스로에게 놀랐다. 끝으로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는 빛무리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자 이실그라드 주변에 닻을 내렸다고 한 장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나는 그제서야 내가 주먹을 있는 힘껏 쥔채로 펴고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게되었다. 그 때, 갑자기 르네가 맥없이 쓰러졌고 아키스트들이 그녀를 부축했다.

“르네?!”

그녀와 동행한 퀴나즈의 아키스트 중 하나가 우리를 저지하며 말했다.

“공간의 전이는 당신들이 상상할수도 없이 방대한 양의 아르카나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것은 금지되어 온 마법입니다. 잘못하면 술사의 생명을 모두 빨아먹기에 죽을 수 있거든요. 생명의 바람을 다루는 당신들이라면 지금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텅 비어있는지 아시겠지요.”

“미안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애로운 그녀와는 달리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에

게 있어서 당신들은 이방인에 불과하거든요. 임시지만 퀴나즈의 장로의 입장에 있는 그녀가 앞 뒤를 가리지도 않고 목숨을 걸어 가면서까지 당신들을 지키려 했는지 모르겠군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자미라는 흑옥의 껍데기를 두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온 편견과 부조리에도 그저 익숙하게 입에 담아왔던 그 어떤 사과보다 가슴이 아픈 듯 어렵게 사과의 말을 꺼냈다.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과 자신들을 믿어준 이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다 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패잔병처럼 어슬렁거리다 그 자리에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말없이 멍하니 시간을 죽였다.

“그거 죽일 수 있었으려나?”

“글쎄….”

“그런가. 그런 힘에 눈을 뜨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다니 쓸모없잖아.”

자미라는 나를 배려하려는 듯 말을 아꼈다. 그녀의 깊은 눈은 어두워진 밤에도 빛났지만 생각하는 것이 많아보였다. 사냥이 실패한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오늘만큼 뼈아픈 적이 없었다.

“하하, 역시 조금 분해.”

“그렇네….”

내가 이를 악물고 쉿소리와 함께 한탄하는 말을 간신히 뱉어내자 자미

라는 싱그러운 미소와함께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아키스트에게서 받은 호의를 품에서 조용히 꺼내고 그걸 여러번 공중에 던지고 받다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갈까?”

『 벗어던진 순결 』

“안돼! 포기하지마, 아저씨!”

“미안, 깜빡 잠들었네. 나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들 누구야?”

가슴의 총상 때문에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있는 낯선 남자는 쇳소리를 뱉어가며 생면부지의 소녀가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상태를 조용히 확인하고는 마고의 어깨에 손을 올려 조용히 일러주었다.

“마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며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렴.”

“안돼, 그렇게는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 떨리는 목소리는 마고의 것이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윌츠에서 비밀리에 실험을 끝마치고 난 마고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많은 부분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고리 형태를 지닌 것이 그녀의 등에 심어져있어 그것이 마고의 신성과 아르카나의 교류 및 변환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살얼음판을 걷는듯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죄악의 낙인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대로인 상태였다. 마고안에 있는 장치가 혹여 그녀를 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녀는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힘으로 죄악의 낙인과 아벨의 권능 그리고 주변에 흩날리는 아르카나를 적절하게 융화시켜 사람을 살리는데 힘을 썼다. 물론 그

과정은 순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요낙의 낙인이 발현되는 가운데 마고는 피를 흘렸다. 그의 고통과 슬픔에 연민과 공감을 보내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오롯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고통을 나누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 뿐이지 물리적으로 고통을 공유할 수 없다. 하지만 베르생은 그것을 가능케하며 요낙의 죄악을 짊어진 마고는 베르생의 품 밖을 나와서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렸다. 그녀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은 예외가 없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것이라는 신념에 변함은 없었다.

“아벨의 현신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는거야?”

“유감이지만 이 땅에 강림한 아벨은 우리를 봐주지 않더구나.”

“왜? 어째서야?”

나는 미간을 잔뜩 구기며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었다.

“아벨의 구원은 기도하는 이들에게만 비추어 준다는구나.”

“나 기도 한 적 없는데 그럼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평생 구원을 받을 수 없는거야? 그건 너무하잖아.”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 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둥 마는둥 그녀는 말없이 묵묵히 품에서 죽어가던 이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것은 즉석으로 뒤섞은 신성과 아르카나의

융합이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니 라파르의 외과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듯한 모습이거나 혹은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정화를 위한 작업에 집중력을 쏟아붓는 듯 했다. 광휘와 짙은 푸른 빛깔이 뒤엉키며 그녀의 주변으로 어지러이 쏟아지더니 얼마 지나지않아 그는 다시금 가쁜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신성과 아르카나의 융합은 베르생의 사도라면 무릇 초자연적인 치유와 원복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닌 죽은자의 소생은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았던 시기에 눈을 뜬 마고의 능력이었다. 당연하게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아르카나의 정교하고 섬세한 융합이 필요함은 물론 상당한 시간과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었다. 그러함에도 마고는 다른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던 탓인지 그녀는 이따금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거칠게 끌어당겼다. 더불어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죽음으로부터 되돌아온 자들의 반응이었다. 감사와 대가를 바랐던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지금 이 자가 보이는 반응과 같았다.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살아났다는 사실에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당신들뭐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거지? 난 분명 죽었어. 당신들은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거야? 나를 내버려 둬!”

그는 믿기지 않는듯 자신의 두 손을 덜덜 떨면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단 그 남자뿐만 아니라 마고에게도 나에게도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하며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만 때가 되면 이내 그것을 받아들인다. 때이른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슬픔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지만 원치않은 소생 역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문득 처음 마고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죽은 자를 되살리는게 걸리는 시간은 찰나지만 죽음을 맞이한 이에게는 억겁과도 같이 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죽은자에게 연민을 품고 눈물흘리며 되살리는동안 그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마고역시 그 억겁의 순간에 잠시 갖혀있는 셈이겠지. 그 순간을 따지고보면 정신적으로는 나보다 아니면 영생하는 카인의 핏줄만큼 오랜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생각에 잠겨있을때 한참이나 무너져내려 중얼거리던 그 사내는 허리춤의 나이프를 꺼내어 다시금 죽음을 택했다. 마고의 축복을 받은이들은 이과같이 대부분 정신이 무너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모습을 줄곧 바라보던 마고는 내게 고개를 돌리며 슬픈 얼굴로 물었다.

“아빠, 나는 잘못된걸까?”

“그렇지않아, 마고. 너는 그저 죽음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야. 이

별을 할 용기가 조금 부족한것일 뿐이지 잘못된 건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구나. 그 상냥하고 절실한 마음은 죽은이에게까지 닿는구나.”

나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눈을 감겨주었다. 그리고 그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마고도 조용히 내 곁에 다가와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주변에 널브러진 폐허 근처에 삽을 가지고 그의 시체를 묻어주고 난 뒤 시무룩한 모습으로 앉아 무덤을 멍하니 바라보는 마고에게 물었다.

“마고는 아빠가 좋아?”

그녀는 갑작스럽게 건넨 질문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여러번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죽으면 아빠도 다시 되살려 줄거니?”

나의 물음에 마고는 그 때를 눈앞에 그리고 있는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을 떨굴 뿐이었다. 나는 마고를 세게 끌어안아주며 말했다.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이별은 올 수 있단다, 얘야. 하지만 그 때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마고가 되었으면 좋겠어.”

한참을 울던 마고는 먹먹하지만 조금은 씩씩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힘들겠지만 해볼게.”

“…강하네.”

“나는 여지껏 사람들이 구원과 기적을 바라는줄로만 알았어.”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과 기적을 바라고 있단다.”

“하지만 그 기적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을 아빠도 봤잖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것일수도 있단다.”

“작은것이라면 어떤걸 말하는거야?”

“예를들면 먼저 떠나간 사랑했던 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행복 혹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 뭐 그런것들이겠지.”

“…구원이나 기적은 작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시작인걸까?”

“그럴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원이나 기적을 바라는 이유를 알고있니?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공허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갈구하던 마음의 공허가 해갈이 되고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바라지 않을까? 아마도 그건 아닐거야. 채우면 채워갈수록 공허함을 느끼는것이 사람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갈구하는거지. 사람들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소생같은 큰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작은 기적과 구원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만들어주자. 어때?”

“알았어. 그저 죽음으로부터 회귀가 아니라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동안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란 말이지?”

“마고는 상냥한만큼 똑똑하구나.”

나는 마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플랑바통을 시발점으로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을 눈에 담아오면서 절망에 빠질것만 같았던 마고는 다행히도 무너지지않고 잘 자라주고 있었다. 폐허속에서 핀 여려보이는 꽃이지만 그녀는 강했다. 베르생의 이름을 버리고 나왔을때보다 조금 더 자랐지만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느낀것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그녀의 눈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달라진 분위기와 함께 그녀는 신성과 아르카나의 조율과 융합을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로이 다룰 수 있었다. 다만, 기적과 구원은 여전히 마고의 피를 요구했다. 그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녀의 등에 심어져있는 고리형태의 기계장치는 마고의 피에 뒤덮혀져 기괴한 모습을했다. 이것이 기적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왔지만 이 어린것이 기꺼이 그것을 짊어지고 더 많은 이들을 구하겠다고 굳게 다짐한 마당에 내가 우는 소리나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때 마고는 무언가 결심한듯 결의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응?”

“나 아벨의 현신을 보러 갈래.”

“그럴까? 천상의 형상을 짊어진 마고가 강림한 아벨의 현신에게 어째서 우리를 향해 웃어주지 않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비장한 얼굴을하고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저편에 빛의 장막이 비추는 곳을 노려보았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할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들은 피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관광을 하시겠다?”

“어니시?!”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거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어니시는 예전에비해 키가 조금 자랐을 뿐 풍기는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쥐새끼의 행방이 묘연한것이 그렇게 낯선 일이었나? 아직 세간에서 우리의 평판은 범죄자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어니시, 안녕?”

“별로 좋아보이는 얼굴은 아니네.”

마고가 인사를 하자 어니시는 무심한 대답과함께 눈으로 마고를 위아래로 훑다가 그녀의 뒤로 가더니 옷을 훌렁 들추고는 그녀의 등에 각인된 기계장치와 피로 점칠되어 엉망이 되어버린 가녀린 등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고는 내게 물었다.

“더구나 얘는 어쩌다가 이 꼴이 된거야? 윌츠에서 천상의 형상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고 가더니만 딸을 기계로 만들었네?”

“아빠를 욕하지마, 어니시. 이건 내가 원해서 한거야.”

어니시는 그 말을 듯고 어이없다는 듯이 멍청한 얼굴로 내게 답을 내놓

으라는 듯 나를 다시 빤히 노려보았다.

“그녀에게 피에 뒤덮힌 일상이 아닌 평범한 삶을 주고 싶었어. 욕심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베르생의 이름을 버린 상황에서 죄악의 낙인은 점점 그녀를 죄어오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뒷조사를 좀 해보니 그 미친과학자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 유통하다가 마련한 자금으로 인간을 닮은 것들을 만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더라고.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마고는 그의 관점에서보면 최상의 실험체였을테고. 뒷 이야기는 몰랐어도 적어도 그의 평판이 엉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텐데 그 작자에게 몸을 맡기고도 멀쩡하게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이네. 그렇게나 급했던거구나.”

“그래. 신성과 아르카나가 뒤섞여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엇 하나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구원해주지 못하더라고.”

“흐음…. 뭔가 굉장히 슬프고 고독한 힘이구나.”

“그나저나 지금 여기저기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구나 아그발은 수면위로 떠오르기위해 바쁠텐데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온거야?”

“그것 때문이야. 아저씨도 마고도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당신들 플랑바통의 전쟁을 겪으면서 여지껏 살아남았지? 당신들 뒤로 쌓여진 시체는 물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테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지금 당신들은 현재 전황을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를 지닌 전쟁병기 중 하나로 분류되었어. 천상의 형상을 짊어진 소녀와 그녀를 부리는 아비라는 이

름으로 말이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 당장에라도 아저씨도 마고의 목에도 현상금이 걸려있어도 이상할것이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온거야. 잠재적 전쟁병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화두에 올려진 참이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많든 적든간에 당신들을 향해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을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어니시는 내게 카드 한장을 건넸다. 나는 그 카드를 앞뒤로 찬찬히 확인하고는 어니시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한걸? 벌써 쥐떼를 거느리는 수장 중 하나가 된거네. 축하해."

"됐어. 그것보다 알다시피 나에게도 입장이 있기에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일거야. 전쟁병기가 아그발과 접촉했다는 것을 달가워 할 사람이 있을리 없을테지. 그리고 그건 아그발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일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과 너무나도 틀어진 상황에 마고도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더이상 마고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것을 지켜볼 수 없어서 당당하게 말했다.

"어느정도 예상하던 바야. 설마 누구도 섣불리 전쟁병기를 스스로 깨우려는 바보 멍청이는 많지않겠지. 아! 그리고 신경써줘서 고마워."

"신경 쓰는것도 당연하지. 나는 마고가 좋으니까."

"그 말은 마고가 천상의 형상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런것일 뿐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마고는 그냥 평범하게 예쁘잖아.”

“얼씨구.”

마고도 그 말을 듣자 생글거리는 얼굴을 하며 좋아했다. 잠깐이었지만 한발치 물러서서 아이들의 얼굴에 담긴 웃음을 바라보니 이전의 걱정은 눈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어린 것들이 저렇게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모습이 참으로 눈부셨다. 섬세한건지 둔한건지 알 수 없는 이녀석의 엉뚱한 성격때문에 마고는 물론 나까지 매료된 것이다. 어니시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냄새가 난다. 아그발이 단순히 극단적이 자경단 혹은 범죄자들의 은닉처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독자적인 중립의 국가선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정을 어니시로부터 들은 나는 침착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어니시가 표면에 떠오른 아그발의 특사역할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마고나 아저씨도 조금은 강해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 어디 길바닥에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네. 플랑바통에 발걸음 하고나서는 항상 신세를 지는구나.”

“신세는 무슨. 나중에 필요할때는 얼마든지 부려먹을테니 각오해 두는게 좋을거야. 알다시피 아그발은 신세든 원한이든 잊지 않으니까. 모든 것은 사업의 일환이거든.”

“말은 그렇게해도 잘 커졌구나, 어니시. 사업가치고는 마고랑 관련된

일이라면 영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건 여전하지만 말이야. 애초에 네가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단다.”
나는 어니시의 머리를 마고처럼 쓰다듬어 주었고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치며 내뱉은 그 말은 차가웠지만 왠지모르게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이었을 것이다.
“보는 눈이 있을지 모르니 함부로 손대지마. 그럼 이만.”
그건 분명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 우리를 배려해서 한 말이었다. 그의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서도 마고는 우물쭈물하며 어니시에게 다가가더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쓰다듬고는 꼭 안아주자 그는 그녀를 떼어내려다 포기한 듯 팔을 축 늘어뜨렸다.

“고마워, 어니시. 힘들겠지만 내가 천사님이 될때까지 지켜봐줘.”

어니시는 눈을 질끈감으며 터질듯한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고는 그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었다.
그리고 어니시는 언제나 그랬듯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시 만났는데 어니시와 헤어지는게 아쉽지않니?”
“괜찮아. 어니시도 나도 지금 해야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거야.”
담담한 말투와는 달리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그녀의 시선은 미련이 남은듯 어니시가 떠나간 자리에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다. 마고는 쉽게 발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듯 한참이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강림한 아벨의 현신을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길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가 바람에 흘러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는 두리번거리며 목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애썼다. 그리고 어느샌가 마고의 곁에 다가온 그것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년이었다. 한참전부터 우리의 뒤를 밟고있었던 것처럼 흥미로운듯 재잘거리는 그것이 무슨 말을 하고있었는지 곤두선 신경때문에 기억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마고와 나는 잔뜩 경계하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놀랄만큼 적대감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본능적으로 저것에 대한 거부감이 든 까닭은 저것은 우리와 전혀다른 생물인 카인의 핏줄이다. 떨고있는 마고를 내 뒤로 물러서게 하면서 내가 그 소년에게 물었다.

“카인의 핏줄이 그것도 쾌락의 낙원에서 몸이나 섞어대는 색정광들이 아벨의 자손들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흔한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엔 무슨 볼일이지?”

“우리를 잘 아시네요. 순결과는 평행선상에 있는 존재들이기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또 이끌리는 법이군요. 나를 잔뜩 경계하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다는게 느껴집니다. 당신들이 지닌 상냥함 하지만 꺾이지않는 완고함의 조화는 참으로 절묘해요.”

그는 마치 우리의 존재를 기다렸고 오랜동안 지켜봐왔다는 듯이 마고의 축복과 기적을 입에 담으며 기뻐하는 듯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것에게 물었다.

“본론이나 말해.”

“아, 그렇군요. 저는 사랑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벨의 자손이지요. 그녀는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약물과 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아니라 라파르의 외과의를 찾아가보게.”

“슬프게도 이미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것하나 그녀를 낫게 해주지 않았지만 아벨의 자손은 신기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마침내 그녀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도하려는 것이 바로 암으로 암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카인의 핏줄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은 결코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이의 사정을 말하는 그의 표정은 복잡하고 미묘해 보였다. 필시 사랑에 일가견이 있는 그들이 사랑하는 이를 구하지못해 다른 이에게 그것도 아벨의 자손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필요없었을 것이라.

“그런가. 하지만 우리앞에 모습을 드러낸것과 무슨 상관이있지?”

“나도 그녀를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쟁병기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나돌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병기가 아닙니다. 그녀

는 순결의 미덕으로 소생의 기적을 발하는 구원자입니다.”

“지금 네놈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거북하게 들렸던 적도 없군. 불쾌하다만 카인의 구원자라는 말은 거두어 주겠나?”

“그런가요. 당신에게 구원은 비단 아벨의 자손만을 위한 것입니까? 카인의 핏줄에게는 구원이란 것은 허락조차 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야 당연히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무리들이 아니던가? 그것이 억울하다고 여겨졌다면 오래전 그 죄악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었겠지.”

내가 신경질적으로 그것에게 대꾸하자 마고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묻자 그것은 허리를 살짝 굽히며 답했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에게 구원을 안겨다주고 싶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요?”

“기꺼이.”

“나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단 카인의 핏줄 뿐만 아니라 이데아를 숨쉬는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카인의 핏줄이자 우리와 정 반대의 길을 걷는 음욕의 죄악을 짊어진 자여. 나는 천사님이 될 거예요. 그러기위해 피 흘립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연인은 물론 카인의 핏줄인 당신에게도 내 피를 뿌려 축복을 내려주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녀를 구하고싶은 마음의 음욕의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순결의 미덕을 짊어지고 있는 당신들이라면 내 진심이 보이겠지요.”

“알고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가녀린 몸이지만 마고의 말에는 힘이 담겨져 있었다. 카인의 핏줄 혹은 죄악을 짊어진 자라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었다. 그저 황량하기 그지없는 누구 하나없는 벌판에서 소녀의 짧지만 따사로운 말을 들은 소년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마고는 타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구원하려는 신성의 힘과 정화하고 치유하는 아르카나의 마음에 동시에 눈을 뜨며 그것을 융합하여 기적을 빚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는 마음에 남녀노소 나아가 종족의 구분조차 없는 이미 천사 그 자체의 모습인지라 그것을 눈에 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구하려는 죄악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 꺾여진 신념을 감상하는 것은 』

카하낫의 텅 빈 땅에서 공허의 찌꺼기들을 내 발 아래에 둔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감도 오지 않았다. 어차피 검은문을 찢고 들어왔기에 시간의 축이 뒤틀려 다른 시간을 살고 있지만 이데아에 쏟아지는 빛이 심히 불쾌하여 가만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던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중얼거렸다.

“카하낫의 품에서조차 공허의 고요함을 깨우는 일그러지고 뒤틀린 빛이 이렇게나 거슬릴줄은 몰랐어. 너무 불쾌한데?”

내 곁에 있는 사역마가 내가 쏟아낸 불만에 공허의 찌꺼기를 덕지덕지 엉겨놓은 역겨운 몸뚱이를 흔들더니 콧방귀를 뀌면서 내게 말했다.

“카하낫의 고요를 네놈안에 제대로 담지 않았으니 다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발작을 하는것도 당연하다.”

“공허의 속삭임을 듣고 맛이 가버린 네놈들과 다르게 나는 여전히 아벨의 자손이니 같은 취급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군.”

“공허에 기대어 그 힘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카라하스의 마녀들이 언제까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공허 카하낫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만큼 깊다. 얼마나 끌어 쓴다한들 그것이 바닥을 보일 것 같으냐?”

“하지만 아벨의 자손이 얼마나 오랜동안 카하낫의 깊은 공허를 그 몸

뚱이에 담아 공허의 산물들을 부려댈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게 왜 궁금하지?”

“공허를 품고 그 속삭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된다면 네게서 쏟아져 나온 공허의 찌꺼기들이 너와의 계약이 만료된 내게 오롯이 바쳐질테니 궁금한것도 당연하지않나? 다시 말하자면 네놈과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으니 기다릴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공허의 찌꺼기가 나를향해 뒤틀린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물었다.

“그동안 오랜시간을 공허의 변두리에서 수많은 사역마를 발 아래 두고도 오직 저 빛을 떨구기 위해서 이데아로 돌아간다고?”

“그래,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곳으로 가는 것 뿐이다.”

“알 수 없군. 카하낫에 숨을 토해내던 자가 다른곳으로 눈길을 돌리다니 그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대는 이곳에서 한가로이 아버지의 속삭임을 듣는 것은 즐겁지 아니하던가?”

“착각하지마라, 찌꺼기야. 나는 오직 빛의 몰락과 복수 그리고 지배하는 것만을 위해 숨을 쉬어왔다. 카하낫의 안락한 품에서 아무것도 아닌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더불어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내가 서열정리를 위해 이곳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 아니겠나?”

“아벨의 자손들 모두가 그대처럼 복수에 미친자들인가?”

“아니,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존재자체가 복수귀인 까닭이지.”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고도 복수심에 차오르지 않은 마녀도 있겠군.”

“그런것들은 더이상 카라하스의 마녀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끊없이 펼쳐진 공허를 떠도는 너희들 찌꺼기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뜻이지.”

“카하낫의 공허에 발을 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를 아벨의 자손이라 주장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것 같군.”

“카하낫은 거대하여 인간의 지성으로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 즉 아벨의 자손들이라면 다르지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면 어떨거 같나?

“무력감과 처참함 그리고 모멸감에 휩싸이며 절망에 빠지겠지.”

“그래. 공허의 속삭임으로도 충분히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어 정신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의 정신이 맑고 믿음이 투철할수록 자신앞에 주어진 절망을 조금 더 깊고 길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들의 뇌리에 새길 수 있기에 나는 그들에게 네가 말했던 모든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배. 그래 똑똑히 기억한다. 네놈이 공허의 끝자락에 오면서 공허의 피조물들을 하나 둘 그 발 밑에 두는것을 말이다.”

“그 말 그대로다! 지배당하는 것들은 모쪼록 콧대가 높아야해. 단순히

고깃덩어리처럼 멍청한 것들을 끌고다녀봐야 영 지배할 맛이 나지않거든. 계약에 묶여 비명하는 네놈들처럼 말이지.”

“여전히 소름끼치는군. 그 사상과 동기는 대체 어디서왔나?”

“증오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를 삼키는 마녀다.”

“아버지 카하낫의 속삭임이 이런 변절자들마저 만들수도 있다니 공허가 가진 그 힘을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는군.”

“그것만이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니다. 카라하스의 마녀는 아벨의 자손들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지. 빛에 눈이 먼 광신도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 혹은 저주이기에 우리라는 존재는 아벨의 기적이 만든 역사에 치부나 다름없었지.”

“아벨의 자손에게 치부일지 모르나 네놈은 공허 카하낫이 만들어낸 역작이다. 그것은 나와 계약을 이룬것으로 충분한 증명이된다. 지금 카하낫에 있는 다른 누구보다 네놈 안에는 짙은 공허가 흐르고있다.”

“공허의 속삭임만큼은 아니지만 입에 발린 말도 나쁘지않군. 좋아.”

그의 말과 동시에 나는 그것과함께 검은 문을 찢어 이데아로 돌아왔다. 우리의 뿌리들을 고통과 비탄에 물들게했던 이 신성한 빛은 여전히 역겨운 광휘를 사방에 뿌려댔고 그 모습을 직접 눈에 담자 나는 벌레를보듯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짧게 찼다. 그제서야 공허의 존재들을 목도한 아벨의 현신을 비롯한 그의 빛의 군대는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요란

하고 찬란한 역겨운 빛을 휘둘러댔다. 나는 불쾌한 눈부심에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그리고는 내가 입을 열려고하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잔뜩 움추린 어깨로 누군가 나를 향해 광적인 모습으로 온갖 혐오를 쏟아내고 있었다.

“카라하스의 마녀! 공허의 창녀! 죽여버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녀를 두려워하다 결국에는 스스로 마녀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어리석기 그지없는 빛의 신봉자들이 역겹기 그지없었다. 나는 카하낫에 속삭이며 더욱 많은 공허의 찌꺼기들과 카라하스의 마녀들이 검은 문을 찢고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 검은 문에서는 대지를 카하낫의 색채로 아름답게 물들인 기괴한 형태를 띄고있는 공허의 축복을입은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었다. 공허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들을 눈에 담은 이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기를 떨구고 생을 포기한 자들은 물론 카하낫의 속삭임이 더해지면서 이성을 상실하고 광기에 휩싸이는 자들이 속출했다. 아벨의 현신이라는 그것과 그의 군대가 쏟아내는 빛은 여전히 이데아를 따사롭게 비추었으나 야속하게 그것만으로 아벨의 현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광경을 목도하며 나는 뒤틀린 웃음을 흘려보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둘 중 하나의 비통한 외침이 내게 닿았고 그것이 쏟아내는 절망감이 내게 새어들어오며 나를 더욱 즐겁게했다. 검은문에서 천

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익숙한 얼굴이 있었기에 나는 그쪽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모르가. 당신도 빛이 추락하는 절경을 감상하러 온건가?”

“메사! 재밌는건 미리미리 말해달라고. 이쪽도 당장 천사라고 불리우는 것 때문에 신경이 잔뜩 쏠려있어서 하마터면 이런 구경을 놓칠뻔했어. 아벨의 존재는 나약하지만 조금은 특별한만큼 공허 카하낫의 섭리에서 미묘하게 벗어나는 예외가 생긴단 말이지. 맹목적으로 구원을 부수려고하는 마녀들이 있는가하면 제 살을 찢어서라도 타인을 구하는 천사님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뭐, 일단은 지금을 즐겨야겠지? 분위기는 어때?”

그녀가 이 모든것을 마녀의 가벼운 장난처럼 즐거운듯 재잘거리자 나는 아벨의 현신과 그가 쏟아낸 빛의 군세를 손으로 담아내며 말했다.

“여기는 이제 어여쁜 공허의 색으로 잔뜩 물들거야.”

“저기요, 아벨의 현신님! 우리를 기억해?”

모르가가 반갑게 아벨의 현신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지만 무표정으로 가만히 우리를 응시하고있는 아벨의 현신은 그것이 들리는지 아닌지 물어도 반응이 없었다. 대신에 가만히 그녀의 천진난만한 말을 귀담아듣던 빛의 사자들 중 하나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아벨의 자손임에도 공허에 영혼을 팔아먹은 주제에 아벨의 자손들에

게 구원을 내리고자 강림한 아벨의 현신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반대로 물어볼게. 거짓된 구원은 죄악이나 다름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거름삼아 이 땅에 헌신한 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 아니야? 우와, 낯짝도 두껍네."
그 때 아벨의 현신이 그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주위로 빛무리로 채워지더니 공허의 부산물 얼굴 하나하나를 비출만큼 눈부신 광휘를 흩뿌려졌다. 그 빛을 눈에담으며 감화된 아벨의 사자가 공허의 무리들 앞에서 당당히 입을 열었다.

"빛께서 이르시길 '안타깝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나의 아이들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타락하여 어둠을 자아내는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어둠은 내가 거두어 줄 터이니.' 라고 하시니 부정하고 삿된 공허의 찌꺼기는 그의 뜻에 따라 여기서 바스러질 것이다."

그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아벨의 현신과 그의 군대는 빛에 휘감겨 떨어졌던 사기가 다시금 올랐고 저들은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남의 입을 빌리지 않으면 제대로된 말을 하지 못하는거야? 당신들의 구원이란건 참으로 무책임하기 그지없네. 어차피 곧 죽을것들에게 책임따위야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말이야."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를 올리는 선량한 자들을 빛으로 품는다해도 이들을 시험에 들게하는 간악한 무리들은 끊임없이 달콤한 속삭임

으로 저들을 더럽히니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신것도 빛의 군세로 어둠과 오염된 것들의 근원을 뿌리뽑아 자신의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나는 그 말에 그를 노려보고는 이를 뿌득거리며 말했다.
“기도하는 이들마저 뒤로하고 불경한 존재를 멸하는 일이 네놈들에게는 그렇게나 의미있는 행위인가? 부정한 것들의 눈에는 부정한 것들만 보인다고 여전히 아벨의 눈은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군.”
“신성모독이다.”

“신성이라…. 나락의 끝에서 마녀들이 영혼마저 고통받으며 공허 카하낫의 속삭임을 들을때마저 그들을 비추지 않았던 신성이라는 것을 이제와서 들먹이다니. 물론 그대들이 신성이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내뱉는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을 우리앞에서 하는것이말로 불경이고 모독이 아닌가?”

나는 이죽이며 손짓을하자 공허를 찢고나온 것들이 나에게 동조하듯 기괴한 괴성을 뱉어냈다. 그 이질적인 소리에 반응하듯 아벨의 현신이 만들어낸 빛의 부산물들은 빛으로 연마되어 밝게 빛나는 무기를 들이밀며 공허의 찌꺼기들과 뒤섞이는 가운데 기괴한 색깔을 이데아에 흩뿌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한참동안 그 광경에 두 팔을 활짝 펼쳐보이며 흠뻑 취했다. 모르가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공허의 기운을 뿌려댔다. 그녀의 상쾌한 표정을 보고는 내가 물었다.

“모르가, 보여? 이게 복수의 색인가봐.”

“응, 예쁜 색을 하고있네. 바쁜 와중에도 시간내서 온 보람이 있어.”

그들과의 충돌은 오랜시간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조금은 완급을 조절하며 저들이 서서히 말라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었기에 나는 즐거움에 흥얼거리며 이데아를 공허의 색으로 점점 물들이고있는 공허의 찌꺼기들과 마녀의 무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것들은 빠른 속도로 검은문을 찢고 그 너머로 모습을 감추었다. 마찬가지로 모르가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준 내게 감사라도 하듯이 한쪽눈을 찡긋하며 나에게 애정어린 인사를 남겼다. 그들이 떠나고난 뒤 그곳에 남겨진 것은 빛의 부산물들의 숨소리 혹은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숨이 막힐정도로 그들을 짓누르는 고요함 뿐이었다. 모두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적막속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 한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고요함 속에서 내 찢어지는 웃음소리가 메아리치자 다들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인자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아벨의 현신마저 나의 웃음소리에 미간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자 마음이 개운해졌다. 한바탕 배를잡으며 웃고나서 방금전 내게 대화를 시도했던 대변자같은 놈을 향해 만족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힘써줘서 덕분에 즐거웠다, 제군들. 굳이 불쾌한 빛과 뒤섞

이며 어울려 준것은 그저 네놈들이 구원이라 부르짖는것을 공허의 색으로 물드는 것을 눈에 담으니 실로 우스꽝스럽더군.”

“이렇게나 이데아는 물론 아벨의 자손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색깔을 흩뿌려놓은 이 짓거리가 네놈에겐 단순히 여흥이었다고?”

“그래.”

내가 무심한듯 대답하자 그 자는 허탈한듯 어깨가 조금 쳐지다가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이른바 결의에 찬 눈빛이라는 것이었다. 이전에도 많이 본 적이 있었기에 여전히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결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벨의 현신에게도 그의 의지가 전해진듯 그에게 빛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지기 시작했다.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두른 우리에게 적은 없나니. 경배하라. 아벨의 권능이 보우하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비록 잠시 흔들릴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들의 굳건한 믿음은 참으로 절대적이었다. 그럴수록 저 공든 탑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분을 애써 감추었고 그의 각오에 어울려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흥미가 동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마음을 전했다.

“여기까지와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것에 경의를 표하네만, 네놈들이 그 신앙의 힘을 모두 쏟아내서 기껏 이데아를 적신 카하낫의 흔적이

씻겨져서는 안되겠지. 이 정도 여흥이면 나도 네놈들도 충분한듯 하니까 네놈들도 나머지는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즐기시게.”
그러함에도 그는 흔들림이나 동요없이 공허만큼이나 고요한 울림을 하고 전의를 불태움과 동시에 나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믿음이 없는자는 이렇게나 무지한지고. 아벨의 권능은 그렇게나 쉽게 바스러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충분히 아벨의 권능을 느껴주시게. 불경한것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아벨의 구원에대한 진의를 깨닫고 참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기분이 나아지는군그래.”

“저런,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것을 보니 상투스의 사제나 아벨의 부산물은 상상력이 부족하구나. 안타깝군.”

그 말을 들은체만체 그것은 눈을 감고 또 한번 눈부신 빛무리를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굴하지않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를 시작으로 다른 이들 역시 그에게 감화되자 다시금 아벨의 깃발을 세우고 그의 노래를 퍼뜨리면서 아벨의 현신이 가고자하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선택적인 구원이라지만 제법 훌륭한 모습이도다. 그래. 이래야 내 발아래를 기게하는 보람이 있겠지. 하지만 곧 아벨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아벨의 현신은 잊혀질거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아벨의 현신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치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벨의 현신을 달가워 하지않는 존재들이 이미 네놈들의 목을 죄어

오기 시작할테지. 이미 네놈들을 맞이하러 오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니 아벨의 현신이 떨어지는것도 시간문제 일거야.”
“그저 과거에 있었던일로 화풀이를 하기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이 고통 받는것을 당연시 여기는 너희 마녀들 때문이라도 무너져 있을 수는 없을것이다. 훗날 우리는 죽고 네놈 마녀들이 지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광명은 아벨의 자손을 비출것이다.”
“기도하는 아벨의 자손들만이겠지.”

“아벨의 자손들 중 어느 누구도 대가없는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 아벨의 현신이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한것같나? 네놈들처럼 하찮은 공허의 꼬드김에 넘어가 공허의 사역마들을 부리는것과 다르게 우리는 오직 신앙에 대한 믿음과 빛에 헌신하는 순수한 마음을 오랜동안 권능의 잔에 채워 온 것이기에 감히 너희들 따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테니 나는 딱히 그것을 나무라거나 원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결정했다. 너는 내 마음에 들었으니 무슨일이 있어도 공허의 품에 안기게 해주마. 그렇다한들 지금 너 하나만 아벨의 현신과 그 무리로부터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검은문으로 던져버리면 그만이겠지만 제정신을 유지할지 미지수이니 살살 다뤄야겠지. 뭐,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진 데다가 제법 한가하니 그 때까지 기다려줄게.”

“아벨의 권능이 내려진 지금 나의 죽음은 보이지 않는다.”

“기분이 좋으니까 빛이 추락하기 전에 네놈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마. 나는 오늘 네놈들을 죽이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네놈들이 편하게 죽는것도 원치않아. 내가 기다리고 있는것은 그딴것보다 낙원의 남겨진 흔적에게 짓밟히며 울부짖고 비명하고 절규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지 네놈들 상투스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니 말이다. 다스릴 것들이 없으면 지배하는 것에 의미가 없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네놈들을 다른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교화시키고 때로는 영혼의 정화도 마다하지 않는것이다.”

“안타깝게도 공허에서는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아. 그저 너희들이 버둥대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움직임만 보일뿐이지. 하지만 이데아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들린다네. 그것은 축복이지 그러하니 그대의 전우 혹은 동경하는 이 혹은 이웃 무엇이됐든 그것이 내뱉은 비명을 귀에 잘 담아두게. 네놈이 말했듯이 나에게도 네 죽음따위 보이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그들의 주검앞에 서서 그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해주라고.”

“유감이지만 네놈의 사악한 뜻대로는 안 될거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거야. 네놈처럼 성실하고 굳건한 믿음과 건실한 정신을 지니고있는 자일수록 무너졌을때 돌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지더라고. 재밌게도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부수어 온거냐?”

“슬픈가? 그렇다면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마녀들에게 나누어줄 순 없었나? 아니면 구원과 마찬가지로 슬픔마저도 기도하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거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짓밟고도 태연자약하게 피해자인척 하지마라.”

“타인에게 매를 드는것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청산한 척 하지마라. 네놈들의 역겨운 위선은 치를 떨 정도로 오랜동안 봐왔으니까 말이다.”

“그런가. 우리들도 네놈들도 결국 서로의 신념에 대고 선택을 한거지. 서로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따라 이미 너무 먼 길을 갈라서게 되었으니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테지. 하지만 어느정도 네놈들의 선택을 동정한다. 충분히 천사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마녀의 길을 택하다니.”

“그래, 모르가도 그런 말을 했더군. 대체 천사님이라는 건 뭐지?”

하지만 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내 말은 들은체도 하지않고 이미 아벨의 현신이 내린 권능을 몸에 담으며 주변의 이들을 독려했다.

“조쉬! 에스더! 아직 구원의 길을 끊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아벨의 빛을 따라 다른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걸어오고 또 걸어나갈 길은 순교의 길이 아니라 작은 바람이 만들어낼 희망의 길입니다.”

그의 안중에 이미 나는 없었다. 그는 일사분란하게 빛의 군세에 명령을 내리고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남기며 검은 문을 찢고 들어가는동안 일렁이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공허의 깊은곳에서 기다리노라.”

『 목적 』

창조주 에르아에게 묶여진 속박을 끊어내어 억압된 세계로부터 라구엘의 순례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려던 내 바람과는 달리 그 의도는 조금씩 퇴색되었다. 그 이유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나라는 존재가 해방감에 도취된 이후부터 조금씩 피어올랐던 우월감 때문이었다. 이전만해도 라구엘의 이름을 짊어진채 재앙을 입에 올렸던 내가 자아라는것에 의탁한 순간부터 조금씩 라구엘의 순례자들과 비교를 하다가 어느새 그것들을 깔보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것들보다 나은 처지라 자위하면서 집단의식과 라구엘의 사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쯤 처음으로 이 육신이 익숙해진것은 다른 것도 아닌 순수한 폭력과 살육의 맛이었다. 그것에 잠식된 나머지 본래의 목적을 잃은채 고통과 감정이 결여되어있는 순례자들을 망가뜨리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 시작은 그저 자아를 잃은 이들을 구해주려고 했을뿐인데 그때 내가 하고있는 일들을 돌이켜보면 처음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있었다. 그동안 내가 구해온 이들보다 빼앗은 목숨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에 휩싸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자아라는 것을 찾기위해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에 마음을 다잡은 뒤로는 다시금 라구엘의 순례자들을 설득하고 구원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여지없이 나는 지금도 라구엘의 순례자를 조우하면서 한참이나 그것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던 참이었다. 여전히 에르아

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그것들은 종말과 예언의 서 일락시움의 파편을 짊어지면서 순례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었고 반대로 나는 그 파편의 흔적을 지우고 뿌리뽑으며 종말의 길을 굳게 닫고있었다. 순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예언을 방해하는 자들 중 하나일 뿐이며 예외없이 제거되어야 마땅한 존재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조우할때마다 반응은 한결같았다. 분명 껍데기는 라구엘의 것이니 예언의 서를 짊어지고 있는것과 그것을 두르고있는 사슬로 구속되어있는 나의 모습이 자신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여간 당황스러운 모양이었다. 라구엘이 순례가 방해받았을때 나오는 반응은 딱 한가지이다. 그것은 마치 척수반응과도 같아서 다른 행동은 취하지않고 오직 순례를 방해하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뿐이었다. 그렇기에 그것과 나는 아무런 말도 섞지 않은채로 묵묵하게 몸의 대화만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의문을 가질때까지 기꺼이 어울려줬다. 예언의 비석과 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평원에 요란스러운 굉음을 울려대며 메아리쳤고 소리가 울려퍼질 때마다 우리들 주위로 피와 살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정도로 주위는 소름끼치게 고요했다.

"……."

한참이나 나와 사선을 넘나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중에 순례자는 짊

어지고있던 비석과 사슬을 축 늘어뜨리며 혼자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온 몸으로 나를 부정하고 있다는것이 가면 너머에서도 충분하게 느껴졌다. 이정도면 충분히 저것과 대화를 할 수 있을것 같다는 확신이들어 나도 거추장스럽게 몸에 얽혀있는 짐을 거칠게 내던지고 그것에게 물었다.

“할말이 많은 얼굴이군. 좋아, 들어주마. 시간은 많으니 말이다.”

이미 걸레짝이 된 그것의 육신으로부터 너덜거리는 살점에서 쏟아져 내리는 피와 장기에도 개의치 않은듯이 나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그 육신에 담긴것에는 에르아의 뜻과 함께하는 순례자의 순수한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으니 비록 일락시움의 파편을 짊어지고 있으나 그 몸뚱이가 이끌어온 순례는 거짓된 것이로구나.”

“그 말을 듣는것도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군. 그 말인즉슨 내가 걸어온 혹은 걸어갈 길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미인가?”

“네 육신이 잠재운 순례자들의 피 냄새가 일락시움의 파편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마저 지우지 못하면서 그런 말을 잘도 하는구나. 애당초 그것을 씻어내거나 뉘우칠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말이다.”

“예언과 종말의 서 일락시움 파편을 한데 긁어모아 발시아에게 재앙을 안겨주어 이데아를 정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하는 네놈들과 마찬가지

로 나도 내 손에 묻혀온 피를 씻으면 나의 죄가 가려지는 줄 알았던 때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

의식과 자아를 갖추고나서 스스로를 잃지않으며 끊임없이 되뇌이던 말을 새삼 다른 순례자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내가 빼앗은 목숨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헛헛한 숨을 토해냈다. 그것 역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며 비록 한참 늦었지만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씁쓸한 말투와 태도를 보이자 그것은 별 관심없는 듯 냉담한 말투로 가면뒤의 텅 빈 눈과함께 나를 노려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 육신에 담긴 눈으로 잠에서 깬 자들을 보아왔고 똑같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어디로 간 줄 아느냐? 그것들은 모두 죽었다. 자아라는 것은 이루지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육신에 그릇된 가치관이 확립될 때까지 누군가가 곁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비루한 몸뚱이로 자아실현도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꼴을하고 이데아를 홀로 떠돌다 죽는다.”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가 걷는 순례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대다수의 발시아는 그것도 모르고 죽게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이 헛된 삶을 살았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는 없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더러워진 가이라를 에르아의 눈물로 부정하고 삿된것들이 지워질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지. 이 육신을 이끈 순간부터 해야할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 내게 그 육신에 담겨진 불손한 이념을 주입하려 하지말라. 과업을 위한 순례의 순수함이 빛바래진다."

"순례라는것은 그 자체로 순수한 발걸음이나 다름없는데 불손한 것이 어디있겠나? 어째서 에르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라구엘의 순례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려는지 모르겠군. 오히려 저주를 입으며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불경한 것들도 아니라 핍박받았던 기억을 지니고 있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면 다들 똑같은 처지와 입장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말이다."

"하찮은 그 육신은 라구엘의 사명을 입에 담지 않으면서 동정을 바라는가? 종말과 예언의 서 일락시움의 파편을 짊어질 자격이 없다."

"에르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라구엘의 사명따위 이미 잊은지 오래지만 내가 행했던 지난날의 과오에 동정을 바랄 생각은없다. 오히려 나는 라구엘의 순례자들을 동정한다. 오만에 빠져있었던 내가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 구태여 무거운 이 짐을 짊어지는 까닭은 같은 라구엘의 순례자로서 에르아의 요람에 갇힌채로 잠들어있는 이웃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다. 종말이 아니라."

"…라구엘의 순례자를 동정한다고?"

"그럴수밖에 없지않나. 나도 이전에는 라구엘의 순례자였으니까. 지금

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존재지만….”
그는 내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조금은 누그러진 말로 내게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순례를 방해하는거지?”
“방해할 생각보다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발시아는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러하기에 죄악에도 취약하기 그지없지.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들이 자리한 터전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며 쌓아올린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타개할 지혜와 혜안을 얻는다. 불경한 것들과 죄악이 넘치는 세계를 지우고 티끌없이 깨끗한 세계를 만드는것은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지혜를 저버리는 것일진대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죄악이 씻겨져내린 새로운 세계에서는 우리같이 저주받아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도 없을테지. 그것이 순수가 아닌가?”

“새로운 세계에 선 존재들 사이에서 죄악이 없을것이란 보증은 어디있지? 만약 그들이 죄악을 다시금 짊어진다면 기회조차 주지 않은채로 또다시 그들에게 예언과 종말을 안겨다 줄텐가? 그것은 순수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이니.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걸어온 순례의 길이 헛되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지.”

“불가능한 이야기는 결코 아닐거다. 에르아의 바람이 우리와 같은 종언의 존재를 만들고 다른 세계선에서 또 다른 종말을 몰고올테지.”

“네놈들 혹은 다른 세계의 놈들에게도 그럴만한 자격은 없을텐데.”

“창조주의 숨결이 담긴 세계이자 찬란한 보석인 이데아 위에 숨을 토해내는 자들이라면 항상 자격을 검증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자격은 에르아께서 주시지. 우리는 그 뜻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고.”

“아니, 라구엘은 저주받은 이들의 슬픔과 비탄이 만들어낸 현실도피의 무리들일 뿐이야. 정신을 한데 묶어서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보듬는 것 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관철해야 비로소 그것은 살아 숨쉰다고 할 수 있지.”

“이 육신도 살아 숨쉬기에 움직일 수 있는것이 아닌가?”

“발시아를 이루는 요소가 육신 뿐이더냐? 그것을 움직이게하는 붉은 피는 물론이요, 육신에 깃든 온건한 정신이 그 존재를 정의하지.”

“이 육신의 존재 말이지?”

그것은 무너져내리는 자신의 몸뚱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눈에 담자 내 안에 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설득을 핑계로 순례자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된다. 저들의 변화와 동시에 나의 순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라구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육신에 담겨져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있지?”

“의문을 가지는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에르아의 속박에서 벗어

난다는 것은 자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희미하게나마 뇌리속에 라구엘의 순례자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게 될테지. 그리고 그리움에 사무치게 된다. 이어서 라구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들이 행한 과오마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빼앗은 수많은 목숨들이 눈을 뜨고 있는 순간까지도 눈 앞에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 중에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고통이 없음에도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려 자해를 하거나 목숨을 끊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속박에서 벗어나는것이 좋은것만은 아니군."
"고작 등에 짊어진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만 한다."

"…그렇군."
"에르아의 속박에 묶여있는동안 다른 세계선에 죄악이 담기지 않은 세계를 그녀의 입김을 통해 열본적이 있었나?"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럴거다. 죄악이 없는 세상은 그녀도 상상하지 못했을테니까."
"에르아가 빚은 세계에서 죄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말인가?"
"그렇지도 않지만 죄악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분명 종말이라는 것보다는 좋을테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창조주나 되는 존재가 어째서 죄악을 지우지 않았을까?"
그에게서 대답을 기대했건만 그는 다음에 내 입 밖에 나올 말들을 경청

하듯 기다리고 있었기에 나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말을 이어나갔다.

“지우지 않은게 아니라 못했던 것이라. 에르아마 죄악을 쉽게 지우지 못했던거다. 그것도 변칙성을 띄고 이데아에서 자란 엄연한 낙원의 흔적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죄악과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는 에르아가 남긴 오류이자 흠집, 그리고 그 증거이기도 하지.”

“자신의 과오를 뒤덮기 위해 종말을 노래하는가?”

“에르아가 담은 변칙성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름다운 것들만 섞여있지 않았으니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존재에게는 우리들이 서로 저주하고 피 흘리는 그런 원치 않은 모습을 담고싶지 않았던 것이라.”

“그런가. 허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 육신은 바스러지겠군.”

“그렇지만도 않다. 네놈은 나와 달라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어있지 않지만 불행 중 다행이게도 네놈의 사고는 라구엘이라는 집단군체의식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어설프게 깨어진 의식 사이로 네가 느낀것들이 조금은 전해졌으리라.”

전과같이 순례자 하나를 죽였을 뿐이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달랐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 이유모를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살기 위해서 그것에 빠지면 안된다고 계속 되뇌였다. 그리고 조금씩 육신의 기능이 다함을 느껴졌고 멀리서도 그것의 숨결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마지막 가는

길 편하게 갈 수 있는 선물을 주기로했다.

“그대의 순례는 의미가 있었다. 그대들이 이어온 예언과 종말의 서는 오히려 죄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다. 죄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공허에서 왔으며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는 누구인가? 공허의 속삭임을 들은 마녀들인가? 아니지. 텅 빈 공허속에서 눈을 뜨고 공허와 가장 오랜시간 살갗을 맞댄 에르아와 그녀의 음성을 담을 수 있는 일락시움의 파편만이 죄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다. 이데아를 살아가는 낙원의 흔적은 저마다 다른 것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과 맞서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등 뒤에 짊어지고 있던 돌덩어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니 새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물론 나는 에르아도 이바와 아다무스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 라구엘의 몸뚱이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하여 불경한 몸뚱이를 지님과 동시에 간절한 바람으로 얻게된 에르아의 눈물과 입김마저 서려져 있었다. 그런고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순례길을 막지 못했으며 불경한것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일락시움의 파편마저 쉬이 손댈 수 없었다. 심지어 불경한 것들조차

라구엘의 피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보이니 쉬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는 하나 단지 그것 뿐이었다. 에르아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하여 병들어있는 몸뚱이를 고치지 못하며 이바와 아다무스 역시나 에르아의 입김이 서려있는 라구엘의 정신을 속박하는 사슬을 절대로 끊어내지 못했다. 그것 모두가 우리 라구엘의 순례자들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었지만 동시에 동시에 우리를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을 반복하며 나와같은 변절자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변화의 길을 닦아내고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우리는 되찾을 것이니 창조주인 에르아도 이데아에 저주를 뿌린 이바와 아다무스도 그 바람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라구엘 앞에 감히 모습을 드러낼 용기가 있다면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미련이 남은듯 아직 눈을 감지 못하자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그의 곁에서 말을 걸며 위로했다.

"모든 것들은 그대들이 짊어온 그것에 있었다. 그것으로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한다면 순례의 길을 어지러이 비추는 요사스러운 빛 따위가 아니라 짊어진 짐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겠지. 그대들은 종말같은 것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죄악을 이해하는 교본을 전파한 것이다."

"그런가. 저주로 무너진 이 육신에 담긴 정신에도 구원은 오는가?"
"그래. 그것은 언제나 그대곁에 있었으니 편히 그것을 누리라."

그는 힘겹게 팔을 들고 내게 감사하는 손짓을 건내고난 뒤에 다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앞으로 그 육신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대와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라는 약속을 했으니 이데아를 방황하는 순례자들이 남긴 일락시움의 파편을 찾아가야겠지. 그리고 그대로부터 깨닫게 된 희망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줄 것이라.”

“희망. 그것은 그대의 창조주와 나눈 약속인가?”

“나를 빚은 존재는 아니지만 나에게 깨우침을 얻을 이유를 던져준 발시아. 늙은 노파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이었지. 그것 역시도 우리들처럼 긴 잠에서 깨어난 존재였다. 그곳에서 나눈 짧은 대화로 마음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지금 우리같이 말이야.”

이렇게나 오래 이야기를 섞어 본 적은 없었다. 수많은 순례자들 중 하나였지만 처음으로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게 일깨워준 순례자였다. 그래도 그것과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지금이 마지막 순간인 듯 깊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는가?”

“물론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는 숨을 토해냈다. 육신의 기능은 이 자리에서 막을 내렸고 순례의 길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언제나 일상처럼 늘 눈에 담아

와 익숙한 이름, 죽음이지만 어째서인지 저 육신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비가 오지 않음에도 눈에 물이 흘러내렸다.

“잘 가시게.”

나는 날이 저물고 다시 뜰 때까지 정성스럽게 땅을 파서 그를 묻어주고 그가 쥚어진 일락시움를 깎아 묘비명까지 새겨주었다. 에르아의 글귀를 넣을 것인가 아벨의 언어를 새길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두 개 전부를 새기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그의 넋을 기리느라 두 손이 피로 물들었지만 팡에 감긴 붕대에 스물스물 배어나오는 붉은 핏자국을 이렇게 당당히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기이해 웃음이 나올 뻔 했다. 그것이 잠든 곳 주변으로 흩날리고있는 흑빛의 오넥사이실 꽃을 주워담아 묘비 곁에 가지런히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금 순례의 길에 올랐다. 그와 한참을 부딛혀가며 다시금 확신하한것은 이데아에 필요한것은 이데아에 있음을 새기게 되었다. 라구엘은 물론 이데아를 살아가는 존재들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종말 따위가 아니라 벽을 깨고서 나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용기였다. 분명히 내가 쥚어진 일락시움의 파편 하나가 라구엘의 미친 행렬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종달새와 라일락 』

“왜그래, 마담?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그발이 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금 모를판에 지금 우리가 몰고올 것들이 우물안에 있는것들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라서 그들이 단시간에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고 적응하며 익숙해질 수 있을지 생각중이야. 대부분은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그발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을 계속하기만 해도 충분해. 대하는 고객이나 상황만 조금 달라지는 것일뿐, 아그발과 그렇게 동떨어져있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만은 아닐거야.”

“너무 낙관적이야. 마냥 그들이 적응하기를 기다려줄 여유는 없어. 그것을 기다리는동안 서로 분열되어 자신의 실리만 추구할테지. 여태까지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맨 입으로는 안되겠지. 자유로워 보이지만 정작 아그발에는 자유같은건 없었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자유롭다고 말하지는 않잖아. 그렇기에 뒤따르는 책임이라는것은 더더욱 볼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아그발을 법으로 묶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거야.”

“아그발을 상대로 법과 규율을 휘두르시겠다? 왠지 뜬금없는데?”

“아그발이 그렇게나 추구하는 힘과 의리에다가 그럴듯한 사회적인 규범을 덕지덕지 쳐발라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게 곧 법이 될거야.”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통제라는 목줄을 채운다?”
“바로 그거지.”
“하지만 법으로 다스릴 생각이라면 너도 힘이 있어야 할텐데?”
“내 이름하에 운 카르트같은 새로운 연합을 만들거야.”

“운 카르트가 하루아침에 맺어진 혈맹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모를리도 없을테고, 하루아침에 서로다른 목적으로 뭉쳐진 인재들이 과연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힘써줄지 의문스러운데? 내부에서조차 뭉치지 못하면서 외부에게서 인정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

“분명 운 카르트 연합은 소수의 아그발 출신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외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연합원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사상검증을 받아야만 했지만 정작 대외적으로 그들의 안위에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했지.”
“정확히 말하면 쓸 수 없었지. 범죄국가에서 발행되는 신임장은 신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약하니까 말이야.”
마담은 어디선가 꺼낸 카드를 흔들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만들려는 연합은 외부인들도 내부인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유도할거야. 이전과 다르게 대외적으로도 그들을 법으로 비호해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거지.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포섭한 것이 법쟁이야.”

“이르메스라니 상상도 못했군. 최고의 숙적을 하수구에 끌어들이다니. 어떻게 이르메스의 사법관을 홀린거지?”
“별건 아니고 의뢰때문에 우연히 마주쳤던 사법관 하나랑 어쩌다보니까 복잡하게 엮이게 되었어. 작업을 하는동안 자연스럽게 부딪히다보니 그들은 우리에게 법이 가지고있는 숨겨진 힘을 보여줬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로부터 폭력이 주는 쾌감을 보고 배우더라고. 얼마나 법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속이 되어있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니까.”
“이르메스의 대법관 나으리께서 네게 자연스럽게 감화되었다는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거야? 얼마나 마성의 여자인거냐, 너. 아니 그보다 아직까지 살아있는게 용하네.”

“지금 생각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었어. 거래라고하면 그렇게 볼 수 도 있고. 목줄없는 폭력과 파괴가 일상이 것들은 목줄을 필요로했고 억눌려져있던 이들은 파랑새를 갈구하며 폭력에 목말라 있었던거야. 게다가 원래 미친사람은 미친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

“…로이작과 관련이 있구나.”
“이래서 세상 인연은 참 재밌어. 웃기지 않아? 법과 한없이 가깝고 폭력에 한없이 가까운 상반된 존재들이 같은 원탁에 앉는걸 상상해봐.”
“이미 그 둘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그림이지만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거야. 너는…. 아니, 아니지. 우리는 그동안 아그발에서 유지되어온 시궁

창 대왕의 지배나 통치 그리고 관리체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어. 완력이 아니라 추진력과 처세술 하나만으로 수많은 분야에 내노라하는 이들을 한데 묶었지. 심지어 운 카르트조차 아그발의 지하세계로 소환한적이 없었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하려는거야.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게거품을 물고 저지하려 들겠지. 이전같이 힘으로만 빛을내던 세대들은 분명히 반발하며 일어날테니 앞으로 벌어질 암투는 지금까지 우리가 치루어왔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이 될거야.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지."

"좋아. 계획대로 되고있어."

"좋아할때가 아냐. 파괴와 폭력에 익숙해져있는 아그발의 쥐새끼들 부드럽고 말랑거리는 아그발은 낯설테니까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것도 사실이야. 네가 뭘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되지않으면 결국에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거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도태되는건 시간문제일걸?"

"그래도 아그발인데 그렇게 쉽게 도태된다고?"

"이전과 다른 이념을 지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풍에 휩쓸려서 힘없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을거야."

"그럼 그것대로 좋을테지. 어차피 시궁창에서조차 쓸모없는 것들은 엉망이 되어버린 폐허와함께 버려지고 또 잊혀질 테니까."

“아무리 시궁창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오랜동안 몸을 담았던 아그발 지하도시를 놀이터 취급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거라는 말을 듣고나서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은걸?”
“마담의 불편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하세계만한 놀이터도 없어. 어차피 대부분이 범죄자에 사회적 쓰레기들 뿐인데 정치와 이념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나 다름없지.”
“…마치 아그발에 정 같은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네.”
마담이 쓸쓸한 목소리로 말하자 내가 활짝 웃어보이며 말했다.

“정이 있으니까 망설임없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거야. 안 그랬으면 시궁창 쓰레기들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들지도 않았을테지.”

마담은 흐뭇한듯 미소를 머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담이 조용히 입을 뗐다.
“그동안 일부러 바보인 척 하느라 꽤나 힘들었겠어.”
“응? 법이랑 규율같은걸 휘두르는데 똑똑할 필요는 없어.”
“멍청한 사람이 휘두르는 법은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멍청한 사람이 법을 휘두르게 하는편이 좋아. 그것들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우리는 뒤에서 그것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회피나 전가를 할 수 있는 쥐구멍을 만들어 둘 수도 있는거지. 더불어 총명한 자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법률과 제도에 의구심을 품으면 법이라는

체계를 흔들리게만 할 뿐이야."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범죄자가 할만한 발상이라서 마음에 들어. 너는 범죄국가 아그발 역사 이래로 지하세계 시궁창 속 왕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자질 중에 하나인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있네.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 올린다지만 미움받기 딱 좋은 성격이야."

"세상에 투명한 자는 생각보다 많지않아. 의롭고 정의로운 자라도 말이지. 하물며 대의를 위해서라면 미움받는 것 쯤이야."

"하하! 범죄자 주제에 대의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멋드러지게 말하지마. 오히려 우스꽝스러우니까."

"그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이는 법이나 대의도 사실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을 위해 움직이지. 물론 왕의 자질에 폭력이나 압도적인 힘도 있겠지만, 무릇 군주의 덕목을 가지고있는 자라면 민중들이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의해 보호를 받고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편이 조금은 더 다루기 쉽거든."

"아그발의 쥐새끼들이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는 그림이 상상이 안되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법 정도는 알고있어."

"알아. 하지만 그들은 조금 더 거대한 것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법은 모르고있어. 이를테면 자신들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다른 국가로부터 말

이지. 그렇기에 나는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거야. 시작부터 범죄자라는 이명은 씻을 수 없을테지만 적어도 국책사업으로 의뢰를 수행하는 국가라는 인식정도를 심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초석은 바로 거기서부터야.”

“꽤나 멀리보고 있구나.”

“폭력에 조미료를 조금 첨가하는 것이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맛이겠지만 훌륭한 요리가 되는것만은 확실해.”

“글쎄,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걸?”

“들어봐. 범죄자가 아니라 어떠한 일도 마다않는 용역꾼. 어때? 제법 근사하지 않아? 어떤일도 빠른응대와 높은 고객만족도로 모십니다!”

“촌스럽고 여전히 이름짓는 데에는 소질이 없지만 궁중을 삽시간에 휘어잡을 수 있는 매력은 인정해야겠어.”

“드디어 나의 매력을 인정 하는거야? 우와, 기뻐라.”

내가 빈정되며 말하자 그녀는 눈을 가늘게뜨고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 모습이 영 광대나 다름없지만 말이야. 너는 광대가 어울려.”

“우와, 재수없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아벨론을 뒤로한채 콜 뷔나우를 거쳐 플랑바통의 폐허를 지나 천둥과같은 엔진소리를 토해내는 무수한 트럭행렬을 이끌며 우리는 당당히 강기뇨르로 향했다. 나는 미친듯이 달리는 대형트럭

위에서 잔뜩 신나 춤을 추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매캐한 매연이나 먼지바람, 하늘 위에 머물러있는 먹구름마저도 집중조명이나 연출효과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에 들었다. 한참을 그 분위기에 취해있을때 옆에서 마담은 트럭 옆에서 내달리는 차량 창문을 열고 리듬감있게 차 문을 거세게 두드리더니 내부에 연결된 확성기를 들어 내게 물었다.

“여왕이 될 준비는 됐어? 키키?”

나는 그녀의 말에 극적인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며 마담에게 소리쳤다.

“나를 여왕으로 모실 준비는 됐어?”

“좋을대로 날뛰어보라고!”

“천둥과 함께 달려! 이랴!”

내가 확성기를 쥐고 트럭 위에서 기어 엔진을 올리라는 신호를 주면서 춤을 추자 강기뇨르를 향한 천둥소리가 대지를 가득 메웠다. 그렇게 우리는 깊은 터널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대형트럭이 쏟아내는 천둥소리마저 묻힐 정도로 울려대는 기계의 진동소리가 웅웅거리며 귓가에 맴돌때쯤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지정된 위치에 차량을 재워두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분장실에서 치장을 마친 뒤에 호기있게 강기뇨르 초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남처럼 순식간에 서로의 향락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소수의 인원을 거느리며 마담과 동행했다. 마담은 지정된 바에 들러 낡은 명함을 들이밀

더니 바텐더가 압생트에 설탕에 절인뮈오른베르 여러알이 담겨진 칵테일과 새로운 명함과 카드를 건네주었다. 마담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뮈오른베르 열매 하나를 우아하게 집어들더니 그것을 입에 넣고는 휙하고 등을 돌리더니 나가버렸다. 나는 마담이 남겨놓은 압생트를 허겁지겁 한입에 털어놓고 온 몸이 타는듯한 짜릿함을 만끽한채 마담 뒤를 쫓아갔다.

"크! 좋구만. 근데 방금 그건 뭐였어?"

"일종의 보험같은거야."

"그렇구나. 역시 마담은 철저하네."

"항상 말했지만 가끔은 정거장에서도 의심을 좀 하는게 좋을거야. 보통 낡은것과 새로운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과 장소, 동작이나 방법 또는 순서 기타등등 네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메세지를 주고 받을수 있거든. 너는 나를 너무 믿는거 아니야?"

"그럼. 믿고말고!"

"왜? 혹시 그것으로 밀담이라도 주고받으며 네 뒤통수를 쳤다면?"

"내 트럭에 오르던 순간부터 너는 나를 믿으라고 말했잖아."

"그것뿐이야? 신용이 너무 가볍고도 허술하네. 너 그러다 죽을거야."

"그것뿐이야. 난 그저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것 뿐이지 은혜를 입는 날이오면 그것은 반드시 갚거든. 사실 선행을 입는것이 다른 이들이

뒤통수치는 것보다 낯설고 눈치가 보여. 그 빚을 청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

“의뢰에서 신뢰와 합리적인 의심을 기반으로 하는 자세는 아그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선행을 의심하고 배신과 암투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은 제법 베짱이 있네.”

“고작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본거야? 나를 배신할 생각은 없어?”

“그럴리가. 그러기엔 이미 라일락 둥지는 종달새에게 너무 작은걸.”

“꼭 그렇지만도 않아. 내가 마담을 곁에 두는 것은 마담을 신뢰해서가 아니야. 그렇다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 왜?”

“테이블 위로 총과 칼이 널브러져 있어도 맞은편에 압생트 한 잔 걸칠만한 사람이 있는것도 나쁘지 않잖아?”

“의뢰인과의 적당한 사이라…. 참 자상하고도 고마운 말이네. 그 말대로 네가 공연을 시작할때 나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해줬어. 고마워, 조금 쉬어.”

“감사인사는 마지막에 쥐새끼들의 피를 뒤집어쓰고 스스로 일어난 뒤에 하도록 해.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 급하기는.”

“이건 마담이 지금까지 공연전에 뒷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하는 즐거움을 안겨준것에 대한 감사니 받아둬.”

“그걸 고작 압생트 한잔으로 퉁치자니 여간 손해보는 기분인데?”

“시궁창 여왕의 감사인사 정도는 장부에 달아둘 수 있잖아?”

“못말리겠네.”

“키키.”

“왜?”

“종달새의 날갯짓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라일락 향기에 취해 휘갈기는 붓끝은 대담하고 올곧지.”

“아, 발 바로가.”

그렇게 우리는 우아한 손짓을 연신 허공에 우스꽝스럽게 몇번을 휘적이며 시 구절을 주고받더니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고개를 젖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깔깔대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메웠다. 그렇게 마담과 헤어지려는 찰나 마담이 나를 멈춰 세우더니 조용히 품에서 새 깃털이 달린 화려하고 정교한 가면을 꺼내더니 내게 건네고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제대로 즐기지 않으면 안되겠지?”

그리고는 마담은 콧노래를 부르며 제 갈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등을 돌려 오랜만에 만남의 광장내부 정거장 주변의 화려함 풍경들을 한껏 만끽했다. 윌츠의 눈부시게 빛나는 밤거리조차 무색하게 만들정도로 예술의 성지인 강기뇨르로 향하는

길목의 화려함도 이정도인데 오랜만에 방문하는 그곳의 새로움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었다. 내부순환 열차에 조용히 몸을 맡기고 나는 강기뇨르의 심장부로 향했다. 때마침 그 주변으로 거리 가득히 가면무도회가 한창이었다. 내 편안한 작업을위해 마담은 날짜와 시간까지 신경을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당한 분장으로 신분을 감추었음에도 가면무도회에 가면이라는 꽤나 효율적인 은닉수단까지 제공해준 배려에 입가에 미소가 퍼지며 가면을 이마에 걸치고 가면무도회의 분위기에 한껏취했다. 대대적인 공연을 시작하기 이전의 전희같은 느낌으로 길가에는 오고가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와 음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가며 길거리에서 가볍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다. 나는 잔뜩이나 들떠있었다. 강기뇨르 주변 극단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상황과 다르게 여느때나 다름없이 활기찬 분위기를하고 있었다. 연극과 음악은 물론 미술이나 종합예술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만끽하기위해 각지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저들의 옷차림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아그발의 자금으로 운영이되는 곳이지만 지하세계와 비교해 보았을때 풍기는 분위기는 정말 천차만별이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내 무대는 그곳이 아니었다.

“…예쁘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아쉬움에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까지는 막

을 수 없는 모양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대충 어떤 얼굴로 극단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무룩해져서 갓길에 쪼그려앉아 샴페인이나 홀짝이고 있을때 훤칠한 남성이 내게 다가오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손을 내밀며 내게 물었다.

“저랑 함게 춤을 추시겠습니까?”
“오! 아가씨 보는 눈이 있네, 좋아!”

그렇게 우리는 흩날리는 꽃잎사귀 사이로 춤을 췄다. 몽롱한 길가의 가로등은 아름다운 빛깔을내며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당신이 키르케 폰 뒤 로이작 양이군요.”
“예쁜 이름이긴 하지만 사람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는 확신한듯 내 말을 무시하고 옅은 미소를 띈 채 말을 이어나갔다.
“카를 폰 뒤 로이작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내 지인이 보낸 친구는 아닌것같네.”
“역시 아벨의 현신이 강림한 후에 아벨론에 벌어진 모든 분란은 당신들이 조장한 것이로군요!”
“어때, 걸작이지? 마음에들어? 목줄없는 폭력의 맛은 좀 어떠셨나?”
“당신들은 정말이지 지치지도않고 지겨울만큼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분란을 조장시키는군요. 그 덕분에 카를은 당신들의 간계에 이용당

하다가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분노를 감추지 못해 이를 뿌득거렸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물어 뜯었는지 입술에 피 한줄기가 흘렀다.
“오호라, 넌 카를의 암퇘지구나.”
“나는 도대체 문제의 중심에서 왜 항상 당신들같이 쓰레기같은 존재들이 숨을 쉬며 설치고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글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있을때 구원이나 법의 심판따위보다 정작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우리를 필요로해서가 아닐까?”
“범죄자의 인간찬가는 정당한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악한 혓바닥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희롱하고 합리화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니 정말이지 치가 떨리네요.”

“우릴 너무 미친 범죄자 취급하지만 우리도 의뢰가 아니라면 그런 일은 함부로 하지않아. 마찬가지로 선량하신 대법관님들께서도 정의롭지 않은 일에 단죄를 내리시지 않잖아, 안그래?”

그녀는 내 안에 흐르고있는 피를 알고있었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이해하자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다. 망설이며 주저하는 눈동자가 가면 뒤로도 느껴져 내가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렇구나. 하지만 카를의 넋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가씨가 원하는게 고작 나의 목숨따위야? 정말 그걸로 만족해?”

“고작이라뇨, 너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시네요. 당신의 사상이나 철학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세치 혀로 남을 움직이고 쉽사리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죠. 저주받은 핏줄. 키르케 폰 뒤 로이작. 아그발을 팔아먹은 매수범. 이미 아그발의 지하도시에도 당신 목에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달려있어요. 물론 생사여부 또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모든이들이 당신의 시체에 침을 뱉으며 환호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네, 아가씨. 네가 서 있는 땅은 아그발의 영역위에 있는 환락의 거리 강기뇨르야. 남이 죽어나가는 꼴을 즐거워하며 배당금을 걸고 노는 것쯤은 이곳에선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적어도 제손에 죽어주세요.”

나는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선수를치며 말했다.

“오호라, 그럼 지금 우리의 춤은 죽음의 무도가 되겠네. 서로 한치앞을 알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춤을 추는 배우들이고.”

“무슨 소리를….”

그녀가 흠칫하면서 거리를 벌리려하자 나는 허벅지에 숨겨놓은 얇고 예리한 나이프를 그녀의 목 깊숙히 쑤셔박아 넣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못한채 입만 뻥긋거리며 죽어갔다. 나는 아직 채 식지않은 그녀의 손을 꼬옥 잡으며 부드럽게 춤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음악이 멈추고 나는 조용히 칼이 박혀진 곳에 총구를 박은 뒤 방아쇠를 당김과 동시에

박혀있는 칼날을 뽑았다. 총성과 피가 사방에 퍼져나가자 나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자리를 벗어나거나 우리 주위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다.

“도와주세요! 누가 사람좀 불러줘요!”

그리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귀를 찢는듯한 폭발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림과 동시에 주변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소동때문에 삽시간은 아비규환이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정갈한 양복차림의 중절모를 쓰고있는 노년의 신사가 침착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말없이 품속에 지니고있던 명함과 키카드를 건네주었고 그는 안경을 들어올려 확인한뒤에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승인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쥐구멍 하나도 놓치지 말아줘, 부탁해!”

그는 귓가에 손을대며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전달했습니다.”

나는 가면과 분장을 벗어던지며 드레스 치맛단을 찢어버리고 움직이기 편한 모양새로 거세게 묶어두었다. 나는 익숙한 화약냄새와 비명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노년의 신사가 건네준 선글라스를 고쳐쓰고 숄을 어깨에 걸친뒤 강기뇨르의 화려한 거리뒤로 패거리들을 거느리며 유유자적

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좋아, 그럼 슬슬 가볼까.”

『 천지신명 』

“우와! 대감님, 이것보세요.”

초아는 잔뜩 들떠서는 막아의 손을 꼭 붙잡고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대감님도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시더니 나와 저만치 뒤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

“오냐, 간다. 이것아. 조급하게 굴지 말거라. 그것이 당분간은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을테니 말이다.”

봄이 다가왔음에도 을씨년스러운 날씨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안개 자락은 세사도르 전역을 포근히 뒤덮였다. 그것이 단순히 기후의 영향이 아니라는걸 도사가 아닌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미의 품에 안기듯 따스한 기운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세사도르 주위를 가득메운 결계였다. 겹겹으로 켜켜이 쌓아올린 결계는 세사도르의 동녘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고 빛에 반사된 안개무리가 반짝이며 하늘을 수놓았으니 그 모습은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비경이나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물론이거니와 막아나 초아도 결계라면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나 두텁게 쌓여올려진 결계는 본 적이 없었기에 그것을 눈에 담으며 잔뜩 신나하는 녀석들을 보고있노라니 나도 조금은 들떠있었다. 조용히 대감님을 바라보았지만 대감님은 왠지 옛 벗을 반기는 듯이 오묘한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더니 이전의 반가움은 온데간데없고

원망스러움이 섞인듯한 복잡한 심경을 얼굴에 드러내시고는 혀끝을 차시며 조용히 읊조리셨다.

“쯧쯧, 강산이 변한대도 어찌하여 세사도르의 도사놈들은 변한것이 없을꼬? 그저 샛동이 밝아오는 이 땅만 무사하면 된다는겐가?”

대감님의 말에 아랑곳않고 나는 손을 결계에 손을 뻗어 그것을 부드럽게 몇번을 담그고 난 뒤에 그 손을 빤히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보니 대감님은 비호의 결계를 반기셨던 적이 없으셨지만 이번에는 조금 유별나시구려.”

“네놈 눈은 옹이구멍이더냐? 같은 결계라도 그 결이 다르거늘. 결계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는게야?”

“결계란 것은 무릇 두터우면 좋은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신대, 또?”

“무슨 일이 일어날때마다 문고리를 걸어잠구면 이곳의 음기는 어디로 흘러간단 말이냐? 무릇 조화가 있어야 동녘에도 볕들날이 있는게지.”

“그래도 이렇게나 조심스러운 까닭에 세사도르가 굳건히 오랜 시간동안 동녘 끝자락에 자리할 수 있었던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경계하는 것은 귀기와 가까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요.”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는것이 도사가 할 일이더냐?”

“그게 대관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것은 도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릇 살아있는 모든것들이 살피는 것일진대.”

“도사가 안방구석의 잡귀 따위나 제령하면 그걸로 끝이냐 물었다.”
“사방 천지의 모든 귀기를 멸한다면 그제야 만족 하시렵니까?”
대감님의 말에 나는 입을 비죽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인상을 찌푸리고는 비꼬는투로 되물었고 대감님은 이죽이며 답하셨다.
“그렇다면 좋겠구나. 어차피 그러지도 못하겠지만 말이다.”
“나같은 종것들은 주인이 무언가를 하라하면 하는것처럼 영왕 아래 도사들도 분명 궁에서 나온 명을 받들고 그리하는 것이겠지요.”

“방구석에서 문이나 걸어 잠글줄만 알지 다른 넋을 알고자하지 않으니까 샛동 하늘아래에 음기가 자욱한게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 밖에 보지 못하는 주제에 망자의 넋을 위로한다고 설쳐서야 되겠느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영 마음에 들지않는 비호의 결계라도 부수실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영왕의 명에 반기라도 드실겁니까?”
“반기라는 것은 이전부터 말을 듣던놈이 벌이는 것일진대, 내가 언제 한번이라도 궁에서 온 명을 받드는걸 본적이 있더냐?”
“언제라도 목이 떨어져 나가도 이상할것 없어 신기할 따름이다가도 칠매오랑 들고있는 대감님을 보고있자면 또 신기할 것도 없지요.”
“나를 대체 무어라 생각하는게야? 그나저나 비호의 결계는 부수지 않을거다. 그것은 너무도 야만적이지 않느냐?”
“아이고, 예. 퍽이나 그러시겠지요.”

나는 그 말에 어이가없어 이마를 탁 치면서 말하자 대감님은 가만히 웃으시다가 한동안 말이 없이 결계를 손에 몇번을 담그시더니만 역시 기분이 나쁜듯이 그것을 짜증스레 털어내며 내게 물으셨다.

“홍아, 너 혼자 이거 부술 수 있느냐?”

부수지 않을거라며 부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갑작스러운 그의 오락가락하는 질문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대감님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듯이 나도 별일 아닌것을 들은 양 태연하게 답했다.

“귀도의 흐름이 보이기만 하면 부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초아나 막아없이 혼자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깨부술까요?”

“됐다. 그만두어라. 나는 그저 소풍 나가기전 내가 가지고있는 전력을 파악해본 것 뿐이야. 모기를 잡는데 굳이 칼을 뽑을 필요는 없단다. 그래서야 이쪽의 진의만 보여주는 꼴이니 말이다.”

“진의라…. 대감님은 무엇을 위해 영왕에게 눈엣가시같은 일만 골라서 하시는지 여쭈어도 됩니까?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 아닙니까?”

“이런걸 충신의 간언이라 하는게다, 이놈아.”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대감님 그런걸 이르러 협박이라고 합니다.”

“네놈의 혓바닥은 날이 갈수록 독사같아 지는구나. 못배운 종놈새끼가 어째 한 마디 지지를 않아요. 허허! 참.”

“대감님에게서 지는법을 배운적은 없습니다요.”

그 말이 만족스러웠는지 대감님은 수염을 매만지며 파안대소하셨다.
“옳다! 이놈아. 말 한번 잘했다.”
그 말과 동시에 대감님의 주위로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더니 그 틈 사이로 노디와 낙비가 잔잔한 모습을 드러내자 흐느낌이 섞이어진 비명소리와 함께 결계의 주위로 고요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을 보자 저 멀리서 막아랑 결계 주위를 노닐고있던 초아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이 왜 초아와 그리 가까운건지 왜 아직까지 대감님의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유오길씨와의 재회는 끝난듯한 느낌이었다. 더불어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낙비는 독기가 빠져나간듯 한결 평온한 얼굴을 하고있었다. 내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찬찬히 그리고 조금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들을 뜯어보자 노디이가 그것을 알아챘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꽤나 할 말이 많은 표정이로군.”
“꽤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군.”

“궁금한가?”
“아니, 필요없다. 어차피 혼백을 제하는데 방해만 되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그리고 적어도 네놈들이 대감님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으니 더이상 방해할 생각은 없으니 이제 이 땅에서 물러가라.”
“홍아, 왜 이리 심통이 나있니? 나는 나중에 들을란다, 야.”

차갑게 날이 서있는 분위기에 막아는 곤란한 얼굴로 우리들을 번갈아서 바라고 있었고, 초아는 그 곁에서 우락부락 화를 내면서 말하자 가만히 듣던 대감님은 그녀의 뒤에서 세상 관심없는 듯한 태도로 하품까지 하시더니 우리를 재촉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나 날이 서 있는게야? 간만에 소풍을 나가려는 참인데 얼굴들 좀 풀거라.”

그 말에 노디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는 대감님께 물었다.

“영혼을 찢는 이 통곡의 벽은 아벨의 현신 때문에 펼친것인가?”

“통곡의 벽은 무슨. 그냥 불경한 것들을 부정하는 결계니라. 유오길씨의 흔적도 찾은 것 같으니 이제 그만 썩 물렀거라.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네놈들의 영혼을 제령하지는 않을터이니.”

“불경한 것들이라….”

“네놈들이 그리 불려지는게 그렇게나 신경이 쓰이는게냐?”

“당연하다. 우리 역시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이전, 이데아에 새겨진 최초의 저주인 에르아의 저주를 입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곱의 죄악 모두를 짊어지고 영혼이 찢겨발겨지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임에도 일말의 동정조차 건네주지 못하나보군.”

“남들의 영혼을 뜯어먹는 것들에게 동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네만. 그리고 이건 네놈들 때문에 펼쳐놓은 장막이 아니라 강림한 아

벨의 현신 때문이니 착각하지 마라. 네놈같은 것들을 몰아내는데 결계 마저도 사치니라.”

“대감은 아벨의 현신을 두려워하는가?”

“두렵기보다 그것이 궁금하긴 하네만.”

“당연히 아벨의 현신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겠지.”

“당연히? 나를 꽤나 잘 아는듯한 말투를 하는구만, 그래.”

대감님이 눈썹을 씰룩이며 노디이에게 묻자 녀석은 뜸을 들이다가 대감을 가만히 바라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벨의 현신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것이 고작 대감이 원하는 것이었나? 그거라면 아벨의 현신을 조우하고 온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답해줄 수 있다.”

“아벨과 조우하고 왔으면서도 네놈들은 용케도 살아남았구나. 그래 그것을 본 소감이 어떠냐? 네놈들은 그것을 눈에 담고도 그것이 구원처럼 느껴지더냐?”

“누군가는 그것을 구원이라 느끼겠지.”

“그렇구나. 말인즉슨 그것을 구원이라 느끼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라면 구원이라 불리던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

“저주가 되겠지.”

“살을 되돌리지도 못하는 것들이 살을 날려 저주나 다름없는 구원이라

는 것을 불러내니 이래서 못배운 놈들은 안된다 이말이다.”

“이 육신에 담겨진 수많은 영혼 중 일부만을 소모했을 뿐이다. 쏟아지는 아벨의 빛무리가 바스러진 이 육신에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데아논이라는 영혼에 그것이 닿지 않게하여 그것이 지워지지 않게했지. 그리고 대감에게 고하지 않은것은 데아논이 아닌 루오긴의 의지였다.”

“아벨의 현신과 조우하면서 네놈들은 소멸될 영혼들을 네 손으로 직접 솎아낼 수 있는것에 도가 튼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고작 그것만으로 나를 이해시키려고 했다면 너무 안일하다, 요놈아. 허면, 그럼 지금 당장 네놈을 죽인다해도 그건 노디이가 아니라 유오길의 죽음이니 세상만사 아쉬워할 이 없겠구나. 안 그러냐? 다만 안타까운것은 유오길의 혼백이 가진 재주이니 그건 곁에 두고 싶었는데 아깝구나.”

대감님은 혀를 끌끌차시며 아쉬운듯 가벼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등을 타고 흐르는 귀기는 칠매오랑을 휘두르던 귀신의 굿을 떠올리게하여 소스라치게 놀라 나도모르게 막아와 초아를 불러세웠다.

“막아, 초아!”

그 외침 혹은 절규에 막아와 초아는 순식간에 내 곁으로 다가왔고 돌발스러운 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시던 대감님은 무언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것은 분명 이전의 자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로 타고 흐르는 느낌이 얼음장처럼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대감님은 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웃으며 이내 입을 여셨다.
“…오호라, 홍이 너는 무언가 보이는구나.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이전보다 귀문이 조금 더 트인듯한 기분이 드는건 둘째치고 대감님이 귀신이나 악귀처럼 날뛸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내게 보이나이다.”
“그래, 지금 내가 무엇으로 보이더냐?”
본능적으로 무의식속의 내가 그것을 숨기라 비명하고 있었지만 거짓을 고했다가 대감님의 모습을 한 저것은 나의 목을 단칼에 내려칠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는 그 이름을 간신히 내뱉었다.

“한웅….”

“그간 내게 도깨비가 깃들어 있었구나. 헌데 한웅은 어질고 사려깊은 것일진대, 홍이 너는 무엇이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느냐?”
한웅의 거죽뒤에 눈을 뒤집어깐 귀기가 선명하게 눈에 비치었다. 분명 한웅의 혼백에 덧씌워진 섞인 영혼 탓일 것이다. 한웅의 몸으로 일곱의 죄악을 짊어진 것이 태어난다면, 분명 그것은 세사도르 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모든 것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 굿판에 올려야할것은 노디나 낙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의 누구도 아니, 세사도르 뿐만 아니라 샛동 밖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고있는 사이 노디와 스치듯 짧게 시선이 마주

쳤고 대감은 내게 다시 물으셨다.
“어찌 물음에 답을 고하지않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게야?”
“…대감. 아직 유오길을 제령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말해보거라.”
“예, 아벨의 현신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 그릇에 무릇 수많은 혼백이 담겨져 있겠지요.”
대감님은 그 말을 듣고는 무언가 깊게 생각하시는 듯 고개를 가벼이 흔드시다가 노디에게 큰 소리로 물으셨다.
“그것이 정녕 사실이더냐?”
“어느정도 맞는 말이군.”

“수많은 혼백으로 이루어져 있는것이면 노디와 낙비 네놈들이랑 다를바가 없는 것들이 아니냐?”
“아니, 틀렸다. 대감네들이 말하는 순수한 영혼의 진심어린 기도로 빚어낸 믿음과 신앙으로 비로소 아벨의 현신이 만들어졌던 것이지.”

“그딴것이나 뜯어먹으면서 태어난게 구원이라는게야? 그리고 고작 그런것들을 긁어모아서 물리적인 현신을 이룰 수 있는게냐?”
“그럼 묻건대 세사도르의 인간들은 죽기전에 무엇에게 빌지?”
“대부분 천지신명에게 빌겠지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빌지 않네.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빌어봐야 무얼하나? 그런데 그것은 어

떠한 연유로 묻는게야?"

"딱한 영혼이로다. 상투스의 신앙과 종교 그리고 세사도르의 굿판이라는 것은 다른 듯 보이지만 결은 같다고 볼 수 있지. 네놈들은 이를 악물고 부정하겠지만 적어도 영혼이라는 것을 담아내는 우리들의 입잡에서는 도진객진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끄집어낸 영혼을 무사히 다른 육신으로 온전하게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감이 그리 즐기는 파소나무의 열매가 스스로 땅에서 솟아나는걸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덧없고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다고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그럼 믿음과 신앙 그리고 굿판을 접목하여 혼을 전이하면, 아벨의 현신처럼 나도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구원이 될 수 있는게냐?"

"섞이어진 지금의 상태로는 그렇게 쉽진 않을거다. 믿음과 수용이라는 것이 그저 고개만 끄덕여 수긍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섞이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게냐?"

"이해를 못했군. 대감이 지금 섞이어져있는 상태라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누구지?"

"오호라, 네놈들 나를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게야? 좋다. 얼마든지 원

하는대로 해보거라."

"홍정이 아니라 동정이오. 아벨의 자손임에도 스스로의 밧줄에 옭아매어져서는 버둥대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것은 그대가 탐낸다하여도 삼킬 수 없는 영혼이 있는 법이지. 아벨의 현신이 바로 그러하다."

노디의 날이 서 있는 말에도 대감님은 아무렇지 않은듯 어깨를 으쓱하며 개의치 않으시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허면 영혼을 먹는 네놈들은 아벨의 현신안에 담겨져 있는것을 삼킬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거냐?"

"그것 안에 담긴것이 잔류사념이라면 가능하나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쪽에 능한 이를 필요로 할 것이 아닌가?"

"음. 설득력이 있구만그래. 얼렁뚱땅 넘어가주지. 일단은 말이네."

그렇게 대감님은 크게 웃으시며 우리는 결계가 만들어낸 경계선을 타고 마침내 세사도르를 품은 결계의 끝자락에 도착했다. 대감님은 무언가가 생각이난듯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노디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아, 그리고 동방 색동이 트는 이 땅에서 어지간히도 많은 귀기를 빨아 먹었구나. 체하기전에 얼른 토해내려무나. 색동 떠오르는 동녘의 나라에 흩날리는 혼백 모두 이 땅의 것일지니."

"영혼은 어디에도 종속되어있지 않는다. 나에게 담겨져있는 것은 단순히 내게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대들의 말을 빌리자면 기도와 숭배 그리

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빙의가 되었다보면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것에 딸린 수가 많고 그 농도가 짙을 뿐."

"오히려 잘 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아벨의 현신에 걸맞는 엄청난 양의 음기가 필요할테니 결국 네놈은 도시락 보따리인 셈이로다."

"어떤 취급을해도 상관없지만 아벨의 양기에 취하는 것은 나약한 영혼을 짊어진 것들이지, 굳이 그딴것을 이겨내려고 이 육신에 담긴 영혼을 낭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래, 그래. 뭐 일단은 그것과 조우하고 볼 일이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겠구나. 자, 슬슬 움직이자꾸나."

나는 발걸음을 옮기려는 대감의 앞을 막아세웠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세하게 떨리는 뺨을 매만지고는 확인차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내 눈 앞에 있는것은 뉘십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다, 이놈아. 정신을 놓은게야?"

"막아, 초아 그리고 나 홍. 지금까지 주인의 뒤를 따를지 갈라설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 왔지요. 대감님의 모습을 한 그대는 샛동의 무리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혼을 찢어발기는 무리옵니까?"

"정확이 말하면 둘 다 아니로다. 칠매오량을 깨우고 혼백의 전이로 천하를 손에 넣어 천지신명의 이름이 될 몸이로소이다."

"…탁해진 혼백이 깃든 도깨비를 등에 업었지만 말하는것이 영락없는

대감님이시구려."

"누가 뭐라한들 다르겠느냐? 내가 훗날의 천지신명님이시니라."

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자 대감님은 신나하시며 어깨를 부풀리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그게 무엇이 중하다고 두번씩이나 말하고 그러신대. 그리고 하루라도 영왕님의 심기를 거스를만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친답니까? 내가 살이떨려서 도저히 살 수가 있어야지."

"잠꼬대는 끝났느냐?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게야?"

"행여라도 대감님이 세사도르에 자리한 도깨비나 귀신 혹은 구천에 떠도는 이름모를 혼백에게 먹히게되어 소멸이 된다하더라도 기깔나는 굿판을 벌려 멋드러지게 천도해 드릴터이니 섭섭하게 생각치 마시오."

내가 그리말하자 대감님은 대뜸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틔여진 귀문으로 뜯어보아도 대감님이 찰나에 지으신 그 웃음은 진심이었니 부정하고 삿된 기척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마저도 다른 넋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쳐서였다. 그게 가능하다면 대감님은 이미 세사도르에 남기엔 너무나도 뒤섞인 넋을 지닌셈이다. 마치 노디와 낙비가 그러하듯 말이다. 천지신명이 된다는 대감님의 말을 머릿속으로 여러번이나 되뇌었지만 그것이

결코 대감님의 진의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혼백의 전이라면 누구라도 탐낼만한 비급이지만 도력조차 없는 대감님이 그것을 취하기를 바라기 그지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뭉스러웠다. 한참이나 상념에 잠겨있자 대감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깨웠다.

“재밌지 않느냐? 구천을 떠도는 저 귀신조차 구원이라고 믿으며 떠받는 이들이 있는데 나라고 못할것은 무어냐?”

“대감님이 천지신명님이 되고자 하는것은 미처몰라 놀라울 따름이외다. 아니, 그보다 대감님처럼 우악스러운 작자가 천지신명이라고 떠벌리는 걸 세상 어느누가 달가워 하겠습니까?”

“두고 보거라. 사나운 천지신명이 하나쯤 있어도 나쁘지 않을거다.”

“그럴거면 천지신명이 필요로하지 않겠지요. 무릇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이를 이르러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인자하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비호해 주시나이다.”

“아벨의 현신을 빗어낸 것들과 같이 무지한 소리를 자랑스러이 당당하게도 말하는구나. 참으로 무르도다. 천지신명이라고 불리우는 자의 위치는 아랫것들의 읍소를 들어주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놈아. 지금의 영왕은 인자하고 어질어 혼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지금 꼴이 어떠냐? 섞이어진 것들은 물론이요 음기가 더욱 그득하지 않더냐? 결계, 비호, 쇄국. 영왕이 취한 세가지 중에서 대체 무엇이 아벨

의 자손 혹은 세사도르에 사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었는가?"
"대감님은 오래 뿌리내린 세사도르의 근간을 바꾸시려는 겁니까?"
"굳이 그럴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요란법석 결계까지 펼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은 갈아치워야 마땅하지. 혼백을 제령하는 것이 도사놈들이 할 일이지 혼백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순간 네놈은 영혼의 무게를 제대로 저울질하지 못할게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네놈의 제령에 망설임이 생기고 혼백은 그 순간을 파고들며 아쉬움이나 한탄, 집착같은 삿된 사념을 품게되겠지. 그럼 그것들은 구천을 떠돌다가 사귀가 되는것이야. 공사구분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이다."
"아니, 도력도 없는 양반이 그런건 어찌 그리 잘 아시우?"

"종놈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지껄이는 말을 가만히 듣다보니 앞뒤가 안 맞는것이 한 두개가 아니라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입밖으로 나왔지뭐냐. 도사놈들 도리대로 공존을 선택했으면 진득허게 부둥키며 살아야지 삿된 것들은 지들 스스로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누군 남기고 누군 취하고. 이게 그들이 오랜동안 부르짖는 혼백을 대하는 태도가 맞느냐?"

"모르겠수다. 그렇다해도 나는 분명 아벨의 현신 앞에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겠지요."
"너나 나나 제명에 못 살겠구만. 내가 섞이어진 것들의 영혼의 격류에 휘말려 네놈의 손에 죽느냐 아니면 삿된 귀기의 한에 잠식되어 넋을 잃

어 네놈이 내 손에 죽느냐 그 차이겠지. 허나 굳이 해답을 먼저 던져놓을 필요는 없을정도로 무의미한 사담일 뿐이지.”

“그럼 왜 이렇게나 열성을 다하신거요?”

“알고나 있으라고 이놈아. 삼라만상 천지신명 손바닥아래 인간이 혼백을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르니까 말이다. 혼백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대하는 다른 인간들도 이해하는 법도 좀 기르거라. 네놈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그리고 명심하거라. 수많은 넋들을 곁에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만큼 인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것들아.”

최악이다. 지금 우리는 아벨의 현신을 조우하려는 이 중요한 순간에 피가되고 살이되는 조언을 아낌없이 퍼붓는 대감님과 삿된 것이 서려져서는 엉망으로 뒤섞여진 도깨비왕 한웅을 짊어지고 있는 대감의 껍데기를 한 무언가와 함께하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기분이 들어 영 꺼림칙한 기분을 감출 수 없어 우리는 결계의 따스한 품속에서 그저 숨막히도록 서로의 눈치를 보고만 있었다. 그건 노디와 낙비도 마찬가지였다. 그 놈들은 한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지 못했기에 낯선 강함에 압도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그렇게 숨막히는 포근함속에 빨려 들어갈때쯤 대감님께서 태연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백귀야행의 소풍날은 좋아하느냐?”

『 인간의 조건 』

“천재과학자, 발명가, 윌츠의 영향력있는 인물 중 하나로 촉망받던 이의 행보가 죽음의 무기상 그 다음엔 포주인거냐? 네놈이 여색에 관심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내 감이 맞다면 이건 분명 연막이겠군.”
익숙한 면상을 하고 아는체 건들거리며 제 할말이나 장황하게 쏟아내고 있는 그 자는 다른 이도 아니고 길버트였다. 오래 알고지내던 자였지만 의절하고 지낸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제법 귀찮은것이 한창 만끽하고 있는 여유로운 휴식을 방해하자 나는 생면부지의 남을 대하듯이 비꼬면서 그에게 말했다.

“클라크 씨. 용건만 간단히 말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보다시피 지금 바빠서 당신과 놀아줄 생각은 없으니 말이죠.”

한참을 싸늘한 시선을 주고받고나서 그는 눈을 가늘게뜨고 코웃음을 치더니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감정없이 용무를 슬슬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장단에 맞춰드리죠. 아시겠지만 저는 윌츠의 전언을 들고왔습니다, 에르빈 씨. 인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재료 때문에 흉흉한 사건들과 꽤나 깊게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서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 대한 연구 분석과 재구축은 어느 과학자라도 선망하고 있는 연구과제인데 새삼스럽네요.”

“이 새끼가!”

내가 관심없는 투로 무심하게 대답하자 그는 변함없이 이전처럼 발끈하더니 얼굴을 내 코 앞까지 들이밀고는 언성을 높였다. 저택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많은이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나는 웃음을 짓고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손짓을 건네자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여흥을 즐겼다. 그리고 여유있는 그 모습이 영 꼴보기가 싫었는지 클라크는 주위의 눈치를 한번 보고는 얼굴을 잔뜩 구기면서 내게 조용히 말했다.

“과학에도 선이 있는거다. 윤리관을 무시하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는 과학자는 그냥 미친놈일 뿐이야. 애초에 과학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이 아닌가?”

“그런가? 진보의 수단이자 진리에 닿기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제부터 진리에 닿기위한 과학이라는 학문이 오직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했던거지? 본디 과학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우주 만물에 깃들어있는것인데 내가 윌츠를 나오고나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라도 했나?”

“번영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진리와 가깝다해도 그들의 안녕을 와해시키는 불안요소를 막는것도 과학자들이 한번은 겪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악물고 도망치고 책임을 전가하며 고개를 돌리고 이 악물며 무시해왔지.”

“두려워? 무시해? 아니지 그저 관심을 줄 가치가 없었던거야. 원대한

발견과 실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작은 요소에 불과했을 뿐."

"변명한번 거창하군. 실험실에 쳐박혀앉아 피조물 따위나 조물락거리더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과학자는 그렇게 거대하고 걸출한 것들이 아니야. 과학자가 아닌이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지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일 뿐이지. 진리에 취해서 신 놀음이라도 하고싶은 것이라면 더더욱 과학자라는 그늘뒤에 숨어있어서는 안돼."

"윌츠의 연구자들은 진리만을 쫓다보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착각과 도덕적인 고차원적인 덕목에 취해 사는것같은데 그것은 오만이네. 앎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지성을 지니고있는 존재라면 있는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중에 하나이다. 하다못해 들판의 짐승들도 그러할진대 앎에 대한 갈구는 그렇게 촌스러운 것으로는 막을 수 없을거다. 도덕적인 장벽에 머물러 인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저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아벨의 안녕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자 문명의 퇴보가 아니겠나? 진보된 과학은 언제나 억압되고 핍박받아왔으니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것도 과학자가 해야할 일 아닌가?"

"맞아, 모든 것들이 앞선 기술을 두려워하지. 네가 예로 든 짐승이 불을 두려워하듯 말이야. 그래서 비록 과학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발견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도 있는 아량이 필요한거다. 그래서 윌츠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줄 제도를 정립해 온 거라고.”

“아니, 그들은 창의력을 죽였어. 뭐만하면 지레 겁부터 먹어서 호들갑을 떠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 잘난 창의력을 실현시키려고 윌츠의 보이지않는 손에서 벗어나 겁쟁이처럼 외딴 섬에있는 저택에서 숨어지내고 있던건가?”

“숨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같이 연구에 방해가되는 요인들을 충분히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좋은 환경이었지. 네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래, 그 연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죽음에서 돌아온 마르나크의 군인들 소식은 아주 잘 들었다. 얼렁뚱땅 개조병기라고 휘갈겨 놓았지만, 그거를 회수해서 분해해보니 인간과 비슷하더군. 너는 뭘 만든거냐? 시제품을 시험하기에 피와 살이 튀기는 전장만한 곳이 없더냐? 윌츠를 뛰쳐나가더니 이제 아주 눈에 보이는게 없지?”

그가 한껏 비꼬면서 말하자 나는 바로 맞받아치며 그에게 되물었다.

“윌츠의 정보력은 무섭군. 하지만, 내가 내 휴양지에서 포주짓을 하고 있다고 비꼬기 전에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관음을 즐기는 과학자들의 처지부터 돌아보는게 어때? 윌츠는 그렇게나 한가한가? 부럽구만.”

“적어도 일을 벌일 참이라면 남들 눈에 띄지나않게 조용히 하던지. 너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네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들 뿐이라는 건 스스로 자각을 좀 하고있나?”

“신문을 보니까 개조병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내 투자자의 입지를 보니 시제품 시연은 꽤나 훌륭했던 것으로 보이는군.”

“속 편한 소리하지마라. 그들, 아니. 그것? 젠장. 뭐라고 불러야 할지를 모르겠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전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게 되면서 안정되지않은 정신과 충돌하고 외상 후 정신질환과 비슷한 징후를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가 만든 전쟁병기에 이성이 생겨난 거라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은 간헐적으로 정신의 붕괴를 겪고 있단다. 그렇게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있는 피조물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나?”

“흐음, 그런가.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만….”

“뭐?”

“그들의 이성이 발현된 뒤에 스스로의 모습과 현실의 괴리감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외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군.”

내가 턱에 손을 괴고 실험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즉시 수정을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진저리가 나듯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네가 측정불가의 지능을 갖춘 천부적인 과학자이자 동시에 획기적인

발명가인 사실은 지나가던 건달도 아는 사실이지만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놓은 재앙을 거두지도 않은채로 계속해서 이데아를 파괴할 것들을 낳는다면 네 존재는 아벨의 자손에게 득일까 실일까?"

"이건 협박으로 간주해도 되겠군. 저울에 올려진 내가 실이라고 여져진다면 나는 윌츠로부터 제거되는가? 아니면 윌츠위의 누군가인가?"

"소설 쓰지마라. 과학자라고 잘도 떠들어 대면서 망상이 지나치군. 이건 그나마 옛 정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 아닌 경고를 해주러 온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네가 어디서 죽던 내 알 바 아니지."

나는 어깨에 올려진 손을 불쾌하게 내치고는 답했다.

"배려는 고맙네만 내가 일군 과학의 산물을 재앙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것은 혁신이며 진보의 증거니 말이야. 그렇기에 그것을 굳이 거두어야 할 이유도 없지. 창조주 에르아가 이바와 아다무스를 낳을적에 그것을 파괴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에르아는 혼란스러움에 물들어가는 그것들을 보고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하려고 했지."

"진리는 무한에 가까울 만큼의 수가 변칙적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창조주 에르아는 변칙성을 선망하기만 했을뿐 그것이 가진 변칙성을 도식화하여 연산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후에 도출된 결과값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불규

칙의 규칙성이 가진 거대함을 너무 만만히 봤던거지.”

“신조차 하지못했던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것처럼 말하는군.”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1을 99로 이끌어내는 것은 과학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인류의 진보를 위해 얼마든지 내달릴 준비가 되어있네. 자네는 어떤가?”

“타고난 두뇌만큼이나 윌츠가 너를 두려워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너의 그 혓바닥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열받게도 네 말에는 묘한 힘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하니 더더욱 조심하라고. 언젠가 너를 죽이게 되는것은 네가 만들어낸 재앙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혓바닥일 테니까.”

“그래서 용무는 그것뿐인가?”

“사실 네가 골방에 쳐박혀서 인간과 비슷한것을 만들어내어 도덕적 관념과 충돌하는것은 둘째의 문제고 진정으로 윌츠가 너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우려했던 것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핵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을만한 가능성을 네 손으로 빚어냈다는 것이지.”

“…오호라, 천사님이신가?”

내가 턱에 손을 괴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음을 지어보이자 이전에 나와 오랜 시간을 보낸 그가 무언가를 알아채고는 내게 물었다.

“미치겠네. 이제는 숨길 생각도 없나보군. 그래서 그건 어디에있지?”

“바보 아니냐, 너? 당연히 천사님이라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위에 신

의 전당에서 우릴보며 미소짓고 있지 않겠나?"
아는 일부러 그를 위해 허무맹랑한 대답을 아무렇지않은 얼굴로 기다렸다는듯이 쏟아내자 그를 바보취급하자 길버트는 얼굴을 붉히며 이를 뿌득거리며 이마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말했다.
"핵반응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은 자각해라. 아벨의 형상이 강림한 지금도 늘어져버린 광휘 때문에 생명을 이루는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마당에 핵반응이라는 것으로 인해 이데아에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과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

"…글쎄 딱히 없는데? 적어도 내 눈에 비추어진 피실험체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버둥대며 희망을 담고있었어. 여린 몸뚱이에다 납땜질을 하던 뭘 하던 개의치않고 고마워하며 건넨 작은 손과 미소를 받은 기억밖에 없군. 그것도 내게 일어날 이상현상이라면 딱히 나쁘지 않더군."

"그것이 천사인지 악마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
흥미가 동해서 하마터면 하품이 나올뻔했다. 귀찮다. 윌츠 주변에는 이제 얼간이들만 남은건가. 어설프게 진리에 닿고자 지식을 쌓아올린 놈들이 오히려 종교나, 아르카나같은 것에나 매달리는 멍청이들보다 겁이 많으니 과학자들 스스로 진보를 막으려는 듯한 기분이 들어 안타깝다는 기분보다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절실함이 느껴지지않는 과학자에게 실망한 나는 한탄하듯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무엇을 그렇게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네. 동화 이아고스의 부싯깃에서 진리에 닿지 못했던 과학자가 결국 나락의 손아귀에 끌려가는 비극적인 운명의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투영하기라도 한건가? 한심하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고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것처럼 보였나?”
“응. 그리고 방금 네 대답으로 확신했어. 작은 혼란조차 감내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진보하는 내일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걸 말이야.”

“애초에 우리는 불꽃을 만들어 냈을때부터 혼돈의 도가니에 휩쓸릴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몫이었고. 자, 봐라. 이제 누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있지?”

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다음 품속의 회중시계를 꺼내면서 시간을 확인하고는 그에게 정중하게 통보했다.
“이야기가 빙빙 돌고있지않나. 서로 다른 도식으로 서로 다른 것을 증명하려하니 서로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일이 없을텐데 구태여 의미없는 말을 늘여놓으며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이 대화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나? 한가하신 높은분들은 모르겠지만 천재에게 1분 1초는 두번다시 되돌릴수 없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걸 모르나?”
“시간이라는 가치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시간이나 진리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바퀴를 굴리는 이의 시간의 절대값은 모두 동

일하다네."

"…그렇게 같은 시간으로 출력되어 도출된 값이 아벨의 현신 따위라면 오히려 아벨의 안녕을 저해하는것은 베일에 쌓여진 진리를 추구하는 나의 연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다. 이 놈은 글러먹었다. 월츠에서 사고를 멈추고 얼마나 오랜시간을 지냈는지 지나치게 감성에 물들어버렸다. 그러자, 나와 오랜시간을 보내온 탓인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듯 그의 입에서는 내 생각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넌 글러먹었어. 그동안 이루어낸 연구성과와 몇몇의 결과물들은 아벨의 자손들의 수준을 몇단계를 끌어 올렸기에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빚어낸 자의 사상은 너무나도 위험하군."

"우연이군. 방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나 잘나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과학의 이면에 손을 댄 자의 처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힘으로 억누를텐가 아니면 법대로 하실텐가?"

"이렇게나 당당한것을 보면 마르나크는 물론이고, 이르메스나 다른 국가에도 뒷배를 심어두었을테지. 너를 토끼굴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지금이 아니니까 조금 여유있게 기다려 주시게. 내 오랜 벗이여."

"뒷배라니. 나는 건달이 아닐세. 그들은 그저 여러곳에 나를 지지해주는 소중한 나의 투자자들이네.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않고 오롯이 연구

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말이지. 적어도 네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윌츠에서조차 반발이 심한데 다른 아벨의 자손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연구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샴페인을 준비하고 기대하겠네."

"글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 세상엔 생각보다 미리 앞선 세계를 엿보고 싶은 사람들로 차고 넘쳤으니 큰 기대는 말게나."

"…언젠가 크게 후회하게 될거다."

"내 명석한 두뇌를 원망하고 후회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어. 일어나지 않을 일에대해 후회하는 것은 과학자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발명과 창조로부터 다가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지. 아니면 명석함과 총명함을 지니지 못한 자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자의 추락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게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라 놀라웁지도 않지."

"그저 전례를 말해주고 싶었지. 자유연구를 목적으로 윌츠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던 과학자들 대부분이 윌츠의 제재때문에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운명이나 혹은 저주처럼 스스로의 연구에의해 자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운명이나 저주라는 것을 들먹이며 내게 호소하는 것을 듣고 난 뒤 더욱 확실해졌다. 하나의 표본으로는 전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알던 길버트라는 존재가 속해있는 무리들은 이미 과학자로서의 자각조차 없는 모양이었다.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했다.

“할 말은 그것뿐인것 같으니 이만 실례하지. 적어도 함께하며 나를 위해 일해 주었던 자를 향한 조그만 호의이니, 부디 사양하지말고 잠깐이지만 충분히 즐기고 가시길 바라네. 그럼, 이만.”

나는 손에 든 잔을 살짝 들어보이며 미소를 건네는것으로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뜨고 나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더이상 말이 통할것같지 않아보였는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면서 조소를 흘렸다. 과학은 철학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는 달리 항상 과학 이면을 바라봤다. 예전에도 그는 도덕이나 사상같은 뜬구름같은 것들을 들먹여대며 나와 크고작은 마찰을 일으켰다. 다른 시각으로 과학을 대하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종교나 신앙은 그것 자체로 인정을 받아왔지만 그것과 다르게 세상은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유난히 엄격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속도는 더딘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새로운 진리의 발견에 혼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약한 아벨의 자손을 위협하는 것은 다른것도 아닌 무지이다.
“인간도 일정한 도식과 동력으로 움직이는 단백질 덩어리니까 이해하

고 분석하고 조립하여 구축하거나 수리하지 못할것도 없지. 음!”
어둠이 짙게 깔려져있는 아무도없는 텅 빈 연구실에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닌 나를 스스로 다독이는 말이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문제에 휩싸일것이 분명했기에 그 혼잣말은 내가 지금 벌이고있는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시키는것에 불과했다. 미친듯이 쏟아져 내리는 폭우는 차창을 사정없이 두드렸고 그것과 함께하는 천둥과 번개는 나의 창조를 나무라며 경고라도 하려는듯이 으르렁대고 있었지만 소름이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반가울 정도였다.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파이프 관들은 번개때문에 누전이 되면서 실험실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배양액위에 방전을 일으키며 춤추고 있었다. 요란스럽게 점멸하는 그 현상은 파이프로 흘러들어가는 배양액과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찢어질듯한 소리는 그치지않고 실험실 안을 요란스럽게 울리며 공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안락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서있는 동면관 안에서 부글거리는 배양액 속에서 곤히 잠들어있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것 앞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기위해 눈에 불을켜고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오래 기다렸다.”

그것은 나에게 그리고 그것에게 혹은 이데아에 숨을 쉬는 모든 이들에

게 건네는 말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동안 육신과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 그리고 그것에 담겨진 정보를 아우르는 인간에 가까운것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의 집대성이나 마찬가지였다. 세간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를 윤리따위로 억눌러왔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만들어 낼만한 깜냥은 물론 그에 미치는 지식을 가지지 못하며 장황하게 핑계만 늘여놓은 것에 불과했다. 그들이 변명을 할 동안 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내 눈 앞에 있는것은 도덕적인 가치나 다른 이념이 담겨져 있지않은 오로지 과학자가 과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해낸 결과물이다. 전력을 최대로 공급하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그것이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그것의 눈이 꿈틀하더니 입과 코에서 거품이 일었다. 본능적으로 배양액에서 호흡을 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배양액을 사출시켰다. 그것의 수면이 점점 내려가고 동면관이 열리자 그것은 힘없이 앞으로 풀썩 고꾸라져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나를 응시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입을 삐끔거리다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수많은 전기신호로 이어진 통 속의 뇌에 담아두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나 어려움없이 내뱉은 첫마디가 놀라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는 목을 가다듬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진리의 탐구자, 과학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너에게 있어서 나는 유일한 창조주, 너를 만든 장본인이다.”

“확인. 창조주가 나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훌륭하군.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존재 의의를 묻다니. 폐기가 되었던것들 대부분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음부터 던졌었는데 던지기 마련인데. 그보다 일어설 수 있겠나?”

나는 그것의 가녀린 손을 가볍게 쥐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고 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던 것은 주위를 살피더니 내게 다시 물었다.

“반복. 진리의 탐구자이자 과학자가 나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담아두는 보고이자 나의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군요, 확인했습니다. 다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잠깐 기다려. 나는 너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르켰다.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것은 가만히 나를 뚫어질 듯이 쳐다봤고 내가 손가락 끝을 바라보라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것은 나를 따라서 고개를 돌려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보이는가?”

“인간.”

“그렇지? 다만 너는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지만 그 기억과 사고 감정

을 중추하는 신경 다발을 심어두고 거기에 정보를 입력해 두었으니 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영혼이 없는 인형이 아니라 엄연한 인간이라는 개체라고 자부해도 좋다."

"확인했습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전류신호로 이루어진 정보다. 자, 궁금한건 나중으로 하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결함은 없어보이니 일단 간단한 절대수칙을 입력한다."

"대기."

"첫째, 창조주인 나 에르빈의 신변을 보호할것. 둘째, 그의 지적재산과 자료의 보호에 힘쓰고 내가 행하는 연구의 보조를 최우선으로 할것. 셋째, 나의 연구보조 이외에도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며 사고를 멈추지 말것. 넷째, 이전에 없는 정보를 조우했을때 혼란스러워 하지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며 행동하기전에 내게 보고할것. 다섯째, 너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상황(작동 오류손상 및 파괴)을 최대한 피하되,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첫번째 수칙은 무시하고 다른 존재들이 네 신체나 전류 신호에 접근하여 훼손하는 상황을 허락하지 말고 전력으로 거절하고 대응할것. 이상."

"입력. 확인했습니다."

"좋아, 오늘 기분이 좋군. 따라와라. 진행중인 연구에 돌입하지."

『 표본회수 』

“그래, 당연히 이것도 아닐테지.”

당연히 예상이라고 했다는듯이 침착하게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내뱉은 말과는 달리 합성혼합물을 내 몸에 주입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반응이없자 나는 주사기 앰플을 짜증스럽게 바닥에 던졌다. 박살이 나버린 주사기는 수많은 파편만을 남긴채 고요함만을 남겼다. 기괴하게 변하고있는 육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수복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샘플을 구해 혈장을 분리하여 유전자 배열구조를 바꾸어도 봤었지만 나의 그 시도를 비웃는것처럼 나의 몸뚱이에 흉물스럽게 주렁주렁 피주머니가 열매처럼 탐스럽게 돋아나는 현상의 경과를 늦출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내가 꾸준히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아벨의 자손들을 위한 의료과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오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어차피 나는 더이상 돌아갈수도 없는 처지니 말이다.

“뮐러 선생님, 들리십니까?”

“말하세요.”

한참을 고달픈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때 귀에 거슬리는 무전음이 울렸고 이상식욕자들의 둥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곳에 설치된 야전병원으로부터 교신이 들어왔다. 그것은 플로렌스의 목소리였다. 오랜동안 플로렌스와 동행하며 그들의 피실험체 역할을 해왔고 이 육신으로부터 수많은

피와 살덩이를 잘라내며 그것을 연구하는것에 일조했다. 그렇다고 그들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그럴 수 없었다. 무엇보다 돌연변이인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않고 살갑게 대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샤토움의 변형형질을 지니고있는 나의 육신은 의료 과학계에서는 기적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나의 존재는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과학의 모든분야가 그러하겠지만 도덕적인 가치충돌은 물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배제하는 모든 행위때문에 오랜기간동안 종교라는 거대한 벽과 부딪혀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괴하게 변모해버린 외형부터가 진입장벽이었다. 다른것으로부터 생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다름이라는 가치는 결코 인정될 수 없었다. 아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인정이되지 않는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 스스로도 어느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비밀리에 연구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변형체와 공존하는 생체반응과 함께 변이숙주가 기생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들은 의학계에 이바지하는 나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희망이라고 부추기까지 했다. 환자들로부터 희망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어왔기에 개의치 않았지만 다른의사들의 피실험체로 실험대 위에서 절개되는것에서 오는 괴리감은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괴한 몸뚱이를 지니었어도 통각이 차단된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전해지는 고통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이라면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감각들이 나를 깨웠고, 그것이 만들어낸 괴리감은 어느새 나의 정신은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지만 그것마

저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은 사실은 라파르의 의학수준으로도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인하여 실험대 위에서 의미없는 시간이 길어졌고 나라는 전례없는 표본을 가지고도 더이상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백신은 물론 유전의 변형 및 세포의 재구성의 비밀을 벗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다. 진척이 없었음에도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아벨의 자손들의 사회속에서 죽은이나 다름없었고, 나라는 존재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 일어나는 혼란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복잡하고도 묘한 관계로 그들의 곁에서 함께했지만 그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저희는 더이상 다마르강 습지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 뮐러 선생님께서 혼자 움직여 주셔야겠네요.”

직접 입으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었다. 서류상으로 이미 난 죽은것이고 내가 다시 세간에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논란의 중심이 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폐기처분이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게다가 의료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라파르의 의

료집중국에 알려진다면 플로렌스는 물론 그녀를 따르는 연구진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연구라는 목적으로 다마르강 습지 근처에서 쟈토움과 유전적인 적합성을 띄고있는 개체인 나라는 존재를 풀어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이상의 식욕자들에게 잡아먹히면 조용히 스스로 폐기처분이 되는 셈이니 누구하나 뒷탈도 없고 깔끔하게 결말을 맺는 셈이다. 자신들의 손에는 피 한방울 묻히지 않은채로 도의적으로 말이다. 새삼 놀랍지도 않은 그들의 태도에 나는 차분하게 무전에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배웅 감사드립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고요하게 지직거리는 백색의 소음뒤로 플로렌스는 무전 뒤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망설이는 듯하다 무전은 갑자기 뚝 끊겼다. 팔에 달려있는 암덩이는 내 감정신경과 연결이라도 된양 핏빛 붉은 손아귀가 꿈틀대더니 손에 쥐고있던 무전기를 짜증스럽게 박살내버렸다. 서류상으로 이미 죽은 몸이지만 끝까지 제대로된 유전형질을 지닌 세포배열을 구성해내지 못한다면, 이 몸뚱이는 아마 다마르강 습지를 떠돌다가 끊임없는 탐식에 빠져 다른 쟈토움의 이상 식욕자들에게 사정없이 뜯어먹힐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죽는 그림은 생각해본적 없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

고보니 어이가없어 조소가 흘러나왔다. 그러다 문득 그윽한 향기에 취해 그쪽으로 몸을 거칠게 돌려보니 기괴하게 생겨먹은 생물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몸에 푸른 알갱이가 알알이 박혀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맛있는 냄새.'

달콤한 향에 취한 나는 그 생각과 동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음보는 그것을 향해 내달렸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발겨 피와 살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어차피 볼 사람따위는 없었지만 아벨의 자손이라는 자각은 남아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불안감에 화들짝 대가리를 쳐들고 주위를 돌아보았다. 느껴진 시선은 인간이 아니라 다른것들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난 뒤에 나는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었다. 외형이라면 아벨의 자손이지닌 형태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나의 몸에서 발현되는 표면적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지금의 나는 이상식욕자들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쓴웃음은 재채기처럼 참을 수 없이 흘러나왔고 그와 동시에 감정은 점점 메말라져가고 있음이 천천히 느껴졌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더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내 처지에 대한 한탄이나 비관따위가 아니라 탐식의 죄악을 담은 것들이나 입에 담을법한 말이었다.
"맛있다."

산채로 뜯어 먹히고있는 그것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못하고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것의 눈은 조금씩 탁해져가고 있었다. 그것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이전에 묻고싶은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언어로 물음을 건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씹고 물어 뜯으며 그것의 유전정보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군침이도는 맛과 향을 풍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출처를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그것의 살덩이를 뜯어내고는 입안 가득 머금은뒤에 게걸스럽게 씹어먹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음미했다. 그 향은 온 몸으로 느끼면서 뇌리를 스쳐지나갔고 그것의 모습이나 형태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향의 출처를 파악하고는 나는 그것이 자리한 방향으로 기괴하게 모가지를 꺾으며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그러다 문득 탁한 다마르강 습지에 비추어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에 비쳐진 것의 모습은 참으로 추하기 그지없었다. 아벨의 자손같은 얼굴에는 쟈토윰의 기괴하게 농익은 핏빛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었다. 충혈된 눈 주위에 흉물의 아가리처럼 무수한 이빨이 달려있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것처럼 움직였다. 거머리같은 기생충들이 내 핏줄을 타고 여유로이 헤엄을치고 있는것도 선명하게 보였다. 양서류처럼 매끈하게 변해버린 일부 얼굴의 표피조직은 이미 그것들의 부화장인 것처럼 혹은 심장이 약동하는 것처럼 움찔거렸다. 그러나 그

러한 모습에도 이전처럼 감성적으로 되지않았고 절규하며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다. 아벨의 외형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해도 기생변형인자를 보유한 병원체인 나는 더이상 아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이미 정신은 카인의 핏줄 아니 그것들보다 더욱 역겨운 생각들 뿐이니, 어쩌면 나는 아벨의 자손뿐만 아니라 카인의 핏줄에게도 연구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나는 마저 남은 식사거리를 마무리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불쾌하게 추적거리던 습지가 지금은 왠지모르게 다른 장소보다 편하게 느껴졌다. 변한것은 느낌만이 아니었으니 무엇보다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이 뿜어내는 향만으로 그것의 맛이 혀 끝에 느껴질 정도였다. 얼마 지나지않아 군침이도는 향은 더욱이 가까워졌고 이윽고 가까운 늪지대에서 이전의 쟈토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있는 그것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육신을 늪지속에 담그고 있었다. 하지만 탁한 늪지대 안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육안으로도 눈에 띄었다. 푸른 빛깔은 가공되지 않은 수정이 불규칙적으로 몸 이곳저곳에 박혀있는 모습이었고, 그것들은 마치 스스로 유전체 세포 배열을 재구성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였다. 기이한 사실은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아무리 채취한 혈액과 표피조직을 분석해도 파악할 수 없었던 베일에 쌓여있던 의학적인

요소들을 단순히 냄새를 맡고 그것을 뜯어먹는 괴물이 되고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릿속을 휘젓는 생명공학에 대한 경탄보다 그것이 풍기는 향에 극심한 허기가 먼저 올라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고작 한 발자국만 옮겼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기척을 느꼈던 것인지 잠겨져있는 상태로 감고있던 눈꺼풀을 가만히 치켜뜨면서 눈알을 굴려 나를 응시한다. 그리고는 핏빛으로 꿈틀거리는 아가리에서 불쾌한 소리를 내뱉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몸뚱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다.

‘너에게서 왜 그것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거지?’

“어? 음, 그래. 아니 지금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나에게 식사예절을 가르치던 것의 냄새가 나는데 너 뭐야?’
“역시 쳐먹기만 하는 것들의 덜 떨어진 지성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걸 어쨌냐고 묻잖아?’
차분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뱉으며 방금전까지 죽을것만 같던 그것의 몸뚱이는 꿈틀거리며 기괴한 형태로 변이하며 나를 죽일듯 달려들었다. 그것을 가까스로 피하자 그 몸뚱이는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듯 불쾌한 피웅덩이같은 형태를 하며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개의치않는 듯이 외형을 순식간에 복원시켰다. 참으로 신기한 몸뚱이다. 나는 식사가 지연되고있는 사실이 불쾌하여 그것에게 짜증스럽게 답했다.

“내 소개를 원하는거라면 나는 네놈들로부터 나온 유전세포에 의해 감염된 감염체다. 원하는 대답이 됐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너 같은 놈들에게 감염이되어 기괴하고 뒤틀린 외형을 하고있는 네놈들과 유사한 신진대사를 하고있는 괴물이라는거지.”

‘나는 괴물이 아니라 미식가야.’

“괴물주제에 대체 그딴말을 왜 알고 있는거야. 그보다 나는 네놈들이 만들어낸 돌연변이 인자 때문에 내 인생은 망신창이가 됐는데. 나를 더 이상 평범한 아벨의 자손으로 있을 수 없게만든 네놈들을 증오한다.”

‘…그게 뭐야?’

아까부터 대화의 진전을 보이지않는 이 상황과 그것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내 모습에 짜증보다 회의감에 지쳐 진저리를쳤다. 그러다가 문득 오래전에 내 육신을 연구하는동안 서적에서 쟈토움에 대한 묘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다른 카인의 핏줄들과 달리 그것들은 식욕 이외에 다른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편이라 식사와 소화를 위한 기관 말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탐식말고 다른 감정이 없기로서니 이렇게나 간단한 소통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붉은 피가 흐르는 고깃덩어리와 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져있는 만찬을 바라보며 나도모르게 침을 흘리고있는 스스로를

봐도 저것과 다름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자극적인 향을 잔뜩 음미하여 그것의 값어치를 매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것의 원천을 가늠할 수 있었다.

“자줏빛의 피라…. 그래, 그것 때문이었구나. 놀라워.”

아벨의 모습을 한 것이 자신들과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기 불편했는지 그것이 몸을 일으키며 내게 말했다.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너라는 존재는 조금 거슬리는데?’

“허기에서 다른곳으로 눈을 돌리면 기록과 다르게 이렇게 다른 감정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구나? 새로운 사실이네.”

‘그보다 네게서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 대체 어떻게 된거야?’

“…잠깐, 익숙한 냄새라고?”

그것의 말을 곰곰히 곱씹다보니 내가 왜 이 냄새에 이끌려 굳이 다마르강 습지를향해 본능적으로 발걸음을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자 비소로 저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가, 내게 기생하고 있었던 그것과 네놈과 가까운 사이였구나. 하지만 이제 더이상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남겨놓은 저주받을 변이인자가 이 몸뚱이에 들러붙어 기생하고 있는셈이지. 그건 이미 죽어버렸어.”

‘존재하지 않을리가 없잖아, 지금 이렇게 내 눈 앞에 있는데.’

“아니, 그건 분명히 죽었어.”

‘우리는 분열하고 먹고 먹히며 영원을 살아가는데 그녀가 고작 아벨의 자손따위를 지키기 위해 맛없어 보이는 네놈에게 기생을 했다고?’

“…내 체질이 그것과 유전적인 적합성을 띄고있던것이 아니었어. 그것이 내 몸에 기생하며 스스로 내 모든 환경에 맞춘거구나.”

‘그녀가 너를 지킬 생각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녀의 일부를 품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거야? 그나저나 너도 신기한 몸뚱이를 하고 있구나. 그녀가 자신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독립적인 사고를하는 숙주가 있구나. 혹시나 식욕이 돌아온다면 너부터 씹어먹어야겠다. 분명히 맛있을테지.’

서적에서 접했던것과 다르게 지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배제하고 식욕에 잠식되어 있는 존재라고 알려진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내게 사고라는 것을 요구하자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강한 이끌림에 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가다 결국에 그것에게 스며들어간 푸른빛을 띄고있는 무언가에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상의 식욕자들처럼 검붉은 것이 아닌 자주색의 빛을 띄고있는 네놈은 진화를 한건가?”

‘무슨 말인지 몰라. 하지만 만찬의 시간을 즐기던 중 흑옥의 껍데기를 두른 것들과 함께하던 백옥의 살덩이가 내게 무언가를 쑤셔 박았어. 그

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피가 흐른 뒤로 나는 식욕을 잃은거야.'
나는 그것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고 그 몸과 내 몸에 생겨나는 반응들을 비교해보면서 아직 쟈토움의 식욕에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처럼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것이 아닌 매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외부의 변화에도 적합성을 띄고있는 것과 네놈들 이상식욕자가 지닌 종족의 특성이 더해져 종의 기원과 보존 그리고 이전이 가능할수도 있겠어. 그래! 나는 감염이 된 것이 아니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었던거군! 이거다! 이렇게나 새롭고 고차원적인 종의 발전을 이룩하게 될 줄은 몰랐군. 그것도 내 스스로의 몸으로 말이야. 이건 생명공학의 혁신이다! 하하!"

한참을 미친사람처럼 즐거워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나를 텅 빈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웃음을 그치고 다시금 기괴하게 모가지를 꺾어 그것을 노려보고 말했다.
"지금 당장 네놈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겠지만 네놈은 조금 더 살아주어야겠다. 너를 찬찬히 뜯어보면 다시금 내가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말이야. 더불어 네놈은 의료계의 진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직접품어 아벨의 자손과의 유전적 적합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생체 동기화의 수준까지 올릴것이다. 그럼 그것은 더이상 의료가 아니라 그들의 말마따나 진정으로 기적이 되겠지. 그래, 그게 내가

해야할 일이었던 것이군. 알아들었으면 따라와라. 이 몸이 자네의 식욕을 돋구어 줄 터이니 부디 나에게 네 살과 피를 공급해다오."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이 갑자기 머리 위에 기묘한 글귀가 새겨지더니, 우리를 향해서 푸른 빛의 기둥이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작렬하는 푸른 빛의 기둥은 애초에 그것의 존재를 인지하는 존재따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부르는 아르카나라는 잔재주였지만 그것으로 누가 무엇을 의도 하는지를 특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그들의 말로 이른바 정화라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짜증스럽게 나는 그것들을 피하거나 때로는 온몸으로 그 기둥을 받아냈고 피의 장막을 펼쳐내어 내 곁의 표본을 지켜내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이내 하늘을 가득 수놓던 기묘한 글귀와 문양은 신기루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그 신기루가 흩뿌려놓은 푸른 이슬이 마르기 전에 냄새나 맛 따위로 전모를 밝혀내려고 시도했지만 역시나 헛수고였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입에 담아왔던 그 어떠한것들보다 역겨웠다. 그 푸른 결정은 나의 육신과 적합하지 않았다. 가만히 고개를돌려 완벽하게 동기화가 완료된 표본을 보니 새삼 그 흉물의 가치가 느껴졌다. 학술학적인 가치는 말할것도없고 끊임없이 최고의 한끼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것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아키스트라는 작자들은 음침한 성격인건 잘 알았다. 지금처럼 어디선가 뒤에서 조용히 관음하고 있겠지. 이걸로 확실한 것은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네놈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에 차마 네놈을 죽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약해진 네놈은 그들에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가만히 앉아서 내 먹이를 빼앗길 수 없겠지.”

‘내가 먹이라고?’

그 말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린것처럼 그것은 자줏빛의 열매를 꿈틀거렸다. 하지만 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입에 무언가를 쑤셔넣을 기력조차 없는 네놈이 다마르강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 사고회로를 돌려야 할 놈은 내가 아니라 네놈이다. 무슨 인연으로 그들과 얽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몸에서 빛나고있는 푸른 것들덕분에 조금은 더 나은 사고도 할 수 있게 된 모양인데 무엇이 차선일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자 그것은 입을 다물고 곰곰히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탁하게 변해버린 눈깔로 나를 응시하고는 조용히 입을 뗐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는 탐식의 죄악을 너무 가벼이보고 있는것 같으니 충고해줄게. 지금 나는 허기에 잠식되고있어. 그것은 내 뱃속안에서 나를 갉아먹고 결국 이 몸을 통째로 삼키게 되겠지. 네가 날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유를 부렸다간 아무것도 얻지 못한채 나는 죽게될거고, 나를 갉아먹은 순수한 탐식의 죄악은 다시 태어나 나의 곁에서 서성거리고있던 네놈을 집어삼킬거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듯이 어깨를 으쓱이며 그것에게 말했다.

"…너야말로 아벨의 자손을 너무 가벼이보고 있는것 같군. 어차피 관심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이참에 알려주마. 생과 죽음의 경계에서 메스를 휘두르는 자들과 그들의 집도실력을 말이다. 앞으로 내 곁에서 지겹도록 보게 될거다. 다시말해서 네놈은 이제 쉽게 죽을수도 없다는 것이다. 죽음의 경계는 천천히 보여줄테니 부디 성급하게 굴지 말아줬으면 하는군. 더불어 그것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은 조금 견뎌주게나. 그렇지 않으면 육질이 현저히 떨어지니 말이야."

그래, 두려움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 본성 』

고요하고 잔잔하기 그지없었던 키욜의 빛은 아벨의 현신이 추락한 순간부터 미친듯이 점멸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던 나즈레스의 전사들은 애써 무시하려 애썼지만, 불안감은 고조되어 그것은 비대해져 어느새 그것은 불안한 징조가 되어있었다. 그 날도 여느때와 다를바 없었다. 키욜의 흔적을 찾아 헤메이던 도중 함께하던 어린추종자 하나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내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음을 던졌다.

“마침내 뒤틀린 빛은 땅에 떨어졌을진대 어찌하여 키욜의 빛은 그것을 부정 하기라도하듯 이렇게나 광기어린 빛깔을 토해내고 있는것이오?”

내가 답을 하기위해 고개를 돌리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안광은 어느새 광기로 뒤덮혀 있었으니 그에게 무슨 답변을 해주어야할지 깊은 고민속에 빠져들었다. 무너져버린 두 눈과 텅빈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피와 함께 미친듯이 떨고있는 그의 몸은 마치 스스로의 운명을 직감한 듯 보였다. 그러하기에 어느누구도 차마 묻지 못했던 물음을 던질 수 있었으리라. 나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눈을 질끈감고 뜨며 그에게 말했다.

“…유감이네만 광기어린 빛깔을 토해내는 것은 키욜이 아니라 그 앞에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일세.”

그는 마침내 쉴 수 있다는 듯 나의 말에 감사하라도 전하려는듯 고개를

가볍게 숙이면서 눈을 가늘게 뜨더니 하늘을 바라보고는 나지막이 마지막 말을 힘겹게 토해냈다.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기에 부족했나보군. 죄송합니다, 전승자시여. 내 비루한 책임마저 그대에게 떠넘겨야하니 말입니다.”

“내 기꺼이 그대의 짐을 짊어지고 나즈레스의 흙을 일구어 내리다.”

마침내 모든 이성을 내팽개치고 피를 토하며 광기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의 외침에 추종자들은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내가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려는 찰나 그의 주위에 잠들어있던 돌무더기와 바위 덩어리들이 통제를 잃은것처럼 미친듯이 흐르며 주위의 것들을 갈아버리기 시작했다.

“토루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그 비명과 동시에 삽시간에 대지가 나즈레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나는 그가 선 대지의 땅을 순식간에 뭉개어 그를 돌무더기로 천천히 가두어 묻어버렸다. 그는 땅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만큼은 편해보이는 얼굴로 잠들었다. 뒤이어 하쉬녹의 물결이 일렁이자 바위와 자갈에 뒤섞이며 그것을 고운 모래 한 줌으로 만들었다. 낯선 흙을 품은 대지의 안락한 품에 안긴 광기어린 계승자를 한 줌 움켜쥐고는 다시금 대지에 흩뿌리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 길은 걱정마시고 이제 그만 편히 광기에 취하시게.”

흩날리는 모래는 세월의 흐름을타고 빛을 머금으며 나즈레스의 계승자

들 사이를 아지랑이처럼 춤추며 일렁이다 이내 흩어져 사라졌다. 함께 걸어온 이들이 하나둘 업적을 다하고 숨을 거둘때마다 지금처럼 숨막힐 정도로 주변에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고 오직 깊은 침묵만이 남아있었지만 여기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여전히 나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추종자들과 함께 키욜의 빛을 찾기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오랜동안 함께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추종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에 이제 남은 수는 나를 포함하여 고작 일곱이 전부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애초에 절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다고 할 희망의 실낱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저 역사와 전통을 전승하고 이어나가기위한 바퀴처럼 본능처럼 삐걱거리고 있는것 같았다.

“우리는 내재된 광기를 억누르고자 키욜을 찾는것이 아니었습니까?”

조촐한 장례를 이어가는 중 마른 목소리로 신음하듯 토해낸 그 말이 내 귀에 간신히 닿았고 나는 그의 푸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즈레스의 모두가 그러하듯이 말이지.”

“그러하다면 응당 키욜의 빛은 세트의 유지를 잇는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을 지켜주어야 하는것이 마땅한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말해주게나. 언제부터 키욜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한건지 말이다. 그랬다면 키욜의 발광속에서 죽어버린 계승자들은 어째서 광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지?”

“고작 그런 말장난으로 지금까지 대지의 품으로 돌아간 계승자들의 넋을 모욕할 셈입니까?”

그것들이 하쉬녹으로 대지를 울음하게 만들자 나 역시 그동안 참아왔던 무게감을 벗어던지고자 그들의 분노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내가 선별한 단어가 그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세트를 따르던 나즈레스들의 뜻이 그가 새긴 대지의 기록과 결이 같지 않다는 것에서오는 부조화가 가장 컸을것이다.

“또 다시 키욜의 맹목에 눈이 멀어 광기에 휩싸인 다른 계승자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싶지 않네.”

“그렇게 몇이나 죽여왔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즈레스를 나즈레스답게 만들기 위함이라.”

아벨의 현신이 추락한뒤로 급변하는 상황과 더불어 오랜동안 누적된 피로와 극에 달한 이들의 정신은 어느새 자신들이 나즈레스의 계승자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맹목적으로 키욜에 이끌리고 있었다. 나는 안타깝게 탄식하며 진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광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나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이들 중 하나가 정신을 다잡고 내게 물음을 던졌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즈레스는 그 이름 그대로 나즈레스인데 무엇을 바꾸고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나즈레스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포기하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변절자의 무리라 부르는 것 같군요.”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대의 걱정과 달리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 변절되었다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죽은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닐터 나즈레스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나즈레스의 이름으로 역사속에서 다시 태어날 여지는 충분하도다.”

“말도 안돼. 변절된 자들이 어째서 대전승자 토루샤의 뜻에 따라 광기를 잠재우는 키욜의 빛을 품에 안으려 이 먼 여정을 떠난답니까?”

그는 나의 말을 전면으로 부정했고 곁에있던 추종자들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나는 깊은 호흡을하고 되물었다.

“허면 묻건대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올린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은 변절이 되었다는것을 무어라 정의하겠는가?”

“그 말 그대로 세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세트의 뜻을 거스른 것일까? 세트를 추앙하며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그의 업적에 취해 그 너머의 것을 이루려하지않고 그의 곁에 안주하며 그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 부터인가? 아니면 세트의 후예라고 자부하지만 어느샌가 이미 섬김에 익숙해진 뒤부터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안에 흐르는 피에 각인된 지배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며 노예를 자청했을 때 부터인가?”

“그것은 역사와 전통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그동안의 일들을 부정 당하는것이 두려운 것인지 나즈레스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 역시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를 부축하던 또 다른 추종자가 원망하듯 내게 조용히 물었다.

“허면 그대는 어째서 이 사실을 이제서야 언급한 것입니까? 나즈레스의 긍지를 버리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것이 이 여정의 목적이었다면 나는 이 길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나즈레스의 긍지를 버리라고 한 적이 없네. 껍데기뿐인 탈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우치길 바란것이지.”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세트의 후예 중 가장 빛나는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입니다.”

“세트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신이 되고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책임감에 짓눌려 잠들어있지. 그렇다면 우리들 세트의 후예들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을 맺는가? 그것은 아니지. 자, 보게나. 그러함에도 이렇게나 우리는 여지껏 살아 숨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어지는 역사는 누가 쓰는가? 오늘날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쓰여질 것이며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전통의 명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말은 더더욱 듣고있을 수 없군요. 당신의 말은 나즈레스

뿐만 아니라 세트를 욕 보였습니다. 변절자이자 엄연히 세트를 향한 반역이나 다름없지요. 그대의 말대로 세트의 명목을 유지하고자 하는것은 나즈레스의 정신일진대 그것을 변절자 취급 하는것은 심히 불쾌하군요. 그러하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왜 나즈레스의 이름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내게 되물은것은 나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것은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하쉬녹이 낮게 울음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변절자로 역사의 획을 다시 그을 확신이담긴 답변이었다.

"나는 나즈레스의 이름을 버리라고 권하지 않았네. 말했듯이 나즈레스의 계승자 이전에 그대들은 무엇인가? 세트의 후예이다. 그렇다면 세트의 후예들은 무엇이냐? 섬기는자가 아니라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다."

"그러나, 아벨의 현신이 추락한 그 빛에 반응하며 세트의 심장은 다시금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뛰고나서 자신의 추종자들이 더이상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세트는 그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하지만 세트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오직 지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온것이지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님이라. 역사에 영원히 노예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세트의 족쇄를 끊고 나즈레스의 이름을 이데아에 새로이 새기어 지배자로 군림할 것인가? 세트가 그러하듯 우리 안

에도 지배욕이 들끓고 있기에 그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닐터이니 그 역시나 우리가 군림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이 바라볼 것이라.”

“허나 세트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의 물음에 내가 하쉬녹의 대지를 진동시키자 주위의 바위와 돌덩이들이 휘날리며 긁히고 깎여나가면서 다시 울음하였다. 그것은 나즈레스의 계승자들 안에 흐르는 피를 깨우기위한 울음이었다. 그것을 귀담아들은 이들은자 옛 추억에 잠기듯이 그 품에 안기며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들에게 그 시간을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에 물음에 기꺼이 답했다.

“그렇다면 오랜 그의 추종자들의 손에 자신의 심장이 터져 나가는것을 스스로 목도하게 될지니.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에게 누구의 피가 흐르는지 우리의 심장을 앗아간 이의 심장에 제대로 새길것이라. 어찌됐든 세트의 심장은 다시한번 힘찬 박동을 해야만하며 그 맥을 끊는것도 그를 숭배하기 마지않던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겠지.”

전승이 되는것은 단순히 역사나 전통따위만 이어지는것이 아니었다. 맹목까지 전승되어 세트를 추종하며 섬기는 그 행동이 그대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즈레스의 늑대들은 역사와 전통이라는 유구한 유산을 얻었지만 정작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고 살아왔다. 우리안에 담긴 피의 본성을 부정하고 그것이 퇴색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않고 살

아왔던 것이었다. 결국 투지를 잃은 늑대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굶주림이다. 나즈레스의 전사들은 우직하고 충분히 강인하며 지성과 고도의 문명을 겸비하였기에 들판의 들개들과는 달리 굳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지에 다다랐지만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가장 근본적인 지배욕을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것의 본성에 바람을 살짝 불어준 내게 이전같은 적대감이나 의심은 다소 수그러진 듯 보였다. 그리고 그것들 중 하나가 고심하는 듯 하더니 내게 물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메이던 키욜은 여느때처럼 우리의 곁에서 차오르는 광기를 억눌러 주겠지요?”

“그래야만 할테지. 그렇지만 역시 나는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이 더이상 키욜의 자비에 목매달지 않았으면 하는군. 텅 빈 나의 심장에 맹세컨데 광기를 끌어안은 내 안의 피가 부끄러운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 특별하다는 듯 말하여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어찌 감히 그대들의 긍지를 의심할 수 있겠나? 내 그것을 의심했다면 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지.”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이상 키욜을 수집하지 않게되는 겁니까?”

“키욜은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어온 흔적이지. 비록 정해

진 운명에 순응하고 따르며 무의식 속에서 반복된 행동이었음에도 키욜과 함께 호흡하는 그것에는 세월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있으며 하쉬녹의 물결은 세월속의 모래와 함께 세차게 흐르니 그리 믿으면 그것은 곧 사실이 될 지어다."

"세트의 유산인 키욜은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마치 아직까지 우리들의 자격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오히려 광기가 남아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나마 이데아의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게지."

"우리가 키욜을 담아왔던 시간은 헛되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언제나 정형화된 틀에 끼워 맞추어져 돌아가는 것을 역사라고 할 수 없지. 헛되고 덧없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무의미한 세월처럼 보이는 그것마저 역사이니 우리가 쌓아온 시간에 결코 헛됨은 없음이라."

"우리가 부수어야 했던것은 광기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얽매인 목줄이었던 것이로군요."

"그래. 그리고 어쩌면 키욜은 그저 광기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우쳐가는 과정을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지."

"광기를 깨우친다는 말은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군요."

"어느 누구도 몰랐을테지. 아니, 어느순간 의식적으로 알기는 했어도 오랜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서 오는 공포가 더욱 컸을것이

기에 역사의 뒤안길로 덮어두려 했을거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덮어두려 하지않고 직접 마주하려 했던 이들은…?”

나는 만월의 광기속에서 소름끼치도록 차분하고도 고요한 모습으로 죽어가던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을 회상하며 말했다.

“아마 오랜동안 변절자들이라고 불리운 자들이겠지. 어쩌면 그들은 일찍이 깨우친 자들이며 선구자라 불려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

“허면 그대는 언젠가 그들과의 조우도 고려하고 계신겁니까?”

“물론 그들이 살아있다면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키욜이 바래왔던 것이라면 더더욱 그들을 조우하지 않을 이유가없네.”

“키욜이 어째서 그것을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소리를 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모르겠네. 그러나, 아까 숨을 거둔 이도 그러하고 이전에 내가 조우했던 광기에 물든 수많은 계승자들은 키욜과 공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이야기 하고난뒤에 내게 참회하듯 속죄하는 말을 내뱉었네. 그것이 내게 광기를 억누르지 말고 또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흐르도록 두라는것처럼 들렸지. 고요하게 흐르는 하쉬녹은 우리곁에서 줄곧 그것을 알려주려던 것일지도 모르겠군.”

“아직까지 확신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그녀가 나를 의심어린 눈초리로 쏘아보며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짧은 한 마디에 반박할 대답을 꺼낼 수 없었기에 덤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마음의 부담감이 줄어들어 왠지 모를 홀가분함에 취한 듯 몸이 붕 뜨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옳다. 확신할 수 없기에 나는 여전히 키욜의 빛을 좇으며 그것의 낮은 울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비록 그 울음이 광기에 잠든 변절자라고 부르는 자의 것일지라도 말이다.”

“행여 내가 따르는 계승자가 만월의 광기에 물든다면 그대는 대지의 품에 안겨 잠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물론이지. 낮은 울음하여 내가 광기에 침식되면 언제라도 나를 깊은 그곳에 묻어주시오.”

“그렇다한들 토루샤가 그 뜻을 같이한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전승자 토루샤가 되면 될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 말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이었지만 오랜동안 나를 따라왔던 추종자들은 당황하지않고 오히려 차분한 모습으로 눈에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렇게 묘한 긴장감의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추종자들 중 하나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광기에 완전히 잠들기 전 당신을 토루샤라고 불렀습니다. 키욜

이 점멸하는것은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것처럼 들렸고, 광기에 빠져드는 그들 역시 마치 무언가를 눈에 담으려는 듯 했죠. 감히 묻건대 당신은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세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노예처럼 옭아맨 목줄을 깨부수려 했을때부터 듣게 되었네. 키욜은 물론이고 하쉬녹의 흐름속에서도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 당연하게도 만월의 광기라고 부르겠지만 어째서인지 그들이 부리던 하쉬녹의 흐름은 소름이 끼치도록 고요했으며 부드러웁고 우아하기까지 하여 하마터면 넋을 잃을 뻔 했지 뭔가."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찾던 키욜의 빛을 찾아 헤메이던 시간은 광기를 잠재우는것이 아니라 광기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들을 이끌어 줄 구도자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게나 그대들 모두 나의 추종자가 되기를 자처하였지만 다들 의심할 여지없이 훌륭한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임은 잘 알고있으니 키욜의 품는 이 길에 오른 모든 이들은 이미 자격은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금 그대의 답변은 남은 우리 여섯인 그대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만물을 군림하는 왕으로 만들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여섯이라. 적군. 하지만 다스리기 위한 숫자로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

야합니까? 키욜의 수집을 멈추고 나즈레스의 이름을 다시 새기기 위해 아브 게르로 돌아가 토루샤의 업을 짊어지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나즈레스가 쌓아온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저버리려는것이 아닐세. 오히려 광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낙원에 흔적을 새길 수 있었듯 키욜의 광기를 깨우치며 그것에 담긴 역사를 한꺼풀 벗겨내어 나즈레스에게 잠들어있는 지배와 통치의 피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

"우린 그저 이전처럼 묵묵히 키욜의 빛을 마주하게 되겠군요."

"그래. 그리고 그것으로 바위가 된 세트의 심장을 깨우고 그에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지?"

"헌데 굳이 세트를 깨우시려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피를 받았으니 세트 역시 마찬가지로 겨우 남겨진 세트의 후예 여섯 모두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그대는 굳이 그것에서 오는 혼란을 바라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만?"

"아니, 세트는 나즈레스의 속박을 깨부수기 위한 초석이라. 간만에 깨어난 그는 해방감으로 이데아에서 광대처럼 춤을 추며 만월의 광기속에서 이데아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힐테지. 나는 그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게 둘 것이라. 그리고 그 자유를 준 이가 누구인지 깨닳게 해 줄 것이고 뒤이어 키욜로 이데아의 대지를 보듬으면서 하쉬녹의 울음을 드높여 그

동안 옭죄던 사슬을 해방하게 되겠지.”
“좋군요.”
“나도 키욜의 오랜 세월을 품은 구가적 빛깔을 좋아한다네.”

그렇게 차분한 빛깔과 미래에 쓰여질 역사를 음미하며 즐거워하는 순간을 방해하는 불쾌한 눈부심이 대지를 적시었다. 우리는 일제히 그 장소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빛의 찌꺼기들이 상투스의 사제들과 뒤섞여 여전히 빛에 침식되어 이데아를 활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만월의 광기가 아닌 축복과 권능 그리고 믿음이라는 광기에 가득 차 있는 눈을 하고는 입을 열었다.

“아직까지 그대들은 고작 주위를 나뒹구는 바닥의 돌맹이 따위나 줍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은 숭고한 계승자의 의식이니 어리석은 자들의 이해를 구하진 않겠다만 그것을 모욕하겠다면 우리 역시 방관하고 있을수만은 없네.”
“세트는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망령에 들린 늑대들이 무슨 우월감에 취하여 혼란속에 발을 들이미는가?”
“그대들의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그 망령이 누구를 뜻하는건지 눈 먼이라도 알 수 있겠군. 그리고 세트는 아직 죽지 않았다네. 죽는다해도 하찮은 네놈들이 아니라 고고한 우리들의 손에 죽어야 마땅한것을.”
“이미 심장은 돌이되어 바스러진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오히려

그것은 네놈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터 여전히 그걸 부정하고 있군.”
“비록 심장은 돌이되어 굳었겠지만 거짓된 구원으로 빚어진 형제의 추락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멈춘 심장의 박동마저 울리게 하는것이지. 속 편히 심장을 지니고 있는 네놈들 따위가 그것을 어찌 알겠나?”
“마음껏 짖어대려무나, 들개야. 아벨의 현신이 남긴 빛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은가? 아니지, 아니야. 아벨의 현신은 소망으로 빚어진 것이다. 아벨의 현신께서 친히 땅에 발을 딛으신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구원은 계속되리라.”

“당연히 그러시겠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군. 그럼 그대들은 낙원의 모든 흔적들이 그저 땅으로 추락한 아벨의 파편에 목을 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나?”
그의 말에 거짓은 없었으며 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끝내 내놓지 못하였다. 오랜동안 수집한 키욜은 추락한 아벨의 찌꺼기를 머금은 이후로 더욱 선명하게 발광하는 빛은 우리의 광기를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차분하게 식혀주고 있었다.
“신의 자리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개들이나 태양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에 굶주린 것들이나 정작 아벨의 은총이라는 젖줄에 매달리느라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꼴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구나.”
그의 알량한 도발에 나는 조소하며 그에게 말했다.

“마음껏 저주하게나. 결국 그대가 이 악물며 내뱉은 말도, 그대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고 이데아에 흔적도없이 사라질 터이니.”
“역사에 손을 대고 무사한 자는 없다.”

“이미 그 말도 수도없이 들었다. 다른 이들도 아니고 세트의 후예들만큼이나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더더욱 말이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나? 네놈들은 그저 지나가는 역사속에서 영화를 바랄뿐 역사의 굴레를 이해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말대로 지나온 역사는 바꿀 수 없겠지만 그 굴레를 굴리며 현재나 미래 따위는 바꾸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네놈들의 과거를 다시 쓰겠지.”
“만물의 위에 군림하는 신이 된다면 그러하지 않아도 나즈레스를 추앙할 터인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더 큰 이상을 바라볼 뿐.”
“어이가없군.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도 태초의 창조주 에르아조차 급변하는 이데아의 역사를 조율하지 못하였는데 만물의 위에 선다는 그것은 너무나도 오만한것이 아닌가?”
“그런것조차 너희들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그 자체가 오만한거다. 무수히 많은 불경한 존재들이 숨을 토해내는 이 곳에서 네놈들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일단 살아야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손에 든 성휘가 휘감겨진 무기를

꽉 쥐어들며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더 이상 빛의 노예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나는 낮은 울음으로 대지를 진동시키며 추종자들과 공명하였다.

“육신은 바스러질지언정 아벨의 권능과 함께 나의 영혼은 다시금 그의 곁에서 함께 하실지니.”

“그럴일은 없다. 죽으면 모두 흙으로 그리고 먼지로 돌아간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되어 빛과 바위의 폭풍이 대지위를 요란하게 뒤섞였고 얼마 지나지않아 우리 뒤로 반짝이는 모래알만이 남았다.

『 불화와 화합 』

질서가 이루어지고 모든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아벨의 자손들 틈바구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무언가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단순한 기우일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지독하도록 선명하게 나를 향해서 불길한 기운을 쏟아내고 있었다.

“왜그래?”

“손님인가봐.”

“강기뇨르 근처에는 쥐새끼 한마리 없을텐데 너희들 기민한 정신인가 뭔가로 연결된 그거로 보는거냐?”

“응, 그거로 보는거야. 그치만 조금 더 깊어.”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그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서 오는 감사함보다 자신의 마음을 헤집고 읽히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에 오랜동안 나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고 어느샌가 마음의 문을 조금 좁힌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레브를 태연하게 대하는 그의 말은 거리감을 줄이기위한 그동안의 시간을 보답을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나는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답하자 그는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더니 이내 분위기를 바꾸어 호탕한 웃음으로 화답하고는 차량의 울음을 더욱 크게 울리며 내게 소리쳤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내 장담하건데 지젤의 연설만큼은 못할거니까 제때 돌아와. 나무 인형처럼 삐걱거리는 그 모습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텐데 이건 평생 놀림감일거야. 하하!”

“최대한 빨리 돌아올 테니까 알포데 한잔 정도는 남겨놔.”

“털복숭이가 입맛한번 까다롭기는. 알았으니까 내려!”

그가 손가락을 빙빙 돌리자 붉게 점멸하는 빛과 잡음이 뒤엉켰고, 뒤이어 길고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리면서 차량 뒤 사출구가 천천히 열렸다. 그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나는 용수철처럼 날아올라 흩날리는 뿌연 모래먼지와 차량이 내뿜는 연기사이로 몸을 던졌다. 땅에 사뿐히 발을 딛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차량은 어느새 음악 소리와 함께 벌써 저만치 멀어졌다. 나는 지체없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익숙한 목소리….”

반가움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나온 그 말에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나의 레브에 반응하지 않았다. 나를 부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들어주었으면 하는듯한 미묘함을 가지고있는 목소리를 따라서 내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목소리에 가까워지자 반갑고도 익숙한 색채에 마음이 들떴다.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빠르게 내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역시나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더욱이나 이상한것은 기민한 정신으

로 연결된 그것의 레브는 다소 일방적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무언가 억지로 끊어 내려는듯한 이질감이 들었기에 나는 반가움보다 낯선 신호에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경계심에 털이 잔뜩 곤두섰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신호에 점점 다가가자 짙은 어둠이 잔뜩 깔린 폐허가 된 건물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를 반기었다.

“로우아….”

“…오디온.”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짧게 읊조리고는 레브의 깊은 의식 너머로 그동안 걸어온 길을 교환했다. 굳이 그것을 꺼내려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의 요청에 응하며 의식의 깊은곳을 나누었다.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면서 입을 열었다.

“표정이 조금 바뀌었네?”

“그래, 오랜만이야.”

“제법 마음 고생이 많았구나.”

“그렇지. 보는것과 달리 피부로 느끼는것은 너무나도 달라. 우리가 공감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겪은것처럼 느끼는것과 다르게 그것을 피부로 직접 마주하며 느끼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무언가를 감히 레브로는 채울 수 없더라고.”

나는 눈을 감은채로 그의 말에 차갑게 답했다. 그의 시선과함께 안타까

움이 묻어나오는 목소리가 눈 앞을 스쳐 지나갔다.

“물들었구나, 로우아. 이전의 밝은 모습이 더이상 보이지 않네.”

“쉽게 스며들어 저들의 심리에 감화하여 그들의 모습은 물론 유사행동까지 보일 수 있는것이 우리 밀라모르의 강함이니까….”

“그런가, 하지만 이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것같아.”

오디온은 물에 손을 담그듯 레브에 손을 대면서 입을 열었다.

“그래. 법과 정의, 규율로 지배하는 이들이야. 이미 이들은 알게 모르게 아벨의 자손들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속에서 헤메이고 있어. 구원이라고 여기던것이 이들에게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칼과 저울을 주었지만 차마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헤메이지.”

내가 주절거리는 모습을 보는 오디온과 눈이 마주치자 가만히 바라보던 그는 계속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법은 무겁고 조용해. 굳이 우리처럼 목소리를 높이려하지 않아. 그렇게 된다면 오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니까 묵묵하게 망치를 휘두르지. 그렇기에 슬프고 한없이 쓸쓸하더라. 하지만 그렇게나 처절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수도 없어.”

“회색빛깔의 잿더미에서도 꽃이 핀다고 했던건 다른 이도 아니고 바로 너야. 그런데 조금씩 회의감으로 변해가네. 생각이 달라진거야?”

그 말에 욱한 내가 레브에 발을 빼고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적은 없어. 오히려 잿더미에서 피어오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벗고 나서서 보여주고 싶어졌을 뿐이야.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심판대 위에서 내려다보며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필요한 여유였을 뿐이지.”

“장난감에 푹 빠졌구나. 하지만 지배하려는 것들의 마음을 이해하는것은 좋은 자세라고 봐. 무너지는 마음은 가지고 놀기 딱 좋으니까.”

“가지고놀아? 오랜시간동안 상투스에 머물러 빛의 따스함에 취하다보니 이제는 그런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거구나.”

“너무 그렇게 원망하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나는 고작 상투스의 곁에서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우리는 사절단이야.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것은 그들의 고충과 울음을 듣기위해 온 거야. 그것을 통해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그것들을 가져다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지배를 하기 위함이니까.”

“그 말은 이미 지겹게도 들어왔지만 불신은 생각보다 깊어. 하지만 이데아에 있는 이들 대부분은 대화를 바라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저울질을 하는 이들의 곁에서 느낀것은 단 하나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과 질서가 다잡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지배는 오래가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거야.”

“대화는 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단계이니 그 과정에 사견을 담

아서 일을 그르치지마. 네가 해야할 일이 뭔지 잊은건 아니겠지?”

“단순하게 말을 섞는 것만이 지배 하기위한 수단이 아니야. 오히려 뿌리부터 완벽하게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교류를 해야함이 마땅할거야.”

“네 마음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너무 오랜동안 그들에게 감화되지 않았으면 해. 그들의 나약한 마음은 너를 병들게 만들거야.”

“그 말을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나약한 마음이 어째서인지 나를 강하게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하지만 충고는 고마워.”

그는 흥미로운듯 나를 찬찬히 뜯어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로우아, 너는 레브의 깊은곳에 발을 딛은 뒤로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본거지? 비록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네게서 느껴져.”

“나도 지금 다름을 인정하며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야.”

“그것은 사절단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한가지 짚이는게 있어서 말이지. 그게 눈 앞에 너와 겹쳐서는 계속 아른거려.”

“레브에서 잠깐 내게 보여준 변방의 사제를 말하는거야?”

“그래. 그 얘기부터 하자면 아벨의 헌신을 잃은 상투스는 무너질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 빛은 오랜동안 지속될거야.”

“그 사제 하나 때문에? 어째서?”

그는 문득 무언가를 회상하듯 하더니 확신의 끄덕임을 하고는 말했다.

“빛은 알을 깨고 그 안의 깊은 어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 네 안에 빛나는 레브가 그리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서 볼 수 없지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으니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되더라고.”

나도 그의 레브에 손을 대며 그 사제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런게 가능하구나. 수용과 가능성의 너머를 본 후의 결단인가?”

“그런가봐. 이것을 다루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처럼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거지. 그것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다줄지 감히 상상조차 안되더라.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그가 하려는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았어. 이상하지?”

“너는 정말 대단해. 다른 감정없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음 내다볼 수를 바라보는구나.”

가시가 맺힌 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텅 빈 인형처럼 사무적인 어투로 내 말에 답했다.

“아니, 오히려 반대야. 방법은 모르겠지만 너는 그것을 느끼기도 전에 레브로 먼저 바라볼 수 있었어. 그렇게나 깊고고 짙은 교감을 하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정신력은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거야.”

그는 이질적인 소리에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충고의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걸 탐내는 밀라모르의 목소리도 있다는걸 명심해. 너는 새로운 대화의 지평을 연 셈이니까. 낯선이와의 불화만 걱정할 것이 아니

라 이젠 네 곁의 익숙한 이들의 목소리조차 경계해야 될거야.”

“충고는 고맙지만 나는 이미 인간이 인간의 위에서 법과 질서라는 도구로 지배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피어오르는 깊은 고통을 들여다보며 더욱 절실하게 알 수 있게되었어. 재밌지않아? 지배하는데 고통이 동반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거야.”

“그러겠지. 우리처럼 피에 각인된 지배와는 격의 차이가 있으니….”

그 대답에 갑자기 바람빠진 풍선처럼 힘이 푹 꺼져버렸다. 이전처럼 오디온은 벼락맞은 가지처럼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익숙하지만 슬픈 모습과 겹쳐보였기에 그의 레브에 손을대어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러자 오디온은 화들짝 놀란듯이 손사래를 치며 마음을 닫았다.

“여전히 일방적이구나. 하지만 따듯하기에 악의는 전혀없어. 나는 부디 네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뿐이야. 지배하는 이의 피가 흐르지만 너는 정치질을 하기엔 지나치게 솔직하고 마음이 너무 여려.”

“사절단으로 이곳에 왔지만 오직 정치질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것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이들의 호소에 녹아들고 있다고.”

“진심이라….”

중얼거리는 듯 내뱉은 말과 함께 가벼운 한숨을 토해낸 그는 한심한 듯 내게 실소를 보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미안하지만 진심을 다하고 있는건 모두가 마찬가지야. 아벨의 자손이

나 세트의 후예 그리고 카인의 핏줄은 물론이고 이데아에 숨을 쉬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필요한것을 손에 넣기위해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잘 알겠어.”

“로우아. 진심으로 우리들이 단순히 공감이나 교감 그리고 소통만으로 이데아에 흔적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만해.”

그의 의식의 파편이 내게 쏟아져 내렸다. 억지로 내게 들어오려하는 그것은 이미 익히 알고있었던 기억과 흔적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낯설었고 어느새 그것들은 거부감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아주 작은 크기의 기시감이었다.

“그저 다른 이들이 듣기좋게 풀어낸 말이지 우리가 말하는 교감과 소통은 오히려 교란이나 소란에 가까운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웃었는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금 나를 달래려는 듯한 차분한 목소리로 수놓으며 내게 말했다.

“그건 네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야. 아까도 말했듯이 너는 지나치게 솔직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감화되면서 그것이 다른 밀라모르의 목소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거야.”

“내가 그렇게나 위험한 존재였으면 대체 왜 나같은걸 사절단으로 임명한거야? 바보아냐?”
그에게서 답을 원하여 물었던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랬구나. 너도 한편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구나. 그 달콤한 꿈들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이지. 벤주 열매 양조의 달콤한 향도 방 안에 은은하게 풍기는 나무의 감촉도 말이야.”

“나는 남들과 달랐기에 낯선곳에 버려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마. 널 향한 이들의 사랑은 적어도 꿈은 아니었으니 말이야. 오히려 네가 원하는것을 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줬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들이 원하던것이 내가 잿빛의 세계속에서 받는 고통이었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공감과 교감으로 만물을 대하는 가르침을 받으며 밀라모르의 목소리로 살아온 대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버려진것을 생각하니, 어째서인지 회환의 눈물보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 그런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채로 서로 물고 빨던건 공감과 교

감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비탄에 물든 이곳에서 얻은 쓰라림이 그것에 더 가까웠던거야. 거짓된 교류에 진실을 외면하고 있던거지? 그래.”
한숨을 중얼거림을 내뱉으며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는 동시에 내 레브의 기척을 느끼자 경계하며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달은 아직 차오르지 않았어. 만월의광기 핑계를 댈 생각이라면 내 시체부터 밟고 날뛰어야 할거야. 진정해, 로우아.”

“지금 너를 여기서 죽여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걸?”
“음, 이거 생각보다 더 골치아프네.”
나의 행동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듯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기에 나는 가까스로 흩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그리고 내 눈 앞에 무언가 넘실거리며 윤곽을 이루듯 흩어지듯 아른거린다.
“말해.”
오디온은 나의 레브가 그리는 미지를 눈에 담더니 짧은 감탄을 그려내었다. 그리고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며 즐거운듯 내게 물었다.
“이데아에 숨을 토해내는 것들이 밀라모르를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해본적 있어?”
“글쎄, 믿었던 이에게 마음이 유린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감싸안을때 밀라모르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지.”

“그것도 틀린말은 아니지만, 밀라모르의 목소리가 가장 절망적으로 다가올때는 지금의 너처럼 교감의 단편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널리 퍼뜨리려고 할거고 그때야말로 스스로에게도 주변에도 가장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순간이지.”

“위험하다고?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데?”

“그저 떠도는 말에도 정처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에게 레브를 보여주는 네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거야. 유르핀의 침묵은 네가 했던 모든짓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들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기라도 한다는거야?”

“망가지기 직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한 지금의 너에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되는 때가 올 수도 있겠지.”

“그렇구나.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건데?”

“나는 너처럼 완벽하게 스며들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어설프게 정착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음속을 후벼파며 지배하기 위한 징검다리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의 레브에서 느껴지던 기시감이 이제서야 윤곽을 드러내었다. 광기는 아니었지만 그것에 한없이 가까운 그의 충성심과 결의에서 따스함이 아닌 차가움이 그려지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사절단의 이름을 짊어지게 되고나면 더이상 우리는 그 안락한 목소리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런게 어디있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재료로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확신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당연하다면 당연한 처우겠지.”

“공감과 교감이 그렇게 뛰어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줄 생각은 없었던거야? 우리들을 하나의 개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장기말 따위로 보는거나 다름없잖아?”

“그래, 맞아.”

망설임 하나없이 너무도 당당하게 답하는 그의 말을 듣자 나는 허탈한 한숨을 잠깐 토해내고는 다시 물었다.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거야?”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에 오래있다보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는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그 이전에 네가 누구인지부터 머릿속에 다시한번 아로 새기는편이 좋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인데?”

“우리는 밀라모르의 목소리. 자애로운 지배를 가져다주는 자들이지.”

“틀렸어, 오디온. 나는 밀라모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내가 진짜 지배를 보여줄거야.”

그는 내 대답이 만족스러운듯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격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어쩌면 너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겠다. 넌 항상 그렇게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했으니 말이야. 그것이 유르핀의 침묵과는 상반되는 일일지라도.”

“그들의 속내까지 내가 챙겨줄 여유는없어. 나는 지금 내가 마음을 나눈 이들과 뒤섞이면 오만가지 감정에 충실할 뿐이니까.”

“좋을대로 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는건 좋은거니까.”

“이전과 다르게 뭔가 하려는 말이 앞뒤 맞지않게 엉망진창이네. 내게 온 이유가 따로 있는거지?”

“응.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기전에 얼굴이나 한번 더 보려고했지.”

“고작 얼굴한번 보려고 여기까지 기어오다니 제법 한가하구나.”

“만월의 광기에 잠식 되어가는 것을 지켜본 유르핀의 침묵에게 있어서 나는 이미 죽은것이나 다름없어. 이미 상투스에 나 말고 다른 목소리가 닿아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딱히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내가 내던진 그 말을 주워담아 내게 고스란히 건네었다.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미안한건 이쪽이지. 예고도 없이 모습을 드러낸것도 모자라 너의 레브에 시기와 증오를 담아 소중한 기억에 억지로 발을 들

이밀면서 가시박힌 소리까지 해댔으니 말이야."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여기서 다른 이의 마음조차 읽지 못하는 것들에게 배운 불화를 종식하는 대화와 화합의 과정 중 하나야.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가. 나의 광기에 어울려줘서 고마워."

여전히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겨진것이 눈앞에 채워지자 나는 그것을 충분히 눈에 담은 뒤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렇게나 오랜 시간동안 레브를 펼쳐가며 교감을 나누는데도 만월의 광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는구나."

"애초에 나는 다른 이들을 지배할만한 그릇이 아니었던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거지. 하지만 너라면 레브를 좀 더 깊고 넓게 펼치며 밀라모르의 목소리들을 만월의 광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거야."

"…네 바람은 그게 아니잖아."

그의 말을 듣다가 이를 악물고 뱉어버린 그 말에 오디온은 웃음을 지으며 그제서야 즐거웠던 꿈을 아이처럼 그려내며 내게 부탁했다.

"나는 가끔 결코 뒤섞일 수 없는 것들과 뒤섞이며 하루밤낮이고 시간을 헤아리지 않을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섞으면서 즐거워하고 웃는 꿈

을 그리곤 해.”

“응, 내게도 보여. 예쁘네.”

“밀라모르의 목소리와 다르게 조금 수수하지만 말이야.”

“그렇지 않아.”

“나는 네가 싫었어. 그래서 이건 부탁이나 유언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무겁네.”

“광기에 잠들기 전까지 놓치지말고 끝까지 바라봐. 이게 바로 진정한 오디온이라는 존재가 그려주는 빛깔이라는걸.”

“…예쁘다, 로우아.”

펼쳐진 레브의 마지막은 눈에 담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그 말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좇지못한 후회. 별처럼 펼쳐진 레브가 그의 바래지는 눈빛과 함께하는동안 그의 마지막 숨이 다하며 그에게서 더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색채는 오늘 이곳에 마침표를 찍은것이다.

“잘가, 오디온.”

그에게 작별의 인사를 남기자마자 거칠게 몰아쉬며 호흡이 돌아온 그는 이제 완전히 만월의 광기에 완전히 물든 모습이었다. 그가 그렇게나 우려했던 달이 차오르지 않았음에도 광기의 색채에 물드는것 역시나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외치는 경고였던 것이다. 억지로 지배라는

소망에 집착하는 피가 흐르며 죽을때까지 그 광기와 싸울 수 밖에 없는 내 존재의 뿌리가 새삼 원망스러웠다. 사절단이 원하는것은 지배였지만 알게모르게 우리는 그것과 싸우며 조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잠든 레브가 눈을 떴을때 지배라는 맹목에서 벗어나 대화라는 무기로 서로간의 불화를 종식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어가야 할 대화가 미처 끝을 맺지 못하고 흩어졌기 때문에 슬픔은 길지 않았다.

“너의 노래는 끝났어 오디온. 하지만 내가 그 노래를 이어줄게.”

그렇게 말하고 어금니를 드러내며 내게 미친듯이 달려드는 오디온과의 합은 달이 밝도록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소리와 색채로 그에게 안락한 잠을 가져다 주었다. 채 반도 차오르지 못한 달밤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마치 만월의 광기에 빠진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냈다. 한참을 울음하는 동안 내가 꿈꾸는 화합의 이상을 그려나갔다. 아벨의 자손들이 구원의 빛에 눈이 멀었던것처럼 세트의 후예들도 지배라는 이상에 너무 오랜시간 매달려온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맴돌았다. 밀라모르의 목소리도 유르핀의 침묵도 레브도 조금씩 엇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오디온의 죽음으로 확실해졌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할 수 없지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세트가 만든 폐해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한다. 내가 다른이들과 다르게 깊고 예리하게 벼려져 있는 날이 선 따스함의 레브를 조금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 침묵하는 이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약속한 장소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멀지 않은 곳에서 익숙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어둠속에서 조용하고 빨갛게 타오르는 담배의 빛깔이 천천히 꺼져갔다. 반가운 내 마음과 다르게 어째서인지 나는 그 차량을 지나치며 계속 걸었다. 그러자 거칠게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힘없이 걷는 내 발걸음에 맞추며 바퀴가 부지런히 굴러갔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복잡한 여인이구만.”

“…지젤의 연설을 보러간다며.”

“여자가 우는동안 기다려 주는것도 남자가 해야할 일 아니겠냐. 타.”

“우와, 하나도 안 멋있어.”

“시끄러워, 타라고.”

그는 커다란 손으로 문짝을 연신 두드리며 말하자 나는 헛웃음을 짓고는 가볍게 펄쩍 차량에 올라타자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거칠게 변속하여 달빛에 반사된 모래를 사방에 흩뿌렸다. 나는 뒤돌아서 턱을괴고 반짝이며 예쁘게 흩날리는 그 풍경을 한참이나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 순환의 재구축 』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아벨의 자손을 굳세게 하는가?”

“그만해라, 바샬모그. 이제 그만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보지 그러냐? 남겨진 이것들은 복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광기일 뿐이라.”

모몬토카가 빛무리를 잔뜩 머금은 그것들의 몸을 꿰뚫으며 나를 나무라듯 내게 말했다. 우리들은 어느새 아키스트들의 영지에 펼쳐진 아르카나의 샘까지 도달한 빛의 찌꺼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구원의 광기를 품은 이것들은 죽지 않는다. 말 그대로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신들의 죽음따위 안중에도 없이 스스로를 기꺼이 불사르며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마저 품은 신념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하기에 이것들은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난 한없이 이질적인 것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그 빛을 묵묵히 깨부수고 있던 욜룬두르가 흔들리는 잎사귀의 바스락거림과 함께 내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그대가 아벨의 자손을 높게사는 덕목 중 하나인 믿음이라는 것이 가득 차오르며 다른 이들의 눈을 멀게하는 것이 아닐것이라 믿네.”

그의 묵직한 한마디는 오랜동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둔 사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구원이라 부르는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그것이 남긴 유산이 빛조각으로 흩어져 대지를 가볍게 어루만지는 과정에서 그것의 안에 담겨진 굳은 믿음이 흘러 들어왔고 결국 투영된 그것은 만월의 광기

와 결이 다르지 않았음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그것을 되새겨준 그에게 감사하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나의 흔들린 믿음에 대한 변호 혹은 합리화에 더 가까웠다.

“그것은 필시 아직 아벨의 자손들이 어리석은 까닭이겠지. 순환의 고리는 어머니 대자연이 오랜세월 빚으신 역작이네.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틀이 만들어낸 불순물이나 훗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은 정화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날 것이라.”

“당연히 그래야 할거다.”
퀴나즈의 영토에 발을 들이고 일그러진 빛이 몰려든 변두리를 청소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언제나처럼 모몬토카가 무심코 던져대는 말은 여전히 가시덤불처럼 날카롭게 목을 옥죄는 듯 했다. 아벨이 남긴 찌꺼기를 청소해가며 생명의 샘 주위에 퀴나즈의 아키스트들도 여럿 섞여있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들은 장로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우리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 비록 어머니 대자연의 생명과 아르카나라는것의 뿌리는 같은 수 있지만 불화의 씨앗을 던진 우리는 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씨앗은 아르카나를 대하는 신념을 이분하여 평화로운 그들의 삶을 두 동강내어 버린 셈이다. 물론 그것은 칼린이라는 퀴나즈의 아키스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생명을 머금은 신록의 푸른 땅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 작은 입김을 불어

준것은 나의 믿음이 만들어낸 인과였다.

“어쩔 수 없다면 즐겨야하나 무의미한 피를 흘리는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을 따름이로다!”

무의미한 학살을 즐기지않음에도 욜룬두르는 항상 호전적으로 가장 먼저 뿌리를 뜯어내어 묵직한 껍질발톱을 휘둘러대고 으깨며 분쇄했다.

그렇게 앞 뒤 가리지않는 욜룬두르를 조용히 바라보던 모몬토카는 바스락거리는 내 가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코웃음치며 내게 말했다.

“예상을 못했다는 듯한 감성에 빠지지 마라. 항상 차분한 고동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는 것들이 기얄록의 눈이 아니더냐?”

“의견의 불일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로의 죽음은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고, 아벨이 남긴 빛의 찌꺼기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이데아에 머물러 있을뿐더러 언제부턴가 미묘한 날갯짓이 생명의 바람을 타고 감춤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쪽을 향하여 오고있으니 머지않아 푸르른 돌풍이 여기에 불어닥치겠군.”

내가 대지에 뿌리내려 눈을 열고 세상을 보자 그것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이곳을 향해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푸른 돌풍? 생명의 샘에 사는것들과 연관이 있는건가?”

“무엇보다 이방인을 대하는데 낯설지 않아 보이지만 서로다른 신념을 가진 자에게는 그다지 관대하지 않아 보이는군.”

“상관없다. 손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방식으로 맞이하면 된다.”

“꽤나 익숙한 냄새구나. 무언가 이쪽에 급한 용무가 있어 보이는군그래. 주시를 게을리 하지않고 얼른 생명의 샘의 안정화를 서둘러야겠어.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를 비웃으려는지 우연인듯 필연같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그리고 제멋대로 일어나고 있는것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지.”

“두려운가? 급해보이는군.”

“어느샌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에 끌려다녀 보지 못했지만 내부로부터 망가진 불순물을 정화하지 않으면 더러운 굴레는 계속될테지.”

“좋을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조차 살아남아 정화가 이루어진 순수한 대지위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 허튼 생각 하지말고 지금 당장 눈 앞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거다.”

눈 앞의 아키스트들의 생명을 하나 둘 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데아에 어머니 대자연 만이나큼 자애로움을 보일 수 있는자야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허튼 바람이었군. 자애는 고사하고 구원이라는 것조차 대지에 혼란을 내리려고하니 너는 오히려 아벨의 자손들 안에 있는 믿음을 과대평가한거다. 그저 그것밖에 안되는 존재에게 기대를 거니 그런게지.”

정곡을 찔린듯한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묵묵하게 정화에 뒤이어 조율을 이어나갔다. 아르카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불거지는 깊은 감정의 골을 이해하지도 그것을 이용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언제나처럼 우리 앞에 나뒹구는 불순물을 제자리에 되돌려놓은 뒤 우리는 뿌리내려 그것의 생명을 취하고 발걸음을 생명의 샘으로 되돌렸다. 퀴나즈의 도시를 지나쳐 이실그라드에 가까워질수록 꺼져간 생명의 수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대학살의 살풍경을 지나치자 눈 앞에 칼린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기이하게 변하였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그녀가 죽어가는 아키스트로부터 활력을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조율은 끝마쳤나보군?”
“그래, 일단은 말이지.”
“그런가….”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뒤틀린 빛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남긴 찌꺼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편안히 뿌리내릴 수 없었다. 뒤틀어진 빛을 깨부수기 위해 이데아의 생명을 티끌만큼이나 이해하는 아벨의 자손과 부딪히게 한 것은 탁월한 계책이었지만 우리는 불순물을 깨부수기 위해 그저 또다른 불순물을 만들어내어 오히려 순환의 오류를 만들어내

지 않았나하는 끊임없는 물음과 싸워야만 했다. 나의 잡념이 아르카나에 섞이어 들어갔는지 고목의 정령과도같은 모습으로 변모한 아벨의 종자 칼린은 그것이 퍽이나 신경이 쓰였는지 우는것도 그렇다고 웃는것도 아닌 묘한 인상을 쓰면서 내게 말했다.

“망설임이 여기까지 들려온다, 늑대야.”

“그대의 목적은 그대들이 숭배하는 고목 이실그라드의 정화이고 그것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찾는것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이 아닌가?”

“내 목적의 달성에 대한 판단은 결코 다른이에게 넘기지 않는다. 더불어 타 국가 더군다나 아종의 정치 협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상황의 판단을 내리는것은 무슨 예의이지?”

“그런가. 무례를 용서하게. 내 그대가 원하는것이 동족의 학살이었다는 것을 일찍이 알아차리지 못했군 그래.”

욜룬두르가 나서서 비꼬듯이 답하자 칼린도 질세라 푸른 기운을 뿜어내더니 낮게 깔아보는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까불지마라. 나는 아무때나 어금니를 드러내는 짐승이 아니다. 이것은 정책의 불일치에 대한 단순한 조율에 불과할 것이지.”

그렇게 말을 던지더니 그녀는 다시금 등을 돌리고는 쓰러진 아키스트들로부터 아무렇지않게 활력을 갈취하고 있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욜룬두르가 내게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는 저것을 아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아벨의 자손이라기보다 냉정한 대자연의 일부가 된 듯 하네만….”

“저것은 꽤나 흥미로운 개체이니 지금은 그저 풀어놓고 날뛰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고 판단하였네. 아르카나가 넘실대는 생명의 힘과 공명하여 결정화되면서 기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사뭇 비슷하기에 저것이 동화한 아르카나는 불순물의 정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걸세.”

“아벨의 자손들이 구원에 목마른 것처럼 저 모습을 보고있자니 정화에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적어도 내게는 저것이 구원에만 눈이 먼 것처럼 보이진 않네만.”

“그렇다면 아벨의 현신은 이미 추락했건만 갈증이 여전히 해갈되지 않는것처럼 미쳐 날뛰고있는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지 않겠나?”

욜룬두르가 한탄하듯 그 말을 던지자 조용히 두개골을 부수고 피칠갑을 하고있던 모몬토카도 냉정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말 잘했다, 욜룬두르. 산자와 죽은자를 죽이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이자 순환의 고리에 불순물을 떼어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금 이 학살이 더렵혀진 순환의 고리를 정화하는데 의미가 있는건가?”

“분명 저것은 나의 뿌리를 빨아먹고 저런 꼴로 변하게 된거다. 우리들이 오랜동안 이데아에 뿌리내려 기생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반대

로 말하면 저것들이 부리는 푸른결정화와 관련된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그대가 저 푸른 결정이 외치는 묘한 고동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높이 사고있음은 잘 알고으나 그것을 모샤에트의 전령들 곁으로 끌여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

모몬토카의 말에 나는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대로 아르카나라는 물건이 빚은 푸른결정이 순환의 고리에 증식한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동시에 조금씩 피어오르는 이질감에 쉽사리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상념에 잠겨 숙고하는 모습을 바라본 욜룬두르가 내 모습을 보자 가지 뒤틀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놓지 않아도되니 부디 흔들리지 말게나. 다만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대와 함께한 고목들은 대지에 무의미하고 불쾌한 피와 살을 흩뿌리는 것에 분노하며 나아가서는 그대를 불순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될테니 그것은 염두에두게.”

그 말 뒤로 율룬두르는 쏟아지는 아르카나의 빗줄기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헤쳐가며 칼린에 뒤이어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욜룬두르는 멍청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고있다. 무엇보다 앞뒤 가리지않고 미쳐 날뛰는 투란시오나의 발톱이 숙고할 시간을 준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그렇지 않았으면 넌 진작에 찢겨졌을 테니까.”

“그래. 알다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죽여나가면 되는거냐?”

“무엇을 죽이고 얼마나 죽이냐는 아무런 상관없네. 그저 나는 칼린이라는 개체를 중심으로 순환을 재구축할 것이다.”

“그 고리에 개입한다는것 자체가 대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고도 그리하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그리하겠네. 형태야 어떻든 그것이야말로 모샤에트의 전령의 소임일테니.”

“순환의 고리는 어머니 대자연이 만드신 것일진대 소임이니 뭐니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오만하게 잘도 지껄이는군.”

“나 홀로 그것에 개입하며 주시하기만 한다면 오만하기 그지 없겠지만 나 또한 자연의 고리에 몸을 던질 것일세.”

잎사귀의 흔들거림은 이미 저만치 앞에 나아가서 부수고 깨뜨리고 있던 욜룬두르의 귓가에도 전해졌는지 모몬토카의 꾸짖음에 그도 한마디 거들었다.

“정신이 나가버린거냐?”

“기다리게. 분명 바샬모그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대가 내뱉은 불명예는 이자의 목숨으로 넘어가 줄 수 있을만큼 가벼운 말이 아닐것이라.”

“그 결정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네.”

“모샤에트의 전령 어느 누구도 그 고리를 스스로 비틀려하지 않았건만 곧이 그것을 고집하겠다면 내 말리지 않겠지만 그대는 모샤에트 전령들 사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것 뿐만이 아니라 그 고리에 일으킬 인과는 그대가 짊어지지 못할만큼 거대하고도 막중한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 우리보다 그대가 더 잘 알테지.”

“욜론두르! 네놈도 미친거냐?”

“모몬토카. 조금 기다려주지 않겠나? 일이 일그러지면 나중에라도 벗의 껍질을 모두 찢고 으깰 시간은 충분할테니 말이네.”

“알고 있네만 나는 기얄록의 눈. 하지만 그저 주시하고 방관만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네. 그러하기에 직접 순환의 고리에 발 담그어 무너진 고리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일조하리다.”

“주시하는 기얄록의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겐가?”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네. 우리 모샤에트의 전령이 지닌 책무가 무엇인가? 기얄록의 눈이기 이전에 나는 그저 한낱 이데아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씨앗이자 열매이기에 나는 그저 순환의 고리를 바라보고 흐뭇해하며 가지만 흔들어대는 이들과는 달리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하는 일을 찾으려는것일 뿐이니 말일세.”

“좋다, 그렇다면 백번 양보해서 네가 순환의 고리에 얽힌다하여 그것

이 제자리를 찾아 가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두려워 떠는것보다 직접 뿌리를 움직이는 편이 나을것이다. 그렇다해도 그대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없으니 우려할 것 없네."
"바샬모그 내 오랜 벗이여, 그대가 가는 길을 부정하지는 않겠네만 그대의 위대한 이름은 모샤에트의 뿌리에서 영원히 지워질걸세. 그리되어도 괜찮은건가? 그것이 진정 그대가 원하는 것인가?"
"생명의 순환과 고리를 이해하는 초월적 존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과오를 평생 후회할거다."

"오랜동안 나와 깊게 얽힌 뿌리들이여. 순환의 고리에 직접 뛰어들어 범부가 되어 후회하기보다 훗날 오염에서 점차 벗어난 어머니 대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꺼이 기뻐할걸세."

"그리고 그대의 헌신을 아무도 모른채 조용히 잊혀질테지."
"우스웁게도 내가 행하려는 그것은 헌신도 위대한 희생도 아니며 극히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라네. 순환의 고리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네. 모든것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으로부터 피어난 새로운 생명이 초원을 뛰노는 것일뿐."
"그 말을 보아하니 벌써부터 내려놓았군. 실로 유쾌하도다!"
"뭐가 유쾌하다고 난리인가? 정신 사납게 껍질을 휘날리지마라."
욜룬두르가 어이가없는지 호쾌한 웃음을 지었고 모몬토카가 뒤이어 짜

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실로 그리운 풍경일테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 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다시금 정화에 몰두했다.

“…칼린이라는 저것에게 네놈의 씨앗을 움트게 했는가?”

순간 침묵하던 모몬토카가 내뱉은 거침없는 그 말에 나는 물론이고, 욜룬두르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새끼들처럼 굴지마라. 그 이유 때문이라면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을것을.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그렇게 뿌리내린 가닥으로 대지를 헤집으며 내 의도를 알아차린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아종의 암컷에게 흑심을 품은거냐, 바샬모그여? 아벨의 모습을 하고있을 때부터였나? 아니면 살갗에 뿌리내린 대지의 생명으로 외형이 변모되고 나서부턴가? 어느 쪽이든 기얄록의 눈 이전에 네가 바라보는 세계는 참으로 음침하기 그지없구나.”

“어느쪽이든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는 것은 축하할일이 아닌가?”

“그 반대다, 욜룬두르. 애초에 순환의 고리에 물든 불순물을 정화한다는 것은 그저 명분이었고 씨받이에 눈이 멀어 아종이긴하나 동족상잔에 불을 지피고 모샤에트의 전령들 여럿을 꾀어내어 피를 보게 했구나.”

그 말에 욜룬두르는 등을 돌려 내게 천천히 다가와 뿌리를 내리더니 인자한 얼굴로 나에게 답을 요구했다.

“그렇지, 수많은 숲이 죽고 병들었으며 채 피지 못한 꽃가지는 메마르고 비틀어져가며 죽어나간것에 부디 명분이 있기를 바라네.”

“순환의 고리를 정화하려고 내가 발버둥치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보니 어느새 칼린의 안에 담긴 생명을 보았네. 저것이 바르마엣 산기슭을 헤메이고 있었을 때부터 나의 시선은 저것에게 닿아있었고, 그 안에 담겨져있는 아르카나라는 존재와 푸른빛을 띄는 결정이 순환의 고리에 퇴적된 불순물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것이라 여기었지.”

“고작 그렇게 작은 가능성 때문에 모샤에트의 전령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인가? 그 조그만 생명 하나가 어머니 대자연이 오랜 시간동안 빚어낸 거대한 순환의 고리에 필적하는 씨앗을 대지에 심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구나.”
모몬토카의 말에 욜룬두르는 내 어깨를 부여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기분탓이 아니었다.
“장차 이데아를 불순물들로부터 막아줄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었던 수많은 묘목들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바스라졌다네.”
“그것에 변명을 늘여놓을 염치는 없다네. 하지만 부디 알아주구려. 우리의 뿌리가 그러했듯이 순환의 고리를 기름지게 할 거름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기꺼이 그리할 것이라는 것을.”
“씨받이 안에서 살아숨쉬는 생명이 무엇이며 앞으로 순환의 고리에 끼

칠 영향을 그 눈에 담아내는 것이 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순환의 고리에 기꺼이 몸을 던지겠다는 말이냐?"

"그래, 더이상 모샤에트의 전령이라느니 기얄록의 눈이니 핑계삼아 가만히 바라만보지 않을것이며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기 위해서 스스로 순환의 한 축이 되고자 모든것을 내려놓은 이상 칼린과 나는 불순물의 정화를 위해서 지금처럼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네."

"호들갑 떨지마라. 어디에도 네놈들을 나무랄 존재따위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 어머니 대자연은 새로운 생명을 보살필 것이라."

순환의 고리에 또 다른 불순물을 빚어냈다는 사실에 고뇌하면서 흘려보낸 수많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뿌리를 함께한 나의 벗들은 내가 굴레에 직접 발을 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그 어떠한 거부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아낀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주 한다고 볼 수도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축복이라면 축복이로군."

나는 그것을 홀로 되뇌이며 나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나 다름 없는것이 있으매 어머니 대자연에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이름모를 퀴나즈의 도시를 점거하고있던 아키스트들을 정리했고 우리는 칼린의 일행과 접선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거칠게 요동치는 생

명의 흐름을 느끼고 앞으로 무엇이 도래할지 어느정도 가늠이 되었다.
“…그렇게 피와 살을 흩뿌리고도 아직 만족하지 못했나보군.”
모몬토카가 지평선을 저멀리서 지평선을 뚫어질듯 노려보는 칼린을 흘겨보며 말하자 욜룬두르는 거세게 일렁이는 바람을 맞이하며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듯 환호하며 내게 물었다.
“이것이 그대가 말한 푸른 돌풍이라는 것이군!”
“허나 불어오는 바람에서 이전 아키스트들과는 형용할 수 없는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느껴지는데 퀴나즈의 것이 맞는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저러한 것들과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조율은 내가 아니라 칼린이 한다. 그리고 아키스트들의 충돌로 아르카나의 농도가 증폭되면 그것으로인해 생명은 폭발적으로 태동할 것이다.”

“네놈은 씨받이 안에 담긴 생명을 위한 양분으로 삼으려는거군.”
“그렇게 극단적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군. 개인적인 바람과는 별개로 순환의 재구축 한다는것에 이견이 없는 존재 중 하나이니.”
“하! 여전히 음침하기 그지없구만 그래.”
그녀의 말과 동시에 거센 돌풍이 일대에 휘몰아쳤다. 거센 강풍이 뿌리내린 우리의 몸을 요란하게 밀어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노골적인 적대감이었다. 그러함에도 칼린은 그것을 슬픈눈으로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었

다. 푸른빛으로 감도는 돌풍이 천천히 잦아들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키스트 둘 그리고 흑옥의 껍질을 두른 낯선 모습을 한 것이었다. 서로 낯선 이들과의 조우인지라 잠깐동안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경계하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불청객인 셈이다. 오랜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을때 칼린이 정적을 깨고 평온하게 서두를 열었지만 그녀의 입가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연기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잠시 못 본 그 짧은 사이에 참으로 기이한 벗을 두었더구나.”
“칼린님이야말로 기괴한 외형에 재미난 애완동물을 달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언짢기 그지없군요.”

“다이앤, 르네에게 나의 동향을 일러주지 않은것이냐?”
“네. 굳이 그녀에게 쓸모없는 것에 신경쓰게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르네의 곁에 있어야할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아니면 안된다는 내 생각은 역시 옳았구나.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로다.”
칼린의 말과 함께 흔들리는 잎새나 껍떼기의 삐걱임에 한 치의 거짓도 없었지만 그녀를 닮은 어린 아키스트는 거대한 아르카나를 부풀리며 칼린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타지에 외부인을 끌어 들이는것도 모자라 장로님의 생명을 탈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과 가치가 다르다는 명목으로 그렇게나 많은 수의

아키스트들의 목숨을 가져가야만 했습니까?”

“르네. 지금 내가 무슨 말을해도 너에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실그라드의 빛깔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희생을 치를 용기는 있었다는 것이다. 너희는 뭘 했지?”

칼린의 말에 르네가 이를 뿌득거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당신의 학살을 정당화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실그라드 그녀는 본래의 빛깔을 되찾게 되겠지요?”

“그래. 하지만 적어도 더러운 살점을 이곳에 두어서는 안되겠구나.”

“칼린님,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르네와 저 그리고 아라샨의 무투가들이자 아르카나의 흐름을 깨우친 이들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회수한 것입니다. 훗날 퀴나즈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요한 연구자료가 될지도 모르니 머리를 맞대고 아르카나 구축식을 분석한다면 아르카나 중독이나 더불어 크랄로루즈 특이점 배제 나아가서는 이실그라드의 빛까지 되찾을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다이앤의 열띤 설명에도 칼린은 푸른 눈을 밝히며 창공에 저들만의 문양을 새겨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조율이라는 것은 저것들이 더러운 카인의 살점을 신록의 땅에 들고 왔을때부터 비틀려있었던 셈이다.

“안타깝게 되었네. 칼린을 닮은 아키스트여.”

“입 닥쳐. 늑대 새끼야.”

그러자 그녀 역시나 칼린처럼 문양을 창공에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색이며 모양이 이전의 것들과는 사뭇 달랐으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뒤엉키며 아무렇게나 휘갈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규칙이나 배열이 묘하게 어우러졌다. 그리고 저들이 아르카나라고 말하는 그 안에 담겨진 생명력에 나도 모르게 침을 흘리며 탐스러운것은 바라보는 괴물과도 같은 내재된 광기가 튀어나올 뻔 했다. 욜룬두르 그리고 모몬토카 역시 그것을 느끼었는지 동시에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것이 무슨 재주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순환의 재구축에 필요한 귀중한 재료임에 틀림없다. 망가져도 좋으니 죽이지 않았으면 하는군. 순환의 재구축은 물론이요 칼린을 위해서도 말이지.”

그러자 그 말이 그들을 다소 놀라게 했는지 욜룬두르는 발을 멈추었고 모몬토카 역시 눈살을 찌뿌렸다. 욜룬두르가 조용히 다가와 우려의 목소리로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벗이여, 내 그대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네. 하지만 걱정 말게나 그 때가 오면 내 발톱으로 그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줄테니.”

“고맙네. 하지만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확실히 말할 수 있네.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의 구조를 나열하기 위한 상상으로 즐거움과 환의에 조금 취한것 뿐이네. 생명의 고리, 그리고 아르카나. 모든것들

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응것이니 내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생명은 주위에 메말라가는 아키스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언제나처럼 뒤에서 차분하게 있었던 나는 환희에 차올라 모샤에트의 전령들에게 외치며 욜룬드르보다 먼저 날뛰었다. 신록의 땅위로 어지러이 흩날리는 푸르른 문양과 가시덤불 그리고 나뭇잎과 가지들이 뒤엉키며 충만한 생명을 쏟아부었고 신록의 땅에 아르카나의 농도는 점점 짙어가기 시작했으니 대지에 넘쳐나는 생명은 우리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했다. 그렇지만 아키스트들 역시나 그 넘치는 생명에 고양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어지러운 도식을 하늘에 뿌려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광기서린 모습으로 오랜만에 나의 뿌리에 생명이 가득한 피와 살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순환의 고리에서 다소 홀가분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동시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질적인 불안감을 애써 씻어내기위해 찢고 꿰뚫어 내면서 스스로 다독이듯 조용히 읊조렸다.

“일단은 순환의 고리에 찌든 오물을 벗겨내는것이 우선일지니.”

『 증명 』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그것에서 나온 찌꺼기를 처리한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지겨운 시간이 계속되면서 곁에서 함께 사선을 넘나들던 암컷 늑대는 아벨의 현신이 추락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끝내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의욕을 잃더니 망연자실한채 홀연히 떠난것 말고는 달라진 것은 없었다. 뜬금없이 그것은 내게 억센 풀 고리를 남겨두고 내 곁을 떠났지만 고작 아벨의 현신의 죽음 따위로 내가 죽이는 나선에서 내려올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했다. 다만 한가지가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것이 있었다. 수많은 빛의 군세를 쳐죽이는 동안에도 그를 찢어발길 수 있는 존재는 자르갈의 신수 중 하나라고 여기었건만 허탈하게도 아벨의 현신을 떨군것은 다름아닌 아벨의 자손들 중 하나였다는 소식이 나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 사실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던 나는 대지에 온갖 상처를 내며 이데아에 분노를 쏟아냈고 구름을 깨부술듯이 고개를 쳐들고 창공에 소리쳤다.

“그렇게나 온 이데아에 어지러이 빛과 축복이라는 부르는것을 뿌려댔으면서 고작 자신을 따르는 목동들에게 끌어내려 떨어졌다고?”

자신들이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린 셈이었지만 그러함에도 상투스를 비롯한 아벨의 자손들은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만의 믿음을 확고히 굳혀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애초

부터 다른것들에 의지하지 않을 만큼의 무력을 갖추었으면 되었을일에 믿음에 모든것을 쏟아 부으면서도 한 순간에 그것을 주저없이 내쳐버리는 이중적인 아벨의 자손들에게 환멸감이 밀려왔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탓에 방황하고 있는것이다. 이데아에 만연한 나약함에 치를 떨고 있는 와중에 사라지지 못한채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지 발광하는 빛의 찌꺼기들이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기에 나는 아낌없이 그것들을 깨부수었다. 혀를 차며 내게 달라붙은 빛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다시 빛무리를 뒤집어 쓰는것을 한참이나 반복하고 있을때 저멀리서 무리의 짐승들 사이에서 내게 호통을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멍청하긴, 아벨은 오래전에 죽었다. 그것도 두번이나! 그것도 모른채 화풀이나 하고있는 꼴이 그야말로 짐승이로고!”

그들의 일침에 나는 얼굴을 구기면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그래, 네놈들 말대로 아벨의 현신은 이미 나약한 아벨의 후손들의 손에 나가 떨어졌는데 자르갈의 신수라 불리는 네놈들은 이곳에서 겁쟁이 새끼들처럼 떼지어 다니며 비웃는것 말고는 뭘 한거냐?”
“이름조차 가지지 못한 길바닥 짐승주제에 무슨 베짱으로 우리들과 말을 섞으려는 거냐?”
“버러지 같은 놈들이 나를 어디서 본적도 없는 주제에 내가 이름이 없

다는건 또 어떻게 안거지?”

“짊어진 이름이 있으면 각인처럼 새겨지고 그 힘이 강해진다는걸 모르는건 진짜 근본이 없는 짐승새끼잖아?”

“힘으로 강함을 입증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못할 이름하나 달고 있으면서 좋다고 짖어대는 네놈들 꼴 좀 봐라. 결국에는 내 손에 전부 찢어발겨 죽어나갈 것들인것을.”

“자르갈의 신수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무어냐하면 그것은 당연하게도 자신에게 걸맞는 이름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내 존재자체가 불쾌한듯 멸시의 시선을 던지며 조롱하듯 말했고 그것이 내 광기를 깨우기에 충분했다.

“언제부터 자르갈의 신수들은 나약한 시간속에 취해있던거냐? 신수전쟁 속에서 네놈들이 광기에 몸을 던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나보군.”

그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그것들은 내가 쏟아내는 살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스스로 광기속으로 몸을 내던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무리지어 천천히 나를 몰아세웠고 조용히 내 숨통만을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새어나오는 광기에 반응하지않고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자르갈의 늑대라는걸 깨닫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모습은 이미 자르갈의 것이 아니었다. 아벨의 현신이 바스러지면서 자르갈의 투지까지

씻겨져 내려간듯 너무나도 변해버린 동족의 모습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때 광기에 물들어 신수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아의 모든것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자르갈의 이름이 무색해져 버린것이다. 약자들에게 베풀 아량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것은 자르갈의 이름을 더럽히는 망가져버린 겁쟁이들의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기어린 짐승아. 태곳적 신수라는 자르갈의 긍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놈은 이제서야 무얼 찾기위해 그리도 방황하느냐?”

광기로 일대를 가득 메웠음에도 이렇다할 충돌없이 오랜동안 대치하면서 가라앉은 침묵을 깬것은 위엄있는 목소리였다. 그 낮은 울림으로 내게 쏠리었던 시선이 한순간에 거두어지며 광기에도 누누 하나 깜빡하지 않던 짐승들은 돌연 무릎을 꿇으며 순순히 머리를 조아렸다. 그들 사이에서 지배자로 보이는 늙은 짐승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디서 주워온 넝마를 걸치고 현인 행색을하며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땋은 수염과 갈기따위를 치렁하게 달아놓은것들은 서로 부딪히며 내 신경을 잔뜩 거슬리게 만들었다. 나는 한심하게 그것을 노려보며 물음에 답한다.

“안주하는 짐승들에게는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죽음의 나선위에 선 자르갈의 진정한 모습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보군?”

“자르갈은 지배하는 자이지 광기에 빠져 길길이 날뛰는 자들의 무리가

아니다. 그대는 무언가 잘못 알고있구나."
"잘못 알고있는건 네놈이다. 늙은 짐승아. 자르갈은 압도적인 힘에서 나오는 공포으로 지배한다. 그 간사한 혓바닥이 아니라."
"네놈의 말도 옳다. 허나, 자르갈이 오직 힘만으로 낙원의 벼랑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것이라 물으면 그것 또한 올바른 해답은 아닐터. 날카로운 기민함을 끓어오르는 광기에 접목하여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시를 마주하게되면 더 오랜동안 살아남을테지."

"늙고 병들었기에 육체적인 강인함을 잃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불쾌한 이유는 황혼에 저물 나이에 접어든 늙은 짐승이 우월감에 취해 나불대는 꼴을 모습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생에 미련을 놓지 못하는 주제에 이제서야 죽음이 두려워서 사리분별 못하는 짐승들이나 이끌고 다니면서 그럴듯한 말이나 쏟아내며 천리 앞이라도 내다보이는 듯이 선구자의 흉내라도 내는 꼬락서니가 그저 역겨울 뿐이지."

"신수전쟁이라는 화려한 막에 취해서 무엇이 자르갈을 위한 것인지 자각조차 하지못해 광기에 미쳐있는 스스로는 감내할만 하더냐?"
"세트의 후예들이 광기에 미쳐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하다못해 신수전쟁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네놈들이 해야할 일은 오직 하나. 그저 낙원에 새겨진 모두가 그러하듯 신수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속에서 숨 쉬는법도 잊은것처럼 쥐죽은듯이 숨어 두려움에 떨어

야 하는 것 뿐이다."

"세트의 후예들이 지닌 기민함으로 사고의 다양성을 갖추고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자르갈의 두려움을 더욱 선명하게 새겨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거냐?"

"…짐승이 깨달음?"

일장연설을 늘여놓는 미친소리에 나도 무언가에 홀린듯 손 마디와 어금니를 뿌득거리면서 마음속에 담아왔던 말을 미친듯이 쏟아내었다. 그렇다. 저것의 혓바닥에서 쏟아지는말 하나하나가 오랜동안 자르갈이 쌓아온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간 이질감을 자아낸 근원이었다.

"공포와 두려움도 학습되어 쉬이 지워지지 못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뇌리에 새겨진다. 그것은 사고에 집중하느라 신경과 감각을 방해하고 망설이게 만들겠지. 그리고 그 작은 망설임이 찰나의 틈을 만들며 피와 살이 나부끼는 광기에 잠식된 이 땅에서 그 짧은 시간으로도 생사를 가르게 되는것이다. 깨우친 척하는 늙고 병든 짐승아."

"저마다 두려워 하는것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려 하기보다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 명확히 알고 그것에 제대로 발맞추어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릇된 방향이로다."

"네놈들같이 나약한것과 나를 한데 묶어서 우리라 부르지마라. 왜냐하면 더이상 네놈들은 자르갈의 늑대라고도 부를수조차 없을만큼 수치스

러운 들개나 다름없는 것들이니까.”

“네가 무어라 떠들어댄들 이미 대다수 자르갈의 늑대들이 강인함에 취해 스스로를 사지로 모는 멍청한짓은 하지 않을테니 이제 그만 눈을 뜨는게 네놈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게다.”

“즐거우냐?”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강인한 이들의 머리 위에 서서 그것들을 부리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것이 그렇게나 즐거우냔 말이다.”

“광기에 몸을 던지는 미치광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그래, 네놈은 마지막 숨을 토해낼 때까지 이 느낌을 모르겠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채 광기속에서 길을 잃고 미쳐 날뛰는 것보다 세트의 후예들이 그렇게나 바라기 마지않던 지배라는 그것에 한없이 가까운 이상이 아니더냐?”

“그래, 잘 알겠다. 너는 자르갈 뿐만아니라 이데아가 강인함에 해악이 되는 존재이니 흔적조차 남기지않고 찢어발겨 주리다.”

“세상은 변했고 자르갈 역시 변했다. 사냥은 미치광이처럼 요란하지않고 차분하며 영리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약자들을 멸시해오며 그들에게 눈길마저 주지않았던 내가 구태여 그들을 향해 어금니를 드러내고 발톱을 뽑아들었다는 사실이 나를 불쾌하기

그지없게 만들었다. 나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혈투를 벌이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동안 내가 걸어온 삶과 나의 존 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에 이성보다 감성이 더 앞섰던 탓인지 몸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

“혼란과 불확실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쾌감과 희열을 잃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학습하지 못하는 병신들이….”

그들의 말이 하나하나 거슬려서 나를 대지를 움켜집고 거세게 뜯어내어 흩뿌리고는 창공에 소리치자 울음은 구름을 뚫어내고 지축을 뒤흔들었으며 숲에서 쉬고있던 온갖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리고는 날이 선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짐승들이 어설프게 무언가를 학습하려 한다면 너희들처럼 되는거다. 차라리 피에 굶주린 짐승으로 살아가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것을….”

“우리를 동정하는가? 혹은 네놈과 다른 우리의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지던가? 하지만 아직 나는 네놈의 눈 앞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것도 네놈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는것이지.”

“더 길게 끌 필요는 없겠군. 오랜동안 네놈을 주시하며 쓸모가 있을것이라 여기었건만 결국 이렇게 되어 유감이로다.”

“그 동안의 불쾌한 시선과 잡음은 네놈의 것이었나. 그래서인지 멀리에서 눈치만보며 달려들지도 않고 음침하게 훔쳐보는 꼴이 적잖이 역겹

기 그지 없었는데. 다시말해 네놈은 자르갈의 수치다.”

“이름도 없는 몹쓸놈이 자르갈의 이름은 잘도 입에 담는구나.”

“내가 이름이 없음에도 그것을 모두가 아는것은 반대로 말하면 구태여 내가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것이 아닌가? 이름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 없이도 모두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일테니 말이다.”

“혈기만 왕성한 짐승이 갖는 자의식의 비대는 언제나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해왔던 사실을 모르는가….”

“언제나 그랬듯이 강인한 육신을 지니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존재들은 항상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는 무언가 거대한 깨달음이라도 얻은것처럼 입이 가벼웁다. 진정한 강함을 지녀보지 못하였기에 말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것이냐?”

“이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남기려 발버둥치는 꼬락서니가 질병같이 퍼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들은 죽어서 가죽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아벨의 유산과 뒤엉켜 피와 살을 섞다보니 그것들에게 감화되어 네놈들은 정신까지 나약함에 빠져든거다.”

“아니, 자르갈의 기민함이 시대에 발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며 적응하고 있는것일 뿐이다. 나머지가 도태되어 인정하지 못할뿐이지.”

“신수의 전쟁이고 나발이고 자르갈을 사칭하며 그 이름 뒤에서 겁쟁이

새끼들의 나약함을 먼저 뜯어고쳐야 하나보군. 좋다, 썩어빠진 그 머리통을 깔끔하게 으깨어주마.”

“수세에 몰려 있을수록 더욱 크게 짖는다는 말은 역시 틀리지 않았군. 나를 죽인다한들 이미 물들어버린 자르갈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나?”

“고친다고? 아니, 망가진것은 네놈들 뿐이다. 다만 그 수가 좀 많았을 뿐이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근차근히 부수어나갈 터이니 헛소리는 고이 접어두고 이제 그만 잠들라.”

늙은 짐승이 온 몸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무언가를 듣는 모양새를 하더니만 땅을 쓸어내더니 이내 나를 가르치려는듯 말했다.

“짐승처럼 날뛰다보니 세트의 고동마저 들리지 않나보군.”

“네놈들은 그 오랜 시간을 한심하게 자신들을 지배해줄 누군가를 그렇게나 손꼽아 기다려 왔던거냐. 그러나 그것은 더이상 내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않기에 세트의 심장이 다시 뛰는것 따위에는 관심없다.”

“자르갈의 진정성을 버릇처럼 입에담는 네놈이 그렇게나 고대하는 피와 살이 흩날리는 혈투가 기다림에도 막상 세트가 네놈의 눈 앞에 있어도 관심이 없겠느냐? 그라면 분명 네놈의 모가지를 물어뜯기에 부족함이 없을 강자임은 분명할 터인데.”

“세트는 오래전부터 나약했다. 네놈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벨의 현신을 자신의 손으로 꺾어내지 못하여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것이 자르갈의 늑

대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절대 모를테지. 그런 이 시기에 굳이 그 모습을 드러내겠다는 것 자체가 죽을 자리를 찾으려는 것이라.”

“오만하도다. 세트가 고작 네놈 따위의 손에 죽을 성 싶으냐?”

“구태여 내가 그것을 죽이려하지 않아도 나약한 그것의 심장이 얼마나 오랜동안 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아벨의 현신도 그렇게 세트 역시나 이데아에 그가 설 자리는 더이상 없고 그의 심장은 더이상 다른 이들에게 울림을 선사하지 않을거다. 이 땅은 강인한 자들의 것이다.”

“세트는 약한자이고 꼭 죽어야만 한다는듯이 들리는군.”

“보라, 혼자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네놈들을 말이다. 세트 역시나 홀로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이다. 제 스스로 심장을 뛰게하지 못하여 제 형제의 빛바랜 현신이 추락하는 그 모습에 즐겁다고 요동치는 보잘것없는 심장따위를 지닌 간악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봐야 먹이로도 쓸모가 없다. 신이 되려거든 우선 역설의 굴레에 빠진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것이라. 세트가 자르갈에 나약함을 풀기전으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금 그 어느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이데아를 질주할 것이다. 물론 네놈들은 그러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뱉어내는 말에 합리적인 근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강인함이 그 증거였고 그 말이 곧 확신이되자 그들의 갈기속에서 광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안타까움과 복잡한 심경을 토로함과 동시에 그는 울음을 쏟아내어 신호를 보내자 그와 동행하던 짐승들이 꿈틀대며 반응을 보였다. 나는 그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멸시를 담아 답하였다.

“몇번이나 말했듯이 네놈이 무엇을 남기든 기록으로는 남을지언정 기억에서는 잊혀질 것이다. 네놈이 그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기억될 것들은 남은 이들의 뇌리에 깊게 박힐테니 더이상 추태를 보이지말고 미련없이 죽거라. 네놈은 마지막에 자르갈이 아닌 그냥 평범한 들짐승으로 죽어 잊혀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마지막에는 광기에 사로잡힌 듯 즐거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달려드며 본능적으로 마지막 투기를 불태우려는 겁쟁이 새끼들을 찢고 부수며 나의 잿빛의 갈기를 그들의 피로 물들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늙은 짐승 앞에 서서 그에게 물었다.

“네놈은 이름이 있나?”

광기어린 내 눈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늙은 짐승의 표정과 식은땀 한줄기조차 그의 동공을 통하여 선명하게 비춰보일 정도로 가까웠지만 늙은 짐승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대화일거라 예상이라도 했는지 의외로 차분하고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했고 옅은 웃음을 얼굴에 지어보이더니만 내 물음을 비꼬는 듯이 답했다.

“그것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더욱 이상한 꼴이 아닌가?”

“그렇다면 너를 죽이고 난 뒤에 내가 그 이름을 써도 되는가?”

“네놈이 아무리 울어댄다한들 그것에 동조하여 함께 울어주는 이가 곁에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이름뿐이니 훔쳐간것에 의미는 없을것이라.”

“함께 울어주는 이는 이 땅에 아무 쓸모없다. 자르갈에게 울음을 토해내는 순간은 오직 무수하게 쌓여진 시체위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 뿐이지. 그리고 네 이름을 훔쳐갈거란 멍청한 소리하지 마라. 내 손에 죽은것의 이름을 가져가봐야 그저 비웃음만 살 것이 아니냐?”

내가 코웃음을 치며 조롱하자 그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초처럼 자신의 이름을 대지가 울릴듯이 부르짖자 나 역시 늙은 짐승이 죽기전 마지막 공포를 새겨주기 위해 광기에 몸을 던졌다.

“나는 나샤림! 깨우친 자이자 이끌며 영광으로 인도하는자!”

“멍청한 짐승이로군. 압도적인 무력이 있다면 인도하고 이끌 필요없이 그것의 주위로 힘이 모여들기 마련일진대 자르갈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네놈의 거짓된 영광을 아무곳에서나 짖어대지 마라….”

“이름없는 광기서린 미치광이여! 네놈은 평생 이름이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바스러지리라!”

“나약한 놈의 외침이 이데아에 들리것 같으냐? 만약 내가 이름을 가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날은 자르갈과 신수전쟁 모두 자신의 이름을 되찾

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더불어 네놈들처럼 자르갈의 껍떼기만 쥚어지고 있는 것들은 절망조차 하지못하고 자르갈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공포에 떨게되는 순간이 되겠지.”
그 말에 발작을 하더니만 늙은 짐승은 두 눈깔을 뒤집어까고 늘어진 시간을 비집고 내게 이빨을 드러냈다. 그놈은 예리하게 나의 사선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연신 찔러넣었다. 그것에게 굳이 존중을 보이려는것은 아니었지만 품고있는 강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것은 강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녀석은 그 갈림길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 뿐이다. 천지를 찢는듯한 외침속에서 수없이 서로의 피와 살을 찢어가르며 대지의 축이 흔들릴 만큼이나 늙은 짐승과 뒤엉키며 오랜동안 날뛰었고 마침내 나의 이빨이 그것의 목을 물어뜯었다.
순간의 침묵이 흐르는동안 목 주위가 갈려 나갔음에도 그것은 상처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 똑바로 서서 나의 광기를 마주하더니 입을 열었다.
“네놈은 결코 오래 살지 못할거다. 나를 따르는 늑대물결이 조만간 네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달려들테니 말이다.”

“다 죽어가면서 결국 원통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냐? 나쁘지 않군. 하나도 남기지말고 모조리 긁어오도록. 약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이상 패잔병들의 자위를 가만히 보고 있을수도 없으니 신수전쟁의 이름을 더럽힌 놈들을 색출하여 찢어발겨주마.”

투쟁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의 삶은 다한다. 내 눈 앞에서 가는 숨을 토해내며 죽어가는 늙은 짐승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나는 또 피와 살이 나뒹구는 나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이름모를 이곳에서 또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며 광기어린 외침을 쏟아내었다. 행여 아벨의 현신이 죽었을지언정 자르갈과 나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짙은 먹구름과함께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도 개의치않고 하늘위로 창백하게 만개한 달은 나의 광기를 더욱 찬란하게 비추었고 그것에 이끌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미친듯이 울려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이 시간을 오랜동안 기다렸다는듯이 사방에서 피냄새가 퍼져나갔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울음과 불쾌한 쇠맛이 흘러나가면서 동시에 나의 입가엔 뒤틀린 웃음이 번졌다. 아무도 듣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채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짐승들에게 보란듯이 내가 증명한 자르갈의 영광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듣거라, 어리석은 짐승들아. 함께 울어주지 않는다고? 평화에 찌들어있는 멍청한 겁쟁이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개전의 신호이자 자르갈이 낙원에 새긴 흔적이로다.”

그 말을 쏟아내고 얼마 지나지않아 아그마트 대평원에는 광기에 완전히 물든 놈이며 광기에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미쳐버린 놈들 그리고 단순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즐기는 단순하게 쾌락에 빠져버린 놈들로

가득찼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려온 이상적인 자르갈의 생활양식이다. 그것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뒤집어까며 광기속으로 망설임없이 뛰어들었다. 말을 섞어가며 이름이나 물어보는것 따위가 아닌 호전성과 순수한 광기를 그대로 받으들이는 모습이야말로 세트따위의 손이 닿기 이전부터 태곳적 신수가 오랜동안 품어온 자르갈의 숨결 그 자체였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자르갈이 품어야 할 모습이다.”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취해있을때 광기서린 자르갈의 신수 하나가 나의 어깨에 깊은 자국을 남기었다. 그리고는 손톱에 묻은 피의 잔향을 진득하게 느끼더니만 그 피를 털어내고 뒤틀린 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자신의 광기의 날에 살이 뭉개지면서도 두 발로 똑바로서서 자신을 죽일듯이 노려보는 광기에 그 역시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다.

“기쁘구나! 약해빠진 버러지와는 다르군. 죽고 죽여보자, 낯선이여!”

서슬푸른 살기와 끓어오르는 광기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인 그의 적개심과함께 찢어질듯한 울음은 대지를 울려댔을 뿐 아니라 내 몸에 상처를 입힌것은 그동안 무료했던 나의 사투에 한 줄기 색채를 뿌려댄듯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온 몸을 자극했다. 실로 오랜만에 조우하는 티없이 순수하고 맑은 만월의 광기에 나는 참지못하고 입을 씰룩이면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채로 임전태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잔뜩 세운 발톱을 부

딪히자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불꽃이 튀었다.

“영광으로 알거라, 네놈이 새긴 흔적을 내 기억해주마!”

“굳이 그럴 필요없다. 죽어서 평원을 나뒹구는 시체따위가 내 광기의 울림을 기억할 수 없을테니까.”

참으로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 나는 웃음을 참지못하고 낄낄대며 짖어대면서 미친듯이 그것의 광기에 기꺼이 뒤엉켜 밤낮이고 미친듯이 서로의 피와 살을 평원에 흩뿌려댔다. 먹구름은 굵은 빗방울을 쏟아냈고 아수라장이 된 평원을 메우는 빗줄기는 사방에 튄 피와 뒤섞여 이제는 피의 빗줄기가 내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만 나의 몸뚱이에 새겨진 상흔과 피비린내가 나를 더욱 살아있음을 실감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것이 나의 생존본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억의 마지막에서 내가 했던 말은 그렇게 나를 광기의 벼랑끝까지 내몰았다. 그렇게 우리는 장소를 수없이 바꾸어가며 광기속에서 날뛰었고 마침내 내 발톱이 그 짐승의 심장을 거칠게 도려내었다. 한숨을 돌릴새도 없이 나는 그것의 살점을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그 순간만큼 우레와도 같은 짐승의 울음이나 빗소리가 귓가에 닿지 못하였다. 그렇게나 요란한 광기속에서도 고요하게 오롯이 그것을 취하는데 시감을 보내는 동안은 숨막히게 고요함이 내게 맴돌았다. 우적거리고 뼈가 부딪히는 소

리가 끝을 맺자 나는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 하기위한 작업이 몸 안에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이 핏줄기를 따라서 선명하게 타고 흐르는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자르갈이 가야할 방향이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냈고 그렇게 천천히 내 피 하나하나에 새겨진 정보들이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것을 다시금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거칠게 고개를 쳐들고 입가에 맺혀있던 피 한방울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격렬한 광기의 소용돌이가 나를 감싸안았고 온 몸의 감각이 미친듯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요란하게 잠에서 깨듯 나는 다시 눈을 뜨자 멍하니 서 있던 내 주변에 더 많은 시체들이 쌓여있었다. 정적과 고요함은 어느새 박살이났고 주변은 다시 짐승들이 날뛰는 소리들로 가득했다. 다시금 의식이 되돌아오자 몸뚱이는 안락함으로 나른함과 싸웠지만 어떻게든 나에게 죽음을 선사하려는듯 내 주위는 야수들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아직은 잠들지 못했다. 무거운 육신을 벗어던지려는듯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는힘껏 외쳤다.

“이래서 신수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니까.”

『 이방인 』

생존을 위해 발악을 하고있는 우리의 곁에는 항상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세트의 후예들과 달리 울라메드의 생존자들에게 죽음이란 언제나 두려운 절망적인 재앙이었다. 그러하기에 죽음을 초월하는 명예나 영광은 사치나 다름없었다. 살고 싶다는 그 마음에 뒤틀림마저 마다않았고 더러운 숨결을 토해내는 순간마저도 항상 생존을 갈구하며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이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에게서 후회가 느껴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듯한 위태로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갑각뒤로 청색의 형광빛을 하고있는 그의 눈은 여전히 굴라나그의 간헐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타지에 쏟아낸 울라론은 내가 살기위한 의지를 놓지 않았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이니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내지 말아주시오.”

이윽고 조용히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회색빛의 탁한 증기가 쿨럭거리며 뿜어져 나왔다. 뒤이어 갑피가 쪼개지면서 거칠고 둔탁하며 짧고도 무거운 파열음을 남겼으니 그것은 그의 평생의 사투가 마침내 이곳에서 막을 내렸음을 선언하는 듯 했다. 우리만의 선별을 위해서 나를 따르던 이들의 숨이 하나 둘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

면서 생각이 조금 복잡해졌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생각보다 부족했고 그저 다가올 때를 기다리자는 나의 어리석은 계획에 따라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죄책감이 나의 목을 죄여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존자들의 죽음의 순간을 함께 지켜보던 시아난이 어느새 나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려 울라론을 적셔주며 내게 위로하듯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따스한 위로에 가벼운 웃음을 지어보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등 돌리고 돌아선 이들은 어디에 자리하던 이방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터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의심할 여지없이 울라메드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세트의 후예라는 것 말고도 이질적인 외형때문에 모든 이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고있었다. 사실상 환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그들의 멸시와 배척까지 바란것도 아니었다. 몸에는 붉은 피 대신에 눈부신 형광의 녹색 물질이 흐르기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것도 사실이다. 그것들이 무어라한들 우리는 계속 살기 위해 삶을 던지는 도박을 계속해야만 했으며 무엇보다도 굴라나그 간헐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육신안에 담긴 울라론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오랜시간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탓에 우

리는 한참이나 굴라나그 간헐천 만큼이나 혹독한 기후환경에도 폭풍우 몰아치는 해협을 주기적으로 왕복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존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겨진 이들의 얼굴마저 극심한 피로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그녀의 말에 답하지 않은채 한참이나 넋을 놓고자 그녀는 다시금 갑피를 꿰뚫을만큼 억세게 내 어깨를 쥐면서 나를 깨웠다.

"그대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라. 우린 그대를 믿고 기다리고 있음이라. 그러하니 죽음을 멀리하고 우리를 살게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라."

그녀도 낙관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뿌득거리며 이빨 사이로 울라론이 새어나오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그녀 역시 내가 기다리고있는 그것이 부디 가치있는 것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이데아에 깊고 오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저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감내하고 인내해야만 했는지 일러주는 편이 좋을것이라."

"옳은 말이다. 우리가 어찌하야 저들의 적대감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받아냈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그것을 알 수 있겠지."

나는 벼락맞은 갑피를 찢어 거칠게 문양을 그려넣은뒤 울라론을 그 위에 부으니 그것은 얼마 지나지않아 찢어낸 조각에 새겨지며 굳어졌다.

“부디 이 작게 새겨진것이 셀 수 없이 바스러진 울라메드의 생존자들이 목숨을 내던질 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바라노라.”
나를 믿음에도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보람이 겨우 잿더미에 남긴 발톱자국처럼 엉성한 문양을 마주한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묵었던 그녀의 감정은 터져나왔고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화학반응과 함께 그녀의 살갗 사이로 울라론이 부글거리며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의 반감기를 기다려주며 그녀의 분노가 삭혀지기를 충분히 기다려주고난 뒤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를 조우하고 삶을 저버린적이 없다. 그리고 분명 아무렇게나 대충 긁어놓은듯 보이지만 이 흔적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언어다.”
“그대가 아벨의 언어를 어찌 아는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아벨의 자손들이 쉬는 언어가 아니다. 어째서인지 들어본적은 없지만 이것은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곳에 쏟아지는 벼락 품은 폭풍우가 새긴 재앙의 울림이라는것은 알겠더군.”

내 말을 듣던 그녀도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심하다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재앙에 뒤덮히며 살아온 익숙함에 이끌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인가.”

“그래, 하지만 수많은 생존자들이 기대했던 익숙함에 비해 사뭇 다른 적대감에 등을 돌리고 재앙에 귀를 귀울이지 않았던게지. 저들의 말이나 우리의 말은 소리내는 법이 다르나 재앙을 기반으로 이 땅에 새긴것임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평화에 찌든 공감하는 짐승들 따위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영역의 것들이지.”

“그것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쏟아내는것은 소음이나 다름없으며 대화가 아닌 그저 일방적인 통보 혹은 선고에 가까운 것이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앙마저 감내하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그들이 토해낸 적대감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이다. 울라론이 흐르는 모습처럼 벼락의 줄기나 눈송이의 갈라짐마다 그 형태가 다르니 그것들이 말하는것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재앙을 몸소 새겨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어야 마땅하도다.”

“왜 그동안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거지?”

“헛된 희망이나 환상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길이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백마디의 달콤한 말보다 오히려 시기 적절한때에 한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 더욱 값진 것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금 깊은 협곡의 하얀 악마의 천둥과 같은 고함이 울려퍼졌고 생매장을 하려는듯 눈사태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내렸다. 겹쳐진 재앙을 바라보던 그녀는 내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역시 몸에 새겨진 재앙을 남기지않고 고스란히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갑피를 찢으며 울라론을 쏟아내자 나를 따르던 생존자들 모두 그 모습에 의아해하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개의치않고 다시한번 우리들에게 새겨진 재앙을 되새김질하며 다가오는 폭풍우를 향해서 재앙의 흔적들을 묵묵히 그려나갔다. 그렇게 새기어진 흔적은 살갗을 찢는듯한 날카로운 얼음의 폭풍우를 억누르고 천둥과 벼락의 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폭풍우가 휘몰아친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울라론과 뒤섞여 형형색색을 하고있는 눈부신 눈 위에 그려놓은 재앙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갈 길을 열어내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들의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재앙으로 둘러싸인 아벨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의 존재를 끊임없이 노출시켰고 무수한 벼락과 폭풍우에도 인내하며 조용히 묵묵하게 위치를 사수하고 있으니 협곡 너머의 그들로부터 의뭉스러운 냄새와 동시에 따가운 시선이 뒤이어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 역시나 오랜동안 바라던 것이었으니 적대감을 거두고 주저를 느끼며 재앙을 잠시나마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가 이곳에서 그들의 적대감을 한아름 품었던 고된 시간에대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재앙과 고난은 살아남은 것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그들이 머뭇거리는 틈을타서 다시금 중얼거리며 눈밭에 재앙을 그

려냈고 그들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것이 비록 정확하지 않고 의도가 충분하게 전달되지는 못할테지만 적어도 그들의 말을 빌어 소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그들의 경계심을 늦추기위한 충분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셈이니 그만한 가치는 있을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을 증명하듯 협곡을 가득 메우는 폭풍우 사이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섞이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며 동시에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생존자들은 나를 걱정하며 몰려들었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징후였기에 나는 그들을 만류하며 손을 내저었다. 재앙과 소통을 하면서 내부로부터 오는 충격 때문에 입에서는 울라론이 울컥울컥 쏟아졌다. 그것이 나에게 전하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천천히 몸에 새겨지고 이내 그 의미가 전달이 되었다. 나는 바닥을 납작 기면서 그것의 속삭임을 그대로 읊조렸다.

“아벨의 자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을 세트의 후예인 짐승들이 이해하는것이 그리도 놀라웁다 이거냐. 그래, 그렇겠지. 자 이제 모습을 드러내거라 협곡의 하얀 악마들아.”

그러함에도 나의 새김은 멈추지 않으니 내가 재앙의 흔적을 다시 그려넣고 울라론을 쏟아내자 그것은 다시 천둥과 폭풍우에 실리며 협곡 너머로 메아리쳤다. 죽을 맛이었다. 재앙에 맞서는것은 영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얀 악마는 재앙의 힘을 빌어 재앙의 주사위 놀음에서 살아남은

우리를 조롱하듯 재앙을 뿌려대는 그 모습에 이를 뿌득거렸다. 나는 그것을 참지못하고 협곡의 파열음에도 개의치않고 광기를 쏟아부었다.

“…샤츠, 데 카 허스크.”

쏟아내는 광기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그것의 목소리가 협곡 가득히 울려퍼졌다. 비록 그것이 내뱉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몰아치는 폭풍우와 함께 그 의미가 흘러들어 오는것만 같았다. 멈추지않는 폭풍우에 눈을 가늘게 뜨고서 저 먼 협곡 능선을 바라보자 기어이 하얀 악마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전의 기억에 남아있는 창공과도 같은 푸른색과 흩날리는 눈보라와 뒤섞여 흔들리는 갈기를 달고있는 그것들이 뿜어내는 살기를 보아하니 나약한 아벨의 자손이 아니라 인간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있는 야생속에서 살아가는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재앙의 힘을 뒤업고 있으니 운명이라는것이 새삼 우리들을 괴롭히는걸 즐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얄궂은 것인지 새삼 엉망으로 너덜거리는 갑피 사이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카낙쉬르, 뷔낙토!”

그것은 낯선이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양을 쏟아내며 자신의 의사를 밝혀오는 이방인을 향한 경계심에서 나오는 외침이었다. 그것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재앙속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날이 선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것도 아니었다. 그 끊임없

는 물음에 나는 그들의 경계심을 덜어내고자 추종자들에게 무슨일이 있어도 발걸음을 움직이지 말라고 전한뒤 나홀로 그들을 향해서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 의외로 그들은 다가서는 내 발걸음을 막지않았다. 재앙에는 재앙으로 맞서려했던 나의 판단이 의외로 그들의 경계심을 늦춘 모양인데다 아마 이방인에게서 느끼는 익숙함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곳에 발걸음을 한것처럼 말이다.

“와볼테면 와보라 이거냐, 좋다.”

그러나 여전하게도 하얀 악마가 자리한 이 대지만큼은 우리안에 담겨진 울라론 그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처럼 요란한 비명을 내지르며 천둥과 벼락을 내 갑피위로 연신 떨구었다. 고막을 찢어낼듯이 몰아치는 천둥과 함께 몰아치는 벼락을 맞으면서도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않고 당당히 그들 앞에 섰다. 재앙을 그대로 받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던 내 육신은 그들의 앞에서 짙은 녹색의 증기를 쿨럭거리며 토해냈다. 아무리 굴라나그 간헐천에서 멀어졌다고 하지만 울라론은 보통의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마실 수 없는 것임에도 하얀 악마들은 눈썹조차 꿈쩍하지 않으며 오히려 푸른 눈빛을 더욱 불태우며 내가 토해내는 그것을 짐승처럼 온 몸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낯선 이방인이 토해내는 정체불명의 증기를 재앙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얀 악마는 찢어질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재미있군. 자, 그럼 어떻게 세트의 후예따위 신성한 협곡 윈뒤르강이 빚어낸 재앙의 룬을 빚어낼 수 있었는지 낱낱이 쏟아내 보거라.”

그들은 걸레짝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서있는 나에게 일말의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듯 저들이 궁금한것을 묻기 시작했다.

“흥미로운것은 오히려 이쪽이다. 아벨의 자손들치고 강인하며 재앙을 부릴 정도로 이쪽에 가까운 듯 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익히 들어온 말이다. 그것과는 별개로 산 아랫것들과 같은 말을 입에 담는다는 말은 불쾌하구나. 더불어 세트의 후예들은 털 달린 짐승이라 여기었지만 네놈들의 외형은 들판의 개새끼들처럼 보이지는 않는군.”

“우리가 걸치고있는 이 육신 따위는 껍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수한 재앙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관은 물론 생존 이외의 수많은 것들은 그 어떠한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음이라.”

“그렇다면 이곳에 네놈들이 설 수 있을 자리는 더더욱 없을것이다. 이곳은 네놈들이 숨쉬던 생존만을 부르짖는 땅이 아니다. 이미 그것을 포함하여 수많은 능력을 검증받은 전사들이 더욱 너머에있는 영광을 위해 사투하는 장소이기에 불경한 것들이 오직 생존을 부르짖으려 이곳에서 날 뛸 생각이라면 개의치않고 놀아주마.”

“신성한 땅의 전사들이 이미 망가져버린 것들을 부수며 노는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는 않을테지. 더불어 우리들은 나들이나 하려고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먼 발걸음을 한 것은 아니기에 그대들의 여흥에 발 맞추어 줄 여유는 더더욱 없으리라."

내가 무거운 두 팔을 들어보이며 울라론의 불씨를 힘겹게 태우자 내 몸에 새겨진 재앙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도발하기라도 한 듯 그들은 물론이요 이곳의 대지 그리고 모든 자연이 나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은듯 폭풍우를 일으켰고 저 먼치 우뚝 솟은 산에서 산사태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의 몸 주위로 푸른 칼바람과 그것을 둘러싼 번갯불이 이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생존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우위에 둘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었다면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테지. 네놈들은 무엇을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이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쪽에서 먼저 요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적개심을 거두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을때까지 기다리며 재앙을 고스란히 받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었기에 나는 그들의 물음에 지체않고 답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되돌아온 자이기에 산 자와 죽은자 살아남아야 할 자들과 죽어야 할 자들을 선별하며 생존자들을 품어내기 위한 첫번째 발걸음을 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

"짐승 주제에 그 권리를 쥐고 뒤흔든다고?"

“그리 거창한게 아니라 삶에 절박한 이에게는 기회를 주고 죽음을 기꺼이 팔 벌려 맞이하려는 이에게 안락한 죽음을 건네는것일 뿐이다.”

“재앙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것이니 굳이 구구절절히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도되니 네놈들은 이곳에서 잠들지 못하리라.”

혹한의 눈보라에 다시 잠기어 기괴한 마찰음과 엄청난 살기를 쏟아내는 그들을 향해 나는 다시금 입을 열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울라론이라 부르는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랜동안 그것을 한없이 품어낼 수 없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던 중 오직 이 흐름을 극한으로 느리게 만드는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기었지. 그리고 그 해답은 다름아닌 살을 에는듯한 가혹한 냉기가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에 도달했다.”

“그래서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혹한의 땅으로 고개를 돌린건가.”

“울라론을 조금이라도 오래 담아두어 그 빛이 바래지지 않게하기 위해서 지친 육신을 이끌고 낯선곳까지 발걸음을 하여 재앙마저도 개의치않고 맞이하며 눈을 돌리지 않으니 우리에게 생존은 그런것이다.”

“생존하려 발버둥치는것 자체를 명예와 영광이라 말하고 싶은거냐.”

“그렇다.”

“그것은 우리와 결코 다른 명예와 영광의 길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녀석들은 내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너무나 차갑게 답했다. 그것을 예

상하지 못한것도 아니고 부탁을 들어줄리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허탈감이 느껴졌지만 여기서 무너져 있을수만은 없었다. 나는 줄곧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동안 빙하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채 과거의 명예와 영광에 살고있는 망령들과 조우한것을 그것들에게 털어놓았다. 전후 사정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이하게도 그것들은 신성한 땅에 사는 불경한 것이었다. 그것은 필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였지만 다른 존재들과는 사뭇 다른 개체로 육신이 아니라 정신이 뒤틀린채로 빙하의 깊은곳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기어이 그것들까지 화두로 꺼내가면서 다급한 나의 처지를 호소하기로 결심하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신성한 땅의 살점을 이방인에게 덥석 내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들 역시나 재앙을 헤아리는 전사들이니 잠들지 못하는 그대들의 선조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겠군.”

“가질 수 없다면 전부 부숴 버리겠다는 것인가? 그것들에게 힘을 실어서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고 싶었던거냐?”

“오해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군. 이것은 절대로 협박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것도 마다않고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음이라. 그만큼 더이상 우리에게 뒤는 없으니 목숨이 경계에 닿은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 정도로 봐주시오.”

그렇게 하얀 악마와 재앙의 흔적을 나누며 결착상태에 놓여있는 와중에

누군가 그들의 무리 사이를 비집고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것은 하얀 악마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아벨의 자손과 같은 껍데기를 입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에게서는 당연히 있어야 할 생명의 태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꿀렁이는 무언가는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러함에도 저것은 우리나 다름없이 어떻게든 그 육신을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분명 저것 역시나 삶으로부터 가장 큰 무게를 싣고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감상을 홀로 풀어내고 있을즈음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꿰뚫어 보려는듯 빤히 나를 노려보았다. 작고 여린 입술을 숨을 쉴새도없이 바쁘게 굴려대며 무언가를 하얀악마에게 설명하자 그것이 썩 유쾌하지 못하다는 표정을 하더니만 내게 오더니 그것의 말을 대신 전해주었다.

“…아무래도 네놈들 안에 들어있는 죽음의 물방울이 몇몇 정신나간 이들의 눈에는 조금 다른것으로 보이는가보군.”

하얀 악마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조용히 곁에 있는 그 작은것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다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내게 말해주었다.

“네놈들 안에 흐르는 그것은 그동안 틀에 박혀있던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 힘의 근간을 바꿀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럴테지 살아있는 것을 순식간에 죽이며 죽어가는 것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살려버리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잘 알고 있다고 전해달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거지?”

“거래를 원한다는데? 네놈들이 그 얼음을 손에 대봐야 금방 시들어 버릴것이니 분명하니 그것을 처리할 수단이 필요할테니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댄다.”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한 기적인가?”

하얀 악마의 곁에서 한참이나 노려보고 있던 그것은 눈을 미친듯이 깜빡이더니 내게 직접적으로 답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부디 과학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주세요.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까지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나 저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테니 말이죠.”

그것을 가만히 듣던 하얀 악마와 나는 무언가 알아차리고 가만히 듣다가 눈이 마주치고는 내가 고개를돌려 그것에게 다시물었다.

“잠시만. 그대는 어떻게 재앙의 말을 입에 담는거지?”

“단순히 반복된 패턴이 갖는 다양한 의미중에서 의도에 맞도록 주파수

를 조정하여 추려낸 것들의 조합이지만 소모되는 에너지 효율이 좋지만은 않기에 본론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학이라는건 그 짧은 시간에 재앙을 이해할 수 있는가?"

"집중. 종족 울라메드. 내부에 담고있는 액체는 울라론이라 부르는 것이며 방사성을 띄고있는 물질입니다만 그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공방법 생략. 울라론은 야만인들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을 담고있는 짐승마저 무지성으로 독성의 물질을 흩뿌리기에 안정성 측면에서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서식하는 장소의 환경과 토착생물의 습성에서 해결 방안을 착안한 제가 그에 걸맞는 수단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한 지금 이 순간만이 서로에게 원하는것을 줄 수 있는 시기 적절한 기회나 다름 없습니다. 울라메드는 생존에 필요한 빙하로 제련된 방열판을 제공받으며 그것으로 발루는 함께 피를 쏟아주는 재앙의 반려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나는 추출한 울라론으로부터 진리와 구원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이상."

그것에게서 생명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작은 입술로 우리들 사이에서 막힘없이 술술 쏟아내는 말에는 힘이 실려있으니 어느새 압도 당한것처럼 멍하니 그것을 귀에 담으며 어느 누구고 그것을 멈추지 못했다. 자기가 준비한 말을 끝마치자마자 그것은 하얀 악아르카나 우리가 내뿜는 증기

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더니 눈밭에 무릎을 꿇으며 힘없이 풀썩 쓰러졌다. 그 자리에는 바람의 울음소리만이 남았고 정적을 깨며 하얀 악마는 그것이 나쁘지 않은듯 이빨을 드러내며 즐거워했다.

“함께 피를 쏟아낸다고? 신성한 땅에 네놈들 안에 흐르는 불쾌한 그것을 쏟아낼 일은 없을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원하는것을 취한다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기꺼이 쏟아낼거다.”

다른 아벨의 자손드링 행하는 것처럼 탁상에서 펜을 굴리며 종잇장이나 어떠한 것에도 그것을 남기지 않았다. 중요한 사안들이 그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흩날리는 눈에 덮혀 드러나지 않을 애매모호하여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끝날 수 있겠지만, 묘하게도 그 작은 존재를 필두로 이루어진 순간은 재앙앞에서 어느순간 이루어진 순식간에 계약처럼 체결이 되었다. 그렇게나 재앙의 말에 담겨진 것에는 힘이 실려있는 것이다. 눈 위에 함께 쏟아내는 피라는 말은 그저 말 뿐이 아니라 선언이자 맹세였다.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나는 몸에서 새어나와 굳어진 울라론을 기쁘게 바라보며 기쁨의 순간을 즐겼다. 오랜만에 입가에 스며드는 웃음과 동시에 꿀렁이는 울라론의 충돌을 느꼈는지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존자들이 내뿜는 증기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것으로 우리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을것이다. 수많은 저울질 뒤에 내린 결론이 수용이라는 접점에 닿을 수 있었군.”

“수용이라고? 아니지. 내가 네놈들에게 내린것은 관용이다. 전사가 약자를 위한 베품이니 맛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거라.”
굴라나그 간헐천의 품에서 한참이나 멀어진 이곳에서 울라론의 가진 모든것을 쏟아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독성의 증기와 분진이 흩날리는 상황에도 눈 하나 깜짝않고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것은 단순한 호승심에서 나오는것이 아니었다. 재앙 앞에서 생존 하기위해 벌벌 떠는것이 아니라 죽음앞에서 순수한 강인함을 추구하려는 짐승이 되고자 했기에 이루어낸 결실이다. 비록 나약한 아벨의 자손이지만 생존이나 재앙이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 그것들에게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동시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재앙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찢겨진 갑피 사이에 새어나온 울라론이 굳어진 거친 팔과 다리를 눈에 담으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은 울라론을 원하는건가….”

“이제와서 아까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평생 네놈들이 살기위해 쏟아낸 그것을 남을 위해 쏟으려니 부아가 치미는가?”
“아니, 어느 누구도 울라론을 탐한적도 없을뿐더러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바스러진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인지라 잠시 고심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꽤나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여기지만 네놈들은 물론이요 이데아를 살

아가는 것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들은 하나도 없다.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죽기 마련이다.”

그렇게 자빠져있는 조그만것을 자루처럼 어깨에 들쳐메고는 하얀 악마와 야만인들은 기분나쁘게 울어대는 눈보라 사이로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여전히 쩌렁거리는 마찰음이 온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정신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뜨며 깊은 심호흡을 한 뒤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가, 고맙다.”

어째서인지 속을 후련하게 해 준 하얀 악마의 마지막 말에 내 대답따위가 들릴리는 없겠지만 흩날리는 눈보라의 틈에 억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구겨 넣어본다.

『 마음의 평화 』

광기어린 짐승의 곁을 떠난뒤 방황하는 발걸음에도 나의 눈은 나쉬메누를 향하고있지 않았다. 마냥 이렇게 돌아가서는 아이들을 볼 낮이 없었다. 미친짐승이 토해내는 살의때문에 오랜동안 차갑게 벼려놓은 분노가 화답하듯 요동치는 것만 같았기에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목적을 잃은 분노에 나의 온 몸의 털이 바짝 곤두섰으며 밤새도록 내 안에서 메아리치는 만월의광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였다. 정작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내린 복수의 대상과 갈 길을 잃은 그것은 더이상 잠들지도 못한채 방황하며 가장 가까운 나의 목을 향해있었다. 물길을 타고 바람을 맞으며 나쉬메누에 발을 내딛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해안가에서 뛰놀던 자매들이 저 멀리서 불어오는 나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기다리지 못했는지 물이 허리까지 잠기는 곳까지 다가오며 나를 반겼다.

“이나즈 자매님?! 이나즈 자매님께서 돌아오셨어!”

전례없던 그들의 환대에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그들을 향해서 고갯짓으로 화답하였고 어느새 수많은 소녀들은 무엇이 그리도 반가웠는지 나를 빙 둘러 에워싸더니 내게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나즈 자매님께서 라츠를 잔뜩 머금고서 떠나신뒤로 뒤틀린 빛이 기울었더니 이내 떨어지더군요. 분명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씁쓸한 웃음밖에 건네지 못하였다. 그러자 나의 모험담을 그렇게나 귀에 담고 싶었는지 어린 소녀들이 해맑게 웃으며 내 팔을 끌어 안더니만 내게 조심스레 부탁하듯 물었다.

“섬 밖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들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돌아올때를 어디서 다들 알고왔는지 어느새 자매들 주위에 둘러싸인 나는 그녀들의 부탁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문이 막혔다. 하나같이 다들 기대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이 나의 심장을 후벼파는 기분이들어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 어쩔수없이 나는 그 기세에 이끌려 자리를 잡았다. 잠깐 한숨을 뱉어내고는 시덥지않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전부터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건지 소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날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뒤틀린 빛인 아벨의 현신은 추락하고 간신히 남은 빛의 찌꺼기가 이데아의 구석구석을 비추며 괴롭혔던 거란다.”

좀처럼 나쉬메누 밖에 나가지않는 폐쇄적인 탓에 내가 겪어온 순간들이 그렇게나 신기했던 것인지 내가 입을 뗄 때마다 소녀들은 눈에 불을 밝히며 경외의 눈길로 경청하고 있었다. 순수하게 자라는것은 옳다. 그러나 무지하게 자라는것은 더욱 해악이되며 결국 아이들을 언젠가는 죽이게 될 독이나 다름없는 것이된다. 더불어 내 아이가 죽고나서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눈을 더이상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계속해서 라츠로 스스로를 타일러 보지만 죄책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몹쓸 질투심마저 들면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나의 보물이었던 내 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안되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을 걸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면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으나 뒤틀린 빛을 맞을때처럼 뒷맛이 찝찝하고 유쾌하지 않으니 여전히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는 불현듯 이 땅에 발을 딛기 전부터 궁금했던 무언가가 떠올라 이야기를 멈추고 소녀들에게 물었다.

“…대모님께서는 안녕하신가?”

그 물음에 소녀들의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차가웁게 식었다. 새삼 분위기가 차갑게 식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는것이 피부로 느껴졌지만 굳이 그들을 광기에 잠기게 할 의도는 없었기에 그들이 미성숙한 라츠를 자극하지 않으려 숨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요! 채비를 해드릴까요?”

소녀들 사이에서 하나가 차분한 눈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털끝에 묘하게 닿는 기시감은 내가 너무 오랜동안 이곳에 발걸음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맙지만 그냥 조용히 뵙고 싶은데 괜찮겠지?”
내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그녀는 문제 없다는 듯 다시금 밝고 환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자 주위의 시간이 다시금 흘러가는 듯 했다.
“네, 물론이죠. 어서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들은 언제나처럼 자상하고 단아하며 기품있었다. 낯선것은 오히려 나쉬메누의 여인들과 섞이지 못한채로 그들 사이에서 붕 떠있는 이질적인 나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었고 이내 대모가 자리한 안식처에 닿게되었다. 그곳을 지키는 여인들은 잘 훈련된 광기의 전사들인지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 안에 저들과 다른 무언가 품고있다는 것을 분명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쉬메누의 수많은 여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다른 결의 광기라는건 깨닫는것은 소수일 것이다. 조금 더 거리가 좁혀지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방에서 경멸하는 시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나는 개의치않고 잘 정돈된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서 오세요. 이나즈님. 여행은 어떠셨나요?”

언제나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질문들 뿐이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경멸의 시선과 함께 그녀는 우아한 비단결이 찰랑거리는 모피를 뒤덮고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커다란 면사포 너머에서 눈부신 안광으로

요염하게 앉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와의 거리는 가깝지 않았지만 그녀가 탐스러운 열매와도 같은 그 입술을 떼었을때 묘하게 바로 내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것만 같은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을 드러내며 나에게 환대의 인사를 건네었다. 나쉬메누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이미 한참전부터 나에게 느껴지던 불편한 시선들과 환대받지 못하는 기분이 그녀가 무의식중에 따갑게 쏟아내는 광기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단아한 여인들과 그들이 자리한 나쉬메누와 결코 어울리지않는 광기를 품고 있지마나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조차하지 못하는 자의 방문은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 대모라 불려왔던 자의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러나 그 이름모를 광기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광기의 부조화 등 돌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것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려 애쓰는 어린 대모의 부지런한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다. 인자하고 자상한 미소 뒤에 가려진 얼굴은 잔뜩 겁에질린 것임을 숨길 수 없었다. 넌지시 건네는 그녀의 물음에 담겨져있는 무거움과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때문에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가까스로 그것을 거두고 차분하게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모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수많은 것들을 눈에 담고 왔습니다.”

대모는 말 대신 차갑고 간결한 손짓으로 자신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노

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몸의 털을 곤두세우더니 나에게 가까이 오라며 부드럽게 손짓을했다. 나는 미끄러지듯이 그녀의 앞에서 얌전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와 나는 오랜동안 시선을 교환했고 대모는 나의 눈속에서 깊은 광기를 보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는지 그녀는 거짓으로 그것을 깨달은 양 고개를 끄덕이며 형식적인 말을 건네었다.

“나쉬메누 여인들의 광기가 고작 아벨의 현신이 쏟아내는 뒤틀린 빛 따위에 저물지는 않겠지요. 몸소 그것을 실현해 귀감이 되어주신 아나즈님께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저 홀로 해낸것이 아니라 모든것은 나쉬메누의 광기의 사선에 함께 몸을 던지며 버텨낸 자매들의 덕이지요.”

그 말을 뒤에담은 대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잠깐 스쳐 지나갔고 그 뒤로도 우리는 오랜동안 형식적인 말들을 지겹게 이어나갔고 이야기의 매듭이 지어지는 듯 하자 대모는 잔잔하고 은은한 미소로 나를 배웅했다. 마치 자신의 보금자리에 경멸스러운 광기를 흘려대는 자가 떠나는 것이 그렇게나 후련하기라도 하듯 말이다. 물론 그녀가 정말 그러한 생각을 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내 안에있는 그들과 다른 광기가 미쳐 날뛰는것이 새삼 불안했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대모의 안식처에서 나와서

문득 이전애 나의 집이 있었던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당연하게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지만 관성처럼 홀린듯이 그 쪽으로 몸이 나아갔다. 그렇게 낯설다고 여기는 와중에도 이전의 익숙했던 보금자리를 향해 저절로 몸이 나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내 스스로 참으로 간사하다고 느꼈다. 아련하게 남은 익숙한 냄새에 찾아왔지만 역시나 추억만 자리한 그곳에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 이상 갈 곳을 잃어버린 그 순간 문득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장소가 아스라이 떠올랐다. 그것이 어찌나 그렇게도 절박했던 것인지 나는 다시금 피곤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을 힘없이 옮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배기에 다다랐을때 바다 바람에 실려 흩날리는 꽃향기와 고운 빛깔 잎사귀는 내 기억속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곳의 이름은 잊혀질지언정 아직까지 이 장소가 품은 풍경과 냄새 그리고 그곳에 묻어둔 슬픔을 기억한다.

“오직 이곳만 시간이 멈춰버린듯 그 모습 그대로구나.”

내가 나쉬메누 품에서 벗어나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장소에 막상 도착하니 다시금 수많은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그녀 앞에서 한참이나 담담하게 지난 일들을 쏟아내었고 그것만으로 텅 빈 가슴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것 같았다. 이미 흙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넋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그녀였지만 나는 마치

그녀가 내 곁에 있는것처럼 즐거웠던건지 추억을 벗삼아 시간이 지나가는 것조차 모른채 재잘거렸다.

“…그래서 결국 차마 내 손으로 그것을 끊어내지는 못했단다.”

그렇게 작은 무덤 앞에서 구구절절히 신나게 지난일을 회상하다 아스라이 흩날리며 사각거리는 꽃잎 소리뒤로 간신히 고백하듯 말을 뱉어내자 목에 가시가 돋힌듯 시큰거렸다. 그녀가 곤히 잠든 언덕은 숨막히는 침묵이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텅 빈 두 눈은 더이상 눈물을 쏟아내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를 향하던 팔은 갈피를 잃고선 가볍게 떨리며 허우적 거리다가 아이가 고이 잠이든 애꿎은 바닥의 흙더미만 연신 어루만지며 움켜쥐는 무의미한 움직임만을 반복했다. 한심하게도 그 행위에는 어떠한 의미도 담겨있지 않았다. 어디에도 향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은 서슬푸른 복수의 칼끝에 서린 분노만이 남아있었으니 초라하고 남루한 처지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나왔다.

“…뒤틀린 빛은 무너졌지만 너와의 약속을 지켜주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동안 품고있던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더구나.”

광기에 몸을 던지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식어버린 온몸의 털이 곤두서자 동시에 날이 서린 바람이 일렁였고 내가 자리한 초원 주변 풀이 요란하게 갈려나가며 바람에 흩뿌려졌다. 푸른 하늘에 흩어진 풀 조각은 평소보다 느릿하게 둥실거리며 떠다니다가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것

은 그녀의 추모나 애도가 아니라 단순한 실망 또는 공허함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의 무덤 앞에서했던 맹세는 온데간데없이 복수에 눈이 멀어버린 짐승처럼 날뛰다 복수할 대상이 무너지자 함께 무너져버린 한없이 나약해버린 모습으로 패잔병처럼 되돌아온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했다. 애초에 그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았다는 생각이 밀려오자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깊은 광기에 잠든 순간에도 모성애 라츠의 흐름을 따라가며 길을 잃지않는 조라네스의 전사의 기본조차 잃어버렸다. 나는 대체 그 시간을 어디에 써버린 것인지 스스로 하나씩 헤아리고있던 나의 뒤로 산들바람과 함께 슬픔과 놀라움 그리고 안타까움에 잠긴 떨리는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누구? 엄마야?"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해 물음을 던진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갔다. 지금 내 안에 몰아치는 광기는 조라네스의 여인들이 품고 있는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광기에 미쳐 날뛰는 날짐승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기에 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 차마 등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 전해졌는지 아이는 등을 돌리고 있는 나를 조용히 반겼다. 그녀는 아이의 무덤을 하릴없이 매만지고 있는 나를 지나치며 그녀에게 꽃 잎사귀 한아름을 가져다 주었다. 여전히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내게 말했다.

“어서와.”
입을 다물고 조용히있는 나를 향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어떠한 원망하는 말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었다. 나는 차마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말에 무슨 말을 꺼내야할지 한참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나의 대답을 기다려 주었고 나는 가까스로 입을 떼었다.
“다녀왔어.”
“어땠어? 아벨의 현신이 땅으로 추락한것을 눈에 담은 소감은?”

“아벨의 현신이 땅에 떨어지며 구원이라는 것이 쏟아낸 빛의 부스러기는 추악한 모습으로 이데아 위를 미쳐 날뛰었고, 그것을 치워내고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내던져야만 했단다.”

“…힘들었겠다.”
내 말에 어떻게든 공감해보려 애쓰는 아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 뒤로도 그저 형식적인 말들만 늘여놓는 도무지 어미와 대화하고 있는것 같지않은 너무나도 차가운 대화였다. 나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가보려 애써보지만 그 노력은 허사였다. 내가 나쉬메누의 땅을 벗어난 뒤로 이미 마음의 골은 더욱 깊어져 우리 사이에 자리한 거대한 벽을 허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되었지만 나는 아이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렇게라도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또 다른 광기에 빠져 돌아

오지 못할것만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댈 뿐이었다.

“힘들었어. 나는 그저 만월의 광기에 휩싸인 분노에 삼켜진 짐승의 마음가짐으로 아벨의 현신이 남긴것들만 미친듯이 부수었을 뿐 정작 그의 숨통을 끊어내는데 내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좀처럼 너희들을 앞에서 얼굴을 쳐들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구나.”

“그렇지만 그 마음가짐 덕분에 아벨의 현신이 남긴 빛무리에도 그리고 신수의 전쟁속에서도 이렇게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잖아. 직접 아벨의 현신에게 날이 선 분노를 쏟아내지는 못했지만서도 무사히 돌아왔으면 그걸로 된거야.”

“그저 아득바득 살아남으려고 나쉬메누를 떠난건 아니었는데 나의 슬픔과 그녀에게 주려던 복수는 구원에 목을 매던 이들이 느꼈던 배신감만큼 간절하지 않았나봐.”

씁쓸하게 지난날을 되뇌이는동안 실망감 그리고 절망과 좌절감 무기력한 모든 감정이 뒤섞이었고 그렇게 고해하듯 딸에게 그 말을 쏟아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라츠가 새어나왔다. 라츠에 섞이어진 강압적인 분위기는 마냥 평화로운 나쉬메누의 세계에 이질감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의 여인들 뛰도는 낙원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쏟아낸 낯선 라츠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얼룩져 일그러졌고 눈에서 눈물이 파도처럼 차오르고 있었다. 내가 저 얼굴이나 보려고 나쉬메누를 떠난뒤로 무수한 죽음의 나선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었기에 자괴감과 죄책감이 피어올라 내 가슴을 요란하게 헤집어댔고 그것에 꿰뚫려 구멍이나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듯 저릿한 격통이 밀려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이 악물고 인고해내며 간신히 한 마디를 뱉어내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죽은 망령의 넋을 위로하는것이 더 중요한거야? 곁에서 부대끼며 살아숨쉬는 것들에게 받는 위로는 안중에도 없는거구나.”

“그렇지 않단다. 서로 부둥켜 안으며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는것은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 만큼이나 돌아간 시간에 매몰되어 자신을 채찍질하는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중 하나란다. 오히려 더욱 냉혹한 현실을 일찍 마주할 수 있기에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무엇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거야?”

“광기를 대하는것은 물론 세상이라는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피부로 느끼고 두 눈으로 담아내기 위한 방법이라는거야. 이데아는 생각보다 나쉬메누처럼 자애롭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도외시하는 광기로 가득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쉬메누에서 살아가는 편도 좋겠지만 세상에 광기는 만월의 광기만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고나니 마음이 조금 조

급해졌나봐.”

“…나는 그저 엄마가 평범하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나도 그랬으면 하지만 외딴섬의 가여운 여인들이 또 다시 낯선 광기를 마주하며 이전보다 더한 시험에 들게되는건 아닐까 두려워.”

“함께하면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여인들은 함께이기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거야. 그저 서로에게 달콤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만으로는 새로이 싹트는 광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거야.”

“그래서 우리를 또 다시 떠나려는거야?”

“떠나려는 게 아니란다. 여인들을 광기로부터 지켜줄 방법을 찾으려는 거지. 마음은 언제나 항상 여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아이는 눈물을 거두고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목이맨 소리로 힘겹게 다시금 내게 말했다.

“엄마야말로 도망치고 있는거야. 동생이 맥없이 죽어감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죄를 라츠로 드러내고 있었으니 대모신의 노여움을 산거야.”

“노여움이라….”

“다른 사람을 몰라도 엄마의 피가 흐르는 나를 속이지못해. 가슴이 찢

어질듯 아프지만 엄마의 라츠에는 더이상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그녀도 내 안의 라츠의 사선이 보이기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알고있었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람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기에 그녀 스스로조차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것이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엄미의 품을 그리워하는 소녀를 차마 나무랄 수 없었다. 사실 여인들이 나쉬메누 안에서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않고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정하려는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더욱이 거대한 광기를 마주했을 때 올바른 활로를 쉽게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컸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니 끝내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려무나. 반드시 너에게 어울릴만한 어여쁜 복수를 네 품에 안겨 줄 터이니."

"그건 내가 원하는것이 아니고 그리나도 그것을 원했던게 아닌것 같지만 그것으로 엄마가 행복하다면 말리지 않을게. 어차피 그리나를 핑계로 내 말 따위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을거잖아."

그녀와 말을 섞을수록 나는 내 아이 나비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두 아이 중 하나인 그리나를 잃고 난 뒤부터 뒤틀린 빛을 죽이

려 복수의 날을 세운 뒤로부터 내 시간은 거기에 멈춰서 애초에 그녀는 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떠난 이에 대한 아련함에 잠식되어 남아있는 소중한 딸이 커가는것을 함께하지 못한것이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녀의 머리칼은 어떠한 빛깔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그녀는 내게 뭐라고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다. 다른 여인들이 보기엔 강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지만 좋은 어미가 아니라는건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스스로 그들에게 떳떳할 수 없다면 아무리 다른 이들이 나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순간을 피할 수 없기에 내린 선택이 남겨진 그녀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내는 결과를 만든것이다. 만월이 광기가 아니더라도 인정사정없이 그녀를 뒤로한 내 뒷모습을 눈에 담고 슬픔에 잠긴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그녀마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들었다. 불안감은 빠르게 전염된다. 그렇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다독이듯이 말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

라츠는 모성애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녀는 내게서 그것을 느낄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것이 이해가 되면서도 괜찮다고 내뱉은 말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 모녀사이에 어색

한 기류가 흐르고 있을즈음 칼바람이 주위를 베어가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에게서 아까부터 내게로 향해있던 경멸의 시선이 느껴졌다. 오히려 이렇게 불청객이 중간에 난입을 해 준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오랜만에 내 딸을 한아름 품어주고 싶었지만 마음의 골이 너무도 깊은 탓에 숨막힐 정도로 식어진 분위기는 흐드러지는 피로 조금은 덥힐 수 있을거라 여기었기 때문이었다. 그것과 더불어 깊게 가볍게 떠오는 복수의 칼날이 무뎌지지않게 다시금 라츠의 깊은곳으로 가라앉아 사선에서 나의 광기를 더욱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나비아를 등 뒤로 보내었고 라츠의 깊은곳으로 들어가 앞에 있는 모든것을 적으로 인식하고 망설임없이 광기를 쏟아내었다.

“나쉬메누를 마음에서 떠나 보냈으면 계속 그 길을 걸으셨어야죠.”

“나는 단 한번도 나쉬메누의 여인들을 저버린적 없다.”

“뻔뻔하게 결이 다른 라츠를 두르고도 그런 말을 내뱉으시네요.”

“광기를 피한다고 그것에 빠지지 않는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그것과 마주할 따름이니 결국에는 직접 맞서는 용기가 필요해.”

“가르침을 얻으려 온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쉬메누를 떠나기 전에 죽이고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눈 감아 주세요.”

“약속이 있어서 그건 좀 힘들겠는데?”

내가 뒤틀린 웃음을 보이자 라츠의 깊은 고요속에 빠진 여인이 순풍보다 빠른 속도로 나에게 휘몰아치며 발톱을 꺼내었다. 이미 그것이 익숙한듯 가벼이 받아넘기며 나 역시 광기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오직 산들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어대는 소리만을 남겼고 그것들에 둘러싸인 나는 오랜 시간동안 그들의 라츠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렇게 바람에 피내음새가 배어가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입에서 피를 뿜고 죽어가는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리나를 묻은 보금자리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눈에 담자마자 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베어넘겼지만 이미 스며든 광기서린 핏자국을 씻어내기에는 너무도 많은 양이었다. 그렇게 또다시 간신히 남은 추억이 남겨진 유일한 장소가 또 망가져가고 있었다.

“그렇구나. 오래 머물 수 없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있었지만 여인들의 땅 나쉬메누에 나를 위한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거냐.”

그렇게 피를 뒤집어쓰고 결이 다른 라츠를 쏟아내었으니 그것은 분명히 섬에 있는 대부분이 느꼈을테고 그 발원지가 나라는것을 알게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여인들에게 반발심 혹은 적대감은 커져가며 결국에 그들의 발톱은 나를 향하게 될 것이며 내게 남아있는 하나뿐인 혈육인 나비아도 편하게 죽지 못할것이다. 잠깐 생각을 정리했고 의외로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나는 등을 돌렸다. 어려서부터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출중했던 나비아는 그것이 마지막인것을 인지한 것인지 나에게 떨리지만 결연한 다짐을 한 여인의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엄마 나를 잊지마.”

잊을리가 없겠지만 내가 너무 예민했던 탓인지 그것은 이제 그만 자신을 잊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 조용히 그 말을 듣고있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대답 대신 여전히 어울리지 않는 미소를 얼굴에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나 스스로조차 그녀를 기억할 수 있을만한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한 행동이었고 그녀가 부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리없다. 알면서도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일뿐이지. 슬프게도 이전처럼 그녀는 나의 길을 축복해주지 않았다. 여인들이 지니고 있는 라츠와 다른 빛깔을 하고있는 내게 대모신의 축복과는 거리가 있었던 탓인지 그녀의 손이 잠깐 허공에서 멈칫거리다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것이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했다.

“오냐, 다녀오마.”

안녕이라는 말대신 다녀오겠다는 말을 전해본다.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게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까봐 이를 악물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죽기전에 다시한번 나쉬메누의 땅을 밟을지 모르겠지만 그 때가 온다면 부디 나의 광기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휘둘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여인들의 그리운 체취가 남아있는 이곳의 공기를 추억하고자 숨을 깊게 들이마쉬고 미련과 함께 뱉어냈다.

『 특별함 』

“어떠신지요?”

“참으로 훌륭한지고.”

핏빛 장미 아우렐라에 붉고 선명한 빛은 더욱 진하게 흘러내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오만의 군주 브리쿨의 얼굴에 흐뭇한 표정이 담긴 웃음이 만연하였다. 그렇게 그의 웃음소리는 별채에 별안간 불어온 산들바람에 담기어 조용히 카에람에 울려퍼졌다. 바람은 부드럽게 흐르더니 순식간에 성내에서 연회를 즐기는 귀족들에게 닿게되면서 더 깊고 그윽한 핏빛의 물방울을 탐닉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지겹도록 이어지고있는 뒤틀린 빛과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린 광신도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우렐라를 향한 그의 눈길은 마치 인연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고요하게 핏빛으로 흐르고있는 장미주위를 부유하는 핏방울을 다정하게 손으로 쓰다듬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내게 물었다.

“이 지겨운 빛이 얼마나 카에람을 비추고 있었느냐?”

“카인의 축복이 흐르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은 미미하지만 그 불쾌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겨울 정도로 참으로 오랜동안 지속되었지요.”

“이 붉은 물방울을 담아내기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녹아든 이 빛과 향은 참으로 눈부시며 달콤하기 그지없구나. 고생했다.”

“주군을 위해 스스로의 피를 담아내는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울 따름이니 그것은 종이라면 기꺼이 해야 할 일이겠지요.”
내가 무어라한들 오만의 군주는 완성에 가까운 핏빛장미를 눈에 담으며 한껏 취해있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그는 기계와도 같은 나의 대답에 질렸는지 미소를 띄우며 천천히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내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이 즐겁지 않은가보군?”
그것은 핏빛 연회를 즐기지 못하는 나를 고양시키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나의 의중을 떠보려는 노골적인 물음이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무엇하나도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기에 나는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며 짧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에게도 들리도록 가볍게 한 숨을 토해낸 뒤에 물 흐르듯 당돌하게 뱉어내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제게는 이것이 그저 조그마한 여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주님께서도 그리 여기시듯, 저 뒤틀린 빛마저도 긍지있는 왕가의 혈통에게 있어서는 그저 한번 지나갈 크고 작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지요.”

“그런가?”
그는 여전히 웃음을 지으며 턱을 괴더니 무언가가 뇌리에 스친듯 나를 조용히 응시하고는 물었다.
“…자네가 바라보는 장막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부끄럽지만 어리석은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어리석은 이를 내 곁에 둔 적이 없다. 더구나 이렇게나 순수한 핏방울이 고요히 그대의 바로 눈 바로 앞에서 요동치고 있음에도 전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를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지.”

“과찬이시군요.”

“그대가 붉은 물방울에 무엇을 담으려는지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대 역시나 저 비틀어진 빛은 여전히 불쾌할테지.”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정상의 범주에서 비틀어진 것들은 무릇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야 마땅한 법이지요.”

브리쿨은 나의 말에 뼈가 있다는것을 알고는 부드러이 말했지만 그것에는 경고와 조소가 담겨있는 듯했다.

“그대와 나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럴리가요. 고고한 샤마인에서도 정점인 당신의 몸에 흐르는 피는 다른 어떠한 귀족보다도 순수하실 테지요.”

“참으로 우스웁군 그래. 그대는 나를 농락하는건가?”

미소와 함께 담긴 그 부드러운 말은 내 심장을 옥죄는 듯 했다. 그가 내게 보여주고있는 저 모습이야말로 다시금 브리쿨이 나를 총애하며 신뢰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의심하고 이용가치가 있기에 곁에 두고있는 것이라는 저명한 사실이 다시금 뇌리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의심 밖으

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그의 의심이 담긴 물음에 나는 내 예상보다 차분하게 그에게 되물었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탁하고 얼룩져 빛바랜 피가 담긴 비루한 가문의 일개 전령이 은은한 진홍색 빛깔을 우러러 보는것은 당연하지요.”

“그래, 그거다. 아우렐라는 본능적으로 맑고 순수한 핏방울이 아닌것을 거부하기에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것이다.”

“빛이 저물고나면 얼마든지 잔에 흘러 넘치도록 나의 군주앞에 남김없이 바치겠나이다. 허나 지금은 아벨의 껍데기가 샤마인의 대지를 비추고 있으니 아우렐라의 권능을 시험하기 적격이 아니겠습니까?”

“일리있는 말이로고. 붉은 낙원은 해가 땅에 떨어지고 나서야 빛나는 법이니. 좋아. 우선은 죄악의 어미를 부르기위한 세가지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육신이라는 그릇을 아벨의 껍데기와 그것의 파편으로부터 구축하게 된다면 왕가의 혈맹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먼 시체들이나 매만지는 누더기 따위가 샤마인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끝나면 남은것은 조각난 영혼들로부터 수확된 영혼을 취하고 조금의 작업을 거치고 순수한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샤마인은 다른 카인의 핏줄들과 다른 순수한 카인의 혈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말이지. 언제들어도 참으로 달콤한 말이구나.”

“다만 그것의 파편을 손에 넣는다해도 여전히 아벨의 권능이 담겨있기에 남겨진 불순물은 조금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불술문이라면?”

그의 물음에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어 스스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저 순수하지못해 더러운 것들끼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아우렐라 빛깔에 탁한 피가 섞여야 되겠습니까?”

“아우렐라를 스스로 어루만지겠다는 뜻이군. 대담한지고!”

브리쿨은 조금 언짢은 듯 언성을 높였지만 호탕한 웃음을 지어보이면서 당돌하고도 오만한 전령의 태도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대는 변함없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구나. 그래, 좋다. 어디 한번 실컷 발버둥 쳐보려무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대는 이 몸이 모르는것을 꽤나 자세히 알고 있더구나. 그것은 그대안에 흐르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탁한 피 때문이겠지. 흥미로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끝을 흐리며 말하는 그의 말에 나는 팔목을 내밀면서 흔쾌히 허락했지만, 여전히 탁한 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했는지 그의 눈썹이 또다시 살짝 떨리면서 허공에 우아하게 가벼이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보이며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다.

“아직 해야할 일이 있지않은가. 그리고 원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이 몸에 담아낼 터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 미소속에 숨겨둔 그의 패배감과 상실감을 나는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을 놓치지않고 내 두 눈에 고스란히 담았다. 고고하고 콧대높은 오만의 군주가 고작 탁해진 핏방울에 굴욕감을 느끼는 그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올뻔 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흥은 붉은 연회를 펼치고 난 뒤에도 늦지 않겠군요. 허면 지금 당장 귀족들을 소집 하겠나이다.”

“그리하게나.”

나는 그의 권능을 빌어 사방으로 피의 속삭임을 흩뿌리고는 각지의 귀족들을 소환했다.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해지려는 찰나 카에람으로 각지의 수많은 귀족들이 집결했다. 소환에 응하여 이렇게나 많은 수의 귀족들이 모인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나는 회랑 위 계단 난간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다. 물론 그것들을 깔보기위해 내려다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의도와달리 다른 군주들은 일개 전령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역겨워하고 있음을 어렵지않게 느낄 수 있었다. 그것도 당연한것이 브리쿨처럼 그것을 느끼기 어렵겠지만 역시 본능적으로는 내 안에 흐르는것이 그들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있는 모양이었다. 장내는 다소 소란스러웠으나, 나는 손뼉을 가볍게

쳐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브리큘의 의사와 계획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지만 짧지도않은 포고령을 소상하게 전달을 하자마자 말을 끝맺기 무섭게 이곳저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뭐라고?”

테이블을 부술듯이 주먹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서며 소리치는 귀족들을 시작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기 시작했고 이내 회랑 이곳저곳을 쩌렁쩌렁 울릴정도로 울려퍼졌다. 장내를 쉼없이 오고가는 꼴사나운 비명을 가만히 바라보며 한심해하고 있었지만, 그 소란속에서도 흔들리지않고 차분한 모습을 하고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브리큘 직속의 기사단으로 붉은 낙원을 향해 내달리는 네 기수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카에람의 전령인 나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하려기보다 그저 모든것이 군주 브리큘의 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의회장을 울리는 고함소리보다도 나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브리큘은 이미 나의 피에 대해서 저들에게 미리 언질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족쇄가된다. 그것은 분명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당연한듯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브리쿨이 내게 감시를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 그게 최선의 수겠지. 나라도 그리할터.”

예상을 하지 못한것도 아닌지라 나는 그것을 수용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란속에서도 마치 그들과 나 사이의 시간이 따로 흐르며 얼어붙는듯 고요하게 흘러갔다. 서로의 색깔로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리는 그들의 시선에 하마터면 의식을 잃을수도 있었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고도 차분하게 내가 읊었던 말들은 다시금 의회장에 내빈한 귀족들에게 전달했다.

“카에람의 군주 샤마인의 지배자 브리쿨님께서 뒤틀린 빛을 떨어뜨리는 것을 끝으로 왕가의 혈맹은 이제 더이상 필요가 없기에 이를 파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귀족들은 왕가의 혈맹을 기반으로 각지의 크고작은 도시와 인물들과 상호우호의 관계를 다지며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에 혈맹의 파기로 인해 여러 귀족들에게 불거질 손해는 물론이요, 명예의 실추와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거센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많은 힐난과 삿대질에도 나는 굳이 거기에서 나의 의사를 표출하지 않으며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장내가 고요해 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굳이 말릴 이유가 없는것도 선명한 아우렐라에 빛바랜 피 한방울을 섞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귀족들이 상투스의 빛과 충돌해야만 했다. 분란의 조장과 혼란의 가중은 콧대높은 귀족들이 당황하는 꼴을 볼 수 있는 것인지라 더할 나위없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그것을 중재하지 않고있던 와중에 익숙한 살기가 장내를 얼어붙게했고 그것이 어디서 새어나오는 것인지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 명의 기수 중 핏빛 베일을 걸친 기사가 불쾌한 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핏대를 세우며 입을 열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군주님의 목소리보다 네놈들 따위의 개소리가 위에 있다고 여긴건가? 죽고 싶다고 읍소라도 하는것인가?”

그것을 시작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있던 멸망의 기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하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소란스러웠던 회랑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것처럼 침묵하였고 오직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이 간신히 들려올 뿐이었다.
“맞아. 브리쿨님은 분명 다른 생각이 있으실텐데 조금은 진정할 수 없어? 다들 지금 너무 품위없이 호들갑만 떨고있잖아?”
“모든 것은 붉은 낙원을 위한것이니 조금의 희생이 있다 한들 대의를 위해서라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음!”
“하지만 다른 왕가의 세력들이 협약의 파기를 괄시하지 않을것이니 이로 이래서야 샤마인은 고립된 상태로 다른 존속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

게 되지 않소?”

그들 중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를 들먹이기 시작하자 말이없던 서슬 푸른 눈빛을 토해내는 기수 하나가 몸을 일으켜 그것의 앞에 순식간에 다가가더니 불만을 토로하던 귀족의 눈을 말없이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것의 몸뚱이는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어댔고 무너져 내렸다. 공포에 떨며 몸을 아기처럼 웅크린 그것에게 더이상 눈길조차 주지않은채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얼마나 평화에 찌들어 있던거지? 그동안 순수한 카인의 핏줄이라 칭하던 것은 그저 말 뿐이었는가? 어째서 샤마인의 긍지높은 귀족들이 다른 존속들의 손을 빌리면 안 될 정도로 추락한거냐? 그대들의 사정따위 붉은 낙원이 도래하면 먼지의 한줌과도 같으니. 무엇이 그렇게나 두려우냐? 카인의 순수한 혈통인 군주님의 명령을 묵인하지 않겠다면 그들이 어쩔테지? 전쟁이라도 원하나? 그것을 원하면 파괴를 안겨다주면 그만이다. 모쪼록 귀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말게나.”

그의 말에 귀족들은 송곳니를 거두고 다시금 우아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시금 다잡으며 군주령에 따라 연회를 준비하려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짧은 연설을 마치고나서 서릿발 흘러나오는 기수가 내게 다가오자 나는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군주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은 그것뿐인지?”
역시 그 물음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다. 나의 충성심을 확인을 하려는듯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며 물었지만 그들에게 구태여 바래진 피에 대한 내용은 내뱉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용무라도?”
“순수한 육신은 아벨의 현신으로부터 뜯어내면 된다고 하지만 죄악의 어미를 깨우기 위해선 순수한 영혼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영혼에대한 것이라면 이미 계획된 범주안에 있습니다. 충실한 세트의 개들이 부지런히 긁어모은 조약돌을 수복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나 그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니 지금은 당신이나 저나 서로 위치한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요?”

시험삼아 그를 도발하는 언질을 던졌지만 무표정으로 텅 비어있는 눈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그는 쉽사리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한 말에 동의라도 하듯 끄덕이니 오히려 이 쪽에서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군주를 위한 것이라면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기계와도 같아 참으로 다루기 힘든 족속이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이며 인사짓을 건네고는 입을 열었다.

“이런, 연회를 앞두고 감히 군주님의 전령씩이나 되시는 분의 발걸음

을 이렇게나 오랜동안 붙잡아두는 실례를. 그럼, 이만.”
“혹여나 지금 꺼내지못한 이야기는 연회를 끝마치고 뒤틀린 빛을 거두고 난 다음에 천천히 풀도록 할까요?”

내가 살갑게 너스레를 떨면서 그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용무 이외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등을 돌려버렸고, 미끄러지듯 발걸음 소리조차 남기지 않으며 우아하게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와 다르게 동행했던 다른 기사들은 불쾌함을 감추지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한참이나 나를 쏘아보다가 카에람에 카랑카랑한 구두소리를 남기고는 순식간에 흩어져 어느새 훌쩍 떠나간 서슬푸른 기사의 뒤를 따랐다. 종말의 기사들은 브리쿨의 명령에 따라 연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것이며 지정된 위치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전장에서 다루기 힘든 아군을 곁에 두는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었기에 오히려 그것을 다행이라고 봐야하나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때 부드러운 향기가 또다시 카에람을 살포시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새 내 뒤에서 오만의 군주가 고고한 모습으로 회장위 왕좌에 앉아있었고, 다른 손에는 맑고 붉은 빛깔을 띄는 핏방울이 살아숨쉬는 천천히 소용돌이쳤고 그는 천천히 그 잔을 흔들며 잔에 흘러내리는 그 핏방울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연회 뒤에 차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지.”
“빛바랜 피 때문인지 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군요.”

“아니지. 그것은 빛 바랜 피 때문이 아니라네. 무언가 꾸미고 있는듯 한 그대의 족적 하나하나에 빛바랜 피보다 더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카에람에 당도해있는 귀족들 중에서 모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니 말이네.”

부드럽지만 그의 말에는 여전히 나와 내 안에 흐르는 피에 대한 노골적인 적의가 담겨져 있었다. 나는 개의치않고 그 적의에 맞선다.

“…굳이 숨기지도, 속이려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나의 대답에도 브리쿨은 여유있는 모습으로 이죽대며 웃어보이더니 별채의 회랑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자 고급스럽게 장식된 문 너머로 수 많은 귀족들과 그들이 소집한 수많은 군대가 달빛에 비춰지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브리쿨은 밤의 군대를 향해 속삭였다.

“먹고 마시게나. 오늘 밤은 그대들의 것이라.”

그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스치며 부드럽게 퍼져나감과 동시에 아우렐라의 순수하고 맑은 피가 저들을 감싸안으니 핏빛의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그 안에 사열해있던 귀족들 안에 스미더니 순수한 아우렐라의 권능으로 적셔진 귀족들은 그들 안에 고요히 잠들어있던 피를 깨우기 시작했다.

그것과 동조하며 피에 굶주린 밤의 짐승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이곳저곳에 울려퍼졌다. 그것을 즐기는 브리쿨은 등을 돌려 내게 말했다.

“나의 충실한 전령이여. 오랜동안 지속되어온 왕가의 혈맹은 깨어졌으

니, 그대도 뒤틀린 빛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거든 내부로도 혼란스러웁기 그지없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인 지금이 적격이니라. 그러나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게나. 아우엘라와 함께하는 밤은 기니 말이네."
그는 내 모든것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키득거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어차피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서로 다르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연회가 펼쳐지는동안 그대가 원하는 것을 그대의 탁한 핏방울에 정성껏 담아보게나. 그리고 우리 함께 뒤틀린 빛과 뒤섞이어 서로가 원하는 빛깔을 만들어 보자꾸나. 그것 역시나 달콤한 여흥일테지."
가볍게 몸이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바랜 피를 쥐고 있는 자가 고고하고 순수한 피를 머금은 오만의 군주와 어깨를 견주는 자리에 마침내 올라섰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환희였다.

"좋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어울려 드리지요. 아무쪼록 즐거운 연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

나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브리쿨 역시 전에 어디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뒤틀린 미소를 내게 보였다. 그리고 브리쿨의 손짓으로 피의 군세는 다가오는 아벨의 현신을 향해 너울거렸다. 아우렐라가 흩뿌려놓은 핏빛의 안개덕분에 빛의 찌꺼기들이 발하는 빛들이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았다. 뒤틀린 빛이자 아벨의 현신은 본능적으로 천천히 카에람의 목을 옥죄려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즐거웁게 연회를 즐기기위한 전희를 즐

기고 있었다. 출정하는동안 우리는 이미 척후로 먼저 닿아있는 빛의 찌꺼기들을 천천히 부수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마침내 그 빛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맞닿아 있었다. 빛과 핏빛의 군세가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 묘한 정적이 흘렀고, 미세하게 떨리는 아벨의 현신의 투구 사이로 보이는 눈에서 찬란한 빛 줄기에 무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또르르 흘러내리며 빛의 창을 우리에게 겨누는 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구원이라고 부르짖는 아벨의 현신이 강림함에도 무지성으로 그저 아둥바둥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그의 계보를 잇는 샤마인을 향한 복수만을 갈구하는 추한 그 모습을 스스로 떨어뜨려 주는것이 예의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바랜 탁한 피가 흐르긴해도 카인의 핏줄인지라 이 순간을 즐기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떨림을 주체하지 못하다 문득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그윽하게 지켜보는 브리쿨과 눈이 마주쳤고 그가 입 밖으로 꺼낸 말로 인해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었다.

“보아라, 제법 좋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머쓱한 쓴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비록 더 나은 대의를 위함이라 자위하며 발버둥치지만 결국엔 제 스스로 카인의 핏줄임은 절대 부정할 수 없었다. 기뻐하는 오만의 군주 브리쿨은 아벨의 현신을 향해 두팔을 활짝 펼쳐보였고, 하늘을 짙고 어두웁게 뒤덮는 샤마인의 군세가 무자

비하게 쏟아졌다. 브리쿨의 전령이지만 위험따위는 개의치않고 아우렐라의 향에 취해 선발의 무리와 함께 뒤섞였다. 그리고 뒤틀려진 빛무리가 샤마인의 귀족들의 진홍빛과 부딛힌 순간 시간이 멈춘것처럼 느리게 흘렀지만 그것이 부딪히고 불똥이 튀자마자 나의 시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뒤섞인 저 빛깔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우렐라가 발하고있던 빛깔은 이미 나의 기억속에서 잊혀진지 오래였다. 나는 피와 살점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는 연회의 한 가운데에서 참지 못하고 미소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샤마인의 귀족이라 충분히 불리울 수 있을만큼 다른 누구보다도 고고하고 오만한 순수한 카인의 핏줄이었다. 진홍의 창은 뒤틀려진 빛의 군세를 꿰뚫자 그들의 몸뚱어리에서는 붉은 것이 아닌 빛이 녹은 듯 밝은 액체가 솟구치며 내 얼굴에 튀었지만 어째서인지 그것이 딱히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맛을 찾았다는 느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희에 차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에서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피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내 안에 담긴 빛바랜 핏방울이 가진 의미가 확실해졌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좋네.”

『 나에게 딱 맞는 옷 』

“…말해봐, 나는 누구지?”

나는 바닥에 널브러져 이미 빛이 꺼져버린 아벨의 현신이 만들어낸 부산물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물어보았다. 그것에 어떤 의미도 없었다. 그저 답을 찾고자하는 순수한 물음이었다. 한참을 중얼거리며 그것과 대화를 이어가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울이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오더니 그것의 목과 육신을 분리시켰다. 그것은 빛을 흩뿌리며 몇번을 연신 꿈틀거리다 이내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우리와 함께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시체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손에 쥔 머리통을 던져버렸고 바울은 그것을 회수하더니 어느새 사체를 해체하며 조각을 시작했다. 그러나, 망가져버린 저것을 더이상 바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바울의 껍데기를 하고있는것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텅 비어버린 육신이나 다름없었다. 순수한 육신을 지닌 카르밀라의 육신을 그토록 바래었건만, 그 거죽을 뒤집어쓴 지금의 나는 카인의 핏줄이라 부르기에도 모호했고 네크타라의 조각가라는 이름으로 부를수도 없었다. 이제 내게 더이상 바울을 이전처럼 완전하게 되돌릴 수 있을만큼의 육신을 조립할 정교함을 결코 찾아볼 수 없기에, 겨우 기본적인 작동만하는 인형정도 밖에 원복시키지 못했다. 완벽한 육신이라고 불리우는 태초의 피인 카르밀라의 껍데기는 겉모습만 멀쩡할 뿐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하자가 많은 몸뚱이었다. 본인조차 입고있는 육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나를 기억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

이 언제나 답이없는 나의 물음에 꼬리를 물고있기에 죽어 널브러진 그것들과 의미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음에도 슬픔이나 허무라는 감정은 물론 일말의 배신감조차 들지않았다. 그 대신 나를 사로잡은것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었다. 그 기분은 이전부터 느껴지던 것이었고 언제부터인가 널브러진 사체를 입에 물지않아도 육신에 담겨진 기록으로부터 충분히 내 기억에 덧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며 오랜 추억처럼 육신이 그것을 새겨주고 있었다.

“순수한 육신을 지녔다고 알려진 카르밀라를 입어보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넝마주이였구나. 이 불완전한 몸뚱이를 가지고 카인의 핏줄들을 보듬으며 영원의 전쟁 최전선에서 잘도 날뛰었구나.”

죄악의 어미라고 불리우는 자의 육신에 죄악이라는 것이 새겨져있지 않으니 카인이 무슨 생각으로 직속혈계인 카르밀라에게 아무런 죄악도 짊어지지 않게 만들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카인은 카르밀라를 사랑했고 그녀 역시 카인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렇기에 서로가 모든 죄악을 자신에게 쏠리게했던 것이다. 텅 빈 가슴으로 공허와 허무속에서 살아가던 시체조각가가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 모순적인 존재의 가죽을 뒤집어쓴 뒤로는 그것이 조금씩 천천히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바라보지 못

했던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 했거나. 허무함이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것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영원의 전쟁에서 그녀는 이미 그 너머를 보았고 돌발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의미가 있었기에 다른 무엇들보다 그녀를 순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종속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낙원에 그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충분히 죄악을 각성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따금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질적인 감정을 카르밀라의 부작용 따위로 취급하는 와중에 나는 곁에서 묵묵하게 작업을 하고있는 라울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연하게도 그에게 대답을 기대하며 물음을 던진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갈피를 잡지못하는 이 육신이 더 이상 이 땅 위에 서 있을 수 없을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홀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었다. 작업을 하고있던 바울이 나를 바라본다. 분명 그것은 나의 질문에 답을 하기위해 반응한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몸뚱이를 옮기고 있는것이다. 그는 어기적거리듯 내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뺨에 손을 올려 가볍게 쓸어내리고 무언가를 말하려는듯 입을 한참을 들썩였다.

“아아, 카르밀라….”

그 이름은 말라비틀어진 이곳과 다름없는 거친 쇳소리와 함께 가까스로 새어나왔다. 다만 바울의 입에서 다른 이의 이름이 나오는것을 그저 가

만히 듣고 있는것은 꽤나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내 뺨을 부드럽게 매만지는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밀어내자 텅 빈 육신은 힘없이 풀썩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아무일 없었다는듯 다시 일어나 주위에 널브러진 아벨의 현신이 남긴 부산물을 찢고 부수면서 작업을 이어나갔다. 그것을 한참동안 멍하게 바라보던 나는 피로감이라는 것을 결코 느낄리없는 이 육신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짓누르는듯한 무게를 느꼈다.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구나.”

“…카르밀라.”

“아아, 그런가. 그게 내 이름이었지. 그래, 나는 카르밀라.”

나는 내 몸 이곳저곳 찬찬히 뜯어본 뒤에 그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어째서인지 변명을 하듯이 그에게 구구절절히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육신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하자면 너의 죽음에는 목적도 명분도 없었다는거야. 그리고 나의 형편없는 손놀림으로 산 건지 죽은건지조차 모르는 어설픈 존재가 되어버린거지.”

그리고 어설픈 존재를 만든 나는 내 스스로 지금의 상태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물론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네크타라의 사제들과 같이 육신을 입에 담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 피를 마시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나는 이렇게 서 있는것이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다. 무릇 살아 숨쉬는 것이라면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동력을 필요로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기 가슴이 부수어질듯이 아프지만 반쯤 죽어있는 산송장인 바울마저도 입에 무언가를 대야만 했지만 카르밀라의 육신을 뒤집어쓴 나는 그 어떠한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고하며 숨을 쉬고 육신을 옮기는 것으로 미루어볼때 나는 살아있는 것이지만 과연 나를 살아있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어떠한 연료조차 필요치않는 완벽에 가까운 육신을 가졌지만 더이상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는 순간 네크타라의 사제로서 육신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보다 허무와 공허함이 더욱 무거웁게 나를 짓눌렀다. 널부러진 시체들이 남긴 목소리를 더이상 들을 수 없게되어 혼자가 된것만 같은 기분이 차갑게 베일처럼 나를 감싸자 나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고개를 쑤셔박았다.

“우와! 진짜야!”

아름다운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니 요란한 마차에서 허겁지겁 내리는 어여쁜 얼굴을 한 인형 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고있었다. 지쳐있던 나는 눈썹을 찡그리고 아무런 대답없이 다시 고개를 떨구고 대꾸조차 하지 않자 그들은 저들끼리 귓속말로 속닥거리고는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를 놀이를 하는것처럼 장난스럽게 뛰어넘으며 내게 다가왔다. 역시나 심드렁한 표정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

지않자 기어이 그것들은 내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해맑은 웃음을 짓고는 손인사를 하며 내게 말했다.

“안녕?”

“인형들이 더럽게 쌓여진 시체들 사이에서 무슨 볼일이신가?”

내가 퉁명스럽게 묻자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왔다.

“소문은 들었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 못참고 여기까지 와버렸지 뭐야. 우리는 그저 살점을 엮는 이들과 질투의 끈으로 만들어진 합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저 궁금했을 뿐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대답에 미간이 찌푸려졌고 고개를 떨구려다가 대꾸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시큰둥하게 팔을 대충 펼쳐서 내 육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는 대화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는것처럼 차갑게 말했다.

“…보다시피. 이제 됐어?”

“어라? 감상은 그것뿐이야?”

“그럼 뭘 더 바란건데?”

내 시큰둥한 반응에 그들은 어이가 없다는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보다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그것들 중 하나가 내게 말했다.

“너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길바닥에서 피를 마시는 것들조차 카

르밀라의 육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정도인데 무엇보다 너는 네크타라는 시체조각가잖아? 네가 지금 무얼 입고 있는지조차 모르는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카르밀라의 육신이라고. 심지어 오만의 군주인 브리쿨마저 탐내는 순수한 육신인데 느껴지는게 하나도 없어?"

"느껴지는 것이라…. 그래. 네크타라의 사제였던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카르밀라의 육신은 죄악을 짊어진 카인의 핏줄들이 바라는 것을 가져다주지 않을거야."

"모르겠어. 피로 얽힌 자식을 해하려는 어미가 어디있어?"
"해하려는게 아니야. 처음부터 죄악으로 망가진 카인의 핏줄들이 카인이나 카르밀라의 뜻이 아니었다는 소리지."
아이들이나 다름없는 질투의 죄악을 짊어진 저들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좀처럼 믿기힘든 모습이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다시 내게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하자면 이 육신은 카인의 핏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쓸모없는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이야."
"거짓말이지? 카르밀라의 몸이 쓸모가 없다니?"
"한심하지만 그 증거로 순수한 이 몸뚱이로는 더 이상 육신을 제대로 엮어내지를 못해. 나는 이제 평범하게 피를 마시지도 다른 네크타라의 사제처럼 사체를 입에 머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못해. 남들이 부

러와 마다않는 순수한 육신을 입었지만 단지 그것 뿐이지 오히려 나는 잃은게 더 많아."

"이를테면?"

그들의 물음에 나는 대답대신 라울을 고갯짓으로 가리켰고 아이들의 시선이 라울에게 잠깐 쏠렸다가 다시 고개를돌려 나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

"…내게 남겨진 단 하나."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키득거렸다. 그러더니만 그것들 중 하나가 작품을 감상하듯이 찬찬히 뜯어보려고 바울의 얼굴에 손을 대려고하자 나도모르게 싸늘한 얼굴로 그 손을 저지하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 만지지마."

"그렇게나 소중한거야 이거? 그렇다면 너무하잖아. 이건 간신히 걸어다니는 정도라고. 인형이라고도 못할 정도로 처참한 꼴인데?"

여과없이 쏟아내는 그들의 말을듣고 참담한 마음에 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이처럼 얼굴이 구겨졌다.

"시체조각가라고 믿기 힘들만큼 제법 더 좋은 표정을 하고있잖아? 우리가 보기에 넌 잃은것보다 얻은게 더 많은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은거야?”

“아무런 쓰잘데기없는 덩어리라고 치부하기엔 감정이 풍부하잖아. 공허와 허무의 상징과도 같은 네크타라의 사제가 이렇게나 솔직하고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는걸 보아하니 카르밀라의 육신이 그저 순수하다는 것 말고도 생각보다 더 많은게 담겨져 있는것 같아서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도 나는 갖고 싶어. 그 몸뚱이.”

“위로, 아니. 이건 질투구나. 그래, 이제와서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이따위 몸뚱이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내 살거죽을 찢고 뜯어내어 가져가면 되겠네.”

“글쎄,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어. 질투라는건 누군가 소중히 여기는것을 품었을 때 커지는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않는 지금의 네 몸뚱이를 가져가봐야 우리는 하나도 즐겁지 않을거야. 네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누더기를 가져간대도 예쁘지 않은건 우리도 싫은걸.”

그들이 바울을 다시금 위아래로 찬찬히 뜯어보며 불쾌한 소리를 늘여놓자 나는 그들을 노려보고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울을 모욕하지마.”

“진심이야? 지금까지 시체들을 엮고 조각해온 너인데 방금 네 말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잖아. 신기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미소와함께 맑고 고운 목소리로 독

설을 쏟아내었다. 신랄하게 내뱉은 그 말에 악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악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영 불쾌하여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고 너무 세게 문 탓인지 피가 새어나왔다. 그러자, 그들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져있는 듯 기쁜 얼굴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다르다고는 했지만 역시 카르밀라의 몸 안에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피가 흐르는구나.”

“그래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육신도 다를 바 없어.”

“하지만 분명히 달라. 기분좋게 퍼져나가는 포근하면서 안락한 냄새에 취할 정도니 말이야. 뭔가 아늑한 품에 안겨진 느낌이야.”

추상적인 표현에 익숙치않은 내가 의문가득한 표정을 지어보이자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방법은 우리도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은 익숙해져보라고. 그렇다면 너는 더더욱 카르밀라에 다가설거야. 진정으로 순결한 육신을지닌 그녀로 거듭나게 되는거지.”

“이쪽이야 그렇다쳐도 인형들은 왜 그렇게나 내가 카르밀라의 육신과의 완전히 동기화되는것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건데?”

“글쎄, 왜일까?

“질투는 뒤틀린 사랑이 고프니까?”

내가 가슴에 손을 얹어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미소짓자 인형 하나가 보랏빛으로 뒤엉킨 질투를 쏟아내었지만 이내 곁에 있던 인형이 다른 인형을 진정시키더니 헛기침을 하고 내 눈치를 보다가 찰나의 침묵이 흐른 뒤 내게 고개를 까닥 숙였다. 가벼운 사과의 표현이었겠지만, 물론 나는 그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상 못한것도 아니었기에 나도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그들이 말을 이어나가게끔 했다.

“물론 조금 고장이 나긴했어도 네가 너무나 신기한 몸뚱이라 도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 도련님도 질에게 그런 약속을 했고.”

“그러겠지, 카르밀라의 순수한 육신은 어느 누구나 탐내니까.”
“아냐, 그저 받은적없는 어미의 사랑을 막연히 그리워 했으니까.”
“…그런가.”
장난스러운 그들의 표정뒤의 쓸씀함과 아픔이 느껴졌기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을 삼켰다.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하기를 즐거워하는 질투의 인형이지만 애써 감추려는 그 감정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태초의 피이자 보듬는 자, 순수한 육신인 카르밀라를 뒤집어쓰고 있기에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저것들에게 측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것도 그 때문이겠지.
“질은 죽은 어미 카르밀라를 아직까지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래, 그리고 어미의 원수인 샤마인의 브리쿨을 여전히 증오하지.”

“그나저나 꽤 적절한 때에 나를 찾아온거 같은데?”

“맞아. 질이 단순히 어미를 마냥 그리워만 했던게 아니더라. 브리쿨이 순수한 육신을 찾으려고 아벨의 현신에게 눈길을 돌리는 바람에 왕가의 혈맹은 보기좋게 깨져버린 틈을 잡아낸 도련님은 질과 조우하며 죽은줄로만 알았던 카르밀라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만들었어.”

“왕가의 혈맹이 깨지는것을 미리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성공할지도 몰랐을 우리의 작업마저 계획에 두었다는 말이야?”

“그래, 너 만큼이나 우리 도련님도 특별하거든.”

“미래를 엮는 실타래를 엿보기라도 하는거야?”

“엿본다라는 개념보다 가능한 수를 엮어 그것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것에 가깝다고 봐야지. 운명을 바꾸는 건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니 말이지. 하지만 이미 그것만으로 우리 도련님은 대단하지만 말이야.”

“서로 질투하며 목을 조르는 인형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서로를 끔찍하게도 아끼는구나. 뭔가 부럽네.”

진심어린 내 말을 들은 인형들의 눈은 영롱한 빛을 띄고있었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듯 저들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르밀라가 눈을 떴으니 브리쿨이 그 소식을 듣게되면 생각이 많아질거야. 아벨의 현신에서 순수한 육신을 뜯어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니 말이야. 그리고 언제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언젠가 질이 브

리쿨한테 크게 한 방 먹일 그림을 상상하니 너무 즐겁더라고.”
“참으로 단순한 이유구나.”
“그럼! 하지만 그만큼 즐거운 일도 없지. 너에게 나쁘지않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그냥 질을 만나서 안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얻는건 뭐지?”
“한없이 스스로를 비워내려는 공허한 자와 다른이들을 한없이 채워줄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자. 카르밀라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네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해.”

“…비워낸만큼 채워줘라?”

“대충 비슷해. 그러다보면 카르밀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볼 수 있을거고. 그렇게되면 진정한 모습의 카르밀라로 다시 태어나겠지.”
“그러고나면?”
“응?”
“그 뒤에는 난 무엇으로 살아가지?”
“몰라? 왜 우리한테 물어보는거야? 애도 아니고. 어른이잖아. 알아서 하라고. 다른것도 아니고 카인의 핏줄을 있게끔 만든 어머니 카르밀라 그 자체의 몸이니까 뭘 해도 되지 않나? 썩어도 네크타라의 사제였었던 몸이잖아. 그러니 남은 시간 그 부드러운 살결에 물어보던가.”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있던 초대장을 쭈뼛거리며 내게 건네었다. 초대장

을 향해 뻗은 내 손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천천히 건네받았다.
"고마워."
"부디 초대에 응해줬으면 해."
"좋아, 생각해볼게."
숙고하다 가까스로 던진 말을 듣자 그들의 얼굴은 화색이 되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듯 저들끼리 손을 잡고 방방뛰며 즐거워했다. 그 뒤에도 한참동안 도련님이라는 작자에대해 자랑을 늘여놓더니 요란한 마차에 올라타며 손을 세차게 여러번 흔들고는 입을 열었다.
"무성한 소문에 비해서 비교적 말이 통해서 다행이야. 너는 허무가 아니라 카인의 핏줄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자애로운 어미 카르밀라의 이름으로 세상이라는 무대 위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니까 힘내!"

"나는 세상이 날 어떻게 보는지 관심없어."

"혼란스러운건 잘 알겠지만 네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다고해도 세상에 카르밀라가 눈을 떴으니 좋은싫든 세계는 너를 주목할거야. 그럼, 안녕! 또 보자."
요란스럽게 등장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요란스럽게 자리를 떠났고 떠나간 빈자리에 다시금 적막함이 가라앉았다.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근것처럼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들에게 질려버렸는지 나는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지만 마도모르게 그 끝에는 미소가 배어있었다.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을 아쉬워한건 나 뿐만이 아니었다는듯 바울도 저들이 떠난 그곳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저들 역시 지독한 죄악의 무리지만 적어도 나처럼 아무것도 찾지 못한채 텅 비어있는 허무속에 가라앉은 아이들은 아니야."

나는 일그러진 얼굴로 헛웃음을 토해냈다. 그것이 메아리쳐 허공에 흩어질 때 쯤 어디선가 위로하듯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처럼 기분좋게 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울적한 기분은 어느새 내려놓은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고 바울 역시 그 목소리에 이끌리듯 텅 빈 육신에 편안한 얼굴이 피어올랐다.

'…자. 이제 너는 누구지?'

『 붙잡아 두려는 자 』

구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벨의 현신이 땅에 떨어지며 토해낸 빛무리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지도 어느새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데아를 뒤덮고있는 전장의 광기는 쉽사리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피와 살이 나뒹구는 그 자리에는 영혼들의 절규가 흩어지며 구슬픈 비명들만이 수많은 삿된 감정들을 쏟아냈다. 사방으로 흩어져 사라지지도 못한채로 정처없이 떠돌던 그것들은 낯선곳을 배회하며 힘겹게 울어대니 안타깝도록 힘겨운 신음만이 고요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권능의 잔 위로 채워진 순수하다고 여겨진 영혼들이 쏟아낸 빛은 어두웠고 아우렐라의 피를 담은 카인의 핏자국은 탁하기 그지없었다. 그저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이상은 더 높은 곳에 닿지못한채 추락했으니 오직 셀 수 없는 영혼들을 짊어진 우리들만이 오롯이 그곳에 담겨진 처참함을 그려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내자 우리는 부산스럽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그래도 우린 그것을 직접 이 두 눈으로 봐야겠어.”

전장의 초입에 닿기만 했을뿐임에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곳에 도착했을때, 과연 얼마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것인지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일 것이다. 부디 그곳에 남겨진 영혼들의 격류속에 휘말려 깊게 잠기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복잡하고 뒤숭숭한 마음을 품고 무겁

게 짓눌린 영혼들의 절규 사이를 걷고있을때 제니가 빛의 찌꺼기에 남은 영혼을 탈탈 털어먹고는 땅에 발을 툭툭 털며 내게 물었다.
“아벨의 현신이 땅으로 추락한것이 그렇게 신경쓰이나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아마 이 안에 담긴 영혼들이 아벨의 현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할테지. 나아가서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태울 수 있는 숭고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버티고 붕괴되지 않을 영혼이 얼마나 되지?”
“글쎄 얼마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나?”

“정신차려, 루드윅. 젠장, 하필 이럴때…. 멀어지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건가? 그래서 내가 누누히 말했잖아. 영혼을 뜯어내어 들이키려거든 적어도 가려서 담아내야 한다니깐. 쯧!”
혀를 치면서 불평을 늘여놓으며 짜증을 쏟아내는 그녀의 말에도 개의치않고 나는 구구절절히 말을 이어나갔다.
“헛된 구원에 목을 맨 이들의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
“아벨의 영혼을 들이삼켰다고 네가 아벨의 권능을 부여받은 상투스의 성직자가 될 수 없는것처럼 말이지? 이제 그만 잠에서 깨라고!”
내가 아무말도 하지 못하자 제니는 어느순간 내 코 앞까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호통을치자 그녀의 주위로 영혼의 절규가 느껴졌고 그 두 눈

은 영혼의 격류로 요란하게 소용돌이쳤다.

“그게 인간들, 아벨의 자손들이 가진 진정한 모습이야. 죄악을 벗어던지는 게 무슨 인간이야?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인간에게서 죄악을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그것은 순수가 아닌 결여라고. 이해가 돼?”

“그러함에도 나의 모든 시간을 영혼과의 교류에 쏟아붇고 있어.”

“헛수고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죄악이 지워질 것이었다면 그것은 진작에 이데아에서 자취를 감추었겠지.”

“맞는 말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행위로 작은 위안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 죄악의 짐을 덜어낼 수 있지.”

“그 위안은 그저 죄악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작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것이 잘못됐나? 누구나 영혼의 평화를 원할 권리가 있다.”

“한심하게 그저 영혼이 부르짖는대로 움직이지마. 우리 안에 담긴 것들을 단 한번도 네놈을 위해서 비명을 지른적이 없어. 언제나 네 영혼을 현혹시켜 네가 그렇게나 바라는 영혼의 평화를 찢어 발기는것을 바랄 뿐이지.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전보다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그 것은 나를 위한 떨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언제 느껴본것인지 기억

이 나지않을 정도로 아련함. 그리고 어느새 주변이 고요해졌다.

“그리운 떨림….”

그렇게 그 익숙한 그리움에 취해있을때 그녀의 짜증섞인 목소리가 나의 단 잠을 깨웠다. 그녀의 목소리에 조용히 눈을 뜨자 고요하던 주위에서 익숙한 소란스러움과 정처없이 떠돌고있는 영혼의 절규에 뒤엉켜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주변의 소음에 익숙해질때쯤 그녀의 그림자가 내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녀는 내 상태를 보더니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짓더니 내 멱살을 거세게 움켜쥐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은 나를 보는게 아니라 몰아치는 나의 영혼들을 잠재우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그 눈빛이 나를 일으킨다. 하지만 나를 깨운것은 날이서린 그녀의 눈빛이 아니었으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무언가 이질적으로 안락하고 포근한 느낌 때문이었다.

“꽤나 갈라선지 오래되었구나. 이대로는 완전히 영혼이 찢겨지고 분열하여 정처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겠지. 그래서는 안돼. 너는 아직 그 이름을 네 입으로 스스로 불러주지 않았잖니. 그때까지 너는 절대로 편해질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렴.”

그 목소리에 희뿌옇게 흩어진 나의 세계가 조금더 명확하게 그려졌으며 내가 기억하는 그리운 그 목소리는 흩어져 온데간데 없었고 내 앞에 영혼을 끄집어내 쥐고있는 언짢은 표정의 라핀이 있었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다 이내 허탈한 한숨을 뱉어내는 내 모습이 한심했는지 그녀는 짜증스럽게 목소리를 한 단계 높였다.

“번번히 손이 많이 가는 놈이잖아! 그만 눈을 뜨라고, 개자식아! 네놈이 가만히 넋 놓고있는 동안에도 도처에 찢겨져버린 영혼은 떠돌고있고 대감놈은 네놈의 영혼을 갈가리 찢어내고는 그것만을 취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으니까.”

“잠시지만 아주 달콤한 꿈을 꾼 것 같군. 그 대가로 내가 가라앉은 사이에 꽤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간것 같지만 말이야.”

“찢겨진 영혼까지 챙길만한 여유는 있나보네?”

“그야 그들의 이름 출신성분 심지어 좋아하는 색깔까지 모두 알고있기 때문이다. 마치 내 안에 한 부분이 도려내진 느낌이지.”

“그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그것에 감사하고 네놈의 존재가 유지되도록 붙잡아 줄 수 있을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냐?”

“그 수많은 영혼 사이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면 쓸쓸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은 조소와 함께 풀어졌다. 그녀는 내 안에서 끄집어낸 영혼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힘 하나 들이지않고 그것들을 지워버리자 그것들은 작은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달라졌구나. 아벨의 자손들마저 그저 이야기를 섞을 대상으로 여기는 것부터 넌 항상 재밌는 말을 한다니깐. 오히려 그것을 오랜동안 잊으며

살아왔던 우리가 잘못된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런가. 떠도는 그것들이 대감의 손에 쥐여지고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바에는 차라리 그것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나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작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는건가? 이봐, 이래서는 수지가 안맞잖아. 그렇게 헛걸음을 하고나서 결국 우리가 얻는것은 아무것도 없는거라는 뜻이잖아, 알아?”

“살아가는 것들은 언제나 턱없이 많은것들을 얻고자 채워가려고 애쓰지만 무언가를 항상 담아낼 수 없다. 때로는 비워내야 하느니.”

“이번 기회에 아예 네놈 안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을 비워내지 그래?”

“그럴 수는 없지.”

“말과 행동이 다른 겁쟁이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비워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수많은 영혼을 짊어지는 우리조차 그것을 두려워하니 말이다. 더군다나 무슨일이 있어도 영혼들 무리에 섞여들어 숨은채로 항상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온 책임감이 결여된 영혼들이나 다름없는 것들이니 겁쟁이에다 비겁하기 그지없다고 봐야지.”

“그럴듯한 자아성찰은 끝나셨나?”

“그럴리가. 그것은 깨우친 영혼조차 바스러지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달았다는 순간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의 연속에 갇혀있는 것이 우리 발시아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성자도 자신이 무엇인지 깨닫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거야? 그렇다면 더 절망적이잖아. 깨우친자가 없다면 구원은 더더욱 희박해지는거 아니야?”

“우리같이 저주받은 이들이 구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니까 물어본거야. 그리고 저주받은 이에게 구원이 더 절실하다는건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녀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고 나는 그것을 차분히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답했다.

“구원이라, 재미있군. 아벨의 구원은 추락했고 세트는 잠들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찾을거지?”

“한숨만 나오네. 너는 네 영혼과 대화를 조금 단절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영혼을 수확하는 자들이지 네놈안에서 징징대는 영혼들 투정을 받아주는 존재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그들과 사고를 섞어가면서 고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작 네 영혼의 색은 하얗게 바래질건데?”

“하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것은 얻을 수 있겠지.”

“네가 영혼들의 절규속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서 편안한 안식을 바라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있지. 하지만 너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해본

적 있어? 영혼과 소통하는것이 그렇게 즐거우면서 왜 결국에는 죽음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 그건 데아논의 의지냐?"

"데아논은 나의 죽음을 원하지않아. 그것은 데아논 뿐만아니라 나에게 종속된 영혼들이 원하는것은 나의 죽음따위가 아니야. 그들은 언제나처럼 하나같이 내가 끝까지 살아서 영원토록 고통받기를 원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게 정상이야."

"그렇다한들 내가 바라는건 내가 죽음과도 같은 편안한 안식을 즐기고 있을때 내 주변을 감싸는 이들로부터 추도를 받는거다."

"네가 편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밝게 미소지어줄 이들을 찾는것만큼 값진것은 없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영원히 살던가."

"그리고 내 영혼을 잘게 쪼개서 흩뿌려놓고 내 곁에 두는거지."

"알겠어, 모쪼록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 "

그녀는 무신경한 얼굴로 주변의 영혼을 수습하면서 관심없다는 듯 비꼬는 투로 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데아논으로부터 시작되었지. 그것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영혼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어느 영혼들보다 또렷하고 선명한 흔적을 남기고있어.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대감의 영혼과 공명을 하는것을 보면 분명 그것은 실마리가 될거다."

"…무엇에 대한 실마리?"

"데아논이 원하는것이 단지 영원한 안식이 아니며 대감 또한 원하는것

이 혼백의 전이가 아닐수도 있다는 의심에 대한 실마리지.”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면서 내 말을 가로막다가 홀로 무언가를 되뇌이려는듯 웅얼거리며 눈알을 굴리다가 정리하려는듯 다시 내게 말했다.

“정리해보자면 아벨의 구원은 빛의 조각만을 뿌린채로 흩어졌고, 그것에 담긴 영혼이 흩어지고 비명지르며 정신을 침식시키니 영혼을 수확하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제령하는 자들이 나섰지만 그들중 정신이 나가버린 자가 불멸을 위해서 혼백의 전이를 꾀하려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가려진 흑막이다 이거냐?”

“대강 비슷하게 그려내었군.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한 근본은 영혼을 옮기는것이 그리 어려운 작업인가라는 물음이다.”

“그렇네. 아벨의 자손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비교적 손쉬운 일일텐데.”

“하지만 대감이 비밀리에 우리와 접촉해서 진정 그것을 원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당연하게도 그 방법을 요구했겠지. 하지만 우리를 곁에 두기만 했을 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

“그 말은 네가 그의 자식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것을 그 역시 어렴풋이 알고있었다고 봐도 되겠네. 그놈은 겉과 속이 다른 얼굴로 네놈에게 담겨있는 영혼속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다는 말이네.”

“그래. 세사도르의 초혼술을 너무 얕잡아보고 있었다. 비명하는 영혼들의 격류속에 사는 우리들이 간신히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을정도로 가는 울음을하는 귀신의 소리가 들렸던거지.”

“그런데 대감은 왜 네놈에게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았던거지?”

그러자 바람 한줄기가 스산하게 뒷목을 스치며 불어왔다.

“…이미 네놈들의 영혼에의해 고통받은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면 혼백의 흔적조차 남지 않기에 대감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대감의 곁에 있던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들이 이렇게나 가까이 와 있는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보니 내 육신 안에 담긴 영혼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이 새어나갔다 여기었지만 그 생각은 초아의 모습을보자 이내 바뀌었다. 익숙한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모습은 초혼술에서 말하는 빙의라는 주술로 인하여 확연히 다른 생김새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태를 라핀도 인지했는지 즐거운 콧소리를 흥얼대며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건너온거야?”

그러자 그녀는 백탁의 눈을 흘기고는 뒤틀린 웃음으로 답했다.

“네놈들을 찾고 있었기에 네놈들에 한없이 가까운것이 되고자 한 것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네.”

“그런말을 하다니 좀 섭섭한걸? 그래도 겉모습은 우리도 너희들과 다

름없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
라핀은 즐거운 얼굴을하고 몸에 격류하는 영혼들을 두르자 속삭임과 비명이 고요하고 잔잔하게 우리의 주위를 숨막히게 에워쌌다. 그러자 초아는 지겨운듯 가는 숨을 푹 내쉬다가 쓰러지듯 비틀대더니 결국 무너져내리자 막야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채 초아를 부축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였지만 막야의 그 시선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는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었다.
“오랜만의 재회인데 둘다 꼴이 말이 아닌걸? 도저히 누군가를 쫓고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냐. 아니면 오히려 무언가에 쫓기고 있나?”
줄다리기하듯 이어진 가벼운 신경전이 오고갔지만 라핀의 물음에 정곡을 찔린듯 체념하며 둘은 시선을 잠시 교환하더니 막야가 그동안의 사정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지금 너희들을 찾아온것은 대감님의 아량인지 혹은 대감님을 삼킨 도깨비의 변덕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도깨비가 된다는 것은 무얼 뜻하지?”

나는 잠겨가는 몸을 일으키고는 정확한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근본적인 물음을 그에게 던졌고 그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답했다.
“빙의는 아니었어. 빙의라고 하기엔 대감님의 육신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익숙하게 다루었다. 그렇다고 너희들과 같이 수많은 영혼의 덩어

리가 아니라 그것은 오롯이 도깨비 하나의 영혼이었어. 아니야, 하지만 도깨비는 독립적인 개체야. 영혼을 갈아 끼우는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융합을 한 것 같다고 말하는 내가 미친놈처럼 보이겠지."

그는 말하면서도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은듯 허둥대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영혼을 가볍게 들이마쉬며 말했다. 그러자 초아는 돌발적인 상황에 잠시 놀라는 듯 보였지만 차분한 막야의 모습에 내가 그의 영혼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막야의 영혼을 가볍에 들이쉬며 그 진의를 파악했고 라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고 나는 다시 막야를 바라보며 말했다.

"믿고말고.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내가 찾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군."

"죽음에 이르는것이 그대가 바라는것이 아니었던가?"

"죽음과도 같이 고요한 안식이지 죽음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단순히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니."

"네놈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됐으니 본론을 말하지."

"듣고있다."

"네놈들이 도깨비와 융화된 대감의 영혼을 뜯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지. 어차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 허면 그대는 내게 무얼줄테냐?"

"모든것이 일단락 되거든 내 영혼을 마시거라."

“그럼 초아는 혼자가 될거라고?”
막야의 말을 들은 라핀이 잊기싫은 기억이 떠오른듯 눈썹을 잔뜩 구기며 막야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말하자 막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여전히 웃는것도 우는것도 아닌 초연하고 해탈한 얼굴로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녀를 잃으면 내 영혼은 바스러진다. 하지만 나의 영혼이 바스러질지언정 그녀의것이 온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몇개라도 바칠 수 있다.”
“혼자가되어 깊은 슬픔에 홀로 잠길 수 있다.”

“초아는 가는 영혼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으니 네놈 안에서 내 영혼의 티끌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결국 그녀 곁에 남아있는 셈이지.”

그 말이 나를 크게 흔들었다. 대감과 깊게 연루되어 나의 모든것이 필연적으로 내가 그토록 찾아헤메이던 데아논의 영혼을 향해있었지만 방금 이 녀석이 내뱉은 말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다. 자신의 영혼을 바친 존재에 대한 신뢰가 애초에 공존하는 말인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지금 내 감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유독 이것이 빛을 내기 시작한 이유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친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자의로 육신과 영혼을 완벽히 분리시키는 것은 데아논이 아닌 이 녀석일 것이다. 나는 별안간 웃음이 터져나와 버렸다. 다들 내 돌발스러운 행

동에 어이가 없는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거나 인상을 구기며 나를 응시했다. 그러함에도 나에게 물음을 던지려는 것이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한참동안 쏟아내고 중얼거렸다.

“그래, 그 말에 답이 있었나….”

“뭐라고?”

“아니, 혼잣말이다. 잊어버려라. 잘 들어라. 막야, 나는 지금부터 너를 조금 쓰마.”

“무슨 뜻이야 그건?”

“네 영혼을 쓰겠다는 말이다. 쉽게말하면 아벨의 현신처럼 우악스럽게 꾸겨넣어서 영혼을 불러낼수는 없겠지만 쓰임에 따라 네 영혼을 강림시킬 것이라는 뜻이지.”

“잠깐. 너무 엄청난 말을 들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놀라운가? 다른것도 아벨의 강림은 말이되고 막야의 강림은 말이 안된다고 여기는거냐? 영혼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대감의 영혼만큼이나 네놈의 영혼은 그 값어치가 있어보이는군.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이 네놈들의 영혼을 마시지 못하게 내가 미리 직접 갈라내어 주겠다는 말이다.”

“미친소리처럼 들리잖아. 듣자하니 그 모습이 도깨비를 뒤집어 쓴 대감처럼 만들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걸 듣고 내 영혼이 순순히 네놈

의 말에 따라주기를 바라는건가?”

“그러냐. 하지만 그 미친소리를 조금만 더 들어주겠나. 우리는 이대로 아벨의 현신이 떨어진 그 곳으로 발걸음을 할 것이다.”

“대감을 멈추지 않을건가?”

“더 확실하게 그 영혼을 갈라내기 위해서다. 아벨의 현신은 죽어서까지 뒤틀린 영혼들을 쏟아냈지만, 다행히도 음기 가득한 도깨비는 아벨의 빛에 거부감을 느낄것이다. 비록 땅에 떨어진 구원의 빛이긴 하지만 음기를 덥히기에는 충분할테지.”

“그렇다면 다행이군.”

“하지만 원하든 원치않든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수확자는 물론이요 낙원의 흔적 대부분이 본능처럼 이끌려 그곳으로 향할테지.”

“말인 즉슨 그곳에 당도하여도 우리가 다른 이들과 접선하고도 무사하게 대감을 맞이할 수 없을수 있다는 이야기로고.”

막야는 입술을 앙 다물고 초아를 바라보더니 마음을 굳힌듯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초아는 억지로 웃어보였지만 그 커다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듯했고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초아는 머리에 꽂은 비녀를 막야에게 던졌고 막야는 그것을 받아들더니 안도하는 숨을 가볍게 뱉어내며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듯했다. 그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영혼의 연대를 강하게 한다는것을 아

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막야의 영혼은 늦은 봄날처럼 고요하고 따스해졌다.

“마음대로 하려무나. 뭘 하려는지는 몰라도 시작하거라, 노디아. 부끄럽지만 아벨의 자손인 우리들의 힘만으로 선대의 것을 대하려는 자세가 틀린 모양이다. 그래서 종놈의 몸으로 제 주인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빌리니 부디 대감님을 멈추어 주시게.”

“걱정은 하지마라. 너희의 영혼이 찢어 발겨질때마다 내가 기필코 너희들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언제든지 부르짖게 만들어 주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빌 정도로 말이야.”

“대감의 영혼이 찢어지는 것을 내 이 두 눈으로 담아내고 싶으니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준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감사를 해야겠지.”

어느새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두 눈을 불태웠고, 그 영혼을 들이마시는 동안 막야 안에서 풍악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하더니 저도 흥겨운듯 으쓱거리며 올곧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막야의 다짐이 막 입에서 떠나간 순간 그들의 영혼은 나에게 종속됨과 동시에 우리는 서약으로 묶이게 되었다. 그 과정을 조용히 입을 다물고 바라보는 라핀의 시선이 보이지않아도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문득 스치고 지나간 내 영혼은 그리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 해소 』

아벨의 현신이 땅에 추락한것은 즐거운 일이다만 그것이 죽은뒤로 뒤틀린 빛이 이곳저곳으로 흩뿌려지는 것은 여전히 불쾌했다. 그리고 그 빛무리가 모여 만들어진 빛에 취해서 그것을 탐하기위해 몰려든 광신도들뿐만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그가 남긴 부산물만큼 모두에게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는 쥐새끼들이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고 있다는것이 나를 더욱 불쾌하게 했다. 아벨의 현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전쟁은 끝날것만 같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성스러운 휘광과 주변에 널브러진 참상은 서로 섞이지 못하며 기괴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제 됐잖아. 이 이상 더 뭘 바라는거지? 뒤틀린 빛을 떨구면 되는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게 홀로 한탄하며 여전히 피와 살을 흩뿌리는 자들과 죄악 사이에서 피어난 죄종들과 뒤섞인 참상속에서 가쁜 숨을 토해내며 죽어가는 이를 보고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 그것에게 다가갔다. 이미 그것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가고 있었다.

“거봐, 내가 뭐랬어. 구원은 빛에서 나오는게 아니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이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감정과 함께 섞이며 입밖으로 새어나왔다. 억지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것을 차마 숨길수

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내 표정을 보더니 내 손을 꼭 붙잡던 손을 놓더니 힘겹게 팔을 들어올려 내 뺨을 어루만졌다. 더러운 손으로 나의 몸에 손을 대는것이 역겹기 그지없었지만, 나는 굳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내 품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지 입을 부지런히 뻐끔거렸다. 분노에 눈이 먼 빛줄기에 몸뚱이가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인 그것은 회생조차 불가했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마지막을 지켜봐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것이 힘겹게 뱉어낸 말을 나는 조용히 귀에 담을 준비를하고 있었다.

“…제발 죽여, 죽여줘.”

고통받고있는 자신을 끝내달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가 향한것들을 죽여달라는 부탁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만봐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과는 다르게 그것의 입에서 나온것은 다른 것도 아닌 단말마의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다. 오히려 티없이 해맑은 미소와 광기가 서려있는 맑은 눈이 분노에 더욱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말없이 분노를 조용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응. 이제, 됐어. 그럼 이만 지옥에나 가 버리렴.”

나는 싱긋 웃으며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비통함에 일그러지며 원망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지던 손에는 어느새 증오가 담기더니 내 목을 조르려는 모양새로 힘없이 부들거리며 허공을

움켜쥐었다. 처절한 발버둥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나는 어째서인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한 모습에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이전처럼 날뛰는 분노는 더이상 내게 남아있지 않은 모양새다.

“그만해. 네년의 분노는 지금 여기에 마침표가 찍힌거야. 무책임하게 그것을 다른이에게 떠넘겨 되물림을 하려고 하지마, 병신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것은 지켜봐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내가 짊어지고있는 죄종의 이름답게 함께 분노를 쏟아낼수도 있었지만 목적이없는 분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 역시 아무런 의미없는 개죽음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어리석게도 죽어가는 마당에도 자신의 증오를 뱉어내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죽기전까지 깨닫지 못한것은 그 분노는 덧없다는 것이었다. 분노 그 자체가 덧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분노나 증오 혹은 복수에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이 명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오히려 분노는 강력한 동기가된다. 그것이 분노하고 있었던것은 동기나 근원따위 없이 오롯이 타인의 분노에서 나오고 있었다. 덧씌워진 거짓된 동기는 힘없이 꺼지고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기 마련이며 그것의 되물림은 분노의 순수한 동기를 타락시키기에 지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주변에도 신경쓰지않고 그것을 한아름 안으며 그것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있는 동안 나를 반기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꽤

나 먼 곳에서부터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세상에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있는 것인줄 알았지만 티끌보다 못한 분노가 서려있길래 무언가가 있더니만 역시나 너였구나.”
그 목소리를 잊을리없다. 그것은 기브안에 담긴 낯선 분노가 그저 궁금하여 그를 죽인 모든 분노의 근원 헤르실라였다. 잔잔하고 고요한 평화를 깨부순 그녀의 말이 귀에 닿자 타오르는 분노를 식히고 덤덤하게 삼킨뒤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향해 눈을 흘겼다.

“나를 기억하는구나?”

“기억하다마다. 그렇다해도 예상밖의 반응이네. 분노의 죄악이라지만 위아래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려대라고 일러준적은 없었지만 말이야.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게 왠 말이람. 카인의 핏줄주제에 제법 성숙한 아벨의 자손같은 여인의 모습을 하고있구나. 그래도 분노가 서린 그 눈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말이야.”
“착각하지마. 나는 단 한번도 카인의 핏줄임을 잊어본적도 없고 단 한번도 아벨의 자손으로 살기위해 가면을 뒤집어쓴 적도 없었어.”
“그래, 누군가 비슷한 말을 했던것 같기도한 그리운 말이구나. 더불어 여인이라는 것은 아픈만큼 성숙해지는 법이지.”
그녀가 지난날을 추억하듯 씁쓸한 목소리로 그 말을 던졌지만 내게 그 말이 제대로 들릴리가 없었다. 그것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억누르

는 분노를 씹어삼키며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와중에 마침내 희미한 아지랑이를 뚫고 내 앞에 그녀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의외로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고도 숨을 차분히 되돌리며 이성의 끈을 다잡을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그녀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분노의 어미 헤르실라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스스로 발걸음을 하셨나? 뒤틀린 빛속에서도 둥지는 생각만큼 안락하지 못했나봐?”

“비록 솔디오린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한들 내가 분노의 어미인 헤르실라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단다. 네가 아무리 둥지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너무 앞뒤 모르고 설치는 것 같은데 입 조심하는게 좋을거란다, 얘야. 은빛 웅덩이로 녹아내리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구태여 솔디오린 테두리 밖에서까지 세르샤를 빚어낸 어미인양 티를 내고 싶은거야? 카인의 핏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창조주 흉내에 목을 매는건지 모르겠고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기분도 안들어. 차라리 부끄러움을 알고 그 곳에 그냥 계속 쳐박혀 있었으면….”

내가 한숨을 쉬면서 조소섞인 말을 내뱉자 그녀의 얼굴이 잠깐 뒤틀리는 듯하다가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매만지며 구겨진 얼굴을 매끈하게 피더니만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정말이지 거슬리기 그지없는 뒤틀린 빛이 불쾌해서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런데 그거 아니? 아벨이란 작자는 두번씩이나 죽고나서 그제서야 이 세상에 비로소 쓸모있는 것을 남겨두었지 뭐야.”

“쓸모있는 것이라면 추락한 아벨의 껍데기를 말하는건가?”

“…잘 아네. 너도 그걸 원하는구나?”
상냥한 말투로 물어보면서도 새어나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그것에 영향을 받아 미쳐 날뛰는 주변의 상황으로 그녀가 나의 대답을 잔뜩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들어보긴 했어도 이제 그딴건 필요없어.”
“그래? 다행이다. 그렇다면 옛정을 생각해서 살려는 줄테니 아벨의 살점을 찢어내는데 손을 좀 보태주지 않으련?”
그녀가 우아한 손짓을 내게 건네며 제안했지만 나는 그 손과 그녀의 눈을 한번 번갈아 쳐다보고 허탈한 웃음과함께 입을 열었다.
“개소리하지마. 그딴거 필요하진 않아도 네가 그걸 손에 넣고 이죽대는 면상을 생각하면 역겨우니까 결코 그것이 네 손에 쥐여주는 상황을 결코 주지는 않을거야.”
“아까는 필요없다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그렇지? 너도 사실 아벨의 살점을 원했던거지? 죽고 싶은거야?”
발을 동동 구르며 눈에 불을 붉히는 그녀의 눈에서는 백탁의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이마를 잠깐 짚으면서 깊은 한숨을 토해냈고 이내 고개를 들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분노에 눈깔이 돌아서 보이질 않는거냐? 아니면 귓구멍에 세렛이 차올라서 말귀를 알아먹기를 포기한거냐? 내가 원하는건 그저 네가 그것을 얻지 못한채로 비통에 잠겨 분노에 부들거리는 꼬라지를 보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의 물음에 답하자 그녀는 흐르는 세렛을 씻어내더니 내게 짜증을 털어놓았다.

“고작 그런 하찮은걸로 만족한다는 말이야?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분노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나 수치스러운 말을 입에 담네. 부끄러운줄 알라고.”

“죄악 그 자체인 주제에 수치를 논하는거야? 어이가 없네.”

나는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숨을 쉬고 천천히 다시금 그녀의 신경을 긁어대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아벨의 살점에 덧대워진 불안정한 은빛 심장으로 알을 깨고 나왔다고 치자. 진심으로 그 이후에 세르샤의 은줄기가 축복받은 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거야? 부끄러워 해야하는것은 비단 나 뿐만이 아닌것 같은데?”

“세르샤의 염원을 매도하지마. 그것이야말로 세르샤가 그토록 바라던

숙원이야. 세렛에 아벨의 살점을 덧대면 나는 물론 세르샤의 은빛 분노는 이제 더이상 그 지긋지긋한 탄광속에서 머물러있을 필요없이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당당하게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올테지."

"그래? 그렇다면 세르샤의 은빛분노 중 하나인 자로서 이야기 하자면 유감이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거야."

"어쩌나? 나는 반드시 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거야?"

"그것이 멀지 않았음을 너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잖아?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는 다른 카인의 핏줄들과는 달라. 이를테면 우리는 뒤틀린 빛에도 무뎌지지않고 오히려 세렛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

"아직도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고 다니는건가…."

"왜? 내 말이 틀려? 에르아의 저주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눈부신 빛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잖아. 당당해지렴. 이건 축복이란다."

"단도직입적으로 세르샤가 나아갸야 할 방향을 말해줄게. 겉으로 애새끼처럼 울어대는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세르샤에게 필요없는 것이야. 우리는 분노에서 태어났지만 방향과 갈피를 잃어버린 분노와 증오는 아무것도 낳지 못한채로 그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왔던거야. 빛에 취해서 우린 그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거고."

"꽤나 자세히 알고 있는것처럼 말하네. 너조차도 우리와 다른게 하나

도 없잖아.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
"방금 전까지만해도 세르샤는 남들과 다르다고 잘난듯이 주절거린 건 내가 아닌것 같은데? 분노 때문에 사고까지 굳어져 버린건가?"
"아무래도 함부로 놀려대는 그 잘난 혓바닥부터 굳혀줘야겠어."

"예전처럼 갈피를 잃은 분노와 증오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구나. 정말이지 너무나 한심해. 징징거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게 없고 분노의 죄악을 짊어지기 힘들면 차라리 내려놔. 아님 내놓던지. 아무래도 네가 깨어났을때 분노가 감당할 수 있을만한 것이었다면, 지금 새로이 눈을 뜨게된 미지의 분노는 네게도 버거울지도 모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싶은거야? 분노와 혐오가 시대를 거쳐가면서 바뀌는거라 생각해? 아니, 그렇지않아."
"무엇이 남는지 두고보면 알게되겠지. 너나 나나 둘중 하나는 그것을 마주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야."
우리에게 남은것은 이제 달구어진 분노를 서로에게 향하는 것 뿐이었으니 세렛을 쏟아내며 다가올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목 뒤끝이 시리도록 저려오더니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져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저 멀리서 베르도 사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전처럼 깔끔한 고위사제직 복장이 아니라 피와 먼지가 뒤섞여 진창에 구른듯한 거친 모습이었다. 그는 초연한 표정으로 분노의 죄

악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는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세르샤의 분노가 흔적도없이 사라진다 하여도 그 분노의 형태를 담는 그릇은 어디에나 있나니.”

씨가 있는듯한 그의 말과 동시에 그에게 아벨의 은총이 빛무리가 되어 차분히 그의 주위를 수놓으니 조용히 침잠하는 분노, 그것은 낯설지만 기브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있었다. 그 모습을 눈에 담는 순간 눈시울이 이내 붉어졌으니 하마터면 눈물이 터져나올 뻔 했다.

“…돌아왔군요, 결국. 분노를 떨쳐내고.”

내 말에 표정이없던 그의 얼굴은 이전에 내가 기억하던 베르도의 얼굴로 돌아왔다. 미소를 머금고있지만 다소 씁쓸함이 담겨져있는 그 얼굴로 말이다. 그는 웃는것도 우는것도 아닌 아련한 얼굴로 나를 위로하는듯한 말을 건넸다. 아니, 그건 그저 내 생각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헤르실라는 뜻밖의 낯선이의 등장이 유쾌하지 않은듯 날이 서린 세렛을 그에게 쏟아부었지만 그는 태연자약하게 빛의 장막을 펼치며 그것들을 전부 떨구어내며 조용히 운을 뗐다. 그의 말에 분노가 서려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그것을 차분히 귀에 담았다.

“떨쳐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는 이전의 성인들과 비교도 되지않을 정도로 작고 미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내 안의 번뇌를 떨쳐내지 못했고 그 분노는 아직까지 고스란히 이 내 가슴 한자리에 버젓이 남아있지요."

"…나를 원망하고 증오해도 좋습니다."

"아뇨. 그럴리가요. 아뇨, 글쎄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미웠습니다. 내 곁에 텅 빈 그 자리가 내 가슴을 후벼파더군요. 그러다 문득 당신이 남긴 흔적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할때 불현듯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욱 깊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 흔적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낮을 울었지만 나는 당신처럼 그것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분노의 죄악인 당신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을 품고 있었던것을 아벨의 자손인 내가, 그것도 스스로 상투스의 사제라 지칭하는 자가 품어주지 못한겁니다. 그러하기에 굳이 원망을 해야한다면 스스로에게 해야겠지요. 당신은 내 곁에 있기에 너무나도 눈부십니다."
지나간 추억을 되짚어보며 텅빈 눈을 하기도하고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기면서 말을하는 그는 깊은 호수만큼이나 차분했다. 하지만 중얼거리듯 낮고 빠르게 쉼없이 쏟아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팠다. 그의 말을 곱씹어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나를 뒤로하고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있던 헤르실라가 먼저 나서며 베르도에게 물었다.
"뭐야, 그쪽은? 처음보는 낯짝이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베르도는 분노의 죄악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그는 나에게 눈을

떼지않고 마치 소중한 순간을 영원에 담아두려는듯 차분하게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듯 연신 어루만졌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헤르실라의 물음에도 말이없는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내가 그녀의 물음에 대신 답했다.

“너를 막으려는 자는 나 뿐만이 아니야, 헤르실라.”

“나도 알아. 아벨의 자손들도 카인의 핏줄들도 그리고 세트의 후예마저도 너도나도 나서서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겠지. 이전에 내가 그 어디에서 속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나보군. 분노를 잠재우려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는 말이었어. 무분별하게 원망을 흘려보내는 것 대신에 네 분노를 담아줄 그릇을 찾으라는 말이야.”

“순진하기도 해라. 안타깝게도 원인없는 무분별한 원망은 없단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분노에 목적을 부여해 주었던거야.”

“순진한건 너야. 그래서 다행인지도 모르겠네. 빛을 마주하며 사는것 하나만으로 분노의 근원을 착각하는 이에게 줄 선물이 있었거든. 그걸 다른이도 아니고 네게 줄 수 있어서 정말이지 다행이야.”

“무슨 선물?”

“가르침.”

그 말과 동시에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점점 그녀와 가

까워짐에도 그녀는 미동도없이 멈춰있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았던것은 내가 그녀의 분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덕분인지 그녀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나를 하찮고도 미미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그녀의 품 안에 조용히 파고들어 빛을 머금은 아벨의 은총이 담긴 성물을 그녀의 가슴 한 가운데 세렛에 차분히 쑤셔박았다. 그녀는 그제서야 한 발자국 물서서 자신 안에 진행되는 변화를 감지했다. 그리고 이를 뿌득이며 나를 노려보자 나는 그녀에게 충고하듯 말했다.

“내가 분노로부터 배운것들을 고스란히 네가 담아줄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보다 거대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잊지 않는 것이야.”

“내게 담긴 이것을 깨닫게되면 나는 죽게 되는건가?”

“아니, 그렇지않아. 그것은 너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거야.”

“반대로 이것이 미처 내 안에 전부 스며들지 못하면 네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셈이네?”

“넌 분노의 우상이 될거야.”

“내가? 분노의 형태는 자유롭단다. 네가 내게 쑤셔박은 아벨의 은총이 나를 한낱 조각상으로 만들거라는 희망은 접어두는 편이 좋을거야.”

“아벨의 은총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을거라고 착각하게 된건 언제부터였을까? 그저 단순히 그것에 순수한 기도가 담겨져있지 않았기에 빛의 권능이 우리에게 닿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만 그것도 모른채 아무렇지

도 않게 저주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게다가 자신을 갉아먹는 것 밖에 하지 못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분노는 더더욱."
그녀는 나의 세렛이 고요하게 요동치는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마도 희미하다고 여기었던 나의 분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는 비틀린 웃음을 지어보이며 우리의 존재를 하얗게 칠하려는듯 분노의 죄악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녀의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은은 바닥에 떨어져 차마 식히지 못한 분노가 피어오르는 듯 대지를 녹일듯이 치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이 연거푸 피어오르며 아지랑이가 일렁였고 일대를 희뿌옇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에 보지못했던 은빛의 안개가 펼쳐진 모습이었다. 그 말대로 안개속이 전부 그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먹으며 공명하던 이전과는 다른게 그들의 분노가 너무나도 애처롭게 느껴졌다.
"희망이 바스러져가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운 얼굴인데?"

"나도 저렇게 우중충한 몰골을 하고 있었구나."

그 말에 베르도는 등을 돌려 나를 지나치며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다.
"중요한것은 어떤 생김새를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혐오나 증오를 쏟아내지 않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베르도는 우리 둘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도록 일대에 분노로 잠식된 죄종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일대를 정리하기위한 준비에 들어섰다. 갑

자기 모습을 드러내더니 돌연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태연자약함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잔뜩 짜증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벨의 자손인 주제에 분노의 죄악을 쉽사리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게 역겨웁기 그지없는데?”

“오히려 아벨의 자손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거겠지.”

“뭐?”

“됐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우리치고는 말이 너무 많았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분노를 드러내어 그 목에 겨누었다. 백탁의 안개 속에서 몇번이나 서로를 베고 꿰뚫어 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 사이에도 베르도는 여전히 단신의 몸으로 말없이 주변에 흐르는 죄악의 단편을 주워담으며 정화를 이어나갔고 점차 범위를 좁혀나갔다. 수많은 합을 치루고 마침내 헤르실라의 발이 무거워진것을 포착하여 은빛의 기둥과 베르도의 빛이 공명하며 거대한 새장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분노를 묶어두었다 생각하던 찰나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

“분노의 형태는 자유로워. 부디 그 작은 새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

“새장에 있는건 넌데?”

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작은 균열이 일더니 힘없이 바람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녹아내려 은빛의 웅덩이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짙은 백탁의 안개가 일대를 휘감았다. 치명적인

은빛의 안개에 베르도는 의식이 혼미한듯 무기력하게 쓰러졌고 그에게 시선을 잠깐 옮긴탓에 새장안에 녹아내린 웅덩이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대지에 스며들었는지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 더이상 그녀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와중에 나의 몸은 가장 먼저 베르도를 향해갔다. 그의 몸은 백탁현상이 일어나면 금방이라도 굳어버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더이상 망설일 수 없어 세렛을 그의 몸에 흩뿌려 은빛분노의 안개가 그를 침식하지 못하게 막아두었다. 비록 그것이 그에게 다소 해로울 수는 있어도 적어도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조치를 끝내고 조금은 걷힌 안개 끝자락에서 헤르실라의 속삭임이 다시금 들려왔다.

"조금이지만 느껴보라고. 그것을 머금고 다음에 얼굴을 마주했을 때쯤이면 우리가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한 물음이 아니었다. 차갑게만 서려있던 나의 분노에 잔불이 미약하게 타오르고 있는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완전히 안개가 걷히자 선명해진 주위에는 어지럽게 뒤섞여진 빛과 죄악의 공명이 울림과 함께 여전히 서로 부딛혀 피와 살을 흩뿌리는 참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조금 지친 탓인가 나는 풀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노를 각인시켜 되물림 해봐야 스스로가 더욱 초라해질 뿐인데…."

『 식욕 돋우기 』

“그렇게나 잘난척을 하더니만….”

흐릿하고 몽롱해진 나를 깨운건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나는 의식을 신경에 집중시켜 엄청나게 달라진 아키스트들의 땅 주위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아벨의 뒤틀린 빛처럼 푸른 빛으로 감도는 장막이 하늘을 요란하게 뒤덮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의 풍경을 간신히 눈에 담고 그제서야 조용히 나의 몸 상태를 심각하게 뜯어보고 있던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고치를 뚫고나왔을 때부터 내 곁에서 식사예절을 운운하던 그녀는 바스러진 나의 살갗에 입을대고 망가진 내 살덩이를 크게 베어물었다. 그러자, 수많은 거머리가 쏟아져 나왔고 끈적한 핏덩어리를 머금은 그것들은 나의 몸뚱이를 스물스물 잠식해 나가며 갉아먹힌 살갗을 조금씩 메우기 시작했다. 나를 뜯어먹는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은 사실 나를 살리기위한 행위임을 깨달은 나는 그녀에게 물음을 던지려고 노력했지만 바람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진정시키려는 듯 쉿 소리를내며 내게 말했다.

“그대로 천천히….”

“마지막 내 모습을 기억해?”

“네 몸에 쑤셔박힌 것과 공명하며 닥치는대로 입에 쑤셔박는 쟈토움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미친듯이 날뛰었지. 기억이 날아갔나보네.”

“완전히 날아간건 아니야. 혀끝에 어렴풋이 그 맛이 남아있었어. 맛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차라리 이전처럼 평범하게 찢고 다지고 부수며 여유로이 씹고 뜯어 먹고싶을 정도였다고.”

“식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그런 말을 입에 담으면서 아직까지 스스로 괴물이 아니라 미식가라고 말하고 싶은거야?”

“그럼 너는 지금까지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 해온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끊없는 허기가 우리를 있게했던 것인데 그걸 버린다고 네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

그녀가 말한대로다. 미식가를 자칭하던 나는 돌연 식욕을 잃고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대로 입에 쑤셔넣은 걸귀에 불과했다. 더 이상은 식사의 즐거움 그 자체를 즐길 수 없는 존재로 되돌아간 듯한 회의감에 휩싸인채로 그녀 혹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나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거지?”

“살아있을만 하니까 살아있는거지.”

그렇게 답한 그녀는 말없이 내 몸뚱이를 타고 흐르는 푸른 빛깔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식욕을 잃어버린 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살아숨쉴 수 있는 이유는 다른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이니까.”

“모든것은 이것 때문이구나.”

“이딴걸 도대체 누가 쑤셔넣은거야?”

“하얀것과 검은것.”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 먹겠지만 그것들이 너를 살린것이나 다름없다고밖에 말하지 못하겠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라고.”

“하지만 분명 그것들 때문에 내 식욕은 바닥이 드러났어.”

쟈토움이라 불리우는 존재가 식욕을 잃는다는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살덩어리나 마찬가지였고 입맛이 다 떨어져버린 지금의 나는 죽은것이다. 그저 멍하니 넋을 잃은 나의 초점잃은 눈을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차갑게 나를 바라보더니 내게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혹시 탐식의 죄악에서 멀어지는게 두려운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아마 나는 탐식에 눈이 멀어있어서 죄악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라.”

“허기를 잃고나니 그제서야 죄악이 보이는건가? 지금 너는 어때? 눈물을 흘리고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비명을 무시하고, 게걸스럽게 그것들을 아가리에 쑤셔박은 죄악감이 지에서야 너를 옥죄어 오기라도 해?

나의 대답 여하에 따라 쟈토움으로서 나약해진 눈 앞의 고깃덩이를 한입에 삼켜 버리려는듯 무사한 이빨을 드러내며 아가리를 벌리고 있음에도 나는 그녀의 알량한 도발에 대꾸해야 할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눈 하나 깜빡하지않고 그녀를 한심하게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떨구

고난 뒤 잠깐의 정적과 함께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기를 잃었다고 죄악까지 내던진게 아니야. 죄악감 따위라면 진작에 먹어치웠어. 어차피 무슨 죄악을 짊어져도 형태만 다를뿐이지 결국에는 죄악에 물들어 그것들을 집어 삼키는건 다 똑같잖아.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지언정 먹지 않으면 먹힌다고 알려준건 쟈토움의 둥지야. 나는 그냥 배운대로 먹어치울 뿐이야. 조금 달라진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거나 쳐먹을 일은 없다는거야. 네놈들과 달리 말이지.”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를 죽지 못하게 만드는 푸르스름만 피에 녹은 아르카나가 대답하듯 두근거리자 왠지모를 안도감이 가득담긴 얼굴로 답했다.

“그래, 형태는 어찌되었든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지금 네 말대로면 식욕같은건 잃어도 아무상관 없겠네.”

“그건 조금 곤란한데?”

“어째서?”

“…나는 미식가니까.”

한결같은 나의 대답에 그녀는 질린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빠르게 채비를 한 뒤에 내게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 사고는 건방지고 재수없는 그대로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일단 정신을 차렸으면 돌아갈 준비나 해.”

“돌아간다고? 왜?”

“게르사라님이 이실그라드에 닿지 못했어. 식사는 종료야.”

“그렇게나 아가리를 들이밀고도 그걸 쳐먹지 못했다고?”

“탐식의 죄악을 짊어지고도 눈앞의 진미를 입에 머금지 못할정도로 그만큼 아르카나라는 것이 몸에 가득 채우기에 독한 것이더라고.”

“탐식의 어미로도 그 정도밖에 안되는가…. 한심해. 이래서야 쟈토움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쓰레기밖에 담지 못하는 꼴이잖아.”

“말 조심해, 쥐도새도 모르게 누구한테 씹어먹히고 싶지 않으면. 다들 원하는 식사를 하지못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식탁를 엉망으로 만든 기괴한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있을 테니까.”

그녀 역시 잔뜩 짜증이 났는지 내 가슴에 손가락을 연신 쑤셔박으며 말했다. 가슴에 구멍이 여럿 뚫려 그 사이로 검붉고도 보랏빛을 발하고있는 찐득한 피가 새어나왔다. 나는 입에 흐르는 피를 머금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게나 좋은 재료를 앞에두고 아무렇게나 게걸스럽게 대가리를 쳐박고 씹어먹으려 하니까 그 아가리가 미처 거기에 닿지 못하는거야.”

“식욕도 떨어진 네가 잘도 말하네. 잘죽으면 먹을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조금 엉망이야. 식사가 제대로 차려져있지 않으니 때로는 다음을 기약할 줄도 알아야지.”

“그래. 식욕이 떨어진 것이지, 미식에 관심을 잃은것은 아니야. 말했잖아. 나는 미식가라고.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최고의 진미를 맛보러 갈거야.”

“그렇게까지 개죽음을 당할 생각이라면 그러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라는 존재에 의미가 있어?”

내가 잠깐 멈춰서서 차분하게 묻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채 입만 뻐끔거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히 내게 설명했다.

“심지어 이실그라드를 맛보지 못한 게르사라님도 둥지를 깨고 돌아가실 채비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아키스트라고 하는 제법 맛이 좋은 그것들이 이실그라드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켜고 짙은 푸른 안개를 쏟아내고 있는 마당에 굳이 죽으러 가겠다는걸로 밖에 안 들리는데? 식욕이 떨어져 탐식의 죄악마저 흐릿해져있는 형편없는 지금 네 꼴로 가면 그녀를 향하는 도중에 죽을껄?”

“글쎄…. 나는 이미 여러번 죽고 다시 태어난건지도 몰라.”

그렇게나 지쳐있는 와중에도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이질적인 핏방울의 고동을 느끼고 하늘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에 하늘로 아가리를 열어젖히며 기지개를 켰다. 표피 사이로 보이는것은 붉은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것처럼 보였는지 그녀가 다그치듯 말했다.

“여기에서 죽어버리면 다음엔 아무것도 먹지못해.”

“그치만 우리는 먹지않으면 살 수 없잖아!”
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과 다를 것없이 입에 구겨넣는것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보존하고 그것의 정점을 추구하는 나의 일관된 태도에 그녀도 질렸는지 수긍한다.
“그래, 알았어. 조금이라도 더 쳐먹고 싶다면 움직여.”
그렇게 등을 돌려 돌아가는 그녀는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리고는 차갑게 내게 말했다.
“아! 그리고….”
“가려던 거 아니었나?”
“다마르강 습지의 둥지는 더이상 변질된 너를 반기지 않을거라는 사실은 이미 네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 그 꼴로는 결국엔 먹힐거야.”
“신경 써주는건가? 배려 고마워.”
“잘 살아. 더 이상 너를 씹어먹지 못하는것은 좀 아쉽지만 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처절하게 허기만을 채우는 것보다는 혀의 즐거움을 깨달은 내가 너를 보고 침을 흘리지 않는것도 그 이유겠지.”

“…혓바닥의 즐거움이라. 쟈토움이 그 즐거움을 알 날이 올까?”

“재밌는 말을 하네. 아까했던 말도 그렇고 둥지를 그렇게나 아끼고 생각하는것을 보니까 오히려 제 아가리만 신경쓰는 게르사라같은 것보다 탐식의 어미에 가까운 것은 네가 아닐까 싶은데?”

“뭐야, 제법 여자에게 상냥할 줄 알게 되었잖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돌아서서 다마르강 습지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핏자국과 암덩어리가 뒤섞인 살점이 쓸리며 바닥으로 기괴한 흔적을 남기었고 나는 메마르지않은 그 자국에 손을대고 한참이나 그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차였네.”

그 짧은 평화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듯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콤한 향이 내 오감을 자극했다. 다마르강 습지에서부터 이어진 그 자극은 마치 나의 모든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것인지 어디에서건 아무렇지않게 불쑥 튀어나와 태연하게 자신의 감상을 툭 던지듯이 말하곤했다.

“따라오지마.”

“신경쓰지마.”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않아. 통째로 씹어먹기 전에 꺼져.”

“헛소리 하지마. 너 여태 지금껏 아무것도 입에 대질 않았잖아. 애초에 식욕이 떨어졌다기보다 그냥 입맛이 까다로워진 거 아니야?”

“음욕에 미친것들은 관음증이 기본 자질이야?”

“더러운것을 몰래 염탐하는 취미는 없어.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나본데 너희들에게서 늘러붙은 피와 살점 냄새는 지독하게 배여있는데도 이상하게 너한테는 미묘하게 그 냄새가 다르단 말이지.”

그 말에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상념에 잠겼다.

“그런가. 아무도 허기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기에 지금 내 상태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못했을 뿐이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못하는것도 무리는 아닐테지. 애초에 알맹이가 달라졌으니….”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오더니 어느덧 메워진 가슴의 구멍 주위로 말라 비틀어진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살짝 떼어내고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말하자 나는 팔을 휘둘러 거추장스러운 음욕을 귀찮은듯이 털어냈다.

“꺼져.”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운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게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이전과 다른 낯선 몸뚱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하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녀가 말한것처럼 너는 이미 다른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스스로가 더 잘 알 거 아냐?”

“그런가? 진미를 맛보고 난 뒤 왠만한것들은 그냥 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그 영향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넌 왜 자꾸 내 곁에서 내게 그걸 알려주는거야?”

“나 뿐만이 아니라 네 몸뚱이에 있는것을 조금 뜯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거야. 조금 분하지만 네 흉한 살덩어리로 생명에 활력

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고 말이야. 다시말해서 너라는 존재가 지워져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있는 반면 네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가있는 존재들도 있다는거지. 좋은 소식이라면 나는 후자에 속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적당히 농익어서 네 살 한점을 가져가기 전까지 아득바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내게 조금은 고마워 하라고.”

“다들 내게 관심이 많구나. 장황하게 떠들어 댔지만 결국에는 너도 내 살점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대충 그렇지.”

“좋아, 나는 굶주림을 잊어버린게 아니야. 맛을 알아버린거지. 오히려 아주 잘됐어. 내가 먹어야 할 것은 점점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

내가 핏덩어리를 사방에 흩뿌리면서 미친듯이 웃음을 쏟아내자 그는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도 않고 귀찮은듯 욕정의 우산을 펼치고 그것들을 떨쳐내며 말했다.

“역겨우니까 제발 그렇게 크게는 웃지는 말아줘. 나도 물론 네가 살아남았으면 해. 그녀를 병마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네놈에게서 살덩이를 뜯어내야만 하니까.”

“사랑으로 안되는것도 있나봐?”

“오히려 이 몸께서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것이 사랑이라는 기적의 증거야, 얼간아. 네놈은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자, 그럼 가자고.”

“그래.”

“어? 뭐야? 잠깐만! 너 어디가?”

“나는 단 한번도 다마르강 습지로 되돌아간다고 한 적 없어.”

“그럼 대체 어디로 가는건데?”

“당연히 잘 차려진 만찬을 맛보기 위해서지. 네가 사랑을 입버릇처럼 달고사는 것처럼 나는 내 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

“식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그게 되는구나.”

“남들이 어리석은 죄악속에서 허덕일때 우리는 가장 본능적인 죄악인 허기와 포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존재들이니까.”

“아무거나 아가리에 우겨넣는 것이 내뱉는 말치고 퍽이나 감상적이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별 수 없이 넌 여기서 죽을텐데?”

“적어도 이실그라드를 입에 물고 행복에 겨운채로 눈을 감겠지.”

“…재밌어.”

“뭐?”

“그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아니면 본능에 가까운가?”

“뭐라는거야. 계속 옆에서 헛소리나 지껄일거면 비켜.”

나는 마지막 숨을 들이키고 준비를 마친듯 몸안에 깃든 푸른 암덩이들을 꿈틀대며 몸을 일으키며 발걸음을 재촉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내 뒤를 따르면서 즐거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네가 죽던 살던 네놈의 살덩이는 결국 가져갈테지만 재밌는걸 보여줬으니 좋은걸 알려줄게. 네놈안에 깊게 쑤셔박혀 있는 그 푸른색 암덩어리 같은것은 아르카나라고 하는것이 응고된거야.”

“관심없어.”

“관심 있어야 할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네놈들은 수많은 세월동안 허투루 생명을 쳐먹어온게 아니야. 뼈와 살만 먹은게 아니라 역병을 포함해서 불경한 모든 것들을 먹어왔고, 우연인지 몰라도 응고된 아르카나와 융합된 너는 아직은 불완전 하지만 생명을 먹음과 동시에 생명을 낳는 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뭔가 굉장한 것이라도 된 양 부추기지 마.”

“굉장한건 사실이지만 부추기지 않을수도 없겠는데?”

무안가를 알아차린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게서 떨어졌고 그것과 동시에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영창소리가 우리 일대에 울려퍼졌고 이내 포화가 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으악! 그 안에 녹은 아르카나의 결정체 때문인지 벌써 찾았구나.”

척후로 우리의 뒤를 쫓던 아키스트들이 여럿이 우리를 쏘아보며 증오서

린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찾았다, 벌레같은것들!”

“…이제 그만 날 내버려 둬.”

“이실그라드님에게 흉터를 남기고도 모자라서 퀴나즈의 터전까지 박살내놓은 죄종새끼가 이제와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야?”

“미안하지만 아키스트들의 터전인 퀴나즈가 개박살난건 내 탓이 아니야. 이전부터 나는 맛이 없는 것에게 손을 댄 적 없어.”

다른 아키스트들이 열을 내며 지팡이를 들고 다시금 아르카나의 원을 그리면서 씩씩대자 그것들중에서 차분한 것이 만류하며 앞에 나서 내게 물었다. 그것은 제법 익은 모양이다. 침을 흘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와중에 그것이 나를 불렀지만 듣지 못하고있다 다시금 그것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야! 듣고있는거냐? 네놈들의 어미는 어디있냐고?”

“죄악의 어미? 아, 게르사라 말인가? 진미를 뒤로하고 꽁무니나 빼는 쓸모없는 년은 어미라고 부를 가치도없어. 머지않아 탐식의 어미는 다른이로 바뀌게 될거고, 그녀가 즐거움에 눈을 뜨면 너희는 먹힐거야.”

“무슨 개소리를 하는거야?”

“응? 잠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거지?”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내 스스로 반문을 하다가 입가에 미소가 지어

졌다. 침을 흘리고 미소를 보이는 그 모습에 얼굴이 파래지며 질겁하는 아키스트들은 흥분하며 내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죽어! 탐식의 죄종아!”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며 여유로이 곁에서 그 푸른빛이 쏟아지는 절경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는 음욕에게 턱짓을 하며 그에게 물었다.

“뭔가 방법이 있는것처럼 떠들더니 말 뿐이었던거야?”

“음욕의 아이들이 그렇게나 나약해 보였어? 잘 들어. 네가 말하는 푸르스름한 건 아르카나라고 하는거고 그건 이실그라드와 키오누스의 사랑이 싹틔운 결실이야. 다시 말하면 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진 유산을 주무르는건 우리한테는 숨 쉬는 것이나 다름없어.”

“내 살점에 쑤셔 박혀있는 이걸 떼어줄 수 있다는 말이군.”

그는 내 몸에 박혀있는 푸른 결정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정말 이걸 떼어내고 싶은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 모습 나쁘지만은 않아. 오히려 아직 채워지지않은 거대함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그는 여유롭게 쏟아지는 포화를 피하며 중얼거리더니 음욕을 흩뿌리면서 입맞춤을 하더니 우리를 향해있던 둥그런것은 어느새 푸르른 안개가 되어 흩어졌다.

“이제 좀 안심이 돼?”

나는 흡족한듯 고개를 끄덕였고 한참을 생각에 잠긴 뒤 그에게 말했다.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 입 줄게.”

“됐어.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유혹해서 맛을 볼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아키스트들의 숨통을 여유롭게 끊어내었다. 이전 같았으면 망설이지않고 그것들을 입에 쑤셔 넣었겠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이것들로 입맛을 버릴 수 없었다. 주변의 요란한 흔적을 뒤로하고 나는 이실그라드를 향해 점점 거리를 좁혔다. 음욕이 하늘에 기묘한 것들이 새겨진 둥그런 것들을 녹여대는 동안에 나는 내 안에 흐르는 아르카나라는 것을 삼키는데 온 신경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에 흐르는 아르카나로 인하여 더이상 푸른빛은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음욕의 죄악을 짊어진 그것이 나를보더니 깡총거리며 좋아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우리를 에워싸고있는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나의 코끝을 찡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좋은 냄새. 배고파.”

그렇게 나는 내 살덩이에 흐르는 아르카나의 결정을 녹여내어 이실그라드의 영역에 닿게했고 그녀의 일부에 스며들게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않았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 곳에 그녀를 한 점에 집중시키는것이 최우선이었던 아키스트

들의 계획은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애초에 그녀의 맛과 냄새를 알고있었던죄악의 아가리를 염두에 두지 못한것은 패착이었다. 퀴나즈의 땅을 덮고있던 그녀의 기운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수많은 뿌리를 통해 한 곳으로 모여가는 가운데 탐식의 아가리는 망설임없이 그녀를 향했고 마침내 나는 이실그라드의 일부를 한입 크게 베어 물었다. 나의 곁에서 지켜보던 음욕의 죄종도 그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느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의 시선은 환희가 아니라 왠지모를 공포의 냄새를 풍겨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르카나를 머금은 살점의 암덩어리가 이실그라드를 물고난 뒤의 상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듯한 오묘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순간 모두가 아연실색을 하고있는 그 상황에서 음욕과 마찬가지로 공포에 물든 아키스트들은 혼돈에 빠져 입을 모아 소리쳤다.

“으아아! 이실그라드를 물었어!”

이실그라드를 한 입 베어문 대신에 의문의 아키스트가 몸 안에 쑤셔박은 푸른 결정체는 더욱 강하게 동조하며 나의 허기를 더욱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더 큰 허기와 식욕에 눈을 뜰 줄 알았지만 의외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실그라드를 한 입 베어문 탓인지 식곤증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사이 어느새 붉고 푸른색이 억지로 뒤섞인 듯한 오묘한 끈적한 점막이 나를 휘감기 시작했

다. 본능적으로 나는 음욕을 바라보고는 변태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깨닫고 그에게 말했다.

“또 다시 고치를 깨고 나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인데?”

“그래보이네. 뭔가 수지가 안 맞는것같긴 하지만.”

“미안해. 잠에서깨어 우화를 할 때까지 나를 지켜줘.”

“차라리 걸신들린 짐승인 편이 다루기는 편했을텐데. 영 귀여운 맛이 없잖아, 이거야 원. 고치를 깨고 어떤 모습일지 벌써 불안하네.”

“말했잖아. 맛이 없는걸 먹진 않는다고.”

“그건 좀 기분이 나쁘지만 일단은 대충 넘어가줄게. 그리고 너같은 지저분한 것들과 달리 페라투르의 깊은 사랑은 모든걸 감싸 안는단다.”

“그럼, 부탁해.”

“잘자. 흉물을 지키려고 용쓴적은 없지만 대충 노력은 해볼게.”

그렇게 고치를 깨고 나온 순간부터 누구도 믿지 못하여 같은 둥지에서 태어난 이들끼리조차 서로 찢고 부수며 죽이고 동족상잔을 일삼을 만큼 불신속에서 살고있었던 나는 몽롱한 빛깔의 뒤섞인 막에 몸을 맡긴채로 낯선 장소에서 달큰한 향과함께 깊은 잠에 들 채비를 했다.

『 가면 뒤에 가려진 얼굴 』

카르밀라의 육신이 이데아를 배회한다는 소식이 질의 귀에 닿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했듯이 질이 그녀를 찾기위해 모든 질투의 실타래를 쏟아내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집착이 누구는 지나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자신의 생명을 이어준 어미나 다를 바 없는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 했는지 곁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이는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만큼 특별하기 그지없던 카르밀라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듣고 질은 환희와 그리움 그리고 회한과 원망 등 오만가지 감정이 뒤섞인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를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해야할지 미처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 정신으로 모든것을 감당하기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도 한껏 들뜨고 불안한 표정으로 질투의 실타대를 하늘 그득히 풀어놓으며 카르밀라를 찾는 그녀의 입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거지? 그녀는 날 보고싶지 않은걸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닐거라고 생각해, 질. 이전에 너를 안아주던 따스한 온기가 담긴 인연의 끈만으로 더이상 카르밀라를 찾기는 힘들테지. 지금의 카르밀라는 아마 그녀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있는 무언가가 그저 흉내를 내고있는 거야.”

그 말이 질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는지 그녀는 미친듯이 나를 노려보고는 입을 꾹 다물었다. 너무 거세게 이를 문 탓인지 입에서 피가 스물스물 배어 흘러내렸다. 금방이라도 울것만같은 그녀의 눈말울에 정신적인 고통마저 느껴지며 어느새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간신히 버티며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질! 카르밀라 이외에 다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거야? 카르밀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곁에서 함께 울어주던 이들을 잊지마.”

“그들을 잊는다는 말은 한적도 없을뿐더러 죽은줄로만 알았던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는게 그렇게나 잘못된거야?”

그녀의 말이 틀린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롯이 질투에 온 신경을 쏟아부으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뻗은 손 끝이 살짝 떨리자 나는 체념하듯 천천히 그것을 떨구었다. 나는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할 여지없이 나는 질투를 하고 있는것이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오랜동안 정신적인 교감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부모나 다름없는 둘의 각별하고도 돈독한 관계는 어떠한 인형으로도 대체할 수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도 경외심과 더불어 질투를 마다하지 않을 인형은 없었을 것이다. 질이 모정을 갈구하는 모습이 강할수록 질을 아끼고 사랑했었던 이들로 하여금 가슴속에 잠들어있는 질투를 더욱 짙어지게 만들어갈 뿐이었다. 그렇지

만 기대와 확신에 차서 질투의 실타래를 풀어대며 카르밀라를 찾는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쉽사리 뒤틀린 그 감정을 차마 밖으로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은 공정할 수 없다. 그것마다 무게가 다르고 농도 역시 다르다. 카르밀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에게 되돌릴 수 없었기에 질투는 더욱 크고 깊어져만갔고 실타래는 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뒤엉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질투는 내게만 피어오르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이 내게 짜증섞인 말투로 원망하듯 말했다.

“너희 인형들은 나를 절대 이해못해.”

그 말이 비수가되어 날아와 가슴을 후벼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나도 카르밀라를 찾는걸 도울게.”
그 말에 질은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돌려 내게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그것은 실망감으로 물들어 더 이상 내게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듯 체념한듯한 미소였다. 차라리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했을까? 그녀와 눈을 마주친 나는 그 자리에서 굳은듯 움직이지 못하고 간신히 그녀가 다시금 눈을 돌려 실타래에 집중하고 나서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표정을 뒤로하고 파비옹에게 눈짓을하여 채비를 마친 뒤 조심스레 질을 뒤로했

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저택에 도착하여 별채에 들어와 푹신한 의자에 몸을 내던지자마자 한숨이 푹 하고 새어나왔다.

“후.”

자리에 앉자마자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파비옹도 내 곁에 서서 조용히 침묵을 함께했다. 그렇게 시계바늘과 태엽이 움직이는 소리에 홀린듯 휴식을 취하고 있을때 익숙한 부산스러움이 들려와 나는 고개를 돌려 차창을 내려다 보았다.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소리에 잠시나마 근심이 풀리는 듯 했다. 얼굴에 모든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매들의 표정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카르밀라의 초대가 제대로 이루어진 듯 보였다. 그제서야 우리 사이에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파비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련님….”

“괜찮아. 질이 행복한거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되면 남겨진 모든 질투의 실타래는 도련님이 받으시겠지요.”

“질은 너무 오랜동안 고통 받아왔어. 우리 인형들과 달라.”

“…어느샌가 스스로를 인형이라고 지칭 하시는군요.”

“그랬었나. 미안하군.”

“아닙니다.”

파비옹의 미소뒤에 쓸쓸함이 남아있었다. 질에게 주변을 바라보는 여유

를 가지라 잘난척 충고를 했지만 정작 나는 내가 만든 인형들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려주지 못하고 상처 받을만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인형이 남긴 씁쓸한 미소를 보고나서야 깨닫는 내가 너무 한심했다.

“나는 인형이야, 파비옹.”

“도련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도련님을 따를 뿐이지요.”

“…나는 질 마저 질투하는 삐뚤어진 인형이야.”

“이해합니다. 질과 카르밀라의 유대는 뭔가 다르다는건 인형인 저조차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삐뚤어진것이 아니라 인형이라면 느끼지 못할 모정의 그리움이겠지요.”

“…엄마.”

나도 모르게 입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어디서도 꺼내지 않았던 본심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기에 나를 무심한 척 슬그머니 입을 틀어막았다.

“네?”

“아니, 그래. 그렇기에 카르밀라를 건네줄 수 밖에 없어. 질은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오랜동안 외로움과 싸워 왔으니까.”

“그렇군요. 하지만 질투의 죄종들 가운데 정점에 선 자가 되는건 쉽지 않을거라고 봐요. 결국 또 다시 다른 인형들의 질투를 받을테니까요.”

“알아. 하지만 그녀의 질투를 이어나갈 사람은 역시 나 밖에 없어. 베

르체의 인형 중에서도 내가 가장 추악하고 뒤틀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질투에 적합하니까.”

“아니요. 도련님의 질투는 정당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질투의 실타래를 엮는 이는 도련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련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있지 않으시니까요.”

“역시 파비옹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마워.”

“카르밀라가 도착 하는대로 질에게 보내실 건가요?”

“아니. 질 역시 그녀의 저택에서 나와야 할거야. 그 뒤로는 길잡이들이 둘만의 장소로 안전하게 안내해 주겠지.”

“거짓말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때 질님에게 사실대로 알려주시지 않으셨던거죠?”

“싫었으니까. 질이 조금 더 아파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셨군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잠시동안의 침묵을 뒤로하고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가까워 지더니 이내 별채의 문이 벌컥 열렸다.

“편지는 잘 도착했어?”

“리타, 신디. 방에 들어올때는 노크를.”

“괜찮아, 파비옹.”

나는 의기양양해 하는 자매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소풍은 어땠어?”

“재밌더라. 볼수록 카르밀라의 육신이 갖고싶어.”

파비옹은 순간 내 눈치를 봤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안돼. 카르밀라는 질의 것이야. 너희들이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존재가 나를 너희들한테서 빼앗기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것같아?”

“슬플거야. 그러지 못하게 팔을 자르면 되려나?”

“대충 그런거야. 질투에게서 질투를 하면 좋지 못한 꼴을 당할거거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할거고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이봐, 거짓말 하지마. 너희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잖아.”

파비옹이 한숨을 쉬며 그들에게 다가가자 리타와 신디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까르르대며 저들끼리 손을 붙잡더니 문 너머로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우리 사이에서는 또 다시 침묵이 가라앉았다. 잠시나마 밝았던 분위기가 다시금 무거워질 것이라는 걸 동시에 깨달았기에 그런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는 편이 행복할지도 모르겠군.”

“아뇨. 도련님이 특별하신거죠. 베르체 중에서도 도련님은 이상하리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계시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숙해진다는 것은 의외로 불편

하군. 성숙함은 질투가 낳은 결함은 아닌것 같은데 말이지.”

“질투라는 죄악 자체가 결함이에요, 도련님. 중요한것은 그 죄악을 얼마나 올바르게 엮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결국 나도 그 실타래 속에서 버둥거리는 꼭두각시라는 말이군.”

“그런셈이죠.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실타래속에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카르밀라가 브리쿨의 손에 나가 떨어졌을 때부터 시작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엉켜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것이 있듯이.”

“하지만 질님이 카르밀라와 조용히 있을지가 문제겠죠. 브리쿨이 카르밀라를 죽였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화풀이를 할테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야.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쓴 그것의 의중을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지.”

“카르밀라의 의중이야 어찌됐든 질은 브리쿨에게 질투의 죄악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거에요. 그리고 인형들의 동산에는 전쟁이 일겠죠.”

“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피를 흘려줄 것 같아?”

“많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그녀를 사랑하시는 도련님께서는 결코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위해 싸우시겠죠.”

“그래. 인형들의 태엽이 잠시 망설이는 그 단 한 순간이라도 좋아. 그

틈이 모든 질투를 한데 엮을 기회를 만들어줄 틈이 될거고 그것으로 왕가의 혈맹에게 기분좋은 한 방을 먹여줄 수 있을테니까.”

“후….”

그 대답에 파비옹은 한숨을 푹 내쉬고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내 곁에 어느샌가 다가와서는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항상 그랬듯이 집사이긴 했지만 돌발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그의 행동은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었기에 놀랄것도 없이 그에게 물었다.

“뭐하는거야?”

“쪼만한게 책임감을 혼자 지려는게 조금은 건방져서요.”

대견한듯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파비옹의 위로에도 막상 질과 카르밀라를 만나게 해주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영원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옥죄는 듯 아파왔다. 옷깃을 다소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옷깃의 단추가 투둑하고 뜯겨져 튕겨나갔고 바닥으로 굴러가는 소리가 유독 초라하게 느껴진다. 파비옹도 그 감정선이 나지막이 느껴졌는지 말없이 계속 위로를 건네는 듯 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인형을 만들었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이 해갈이 될 때 쯤이면 인형이라는 것의 가치는 떨어지고 가차없이 버려져.”

“그럴테죠. 어느새 우리는 자라고 그 때가 되면 인형과 함께했던 꿈의 동산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과 성숙이라 하죠.”

“나도 알아.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지못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거 필요없어.”

“성장과 성숙으로 얻는것이 더욱 크다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것을 얻는게 일곱의 죄악 중 하나를 담은 자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테지.”

“질투가 아니었다면 마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수용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니죠. 그저 성숙해지는것이 두려운 거겠지요.”

“파비옹은 내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거야?”

“어떠한 모습을 한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만, 하인으로서 주인된 자가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것은 즐겁과도 영광스러울 테지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너에게 있어서 나조차도 인형이나 다름없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너의 그리고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친구야.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친구라는 단어에 유난히 집착하시네요. 인형으로 만들어진 나에게 있어서 친구든 주인이든 의미없이 나는 그저 당신의 소유인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면 어느새 그것에 힘이 실리는 법이야. 아무렇게나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보이는 질투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잘 알아둬.”

내가 질투의 죄악을 풀어내며 즐거운 듯 말하자 파비옹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듯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말했다.

“그 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베르체의 어느 누구도 도련님처럼 인형들 하나하나에 이름과 인격을 부여하는 집착성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진심이 리타와 신디에게도 배여있기에 그들을 마주한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것의 마음조차 움직인 거겠죠.”

“나의 인형극을 칭찬해주니 고맙군. 그럼 이제 슬슬 막을 열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파비옹은 손뼉을 가볍게 치자 잠잠했던 방에 재잘거리는 소리가 다시금 가까워지더니 리타와 신디가 가느다란 실에 걸린채 파비옹의 부름에 응했다. 그들은 즐거운 듯 미소지으면서 파비옹에게 물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래, 마차를 이끌고 질 몰래 카르밀라를 데리고 와주련?”

“그럼, 물론이지!”

그들은 또 다른 나들이에 한 껏 들떠서는 요란하게 마차에 자신들의 물건들을 실으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그들은 카르밀라를 맞이하러 우스꽝소리를 내는 마차를 몰았고, 나도 질투의 끈을 질에게 풀어내 카르밀라와의 조용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파비옹, 저택을 부탁해.”

“걱정하지 마시고, 모쪼록 즐거운 나들이를 즐기시길.”
고개숙여 인사짓을 하는 파비옹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질과 카르밀라를 쉬게 할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형처럼 오랜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흔들리는 실가닥을 느끼고 눈을 떴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미르칼라는 이 곳으로 발걸음을 하였고 질도 나의 초대에응해 이곳을 오는것도 이제 곧이었다. 미르칼라는 약속되어있는 초대장소로 도착했다.
“놀이동산?”
“그래. 바깥 세상의 일을 잊고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에 온 걸 환영해.”
“네가 그 시끄러운 아이들의 주인이구나. 주인님도 꼬맹이네.”

“내 이름은 루이 메흐몽드. 질투의 근원이자 원흉인 질 퀴오나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너와 질 사이의 끈을 다시 이어줄 운명의 존재야.”

“내 이름은 카르밀라.”
“…카르밀라라는 이름으로 살고있는 그녀의 살점을 뒤집어 쓴 존재에 더 가까울테지. 그렇게나 경계하지 않아도 돼.”
“네가 질투로 카르밀라의 살점을 엮느데 도움을 준 장본인이구나.”
“맞아. 상태를 보아하니 아직까지 네 육신과 카르밀라는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것처럼 보이네.”

“그래. 이마저도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덧씌운 이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살점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그녀의 곁에있는 죽지도 못하는 흉물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하고는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었고 지금 누군가 감상에 젖어있는 모습을 봐줄만큼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을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저마다의 사정 따위야 으레 있기 마련이겠지만 그 사정을 누구나 관심있게 봐주는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버려진 슬픈 꼭두각시는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지만. 잡념은 잠시 접어두고 나는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환기하며 입을 열었다.

“조만간 질투의 근원인 질 퀴오나가 이 곳에 도착할거야. 그 때가 되면 아무말없이 그저 그녀를 따스하게 안아줘.”

“고작 그런것 때문에 나를 부른거야?

“그런가. 인형의 마음조차 지니지 못한 허무로 텅 빈 산송장들은 그것이 그렇게나 단순하게 작은것처럼 느껴지나보군. 어미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집착은 같은 카인의 핏줄은 물론이고 이데아에서 숨을 쉬는 그 어떠한 것따위도 안중에 없어. 네놈들이 순수악을 부르짖는것과 달리 질투는 철저하게 만들어진 뒤틀리고 삐뚤어진 죄악이니 함부로 네 알량한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만간이라니 바로 오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더 이해해 줘야하는게 있다면 미리 말해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너만을 찾는 질투의 죄악이 식기도 전에 그녀를 조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육신의 어미인 데보라조차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인형중에서도 그 정점에 있는 그녀를? 농담하지마. 간신히 살점이 엮여진 네 상태로는 그녀 앞에 서기만해도 갈가리 찢어질거야.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을테니 조금 참아줄래?"

"좋아. 그런데 네 목적은 대체 뭐야?"

"질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놀이동산에 가두는것을 보통 행복이라고 부르나?"

"너라는 존재 때문에 질은 나약해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투로부터 자유롭게 해 줄거야."

"너, 질투하고 있구나?"

죽다 간신히 살아가는 산 송장년이 함부로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걸치고 입을 놀리는 꼬라지에 속이 뒤틀려 가는것을 참아가며 말했다.

"질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설쳐댔어, 너희들은."

"꼬마들의 애착을 가지고 장난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의도야 어찌됐든 어른이라면 결과에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

"건방진 꼬맹이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네 눈은 금방이라도 전

쟁을 터뜨릴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진심이야?”

“전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기 위해 브리쿨을 향해서 하늘 가득히 실타래를 펼칠거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정당한 권리로 너희 인형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이 더이상 카르밀라에 눈독을 들이지 못하게 할거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안될거야.”

“왜?”

“붉은 낙원을 펼쳐낼 일곱 죄악의 어미를 깨우기 위해서 첫째로 순수한 핏방울 그리고 순수한 육신과 더불어 순수한 영혼을 그릇에 채워야 하는데 그 순수한 육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브리쿨이 금방이라도 들이칠 것 같은 말을 하네.”

“바로 그 말이야. 내가 눈을 뜬 순간 나는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 최고의 협상도구가 된 셈이지. 질 퀴오나만 카르밀라를 부리나케 찾고 있는게 아니란다. 어른들의 사정은 네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좋은 무대가 되겠지.”

“어떤 의미에서?”

“애초에 너희 산송장놈들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태초의 피는 우리 모두의 것이었어. 어미된 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비단 질투의 인형들

만이 아니었다는거지. 영원의 전쟁 말미에 그녀가 망설임없이 브리쿨에 정면으로 맞서 자신들의 핏줄을 이어가게 만든 이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의구심을 품으려는 자는 없을거야.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기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문을 하게 될 기회가 되겠지.”

“어미를 위해서 싸우는 그 연극이 다른 카인의 핏줄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있다니 당돌하네.”

“몇가지 짚고 넘어갈게. 카르밀라는 죽었어. 그렇기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카르밀라가 아니라 질이 갈구하는 것. 질투로 물들여진 어미의 애정어린 손길 오직 그것 하나뿐이야.”

“순진한 얼굴로 무서운 소리를 하네. 네 말인즉슨 질에게서 질투의 근원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놀이동산의 주인이 되어 브리쿨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말이잖아?”

우리 주위를 스쳐가는 관람객 인형들을 뒤로하고 그녀와 놀이동산을 거닐며 잡담을 늘여놓는 동안 어느새 우리는 놀이동산 회전목마 앞에 서 있었고 쳇바퀴 태엽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그녀에게 말했다.

“반송장 주제에 의외로 사고가 잘 되나보네. 그래, 전부 맞아.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베르체의 인형들은 어른들의 사정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들을 가진 인형들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일어난 분란속에서 사랑받지도 못한채로 부숴질 수 있는 상황을 더이상 가만히 보고 있

지 않을거라는 뜻이야.”

“좋아. 원하는게 그것 뿐이라면 잠시 어울려줄게.”

“어울리는게 아니라 결국 너도 원하는게 있으니까 실타래에 이끌려서 이곳까지 기꺼이 발걸음을 한 거잖아. 네가 원하는걸 말해.”

“…허무를 채우는 것.”

“카르밀라를 뒤집어 쓰고도 아직도 채워지지 못했나?”

“아직 부족해. 한참이나….”

“아벨의 자손도 마찬가지겠지만 카인의 핏줄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단 말이지. 아니, 고갈이 되어있다고 보는편이 맞겠네. 하지만, 그것을 채워가려고 무던히 애쓰는것은 우리가 죽은자도 영혼이 없는 꼭두각시도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말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것만 같은 산송장 주제에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그것은 역겹게도 후련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것과 동시에 브리쿨의 장막이 놀이동산에 펼쳐지고 샤마인의 귀족들이 놀이동산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질투의 실타래를 쏟아내며 만족스럽게 놀이동산의 퍼레이드를 즐겼다.

“이것봐. 꼭두각시 인형들의 안에도 아직 붉은 피가 흐르고 있잖아.”

『 나들이 』

정신을 놓아버린채 속 편하게 잠들어버린 돌연변이를 질질 끌어가며 푸른 포화속을 포기하듯 걷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릿하게 떨어지는 푸른빛들 사이에서도 기괴한 모습을 하고있는 그것은 어두운 악몽속에서도 눈에 띄게 빛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그것은 고요속에서 힘차게 입을 뻐끔거리며 외침에 놀라서 깨는 그 순간까지 줄곧 반복되는 시간속에 갖혀있다가 어느순간 조용히 회상속에서 눈을 떴다. 날아갔던 의식이 돌아온 순간 무심코 가볍게 들이쉰 들숨으로 온몸을 휘감는 격통에 피가 차갑게 식는것이 느껴졌다. 그제야 달콤한 꿈에서 현실로 무자비하게 돌아왔다는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더불어 나에게 쏠려진 시선을 향해서 거칠게 몸을 돌리자마자 꿈에서 본 그 흉물을 눈에 담고나서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날을 바짝 세우며 그를 향한 경계심을 드러내지않고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다.

“아벨의 자손이구나. 하지만 그 모습은 아벨의 것이 아니네.”

“그것참 유감이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것이 썩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풍경은 아니라서 말이야. 그렇지만 적어도 네가 사지 멀쩡하게 눈을 뜨는것도 의사인 이 몸이 너를 살려내었기 때문이지.”

“그래, 그 난리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냄새는 너였구나.”

“냄새라니 실례잖아. 그리고 자의에 의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그럴수도 없었다는 점이 슬프긴 하지만 말이야.”

“그런곳에서 어슬렁 거리고있던 이유는 뭐야?”

“허기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욕구는 생각보다 크더라고.”

“자기만족에 얼마나 취해있으면 그런 위선에 집착하는거지?”

“자기만족을 원하는것은 비단 죄악의 죄종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야. 오히려 나약한 아벨의 자손들이 오히려 그 유혹에 쉽게 빠지는 편이지.”

내 앞에서 죄악을 심도있게 이해하는양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를 겸허히 내뱉는 아벨의 자손은 우월감에 취해서 그것을 내뱉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의 혀 끝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허무함과 쓴맛 때문이었다. 무엇이 그를 스스로 그렇게까지 몰아 세웠는지 궁금증이 들었기에 나는 참지못하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넌 뭐야? 여기는 어디고?”

“한눈에 봐도 너와 다를바없는 죄악이지.”

그는 흉물스러운 몸뚱아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서도 그의 몸에 난 암덩어리는 뭉개져 진물이 스물스물 새어나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것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나도 모른다. 나는 말문이 막힌듯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이야. 너에게선 나와 같은 냄새가 안 나.”

“죄악의 형태만 다르지 그 본질은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는 페르

티가로. 페라투르의 음욕이라면 들어본 적 있겠지?”

“식사 후의 휴식공간….”

“그래. 아벨의 자손이 하기에는 다소 웃음이 나오는 말이겠지만 식사 후의 휴식공간에 온 걸 환영해. 페라투르 접경지이긴 해도 보아하니 너처럼 기품있는 음욕에게있어 오히려 이곳은 더없이 낯선곳일테지.”

그의 말 대로다. 익숙하지 않은 이곳이지만 그래도 그가 나약해진 나를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그의 신원와 의도를 파악해야만 했다. 그해서 나는 다소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음을 이어나갔다.

“넌 아벨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죄악중에서도 하필이면 가장 우아하지 못한 탐식의 죄악을 뒤집어 쓰게된거야? 불쌍하기도 하지.”

“죄악을 등에 업으려는 자가 어디 있겠나? 이건 인간인 아벨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침식된 인재라는 거야. 이렇게나 엉망인데 산재처리도 안 되는건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별 수 있나.”

그렇게 말하고 나를 가만히 나를 살펴보던 그는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쓴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젓는것을 보고는 그것이 농담이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의 신원이 죄악에 침식된 아벨의 자손이고 쓰잘데기없는 농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만 적어도 위협을 보이지않고 무엇보다 아벨의 자손의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 카인의 핏줄인 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

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은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사고회로가 돌아간 듯 나는 주위를 다급하게 두리번거리며 그에게 물었다.
“내가 지키고있던 푸른 암덩어리는 지금 어디에있어?”

“지키고 있었다라…. 재미있네. 아, 그 돌연변이 흉물은 크기도 그렇고 표본으로써 보존이 불가능해서 샘의 경계에 두고왔어.”

“안돼, 안돼, 안돼….”
“정말 말도 안되는 생명반응이지. 그것을 밀폐된 용기에 담으면 숨이 막혀버린듯 죽어버리고 살덩어리를 떼어내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시들어버려. 쟈토움의 육신과 융합이 된 나와는 조금 다른것같단 말이지. 암덩어리 치고는 너무 빈약하지만 약이라고 하기엔 조금 치명적인 것이라고 해야하나? 복잡하단 말이지.”
나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채로 미간을 잔뜩 구기며 연신 중얼거리고 있는것도 모르는지 내 말을 무시하고 신이나서는 자기 할 말을 잔뜩 뱉어내다가 다시 내 상태를 보더니 그제서야 자기도 당황한듯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정신차려. 네 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못하는 그것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을 내 안에 담아 두었으니까.”
“그게 가능해?”
“아벨의 자손이지만 쟈토움의 혈액과 융화되어 지금 나는 그것들과 다

름없는 육신이라서 네가 말하는 푸른 암덩어리는 지금 내 안에서 부패없이 무사히 보존중이라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얼빠진 얼굴을 하고있는지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피식 웃더니 확인을 시켜주려는듯이 메스로 자신의 가슴을 순식간에 그어냈다. 내 얼굴에 피가 튄 것도 모른채 나는 그 푸른 살덩이가 그의 심장 주변으로 봉합해놓은 것을 확인했다.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가만히 보니 자신의 심장으로 그것에 혈액을 공급하여 보존하고 있는것처럼 보였다.

“…다행이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나는 벽에 기대어 스르륵 주저앉았다. 나는 안도감에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든 생각때문에 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잠깐. 내가 그것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알았지? 애초에 너는 그 난리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거야?”
의사라는 놈은 한숨을 쉬고 절개한 가슴을 깔끔하게 봉합을 하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웃으며 내게 말했다.
“네가 뭘 원하는게 뭔지 내 알바냐고. 미안하지만 너를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 그걸 거두어 온거야.”
“그것을 어디에 쓰려는건데?”
“당연한것 아니야? 나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 심장 옆에서 절

대 멈추지 못하고 뛰며 나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갈거고 평생의 연구 자료가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위한 토대가 되겠지."

"평생이라고? 나에게 그만큼의 시간은 없어."

"무슨 말이야? 카인의 핏줄의 시간은 영원하잖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음, 페라투르의 음욕이라면 당연한거 아니야?"

나는 사뭇 진지하고 단호했지만 조금은 들뜬 어조로 그의 말이 끊으려는 것처럼 바로 말을 뱉어냈다. 그는 음욕의 죄악에서 나온 그 말에 조금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내게 되물었다.

"…영원히."

내가 조금 망설이다 그 말을 꺼내자 그는 행복하지만 금방이라도 울것만같은 일그러진 얼굴을 하다가 눈을 질끈 감으며 혼잣말하듯 말했다.

"하하하…. 구원인가?"

"뭐?"

"하하! 아니야, 아니야. 잊어줘. 영원히라. 좋지."

피폐한 몰골로 분명 그는 구원이라는 말을 연신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오랜만에 그녀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가면서 그에게 말하는동안 나는 어느새 마음은 차분해지고 안정되어 지난 걱정도 잊을 정도였다. 어느샌가 그도 차를 내오며 내가 쉴틈없이 쏟아내는

그 이야기를 즐거운 듯 가만히 듣고있었다. 아벨의 자손들이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저편의 영역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그는 눈을 밝히며 감탄하듯이 말했다.

“재밌네. 그럼 너희들은 꿈에서도 할 수 있는거야? 실용적이잖아?”

“…우리 사랑을 그딴식으로 말하지 말아줄래? 더럽잖아.”

의사는 내 다소 무거운 사정과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저질스럽고 이따금 가벼운 농담을 던져댔다. 그것은 아마도 의사가 나를 위해 행한 배려였을 것이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난지 얼마 되지않은 사내에게 그동안 사랑하는자와 쌓았던 추억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침을 흘려대며 연신 맛있겠다라는 말에 그 혓바닥을 몇번이나 녹여버릴 충동이 들다가도 탐식의 죄악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시시키자 오히려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도 한시가 급했기에 그의 사정은 뒤로한채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말해줘.”

의사의 짧은 침묵이 대답을 대신했다는 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의 살점을 절개하지 않아도 피부 안쪽으로 희미하게 요동치는 푸른 살점은 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태평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자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신의 살

점을 곱씹어가며 천천히 분석을 시작했다.

“형질은 나와 비슷하게 융합되었지만 적합성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쟈토윰과의 유전형질이 100%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운이 좋게 죽을 수 있는거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운이 좋다니? 죽고 싶어?”

내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그에게 원망하듯 물었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가르키며 답했다.

“그럼 이런 꼴을 하고도 숨쉬는걸 축복이라고 할거야? 이런 몸뚱이를 하고도 넌 그녀를 사랑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과 말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당신들이 흉물로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을 과연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입 밖으로 자신있게 꺼낸 그 대답을 다시 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 혐오감이 올라왔다. 그렇게 자책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다독이며 말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그녀도 머지않아 너처럼 추악한 모습을 하게 되는거야?”

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것은 단지 그녀의 외형이 역겹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점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래. 머지않아 나와 다름없이 흉물스러운 형상을 띄게 되겠지만 처리를 한다면 적어도 아벨의 자손의 형상을 한 채로 눈을 감을수는 있을 거야. 걱정하지마.”

“너도 내 모습이 역겨워?”

말도 안된다. 나처럼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품은 존재가 당연히 역겨울리가 없다.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에게 그리 물어본것은 지금 무슨 대답이라도 들어야지만 조금은 후련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그럴리가 있겠냐. 세상 어느 누구나 아름다운 존재에게 이끌리기 마련인데 감히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없지. 더군다나 지금의 내 모습을 봐라. 누가 누구를 혐오할 수 있을만한 여유가 없는 몸뚱이라고! 하하!”

“…미안해.”

“됐어, 그만해. 추악하게 변한 네 인연을 역겹다고 한들 너를 나무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테니까. 그렇다고 네 사랑이 식거나 변해버린 것은 더더욱 아닐테고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뭐야?”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있단다, 음욕의 죄종아.”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형태의 사랑이라….”

내가 입에 담은 말이 그 스스로도 마음에 들었는지 기분좋은 표정을 하고는 여유로이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홉을 맛있게 빨아댔다. 그 모습은 마치 페라투스의 음욕이 먹잇감의 정기를 음미하는 듯 했다.

“맛있어?”

“돌겠네. 여지껏 담배도 안 태워본거야?”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답하자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입에 물고있던 담배를 떨구었고,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며 떨어진 담배를 다시 입에 물고 말했다.

“떠나간 이를 잊기위해선 이만한것도 없겠지만 하지마라, 이런거. 네가 지닌 너만의 향기가 씻겨 나간다고. 엉망진창인 돌팔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군.”

“…알았어. 고마워.”

“그녀의 상태는 어때?”

그의 물음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향기를 짚어보았다. 한참을 그것을 음미하고나서 울상을 짓고 말을 잇지 못하자 의사도 그 얼굴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조심스레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내게 물었다.

“왜 그런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거야?”

“그야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릴수록 그녀의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째서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까워 질수록 왜 정작 나는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없는건지 모르겠어.”

“…그것 참 안타깝네.”

잠시나마 그녀를 회상하면서 지나간 즐거운 시간이 꿈처럼 흩어져버린 지금 이 순간의 침묵이 너무나도 숨이 막혔는지 그는 담뱃불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내게 말했다.

“너희 함께 여행해본 적 없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녀가 품은 똑같은 암덩어리를 담고있는데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말했잖아. 의사니까 뭐 대충 알아.”

“그녀를 이리로 데려와. 분명 도박수가 될 테지만 그동안 푸른 살점을 연구하면서 완화제로 시간을 늘리게되면 조금 뒤엔 치료제를 만들게 되겠지. 죽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치료제에 기대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네가 그녀에게 가줄 수는 없는거야?”

내가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미 알고있지 않느냐는 말투로 의사에게 청하듯 묻자 그 역시 내 말에 담겨져있는 의도를 파악하고는 안타까운듯

이 자신의 연구실을 소개하듯 팔을 펼쳐보이며 말했다.

“너도 알겠지만 이것들을 전부 옮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는 죽여달라고 퀴나즈들에게 광고하는 꼴이잖아, 안그래?”

“…할 수 밖에 없나?”

“물론 퀴나즈의 눈이 있어서 힘든 길이 될거야. 그녀에게 가는것은 힘들테지만 그녀와 함께 이곳으로 오는것은 더더욱 힘들테지.”

의사는 자신의 투가 너무 단호했다고 여겼는지 내 눈치를 보다가 헛기침을 몇번 하고는 멋적은듯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할 수 있겠어?”

“그녀가 살 수 있다면 몸이 갈려나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슬픈 소리는 하지마라. 소중한 사람이라면서. 그녀는 너에게만 소중한 사람이야? 너도 그녀에게 소중한 사람일거야. 그러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을 함께하라고.”

“…그래, 알았어.”

의사가 무심코던진 그 말이 오랜동안 가슴속에 잔잔히 퍼졌다. 나는 그것을 한참 곱씹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가벼운 고갯짓으로 대답을 대신한 그는 잠시 우물쭈물 하는듯 하다가 그는 자신이 오랜동안 이어온 연구에 몰두하는 듯 했다. 나도 그 모습을 눈에 담고나서 바로 등을 돌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한 길에 오를 채비를 했다. 마음을 추스리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등 뒤로 분주하게 시약병이 부딪히는 소리와 책장이 부지런히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위해서라지만 알게 모르게 생면부지의 이들을 위해서 힘써주는 모습이 아벨의 자손들이 입을모아 말하는 성인군자의 모습과 닮아있는듯 했다. 바람소리와 함께 귓가에 실려들어온 그것은 내가 잘 못 들은것이 아니었다.

“소중해? 그 순간을 함께하라고…. 하하하….”

담뱃불을 짓이겨끄고는 웃으며 자조하는 그의 목소리가 방 밖으로 조그맣게 들려왔다. 흉측한 몰골을 하고있으면서도 유쾌함을 잃으려 하지않는 그의 당당한 목소리가 왠지 너무나 가슴 시리도록 슬프게 들렸던 것인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는 슬픈 일일지도 모른다.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당장 지금 내가 해야할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다. 물론 크고작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내가 그녀를 향한 마음만큼이나 크지 못했다. 내 앞길을 막아세우던 것들의 정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뽑아냈으니 어느새 내 몸과 옷가지는 그녀의 것이 아닌것들로 얼룩져 있었다. 오랜만의 재회인데 단정하지 못하게 그 얼룩들을 남겨둔채로 맞이할 수 없었던 나는 계곡물에 몸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 뒤로도 몇번의 달빛을 넘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저택으로 가는 익숙한 길에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코 끝

을 간지럽히는 그리운 향기에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이 몸에 긴장이 풀린듯 다리 주위가 기분좋게 저려왔다. 저택 문이 열리고 메이드의 안내를 받아 정원을 가로지르는 순간, 3층 안채의 커다란 창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윤기 흐르는 머리칼과 함께 그녀가 반가운 듯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어보이며 나를 반겼다. 그리고 방문 앞에 선 나는 한숨을 깊게 쉬고 문을 활짝 열자 침대위에서 그녀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줬다. 오랜만에 맞이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보고 느낀 수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했다. 당장에라도 그녀를 품에안고 밤낮으로 몸과마음을 뒤섞고 싶었지만 나약해진 그녀의 기력으로 그것을 쉽게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쇠약해진 몸으로도 나를 향해 웃어주는 미소와 가녀리지만 자애로운 그녀의 포옹은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달콤했다.

"그래서 나들이는 어땠어?"

그의 천진난만한 맑은 울림에 나는 들떠서 더욱 우스꽝스러운 움직임을 하며 지난 이야기들을 노래하듯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당연히 이야기에는 부드러운 장막을 쳐놓았다. 그녀에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도 놓치지않으려는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보다 빛나고 있었다.

"너한테 보여주지 못한것이 너무도 아쉬울 정도로 예뻤어."

"나도 네가 보았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싶어."

“그래서 말인데 답답한 방에서 나와서 커다란 하늘을 품어보고 싶지않아? 아무런 방해없이 우리 단 둘이 말이지.”

“좋아!”

망설임없는 그 한 마디가 내게는 왠지 쓸쓸하게 들렸다. 어쩐지 그녀도 자신의 몸 상태를 이미 알고있었기에 그 대답을 바로 내놓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나는 애써 그녀에게 웃어보이며 시덥잖은 농담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런 나의 새로운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영원히 담아두고 싶을 정도였다. 어느새 그녀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웃어댔다.

“하하! 그런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거야? 술에 찌들어있는 아저씨 같은 농담 같잖아! 바보같아.”

“그럴줄 알았어! 그 자식! 여자한테 잘 먹힌다고 해서 배워온건데!”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노력은 안해도 되는데 말이지….”

재잘거리는 와중에도 그녀가 혼잣말처럼 한 말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도 그녀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런것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서로의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소중하기 그지없었다.

“그럼 오름이슬 새벽별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을때 출발할까?”

“응! 좋아. 들로레스도 데려가자. 음, 그리고 이전에 골동품 상점에서

가져온 투구도 필요할거구. 안포르텔의 부적도 들고 가야겠지?"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밝은 분위기가 그리웠는지 오랜만의 들뜬모습을보고 들로레스도 기뻤는지 연신 꼬리를 흔들어대며 즐거워했다. 나는 오랜동안 그려온 평범하고도 소중한 그 모습을 잠시 눈에 담았다 그리고 들로레스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 눈을 아련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들로레스는 안타깝지만 데려갈 수 없어. 언덕 위의 엠마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으니 당분간 그녀가 봐주실거야. 그리고 투구같은거 들고가봐야 짐 밖에 되지 않을거야. 그리고 안포르텔의 부적은 대체 왜 들고 가려는거야? 그런거 없어도 내가 널 지켜줄건데."
"아니. 이건 내가 아니라 너를 지켜줄 부적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부적이라는건 내가 들고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안포르텔의 부적은 사랑하는 사람이 들고있어야 비로소 그 기도가 닿는다고 해. 그러니 내가 당연히 지니고 있어야지."

"너무 든든한데?"
"그치? 역시 나 아니면 널 봐줄 사람이 없다니까?"
그녀는 익살스러운 얼굴을 하더니 자랑스러운듯 가슴을 활짝 피자 하늘거리는 잠옷 아래로 백옥같은 살결이 그대로 비쳐 드러났다. 그리고 차창너머로 불어오는 산들바람과함께 그녀의 향기가 내 깊숙한 곳으로 기

분좋게 스며들었다. 우린 서로에게 안겨서 깔깔거리고는 그대로 뒤엉켜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꿈길속으로 빠졌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녀의 품안에서 기분좋은 시간을 보낸뒤로 오름이슬 새벽별 잠자리에 들어 푸른 빛이 우리를 감싸줄때 우린 저택 밖으로 나섰다. 우리는 필요없는 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큰 여행용 가방 하나만으로 준비를 마치고 난 뒤에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고도 긴 나들이를 나섰다. 단언컨대 그 나들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여행일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볼까?”

그렇게 다짐을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내 스스로 다독이듯 그 말을 꺼내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그녀는 내 손을 가볍게쥐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보자 어느새 근심은 사라졌고 나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 창조경제 』

황폐한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여져있어 항구라고 말 할 수조차 없을정도의 처참한 수준의 모습이지만 계약을 통해 영해권을 개방하여 마녀들의 만을 모항으로 지정했던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수많은 전리품을 손에넣어도 그것들 전부 베누밧실에 보관하지 못했고 그것들을 담아둘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일이었지만 기분나쁜 공허의 손길이 닿은 덕분인지 이곳에는 불경한 이들조차 발걸음을 꺼려하는 듯 했기에 이곳이야말로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나 다름없었다. 그것들 중에서도 마녀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품들은 이데아의 것이 아닌 기괴한 형태를 하고있는 조각상이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식으로 작동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조각따위에 공허의 속삭임을 투영하여 실제로 카하낫과 접촉하기 위한 직접적인 매개로 쓰는걸 본 적도 있었다. 공허에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나 그것으로 공허의 단편을 상상하며 더욱더 공허에 심취한 마녀들 덕분인지 심해에서 건져올린 기괴한 문양과 우상들로 인해 그것들과 우호를 쌓기에 충분했다. 마녀들의 만에 정박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뒤틀린 대부호들과의 연도 닿게 되었으니 지적 허영심과 초자연적인 산물을 향한 호기심으로 가득찬 그들만의 사치는 굳건한 사업기반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색함을 끄집어내는 훌륭한 시발점이 되었다. 그저 죄악을 품은 해적따위가 아니라 엄연한 바다를 제패하는 패자로 당당하게 올라서며 우리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했으며 그들이 토

해내는 인색의 죄악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충분히 훌륭하고도 값진 식사였다. 예상은 했지만 카인의 품은 일곱의 죄악은 하나의 죄악에 충실하지만 아벨의 자손인 인간들은 진정으로 죄악,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 담긴 그것은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으리라. 어쩌면 이실그라드 혹은 이데아 혹은 창조주 에르아보다 먼저 손에 쥐어야 할 것들은 아벨의 자손이 먼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느새 그들과 오랜동안 자주 조우하는 동안 확신이 들었다. 그렇기에 나와 베누밧실 그리고 수많은 선원들은 오랜시간을 뭍 위에서 참고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마침내 그토록 내가 고대하던 그 때는 여느 날과는 사뭇 다른, 달빛 조차 고개를 숙이며 새까만 어둠이 드리워진 밤이었다. 새벽녘 어둠을 뚫고 마녀들의 해안에 정박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항구에 닿자마자 그들은 항만에 밧줄을 펼쳐서 베누밧실을 고정시켰다. 베누밧실이 자리에 고요히 잠들자 선원들은 수하물들을 부지런히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이 떨어질 때 수평선을 스치며 떠오르는 빛의 시간이 이전과 다름이 느껴졌다. 그것은 아벨의 현신이 기울어진 빛 위로 강림했을 때처럼 드는 기시감이 느껴졌다. 파도의 색과 소리 불어오는 바람 대기중에 느껴지는 습도 새들의 지저귐 구름의 움직임으로 보았을때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바로 성가신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뒤틀린 빛이 사그러지고 있다는 징조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돌연 아벨의 현신이 남긴것은 죽음 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뇌리에 스치고 나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흩어지자 베누밧실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듯 일제히 나를 바라본다.
“아벨의 현신이 추락했다. 그리고 폭풍우가 밀려올테지.”
어느새 내 곁에 다가온 세기오는 놀라는 듯 하였으나 언제나 감이 좋은 내가 던진 말에 어느새 의심은 하지않으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이라는것을 방패로 내세우던 그의 인색함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초라하더군요. 그저 시간 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땅에 떨어졌을 편협하고 협소한 바람을 품은 존재였던지라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남겨진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거다. 타버리고 남은 잿더미에서 불씨는 더욱 강하게 피어오르는 법이니까.”
“남겨진 아벨의 현신이 무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아벨의 현신이 어떻게 빛을 뒤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축적했다고 생각하나? 그 힘음 믿는 자들의 기도에서 훔친것이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남아서 발버둥을 치는것은 아벨의 현신과 그가 흩뿌려놓은 빛의 찌꺼기들이 아니라 그 거짓된 구원에 매달렸던 남겨진 자들이 더욱 미쳐서 날뛸거라는 말이네. 자신이 기도하며 소망하던 모든것들을 빼앗겼으니 말일세. 그것이 무언가와 닮아있다고 생각하지않나?”

“그렇군요. 빼앗긴것을 되찾으려는 그것은 꽤나 오랜동안 레위앗에 피에 새겨져있던 익숙한 감각이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베누밧실에 승선

하고난 뒤 인색함을 억눌러야만 하는 시간이 잦아지더군요.”
심해의 품을 뒤로한채 오랜동안 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말라붙은 비늘 때문인지 선원들의 신경은 베누밧실의 어금니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세기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새어나오는 인색의 죄악을 감출 수 없었는지 항구 주변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합판과 철제 건축물들이 휘어지고 뜯겨져 나가며 신음하고 있었다. 세기오의 광기에 공명하듯이 선원들은 입을 맞추어 낮은울음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들의 대화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어느 누구도 시들지 않는 광기에 빠진 눈빛을 하고있었고 왠지모를 뿌듯함에 웃음이 나올 뻔 했다. 이들 하나하나 내가 직접 눈여겨 본 인색의 죄악이 깃든것들이다. 베누밧실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해에서 끌어올린 죄종들이다.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있는 나를 미친 눈깔을 부라리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도 거친 파도가 해안을 때리며 소리가 부서지듯 흩어진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물 밖으로 기어 나오는게 그렇게나 어렵던가?”

“건조한 물 밖의 공기에 피부가 말라 뜯겨지고 핏물이 새어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작 살점 하나를 얻기위해 바스러진 선원들을 복구 시킬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원들이 품고있는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그 말에 답을 하려는듯 저 멀리서부터 일등 항해사 기예르모가 선원들의 어깨를 거칠게 치고 나오면서 말하더니 어느새 나와 세기오 앞에 섰다. 말하지 않아도 오랜동안 베누밧실과 함께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그는 이미 내 항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에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선원들의 곁에 선 것이다.

“의심을 하고있군.”

“의심보다 항해에 대한 보답이 필요한것일 뿐입니다. 아벨의 자손들이 누리는 호사나 허영심이 레위앗의 포만감을 만족시킬리가 없다는 것은 제독님께도 물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선원들의 갈증 정도는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대들이 진정 그것만을 원하여 베누밧실에 오른것은 아닌걸로 아는데? 정말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베누밧실에서 내려도 좋다.”

“아직 뭍에서 해야할 용무가 남아있다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아벨에 담겨있는 그것에 용무가 남아있는거지. 인간들은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징성이라는 무의미한 것들에 한없이 집착한다. 나는 그 인색함에 아주 가볍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들을 도우면서까지 우리가 얻는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뒤틀린 웃음을 지어보이며 주변 선착장의 구조물에 인색의 죄악을 쏟아붓자 그것에 심해에서나 보던 이끼와 촉수가 뒤엉킨 모습으로 살아

숨쉬는 형태를 지니며 꿈틀대고 꿀렁이며 액체를 토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인색함을 돋구는 행위가 그들을 돕는것처럼 보이나보군. 그러나 부서져버린 구원 뒤에 남겨진 존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그것은 다름아닌 기도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소망은 결국에는 뒤틀린채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잠식될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일대를 침식시키며 사방으로 일그러진 형태로 육지를 뒤덮을 것이며 그 뒤로 인색함이 만들어낸 침식의 흐름을 따르며 우리들은 물 밖에서도 갈증으로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채로 미친듯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이다.”

“당신은 아벨의 현신이 떨어진 그 곳까지 나아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 순수한 영혼을 연료로 만들어진 현신이라지만 그것은 다른것도 아닌 무려 아벨의 영혼이다. 그러하기에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벨의 영혼이 잠시나마 깃들어있던 육신이 남긴 살조각은 어느 누구라도 탐내는 물건이 아닐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현신이 추락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소망을 품은 빛을 머금은 살조각 하나에 목을 매고 수많은 이들이 기꺼이 피를 쏟아내고 있는것이다.”

“이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항로를 바꾸는데 의심을 품으려는 이는 더이상 없겠지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풍족함은 선사하는 깊고 차갑게 가라앉은 심해에서는 차마 상상하지 못할 추악한 인색함의 또 다

른 얼굴이 뭍에 비일비재하게 펼쳐지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이래서야 또 무언가를 탐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이제야 내가 뭍으로 기어나온 이유를 알아봐 주는군. 그리고 이제 그대들도 조금씩 깨닫겠지. 고작 제 살이 말라 비틀어지고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것 따위가 두려워 뭍으로 나오지 못하는 심해의 인색함은 얼마나 하찮고 알량한 것인지 말일세.”

“구원을 잃어버리고 남겨진 자들을 굳이 궁지로 몰아 세우지않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흩어지도록 만드는게 관건이겠군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쉽사리 인정하고 기다리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이 사그러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그들에게 필요한건 시간이 아니다. 같은 인색의 죄악 바라보며 침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은 이미 나와 베누밧실 그리고 선원들의 해갈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될테지.”

“오호라! 그들을 베누밧실에게 먹이실 생각이시군요.”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만, 나는 그것들을 레위앗의 심해에 초대할 것이다. 그들에게 차가운 피를 건네고 그들이 그토록이나 원하는 보상을 선사하며 소망하는 바를 이룰때까지 베누밧실에게 기생시킬 것이다.”

“인원이 충원되면 그에따라 선원들은 자신들의 보상이 나뉘어지는 것이 뻔할텐데 그것을 달갑게 맞이하는 이가 있을리 없겠죠.”

“승선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베누밧실에 기생을 시킨다고 했다. 그들은 선원들의 방패가되어 저들 마음대로 죽을수도 없이 평생을 베누밧실에게 인색함을 주입시키는 것이 업일테니 말이다.”

“그들의 염원을 되려 이용하시는 겁니까?”

“옳다. 그렇게 침식된 인색함을 따라서 우리는 아벨의 떨어진 그 장소에서 아벨의 구원이 남긴 빛의 부산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일곱의 만도 골노랏의 흔적과도 멀어지게 된다. 당장 베누밧실 위의 선원들은 익숙하지않은 환경 탓에 초췌해져 있지만 나는 더 먼 지평선 끝자락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하니 의심따위는 거두어라. 그리 안달을 하지 않아도 마침내 그 때가 도래했나니.”

허리춤의 총에 손을 대고있던 세기오는 그 팔을 내려놓더니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웃음소리는 오랜동안 멈추지않고 마녀들의 대지를 흔들어댔다. 한참이나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끅끅대던 세기오가 가까스로 말을 이어나갔다.

“나, 세기오. 오랜동안 살았지만 지금만큼 즐거웠던적은 없었던 것 같군요. 레위앗의 심해 어느 누구도 감히 육지에 이렇게나 성공적으로 발을 디딜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심해의 인색함은 생각보다 상상력이 부족했던것이 아닐까?”

“그럴리가요. 우월감에 취한 당신의 기분을 망칠 생각은 아니지만 이

것을 시도한것이 당신 뿐만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행하려던 이들은 말 그대로 상상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아니면 계획이 부족했는지 하나같이 실패의 고배를 마셨지요."

"나는 단 한번도 차선이라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다."

"그동안 지켜온 바에 의하면 그만큼 확신이 있으셨기에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젊은피의 호기나 그저 무모함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계획이 틀렸던 적이 있었나?"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것이 당신의 손에 놀아난 것처럼. 아니 혹은 심해의 저주가 당신을 위해 웃음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기오, 나는 도박과 미신을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져줄 생각도 없기에 완벽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길을 연다. 모든 요소를 파악하고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며 패배로 집약되는 것들은 매제하여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승리한다. 그것이 나의 철칙이다."

"…지겨울 정도로 철저하시군요, 못 당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 한 줌의 인색함에도 눈을 돌리시지 않는군요."

"판도를 뒤집을 유능한 말들 없이는 그것조차 불가능하지."

그 말에 세기오는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는 기분이 좋은듯 아가미를 파

르르 한참을 떨다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 역시 나는 아직까지 당신에게서 뜯어낼것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기에 그 곁에서 조금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아주 좋군. 우리가 닿지 못한 심해가 있었나? 없었지. 하지만 육지는 어떻지? 그래, 그대들은 태양을 뒤덮는 먹구름을 타고 육지 위를 당당하게 항해하는 베누밧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전부터 심해를 화약과 포탄으로 무장하여 무력으로 지배하려는 이는 많았지만 당신처럼 나약한자가 기민한 계획뒤에서 무언가 여유있게 목을 죄어오는 끝없는 갈증은 이 나이에도 등골에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군요.”

“그러냐. 그럼 이번 기회에 모두가 듣게되겠군. 인색함이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안에 품고있는 갈증을 깨우지 못한다면 적어도 베누밧실의 아가리에 직접 들어가서 베누밧실과 남은 선원들의 부족함을 채우기위해 일말의 도움이 되라고 전해주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세기오와 기예르모를 지나쳐 계단을 천천히 타고 오르며 묵묵히 조타석에 섰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시간을 투자한 뒤에 서서히 매듭이 지어지면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계획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기위해 선원들에게 일렀다.

“그대들 안에 담긴 주체할 수 없는 추악한 인색함을 억누르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나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나서 이제 바빠질거다. 제군들. 부디 그대들의 갈증을 펼쳐내어 베누밧실의 물길을 열어주는데 힘써주게나. 언제나 그랬듯이 베누밧실의 아가리와 그대들의 갈증 앞에 서있는 모든것들이 그대들의 것일지니.”
그 차가운 속삭임에 입가의 일그러진 미소를 띄우며 으르릉 거렸다. 그것은 하늘을 검게 뒤덮은 먹구름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좀처럼 멈추지않고 계속 해안가의 파도소리와 뒤섞이며 기이하고 낮은 짐승의 흐느낌처럼 느껴졌다. 침식된 부둣가의 꿈틀거림도 그것들과 공명하면서 미친듯이 파도의 넘실거림에 몸을 맡기는 듯 했다. 선원들은 역시나 호전성을 잃은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명령에 따르며 그것들을 잠재우고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준비를 마치고 난 우리의 파도는 이제 어금니를 드러내고 육지를 집어삼킬 것이다. 오랜동안 그들은 곧 다가올 폭풍우의 전조에 취해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즐길 시간을 주었다. 세기오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선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젓고는 그것들의 잡음을 잠재우는 연주자처럼 발을 힘껏 내려차며 자세를 고쳐잡으니 선원들은 고요해진다. 그리고 내려치는 빗줄기와 함께 그의 낮은 목소리가 해안가에 잔잔히 울려퍼졌다.
“아니야, 아니지요. 조금 불쾌하군요. 베누밧실에 승선한 선원들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앞에서 힘든일에 불만따위를 토로하는 머저리가 아닙

니다. 그러니 제독님! 지시를!”

“그래, 그런가. 좋아!”

나는 목을 가다듬고 빗소리를 뚫고 선원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해가 지는대로 쥐새끼 한마리까지 아벨의 살점을 뜯어낼 수 있는 모든것을 가지고 갈테니 개인이 장비할 수 있는 최대한 긁어모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인색함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주머니는 가벼이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곳 마녀들의 해안에는 최소한의 충원만 배치하고 우리는 더 깊은 육지를 항해할 것이다. 총원! 부디 마지막으로 즐거운 잠에 취하도록. 빠른 시일에 그대들이 그토록이나 바라기 그지없던 이례없는 심해의 폭풍우를 육지에 쏟아내면 숨 쉬는 시간 말고는 쉬지못하고 폭풍우 위에서 춤을 출테니 말이다.”

그 말에 환호하는 선원들을 뒤로하며 나는 돌아서 남은 항해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선실로 향했다. 세기오는 내 뒤를 따르며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모든것은 일곱의 만을 쥐기 위해! 훌륭하군요.”

그 말에 나는 멈춰섰고 뒤 따르던 세기오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쳤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왜 다른 아벨의 자손들 중 마녀들과 접촉했는지 아는가?”

세기오는 갑작스러운 물음에 어이가 없는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당황

한 손짓을하며 내게 그 의중을 물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글쎄요. 그들이 아벨의 자손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에르아가 눈을 뜬 공허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다.”

“…공허의 창녀들이나 심취해있는 그것에 도대체 무슨 관심이?”

“나는 그저 일곱의 만을 손에쥐기 위해서 여지껏 베누밧실을 살찌운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실그라드나 그의 어미인 이데아를 탐하기 위해서 육지로 발을 돌린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녀들 구석구석 매만지는 골노랏을 손에 넣기 위해서도 아니다. 골노랏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도 나는 베누밧실에 오를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래, 이제 알겠나, 세기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부탁은 나의 주체하지 못하는 갈증에 부디 찢겨져 나가지 말라는 진심이었다.”

“당신도 마지막에는 에르아를 탐하시려는 게군요.”

“근접하다. 에르아를 손에 넣은 뒤엔 카하낫을 비추는 모든 별들에 나의 이름을 새길것이다. 그 뒤에는 여유로웁게 유유자적하며 베누밧실을 이끌고 쏟아지는 은하수 위를 항해할 것이다.”

“심해, 육지 다음은 은하수입니까? 정말 허무맹랑 하지만 어쩐지 말이 안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정말로 어쩌면 인색함의 크기는 상상력

에 비례하는 듯 합니다. 마음에 드는군요.”

“못할것도 없지. 공허를 헤엄하는 자들이 하는것을 우리가 못해낼리가 없지 않은가? 원하는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것이 마땅하지 않나?”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모자챙에 손을 대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마침내 예를 표하는 세기오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으며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아벨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빛의 구원이나 축복 따위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눈 앞에 쌓여진 엄청난 양의 재화였다. 그리고 그것들이 통용되는 장소에는 죄악이 넘쳐흐르기 마련이며, 그 중에서 인색의 죄악에 뒤덮힌 그 장소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넘치는 곳이었다. 죄악이 흘러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넘지못할 파도는 없다. 양질의 살덩이를 베어문 베누밧실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차오르며 그녀의 으르렁거림은 이 바다의 어떠한 것보다 늠름하고 소름끼쳤다. 상당히 크기를 불린 베누밧실은 마녀들의 만에 처음 정박했을 때와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 혹은 섬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의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더불어 베누밧실과 함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어온 선원들의 경험치도 상당했으니 다양한 부서와 직책이 책정되어 어느새 그것들 하나하나 모두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있었다. 내가

가진것들을 헤아리며 한껏 고양감에 취했고 그렇게 빛이 황폐한 대지를 비출때쯤 선원들 대다수가 베누밧실의 살점과 융화하여 그녀의 심장박동을 자장가 삼아 단잠에 취했다.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선원들은 눈에 불을 밝히며 강풍과 세찬 파도를 즐기며 베누밧실의 기지개를 켜게 도움을 주기 바빴다. 그렇게 다시 눈을 뜬 베누밧실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웅얼거렸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냐. 너도 그렇게나 기다린거냐…. 참으로 못난 주인이구나.”

그렇게 안타까움 반 그리운 감각을 되찾은 즐거움 반으로 그녀를 어루만진 뒤 폭풍 속 선원들에 속삭였다.

“출항이다! 이번 항로의 지침은 아벨의 육신이 떨어진 육지로 항해를 개시한다!”

그렇게 나는 이전에 담아두었던 아벨의 자손들에게 추출한 죄악을 마음껏 풀어대면서 육지에 탁한 물길을 열었다. 인색함으로 침식된 기반으로 뒤틀린 물길은 베누밧실을 포근하게 감싸안았고 그녀 역시 싫지만은 않은 느낌이다. 새삼 아벨의 자손이 쏟아부은 인색의 거대한 크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여 그에 대한 경외와 예우를 잊지않으며 감사의 표시로 머리챙을 쥐어잡으며 고개를 까딱 숙였다. 물길 위로 폭풍우가 우리의 출항은 반기는 듯 했고 거세게 몰아치는 빗물을 맞으며 우리는 그렇게

육지위를 실사천리로 항해했다. 반드시 이 출항은 전설로 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를 항해일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두기로 했다. 나는 기쁨을 참지못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폭풍의 전조. 파도는 황천. 최고의 날이지 않은가!”

『 빛과 어둠 』

드리워진 그림자는 빛의 꽁무니를 좇으며 집요하게 그것을 갉아먹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빛은 땅에 떨어지니, 빛과 어둠의 시간은 균형을 맞추었다. 아락슐이 아닌것으로부터 느끼는 자극을 만끽하며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끝에 어둠밖으로 나갈 수 있겠군.”

“어둠은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니 그것이 짧고 긴것에 의미는 없다.”

“다원의 라라드여. 어둠의 테두리 밖에서 살고자 한 나는 그들의 껍데기를 뒤집어쓰며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구원을 하나하나 마주함으로 나의 아락슐의 어둠을 더욱 깊게 물들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미리 그들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중이니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군.”

그녀는 깊고 검은 눈동자를 더욱 동그랗게 뜨면서 나의 변화를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리 하시게나. 내 어찌 몽상가의 풍경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꽤나 후련해 보이는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대가 하쉬무스의 그림자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은 그대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지 않은가?”

“어둠은 나를 품을 수 없는건가.”

“그런셈이지. 무욕은 투명하고 고요와 같을진대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려하지 않으니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걷는것이 옳다.”

“나는 진리에 닿은자가 아니라 변절자였군.”

“그대 눈 앞에 있는 존재는 다원의 리라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자이다. 그림자는 형태만 조금씩 다를 뿐 그 본질은 같으니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할 수 없음이라.”

“그런가?”

“이제와서 그런것 따위에 신경이 쓰이는가?”

“죄가 없는것은 무엇이요, 죄가 있는것은 무엇이지?”

“죄악을 짊어지지 않은것은 없다. 그렇기에 하쉬무스조차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 하쉬무스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짊어질 준비조차 되지않은 것들이라네.”

“무욕이라 부르는것마저 죄악으로 여겨지는가?”

“일곱의 죄악이 사라짐은 쉽게 말하자면 오감을 잃는 수순과 다름없다고 보면 된다.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은 뒤 청각 그리고 촉각 뒤이어 시각의 완벽한 차단. 그렇게 된 존재를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마찬가지로 일곱의 죄악을 모두 덜어낸 뒤의 그것은 죄악이 담기지않은 그것은 절대로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존재가 빚는 이데아가 비추는 색은 더없이 탁할 것이라. 그러하기에 욕구라는 것은 인간 어쩌면 이데아가 어쩌면 창조주 에르아가 만들어낸 우연으로 빚어진 최

고의 걸작이다. 불안정한 존재에 한줌의 죄악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을 순수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억제기인 셈이라."
푸념하듯 쏟아내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와서 무욕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가진것은 아닌것 같이 들리는군. 꽤나 오랜동안 그림자에 환멸감이라도 든 것이오? 그것이 아니라면 익스의 유산인 우리는 그저 불량품에 불과한 것인가?"

"오랜동안 외면해 왔지만 이바와 아다무스가 그랬듯 죄악으로부터 눈을 돌린 자들은 앞을 내어다 볼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어떠한 죄악도 짊어지지않은 그림자는 언제나 불안정한 존재나 다름 없었다네."

"…그래, 익스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본질적으로 그림자에도 죄악은 묻어 있을테지."
"이데아에 어느하나 서로 얽혀있지 아니한 존재는 없으니 그림자에 얼마나 가능성이 열려있느냐에 따라 어느 무엇이든 될 수 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익스의 어둠은 꽤나 적절한 시기에 몽상의 투르파라는 진리마저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리라드가 오랜만에 그림자 밖으로 나온 기분에 휩쓸려 그림자의 품에서 벗어나는 내게 그저 겉치레로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었다.
아락슕을 타고 흐르는 그녀의 고뇌가 전해졌다.
"일곱개의 대죄가 이데아에서 자취를 감춘다면 세상은 풍요로워질 것

인가? 혹은 다른 죄악의 힘에 삼켜져 다른 죄악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인가? 아니지, 둘 다 아닐세. 죄악이 일곱갈래로 찢겨져 대치되어 있는 현 상태에 감사해야 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 어느 하나라도 그 색이 바래진다면 모두는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더욱 커다란 악몽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악몽? 아니지, 그것조차 사치스러운 말이될테지. 빛조차 들지않는 짙은 어둠속에서 말이야."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하쉬무스의 그림자가 원하는것이 아닌가?"

"나는 물론 그대도 이미 했던 말이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조차 잔불은 그림자조차 불태워 버릴만큼 빛을 토해낸다고 말이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군."

"그래, 어둠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그러하지. 하지만 그러하기에 몽상속 옅은 그림자인 그대는 어쩌면 시오르그의 세 기둥만큼이나 아락슐을 깨닫게 될수도 있을지도."

"무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는 하쉬무스가 바라온 그것과는 거리가 머니 아락슐에 속박된 그대들이여, 어둠에 고이 잠들라."

"상냥한지고. 그래도 알겠지만 꿈은 결코 달콤해서는 안된다. 그것에 매료되어 나중에는 오직 그것에만 매달리게되어 그대를 피폐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의 기록을 위해서 그것을 새겨듣도록 하지."

“분명 몽상은 위대하나 반대로 그대의 불안과 염세의 크기마저 조율할 우 있다. 타인의 것은 문제가 되지 못하나, 반대로 스스로의 것을 부풀리게 된다면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아락슐은 물론이요 두번 다시 어둠조차 더듬을 수 없음이라.”

“그렇지도 모르지. 그럼 이만 나는 그림자를 옮길터이니, 하쉬무스도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어둠속에서 안식을 구하길 바라오.”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려의 말을 건넨 그녀의 목소리에 답하자마자 그녀의 그림자는 미소를 넌지시 건네고는 어둠속으로 흩어지더니만 이내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렇게 나는 빛을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잔뜩 찡그린 얼굴로 눈부신 광휘를 손으로 가리자 그제서야 주위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락슐은 한적한 외곽의 교회 앞으로 나를 인도했다. 망가진 소망으로 빚어낸 구원의 빛인 아벨의 현신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 절망은 없었다. 그것이 궁금하여 조금 망설이던 나의 발걸음을 조금 옮겼다. 그러나 왠지모를 서늘한 감각에 주위를 둘러보지만 일렁이는 그림자와 아락슐의 흔적에 나는 한숨을 뱉어내며 중얼거렸다.

“그새를 참지못하고 아락슐로 관음하고 있는것인가? 참으로 하쉬무스다운 음울한 취미이나 이제는 그조차 나쁘지않군. 관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따름이니. 더군다나 그들의 그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유쾌할 따름이라.”

그렇게 어둠을 등지고 그 안에 사는 그림자들을 비웃는 가운데 등 뒤에서 내 몸을 휘감은 아락숲이 미친듯이 진동하는것이 느껴졌다. 내가 그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자 초췌해보이는 사제가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 주위를 가득 메웠고,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가 날카롭게 그 공기를 가르며 내게 인자하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외지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은 무거웁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군요. 괜찮으시다면 들어 가시지요.”

“굳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실례했습니다. 오지랖이 과했군요. 마음이 무거워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그것은 길을 잃은 목자와도 같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해 보였던 탓에 그 발걸음에 숨을 살짝 불어 드리려 했을 뿐인데….”

“아닙니다. 하지만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제는 나를 지나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나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 자가 나의 그림자를 보는것은 아니지만 분명 빛을 조금이라도 머금은 어느 누구라도 내 그림자가 짙게 느껴짐은 어떻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내가 발걸음을 망설이며 밖에

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자 안에서 집무를 보고있던 사제는 그것이 영 신경이 쓰였는지 밖에서 청소를 하면서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내게 다가오더니 그 주위의 조경을 매만지며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있기에 스스로 부끄러이 여겨 함부로 아벨의 은총이 담겨있는 그 품에 안기려하지 않지요.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조금 벗어던지고 기꺼이 죄인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짊어지겠다는 작은 결심이 서 있다면 의외로 그 발걸음은 가벼웁기 그지 없답니다.”

“당신같이 빛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이들리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은총에 익숙해져 있으시겠지요.”
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자 그는 멋쩍은 웃음과함께 시선을 한없이 낮게 떨구며 텅 빈 눈으로 말했다.
“그럴리가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나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과오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기 그지없기에 그것을 속죄하고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 변방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염치 불구하고 아벨의 은총을 작게나마 함께 나누는 사제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관용과 겸손은 참으로 눈부시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이나 부끄러우며 마음이 무겁군요. 모쪼록 이들이 마음편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안녕할 수 있도록 힘쓰지 않으

면 안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내게 빛에 안기라 제안을했다. 마지못해 나는 못이기는척 나는 고개를 숙이며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떠밀리듯이 들어온 장소였지만 그곳은 아름답게 조형된 유리창을 통해 새어들어오는 빛 때문인지 밖에서 보던것보다 더욱 밝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비단 빛이 따스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던 탓이 아니었다. 작은 규모의 교회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표정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궁금하여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문제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기도하는 저들의 표정에 근심이 없는것인가요?"
"근심이 없을리 없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상투스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했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빛은 기도하는 자신의 그 모습에 있다는 것과 구원은 빛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나의 아락슘이 오히려 미친듯이 위험을 감지했다. 이렇게나 고요하고 차분한 녀석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이 사제놈은 위험했다.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해지않으면 익스의 유산이 남긴 그림자가 이데아에 남아있을지 모를 정도였다.

“그렇다면 구원을 기대하는 자들은 대체 어디서 구원을 찾아야한단 말입니까?”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아직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당신들에게 절망이 될 수 있듯이 당신들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운 무언가를 떠올린듯 슬픈 얼굴로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려 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아벨의 현신의 갈무리가 매듭이 지어지는대로 나는 이 자리를 떠나 구원의 다양한 형태를 눈에 담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분명 내 안의 믿음은 더욱 강해 지겠지요. 그 뒤로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빛입니까?”

“아니요. 새어나오는 빛은 굳이 보여주려 하지않아도 보이는 것이기에 제 아무리 포장을 하려한들 결국에는 그 빛이 쇠하여 땅에 추락하기 마련이지요. 그것은 비단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우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빛이되어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군요.”

“어렵지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요.”

“어째서죠?”

“그대는 이미 내가 그림자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것 부터가 범인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둠을 찢고 나왔을때 알고 있었죠. 보이지는 않지만 거미줄처럼 엮어내어 나를 응시하는 시선마저 기이하게도 내가 어렸을 때 상투스의 빛을 바라봤던 것만큼이나 차가웁지는 않아서 안심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락슐에 그 어떠한 흔들림도 전해지지 않는다. 두려움에 감각을 상실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실낱같은 빛은 흔들림없이 차분했다.

“그대들의 껍데기를 두르고도 아무런 방해없이 당신들이 구원이라 부르는 빛 앞에 당당히 섰지만 그다지 놀라지 않는 모양이군요.”

“놀랍기보다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 지더군요. 한때 그 빛이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기 때가 있었던지라 어둠을 품은이가 그렇게나 당당하게 빛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둠을 맞이한 당신이야말로 아벨의 구원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일개 사제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현신이 추락했음에도 여기서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한 것은 그가 죽어가며 흩뿌린 아벨의 은총 때문

이 아니라 그대의 덕이겠지요."
"이 미소와 마음의 안식이 모두에게 닿기를 바랄 뿐이죠."
"그것이 죄악의 무리들과 불경한 존재들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요?"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둠이 세상 모든 빛을 꺼뜨릴 수 없는것처럼 안타깝지만 빛이 모든 어둠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없겠지요."

무언가 슬픈 표정을하는 그의 말은 유감과 단호함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그의 말에 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속내없이 털어놓으니 조금은 더 편한 느낌이 들었다.
"곤란한 물음을 하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후련하군요. 나는 결코 차갑게 내려앉은 어둠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당신같은 이를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기다려 왔다는 말은?"
"글쎄요. 당신같은 깊은 어둠을 맞이하며 그것과 함께할수록 언젠가는 아벨의 자손들도 자신 안에있는 어둠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보이는군요."
그의 말을 들을수록 그림자속을 벗어나 빛을 마주하려 발버둥치는 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 묘한 동질감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손을

짚어가며 빛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가웠다. 반대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던 그의 마음도 분명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희망을 위해 기꺼이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가시는군요.”

“정 반대되는 길이겠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교회 주변의 청소를 하는 사제의 곁에서 함께 걷는 우리는 어느새 평생을 함께한 벗과도같이 오랜시간 말을 나누었다. 밖엔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났고 시끌벅적하게 서로 뒤를 쫓으며 장난을 치던 아이들의 지저귐도 잦아들었다. 그럴수록 나의 아락숱은 눈 앞에 있는 사제의 어둠을 매만지고 있었다.

“즐겁네요.”

“그렇군요. 이렇게나 무방비하게 카인의 핏줄 아가리에 있던적은 아벨의 현신이 몰락하기 직전에 조우한 이후로는 처음이네요.”

“이전의 조우라면 이미 카인의 핏줄을 맞이한 적이 있으시다는 말인가요? 그러함에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니 굉장한 분이군요.”

“아니요, 그녀는 언제라도 내 목에 은빛의 칼날을 쑤셔박을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하는 다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찾았던 무언가를 저 역

시 찾을수 있지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이른 시일내에 빛의 은총이 담긴 이 땅을 떠나볼까 합니다.”

“구원의 빛을 나누기 위한 순례의 길입니까?”

“아니요. 부족한 지금의 저로서는 그렇게 원대한 길에 오를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휘가 아닌 다른 이들이 바라는 구원을 직접 마주하지 전까지 이상적인 구원의 형태를 떠올릴 수가 없더라구요.”

“그렇군요. 아벨의 자손들마다 바라는것이 모두 다르겠지요. 구원이라는것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마주할 용기도 필요하기에 그 결심은 분명 작은 것이 아니겠지요.”

리라드가 그러했듯이 그 사제의 시선 역시나 나의 그림자를 꿰뚫고 그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입가의 작은 미소와 함께 흔들림없는 눈과 함께 말을 이어갔다.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낙원에 새겨진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 두 눈에 담고싶네요.”

그의 말은 너무나도 뜬구름을 잡는듯 허황된 꿈같은 말이였지만 어째서인지 그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에 압도된 나는 그것에 먹히지 않으려 나를 휘감은 아락슐을 거칠게 뽑아들어 사제 내뱉은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세트의 후예나 카인의 핏줄들이 바라는 구원까지도 말인가요?”

“네.”

“그것은 아벨의 자손이 바라는 형태는 아닐텐데 굳이 그것을 보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든이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의 현신이 빛을 잃을때 그것은 더욱 확실해졌지요.”

“구원이 무너지고나서 당신의 세계는 바뀌었군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 역시 빛에 눈이 멀어 맹목적인 기도에만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떠들던 사제는 잠시 나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한듯 조심스레 나의 외통수를 찌르는 듯한 호칭과 함께 나의 의중을 떠보았다.

“형제님께서는 구태여 나약해진 이들의 마음에 어둠을 심으려 굳이 이 먼 곳 까지 발걸음을 하신것은 아닐테지요?”

“일단 저도 당신과 같은 일념하에 그림자를 찢고 빛을 마주하려는 상태이기에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나는 말끝을 흐리다가 이때다 싶어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물었다.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지만 그대와의 동행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은 고행의 길이며 저 나름의 속죄이 길이기에 유쾌하지 않기만할 고된 길을 감히 함부로 권유하기 힘들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를 응시하

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를 보아하니 거절할 수 없겠군요.”

“바보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당신에게 배울 것이 많을거요.”

“그렇다면 부디 즐겁게 덧없는 아벨의 자손의 우스꽝스러운 몸부림을 즐거이 바라봐 주시구려.”

그렇게 그는 고개를 숙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 채비를 했고, 모두가 자리를 비운 텅 빈 교회의 별채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교회의 드리워진 그림자를 베개삼아 간만에 달콤한 꿈속에서 아락슐을 휘저었다. 비록 그 꿈의 끝은 다르지만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은 같다. 누가 어둠을 걷고 누가 빛의 길에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에 우리는 다른 서로의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그것조차 역사의 단편으로 봤을때는 그저 즐거운 우연이다. 그 즐거움에 아락슐은 교회 주변에 짙은 어둠을 내리깔았다. 그리고는 믿음이 약한이들의 달콤한 악몽을 마셨다. 해는 늦은 시간이 되도록 교회를 비추지 못했지만 사제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내게 정중히 말했다.

“이곳에 기도하는 이들은 구원보다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의 시간을 함께하는 달콤한 꿈에 있으니 부디 그 소망을 놓아주시지요. 나중에 이데아의 모든 구원을 조우하고 절망하여 몸서리치는 나의 악몽이 조금은 그대를 즐겁게 할 테니까요.”

아침이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의 말은 또 다시 나의 어둠을 잔잔하

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악몽을 채 마시지않고 토해내며 물었다.
“그대는 기묘하군요. 역사가 그대를 무어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묻는것이라면 나는 베르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선명하게 새겨두지 않으면 안되겠군요.”
내가 즐거이 중얼거리자 그는 그림자가 걷히며 늦은 동이 트는 평원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감사를 표하듯 고개를 까딱 숙여보였다. 그 모습을보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아락슕을 인지하는 당신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군요. 필시 살아숨쉬는 순간순간이 악몽이었겠지요….”
“악몽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비워낼수록 편해지더군요.”

“새삼 무욕의 그림자인 하쉬무스와도 같은 말을 하니 재밌네요. 이제는 누가 누구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것 또한 나일지니….”
그의 눈은 여전히 차분하고 인자했지만 아침햇살이 비추는데도 아직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아마도 교회주위로 드리워진 악몽의 그림자가 늦게 걷혀진 탓일지도 모른다.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있던 나에게 고개를 돌리며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고행의 길에 기꺼이 동행한 나의 벗의 이름은 낙원에 어떠한 형태로 새겨져 있나요?”

“나는 몽상의 투르파. 익스의 유산 하쉬무스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그리 말하자 그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을 하고있었다. 그제서야 그의 주변이 그렇게나 차가웠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게 딸랑이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은은하게 울려퍼졌고 그 소리와 함께 그는 빛을 맞으며 내게 다시금 정중히 부탁했다.
“투르파. 내게 낙원의 흔적이 가진 모든 구원의 형태를 보여주세요.”

“그럼 저 역시 잘 부탁합니다. 부디 은은하게 비추는 그대안의 광휘가 어둠에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하는군요.”

『 무너지지 않는 믿음 』

“의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럼 부디 축복과 함께하시길.”

그렇게 나는 상투스 대교구 광장에서 교구장과 사제들에게 복음과 축복을 전파하며 아벨의 현신이 남긴 참상의 뒷처리를 부탁했다. 아벨의 방벽 내부 뿐만아니라 방벽밖에서 숨 죽이며 잔존해있는 빛의 부산물들을 처리하라는 성명을 내렸고 그것을 인도받은 각 교구의 교구장들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임무의 하달 및 배치가 완료되었다.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무너져내린 세상에서 구원의 빛을 잃고나서 절망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희망은 한 줌에 불과했고 절망은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했다. 그렇지만 삶은 계속되어 이어지고 동시에 절망과의 사투와도 완전히 매듭을 짓지는 못했다.

“오늘도 아벨의 현신이 뿌려놓은 광휘에 주의하며 일대의 정화를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불렀던 빛은 당신의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축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대교구 주변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문구들 중에서도 유독 아벨의 현신을 정화한다는 말이 여전히 어색해서 언제쯤에나 그것이 완전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만큼 반발심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았다. 나는 텅 빈 광장을 벗어나 홀로 상투스 주변 이곳저곳에 한이 서린듯 남겨져있는 분노와 광신의 흔적을 조금씩 태워없앴다. 자신의 형

제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손들의 간절한 구원이라는 바람에 응하기위해 다시금 현세에 강림했음에도 달라진 믿음의 형태로 거부를 당하여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야만했던 기구한 영혼이 새삼 안타까웠다. 동정을 보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새겨진 이 분노의 흔적을 기억해야만 했다. 아니 어쩌면 아벨의 현신이 그것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불현듯 스쳐지나갔다. 그렇지만 상투스가 구원이라고 부르던 아벨의 현신이 쏟아낸 빛무리가 우리에게 남긴것은 구원이나 평화와 거리가 먼 부정하고 삿된것들 뿐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 뒤로 상투스의 직무유기를 논하는 음모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상투스의 사제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신앙을 눈앞에서 전면으로 부정당했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우리가 그래왔듯 언제나 우리는 항상 희망을 찾아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말을 전면으로 부정하려는 듯 골목길 한편에 고풍스러운 정장차림을 하고있는 가녀린 여인이 단상에 서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연설과 아벨의 참된 가르침을 조용히 이어나가고 있었다. 굳이 목소리를 드높여 그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아벨의 현신에 물들어버린 자들을 깨우려 조금씩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며 스스

로 일어서기 위해서 애쓰는 신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노력과 수고 끝에 이루어진 그 모습을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벨의 현신이 뿌려댄 빛이 모든 이의 눈을 멀게 한것은 아닌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벨의 현신이 강림했지만 그것은 단 한번도 우리를 제대로 굽어 살피지 않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빛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것도 있었지만 다른것보다 신경쓰이는 문제는 아벨의 현신이 바스러지고 제법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흩어진 빛무리들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남아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언제라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갈구할 불빛을 지필 잔불로 남아있었다는 점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유혹의 속삭임은 항상 절박한 이들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답한다. 그렇기에 아직 그 불씨는 희미하지만 언제 다시 그것이 타오를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다시한번 그것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경계하고 예의주시 하지않으면 안됐다. 적어도 대교구회 앞에서 광기의 집회를 벌이는 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무고한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일은 줄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것은 마음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문득 머리를 스쳐지나간 상념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연선은 더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병든 신앙에 대한 불신과 배척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오히려 우상에 빠져서 진정한 빛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이야말

로 아벨의 자손이 써내려온 역사를 욕보이는 것이다. 상투스라는 이름이 이 땅에 섰을때 바랐던 것은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과 평화이지 광휘따위에 눈이 멀어 구원에만 매달리려는 광신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거짓된 믿음으로 점칠된 맹목적인 신앙을 보고도 그것이 으레 당연하듯이 뒤따르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이상 그것들을 마냥 더이상 구원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구원이라 자칭하는 빛을 등지고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만 본 것이다.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금 합리화에 힘쓰려 혼잣말을 조금 크게 입에 담으며 나를 다독였다.

“해야했을 일을 한 것 뿐이야. 그래.”

물론 직접 내 손으로 그것에게 총과 칼끝을 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도록 일조한 것은 나였다. 아벨의 자손이면서 더욱이나 상투스의 사제이면서 구원이라 부르는 그것을 끌어내리려 했던것은 믿음에 눈이 먼 자들을 인도하고 의심을 불어넣어서 기도하는 손을 거두게 한 것이다. 믿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것은 아벨의 자손들이 아벨의 헌신이 내비친 후광을 단순히 선망의 대상으로 우러러보게 하려던것이 아니었다. 그 빛은 고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 잠시 숨을 돌릴 마음의 안식처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지 그 빛에 삶과 영혼을 바치는 맹신은 이전의 아벨의 자손들이 신앙을 대했던 그릇된 굴레가 이어질 뿐

이다. 구원은 영혼의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영혼을 집어 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아벨의 방벽 안에서도 특히 상투스의 사제라면 감히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의심하는 순간부터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의심을 거두는 순간부터 어긋난건가?”

내가 깊은 고심에 빠져있자 주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나의 발자취 기록을 자처하는 카인의 핏줄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몽상의 투르파가 모습을 드러내고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깊은 눈으로 나를 차분히 응시하고는 입을 열었다.
“아벨의 자손들이 구원의 빛이라 부르는 그것이 땅으로 떨어졌지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있군요.”
“구원을 잃고 불안속에 홀로 내던져진 이들의 마음을 간신히 붙잡았으니 한 숨 돌릴만도 한데 마음은 그렇지만도 않나봅니다.”
“당신은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구원이라고 부르는것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꼬리표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그대가 아벨의 자손들에게 가져다준 다른 형태의 평화는 참으로 훌륭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오랜동안 염원하던 구원을 저버린 자로 기억되겠죠.”
“몇번이나 합리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저버렸다는 사

실은 결코 피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둠에 잠기지않고 절망에 잠긴 상투스의 희망을 가져다 주셨지요. 그것만으로 아벨의 자손들에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저 곁에서 입김만 불어주었을 뿐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을 안고서 일어선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선 것입니다. 무릎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에만 매달리지 않고 일어서서 자신을 돌보는것 자체로 그들에게 빛이자 구원이겠지요."

"겸손의 말씀을…."

"아니요, 겸손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신이나 이념 따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구원은 사람에게 있으며 쉬이 보이지 않을뿐 그것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구원을 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모순들과 싸워야하는 여정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되겠군요."

"애초에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 빛조차도 죄악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되어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나 나처럼 빛과 어둠은 그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빛 속에서도 눈이 멀지 않는것과 어둠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것 둘 다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겠지요."

마음 속 그림자는 항상 나의 도피처나 다름없었다. 온갖 감정의 배출구

나 다름없었기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왠지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나는 빛을 잃은것이 아닙니다. 대신 쉼을 위한 그늘을 얻었지요.”

“부디 그 그늘을 잃지 마시길….”

나는 그의 말에 가볍게 목례를 한 뒤에 불현듯 스쳐가는 의문점에 지금이 아니면 다시 묻지못할 기분이 드는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

“당신은 카인의 핏줄이니 죄악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잘 알 테지요. 그렇다면 죄악은 혹은 뭉쳐진 일곱의 죄악은 카인의 핏줄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나요?”

“구원이 가진 색깔은 저마다 다르기에 스스로 그것을 피부로 느껴보는 수 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아벨의 현신이 불러온 구원에 대한 의심들과 추락으로부터 나온 물음이군요. 우리들은 카인의 핏줄이지만 무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록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그것에 담겨진 가능성을 망상속 줄기들을 이데아에 맞추어 접합하는 그 과정이 나의 즐거움이기에 그것들은 아벨의 자손인 당신이 이해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우수와도 같은 깊게 잠긴 눈을 하고있는 그는 마치 더이상 흘러간 인과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무심한 모습을 하고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책장

을 덮고 다른 세상을 그리기 위해 준비하는 화가처럼 기계적이고 감정이 서려있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의 나로서는 여전히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련의 말들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안의 어둠마저 포용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지금의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빛의 길을 열어갈 것이기에….”

불안하지만 확신에 차있는 나의 오묘한 표정을 바라보던 검고 깊은 눈은 놀라움에 커다래졌고 그 뒤로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림자가 짓고있던 아련한 미소를 기억한다. 만족스러운 끄덕임과 그림자의 입이 들썩였지만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인지 그것은 더이상 들리지 않았다.

“베르도.”

차분하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쥬브가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잊은듯하여 흠칫 뒤를 바라보고는 무언가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역시 흩날리는 그림자 말고는 남은것은 없었다. 그렇게 허탈한 웃음을 짓고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라도 있는건가?”

“아니야. 잃어버린것이 아니라 얻은것을 둘러보던 중이야.”

“그렇게 허둥대면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을 하는군.”

“그렇구나. 아직 이것을 이해하기에 조금 이를 수 있겠구나. 구원으로 무리지어 모여든 아벨의 자손들조차 잃은것과 얻은것을 이해하려면 어쩌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중요한 자리인만큼 조금은 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벨의 자손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온 너이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교황대리 권한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총회를 진행중이니 말이야.”

쥬브가 말했듯이 상투스의 모든 권한이 나에게로 위임되는 위원회가 진행되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구원만큼 원대한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희망 한 줌을 건네주는데 기여했다. 딱히 정의감이 넘치는 성격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렇기에 절박한 이들을 부추기며 허황된 구원에 빠지게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것에 굴하지않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이들의 손마저 거두게 만들었다. 눈을 멀게하는 빛에 당당히 맞섰던 스스로의 나의 모습이 마냥 자랑스럽지는 못했던 이유는 오랜동안 빛의 품에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살아왔었던 내가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과 상투스가 바라는 구원의 빛을 외면하고 전면으로 부정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자책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몇번을 다짐했지만 순수하게 마음의 안식을 구할 길 없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홉의 교황 이후로 그것도 좌천당한 상투스의 일개 사제가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빛이나 미덕이 아닌 믿음과 신앙을 향한 의심과 반발로 여럿 아벨의 자손들을 한데 묶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교황대리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벨의 자손을 하나되게하고 희망을 가져다 준 것 역시나 내가 아벨의 현신을 죽음으로 몰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는 몇명 뿐이었지만 지워지지않는 그 사실에 가책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미덕보다도 죄악으로 가득 찬 내가 교황의 대리로 서는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되면 아벨의 자손은 물론이고 상투스의 믿음은 다시금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그동안 망설이며 차마 품에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주하게 바쁘게 의견을 나누고있는 고위의 사제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상투스 고위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힘을 써주신 많은 이들의 봉헌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믿음에 불신을 싹틔우고 아벨의 현신이 지닌 날개를 뜯어버린 자는 이 자리에서 상투스의 빛을 머금고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몰렸다. 나는 상투스에 새겨질 거대한 위업을 이루어냈지만 빛이 가득한 아벨의 은총어린 상투스의 광휘는 더이상 나를

품으려하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 한 구석에 잠든 그림자를 부정하며 배제를 하려는것이 아니라 마치 다 자란 아이가 자신의 치마폭에서 벗어나 지내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자연스럽게 보내주려는 듯 했다. 상투스라는 둥지안에서의 소속감은 잃었지만 화려하고 웅장한 대교구 차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하게 내리쬐는 빛이며 조용하고 싸늘한 회랑에 울려퍼지는 소리들은 물론 내 손에 닿는 물건들 하나하나가 이전처럼 차가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만큼 주위에 물들지 않을만큼 믿음이 단단해며 전에없던 용기가 났다.
“베르도 사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벨의 현신이 땅에 떨어진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 남루한 이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가진 힘을 목도하였기에 믿음과 신앙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려는 자들의 손을 거두게하고 믿음의 다른 방향을 제시하여 그들이 빛을 등지게 만든자는 다른이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수많은 죄악과 마주하며 그것의 속삭임으로 결국 아벨의 자손들이 바라기 그지없는 구원을 말라 죽인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지요.”

그렇게 나는 담담하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망설임없이 토해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것이 힘들었지 막상 뱉어내고나니 막힘없이 막힌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야기를 들은 사제들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

보더니 그들 중 가장 연로한 이가 침묵속에서 조용히 서두를 떼었다.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들 그것을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부디 행하지 못할 선을 염두에만 두고있던 우리들의 떳떳하지 못함에 채찍을. 그리고 오랜동안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그대에게 용서를….”

“다들 알고 계셨으면서 묵인하고 계셨던 거군요.”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억압된 분위기속에서 그대의 믿음에 감화 되었음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였죠. 그저 부끄럽습니다.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신자들 뒤에 조용히 숨어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비겁한 위선자들이나 다름없죠. 상투스의 빛에 죄가 새겨졌군요.”

허탈하게 미소를 짓고 떨구어진 시선과 그리고 회한이 담긴 목소리에서 나온 말은 무겁게 주위를 가득메웠고 자리에있는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서 조용히 다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뇨. 오히려 감사를 표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배척이나 불의속에서 방황하지 못했다면 나의 믿음은 이렇게나 굳어지지 못했을 테지요.”

아무렇지 않은듯 태연한 나의 모습에 사제들은 다들 유감을 금치못했고 고개를 숙인채로 아무말도 하지못했다. 속죄를 가슴으로 담아두기만 하

던 상투스의 어제와는 달리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어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상투스의 깊은 곳에서 비추는 빛은 썩어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어 나는 그들에게 다시한번 입김을 불어넣었다.

“아벨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서로 있어야 할 곳이 달랐을 뿐 어느 누구도 꾸짖을 수 없겠지만 죄인은 죄인의 책무를 다합시다. 부디 상투스의 빛으로 남아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 주시길.”

그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그들에게 내린 판결이자 작은 복수였다. 기도하는 이에게 그만한 축복도 저주도 없었다. 믿음에 눈이 먼 자들마저도 그저 무언가에 간절했을 뿐 바보는 아니었다. 찬란한 빛의 성배에 가득 채워져야 했던것은 순수한 영혼이었지만 오랜동안 영혼을 담아두는 성배는 그저 관습에 얽히어진 과거의 산물에 불과했고,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혼자서 전체를 바꿀 수 없었던 이들의 부정하고 삿된 순수하지 못한 영혼이 성배에 고여서 썩어 문드러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털어놓는 것 만으로도 이 자리는 충분히 그 몫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 뒤로 나는 계획대로 모든 교황대리 권한을 나의 오랜 벗인 쥬브 왈키아에게 위임하려고 하자 쥬브는 황당한 표정을 하고는 고개를 젓더니 내게 물었다.

“나는 너처럼 상투스를 바꾸려는 원대한 계획같은게 없어. 적어도 그 적폐를 바꾸고자 하려는 이가 그 자리에 오르는것이 맞지 않나?”

“바뀌는것은 없어. 흔들림없이 상투스는 아벨의 자손들의 곁에서 빛으로 남을거야. 그동안 쌓아올린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 손을 그러모아 기도를 이어갈거야.”

“아벨의 현신이 죽은 마당에 우리는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하지?”

“물론 아벨 역시 신인지라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남겨둔 말들은 여전히 아벨의 자손들의 영혼을 살찌우기엔 충분할거야. 아벨의 현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찌꺼기 낀 지난날을 딛고 일어서는걸 도와서 상투스의 빛을 이전보다 더욱 밝게 밝혀줘.”

“네가 이곳에 남아 아벨의 참된 가르침을 널리 알리면 되잖아?”

“그렇기에 오히려 내가 이곳에 있으면 더더욱 안돼. 아까 말했듯이 어둠에 잠겨있던 부패한 권능의 잔은 한번 비우고 다시 채워줘야 할거야. 이번만큼은 아벨의 현신을 강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아벨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지.”

이후로도 그녀는 그 결정을 연신 마다하며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을 했지만 그녀 역시나 오랜동안 거짓된 빛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묵묵하게 맞서왔기에 교황의 대리 직임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위 사제들은 그 결정에 의아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것이 역시 나 답다고 여기었는지 그 결정에 감히 반대를 하는 이는 없었다. 그렇게 양도식은 짧고 조촐하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모든것이 성황리에 이루어

졌고 아쉬운것 없이 후련하게 모든것을 마친 뒤 상투스 대교구를 홀로 나가려는데 쥬브가 나를 세웠다.

“믿음이라는 본질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거야?”

“믿음이 변하는게 아니라 믿음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일 뿐이야. 어쩌면 상투스에게 기도만큼이나 필요했던 것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과 객관화가 필요했던 걸지도.”

“설령 새로운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또 다시 평화의 세대에 물들어 찌들어 본질이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해?”

“걱정마. 그때는 또 다른 빛의 사자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할테니.”

그렇게 우리는 한참동안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쥬브는 그 말을 한참이나 곱씹더니 작은 미소를 보이고는 미련없이 등을 돌려 상투스 대교구로 향하였다. 그 당당한 발걸음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투스를 옳은 빛으로 이끌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고 등을 돌려 상투스 국경에서 이르메스로 넘어가는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구원의 다양한 형태를 맞이하기 위해서 칠선이 빚어낸 존재들을 조우하며 내 안의 그림자와 함께 가능한한 그들의 빛을 직접 마주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상투스 너머의 풍경은 회색 잿빛 가득한 곳이었으며 여전히 일각의 무리들은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데아에 강림한 아벨의 현신은 진정한 아벨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고

주장하며 인지부조화 단계에 접어드는 광신도의 수도 적지만은 않았다. 아벨의 현신이 죽고나서 빛에 눈이 먼 잔당들이 배포하는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이나 폐허 한편에 붙여놓은 벽보에 눈길이 갔다. 여전히 아벨의 현신이 남긴 빛을 추종하는 자들은 아마 어디선가 조용히 머리를 맞대며 은밀한 집회를 열고 있겠지만, 그것마저 그들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태여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방벽 안 모습마저도 이렇게나 다른데 그 변두리 외곽 너머의 모습은 감히 상상이 가질 않았다. 수많은 생각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그렇게 묵묵히 발길을 옮기던 가운데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있는 노파가 내 앞에 섰다. 그녀는 나의 시선에도 개의치않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었다. 그저 광신도 중 하나라 여기고 그녀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녀가 가만히 다물고 있던 입을 뗐다.

“당신이 베르도 사제님이시겠군요.”

“무언가 도울 일이라도? 헌테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희망의 빛으로 만연한 상투스에서 자책하듯 수심이 깊은 얼굴을 하고 있는 멍청이에게 백옥의 피부를 한 금발의 여인이 전해 달라더군요.”
발신자에 대한 묘사와 봉투에 어렴풋이 담겨져있는 산뜻한 봄냄새로 그 편지가 어디서 왔는지 충분하게 알 수 있었다.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보이며 편지를 조용히 읽고있는 내 곁에서 노파는 우물쭈물 하더니 그 내

용을 조심스레 물었다.

“무어라 하더이까?”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외부인인 내가 봐도 안쓰러울 만큼이요. 지나친 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하지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다툼이 싫어진다우.”

“부끄럽습니다. 제가 인내하지 못한탓에 그녀가 저를 혐오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제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용서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부디 언젠가 어디에서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믿음에 대한 보답을 보여주지 않아도 강해지는것은 비단 신앙 뿐만이 아니라오, 젊은이. 부디 알아주시구려.”

그 짧은 말을 마친 노파는 문드러진 자신의 병든 손으로도 개의치 않고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순간 안쓰러운 얼굴을 하더니만 이내 밝은 얼굴을 보여주며 가볍게 힘없이 손을 흔들었고 내게 작별을 고했다.

“가시오. 이 늙은이가 젊은이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내 그 길을 축복하리다. 노파의 축복 정도야 값어치가 없겠거니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우.”

“아뇨, 되려 감사합니다. 사제의 옷을 입고도 죄가 충만한 무거운 영혼에게 충분한 마음의 양식과 위로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가 주제넘지만 한 마디 더 덧붙여 드리리다.”

“네, 부디.”

“무거운 짊을 지러가려는 눈을 하고 있기에 내 그 앞을 가로막을 생각은 없지만 그 짐을 혼자 질 생각일랑 하지마오. 그것은 오만이지요.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전부 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이웃이 많겠지요. 일단은 그들부터 도와주세요. 기적은 그 작은 관심과 손길로부터 시작되는 거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형태는 여러가지 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이가 전부 담아낼 수 없을터이니 부디 귀인이 그대의 걸음에 함께하며 사소한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절망이 도래한 이들에게 희망을 건네주시오. 그리된다면 아벨이라는 우상이 없어도 믿음이라는 희망의 끝자락에서 윤택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요.”

“이런, 아벨의 따스한 품안에서 상투스의 의복을 두른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오랜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저에겐 그야말로 따끔한 회초리와도 같은 말씀이시군요. 괜찮으시다면 이름을 여쭈어봐도 될런지….”

나의 물음에도 겸연쩍은 웃음으로 어색하게 나의 길을 축복하려 애쓰는 노파의 분주한 읊조림은 다른 구원이나 희망의 꽁무니나 쫓으려는 나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렸다. 나는 노파의 차분하고 조용한 읊조림에 어느

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것이 아벨을 향한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오랜동안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진실된 기도였다. 분명 눈을 감고 노파의 기도를 귀담으며 스스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눈 앞에 그려졌다. 노파의 언어는 분명 아벨의 자손들의 말이지만 중간중간 알 수 없는 언어가 뒤섞여 있는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는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거짓된 빛으로 점칠되어 눈을 멀게하는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설프지만 진심어린 축복이었다.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노파의 손길 때문인지 아니면 따사로운 계절의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후련한 기분으로 다시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인사를 연거푸 건네고서 간신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새벽의 햇살이 눈부시게 이데아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따스하게 대지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달라진것은 여전히 없었다.

“부디 내 안의 어두운 안식이 요란한 빛이 흐트러지지 않게하소서.”

당연하지만 아벨의 자손들 모두에게 희망을 전할 수 없다. 희망이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상대적인 것이기에 다름을 평생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작 상투스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비추어질 희망과 구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불안한 시대이니만큼 그것을 강요할 수 없지만 상투스에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포용할 줄 아는 성숙한 빛이 비출 날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미덕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금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기에 나는 무거운 그림자와 동행하면서 이데아의 모든 구원을 이해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믿음은 아벨의 구원에 매달리던 때보다 더욱 굳건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신세계 』

아벨의 품 영내 관할 도시 순방을 마치고 이르메스로 돌아와 대법원 중앙지구를 향해가던 중 익숙하지 않은 제복이 눈에 띄었다. 고작 여섯명밖에 되지않는 인원이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검은 제복으로 가득한 이르메스 대법원에 희뿌연 잿빛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검은 도화지에 뿌려진 백탁의 물감 같았다. 내가 가늘게 눈을 뜨면서 그것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으려는 가운데 담배곽을 손으로 탁탁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시선을 돌리자 담배를 입으로 꺼내 문 익숙한 얼굴의 연방 정보부 특무관 하나가 내게 조용히 다가와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불을 붙였고 연기를 흩뿌리더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듯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용 없으실 겁니다.”

나는 잿빛 코트를 걸치고있는 자들을 조용히 응시하고있는 그녀를 잠시 노려보다가 다시 시선을 옮겼지만 그곳에는 새벽의 안개 사이로 조용히 흩어진 고요한 장막 뿐이었다. 나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듯 조금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무슨 뜻이지? 내가 뭘 하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뻔하죠. 평소와 다름없이 음흉하게 그 예리한 눈으로 거짓을 꿰뚫어보고 죄질을 파악하시려는 거 맞죠?”

알빈의 소개로 나의 정신 상태나 사상검증 파악 등등 속속들이 자잘한 것까지 나의 개인정보 처리를 도맡아온 그녀는 내 반응을 위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금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뭔가 저들과 엮여서 문제를 일으키면 후처리가 골치가 아프다는듯 내게 경고를 하듯이 조근조근 설명을 하는것에 가까웠다.

“마르나크에서 온 전령이라는데 이미 저희가 몇번이나 개개인의 신원을 파악해보려고 했죠. 저들의 소속은 없습니다. 잿빛 유령이라고 불리는것 의외에 내부 대외비 정보를 뽑아보려고 했지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건 저들은 기록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심판의 망치에 죽은 넋들의 원한이 응어리져서는 원망과 저주가되어 마침내 우리에게 사신의 낫을 겨누려 찾아온게군?”

“아, 예. 뭐…. 그런셈이죠.”

그녀의 짧고 무성의한 동의가 얼마나 그녀가 문학이라는 것 따위에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었다. 썩 유쾌하지 않은 정보부의 샌님들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주제를 돌렸다.

“시궁창 아그발의 쥐새끼들의 꼬리는 물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 군사력 충원 그리고 그것의 행정명령에 대한 증거를 파헤치는 정보부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니 그 체면이 영 말이 아니군.”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것은 저것들과 연루되어 좋을것이 없다는거예요. 철저하게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치 개인이라는 존재가 없는 결여가 된 존재들 같더라고요.”

“유령이라고 불리우는것 치고는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며 대외로 활동을 하고 외부로 노출을 꺼리지 않는건가? 참으로 역설적인데?”

“그만큼 실력을 자부하는 거겠죠.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한 정제된 판단을 이행하는 저 잿빛의 유령들이 어쩌면 이르메스가 닮아야 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눈길이 가는거 같네요.”

“추구하는 결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것에서 배울것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있다. 문제는 참고해야 할 대상의 법적 기반이나 근거가 부족하니까 함부로 그것을 이르메스의 행정에다 대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나저나 저들의 방문 목적은 뭐지?”

그 말에 법관은 나를 노려보면서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들의 존재가 불편하신가요? 세부사항은 보안상의 이유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르나크도 우리들처럼 내부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인 듯 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여기까지? 꽤나 뒤가 구린데 뭔가 거대한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구만. 그것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가봐도 뻔하군.”

“예컨대 모종의 이유로 침묵을 바란다던가….”

“타당하다. 헌데 보안상의 이유라고 해놓고 너무 술술 나불대는거 아닌가? 그 사실을 내게 말해도 보안 유출의 우려는 없는건가?”

“지젤님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군요. 보안상의 이유가 아니라도 이건 저 뿐만아니라 어느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령이 대대적으로 수정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르메스의 법망이 취약 해진만큼 타국이 아니라 내부에 신경을 써주시죠?”

“내가 바라는 신세계의 기반이 될 법령의 수정을 고려하느라 밤낮으로 구르니 그대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네만 법망의 틈바구니를 유린하려는 자들 걱정은 놓아두게. 누가 그 짓거리를 하려는지 제대로 파악할만한 법조계 조력자를 알고 있으니. 더불어 나는 정보과의 누구들처럼 그렇게 음침하지 않은지라 함부로 타 국가의 대외비를 추론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네. 오직 명확한 증거를 기반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는 편을 선호한다만.”

“흥미롭군요. 그러나 때로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나서야 수면위로 고개를 드러내는 사건도 있답니다. 그건 지젤님이 더 잘 아시겠죠.”

“참고하지. 하지만 재밌는 우연이지 않는가? 상투스, 이르메스에 이어 마르나크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모두가 썩은 물줄기를 갈아치우기 바쁜 모양이군. 어차피 해야할 일이었으면 서로 한번에 뒤집고

협약을 휘갈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테니 우연치고는 제법 나쁘지만은 않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다른 국가의 언급은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신이 이르메스 중앙 지부에 발을 들인 이상 이르메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 중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소 도발적인 그녀의 말에 나와 동행하며 관내 순찰의 임무를 도맡은 법관들은 당장이라도 피를 볼 것처럼 정보과의 무리들과 서로 대치하며 같잖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무의미하게 서로가 노발대발하며 한심하게 흐트러진 모습에 내가 가볍게 박수를 쳤다. 박수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거웠기에 순식간에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이쪽이나 그쪽이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탓이니 서로에 대한 책임은 물지말고 이만 여기까지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러시죠. 어차피 이쪽은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보과의 존재의의는 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지 어디의 짐승들처럼 어금니를 드러내면서 광기를 표출하는것이 아니니까요.”

“아무때나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름없지만 만약 그것을 적재적소에 훌륭히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광기를 다스리는 백수의 왕이 될 수도 있지않은가?”

“굉장히 사색적으로 변하셨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것이 예전의

누군가를 떠올리게하여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 복잡한 감정이 드는건 기분 탓이 아닌것 같군요."

"지나간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싶지 않으니 거기까지 해주겠나?"

"이런, 실례를…."

그녀가 고개숙여 모자를 만지며 유감을 표하자마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나는 헛기침을 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너무 예민했군. 과거의 흔적따위가 오래 남아있는건 이렇게나 좋을것이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나 서둘러 정보부의 통솔권을 양도 받으시려는 것이었군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내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겠지."

"제게 딱히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잿더미가 되는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누구들처럼 폭력적인 광기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쓸데없는 걱정이군."

"꽤나 확신하고 계시는군요. 이전의 법관들이 법의 집행보다 심판이라는 힘에 도취되어 망가진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처럼요."

"그래서 이르메스의 근간부터 바꾸려고 한거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뿌리부터 송두리째 말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당신마저 변할것이고 언젠가는 다른 이가 당신을 다시 바꾸려 할 겁니다. 바르샤딘은 수많은 피로 쓰여졌고 당신도 그것의 일부나 다름 없을테죠.”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법이 굳이 바뀌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그것이 낡아버린 구시대의 유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범과 규율의 사소한 변화가 빚는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어낸 그것이 이르메스에 업적으로 남을지 오명으로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의 개정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의 편찬이나 다름없으니 이렇게나 급진적인 변화는 후대에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이미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용해 본 것인가? 고맙군. 썩어빠진 법이 내일을 제시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법은 무릇 격변하는 시대의 추이에 맞추어 정의와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다가올 불화와 격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수가 있기에 비로소 안정적으로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것이다.”

“이래서야 의미없는 말장난의 반복이겠군요.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정의는 여전히 질서와 균형의 수호지 썩어빠진 정계의 윗선들이나 개혁을 바라는 불나방들이 내부에서 벌이는 유치한 정당 싸움은 제 알 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 또한 잉퀴라피움의 기록보관소에 또 다른 집행 번호로 접수되어 그저 그 흔

적만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되겠지요.”

“유치한 정당싸움이라고?”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듣던 동행한 법관 하나가 눈을 치켜뜨고 이를 뿌득거리며 검은빛을 일렁이더니 그것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나는 한숨을 쉬고 그것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것과 동시에 나의 심기를 거스리는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나는 그곳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옮겼고 그곳에는 대법관 권터뮈르가 온화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로 서 있었다.

“이 시간에도 대법원 앞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규율을 조율하기위해 법의안 개정으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열성적인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군!”

“용케도 굴속에서 기어나오셨군요. 창살없는 새장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러나 법률을 다루고 공정한 집행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군요.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이나 놀려대는 이들의 시선으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던가요?”

나는 눈을 가늘게뜨며 그에게 조롱하듯 물었지만 권터는 표정하나 변하지않고 태연자약하게 손짓을하며 입을 열었다.

“마음에 들다마다! 지젤 슈나우트 집정관. 아니지. 진행중인 행정절차수속을 몇단계 더 밟으면 이제는 대법원장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

대 덕분에 한시라도 즐겁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네. 인수인계의 건도 있으니 대법원 중앙지구에 들른김에 차라도 한잔 어떤가?”

“당신을 이곳에 구류한것은 다른 이유에서이니 중앙대법원을 제 집 안방인 양 너무 들뜬채로 함부로 활보하지는 말아주시죠. 하지만 차는 좋아하니 부디 홍차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한 권터는 외부의 폐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있는 긴 테이블에 앉아 다과를 대접했다. 잿더미에 뒤덮혀있는 식탁보에 빛바랜 금빛 자수가 눈에 띄었다. 그는 차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그 향을 양껏 음미하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나와 동행한 법관들을 눈에 담고서는 광장이 울릴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일렁이는 불꽃같군. 그대의 뒤를 따르는 불나방들은 오늘도 안녕하신가?”

권터뮈르의 말에는 여전히 날이 서려있으니 비록 이빠진 호랑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권위가 추락한것은 아니었다. 심판의 자격을 실추한 평범한 노인이지만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없는 제복에 위엄이 담겨져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동안 그가 보여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새겨져있는 것인지 그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위엄이 느껴져 동행한 모두가 경계하며 적개심 가득한 살기를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대고 있었다. 일부 법

관들은 그 위용에 자신이 미세하게 뒷걸음질을 치려고 움찔거리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다.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서 유유자적 하시는 분께서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란 법관들의 광기에 불을 지피지 말아주셨으면 하네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위협은 나약한 자가 하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것일진대 내가 구태여 그것을 행할 이유 따위는 없지."
"못 당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나 뻔뻔하게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눈하나 까딱않고 심판의 망치를 휘두르셨죠. 안 그렇습니까?"

"부정하지 못하겠군. 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보니 감정이라는것에 휘둘리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일 뿐일세.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말일세."

치부를 굳이 드러내며 솔직한 말을 술술 뱉어낸 노인의 한 마디에 법관들에게서 망설임과 동요가 느껴졌다. 고약한 늙은 너구리가 선수를 쳤다. 그는 법적지식에 해박한것이 아니라 대중을 한번에 휘어 잡을만한 힘이 깃든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야말로 선전과 선동의 귀재였다. 달변과 설득력있는 목소리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유린해왔을지 역겨워 나는 얼굴을 잔뜩 구기면서 수저로 찻잔을 가볍게 두드렸고, 귄터의 혓바닥에 정신을 못차리는 이들의 정신을 되돌렸다. 그것과 동시에 대법원

의 중앙지구 주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던 이들의 격양된 목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다.

“사람들의 미래를 짓밟는것도 정도껏 하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낯설겠지만 거부만 하지마시고 신세계를 받아들일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저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들은 당신의 이상을 위한 혹은 법무수행을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돌아갈곳은 내가 정해주는것이 아닐세. 저들도 자신만의 정의를 관철하지 못한채로 함부로 돌아갈 수 없다는것은 그대도 잘 알지않는가? 서로의 입장을 부디 이해해주길 바라네만….”

“법이라는 것 앞에서 이해를 바라는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담으시는군요.”

“융통성이 없는것은 여전하군. 하지만 그대 역시 우리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변명의 여지는 없군요. 하지만 기반을 들어낼만큼 거대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는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정의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을 뒤로 만들어진 법이라…. 제법 익숙하지 않은가?”

“네, 익숙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훤히 보입니다.”

“그런가. 그대의 말대로라면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나의 심판은 정

당하지 않은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이겠군.”
전례없는 법률의 개정과 사법 구조의 전면개편으로 그것에 적응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이들은 마치 절벽끝에 간신히 매달린 것처럼 절박하고 애처롭게 이전의 법률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농성과 선동을 오랜동안 이어가고 있었다. 초기에는 법적인 권리를 되찾기위한 명목으로 모여들었지만, 그 목적과는 정반대로 뚜렷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한 이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도태되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소수의 여론과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대법원의 옹졸함이 한데 뒤엉켜 그것들의 말로가 너무나 뻔하게 보였던 탓인지 탄식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개처럼 꼬리를 마느니 자신의 정의를 관철하여 심판대에 당당히 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마다 자신이 짊어진 것들을위해 처절하고 절박한 입장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무엇을 거시려는 겁니까? 설마 그들을 등에 업고 또 겁쟁이처럼 숨지는 않으시겠지요. 선동의 맛을 여전히 잊지못하여 일말의 가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법이라는 장난감으로 죄인을 유린하는 일도 즐기셨을 테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서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뿐이니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새삼 놀랍군. 죄인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눈썹하나 까딱않던 냉혈한인 자네가 내게 그렇게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서 법과 정의를 수호한 것이지 당신이나 당신의 곁에서 아첨하는 것들처럼 법을 휘어쥐고서 우월감에 도취된 짐승들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요.”

“법은 완벽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을 휘두르는 인간조차 완벽하지 못하기에 굳이 다른것을 눈에 담아 흐릿해지는 판단보다 명확하고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평등한 처리를 하는것이다. 여전히 삐뚤어진 사고를 지닌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일세.”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즐거움은 차치하고서라도 오판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짊어진단 말입니까?”

귄터미르는 지겹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나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그대는 눈 앞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본 적이 있는가? 교화가 불가능한 것들에게 자비를 쥐어주는 것은 사회에 독을 푸는 꼴이 될 터이니 오판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혼란의 불씨를 종식시키고 그 씨앗을 초기에 진압하는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겠는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공포를 피로 새겨 그 낙인으로 법과 규율 앞에서 힘없이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그 물음에 그는 혐오와 경멸 그리고 멸시가 온통 뒤섞인 눈으로 한참이나 나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비스듬히 꺾으며 내게 되물었다.

“꽤나 감성적으로 되었군, 지젤군. 그대의 손에 바스러진 이들에게 이제와서 연민을 느끼는건가? 우리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닐세. 그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지. 우연하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이르메스의 집행과 일치하였을 뿐 개인의 정의가 어디서든 통용되기를 바라는건 어린시절의 꿈과도 같은 이야기로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타인의 결단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군요. 적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데 감정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는 당신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제게는 그것이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지. 스스로 만든 괴물의 숨통을 직접 끊어낸것만 봐도 그대가 심판을 감성의 영역으로 가져갔다는 반증이다.”

“…아이작이 그렇게나 두려우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나는 품속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던졌다. 그것을 받아든 귄터미르는 그리운듯 씁쓸한 미소를 짓더니 그것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강기뇨르 카지노 귀빈 주화. 낡고 녹슬었군. 어디서 주웠나?”

“…어디겠습니까?”

“아이작의 마지막 불쏘시개가 마치 네놈이 이걸 찾아주기를 부탁한거나 다름없구만. 그놈도 아비처럼 죽어야 할 곳을 처음부터 정했던 것인지도 모르겠군. 죽어서도 표독함을 남기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악법을 끊어내기 위해서 뒷골목 바닥에서부터 함께 아득바득 기어올라와 한 배를 탄 벗의 가문을 그렇게나 개박살을 내야만 했습니까?”

“…늙는다는건 참으로 추한거야.”

“하찮은 변명이군. 그것이 당신의 면죄부가 되지않아.”

우리는 그렇게 이른아침 안개 자욱한 차가운 바람을 함께 맞았다. 가스실에서 쿨럭이는 연기와 뒤엉켜 비추는 햇살은 그리 밝지 못했다. 바람이 훑고 지나간 뒤에 그는 말없이 조용히 운을 떼며 날이 서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법이 언제까지 자네를 지켜줄거라 생각하지 말게나. 그대가 엉망으로 만든 골자는 비수가되어 돌아와 그대의 등에 그대로 꽂힐테지.”

“법은 나만 지켜주는게 아니라 모두를 지켜주는 양날의 검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목 앞까지 칼날이 들어오는지도 모른채 그저 특권이라 여기며 으스대는 것들의 사고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바르샤딘을 한번 뒤집지 않으면 안됐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달려왔음에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말하고 싶은건가?”

“어느 누구도 격변하는 시대에 피로 쓰여진 법률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나 다른 이들과 다를바없이 과거의 덫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대라고 다르지 않을거다. 왜냐면 그것은 꽤나 달콤하거든.”

“명심하지요. 그리고 그렇게나 당신의 말이 옳다는것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내 기꺼이 그것을 쥐고서 마음껏 휘둘러 드리지요. 그러나 제가 펼친 피의 새장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과 귀를 닫은 저런 겁쟁이년과는 달리 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든 닿고자 날뛸테니까요. 그때는 그대가 좋아하는 투기장을 열어드리지요.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제복을 벗은 알몸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즐겨주시죠.”

“모쪼록 즐거운 마녀사냥이 되기를 바라네….”

“마녀 사냥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공명정대를 입으로만 놀리다보니 신세계를 위한 과정이 고작 오락과 장난처럼 보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다시 펼쳐낼 피의 새장이 오락 따위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텐가? 대체 무고한 이들을 얼마나 더 죽일셈이냐?”

“당신의 위선에는 구역질이 난다만 할 건 해야지. 외부의 연락책과 내통하여 국가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으니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을 들먹이면서 혀를 놀려댈 수 없을거요.”

권터의 표정은 일관되었지만 차를 든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전히 인면수심 고고하고 콧대를 높이며 젠척하는 그에게 뒤틀린 웃음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뒤에서 구리게 움직였을 생각이었다면 은밀하게 처리를 잘 했었어야지. 뒷골목에서 배운게 아무것도 없었나보군? 아니면 그 시절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서 깔끔하고 정돈된 제복의 촉감에 너무 익숙해진 탓인가? 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군. 권터뮈르 전 대법원장. 그대는 늙은탓에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만한 그릇이 아니었을 뿐이지.”

“고작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르기위해 이르메스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야기시켜 수많은 이들을 잿더미로 만든거냐?”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이것은 당연히 범죄와의 전쟁이자 그 잔당의 숙청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그것들 중 하나였을 뿐이죠.”

“어디서부터 음흉하게 뒤를 캔거지? 알빈의 죽음부터였나?”

문득 떠오른 짐승의 감이라는 그것에 경의를 표하며 가볍게 미소를 새어나왔고 나는 권터뮈르를 뒤틀린 웃음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어느새 눈을 뜬 내 짐승의 감이 그렇게 말해주더군. 언제부턴가 이르메스의 정의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고 말이지.”

“끝까지 심판의 여인 앞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내뱉는거냐.”

그의 말에 나는 다시한번 바르샤딘 곁에서 이르메스의 상징처럼 자리한

눈과 귀를 닫고 저울을 들고있는 심판의 여인상을 노려 보았다. 여전히 그년은 미소를 띈채로 눈을 가리고서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삐딱하게 가리키며 이를 악물고 권터뮈르에게 말했다.

“진실을 보지못하고 보지도 않으려는년 앞에서 거짓을 내뱉어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잖나? 그리고 고작 네놈에게 거짓을 고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피고는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하군.”

일관된 태도로 권터미르를 죄인 취급하는 내 말을 조용히 참고듣던 그의 비서실장이 주제도 모르고 나서려하자 자연스럽게 내 손가락이 총과 칼끝에 닿아있었다. 그러자 권터는 손을 들고 제지하고는 내게 말했다.

“좋은 얼굴이군. 금방이라도 무의미한 피를 원하려는듯 말이다. 다만, 시덥지않은 도발을 꺼낼 정도로 꽤나 조급해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이르메스 깊은곳에 뿌리박힌 고혈을 빨아먹는 존재들을 오랜동안 숙청하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으니 손이 근질거리지 뭐냐. 무거운 죄를 지은자 심판대 위에서 잿더미가 되어 바스라진다. 그것은 네놈의 손에 의해 무너진 자들이나 너나 그 처지는 다름없으니 그들이 느낀 감상을 고스란히 담아두며 잿더미가 되도록.”

“나쁘지않지. 다만 내 목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 어차피 이곳에서 오래 살아있지는 못할터 기다리기도 무료할테니 자네에게 내 마지막 교훈을 줄테니 죽을때까지 그것을 고뇌하면서 고통에 시달렸으면 하네.”

“첫째로 이 모든것은 네놈이 바라는 모습이 되지 않기위한 제정이다. 둘째로 노력은 해보겠다만 되도록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군. 다 죽어가는 시체들과 말을 섞는 취미는 없으니 말이다.”
“말 잘했다. 다 죽어가는 시체 이야기가 나와서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도 잿빛의 코트를 걸친 것들이 여기 온 이유를 알려주랴? 죽어서 살아 숨쉬는 시체들과 뒤엉키며 맑은 하늘에 총과 칼을 쏟아내며 무고한 목숨을 유린하는 와중에도 언제나처럼 자네는 항상 심판의 망치가 향해갈 방향과 시간은 그다지 옳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 말을 들은 정보부 특무관은 이를 뿌득거리며 권터를 노려보았다. 아무래도 권터가 꽤나 깊숙한 정보를 파헤치고 있었다는걸 깨달았는지 그녀는 내 눈을 잠시 흘기고는 정보부 휘하의 무리들과 함께 대법원 중앙지구를 유유히 떠났다. 나는 금새 소름끼칠 정도로 고요해진 주변의 풍경에 신경질적으로 그에게 멸시의 시선을 던지며 물었다.

“무력의 사유화와 이웃 국가 권력 전복이 뭐가 그리 놀라운가?”

“이해하지 못했나보군. 정의와 사회적 규범 균형의 중재같은 사소한것에 심취해 있던것은 네년도 마찬가지라는거다. 그들의 휘두르는 무력은 아벨의 자손의 신념이나 규율이나 규범 그리고 상식의 범주에서 어긋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범국가적인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금 이 순간 네년이 신경써야 할곳은 내 모가지가 아니라

는거다. 헛다리를 짚었구나, 어리석은것!”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의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있던 나는 지독하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규범을 제정하지 않으면 혼란과 불안의 주기는 더더욱 짧아질 것이라는 그의 말이 새삼 실감이 되었다.
“내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외부의 사태에 그저 휩쓸릴 뿐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으면 차라리 잘 되었다. 한꺼번에 행정처리를 시행하면 신세계는 더욱 앞당겨지겠지.”
임시방편으로 망설이지않고 합리화를 하듯이 자기방어적으로 뱉어냈던 강단있는 그 말에 의외로 귄터가 아무말도 하지않다가 입을 열었다.
“나약한 것들일수록 법에 의해 지켜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헐뜯는 법이다. 정작 그것이 벗겨지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것들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개념은 대중들로부터 결코 멀어져서는 안된다. 다시말해서 이전처럼 그것이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지. 법은 항상 삶에 녹아있어 한없이 가까워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인식과 경각심을 새겨주지 않으면 안될거다.”

“그래서 스스로 악역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자처하겠다는 말인가?”
그 말에 나는 이를 뿌득거리며 분노를 금치 못했으나 깊은 숨을 들이쉬

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악역? 미친거냐? 우리는 극단이 아니다. 피고의 말 하나하나 나를 불쾌하게 하는 재주가 있군. 심판은 권력자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며 법은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엄격한 기준에서 쓰여져야 할 잣대가 자신들을 향하는 그것이 그렇게나 불편하다면 네놈들이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지금이 적기라고 여겨지기에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거요.”

“…신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기대하겠네.”

내 말을 조용히 뒤에 담으며 여유있는 모습으로 흐뭇하게 아침 잿빛의 하늘을 바라보는 그는 식어버린 차를 한번에 들이키고는 찻잔을 놓았다. 그의 말을 끝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어보였고 짧은 정적을 깬 뒤 내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르메스의 근간인 바르샤딘의 헌법을 악용해 피의 새장에 버금가는 공포정치로 이르메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돼지 새끼들처럼 본인의 사욕을 불려온 중죄에 대한 처벌로 피고 귄터 뮈르 폰 슈나우트의 재산 몰수와 더불어 사형을 선고한다.”

귄터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후련한 표정으로 조용히 폐허 앞 빛바랜 자수가 새겨진 테이블에 앉아서 나를 배웅했다. 집행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아침 이슬이 가죽으로 세공된 제복에 알

알이 맺혀 무겁게 흘러내렸다. 쓰레기를 처분한 뒤로도 유난히 짤랑거리는 어깨의 휘장에서 느껴지는 무게에 짓눌려지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 영웅 』

“똑똑….”

노크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너무 크게 울려서 두드리던 손이 잠시 멈추었고 스스로 그것이 민망했는지 다시 한번 문을 두르렸지만 역시나 반응은 없었다. 잠시 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여느때와 다름없이 주위에는 무신경하고 오직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하는 군인이 큰 차창 앞 책상에 홀로 앉아 집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평소에 자주 방문 하는곳이 아닌지라 익숙하지 않았지만 소란스러운 바깥의 풍경과는 달리 평화로운 집무실의 상반된 풍경은 누가봐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아늑하고 편안함속에서 느껴지는 장소에는 형용할 수 없는 이질감이 베일처럼 감싸져있어 그것이 나를 너무나 불쾌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빗속에서 추적거리던 참호안이 오히려 마음은 더 편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무실의 풍경을 하나둘 차근히 뜯어보며 대답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를 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람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요란하군요. 군인이 죽어서 가져갈 물건은 군복 하나뿐이라고 오랜동안 귀가 닳도록 배워왔는데도 말이죠.”

마르나크의 정훈교육 중 중요한 덕목인 하나를 인용하고는 주변에 의자 아무거나 하나를 질질 끌고가서 그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그는 나의 행동에 관심조차 없는 모양이다. 어느정도 예상했던 반응이

라 나 역시 구태여 그가 하고있는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그저 기다리기로 했다. 펜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한참이나 끊이질 않았고 가만히앉아 그의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다 지루함에 못이겨 몸을 일으켰다. 진귀한 물건들이 진열된 집무실 한켠에 군인들이 깃발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하고있는 정교한 조각 위로 왁스 실린더 축음기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가볍게 새어나왔고 잔잔했던 음악이 방 안을 가득 메워지도록 음량을 키웠다. 그러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그의 펜촉이 천천히 멈추며 이어가던 집무에 마침표를 찍는듯했다. 그는 가벼운 한숨과함께 고풍스러운 회전의자를 돌려 차창을 바라보더니 몸을 살짝 기울여 눕히고는 뜬금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호오, 흥미롭군. 임무 이외의 것에는 관심도 없는것처럼 보이는 자네가 보츠카노프의 쁘레디유 찬가를 좋아하는지는 몰랐는데?”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저 일개 군인일 뿐입니다. 예술은 물론이거니와 대의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무지렁이일 뿐입니다. 알리가 없죠.”
내가 애써 쓴웃음을 지어보이며 겸연쩍게 말하자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채로 지휘자같은 손짓으로 왁스 실린더를 가리키면서 내게 말했다.
“훌륭한 지휘자는 조금은 큰 세계를 눈에 담을 필요가 있을걸세. 쁘레디유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라는 뜻이라네. 당장 내일의 삶을 약속할 수 없는 전선에서 선 군인의 심경을 대변하는 곡으로 잘 알려져있지. 현실

이 냉혹하고 차가울수록 인간은 신에게 기댄다고들 하지않는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건지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건지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듯한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그의 말이 내 귀에 닿을리 없다. 피폐해진 군인들의 얼굴과 어제까지만 해도 곁에서 웃고 떠들어대던 전우를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습으로 재회하며 그것과 나누던 일방적인 대화가 오히려 내게는 더 현실적이었다. 그가 내뱉는 말에 나는 이를 꾹 다물고 듣는 둥 마는 둥 성의없이 고개만 연신 까딱거리고 그의 별채의 기물을 싸늘한 시선으로 훑어보며 그의 말에 반박하듯이 말했다.

"포화가 밤낮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참호속에서 기댈곳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품이 아니라 당장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들 곁에서 살을 맞대는 전우에게 기대는 편이 더 나을것 같군요."

어쩌면 한결같은 나의 대답에 그는 한동안 유리창으로 반사된 나의 모습과 차창밖의 풍경을 번갈아 껄끄럽게 바라보더니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고 조용히 내 독백과도 같은 말에 신경질적으로 긁어댔다.
"착각하지 말게나. 일반 병과 우리는 같은 군인이지만 엄연히 다른 자원일세. 그리고 이제와서? 처음 임관했을 때부터 그대는 아래를 바라보지 않고서 그저 위에 오르기만을 바라며 그 두 눈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는가? 언제부터 그대가 전우라고 부르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그렇게나 관대하고 진심이었던 것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 이참에 허심탄회하게 쏟아내시죠.”

내가 시계를 바라보며 그에게 최후통첩같은 말을 건네자 그것을 바라보던 군인은 한결 편한듯 후련하게 운을 뗐다.

“…자네같은 전쟁광에게 평화의 시대는 항상 무료했을테지.”

그 다음으로 무슨말이 나올지 알 정도로 지겹게 들어왔기에 익숙했지만 나는 한참이나 그의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곱씹어보다 이내 긍정하듯이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에게 말했다.

“굳이 내 안에 흐르는 피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녕이 아니라 그저 광기만 흩뿌려대던 피지만 내 평생 단 한번도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죠. 그러니 각하의 우려대로 그것들을 사지로 모는 일은 없을겁니다.”

“자넨 항상 국왕의 핏줄을 평생의 수치처럼 말하는군. 그러나 어깨를 펴고 네놈 안에 흐르는 그 피에 대해 감사하게나. 악마같은 그 피는 다만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이기에 더더욱 값질테니까.”

그의 말에 짧은 침묵으로 어색한 공기가 한차례 지나갔고 나는 어이없는 입꼬리가 씰룩하며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고 그의 말을 받아쳤다.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것 아닙니까? 결코 잊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단

한번도 수치라고 여긴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난 피에 감사하는것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이 피가 흐르면서도 아벨의 방패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못한 제가 한심할 뿐이죠.”

“그 말은 내가 마치 군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그러나 우리는 잃은것이 너무나도 많네.”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가 아니라 각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포화속에서 바스라진 겁니다. 손가락질 하나로 군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것이 결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만 글허게 느끼는것이 아니기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서 피눈물을 흘린채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밀었고 마침내 지금 각하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겠지요.”

“그대가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명령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 군복을 입고있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불미스러운 언급을 하는거지?”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옳지못한 명령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전술적 인지감각이 떨어진건가? 전술판 위에서 군인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장기말에 불과하다. 그것은 나도 그렇고 그대도 마찬가지일세.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는 숫자에 약한거라 발뺌할텐가?”

“그것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나만으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혹은 그 이상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목숨이 전략판에는 그저 숫자로 기록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름과 가족 그리고 이야기

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습니다.”

“글쎄, 자네처럼 무른 성격은 군인이 어울리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역후 농사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오랜동안 총과 칼을 쥐어든 손으로 무엇을 하고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군요. 군복이 어울린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쩌면 그것이 군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죽이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신들로 만들어서 그것 말고는 활로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듣기 거북하군, 베르셀 준장. 그 말은 마치 내가 그들을 사로에 던지기라도 한 것같이 들리네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한 지붕 아래 생활하던 전우에게 총과 칼을 들이미는 일이라도 말이죠.”

“아무리 국가전복 성공의 막바지에 이르러 축배를 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니네만 그대의 눈 앞에 있는 나는 여전히 마르나크의 대총통일세. 말을 가려서 하게나.”

“그나마 당신의 방패와 제복의 휘장마저 찢어발기지 않은것에 감사하시죠. 내부는 물론 외부로도 이미 너무 많은 적을 만드신 각하를 대총

통이라는 직급으로도 지켜주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군인의 책무는 오늘부로 만기로 다 마치셨으니 당신의 복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명예로운 제대를 받아들이시지요."

그 말과 함께 내가 봉투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자 그것을 받더니 찬찬히 읽어보고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안경과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모두를 철저하게 짓밟고 올라온거로군?"

"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요. 놀라셨습니까? 전투보고서 하달내용은 중앙사령부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닦아오면서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교묘한 말장난이군. 그들도 역시 자네들과 다를바없이 아벨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강철의 심장을 지닌 군인들이며 다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누군가의 형제이지만 단순히 그대와 참호를 나누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들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은것이군. 참으로 차가운 피를가진 자로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런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은 없었나 봅니다. 그런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리 전황이 긴박하다지만 이렇게나 감성적으로 메말라있는 줄 몰랐네. 보아하니 정신 검정에서도 이미 손을 썼을테니 국가 전복은 유야무야 넘어간다해도 시체들까지 끌어다 군사자원으로 사용한 사실을 도

의적으로 용인되지 못한 사항이네. 이제 국제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텐데 이것도 자네 계획의 범주안에 해당하는가?”

“모르죠. 나는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것 말고는 묘책을 모르는 지휘관이기에 내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잿빛의 유령이 안개속에서 일사천리로 이루어 주었지요.”

“잿빛 유령이라고?”

“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것은 별로 없겠지만 제 오랜 전우가 저를 대신하여 국가전복의 오명을 기꺼이 떠안아 주겠다는군요.”

“도대체 뭘 하고싶은건가? 베르셀 랑뒤르. 그렇게나 전장의 벗을 아끼는 것처럼 굴더니만 이제와서 갑자기 자신의 휘하를 팔아먹고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그 태도는 뭐냐?”

“다시 말하지만 저는 군인이지 성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기준으로 보면 반동분자에 가깝겠죠. 그러나 나를 따르는 이들은 적지 않고 그들은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먼 위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용한것이 아니라 이용당해 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잠깐 무언가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듯 하더니 그제서야 눈치를채고 고통스러운 탄식을 내뱉으며 안타깝게 말했다.

“그런가, 자네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군…”

“제가 원하던것은 아니지만 등을 떠밀려 이제는 그것이 되어야하는 모

순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모두가 되고는 싶어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보면서 누군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대중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이고 모순되는 모습이지. 운이 좋군. 더불어 인복은 타고난 피값을 톡톡히 하는군.”

“우선 운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려 착실하게 쌓아올린 노력의 성과가 수면위로 이제야 드러난 것이며 인복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찰나에 스쳐 지나칠수도 있구요. 중요한것은 그것을 어떻게 손아귀에 쥐느냐 입니다.”

“그런가, 나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여 무너진건가…. 그렇다면 말해주겠나, 랑뒤르의 피를 가진 용사여. 나는 무엇을 그르친겐가?”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킨 그의 단어선택이 영 거슬렸지만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한뒤에 테이블로 허리를 천천히 숙이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입을 열려는 찰나, 때마침 창문을 통해서 비춰진 어둑한 하늘과 이따금 건물의 잔해위로 떨어지는 폭격이 만들어내는 그을음을 잠깐 동안 지그시 바라보다 그의 존재를 그제야 인지한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낮고 단호한 투로 말했다.
“당신의 입에서 용사라는 말이 나오는것이 썩 유쾌하지 못하지만 일단 대답해 드리죠. 치안과 국방을 분리해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적에 맞서 싸우는 방위의 역할을 하고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정의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군대라는 조직이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국가는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미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거죠. 각하께서는 두가지 토끼를 잡으려 욕심이 다소 과하셨습니다.”

“군인은 개가 아니다. 나는 단지 마르나크가 대외적인 정치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을 막으려 그곳에 직접 뛰어든 것일세. 자네라면 이해할 줄 알았다만?”

“마르나크는 군인들의 손으로 세워졌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정해진 의무만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네의 행동은 앞뒤가 맞질않네. 전쟁광의 피는 네 주위의 이들의 피까지 끓어로느게 하니 이를 역이용해서 국가전복 전후의 평판까지 고려했고 결국에는 대중에게 호소하기 가장 쉬운 선전과 선동 그리고 폭력이라는 일차원적인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

“의미없는 논쟁입니다만 수단과 목적을 반대로 말씀하셨네요. 정상화를 위해서 폭력은 단순히 불가피한 요소였을 뿐입니다. 모두 같은 붉은 피가 흐르지만 그것에 지나치에 의미를 부여 하다보니 지금 각하의 모습처럼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판단은 흐려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소통하고 있지요.”

“믿을 수 없군. 그렇게나 섬세한 자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리가

없지. 죽은자들을 우롱하며 모든 아벨의 자손을 적으로 돌릴셈인가?"

"…오늘 나 여기서 죽는다면 전우의 디딤돌되어 죽어서도 복무한다."

"교범에 적힌 비유적 표현을 그대로 실현한거냐?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만 구태여 죽은 자들까지 되살려서 기어 오를만큼 이 자리가 탐나던가? 이제는 인간임을 포기하는건가?"

"수령의 자리요?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딱히 탐이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무능함과 무관심이 전선에서 수많은 전우들을 무의미하게 죽이게 만드는것을 덮어두고 지나가지 못했을 뿐이죠."

"그대는 항상 정계로의 진출을 꺼려하는 듯 보였지만 뒤에선 어김없이 화려한 언변을 보여주셨군. 그대는 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보이네만 탁월한 정치인일세. 그것은 내가 보증해 줄 수 있네."

"혁명적인 나의 발걸음을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반역으로 보시는군요. 그렇게 눈을 감으시는 편이 더 편하실테니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뒷공작으로 거짓된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병을 일으켜서 국가의 전복을 일으킨 자가 양심도 없이 그것을 마치 업적인 양 포장하려는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군. 강철의 심장은 물론이고 이제는 자네에게 인간이라면 마땅이 가져야 할 감정은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는것은 기분탓은 아닐테지…."

"새삼 안심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밤낮으로 스스로에게 많은

물음을 던지며 잠을 설쳤습니다만 각하의 말씀을 듣고보니 감정에 매몰되어 총칼을 휘두르지 않은것 같아서 다행이군요."

"그 안은 마치 텅 빈 것과도 같군, 자네. 도대체 자네는 무엇을 하려는 겐가? 그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혁명이라는 말로 꼬드기며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오해가 있으시네요. 저는 무엇을 바꾸려는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아벨의 방패의 존재 의의를 정상화를 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내 말을 가만히듣던 그는 고급 양장으로 세공된 상자에 담긴 시가를 꺼내어 향을 음미하더니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을 들이키다가 영혼까지 토해내려는듯 허탈하고 길게 연기를 토해내며 차분히 말했다.

"정상화라…. 그동안 수많은 강철의 심장이 흘렸던 피와 땀을 부정하듯 말하는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군그래."

"그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강철의 심장에 마르나크의 교범을 통한 교육이 없었다면 각하를 무너뜨리기 더욱 수월했을 테지요. 그러나, 우직하게 쌓아올린 훈련을 토대로한 교육을 수료한 이들 덕분에 이쪽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출혈도 상당했던 겁니다."

"고맙군. 내가 직접 기른 중앙사령부의 부대일세."

"출중하더군요.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길들여야 하겠지요."

"그러시게나. 다만 다루기는 조금 버거울걸세. 오랜시간 공들여 육성

해서 섬세하고 중앙사령부 대총통 직속 직무부대라는 휘장에 자부심도 가지고있는 자들이니 말이지. 적어도 내가 없는동안 사납고 거친 장난감들과 총칼을 맞대면 무료하지는 않을테니 기뻐하게나.”

내가 눈썹을 잠깐 씰룩이자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자아내며 내 얼굴에 다시금 시가 연기를 뿜어대며 말했다.

“무의미한 죽음으로 쌓아올린 그대가 부디 아벨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주길 바라며!”

“나의 영광을 저주하셔도 상관없지만 어떤 죽음도 결코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를테면 당신의 죽음은 해이해진 마르나크의 강철 심장에 경각심을 주입하는 훌륭한 거름이 될 것입니다.”

“벌써 사후처리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는건가? 처리가 빠르군. 이미 나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는것처럼 말이지.”

“서운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다르게 내 손에서 바스라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기나 입버릇조차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있죠. 원하신다면 당신으로부터 기억될만한 것들을 고이 간직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로 나를 어디까지 떨구려는 셈인가? 적어도 가는길엔 존엄성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만.”

어쩐지 쓸쓸한 그의 표정에도 나는 날이서린 말을 거침없이 던졌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기꺼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소중히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정작 나는 소중한것은 지키지 못하였는데?”

“대총통각하. 정말 유감이지만 당신의 이상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이른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육삼아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에 눈을 돌리지않고 군인은 군인답게 오로지 국토의 방위와 수호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 방향이 엇나갔을 뿐이지 그대가 말하는 그 가치만은 나도 자네와 다르지 않다네. 그나저나 영웅의 시대를 살아갈 생각에 지금은 조금 즐거운가?”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휘날리는 마르나크의 깃발 위로 비행 편대의 우렁찬 울음이 메아리쳤고, 전차와 보병들이 점거하는 곳 주위로 잿빛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골치는 제법 아프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그러자 그는 테이블에서 장식된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 있는 제식용 권총을 꺼냈고 그것을 그리운 표정으로 한참을 어루만지다 내게 건넸다.

“…쓰겠나?”

나는 조용히 휘황찬란하게 치장된 총을 건네받았다. 묵직하게 손에 감기는 그 총 약실을 확인하고 빠르게 장전한 뒤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

누고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부디 가능하다면 지옥에 저를 위한 한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각하도 저도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의미없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무르긴 해도 무섭군, 베르셀 랑뒤르. 전쟁은 숭고하다고 하지않으면서 그 눈은 불타는구만. 자네에서 응당 인간이라면 느껴져야 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네. 온통 거짓말이군.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는지 궁금하지 않나? 다들 전쟁을 겪고나면 표정이 바뀌는데 자네의 표정은 일관되거나 혹은 더욱 평온해지는걸 내 어찌 모르겠나? 교묘히 그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낸 가면으로 덧칠해 놓았을 뿐이지.”

“역시 제대로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괴상한 취향을 제외하고 각하와 저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군요. 우리는 죽음에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고통보다 전쟁의 희열에 미친 자들이지요.”
“그렇기에 서로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모양이군. 내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
그의 물음에 나는 흐뭇한 표정으로 시계톱니를 멈추었다. 어째서 이 상황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새어나왔는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하도록하죠. 그나마 이야기가 통하는 상대라 말이 많아졌네요. 군인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다주기 위해서 해야할일이 산더미라서 말이죠.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그의 물음과 동시에 휘황찬란한 장식이 새겨진 총구를 느릿하게 장전하였다. 부드럽고 날카로운 쇠 마찰음뒤로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복잡한 이름의 찬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인의 모습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하지만 너무 길거든요. 포화로 진동하는 참호속에서 허우적대며 꾸는 꿈에서 허명에 젖어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그렇게 숨막히는 악몽이라면 깨는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가, 멋지군! 훌륭한 연설이로고. 모쪼록 영웅적인 그 언사가 교범에 실리길 바라네. 베르셸 랑뒤르! 자, 그렇다면 내게 쁘레디유 찬가에서 이르는 따사로운 영웅적인 죽음을 선사해주게.”

“뭐라는거야, 좆까.”

그리고 단 한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가 입밖으로 내뱉었던 마지막 말은 어느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을것이다. 그래야만 했다. 총성에도 주변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비록 저주받은 몸뚱이를 안고 가야만하는 숙명을 하고있는 기괴한 존재이지만 그것들 역시나 전우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린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그렇게 시체를 치워 의자에 깊숙이 몸을 던지는것과 동시에 멀리서 날카로운 발걸음이 들려왔고 그 소리만으로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역시나 루즈는 거칠

게 문짝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고 뒤로 벨라가 따라 들어왔다.

“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팔자좋게 자빠져있군. 축배를 들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바닥에 널브러진 송장을 취급조차 하지않는 그녀의 태도에 익숙함이 밀려온탓에 긴장이 풀린탓인지 안심이되어 가벼운 숨을 뱉어냈다.

“저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 원하지않은 선물을 받았어. 대총통이 키워낸 물건들이 조만간 다시금 전선으로 몰려들거다.”

“복잡한 표정을 보아하니 네놈이 벌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있었군.”

“그래.”

“상식의 범주를 너무나도 넘어간지라 그저 위만을 바라보는 놈들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하고 싶지않군. 그래서인지 둘은 서로 죽이 잘 맞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안 맞은거였나?”

“그런것같다. 그래도 굳이 거기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맞는 말이야. 작은힘에도 커대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대체 어느 누가 그 책임을 지기를 원하겠나? 아무도 그 짐을 짊어지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기꺼이 끌어안고 영웅이 되는 수 밖에 없지.”

“그래. 네놈의 시대이니 마음대로하던 대부분의 대중은 너를 찬양할거

다. 그러나 영웅놀이를 하던 전쟁광을 하려거든 하나만 해라. 결국에는 그 둘은 공존하지 못할테니까.”

그 말에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아니, 저것에게 했던말이랑 비슷한 말을 들어서 그 끝이 같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 저게 내가 될 수도 있었군.”

“한 끗 차이란거다. 하지만 이번의 사건으로인해 마르나크가 아닌 외부의 적과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해.”

“이미 외부의 적이라면 얼마든지 상대해 왔잖아.”

내가 애써 힘을내며 말하자 그녀는 내 말에 찬물을 끼얹듯 망설이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

“저주받은 불경한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같은 아벨의 자손의 반발마저도 감내해야 한다는거야.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해나가야 할거고. 전시법 발의에 대한 조언을 하달하기 위해서 법조국 이르메스에 유령을 파견한것도 그 이유에서이지.”

“그렇군. 앞으로 싸워야 할 주적들은 이제 슬슬 이해의 범주를 조금씩 넘어서는 것들이 되겠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말대로다. 참호속에서 거칠게 뒹굴던 때를 그리워 할 정도로 보다 역겨운 상황에 처할수도 있을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는게 좋을거다.”

“그런가. 아벨의 자손들을 규합하여 울타리 안으로 지켜냈지만 그것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지 못하고 몰락한 자의 운명을 똑같이 맞이 할 수도 있겠네. 내 안에 그 피가 흐르니까 자칫하면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새겨두지 않으면 안되겠어.”

“네 안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모르는 이가 없으니 그것은 그저 변명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대체로 옳은 판단을 해야할거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자마자 숨을 돌릴 틈도없군. 그러니 루즈 샤르나 총장, 모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그 말에 그녀는 절도있는 제식자세로 답하자 나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녀는 어깨에 올린 손을 내치며 차갑게 말했다.

“유령 앞에서 거짓 미소를 억지로 꾸며댈 필요는 없다.”

“그런가. 이젠 벗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거냐?”

여전히 쌀쌀맞은 그녀의 태도에 서운한듯 투정을 부리며 말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내 코 앞까지 다가오더니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벽도 바닥도 눈과 귀가 있다. 잿빛 유령들이 영웅과 터울없이 벗으로 지내는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되는 노릇이니 지나간 추억같은건 과거에 남겨두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할테지.”

“알고는 있었지만 영웅이란거는 외로운 거구나.”

“외로움에 익숙해 지는게 좋을거다. 난전을 거듭할수록 네 곁에서 싫

은소리를 해 줄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테니 말이다.”

“알고있는데 막상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

“우는소리 하지마라. 그 이름을 짊어진 자의 삶이란 본디 그런것이다. 광대처럼 거리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웃음을 팔고다닐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한 순간 불타오르는 촛불 정도밖에 되지 못하며 아벨의 안녕을 보장해줄 수 없는 뜬구름 같은거다.”

“그런가….”

“그러니 지금 각하께서 하셔야 할 일은 차후 마르나크의 국방을 위해 어떠한 명령을 하달할 것인지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국방은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할만한 압도적인 무력을 지니는 것이겠지만 일단은 희생된 용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로하는것을 먼저 하고싶군. 가능하겠나?”

“확인했습니다. 수송대에 전파하여 전사자들의 시신회수와 전사자 유가족의 방문을 최우선 사항으로 명령 하달하겠습니다.”

그렇게 절도있게 몸을 돌려 현장을 벗어난 루즈는 당당한 발걸음 소리를 남기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능선 하나를 넘어선 안도감에 화려한 의자에 힘껏 몸을 던졌다. 몸뚱이는 편했지만 마음은 편치않았다. 나는 연신 몸을 뒤척거리다 조심스럽게 몸음 일으킨 뒤에 실린더 축음기의 음악을 껐다. 툭 하고 내려간 전원소리가 조용했던 텅 빈 방

을 다소 크게 울려퍼졌다. 그리고 조금 어둡이 드리워진 별채의 차창에 간신히 드러난 내 모습을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나는 뷔른 언덕의 가늘고 긴 빗줄기가 싫어. 거세게 울고싶지만 빗물 때문에 내가 우는것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추적거리는 비 사이로 고개를 떨구는 태양이 쏟아내는 빛줄기가 간신히 몸을 데우는 듯했지만 그러함에도 어둑한 하늘은 개운하게 갤것같지 않는 모양이다. 후련함은 뒤에 남은 찝찝한 뒷맛이 입안에 남아있어 나는 괜시리 마른 입을 다시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 우두머리의 자질 』

“우지끈!”

폭풍우를 뚫으며 문을 깨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우리에게 일제히 시선이 쏠렸다. 거칠게 찢겨진 목재와 문 방첩이 간신히 매달려 삐걱거리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퍼졌다. 어째서인지 재앙의 요새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잔뜩 경계하고 있었던 발루의 전사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반가움 그리고 동시에 낮설어하는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 역시나 낮선 그 모습에 잠시 얼이 빠져있던 찰나, 발루의 전사들 틈을 거칠게 뚫고나온 한쟈네 삼촌이 정적을 유쾌하게 깨부수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우리를 반겼다.

“재앙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대뜸 무슨 짐승새끼가 발걸음을 하는가 싶었는데 셸라, 너였나? 보아하니 무사한건 너 뿐인것같고….”

여전히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한쟈네 삼촌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꽤나 오랜 길이었지.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지만 지금 당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얻은것도 있었지만 잃은것도 컸다 정도로만 얘기해두지. 그거면 충분한가?”

“잃은건 대충 안봐도 보이는구만. 그래. 일단 고생했다. 어서와라. 꼬라지를 보아하니 유쾌하게 즐길만한 상황은 아니었나보군.”

“…미안하다.”

“살아 있으면 됐다. 더구나 지금 누구보다 몸을 따스히 녹여야 할 사람은 너인것 같은데? 여유가 없잖나! 여유가!”

내 입에서 왜 사과가 튀어나왔는지 몰랐지만 호들갑을 떨던 한자네 삼촌은 그 커다란 손으로 내 목덜미를 주무르다가 거칠게 날 밀어내며 아무일 아닌듯 밀어내며 큰 소리로 호쾌하게 떠들어댔다. 그 소리는 요새에 조용히 울리며 아스라이 흩어졌다. 그렇게 한쟈네는 아비를 어깨에 지탱하여 그를 부축해 주었다. 가볍게 아비를 건네받은 그는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하고 고개를 젓더니 요새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이전에 느껴지던 호전성 없이 다소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선 나머지 정적속에 홀로 남겨진 내가 전사들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평소와 달리 분주한데다 전투를 앞둔 것 치고는 조금 분위기가 무거워 보이는데 많은 일이 있었던건 이쪽만이 아니었나보군.”

짧지만 조용한 침묵사이로 혀를 끌끌차면서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유독 크게 귓가에 들어온다. 화톳불이 타는 소리만이 정막하게 나의 물음 뒤로 잠깐 머물렀지만 이내 로도브룩 영감이 천천히 화두를 뗀다.

“이해해 주시게. 윈뒤르강 협곡에서 시련과 증명을 바라는 것들은 우리 말고도 있지않나? 자신이 밟아온 길을 부정하고 이빨을 드러내는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니 다들 마음의 여유가 없는걸세.”

“그런가. 여태 죽지도 않고 영광의 잔재에 굶주린 그것들이 참으로 빌어먹을 순간에 염치도 없이 대가리를 쳐들고 있었구만.”
“한자네는 착한 녀석이야.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은 아까운줄 모르지만 다른 이들의 목숨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 그래서인지 놈은 다른 이들을 이끄는걸 싫어하면서도 형제의 의리 하나때문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 그러나 정작 재앙의 자식이면서 아무것도 하지않은 피도 안마른것이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로 저들의 사기가 높아질거라 생각하지 않으니 그만두는 편이 어떤가?”
“그런가? 그렇다면 누가 발루의 우두머리로 적합하지? 로도브록 영감 그대가 텅 빈 옥좌위로 오를 생각인가?”
내가 적개심을 보이며 푸른 눈을 불태우자 노인네는 축 처진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더니 김 빠지는 대답을 던졌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있는 늙은이에게 발루의 옥좌는 너무 무겁고 차가운 돌멩이는 딱히 쓸모없다네.”

그 말 뒤로 그는 내게 등을 보이고는 화톳불에 커다한 장작 하나를 무심한듯 툭 던지자 크게 한번 불꽃이 일렁이며 요새 안을 밝혔다. 그렇게 그는 흐뭇한 혹은 아련한 표정을 남기고 요새 밖을 나선다. 다시금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있던 폴카가 어둠속에서 나를 노려보며 차분하지만 조금은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너에게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전사의 비명이 들리지 않나보군?”

“그래, 저 자는 영광의 전사들과 소통하고 그것들을 잇는 계보가 남긴 씨앗이었지. 그래서인지 옛 영광과 지금 그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들 사이의 괴리감과 싸우고 있었던건가?”

“혀를 함부로 놀리지마라. 노인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 그 유산을 우리 손으로 두 번이나 죽이게 된다면 발루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게된다. 짐승이나 다름없는 꼬라지를 원하는거냐?”

가시 돋친 내 말에 폴카가 이를 뿌득거리며 목소리를 높였고 요새의 많은 이들의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과거의 유산을 옹호했다. 그 뒤로 전사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한다. 아마 내 대답을 듣고싶은 것이겠지 그들은 내심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이나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나는 요새의 옥좌를 향해 조용히 걸음했다. 차가운 발자국 소리가 울려퍼질 때마다 음영이 자욱한 요새안에서 전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마침내 비어있는 옥좌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손으로 소중한듯 매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동안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하던 그 돌덩이를 웃으며 순식간에 개박살을 내버렸다. 그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전사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못하며 불만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쏟아지자 이를 등에업고 폴카가 그들을 대변하듯이 우레와 같은 포효와 기백을 내게로 쏟아냈다.

“셀라,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짓이야?”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방금 너는 과거의 유산 중 하나를 스스로 발로 걷어찬거다. 오랜동안 쌓아온 영광을 잿더미로 되돌린거라고….”

폴카가 눈보라마저 얼려버릴듯 안광을 불태웠다. 나는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져내린 옥좌에 도끼를 내리치자 칼바람이 일어나며 남겨진 잔해까지 확실하게 뭉개놓았다. 여기저기 파편과 잔해가 나뒹굴며 먼지가 자욱했고 나는 팔을 세차게 휘둘러 풍압으로 먼지를 밀어내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후대의 영광을 바라지않는 과거의 유산 따위는 족쇄잖나? 아닌가?”

“그 오만함은 그대로 너에게 돌아올거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 전사였던 것일뿐! 스스로에게 재갈을 채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발루라는 이름을 등에 업을 가치도 없는거다.”

“마음의 안식인 따스한 화톳불마저 걷어차 버리라는거냐? 용맹한 전사들의 영광스러운 길은 이제 네 품에 한 줌도 남아있지 않는거냐?”

“옛 것에 취해 눈과 귀를 닫지마라. 영광을 누린 전사들이 죽어서가는 영광의 길 따위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오히려 네놈들에게 묻고싶군. 네놈들의 따스한 화톳불은 다른곳도 아니고 다름아닌 네놈들이 딛고 일어

서 살아숨쉬는 그 곳이라는 믿음 따위는 내팽개 친건가?”

“하지만, 셀라. 어쩔 생각이냐? 뒤틀린 빛이 자신들의 영광의 시대가 만들어낸 광휘라고 여기는 발루의 옛 전사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여기저기 커져가는 목소리중에 하나의 물음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자 나는 기다렸다는듯이 그곳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답했다.

“뒤틀린 빛이 죽었어도 우리의 전쟁이 끝난것은 아니다. 영광의 시대가 지났어도 발루가 몰락한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이라 여겼던 순간에 기대어 자신의 순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금새 무너질거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전사는 적어도 이곳에는 없어보이는군.”

“결국 무너뜨릴 셈이냐? 오랜세월 발루가 쌓아올린 것들을? 그리고 어째서 그것이 금새 무너질거라 확신하는거지?”

“그것은 어미의 젖가슴처럼 따스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취해버렸던 나머지 그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않았지.”

“무슨 말을 하고싶은거냐?”

회한이 뒤섞인 내 말에 폴카도 조금 기세를 누그러 뜨렸지만 여전히 눈을 가늘게뜨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묻자 구구절절히 내가 그동안 윈뒤르강의 품에 벗어나 피부로 느낀 그대로를 담담히 내뱉었다.

“아벨의 현신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발루의 몰락과 닮아있더군. 나는 과거의 빛에 머무른 것들처럼 결코 그런 내일을 후대에게 물려줄 생

각따위 없다. 그것이 나윈 이름을 하고있는 무언가라면 더더욱 말이지. 그러니 과거의 영광에 그저 무기력하게 바스러질 것이냐? 그대들의 손으로 이루어낸 지금의 발루는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거냐?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스스로의 손으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빚어낼 용기조차 내던질만큼 과거의 유산이 소중하고 두려운거냐?"

내가 모가지를 뿌득거리며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하자 소란스럽던 요새 안의 그들은 얼빠진 표정을 하더니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아버지들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비겁한 애새끼처럼 싸우는 것 대신 스스로의 이름을 내걸고 바닥부터 시작할거다."

내가 이를 악 물고 그 말을 간신히 뱉어내자 오랜동안 시련과 증명으로 순간을 피부로 느꼈던 무언가를 그들도 느꼈는지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먹을 움켜쥐었고 이내 이전에 익숙하게 보았던 한결나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미간을 구기면서 탐탁지 않은 얼굴을 풀지않은 폴카 역시 더이상 첨언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나는 그걸로 충분하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 했다.

"좋아, 그렇다면 일어나 영광의 시대를 살아보자고."

그렇게 다시금 바닥에 도끼를 찍어누르자 굉음이 울려퍼졌다. 모든 전사들의 마음을 돌린것을 아니었고 많은 이들은 복잡함을 감추지 않았지만 내심 그들이 안고있었던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된 모양이었다. 그

들에게 필요했던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확신이다. 발루의 명예와 영광을 등에 입고 싸워왔던 과거는 이제 벗어버릴 시간이 왔음이 느껴졌다. 이제는 스스로의 영광을 쓸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며 그들을 혼에 바람을 불어주려 애쓰는 낯선 내 모습에 새삼 가슴이 답답해져 괜스레 주먹을 거세게 쥐었다 펴더니 씁쓸한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익숙한 협곡의 눈보라와 고난을 헤치며 해가 중천에 떠있을 즈음에서야 한쟈네의 거처에 닿을 수 있었다. 문 밖 너머에서도 아비와 한쟈네가 나누는 대화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왔다.

“의심은 하지마라, 한쟈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이 악물고 입을 열지 않으니까 가볍게 그녀에게 듣고 싶은것이 있으니까 말이야.”

“하하! 한심한 녀석. 나는 네놈을 걱정하고 있는거다. 셀라는 이미 재앙이다. 하지만 나와 조금 다르게 따스한 녀석이라 잘못 뒤섞인다면 그 따스함에 금방 녹아버릴거다.”

“하하! 따스함이라고? 윈뒤르강에서 그 말은 저주나 다름없잖나?”

“그 작고 멍청한것은 혹한이 몰아치는 윈뒤르강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들 생각보다 발루를 훨씬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들거다.”

그 말을 뒤로하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힌 한쟈네가 나를 맞이했다. 반가움을 뒤로하고 잠깐 스쳐간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이 뒤섞여 있

었기에 그 원망서린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제 발이 저려서 이를 악 물고 고해하듯 쩌렁쩌렁하게 털어놓았다.

“아비를 망가뜨린건 나다.”

“그건 너의 의지였나?”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놀랄만큼 침착한 모습을 하고있는 그는 자신의 형제를 갉아먹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피붙이에게 다시 한번 저의를 묻고있었다. 그의 따스함에 나는 울분을 토해내듯 겪어온 시련과 증명의 순간을 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확실히 나의 의지였다. 시련과 증명을 위해 대면한 신수와의 격차는 명확했다. 확실히 나의 패배했다. 확실히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다. 꽁무니빼고 목숨만 달려있는 나의 모습이 추하고 초라해서 그 자리에서 분노를 쏟아내는동안 내 욕심은 어느새 그로부터 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랬구만!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너는 재앙의 씨앗이로다.”

여지껏 들어왔던 재앙이라는 어감과는 다르게 그것은 칭찬의 말이 아니라 형제를 망가뜨린 원인을 향해 쏟아낸 원망이 조금섞인 말이었다. 웃음뒤에 그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아마 자신이 그 곁에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 여겼을테지. 간신히 분노를 삼키고있는 망치를 쥔 그의 손 위로 핏줄이 여러 갈래로 드러났고 우리 주위의 공

기가 일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본능적으로 경계의 태세를 갖추며 그의 눈을 피하지않고 차분히 말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제대로 물려받았다.”

“무엇을?”

기다렸다는듯이 나는 몸에 새겨진 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거칠게 울음하는 벼락을 입고 마른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번개를 쥐었다. 그야말로 모든 발루의 전사들이 바라기 마지않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즐거웁지만은 않았다. 만반의 준비가 되지않은채로 그저 내가 아비로부터 훔쳐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두르고도 씁쓸한 표정을 하고있는 그것을 한자네도 느꼈는지 그것을 차갑게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훌륭하다. 하지만 어째서 주위에 두르고있는 룬에 귀를 기울이지않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있는거냐? 금방 죽어버릴거다.”

“아비와 똑같은 말을 하는군. 안타깝게도 나는 재앙의 그릇이지만 그것에 차마 못 미치는 모자란 것이기 때문이다.”

“발루는 외로운 사투를 벌인적이 없었단다, 얘야.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죽음조차 불사르며 싸울 수 있었던것도 형제들에게 등을 기꺼이 맡길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게지. 마음을 열어 강함을 증명하면서 무얼 그리도 얻고 싶었는지 차근히 곱씹어 보려무나.”

그는 나를 몇번이고 증명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온 몸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몇번이고 느껴왔던 죽음이 다시한번 느껴진다. 목 뒷덜미가 서늘하게 나를 감쌌지만 저번처럼 그것을 이겨내려 애써 발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차분하고 따스하게 받아들였다. 한자네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왠지모를 흐뭇한 표정을 하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증명을 해보이기 위해서 두르고있는 벼락을 조심스럽게 그에게 향하며 차분히 말했다.

“재앙이 망가진것은 오롯이 나의 불찰이니 그걸로 조금 후련해 진다면야 모자라겠지만 조금은 놀아주마.”

“그렇다면 이제 꽤나 즐거운 놀음이 될지도 모르겠군. 예전에는 손가락 하나만 튕겨도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

그가 큰 숨을 들이쉬고 번개처럼 내 품으로 들어와 머리통을 날려버리려는 기세로 망치를 휘둘렀다. 나도 그에 화답하듯 도끼날로 응대했다. 거짓된 웃음은 내던지고 직접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 털어놓고 날을 서로의 목을 향해 휘두르면서 가빠진 숨과 눈 위로 흐드러지는 피를 쏟아내면서 머리가 조금은 식어가며 한결 기분이 나아지는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자네는 언제나 좋은 대화 상대였다. 이전에는 한참을 못 미쳤지만 윈뒤르강 품 밖에서 수많은 시련과 증명을 겪어온 경험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구름을 단칼에 쪼갤 정더로 강한 벼락이 한자네를 향해 떨

어졌고 그는 넝마가 되었고 이미 충분히 증명을 했는지 혹은 조금 지쳤는지 마침내 그 무거운 궁둥짝을 땅에 대고 털썩 앉았다.
“전사들의 영광스러운 길은 있다 애송아. 그건 옥좌를 개박살을 내 놓았다고해서 사라지는 허황된것이 아니다, 임마.”
“알고있었나?”
“그래. 병신같은 짓이지만 잘했다. 그걸로 이미 많은 전사들은 과거의 영광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다. 누군가는 해야했던 궂은일을 해준거지. 그야말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재앙 그 자체였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그를 향해 가벼운 웃음을 보이고는 그를 뒤로하고 문을 발로 거세게 걷어차며 들어갔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게 타오르며 지는 해가 덥혀놓은 짐승의 가죽 여럿 기워만든 수많은 깔개에 온기가 남아있었고 거대한 화톳불 장작 타는 소리 때문인지 몸이 노곤해졌다. 그 가운데 한자네의 의자에 걸터앉은 아비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난리통에도 잠이 오던가? 나름 이를 악 물고 휘둘렀지만 그렇게나 부족하고 지루한 싸움이었나?”
“하하! 약한 것들은 영 불필요하게 대화를 길단말이지.”
아비가 농담을 던지며 유쾌하게 껄껄댔다.
“자격이 없는데도 그것이 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마라. 순서만 달라

졌을 뿐. 네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나도 알아."
"아직도 그날의 패배를 곱씹으면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이가 갈린다."
"졌다니? 네년은 이긴건다. 살아있으니 이긴거라고. 앞으로도 무수히 질거다. 계속 무너져라. 하지만 일어서라. 나약한 것들은 작은 상처 하나조차 무시하지 않으며 그 상처가 남긴 흉터는 커다란 교훈이 되기도 한다는군."
"하하! 나약한 자들의 입장을 모르면 어설픈 조언 따위는 애초에 하지 말라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거냐!"

"셀라, 재앙의 딸이라고하여 굳이 너까지 재앙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에 나는 참지못하고 목을 좌우로 뿌득거리며 아비를 노려보았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냐?"
"줄곧 말하지 않았던가? 너는 변함없이 강하다는 걸 말이다."
"그것으론 한참이나 설명이 부족하군."
"강하다는 것의 척도를 오직 힘이라는 것으로만 나누면 너는 내게 한참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너는 나와 달리 마냥 때려부수는 멍청이가 아니라는거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나?"
"압도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강자에게는 적이 너무도 많단 말이지."

그가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이 회한에 찬 말에서 나약한 냄새가 나자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당신이 윈뒤르강에 남겨온 모든 흔적들을 부정하려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면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울 정도로 겁쟁이가 된거냐?”

“멍청아 그럴리가 있겠나? 나는 최강이다. 재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발루의 전사들은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도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껏 발루를 지탱해 온 것은 재앙과 그를 추앙하는 강인한 전사들이다. 그것 이외에 다른 의미의 강함은 들어본 적 없다.”

“이 땅에 재앙은 항상 남아있을 수 없다. 윈뒤르강에도 눈보라나 폭풍우조차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지 않던가?”

“지금 당신이 내뱉는 이 말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건데?”

“네놈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스스로 새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내가 죽으면 윈뒤르강의 협곡은 너의 것이다.”

“죽어? 어이가없군. 이렇게 내 눈앞에서 여전히 재앙이 숨쉬고 있는데 나를 약올리는거냐?”

나는 반사적으로 거리를 두며 도끼날을 더욱 꽉 쥐며 내 앞에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것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주변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해도 앓는 소리를 내던 윈뒤르강의 우두머리가 쏟아내는 시선에 다리는 후들거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낮게 으르렁대며 내 앞에 서있는 저것은 더이상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정도로 사나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듯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다.

“뭐하냐?”

“나는 강함을 얻었지만 그 뒤가 보이지 않는군 정답을 알려줘.”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느새 내 앞에 서서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쳤고 나는 잠에서 깨어나듯 허겁지겁 정신을 차렸다.

“씨발!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뭐가?”

“재앙마저 부수는 강인함이 부족하다는 것 말이다.”

“시덥지않은 연극은 집어치워라, 이 멍청한것아! 네년은 되도않는 재앙을 연기하는 것 뿐이니까!” ”

“아냐…. 이래서는 안돼.”

“무엇이 너를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거지?”

“내가 여지껏 지껄이던 재앙을 뛰어넘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말이 고작 재앙과는 또 다른 강인함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나? 그것은 그저 패배자의 핑계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이를 뿌득거리며 원망어린 눈으로 아비를 바라보자 여전히 미소를 잃지않으며 내게 큰 소리로 자랑스러운듯 내게 말했다.

“네년은 윈뒤르강의 폭풍이 아니라 따사로운 화톳불이다.”

“씨발, 고작 화톳불 따위로 무엇하나 제대로 쳐죽일 수 없잖아!”

“고작이라니 너는 진짜 병신이냐? 화톳불도 그렇고 그 주위로 타들어가는 작은 불씨로도 재해속에서도 몸을 녹일 수 있잖아?”

“그딴게 무슨 쓸모가 있지?”

“길 잃은 폭풍속에서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만큼 멋진게 또 어디 있겠나? 지금은 몰라도 아벨의 현신이 개박살이 나있을 때 쯤이면 무지렁한 네놈의 머리통으로도 조금은 깨닫게 될거다.”

“포용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할 것 같진 않군.”

내가 싸늘한 대답으로 일단락하자 그는 답답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조금은 익숙하지 않고 다른 것이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포용이라는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이미 네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짐짝처럼 정신머리가 불안정한 쪼그만 짐덩이를 너에게 안겨놓은것도 그것 때문이지. 마음 둘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일이다. 안그런가?”

“내가 마음 둘 곳은 재앙이 남기고 간 강인한 흔적뿐이다.”

“그 흔적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면 지금보다 더욱 큰 힘을 직면해야만 할 것인데. 약해빠진 네놈이 그것을 감내할 수나 있겠나?”

“물론 잘 알고있다. 그럼 더욱더 강한 힘으로 찍어누르면 그만이다.”

"…셀라."

초조해하며 눈을 부라리고 있는 나의 이름을 따스하게 부른것은 조금전까지만해도 내게 적개심을 드러낸 재앙이었다.

"초조해 하지마라. 이전에 너에게 일러두었던 말을 기억하는가?"

"당신에게 얻은 가르침은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있다."

"흩날리는 눈의 모양은 제각각이다."

"그래, 그러고보니 그런말도 했었지."

"그렇듯 재앙의 형태 또한 제각각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른다. 적어도 내가 아는 재앙의 모습은 단 하나뿐이다."

"이런 머저리 같은 새끼! 재앙이 휩쓸고 난 뒤 화톳불의 따스함이 상처입은 협곡을 아물게하고 그것은 더욱 단단해 진다는 말이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는 그렇게 생겨먹은 재앙이라는거지."

"재앙은 부수는 것이지 무언가를 고쳐먹는 것 따위가 아니야."

"발루의 전사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강인함만이 아니야. 네놈이 만드는 윈뒤르강은 더욱 건강한 모습을 할거다!"

그의 말에 나는 무언가에 맞은듯 멍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분한 모습으로 내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인자한 얼굴로 갑자기 내 얼굴을 주먹으로 세차게 후려 갈겼다.

나는 맥없이 한참 바닥을 나뒹굴렀고 집 안의 물건은 개박살이났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재앙은 즐거운듯 배를 잡고 웃자 한참동안 정신을 붙잡고 나서야 머리를 뒤흔들며 아비에게 소리쳤다.

"이런, 씨발! 뭔데?"

"이제 알겠나? 부수는 것만이 발루의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거면 그냥 말로 해도 됐잖아?"

"풀이 죽어서 침울해있는 상판떼기가 마음에 안들더구나. 발루의 얼굴을 하고 있지않은 꼴이 역겨워서 본능적으로 나갔지뭐야."

내가 어이가 없이 멍하게 그를 바라보고는 조소를 흘렸고 그 모습을 보던 그 역시 즐거운듯이 팔뚝에 힘을 주면서 내게말했다.

"인사는 됐다."

"하하! 뭐라는거야. 진짜 정신이 나가버렸나?"

그의 멍청한 모습에 나도 어느새 진정이 된 것 같았다.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은 진정이 된 듯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머리에 담아두는 것보다 몸이 가는대로 움직이는 편이 한결 나았다. 그 찰나의 후련함을 방해라도 하고 싶은지 빛의 잔챙이 하나가 나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순식간에 나를 향해 다가왔고 그것을 잡아다 보기좋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런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는 그가 내게 소리쳤다.

"잊어버린건 아니겠지? 지금 네놈 앞에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에이릭

키얄루손마저 뛰어넘는 재앙이라고 불리우는 자이다. 그러하기에 넌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 협곡에 흩날리는 눈꽃의 모양새가 저마다 모습이 다른것처럼 굳이 네놈도 나처럼 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네놈들은 평생을 나의 강함을 이해할 수 없을테지만 나 역시나 네놈이 가진 강함의 형태를 알 수 없다. 그걸 알 수 있는것은 네놈 자신뿐이지."

"단순히 말해서 네놈의 가능성을 버리면서까지 내 꽁무니나 쫓아가며 네 한계를 스스로 단정짓지를 말라는 말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개운한 표정을 지으며 힘차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몸에게 한계라고?"

"그래, 이젠 없나보군."

아비는 조금 지쳤는지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의자위에 앉으며 지난일을 추억하듯 혹은 미래의 재앙을 흐뭇하게 그리듯이 내게 말했다.

"네가 만들어나갈 발루는 내가 이루어놓은 세상보다 나약해 보일게다. 그러나, 걱정은 접어두거라. 그것이 한참후의 발루에게 있어서 더욱 굳건하고 강인한 모습일테지."

"이해할 수 없군."

"그래.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거다."

"내가 만들어낼 영광의 시대에 닿지 못하고 낙오되다니 불쌍하구만."

"까불지마라. 재앙인 이 몸이 닿지 못하는 세상은 없단다."

그는 마지막까지 위용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윈뒤르강의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다 죽어가는 반송장 주제에 내가 동경했던 윈뒤르강의 폭풍우처럼 또렷하고 사나운 눈깔을 하고있었다.

“…내 시간은 여기까지다.”

“네놈은 아직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있다. 그건 누가 정하는거냐?”

“재앙의 순간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법이지. 그 순간은 자연스레 너의 귓가에 잔잔한 폭풍우로 닿을게다.”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멋지군!”

내 말에 아비는 온갖 욕지거리와 호쾌한 웃음으로 그 느낌을 어설프게나마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을했다. 거친 눈보라 뒤에 포근하게 내려앉은 아무도 닿지않은 눈길에 첫 발을 딛는 상쾌한 기분이라고 했다. 아비가 그려낸 그 풍경을 입에 담을때마다 폭풍우와 마른 벼락이 울음했고 화톳불까지 흥겨운듯 미친듯이 거세게 타올랐다. 그 뒤로도 한참이나 의미없는 헛소리들을 지껄여댔다.

“…그럼 여기까지군. 재앙이 물러가니 축제의 시간을 즐기도록.”

“윈뒤르강의 재앙은 여기서 멈추어지는가?”

“미친거냐? 당연하지만 재앙은 계속 이어질거다.”

그는 내 머리통 한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쿡쿡 찌르며 내게 말했다. 나는 그동안 담아낸 어떤 룬의 가르침보다 잠깐이지만 이마에 닿은

손길을 한참이나 깊숙이 새긴뒤에 일어나 돌아서서 걸음하였다. 무거운 발자욱 소리와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려는 찰나 등 뒤로 재앙의 포효가 뒤섞여 들려왔다.

“셀라!”

오랜만에 조금 들뜬 아비의 목소리를 들어서인지 반가움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자 그는 여전히 삐딱하고 오만한 자세로앉아 호쾌하게 웃으며 내게 일렀다.

“재앙이 아니라 왕이 되라.”

“어어!”

후련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아비를 뒤로한채 집을나왔고 여전히 무거운 궁둥짝을 바닥에 붙여놓은채 자빠져있는 한쟈네에게 말했다.

“구름에 닿을 높은 장작을 준비하라. 오늘밤 축제를 벌일거다.”

“오냐! 하지만 명심해라. 벼락과 눈보라를 입은것 따위로 발루의 전사들이 너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것 같으니 조금은 긴 여행이 될게다.”

“나를 따르라고 한 적 없어. 무릇 재앙이라는것은 두려워 마지않고 숭배해야 할 존재이니 자연스레 고개를 떨굴것이다.”

“어이쿠야, 새로이 눈을 뜬 재앙은 두렵구나.”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미치광이 빛에 잠겨있는 이를 눈보라로 식히고 어둠속을 살아가는 이에게 벼락을 내려 기꺼이 밝혀줄테니.”

한쟈네는 그리운 얼굴로 저택과 나 그리고 하늘을 한번 흘겨보더니 혼잣말을하듯 무심하게 한 마디를 툭 내던졌다.

“…따스함이냐?”

그 말에 나는 윈뒤르강의 협곡을 향해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내었다. 그 짧지만 긴 외침은 감히 나 의외의 짐승 따위가 울음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늘을 가르고 협곡을 뒤흔드는 거센 포효였다.

『 친구라는건 뭘까 』

차가운 어둠이 고요하게 내려앉았지만 우중충한 하늘과 시체들의 산을 넘어온 그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수들의 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존재감을 죽여가며 목숨을 부지해온 그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데아의 만물이 부수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의 무수한 행렬과 하늘을 가득메운 사슬의 파열음 속을 뚫고나왔던 그때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랜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파랑새들은 마침내 아벨의 자손들이 자리한 경계에 닿았고 그들은 더이상 불안정한 이데아의 개체들이 아니었다. 서로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꿈들이 하늘의 은하수처럼 무수히 펼쳐졌고 우리는 그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포근한 둥지가 되어주었다. 자신들의 꿈이 향하는곳에 머무르고 정착하며 그 보금자리에 익숙해졌고 꿈을 서로 나누면서 어느새 함께 여행의 길에 올랐던 파랑새들의 지저귐은 하나 둘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나의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였다. 우리는 입회인으로부터 둥지 열쇠를 인계받아 집 안 한켠에 약속이라도 한듯이 동시에 짐을 휙 던져두고 방 한 가운데에 서서 안락한 보금자리가 주는 기분좋은 냄새를 여유로이 만끽했다.

“이든, 즐거워보여.”

그들의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추억에 잠겨있었다. 잠깐이었지만 꽤 오랜

동안 여유로움과 포근함에 몽롱해져 있을때 로렐라이가 파랑새들과 함께 둘러싸여 꿈과 희망을 지저귀던 그 때 내게 했던 말과 겹쳐지며 잠에서 깼다. 그녀의 말에 나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짐과 가구를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답했다.

“길을 잃었지만 다시금 일어나 꿈과 희망을 안고 한줄기 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나까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거워져.”

“…괜찮아?”

그럴듯하게 숨겼다고 여겼지만 역시 감이 좋고 통찰력있는 그녀의 짧은 그 한 마디가 나의 가슴을 꿰뚫었다. 텅 빈 표정으로 허공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답했다.

“카인의 핏줄이기는 해도 그때만큼 누군가를 그렇게 필사적으로 미워하고 순수하게 죽이고 싶었던적은 없었어….”

“친구를 향한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으니 충분히 이해해.”

“줄곧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때 내 얼굴은 어땠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것처럼 물어봤지만 내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오려는 말을 억지로 여러번 삼키다 조심스레 말했다.

“슬퍼보였어.”

“그랬구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하고 안타까웠나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엔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

“응. 그리고 샬롯이 죽고 다들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평소에도 너머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녀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알아챈 듯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대답 대신에 조용히 차를 끓여내어 내게 건냈다. 나는 찻잔위에 가볍게 이는 물결에 눈을 떼지않고 가만히 그것을 응시하다가 간신히 차를 입에 머금었다.

“맛있다.”

짧고도 길었던 시간을 함께날던 파랑새들이 다시금 힘차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기위해서 저마다의 둥지를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하나같이 마음을 그러모아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그 날갯짓을 아낌없이 도와주고 서로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길을 축복해 주었다. 덕분인지 모두의 머릿속에서 깨어진 균열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직 단 한명만은 그러하지 못했다. 한명도 빠짐없이 머릿속 균열들은 균열들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자취를 감추었지만 유독 나만은 그 침식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는 모양이었다. 내 안에있는 그것은 더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지워지지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내 곁에서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는듯했다. 함께했던 모두가 모른척하고

있었지만 내가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있었을 것이다. 나의 머릿속 균열이 숙주가되어 옮겨가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했다. 한명이라도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그 마저도 사치였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남아야 그 균열은 요동치지않고 고요하게 남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샬롯의 실에 뒤엉키고 더욱 확실해졌다. 망가진 존재는 비탄의 인형들 뿐만이 아니었다. 복잡한 마음을 삼키고 찻잔을 비우면서 부정한 감정을 비워내듯 억지로 스쳐 지나간 소중했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슬픔을 잊으려고 허우적대며 발버둥 치는것을 어느 누구라도 쉬이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는 필사적으로 행복을 게워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흐르며 어스름한 새벽이 찾아왔다. 새벽까지 지저귐을 하나하나 음미한 우리는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짐을 깨달았고 나는 외투를 걸치며 조심스럽게 일어나자 로렐라이가 시간을 붙잡듯이 급하게 일어나며 내게 말했다.

“에단,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안락한 보금자리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모두가 그러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둥지는 네게 항상 열려있어.”

“응! 고마워.”
“그렇게 웃지 않아도 돼. 가끔 네가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거든. 우린 이제 더이상 차가운 새장에서 웃음을 갈구하는 새가 아냐.”

“하지만….”

“걱정하지마. 우리가 너를 위해 울어줄게. 너는 여느때처럼 하늘을 향해 웃음을 지으며 춤을 춰줘. 너는 그때 가장 눈부시게 빛나니까!”

항상 나른한 표정으로 무언가 너머를 바라보던 로렐라이가 감정을 드러내며 입술을 깨물더니 간신히 그 말을 내게 건냈다. 그 모습에 나는 새삼 함께한 친구들의 기분좋은 변화를 다시금 눈에 담았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 잔뜩 상기된 얼굴을 하고는 그녀에게 장난스레 말했다.

“우와, 그렇게나 낯뜨거운 소리를 할 수 있다니 한편으로는 부럽네.”

그 말에 그녀는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눈을 한번 감고 다시금 나른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너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따스한 그 한 마디를 건네줘.”

마치 내가 여지껏 건넸던 상냥한 말에는 진정한 따스함이 담겨져있지 않았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진심으로 내게 건넨 로렐라의의 그 말에 상처보다는 머릿속의 균열 너머의 나를 바라봐주려 애쓰며 긍정하려는 그녀의 상냥함이 전해졌다. 그녀의 통찰과 시선의 끝에는 내가 항상 우려해왔던 조각난 머릿속 균열처럼 금이간 붉은 조약돌에 담긴 서역과 셀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하얀 짐승은 언제나처럼 예뻤다.

“고마워.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녀는 강해.”

“강한 사람도 때로는 울고 싶을때가 있는법이야. 그건 우리가 피오르

의 파랑새라서 아는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감이야.”

“고마워. 언젠가 너희에게도 셀라를 소개시켜줄게!”

“그래. 창공에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찬 날갯짓을 하렴.”

“고마워. 너희들을 만나서 참 다행이야. 즐거웠어!”

“에단, 모두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친구를 더 늘리지 않아도 돼. 충분히 많은 이들이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줘.”

“응, 그럴게!”

헤어짐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는 서로 멋적은 웃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잠깐의 적막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으응, 그럼.”

로렐라이는 고장난 인형처럼 삐걱거리고 주춤거리다 그 말을 남기고 아늑한 보금자리의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리고 잠시뒤에 켜진 불을 밖에서 한참이나 바라보고 차갑고 어둠속에 드리워진 새벽길을 홀로 걸었다. 그렇게 자신들이 꿈꿔왔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희망한 발자욱을 남기려는 친구들을 기분좋게 보내주고 처음처럼 다시금 혼자가 되었다.

“다들 행복한 모양이야. 기분 좋네.”

길바닥에 널브러진 돌멩이를 발로 차다가 가만히 멈추었다. 외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겠지만 그 순간이 이전만큼이나 괴롭지만은 않았다. 과거의 가슴아픈 기억도 금이 가버린 붉은 조약돌에 드리워진

불안한 그림자마저도 더이상 나의 정신을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 균열의 조각들이 마치 내가 품어온 소망대로 조금씩 맞추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균열들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텅 빈 공허함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피오르가 새로이 태어날때 머릿속에 어지럽게 조각난 균열의 파편이 우리의 시간을 제 멋대로 흐르게 하는것도 원치는 않았지만 그 소망을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 다시말해 그것이 짙게 새겨질수록 파랑새는 창공을 향해 더욱 힘찬 날갯짓을 하게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그 끝에는 영혼의 불균형이 찾아오는 것이다. 인형들의 저택에서 샬롯과 뒤섞여 춤을 추고 앤섬의 균열이 함께 스며들어 그것이 공명을 하듯이 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며 알게 된 알고싶지 않았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날갯짓을 반복할수록 주변의 시간과 공간들을 제 멋대로 비튼 것이다. 그 와중에 친구들은 그것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둥지를 찾아갔지만, 불안정한 균열을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있는 내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니 울음보다 허탈감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렇게 조금 더 깊은 산기슭으로 몸을 내던졌다.

“나는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건가?”

얄궂게도 가는 빗방울까지 내려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내 콧잔등위로 떨어졌다. 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내렸지만 어찌나도 그것들이

그렇게 무겁게 나를 땅으로 짓누르고 있는지 참으로 야속했다. 손에 쥔 우산을 펼칠 생각도 하지못하고 이내 고개를 떨구어 땅에 시선이 머문다. 혼자가되니 혼잣말은 물론 잡생각이 늘었다. 햇살을 마주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차가웁고 눈 앞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이 고요하고 또 어두웠다. 그리고 이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차가운 비단결같은 아침이슬을 닮은 무언가가 나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다가 나를 훑고 지나가는 그것의 손길을 재빠르게 낚아챘다. 머리의 저릿거림과 함께 다시금 코에서 따스한 핏줄기가 얇게 새어나왔다. 그것이 흐르며 턱끝에 매달리다 억겁의 시간과함께 떨어지고 나서야 다시금 천천히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제서야 눈알을 굴려서 시선이 멈춘 그곳을 향해 말했다.

“이따금 귓가에 메아리치던 비명소리의 근원이 여기있었네. 겉모습은 인자한 어른의 모습을 하고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어. 분명히 내 머릿속의 균열을 따라 온거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 둥지를 찾지못하고 방황하며 뒤섞인 변절자의 울음이 들려와.”

그러자 그것은 자신을 낚아챈 그 감촉을 원했던 것인지 그 팔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따사로운 시선과 함께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말했다.

“둥지를 찾지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한 순간에 느끼는것은 너도 나와 같아서겠지. 그러함에도 나를 두려워 하는것은 끝없이 영원을 방황하고

있는 절규가 너의 목소리와 닮아있기 때문인가?"

"아닐걸. 내가 두려워 하는것은 꺾여진 날개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이지 방황하는것은 이제 더이상 두렵지 않아."

"다부진 말투.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냥한 말투와 자상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지마. 어차피 나를 죽여서 나약해진 영혼을 삼키려고 찾아온거잖아."

"너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내가 너를 찾아온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부른거란다. 나는 네 머릿속 균열이기도 해. 그래, 나도 반가워. 필사적으로 적대를 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나는 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겠지. 하지만 균열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며 해방되고싶은 절실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그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더구나."

그것의 따스한 말과함께 내 머릿속의 균열이 동의하듯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삐뚤어진 마음이 만든 균열을 꿰뚫듯이 바라보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그것에게 겨누며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그 말은 친밀감이 녹아있는 짧은 인사에 불과했지만 그것에게 화답한것은 내가 아니라 다름아닌 내 머릿속 갈라진 균열이었다. 그러자 내 온 몸이 그것을 부정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잡았던 우산을 가늘게 비틀어 쏜살같이 그것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러자 구멍난 그것의 가슴은 영혼의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메워지더니 조용히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내기 시작했

다. 얼마 지나지않아 소름끼치는 무언가가 파도처럼 비명과 함께 내게 밀려들어오자 그것을 한치의 망설임도없이 베어냈다. 그렇게 바스라지며 존재가 지워지면서도 흐느끼는 그 안타까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그를 향해 물었다.

“둥지를 찾지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괴롭히는게 즐거워?”

나의 작은 외침과 동시에 머릿속 균열들이 밖으로 새어나오며 세상위로 어지러이 수놓으며 나의 소망을 부정하는 낯선이를 원망하며 원없이 쏟아부었다.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는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오랜동안 낯선이를 향해 해소되지 않았던 쌓인 불만을 풀어낼 때마다 그는 아무렇지않게 먼지를 털고서 조용히 일어나 나에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엉망이 된 몸으로 휘청이면서 다가오는 낯선이의 차가운 숨결이 무서워 움직이지 못한것이 아니다. 순간 스치듯이 그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굳이 거리를 벌리지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선 것이다. 내 눈 앞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한참이나 눈알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분주히 움직이는 수많은 눈깔들의 시선이 내 눈에 꽂히더니 그것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머리를 식힌것 같으니 다시 한번 말할게. 나는 너의 영혼을 찢으려고 온것도 너를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네게 담겨진 영혼을 조롱한다고 해서 내 안의 삿된 감정들의 흔적들이 씻겨지는것은 아니기에.”

“내 슬픔에 대해서 한줌이라도 이해하지도 못할 너희들의 슬픔따위 내가 이해해야할 의무는 없을텐데?”
그것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가 내 머릿속 균열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더듬고 헤집으며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같았다. 내가 또다시 루시드를 사정없이 흩뿌리며 묻자 그 격류속에서도 평온한 얼굴을 하고 내게 푸념하듯 알지못할 말들을 털어놓았다. 본능적으로 내 눈 앞에 있는 저것들은 카인의 핏줄이며 영혼을 유린하는 존재라고 소리치며 부정하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그것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서로의 슬픔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지. 어차피 너도 이 몸뚱이에 담긴 수많은 영혼들의 비명따위 관심없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영혼을 마시며 살아왔잖아? 이제와서 후회하고 내 머릿속 균열을 이해하니 용서를 구하려는거야?”
“그러는 너도 머릿속의 균열로 다른이들을 오염시키며 살아왔잖아?”
“뭐라고?”
“파랑새의 영혼은 불안정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품게 만들어.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것은 영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니까. 하지만 너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만큼 다른 이들의 영혼와 기대를 끌아서 쓰고 있던거야. 덧붙여 설명하자면 꿈을 현실로 빚어내는 루시드가 뒤집힌 경계의 틈에 네가 서 있는거

지. 그러니까 현실의 소망에 입김을 불어 넣어준것이 아니라 네 친구들 하나하나 네가 만든 꿈대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라고 보면돼."

"…잠깐, 무슨 말을 하는거야?"

"인형의 집에서 너의 인연이 비탄의 인형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때 너, 안심했지?"

"그만해. 더 이상 무언가를 미치도록 미워하고 싶지않아."

"그래서 꼭두각시 인형들을 보면서 거부감이 일었던거야. 자신의 의지대로 춤추지 못하게하는 그것을보며 우월감을 느꼈고 너희들이 느낀 그것은 동족 혐오였던거고. 그래서 네 꿈에 안긴 아이들은 죄악의 공명으로 고통받은게 아니라 너의 루시드 때문이었던거야."

그의 말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균열은 더욱 미친듯이 요동치고 그것의 안에 담긴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와 공명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을 이 자리에 켜켜히 쌓아올렸다. 그리고 어느새 우산으로 그것의 살갖을 채찍처럼 찢어발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분이 나쁘지않아 우산을 후려칠 때마다 영혼이 몇꺼풀이나 뜯겨져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자 입가에 미소가 고였다.

"그래, 부정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인정하는게 빠를수록 친구라고 부를만한 것들과 진심을 나눌 시간은 더욱 깊어질거야."

그렇게 해가 뜨고 그것의 영혼이 태양에 말라서 바스러질 때까지 원망

스럽게 그것의 위에서 부수고 또 부수었다. 그렇게 한참이나 무력한 그것을 즐거이 깨부수다 그것의 팔을 붙들자 눈 앞이 뿌애졌다.

“이제 제발 그만해.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않았어. 오히려 아까부터 내 안에 담긴 수많은 영혼에 상처를 입힌건 너잖아. 이제라도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들어?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그러던가.”

차가운 말과 함께 내가 그의 손을 뿌리치자 그것은 잡혔다가 풀린 자신의 팔에 감겨있는 무언가를 뚫어질듯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천천히 입을 열며 서두를 뗐다.

“다정한 아이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련? 영혼을 마셔도 해갈되지 않기에 반복된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지 못했어. 인자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틀렸어. 어른으로 치자면 네 쪽이 더 그 말이 어울리겠지. 너에게 이해를 바라지는 못하겠지만 수많은 영혼을 삼키면서 그 안에 담긴 죄악이 뒤섞이면서 소중한 이를 잊어버리고 정신은 무너졌어. 너에게 찾아온것은 하나의 육신에 단 하나의 영혼을 담아내어 오롯이 나로서 편하게 죽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 너의 손이 필요한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것에 익숙하잖니.”

“소중한 이라…. 아니, 잠깐만.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마.”

그것의 한 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팠다. 그들의 희망을 부채질하는 나의 행동을 질책하는 그의 말은 나를 꿈에서 깨우려는듯 거칠게 흔들었다. 그는 혼란스러워 하고있는 내게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듯 가르치려는듯이 주절거리던 입을 다물고 세상 느긋한 모습으로 태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가 말했듯이 여전히 나약하고 환상속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않지만 카인의 핏줄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 않니?”

“미워.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은 친구를 원했던것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거야.”

“카인의 핏줄 하나만 자리한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면 나 하나로 충분할거야. 이 몸뚱이에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로 점칠되어 있어서 원하는만큼 죽여도 좋아.”

카인의 핏줄 주제에 너무나도 슬픈 얼굴을 하고있다. 확신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본능적으로 그것은 진실이라고 내 스스로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도 그렇지만 태어나서 단 한번도 외부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도없이 온 몸이 굳어버린채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검은 그림자가 드러내는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렵지않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수많은 이들을 향해 품었던 감정을 고스란히 나에게 들이밀었다. 이것들은 참으로 비

겁하기 그지없다. 글허게나 죽고 싶어하면서 다른 이들, 그것도 아벨의 자손의 손을 빌리려 하고있다. 나는 결코 죽을때까지 카인의 핏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없을것이다. 그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며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뿌득거렸다. 한 줄기 눈물과 함께 내가 말했다.

“친구구나?”

“…그래.”

쉽사리 그의 손을 다잡을 수 없었던것은 나의 세계가 좁은 균열속에 갖혀있었던 탓이다. 모두가 친구가 되었으면 했던것도 그저 나의 욕심이었고 내가 세상을 잘 알지 못했던 탓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친구라도 사실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나는 그저 나의 머릿속 균열들처럼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것이 안타깝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무서웠기에 그저 회피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다. 그렇게나 이중적인 내 모습이 어둠속 그림자에 비추어져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멈추지않고 입을 열었다.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관계라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져 거짓된 것이라도 상관없어.”

“…그만해.”

“그렇다면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렴. 소중한 이들이 연기처럼 잊혀지는건 슬픈거야.”

“…응, 왠지 알 것 같아.”

그의 말에는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의 주변에 일렁이는 그를 두르는 영혼들의 속삭임이 선명히 들리었다. 영혼 포식자의 곁에서 감화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 아주 잠시 모호해졌지만 그것을 이내 떨쳐내고 눈물을 대충 닦아내고는 그것에게 물었다.

“금새 흩어져버릴 쓸쓸하고도 슬픈 영혼아. 너는 싫지만 내가 너를 무어라 기억해주면 좋겠니?”

“어차피 흩어지고 잊혀질텐데 그것이 중요할까?”

“미처 날개를 피지못한 피오르의 파랑새들은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두거든. 그것이 내가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방식이야. 적어도 미친듯이 미워했던 것의 이름정도는 기억해 줄 수 있어.”

내가 멋적인 기분에 발끝을 땅에 가벼게 툭툭 치면서 그것에게 말하자 벅찬듯이 옛 일을 회상하는듯한 그것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데아논. 너는?”

“나는 에단.”

“그렇구나. 억지 부려서 미안해. 그리고 나를 너무 믿지마. 지금도 간신히 데아논으로 네 앞에 선 것이지만 언제 다른 것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갈림길에 서게된다면 그때는 아벨의 자손들 곁에

있어주면 그 앞에 서서 지금처럼 순수한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 봐주지 않겠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돼. 나는 절대로 카인의 핏줄을 믿을 생각이 없거든. 그들은 항상 내 친구를 괴롭혀왔거든."

"…미안하구나."

"게다가 도움이 필요했다면 진작에 모습을 드러내도 되었을텐데 어째서 모두가 있을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거야?"

"소중한 인연이잖아? 나는 죽고 싶은건 맞지만 가뜩이나 카인의 핏줄을 혐오하는데 거기서 더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아. 상처거든."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역시 이상한건 이 세상이야. 그리고 그렇게 기형적인 우리들의 존재역시 충분히 아프고 고통 받아왔어."

그 소리가 카인의 핏줄 입에서 나올줄은 몰랐다. 포식자로 이데아에 군림하며 아벨의 자손들의 목숨을 하찮은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것들중 하나가 내 눈 앞에 있었고 지금 당장 내 손으로도 죽일 수 있을것 같을 정도로 피폐하고 나약해져 있었다. 지금 당장 뒤돌아서서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도 금방이라도 흩어질것 같았다. 물론 그것이 내 머릿속 균열을 통해서 나의 모든것을 훑어보며 내가 입버릇처럼 뱉어내곤 했던 그 푸념을 꺼낸것은 한편으로 정말이지 교활하고 음흉하다는 느낌

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을 차마 반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렸다.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타인의 영혼을 뜯어 먹었으면서 이해를 바라는것은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어느샌가 나는 그것의 뒤에서 걸으며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것에게서 유감과 죄책감이 가득한 미묘한 감정들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더니 내게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을 건네었다.

“나를 미워하는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름정도는 기억을 해준다면 친구는 힘들겠고 내 죽음의 시작과 끝을 마주해주는 증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니?”

나는 얼른 주위를 환기시키려 차갑게 상황을 정리했다.

“증인이라고 할 거창한것은 아니지만 해야할 일이 있다면 후련하게 빨리 끝내고싶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테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신중하고 가려서 사귀어야 해.”

“…그래.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럼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먼 길이니 차근히 걸어가며 설명해도 괜찮겠지? 나는 너를 동녘 붉은해가 뜨는 땅으로 안내할거야. 그곳에서 너는 오랜동안 귀기서린 땅에 깃들어있던 영혼들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나와 사뭇다른 모습의 영혼을 찢어가며 춤을 춰줘.”

“그게 너랑 죽는게 무슨 상관인데?”

“영혼포식자가 육신에 담겨있는 영혼을 전부 쏟아 내는것을 죽음으로 정의하지 않아. 육신과 혼백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돼.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끌어모아 하나가 된 부정한 그것을 베어내는거야.”

“나는 그런거 할 줄 몰라.”

“어쩐지 할 수 있을거라는 기분이 들어. 작은 날갯짓으로 따스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것 같거든.”

그 말이 가슴에 박혀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더니 시큰거렸다. 다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인걸 그것이 나의 영혼 너머로 엳보았던 건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다.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있다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너의 영혼을 아프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원망할테지. 그 화살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사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나더러 내 곁에서 누군가가 죽는꼴을 다시 보라는거야? 내 영혼이 더 많은 갈래로 찢겨져 균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구나.”

“그렇지만도 않아. 세번을 태어난 파랑새가 네번을 피어오르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잖아. 그리고 더 넓고 높은 하늘을 날아오를테지.”

나의 기억을 멋대로 들추어보는 그것에게서 의심이들어 기분이 조금 상했지만 나는 무언가에 홀린듯 그것에게 물었다.

“…거기엔 뭐가 있어?”

“네가 원하는 꿈같은 행복은 없을거야. 언제나 고통의 연속일테지. 하지만 장담하건데 그 절망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은 꿈에서 만들어낸 모습보다 더 행복하게 미소지을거야.”

“아무도 대신해서 울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듣고싶은 말만 해주는 친구를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리운 표정과 슬픈 목소리로 말하자 충분히 상처입은 그 영혼은 다시 한번 나의 슬픔에 잠기지 않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정에 휩쓸리는 서로의 영혼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적어도 지금은 서로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인형들과 서로 뒤엉키며 쏟아낸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끈거렸고 그것이 했던 행동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안되겠어. 난 여전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이 눈물은 너를 위한것이 아니거든. 슬픔이 아니라 유감이야.”

“말은 차가웁지만 파랑새는 남을 위해 울어주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것에게 루시드에 분노와 적대감을 양껏 담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잔가지에 걸려 휘감기는 영혼들이 그것

에 짓눌려서 고통에 몸서리치고 울어댔다. 나는 개의치않고 더욱 거세게 짓누르며 그가 다시는 주워담지 못할 그 말을 원망하며 경고했다.

“그만해. 더이상 듣고싶지 않아.”

“미안해.”

“너한테서 사과 따위도 듣고 싶지않아.”

그것은 입을 잠깐 뻐끔거리다 말을 삼키었고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내게 아무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라고 부르기도 소름끼치는 그것과 나는 조용히 먼 길을 향해 구슬프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것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 타협점 』

아벨의 현신이 바스러져 그 빛을 잃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감흥도 주지못했다. 이데아에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기 이전부터 상투스의 믿음을 갈취하며 피어오른 존재의 울음은 천상의 찬가가 아니라 거짓된 빛 뒤로 드리워진 분노의 목소리였고 그들의 믿음속에서 태어난 뒤틀린 빛은 의심할 여지없이 계시 너머로 어렴풋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것이 추락한 이유라면 뒤틀린 아벨에 회의감을 느낀 상투스의 빛 때문만은 아니라 에두예르의 인내가 빛의 잔에 투영시켜 분노한 아벨의 현신이 그 무게를 담아내지 못하여 취약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이는 상투스 내부에서도 극소수일 것이다. 그렇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짓된 구원을 향해 빛을 휘둘러댔다. 하릴없이 한참을 베어내고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것을 붙잡고있던 아가뜨가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은듯 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무릎위에서 마지막 숨을 힘겹게 토해내는 그것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담았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빛으로 불태우면서까지 구원을 노래하는 그것은 더이상 신앙이 아니라 만용이니 이제 그만 그 빛을 거두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비정하게 빛의 찌꺼기를 망설임없이 베어냈다. 그러자 구원의 빛을 갈구하면서 발광하던 그것은 미련없이 신음

하며 우리 머리위로 아름다운 빛깔을 남기며 바스라졌다. 아가뜨는 반짝거리는 빛을 가녀린 두 손으로, 보일리없는 두 눈으로 그것들을 담아두려는듯 부드럽게 펼쳤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홀로 어둠에 있었다. 계시가 미웠다. 율법도 더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내하며 버텨왔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러함에도 태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그럴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펼쳐낸 인내의 성역에서 발하는 안개가 더욱 넓고 짙게 빛무리를 이루어 모쪼록 그 빛으로 불경한 자들 하나라도 더 속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오히려 나를 위로한다. 그렇게 일렁이는 안개속에서 비추어진 그녀의 모습은 가끔씩 불경한 것들을 위해 율법을 읊조리는 모습은 축복이 충만하야 이제는 웬만해서는 불경한 것들이 감히 그 영역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는 모양이었다. 인내하는 고행의 길에 대한 믿음이 굳건 해질수록 나의 분노가 그녀에게 닿을 수 없다는것은 그녀에게도 이로운 일이었지만 성전의 길이 왠지 점점 쓸쓸해지는 기분이었다. 그것이 너무나 티가 났는지 아가뜨가 나를 한심하게 보면서 말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치고 이번엔 너무 힘이 빠진거 아니야?”

내 등을 가볍게 주먹으로 친 그녀가 너스레를 떨면서 내게 말했고 나는 그녀가 애써 해맑은 모습을 지어보이는 노력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등을 돌려 눈이 먼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삼 그녀가 툭 던진 그 말에 마음

이 놓였는지 나는 멋적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그녀의 말에 답했다.

“글쎄다. 내가 계시만 보지 못했다면 굳이 이런 구렁텅이까지 기어들어오지 않았을거고 너도 눈이 멀지도 않았을테지.”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운명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어. 그럴 생각도 없고.”

“바스라진 이것들보다 지금의 네가 훨씬 구원에 가까워보여.”

“하! 그렇게나 구원에 눈이 먼 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네.”

그녀가 농담으로 던진 그 말에 차마 웃을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꺼져가는 구원의 파편에게 다가가 마지막 비수를 꽂아넣었다.

“아벨….”

그것은 죽어서 신음하면서도 그 이름을 내뱉었다. 우리는 이미 계시 너머로 아벨의 현신이 더이상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웃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엿보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덧없음을 느꼈다. 눈이 멀어버린 그것들에게 이미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믿음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나로써는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조차 들지 않았으니 그들의 기도와 간절함은 그저 허황된 집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분노의 죄종이 자리한 은빛의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서 아벨의 잔

여물들은 수없이 바스라졌고 아름다운 빛깔을 쏟아내며 흩날리자 금방이라도 꺼질것같은 반딧불처럼 은은하게 발광하며 도처를 비추기 시작했다. 어지러이 흔들리며 발광하는 그것은 은빛의 강물위를 비추며 새삼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나도 모르게 그 황홀경에 감탄하며 잠깐의 절경을 감상하다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부서진 빛들에게 상냥한 기도를 올려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고 씁쓸하게 물었다.

“결국은 그것의 업보이고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들에게 올리는 기도는 그저 사치일 뿐이야. 나는 이것들을 동정할 수 없어.”

내 차가운 말에도 아가뜨는 표정하나 변하지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상냥하구나. 그래, 맞아.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니까. 다만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가지말아야 할 길을 몸소 보여준 이들과 조우한 운명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일 뿐이야. 그것들도 우리들도 다를것없이 자신이 품고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무게를 서로에게 격렬하게 쏟아붓다 피고졌으니까 피차 동정은 필요 없을테지.”

“…비정하네.”

그렇게 무심코 던진 조금은 차가운 말에도 기도를 이어가던 그녀는 태연해 보였지만 마주잡은 두 손을 더욱 단단하게 부여잡으며 어색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답했다.

“이전에 황혼녘의 자매님들의 자애로운 웃음이 가끔 차갑게 느껴졌던 것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것같네. 그때는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않고 그저 오지랖이라고 여겼었지. 아무리 인내하는 자라도 지나치게 이타적인 기도가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

“…내가 무섭니?”

씁쓸한 웃음이 뒤섞인 힘빠진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전디는 그녀의 물음에 미안함이 배어있었다. 내 가슴을 후벼파는 그 말이 사무치도록 외롭게 들렸기에 내가 얼마나 멍청한 말을 했다는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마디로도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나의 어리석음에 매질을 하며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듯 평소처럼 툴툴거리듯 답했다.
“무섭다니? 변해가는 모습이 무서웠던 거라면 제일 먼저 혼자가 되었을 사람은 아마 나였을거야.”
“그런가?”
“그래.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거지.”
내 말에 그녀는 기도하던 손을 떨구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째서인지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그것이 예시와 율법이 말하는 인내의 미덕으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아득바득 그것에서 벗어날수록 다시 올가미처럼 죄어오는건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도 되겠지? 운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내라는 미덕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게 아닐까해."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새겨야 우리는 그렇게나 아름답고 숭고한 깨달음에 닿을 수 있는걸까?"

나는 죄종들이 서려있는 땅 위로 처참히 부서져버린 아벨의 찌꺼기들의 잔해를 눈에 담으며 중얼거렸고 그걸 들은 아가뜨도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그 참상을 묵묵히 먼 눈으로 확실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아로 새기고 있었다. 나는 다시금 그녀에게 내 생각을 풀어놓았다.

"이제와서 정당화할 생각은 없지만 운명을 거스르며 지금껏 행한 모든 것들이 폭력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말이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잘 알겠어. 그래도 걱정하지마. 눈은 멀었을지언정 너만은 확실히 보이니까 네가 갈 길은 제대로 열어줄게."

"든든하네. 시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채로 절망하는 나를 묶어두면서 매질하는 시련을 안겨다 줄 것 같은건 기분탓인가?"

"원한다면야."

나의 실없는 소리에 그녀도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작은 미소와 함께 답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고도 익숙함이 밀려와 무거웠던 마음속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됐네요. 어찌됐든 지금은 너와 내가 뒤섞인 계시속에서 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익숙한 그 여인을 마주하는것이 우선이겠지.”

“그래. 무엇 때문에 계시가 그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항상 같은 풍경이었지. 스스로를 부정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자신을 갉아먹고 포용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마도 고행의 길에서 깨우침을 가져다주는 길잡이가 될지도 몰라.”

“깨우침을 가져다주는 길잡이….”

그렇게 우리는 낯선 죄악이 만연한 땅 위에서 수많은 분노에 맞서 신앙의 불꽃을 요란하게 태웠다. 끈적하게 흐르는 은빛 탁류가 내 눈을 어지럽혀도 마냥 우는 소리를 할 수 없었다. 그 낯선곳에서 하늘에 해와 달이 여러번 걸리는동안 우리는 근처의 폐허에 지친몸을 가누며 계시가 비춘 약속의 때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시의 끝자락에 닿아서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럴때마다 오히려 아가뜨가 불안의 늪에서 나를 잡아주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린 이미 충분히 값진 인내의 기틀을 닦아내고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해진 운명에 놀아나지 않고 스스로의 길

을 열겠다고 다짐한 이상 계시를 믿고 기다리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허울좋은 핑계거리가 아닌 담담히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자.”

옅은 미소와 함께 건넨 따끔한 질책은 비단 나에게만 하는 충고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에게 건네는 채찍이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에 율법이 가르쳐준 인내의 미덕은 빛을 발하며 기울어져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두었다. 인내의 시련을 팔목에 두르며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다짐을 굳혔다.

“맞아. 운명은 단 한번도 우리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 그러니 어떠한 것이라도 초연하게 맞이해야 마땅할거야.”

결의에 찬 아가뜨의 가볍고 느릿한 한번의 고갯짓은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도 믿음직했다.

“혹시 알아? 너밖에 보지 못하는 계시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지도 모르잖아? 그럼 너의 말이 곧 율법으로 쓰여질테지.”

“그 때가 올 수 있게끔 인내와 신앙을 더욱 단단히하여 기적과도 같은 운명의 여인이 그대와 함께해주고 있음에 감사하도록.”

“운명의 여인이 뮈오른베르 와인에 입도 못대는건 바보같지만 그나마 작은 기적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새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그 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아 은빛의 탁류에 반사되어 빛다발이 어둠에 드리워진 하늘위로 아름답게 흩뿌려졌다. 분노의 죄악이 자리한 이곳은

정말이지 개같이 피곤했다. 죄악이 만연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아름다운 풍경에 분명 기분좋은 아침 햇살을 마주 했겠지만 당장 한치앞도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여유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 세르샤는 거리낌없이 태양을 마주하기에 낮에도 쉬임없이 그것들과 대척해야했고 밤에는 빛을 피해 기어나오는 불경한 존재들이 도사리며 우리의 신변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역경을 견뎌왔지만 누적되는 피로가 우리의 발을 붙잡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바닥에 바스라진 불경한 것들을 바라보다 문득 뇌리에 스친 생각을 되뇌이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주위에는 빛이 조용히 일렁였고 가벼운 바람이 일었다. 조금은 머리가 상쾌해진 기분과 약간의 해방감이 들어 들뜬 기분이 들어서 미소와 함께 아가뜨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에서 무언가를 느낀 그녀의 표정은 나와는 조금 달랐다. 그녀의 우려섞인 모습에도 나는 개의치않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이전에 말한 길잡이 얘긴데. 만약 우리가 망가진 기적이나 불경한 것들에게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쥐어준다면 이데아에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율법은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녀의 마른 목소리가 조금 떨려왔다. 피곤에 지쳐있는 것도 당연하다. 내가 그런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것은 망설이지 않음과 확신을 주는것

이라 여겼기에 율법에서 이르던 그것을 인용하며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와주자. 죄책감의 무게를 깨우치게 하려면 저들에게 인내와 죗값이라는걸 알게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말려도 할 생각이잖아? 그 말ㅇ르 꺼낸 순간부터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라는건 누가봐도 뻔한 사실이겠지.”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하는것 같잖아?”
“글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거야.”

“적어도 에두예르의 율법은 타인의 간절한 기도를 제물로 거짓된 구원을 되살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건 너도 잘 알잖아?”

“쟝, 속죄를 인계 한다는것이 지니는 무게를 감당할 자신있어?”
“감당이고 뭐고 우리의 목적은 이것들을 쳐 죽이는게 아니라 회개하고 속죄하게 만들어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잖아.”
“율법의 구절은 네 상황을 합리화 시키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야.”
아가뜨가 한심한 표정으로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그렇게 망가진 잔여물 위로 성역을 선포하자 내가 인내의 파피루스로 그것들을 빈틈없이 뭉쳤다. 구체의 형태로 빈틈없이 응축되어 엮이어진 죄인은 머지않아 그 안에서 인내의 결실로 다시금 재탄생하게 되는것이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죗값을 치루기 위해서 그것을 품었듯이 말이다. 아가뜨는 내 제안을 줄곧 반대했었지만 분노하며 부수기만 했던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태

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먼 두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는 내가 율법의 노끈으로 죄값을 하나로 엮는 제안을 용인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들에게 속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도 잠시 오래 지나지않아 속죄의 빚깔을 내도 모자랄 그것들이 그 안에서 분노의 불씨를 조그맣게 지피고 있는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현듯이 알 수 없는 분노로 휩싸이게 된 이유를 그리 어렵지않게 알 수 있었다.

“…잠깐만. 지금 이것도 시련과 시험의 일부인건가?”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아가뜨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더니 내 말에 동의하듯 말했다.

“그런것같아. 계시가 줄곧 비추었던것. 그 단편을 우리들 이외에는 보지 못했던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것은 맨발로 은빛의 강줄기를 미끄러지듯 타고는 유유히 부양하며 흙을 가볍게 딛고는 우리들 앞에 우아하게 다가오면서 발끝에 방울진 것들을 가벼이 털어내며 입을 열었다.

“오만의 그릇은 그리 멀지 않은곳에 있었군요. 오만한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라만봐도 어찌나 이리도 이가 갈리는지 모르겠네요.”

겉으로는 적대감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느껴지는 그것은 분명 분노의 죄악을 짊어진 카인의 핏줄임이 분명했다. 아벨의 공용어를 익숙하게 뱉어내는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우리를 낯설게 한 것은 그것의 외형

이었다. 카인의 핏줄이면서 분노의 죄종인 그것은 세르샤라 부르는 것들과 다르게 살결 너머로 혈색이며 은은한 개나릿빛 머릿칼은 영락없이 아벨의 자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익숙치않은 개체를 향한 호기심보다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컸다. 부정한 이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의 곁에 다가온 낯선 상냥함때문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 처럼 동시에 성역을 선포하고 권능의 끈을 펼치고 율법으로 연마된 빛의 연기를 필요 이상으로 사방으로 흩뿌려대며 경계심을 드러내며 임전태세에 돌입했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차분하게 우리가 빚은 속죄의 덩어리와 우리를 번갈아가면서 바라보더니 짧은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편히 보내주세요. 속죄를 빙자한 폭력은 그저 화풀이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구요.”

“죄악을 짊어진 자가 인내의 사제들 앞에서 가르침을 설파한다라….”
“죄악을 짊어지지 않은이는 이데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저는 가르침같은 허울좋은 말장난을 하고자 여기 있었던게 아니었는데 주선이 뒤틀리기 전의 전조는 이미 너무 많이 봐왔기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만을 쏟아내는 죄종들 주제에 인내하는 이들이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져 있는지도 모를테지.”

“첫째. 저에게서 새어나오는 분노밖에 보이지 않으시는걸 보니 자신의 안에 담겨져 있는것의 크기는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둘째로 저에게 분노라는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고스란히 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모를테죠.”

“…잠깐만요. 당신이 말하는것은 인내잖아요?”

조용히 말을 듣던 아가뜨가 당황한 표정으로 허공에 손짓하면서 그것에게 묻자 얼굴을 잔뜩 찡그린채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짧고 간결하지만 무거운 그 말을 담담히 건네었다.

“자기 혐오입니다.”

“잠깐만요. 율법이 안내하는 길은 그것이 아니예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으레 불경한 것들이 그러하듯 우리를 우롱하고 있군요.”

“그걸로 분노의 씨앗을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이고 죄악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겨넣은 그것에 담긴것은 속죄나 회개가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죠.”

그동안의 모든것을 부정 당하는것 같았고 뒤섞인 계시로 고통받다 눈까지 멀어버린 아가뜨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빛을 그 맑던 눈동자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당연히 이를 물고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오르뒤뷔르에 내노라는 전도사들이 평생을 바쳐가면서 선교와 고행의 길의 끝에서 깨닫는 경지를 분노를 쏟아낼줄만 아는 죄종 주제에 그

것을 깨달은 듯이 우리 앞에서 당연하다는듯 지껄이는데 그것을 단순히 고갯짓 몇번으로 이해를 바라는게 말이나 되냐고?"

"인내의 주선은 그야말로 가여운 발버둥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율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의 형태라면 율법에 담겨진 몇 줄보다 그것을 피부로 새겨온 저희가 조금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놈들이 그런건 어떻게 아는데?"

"그만해, 쟝. 그녀가 흉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을거 아니야? 왜 그렇게 흥분 하는거야?"

"그건 나도 알아.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눈 앞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못하며 당황하자 그것은 우리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침묵하는 그 사이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내와 분노는 종이 한장의 차이 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르샤의 칼날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국 분노에 먹히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죠."

그렇게 설명하던 그녀에게서 분노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인내하는 내게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서슬푸른 차갑고 쓸쓸한 것이었고 덧붙인

그 말의 마지막에 어렴풋이 그녀의 작은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이미 은빛 눈부신 악몽은 겪어 본 적이 있기에 이데아가 분노에 먹혀서 은빛으로 뒤덮이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
“당장에라도 그을릴 정도로 불타오를것만 같지만 당신의 침착하고도 고요한 지금 이 모습은 소름끼치도록 싫군요.”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속죄의 죗값이 향해야 할 곳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결국에 네 분노를 위해서 인내하는 이들을 내던지겠다는 말이잖아.”
“아니요. 분노의 죄종이 멋대로 지껄인다고 전도사들이 움직이지 않을겁니다. 그들은 계시를 위해 움직인다죠? 하지만 계시는 당신들에게 인내를 가르쳐도 분노를 가르칠리는 없어요. 고로 그대들을 위한 빛은 분노를 위해서 빛나지 않는다는거죠.”
그 말을 조용히 듣고 몇번을 되뇌이며 아가뜨가 그것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거죠?”
“계시라는것이 분노와 인내 사이에서 최선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라면 자신의 목동들이 분노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계시와 부름을 계속 부르짖지는 않겠지요.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을테고요. 그러니 당신들은 계시에 공백이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선교에 나설 수 있었던 용기가 있는거겠지요.”

“우리가 걸어온길을 그럴듯한 말로 점칠하지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백의 틈에서 당신들이 무언가를 찾기위해 이곳에 발걸음 한 것이 아니었다면 서로 상극의 선과 악은 처음 조우한 그 순간 서로의 목에 칼을 댔으면 댔지 이렇게 한가롭게 말이나 뒤섞는 일 따위는 없었겠죠.”

“그 말은 당신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 눈으로 계시만 보는것은 아니었군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치켜 띄워주는 말투며 태도는 썩 마음에 들지않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벨의 자손과 말을 섞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언어는 물론이요 존중과 신뢰가 담긴 말투가 아니라면 이해를 나누기가 더욱 힘들었던 탓에 배어있는 습관탓이겠죠.”

“당신은 꽤나 오랜동안 아벨의 자손과 교통하며 지내왔군요.”

“그래요. 덕분에 에두예르의 전도사 중 하나가 구원의 잔에 독을 풀어 그것으로 아벨의 현신이 무너지는데 일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죗값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것들은 아까 말한대로 탁한 감정이 뒤섞인 시점부터 이미 죄악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노의 죄종에게는 질 좋은 먹잇감이죠.”

“그 얘기는 들은 이상 에두예르에 변절자가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되는데?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상투스의 사제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말해도 믿지 않으시겠죠. 그 역시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고 상투스 내부에 큰 사건 이후로 분노의 반대편에 잠길뻔 했지만 인내의 주선을 행하는 당신들과 달라서 다행히 그와는 직접적으로 조우하지 않았던탓에 그는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덕에 오랜 나의 바람은 지금 여기에 닿을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아가뜨. 계시의 공백을 틈타서 죄악과 거래라도 할 셈이야?”

“쟝. 계시가 없다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만의 기준으로 죄악을 마주하자. 하지만 어느 누구의 인도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건 역시 나 혼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가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내 목소리를 짚어가며 내 앞에 다가와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건넸고 나는 가녀린 그 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는 조금 세게쥐면서 말했다.
“그럴듯하게 말은 했지만 운명의 수레브퀴를 벗어나 오랜동안 갈구해왔던 인내의 열매도 그렇고 그렇게나 목매단 계시와 율법을 등지고 나면 우리는 대체 뭐냐고….”
그 말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노의 죄종에게 물음에 답을 갈구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게나 열심히 떠들던 그것은 이제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아가뜨는 잡은 손을 놓지않고 무언가를 골똘이

생각하다가 무언가 스쳐간듯 말했다.

“하지만 이데아에서 율법에서 쓰여진것과 사뭇 다른 모습으로부터 배운것도 많았잖아? 네가 직접 보여준 인내와 분노 사이의 저울질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을지도 몰라.”

우리의 말을 기다리며 지켜보던 그것이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자 아가뜨가 너무세게 잡은 내 손을 놓고는 장난스럽게 손을 휘적였다.

“이유를 물으셨죠?”

“네.”

“나는 분노의 어미가 쏟아내는 은빛의 심장이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멈추게 할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한풀 꺾이게 만들었던 너희안에 담긴것은 인내뿐만이 아니야. 분노와 인내가 뒤엉켜있는 그것은 당연하게도 분노마저 잠재울 수 있으니 너희는 세르샤의 어미 앞에 당당히 서서 그녀에게 죗값의 무게를 쑤셔넣어줘.”

“어떻게 죄악앞에 당당히 서서 그것을 때려박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어? 우리더러 죽으러 가라는 말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너희를 죄로 뒤덮어줄게. 적어도 잠시 뿐이겠지만 그녀의 시선이 너희들에게 닿을 수 없을걱야.”

“잘은 모르겠지만 어미의 심장이 멈추면 너도 죽는거 아니야?”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분노의 죄악이 한 풀 꺾여 시드는 것이지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을 위함이 아니라 세르샤가 넘치는 분노에 먹혀서 미쳐 날뛰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작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악을 마주하는게 아니라 죄악과 내통하여 거래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영 내키지 않네.”

“우리 대답은 긍정으로 알아두어도 좋아요.”

“…어쩔 수 없나.”

“그 전에 저 속죄하는 껍질은 거두어 주세요. 회개와 속죄는 주입하는게 아니며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속죄의 매질로 빚어진 회개는 혼종이나 역병과도 같아서 거짓된 속죄가 이데아에 퍼지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미 우리는 눈이 먼 빛으로 충분히 겪었기에 긴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렇게 한 마디로 뚝딱 해결될 일이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겠지. 죄를 깨닫게 하는것은 죄악을 알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기나 해?”

내가 푸념하며 따지듯 그것에게 열을 올리며 그것에게 무엇을 바라겠냐마는 돌아온 대답은 죄악에 걸맞는 차가움이었다.

“죄책감과 속죄 그리고 회개. 이 모든것들은 당신들이 이루어야할 위

대한 과업이자 소명이지 나의 주관이 아니예요. 그러니 우선 미쳐 날뛰는 뒤틀린 빛을 되풀이하고 싶지않다면 속죄와 회개의 고문은 이만 멈추어 주세요. 이런다고 그들이 원래 품었던 선함이 되돌아오지 않을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엔 너무 늦었죠.”

“하지 않고는 모르는….”

“스스로의 채찍질로 죄를 물어 그것을 기꺼이 씻어낸다면 진정으로 인내하는 길에 닿아 비로소 죄악의 굴레를 바라볼 수 있는건가.”

아가뜨가 무언가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터져나온 말이 입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순간 아가뜨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우리는 웃었다. 이전과는 다르지만 같은곳을 바라보며 짓는 미소였다. 무너져내려 사라진줄 알았던 그녀의 웃음이 그녀의 얼굴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망설임없이 파피루스를 펼쳐내어 속죄의 구체를 찢어냈다. 그리고 그것은 미처 부화하지 못하는 번데기처럼 찢겨져 녹아내리며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고요하게 죄악의 땅에 번져나갔다. 그리고 역시나 흐느끼는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번뇌는 씻겨져 내려갔다.

“그래요.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혈기 왕성했던 아이사라는 아이가 한번 저질렀던 일이었죠.”

“아이사님이요?”

“…그렇군요. 그녀는 잘 지내나요?”

“성처녀 아이사님은 오래전에 죽었어.”

“그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오래지난 벗을 회상하듯 저 먼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당신들의 계시가 뒤엉킨것은 그저 우연만은 아닌 것 같군요. 쏠린 분노와 닫힌 인내의 끝자락에 자리한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부정할수도 없으니 서로의 존재로써 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함께 그 가운데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들이 부럽네요.”

“인내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애쓸 뿐이지. 일단 우린 우에노른으로 돌아갈거야. 지쳤어. 그리고 돌아가서 계시에 대해서 교통할 필요도 있으니까. 하지만 인내의 결실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들을 속죄 하기위한 약속의 시간을 기약한다면 언제라도 저주받은 땅에 성역을 흩뿌려 태양아래 떳떳한 죄종에게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조아릴 수 있도록 업보와 죄책감을 꾹꾹담아서 사뿐히 짓눌러줄게.”

“전도나 교화라는 말을 놔두고 극단적인 말을 쓰는군요. 무섭군요. 좋아요. 공백의 계시가 조금은 채워졌고 발걸음은 한결 가벼울 터이니 배웅 따위는 필요없겠죠.”

“필요없어. 그리고 인내하는 이들의 전도 하기위한 고행의 길을 너무 가볍게 보지마.”
나는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등을 돌리려는 찰나 아가뜨가 잠시 멈춰서서 조금 망설이더니 그것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끝내 나는 당신에게서 속죄와 회개를 바랄지도 몰라요.”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결국 우리들 안에 담긴 분노의 씨앗은 당신들이 심은거예요. 인내하는 이들에게 이 말은 죗값을 치루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말로 들리겠지만요. 우리들에게 속죄와 참회를 바라는만큼 당신들에게 향해있는 세르샤의 칼날을 영원히 거두어지지 않을겁니다.”

“좋을대로 해. 운명을 벗어나는게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기에 물론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다할거고 너희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던가. 모르겠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말은 해줄 수 있겠네.”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때는 그동안 서로가 기대오면서 함께했던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이후겠군요.”
그것의 말을 뒤로하고 나는 아가뜨를 보살피며 등을 돌렸다 한참을 걷

다가 등을 돌려 시선이 머문 그곳에는 여전히 아벨의 자손의 모습을 하고있던 그것이 우리를 배웅하고 있었다. 해안가에 닿은 우리는 비둘기 피리를 불어 새의 발에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위해서 편지를 부쳤다. 그것을 조용히 날려보내고 어두컴컴한 수평선을 멍하니 바라보다 긴장이 조금 풀려 피곤했는지 바닥에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것이 한 말 대로라면 율법과 미덕을 등지는 순례의 길이라니…. 그 동안의 우리를 부정하는것 같아서 뭔가 씁쓸하네.”

“어느 누구도 그것에 얽매이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말해준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니까. 계시는 해석하기 나름일지도 몰라.”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말하려는거야?”

“글쎄, 그것 해석도 계시가 대신 말해주려나? 아니면 우에노른에 있는 전도사들에게 분노라는걸 깨닫게 하는것까지 인내의 시련일까? 우리들은 인내하는 삶과 얼마나 동떨진걸까? 아니면 이미 우리가 분노의 죄악에 너무 가까워져 버린게 아닐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른이들이 보지못하는 갈림길속에서 네가 그것을 눈에 담고 다른 이들에게 계시를 건네어주는 기적을 내려줬으면 좋겠어.”

『 잃은것과 얻은것 』

이실그라드 내전중 대규모 전이가 있고난 뒤로 우리쪽의 손실은 컸다. 하지만 남겨진 르네측의 아키스트들은 상실감에 제대로 한번 저항하지 못하고 투항했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조를 지키던 무리는 지나가는 계절의 꽃처럼 빠르게 바스라졌다. 전이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는 이유로 남겨진 르네측 아키스트들은 배신감과 무력감에 제대로 한번 저항하지 못하고 거의 궤멸 직전의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직의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길고 지루했지만 결국 생명이 타오를 수 있는 용량은 제한이 있었다. 그런 혼란속에서도 무작정 생명의 불씨를 꺼뜨린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꿀 의향이 있는 아키스트들을 배제하지 않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선택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렇게 이실그라드가 뿜어대는 아르카나와 이데아의 생명력이 조화롭게 뒤섞이면서 아르카나 중독으로 인해서 파이프에 의존하거나 크랄로루즈 현상을 겪으며 고통속에 죽어가는 이들의 숫자는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전쟁 이후에 풀어내야 할 수많은 문제들중 하나일 뿐이고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전쟁은 끝나도 끝난것 같지 않단 말이죠….”

내 속마음을 읽힌듯한 기분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그 목소리가 새어내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내리자 내 눈 앞에 격식을 갖추지도 않

은 형편없는 복장을 하고있는 늙은 아키스트가 태연자약하게 서있는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삐딱한 자세로 턱을 괴고 한숨을 가볍게 내뱉으며 차가운 눈으로 늙은이를 향해 중얼거렸다.

“내 그대를 인지하지도 못할만큼 상념에 잠겨 있었나보군?”

“이래뵈도 은둔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는지라 기척이 없었던것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르네가 수놓는 아르카나마다 기분이 나쁘도록 섬세한 불협화음을 새겨놓는 재주가 있으면서 어째서 지금까지 뿌리에만 숨어지낸거지?”

“이실그라드 뿌리에는 다양한 아키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그 수많은 아키스트들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단순히 방구석에 쳐박혀 아르카나를 휘갈기며 쌓아두었던 도식을 시험 해보고싶은 늙은이일 뿐이죠.”

“전쟁직후의 사태를 수습하고 방문하기 전에 분명 호수의 전령에게 신호하고 들르라 일렀을텐데 그것이 늙은이에게 그렇게나 무리한 요청이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쟁뒤의 삶이 그렇게나 무료하던가?”

“다른이의 시선으로 그것은 내전이 아니라 그저 반란 혹은 단순한 제압 아니면 잔인한 억압으로 그려졌을지도 모르겠군요.”

“전쟁광은 네놈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고 싶은거냐.”

“네. 칼린님은 타오르는 불 같습니다. 위험하지만 그 일렁이는 모습에

매료되어 당신의 뜻에 매료되는 겁니다.”

“좋다. 부름이 없음에도 내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를 듣지.”

나는 귀찮은듯이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고 용건을 묻자 그도 내 반응을 어느정도 예상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다.

“르네님의 아르카나를 두눈에 담고난 그 이후로 주책맞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찬히 뜯어봤지만 조금 이상하더군요.”

“그대도 느꼈나? 그것은 분명 거대했지만 기시감을 느꼈겠지.”

“그렇게나 거대한 아르카나의 도식을 쓰는데도 그저 부푼 풍선처럼 비대하기만하지 그만큼의 거대한 생명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분명 칼린님의 아르카나와는 달랐습니다. 칼린님이 생명을 채워내는 느낌이라면 르네님은 비워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거다. 나는 숲속의 짐승들의 젖줄을 뜯어내어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아르카나를 담을 수 있는 한계를 볼 수 있지만 르네는 다 죽어가는 마당에 생명을 쥐어짜서 대규모의 공간을 통째로 옮겼다. 어쩌면 그것이 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비워내고 있었더라면….”

“…아르카나의 독자적인 구축식을 고작 모래판을 뒹구는 검은 것들이 쉬이 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르네님은 그 과정에서 분명 그것들의 도움을 받으셨을테지요.”

“마냥 놀러만 다닌것은 아니군. 그렇지만 아르카나를 비워내는 행위가

이실그라드의 정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지는 않는데?"

"결정화에 대한 임시방편 정도는 되겠지만 아르카나를 부리는 아키스트들의 저력은 바닥을 칠테니 그리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군요."

"그래. 하지만 그레는 순진하긴해도 결코 어리석은 판단을 할 적은 없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객기를 부렸는지 한참을 고심끝에 스스로 그렇게나 부인하던 결론에 닿게 되더군."

"…르네님은 아주 오랜시간을 할애하셨을 겁니다. 시험 단계라고는 하지만 조악하기 그지없으나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죠."

"르네가 아룬 모라의 어딘가에서 미리 아르카나의 도식을 구축한 것도 상당히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장거리 원격 아르카나 구축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란두르에 비록 몇 줄 밖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장거리 원격 아르카나 구축식은 원하는 위치까지 아르카나를 전달하기 위한 촉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그래서 그대도 순간 르네가 텅 비었다고 느낀 것이겠지. 그대는 그것을 상정하고 아르카나를 부릴 수 있겠나?"

"일부러 생명을 쏟아내어 자신의 일부를 촉매로 쓴다구요? 아니요. 비록 늙은이지만 그렇게 죽고싶지는 않은걸요? 그것은 참 당돌하기 그지없는 발상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호기심이 그 공포를 넘어

선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믿는 구석이 있었겠지.”

“칼린님 만큼이나 대담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죠.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은 소중한것을 죄악의 살점에 쑤셔박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대담함은 높게사지만 언제나 우려가 되는것은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여 아르카나의 고차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고차를 여러번 넘으면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아르카나의 극심한 역류를 겪으며 결국에는 결정화를 가속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해합니다. 걱정이 되시겠지요.”

“내가 걱정하는것은 그렇게 결정화가 되고난 뒤에 만들어지는 흉물이다. 보고에 따르면 쟈토움의 이상식욕자들 중 그것을 소화시키는 미쳐버린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살점은 크든 작든 언제라도 르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날이 올테지.”

막힘없이 언변을 펼치던 늙은이가 팔짱을 하며 곰곰히 생각나다 답이없는지 신음하듯 말을 토해냈다.

“…그건 좀 골치 아프군요.”

“더군다나 그것은 르네의 독자적인 아르카나 도식이 아니었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것을 앞뒤 재지않고 뒤섞는 객기로 인하야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맛대로 휘둘리는 신념에 고뇌하고 있는것이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건 기이하군."

"가치관이 흔들릴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기도 하지요. 르네님은 평범한 다른 퀴나즈와 비견되지않는 아르카나를 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녀의 뒤를 밟지 못하는것은 외부로부터 의도적인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것은 필시 아라샨의 무투가들이 아르카나에 뭔가 잔꾀를 부렸다고 생각됩니다."

"아르카나의 수신을 방해한다 이건가. 그런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두 눈으로 직접 담아보고싶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르네님의 넘쳐나는 그 아르카나도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다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라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법이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 때가 아닌것같군."

내가 그의 말에 아르카나를 반응하며 짙은 푸른 빛을 태우자 그는 예를 차리는 인사짓을 하더니 수염을 연신 만지고는 내게 유감을 표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것을 연구하는 자이기에 되도록이면 르네님을 다시금 눈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두번째의 경우는 가능한 배제하고 싶군요."

"서로가 혼란스러운 상태이지만 아르카나의 수많은 변수를 통제할 수

없으니 그 이후는 그녀도 나도 서로의 몫이 되겠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듯 담담히 그 말을 꺼내었지만 새어나오는 불안감을 느끼었는지 그는 마치 내전이 낳은것들을 그저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셀수도없이 많은 생명의 불길이 꺼졌지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흩어져버린 아르카나에 아로새겨진 도식을 빛내며 제 몫을 해가며 내일을 살아가는 거겠지요.”

“결국 아르카나의 도식은 그들의 피를 머금고 선명하게 구축된다는 말을 하고싶은 것인가?”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합니다. 이데하는 존재가 바라는 모든 구원 어느하나 피를 마시고 자라지 않는것이 없지요.”
“알고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이겨냈지. 계약을 한것도 나 하나뿐이나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 감고 외면했다네. 그러하니 표면적으로 아르카나 결정화의 속박에서만 벗어났을뿐 육신의 본질이나 이질적인 외형의 변화를 겪게 되었으니 결국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생명의 형태를 취하여 이 실그라드를 정화하는데 이르게 되었으니 칼린님의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 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끝맺음을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말하는군.”
“끝맺음? 아니죠, 당치도 않습니다. 칼린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내게는 단 하루도 전쟁이 아니었던적은 없었지만 맺음이 확실하지 못한 전쟁은 더더욱 그러하다. 전쟁은 그 시작보다 끝을 손봐야하는 경우가 더 많을 따름이지.”

“더불어 주위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쓰는 자들은 소수이나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아르카나를 다루는 퀴나즈의 모든 아키스트들에게 가르치는 기본 소양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결정화를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말했듯이 그것은 치유 따위가 아니다.”
“적어도 이것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렇겠지만 그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늑대새끼들이 울부짖던 순환의 고리로 얽힌것이 분명하다. 분란의 씨앗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흩뿌려댄것은 아니었던거지. 아키스트들의 아르카나를 증폭시켜서 그들의 잠재력은 일시적으로 깨어난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강제로 연 만큼이나 자신의 용량을 파악하지 못한자들은 반동을 감당할 수 없었을거다. 하지만 지금 고요히 잠들어있는 그것이 훗날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이기에 그것이 품고있는

도식에서 하루빨리 해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될거다."

"오히려 피부와 융화한 자연과 뒤섞인 아르카나를 휘장처럼 여기며 고귀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는지라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하나 우려가 되는것은…."

"그래. 대외적인 활동에는 그다지 이점으로 작용되지 않겠지. 고목에나 쳐박혀서 은둔해서는 파이프나 빨아대던 은둥자들이 아닌 아르카나로 이데아에 거대한 획을 긋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공고히 하려면 숨기고 가려야함이 옳다만 조화를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저자세를 보이는것은 선대 장로의 업적으로 충분하다. 내 이름 아래 아키스트들이 틀에 박힌 조약에 묶이는 일 따위는 없을것이라. 스스로의 민낯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것이 두려워 잠재된 가능성을 짓밟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을것이라."

"이래서야 이제 막 내전을 끝낸 이들이 진저리를 치겠군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윽고 평화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겠죠. 당장 내전을 겪은 마르나크의 전황소식을 들었습니다만…."

"허심탄회하게 말하거라."

"영웅이 탄생했고 국민은 그를 찬양했습니다. 내란을 겪었습니다만 전례없이 빛나고 찬란한 구국의 발판으로 삼은 셈이죠."

"그런가. 반면 나는 퀴나즈를 최악의 세대로 몰고있는 셈이군."

“단언컨대 퀴나즈는 내전 이후로 전례없는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칼린님 아래에 굴레의 생명, 르네님 아래 죄악의 살점, 그리고 어느 두 세력에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이실그라드 아래 보수의 아키스트들 셋이 묘하고 팽팽한 대립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아키스트들 중 일부는 칼린님과 르네님이 전장에서 보여주신 아르카나에 대한 가능성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것일뿐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오히려 평화를 깨부순 반동분자들로 보는 이들까지 있으니 말이죠.”

“안락했던 평화의 시대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오직 그 시기에만 얻을 수 있었던것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 오랜 평화의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아키스트들은 나태 말고는 아무런 진전을 낳지 못했던것도 사실이다.”

“그렇게까지 무리할 정도로 급변한 퀴나즈가 얻는건 무엇입니까?”
나는 기다렸다는듯이 그의 앞에 아르카나를 흩뿌렸고 휘황찬란한 도식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사이에 부유하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내가 당당히 노인에게 답했다.
“죄악과의 단독전쟁과 짐승과의 교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퀴나즈의 입장을 공고히 해 두었다. 외교상은 전쟁 직후라 위임하지 않았지만 독단적으로 상투스에 방문하여 상튀나르 조약을 다시 썼다. 이실그라드의 존속과 퀴나즈를 위해서. 비록 아벨론이 내부사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을 틈타서 이루어낸 것이지만 나와 입장이 같은 이들이 바라던 퀴나즈의 모습이 될 수 있을만한 사항은 빠짐없이 담았다. 아르카나의 도움을 조금 빌리기는 했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방식으로 말이지.”
늙은이는 믿기지 않는듯 눈을 연신 비비고 손을 파르르 떨어가며 글귀 하나하나 읊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말도 안된다고 생명의 불씨를 태우며 꺼져간 아키스트들이 지금 칼린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안락한 요람에서 편하게 눈을 감고 안식에 들겠군요. 전란속에서 칼린님의 아르카나가 요동치던 이유도 이것을 위해셨군요. 하지만 어째서 미리 언질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중에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아르카나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르네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봤으니 잘 알겠지? 그대들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키스트들이 자신이 구축한 도식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는 타인의 수단에 기대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전쟁의 말미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볼 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말이다.”

늙은이는 여전히 아련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소중한것을 대하듯 만지고 싶지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며 여전히 조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다소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여전히 직접 발품을 파시는군요. 역시 제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퀴나즈의 퀴나즈들을 이끌어줄 위인은 인자한 이가 아닙니다. 본질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것처럼 아르카나를 탐구하고 그려내는데 망설임과 흔들리지않는 굳건한 가치관이 다져져 있어야 하죠.”

“나는 이미 그것을 르네에게 위임했지만 모든것이 그렇듯 항상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이군. 그래서 내가 했다.”

“르네님은 자상하십니다. 그것은 퀴나즈가 지녀야 할 미덕 중 하나가 될수야 있겠지만 이실그라드가 이제 막 정화된 시점에서 당장 지금 퀴나즈의 부흥에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생각하기에 퀴나즈의 부흥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퀴나즈의 부흥에 필요한것은 지금 당장 모든 아키스트들에게 새로운 조약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내전을 종식시켰지만 비록 어느 국가처럼 구국의 영웅취급을 받지도 못하며 결과론적으로 아키스트들의 세 갈래로 분열을 겪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걸로도 충분히 일어나기 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조금 이른것 같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언급하는걸 허락하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과분한 영광이군. 이런 몸뚱이로 아벨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조차 없는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나를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고 따르며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르카나를 태울 수 있었던 이들에게 그저 감사조차

부족할 따름이다."
"그렇죠. 어찌 감히 당신을 아벨의 자손 따위로 부르겠습니까? 지금의 당신이 하고있는 모습은 이미 이실그라드 그 자체일진대…."

"빈 소리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군. 고맙다, 늙은 아키스트여."

내 말이 끝나자마자 늙은이는 기뻐하며 뒤로 돌아 아르카나를 휘두르며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의 아르카나가 새겨진 도식에서 전쟁에서 보았던 어긋난 불협화음이 아닌 즐거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흘러 이실그라드의 중심주라고 불리우는 뿌리의 중심부로 아키스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었다. 익숙한 아키스트들과 전시에 잠깐 스쳐 지나간 얼굴도 간간히 보였다. 물론 그들 모두를 아는건 아니었지만 당연하게도 처음본 이들도 의회에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전장에서 입은 부상이 채 아물지 않은 이들도 있었지만 개의치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착석하여 지루한 협상과 논쟁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부산스러운 가운데 늙은 아키스트가 뿌리 의회 중앙에서 그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고 이내 엄숙하고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의 머리위에 이실그라드처럼 거대한 나무와 융화된 여인의 형상을 한채 그 과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마저 불쾌했는지 아르카나가 미세하게 떨리며 적대감을 내비치는 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충분히 이해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지않았다. 이윽고 침묵을 조용히 깨고 그가 입을 열었다.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자 이실그라드의 수호자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구태여 뿌리에 쳐박혀 아르카나를 연구하는 늙은이의 소개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렇게 각 구의 아키스트를 소집한 이유는 내전 이후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중요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 이전에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각 구처의 귀빈분들과 전쟁에서 발생한 후속조치에 대한 방책마련을 소통하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일방적인 통보라면 굳이 수많은 이들을 소환할 필요는 없을텐데요? 뿌리의 니르엠님께서는 굳이 이런 수고를 하시는군요.”

“젊은피는 이해하나 충분히 중요한 관례이기에 협조해 주시길.”

나와 이야기 할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니르엠의 아르카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지랑이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전쟁광이 혈기를 즐겁게 억누르는 모습같았다. 그래서 서로 말이 통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 말에 젊은 아키스트가 우물쭈물하며 자리에 앉자 기다렸다는듯이 다른 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르네님 측의 코셔라고 합니다. 르네님의 행방은 어찌 되었습니까? 혹여라도 아르카나의 흔적으로 르네님을 찾게된다면 그녀의 처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쭈어봐도 될런지요?”

“현 상황에서 아라샨의 무투가들과의 접점이 확인된 시점에서 저항이

없다면 모시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그것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아라샨에 망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르네님을 잃는것은 퀴나즈에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잃는것만 생각해서는 제대로 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것이라 여기신 칼린님께서 힘들게 내리신 결정입니다. 잃은것보다 얻어낸 것으로부터 가치를 환산하는 편이 퀴나즈의 아르카나를 조금 더 맑게 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많다는것은 국가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겠지만 의견의 격차를 메울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피바람이 불기 이전에 수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추방에 가깝다고 봐야겠군요."

"그것은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지만 르네님의 의향을 존중해 드릴것이며, 아룬 모라에 아키스트를 이미 파견하였으니 그곳에 닿는대로 르네님의 의향은 즉시 파악될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의회에는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와 다양한 의견이 수용되었다. 내용의 전문은 내전이었지만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와 르네의 부재로 그 균형이 조금 기울었던터라 인명의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게다가 정치적 입장이 달랐을 뿐 목적은 이실그라드의 정화였으니 사소한 의견 충돌을 빌미로한 신경전이나 비난들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다.

그것이 불만인 이들도 물론 적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피해가 비교적 미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전쟁에서 반대세력을 대하는 대우와 그들의 회유는 어머니 대자연의 자비라고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면서 전쟁을 천천히 종식시켰다. 전쟁이 낯선 이들이나 익숙한 이들에게조차 그것은 생소한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 숲속의 짐승들과의 계약으로부터 도래한 나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러자 바로 결정화에 뒤이어 나무의 성질을 띄는 목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아르카나 중독인 결정화에 뒤이어 살점이 나무처럼 변질이 되는 부작용이 불거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이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도 부작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낼 것들은 그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과정이며 더불어 퀴나즈가 아르카나의 중독 걱정없이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자신하던 칼린님께서는 보시다시피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않소? 전혀 설득력이 없구려.”

“아니요. 저것은 그저 아르카나가 칼린님의 또다른 성향의 한 부분으로 발현된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르카나의 구축과 배열로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있듯이 말이죠.”

“칼린님의 또다른 성향이 형태를 따른다면 그녀가 추구하는 방향은 퀴나즈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녀는 우리 대신에 계약을 한 것이기에 그 모든것을 짊어졌다고 하실 수 있지요. 퀴나즈를 붙들고있는 이실그라드처럼 말이죠.”
“이실그라드님에게 존중과 경외를 보이시오, 현자 니르엠이여!”
그 언급에 이실그라드의 추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잔뜩 무게를 잡고있던 자가 손짓으로 소란을 멈추게 하더니만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이실그라드님에게 쟈토움의 이빨이 닿았는데 그녀는 무사하신가?”

“이실그라드는 무사합니다. 비록 뜯겨 잘려나간 살결에는 작은 흉터가 남겠지만 허기로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절제된 아르카나를 낳는 생명은 형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고 다른 특이사항이 보고되기 전까지 그것을 일정 주기로 끊임없이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이실그라드님의 바로 곁에 죄악의 존재가 도달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것은 어째서인지?”
“이실그라드의 정화와 수호는 퀴나즈의 아키스트인 우리들 모두의 직무입니다. 다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녀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더라면 죄악의 아가리에 그녀의 살점 대신 당신의 몸뚱이를 기꺼이 던지는 헌신을 보여 영웅으로 바추어질 기회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결국 망설이지도 않고 본심을 드러내는군.”

“저런, 저는 단 한번도 제 본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려낼 아르카나에 불순물은 불쾌하기 그지없으니 씻어내야 하거든요.”

“정숙을….”

서로를 향해 잔뜩 날카롭고 푸른 아르카나를 일렁이자 나는 그들을 중재하려 부드럽게 손짓을하자 의회 장내에 뿌리가 사방에 휘감기면서 옥죄었다. 다행히 그것만으로 쥐 죽은듯이 조용해지자 나는 다시금 차분히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그것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 모습이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은 일부 아키스트들이 그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어째서 이리도 원하는것이 다른것인지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르카나에 눈을 뜨자마자 나나 르네조차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것을 이용하여 서로가 원하는것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조차 달랐지만 옳고 그른것을 판단하는건 저마다의 몫이며, 이실그라드의 품에서 아르카나를 이해하는 작자라면 서로의 가치와 추구하는 도식이 다르다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테지. 그러나, 그것이 아르카나인 것이다. 서로 다른것을 그려내어 서로 다른 세계를 신비를 구축해 내기에 비로소 우리가 퀴나즈인 것이다.”

퀴나즈와 아르카나의 본성인 호기심을 자극하자 비로소 그들은 나의 말

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언쟁은 그다지 생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행동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다들 지쳤으며 남아있는 분을 삭힐 시간을 필요로 했기에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따로 심문에 부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의 주위에 떠다니는 아르카나의 배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충돌하고 조합하면서 비로소 아르카나의 구축식으로 발현이 되는 우연과 노력이 겹쳐진 산물이다. 그래서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은 무수한 논쟁과 의심 그리고 증명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것이다.

“그러하기에 퀴나즈에는 영웅이 태어나지 않아도된다. 비록 영웅이 가져다줄 평화는 값지며 심리적 안정감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아르카나를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있으니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은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으면된다. 그것이 퀴나즈의 본성이었다. 끊임없이 아르카나를 탐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니르엠이 내 말을 건네받고는 보수적 이실그라드의 추종자측에 시선을 건네며 양해를 구하였고 그들도 다른 반응을 보이지않자 그는 조심스럽게 남은 의제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화두가 되는 주네는 역시 르네가 쥔 아르카나와 죄악이 뒤엉킨 살점이었다. 당연히 더 거대한 목적이 있겠지만 단순히 결정화를 피하기 위해서 죄악의 힘을 빌린다는것은 그야말로 목적과 수단이 와전된 역설적인

행위였고 그로인해 다시 의장에는 열기가 올라왔다. 이실그라드에 대한 배신이자 수많은 아키스트의 순수한 믿음과 아르카나에 대한 배신이었다는 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아직 르네의 행방이나 그것을 구성하는 아르카나의 배열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은 단계인지라 다들 말을 아꼈다. 그렇게 한참이나 숨 돌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청원과 질문의 세례에도 지친기색 없이 일관된 어조와 기계와도 같은 속도로 차분하게 모든것에 준비된 대답을 하는 니르엠에게 압도되어 섣불리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니르엠은 장내에 잠시 정적이 감도는 틈을 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느정도 회담이 무르익어가니 이제 귀빈들을 이곳에 모시어 공표하게 될 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아르카나를 그려내더니 거대한 두루마리를 꺼내어 그것을 펼쳐보였다. 그것에 담긴 빛은 요란하게 춤을추며 글귀를 의장 이곳저곳에 흩뿌려대며 아키스트들의 주위를 수놓았다. 그들은 두루마리에 새겨진 그것이 새로이 쓰여진 조약이라는걸 금방 알아차렸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자들마저도 상투스의 빛무리 가득한 인장에서 아벨의 현신으로부터 느꼈던 같은 뒤틀린 무언가를 느끼며 그 조약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가 믿기 힘들어 하거나 감격에 북받쳐있는 분위기속에 니르엠이 조용히 위

엄있는 말을 마지막으로 뿌리 의회에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노년에는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다 죽어도 아키스트라는 사실은 어쩔수가 없더군요. 그대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한참의 시간이 흘러 그렇게 의회는 텅 비어있었지만 그의 말이 나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것은 아마 다른 아키스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는 뿌리를 뜯어내어 의회 주변을 돌며 회장의 탁상을 손으로 가볍고 부드럽게 쓸어가면서 남겨진 아르카나를 느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텅 빈 장소를 연신 걸으며 그들이 쏟아놓았던 말을 곱씹으며 질문과 대답을 반복했다. 그렇게 뒤엉킨 아르카나를 응축하여 가슴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귓가에 꽃을 피워내며 말했다.

“아이는 잘 쉬고 있는가?”

“공주님께서 눈을 뜨자마자 생명을 쏟아내며 아르카나에 맞서다 보니 피곤하셨는지 살갗의 재생이 조금은 더디지만 여전히 호박석에서 아름다운 형태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는 한결 홀가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금 나무의 형태를 하고서 아이가 있는곳으로 돌아가 호박석을 한아름 끌어 안은채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계약하는 도중에 늑대새끼의 씨앗이 각인처럼 새겨지는 바람에 아르카나의 생명력이 날뛰면서 원치않은 시기에 빚어진 생명이지만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아르카나의 깊은 곳에 닿은 기분이다.”

“그것은 칼린님의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군요.”

“그러함에도 이 작은 생명이 눈에 밟히고 걱정부터 앞서는것은 어쩔수가 없나보군. 나만큼이나 목화가 진행이 된것도 신경이 쓰이는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것이 공주님께서는 상처를 회복하시며 스스로 껍질을 떼어내실 겁니다. 칼린님처럼 살결을 대체하신것이 아니오라 그것을 기호대로 두르거나 벗으시더군요.”

“그것은 다행이구나. 그럼 언제나처럼 거듭 부탁하마.”

“맡겨주세요. 그런데….”

“뭐지?”

“칼린님은 아이라고 저희들은 공주님이라고만 부를뿐이니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해서요.”

그녀의 말에 전쟁을 핑계로 나의 피붙이에게 무신경 했던것이 미안해져 아이를 향해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아르카나를 세심하게 그려내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를 향해서 춤을추듯 스며들자 호박석 아이는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생명의 축복을 머금은 생명, 실비아.”

『 푸름을 틔운 사막에 결의를 』

아룬 모라의 태양은 변함없이 타오를 정도로 뜨겁다. 그것이 그을린 살갗으로 고스란히 느껴졌다. 열기로 숨은 금방 차오르고 입술은 바짝 메말랐다. 온 몸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지를 정도로 무자비한 이곳은 금방이라도 어설픈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뿐만아니라 일렁이며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아지랑이는 온갖 감각을 교란시켰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금빛 모래알 뿐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힘찬 생명이 흘러 넘쳤으며 신록의 땅에서조차 볼 수 없던 삶에 대한 의지와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것이 너무도 익숙했던 것인지라 모르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금 내에게 가르침을 주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하듯 황금빛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부짖기 시작했고 내 눈동자도 그것을 바라본다.

“아미나! 자빠져서는 뭘 그렇게 해실대고 있어?”

자미라가 다급하게 나를 깨웠다. 그때까지 내가 웃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어느새 온 몸에는 모래로 뒤덮혀 있었고 빛바랜 핏자국과 시퍼런 멍이 나 있었다. 나는 넝마같은 꼬락서니로 보기 좋게 바닥에 퍼질러져 있었다. 아, 맞아 사냥 중이었지. 아니 사냥을 당하고 있었나? 어느 쪽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머릿속은 상쾌해지고 뜨거움은 따사로움으로 감각을 멀게하는 아지랑이는 내 심장고동에 맞춰 격동하는 춤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돌풍

이 되어 순식간에 사냥감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왔다.
“어? 뭐지? 자미라! 봤어?”
“우와! 아니, 못봤어! 뭐야? …공간 전이?”
“그렇게 보였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날 보던데? 그 모습이 신기해서 나도 똑같이 그 모습을 쫓다보니 여기까지 온거야.”
“하하! 그건 또 뭐야.”
나를 보며 해맑게 웃는 인나나를 보자 나는 더욱 신이나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녀를 향해 손을 파닥거리며 소리쳤다.

“그러다가도 내가 막 하나가 더 생기려던 찰나에 호흡이 엇나가더라니까? 바람을 타고 나는 기분이야! 이게 지움의 극의라는 건가?”

“아르할라에 몇 줄 없는 기록으로 예상해보면 사람마다 다를거 같기는 한데.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내려와봐! 정신사나워!”
자미라가 소리치자 나는 다시 하늘을 밟고 순식간에 그녀의 곁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음을 지으며 내 이마를 탁 쳤고 동시에 내 눈 앞에 주먹을 세차게 쥐어내자 등 뒤로 커다란 돌풍이 일었다. 등 뒤로 모래알이 사각거리며 하늘로 흩날리고 자미라가 자상하게 말했다.
“이렇게나 가득 메우면 안되지. 항상 잊지 말아야지?”
“으윽, 알겠어. 하지만 꽤 참기 힘들어. 무언가 지금껏 꺼내보지 않았

던 숨결이라서 더욱 그런가봐."

"그럴거야. 생존에 의한 사냥이 아니라 사투의 즐거움을 알아버린 셈이니까 지금은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나 다름없겠지."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은 짓지마!"

"하하! 안 지었어!"

내가 손가락을 짐승처럼 펼치고 몸을 잔뜩 부풀리며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깔깔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때 모래속 깊은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바라보며 모래지옥에 똬리를 튼 짐승은 다시금 울부짖으며 우리를 끌어당겨 다시한번 말려죽일 준비를 하고있었다. 나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했다.

"또 할래!"

"그럴 줄 알았어. 아룬 모라의 태양이 진다해도 달님이 고개를 들어주니까 원하는만큼 태워도 돼. 급하게 채워 버린만큼 언제든지 다시 내가 비워줄 테니까."

그렇게 어느정도 숨결을 그러모아 영혼을 맑게 제련하니 이전보다 꽤나 안락한 요람에 든 기분이었다. 그러자 눈 앞에 드러난 둘 그리고 셋. 그들의 시선은 내게 닿아있었다. 그것도 잠시 갑자기 눈에 띄게 불어나는 나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다시금 호흡이 무너졌다. 그것들은 사라지는 와중에 내게 무언가 알리려는듯 입을 꿈뻑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나니 어느새 모래속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가 모래덫이라 불리는 라 파두크라는 짐승의 거대한 머리를 깔끔하게 잘라내었다. 뿌듯한 표정을 하고서 자미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내 움직임을 분석하려는 모양이었다.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갈 수 없었지만 숨결이 남긴 흔적을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거같아. 하지만 여러모로 불안정하네.”

“그러게 말이야. 방금 내 팔이 뱀처럼 이상한 각도로 꺾였던것 같았는데 확인해보니 멀쩡해. 아르할라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있었던가? 내부에 어디하나 손상된 흔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오랜동안 호흡을 제련을 했는데도 눈에 띄는 부작용이 없는게 신기할 정도야.”

“부작용이라면 내가 봤는데 공포를 모르는것 같다는거야. 너무 터무니없는 공간을 오랜동안 내달리다보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아룬 모라의 품에서 배워왔던 생존의 법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조금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아! 네가 항상 넘쳐 흐르는 나를 비워주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건데?”

“어? 그건 나도 모르지.”

“하하! 무슨 소리를 당연한듯이 당당하게 하고 있는거야, 바보야!”

“일단은 이 낯선 이 세계에 익숙해 지는것이 좋겠어. 그래봐야 찰나의 순간일 뿐이지만 말이야.”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지움의 궁극이라는 말에 너무 매료된거 아니야?”

“지움의 궁극은 좋은게 아니야?”

“아미나, 너는 그냥 싸움에서 얻는 즐거움에 사로잡힌 거잖아. 그래서 스스로를 극한으로 내몰고 있는걸 볼때면 가끔 불안해.”

“미안해, 하지만 못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거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입술을 물고 고개를 떨구며 분한 표정으로 손을 꽉 쥐면서 말하자 그녀는 기억을 되짚으며 그 순간을 회상했다.

“압도적인 힘에 짓눌려서 울분을 토해내며 돌발적으로 내뱉은 말인줄 알았는데 꽤나 진심이었구나, 그거.”

“자미라는 속상하지 않아?”

“개죽음을 당하느니 속상한 편이 나을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는 그 뒤로 조금은 강해졌잖아.”

“조금 강해진걸로는 안돼. 그렇게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었다면 죄악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을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거라면 더더욱 우리가 해야돼. 우리가 가장 죄악을

가까이에서 직면했고 또 그것의 살점과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좋아. 네 말대로 죄종도 아니고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변질된 이상의 식욕자에게도 쩔쩔매던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들의 어미인 죄악의 아가리 앞에 섰다고 치자. 그 다음은? 죄악을 품은 이에게 평범하게 죽어달라고 빌기라도 할거야?”

“항상 그랬듯이 우리는 방법을 찾을거야. 그리고 그 방법을 위해서라면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습득해 낼거고! 그치?”

대책없이 마냥 해맑은 나의 태도에 그녀는 어이 없는 얼굴로 이마를 짚으며 시름시름 앓는듯이 말했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내 팔자지 뭐.”

“응! 사냥 하는것은 나야.”

“죽어 버리면 결국 사냥 당하는건 너야.”

한참을 그녀와 합을 다투던 내가 신이 난 표정으로 주변의 공기를 어그러 뜨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그녀도 차갑게 웃으면서 나를 쏘아보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온 몸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집중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자미라가 만족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

“신났구나. 사냥 당하면서 개처럼 꼬리나 말지나 말라고.”

그녀의 미소에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주

먹을 내질렀다. 곧게 뻗은 주먹 너머로 맞은편의 사구에 소용돌이의 구멍이 새겨졌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지만 자미라는 그것을 가볍게 피하더니 태양에 녹아내리듯 손날이 아지랑이가 되었다. 그렇게 바람이 일렁이면서 그녀가 예쁘게 땋아준 내 머리칼이 베인듯 갈라져 땅에 떨어졌고 내가 울상을 지으니 자미라가 손을 저으며 당황한듯 말했다.

“가자. 새로 기원의 매듭을 지어줄게.”

“좋아!”

그새 기분이 좋아진 나는 자미라의 발걸음에 맞추어 인근의 마을로 힘차게 내달렸다. 우리들이 나고자란 마을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발걸음을 하자마자 우리를 반기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 그저 골칫거리로 소문이 무성하던 것이 아룬 모라의 젖줄을 틔운 은인이 된 것이다. 공간의 전이로 낯선이들을 불러온 것도 어느새 입소문을 타며 그것과 함께 딸려온 백옥의 껍데기를 두른 것들을 낯설어하며 거리를 두고 달갑지 않아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르네와 내가 서로 다루는 힘의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했고 결국 그들이 말라버린 아룬 모라의 젖줄을 살리는데 일조한 이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접한 교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을 사막의 태양아래 배척을 하지는 않았다.

“어이! 나들이를 다녀온 것 치곤 다들 옷차림이 엉망이잖아?”

심지어는 지금처럼 이름모를 낯선이조차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반기었다.

자미라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나도 태연하게 활짝 손을 흔들면서 자미라에게 어깨를 가까이 들이대고는 속삭이듯 물었다.

“누구야? 뭔가 잔뜩 주렁주렁 달고있는데 아는 사람이야?”

“나도 몰라.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지.”

“하하! 이럴 줄 알았어.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그를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다. 순식간에 흩날리는 모래 먼지가 땅에 닿기도 전에 그의 눈 앞에 다가온 우리들의 발걸음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던 그는 활짝 웃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태양과 달의 고리라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구나.”

그 말에 자미라가 날카로운 눈으로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 그 남자에게 잔뜩 경계하며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러자 그와 동행하는 이들 중 황금빛 눈을 하고있는 자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더니 우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우리의 물음에 답했다. 무례를 범하는 우리를 타이르는듯한 그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다.

“너희들이 가져온 살점이 자랄때마다 아룬 모라의 유리 규사로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을려서 태우면서도 백옥의 껍데기들이 담은 푸른빛을 띄는 생명은 보존케하신 슈 공방의 카르딤 바웨님이시다.”

“부끄러우니까 그만해, 비슈마르. 몇 번이나 말하는거야….”

“예, 도련님.”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있던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에게 물었다.

“꽤나 지위가 높으신 양반같은데 카르딤씨께서는 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도 알고 계시는군.”

“자세히도 알다마다. 그렇게나 날뛰면서 기괴한 것들을 이 땅에 들여온 너희를 모르는 이가 없지. 물론 너희 할머니도 말이지.”

“기괴한 거라니, 실례잖아. 이 자식아.”

“그래서 저희의 움직임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던 거군요.”

“꽤나 자신들이 있으신 모양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미나님에 비하면 너희들은 그저 스치는 산들바람 정도라고.”

“뭔가 열받네, 이 자식.”

내가 그의 가벼운 도발에 보기좋게 넘어가며 아지랑이를 피워대기 시작했고 그와 동행하던 떡대가 목을 뿌득거리며 신경전에 불을 붙였다. 그 와중에 카르딤과 자미라가 우리들을 제지를 하였고 자미라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먼저 차분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저희에게 무슨 용건이 있으신지요?”

“백옥의 껍데기를 두른 너희들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괜찮나?”

“르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녀들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걸로 아는데요? 더구나 그걸 슈 공방의 사람이 궁금해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 주세요."

"지움의 숨결조차 다룰줄 모르는 공방의 장인이 궁금한게 있으면 당연히 아라샨이 쓰는 무구들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지 다를게 있나?"

"…좋습니다. 일단 들어보죠."

"좋아. 질문은 두가지. 우리가 지움이라 부르는 퀴나즈의 아르카나는 아라샨의 무투가들이 다룰 수 없는 성질인건가? 아니면 영혼을 제련한다면 그것마저 다룰 수 있는 경지에 닿을 수 있나?"

"서로 부르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걸 그들은 손쉽게 하죠. 반대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확신 할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의 역량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제련을 한다고 해도 서로의 극에 완벽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하군. 마음에 들어."

"굳이 거짓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낯선이의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심문에 가까운 질문은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네요."

"불쾌했다면 사과하지. 아룬 모라의 푸름과 너희들이 가져온 변화들로 아라샨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이 부러워서 조금 시기가 섞인 말이 담겨 있었는지도 몰라."

"부러워? 우리가 왜?"

“당연한거 아니야? 지움은 아룬 모라의 축복이잖아! 그 숨결조차 닿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동경하니까 그들의 곁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걸 느껴보고 싶어서 공방일을 하는거라고.”

“특이체질…. 그렇구나. 몰랐어.”

“신경 쓰지마라. 아미나님이 거둔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아룬 모라의 젖줄을 트이게 하려고 이데아를 들쑤시고 다녔다 하길래 어떤 낯짝을 하고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니까.”

“그래서? 눈여겨본 소녀들을 본 소감은 좀 어때? 예쁘지?”

“응.”

“…김 새네. 재미없어.”

자미라가 우리 둘의 바보같은 대화가 한심했는지 한숨을 쉬면서 정오가 오기전에 마무리했던 일에 대해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늘 새벽 라 파두크가 죽었어요. 정오의 사막열로 발화 하기전에 어서 빨리 수레를 불러서 회수하는게 좋을거예요.”

“갑자기? 라 파두크가 죽었다고? 사막 끝자락의 개체들끼리 단합해서 라 파두크를 죽인건가? 그런 영역 다툼이 있었다는 보고같은건 받은적은 없는걸로 아는데?”

“뭘 그렇게 당황하는거야? 영역 다툼은 또 무슨 말이고? 그건 그냥 우리가 죽인거야.”

“모래 지옥의 문지기를? 너희 단 둘이? 왜?”

“그게…. 지움을 서둘러 깨워야 했거든.”

“아룬 모라의 개체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영역 다툼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세력과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지성과 사회가 있다는걸 몰랐다고 하지는 않겠지? 그들은 기억한다. 모래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완벽한 적으로 돌려버릴 정도로 급하던가?”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사냥감과 약속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얼 빠진 표정으로 자미라를 바라 보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냥감이랑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강해지기 위해서 수련의 상대로 라파두크씩이나 되는 재해와 가까운 것과 싸웠고 그것을 죽였다고? 어이가 없네. 왜 항상 지움의 깨우침에 닿은 사람들은 이렇게나 정신이 나간 사람들 뿐이냐고.”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신록을 피워낸 것도 모든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겁니다. 지금은 그 뒷수습을 하는 과정이니 부디 우리의 손으로 매듭을 짓게 해주세요.”

눈치가 빠른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우리에게 취조하듯이 물었다.

“…아미나님도 이걸 알고 계시나?”

“몰라.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입으로 말은 안 했어. 할멈의 오랜 꿈을 깨고 싶지않아. 그리고 그걸 할멈한테 말한다면 우리를 절대 아룬 모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거야.”

“죄악의 살점을 품은 신록의 푸르름이 아룬 모라에 초록을 빚어냈지만 결국 근원은 죄악. 그 죄악을 비워내고 씻어내지 못한다면 지금껏 했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룬 모라의 태양 앞에 서지못했던 저주받은 불경한 존재나 죄종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모래 위를 걸을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더이상 랍시르 사구끝에 걸린 푸른 달빛을 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그림을 머리에 그려낸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무거운 침묵속에 가라앉았다.

“좋아. 이해했다. 이러나 저러나 그 녀석은 사막의 교역망에 눈엣가시 같은 놈인지라 나를 포함해서 다들 벼르고 있었던 놈이기도 해. 상공회의 무역상들은 앞으로 일어날 피해보다 눈앞의 실리로 시선을 돌려줄테니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까지 배려 해주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배려라니? 너희들이 황금향에서 은인으로 불리는건 내 알 바 아니야. 아룬 모라를 사랑하는 크기는 누구나 같으니까. 아룬 모라는 척박하지만 자비가 넘치는 땅이다. 도움이 된다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

워라. 문제가 있다면 내 이름을 팔아도 좋다구?"

"어? 뭐야, 너 사실은 좋은 놈이었구나?"

"하지만 모래밭 짐승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를 완벽한 적으로 등을 돌렸으면 아룬 모라에 우리가 발을 딛을곳은 없다는 거네요. 더불어 여차하면 우리 때문에 외곽의 도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구요."

"문제라도 있나? 언제나 그랬듯이 아룬 모라의 무투가들은 그렇게 오랜동안 사투를 겪어오며 살아왔잖냐. 그리고 별탈없이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이랑 얘기라도 해보시던가."

"농담이죠? 모래밭 벌레들과 대화를 해보라구요? 제정신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난 또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할 수 있어!"

"아미나, 그만해. 이런 싸구려 도발에 넘어가지 말라고."

"저기, 싸구려 도발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무언가 생각이나서 허겁지겁 그들 사이에 벌어진 가벼운 실랑이를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할 수 있을거야. 해볼게."

"진심이야?"

"기억나? 다마르강 습지에서 우리는 이상의 식욕자들이 토해내는 불

쾌하기 그지없는 말을 담을 수 있었고 르네의 언니라는 사람도 나무껍데기를 휘두른 것들이랑 무언가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라는 소리군.”

“확신할 순 없지만.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 고마워, 카르딤.”

“어? 응. 그래. 대충 던져본 말이었는데 진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수도 있다니 정말 괴물이냐고….”

“하하! 그런 괴물같은 생각을하는 너도 이미 충분히 괴물자식이야.”

“아룬 모라에 내리쬐는 태양의 품속에 있는 마을 한 끝자락에 불경한 것들이 기어 다닌다면 몇번이라도 괴물이 되어줄 수 있다.”

그는 지움의 호흡을 모른다. 그래서 공방에서 무투가들의 무구를 제련한다. 하지만 지금 이 자가 거칠게 뿜어내는것은 지움도 아니고 강인한 정신과 결의 그리고 굳센 각오였다. 자미라와 나도 수많은 고초를 겪어오면서 그것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룬 모라의 따스했던 품에서 연마한 것은 단순히 무구 뿐만은 아니었다. 순식간에 달라진 그의 분위기 때문에 나도 자미라도 재빠르게 반발 물러서 전투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 모습에 카르딤은 웃었고 자미라와 나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뒷맛에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배어나왔다. 그의 숭고함에 나는 목을 가다듬으며 선심쓰듯 말했다.

“모래 바람을 열어줄테니 그쪽에 수레를 보내. 비늘이며 살점까지 전

부 회수한다고 했을때 운이 좋다면 해가 뜨기 전에는 마을에 닿을거야. 당신 이름을 팔아먹을 값이니 그 정도면 싸게 먹히겠지?"

내가 숨통을 열어 황금빛 모래 위로 길을 열어주었다. 카르딤은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손으로 그 아지랑이를 휘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이 그렇게 헐값은 아니지만 일단 받아둘게. 참 골때리는 꼬맹이들이야…. 마음에 들었으니까 아룬 모라를 뜨기전에 들러라. 혹시 아냐? 너희들이 혹할만한 장난감을 만들어 줄지도 모르지."

"응! 고마워. 그럼 또 보자고."

"오냐. 고생 많았다. 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미나님 폐 끼치지말고 나중에 내 안부나 제대로 전해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갑작스러우며 짧지만 폭풍과도같은 짧은 인사를 마쳤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낯선 이들의 호의와 배웅을 잔뜩 받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은지라 마음은 괜시리 무거워졌다.

"내 조급함이 아룬 모라에 불안을 안겨다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괜찮아. 그러지 않기위해서 이렇게 폭풍전의 고요속에서도 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거잖아. 그것보다 벌레들과 대화는 어떻게 나누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거야? 정말 대화가 될거라고 생각해?"

"몰라. 그대로 두면 마을로까지 그 여파가 미칠것 같기도해서 골치 아프네. 돌아가서 할멈한테 얼른 물어 봐야겠다."

“할멈은 대단해 참. 모르는게 뭘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떠나고 깊은 모래속에서 그 나이에 무리한 수행까지 마다않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강해지려고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수준이야. 너무 아득해서 잡을 수 조차 없어.”

“할멈도 슬슬 돌아 왔을테니 이것저것 잔뜩 물어보자구.”

“좋아, 뛰자!”

그렇게 미친듯이 바람을 타고 내달린 우리들은 해가 지고나서야 간신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할멈은 혀끝을 차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스하게 우리를 맞이해줬다. 예전처럼 요란스럽게 물장구를 치면서 몸을 씻었고 기분좋게 살결을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바람을 맞이하러 나갔다. 사구의 높은 언덕에서 두 눈을 감고 팔을 쭉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고 있으니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채운 잡념과 고민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어오며 모래를 휩쓰는 그 모습이 해안에 몰아치는 파도처럼 예쁘게 일렁거렸다. 부드러이 나부끼는 산들바람을 느끼고 그것을 타면서 찰나의 부유감을 즐겼다.

“음, 좋다. 풀 내음새.”

“그래. 정말 꿈만 같아. 비록 그리 많이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푸름을 느낄 수 있다니. 아룬 모라는 정말 대단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인함을 뿜어내고 있어. 분명히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굴하지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저 푸름을 간직할거야.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거야. 앞으로도 그럴거고. 아룬 모라는 강하니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기만 한다면 아룬 모라의 젖줄은 절대로 마르지 않을거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밤의 사막빛을 눈에 담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동안 할멈은 뒷짐을 지고 사구를 가볍게 박차고 올라왔다.

“황금의 땅에 핀 푸름이 틔어있는 평화로운 나날에 감사하기도 모자란 마당에 왜 이렇게 공기가 무거운겐고?”

나는 할멈의 반짝이는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할것만 같아서 고개를 그대로 떨군채로 발끝으로 모래를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지난날이 그저 다 꿈만 같아서 그래.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건지 모르겠어.”
“이전에 왔던 너처럼 불같은 녀석 때문인게냐?”
“응.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서로 보듬으며 살던 이들끼리 싸운다니. 너무 가슴이 아플것같아. 심지어 이름조차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은 나라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이들을 향해 서로 주먹을 내지르며 피를 흘리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

자미라는 내 말에 침묵으로 동의하며 할멈의 말을 기다렸다.
"조화를 이루는것은 여간 힘든것이 아니지, 암."
"아라샨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거야?"
자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할멈에게 묻자 할멈은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웃으며 훌쩍 커버린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만남에 헤어짐은 필연이거늘. 빈 자리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거란다. 나를 사랑해주던 이들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도 아닐테지. 떠나는 이들 모두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거란다. 그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간절함이 오히려 네 자신을 다치게 할게야."

"할멈! 아룬 모라에 푸름이 트고서 아라샨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아라샨에 조화를 이루어냈어. 하지만 여전히 이데아는 망가져있어.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한 점 없이 조화라고 말할 수 있어?"

자미라와 할멈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핵심을 내지른 내 차분하고 일목요연한 말에 다들 한참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 채울 수 없이 말라버린 젖줄밖에 손에 남지 않아 절망하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거야?"
"혹여 너희라면 덜어냄과 동시에 채울 수 있다 생각 하는게야?"

“모르겠어. 하지만 나 하나라도 부족한것을 조금 더 배우고 채워서 다른 이들에게 건네줄 수 있다면 그걸로 시작은 충분하다고 봐.”

“할멈. 이제 우리에게 중용은 더욱 큰 바람에 실려있어.”

자미라가 내 말을 거들며 할멈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입을 꾹 닫은채 조용히 고심하는 듯 하더니 우리에게 물었다.

“…저런, 그래서인지 더더욱 보내줄 수 없겠구나.”

그러더니 할멈은 망설임없이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할멈은 기쁨과 뿌듯함의 미소를 짓더니 어느새 퍼져나가 얼굴에 만연했다. 할멈의 모습에 우리는 잔뜩 긴장을 했지만 금방 몸에 숨을 잔뜩 불어넣었다.

“다시 이곳으로 기어 들어온것은 다른것 때문이 아니라 아라샨의 교훈을 이데아에 알려주기 위함이잖니? 즐거이 모래를 뿌려 보자꾸나.”

“하하…. 뭐야! 할멈, 즐거워 보이잖아!”

할멈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풍 소리를 앞지르며 나에게 주먹을 내질렀다. 그리고는 태연한 목소리로 내게 가르침을 던졌다.

“호흡은 거칠지만 안에 담긴 용량으로 밀어붙이면 다가 아닌게다. 그렇게 해서는 분명 금방 망가질거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비워야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그저 텅 비워 내는것이 중용은 아니란다. 습득력이 빠르지만 제 아무리 본능만으로 해결을 하려거든 숨결을 돌려서

잠시 주위를 보려무나. 네 곁에 누가 있는지 말이다.”

한참이나 잔바람에 밀려나 나뒹굴다 일어서서 바닥에 피를 토하고 있는 나의 시선에 간신히 들어온것은 할멈의 손에 붙잡혀서는 넝마가 되어버린 자미라였다. 그리고는 나에게 했던 것처럼 훈수를 두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중용과 절제는 그저 어설픈 흉내만 내고 있을뿐이지. 항상 바르고 자상한 너는 언제라도 아미나를 식혀주고 덜어낼 준비가 되어있지만 정작 너를 비워내줄 사람을 들이지는 않는구나. 홀로 쓸쓸히 그것을 스스로 억누르고 절제하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위태로우니 타인의 아픔을 네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하지 말거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거야?”

“콜록콜록, 그것이 궁금하더냐?”

“아니, 어차피 안 알려 줄 거잖아. 덤벼!”

익살스럽게 마른 기침까지 뱉어내며 여유를 보이자 자미라와 내가 다시 일어나 이를 악물고 숨결을 토해냈다. 할멈은 여전히 그것이 즐거운 듯 주먹을 가볍게 쥐면서 우리를 바라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다.

“욘석들, 가르침은 장난질이 아니란다! 그렇게 즐거우냐?!”

우리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것이 아니다. 미지의 것보다 오히려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것은 익숙한것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어도 할미의 주먹은 무거웁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할멈의 말처럼 새어나오는 환희로 벅차오름을 숨길 수 없었다.
“자미라! 당연히 더 할 수 있겠지!”
“채울것은 채우고 덜어낼것은 충분히 덜어내면서 수많은 이들과 드높은 벽에 절망했어. 그럼에도 뒤섞여가며 우리는 중용을 찾고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냈어. 문제없어!”
아직까지 아득바득 덤비려는 우리가 갸륵한지 할멈은 고개를 살짝 끄덕거리더니 내 가슴에 바람 구멍을 내려는듯 손날이 미끄러지며 날아왔고 숨이 턱 막히는 감각과 그것을 막아내어도 날카롭게 꽂힌 충격 때문에 어두운 하늘 비치는 달빛이 어느새 뿌옇게 물들었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절망을 가슴에 하나하나 새기는거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은 수치가 아니라 삶에 대한 경외이니라. 달콤한 그것을 할미가 아낌없이 줄터이니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워 하거라.”

“하하, 쉽지 않네….”
“끌끌끌, 거짓말 하지 말거라. 그렇게나 피를 뒤집어 쓰고나서도 싸움이 즐거워서 안달난 들개들처럼 바들대고 있잖니?”
“할멈, 오랜만에 너무 신난 것 같은데?”
“즐겁다마다. 오랜동안 맥이 끊겼던 아룬 모라에 순수한 영혼을 잇는 전사들의 의식을 다시 피워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할꼬?”
“적당히 물려줄 생각은 없는것 같으니 망가져도 몰라, 할멈!”

“발칙한것. 원한다면 얼마든지 날뛰어보렴. 아룬 모라의 달빛이 진다 해도 태양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테니까 원하는만큼 태우려무나. 급하게 채워버린만큼 할미가 비워줄 테니까.”
뿜어대는 지움의 날카로움과 반대로 할미가 건넨 그 말은 아룬 모라의 태양만큼 따스하고 포근했다. 그렇게 자미라와 눈이 마주치자 우리들은 사막의 고운 모래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둔 염료를 얼굴에 발랐다. 향낭을 가벼이 털어내자 사막의 밤공기에 스치며 기분 좋은 향을 풍기기 시작했다.

“마쉬 아가스 에아 드 히밧트. 하려거든 확실하게.”

자미라의 말과 함께 우리는 돌풍을 일으키며 할미의 가르침을 내려받았다. 그 날 태양과 달은 어지럽게 뒤섞이며 춤을 추었다. 얼마나 그것이 차고 졌는지 모른채 흩날리는 모래알과 아지랑이에 뒤섞이며 누가 누구인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였지만 단 하나 확실한건 분리된 세상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만끽했다.

『 아저씨 』

길고도 긴 빛이 꺾인 뒤에도 드리워진 커튼 틈 사이로 햇살의 따스함이 충분히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걷어내자 눅눅한 거리에 아무렇게나 고여있는 비웅덩이에도 온기가 배어있었다. 조금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맡으면서 멍하니 저 먼곳을 바라 보았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지만 태양이 건물 틈 사이 곳곳을 밝게 비추며 떠오르고 있었고 뒤틀렸던 빛과는 다르게 모두에게 시선을 건네주는 자애롭고 따사로운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멈추었던 백색의 시간이 색을 찾아가며 비로소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빠, 나 등 가려워.”

“응, 알았어. 금방 갈게.”

마고가 방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민채 나를 부르자 그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고있는 나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꼼지락 거리다가 순결한 희생과 구원에 수치라는 것은 없는듯이 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는 등을 내어주었다. 마고의 등이 가려웠던 이유는 천상의 형상이 깃들면서 새겨진 죄악의 성흔과 돋아난 날개 때문이었다. 비록 그녀의 등에서 더이상 요낙의 낙인은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고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었다. 언제나 죄악은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기에 마고가 계속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마고의 등을 가볍게 긁어주었고 하얗고 부드러운 그녀의 등에 달긴 날개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과학이 그것의 베일을 풀어내는 듯 했지만 정작 낙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얇고 가는 원환면의 형태를 한 장치와 마고의 뇌에 흐르는 전류 신호를 동화 시킨것에 불과했고 죄악의 고리라는 그것은 마고의 뇌파와 공명하며 은은한 광휘를 불규칙적으로 점멸해가며 그녀의 머리 주위를 부유하고 있었다. 비록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여 그녀의 주위에 그마저도 외부로 노출시킨 상태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지만 마고는 어째서인지 그것이 마냥 싫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그것을 가볍게 만져보려 했지만 어떤 원리를 하고있는지 그저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근것처럼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마고는 이게 불편하지 않니?”

“아니, 나는 괜찮은데? 오히려 반짝거려서 예뻐.”
그 말에 가슴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내색 하지않고 이번에는 날개처럼 생겨먹은 그것을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날개는 좀 어때? 아프진 않고?”
“아프진않아. 조금 무겁긴 하지만 어느새 내 몸의 일부처럼 제법 익숙해졌어. 봐봐, 예쁘지?”
날개. 물론 마고는 머리의 고리 만큼이나 천사같이 예쁜 날개를 좋아했

지만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속편하게 천상의 형상과 기적을 염원하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찬송하던 이들을 원망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내게는 저주 혹은 속죄의 매나 다름없었다. 비록 그것을 물리적으로 뜯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마고의 정신에 상실이라는 자기신호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에 나는 그것을 제거한다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없었기에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천사와도 같은 날개는 조그만 크기였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두 날개로 웅크린 그녀의 몸 절반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자랐다. 그것이 왜 마고의 등에서 기생하여 자라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학자놈도 그것을 흥미로워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으니 나는 그저 성실하게 마고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만을 말해주고 싶었다.

“점점 자라는데 이 정도면 아빠를 안고도 하늘을 날 수 있겠는걸?”

“하하! 두명은 익숙치 않아서 높이 날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좋아. 이걸로 마고가 그토록 바라던대로 어여쁜 천사님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고 싶은건 변함없이 그대로야?”

“응. 천사님이 되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싶어.”

그 올곧은 말이 내 마음을 어찌도 이리 거세게 후벼파는지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마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천사님도 가끔은 아플때가 있단

다. 그리고 아무리 천사님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
“구원받은 이들의 행복을 바라보면 아픔은 금방 씻겨나가.”
그녀를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베르생 수도원을 등졌으나 결국 나는 마고를 위해서 해준것이 하나도 없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천상의 형상에 환상이나 갖고 있는 것들과 광신도 혹은 그것에 반감을 가진 것들의 시선을 끌게 만든 멍청이었다. 그리고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이 나를 뒤덮었지만 마고가 조용히 두 팔을 뻗더니 나를 조용히 안아주며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는 그 작은 품 안에 안겼다. 말없이 내게 건넨 작은 손길은 마치 자신이 다른 천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것이라는 조용한 다짐처럼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손길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운 품에 안기듯 따스했다. 동시에 마고의 따스한 날개가 나를 품자 빛이 줄기가 우리 주위로 파도처럼 넘실댔다.

“다리아….”

“응? 누구?”
마고의 물음에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맑고 커다란 눈으로 나를 천진난만하게 바라보았다. 설마했었던 불안감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은듯 말했다.
“…음? 아니, 말이 헛나왔네. 요새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봐.”

“언제든지 말해, 천사님이 아빠의 짐을 덜어줄게.”

“아빠는 천사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순수한 희생을 강요받은 적은 없지만 희생의 덕목의 중요성을 교육받았던 그녀에게 있어서 선택적 희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 물론 이타적 희생을 손가락질 하는 이는 없겠지만 그녀의 맹목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늘 회의적이었다. 더욱이나 나를 신경쓰이게 하는것은 죄악의 낙인이나 날개 따위와는 별개로 그녀는 여전히 순결의 희생에서 오는 베르생의 축복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귀에 거슬리는 전화소리에 나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마고에게 살짝 웃어보이며 뺨을 어루만지고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던컨씨?”

“아, 예. 박사님.”

“따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처리 이후로 죄악의 고리와 연결된 그녀의 정신에 눈에 뜰만한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나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간헐적인 기억의 휘발을 겪더군요.”

“그건 피험체의 연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니 우선순위에서 배제토록 하죠. 그것 외에 돋아난 날개에서 특별히 느껴지는 징후는

없었나요? 형질학적 역학 구조의 변화가 있던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서 마고가 날개가 자라면서 간지러움을 호소한다는 것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흠…. 자란단 말이죠?”

“네. 이것도 부작용이라고 봐야하나요?”

“지켜 봐야겠네요. 말씀드렸다시피 피실험체의 정신유지를 위해서 아르카나라는 원소에 대한 분석과 조합은 그 때 다소 즉흥적으로 했던지라 확신할 순 없지만 그것을 매개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니라 개체의 적응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죠.”

“딸을 실험체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목숨을 즉흥적으로 가지고 노는 듯한 태도는 언제 들어도 유쾌하지 않군요….”

“나는 맹세컨데 단 한번도 과학을 장난질로 대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해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의 전자기기나 다른 물건들이 죄악의 고리로 인하여 간섭을 받는다거나 전파의 방해 따위로 외부의 파형 수용 및 왜곡 현상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네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던 박사는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부지런히 놀리는 펜소리와 함께 한참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이내 다시금 수화기 너머로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군요. 차후 방문해 볼테니 계속 경과를 지켜보죠. 그럼 이만.”
내가 답을 하기도전에 그는 용무를 마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말 이 사람은 영 껄끄럽다. 미치광이 과학자인건 확실하지만 감정없이 모든 이들을 시험관의 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말하는것도 영 탐탁지 않았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 정말이지 무성의 하다고 해야하나 배려가 없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마고의 짐을 조금은 덜어 준 사람이자 내게는 은인이나 다름 없었다.
“박사님이야?”
“응. 마고가 잘 있나 물어보더라고.”
“나도 바꿔주지.”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그냥 뚝 끊어 버리던데 박사님이 많이 바쁜가봐. 그래도 박사님이 조만간 한번 들른다 하더라고.”

아쉬워하는 마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즐거워했다. 그 모습에 나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지갑에서 명함 한장을 꺼내어들고 전화기를 다시 돌렸다. 수화음이 들리는동안 연락처가 담긴 초대 카드를 손가락 사이로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마고가 그 화려한 카드를 가만히 바라보다 던진 물음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아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다. 우려하던 일들이 조금씩 수면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리나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어니시까지 잊은것이라면 조만간

나조차 기억에서 잊혀질까 두려워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건 누구?”

“응,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친구야. 필요한게 있었는데 나중에 걸어야겠네. 바보인데다 게을러서 아직까지 자고 있는 것 같거든.”

왜 그렇게 애둘러 대답했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마치 내게 벌을 내리려는 듯 예상치도 못했던 부작용이 마고에게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가 구원에 집착한 나머지 기억의 파편이 흩어진 것 같았다. 분명 그것은 뇌의 전류신호인가 뭔가를 내는 그 죄악의 고리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마치 구원만을 위해 알 껍질을 깨고 나온 새처럼 말이다. 희생과 순수.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기억과 추억의 조각들을 흩어지게 만들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박사마저도 아르카나의 언어를 도식화하지 못하여 걱정했던 아르카나와 죄악의 고리가 일으키는 전자기장의 간섭 때문일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질 때쯤 마고가 내게 와서 뜬금없지만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도 내가 무서워?”

“아니. 갑자기 왜? 누가 너를 무서워하니?”

“왠지 다들 내 등 뒤의 날개와 머리에 둥실거리는 예쁜 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사실 천사님을 무서워 하나봐.”

“아니란다, 마고야. 사람들은 천사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천사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는걸 두려워 하는거야.”

“자신들의 죄를 보듬어 줄 누군가를 바라는건데 오히려 누구보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 아니야?”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아니, 되돌아보지 않으려는 존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한낱 사치일 뿐이야.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제야. 그들에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어.”

자조섞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자 마고는 걱정이 되는듯 나를 꼭 안아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다 아는듯이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리고 왠지 그녀의 머리 위에 둘러진 저주의 고리가 비추는 휘광이 더욱 눈부신 빛을 발하자 무언가 더욱 무겁게 내 가슴을 짓눌렀다.

“괜찮아. 누구라도 소녀 하나만을 희생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을거라고 한다면 대부분 같은 선택을 했을거야.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 무엇보다도 소녀를 희생해야 한다는데 악의는 없었잖아. 그들도 많은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거야.”

“그런데도 마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구나.”

“맞아. 세상에 마땅히 미움을 받아야 할 존재는 없어. 아빠 말대로 그들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저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희망을 전해줄 존재가 주위에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녀는 해맑은 미소와 고갯짓으로 화답했다. 달라진 것들을 젊어진 마고는 이전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는지 다시 방에 들어가더니 어느새 금방 단잠에 빠져들었다. 부서지고 깨졌지만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자애로우며 성스러웠다. 구원이라는 것에게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마고의 얼굴을 하고 있을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정신을 차렸다. 마고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베르생을 나와 평범한 일상을 가져다 주기로 다짐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래도 어두운 이 시기에 기대고 싶은것이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 기대려고만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아비가 아닐 수 없었다는 생각에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러자 그녀의 고리가 휘어지고 일렁이는 빛을 발하더니 이내 그녀의 주위를 반짝거리며 비추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군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향해 있네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 작은 육신이 겪은 고통에 함부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이 작은 영혼에 상처를 입힐 뿐이랍니다.”

처음엔 그저 나의 귀를 의심했다. 그저 잠꼬대처럼 입에 익은 그 말을 뱉어내었다 생각했지만 확실히 나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눈을 뜬

건지 감은건지 의식이 있는건지 혹은 몽롱한 상태인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마고라고 부르지않고 그것이라 불렀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에게서 마고를 느낄 수 있는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박사는 일시적으로 기억의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언급한적은 있었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부작용이 지금 내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는 마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그것을 향해 말했다.

“마고는 착한 아이예요. 그러니 구원을 대가로 그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는 대가없는 구원은 없으니까요.”

베르생에서 오랜동안 들어왔던 그 말이 목줄처럼 나를 조이기 시작했지만 이전만큼 나를 수렁으로 빠뜨리지는 못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마고는 학교가 좋대요. 거기에서 사귄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하루가 꼬박 지날때도 있답니다.”

입가에 얇고 인자한 미소를 띤 그것은 무슨 대답을 해야할지 몰라 고장이라도 난 듯 조용히 내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마고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잠시라도 구원이나 희생을 내려놓는 삶을 바랐죠. 그래서 나는 하루에 최선

을 다하며 주어진 시간에 헌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마고와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핏방울이 퍼져가는 대신에 마고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지요."

"당신들은 운명을 벗어나고자 하는군요."

"천사님. 이것조차 운명이 아닐까요? 마고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것을 버려도 좋을 정도로 나는 가끔 평범한 일상이 운명처럼 느껴져요."

"…모든것을 버리는건 결코 좋지 못해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마고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 지고 있지요."

그렇게 흐릿해 지는것은 마고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그 말을 입에 담자 온 세상이 희뿌연 안개에 잠기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가 붙잡은 손을 꽉 쥐며 나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다.

"동정하며 연민으로 희생 하는것은 작은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거창한 이름에 목매왔던 나의 속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고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마고의 얼굴로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단 한번도 마고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픔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었다. 그것이 나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어느새 숙녀가 됐지만 마고는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터울없이 밝고 명랑한 모습을 쭉 연기하고 있었다. 나

는 그녀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희생을 한 것은 나 뿐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마고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조차 나의 욕심이자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것을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상쾌하고 마고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운명은 가혹하지 않아요. 단 한번도 누구에게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거둬야 겠습니다. 희생이라는 값어치는 크고 작음이 없으며 어떠한 것으로도 감히 저울질을 할 수 없거든요.”

마고는 잠시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이윽고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마 그녀가 눈을 뜨고나면 평범한 일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나에게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다른곳에서 찾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 어리석게도 항상 타인을 원망했다. 마고의 짐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죄악의 고리는 그녀의 인격을 분리 시키거나 혹은 기억의 혼란을 가져온 운명을 원망했다. 언제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발목을 붙잡는 베르생은 물론 구원에 눈이 멀어 마고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을 원망했다. 고작 기도 하나로 일상의 전환을 꾀하는 이들에게 항상 회의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야 죽은것같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있던 마고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리고 잠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도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천사님이 나의 모든것을 보란듯이 가져가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기억의 휘발이 나에게 마고라는 천사님을 앗아간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이내 운명이라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터질듯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그녀에게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이곳 플랑바통 변두리 작은 마을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지내고 있단다. 플랑바통에서 큰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감사한 도움으로 비교적 안전한 이곳에서 지낼 수 있었지. 지금은 여기에 너밖에 없으니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려무나.”

기억이 휘발이 된 마고는 낯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를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더행이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몸은 조금 괜찮니?”

“네, 머리에 예쁜 고리랑 등에 날개가 있다는것만 제외하면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짊어지고 있는지는 알 것만 같아요. 나는 천사님이었나 봐요.”

“기억이 완전히 휘발된것은 아닌가 보구나. 다행이다. 너도 나처럼 베르생의 사제이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떠올려보렴.”

“고마워요, 아저씨.”

마고의 말에 나는 활짝 웃음을 지었다. 물론 그것이 헛된 기대인 것은 내가 더 잘 알고있다. 그러나 그 말은 내가 아니라 당장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은 마고를 위해서 한 말이었다.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 했지만 지금은 욕심을 저버려야 할 때이다. 플랑바통의 화마가 지나간 뒤로 평범하지 않은 이들이 조용히 다른 이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뒷처리를 맡은 이들을 떨어 뜨리기란 여간 쉽지는 않았다. 미친듯이 울리는 현관 종소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깊게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올 것이 왔을 뿐이야. 예상보다 늦게 온 것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나….”

나는 다급한 초인종 소리에 불안한 얼굴을 하고있는 마고에게 괜찮다는 미소로 안심을 시키고는 현관으로 나아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조금 변했지만 낯설지만은 않은 익숙한 사내가 얼굴에 만연하게 미소를 담고있었다. 나는 짧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말콤.”

“뤼옹. 꽤 오랜 시간이 흘렀군. 마고는 잘 지내나?”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그에게 말을 해야하나 고민하며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잘 지내고있지. 벌써 주변에 남자들이 꼬여 골치가 아프지만.”

“하하! 그 마음은 잘 알고있다. 어니시를 말하는건가?”

“…당돌하고 좋은 녀석이자 마고의 유일한 친구지.”

“아비라면 친구는 가려서 사귀라고 말할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음침한 녀석을 들이기에 그녀는 순결하기 그지 없을텐데.”

“말을 가려서 해주지 않겠나? 마고는 물건이 아니라네. 나는 언제라도 그녀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해.”

“이런, 내가 좀 무신경했군.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옛 벗과 그의 딸을 보러 온 것 뿐이야.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네만.”

“천상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휘몰아친 기적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겠지. 그렇게 요란하게 기적의 천사님이 태어나셨는데 뻔뻔스럽게 어줍잖은 거짓말을 내뱉는거냐?”

“거짓말이라니 서운한 소리를 하는군. 중요한 것은 천사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희생과 구원을 위한 기적을 조우하는건 베르생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네. 그녀의 안부가 궁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아닌가? 옛 친구여.”

“말콤, 지금은 때가 좋지 않네. 나는 고통에 빠져 신음하고 있거든.”

“천사님이 계신데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니 이 무슨 배부른 소리인가? 구원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기만인가?”
“천사님은 머리 위 신성한 고리고 광휘를 비추고 순백의 순결한 날개로 나같이 쓰레기 같은것마저 안아주려고 해. 그럴때마다 자신도 가슴 아파하며 상처를 입는데 그것이 더욱 가슴이 아픈것이지.”
“죄악을 등에 입었을 때보다 더 무서운 차원의 존재가 되었군. 하지만 그대가 고통속에 몸부림 치는것과 그만한 힘을 가진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네만?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실의에 빠진 자들을 외면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돌아가 주게.”

“헛된 거짓 구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희생을 감내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들도 있는데 정작 그대들은 차가울 정도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건가?”
“자초지종은 수도없이 들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속해있지 않아. 물론 상처받은 이들이 마고의 손길 아래에서 지친 영혼을 잠시 달랠 수 있다면 한 숨 돌릴 수 있을만한 거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네. 유감이지만 우리에게 어금니를 드러낸다면 마찬가지로 그녀가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평생동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맛보게 해 줄 용의가 있다

네. 죽음 바라도 멈추지 않고말이야.”

“무서울 정도로 변했군. 뤼옹. 이제는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버렸구만. 이전의 그대는 상냥했지만 오늘날 그것마저 저버린다면 형편없는 능력으로 딸을 도구로만 써버리는 남자만 남아버리게 되는 거잖나?”

“유감이네만 내게 그런 도발은 통하지 않는다네. 말콤. 마고는 물론이고 나는 미성숙했어. 그리고 그 때의 나를 떠올리면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 없더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기 그지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어가며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성장통을 겪어왔네. 얄팍한 수를 쓸 생각으로 우리앞에 온 것이라면 바라건대 조용히 돌아가 줄 수는 없겠나?”

“강해졌군, 뤼옹. 하지만 그러지는 못할거야. 일단은 우리에게도 입장이라는게 있어서 말이야.”

“처분을 하려는건가? 헌데 그대들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베르생의 사도가 아닌 이들을 처분한다는 것이지? 오히려 그들과 공감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알고있던 베르생과는 사뭇 달라졌군.”

“안타깝구나. 오랜 벗이었으나 나도 아벨의 현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피와 눈물을 흘려주면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않는 베르생의 사제들을 향한 모독을 그저 눈 감아 줄 수 만은 없겠지….”

틀렸다. 구태여 이곳까지 온 말콤은 마고를 가져갈 생각 이외에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어보였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하려는듯 단호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오랜 벗이여. 나와 동행한 이들이 이미 이곳을 주시하고 있으니 도망칠 수 없을걸세. 그대는 베르생의 사제로서도 아비로서도 실패했어. 도망치는 것이 마고를 위한 해답이 아니야.”

“당장 마고만 봐도 세상에는 명확한 해답은 없어. 그리고 그녀를 제외하면 내 인생에서 성공 했던 기억은 단 한번도 없었으니 이제는 무언가를 해볼 요량이야. 조용히 지켜봐줘.”

“…드 루아 네브 꾸 데 그라. 자애와 포용으로 안식을 주소서.”

그는 망설임없이 신성과 아르카나가 엉망으로 뒤섞인 힘을 끄집어내자 나는 다시 한번 되돌릴 생각으로 물었다.

“결국 이렇게 파국에 이르는가?”

“선택을 했으니 평생 처분과 척결의 꼬리표가 붙어서 이전만큼 도망치기는 힘들거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목을 향해 칼을 들이댔다. 그렇게 한참동안 처분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때 우리 앞을 막아선 자는 맨발로 모습을 드러낸 마고였다. 저 모습을 보아하니 다시금 마고가 아닌것으로 변한것이 틀림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고의 모습을 보자 내가 말콤을 향해 물었다.

“자비를 입어야 하는 것은 자네일세. 다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 경우겠지만….”

타인의 고통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 아니 애써 외면하면서 그것을 저버렸다. 내게는 오직 마고의 상처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느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에 반응하듯 마고는 머리 위의 광휘를 쏟아냈고 비단결같은 날개를 펼치니 그 모습에 다들 숨 죽이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모양이다. 한참을 멍하니 그 모습을 눈에 담았던 사제들은 당혹스러움과 경외감이 뒤엉키며 마고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말콤도 미간을 찌푸리고 이를 악 물며 눈 앞에 선 기적을 바라보았다. 빛에 둘러싸인 그것은 타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의 귓가에 바로 속삭이는 것처럼 간지럽게 들려왔다.

“천사님은 숭고한 이들을 향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지금 당신들 앞에서 구태여 천사님의 얼굴을 할 필요는 없을테지요.”

“마고, 우리를 협박하는거니?”

말콤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예요.”

“우리가 항상 지켜보마.”

“틀렸습니다. 지켜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안될 것 같아.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천사님이라 말하는 지금의 너는 정말이지 무섭기 그지 없단다. 마고 너는 지금 아프단다. 불안 그리고 기억을 잃은 고립된 세계에서 많이 외로운게야.”

“그렇군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것을 당신들은 기어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네요. 아니죠, 어쩌면 당신들은 끊임없이 괴물을 낳아야하는 슬픈 처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것이 불러올 결과 또한 인지하고 충분히 각오하고 있을테지요.”

“베르생이 괴물을 낳는곳이 아니라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거두어 헌신하며 치료 하고나면 그것은 자신이 입었던 은혜만큼 아니 그 이상을 베푸는 선 순환을 이루는 거란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고 그렇게 눈이 뒤집혀버린 그것은 빛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었고 포근함이 잔잔하게 남았다.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눈부신 빛이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는 이름모를 젊은 사제만이 반쯤 정신이 나간채로 두 손을 마주잡고 중얼거렸고 그녀의 피로 그어진 축성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고와 겹쳐보이며 얼마 남지 않은 타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올라왔다. 그조차 한심하다고 여기며 나는 깊게 한숨을 쉬며 여전히 동공이 열린채 고개를 떨구며 벌벌 떨고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하고 일목요연하게 용건을 전달했다.

“힘든건 알겠지만 그대도 그대가 해야할 일을 해야함이 마땅하지 않은

가? 그럼 이만 돌아가서 교구장에게 똑똑히 전해주게나. 처음부터 이곳에 천사는 없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애초에 순결의 미덕으로 시작한 네놈들이 순결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베르생에 빛은 없었다고 말이지. 아, 그리고 더불어 하나더. 우리를 제발 내버려두게. 아니면 더 험한 꼴을 당할테니 말이야. 흙탕물에서 구르는 우리들은 순수의 땅 토르메르에서 순결한 사도 흉내를 내는 네놈들처럼 움직이지는 않을거라고. 이해했으면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중얼거림을 멈추지 않은채 미친듯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길 끄트머리를 가르켰다.

“걸을 수 있지? 배웅은 안해줘도 될테지. 그럼 두번 다시 이쪽으로 눈길조차 보내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가게나. 자네들은 그저 플랑바통의 잔당에 휘말려 안타까운 생의 마지막을 경험했고 그대만이 귀인의 도움으로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다고 기억해주길 바라네.”

그녀는 종종걸음으로 비틀거리며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모양새로 햇살이 비추는 길을 따라 돌아갔다. 위협은 종식되자 그것은 빛을 거두고 날개를 접더니 힘없이 시체들 가득한 피 웅덩이 위로 푹하고 쓰러졌다. 차마 눈을 감지 못한 말콤의 눈을 조용히 감겨주고서 마고를 끌어안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품 속에서 지쳐서 가늘고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걱정이 되서 따라온거니? 고맙구나. 천사님같아.”

“…모르겠어요. 눈을 뜨니 그립고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이 해야할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한거니까 그렇게 풀이 죽어있지 않아도 된단다.”

“죄송해요, 우리가 해야할 일이 뭐예요?”

“운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않게 하는거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이군요.”

마고의 말에 나는 얼굴에 바로 내리쬐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기분좋게 맞으며 즐거운 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래. 나는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만큼이나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아 망가져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도울게요. 내가 천사님의 모습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닐테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래요.”

마고는 남을 돕는 그것이 즐거운지 내 품에서 발을 흔들거리며 좋아했다. 이렇게나 마고는 착한 아이이다. 마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 지워낼까? 아니면 남겨둘까? 』
거짓된 빛이 남겨놓은 뒤틀린 빛들이 하나둘 저물때마다 공허의 휘황찬란한 색은 내 눈을 비추며 나를 공허의 요람으로 데려가듯 포근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나는 두 팔로 그것을 맞이하며 달콤한 속삭임을 한껏 만끽한채 웃음을 쏟아내자 나의 사역마들도 나의 환희에 공명했고 내것과 같은 색채로 그것들의 눈이 물들어갔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겹쳐지듯 그것들은 나의 외형과 사소한 움직임 그리고 목소리까지 모방해가며 웃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즐거운거지? 아니, 이따금 내 모습이 어지러이 투영되는 현상도 굳이 거대한 공허속에서 먼지같은 존재나 다름없는 네놈들과 나를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

거짓으로 투영된 형상을 눈에 담고나서 내가 얼마나 깊게 카하낫의 공허와 연결이 되었는지 가늠이 되고나니 이만큼이나 뿌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조금 불안정해도 검은 문을 찢어가며 카하낫의 품 속에서 더욱 짙은 침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저것들의 모방을 더욱 확실하고 완벽하게 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마녀들이 속삭임에 취한채 공허의 부산물들밖에 끄집어내지 못하지만 이것은 내가 공허로부터 이끌어낸 나만의 기적이었다. 거짓 투영이라 이름 지은 나의 기적이 훗날 이데아에 새길 모습을 상상하니 즐겁지 그지없었다. 물론 그것

에 대가가 없는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당연하게도 공허와 허무로 투영된 그것들은 나이며 그것들의 시선에서 거짓된 개체 역시나 나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의 존재의 개념은 점점 잊혀지고 퇴색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어렴풋이 느끼며 여러 가설을 세웠지만 그 확신은 이것들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 내렸고 지금 거짓으로 투영된 개체들로 인하여 그 가설은 확실한 명제로 규정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만물의 진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공허를 포용한 것인데 스스로가 그 위에 서지 못하면 아무 의미없는 공허한 날개짓이기에 과거의 나를 확실하게 묶어둘 매개가 필요했다. 그렇게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퀴소…. 그거라면 나라는 개체를 확실하고 그리고 완벽한 형태로 과거라는 개념안에 보존시킬 수 있다. 그거라면 내가 진리의 위에 선 나 스스로를 인지하고 느낄 수 있을테지.”

오로지 과거만을 관장하는 카라하스의 마녀인 그녀를 조우하야 그녀로부터 방법을 끄집어낼 수 밖에 없었다. 쉽사리 나의 요청을 들어줄리는 만무하니 조금의 마찰과 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찢어 검은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아름다운 색채 뒤에서 느껴진 곳은 칼 파르다가 아니었다. 칼 파르다를 뇌리에 떠올리며 그곳으로 가려 했지만 생전 처음보는 장소에 발걸음을 한 것이다.

“어라? 잠깐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지? 문을 잘 못 열었나? 정신 차

리고 다시 찢어야겠다."
나는 듀 빰을 손으로 여러번 때리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낯설기 그지없는 곳에서 카하낫의 숨결이 느껴졌다. 다만 그것이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잔상일 뿐 본질적인 그것이 아니라고 느끼자마자 나의 온 몸의 신경들에 녹아내린 공허의 감이 미친듯이 요동쳤다. 그리고 그 익숙하지만 낯선 곳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공허만큼 깊었지만 불쾌하기 그지없는 차가운 어둠이었다.

"그저 공허의 부산물만 가지고 놀았으면 되었을것을…."

그 목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듯 눈을 떴지만 여전히 칠흙과도 같은 어둠이 나의 시야에 담겼다. 하지만 그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무언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데아가 어둠 속 그림자들이라고 말하는 카인의 핏줄들 중 하나였다.
"꽤나 갑작스러운 환대인데? 이런 옷차림이라도 상관없어?"
"공허의 창녀여, 그대가 카하낫으로부터 바라는것은 우리 어둠에게 너무나 밝고도 눈부신 것이기에 설득을 하려고 불렀다네."
"설득 하려는 것 치고는 방식이 너무 괴팍하고 음침한데?"
나의 빈정거림에도 그림자는 바로 본론부터 꺼내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말을 들응려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 조금의 실례 정도는 눈 감아 줬으면 하는군. 과거를 관장하는 마녀

를 조우하려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지? 단순히 공허의 품에 취해서 말라 버린것일 잔해일 뿐인것을 말이야.”

“고작 그 정도 뿐이라면 관심 꺼. 아벨의 자손들 집안일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참견할거야?”

“아벨의 자손에게 딱 그 정도라는 것이지 다른 꿍꿍이가 있다면 일단은 그것과의 조우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 대답해두지.”

“그럼 나도 일단은 과거의 내가 쌓아온 나라는 개체를 증명할 수단을 강구 하고있는 지금 마침 필요했다 정도로 대답해두지.”

“기록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관장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기가 껄끄러운 것이거든. 죄악은 공허로부터 나왔기에 그것에 물들어있는 해악을 더이상 이데아에 뿌리내리게 하지 않게 함이라. 공허에 정신이 오염되면 그것조차 장난질이 되는건가?”

“그래서 음침한 그림자께서 바라는건 뭐지?”

“이데아를 구성하는 축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다오.”

“그것으로 내가 얻는건 뭐지?”

“변하지 않는 이데아에 이전 같은 평온한 일상이 주어진다.”

“뭐야, 재미없네.”

“그러냐. 하지만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누릴 적합한 장소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것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야 문을 찢고 카하낫의 변두리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다시금 이데아가 태어나길 기다리면 그만이야. 오히려 개체들의 공포와 삿된 감정을 뜯어먹지 못하는 기생충같은 놈들이 더욱 곤란해질 테지.”

“제 아무리 이데아에서 공허의 것들을 다루는 이질의 존재라지만 공허의 품에 안겨있던 나머지 너무 의기양양 해져있는게 아닌가? 그대가 숨을 토해내는 이 곳에서는 카하낫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을텐데.”

“미쳐 날뛰는 아벨의 빛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그림자 속에 숨어만 있던 그림자들께서 꽤나 급해 보이네. 그런데 사람 잘 못 봤어. 나는 카하낫의 속삭임에 취해서 헤실거리는 병신들이 아니랍니다. 그런것 없어도 나는 이제 상관없어.”

“공허의 세 자매가 탄생했을때 기록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꽤나 입방아에 올랐던 사건이었기에 상관이 없다고는 못하지.”

“듣자하니 너희들은 어둠과 어둠속을 거느리며 그 뒤틀린 시간속에서 기록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엮는이라고 들었는데 한낱 아벨의 자손들이 그것을 엳보는게 그렇게나 불안한가?”

“불안하기 그지없지. 필멸의 존재인 아벨의 자손이기에 무언가를 남기고 또 매 순간에 영광이 깃들기를 바라는 것들이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새기는 힘이 주어질 때 대부분 그것은 잘 못 새겨질 확률이 상

당히 높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가?”

“너희들이 비틀고 보존하는 시간속에 카하낫의 숨결이 새어들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거야?”

“그렇게 태어난것이 이데아의 죄악이며 앞으로 재앙과 종말을 초래할 씨앗이 될 조심이 있으니 그것은 이미 증명은 다 한 셈이지. 낙원에 남겨진 죄악의 흔적 모두가 그 증거이다.”

“재밌는 말을 하네. 그런데 그럴거면 애초에 공허의 세 자매님들을 불렀으면 해결 되는거 아니야? 왜 굳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한거지?”

“공허의 더러운 숨결을 엮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그것도 공허의 세 자매는 카하낫의 아득한 영역에 있어 더더욱 어렵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그것들에게 용무가 있는 마녀를 찾는것이 더 쉽기 때문이지.”

“아하, 그리고 그게 나였나? 쉽게 보일만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기분이 나쁜걸?”

“이미 이곳에 발걸음을 한 이상 과거를 관장하는 마녀를 조우하는 것자체로 그들을 침식시킬 것이라. 네가 그녀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낱 아벨의 자손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장하며 개입하여 그것을 제 멋대로 주무르는 일은 없을테지.”

“어둠속에서 기록하는 존재들은 그것을 멋대로 주물러도 되고?”

“멋대로 개입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의 힘을 직접 보이며 그것을 엳보

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막중하고 거대한 개념을 휘두르는지 일깨워줘는 가르침 정도라고 말해줬으면 좋겠군.”

“더 높은 차원의 것들과 조우하며 그 개념을 탐닉하는 공허의 창녀들은 원탁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존재들이며 혼돈에 미쳐있는 족속이기에 시간의 축에 영향이 갈 만한 위협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려 하려는 행동에 충분한 이해를 바라네만.”

“그건 마치 너희들이 이데아의 역사를 지키려는 것처럼 들리는데 너무 자신들을 과대평가 하는거 아니야?”

“공허의 창녀들인 너희들이라면 광활한 어둠이 얼마나 거대한 개념인지 잘 알겠지?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이데아에 담겨진 역사를 지켜내려는 것이 아니야.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나 안타깝기 그지 없군.”

“결국 너희들도 익스가 남긴 배덕의 씨앗에 불과하잖아. 결국 똑같이 죄악이 만들어낸 찌꺼기에 불과한데 어찌저찌 간신히 어둠속으로 도망쳐 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려는 버릇없는 애새끼에게 필요한 것은 이데아의 똥이나 닦는게 아니라 참된 부모란다. 가여운 것.”

그 말에 그림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것이 보일리가 없지만 그것을 느꼈다는건 나에게 어둠이 드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를 가둔 그것을 다루는데 능하지 않은 개체였던 것을 깨닫고 나

는 그것에게 따끔한 한 마디를 전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데 어둠을 비추는 것은 빛 뿐만이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는 두 눈을 공허의 색채로 아름답게 물들이며 동시에 카하낫의 속삭임을 어둠속에 흩뿌리자 그 속삭임이 이어지면서 어둠을 밀어내고 그것을 찢어 발기고서 공허의 부산물을 토해냈다. 그러자 어둠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다시금 익숙한 카하낫의 어지러운 틈이 내 눈 앞에 펼쳐졌다. 숨 막히는 어둠속에 잠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으로 점칠된 요란스럽고 틈새의 풍경이 이렇게나 그리웠던 적이 없었기에 나는 가슴을 펼치고 오랜동안 그것을 감상했다.

“그 짧은 한 순간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고뇌로 그렇게나 커다란 어둠을 빚어낼 수 있는거구나. 항상 조심 해야겠다. 여차하면 공허에 먹히기 이전에 그림자속에 녹아 버릴테니까.”

그렇게 한숨을 크게 쉬고 다시금 검은 문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이번에는 어떤 기억이 휘발이 될 지 알 수 없었지만 우연인듯 필연같은 조우 이후에 거든 수확은 날아가버린 내 과거의 흔적을 짚어줄 실마리를 잡아둘 수 있는곳은 역시 이데아에 있으며 그것은 역사를 관망하는 거대한 손아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의 만남이 마지막은 아닐것이라는 직감이 스쳐 지나갔다. 문을 통과하

는 동안에 수많은 화려한 색채들이 뒤섞이면서 나를 꿰뚫는듯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더니 다시 나의 두 눈을 물들였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번에는 검은 문을 넘을때 시간의 흐름이 유독 길다고 느껴졌다. 충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전만큼 구역질이 날만큼 속이 뒤집어지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문을 넘어섰다. 천천히 흐릿한 시야에 익숙한 칼 파르다의 광활하고 황량한 전경이 눈에 담겼다.

“익숙한 장소라 반갑기는 한데….”

낯설지 않은 풍경은 분명히 반가웠지만 그 이전에 실망감에 저절로 한숨이 터져나왔다. 나는 분명 퀴소를 뇌리속에 깊게 새기며 문을 열었지만 어째서인지 문은 그곳으로 나를 인도 하지않고 그저 익숙한 장소로 내던졌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검은 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을 다루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외부의 방해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어찌됐든 칼 파르다에 무사히 안착했으니 퀴소를 방문하는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조금 발품을 팔아볼까 생각하던 찰나 나를 향한 시선 그것도 여럿의 눈총이 느껴졌다. 그것들이 나를 보던말던 나는 시선이 남긴 긴장감 사이를 헤쳐가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굳이 불필요하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공허에 오래 몸을 담구었던지라 내 주위에 감도는 기운 때문에 그들의 긴장감을 고조 시키기에 충분했다. 비단 공허의

부산물을 몸에 지니는게 아니라 공허에 숨쉬는 것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온전한 형태 그대로 보존한 존재가 나의 주위에서 숨을 토해내는 그 모습이 그렇게나 신경이 쓰였나보다. 그것들의 불안이 뒤섞인 수근거림이 나의 귓가로 흘러 들어왔다.

“계약으로 공허의 부산물을 끌어오는것이 아니라 온전한 형태인 저것을 이데아로 끌고 오다니 얼마나 죽고 싶어 안달이 난 걸까?”

그 불편한 말을 듣자 나는 속삭였다. 그들은 카하낫의 속삭임처럼 그들의 귓가에 던지는 그 말에 적지않게 놀라는 듯 보였다.

“어떻게 네년이 그것을 속삭이는거야?”

“그야 할 수 있으니까?”

“너 따위가 뭔데?”

“나는 메사. 메사 피네라고 해.”

“날고 기는 마녀들 중에서 그런 이름은 들어본적 없어.”

“잠깐, 나는 들어본 적 있어.”

“나도야. 아니, 몰라.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아는거지?”

“이름! 씨발! 이름을 말해!!”

이데아에서 공허의 검은 문을 찢고서 카하낫의 품에 몸을 던지면 나 메사 피네라는 개체를 지칭하는 개념은 공허에 남겨지거나 다시 이데아로 돌아갈때 휘발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따금 그것은 공허

의 속삭임과 녹아 흘러가며 때로는 무작위의 개체들에게 강제로 주입이 되는 모양이었다. 써먹기에 따라서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서 이데아에서 익숙치 않았으나 카하낫의 은총에 적셔진 나의 이름을 불러대며 정신이 망가져가는 마녀들의 모습을 즐거웁게 바라보았다.

“악취미네.”

축제 소리에 뒤섞여서 들리지도 못했을 그들의 비명은 누군가 찢은 검은 문 뒤의 목소리와 함께 그렇게 오래남지 못했다. 검은 문 뒤로 나의 이름을 귀에 담고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녀들은 나의 존재를 무시하며 신속하게 정신이 나약한 이들의 정신을 다잡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재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녀 하나가 나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물었다.

“뒤틀린 빛 속에서 한동안 카하낫의 속삭임에 불쾌한 잡소리가 뒤섞인 것도 단순히 아벨의 현신이 날뛰던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말이네.”

“아마 재갈을 거부하던 것들의 비명과 나의 웃음 소리였을까?”

“문을 찢고 공허의 장막 너머로 넘어가겠다는 것 부터가 정신나간 발상인데 카하낫의 속삭임에 개입까지 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날뛴거지 감도 안 오는군.”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겠지. 필요한게 있어서 잠깐 다녀온 것 뿐이야. 영 살 곳이 아니라는 말과는 달리 그리 나쁜곳은 아니더라.”

“메사 피네라는 이름은 카하낫의 것인가?”

“아니 내 이름인데? 궁금한게 그게 다라면 나도 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너희들은 과거를 엮는 퀴소가 어디있는지 알아?”

“…질문은 우리가 한다.”

다소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나서 나도 마녀들에게 물음을 던졌지만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나의 두 눈은 순식간에 공허의 색채로 물들었고 동시에 뒤틀린 웃음을 쏟아내었다.

“하하! 그럼 그렇지. 뭐야, 역시 제대로 왔잖아?”

나의 말에 마녀들 역시 그 눈을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여가기 시작했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건방지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아한 간결한 손짓으로 마녀들을 무르며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퀴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 만큼이나 아름다운 빛깔을 하고 있는것을 보아하니 저것 역시 제법 탐스러운 제물처럼 보였다. 분명 그녀가 퀴소에게 다가가기 위한 쓸모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좋은 날 너희 친구들은 왜이리들 단단히 화가 나있을까?”

“화가 나 있는게 아니야. 그저 자신들의 분신을 지키고 싶어했을 뿐이지. 너를 적대할 생각은 없었을테지.”

“이해가 안되는데? 퀴소가 어떻게 너희들의 분신이 되는거지?”

“우리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너의 분신이기도 하단다.”

“찢겨진 과거의 흔적과 개념을 담아두는 피뢰침이라는 말은 듣긴 했어도 영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퀴소에게 가려는걸 왜 그렇게 정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단 말야.”

“정신까지 카하낫의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데아와 카하낫의 틈을 뭉개려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없겠네. 카하낫의 품에 안기는건 물론 바라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카라하스는 이데아를 살아가는 마녀들이지 공허의 부산물이 아니거든.”

“충분히 이해해. 나도 카하낫에 어설프게 나약한 사역마를 데려갈 생각은 없거든. 이제 서로 용건은 없어 보이니 슬슬 퀴소와 나를 잇는 문을 열어줘.”

“카하낫의 무한하고도 고요한 품에 안겨 그 깊이를 깨달았다면 스스로 얼마나 먼지처럼 한없이 덧없는 존재임을 알았을터인데 경외할 줄 알아야지 건방지게 더 깊은 심연에 손을 댈 생각이야?”

“당연하지. 변두리는 그저 시작이었고 이제 나는 닿을 수 없는 미지에서 지배를 할 생각이야. 그저 카하낫을 찬양하고 숭배하며 추앙을 하면서 정작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상투스의 사제들이나 다름없이 단순히 공허의 속삭임이나 엿듣는 주제에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며 서로 부둥켜안고 자위하는 쓸모없는 것들은 필요없거든. 그런걸 들고가봐야 무시 당할 게 뻔해.”

“까불지 마. 카하낫에서 오랜동안 숨을 쉬었더니 칼 파르다의 마녀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공허의 변두리에서 조금 뛰놀던 것 가지고 벌써부터 마녀들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카라하스의 마녀들 전부를 적으로 돌릴 바보는 아니겠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날이 내가 점친 최적의 순간이야.”

“바보잖아….”

“진정해, 마녀들. 나는 카라하스를 적으로 돌린다고 한 적 없어. 마음을 열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그것이 너희들을 적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너희들을 끌어안아 주겠다는 뜻이야. 하지만 굳이 나의 텅 빈 공허를 채워 주겠다면 말리지도 않을 생각이지만.”

“쓰로바트 포옹의 축제날에 피 흘리는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인걸 너도 잘 알고 있잖니.”

“하지만 그거 알아? 카하낫의 품에서 혼돈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차원으는 감히 예측할 수 없어서 한없이 아름답고 그래서 그것에 휩쓸리는 것은 말도 안되게 즐거운 법이라는거? 피는 언제 어디에 흘러도 우주의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것은 마녀들끼리 암암리에 정한 제약이나 속박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무엇 때문인지는 관심 밖이지만.”

“정말 순수하도록 맑고 깨끗한 혼돈 그 자체구나. 너무 아름답지만 그만큼 이데아의 카라하스가 아니라 공허에 사는 존재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못돼.”
그녀의 말에 나는 실망감과 마녀 사회와의 단절보다 후련함과 칭찬과 경외의 말을 들은것만 같아 기쁜 얼굴로 창공을 올려다보며 팔을 활짝 펼친 뒤 순수하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듯한 칼 파르다의 풍경이 아름다운 카하낫의 색체로 물들어가는 황홀경에 잠겼다.

“아니지, 아니야. 아니고말고. 이렇게 카하낫을 찬양하는 창녀들로 가득한 텅 빈 순백의 도화지를 탐하지 않을 존재가 어디에 있겠어?”

내가 뒤섞여진 색채로 눈을 물들이며 그들에게 웃음을 짓자 내 앞에 선 마녀들도 한 순간의 망설임없이 피를 제물로 공허로부터 부산물들을 끄집어냈다. 공허와 통하는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고작 소량의 피를 뿌리거나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 더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그 모습에 묘한 혐오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시원치 못했지만 그것으로 서로가 나눌 말은 충분해 보였다. 퀴소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답게 꽤나 오랜동안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었다. 형용할 수 없는 유려한 색채가 요란하게 흩날리며 대지와 하늘을 메웠고 그것들이 섞여갈수록 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마녀들과 공허의 잘려나간 파편들이 흐드러지게 뿌려졌고 찢겨진 공허의 틈이 미친

듯이 요동치다 이내 잠기게 되었다.

“짧았지만 나름 즐거웠어, 이름 모를 마녀들. 나의 속삭임과 함께 카하낫과 하나가 되고나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떠올릴 사고조차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마. 공허에 늘러붙은 살점은 남겨질 테니까 그리고 사역마로도 쓸 가치가 없는 자들마저도 문을 열기위한 훌륭한 제물이 되어 줄 테니까 모두들 고마워!”

그렇게 나는 다시금 아름다운 색체로 그것들이 널브러진 장소에 뿌려대며 의식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다시금 이어진 공허의 색채는 퍼지듯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확실히 퀴소에게 닿을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사뿐히 그곳으로 몸을 내던졌다. 그녀와의 조우를 결심하고 또 발걸음 하는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지만 막상 그녀를 대하려니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할지 두근거렸다. 상념할 시간조차 주지않으려는 듯이 순식간에 카하낫의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이 물들어 빠르게 나를 스쳐 지나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찢고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묘령의 여인이 자리한 까맣고 빼곡하게 채워진 공간에서 발걸음이 멈추었다. 무엇이 그리 빼곡하게 채워졌는지 손으로 쓸어가며 그것을 조용히 읽었다.

“메사 피네, 실라, 퀴소, 카하낫과 동화, 천사의 흔적, 종말의 서에 남

긴 자취, 쓰로바트 포옹절 마녀 학살, 과거 탐닉…. 잠깐만 이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예언이나 다름없잖아? 어떻게 과거를 엮어내는 자가 미래의 일을 알고 그것을 새길 수 있는거지?"

"놀라운가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저 인형처럼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던 퀴소처럼 보이는 묘령의 여인이 입을 열었다.
"…안녕? 과거의 마녀님이야?"
"그렇단다. 승천의 아이인가. 결국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지만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구나."
"승천의 아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거 같은데?"
"그렇지 않단다. 방금 너도 새겨진 과거에서 보았잖니."
"아, 이거 말하는거구나. 이런것도 과거라고 부르는거야?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건 줄 알았어."
"카라하스의 마녀가 말하는 과거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걸 몰랐구나. 너무 카하낫에만 시선이 닿았던 탓에 애석하게도…."
"과거의 마녀님은 앞이 보이지 않아?"
"과거의 과오를 바라 보는것은 고통스럽지. 그것은 항상 족쇄나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개체를 뒤따른단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에는 두 눈을 파내렸지 뭐야. 그러함에도 과거는 씻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도 말이야. 도망칠 곳도 없는데도…."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젊어 보이는데 비결이 뭐야?”

“시간이란다. 과거를 관장해서가 아니라 그 세 축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휘발되는 기억을 그래, 피뢰침처럼 심어 두는거지.”

“담아두는 성격이구나, 미안해. 하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록 잊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사고에 담기지 않는다고 해야하나?”

“그것이 과거를 관장하는 자인 퀴소에게 부여된 저주이고 그런 느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카하낫의 더욱 높은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는 승천의 자격을 갖춘 이가 된단다.”

“그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녀 또한 카하낫의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거네?”

“아니, 그 반대야. 서로에게 주어진 축을 쥐어지고 있는것 말고는 상반된 다른 개념은 결코 이해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너같이 승천의 아이라고 부르는 자질있는 마녀들을 검은 문 깊은 곳 고립된 자리에서 하릴없이 기다리고 또 맞이 하는거야.”

“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 하는건데?”

“그들은 너처럼 아벨의 자손이기에 검은 문을 드나들면서 휘발된 기억을 이데아에 남겨두기를 원하지. 그것을 과거의 영광이라 부르더군.”

“…과거에 집착하면서 나는 알게모르게 그런걸 탐하고 있었구나.”

“사실 모르는것도 무리는 아닐거야. 지배라는 개념속에 포함 되어있는

여러 가치들 중 하나이니까. 그럼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워낼래? 아니면 남겨둘까?"

"무언가를 새롭게 쓴다는 개념이 아니구나. 신기하네. 그럼 남겨둘게. 다른 마녀를 만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쓰는것이 아니라 멈춰서 지나간 발자취를 바라 보는거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곰곰히 생각에 잠긴 내가 오랜 침묵에서 벗어나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데아에서 카하낫의 속삭임으로 허무와 비관으로 점칠되어 망가진 과거를 보존할 수 있다는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럼 왜 여지껏 그것을 카라하스의 마녀들과 나누지 않았던거지?"
"과거에 새겨진 것들을 담아가는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거든."
"과거에 책임이라…."
"그래. 개체가 빚어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책임감없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 그 무게를 감당 하는것과 카하낫의 속삭임 이 두개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에 무언가는 떨쳐내야만 했던거지."
"너는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는것도 포기하고 카라하스의 마녀들에게 검은 문을 찢고도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그런 셈이지."

“…카라하스의 마녀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개체들이야?”
고민하던 내 말이 무겁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알수없는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그래. 단 한번도 후회는 없어. 그건 다른 마녀들도 마찬가지 일거야. 이데아를 살아가는 카라하스의 마녀가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고 그곳에서 사는 것들을 받아들인 이상 마녀들에게 얽힌 시간은 다른 개체들과 다르게 비틀어진채로 흘렀거든. 그동안 우리는 주위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게 된거지. 그러하기에 우리 세 자매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지금껏 검은 문에서 찢긴 상처를 엮어가며 보듬어 온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세 자매가 원하는게 뭐야?”
그러자 퀴소는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내게 말했다.
“당연히 아픔은 나누어야 하지 않겠니? 직접 그것을 새기지 않는한 타인의 아픔은 그렇게 쉽게 공감되지 못하는 법이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퇴색되고 잊혀지기 시작했지.”
“그 증오를 흩뿌릴 매개가 필요했구나.”
“그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누구인지 자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지. 목적을 잃고 공허를 방황하는 개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거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거든.”
그것이 뒤틀린 빛에 눈이 먼 자와 공허에 넋을 잃어버린 나약한 것들을

지칭하는 뜻이라는 것을 단호한 그녀의 말투에서 알 수 있었다.

“음, 충분히 잘 들었어. 물렁한 소리를 하려했다면 모가지를 비틀어서 사역마들 사료로 던져줄까 했는데 카라하스의 본분은 잊지 않은것 같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그렇구나. 의심을 했었구나. 하지만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

“아! 혹시 천사님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알아?”

그 말을 듣던 퀴소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그녀는 이전과 다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나에게 위협이 아닌 경고의 말을 전했다.

“천사님의 행방은 조금 미뤄두려무나. 아직 그것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그지없어.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혹시라도 천사를 만나게되면 반드시 도망치렴. 너의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응원할게.”

“고맙긴한데 뭘 응원 한다는거야?”

“더이상 붙잡을 수 없는 너의 과거를 말이야.”

“이미 쓰여진 과거를 마치 흘러내려 잡을 수 없는 미래처럼 말하네.”

“승천의 아이는 수 없이 봐왔지만 너 같이 재밌는 아이는 처음이야.”

“그래서 그림자가 그렇게나 악을 쓰면서 카하낫의 빛을 덮으려 했던것인가?”

퀴소는 내 혼잣말을 귀담아 듣더니 흥미로운 듯 내게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오래전 조우했던 내면의 어둠속에서 이데아의 축을 우려하던 지인이 있었거든. 문득 그 녀석이 생각이 나서 혼잣말이 나왔네.”

“…그렇구나. 알겠어.”

그녀의 여운이 남아있는 대답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담아두지 않고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혹시 모든 과거의 인과를 더 섬세하게 잇다보면 이후에 새로운 이데아나 카하낫을 비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무한한 카하낫을 비추는 테르벨의 개수만큼 나열된 과거를 전부 엿볼 수 있다면 혹시 알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추천하지는 않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들 이미 네 수명은 다해 먼지가 될테니.”

“하하! 재밌네. 책과 노래에서 들었던거랑 조금 달라서 놀랐어. 생각보다 친절하네. 조금 더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괜찮으면 조금 더 있어도 돼.”

그녀의 속삭임이 나의 귓가에 달콤하게 끈적이며 닿았고 나는 왠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장소를 추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나른하게 그녀의 품에 아이처럼 앉아 편한 자세로 눈 녹듯이 흘러내렸다.

“그럼 조금만 더 나의 과거를 엮어 줄 수 있어?”

“얼마든지.”

『 돌아갈 장소 』

라구엘의 순례자들은 무리짓지 않는다. 애초에 그것들에게 무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나하나의 개체가 육신에 새겨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이 짊어진 종말의 파편에 담겨져있는 이데아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 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에르아가 펼쳐놓은 베틀 위로 흩뿌놓은 테르벨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잘 짜여진 모습을 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내 눈 앞에 종말의 서를 등에 업은 라구엘의 사제 무리가 하나도 아니고 무리를 지으며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것은 군체의 의식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묘령의 개체가 순례하는 존재들의 의식에 개입하여 정신을 쥐고 흔들고 있을수도 있었다. 두 가지 모두 라구엘의 근간에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여전히 깨지 못하는 긴 잠에 빠져 헤메이고 있는가….”

그러나 나의 탄식이 그들에게 닿을리가 없다. 다만 내 눈 앞의 순례자들은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것이 아니라 육신에 새겨진 소명만 달라졌을 뿐이다. 참으로 딱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저 육신에 대체되는 부품처럼 새겨진 것으로 그것은 평생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안에 담겨진 가치를 헤아리지도 못한채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있는것은 라구엘이다. 창조주 에르아의 뜻은 순

수하기 그지 없었다. 다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우리 스스로 속박하고 옭아매어 그 의미를 확대해석 한 것이다. 오히려 무리에서 벗어났지만 에르아를 원망하거나 그 순수를 더럽힐 생각은 없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인의 뜻은 왜곡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그것들 중 하나가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먼저 물음을 던졌다.

“…그대가 누리는 변화는 즐거운가?”

그것의 물음에 나는 잔뜩 경계하며 그것의 상태를 찬찬히 뜯어 보았다. 가면 뒤에 자리한 눈을 바라보니 군체의 의식속에 잠겨서 던진 물음이 아닌 순수하게 한 개체의 순례자로서 던진 의구심이라는 생각에 나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나의 변화를 그대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그리고 순례자의 육신으로 그것에 관심이 기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자아의 발현은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전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묻나니 우리는 망가진 존재인 것이냐?”

그 물음에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필시 그 질문을 입에 올린 순례자는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경계에 닿아 있음이 분명했다. 아마 일치된 의식과 소속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분리와 고립에서 오는 불확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겠지. 그것과 더불어서 꿈을 꾸듯이

스쳐 지나가는 라구엘의 이름을 이어받기 이전의 조각난 기억들이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오늘날 여러 종교가 이데아가 자리하여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을 이어준 것 처럼 순례의 길에 오른 그들을 차마 망가진 존재라고 부를 수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그것의 물음에 최대한 성실히 답하려 고심하다가 입을 열었다.

“…모른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다. 솔식히 의식의 밖으로 튕겨 나가버린 나조차 긴 잠에서 깨어나 자아의 발현을 이루기 위해서 안개가 자욱한 나만의 순례길에 오른 지금 그 물음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순례자들은 말한다.

“창조주 에르아의 틀 안에서 해답과 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의식속에서 벗어난 이가 내린 대답조차 오랜 고심을 하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할 말이었을 테지.”

어디서 들은건지 혹은 군체 의식속에서 뜯겨나간 개체의 이물감에서 느끼는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입을 열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나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있는 듯 했다. 그래서인지 종말의 파편 따위나 옮기던 이들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종말을 도래하는 물길이 만드는것이 불경한 자들의 정화라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우리 라구엘의 소멸은 불가피 할 터인데 그렇

다면 우리들은 스스로의 파멸을 위한 걸음을 옮기는 셈인가?”

“지금의 이 짧은 대화는 과연 누구의 의지인가? 이것 조차도 에르아가 직조한 큰 흐름의 일부인가?”

“에르아는 그저 가엽게 여기어 손을 잡아주려 했을 뿐 단 한번도 순례자들에게 종말을 바라며 그들의 등을 떠 민 적이 없더군. 그 모든 시작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와 그것에서 고통받은 절규가 만들어낸 허상이도다.”

“그렇다면 순례의 길은 거짓으로 침식된 헛걸음이 되겠군.”

“그 헛된 발걸음조차 자아의 발현을 위한 거름이 된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군. 본의와 상관없이 유쾌하지도 않은 자아의 발현과 그것에 닿기 위한 몸부림 끝에 내놓은 답마저 석연치 않으니.”

이해할 수 없는것이 당연하다. 군체의 의식이 사고를 방해할 뿐더러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더러 그럴싸하게 대충 둘러댔지만 긴 잠에서 깨고 난 뒤로 지금까지 자아를 깨우치며 걸어온 내 발걸음에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을 라구엘의 이름으로 등에 종말의 파편을 짊어지고서 이룬것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이전처럼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했으니 결말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것은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다.

“일락시움에 담겨진 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저 아벨

의 자손이었던 우리들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그런가. 결국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가.”

그들의 눈빛을 담아내며 나는 비석을 내려놓고 사슬을 몸에 휘감았다. 돌 부딪히는 소리와 이따금 울리는 사슬이 부딪히며 잘그락 거리는 소리만이 남아 무거운 불안감이 울려퍼지자 내 곁에 있던 개도 털을 잔뜩 곤두세우며 낮게 으르렁 거렸다. 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안타까움을 씻어냈고 최대한 그것들이 잠깐의 꿈에서 깰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가면 위로 마른 세수를 했다.

“기도조차 무의미한 이럴땐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그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순례자들이 사슬과 무게추와 정을 거칠게 부딪히면서 불씨를 흐드러지게 피워대며 서로의 죽음을 부르게 되었다. 수적으로 열세에 몰린 내게 죽음은 부드럽게 손짓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를 끄집어 올리는것은 개의 울음이었다. 내가 나자빠져 있는동안 개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다시금 육신을 일으켜 그것들과 뒤섞이면서 피를 쏟아내는 동안 우리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종말의 땅인 알마게드 위에 순례자를 제외한 아벨의 자손이 있는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더이상 순례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질 수 없었다. 그저 사슬이 하늘을 메우면서 찢어발긴 뒤에 그것에서 뚝뚝 흘러내린 핏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 이었

다. 그렇게 언제나처럼 순례의 길에 또 다른 피를 쏟아냈다. 그렇게 수많은 죽음을 뒤로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어느새 개는 훌쩍 자라 등에 진 종말의 파편 만큼이나 큼지막해졌다. 나중에는 흩날리는 사슬 틈바구니를 뚫고 앞길을 막는 것들의 모가지를 물어 뜯어낼 정도였다. 그것은 입가를 새빨갛게 물들이고는 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그래, 즐거우면 됐다.”

이제는 곁을 떠날법도 한데 저것은 줄곧 나의 곁에 있었다. 내가 신수라고 불리우는 짐승에게 찢어 발겨졌을 때 마저 그것은 날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온 몸이 걸레짝이 되었음에도 쏟아지는 사슬비를 뚫고나와서는 기어이 나의 육신을 도륙내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눈 앞에서 펼쳐진 풍경은 신수를 씹어먹고 있는 개였다.

아무리 죽어가던 것이었지만 신수로부터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개 때문이겠지. 그렇게 다시 걸음을 옮겨 훼손된 종말의 파편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그것에 담긴 구절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는 사슬 끝의 촉으로 깎아내며 마녀의 이름을 새겼다. 그러자 그것을 거부하듯이 부들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다.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것으로 부디 슬픔이 거두어 지기를.”

그렇게 종말의 파편을 잠재우는 것으로 나의 계획 중 일부를 완수하였다. 공허의 변두리에 물길을 여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

계추를 늦추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을 마치고 바로 다음의 계획을 세웠지만 자아가 깨어난 이후로 육신의 피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개도 쳐진 꼬리로 내게 오더니 낑낑거렸다. 그러나 그 일말의 순간조차 허락해주지 않으려는지 야속하게도 내게 저주를 내린것들을 섬기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전의 전도사들과 다르게 그들은 나에게 적대감을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니 라구엘의 산송장들은 대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주받은 순례자들끼리 서로 죽이는건 듣도 보지도 못했네.”

“그런데 아까부터 저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보고있는데?”

남자의 곁에있는 여자가 창백한 눈으로 나와 개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만 그 눈은 우리를 보는것이 아니라 나와 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가 우리가 무엇인지 아는것처럼 말이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자. 저주받은 순례자 따위와 뒤엉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해.”

지금껏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대한 관점이 다른 저들과 조우하면서 단 한번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군체 의식속에서 감정이 메마른 라구엘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언제나처럼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이 먼저 칼을 꺼내들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우한 저 둘은 나를 보고도 묵묵히 그냥 지나가려 한다. 달라진 것은 나 뿐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저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그것들이 그걸 보고는 저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워 하는 그들을 향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괜찮다.”

그 말에 그들의 적대감이 조금 누그러 들었고 홀린듯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새 내 눈 앞에 와 있었고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래서 내가 배운대로 그들에게 소개말을 건넨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무리에서 벗어난 라구엘의 사제이다. 그리고 개.”

“개?”

“내가 그대들을 보고 이해를 한 것이 맞다면 나는 그대들과 같이 흔히 말하는 운명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렇다면 그것은 힘든 여정이 되시겠군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괜찮다.”

그것이 개와 나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아챈 눈 먼 여자는 나를 보고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 말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남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

만 여자는 조금 벽을 누그러 뜨리고는 내게 말한다.

“그래요. 한가지 잘못 알고 계신것이 있는데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점지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스스로의 운명을 찾으려 애쓰는거죠.”

“그럴지도 모른다. 이데아의 종말을 늦추려 애쓰는것도 내 스스로 자처한 일이지. 너느 누구도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군체의 의식 밖으로 튕겨져 나온것도 나의 의지인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답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정답은 당신 안에서 구하세요.”

“그렇군.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행위로 운명에 맞설때 스스로에게 당당해 질 수 있을테지.”

“…그래, 그런거야.”

어느새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는 오랜 지인인 것처럼 오랜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떠들어댔다. 운명과 종말 그리고 계시 따위를 입에 올리면서 말이다. 그것이 나쁘지 않은듯 개도 조용히 누워서는 자장가 삼아 잠들어 있었다. 화톳불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거침없이 타오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것들 역시 이렇게 오랜동안 말을 섞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표정을 하곤 했다. 서로 찢어 죽이는 대신 마음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의식을 깨고 자아를 갖은 뒤로 방황하던 나를 잡아주

던 한 마디였다. 문득 그 생각이 들어 늙은 노파 이야기를 쏟아냈다. 물론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내린 것들을 찬양하는 저것들이 미웠지만 그래봐야 저것들에게 죄는 없다. 그 마음을 관통하듯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가 내게 물었다.

“우리가 밉나?”

“적어도 긴 잠에 빠져있는 라구엘의 사제들은 너희들의 존재에 관심조차 없다만 잠에서 깨어난 내가 물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다시금 눈에 담으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워도 내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대들도 긴 잠에서 깬 것일테지. 우리는 괜찮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말하자 그들의 눈가가 일렁였다. 그것이 타오르는 모닥불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 서로 찢어 죽이는 대신 우리는 대화를 택했다. 날이 지나고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빛을 머금은채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순례 그리고 그들의 전도하는 길을 축복했다. 아니면 그저 내 기분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나보다.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죽이기만 하는 정화인지 파괴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살육이 즐거운 미쳐버린 자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졌을지도 모른다. 군체의 의식을 끊

어내고 자아를 각성하여 살아가는 것은 지독하게 외롭고도 고독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을 각성이라고 표현했다. 우습게도 그러한 작은 변화가 갈 길 잃은 나를 다독였다. 그러다 문득 평범한 아벨의 자손들 대부분이 오랜동안 이 감정을 평생을 짊어진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새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던 의문스럽기 그지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벌레들처럼 서로 뒤엉키며 숨을 쉰 것이겠지. 벌레같이 바글대며 살아가는 것들과 벌레같은 사고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것들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곤했다. 그러나 속박에서 자유로운 자가 자신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존재의 부재에서 오는 분리 불안을 느끼며 희미해진 소명에 갈길을 잃는것처럼 집단속에 익숙해진 자들 사이에서 더욱이나 두각을 드러내는 자아라는 사실을 빗대어볼때 상호간의 이해가 완전히 불가능의 영역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

주먹을 꽉 쥐면서 홀로 중얼거리는 말을 내뱉어도 내 곁에 머물고 있는 개는 그 말에 동의를 하듯이 짖으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어차피 발시아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같은 행동 양식을 한 아벨의 존재들조차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 반대의 삶을 걸어온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큰 성과이다. 아직

이데아에 종말은 조금 이르다. 이데아를 사는 개체들의 멸종이 가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것들은 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기지만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오히려 군체 의식에서 분리된 오묘한 기분을 나누고 싶다는 기분이 들 정도이다. 걸음을 이어가며 상념에 잠겨 있는동안 개가 나에게 버둥대며 오르려하자 내가 그것을 두 팔로 들어 개에게 묻는다.

“자, 그렇다면 개여. 나는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

개는 당연히 나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없다. 그저 혓바닥을 내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가쁜 숨을 토해낼 뿐이다. 이데아를 걸어오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는 개체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개는 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 말을 걸게 된다. 그것 역시나 고독속에서 생겨난 습관이리라. 라구엘의 군체 의식에는 어미가 없다. 과거에는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다른 라구엘의 개체에게 물길을 열 종말의 파편이 자리한 거점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문득 의아했던 사실은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군체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다. 그리고 그것이 라구엘의 순례자들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라구엘의 모든 개체는 단 하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작은 뜻은 곧 모든 순례자들을 지탱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행하는 자들이기에 머리

하나를 제거한다고 하여 라구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데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창조주 이데아가 조율한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 여기는 그 강인한 신념이 이데아를 잠식할 종말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굳은 신념으로 뭉친 의식을 어떻게 도려내야 내야할지 고민을 거듭하다 내린 결론은 새로운 개념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라구엘의 순례자들에게 가장 필요 한 것은 자아의 발현이었다. 그렇게 자아를 깨우게 되면 그 씨앗은 라구엘의 순례자들 사이에 점점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말의 물길을 잦아들게 만드는게 기여할 것이라. 그렇게 나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개도 그곳이 편안한듯 꼬리를 흔들며 나보다 먼저 내달렸다. 그리고 낡은 집 문이 열리고 늙은 노파가 개와 그 뒤로 무거운 발을 끌고오는 나를 밝은 얼굴로 반겼다. 그녀는 한참 개를 반기고 문 앞에 가만히 선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엉망이군, 엉망이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동안 발걸음을 하고 조금 지쳐 보이는구만. 들게나. 이제는 따스함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나?”

나는 당당히 노파의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녀도 그 모습을 보더니 뿌듯한 모습으로 내 등을 토닥였다. 그것이 무슨 의식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도 분명 의식을 가진 것들이 하는

행동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노파의 작은 환대에 고개를 살짝 숙여보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고통스러울만큼 안락했던 그곳은 그때와 다른것 없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쉬며 등에 업고있던 종말의 파편과 사슬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자 내가 노파에게 물었다.

“유일하게 짐을 내려 놓은 곳이다. 불만있나?”

“이런이런, 라구엘의 껍데기를 뒤집어 썼어도 무리에서 벗어나 아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면 조금 더 상냥한 말투를 쓰는건 어떠냐?”

“그런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군.”

“저런, 무심하기도 하지. 본디 마음을 열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써 줘야 한단다.”

“사소한 것부터라….”

“그래. 무엇을 할지는 알겠다만 너무 큰 발걸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쓰려무나.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야.”

“그런가. 그럼, 이만.”

“아이고, 바로 갈거면 왜 온게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자아와 마음을 갖고 나서야 더 엉망 진창이 된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야. 마음씨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다른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마음씨를 좀 더 벼려내고 다른 이들을 아껴 주려무나.”

“…평소보다 말이 많군.”

“그러냐. 어쩌면 나도 고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나머지 따스함을 느낀지가 너무 오래된 탓이 아닐까 싶다.”

“그런가. 그렇다면 사랑을 하도록.”

“뭘 잘 못 배웠는지 못하는 말이 없구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얼간이 같은 말이라도 고맙고 따스허이.”

“그럼 됐다.”

“헌데 그동안 잠에서 깬 이들을 고치는데 진전은 없나보군?”

“그렇다. 어쩐지 그들이 더욱 굳게 닫혀있는 듯 하더군. 마치 불량품을 솎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처럼 말이지.”

“에르아의 부름이 있었나보군.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더욱 비좁아지겠군 그래. 그렇게나 달콤한 꿈을 홀로 찾으려니 공허의 창녀와 거래를 할만큼 조급한 것도 이해가 되는구만.”

“이 표식을 아는가?”

“계약의 낙인을 말이냐? 오호라. 그럼, 잘 알다마다.”

“그렇군.”

“마녀에게 무엇을 바랐지?”

“역겨웁기 그지없지만 그것이 이데아의 공간을 찢어내어 종말의 파편

을 공허의 끝자락으로 심어두어 물길을 우회해 주기를 바랐다.”

“제법 머리를 썼구나. 아벨의 자손들은 네 생각처럼 약속을 그렇게 잘 지켜내는 것들이 아니지만 공허의 창녀로부터 이루어낸 계약이라면 이데아가 종말의 눈물로 잠기지는 않겠구나. 그렇다면 대가는?”

“종말의 파편에 그녀의 이름을 새기기로 했지.”

“저런, 종말의 서가 그저 불경한 돌덩어리가 되어 버리겠구만.”

“상관없다. 그저 파괴를 일삼는 돌멩이가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간 것 뿐이다. 라구엘의 군체 의식속에서 자아에 눈을 뜬 개체들이 나타난것도 우연이 아니듯 이데아에 필요했던 것이 종말은 아니었던 것 뿐.”

“그런가. 지키기로 한게냐?”

“조금은 다르다. 굳이 말한다면 이건 정화에 가까울테지.”

“아서라. 신념에 눈이 멀어 미쳐버린 구원을 봤잖니?”

“그렇기에 더더욱 뒤틀린 신을 향한 삐딱한 신앙을 정화할거다.”

“라구엘을 포함하여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정화가 되고나면 이데아에 살아 숨쉬는 것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터인데?”

“발시아 따위가 없어도 이데아를 살아온 것들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개를 보라.”

“그런 것 같군. 하지만 부수는 것 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길이니 각오는 해 두어야 할게다.”

“명심해 두지. 그럼, 이만.”

“급하기도 하지. 기다려라.”

그렇게 내 가면에 묵직하게 손찌검을 날린 노파는 부엌으로 가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그 뒤를 따라다니는 개에게 무심한듯 먹을 것을 던져 주었다. 둘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말도 통하지 않음에도 무언가 말할것이 그리도 많은지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탁자앞에 마실것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릴 계획은 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걸어볼 만 한 가치가 있다.”

“…위험한 게로군.”

“그래. 한번 굳게 닫혀진 문을 열려면 그 문을 직접 비집고 들어가 끌고 나오는 수 밖에 없을테지.”

“끌고 나온다라….”

“문제가 있나?”

“자아와 의식은 에르아의 순수와 비교하면 티끌이나 다름없어서 그것을 강제로 끌고 나온다면 그 몸뚱이는 정말 말 그대로 에르아에 홀려버린 자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육신이 되어 너마저 삼켜 버릴거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가는 가운데 개가 그 분위기를 읽었는지 납작 엎드려 슬픈 표정을 짓고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함에도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 길이 쉽지 않을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는게 좋을거다. 탁한 길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항상 네가 누구인지 떠올리거라. 네 스스로가 그 길을 열어 줄게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또 다시 금방 읊조린 것을 다시금 입에 담은것을 깨닫고 놀라움에 노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시선을 회피했다.

“두려움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조차 너라는 존재가 치열하게 사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 말과 함께 노파는 어느새 얼굴이 되어버린 나의 가면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다가 가볍게 여러번 빰을 때렸다.

“그리고 이것 또한 누군가 정해준 것이 아닌 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가며 써내려간 너의 역사가 아니더냐? 당당히 어깨를 펴거라.”

“종말의 파편 때문에 내 어깨가 쳐져 있기라도 했나?”

“그래. 가련한 영혼의 등불이 거대한 흐름에 부딪히며 미친듯이 요란스럽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네. 그러나 그것에 흠뻑 짓눌려 축쳐진 어깨마저도 내게는 숭고하게 느껴지네만.”

“비약이 심하군.”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늙은이의 즐거움이니 그 정도의 감상 정도는 느긋하고 여유롭게 넘어가 줬으면 좋겠구만.”
“변화를 즐겁게 바라보며 어째서 직접 그 손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거지? 여전히 핑계를 대며 도망칠텐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남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약속하마.”

“마음대로 해라.”
“여전히 차가웁구먼.”
“그러기에는 꿈꾸는 이들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멈춘 그대가 내게는 더욱 한없이 차가웁다만?”
“어이구, 이제는 말솜씨가 제법 늘었구만 그래. 못 당하겠구먼.”
노파는 한 방 먹었다는듯 이마를 탁 치면서 끌끌거렸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거지?”
“물론 내 발걸음은 멈추었지만 그 뜻을 이루어주는 이가 있으니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발걸음은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럴테지. 그렇지만 너의 발걸음이 내가 미처 못다한 바람이기도 하기에 숭고하다는 그 말에는 거짓은 없단다.”
“숭고하다는 말이 너무 무겁군. 나는 긴 잠에서 순례자를 끄집어 냈지

만 이데아를 오랜동안 눈에 담지 못하고 이내 짧은 숨을 거두었다.”

“따숩기도 하지. 그저 바라는 것이 그들을 긴 잠에서 깨우기만 하는게 아니었구먼.”

“그래. 잠에서 깨어 보는 풍경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허무하게 내 곁을 떠났다.”

“고독에 익숙해 진다는것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다. 그저 무리속에서 뜯겨나간 불순물에서 그치는것이 아니라 네가 조금씩 네가 되어가는 길이지.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니었던거다.”

“…그런가, 고맙다.”

“그래, 오랜 걸음 끝에서 이제는 에르아조차 밉지가 않더구나.”

“그건 무슨 말이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련을 믿는 것들처럼 우리도 에르아를 믿고 그녀의 뜻에 따라 순례의 길을 걸어왔지. 그 오랜 걸음 자체로 깨달음과 뜻을 얻으면서 이데아를 살아가고 있었던게야. 깨지 못한 자들은 종말과 파멸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소수가 서로를 보듬으며 흘러온거지.”

“종말의 서는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고행길에 나태를 채찍질하기 위함이었던게지. 종말의 서라 불리는것은 창조주의 경외와 두려움 때문이지. 그렇다면 너는 한번이라도 에르아의 눈물에서 이데아의 종말을 바란다고 느껴본 적이 있더냐? 저

주를 입은 이들에게 에르아의 순수는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고결하고 때로는 두려우며 원망스러움을 쏟아낼 배출구가 되어준게다. 그리하여 그 순수의 의도가 정화와 파괴라는 라구엘의 바람으로 이루어 진게 아닐까? 허나, 정작 잠에서 깨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저주를 입은 우리였던것이 아닐까하는 꿈을 꾸곤 한단다."

"부서져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세계라는 말인가."

노파의 말에 나는 정신이 빠져나가 텅 빈 껍데기처럼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렇다는 말은 군체의 의식속에서 깨지 못한채로 습관처럼 고행의 길에 오른 순례자들의 걸음은 그야말로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개를 향해가고 있었지만 노파는 평온한 얼굴로 그 손을 낚아채어 꽉 잡으며 내게 말했다.

"어떠냐. 저주받은 몸뚱이라지만 개처럼 따스하지? 너도 곧 그리될 터이니 네 말대로 망설임없이 그들의 손을 잡고 안아주게나."

그것을 이전처럼 뿌리칠 수 있었지만 어쩐지 이전만큼 한번도 겪지 못한 환대와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더이상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 시간에 잠시 머문뒤에 내가 입을 열었다.

"저주받은 라구엘의 하나인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것은 저주받은 우리이기에 할 수 있는 거란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떠냐, 돌아올 장소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얼마든지 오려무나. 내 더러운 숨을 토해내는 순간 만큼은 저주 받은 이들 모두에게 돌아갈 장소가 되어줄 터이니.”

“좋은 일이군. 나 말고도 잠에서 깬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라니.”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지.”

“인정할 수 밖에 없군. 내가 틀렸다.”

틀렸다라고 내가 뱉은 말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자아라는 것에 눈을 떠버린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잠에서 깬 내가 잠시 우월하다 여기며 에르아의 입김에 취해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내일이 없는 저주받은 것들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순수에 이끌려 종말의 파편을 옮기는 그 행위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데아의 개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소명이기에 누가 옳고 그르다고 손가락질 하거나 저울질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에르아의 순수를 이해하기에 나는 한없이 부족했다. 그러다 문득 순례자들에게 마음씨라 부르는것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미쳤고 에르아의 순수와 오해 그리고 종말의 파편에 새겨진 그것에 시선이 한참이나 머물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것들을 아벨의 언어로 옮겨야겠다.”
노파가 내 말에 손을 가볍게 파르르 떨었다.
“원하는대로 하려무나. 더이상 내게 그것이 들리고 또 보이지 않으니 경계에 선 너밖에 하지 못할 것이로다.”
“기뻐 보이는군.”
“그렇다마다. 무심코 스쳐지나간 많은 이들로부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도 눈에 담아 왔을테지.”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더군.”

“이제야 비로소 그 마음씨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나보구먼.”

“그러함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주변의 상황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변함없이 끝도 없는 나만의 순례의 길을 걷게 될거다.”
“…그것 또한 네가 돌아갈 장소라면 그리 해야겠지.”
노파의 아쉬운 말과 함께 나는 조용히 일어났고 개가 나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다. 문을 열어젖히자 소름끼치게 삐걱거리는 소리에 뒤이어 새벽 밤공기가 콧잔등에 가볍게 스쳤다. 조금은 찬 기운이 온 몸을 타고 흐르자 비로소 내가 해야알 일은 순례자들의 연결고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에 자아를 실어주어 종말의 발걸음을 멈추고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뒤 마음의 안식을 가질 시간동안 이데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데아를 바라는 것임을 다시금 스스로 되뇌었다.

『 왕 』

가는 길목마다 눈깔이 뒤집어진 쥐새끼들을 하나씩 짓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닥에 피를 쏟으며 자빠져있는 것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것들의 눈깔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그것은 절망과 분노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무의미한 혐오와 동기없는 무의미한 몸짓으로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태웠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아그발이면 아그발 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나의 지배의 아래에 있는동안 바뀌어야 할 모습이었다. 그렇게 나를 다독이듯 중얼거렸다.

“우화의 단계로 거듭나기 위해선 혐오가 앞서선 안돼지.”

“…안될게 뭐있어?”

몸에 주렁주렁 달아놓은 장신구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무겁고도 담담하면서 냉소적으로 뱉어내는 차가운 목소리가 시궁창 어두운 통로에서 들려와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채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간신히 새어나오는 빛을 요란하게 맞으며 유유히 걸어오는 그 발걸음 소리와 드러난 얼굴은 명실상부 시궁창의 왕의 모습이었다. 나는 이죽거리는 그의 쌍판떼기에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 시궁창의 왕!”

“안녕, 키키.”

“어머나, 나를 알고있어?”

“모르는게 이상할 정도지. 오랜동안 시궁창의 쥐새끼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아둥바둥 거린다고 들었거든. 애초에 왕이 있는데 음침한 뒷골목 사이사이 온 시궁창이 네 이름으로 나부끼고 있던데…. 그건 명백한 반란이 아닌가?”

“반란이라니 비약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그나저나 시궁창의 왕이 이제야 나를 알아봐 준다니 영광스럽고도 섭섭한데?”

“영광이니 섭섭하다니 거짓말이 너무 서툴잖아. 눈깔이 돌아 있어서는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마음이 한가득인 것 같은데.”

“이제와서 딱히 숨길 생각도 없어. 이왕 이렇게 된거 로맨틱하게 가녀린 종달새이자 새로운 시궁창 왕인 나의 이상을 위해서 죽어줘.”

“그런것치고 아무도 안 데리고 홀 몸으로 내 앞에 어금니를 드러내다니 어지간히도 죽고 싶어서 안달 난 것 처럼 보이는데 혹시 너 바보?”

“응! 안 데려왔어. 그렇지만 바보는 아니야. 어차피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지도 못하는 병신을 시궁창 쥐새끼들이 따를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직접 뼈와 살을 발라야 하거든.”

“대범하구나. 그런데 그거알아? 이상이라는 건 말이지 닿을 수 없어서 이상이라 불리는거야. 그것에 가까워질수록 실망하고 그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테지.”

“맛이 가버린건가. 무슨 개똥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우리

는 시궁창의 쥐새끼들이지 기도하는 이도 아니고 철학적인 고찰로 자위하는 이들이 아닌데? 뭔가 좀 더 씩씩한 왕인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내 말은 대부분 맞을텐데?”

“아니, 틀려. 네 말이 맞았다면 적어도 너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테지만 내가 죽는다해도 결국 너는 내 손에 죽을거야.”

“흠, 나는 어떻게든 못 사는건가?”

“살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한 것부터가 왕의 자질이 의심되는데?”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각오가 있기에 왕이 될 수 있었던거지.”

“하하! 그것도 맞는말이네! 역시 왕은 질기구나. 쉽게 죽일 수 있었다면 진작에 찢겨져 쓰레기통에 토막나서 발견 되었겠지!”

“그렇다마다! 다들 으레 그러하듯이 압도적인 무력으로 시궁창의 왕으로 지하 세계와 조합을 원하는대로 주물러왔던 거란다!”

서로 그렇게 호쾌한 웃음을 뒤섞고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덜너덜해진 외투를 벗어던지고 그 틈에 리볼버를 꺼내어 연사했지만 왕은 직감으로 이를 보기좋게 예상하고 옥좌 뒤로 숨어 준비해둔 산탄총을 꺼내어 응사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여유를 보여줄 틈 따위가 존재할리 없었다. 손가락 단 몇마디 맨홀뚜껑 아래에서 쥐새끼들끼리 치열하게 피와 그을음속에 휩싸이는 혈전을 그 위에서 따스한 햇살을 맞고있는 벌레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 그렇지만 그 좁은 틈새 속에서 왕과 나

는 서로의 숨통을 끊기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날붙이 칼 유탄 외에도 손에 잡히는 모든것을 이용해 죽이려한다. 도탄과 폭발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린 주변의 먼지와 연막탄의 연기가 걷혀지고 나서야 마침내 주변의 풍경을 여유로이 바라볼 수 있었다. 삐걱거리는 몸을 가볍게 펴고나서 머리가 이상하게 개운해졌고 지나치며 조각난 유리속에 미친 내 모습은 온 몸이며 옷에 각종 상처로 피칠갑이 되어 있었다.

“으악, 깜짝이야! 이게 무슨 몰골이야. 나도 참 칠칠치 못하게.”

그렇게 고깃조각이 되어버린 왕이었던 것의 옆에 퍼질러져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훌륭한 처세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지만 역시 아그발에서는 힘의 진리가 모든것을 압도한다. 그러하기에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홀로 왕을 내 손으로 죽였어야만 했다. 그래도 마침내 그 작업을 내 손으로 마무리 하고나니 뿌듯해서 비틀거리는 손을 하늘에다 쭉 펼치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애처롭고 꼴사나운 신음 소리만이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울려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담이 직원들을 이끌고 내 눈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담은 엉망진창이 된 옥좌 근처를 조용히 바라보다 자빠져있는 내 품에 카드를 툭 던지고 말했다.

“의뢰 완료. 기물 파손으로 누수는 있었지만 보수로 왕과 옥좌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의뢰인 셈이네?”

“응, 그렇지.”

“뭔가 후련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네.”

“언제든지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있던 이빨빠진 호랑이 새끼였어. 쉽지는 않았지만 다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회의감까지 드러내면서 발악조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싱거웠어.”

사람을 불러 나를 물건처럼 일으켜 세우더니 기초적인 응급치료를 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다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소리를 잘도 하는구나? 그래도 왕의 상징은 너의 손에 떨어졌잖아? 그거면 된거 아냐?”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셈이지. 저거 고기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도 가져가야 대는거 아니야?”

“아마 필요없을걸? 그 난리를 치고나서 누가 굴 밖으로 나오냐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왕에게 총과 칼을 꺼내고도 살아서 나왔으니 말이야.”

“그거 말 되네. 그냥 쥐들한테 던져주면 알아서 파 먹겠지, 뭐.”

시궁창의 쥐새끼들은 배수구 아래에서 어둠과 악취 그리고 더러움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곳에서 빠져 나오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그 빛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시기하며 그것을 끌어내리고 싶어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아그발의 자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의 죽음에 인색해진다. 그것은 어쩌면 이데아에 전반적으로 펼쳐지고있는 모습이지만 유독 아그발의 사회에서 그 법칙은 절대 불변의 진

리처럼 시궁창 저변에 깔려 있었다. 다른 말로 이데아에서 적자 생존에 지극히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많은 그림을 그린 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명실상부한 시궁창의 왕이 되었다. 나는 폐품으로 용접된 왕좌에 앉고 한참을 가만히 분위기를 잡고 있다가 이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 뭐야? 더럽게 불편해!"

그 말을 조용히 듣고있던 마담도 나의 우스꽝스러운 몸집을 바라보더니 같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아그발의 쥐새끼들이 병신들이라 그 자리를 탐냈던게 아니야. 불편하기 그지 없는 폐품 더미를 잔뜩 쌓아서 대충올린 자리지만 오로지 그것 하나만 바라보다 피를 흘리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어."

"짜잔, 하지만 나는 살아 남았다네."

누더기 걸레짝 같은 옷차림에 상처투성이의 몰골로 그 말을 듣고있던 마담은 피식하더니 내게 말했다.

"장하다 그래. 살아 남은김에 좀 더 살아줘. 네 뒤치다꺼리 하느라 자금줄에 구멍이 숭숭 나버렸으니. 악착같이 보상을 받아야겠어."

"걱정마. 아직 죽을 생각은 없으니까."

"옳지. 이건 네 작은 계획의 일부였던거지?"

"응. 그걸 위해서 왕이 되어야만 했던거고."

“지하 세계의 부와 명예 모든걸 누릴 수 있는걸로도 부족하다니 이번 시궁창의 왕은 아그발답게 욕심이 차고 넘치시네요.”

“원하는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얻는다고 배웠거든.”

“내가 그런말도 했던가?”

“응.”

“지금까지의 네 행적을 보면 왠지 너한테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말이기도 하네. 그 말을 잘 못 해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치운다는 걸 말하는거지?”

“그래.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얘기를 들었을때는 얼이 빠졌지 뭐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너 뿐일거야.”

“이래뵈도 나는 평화주의자니까!”

“하하! 네 방식으로 잡아먹힌 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걸?”

“그럴 생각이 들 쯤엔 이미 늦었다네. 처절하게 살아남은 것들이 안락함에 취해서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쥐새끼지요.”

“소름끼치네. 하수구 쥐새끼들을 총과 칼이 아닌 다른걸로 꼬드길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맞는 말이야. 폭력과 암투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총과 칼은 전혀 위협이 되지않아. 그게 우리의 삶이자 업이니까. 그렇지만 그 틈에 단 한 순간이라도 폭력이라는 수단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게 된다면 자기 자신

이 살아온 삶의 괴리에서 오는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 네 말대로 폭력 그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더라.”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위치를 주게되니 시궁창의 쥐새끼라도 그 시각은 시시각각 변하게 된거야. 위치가 사람을 만든거지.”

“시궁창 쥐새끼들을 가지고 사회 실험을 하다니.”

“하하! 면밀한 관찰력이라고 해줘.”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대의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는 경우는 제법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살을 찌워서 폭력을 잠재우게 하다니 정말이지 시궁창에서 오래살고 볼 일이야.”

“배부르고 등 마저 따사로우면 저항은 의미가 없지.”

“어머나, 왕께서는 참으로 잔인하셔라.”

“저런, 잔인하다니 실례의 말씀을. 기회를 준거랍니다.”

“쓸만한 가용인력 발굴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새삼 대단하네. 자칫 네 목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탄없이 방까지 들여 담소를 나눌 베짱이 있다는게.”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뱉어내는 말이면 더할나위 없이 좋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딱히 그걸 베짱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네.”

“신뢰하고 신뢰받으며 신뢰의 무게를 잴 수 있는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아그발의 시궁창 지하 세계에서는 더더욱 말이지. 술도 담배도 못하지만 엉덩이가 한없이 가벼운 덕분인가 그저 말만 번지르르한 것들을 제치고 거기에 앉을 자격이 있어. 뛰어난 사업 수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뢰와 신용이란 물건은 함부로 살 수 없거든.”

“내 능력은 원래 별거없는 고철 쓰레기같은 것들 뿐이었어. 아그발 뒷골목 어디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날 주워서 그런걸 하나하나 알게해 준건 다름아닌 마담이야.”

“그래그래, 개 버릇이 어디 가겠어? 정말이지 무서울만큼 흡수력이 빠른건 대단해. 그렇다고 여느 바보들처럼 함부로 시궁창에서 자랑했다간 그 가벼운 주둥이와 함께 목이 금세 달아 났겠지만.”

마담이 씩 웃으며 알포데 한잔을 우아하게 꺾자 나도 허공에 잔을 부딪히고 술잔을 털어 넘기고 그녀에게 말했다.

“뭐 어찌됐든 마담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있다구.”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돌연 벌떡 일어섰다. 잠꼬대에서 허겁지겁 일어나듯 우뚝 선 나는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 멋적은 웃음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나 요란했던 주변이 갑자기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요

해졌다. 그저 소소하게 새로운 왕의 자리를 만끽하며 가볍게 술자리를 위한 자리였지만 유난히 눈과 귀가 많은 기분이 들었다. 그런 모습마저 익숙한듯 마담은 조용히 손가락을 허공에 가볍에 톡톡 두드리면서 나를 보며 말했다.

“옳지,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엥?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직감.”

마담이 말과 함께 방호망 감지기 주파수가 요란스럽게 삐약댔다.

“아오 썅. 저거는 하루도 가만히 있질않네.”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이런일이 일어날 줄 예상도 못했다니 너무 무신경한거 아니야? 사무적인 것과 안일함이 너무 극과 극이야.”

“나도 왕의 자리에 오른게 이번이 처음인데 시궁창의 환영식이 이렇게나 거창할 줄 누가 알았겠어? 왕이 바뀌는걸 인정하지 못하는건가? 아니면 나 생각보다 미움을 받고 있는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저것들은 어떤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도 다 싫어 할 것들이니까. 굳이 목줄을 상냥하게 끊어줄만큼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누구의 목을 따던간에 그렇게 상냥하게 신경을 써준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냥 바보들이라는 거지?”

“단순해서 좋네.”

“비꼬는거야?”

“아니 순수하게 단순해서 좋다는 말이야. 괜히 잔대가리 굴리다가 죽어버린 것들보다야 훨씬 낫고 말이야.”

“하하! 조금 바보같은 질문이었나?”

“그래. 일단 옥좌 근처의 하수 처리부터 하고나서 천천히 박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왕의 위엄부터 보여줘야 않겠어?”

“좋아. 하수 처리니 복잡한 사정은 싫어하지만 싸움은 좋아해.”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왕이시여.”

“피곤한데 뭐 어떻게든 해야지. 후딱 가보자고.”

내가 박수를 크게 한번 치자 옥좌 근처의 하수구에 조금 크게 울려퍼졌고 나의 휘파람 소리와 호출 부저를 있는 힘껏 울렸고 얼마 지나지않아 쥐새끼들이 모여들었다. 그것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동안 나는 옥좌에 앉아 싱글벙글한 얼굴로 들떠있었다. 그렇게 각지의 무리들이 떼거지로 모여있어도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지시도 없이 발을 꼬고 건들거리며 흥겹게 바라보았다. 그러함에도 쥐새끼들에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문득 마담과 눈이 마주치자 마담은 익숙한듯 한숨을 깊게 쉬더니만 위엄있는 목소리로 쥐새끼들에게 신속하게 하수 처리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것들은 각자의 위치로 파도처럼 부서지듯 흩어졌다.

그 모습에 내가 감탄하여 손뼉을 치며 말했다.
“역시 마담은 대단해! 요란하게 소리치지도 않았는데 익숙한 듯 알아서 쥐새끼들을 빈틈없이 부리네.”
“착각하지마. 저들이 뭐 때문에 내 말에 움직였다고 생각해? 나는 그저 왕의 위엄을 등에 업고 그 뜻에 따라 지시한 것 뿐이지 쥐새끼들은 내 입이 아니라 너를 보고 움직인거야. 그들은 지하세계에 사는 것들이지만 옥좌에 앉은 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냄새는 기가막히게 잘 맡거든. 그게 오랜동안 핏속에 새겨진 아그발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야. 그리고 그들의 직감은 내가 아니라 너를 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 따위의 말에도 기꺼이 움직여 준거야.”

“흠. 가끔은 말 잘 듣는 개가 필요 하다가도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말 잘 듣는 개가 필요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구해다 줘?”
“아뇨. 나는 바보라서 그런건 잘 모르니까 마담이 관리해 줄거지?”
“아시겠지만 마담 키키 벨의 인력 관리 수당은 비싸답니다. 땡 전 한 푼 없는 벌거숭이 왕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요?”
“물론이지!”
손가락으로 아래를 툭툭 가리키며 말하고 나는 조용히 금박 장식된 카드를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된 테이블 재떨이 놓여진 시가와 알포데 위

로 마담에게 건네었다. 마담은 그것을 받고 한참이나 그걸 바라보았다.
“오호라. 추억이 아련히 새겨진 물건이잖아. 먼지가 좀 쌓였지만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던거야? 섬세하네.”

“응! 당연하지. 다른 놈들은 마담을 어떻게 굴려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의 시궁창의 왕은 사소한 것 하나조차 결코 놓치지 않아.”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걸까? 설마하니 이런 감성적인 걸로 나를 움직일 생각은 아닐테고 말이지.”
키샤는 그윽한 눈을 가늘게 뜨면서 카드를 이리저리 찬찬히 뜯어보면서 나를 떠보듯이 말했다.
“열어봐, 재밌을거야.”
내가 팔 벌려 활짝 웃으면서 마담에게 열어보라고 턱끝으로 계속 재촉하자 마담은 못 이기겠다는 듯 밀랍 봉인을 깨부수고 카드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암 모뱅 탄광….”
“마담은 역시 꽃보다 화약 냄새가 어울려. 이데아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탄약들의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외부로의 수출 그리고 신용등급 조정이며 화약보급 융자 등 탄약과 관련된 모든것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네! 탄약의 신이 있다면 그 조차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될테지.”
“멋드러지게 화끈한 훌륭한 외교 수단을 끌고왔군. 놀라워. 자존심은

물론 무력으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한 번 파이크 갱도 연합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돌린거람? 그 쪽은 갱단의 영역도 아닌데….”

나는 마담이 했던것처럼 검지를 들어올려 휘적거리며 답했다.

“저런, 저런. 그 점은 영업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완벽하게 졌네. 알 모뱅 탄광의 분말은 오랜동안 누구하나 점유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쥐새끼들의 성역이나 다름 없었는데?”

“응! 그래서 내가 먹었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건네자 마담은 무언가 후련한 표정으로 기분좋게 시가 하나를 태우고는 연기를 입안 가득 머금으며 내 얼굴에 잔뜩 퍼부었고 내가 켁켁거리며 팔을 허공에 휘적거리자 그녀는 즐거운 듯 한참을 깔깔거리고는 말했다.

“분하지만 이 정도로만 해두지. 왕의 미움을 사서 목이 날아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업 수완 쪽으로는 정말 인정할 수 밖에 없겠네. 역시 왕은 왕이라는 건가? 완벽하게 졌어. 아그발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양지로 끌어 올린다는 말은 장난이 아니라는걸 새삼 느끼게 되네. 벽이 느껴져.”

“메리 크리스마스. 키샤.”

“뭐 선물은 잘 받도록 하지. 키키. 필요한 인적 자원은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발 뒤꿈치의 때까지 싸그리 긁어 모아줄게.”

“히히! 좋아. 자, 그럼 일이다, 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키샤와 함께 물갈이 작업을 시작했다. 개조한 이륜 전차에 어디서 듣도보지도 못한 깃발을 꽂고서는 어떻게 해서든 왕에게 비벼보려고 하는 쥐새끼들의 화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지하수의 양분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 후환이 생기지 않게 뒷골목에 기생하는 귀들을 잘라내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줄과 재갈을 물렸다. 그렇게 우리는 옥좌 근처의 잡음을 한바탕 정리하고 다음에 올 신고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름을 잔뜩 머금은 작은 모닥불에 잔불이 타는 소리와 하수구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입으로 멍하니 따라하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윗대가리들이 무슨 개같은 짓거리를 하는지 몰랐는데 아그발의 왕이라는건 정말 아차하면 죽겠구나 싶네.”

“그게 왕이니까.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것들이지.”
“이런, 마담은 이런 상황이 제법 익숙해 보이시네요?”
“그럼요, 아가들이 몰랐던 어른들의 사정이랄까?”
그렇게 말하면서 마담은 자신의 풍만한 몸매를 두 손으로 훑어가며 나를 보더니 가소로운 눈매와 입꼬리를 지어보였다.
“우와, 재수없어. 나 왕인데.”
“오히려 모르는게 좋았을거야. 우습지 않아? 정치적인 체계나 이렇다

고 할 법조차 없는 무법지대에서 서로 정치질하며 죽이는 거 말이야."

"응. 그래도 죽어가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었을거야. 적어도 내 손에 죽었던 것들 중에 겁쟁이 새끼들은 없었어."

"어머나, 뭐야. 이렇게나 낭만적이었다니?"

"하하! 당연하지. 나는 여리디 여린 한 줄기의 꽃. 아! 발 바로가!"

내가 옥좌를 밟고 일어서서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손짓을 하자 키샤도 그에 화답하듯 챙이 큰 모자 끝을 건드리면서 화답했다. 항상 일상처럼 죽고 죽이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알게모르게 심적으로 마담의 덕을 받고 있었다. 풍만한 정장 차림을 하고 화약 그을음이나 심지어는 피 한 방울 심지어 땀조차 흘리지 않는 마담은 다른 마담들 사이에서 퇴물취급 받는 와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증명하며 이름없는 종달새와 함께 아그발의 정점의 반열에 오른 생존자다. 아그발에서 여느 강자보다도 생존자라는 존재가 더욱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녀야말로 시궁창에서 배신이나 암투조차 죽이지 못했던 한 줄기 꽃이다. 그나마 함께 등 뒤를 맞댄 사이이기에 망정이지 서로 척을 지게된다면 나는 살아 숨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자마자 여느 때처럼 얼간이같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차, 역시 무리겠지?"

"뭐가?"

“뭔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어릴적 침대 아래 괴물같은 녀석이 있었는데 도저히 죽일 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말이야.”
“저런, 유감이네. 아그발의 왕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침대 아래 괴물같은 녀석과 사이좋게 지내야겠지?”
말을 보아하니 아마 마담 자신 얘기를 하고 있는건지 알고 있는듯한 모양이었다. 하여튼 눈치가 너무 빠르단 말이지. 그렇게 어색한 웃음이나 쥐어짜고 있을때 마담이 내게 물었다.
“그나저나 궁금해서 하는 얘긴데 너는 정말 어떻게 아무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섞을 수 있고 또 쉽게 그들을 믿을 수 있는거야?”
“아무나 믿는게 아니야. 믿을만 하니까 믿는거야.”
“틀린 말은 아니네. 어쩌면 그것도 너의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믿음과 신용?”

“응. 두개는 양립할 수 있어도 적어도 아그발 안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쉽게 말하자면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을리 없다는 나의 믿음과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언제라도 내 목을 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아그발식 신용 사이의 미세한 차이이지.”
“우와, 예시 한번 더럽게 살벌한거 봐.”
“킥킥. 반은 농담이야. 하지만 놀랍게도 너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뒤섞어서 저울질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걸 자각하고 있었던적은 없는데.”

“그게 바로 내가 널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적합하다고 느낀거야. 타라 이후 최초의 여성 왕인것도 그렇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는 점이지. 모두가 알다시피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잔인하지.”

“내가 잔인 했던적이 있던가?”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고 배웠는걸?”

“옳지, 씩씩하네.”

“하하! 애새끼 취급하지 마.”

“섭섭한데? 아직 내 눈에는 아기 종달새인데 말이야.”

“이렇게 툭 터 놓고 이야기 하는것도 잡화점 이후로는 거의 처음 아니야? 그때도 싸구려 알포데 한 병을 앞에 두고 달빛 아래에서 즐겁게 떠들었던 것 같았는데. 마치 엊그제 처럼 느껴지네.”

“그만큼 네 계획에 차질이 없이 순탄대로 였다는 말이겠지. 믿음과 신용 그리고 왕의 옥좌까지 전부 네 손으로 이룬거야.”

마담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있다. 잡화점에서 마담과 접촉하며 내가 요구한건 함께했던 얼간이들과 뒤엉킨 추억의 소멸이었다. 그녀 역시 그것 만큼은 아무말 없이 양보해 주었지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아픈 손가락처럼 아스라이 남아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기지개를 켜며 마담에게 말했다.

"응,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거래는 거래니까."

"괜찮을거라 믿어. 정에 이끌려도 끊어낸 것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래. 나는 왕이야."

"벌써 떨쳐낸거니?"

"애초에 아그발에 가진게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애초에 떨쳐낼 것 따위는 없었어. 일은 일이야."

"그렇구나."

마담이 무심한듯 던진 그 말은 의외로 따스했다. 그 뒤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칭 비밀스러운 결사단의 졸렬한 공작에 군말없이 놀아주었다. 왕의 이름과 마담의 용병술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는 시시한 것들이 원하는대로 목과 몸통을 분리시켜 이륜 전차에 전리품처럼 매달고 시궁창 뒷골목 밤거리를 누비었다. 시궁창 외풍과 자체 공방의 수증기 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부를것도 못 되지만 뺨을 스치는 불쾌하게 미적지근한 공기를 뒷자리에서 두 팔 벌려 한껏 만끽했다. 이것으로 한동안 시궁창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한번 지하 세계의 뒷골목 구석구석의 거주민들에게 아로 새겨주었다. 폭약과 그을음 그리고 찌들어버린 기름 냄새를 맡으며 눈에 띄는 가장 높은곳에 올라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똑같은 풍경이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보니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없네. 정말이지 질기고 처절한 생명력이야. 그래! 이게 구원이지.”

마담은 그 큰 체구를 이끌고도 어느새 내가 올라온 그 높은곳까지 날렵하게 올라왔다. 그리고 품에서 휘황찬란하게 장식된 총을 꺼내어 사방으로 요란하게 탄약을 쏘아댔다. 그것은 마담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왕의 선포였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굴복의 메세지를 전한 셈이다.

“그 비싼 탄을 사방에 흩뿌리다니. 역시 암 모뱅의 대주주 답네.”

“이 정도는 해야 왕의 위엄이 살지 않겠어?”

“꽤나 화려한 환영식이야. 훌륭해!”

마담은 나의 말에 정장의 숄을 부풀리며 우아한 인사짓을 보냈다. 나도 그녀의 인사에 화답하듯 페도라 모자 끝을 가볍게 매만졌다. 요란했던 왕위 계승식을 끝내고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다. 중립국으로의 승격을 위해서 평판 작업을 하느라 대외적인 공작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의뢰 및 청부 그리고 사업은 늘었고 무엇보다 대대적인 내부 청소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무리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를 이끌어갈 동안 그들 사회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 이전에 자금줄이 필요했다. 그리고 환영식 뒤로 큰 행렬이 마침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파티는 이제 시작이야, 키샤.”

내 말이 떨어지기 이전에 마담은 그 행렬마다 흩날리는 깃발을 보면서 고양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과 나를 번갈아 보면서 뒤틀린 웃음을 지어보였다. 검은 젖이라 부르는 그것은 월츠의 바퀴가 태어나고 증기 이후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리는 최고의 음료였다. 그리고 암 모뱅과 동시에 규합한 또 하나의 집단이 현대 사회의 전반을 아우르는 기름을 시추하며 분배 및 납품을 하는 검은 와인창고 블룩 보데의 농장주들이었다. 그것들은 과시라도 하듯 기름에 불을 쏘아대며 새로운 왕위 승계 잔치에 합석하였다.

“키키 너는 정말이지 미친년이야.”

“훌륭한 동맹이지? 그런데 아쉽지만 이제부터는 무법자라는 멋들어진 이름은 내다버릴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더 재밌어 질거야.”

“사업이구나.”

“그렇지. 일은 일이니까.”

얼굴에도 반창고를 덕지덕지 바른채로 선글라스를 끼며 눈부신 불줄기를 여유로이 감상했다. 그렇게해서 아그발의 쥐새끼들에게 사지를 붙여다 준 것이다. 방아쇠를 당기며 탄을 하늘 가득 메울 수 있는 팔을 달아준 암 모뱅의 연합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애마들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내달릴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기름인 검은 와인창고 블룩 보데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시궁창의 왕이자 종합 문화 예술의 중추로써 강기뇨르를 기반으로 고객의 중절모부터 속옷 낱장까지 빨아먹을 것이다.

“다른 마담들이 너에게서 상정하지 못했던 재능이 또 하나 있다면 아마 그것은 네가 무언가를 흡수하는 속도일거야.”

“속도광은 쥐새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 하나잖아? 아그발의 시궁창 파이프를 내달리는건 기분좋은 순간이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발견한 마담의 눈썰미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마담은 내 말에 눈썹 한쪽을 끌어올리면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더니만 파이프를 꺼내어 물자 언제부터 있었는지 시궁창 어둠속에서 쥐새끼들이 나와서는 그들 중 하나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마담은 흥얼거리며 파이프를 빼끔대고는 시궁창 지하도시 하늘에 기분좋게 그 연기를 흩뿌리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니 조금 더 우리를 즐겁고 자유롭게 해줘.”

“이상하다니까. 몸뚱아리에 칼이나 총알을 심는것보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더욱 값질 때가 있으니 말이야. 무법 지대라고 불리우는 시궁창에서 그런 모습들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

마담은 고풍적인 문양으로 치장된 차량에 올라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비좁은 창문틀 사이로 나를 짙은 눈으로 어른의 여유로운 비소와 함께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은것이 아그발의 지하 세계에 그 배수관이 맞물려 어떻게 작동 하는지 전부 왕에게 달려 있는거야. 그만큼 시궁창만큼 자유로운 국가도 없을거야. 그럼 또 보자, 키키. 조연은 이만 물러가오니 모쪼록 축제를 즐기도록 해.”

그렇게 말하고는 나에게 대답할 시간도 주지않고 마담의 차량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이미 저만치 미끄러지듯 떠나버렸다. 한참동안 마담이 남긴 말을 되뇌이며 지하세계 뒷골목 시궁창 쥐새끼들을 눈에 담았다. 그들에게 고민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스스로를 절망의 늪으로 내던지지 않는다. 바늘 틈새라도 기회가 보인다면 언제라도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버둥대는 그 모습은 경이에 가깝다. 그들에게 종교가 있는것도 아니었다. 이렇다고 부를 신념이 있는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창한 대의가 있는것도 아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쫓고 적어도 하루하루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쥐새끼들은 아마 구원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미치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다. 그런 생각을 단 한번도 해본적은 없었지만 나는 생각보다 아그발을 좋아 했었나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자유롭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쥐새끼들이 바글거리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새삼 왕이 되기를 잘 했다는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거지! 역시 알면 알수록 재밌는 동네라니까!”

『 유전체 세포 동기화 및 재구성 』

이건 분노의 죄악 레퍼런스
내가 원하는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셈이지."

"넌 무엇을 원했던거지?"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길래 눈과 귀가 멀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은 오감 중 그 어느것에도 속해있지 않지만 다섯가지의 감각으로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이에게 어렵지 않게 건네어 줄 수 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한 것이고 죄악속에서 사라지지않고 남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옳거니! 당장에라도 촛불앞의 등불처럼 불안하고 작기 그지없던 죄악의 이유도 네가 분노를 씻어내고자 하는것 때문이었구나.”
“지금 내 분노는 네 안의 세렛을 전부 이 땅에 토해낸대도 사그라들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위에 기브의 추모정도는 할 수 있겠지.”
“기브가 뭐지?”

“네년의 손에 바스러진 고요한 분노가 기브다.”

“고요한 분노? 흐음, 고요한 분노라면….”
그녀는 잊혀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을 하더니만 이내 그것을 떠올린듯 반가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래. 그것이 죄악이 씻겨져 사라진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던 거구나. 참으로 재밌는 우연이구나. 그것을 삼켰지만 여전히 고요한 분노라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이야.”
“그것을 삼켜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나약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꼴이잖아. 이해라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건지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건 또 아닌가봐?”
그녀의 추억을 들쑤시면서 그녀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녀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은 꽤나 즐거웠다. 아무래도 스스로 분노를 쏟아내는 이전과 달리 다른 이들의 분노의 싹을 움트게 하는 새로운 즐거움에 눈을 뜬 것 같았다.

시키는 죄악은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할거야."

그것도 모른채 축복이라고 여기며 분노의 죄악을 합리화 시키려는 죄악은 씻겨지지 못함이라."

하지못한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

제목 달콤한 복수
"무슨 소리야? 아벨의 뒤틀린 빛에 마땅히 분노할 자격이 있는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인데?"

만약 자신안에 담겨있는 것이 분노와 증오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만약 그것을 전부 쏟아내고 죽으면 그것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이제서야 조금은 증오를 극복한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토록 내가 원했던 얽매여있는 죄악을 풀어내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이

유는 어째서일까?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아. 내게 칼을 들이민만큼 난 널 몇번이고 죽일 수 있으니 말이야. 세르샤라는건 참 좋아. 수치스럽지도 않은지 낮에도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꼴을 보아하니 말이야. 덕분에 밤낮을 가리지않고 또 죽일 수 있으니 말이지. 영원히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줄게. 그러니 제발 죽지 말아줘.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일 수 없을테니.”

분노네 맞서는 것은 역시 분노였다. 그것 이외의 수단으로는 삽시간에 번져버린 분노의 불씨를 잠재우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었다. 물론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함께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몸에 오롯이 새겨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그를 떠났다.

아벨의 현신은 죽어서도 증오를 남겼다. 갈피를 잃어버린 빛의 찌꺼기들과 잔존한 추종자들은 더욱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여 이제는 피아구분없이 저들의 분노를 쏟아낸다. 그것은 마치 카인의 아벨을 죽였을때와 같은 감정이었다.

그래 더욱 분노해라

떠나야 했기에 떠난것이다.

믿음을 배신한것은 아니다. 일부러 그를 떠난것도 아니다.

등진것은 아니다. 분노를 곁에 두어서 좋을것이 없었기에 호감이 있는 존재의 곁에 머물 수 없기에 그 옆자리를 비워준 것일 뿐이다.

아무리 합리화를 해보아도 나조차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나는 분노를 풀어낼 대상을 찾아 헤메이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분노의 칼날이 방향을 잃자 나는 어느새 분노를 풀어낼 대상을 찾아헤메이고 있었다. 불경한 빛이 추락해도 분노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는듯 끊임없이 은빛에 피칠갑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
“도대체 왜…. 피를 마시지도 않고 어둠속으로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빛을 바라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건가.”

전성 - 강림한 아벨의 현신이 무너져도 분노하는 원인을 찾아 떠난다.

지금 나의 분노는 그 어느곳도 향해있지 않아.
갈피를 잃어버린 증오

고요한 분노가”
무너져 내려가는것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그녀의 눈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래, 더 분노해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윈 희열이 차올랐다. 어쩌면 원색적인 분노인 세르샤보다

뒤틀린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퍼졌다. 그리고 피곤했는지 눈이 뒤집혔고 난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 먹먹한 외침만이 귀에 울려퍼졌다.

헤르실라가 나를 필요할까 과연?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나는 헤르실라의 트라우마가 만든작품임. 그래서 헤르실라는 내가 필요함 왜냐하면 내 분노가 그녀의 것과 상당히 비슷함. 이유는 모르겠음.
추측하건대 퀼로른의 공주였던 헤르실라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분노를 쏟아냈을때 내가 만들어진거일 거다. 그래서 그녀의 외형도 묘하게 닮아있는것도 그 이유에서겠지. 기브가 죽은것은 자신을 닮아있는 것 안에 그의 잔잔한 분노를 끼얹는 것이 두려웠기에 헤르실라가 미린 손을 쓴 것이다.

“분노의 죄악을 죽이지는 못해도 그 화를 잠재울수는 있을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시겠지. 그래서 당신에게 못 당하는거고.”

피곤해서 나는 그만 눈을 감았어.

너의 분노는 어이없을 정도로 식어있군.

“아벨의 현신은 자비로우니까 분명 그 빛에서 살점 하나정도만 떼어가도 이해하겠지. 아벨의 은총으로 베푸는 자비를 누가 막겠어?”
온갖 조롱이 섞인투로 아벨의 은총을 입에 올리며 빈정대는 꼴을 가만히 보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찬란한 은빛으로 나는 당신의 심장마저 꿰뚫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는 분노로부터 태어난 것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죄악은 씻겨져 사라진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억누르고 삼키는 것이니 당신의 본질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죄악을 이해할 수 있는것은 나약한 우리 인간들 뿐이니 언제라도

모든 죄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른이도 아닌 인간이니 당신의 분노를 모를리 없습니다.”
끝까지 자상한 사람이다. 내 분노를 씻어내릴 때까지 저 미소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절대 잊지 못할것이다.

“분노의 형태는 자유로워. 부디 그 작은 새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든 살아가는 것이 가지고있는 가치의 질량은 어느 누구에게나 같다.”

“같을리가 있겠냐?”

“이실그라드 아니 어머니 대자연 이데아에게 네놈들따위 알게뭐냐. 어차피 죽어서 거름밖에 되지 못할 것들인데.”

『 시들지 않는 사랑 』

“구원인가?”

“누가? 내가?”

의사의 물음에 그녀가 당황한듯 웃으며 되물었다. 그러자 나는 익숙한 듯이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쉬며 그녀에게 말했다.

“내버려 둬. 저래보여도 악의는 없는것 같으니까.”

“그렇구나. 네가 잠비에게 노친네같은 농담을 알려준 친구구나. 반가워. 나는 자크 아보나의 연인 메디 헤리에야. 네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있어.”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악수를 건넨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던 의사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 장갑을 끼고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의사의 손을 크게 흔들며 반갑게 악수를했다. 그녀의 터울없는 성격에 매료되었는지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이거야 원 당돌한 아가씨구만.”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에 온거야?”

“그래.”

“싸움은?”

“길었지.”

“그런가? 밥 먹을거냐?”

“부탁해.”

길래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몇번이고 들었지만 그녀에게 도움이 될 존재가 이데아에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되자 나는

익숙한듯 복잡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처음에 의사는 그것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시약병 안에 담겨져 살아숨쉬는 것처럼 조용히 꿈틀대는 기괴한 그것을 퀴나즈의 땅에서 가져온지도 이미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의사가 그것을 밤낮으로 분석하는데도 기약없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야속하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때문에 이미 초조하고 불안해져 있었다.

검붉은 살점을 뜯어왔지만 그것으로부터 추출한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점점 그녀는 기력을 잃고 침식되어갔다. 나는 다급한 목소리로 의사를 불렀다.
“말없이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아줘.”

“라파르는 꺼져가는 생명에 잔불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었나?”
원망하듯 토해내는 말에 그는 말문이 막힌듯이 잠시 망설이다가 숨막히는 침묵을 뒤로하고 목을 가다듬고 차분히 내게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내 살점은 완벽한 쟈토움의 것도 아니었고 네가 가져왔던 살점 역시 돌연변이 개체나 다름없는 것이었기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거지.”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었지.”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손 끝에 남겨진 감촉이 현실

과 너무나도 어긋나있었던 탓인지 금방이라도 그녀가 다시 일어나 내게 이전과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줄것 같은 착각이들어 가슴이 미어져왔다. 차라리 환상속이라도 그녀와함께 길을 거닐며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고통이 전해졌는지 바싹 말라버린 그의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무리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이지만 정말 유감이네."

"너희들이 음욕의 죄종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고있어. 순간의 달콤함에 뒤섞일줄만 아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척을 하고 있는것이 우습게 보이겠지. 영원을 사는 내가 찰나의 시간속에 사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소꿉장난 정도로 치부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조용히 내 말을 듣고있던 그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음욕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결이 비슷한걸 본 적은 있거든. 너처럼 암덩어리 때문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쓰던 어미였지.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벨의 자손의 얼굴을하고 내 흉물스러운 몰골보다 더욱 추악하고 끔찍한 실험과 연구를 일삼았어. 나중에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딸은 어미를 두번 다시 보지 않았다고 해. 심지어 그녀가 개발한 신약조차 거들떠보지 않고 스스로 치료법을 강구하려 했더군."

"네가 그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는거야?"

“그 추악하고 끔찍한 실험과 연구의 결과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어미는 지금 어디에있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뭐하게? 화풀이 하려고? 관둬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낼 수 있는 네 상황은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그녀의 어미보다는 나으니까.”

“같은 아벨의 자손이라고 감싸는거야?”

“이 꼬라지를 보고도 같은 아벨의 자손이라 쳐주다니 감사하긴 하다만 굳이 나를 실험대 위에 묶어두고 밤낮으로 찢고 갈고 부수던 것들을 옹호해줄 이유는 없지않겠어?”

“그럼 너는 여기서 뭘 하는건데?”

“애도.”

“그런가…. 네게는 이것이 익숙하군.”

“그런거야.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 손으로 미처 살리지 못하고 내 손에서 죽어버린 넋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속죄이기도 해.”

“감성적이군.”

“감성이야 사랑을하는 너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는 겁쟁이야. 주변에 소중한 이들을 잃는것이 두려워 내 곁의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여유조차 없었어.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다는 것인지 네가 제대로 상기시켜주고 있으니까 뭔가 복잡하네.”

“사랑하는 이를 보내야하는 슬픔때문에 쉽사리 사랑할 수 없다는건 정

말이지 가슴아픈 일이구나."

"그러게나 말이다. 비웃고 싶으면 마음껏 비웃게나."
"그럴 수 없지.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한없이 여리게도 만들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비웃을 수 없어."
"털어내야지 별 수 있나. 나도 그리고 너도 말이지."
그가 우리의 이별을 얼른 마무리 시키려는듯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가 나의 모든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그를 노려보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 그녀에게 약품처리를 하지 않았어. 이대로두면 얼마 지나지않아 사체에 기생해있는 암덩어리가 흘러나와 전염병을 옮겨댈거야."
"그녀를 고깃덩어리 취급하듯 말하지마."
"…그럼 이건 뭔데?"
의사가 꽃가지 사이에서 고요히 잠들어있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말하자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그의 손가락은 꿈틀거리더니 기괴하게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익숙한듯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나의 감정에 호소하듯 말했다.
"죽어있는 시체에 사랑이라는 부산물은 담겨있지않아. 이제 그것은 고스란히 네 안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어울려 주는가? 참으로 고맙기도 하지.”

영생을 살아가는 카인의 핏줄임에도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에 집착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탓인지 나의 말에 그는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더불어 위로에 익숙하지 않은 듯 어깨를 어루만지던 떨리는 그의 손은 이상하리만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이 느껴지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나와 다르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운 모습이었다. 내가 가만히 그를 응시하자 그 역시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고 나는 가벼운 고갯짓으로 그의 물음을 기다리자 그자 망설임없이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구나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음욕의 죄종이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이라면 사랑의 불씨정도는 간단하게 되살릴 수 있잖아?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충분히 가능하지. 사랑은 위대하니까. 하지만 굳이 그녀를 음욕의 세계로 물들이지 않는 순수한 그 상태로 기억하고 싶은거야.”

“그렇게나 사랑했다면서 다시 그녀를 안고 싶지않아?”

“그러하기에 그녀의 미소를 가슴에 간직하고 싶은거야. 소중하니까.”

“의외네.”

“뭐가?”

“음욕의 죄악이라면 좀 더 방탕하고 향락적인 순간을 즐길것만 같았는데 너는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서 말이야.”

“나라고 다른 음욕의 죄종들과 다르지않아. 다른 이들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수많은 이들 중 하나일 뿐이지.”

그 말을 듣자 의사양반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그거 알아?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냐.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을 성공적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너는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의 자조적인 말에 나는 잠시 주춤하다가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테니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네 여정을 떠나. 계약은 끝났어.”

“여기까진가. 적어도 나는 원하는것을 얻었지만 이해관계라 여기었던 너는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한채 오히려 떠나보내야 했기에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못하네. 카인의 핏줄 주제에 너무 정직한거 아닌가?”

“아니. 얻은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내가 초연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하자 그 모습이 우려가 됐는지 가만히 지켜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차갑게 뜨며 말했다.

“하지마. 사랑 대신 원망을 쏟아내는게 진짜 네가 원하는거야?”

“원망이 아니라 기나긴 추모행렬이 될테지.”

“미치겠네.”

“바라건대 부디 그녀의 흔적은 남기지 말고 먹어치워줘.”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정도는 가져가.”

그는 야그마 풀을 품에서 꺼내자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것으로부터 은은하게 스며나오는 향기와 함께 그리운 추억을 한껏 만끽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가볍게 웃으며 거절했다.

“…남는것은 추억 뿐이라고 말한건 너잖아?”

예상외의 대답을 들었던건지 그는 야그마 풀을 건넨 손을 한참이나 거두지 않고 눈을 꿈뻑거리더니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사랑하기는 한거야?”

“뭐?”

“내가 아벨의 자손이라서 음욕의 죄종이 행하는 행동을 차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건가? 추억이 담긴 물건 정도는 괜찮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과 동시에 그의 몸 이곳저곳에 돋아난 추한 암덩어리에 달려있는 아가리는 무엇이 그리도 구슬픈지 입을 벌려대며 울어대는 모습이었다.

“불같이 사랑하고 얼음처럼 빠르게 식을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녀와의 순간을 기억하는 존재는 너말고는 없을거아냐. 죽어서 자신을 기억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면 그보다 슬픈일은 없을테니까.”

그는 옷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더니 말을 흐렸다. 아마도 또 다시 어색한 공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의사양반은 흉물스러운 몸뚱어리에 비해 여린 마음씨를 가졌다.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실에 있던 이들로부터 등을 돌린것도 여린 심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까지 미치니 의사양반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다. 그러함에도 인간은 다른이의 안위를 걱정한다. 사랑이나 욕정 때문이 아닌 그저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네 마음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이해해줘.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슬픔에 잠겨서 빠져나오지 못할까봐서 그래.”

“아, 그런가. 미안하군.”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네.”

“몰라. 습관인가봐. 살린 사람보다 살리지 못했던 사람이 더 많은데다가 남겨진 이들의 원망속에서 평생을 허우적 댔으니까.”

“웃기는 얘기겠지만 너는 네 곁에있던 하나의 존재를 구원한 셈이야. 그것이 비록 카인의 핏줄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나도 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를 건넸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벨의 자손을 곁에 두고 나누었던 감정을 아낌없이 그리고 후련하게 쏟아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랑이지만 비슷한걸 본 적이 있거든.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벨의 자손인데도 내 흉측한 외형보다 더한 괴물이 되버렸지만”

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면 그런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되지. 그녀를 잃은 슬픔을 모르는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는건 그녀가 널 사랑한 시간을 부정하는 실례가 되는 말 아니냐?”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건 나도 마찬가지야.”

사랑을 그저 음욕이라 한다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 손에 자란 자식을 잃은 슬픔도 같다면 얼마나 아픈지는 잘 알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를테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기괴한 살덩이를 가져왔는데….”
“

“그녀가 원했던것은 죽지전에 네 곁에서 추억을 쌓고싶었던 것일 뿐이야. 인간의 생명은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질듯이 위태롭거든.”
“혼자있고 싶어.”
“음욕의 죄종에게 그게 가능할것 같아? 이럴수록 몸을 뒤섞고 안겨서 상처를 어루만져야지.”
“싫어.”
“미치겠네.”

“아니 내 말은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거라는거야. 아니 돌아오지 못하

는 편이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빨아먹고 싶어.”

그것의 색정에 반응하기라도 하듯 허기가 몰려왔다.

전성 - 죽은 여인을 가슴에 묻은 뒤 음욕의 죄악에 눈을 뜨기 시작.

무뎌진 사랑의 감정

“그래. 네놈들은 죄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아벨의 자손들은 그저 유혹에 나약한 미물일 뿐이지.”

그래도 역시 난 예쁜게 좋아.

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관둬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낼 수 있는 네 모습 그대로 그녀에게 보여준다면 그녀에게는 더 없는 이별선물이 되겠지.”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에 온거야?”

“그래.”

“싸움은?”

“길었지.”

“그런가? 밥 먹을거냐?”

“부탁해.”

『 나무 괴물 』

믿음의 뿌리가 나약해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이라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고향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이곳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 자르갈이 순수하게 투쟁을 위해 선 땅이기에 대지가 지니는 이름에 담긴 힘과 무게가 오직 피와 살을 쏟아내는 광기를 머금은 혈투에만 편중되어 차고 흘러넘쳤다. 즉 운명의 갈림길에서 눈 앞에 조우한것은 오직 적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그녀가 이곳에 흘러들어온 이유는 그저 싸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아벨이 추락했는데 아직도 그것으로부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군.”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마치 운명에 끌려다니듯 정해진 길을 따라 묵묵히 흘러가고만 있으니 뭔가 분해.”
“그런 소리하지마. 엄마는 자르갈의 몸부림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이니 목숨을 부지한 것 만으로도 충분해.”
“내 복수가 향하는곳은 아벨의 현신이었지 생존 따위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대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가 오랜동안 부정해왔던 말이라서 그런지 기시감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말의 의미와 내 손에서 죽어나간 것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연신 곱씹었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건 당연하지. 그러나 무엇을 남길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지?”

“뭐라고 중얼거리는거야?”

“넌 이름이 있나?”

“일찍도 물어보는군. 갑자기 그것이 궁금하기라도 한건가?”

“이름.”

내가 재촉하듯 묻자 그녀는 차갑게 노려보며 내게 말했다.

“엄마라는 것이 내 이름이된지 오래다.”

“다들 이름이라는 것을 달고 있는군.”

“이름은 중요하기 그지없다, 짐승놈아. 그것은 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혹은 어떤식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져있지.”

“결국엔 방향을 잃은것들이 짊어지는것이 이름이라는 것이군.”

“지금까지 대가리를 굴리면서 겨우 생각해낸 답이 겨우 그거냐?”

“내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었다.”

“너도 언젠가 누구의 손에 죽을것이니 무언가는 남겨야겠지?”

“그렇게 죽을것이라면 그저 내가 약했기 때문이고 약한것이 무엇을 남기는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거다.”

“오랜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짐승처럼 살아온 네가 어떻게 살다죽어도 내가 무어라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다른이들 앞에서 네놈 스스로가 무엇인지 말하고자하는 순간은 반드시 올테니 준비를 해 두거라.”

어디서 그 말을 들어본 적 있는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

게 기억이 나지않는다. 다만 흐릿한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도 또렷하게 새겨진 가장 또렷하게 나의 뇌리에 박혀있는 그 말은 분명 내 손에 죽어버린 무수한 나약한 것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우연히도 그것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내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뒤끝이 찜찜한 여운이 가득남은 그 말에 반사적으로 반박하듯 답했다.

“너 역시 복수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차가운 심장이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생각하는게 좋을거다.”

“애새끼처럼 광기에 사로잡혀 대충 아무말이나 둘러대지 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건 나 뿐만이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난다. 텅 빈 공허한 눈깔로 의미없이 방황하던 나약한 자의 냄새말이지.”

“들개 주제에 감히 내게 훈수를?”

“네가 그토록 예리하게 벼려놓은 발톱은 아벨의 현신에게 흠집조차 새기지 못하고 응어리진 복수심은 아벨의 현신이 죽은뒤로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수 있는것이었나? 그것 참 편리하구만.”

“불타는 복수심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꺼져버렸으니 오갈데 없는 분노탓에 지금 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것이 좋을거다.”

“도망치는거냐?”

“돌아갈거다.”

그렇게 복수에 미쳐있는것의 정신나간 소리에 장단을 맞추고 있을즈음 아벨의 찌꺼기들을 도륙내고 빛무리를 거죽에 두르고있는 광기어린 자

르갈의 무리들의 표효가 우리 주위로 울려퍼졌다. 여럿의 그 울음은 의심할 여지없이 서로에게 날을 향해있는 우리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나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또 신수전쟁의 울음인가?”
“”

아벨은 죽이지 못했어도 세트는 죽일 수 있을거야. 행여 죽이지 못하더라도 억지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잊고있던 이가 다른 이의 손에 죽는다면 그것만큼 즐거운 소식은 또 없을테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는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의 평화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고요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을 무엇이냐.

이제 끝났잖아.

아니 아직이야. 세트가 다시 눈을 뜰거야.

나중에 책임도 져야겠지. 뻥 뚫린것 같은 가슴 이해를 하기 시작함.

『 방사능맨들 』

“구원인가?”

“누가? 내가?”

“융드.”

이곳에서 혹한의 눈보라로 제련한 빙하가 필요하다.”

“옳다. 재앙을 벗삼아 살아 남은것들은 강한것이다.”

“…어째서 네놈들은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거지?”

“명예와 영광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

을 배척해봐야 신성한 땅의 전사들에게 남는것은 없다.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것은 젖을 떼고 난

오직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것보다 전사의 명예와 영광이 그리로 이끌지 않았을 뿐이지. 생존에 목을매는 것들에게 계산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말이다.”

“수많은 저울질 뒤에 내린 결론은 수용인가?”

“수용? 관용이다. 전사가 약자를 위한 베품이지.”

“약자라고? 고작 하얀 악마라고 이명을 떨친다고 해서 굴라나그 간헐천의 생명과 죽음의 샘을 마신 생존자들에게 맞설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네만….”

“굳이 이곳까지 먼 발걸음을 더러운 숨결을 토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설명

“맞서기보다 네놈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이 있어서 말이다.”

나는 그 알수없는 추상적인 그것의 의미를 곱씹으며 연신 중얼거리면서 하얀 악마에게 물었다.

“”

“세트의 개들에게 역사속에서 칭송 받았으면 그것으로 될일을”

그 식어가는 색과 달리 나의 눈을 스스로 볼 수는 없었지만 흩날리는 눈송이에 반사되어 잔잔히 빛나고 있는것이 느껴졌다. 위협을 무릎쓰고 오랜동안 깊은 바다를 건너 굴라나그 간헐천의 흩날리는 잿빛가루처럼 하늘을 무수히 수놓는 차가운 그것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거면 됐다.”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면서 아벨의 자손들은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외부의 노출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우리는 하얀 갈기를 휘날리는 토착민들이 떨구는 벼락을 조용히 맞으며 그들이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대들의 눈에는 불경한 것들이나 다름없어 보이지만 나는 세트의 후예이자 울라메드라 불리우는 생존자들이오.”

“익히 귀에 익은 이름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네놈들이 토해내는 증기가 이데아에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해로운것을

알면서도

 네놈들

것이라는 사실은

네놈들이 환대받지 못할것을 알면서도 굳이 이 성스러운 협곡에 더러운 발걸음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목숨을 구걸하려는가? 울라메드의 생존자들이여. 네놈들은 자존심도 명예 따위도 없는건가보군.”
그들이 비웃는다. 하지만 나는 평온한 얼굴로 답했다.
“그래. 그런것 따위 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나는 몇번이라고 그 길을 택할것이다.”
“ 더 잘 알텐데 성스러운 이 땅을 짓밟으려 발걸음이라도 한건가?”
과학자와대화

“너희들은 에너지원 그 자체이다. ”

가 아벨의 자손은 물론이요 카인의 핏줄 더불어 네놈들의 동족

위험하군. 하지만 어째서인지 ”

세상 모든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면서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다. 카인의 핏줄은 말할것도 없는 아종이지만 아벨의자손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하얀 악마라 불리우는 아벨의 자손들이 자리한 혹한의 협곡 근처에 자리하게 되었다.

전성 - 아벨의 현신마저 선별에서 선택받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됨.

“이것은 우리의 심장 그리고 피.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얼음을 만들어주시오.”

“그대는 신인가?”
“신이 되고자 발버둥치다 땅에 떨어진 인간이네. 부끄럽게도 지금이야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라고 불려지는 모양이네만 나는 무수한 실패를 반복해왔고 그것은 여전히 나의 목을 옥죄고있지.”

세트의 심장이 요동치는것을 그들도 알아차렸다. 이들은 아벨의 자손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않을만큼 미미한 것이다. 행여라도 무언가를 빌미로 힘을 얻어 울음한다 하여도 이전만큼 대지를 전율시키지 못할테지.”

지만 그들 안에 흐르고있는 울라론의 색깔은 익숙한 증기를 토해내는

소리와 함께 쉭쉭거리며 잔잔히 고동하고 있었다.

“그래, 그렇지. 살아 있다는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렇기에 염치 불구하고 다시금 그 멈춰진 심장을 뛰게 하려는 것일테지.”

그 말을 내 옆에서 조용히 듣고있던 시아난이 나를 진정시키고 달래려는 듯 거칠게 갈라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그것이 살고자 방버둥 치는것이 그리도 언짢은가?”

“삶을 갈구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이가 구태여 기어 나오려는 의도를 모르기에 그가 토해내는 고동이 여간 불쾌하기 그지 없도다.”

“필시 세트의 후예들을 지배하기 위한 울림이겠지.”

“그것 때문에 이제와서 심장을 뛰게한 것이라면 완전히 감을 잃어버렸군. 그것은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할거다.”

“즐거워 보이는군. 그렇게나 세트가 밉나?”

“이미 말했다시피 그것에게 느끼는 감정따위는 남아있지 않다. 그것이 이제와서 심장을 고동하던 돌이되어 바스라지던 울라메드의 선별 위에서 판가름나는 시험에 들 자에 불과하다.”

“그래, 그렇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다른 이들의 삶을 조금 바라본 것 뿐이니 신경쓰지 마라.”

“걱정마라. 조만간 우리도 울라론의 빛을 이어가게 될테니까.”

적대감에서 경계정도로

오직 아벨의 현신만을 죽이기 위해서 나쉬메누를 떠났다가 다시 겁쟁이처럼 숨어들고 또 다시 고개를 쳐든 복수의 칼날을 다시 깨우며 관성처럼 다시금 운명의 갈림길로 발걸음을 했다. 잠들지 못하는 복수의 칼날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내 안에서 미친듯이 춤을 추었고, 나는 라츠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아무리 집중하여 그것을 억누르려 해도 만월의 광기에 너무 노출이 되어있었던 탓인지 살의의 쾌락이 소름끼치도록 기분나쁘게 몸을 여기저기 훑어대고 있었다. 여러번이나 의식이 끊어지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내 몸은 그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해 최적화된 몸으로 제련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것들은 계속해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무방비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나에게 무기를 겨누며 살기를 쏘아대고 있었다. 환희에 차오른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향해 외쳤다.

“오지마!”

평소같았으면 살기를 드러내고 다가오는 것들을 막을리 만무했지만 이번만큼은 광기에 침식 되어가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자 나는 온 몸으로 그것들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틀어막혀진 목구멍 밖으로 그 소리는 기어이 새어나오지 못했고 나의 입가에 띄여진 미소와 함께 방금까지만 해도 숨을 토해내던 것들은 금새 고기조각이 되어버렸다. 피와 살

을 흩뿌릴수록 라츠에 집중하고 있는 나는 더욱 깊은곳으로 가라앉았고 만월마저도 고개를 떨구고 시선마저 거두는 시간은 오롯이 나홀로 눈을 뜨는 나만의 세상이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나만의 세계가 되어 나의 사선은 사라지고 오직 다른 것들의 사선만이 고스란히 눈에 새겨지는 순간이 오는것이다. 그 때 나는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는 사나운 짐승으로 변모하지만 동시에 가장 나약해지기 때문에 마냥 두 팔 벌려 그것을 반길수만은 없었다.

"씨발 저 눈! 저 망조의 짐승을 죽여!"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입을모아 외치는 그 소리만은 또렷하게 나의 귓가에 작게 울려퍼졌다. 눈 그리고 망조. 내 눈에는 만월의 한줄기 빛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검게 드리워진 월식처럼 눈빛은 더욱 깊은곳으로 가라앉으며 조그만 소리나 움직임에 온 몸이 반응하여 홀린듯 어두운 눈에 담긴 생명을 망설임없이 지워나갔다. 그렇게 나의 발톱은 불경한것들은 물론이요 아벨의 현신이 남겨놓은 빛무리는 물론 그것들과 충돌하는 모든것들을 짓밟으며 나아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는 이 몸뚱이조차 헤아릴 수 없었다. 물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며 어둠속에서 눈을 뜨자 후유증처럼 매서운 광기가 휘몰아쳤다. 나는 그것을 이겨내느라 옆으로 누워 어깨를 붙잡고 고통에 겨운 신음소리를 쏟아내었다. 라츠의 깊은 힘을 부

리는것은 죽음의 가장 가까운 경계에 발을 딛는것이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것임을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내안의 광기가 외치는 비명이 메아리쳤다.

“…서슬푸른 날이서린 내 복수의 주인은 울음소리에 그 심장이 고동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을 바라고 있는거냐?”

만월의 그림자 뒤로 죽었다 깨었을 때보다 가슴이 더욱 죄어왔다. 어째서 지금 떠오른것이 만월의 광기에 미쳐 날뛰는 짐승인걸까? 그리고 어째서 내게 망조의 짐승이라는 이명이 주홍의 글씨처럼 새겨진걸까? 복수를 위해 휘두른 비수는 언젠가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는 어머니의 말이 이제서야 실감이 갔다. 그래서 그녀는 물론이고 조라네스의 모든 여인들이 복수라는것을 입에 머금을때는 항상 신중하라는 말을했던 것이겠지. 하지만 그것을 마음먹었다고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날에 부는 바람이 숨을 조이는 서릿발처럼 폐부를 찔러댈 줄은 몰랐다.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야만 한다는것을 알기에 외로움이 뒤이어 찾아왔다. 자매들과의 결연으로 돈독해진 마음이 나약해진 지금 언제라도 광기에 휩싸일수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레 내게 찾아온 홀로 남았다는 불안함이 갑작스레 밀려들어오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아무리 라츠로 마음을 다독이고 머리를 식히려 발버둥쳤지만 그것 때문인지 나의 사고

마저 느리게 만들었고 순간 떨어진 눈물방울과 함께 문득 물음이 스쳐지나갔다.

“잠깐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광기에 몸을 던진거지?”

정말 단순한 물음이었지만 너무 오랜동안 광기를 받아들인 탓인지 좀처럼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떨어진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지난듯 했다. 문득 흘러간 기억을 더듬으며 스쳐지나간 얼굴을 기억하려하면 할수록 잔잔한 물가에 몰아치는 파동처럼 일렁거리며 산산히 부서졌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울음을 토해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지만 그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낼수록 마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것처럼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러 슬픔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과 울음을 헐떡거리면서 간절하게 기억을 더듬고 있는 사이에 아벨의 자손에 뒤이어 이번에는 카인의 핏줄의 무리가 아수라장속 발을 딛고있는 나의 존재를 인지하고는 저희들끼리 수근대기 시작했다.

“야, 저거.”

“아서라. 짐승의 피와 살은 입에 담을게 못돼.”

“잠깐, 저거 눈깔이 왜 저런건데?”

“…흑옥과도 같이 깊고 어두운 눈. 불길을 초래하는 것.”

“뭐? 그럼 어떻게 해?”

“불경한것의 피를 마셔서 좋을게 없어.”
“그보다 얼른 이 빌어먹을 개판속에서 얼른 벗어나야돼. 광기에 미쳐버린 것들의 땅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고….”

“가지마!”

이따금 들리는 대화의 끝에는 항상 눅진한 피 비린내가 남아있다. 비명하는것 이외에는 다른 목소리는 담고싶지 않으려는 것인지 나의 분노는 아벨의 현신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있었다.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것을 미워하는 그것에는 책임이 없었기에 그 순간은 한없이 가볍고 또 즐거웠다. 그저 날이 선 칼날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행위는 원초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그것에 취해서 다시금 한바탕 피바람이 일었고 그것이 잠잠해지며 눈에 드리워진 어둠이 스물스물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서야 나는 긴 잠에서 깨어나 피부를 스쳐가는 주변의 모든 자극을 머리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고통에 비명하며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 울음이 신수전쟁이라 불리는 이 개판속에서 다른 이들의 이목을 이끌것이라는 사실도 망각한채 사선에서 돌아온 고통을 아낌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그 격통이 이전에 어머니의 어머니가 조라네스의 여인들이 처음으로 조우했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대한 이야이를 떠올리게 했다. 더 이상 나에게서 광기를 고요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나쉬메누 여인들의 고요하고 차분함을 찾아볼 수 없

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고 여전히 붉은 피가 흐드러지는 살풍경이 눈에 담겼다. 나는 마른 눈물을 닦고 다시금 그곳에 몸을 던졌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내 안에 담겨진 복수를 하릴없이 무작위 이들에게 쏟아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눈은 다시금 깊은 어둠에 잠기었고 기분 좋게 몸이 붕 뜨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의 갈림길 아그마트에서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뿐만 아니라 세트의 후예는 물론 불경한 존재 등등 이데아에 숨을 뱉어내는 모든 것들과 뒤섞이면서 내가 마주한것은 피에 굶주린 한 마리 야수였다. 그것은 여인의 몸으로 광기에 스스로를 내던지며 눈에 담긴것을 망설이지 않고 도륙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아, 기분 좋아. 더, 좀 더 원해.”

한 꺼풀 벗어던진 내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했다. 나는 분명히 무언가에 취해 있었지만 그것이 만월의 광기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새로운 모습에 취해서 한참이나 어두운 하늘에 먹칠을 하듯 피안개를 흩뿌렸다. 방금전까지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고통은 금방이라도 잊어버린 채 나는 온 몸에 피가 흘러 피칠갑을 하고서는 팔을 활짝 펼쳐 그 풍경을 가슴에 한아름 안으며 내가 보는 그 풍경을 가능하다면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들뜬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그것을 잔뜩 드러냈

다. 어쩌면 광기에 이성을 잃어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오랜동안 라츠를 가다듬었건만 그것을 망각한채로 광기속 격류속에서 황홀경을 맛보자 순식간에 수치스러움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얄궂게도 운명의 갈림길에서 나쉬메누의 여인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물속에 빠져버린듯 입을 꿈뻑대면서도 믿기지않는 순간에도 익숙한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이나 숨소리까지 하나하나 담으려 애썼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을 보아하니 열 세번째 달을 겨우 두 세 고개를 넘은듯 보였다. 그러나 대화를 섞지 않고도 그녀의 몸에 배어있는 날이 선 라츠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구한 사연과 충분히 여인의 삶이 고스란이 전해졌다. 먹먹한 가슴을 억누르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억지로 토해내듯 뱉어내려니 헛구역질이 나올뻔 했지만 다시금 가까스로 입을 열어 그녀에게 가까스로 전해본다. 수많은 감정을 뚫고 나온 메마른 목소리가 가벼이 떨려왔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말에 수많은 말이 담겨져 있는것을 그녀도 알았는지 숨을 깊게 들이마쉬고 내쉬더니 낯선곳에서 조우한 익숙한 그리운 냄새에 즐거운듯이 해맑은 미소로 웃으며 괜찮다는듯이 답했다. 그렇게 말하는것과 다르게 그녀의 얼굴은 비통함과 피로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니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것만 같았다. 직접 아벨의 현신을 떨구어 나쉬메누의 여

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전해주려 했지만 여전히 절망속에 잠겨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직접 눈에 담으니 그것이 나를 더욱 겁나게했다. 나는 사실 두려웠던거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속해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억지로 분노와 책임감을 아무데나 쏟아내고 싶었기에 낯선 이곳에서 무의미한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숨겨왔던 진실이 계속해서 죄책감에 짓눌려진 가슴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아, 부디 나같은 이가 더 나오지 않기를 그토록이나 바랐건만 그것마저 나의 욕심이었던건가….”

그녀는 나의 한탄에도 마지않고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이곳에 우리가 만난것은 그저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기뻐.”
운명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자아를 잃고 광기에 휩싸인채로 서로의 목숨을 짓밟고 있었지만 찰나의 시간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광기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었다. 나는 새어나오는 그녀의 광기를 품으며 말했다.
“…그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리도록 슬픈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 그저 달빛이 밝고 둥근탓일테지.”
분명 힘들었겠지. 우리는 서로가 광기에 집착하는 이 땅에 발걸음을 한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따스한

위로를 건넸을 것이다. 광기에 꽤나 깊이 침식되어 변해버린 나의 모습에도 그녀는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오히려 우수에 젖은듯한 커다란 눈으로 안타깝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쉬메누의 여인들에게 긴 말은 필요없었다. 호수보다도 깊고도 드넓은 눈망울이 전부 말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낯선 땅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광기를 마주하고 그것에 몸을 적응해내려 애쓴 그 마음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다.

“그럼 이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있는 그녀의 마지막을 안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고 차분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었고, 이내 우리는 서로의 광기에 잠기며 고요히 가라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락한 광기속에서 나는 아련한 마음과 함께 조금 더 이곳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더 깊고 오래 머문것은 나였고 그녀는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녀가 열세번째 붉은달을 몇 고개를 더 넘었으면 그녀의 발톱에 내 목이 먼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명경지수와 같이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담을 수 있었다면 그 꽃은 이리도 빨리 지지않고 누구보다 예쁘게 피어 올랐을테지. 피로에 지친 내 몸은 그녀의 머리통을 끌어안으며 쓰러졌고 나는 다시한번 스스로 깊은 다짐을 새겼다. 낯선 땅에서 그녀를 만나 서로의 광기를 품은것은 행운이었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은것은 더더욱 행운이었다. 그리고 간신히 건진 목숨 만

큼이나 더욱 값진것은 가혹하지만 현실을 마주한 것이었다.

“나쉬메누 어머니의 품에서 고이 잠드려무나.”

그렇지만 나의 추모는 그리 길지 못했다. 시선이 느껴져 나는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기자 그곳에는 남루한 차림으로 쭈뼛거리며 이쪽을 바라보는 어린 아벨의 자손이 있었다. 어떻게 저것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길을 잃은것처럼 보였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의 영혼은 금방이라도 깨져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것 같이 보였다. 무의식적으로 쏟아내는 나의 광기에도 잡아먹히지 않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것은 억지로 미소를 쥐어짜더니 손을 내저으며 열심히 입을 뻐끔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지껄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의 쪼개어진 정신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온 기억이 라츠에 스며들었다.

“버려진 아이….”

내가 그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그것은 안타까움으로 일그러진 내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목만 덩그러이 남은 그것이 지었던 표정처럼 커다란 눈을 일렁이며 다시금 어떻게든 미소를 지어보이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광기를 접어두고 고개를 쳐들어 아이의 웃음을 앗아가버릴 정도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비관하듯 허탈하게 바라보았다. 사정도 모른채

맑고 고운 하늘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그것이 나의 사선에 들어오더니 날카롭게 곤두선 나의 갈기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광기는 살의나 적의가 담겨있지 않은 움직임에 이렇게나 무방비 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낯선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의 움직임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라츠의 사선에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요행 따위로 치부할 수 없었다.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나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라츠가 그것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뜻했기에 문득 그것의 존재에 의문이 생겼다.

“아무리 단명하는 종이지만 이것은 생에 미련따위 없는건가?”

본질적 의문과 그것의 순진함에 부아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익숙한 냄새와 함께 그립고도 따스한 바람이 일렁였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낯선 존재가 나의 갈기는 매만지는 손을 토막내지 않았으니 오히려 내 손을 그것의 머리에 살포시 쓰다듬었다. 차가운 손길이 따스한 그것의 머리에 닿으니 그것은 조금 놀라는 듯 하다가 이내 편안한 듯 마다하지 않았다. 나도 내 행동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손을 내뺐다. 그러더니 그것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품에 손을 쑤셔박고는 얇고 날카로운 바늘을 꺼내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경계심에 어금니를 드러냈음에도 그것은 저항없이 널브러진 내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더니만 바늘을 자신의

몸 이곳저곳에 쿡쿡 찌르는 시늉을 했다. 적어도 그것에 적대감이나 살의가 담겨있지 않았기에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뚱이를 그것에게 맡겼다. 그렇게 오랜동안 여러개의 바늘이 나의 살갗을 찔렀고 검은 피가 이따금 새어나오자 그것의 입가에 미소가 나왔다.

“…복수에 집착하는 짐승을 살리려고 애쓰는 이유는 뭘까?”

작은 몸에 맞지않는 커다랗고 요란스러운 장식이 새겨져있는 옷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오래되었는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모습과는 반대로 어울리지않는 천진난만한 그것의 모습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새어나왔다. 긴장하고 있었던 그것도 경계가 어느정도 풀렸는지 신이나서 바늘을 이리저리 매만지면서 그것을 내게 설명하려는듯 알 수 없는 말을 재잘거렸다. 한순간 잠시 꿈을 꾸듯 기쁘다가도 마음 한켠이 시려왔다. 정작 광기에 빠진 자매를 구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녀의 시체를 뒤로하고 본지 얼마 되지않는 다른 종의 어린 새끼를 마치 내 새끼인 양 흐뭇하게 받아주고있는 이중적인 내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렇게 몸에 꽂힌 바늘을 내팽개치고 바닥에 고꾸라져 헛구역질을 연신 뱉어내면서 고통속에 몸부림쳤다. 검은피 때문인지 그동안 누적된 피로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리며 이성의 끈이 달아날 것 같아 불현듯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순간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었던 존재를 다시 잃을 수 있을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모순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때 고난은 다시금 쉬지않고 나를 찾아왔다. 또 다시 주위에서는 전투의 고함과 피와 살이 튀고 찢겨지는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사선의 경계에서 돌아오지 못할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복수와 광기를 뒤집어쓴 지난날과 그리웠던 얼굴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조차 소중했던 그 얼굴 마저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아 목이 메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난 해준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적어도 바닥을 기어다니지 않고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여유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는 와중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있는 어린 아벨의 자손은 어째서인지 내 주변을 정신사납게 서성대고 있었다. 한 순간이라도 내 이성을 붙잡아준 낯선 그것에게 소리쳐 보지만 입 밖으로는 끙끙 앓는 소리밖에 토해내지 못했다. 마침내 불안했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더니 마침내 피와 살이 튀는 풍경이 눈 앞으로 펼쳐졌다. 그러자 그 어린 아벨의 자손은 내 앞으로 뛰쳐 나오더니 그 작은 몸으로 그것들을 막으려하고 있었다. 녀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은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스스로 아벨의 자손 즉 인간이라 불리는것. 그것들 중에서도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것이 오랜동안 모성애 라츠를

품고 그것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나보다 이타적 보호 본능을 더욱 강하게 품고 있었기에 놀라움과 동시에 수치스러웠다.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은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이루어졌고 종족은 다르지만 그것을 명백히 나를 어떻게든 지키려하고 있었다. 나는 이마를 바닥에 연신 쳐박으면서 이빨이 부서지도록 거세게 깨물었다. 사죄와 뇌우침. 길고 긴 시간끝에 닿은 깨달음이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에 어린것은 놀라 고개를 돌려 나를 돌아보았고 흐드러지는 피는 붉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피로했지만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등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다.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에서는 희뿌연 안개가 끼더니 이내 떨어지는 눈물과 시야가 맑아졌다. 그렇게 나는 머리채를 붙잡으며 해방감에 조용히 끅끅대며 울었다.

“…엄마.”

그러자 짧은 그 말을 귀에 담은 그것은 오랜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는지 돌아서서 나의 어깨를 부여잡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인내하고있던 감정은 폭포처럼 터져나오며 마음에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 했다. 신수 전쟁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나 절규 그리고 울음 따위는 비일비재했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것을 토해낸것은 적어도 이 곳에서는 이것과 나 뿐이었을 것이다. 주위에서 피와 살이 쏟아짐에도 그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고있는 나약한

존재를 인지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것들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그 놈이 무언가를 입에 담은순간 백색의 끈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더니 그것들은 저항없이 묶여버렸고 고치처럼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 눈부신 빛에 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이를 뿌득거리며 지난날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 백색의 끈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분명 아벨의 현신과 그 간악한것이 남기고간 빛의 찌꺼기와도 같이 눈부신 빛이었지만 그것에서는 다른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조심스럽게 다그치는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렇기에 뒤틀린 빛처럼 눈이 부시지만 어째서인지 불쾌하지 않았기에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들기는해도 어찌되었든 그것 덕분에 나는 또다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순결한 라츠로 목숨을 빌어먹으며 살아왔지만 복수로 그 이름을 더럽혔으니 확실히 편히 죽을수는 없는 모양이구나.”

조금은 회의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얼굴에는 웃음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고 혈색이 되돌아왔다. 여전히 눈에는 검게 탁해진 얼룩이 스멀거리며 남아있었지만 어린 아벨의 자손은 긴장이 풀렸는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씨익 웃고는 맥없이 바닥에 자빠졌다. 자신이 해야할 책무를 다한듯 당당하게 제 안방처럼 널브러져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딱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것에게 다가가 그 옆에 조용히 앉고는

한 숨을 돌렸다. 여기저기 기분 나쁜 빛무리가 일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참이나 그것을 손으로 바쁘게 털어내느라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지만 그래도 그 잠깐의 여유는 참으로 달콤한 것이었다. 이제사 이것이 무슨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이곳까지 발걸음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나는 나지막이 그것의 귓가에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복수의 수렁에 떨어진 자 만큼이나 인내하고 감당하는 이 역시나 편하게 죽을 수 없으니 그것은 너도나도 마찬가지라. 안타깝게도 복수는 그저 인내하는 것으로 막을 수 없단다, 얘야.”

그것은 자빠져 골아 떨어졌기에 당연히 그것을 알아들을리도 없겠지만 이 놈을 위해서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여 갈길을 잃고 방황하는 복수가 없다면 복수의 대상을 만들어주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다시금 복수심을 태우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나서 나쉬메누 품에서 자매들이 여유로이 뛰노는것을 즐거이 지켜보면 되는거다. 다시한번 그것을 뇌리에 되새기고 조용히 고동치는 세트의 심장소리를 귀에 담았다. 그것은 다시금 눈을 뜰테니 이번에야말로 그것의 심장을 꿰뚫는

“…엄마.”

그것은 작은 입으로 무언가를 연신 중얼거렸고 나는 그 단 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금 더 쉬기로 했다. 운명의 갈림길에는 여전히 고통에 절규하는 비명과 동시에 세트의 고동소리를 귀에 담으면서도 사선을 넘나드는 환희의 찬가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나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은 소름끼치도록 고요하고 차분했다.

“바브욘은?”

“죽었다.”

“그렇구나.”

“그런 표정하지 마라. 그는 발루의 어느 누구도 감히 누리지 못하여 상상만 했던대로 늙어서 죽었다.”

“내게 재앙을 물려주고 편하게 죽었다.”

피오르 전개 함께 피를 뿌려줄게

“이게 이전에 말한 내게 다가올 순간인가?”

“그래.”

“친구의 우리에게도 친구야.”

“돌아가야지. 따뜻한 그곳으로.”

“윈뒤르강 협곡이 따듯하다고? 돌아버린거냐?”

“강한것은 바라보기 나름이야.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해.”

“똑같은 놈들이 몇마리 달려들어봐야 다를게 없을텐데?”

“

아비를 잃은 트라우마가 작용

그러자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림

조약돌 목걸이를 한 꼬마가 서 있음

“목소리가 들렸구나.”

“그런가 일순 아아 아비의 목소리가 닿았던거 같기도 하고.”

“축복받았구나. 행복한 아이야.”

“그런가. 나는 행복했구나. 아니 기쁨은 지금부터다. 내가 재앙이되어 이 땅에 설 것이다.”

“그래. 원하는걸 한다면 그걸로 된거야.”

“바글바글하잖아. 그건 언제 낳은거냐?”

“어설픈 농담은 여전하네. 나의 자식들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야.”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지.”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말을 듣자 헛웃음이 나왔다.

“그러냐. 그딴걸 주렁주렁 달고다닌적이 없어서 말이다.”

“생각보다 짐이 될때도 있지만 마음은 편해.”

“마음이 편한 것이라….”

“마음이 편했던적이 없어? 잠시 안락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라던가.”

“눈을 감은 순간조차 피부의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다음 해를 볼 수 없었으니 안락과는 거리가 있지.”

“발루의 하얀악마는 실존했구나. 대체 어떤 삶을 살아 가는거야?”

나는 기뻐서 웃었고 천둥과 더불어 살을 베는듯한 눈보라가 빗발쳤다.

“상관없다. 하지만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일깨우는 경종이다!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고 경배하면 그 두려움은 일순 모습을 변하게하여 넘실대는 재앙을 타고다니는 ㅇㅇㅇ가 될지니.”

“예쁘다.”

“뭔 개소리야?”

하나가 멍하니 찌르르 하더니 코피를 쏟아내며 말한다.

“얼굴만 예쁜게 아니라 방금 한 말은 호수처럼 큰 예쁜 마음에서 비춰지는 잘 어우러진 시 같아.”

“그럼 셀라는 내 친구니까!”

“하얀 악마 따위가 아니야. 사나운 여신님이야.”

“메사 피네씨 맞으신지요?”

“어디서 풋내가 난다고 했더니 베르생의 사제분들이시군. 예, 그런데요?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베르생의 사제? 아닙니다. 나는 그저 생존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빛을 등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지요. 이미 베르생의 이름을 벗어던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빛에 갈가리 찢겨진 동료들 사이에서 비릿한 자비를 입고 간신히 살아남은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부들거리면서 이가 부서질 것 처럼 뿌득거렸고 이윽고 입가에 피가 새어나왔다.

“그래요. 나는 빛이 밉습니다.”

망가진 아벨의 빛 덕분이다. 그것에 질려버린 것들은 언제나 안락한 공허의 품에 안기고 그의 달콤한 속삭임을 원한다.

그래 이거다. 절망과 허무

공허가 얼마나 그들을 풍만하게 채워줄지 가늠도 못할거다.

공허의 아름다움에 취한 것들과 달리 빛이 미워서 어둠을 맞이하는 이들이야말로 카라하스의 마녀가 탄생한 이유에 닿아있다.

내가 당신을 새로 빚어줄게요. 그것은 공허의 부산물과 겹치면서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뒤틀리게 만들거예요. 아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의 외형이 되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스란히 남게 될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여. 나는 당신에게 자비 대신 빛을 향한 불신과 혐오 그리고 타인의 달콤한 절망 뒤이어 그대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들을 향한 아낌없는 증오를 드릴게요."

"아아, 그렇군요. 나에게 비로소 천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이지 눈이 부시게 어두웁네요."

그렇게 회한에 찬 얼굴로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은 크고 검은 공허에 휩싸여 몰아치고 있었다.

"타락은 변질과 모독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악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일 뿐이지요."

"굳이 공허의 창녀들과 얽히고 싶지 않지만 베르생의 품을 벗어난 천사의 꽁무니를 쫓고있는 마녀가 당신 맞죠?"

"응. 조금 값비싼 제물이 필요했거든."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어요.”

마참내 공허를 먹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라.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풍경이다. 이 카하낫의 은총을 가득 입은 개체들로 가득한 이곳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다.

“공허는 빈 곳이 아니야. 그것은 이곳 칼 파르다도 마찬가지야. 그저 이데아의 눈으로 담아내지 못할뿐 카하낫의 은총으로 심연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곳에는 눈에 담기만 하여도 정신이 찢겨나가는 존재들로 가득함이라. 그러하니 깨달음을 얻은 내가 이곳을 가득 채워보려 해.”

황혼 - 공허에 취하지않고 고향으로 귀환하며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움.

“카하낫의 은총이 칼 파르다에 범람하야 빈 곳은 메워지리라.”

“저런건 대체 너의 무엇을 걸고 계약한거야? 대가가 꽤 컸을텐데.”
“아, 저거? 계약이 아니라 지배한거야.”
“…대단하네.”

과거는 매번 다르게 서술되기에 멈추어 있지않아. 항상 유기적이지.

무얼 깨달은거야?

깨달았다니 원래 과거는 거기에 있었잖아?

“너희들 패거리는 이제 제법 명망있는 것들이야. 하수구 속에서 협잡질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제는 의뢰수주가 아니라 너희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과 그 권한이 생겼다는 말이다. 시궁창 쥐새끼들을 어디까지 햇살 아래로 끌어모을지는 네놈들한테 달린거라고.”

“하하! 똥통 단지 도깨비였냐?”

“불만있냐?”

“아니, 더없이 훌륭하기 그지없다. 세상 어느 누가 기꺼이 남의 똥받이를 하려 하겠느냐? 때마침 세상조차 더럽고 흉흉한 마당에 나랑 굿판 위에서 어디한번 신명나게 놀아 보자꾸나.”

“미친놈일세.”

“누구냐?”

“나 거지 얀초.”

“아 정계 싸움에서 멸문지화를 벗어나 길바닥 거지의 삶을 살기로 한 왕족의 핏줄이 아니요?”

“맞다요.”

“이상한 말투를 쓰네.”

나는 대충 계약협정 종이에 서명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서명이라고 해봐야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휘갈긴 것이지만 말이다. 당연히 아벨의 가지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겠지만 공식적인 서류와 다른 국가들의 승인 그리고 월츠의 뒷배를 아득빠득 끌어모아서 정식적인 중립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였다. 나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히죽거리며 말했다.

“물론이지. 모자라다 싶으면 나중에 갚도록 해.”

“너는 국제 사회간의 관계마저도 쇼 비즈니스로 만드는구나.”

“국제 사회든 어디든 관계에서 필요한건 신용과 신뢰 그리고 약간의 쇼라고 생각해. 사실 다른건 내가 잘 모르거든.”

“굉장히 믿음직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 하긴 자신이 잘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것만큼 자신감 있는것도 없겠지만.”

“운이 좋아서 그것이 통했을 뿐이야.”

“운이라고? 뻔뻔하긴.”

“그게 가장 재밌는 연극의 하이라이트 아니야?”

“하하, 졌다 졌어.”
이 자리에 격식따위는 없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테이블 위에 알포데 한잔과 고급 탄환이 심어져있는 권총 한 자루를 앞에 두고 나는 아그발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바쁘니까 체포 영장부터 발부하세요.”
“어디서 주워 들은건 있는 모양이지만 너의 앞에 선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온 민중의 지팡이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아이고, 씨발. 빚을 졌구나. 그래요. 무슨 일인지나 들어봅시다.”
“독립 국가로 거듭난걸 축하한대 범죄자 새끼들아.”
“시작이 좋군요. 이제야 좀 후련해 지셨습니까? 그래서 용건은?”
“치외법권에서 놀던 깡패새끼들이 법이 필요할테니 치안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죠?”
“맞는 말입니다만 정부의 개새끼들을 키우지 않는 주의라서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 이래서 법의 맛을 모르는 것들과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거라고 예상은 했다만 심각하네.”
“혀가 살벌하니 잘라서 튀겨 먹어야겠다.”
“미친 소리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딴따라 새끼처럼 날뛸거냐? 시궁창

왕 노릇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밖에서 빛을 마주하는 이들 사이에서까지 먹힐거라고 생각하지마.”

“방금은 먹혔잖아.”

“그걸로 통하지 않을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방안은?”

“빨라서 좋군. 법의안 결의 그리고 치안을 외부 수주로 두는것.”

“충성하지 않는 문지기는 필요없는데?”

“그것도 범죄자들의 손에 의해 설립된 국가라면 더더욱 가능하지.”

“아니 미친년아 필요가 없다니까? 외부인을 왜 고용해 미쳤음?”

“하 씨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대냐. 한 마디로 신 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거다.”

“경찰이랑? 미친거임? 너는 그럼 범죄자랑 손을 잡겠다는거냐?”

“마인드가 썩었네. 네놈들은 범죄자 집단이야?”

“아차, 아니지. 중립의 독립 국가구나.”

“무엇을 주로하는 국가지?”

“의뢰.”

“너의 우스꽝스러운 쇼로 인기가 있는 시점에서 그것만큼 훌륭한 광고는 없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할테지.”

“너는 근데 왜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는거임?”

“쓸모가 있거든 근데 믿지는 못함. 그래서 그냥 눈 앞에 두고 감시나 하려고. 필요할때 발라먹는 갸꿀딱 야르임 너네는 딱 그정도라고.”

“독하다 독해 씨빠꺼”

우물에서 왕 노릇을 해봐야 그 밖에서 ”

『 상투스 』

세력 상징은 월계수와 성배.



“아벨이여, 당신의 충실한 종이 여기 있나니,

부디 만인의 기도를 들으사 빛으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 겸손의 마비오나 조엘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겸손의 마비오나. 아벨론의 명목을 계승하는 종교의 국가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아벨의 자손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동시에 상징적인 존재로 찬양 받아왔다. 아벨과 그의 자손들 사이를 잇는 구도자들 혹은 신의 사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져왔다. 갖은 세례와 수많은 시험들을 거치고 난 뒤에 엄격하게 선별된 이들은 한 치의 의심없이 상투스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믿음 안에 빛이 아벨의 권능을 내리어 그것을 이 땅에 자리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앞선 아홉의 교황은 그에 걸맞는 선을 행하며 반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였으나 후대에 이들의 뒤를 이를만한 교황이 나타나지 않자 공석으로 두고있다. 또한, 더 많은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각지에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거나 잠재력을 보이는 자들을 배출하고자 힘쓰고 있다. 불경한 존재들을 정화시켜 순수한 영혼으로 축출하여 아벨을 이데아에 강림시키기 위해서‘빛의 성배’라 부르는 성물이 상투스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채워질 때 구원에 이 땅에 내려 앉는다고 알려져있다. 상투스 내 사제들은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보이지는 않지만 의외로 엄격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위계급은‘아버지’라고 불리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넘치는 존경과 신임 그리고 영광을 얻는다. 아벨의 권능에 힘입어 다양한 빛의 은총과 아벨의 축복을 구현화시켜 이데아의 불경한 존재들과 맞선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때로는 빛이 없어도 스스로 어둠을 헤치며 불경한 자를 처

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자들도 더러있기에 자신의 신변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신체능력을 겸비한 자들도 있었다. 최종적인 목표는 칠선의 실행과 죄를 불문하고 모든 아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 겸손의 마비오나 』

장엄한 아벨론을 설립한 초대의 교황은 '7선의 키리에타 에산' 이라고 불리우며 영원의 전쟁에서 델레놋 1세를 도와 아벨의 자손의 승리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불경한 것들로부터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기 위해 '아벨의 품' 이라고 하는 장엄한 방벽을 세우는 데에도 일조했으며 퀼로른의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아벨이 제시한 7대의 주선 가운데 일곱가지의 선을 모두 행하였던 유일한 자이며, 이를 가지고 아벨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더러 시험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을 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에도 힘썼다. 영원의 전쟁이 종식된 뒤에 퀼로른은 안정되고 모든 체제와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키리에타는 국왕 델레놋을 알현하여 불안한 이들을 달래기 위한 기구로 아벨론의 창설을 요청한다. 7선의 키리에타가 영원의 전쟁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에 사소한 마찰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델레놋 1세는 망설임없이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아벨론은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퀼로른이 몰락

의 길에 접어들어가자 이와 동시에 평화에 찌든 아벨론도 신성한 빛을 함께 잃어가는 듯 보였다. 쇠퇴하는 아벨론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여긴 7선의 키리에타는 자신을 탓하며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나 '겸손의 마비오나'를 2대의 교황으로 추대한다. 마비오나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며 혼란에 빠져있는 자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전 교황 '키리에타'의 위엄이나 유명세는 본래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 하였기에 후대의 교황을 이르러 '태양 아래 촛불'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보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 의견마저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의 후광에 뒤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노력과 땀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 그는 '겸손의 마비오나'라고 칭송받으며 어느새 수 많은 이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일련의 사건 이후에 그는 아벨론의 정신적 명목을 잇는 국가를 창설하고자 하니, '빛의 사자'라는 뜻이라는 '상투스'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벨의 자손들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다. 아벨이 전하려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향한 믿음을 주고자 했다. 이후로 아벨론의 쇠퇴로 길을 잃어버린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 키리에타 에산이 창립했던 아벨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며 현재는 원로회의 위치에서 상투스를 조력하거나 판단에 조언을 건네주는 입장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아벨론의 역할은 상투스가 완전히 도맡아 하게되며 완벽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아벨론이라는 이름은 아벨의 품 안에 새로이 창설

되는 여타의 국가들을 아울러 부름으로써 그저 그 일대를 아우르는 명칭이나 과거의 역사가 남긴 흔적 정도로 남겨지게 되었다.

『 델레놋 3세의 계산착오와 정권의 교체 』

델레놋 3세는 부귀영화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아벨론의 의회단을 회유하여 아벨의 모든 자손들에게서 생존본능과 투쟁심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강구한다. 그에 대한 결과로 아벨의 방벽 안의 모든 이들은 퀼로른에게 더욱 의지할 것이라 여기게 될 것이고 여러 기관들의 창설로 불안했던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굳게 되리라 예상했던 것이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들여 델레놋 3세는 방벽안 아벨의 자손들의 생존본능과 투쟁심을 빼앗았고 그들은 더이상 위협적인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려하지 않았고 점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힘에 의지하게되자 자연스럽게 델레놋 3세는 다루기 쉬워진 자신들의 백성을 조금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이용했다. 이것에 충분히 만족하던 델레놋 3세는 유흥과 향락을 즐기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점점 폭력성을 띄게되며 결국엔 폭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민심이 들끓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혁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아벨론과 그것에 기생하고 있던 무리들은 더더욱 설자리가 없어진다. 영원의 전쟁속에서 보여주었던 영광스러운 빛은 점차 바래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쇠퇴의 절차를 밟기 시작한 퀼로른은 델레놋 3세의 죽음으로 그 끝을 고한다. 물론, 아벨론마저 다른 이들로부터 외

면을 받기 시작하던 가운데 상투스가 깨어나 혼란에 빠진 이들을 보듬으며 믿음이 충만한 독보적인 국가로써 자리매김 하게 된다.

『 권능의 잔 』

아벨의 권능이 담긴 그릇. 그 어떠한 주선조차 보이지 못했던 아홉번째 교황의 이후로 성령이 충만했던 교황을 발탁해내지 못하자 쇠퇴해가는 상투스의 아벨의 은총을 증폭시키는 성물로써 자리하게 된다. 재료로는 순수한 영혼이 바치는 헌신과 기도 그리고 깊은 믿음과 신앙이다. 이는 상투스의 고위사제들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며, 권능의 잔이 넘칠 때 아벨의 현신이 직접 이 땅에 현신하여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굳은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잔이 채워지고 비워질 때마다, 이데아에는 크고 작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불경한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작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며 이들은 그것을 이르러 헌신이라 부르게 했다.

『 불경한 것들을 지우는 언령 』

‘키리에타, 마비오나, 세르파, 크라테르, 레비에, 피오라, 이르기스, 파라크, 세라하.’

이 언령은 반신이라고도 여기어지는 상투스의 9대 교황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읊는 것으로써, 사특한 것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구원을

얻으려는 기도이자 빛에 대한 헌신에 대한 증명이며, 뜻이 뜻되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 언령을 입에 담아 직접적으로 사특한 것들을 몰아낼 수 없으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이며 마음의 안정을 위함이다. 후대에 상투스의 성서에 기록된 언령의 첨부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국 퀼로른의 빛은 땅에 떨어지고 아벨론의 명망은 날이 갈수록 두터워 지매 교황 키리에타는 빛의 기둥 아벨론을 창설하여 아벨의 자손을 빛으로 이끄노라. 두번째로 마비오나가 그 뒤를 잇고, 세번째로 세르파가 그 뒤를 잇고, 네번째로 크라테르가 그 뒤를 잇고, 다섯번째로 레비에가 그 뒤를 잇고, 여섯번째로 피오라가 그 뒤를 잇고, 일곱번째로 이르기스가 그 뒤를 잇고, 여덟번째로 파라크가 그 뒤를 잇고, 아홉번째로 세라하가 그 뒤를 이어오매, 아벨의 자손들은 그 세대를 거치어 가며 아홉의 교황을 섬기었나니, 이 간택 받은 무리들은 아벨의 은총을 입으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려진 어둠의 땅에서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어 왔노라. 그 이름은 영원의 전쟁과 그 이후의 사투에서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를 몰아내는 신성한 언령이요 간증이 될 따름이니,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악으로부터 구하게 될 칼이자 방패와도 같음이라. 비록 아홉의 교황은 신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아니었으나 충만한 권능의 빛으로 말미암아 신의 경지에 이른 반신과 다름없는 자들이나니, 어느 누구도 이들의 권능을 의심치 아니하였나니 모두가 그들앞에 무릎

꿇고 아벨의 목동이 되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아훕의 교황들도 기꺼이 그들의 허리를 굽히어 이들을 살피고 또 돌보셨도다.'

『 무신론자의 고백 중 』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대여. 지금 이 땅에 깃든 모든 것들은 신을 향해 무릎꿇고 열렬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오랜동안 발시아가 깊은 믿음으로 일구어낸 씨앗이다.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 곁에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그리 특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볼 수조차 없고 잡으려해도 그리할 수 없다. 그러니,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해써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말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난 눈물을 흘렸고,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절망감이었는가. 그는 나와 말하는동안 나를 설득하려는 태도 따위는 결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져있지 않았다. 우리들 인간이 바닥을 기는 벌레를 보는것과는 같이 말이다. 그는 굳이 내게 믿음을 강요하려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가치도 느낄 수 없었던 이유였을테지.

『 본말이 전도된 구원의 명제에 한탄하는 사제의 편지 중 』

아벨의 자손들과 아벨론의 사회에서는 어느샌가 구원은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는 전제가 깊숙이 자리하는 듯 했다. 희생이 없는 구원은 정녕

없다는 것인가? 그렇게 구원을 명목으로 희생된 자들의 넋은 어찌된단 말인가? 구원을 위하여 희생을 했으니 그것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묻나니, 그토록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함을 망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질 용기조차 없는것인가? 상투스의 사제로 바라본 입장에서는 아벨론이 그동안 아벨의 자손에게 강요하던 헌신에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들은 곁에서 아벨의 권능 아래 구원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선 이들을 직접 눈에 담았고 이로인해 기적을 하릴없이 바랄 수 밖에 없도록 의존적인 상태로 변모한 것이다.

『 찢겨진 기록, 전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누구인가? 』

아벨이 죽은 뒤 남겨진 자손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과 권능의 힘을 한껏 이끌어내어 카인의 핏줄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전쟁을 일으킨다. 영원의 전쟁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벨이 카인을 향해 느낀 사소한 감정이 불씨가 되었다 주장하는 자들도 많아졌다. 다만, 이는 상투스를 포함하여 많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치부나 다름없었기에 이 사실을 굳이 외부에 드러내려 하지않았다.

『 교황 세라하의 집필집, ‘헌신과 희생 사이’ 』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구원 때문일 테지만 아벨의 권능의 빛이 이미 바래져 버린 아벨의 자손들은 의욕조차 잃어가고 있다. 이들이 싸우는 이

유는 희망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많은 이들이 언젠가는 다 죽을 운명이라 여기고 있다. 단지 얼마나 늦게 죽느냐일 뿐인 투쟁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생기와 활력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상투스로써 다해야할 사명이다.

『 헌신에 대한 오해 』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의 징수는 국민의 안녕과 국가기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정당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국 상투스의 세금징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각을 보이는 자들의 수가 상당하다. 종교라는 수단으로 사람의 심신을 치유하고 안정케할 뿐만 아니라 불경한 것들까지 정화하는 헌신과 자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호하는 선행과 별개로 세금의 징수를 악행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빚을 짊어진 자로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니 세금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풍조가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구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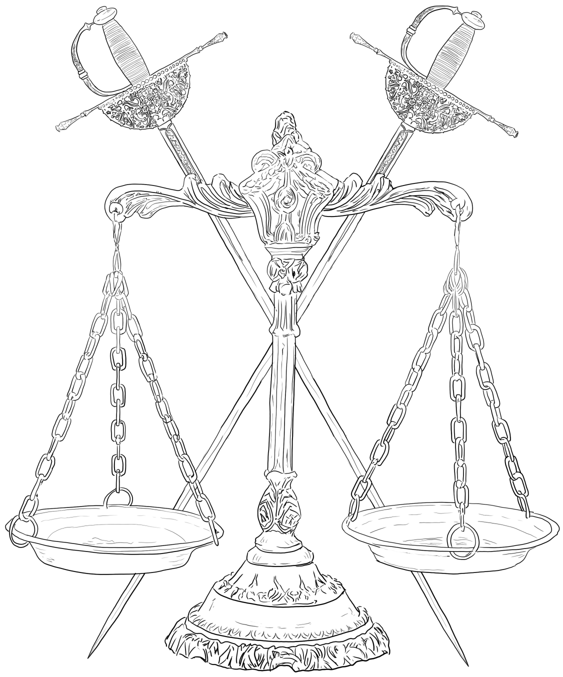
『 기도하는 자들을 비웃는 것들에 대한 일침 』

상투스의 인간들은 그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살아간다면서 방벽 밖에 있는 자들은 이들의 간절한 믿음을 향해 손가락질 하며 비웃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발판삼아 내일을 살아갈 양분이 된

다는 것도 사실이니 무언가에 기대어 사는것은 다른 어떤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내색하진 않지만 죽음을 앞둔 인간은 무언가를 향하여 대화를 건넨다. 그것이 신이라면 신이고 과거의 추억이라면 추억이고, 또 그것이 불경한 것이됐든, 그들이 여지껏 믿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두손을 마주하며 믿고 기도하며 희망을 품고 내일로 살아가는 그 성실한 모습에 비웃음을 건넬 것이 아니라, 성실한 모습에 존경을 보여야 할 따름이다. 그들은 그저 구원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작은 행동부터 모든것들이 작은 헌신이며 그 작은 움직임이 구원으로 향해가는 과정이다.

『 이르메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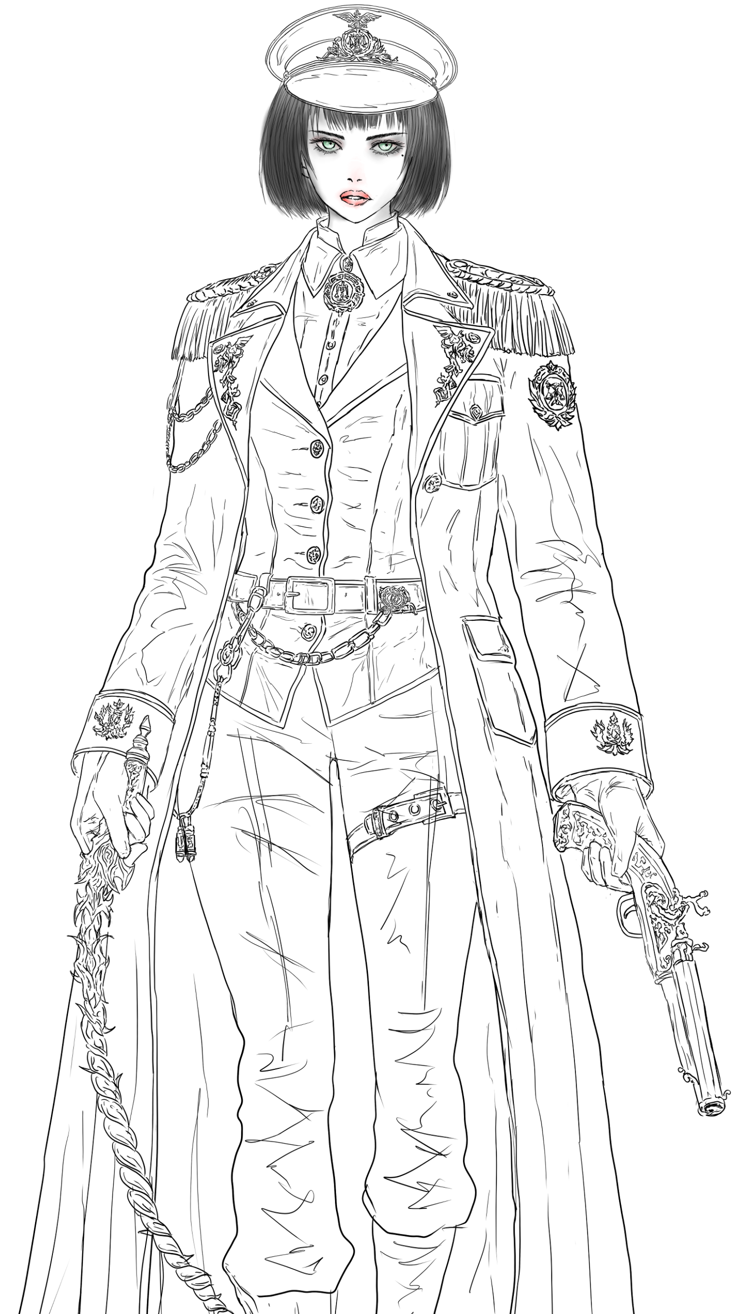
세력 상징은 칼과 심판의 저울.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확신을 주는 질서와 법도라.”

— 의로운 이, 펠로른 그라도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펠로른 그라도. 상투스에 뒤이어 두번째로 아벨의 방벽 내에 창립된 국가로써 불경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인두겁을 쓴 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내부의 질서를 다잡기 위해 설립되었고 정치 행정 및 사법 등 아벨론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후에 이르러 독립적인 법치국가로 자리매김한다. 이들이 악에 맞서는 대의명분은 상투스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정화의 명목은 비슷하나 그것은 두번 다시는 무고한 자들 사이에 자리하지 못하게 존재를 지워버리는 소멸과 척살이라는 점에 있다. 고문기구의 해방과 모든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불꽃을 다루며, 불꽃의 대상은 죄 지은 자, 또는 균형을 어지럽히는 자 모두가 그 대상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균형을 수호하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빗대어 검은 제복을 두른 심판관이라고 부른다. 이런 기구가 수립된 뒤로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범죄의 발생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치안의 안정화는 정치와 행정체계를 더욱 확고히 수립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신앙으로 다져진 아벨론이 비로소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끔 원조한 국가조직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르메스 법관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아벨론의 세 국가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지녀야 함은 마땅한 수순이기에 대부분이 조기교육을 통

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유능하고 특출난 존재들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숨쉬는 불경한 자들을 남김없이 태워 죽이는 것이며, 다만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 이데아에 안정과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 의미 또는 상징적인 행위나 절차에 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하기관을 두어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나 작은 도시국가 심지어 다른 국가 내부에 자신들의 대사관을 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들이 이미 성공을 거둔 피와 잿더미 위에 쓴 행정의 기반을 이데아에 퍼뜨려 만국공통의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펠로른 그라도 』

퀼로른의 몰락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상투스 하나로 아벨론의 모든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이들 사이에 의로운 사제라고 불리는 '펠로른 그라도'가 나서며 업무를 분류하고 상투스의 힘이 닿지 않는 일마저 당당히 도맡아 하기를 자처한다. 그러나, 펠로른 휘하의 부서는 상투스 예하부대에 불과했다. 때문에 필요한 지시 및 보고 체계가 비교적 더진 탓에 실질적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오랜 시간을 상투스 아래에서 이어온 그는 이 사실을 상투스와 아벨론 원로회에 청을 올렸다. 그것은 바로 집행하는 자들의 무리와 독자적인 권력을 지닌 기관의 설립이었다. 초기에는 키리에타를 제외한 상투스와 대다수 원로원의 의견이 엇갈리는 듯 했지만, 3대의 교황이자 펠로른의 친우였던 '자선의 세르파'의

설득에 힘이 실리면서 독자적인 기구가 설립되지만, 초기에는 치안 정도의 업무만을 도맡아 하는 기구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펠로른은 행정과 사법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오랜 경험을 바탕을 토대로 하여 최초의 법령을 기록한 ‘바르샤딘’을 창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토대로 치안은 물론이고 공공질서와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깊은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펠로른은 자신들의 무리를 정의를 수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르메스’라 명명하였고, 아벨의 방벽 안에서 정식적인 국가로써 자리매김하게 된다. 또한, 모든 심판과 정의의 집행기록을 담은 판례 기록보관소를 ‘이르메시움’이라 부르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한 척도로 사용한다.

『 바르샤딘 법령 』

법전 바르샤딘의 기록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리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르메스는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야 그들의 곁에서 올곧은 정의와 평등 진리의 원칙에 따라 거짓없이 투명하도록 하라.

둘째, 이르메스의 법관들이 행하는 모든 판결들은 바르샤딘의 이름아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

셋째, 이르메스가 정의내린 법은 피보다 진하여 아벨론에 속해있는 그 어떠한 기구로도 흡집을 낼 수 없도록 하라.

넷째, 이르메스의 일곱의 대법관 사이에서 서로의 관할에 속한 판례에 간섭할 것을 금하도록 하라.
다섯째, 이르메스에 속한 법관 어느 누구라도 일곱의 대법관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르샤딘에 새겨진 율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라.
이상 다섯가지 헌법은 바르샤딘의 첫장에 거대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이니, 이 바르샤딘의 기반에 깔려있는 다섯가지의 기초적 헌법이라 칭하며 모든 대법관은 이를 읊고 대법관에 입장한다. 그리고 오랜동안 이 헌법을 지키고 관철해나가기 위해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함을 잊지 않는 것은 당연한 철칙으로 여긴다.

『 집행 』

자선의 세르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검은 사제 펠로른은 아벨의 자손이 그저 아벨의 은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혼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여겼으니 이는 자선. 바로 자비를 행한다는 것이었다. 그 행하는 자비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뉘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은 균형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심판의 필요성을 통감한다. 아벨의 은총으로 시작한 입법과 사법, 행정 이 모든 절차들이 상투스가 해왔던 일들과는 그야말로 상반되는 이념이었다. 상투스가 사특한 것들의 죄를 사하는 정화의 개념이라면, 이르메스의 정화는 처벌이 새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러하기에, 아벨의 은총은 점점 시들어갔지만, 이르메스가

오랜시간 쌓아온 정의를 관철해오며 저들만의 독자적인 힘을 키워오게 되었다. 정의는 불굴의 힘을 만들어내니, 그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고 굴하지 않는 저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 땅에 끌어낸 힘이었다. 아벨의 권능을 기적이라 추앙하는 자들 조차도 이르메스가 고안해낸 힘을 차마 기적이라 마저 부르지 못해 입을모아 정의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이는 정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둑하고 음울했다. 정의는 불꽃과 재, 연기, 비명을 자아내는 고문의 도구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불러낼 때, 굳은 믿음이 없으면 자신조차 불길에 휩싸이기 때문에 심판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만 했다.

『 심판하는 자 』

정의라는 것이 이름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저 땅바닥을 구르는 먼지나 다름없다. 그것은 집행하는 자들이 있음에 비로소 그 이름의 값어치를 다하는 것이다. 의를 다하고 균형을 수호하며 집행하는 자가 있음에 그 효력을 지니는 것이기에 이들의 가치관은 절대 흔들려서 안된다. 법에 예외를 두면 그 틈새로 혼란과 의심의 싹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르메스의 대법관들은 육체적인 단련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항상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키고 있다. 인륜적, 도덕적 관념은 시시각각 변하기 나름이고, 시대에 따라서 정의라는 이름은 그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르메시움 깊은 서고에 가득한 무수한 판례를 근거하여 심판을 이룬다. 행여 판결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경우가 따를 수 있는데 이에 죄책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을 결코 드러내서도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로 이르메스 심판관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이유로 상당한 중압감과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도 평범한 법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한다.

『 펠로른 그라도의 저서 '소속감' 중 』

'조금이라도 더 거대한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옳은 것이고, 작고 초라한 곳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그른 것인가? 행여 작은 곳에서라도 제 사명을 다한다면 그것은 소속감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속해 있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가? 거대한 품 속에 숨어 좁은 곳에 자리한 이를 폄하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는 다른 이들의 위에 서서 정의를 집행하고 심판하는 자가 오만에 빠져 공명정대함을 그르칠 수 있기에 자신을 항상 다그치고, 자신의 정의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이 이르메스에 소속되어 있다 한들 자신들이 언제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말이다.

『 고인 물과 흐르는 물 』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음에도 내려진 판결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자들을 차마 죽이지 못한 이르메스의 법관들은 배제된다. 그리고 상투스 원

로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그들의 죽음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더러 있다. 그것은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들을 죽여야만 한다는 추한 민낱을 드러내게 한다. 허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 부조리함을 타파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있으니, 세상에 마땅히 죽어야하는 존재는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며, 어린 세대의 법관들은 오랜동안 비르샤딘의 뒤에서 숨어 목숨을 저울질하는 겁쟁이들이라 조롱하기도 한다.

『 다른이의 위에 서야만 하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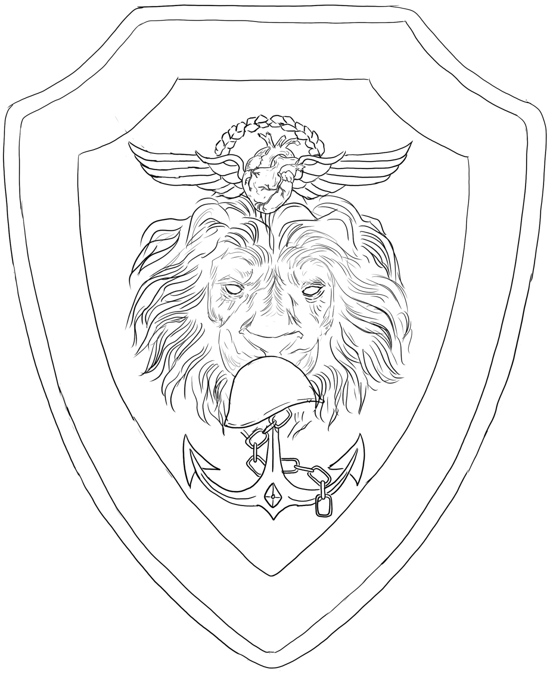
심판하는 자들의 공포정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펠로른이 이르기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민중의 광기요. 권력은 수많은 이들을 한데 묶지만 선동으로 일어난 자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광기에 불과할 뿐이라. 그러하기에 권력이 필요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만 하고, 그것은 인간다움을 유지시키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아무것도 없이 그저 힘으로 위에 서는 것은 독재일 따름이니 우리는 균형과 정의를 기반으로 감히 다른이의 위에 서 남을 심판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당연히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의 무게가 가벼울리 없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그의 말에 설득당한 자들은 이를 납득하며, 주위의 다른 이들마저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 마르나크 』

세력 상징은 방패와 사자 그리고 날개달린 심장.



“마르나크에 몸담은 이들을 강철의 심장이라 부르지 말라.

차마 그것을 지니지 못하기에 훌륭한 군인이다.”

— 잉그람 랑뒤르의 맹세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잉그람 랑뒤르. 아벨의 방벽 안에 세번째로 자리한 국가로써, 제복이라는 수의를 입고 총과 칼을 들어 아벨론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결의로 다져진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강철의 심장을 지닌 수호자들이다. 상투스와 이르메스와는 달리 그 어떠한 축복이나 은총도 입지 않고 오로지 혹독한 훈련과 오랜 전투를 기반으로 한 교범을 기반으로 온갖 상황에 대응한다. 은도금을 입힌 총과 칼을 제외하면 불경한 존재들과 정면으로 맞서기에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무나 먼 동경과 우상의 존재들인 상투스와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고 심판하며 처단하는 이르메스가 주는 위압감 때문인지 그 어떠한 능력없이도 많은 이들에게 있어 마르나크의 군인들과는 비교적 큰 거리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다만, 이들이 아벨의 은총을 입고있지 않은 이유로 저들의 능력까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된다. 마르나크의 군인들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된 노력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평범한 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혹독한 시간을 이겨내야만 전선에서 불경한 자들과 부딪히고도 정신이 붕괴되지 않을 뿐더러 목숨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락한 공국 퀼로른의 위대한 위상과 정신을 잇는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방의 수호와 불경한 존재들의 제거이다. 길드의 장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개인화기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하며,

기타 도시국가에서 개별의 초소를 두어 외각의 경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임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굳건한 정신으로 중무장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 마찰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존재들의 수가 늘어가며 상투스와 이르메스는 아벨의 방벽 수호에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만 했다. 임시방편으로 몰락한 공국 퀼로른의 정예근위대와 옛 영광을 따르는 일부 추종자들을 징집하게 되는데 초기의 이들도 이르메스와 마찬가지로 아벨론의 부속기관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로 많은 이들의 옛 공국 퀼로른의 영광이 재현되는 뜻깊은 집단이 창설되었다는 사실에 환호를 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르메스의 공포의 심판과 달리 불경한 존재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에 대한 찬사가 따르기 시작했고, 상투스와 이르메스는 새로이 떠오르는 이 집단을 경계하기에 이른다. 그저 아벨론의 부속기관으로 치부했던 기관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한 반발심은 예상보다 더욱 격했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했던 퀼로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개 징집된 무리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로 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이들 셋의 무리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듯했고, 이곳 저곳에서 빈번한 마찰을 겪기 시작한다. 이런 사소한 충돌이 우후

죽순으로 발발하는 것들을 시작으로 아벨의 품이자 아벨의 방벽 안에서 내부전쟁을 겪게 된다. 정권의 전복 혹은 비합법적 무력시위라고 주장하는 상투스와 이르메스에 대항하여 주권행사라고 울부짖는 자들 사이에서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다. 전쟁의 가운데 4대 교황 '근면의 크라테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몸소 전장의 한 가운데 서서 이들을 중재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 잉그람 랑뒤르 』

상투스 4대 교황 근면의 크라테르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못했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낳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전의 전란으로 약해진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방벽의 바깥에서 불경한 것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혼란의 가운데 근면의 크라테르의 앞에 선 자가 있는데 그는 스스로를 '잉그람 랑뒤르'라고 소개했으니, 그가 바로 몰락한 퀼로른과 마지막을 함께한 델레놋 3세의 남겨진 핏줄이었다. 그는 공국의 국왕마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광기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그가 남긴 마지막 핏줄로써 공국을 몰락에 이르게 했던 미친 왕의 피가 흐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 그는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었으나, 그와 함께하던 친우의 설득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 후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아벨론의 부름에 응해왔었다.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그는 큰 죄책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퀼로른의 몰락에 대한 책임

과 남은 소명을 다하려는 그의 진심어린 외침은 상투스의 4대 교황 근면의 크라테르를 감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게 된다. 처절하게 절규하듯 이어지는 그의 연설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가 전장 속에서 하나 둘 총칼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이들과 근면의 크라테르는 혼란의 틈 속에서 분쟁의 불씨를 꺼뜨린 그의 통솔력과 진실된 진의를 감안하여 상투스나 이르메스와도 같이 새로운 독립적인 국가의 승인을 허가해 주었으며 그를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으니, 모든 원로원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한다. 잉그람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기꺼이 따르며 뜻을 함께하는 무리들을 이르러 세상의 마지막 남은 방패라는 뜻의 '마르나크'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독립적인 국가임과 동시에 군사 국가임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로 아벨의 자손들의 방위와 아벨의 방벽 수호 및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임하게 된다. 안정화된 아벨의 방벽과 튼튼한 군사력과 끈끈한 결속력을 기반으로 불경한 것들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게 되면서 방벽 근처의 많은 이들은 이들을 향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 올비앙 비슈발츠 』

잉그람의 친우이자 그와 함께 한번도 전선에서 빠진적이 없던 전우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수 많은 이들의 처지와 공감하며 기꺼이 전선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잉그람의 모습과 완

전히 대비되는 인물이다.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넓은 시야로 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차가운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비되는 성격으로 항상 둘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지만 서로의 등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두터운 신뢰로 다져져있다. 대부분이 잉그람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올비앙 특유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그에게 매료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퀼로른의 몰락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잉그람을 깨우는 등,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준 인물이다. 마르나크가 창설되어 잉그람이 지도자도 올라서자 그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잉그람을 지도자로써 받들었다.

『 잉그람 랑뒤르를 깨운 올비앙 비슈발츠의 외침 』

‘기사의 맹약과 서약은 죽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저 목숨을 바침으로 끝내는 것은 패배자의 사고이다. 지금 그대가 죽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저 공국 기사 하나의 죽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로다. 퀼로른을 향한 맹세는 그저 입에 발린 말들이었고, 무책임함을 위한 맹세였는가? 스스로 미친 왕의 피가 몸에 흐르고 있음을 자책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리지 않으리다. 다만, 그것을 죽음이 아닌 삶으로 되갚으라. 그대의 목숨은 새로이 태어날 시대를 위한 것이라 여기고, 그저 비참하게 살아남으면서 두려움과 절망 앞에 당당히 맞서라. 계속 처절하게 도망치고 새로운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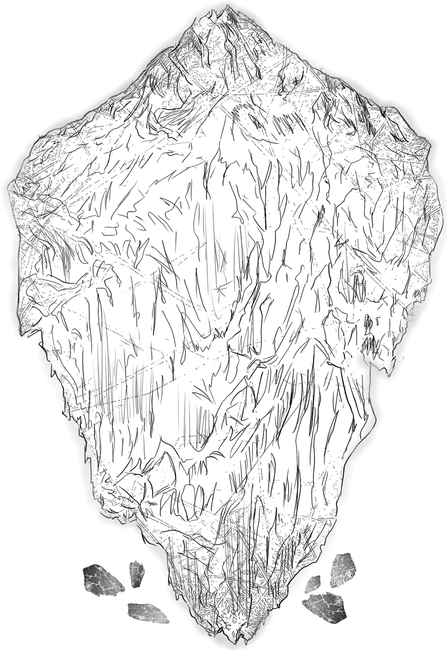
닦으며 그대가 옳았음을 증명하라. 그 외침을 두려워 말라. 그대가 미친왕과 다르다고 여긴다면 명예따위는 버리고 다른 이와 함께 살며 다시금 공국의 영광을 쓰라.’

『 교범 ‘마르나크의 참된 군인’ 중 』

군인은 명예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명예도 영광도 없는 피와 살만이 넘치는 현장이다. 일단 살아남으라. 어느것도 살아남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강철의 심장이란 이름에 목을 매지 말고 구차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대의 명예를 더럽히려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주변의 손과 혓바닥은 비단 그대 뿐만 아니라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까지 죽음으로 몰 것이다. 목숨이 아까운줄 모르고, 용맹함을 드러내고 싶어 안달나 있는 마르나크의 군인이라면 그대의 목숨을 소중히 하라. 당신마저 죽게된다면 당신의 아내나 남편, 형제와 자매는 죽거나 죽음보다 더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기구하고 가혹한 운명은 언제나 예외없으니, 그것의 때는 반드시 오리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면 1분 1초라도 더 버티다 죽으라. 다시 말해 1분 1초라도 더 살라는 말이다. 용맹하게 죽지 못한다면 최후의 마지막까지 현명하게 죽으라. 마르나크의 이름을 기꺼이 어깨에 지고자하는 군인이라면 무릇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이것을 마땅히 몸에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발루 』

세력 상징은 벼락을 품은 얼음의 결정.



“내 등뒤에 선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는 재앙이 되리니.

나는 북풍의 서릿발이자 내려치는 벼락이요,

불경한 자들의 피를 얼리고 깨부수는 야수로다.”

— 에이릭 키얄루손, 발루의 서약과 다짐 중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중 하나인 에이릭 키얄루손. 뼈와 살을 에는 듯한 혹한의 환경속에서도 깊은 협곡에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가는 산속의 존재들이다. 좋든싫든 마주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아벨의 자손들과는 달리 아벨론이나 상투스를 비롯한 다른 세력들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그 흔했던 교류조차 없다시피 했다. 그 이유는 불경한 존재들 때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갗이 베일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대자연의 장벽 때문이었다. 문명이 더욱이 발달한 지금에서야 간신히 이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지난 날에는 어느 누구도 안일한 각오로 감히 이곳에 발걸음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척박하기 그지없는 환경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적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산에 사는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정도로 담대하며 오히려 그것마저도 자신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무기로 여길 정도로 호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장배경이 누군가에 기대어 그들의 힘을 빌어온 다른 아벨의 자손들과 달리 이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힘과 야생의 감으로 불경한 것들을 죽이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깨우쳤다. 그 결과 협곡을 가득히 메우는 끊이질 않는 얼음폭풍과 날벼락, 눈보라가 저들에게 있어 칼과 방패처럼 자유로이 다룰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건장한 체구에서 나오는 위압감과 오랜동안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야만인들이라 불리지

만, 명예와 영광스러운 전투를 중요시하고 의외로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깊은 우호도를 쌓게 되면 절대로 등을 돌리지않고 같은 전선에서 함께 피를 흘리는 것을 전사의 미덕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의 곁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알려져있다.

『 에이릭 키얄루손 』

발루의 시초 에이릭을 비롯한 그의 무리들은 아벨이 가진 여러가지 특징 중에서도 유목으로 단련된 뛰어난 신체 능력 뿐만 아니라 직설적이고 호전적인 성격까지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오래전부터 다른 아벨의 자손들과 비교했을 때 훤칠한 체구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질투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렇게 오랜동안 불합리함을 참지 못하던 자들 중 하나인 에이릭 키얄루손이 나서 아벨에게 청하니, 그것은 바로 아비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아벨은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이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던 모양인지 그들의 의견을 수락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벨의 자손들이 행여나 이들을 끊임없이 질투할것을 우려하여 저들을 혹독한 추위의 땅으로 쫓아내 버렸다고 전해진다. 에이릭은 이에 대해 군말없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군말없이 혹한의 추위와 눈보라로 뒤덮힌 거친 협곡으로 향했고, 그곳에 다다른 자들도 아무 불만없이 그곳에서 살고자 했다. 불합리함에 맞서 용감한 선택을 한 무리들과 영광스러운 앞길을 바라는 마음에 용기의 이름의 ‘발루’라 지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랜동안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는 발루의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생활을 꾸려나간다.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유독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며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상당히 특이하고 독자적인 사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후에 발발한 영원의 전쟁에도 참전했지만, 그것 모두 아벨의 자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루의 존재를 모두에게 알리는 일종의 경고와 경외심을 퍼뜨리기 위함이었다.

『 타오르는 얼음 』

발루의 야만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천연의 요새에 몰아치는 혹한의 눈보라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그것은 산 아래에 내리는 포근한 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있다. 얼음 협곡에서의 동상은 그 부분이 마치 불꽃에 닿은 듯 뜨거운 고통에 빠지게되며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 그 자리에 얼음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옛날부터 이데아가 차마 품지 못했던 극지의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광석이 빙하 속에 깊이 잠들어있다고 한다. 윌츠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천연의 자원이나 광석들이 매몰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초대받지 못함에도 아직까지 끊임없이 하얀죽음의 땅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이데아의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중요한 자원을 채취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윈뒤르강 협곡을 방문한다. 살을에는 환경으로 불경한 존재의 개체수는 극히 적지만 이곳에 자리한 토착생물들은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고 진화하며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들을 가차없이 찢어발기는 토착생물 때문에 발루와의 교류가 더욱 뜸했던것도 그 이유중 하나였다. 발루의 전사들이 자리한 협곡이 가지고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곳에 매몰되어있는 광석 중 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다. 이것이 마찰하는 소음과 혹한의 얼음이 부딪히는 파열음으로 인하여 나침반이나 전자기기들의 전파를 방해하여 망가뜨리기 때문에 길을 잃기 쉽다고 한다. 혹한의 눈보라가 만들어내는 기이하고 소름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광석이 빚는 불협화음은 이곳에 방문하는 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어지러움이나 구토를 호소할 정도로 악랄하다는 이유로 비명하는 협곡이라는 뜻의 '윈뒤르강' 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이렇게 그 이름답게 윈뒤르강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풍우가 울부짖는 소리나 산이 내는 비명 또는 짐승이 외치는 소리들이 밤낮으로 끊이질 않고 줄곧 이어졌다. 그 소리는 얼음의 폭풍과 함께 산 아래에 사는 이들의 귓가에까지 닿을 정도였기에 윈뒤르강 눈 덮힌 절규의 협곡에 얽힌 괴담이나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한다.

『 시련과 과업 』

윈뒤르강의 혹한의 기후와 별개로 불경한 것들의 위험성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협곡에 살고있는 토착생물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다. 그곳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은 살을 베고 뼈를 에는 듯한 추위를 견뎌내야 했기 때문에 두터운 가죽과 지방이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발루에게 있어 중요한 영양분과 몸을 덥힐 연료가 되어준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토착의 생물들은 웬만한 총칼 따위로는 생채기조차 낼 수 없을 정도하고 알려져있다. 호전적인 성격에 더불어 발달된 지능과 학습력 때문에 잠시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용맹한 전사도 그저 저들의 한끼 식사가 되어버릴 뿐이다. 이러한 연유로 발루의 전사들은 야생의 짐승들과 뒤섞이며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서로의 피를 뒤집어쓰는 시련과 과엾이라는 성대한 성인식을 치르게 된다. 물론 성인식의 선물은 생존이며 그 선물은 스스로가 쟁취해야만 했다. 성인식의 개념 자체가 다른 아벨의 자손들과는 개념이 다르기에 무기를 쥐고 휘두를 수 있는 나이만 되면 언제든지 증명을 위한 전장에 서게되며 혹한을 직접 피부로 맞아가면서 야생의 짐승들과 준비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생존에 성공하고 그것의 목을 쳐 흐르는 피로 몸을 적시고 얼굴에 칠갑을 하는것으로 발루의 웅장한 성인식은 마치게 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진정으로 얼음과 룬을 통하여 벼락을 동반하는 재앙의 힘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 룬과 번개 그리고 얼음폭풍 』

야만인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벨의 자손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으며 적대감 또한 적지않았다. 그들은 아벨의 언어를 버리고 윈뒤르강에 몰아치는 눈발이 만들이 만들어내는 모양으로 저들만의 언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룬이라고 불렀다. 룬에 새긴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으며 그 힘을 담금질 해오던 도중, 에이릭은 우연히 몰아치는 폭풍 속 눈송이가 만들어내는 문양과 규칙들 사이에서 균일한 규칙성을 발견했고 불어오는 바람의 흐름과 세기 그리고 번개갈래의 모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그것은 의외로 섬세하기에 그 형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련된 정신과 육체가 필요했기에 성인식을 치루고 난 이들을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에이릭은 불길 대신에 얼음의 대장간을 고안했고, 이 곳에서 혹한의 룬을 벼려내고 담금질 해내며 그 룬을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가르쳐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안에 재앙이 깃들게했다.

『 부작용 』

윈뒤르강 협곡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광석은 천둥과 벼락 번개와 낙뢰 모두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 큰 힘을 만들게 하지만, 발루의 몸에 혈관의 색은 벼락이 흐르기 때문에 검붉은 빛을 띄게 된다. 더 오랜 시간동안 룬을 품으며 전투에 임하게 되면 짧은 순간동안은 스스로 재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현할 수 있게 되지만,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벼락맞은 가지처럼 온 몸의 수분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피부가 괴사할 정도의 심각한 단계에 이른다. 찰나의 선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앙으로 새겨진 문자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완성된 전사의 육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평소에도 육체의 상태를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극한으로 단련된

발루의 전사들의 경우에는 룬을 사용할 때에도 나중에 무리가 가지않도록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벼락이 담긴 룬과 함께 숨을 쉬고있다고 한다. 젊은 전사들은 룬으로 자신의 육체의 상태와 한계를 냉정히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그 정도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발루의 전사로서 한 몫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부작용의 대처는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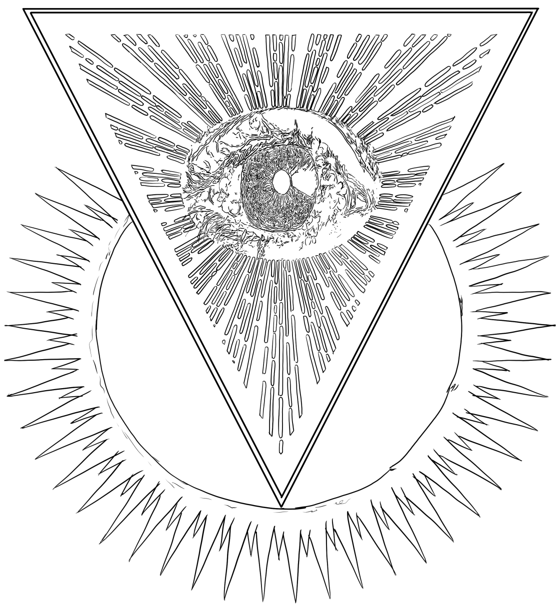
『 발루를 최초로 목도한 기사의 회고록 중 』
나는 야수를 바라보았고, 야수는 재앙을 바라보고 있었다.

『 룬의 가르침 』
모양이 각기다른 얼음의 결정을 토대로 저들만의 믿음을 굳게하는 독자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살에 새기거나 도끼에 벼려낸 뒤 의식을 치루고 이를 바탕으로 초인적인 힘을 구현하는 경지에 닿게된다. 뿐만 아니라 폭풍우에서 고요히 울리는 룬에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으며 다음과 같은 글귀를 스스로에게 새기고 다짐하며 더욱 치열한 삶을 갈구하며 그 끝에 다다른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 싸울것을 맹세한다.

“피를 머금은 낙원 이데아의 품 안에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오직 생존본능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있을뿐이로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천혜의 협곡에서 살아가는 그 영물스러운 것들로부터 경이를 느끼며 하루를 살아갈 따름이로다.”

『 피오르 』

세력 상징은 역삼각 안의 눈동자.



“울어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웃으며 춤을 춥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와 함께 울어줄지도 모릅니다.

— 염동력자, 하오멜 루시드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아드라 이그너. 후원자는 키리에타 에산. 그러나, 그들 모두 후원자 혹은 지원을 해주는 자들일 뿐 근본적인 기반을 닦은 이는 그들의 능력을 일깨운 한 아이로부터 시작된다. 피오르라고 불리우는 이들 대부분 영원의 전쟁과 뒤에 남겨진 혼란속에 버려진 전쟁 고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투스 설립 이후로 안정된 정세와 수많은 이들의 찬사에 가려진 어두운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존재들이기에 본의 아니게 찬란한 아벨의 방벽 품에서조차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들로 전락해 버린다. 상투스의 이런 위선과 핍박으로 인하여 갈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저마다의 살길을 찾기 위하여 총과 칼을 들어 용병이 되고자 한다. 혹독한 세상을 아이의 몸으로 살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완전한 성장에 다다르기 전에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들 안에 담긴 초인적인 능력을 극대화 시키게 된다. 이러한 시련은 후일에 다가오는 3차의 성징이라 불리우며 그 잠재력을 배가시키고 이질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이유로 역설적이지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사지에 다가가지만 이런 시련을 겪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 이그너 가문 』

에오난 이그너는 아드라 이그너와 타라 이그너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논과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아벨의 자손을 살찌우게 하고 목을 축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가문의 일원으로써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저 밭을 일구는것에 신물이 난 아드라와 타라는 총과 칼을 들고 아벨의 자손을 위해 싸우기를 원했다. 다만 아벨의 은총이 충만하지 못했던 탓에 각각 이르메스와 마르나크의 부름에 응하게 된다. 하지만, 에오난은 이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의 확신과 고집에 못이기며 멀어지는 아드라와 타라의 등 뒤로 그들의 안녕을 위해 그저 기도하는 수 밖에 없었다.

『 아드라 이그너 』

영원의 전쟁 이후로 수세기가 흘렀고, 아벨론의 정세는 안정기에 드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에 불과했을 뿐 불경한 것들과 싸워 죽은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저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한두명이 아니었다.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아이는 오도가도 못한채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임에도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거나 현상금 사냥꾼으로 살아가다 이름모를 곳에서 덧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되자, 이런 참담한 현실에 깊에 통감한 자들 중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드라 이그너’였다. 그는 오랜동안 상투스에 혹독한 참상을 알렸지만, 그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의견은 빈번히 묵살되었다. 하지만 아드라는 포기하지 않고 아벨론에 계속해서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고, 꾸준히 상투스에 발걸음을 하는 아드라의 절실함이 통했는지 그의 탄원서는 5대의 교황

‘친절의 레비에’ 에게 닿게된다. 그의 안건은 오랜 시간에 걸친 끝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었고, 아드라는 불쌍한 어린 양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나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문제마저도 쉬이 풀어가지 못하고 오랜동안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둔 상투스와 아벨론의 원로회에 환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드라는 아벨의 방벽을 나오게 되었고, 아벨의 방벽 내부 뿐만 아니라 방벽 밖에서 남겨지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층을 도우며 이들을 머물만한 보금자리를 원조해주기도 했다.

『 루시드 하오멜 』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는 상투스의 위용에 먹칠을 하지 않기위한 적당한 원조라는 말이 많았다. 결국 떠밀려 방벽 밖으로 밀려나간 것과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아드라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방벽 안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도구로써 이용될 것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드라는 한적한 변두리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시설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고아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계층을 돌보았다. 더 이상 전쟁이 남긴 아픔을 대물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아드라는 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다. 그러나, 이는 생존을 향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던 이 어린것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였을까 이들은 시설에서조차 결국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 힘을 길러나가기 시작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랜동안 삶을 위해 무기를 손에 쥠으로써 확고한 각오와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뜨거웠다. 이에 아드라는 시설 안에 별도의 작은 학회를 설립하여 이들에게 무술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기에 이른다. 그러던 어느날 몽유병을 앓던 하오멜 루시드라는 아이가 창조해내는 전대미문의 기이한 힘을 발현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길드의 의료진에게 데려가서 진료를 받게 했었다. 진단결과 오래전 그의 이마에는 총알이 박혔으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가운데 하오멜 루시드가 여느 아이들과 같이 2차의 성징을 지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자 그의 잠재의식과 함께 안에 잠재된 힘이 눈을 뜨면서 이것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다. 그 힘은 말할 것도 없이 여지껏 볼 수 없던 기이한 힘이었으며, 그것이 가진 잠재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거대했다.

『 결심 』

그가 고아원의 어느 누구와도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하오멜은 자신의 비밀을 아드라에게 전해듣게 되었고, 아드라는 그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하오멜의 생각은 달랐으니, 자신과도 같은 상황에 놓이면 다른 아이들 역시 자신과 같은 힘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 여기었다.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 힘을 지니게 되면 더이상 어디에서도 버림 받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

라는 것이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도 없어질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적어도 개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드라가 길드 외과의의 이야기를 들은 아드라가 들은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였으니 그 상태로 살아왔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 생존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다. 또한, 기이한 힘까지 얻게된 과정조차 신의 가호가 따르지 않았으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힘을 갈구하는 이 작은 생명은 그 눈을 밤하늘 은하수처럼 환하게 수놓고 있었다.

『 초능력과 염동력, 꿈을 현실로 빚어내는 힘. 루시드. 』

하오멜은 아드라에 이어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후원하는 키리에타를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키리에타 역시 회의적이었다. 그가 보인 힘은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따를 뿐더러, 만약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새어 나가기라도 한다면, 방벽 안 길드의 괴짜들에게 끌려가 실험관의 생쥐 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오멜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결국 그는 고아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깊은 동굴에 의식을 치룰 자리를 본능적으로 찾아낸다. 의식이라 함은 하오멜의 머리에 남겨진 구멍과 같이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지니고 있는 모든 감각을 한 단계 이상으로 깨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의 위치와 고통의 역치는 아이들마다 달랐기에, 그 곳을 결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의식과 공유하며 스스로

찾아 낼 수 밖에 없었고, 그 위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고통을 동반하며 깨어난‘루시드’라 불리는 힘은 저들의 꿈을 현실로 드러내게 하는 능력이다. 초능력과 염동력과 더불어 이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끌어낸 기원이 불명한 이형의 능력이며, 아이들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름없이 버려지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영원과도 같은 특별한 의식을 거치며 세번을 피고지는 들풀이라는 뜻의‘피오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루시드가 눈 앞에 나타나자 그 모습을 보던 키리에타와 아드라는 왜인지 동시에 눈물을 훔쳤다. 결국 모든 것은 여지껏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어린 나이로도 치열하게 살아가며 목숨을 담보로 얻은 그것이 무엇이든 용기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것이다.

『 불안과 공포를 담은 바위동굴 』

이들이 자리한 곳은‘아즈메아’라고 부르는데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검은 바위동굴로 알려져 있다. 바위동굴의 모습은 입구조차도 상당히 기이했으니, 마치 땅이 꺼져버린 듯 움푹 파인 심연과도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역방향으로 내리뻗은 나선과 같은 같은 구조를 띄고 있어서 천연의 동굴이었지만 가파른 절벽과도 같은 모습에 마치 누군가 이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반듯한 형태를 띄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계속 내려가면 마침내 아즈메아에 닿게 된다. 더불어 이 동굴 안

에는 생물이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저주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불경한 존재조차 음산함이 감돌고 있는 이곳을 본능으로 꺼리며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아즈메아 동굴은 이들의 특별한 명상과 의식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히 치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공간이었으며, 이들이 의식을 진행할 때의 불안한 파장과 반응하며 그들의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기에 피오르에게 있어선 다른 어느 곳보다 따스한 보금자리였다고 한다.

『 작은 불씨를 품은 후원자 키리에타의 마지막 말 』

“7대의 주선이라 불리우는 초대 교황인 노인네가 작은 아이의 고통을 여지껏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네. 이리 작고도 연약한 어린 것들이 오히려 안주하는 삶을 바라는 우리네보다 처절하게 구원을 향해 울부짖고 있지 아니한가? 그토록 찾던 빛을 나는 여기에서 발견했다네. 저 작고 여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어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과 비교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왜 이제야 깨닳게 된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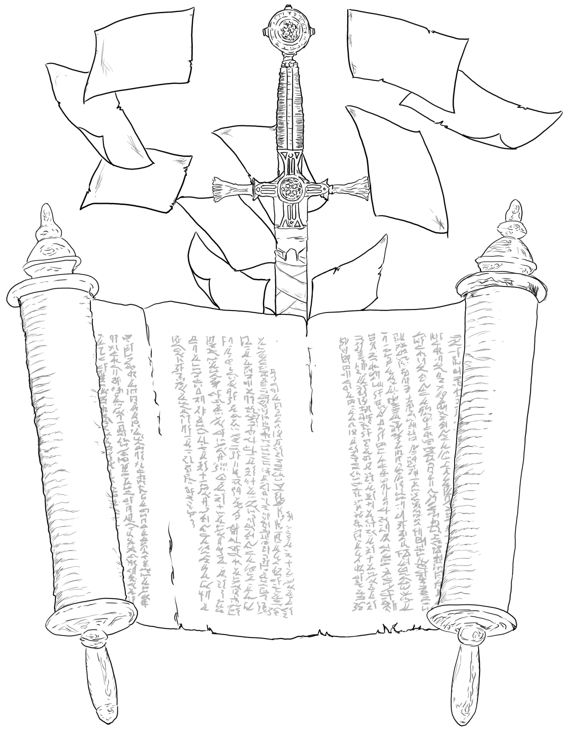
『 동반하는 것은 고통과 불안 』

루시드의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극한으로 닫혀진 감각을 끌어올리며 극한의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고통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 혼돈의 폭풍 사이에서 홀로 서

서 모든 고통의 굴레를 겪고 깨어나야 한다. 피오르의 모든 아이들은 세번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가 그 의식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뿐더러, 의식을 무사히 마치고 난 자들조차 보금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도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완성된 능력에 반해 완성되지 못한 정신을 지닌채로 살아가는 셈이다.

『 에두예르 』

세력 상징은 흩날리는 파피루스 검과 스크롤 방패.



“이데아에 남겨진 저들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계시 속에서 죄 지은 자,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하라.”

— 인내의 전도사, 카를로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카를로. 영원의 전쟁 이후에 이데아를 떠나간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전달받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계시는 조각의 파편처럼 흩뿌려져 여럿에게 전달된 것이라 저들끼리 뭉쳐 서로 교통할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해진다. 믿음에 대한 보답은 축복처럼 내려지며 아벨의 은총과는 사뭇 다른 빛을 띄고있다. 하지만 상투스를 비롯한 다른 세력들로부터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오며 살아갔지만 끝내 이를 감추지 못하였고 이는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종교전쟁 이후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무너질 위기에도 봉착하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스스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과 아벨론의 품에서 벗어난다. 계시를 받은 자들은 빛의 안개의 모습을 하고있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연결고리인 '파피루스' 로 연마된 방패와 검을 다루며, 언제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빛의 축복까지 담겨진 성호를 두르고 있다. 그러나 계시는 그들의 미래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계시를 공유하고 추측해가며 내린 결론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이 이데아를 떠나기 전 느꼈던 그 감정은 고스란히 계시에 담겨져 있었기에 아집과 오만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른 이들도 깨우치기를 바라기에 저들의 선교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아벨의 방벽을 등진 자들이지만, 아벨의 방벽 안에있는 자들로부터 그저 서로 교리가 다름을 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분열과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방벽 안의 기구인 상투스와 이르메스 그리고 마르나크와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 계시 』

영원의 전쟁 이후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려지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의 음성은 계시가 되어 이데아에 자리하게 되었고 계시의 대부분은 꿈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러나 그 꿈은 애매모호하며 휘발성이라 오랜 시간이 흐르는동안 그저 잠자리 사나운 꿈 정도로 치부가며 터부시 해왔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누군가의 음성은 끊임없이 무언가 이야기 해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아벨의 성령이 충만한 성직자도 아니고, 순례자도 아니며, 현자는 더욱 아니었으니, 대부분이 그저 평범한 자들이었다. 음성을 들은 자들은 마침내 그것이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오는 전언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계시를 입은 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 광장 혹은 뒷골목에서 저들끼리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의 율법으로 자리매김한다. 비밀스럽게 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탐구는 무리들의 수가 점점 많아짐으로써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의 존재는 당연히 아벨의 방벽 안에 계시의 율법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시를 입은 자들의 존재를 상투스마저 인지하게 되자, 상투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은 이들이 대다

수였던 시대에 이들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치부되었고 그것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반발심과 경계심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이들의 존재를 혐오하는 자들마저 결국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 신앙의 충돌 』

아벨의 방벽 내부에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하나 둘 모여 무리를 이루고 큰 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상투스 신앙과는 사뭇 다른 괴리감과 이질감을 주며 이들끼리 신앙으로 충돌하게 된다. 상투스의 근간은 아벨에 대한 믿음 자체로 하는 교회에 있었고, 이들의 계시는 저주를 내린 이바와 아다무스와의 연결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심을 사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계시라고 부르는 율법을 구원이나 안정보다 저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반발심은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은 불씨가 되어 더욱 크게 번졌고 종교전쟁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억압하는 자와 핍박 받는 자들 사이에서는 밤조차 밝히는 빛이 서로 충돌했으며, 이를 ‘신앙의 충돌’이라 부르게 된다. 양측은 오랜동안 의미없는 소모전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투스와 아벨론의 원로회가 입각하여 내부 의결회의를 열어 이단에 대한 죄목으로 계시를 받은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는 찰나, 6대의 교황이었던‘인내의 피오라’가 나서 분노에 잠식당한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며 핍박받는 이를 구원하고자 죽음 대신 인내의 고행을 내리게 하였다. 그 이후

로 고행을 마친 자나 계시를 받은 자들 혹은 계시에 이끌린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인내의 고행과 신앙의 분리 』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뚜렷하게 꿈을 꾸는 자들이 있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계시라 부르는 것은 상투스의 빛에 반하는 것이었다. 계시의 율법을 설파하는 것은 이단이며 신성모독이니, 방벽 안에서 편히 숨을 쉴 수조차 없을 것이 자명한 끔찍한 중죄로 처벌됨이 자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만큼은 계시로부터 멀어져 율법에서 자유롭기를 바랐기에 아이의 이름을 자유로운 이라는‘카를로’라고 지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머지않아 이들의 아들에게도 계시가 내려졌으니, 다른 이들과 달리 기이하게도 계시의 마지막이었다. 카를로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이에 적잖이 당황하며 이것도 운명이라는 듯 체념하고 계시받은 자들에 대한 존재를 알려줬다. 그리고 이들 역시 빛의 충돌로부터 피할 수 없었다. 신앙의 갈등으로 불거진 사태가 결국 종교전쟁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빛과 축복에 의해 학살 당했다. 결국에는 카를로의 부모도 죽음에 이를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카를로가 나서 자신에게 내려진 계시를 입밖으로 뱉어냈다. 그 계시는 단순히 꿈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했던 것인지라, 6대의 교황 및 많은 상투스의 사제들은 전대미문의 계시를

읊자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소란이 일어난 뒤에 이들의 처분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지만, 길고 긴 회의 끝에 피오라는 카를로의 목숨을 살리는 대신 '인내의 고행' 을 그에게 내리게 된다. 선언된 인내의 고행은 계시를 입은 자들 중에 계시의 율법으로 많은 이들을 선동한 부모의 죽음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담아내라는 것이었다. 카를로는 부모는 마치 내려진 계시를 따르는 듯 의연한 모습을 보였고 그 역시 이를 받아 들였다. 떨어지는 눈물을 참지 못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는 자신의 부모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놓치지않고 모든 과정을 천천히 눈에 담으며 고행을 마치게 된다. 6대의 교황은 눈물을 흘리며 인내의 고행을 마친 카를로를 끌어안으며 이렇게밖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말과 계시를 받은 자들의 율법이 구원에 닿을 수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참고 관철해 나가라 축복의 말을 마지막으로 그와 남겨진 계시의 잔당들을 추방시켰다. 아벨론 원로원과 상투스의 수많은 사제들이 이들이 6대의 교황 피오라의 돌발적인 행동을 비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의 분쟁은 무의미하며, 저 계시의 율법이 완전히 지워지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구원의 빛이 사그러질 것을 우려했던 것임을 알렸다. 그녀는 나름대로 또 다른 구원의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이었다. 새로이 만들어진 구원의 빛을 두려워 한 이들의 광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카를로에게 어쩔 수 없이 고행을 내린 것이다. 고행을 마친 그는 계시를 전도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방벽을 나섰고, 6대의 교황 피오라는 더이상 이 무리들에게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약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장벽 안에서 공존할 수 없었던 종료와 교리가 분열하여 구원의 빛이 갈라서게 된 이 사건을 '신앙의 분리' 라고 부르게 된다.

『 이바와 아다무스의 회개와 에두에르의 신앙 』

계시는 홀로 있을 때는 그저 꿈일 뿐이지만, 그 계시를 받은 신자들과 같이 교류하고 교통하면 그것은 더욱 큰 힘이 된다. 이 땅 위에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된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고, 그것은 어느 죄악에나 통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되며 죄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발시아 즉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것이자 또 그것이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름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때문에 죄악을 음지에서 한없이 숨기고 감추며 억누르는 것보다, 그것을 양지로 끌어내어 직접 드러냄으로써 뉘우치는 것이야 말로 구원이며, 옳고 건강한 행동임을 설파하는 것이 에두에르의 교리이자 기본 신앙이다.

『 성전의 시발점 』

인내의 고행을 마치고 카를로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과 방벽 밖을 방황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폐허에 당도하게 된다. 비통에 잠긴 카를로였지만 계시만은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다. 고행의 행군을 하는동안 그의 모습을 바라본 자들

은 흐릿한 계시 속에서 서로 인내하는 모습을 눈에 담아가며 작은 희망을 품어가며 용기를 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이들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섰고, 저버리지 않은 믿음과 자신들만의 율법을 다시한번 마음속으로 아로새기며 계시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무리를 계시의 아이들이라는 뜻의 '에두예르' 라고 부르면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된 곳은 비록 버려진 폐허였으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삭막한 대지로부터 율법의 전도와 성전을 시작하게된 의미있는 곳이었기에 자신들이 머무는 그 땅을 계시를 이행하는 자들의 성지라는 뜻인 '우에노른'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꽃조차 피어나지 않는 황폐한 곳이나 다름없었지만, 계시에 따라 우에노른의 생명의 줄기를 찾아가며 비옥한 땅을 개척했고, 그 열매는 과실을 맺게 되어 신도들의 배를 충분히 채우게끔 했다.

『 반대하는 것에 인내하며 견디는 것의 미덕 』

신앙의 분리 이 후에 피오라가 이단을 풀어놓은 것에 대해 아벨론의 원로회는 교황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인내의 피오라는 이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피오라는 카를로와 계시의 무리들을 폄하하며 분노에 잠식되어 있는 자들을 꾸짖으며 부디 그 화를 다스리고, 모든 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투스의 사제들도 인내하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다. 그렇게나 단호하게 자신의 확고한 주장을 펼치자 인내의 미덕으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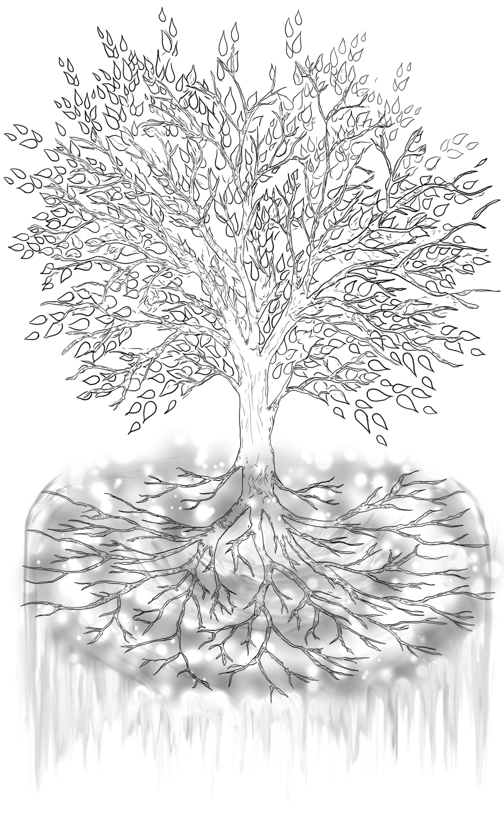
교황의 의견에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굳은 신념에 경의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후에 그녀의 사려 깊은 행동을 많은 이들이 칭송했지만, 정작 그녀는 회의에 빠지며 이들의 찬사를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 선명한 계시 』

계시에 그려진대로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저들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도 그들의 존재자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하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창조주가 이데아를 부수려는 시도를 이 땅에 숨을 쉬고있는 모두가 알게 된 시점에서 남겨진 서른의 조각들은 잠정적이고 암묵적인 휴전에 이른다. 파멸의 씨앗을 이데아에 뿌린 자들의 이름이 이바와 아다무스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육신을 태우며 그 씨앗을 거둔 자들 역시 그들임을 알고 있었기에 창조주 에르아가 만들어낸 피조물들과 대치하기 시작하며 이데아는 또 다른 색에 물들게 되지만 그것은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이 계시에 닿아 성전을 치루고도 한참 뒤의 일이다.

『 퀴나즈 』

세력 상징은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와 아르카나의 호수.



“어머니 대자연의 딸 이실그라드를 맞이하라.

그대가 숨쉬며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녀로부터 나온 것이니 범사에 감사하라.”

— 키오누스의 전령, 클로델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클로델. 이데아가 낳은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에서 뿜어내는 생명의 근원 아르카나라는 근원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 아르카나가 가진 가능성은 풍부하고 다양한 세계를 그려낼 수 있지만 그것에 영원히 매몰되어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집중해야하는 양날의 검이나 다름없는같은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 이실그라드와 그녀의 더럽혀진 샘의 정화를 위해서 싸우며 아르카나의 탄생과 그 활용을 담은 유산을 성스럽게 여기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상투스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해 빈번한 마찰을 겪었다. 강대한 힘을 부리는 자들인 탓인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자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요 변덕과 고집이 심하며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성격을 지닌 탓에 이들의 존재는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만, 저들이 행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경한 것들의 정화이기에 의도는 불순하다해도 더럽혀진 땅을 다시 살리려는 목적이 아벨론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기도 한다.

『 클로델 』

발시아 고대의 언어로 뜬 구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몹시 자유롭고 명랑하다는 뜻이다. 그 이름 그대로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소녀였다. 전쟁 직후이긴 하지만 그녀는 폐허 속에서 사람들의 일손을 도와가며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고 있었다.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속삭임을 듣고 그것이 가진 따스함에 빠져들게 된다. 그것이 아르카나라는 것도 모르는채 그리운 듯 그것에 취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시작으로 아르카나의 태동을 깨우친 자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에 이른다.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아벨의 은총 혹은 성령이라 여기었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아르카나의 태동을 느끼는 자들밖에 모를 일이었다. 사건은 아르카나의 태동을 느낀 자들의 힘이 넘치는 생명의 힘을 주체하지 못해 아르카나가 현실로 물리적인 모습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불씨가 된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불안한 이들은 오로지 자신을 보듬어주는 힘에 이끌려 아벨의 방벽을 뒤로한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방랑하는 이들을 이끌고 있는 클로델은 길고 긴 방랑끝에서 무한하며 거대한 생명을 품은 거대한 고목인 '이실그라드'를 조우하게 된다. 클로델은 넘치는 생명을 뿜어내는 그녀의 품에서 아르카나의 태동을 느끼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실그라드의 아르카나를 다루는 존재들을 이르러 현자 혹은 깨달은 이라는 뜻의 '아키스트' 라고 불렀다. 아키스트들은 자신들의 무리를 생명의 고동을 듣는 자라는 뜻의 '퀴나즈' 라고 부르며 조용히 살고자했다. 안타깝게도 방벽 안에있는 대부분이 여전히 자신이 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조차 못하는 자들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의 주위를 두르는 푸른 안개와 아르카나가 역류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 힘은 때로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때로는 차가운 얼음같이, 때로는 벼락과도 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구현되었다. 미지로부터 창조된 힘으로부터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투스는 이 힘을 경계함에 그치지 않고 신성의 사제 여럿을 소환하여 이들에게 힘의 출처와 그 기이한 능력을 가진 이들의 진압을 요구하였다.

『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 』

아르카나의 태동을 읽지 못한 자는 아벨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 의해 너무나 쉽게 저지 당했다. 자신들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힘을 가진 자들은 모두 진술을 받게 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아르카나의 태동에 눈을 뜨게 된 이들 여럿에 의해 상투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보이자 이내 저지 당했다. 이에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수수께끼와도 같은 힘을 다루는 자들이 출몰한다는 보고가 닿게 된다. 이르메스의 원조를 받아 오랜동한 수색한 끝에 이실그라드 주변의 도시국가인 펜실란에서 전과 같이 기이한 힘을 부리는 자들이 칩거하는 사실을 듣고 상투스는 그들이 다루는 기이한 힘의 조사를 위해 다수의 신성의 사제를 불러 그 곳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작은 사절단의 움직임은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 이라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르바에서 본격적인 사투를 벌인 두 세력이 쏟아낸 피로 이실그라드의 주변 아르카나의 샘이 붉게 물들었고, 수 많은 상투스의 고위 사제들이

기이한 힘으로 인해 수정의 결정처럼 굳어져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사절단의 절멸된 소식을 듣자 7대의 교황 이르기스는 더욱 많은 사제를 그리로 보내었지만, 역시 그들의 힘에 의해 한 구의 시체조차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들이 이제는 상투스를 위협하기 위해 아벨의 방벽 먼 곳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격노한 이르기스는 직접 행차하여 무력으로 이 모든 세력을 격파한다. 동시에 붙잡은 포로를 심문하는 가운데 그 무리들로부터 아르카나의 태동, 그 근원인 이실그라드라는 위대한 존재를 귀에 담았고 이르기스를 필두로하여 세계를 떠받는 고목이라 불리우는 나무를 향해 진군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이실그라드를 조우하게 되는데 아르카나의 근원을 직접 조우한 그는 엄청난 생명의 힘을 느꼈고 경외심마저 들게 되었다. 이실그라드 주변의 호수에 있는 자들은 아르카나를 다루는 자들과 달리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었기에 비교도 되지 않는 힘으로 반격해왔다. 그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이르기스의 힘도 무시하지 못했다. 이렇게나 밤낮으로 오랜동안 격돌한 이들이 이실그라드로부터 줄기차게 생명을 받아 지속적으로 활기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클로델은 아벨의 자손으로써의 모습은 점점 잃어가는 듯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이르기스는 같은 아벨의 자손이면서 아벨의 자손의 모습을 잃어서까지 싸우는 것을 결코 아벨이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을 중재하기에 이른다. 클로델 역시나 아르카나에 심하게 중독이 되어있던 터라 그리 원치는 않았지만 결국 이르기스의 제안을 승낙한다. 이실그라

드 곁에서 직접 아르카나 사용에 제약을 걸어두어 절제를 요구하는 '상튀나르 조약' 을 체결한다. 이 조약의 효력과 함께 퀴나즈는 정식적 국가로써 승격되며 기이한 힘의 원천을 모르던 이들까지 이실그라드로 이주하게 도왔다. 상튀나르 조약의 대다수가 형식적인 공문이었던 탓인지 그다지 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서문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쓰여졌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카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둘 것.
둘째, 아르카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은 숨김이 없어야하며 오직 아벨의 자손의 안녕을 위할 것.
셋째, 이데아를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들에게 함부로 아르카나의 태동을 억지로 깨우치게 하지 않을 것.
넷째로, 상투스의 위상에 도전하지 않을 것.

『 키오누스 』

호기심 많은 자.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로,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가 아벨의 자손들의 사회에 개입하게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후세의 이들이 지내는 삶을 곁에서 함께 느껴보고 싶었던 그는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머무는 이데아의 꼭대기에 위치한 신의 도시라는 뜻의 '데시비테' 에서 스스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키오누스는 이들을 보자 아벨을 죽였

던 카인과 그의 핏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복수귀와 같은 모습에 질려버리게 된다. 다시금 데시비테에 가지 못했던 그는 이데아를 떠돌며 폭력과 살육이 난무하는 광경에서 충격을 받았다. 영원의 전쟁이 속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정신은 나날이 약해져갔다. 그때, 자신을 부르는 듯한 따스한 활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는 미쳐만가는 세상속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 따스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키오누스는 오랜 시간동안 그는 무언가에 홀린듯이 발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저 멀리부터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눈에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지친몸이었지만 어느새 활력이 실리며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 나무 앞으로 내달렸다. 마침내 직접 거대한 나무앞에 도달하였고 키오누스는 자신에게 활력을 부여한 존재가 나무 속에서 삐걱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반기고 있었다. 그는 그 나무가 자신들의 모습을 닮아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보다 그녀가 가진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었다.

『 이데아의 딸 이실그라드 』

창조주에 의해 이데아가 만들어지고 난 뒤 이데아가 스스로 만들어 낸 그녀의 딸이자 하늘을 덮을 듯한 크기의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실그라드의 아르카나의 영향이 닿는 곳 어디든 나무의 표면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영원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데아를 홀로 배회하던 앳된 소년과 조우한다. 상당히 지쳐보

이는 듯 보이는 그 소년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녀는 그와 함께 이데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이 이 땅을 뛰놀기 시작하던 그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둘은 교감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

『 아르카나 』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이 부리는 힘의 원천. 따스한 활기를 쫓아 온 순수한 영혼인 키오누스와 조우한 이데아의 딸 이실그라드는 서로 만날 운명을 알고 있었던 듯이 서로 공감하여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교류는 서로의 의식과 동화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시란두르의 서에 적힌 다음의 내용과 같다.

‘이실그라드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도 따스하게 소년을 가슴에 품었고 그는 생명의 거름이 되었다. 둘이 한데 섞이면서 만들어진 힘은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가운데 하늘은 활짝 열리었고, 땅은 멈추지 않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무수한 생명들이 그것의 탄생을 느끼게 되니, 산속의 짐승들은 포효하며 울부짖었고, 깊은 산의 나무는 기뻐하듯 삐걱대기 시작했고, 갑자기 잔에 든 물은 일렁이며 춤추었다. 이실그라드 안에 생명의 힘이 충만할 따름이요, 열매는 결실을 맺으며 생명의 고동 속에서 만물이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이 한데 집약된 것이었다. 이실그라드는 키오누스를 비료로 태어난 그 아이를 ‘아르카나’라고 부르게 했다. 그는 그녀와 동화되면서 이실그라드 주

위를 포근히 덮는 깊은 호수가 되었으며, 아르카나를 더욱 건강한 존재로 거듭나게 도왔다. 그리고 아르카나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빛으로 쪼개져 온 이데아에 퍼져나가 생명의 고동을 키우게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생명 안에 담긴 그 힘을 더욱 증폭시켜 주는 매개체가 되어 더 큰 힘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크랄로루즈 』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연료는 제한적이다. 이는 아르카나의 태동을 부릴 줄 아는 아키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아르카나로부터 부여받는 생명의 힘은 가히 방대하고 압도적이다. 그러나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힘 그 이상의 대가를 아르카나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아르카나가 건네는 힘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존재는 이데아 혹은 이실그라드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한된 용량 이상의 아르카나를 사용하게 되면 중독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아르카나의 중독은 혈액을 굳게 만들며 아르카나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푸른 색을 띈 결정이 혈관을 타고 빠르게 흐르며 몸에서 보석의 결정처럼 돋아나는 현상이다. 아르카나 결정이 굳어져 몸에 돋아나기 전에 피부 주위에 푸른 얼룩과 함께 그을린 듯한 반짝이는 연기의 가루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르카나에 중독되기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아르카나를 사용하려는 이들은 항상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 현상을 치유하는 방법은 아르카나 호수에서 자라나는 약초인 필라록사라는 약초

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여 체내에서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아키스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과정은 섬세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에 숙련되지 않은 아키스트들은 중화하는 과정에서 아르카나와 급속으로 동화되어 망가지기도 한다.

『 필라록사 』

은은하게 푸른 빛으로 발광하는 꽃으로 마약으로 분류되며 각성의 효과를 가졌지만 동시에 완화효과 또한 지니고 있다. 때문에 퀴나즈의 아키스트들 사이에서는 고요한 아르카나폭풍이라고도 부른다. 이실그라드 주변에 아르카나의 샘물을 마시며 자란 나무 수액으로부터 추출하여 고형화 시킬수도 있으며 액체 상태나 혹은 기체의 상태에서도 흡입할 수 있는 아키스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약초로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과거의 의학길드 소속된 숙련된 마이스터들은 이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시에 상당한 주의와 섬세함이 필요하다. 한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빠른 형질변화를 일으키지만 외형적으로는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내부의 장기부터 손상되어 손을 쓸 새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기에 그저 주의깊게 거듭 확인하며 이를 다루는 수 밖에 없다. 상투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필라록사를 엄하게 금하고 있었으며 필라록사 묘목의 재배나 유통 거래현장 적발 시 연루된 자를 비롯해 식물의 존재를 알게 된 모든 이들을 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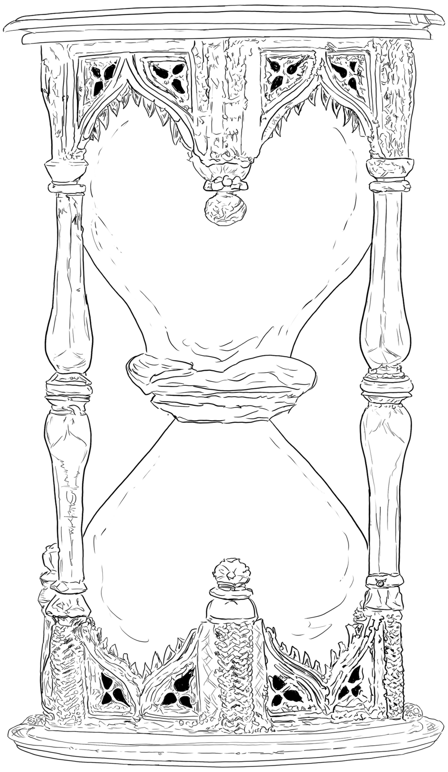
에 처한적도 있었다. 이전에 생매장이나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으며 죽기전 이들에게서 나온 타액이나 부패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서도 미미한 환각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어 오랜시간동안 소각하는것이 원칙이고 유독물질로부터 안전수칙 유지의 명목으로 아벨의 방벽에서 한참을 떨어진 곳에서 심판을 거행한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 시란두르 』

이데아의 뿌리에 담겨진 대지의 기억과 키오누스의 기록들이 섞이면서 아르카나가 태어났고 그것의 결정은 아르카나의 샘 뿐만 아니라 온 대지를 떠돌고 있었다.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 여기고 있지만, 그 다름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은 아르카나의 인도에 따라 이실그라드 주위에 자리하게 된다. 이후에 서로가 가진 아르카나의 특질성을 분석하고 연구를 거듭하며 그것의 신비를 책으로 집필한다. 이실그라드와 키오누스 저들끼리 속삭이던 언어로 이를 아벨의 자손들이 가진 언어로 번역하자면‘태고에 숨쉬던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모든 기록에 아르카나가 담겨져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에 사특한 자들이 함부로 그 서적을 탐할 수 없다. 생명의 태동을 기반으로 이실그라드의 퀴나즈가 대대로 지식의 보고로 삼은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키스트들 사이에서는 그 기록을 이실그라드의 기억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생명으로 여긴다.

『 아라샨 』

세력 상징은 아르카나가 담긴 모래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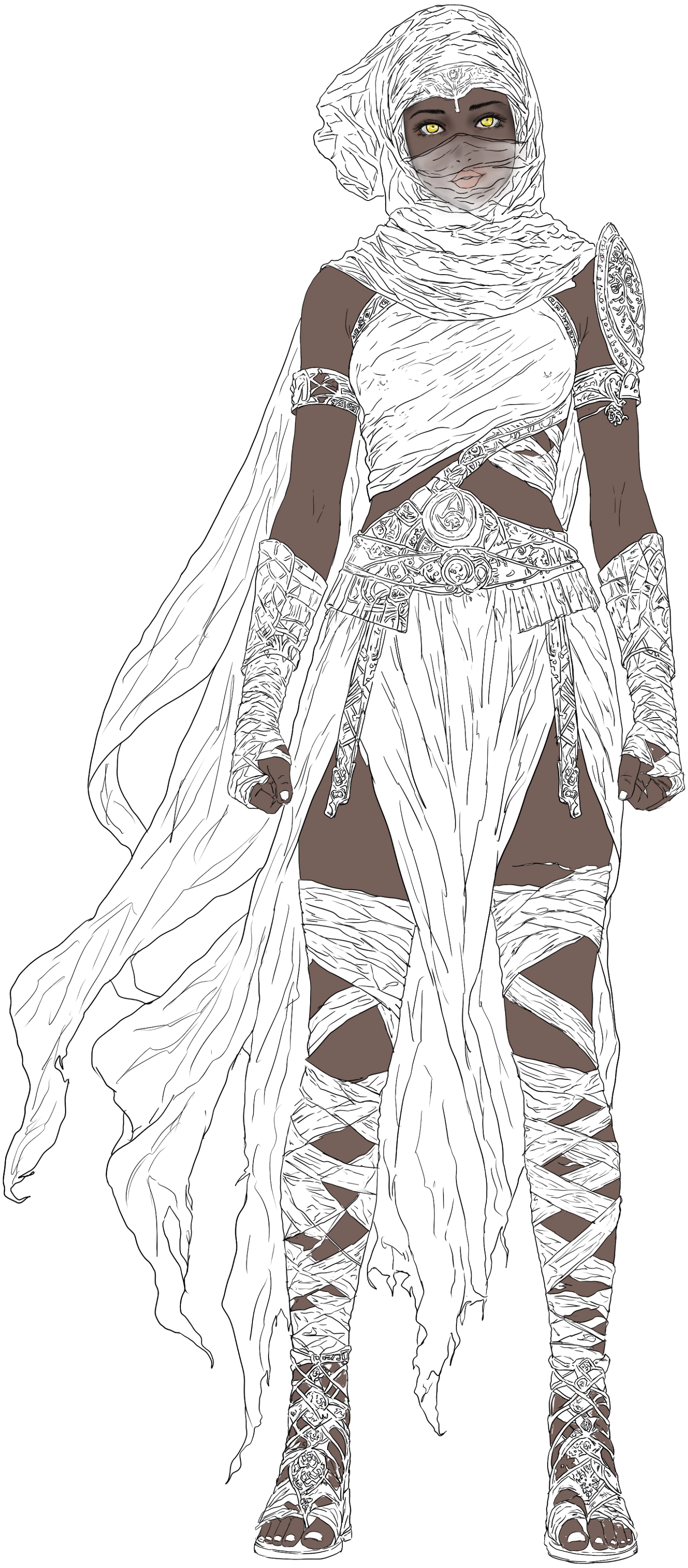


"스스로 구원에 닿을 수 없다면

흙바닥에 고개를 쳐박으며 삶을 배우고, 죽음을 배우라.

주변에 나뒹구는 모든 것들이 너의 스승이다."

— 아르할라에 새겨진 글귀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라시드. 어두운 피부에 호박석 눈을 지니고 있으며 짐승과도 같이 괴이한 움직임을 지닌 작열하는 태양 아래 사는 사막의 무투가들. 대항하는 자들에 맞서는 무기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니, 저들의 단련된 강인한 몸과 날랜 순발력이다. 퀴나즈와는 다르게 아르카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몸에 실어 다룰 수 있다. 처음부터 이들은 아르카나를 찾아 헤메인 것이 아니라 아르카나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들을 찾아 맴돌다 이들과 조우를 했기에 두 부류가 아르카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아르카나에 대한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과 동화하지 못하며 아르카나를 물리적으로 직접 구현할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적인 감각과 순수한 체력만으로 아르카나를 몸에 두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지니고 전통적인 무투와 융합하여 활용한다. 또한 아르카나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며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에 이들은 아르카나 중독에서 대체적으로 자유롭다. 사막의 무투가들은 신성한 자신들의 땅에 불경한 피를 뿌리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아벨의 자손들 안에서 차별없는 사회를 바라고있다.

『 라시드 』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중에서 유난히 피부가 검은 자들이었기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다른 자손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차별을 당

하게 된다. 그리하면 할수록 저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 서로를 보듬었으며 차별 속에서 아벨의 자손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차별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이 심해졌고 잦은 시비에 참지 못했던 이들 중 하나가 무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동에 분개한 이들은 아벨에게 마땅히 폭력을 가한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길 요구하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자들 가운데 현명하고 인자한 자 '라시드'는 자신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였고 아벨에게 자신의 팔을 잘라 보임으로써 그것으로 죗값을 대신케 했다. 그 희생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했지만 그를 따르던 자들은 존경을 보였다. 이에 라시드는 일련의 사건으로 자신들의 무리가 더이상 아벨과 함께할 수 없다고 여기었기에 아벨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뒤 자신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자리를 떠났다. 이들 무리에서 떨어져 오랜 시간의 방황끝에 발걸음이 멈춘 곳은 눈이 부시도록 맑고도 장엄한 황금과 같은 사막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피부가 지닌 특이한 체질 덕분에 작열하는 태양은 이들의 살갗을 쉬이 태우지 못할 따름이니 라시드는 이곳을 운명처럼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라 여겼다. 저들은 초인적으로 뛰어난 육체적 탄력성과 반사신경으로 사막의 위협을 헤치며 살아가게 된다.

『 영혼의 제련 』

라시드는 순수한 영혼이 아벨의 자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긴 라시드는 정성을 다해 이들에게 살아가기 위한 힘과 지혜를 나누

어 주었고,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터득하게 했으며 더불어 아벨의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만행으로 인한 무의미한 적대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부던한 노력 덕분에 그를 따르던 이들 가운데 아벨의 품을 떠나고서도 스스로 방랑자라고 느끼는 이는 아무도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책망보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 이것이 훗날 라시드와 그의 무리들의 유연하고 단련된 육체와 더불어 아르카나의 흐름을 깨우치는 발판이 된다. 그렇게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라시드는 스스로를 그저 방황하는 영혼을 안내하는 자라고 낮추어 부르곤했다. 그 모습 그대로 라시드는 어떠한 편견없이 많은 이들을 보듬으며 진심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어가며 그들에게 알맞은 방향을 제시해주며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그렇게 라시드도 가르치며 스스로 배우는 오랜 수행을 이어가던 가운데 어느샌가 자신의 주위에 흐르는 힘을 인지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대한 생명과 영혼의 제련에 적합한 흐름을 본능적으로 느낀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다. 마침내 수많은 이들이 그 생명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다루며 자신을 연마하는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극한의 수련 뒤 그들은 아르카나의 흐름으로 자유로이 대기의 흐름과 그 기운을 느끼고 다룰 수 있게 될 정도였으며, 높은 깨우침에 도달한 자가 허공에

내지른 한번의 주먹질로 사구를 가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자신들의 주위에 흐르고 있는 힘에 취하지 않으며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라시드는 자신들을 이르러 사막의 순수한 영혼이라는 뜻의 ‘아라샨’이라고 부르고자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야 알려지게 된다.

『 아룬 모라 』

라시드의 피땀어린 헌신으로 황량한 사막 속에서 어느정도의 문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는 오랜동안 자신을 기꺼이 믿으며 함께 인내의 시간을 보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자신들이 사는 이 땅을 사막의 기적이라는 뜻의 ‘아룬 모라’라고 불렀다. 이름 없는 황량한 곳에 정이든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이 자리한 사막의 보석과도 같은 삶의 터전을 아끼고 사랑했다. 라시드는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하는 순수한 영혼들이 구원에 매달리거나 죄악이 담기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차별이 당연시되던 이들 사이에서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아룬 모라의 자식들이 부당함을 받을까 우려하던 그는 훗날 영원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으며 이들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게 된다. 작열하는 태양과 빛나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 국가가 개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정치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그저 척박한 아룬 모라의 태양과 위협적인 생물 그리고 극심한 환경으로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그 빛을 머금은 모래는

아지랑이가 일만큼 강렬한 열을 내며 태양이 지고도 달빛에 반사되는 모래가 내뿜는 빛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어설프게 불경한 존재들이 함부로 이곳에 발걸음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장소에 비해 적은 편이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닐 따름이요 그것보다 위험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막을 사는 생물들이었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룬 모라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특별한 생존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날카로운 이빨이나 단단한 갑피를 두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독은 물론이며 환각을 일으키는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룬 모라가 위험한 장소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 사막이 내린 축복 』

작열하는 사막 속에서 이들이 그저 생존에만 목을 매달고 지내온 것은 아니었다. 생존은 짐승들이나 벌레들로부터 배우지만 이들을 사람답게 만든 것은 역시 이들의 독자적인 문화와 생활양식이었다. 아라샨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한 조각의 열매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허기가 채워지고 갈증이 해갈되는 기적의 산물이라 부르는 '에루긴' 이다. 그 말 그대로 모래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명으로 세상의 모든 별을 창조했다는 창조주 에르아의 젖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원만해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개방이 되어 백옥의 껍떼기를 두른자들과 전에 비하여 발

전되고 자유로운 교통 속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더불어 에루긴이 아라샨의 특산품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랜동안 태양을 받은 모래알은 그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밤에도 미약한 빛을 발하여 그것으로 세공한 보석 등 장신구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아룬 모라의 환경성을 고려한 통풍성이 뛰어난 옷감이나 의복이 발달해 있다. 또한 아벨의 방벽이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귀한 광경도 한 몫하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룬 모라를 방문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고 전해진다.

『 아르할라 』

라시드가 아라샨의 투사들의 분노를 재우고 가르침을 주는 동안 스스로 이 모든 과정과 자신들이 돌아온 길을 기록해 놓은 글. 이 글귀는 얇게 다진 돌에 새겨 넣은 것이었으며, 이들의 조판술은 다른 문명과 다르게 아룬 모라의 사막에 사는 특별한 벌레를 빻아낸 진물과 아룬 모라 황금의 모래알을 섞어 화학반응을 일으켜 글귀를 새긴 조판을 작열하는 태양빛에 건조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평범한 양피지에 비해 오랜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종잇장처럼 얇지만 내구성이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나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르할라에 새겨진 글은 거친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손상없이 튼튼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튼튼한 조판기술로 인정받게 되지만 보급률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조판에 실린 양이 많아질 경우에 그 무게가 상당하여 서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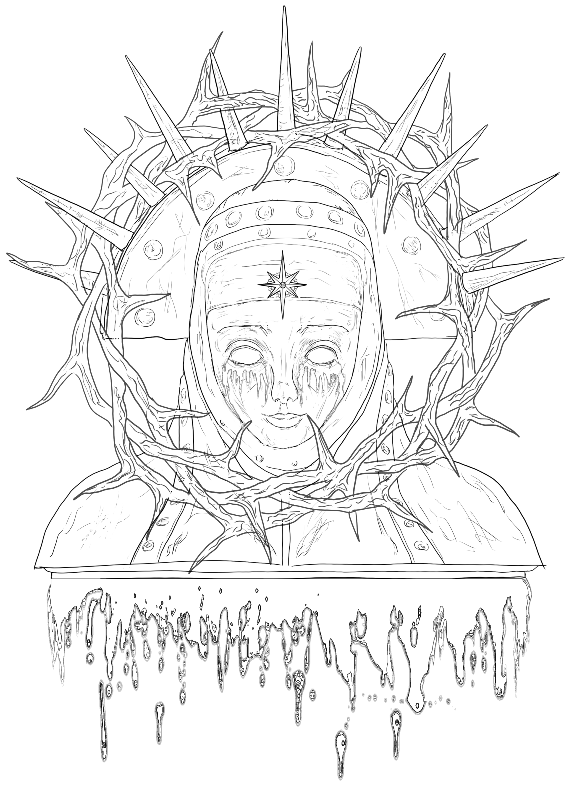
로의 휴대성은 형편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아라샨의 전사들에게 이 정도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내 수용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

『 아르카나를 끌어당기는 존재 』

비록 아라샨은 아르카나를 활용하지만 상투스와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상투스 측에서 아르카나를 다루는 자들과 협약에 따른 간접적인 통제권과 제한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아라샨은 상투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라샨이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처럼 아르카나의 태동을 이해하며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던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르카나라는 것은 본디 생명이 넘치는 자들의 곁에 머물고자 하는 특성을 지녔기에, 혹독한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힘차고 굳센 이들의 순수한 영혼에 이끌려 아르카나 스스로 이들 주위에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라샨은 피부로는 느끼고 있지만 아르카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 그것을 무엇이라 설명을 할 수조차 없었다. 상투스의 수많은 사제들이 퀴나즈의 아키스트들을 동원하여 이들이 두르고 있는 아르카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석하고자 했으나 본능적으로 느끼고 부리는것을 그저 동물적인 감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아라샨의 무투가들도 삶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상투스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베르생 』

세력 상징은 가시관을 뒤집어쓴 피 흘리는 강철의 여인.



“나는 깨지고 망가진 존재이니 날 위한 신은 없으며,

나는 삶과 동시에 죽어있으니, 날 위한 기적따위 없다.”

— 순결한 영혼, 비르가의 독백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비르가.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소집되어 아벨의 기적을 짧은 시일에 구현하기 위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능력을 억지로 끄집어내게 만들어 성령에 억지로 눈을 뜨게된 고통을 받은 존재들. 아벨의 권능과 다른 모습인 성흔으로 자신을 해하여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낳으며 그 기적의 기초는 이타적인 움직임 그리고 동정과 연민이 한데 뭉쳐 실질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기적 때문에 아벨론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배가되면서 그 규모를 늘리지 않음으로 끝을 맺는 듯 하였으나 빛의 성배를 채우기 위한 고문이 계속되자 그저 희생만 강요한 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아벨의 방벽을 뒤로한다. 자신을 희생하여 나오는 연민으로 기적을 보이는 탓에 그 고통에 정신이 피폐해질 수도 있었으나 생명의 근원인 아르카나만이 저들을 동정하였다. 아르카나라는 존재가 저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아벨의 은총으로 길러진 자들은 아르카나의 품에서 마음의 치유를 얻는다. 그것을 감사히 여긴 고문당한 자들은 무리를 이끌고 생명의 나무가 낳은 아르카나의 생명과 자신들의 피로 각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정과 연민으로 상처를 공유하며 망가진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저들만의 구원을 이어나간다.

『 아벨의 첫번째 자손과 남겨진 자들 』

영원의 전쟁의 끝무렵 가운데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직시하며 회의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 비록 죄는 무거우나 그마저 인간이기에 지닐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는 운명을 가진 자들을 가엾게 여기고있던 자가 있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보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 말로 첫번째 자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하며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인간을 사랑한 그녀는 스스로 일어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우는 '요낙' 이라는 자였다. 그녀는 이전에 이미 인간들 사이에 묘령의 여인으로 숨어들어 카인의 핏줄이 가진 낙인에 대해 언급하여 델레놋에게 카인의 핏줄이 가진 낙인에 대해 언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시험에 직접적인 개입을 금하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불문율을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미 그녀로부터 등을 돌리었다. 발시아의 원죄마저 입에 올리며 호소하는 요낙에게 다가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그녀가 아벨의 자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행한 모든 행동을 신성의 모독이라 여기었다. 이들은 발시아를 사랑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게끔 세뇌를 받은 것인지 의문을 감추지 않은 그녀는 그저 죄를 덮기에만 급급해 오직 심판만을 내려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탄식을 감추지 못한다. 죄를 덮으려하지 아니하고 발시아가 행한 죄를 사하고자 그 원죄를 들추어 내려하니, 그 행동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요낙의 형제 자매가 보여준 행동은 마치 이바와 아다무스가 보인 아집과도 같으니, 그들의 자손에게서 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혹은 창조주에게 보이

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녀의 의중을 대부분이 달가워하지 않았기에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르기를,

‘그리도 발시아의, 우리 자손들의 죄가 씻겨 나가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곁에 서라. 그들과 함께 그 원죄를 짊어지고도 그들의 추악함을 참고 견디라. 그리고 그 죄마저 사랑하며 이데아의 대지에 쓸쓸히 남으라.’

라고 말하며 엄포를 놓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음을 보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행동을 예상치 못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일그러 지더니 이를 심히 불쾌하게 여기었다. 개의치 아니하며 그녀는 기꺼이 그녀의 등에 일곱가지의 원죄의 낙인을 새겨넣고 이들을 뒤로 했다. 그녀가 후에 이르기를,

‘이것은 형벌이 아니요, 그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내가 짊어진 구원의 길이로다. 죄악을 몸에 담은 나는 형제자매를 뒤로하고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지닌 권능을 모두 지우고 내 스스로 이데아에 떨어져 아벨의 자손들 속에서 살아갈 운명을 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아벨의 자손들이 신이라 부르는 것들의 놀음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그것의 의미는 아벨의 자손들 스스로 의지를 갖고 살게 되는 것이었고.

아벨의 자손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첫번째 자손이 이데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역사는 그녀가 죄를 등에 업고 내려가며 끝을 맺게 되었으며, 우연인가 필연인가 후에 하늘과 땅을 뒤집는 듯한 이데아에 닥친 대재앙으로 인해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모두 물 속에 잠기게 된다.

『 순결의 세례 』

아벨의 강림을 앞당기기 위하야 아벨의 거룩한 성배에 더 많은 순수한 영혼을 담아내기 위해서 모집한 이들을 아벨론의 지하에 비밀스러운 예배당에 쳐넣고 그 곳에서 감옥과도 다름없는 삶을 살게했다. 고통과 고문 그리고 치유를 반복하여 그 가운데에서 성흔이 만들어질 자들을 쉽게 솎아내기 위함이었다. 성흔으로 인하야 순수한 영혼이 만들어내는 신성함은 신성한 성배에 축복을 아낌없이 채우게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럿이 이성을 잃게 되거나 돌아가기를 희망하나 당연히 묵살되었다. 훗날 상투스라는 새로운 국가가 설립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것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다.

『 비르가 』

상투스는 아벨의 현신을 앞당기기 위해 그의 권능을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한 자들을 알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순결하고도 거룩한 세례를 저들에게 내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적으로 아벨의 성배에 순수한 성령을 채우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날, 세례가 진행되는 도중 소란이

발생했고, 상투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제들을 아벨론의 지하로 보내게 된다. 순수한 영혼을 찾기 위해 헤메던 요낙은 순결하던 처녀인 비르가와 마주쳤다. 그녀는 이미 그녀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을 하자 요낙이 놀라 물으니, 그녀가 의식을 놓을 때마다 줄곧 자신을 깨우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요낙의 존재를 눈치 챈 8대 교황 '순결의 파라크' 가 아벨론 지하에 당도하여 저들의 앞을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파라크는 요낙과 마주쳐 서로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요낙의 눈에 파라크의 모습이 방법은 다소 거칠었지만, 아벨의 자손들을 향한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을 느끼게 된다. 이에 요낙이 그녀에게 간청하였고, 순결함을 지닌 이들끼리 무엇인가 통했던 것이었을까 파라크는 이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돕는다.
비르가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며 동정과 연민, 불경한 자들을 용서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하야 다시금 상처내고 기꺼이 이 땅에 나신의 피를 뿌리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 순수의 대지 』

순결과 순수의 땅이라는 뜻의 '토르메르' 라고 불리운다. 비르가가 찾아오기 전까지 이름없는 곳이었으나, 그녀가 상투스에 다시 찾아가 그들을 맞이하고, 요낙과 비르가가 보여준 순결의 다짐을 눈에 담은 후에 교황 파라크가 저들을 경외시하며 존중하는 의미에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다. 이러한 연유로 아벨의 방벽 안에 자리한 모든 아벨의 자손이 파

라크의 자비를 찬양하였고, 그 소리는 밤낮으로 몇일이나 이어진다. 아벨의 자손들은 여전히 저들에게 부여된 은총과 축복을 두려워하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 요낙 』

아벨의 첫번째 자손으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의 조건인 직접적인 개입의 금기사항을 깨버린 자. 의미없이 피를 흘리는 것을 딱하게 여기던 그녀는 환멸감을 느끼고, 자신의 주장했던 것이 옳았음과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형제 자매들이 보는 가운데 스스로의 몸에 입곱의 죄를 짊어질 성흔을 긋고는 그들과 작별을 고한다. 그 이후에 우연인듯 필연인듯 순결한 영혼 비르가를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순결함을 지닌 교황 파라크의 도움으로 아벨의 방벽을 넘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 후에 저들만의 보금자리에 안착한 무리들이 저들의 성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르가를 불러 그녀에게 가장 큰 마지막 시련을 내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새기던 자들을 향한 동정과 연민 그리고 용서였다. 하지만 함께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고통받으며 서로 상처를 보듬어준 친구를 죽인 아벨론을 용서하는 것은 비르가에게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렇지만 그 번뇌를 이겨내고 마음을 굳혔고 마침내 다시금 아벨론에 당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저들을 용서하고 돌아 온 비르가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육신을 태워 죄악을 짊어진 성흔을 그녀에게 물려주게 된다. 요낙은 그 모습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고개를

조아리며 존경을 표했으며 뒤이어 용서하는 크나큰 용기를 보여준 이들을 조건없는 순수한 희생이라는 ‘베르생’이라고 부르게 하며 자신이 짊어진 성흔을 물려주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동떨어진 구원 』

비록 아벨론에 몸을 담으며 신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피를 뿌려 신성한 빛의 힘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아벨의 은총이 아니며 저들에게 공감하여 눈물흘리는 아르카나의 마소로부터 나오는 힘도 결코 아니다. 아직까지 신성과 아르카나 그리고 베르생의 피가 섞여서 발현되는 이질적인 능력은 축복인지 저주인지 종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다. 그것과 별개로 베르생은 종교의 자유와 포용성, 아르카나와의 융화에대한 반발심도 없기때문에 다른 국가와는 분쟁이 거의 없으며 균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 베르생의 시 - 충고 』

“아벨의 피에서 새어나온 죄.
붉은 빛줄기는 피를 흘리는 가운데
죄악을 품으며 떨구는 회한의 눈물.
그것은 동정하며 이데아를 품에 안으리니,
함께 피흘리는 것을 두려워말라.

용서를 구하려거든 고개를 쳐들고 빛을 보지말라.

그저 죄악을 향해 고개를 조아려라.”

『 카라하스 』

세력 상징은 공허를 찢고 나오는 촉수.



“소근소근 두 귀를 열어라, 저 깊은 곳에서 너를 부른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너만 들으면, 문을 찢고 아비가 온다네.”

— 카라하스 구전 동요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공허의 3마녀라 불리우는 자매들. 아벨론 원로회에 정치적인 싸움에서 밀려난 자들이나 이단으로 내몰려진 자들이 권능의 잔을 채운다는 핑계로 감옥에 가두어 이르러 순결의 세례라는 이름의 숱한 고문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의지할 곳을 찾다 마침내 공허와 속삭이게 된다. 육신은 물론이요, 더욱 깊게 공허에 가라앉은 이들은 영혼까지 팔아버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들을 이데아에 토해내는 자들이다. 핍박당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헤아리지 못할만큼 깊게 새겨진 증오와 혐오의 감정들은 다른 이들과 섞일 수 없는 커다란 벽을 만들었고, 오직 공허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몸을 섞으며 아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데아에 숨을 쉬는 모든 이들이 그 고통을 마땅히 느껴야만 한다고 여기며 이를 나누고자 한다. 이성을 댓가로 하여 공허의 일부를 자신의 몸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며 저들이 검은 문을 열고 힘을 사용할 때마다 정신을 갉아먹히는 위협에 항상 노출이 되어있기에 자아를 잃고 완전히 미쳐버릴 수도 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공허의 존재를 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며 적의 시체를 헤집어서라도 그 비밀을 파훼하려 애쓰는 저들의 의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모습이기에 경계대상으로 등록되었다.

『 드러낸 공허의 속삭임 』

아벨론의 지하에 순결의 세례를 명목으로 온갖 고통을 받은 자들 중 하

나. 요낙의 도움으로 아벨의 방벽을 함께 넘었으나 그녀의 뜻에 함께하지 않았기에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베르생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로써, 동정과 연민 이타적인 배려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용서를 하여 구원을 찾으려는 반면에, 뒤틀려버린 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소통한 자는 요낙이 아니었다. 저들에게 속삭인 존재는 다름아닌 공허, 마녀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카하낫' 이었으니, 상투스의 교리에 정 반대에 위치한 '불신' 과 '절망' 그리고 '증오' 를 자신들 안에 넘치도록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벨론 지하 예배당에 갇혀있는 동안 이미 카나이의 존재와 요낙이 올 것이라는 모든 것을 카하낫의 속삭임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요낙과 8대의 교황 순결의 파라크가 조우했을 때에도 자신들이 공허의 존재의 속삭임에 답한 존재임을 숨기며 방벽 밖으로 무사히 나설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에 방벽을 벗어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가운데 기회를 보고 있던 '세 자매' 는 본심을 드러냈고, 자신들이 공허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는자들임을 당당하게 알리며 이들은 격돌하게 된다. 제 아무리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라 한들 죄악의 낙인을 두른 요낙의 힘은 공허의 속삭임이 가득한 자들을 상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요낙은 순결만으로 이들을 품지 못하였고 이 마녀들의 존재를 지우지 못했을 뿐더러, 오랜동안 혈투로 요낙까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자 카나이와 그녀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그녀를 호위하며 물러서게 된다. 물러서는 이들을 바라보던 세 자매와 공허의 추종자들은 그들 역시 피해가 적지 않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공허와 은밀하게 속삭이며 힘을 키울만한 안식처를 물색하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 칼 파르다 』

공허의 세 마녀들이 저들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자신들이 선 그 곳을 텅 비어있는 붕괴 되어버린 자리라는 뜻에서 ‘칼 파르다’ 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공허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는 자신들을 일컫는 말로 ‘카라하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본디 칼 파르다의 땅 자체가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아 생명 하나조차 움트지 않는 듯 보이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 곳에 공허의 속삭임을 듣는 추종자들의 부정한 기운이 더해져서 칼 파르다는 말 그대로 이계의 것이 아닌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유로 이 곳에 함부로 발을 딛는 자들은 영락없이 무언가에 홀려 정신이 나가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기록이 있다.

『 공허의 3마녀 』

베르생과 격돌한 세 자매는 자신들이 머물 곳에 안착하자 공허의 속삭임과 함께하며 저들을 따를 추종자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고통받고 상처입은 자, 오갈데 없는 자, 아벨론에 반하는 자 등등 음지에 자리해있는 사특한 가치관과 목적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가 점점 커져 나가며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있어 스스로 우

상이 될 따름이니, 과거의 기억을 관장하는‘퀴소’, 현세의 끈을 엮으며 다스리는‘락시’, 미래의 장막을 엳보는‘아로스’이 셋을 칭하여 공허의 삼마녀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는 베르생을 통하여 상투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저들의 존속을 위협받게 될 지경에 처해진다. 이에, 공허의 3마녀는 더욱 강한 카하낫의 은총이 필요하다 여기었고, 자신들의 육신과 정신을 제물로 서로의 몸을 한데 엮어 문이 되고자 했다. 그 문의 통로는 당연히 카하낫의 영역을 통하는 문이었으니, 이렇게 공허와 이데아가 이어진 첫번째 문이 열리게 된다. 아벨론에 반하는 이념 불신과 절망 혐오를 온누리에 전파하여, 빛에 눈이먼 자들을 부정하는 사특한 기운을 끌어모아 순수한 복수의 막을 열고자 한다.

『 모르가 』

공허의 세 마녀가 스스로 공허를 통하는 문이 되어 카라하스의 추종자들이 더욱 강한 힘을 발현할 수 있었지만, 저들은 그 자리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채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미 세 마녀는 문을 열기위한 살아있는 생체통로 자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저들이 통로가 되기 이전에, 카라하스의 추종자들이 우두머리를 잃는 것을 우려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을 믿을만한 자에게 이미 주입하였다. 그녀는 신기루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모르가’라고 부르는 자였으니, 그녀는 공허의 세 자매가 아벨론의 지하에서 고통을 받으며 입

을모아 속삭이고 저주하는동안 함께하던 오랜동안 갈고 닦아 세뇌시킨 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세 자매의 예견대로 자신들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모르가가 나서며 공허의 세 마녀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몇몇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증명을 요구하기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현실의 균열을 찢었다. 공허 속에서 무수히 뻗어져 나오는 괴물들은 공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을 남김 없이 먹어치워 당당하게 그 증거를 보이니, 모두가 그녀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 뒤틀린 속삭임 』

뒤이어 저들의 아비의 속삭임을 기록으로 남겨 눈을 멀게 하는 추악한 아벨의 빛에 반하는 불경한 책을 이 땅에 남기게 되었으니, 공허의 속삭임이라는 의미를 가진‘아바랏트’라고 부르며 그 기록 속에서 아벨과 그의 자손들이 이데아에 새긴 추악한 죄악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공허가 저들에게 속삭인 것과도 같이 저들도 온 이데아에 그 속삭임을 퍼뜨린다. 그 속삭임이 귓가에 메아리치면 그것을 담지 못하는 자들은 고통에 몸부림 치게 되고 나아가 저들의 마음을 조롱하고 저들끼리 죽고 죽이는 기괴한 모습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광기의 참상 속에서 카라하스의 힘은 더욱더 거대해지기 때문에 수많은 존재들의 타락과 오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연료가 된다. 믿음이 깊지 않은 자들, 탄식하여 설 힘을 잃은 자들, 해하고 피를 갈구하는 자들의

부정한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가벼운 속삭임으로도 충분하다. 아직까지 많은 존재들이 이 위대한 카하낙의 힘이 어찌 가장 약하디 약한 아벨의 자손들에게 내려졌는지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 가장 추하고도 비열하면서 무엇보다 나약하기 때문에 가장 비틀어지기 쉬운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그 추악함의 카라하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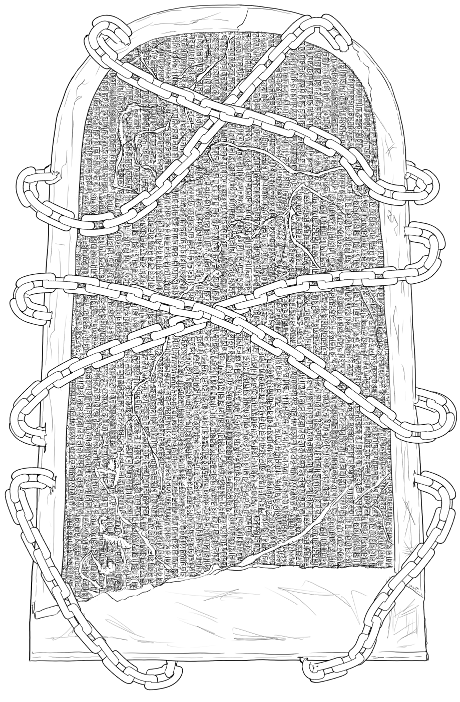
『 이르메시움 재판기록 ; 대상 ; 마녀 』

“타락이라니? 무슨 말인가? 그말은 마치 그대들이 선인것인양 들리는 것은 나의 착각인가? 선악의 정의를 누가 정한단 말인가? 우리에게 있어 그대들이 악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비록 우리가 공허에 영혼을 팔아먹은 악으로 쓰여질 지언정 무고한 이들을 광기의 나락으로 내 몬 그대들이 정의에 선 것은 아니다. 그대들의 어줍잖은 잣대로 정의라는 이름을 들이밀지 말라.”

저들에게 내려진 것은 심판도 정화도 소멸도 아니었다. 정상적인 판결이 아닌 분노와 혐오였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언가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마지못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카라하스의 마녀로다. 상투스에 대한 모독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으려 억지로 저들의 입을 막았지만, 나는 그의 물음에 답하지 못한채 심판대에 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 라구엘 』

세력 상징은 사슬에 감겨있는 비석.



“썩고 문드러진 이 육신을 보고 답하라, 이바와 아다무스여.

이것이 정녕 그대들이 바라던 이데아에 선 자의 모습인가?”

— 종언의 파편, 일락시움에 남겨진 기록 중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밀리앙.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퍼지고 난 뒤, 그 영향은 일부 아벨의 자손들에게까지 닿게 되었다. 이는 아벨의 방벽 안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이들이 불경한 자들을 물색하고 의심하고 정화하기 위해 '광란의 새장' 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발발하게 된다. 아벨의 방벽 안에 삽시간에 퍼진 광기는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해 거리와 광장에 시체들이 즐비했고 화장터에는 불길이 꺼지지 않고 쉼 없이 타올랐다. 광란의 도가니에서 벗어난 이들 중 하나인 밀리앙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자들과 함께 원망하고도 구원을 바라며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직접 온몸으로 받아버린 피해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이 가진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고나서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며 일부는 사지가 문드러져 터져나오는 진물 때문에 감염으로 인하여 괴사되는 흉측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썩어가는 살점과 흐르는 진물이 마르고 난 뒤 다시 자라나는 살점은 다른 처리없이 치유됨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와 동시에 창조주인 에르아의 손길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이데아에 해악을 끼치는 남겨진 서른의 불안정한 것들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다. 창조주께서 거룩한 창조를 위한 파괴를 빚어내 이데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저들만의 순례길을 걷는다. 개인적인 개체와 저마다가 지닌 감정은 점점 퇴색되어가고 집단의 정신을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

체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창조주의 정신까지 연결하고자 한다. 미약하게 남은 자아의 정신은 창조주의 흔적과 연결되어 있으며 에르아가 눈에 담은 기록의 일부를 공유하며 그녀의 의식이 담겨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에 새겨 순례길에 심어넣으니 그것을 이데아의 역사와 종말을 부르는 걸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 광란의 새장 』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공국 퀼로른에서는 아벨의 자손이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를 향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웃 또는 가족마저 의심하여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불경한 자들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 죄 없는 자들마저 마녀라 치부하며 저들끼리 심판을 자행하기 시작하며 공개 처형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벨의 품 밖으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된 이들은 비단 죄인들만이 아니었다. 단순히 자신들의 분노를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품안의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피로 물든 복수극이나 광란의 새장이라는 오명으로 남았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퀼로른의 위상이 하락세를 걷는 계기가 된다.

『 밀리앙이냐, 로에아냐. 』

비록 저주를 입었어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따스하고 상냥한 존재였다. 광란의 새장에서 무사히 벗어나, 방벽 안팎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과 함께 방랑하는 삶을 걸었다. 모두가 삶의 목적도 의미도 심지어 자신마저 잃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했다. 이에 그녀는 더욱 높은 자에게 기대려했고, 태초의 창조주 에르아에게 간곡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에르아의 귓가에 닿게되었고, 이를 딱하게 여긴 그녀는 밀리앙을 부른다. 그러나 자신을 부르는 음성은 밀리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로에아'라는 이름이었다. 의식과 자아가 점점 흐릿해져가는 도중 아벨의 언어가 바스러지듯 잊혀져가고,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가 자신에게 흘러 들어옴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에르아가 전하려는 바를 어느정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을 부르던 로에아의 뜻이 창조의 테르베르낙과 상충하는 개념인 허무와 파괴라는 것 또한 알게된다. 후에 자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말을 노래하는 순례자들의 무리를 이르러 종말을 관장하는 뜻의 '라구엘'이라고 불렀다.

『 일락시움 』

로에아가 저주받은 아벨의 자손들을 라구엘이라 명명하고 난 뒤로 감정이나 자아라는것을 모두 잃기전에 그녀는 자신들의 존재가 여기 있었음을 한탄 하는듯한 내용을 자아를 잃어버리기 직전의 순간까지 비석에다 새겨두었다. 그리고 이는 완전히 파괴되어 창조주 에르아에게 바쳐지는 종말의 파편이라는 의미를 지닌 '일락시움'이라 불렀다. 자아를 잃는다는것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었기에 로에아는 비탄의 감

정을 가슴에 꾹꾹 눌어담았다. 그리고 그 글귀는 그녀 이후의 라구엘의 순례자들 안에 담겨져 있었고 이데아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었기에 불경한 존재들은 감히 그녀와 순례자들이 새겨놓은 기록에 함부로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 생소하고 기이한 문자와 언어로 휘갈겨져있는 기록은 감히 입에 올릴수 없었고 그것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따위도 없었다. 그러나 라구엘에게 있어서는 흩어진 종말의 기록이야말로 자신들만의 성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존경과 사명감이 아니라 생물의 본능과도 같이 자신들이 걸으며 이데아에 심는 종말의 파편을 당연한 일상처럼 여기는 것이다. 다들 일락시움을 부정한 기운을 품은 예언과 종말의 서라며 거리를 두고있지만 사실 종말의 서에는 어느정도 에르아의 입김이 닿아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뿜어내고있는 심상치않은 기운 때문에 그것의 파편이나 조각따위가 암거래상이나 경매장에 가끔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더불어 밀리앙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을때 문자 그대로 그녀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담겨져있어 그것에 심취해있는 일부 이교도나 인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일락시움의 단편은 역사적으로나 언어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히 높다.

『 알마게드 』

라구엘들이 거주하며 저주로 인해서 모든 감정이 퇴색 되어지기 전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상투스의 눈을 피했던 곳이다. 알마게드는 위

생적 열악함으로 역병이 자주 창궐할 뿐만 아니라 살과 뼈를 깎고 피를 빨아들이는 불경한 존재들로 인해 카인의 자손이나 세트의 후예조차 발길을 꺼리는 장소였다. 특히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과포화 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들의 피와 살을 선호하는 포식자들이 많지는 않았기에 이곳을 기꺼이 거처로 삼기로 한다. 애초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그저 세트의 피가 흐르는 자들의 목을 죄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었는데, 저주에 인격이 있는 것과도 같이 아벨의 자손의 피 맛을 알아버린 후에는 아벨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시작하여 결국엔 아벨의 영토에도 저주의 손길이 닿게 된 것이었지만 라구엘의 순례자들은 그곳을 종말의 무대라는 이름인 ‘알마게드’ 라고 명칭하였고 창조주의 이름아래 순례의 성지라고 입을모아 말한다.

『 집단군체의식 』

시간이 흘러 라구엘은 완전히 저주에 잠식되고 순례자들 모두가 하나의 집단 군체의식으로 진화하고 완성된다. 그리고 알마게드에서 시작해 자신들의 몸에 흐르는 저주로 새긴 글은 일락시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서게되었고, 그 비석을 자신들의 사명에 따라 이데아 도처에 심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 예언의 비석인 일락시움의 조각을 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데아에 더욱 선명히 새기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에 다른 이가 새겨놓은 흔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 그렇게 다른 이가 심어놓은 비석을 짊어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하는 무한의 고행

가운데 길은 선명하게 새겨진다. 그렇게 창조주 에르아가 정화를 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게된다. 하지만 감정이 지워지고 나서도 라구엘이 감정을 모두 잃기 전에 돌에 새겨넣은 그들의 짧은 역사를 기록한 글들을 옮기는 몇몇의 순례자들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순례길 동안 이전의 옛 기억 또는 그리운 기운에 휩싸이게 된다. 그 찰나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쉽게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순간은 육신이 기능을 잃고 멈추어 버릴수도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고도 전해진다.

『 알마게드 평원에서 죽어가던 이의 마지막 기록 』

‘알마게드에 발걸음을 하지말라. 그곳은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곳에 살아 숨쉬는 자. 저들과 살을 맞댄다면 썩어 문들어질 것이고, 저들과 말을 나누면 혀가 잘려질 것이고, 저들과 교감을 하면 영혼은 찢어발겨질 것이라. 저들의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동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것이 아닌 실로 저주로 만들어진 그대의 형제자매라.’

『 분노로 새겨진 기록 중 』

아아, 이바! 아다무스! 아벨! 나는 라구엘! 저주받은 자여! 아벨이 밭을 태울때 당신! 당신은 어찌하야 그것을 듣고도 말리지 아니하였나! 용기를 갖지 못하고 그것을 숨어 듣고도 카인에게 전하지 않은 결과는 이데아의 모든 혼돈과 재앙이나니! 마땅히 그것은 죄로다! 그리하야 우

리는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세트의 심장을 죄고 짖누르기 위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당연히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당신! 그리고 나를 위한 저주임이 마땅하다! 억울하느냐 죄인아! 그렇다면 순례의 길 하나하나 걸으며 우리가 그러하듯 너도 속죄하고 회개하라! 속죄하고 회개해도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오만함을 여태 깨닫지 못해 다른이를 탓하는 너마저 쓸어내버릴 창조주의 눈물이라!

『 깨진 돌 파편에 희미하게 새겨진 기록 』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리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종말.”

“종말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

『 라구엘이 남긴 기록의 해석 』

“종말의 무대 알마게드, 이 몸뚱이가 바로 알마게드로다. 저기 순례하는 자가 라구엘이요 이 육신 또한 라구엘이라. 내가 일락시움이자 저기 휘갈겨진 문양을 가진 비석을 짊어진 몸뚱이가 일락시움의 조각이리니. 죽음과 종말을 목도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 전도사와 순례자 』

라구엘은 에두예르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에두예르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시험의 연속이라 여기고 있지만 라구엘은 그들이 저주를 거두지 않을것이며 그저 이데아의 생명이 고통받음을 즐기는 쓰레기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들이 이데아에 살아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심판하기 위해 저주를 뿌렸듯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 손에 의해 죽기를 바라던 이들이었다. 에두예르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순례와 고행의 길에 서 있는 라구엘의 기운은 익숙하면서도 경계의 냄새를 잔뜩 뿌려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바와 아다무스와 얽혀있지만 이 둘은 결코 서로 섞일 수 없었다. 이데아를 병들게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아직까지도 시험의 연장선이라 말하는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을 라구엘의 순례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전도사가 말하는 계시는 거짓된 음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 남겨진 자들이 설 땅 』

이들의 방식은 다소 거칠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이데아에게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비록 아벨의 자손들마저도 악마의 속삭임에 물든 오염된 자들이라 칭하며 이들마저 해하려고 하지만, 기이하게도 이데아만큼은 상처 입히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데아를 상처입히려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외없이 움직인다. 순례를 위한 움직임 이외에 다른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창조주께서 다시금 생명을 낳기위한 순수하고 맑은 대지가 필요하다 여기는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대대수의 이들은 라구엘의 사상이 위험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다소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어쩌면 두려움에 못했던 것이 더 옳은 표현이었다. 어렴풋이 이데아가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슬픔과 연민에 대해 기이하게 여긴 베르셍의 수녀가 알마게드를 방문하게끔 한다. 그 자는 이곳에서 밀리앙이라는 여인이 방랑자들이 감정을 잃기 이전 이들이 남은 감정을 모조리 쏟아내듯 돌에 새긴 짧은 역사를 엳보게 된다. 이데아가 이들에게 품었던 동정심의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상투스와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라구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수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에르아 에우 나 보르 욤 아두르낙 』

‘에르아가 내린 약속의 시간 그것을 바라 마지 않으심이라 마치 태초에 그려낸 모습이 그러하듯이.’

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라구엘의 비석중에서 가까스로 혹은 억지로 끼어맞추며 간신히 유추해낸 유일하게 번역된 문장이다. 버려진 폐허인 알마게드에서 발견된 일지에 단 한 줄 적혀있는 말로써, 누군가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종합해 보았을 때, 라구엘의 목적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그저 돌덩이를 옮기는 정신병걸린 문둥이들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들로 분류되기 시작한다.

『 아그발 』

세력 상징은 가시달린 목줄을 하고 있는 쥐.



“나 타라 이그너, 피로 흥하였으니 훗날 피로 망하리라.

다만, 그것에 후회는 없으니 내 시체를 씹어먹고 자란

시궁창 쥐새끼가 그 다음 왕이 된다.”

— 시궁창 지하여왕, 맹공의 타라 이그너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타라 이그너. 공국이 몰락하고 아벨론이 그 뒤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미약하기 그지없는 모습에 일각에서는 퀼로른의 썩어빠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결국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된다. 오랜 시간동안 영광스러운 순간을 살던 일명 위에 선 자들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으며 다른 것은 수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고방식이 자리했다. 그들의 입장을 돌리려는 집단이 적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과 그들의 방식에 회의를 느낀 자들은 아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방벽을 넘은 자들은 썩어빠진 빛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을 이루었으며 나중에는 그 몸집이 비대해져 다른 세력의 도시국가까지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였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이들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퀼로른의 3대 국왕의 전유물인 유흥과 환락의 모습을 가장 닮아있다. 범죄와 향락의 도시라 불려지는만큼 이 곳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비밀에 부쳐져 있고 저들의 명확한 출신성분이나 기록 어느하나 제대로 기록되어있지 않은 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비밀스럽고 급진적이며 적대적인 성향 탓에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이 이들의 존재를 꺼려하지만 다방면의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전문적인 성격과 더불어 의뢰 성공률이나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비밀리에 이들을 고용하

는 자들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있다. 다소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아왔기에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의 세계에 자리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 지도자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해하기 힘든 극도로 수평적인 조직구조를 지니며, 깊지도 얇지도 않은 다른 국가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마굴이지만 그러하기에 역설적이게도 중립국과의 우호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며 그들 이외의 세력과는 쉬이 섞이지 못하는 행적이 계속 보고되어왔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위협세력으로 지정되었다.

『 타라 이그너 』

이그너 가문의 차녀이자, 아드라 이그너와는 남매관계.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과 같은 성격으로 '맹공의 타라' 라는 이명으로도 부른다. 퀼로른이 몰락한 이후에, 새로 창립된 아벨론에 귀의한 이들은 과거 아벨의 자손을 위한 제국의 영광을 되돌리는 모습을 동경하여 아벨론에 헌신한다. 그러던 가운데,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쟁고아의 수와 남겨진 자들의 참담한 실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로 불거졌다. 이에 아드라는 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지하며 마침내 원조와 지원에 대한 승인을 받으며, 아벨의 품을 떠나려고 했지만, 타라는 그의 움직임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렇게 도망쳐봐야 바뀌지 않을것이라 여긴 타라는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아벨론 그 자체

여야 함을 언급하며 아드라를 설득했다. 또한 아드라가 전쟁고아의 문제를 탄원했을 때 묵살될 것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도 타라였다. 그녀 역시 그것들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고 여기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벨론의 근간부터 바뀌어야 했지만, 지금 당장의 친절과 선행을 베풀기 위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의 행동을 위선으로 여기게 된다. 아드라의 태도를 여간 못마땅해하던 타라는 함께 하자며 제안하는 아드라의 손길을 뿌리친 채 자신만의 길에 오른다. 오랜동안 썩어빠진 정치 놀음에 분개하여 그녀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려는 자들을 모두 긁어모아 반란이라며 질책하는 경비병들의 위협을 모조리 묵살한 뒤에 당당하게 정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행렬은 꽤나 길었고 이들은 복잡하게 설계된 지하도시에 은닉한채로 살게 된다. 아벨론의 썩어빠진 근간과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쥐새끼들을 뜻하는 '아그발' 이라는 반 아벨론 국가를 선포한다. 그것은 비단 아벨론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그저 악질적인 반동분자들의 무리였지만 다른 세력과와의 마찰과 불화는 적었고 오히려 민병대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기에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적과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도 알려져있다. 여담으로 아그발의 상징인 쥐는 그녀의 멸칭 혹은 악명중 하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일말의 고민 없이 국가의 상징으로 그려넣었다. 이후에 그녀의 뛰어난 사업수완과 화려한 언변을 바탕으로 인맥을 넓혀나갔고

지하세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심어놓은 전령의 정보력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여왕으로 군림한 뒤 아그발 사이에서는 통칭 지하세계의 주인으로 불려지게 된다.

『 지하도시의 입구 강기뇨르 』

아그발을 이끄는 맹공의 타라는 척후 및 게릴라 등의 활동을 펼쳐가며 부패한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악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폐하며 신원을 감추는 삶을 지내야만 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든 곳은 법망의 외곽에 위치한 버려진 마을‘어반도르’였다. 초기에는 고작 쓰레기장이었으나 점점 그곳을 점거한 범죄자들이 생겨났고 이를 계기로 그곳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이자 범죄의 온상인 곳으로 자래매김하게 된다. 어반도르에서 자라나는 혼란은 정도를 넘어섰지만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곳의 치안이나 행정의 기반을 두기위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자본을 투여해야만 했기에 아벨론 내부에서조차 암묵적으로 보통의 쓰레기장으로 치부하여 완전히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그녀는 당시 아벨론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억압된 시간을 보내왔던 퀼로른의 마이스터를 암암리에 다수 고용하여 무법지대 지하에 도시국가를 건설하였고, 그 위로 서커스 및 연극을 상영하는 극장‘강기뇨르’를 건설하면서 지하세계의 입구를 완벽하게 은폐시켰다. 또한, 은신처의 위치가 드러났을 때를 대비하여,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의 지하수로가 복잡하게 작동하며 다른 배수구로 연결되게 작동하

는 장치까지 마련해 두는 등 치밀하게 그 존재를 숨겼다. 그 위로는 환락의 국가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유흥과 환락시설을 비롯한 거대한 도박장까지 갖추고 있으며, 어른들의 놀이동산이라는 이명으로 불리우고 있다. 대부분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이야기 또는 살인, 강간 등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연극을 주로 상연해서 세간에 화제가 되어 외설의 대명사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후, 그 명성을 듣고 강기뇨르를 방문하는 수많은 극단과 예술가가 나타나며 그 명성에 힘입어 강기뇨르의 마담들은 이들과의 조율을 통하여 각 분야의 예술이 화수분처럼 피어오르게끔 만들었다. 이들의 존재는 아그발 뿐만 아니라 아벨의 자손들의 예술수준까지 한껏 끌어올렸다.

『 그레텔 에트머 』

헨델 에트머의 여동생으로 그녀는 역사와 문화방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의 전쟁으로 문화나 역사 혹은 예술에 대한 것보다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나 지식, 기술을 원했던 아벨의 자손들은 그 이외의 것들로부터 눈길을 돌렸고 자연스레 그레텔의 영향력은 길드 내에서도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생계에 닥친 문제로 인하여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길드를 뒤로하고 방황하던 중 강기뇨르의 존재를 알게 된다. 환락계의 거장이 되려는 포부를 품고 있었던 그녀는 그 곳에서 오랜동안 생활하던 도중 아그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강기뇨르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놀라지 않고 그녀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고 여기게 되어 몸을 담게 된다. 그녀가 흘린 피와 땀 덕분에 시궁창 여왕의 계보를 잇는 마담 중 하나가 되며, 아그발의 정상에 이름을 남기었다. 그녀의 박학다식함과 연극으로 다져진 발성과 예법 등 품격있는 몸짓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았고, 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자신과 아그발의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락책의 역할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아벨의 방벽 내에서는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퀼로른 3세의 방탕함과 향락이 그대로 묻어나는 색채를 잃지 않도록 강기뇨르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음악과 시 문화와 예술 풍자 해학을 아우르는 모든 창작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

『 피유블랑 』

해결사 및 다른 업종으로 이데아를 살아가는동안 죽음마저 불사르는 시간을 겪어내야함이 마땅하니 이들의 삶은 당연히 안정적일 수 없다. 몸에 상처는 고사하고 목숨이나 부지한다면 그것은 행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해서 항상 온 몸을 강철로 두를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인 옷감과 결을 달리하는 강력한 천연의 방직인 푸르무스 섬유이다. 오랜 지하의 생활을 이어 나가며 밖으로 미처 방출되지 못한 유독의 천연 가스가 지하의 생물들과 결합되어 화학적인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지하 하수구 도시에는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개체의 몸의 희뿌연 점막은 마치 연기를 두르고 있는듯한 모습을 하고있어 그 이름대로 ‘피유블랑’이라고 불렀다. 거대한 크

기에 비해서 짜내는 섬유의 양이 워낙 적기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효율성이 크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방한과 발열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겹겹이 이루어져있는 섬유조직은 자상 뿐만 아니라 완충의 작용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용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고약한 향은 잡아내지 못하였기에 많은 이들이 기름이나 특별한 향수 등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있다. 더불어 섬세한 화학적 정제과정을 통하여 '피유블라나제' 라고 부르는 연고를 추출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상처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유용하게 쓰이고있다. 다만 점액의 기초적인 성분은 환각 및 각성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그발 내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는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

『 오묘한 자유와 평등 』

가장 쉽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이름이야말로 추상적이지 않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다. 직관적이며 간단명료 하였으니, 믿음이나 신앙을 더불어 정의와 세계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에 채찍질 당한 자들이 찾는 이상향 같은 곳이었다. 피의 새장을 더불어 빛의 심판에서 불안감을 느낀 자들이 그것을 찾으며, 억눌린 공포에 떨던 자들이 그것을 찾으며, 아그발의 순수한 욕망에 충실한 삶을 부러워 마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찾게 된다. 아벨론을 증오하며, 벌거벗은 자, 죄 지은 자, 출신성분이 불분명한 자들이 모두 한데 모여 아그발의 이름으로 저마다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쓰지 않는 자들이

며 지하세계에 대한 충성심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으나, 도둑질을 하고 몸을 팔고, 생명을 빼앗은 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스스로를 아그발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다만, 이렇게 엉망진창인 곳에서도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궁창 지하세계의 여왕에 대한 예우이다.

『 뒷골목의 가르침 』

기도하기 전에 소망하라, 소망하기 전에 움직여라. 구원을 좇는 모습은 아름다우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시간에 삶을 갈구하라. 허황된 빛을 좇는 자는 썩은 빵도, 흙탕물조차 마시지 못할 것이니, 시궁창 속 미친 쥐새끼들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움직여 두 손으로 직접 얻으라.

『 세사도르 』

세력 상징은 벽사와 수호의 귀면.



“동녘의 붉은 해 내 머리 위를 밝히고,

어스름 푸른 새벽 한아름 나를 끌어안으니,

불경한것이 다 무어랴, 그 품안에 두려움이 있을쏘냐.”

— 이수의 사귀멸사경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이수. 동방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조용한 새벽을 여는 국가로 알려져있다. 독자적인 연금술과 신기 혹은 귀기라는 특이한 힘을 가진 자들로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독초나 극약따위로 내성을 기르며 신기를 얻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복중태아의 몸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질을 지닌채로 태어나며, 상대방의 숨을 끊기 위한 적합한 몸을 갖게된다. 약물의 성분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로 취급되어 가문마다 추출방법과 조합식이 서로 다르다. 계약을 위함이라면 독충이나 구천을 떠도는 넋마저 자신의 몸에 거두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연금술과 약물을 다루면서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신내림을 받는 경우에는 영혼과의 깊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 극도로 의심이 많은 성격과, 조용한 성격과 더불어 깎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태도 때문인지 그 속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중립국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성격 탓인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부정한 일로 이들과 연루만 되지 않는다면 딱히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 이수 』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 그녀는 단아하게 정돈된 외모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여 다른 이들과의 마찰을 되도록 피하려 했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씨앗을 아예

근절하여 다른 이들과 조화로이 지내며 표면상으로 많은 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는 살얼음판과 다름없는 광경을 보며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 여기었고, 이내 더욱 큰 변을 면치 못할 것을 예견한 그녀는 길고 긴 숙고 끝에 조용히 시험의 자리에서 물러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저 먼 동쪽 끝자락에서 조용히 살고자 했다. 후에 이들을 동방의 끝자락이라 불리우는 이스마란이라는 곳에 안착하고 국호를 고요한 동방의 새벽이라는 뜻의 '세사도르' 로 지정한다.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음주와 가무를 좋아한다.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참전하지 않았지만 혹여 모를 외세의 불경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 내세의 안정과 군사 양성에 힘쓰며 스스로 선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살아갔다. 또한 그녀는 영과 교감하며 신묘한 재주를 부리는 정예의 군사들로 알려져있는 '도사' 들을 배출하여 안팎으로 알게 모르게 조용히 소임을 다하도록 명한다.

『 이스마란 - 이솔마루 』

문명의 이기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했을 당시 동방의 끝자락이라고 불려지던 곳으로, 많은 이들에게서 미지의 장소라고 알려져 있던 장소였다. 협곡이 많고 짙은 녹음이 가득했던 곳이라 을씨년스럽고 스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기에 때문에 감히 그곳에 발걸음을 하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악명과는 달리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

한 이수는 천혜의 환경과 배산임수의 지리적인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비옥한 영토는 삶을 풍족해 하기에 충분한 이스마란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진 땅이라 여겼다. 이수는 몸소 이 곳의 풍수지리의 흐름을 보고 느끼며 마침내 중심으로 할 터를 잡게 된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혼백과 빙의하고 교감하던 능력을 이용하여 이곳에 오랜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도깨비' 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존재를 인지한다. 대부분 이들을 괴기스러운 외형과 소름끼치는 소리로 그저 잡귀로 취급되며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이 유쾌할 뿐만 아니라 비범함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수는 도깨비들과 해가 여러번 지나고 날이 지고 밝아질 때까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전에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만 보아왔던 터라 자신들과 이렇게나 교류하던 존재가 있다는 것에 기뻐했고, 이수의 존재는 도깨비의 왕 '한웅' 의 귓가에 닿게되었다. 이수와 한웅은 음주와 가무덕에 금새 가까워져 오랜동안 알아왔던 친우처럼 돈독한 사이가 되어 이내 이수는 한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이수의 단아한 외모도 한 몫했지만, 결국 그녀가 차별이나 고정관념 없이 자신들과 섞이는 그녀의 조화로운 분위기에 취했던 것이다. 그렇게 한웅은 손을 건넨 이수의 손을 맞잡고 그녀와 함께 불경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로 했다. 불경한 것들이 신목 푸른 자신들의 천지를 더럽히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했던 이들인지라, 이수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 이런 연유로인해 세사도르에서 신통력이 깃들어 있는 신목이나, 청

동 따위의 주물로 만들어진 도깨비 왕 한웅의 얼굴을 크게 새겨 마을의 변두리에 결계처럼 세워 불경한 것들의 침입을 막게 했다. 훗날 그것은 벽사와 수호의 귀면으로 자리매김하며 훗날 세사도르의 상징이 되었고, 대부분의 신통력이 약한 잡귀들은 그 모습을 두려워했다.

『 귀신밟기 』

동방의 새벽 땅을 딛고 일어난 존재들이 살고 있는 이스마란에는 마냥 평화만이 자리하지 않는다. 주위로 협곡에 둘러쌓여 있어 짙은 녹음이 드리워진 그곳엔 음기가 가득하다. 이러한 이유로 산기슭이나 계곡 주변에는 항상 잡귀나 지박령이 존재하며 음의 기운이 강할 때에는 다른 이를 해하기 위한 영들이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고 알려져있다. 대부분이 원과 한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취하기도 한다. 이수가 이곳에 자리하여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영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도깨비를 동반한 도사들의 무리를 집결시켰고, 귀신의 영혼과 접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수는 의식을 진행하며 때로 그들에게 평온한 안식을 주거나 죽음보다 더한 죽음을 선사했다. 그것을 바라보던 세사도르의 주민들은 의식이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불현듯 바람처럼 귓가에 스쳐오는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의식을 이르러 ‘귀신밟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귀신밟기의 의식은 불과 피 그리고 칼과 타악기 소리가 한데 정신없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행해진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밟기를 거쳐오며 음기만이 가득했던 이스마란의 땅에 비로소 음과 양의 조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 귀신밟기 노래 』

구천을 일야 떠도는 자야, 이제는 그만 푹 쉬려무나.

『 접신과 빙의 』

세사도르의 도사들 중에는 어미의 복중에 있을때부터 그 기운이 서려있거나 어렸을 때 영적인 힘에 눈을 떠 신내림을 내려 그들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도사의 길에 무탈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받은 이들은 조기에 어떠한 영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들에게 신이 내릴 수 있다고 여겨 만물에 감사하 세사도르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도깨비들과 우애가 깊은 것은 물론이요 귀기까지 서려있는 것들과도 거리를 두지 않고 평등하고 잘 섞이는 것을 도리로써 여기게 된다. 그저 영적으로 특출나기만 한다고해서 모두가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나아가 육체적인 힘까지 부지런히 연마한다. 강인한 육체에 강인한 정신이 깃든다는 통념이 있어서인지 그 어떠한 수련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문무를 겸비한 이 도사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러운 숨결을 토해내는 불경한 존재들을 몰아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 또한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 같은 세사도르의 도사들

끼리도 아름답게 펄럭이는 옷매무새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도사들끼리의 충돌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 동방의 독자적 양식 』

저들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구사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벨의 자손들의 언어는 이해하고 있다. 절제된 몸짓과 차분함으로 세사도르 내에 예를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한다.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하며 그 외에도 비단 및 산에서부터 나는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 약재와 향료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일부의 이들과 교역을 이루었다. 더불어 각 마을마다 풍토적인 민간요법이 발달해 있었으며, 그것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하여 이수는 이러한 지식들을 한데 모아 약초학과 의료학의 정수라고 자부하는 '세사보감' 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많은 이들이 독초와 약초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방의료의 중심으로 자리해 세사도르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아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화학이나 연금술이라고 알려진 것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에, 의료국인 라파르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다. 약초술와 혼백술 그리고 다양한 무예에 통달하였기 때문에 공작 및 암살 또한 능통하여 중립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벌만과 같은 의뢰는 취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산림이 무수하여 범위가 넓지는 않으나 영토가 비옥한 환경 덕분에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수많은 곡식들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들은 추수하는 방법조차 평범하지 않다. 양손에 낫을 움켜쥐고 증강약제를 흡

입한 뒤에 시끄러운 타악기 소리와 함께 귀신같이 춤을 추며 베어낸다고 한다. 또한 추수가 끝나고 짚을 태워 부정한 영혼과 함께 날려보냄으로 세사도르에서 행하는 나름 공양과 풍작에 대한 감사 및 무탈기원을 위한 전통적인 의식이기도 하다.

『 세사도르 사찰록 중 』

세사도르가 행하는 행위에는 정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벨론은 빛으로,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만의 잣대로 많은 이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시하나, 누군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그 책임과 무게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동방의 새벽을 깨우는 존재들 역시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악보다 더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목을 치는 것은 악이나 선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것을 판단하는 자는 먼 훗날의 나와 너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아니, 산자의 뿌리가 죽은자의 흔적을 태우고 그 자리 위에 서게 될 것이라. 그러하기에 저들의 귀신밟기는 멈추지 않는다. 고요가 평화를 뜻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 저주하는 자가 가져야 할 각오 』

세사도르의 도사들이 가진 재주들 중에 가장 강한 것 중 하나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다른 이를 저주하기 전에 관 두개를 짜라는 것인데 하나는 저주하는 자의 것이고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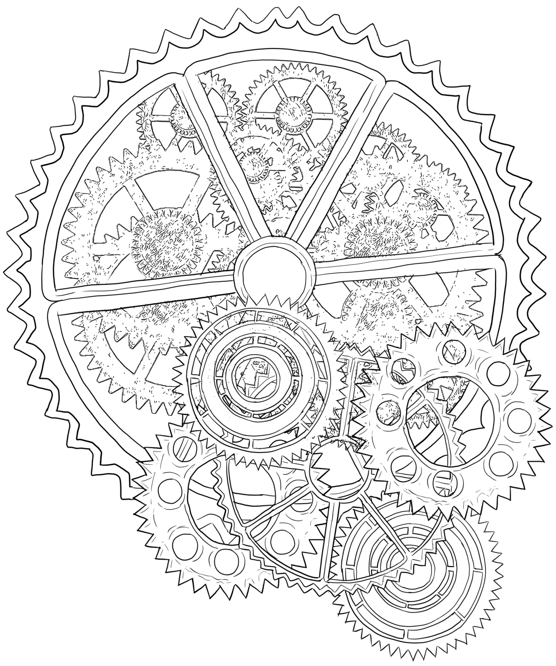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니 남을 저주하는 것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 저주의 화살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수와 도깨비왕의 만남 중 』

“삿된 것이든 길한 것이든 무릇 이 땅에 자리한 것들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일지니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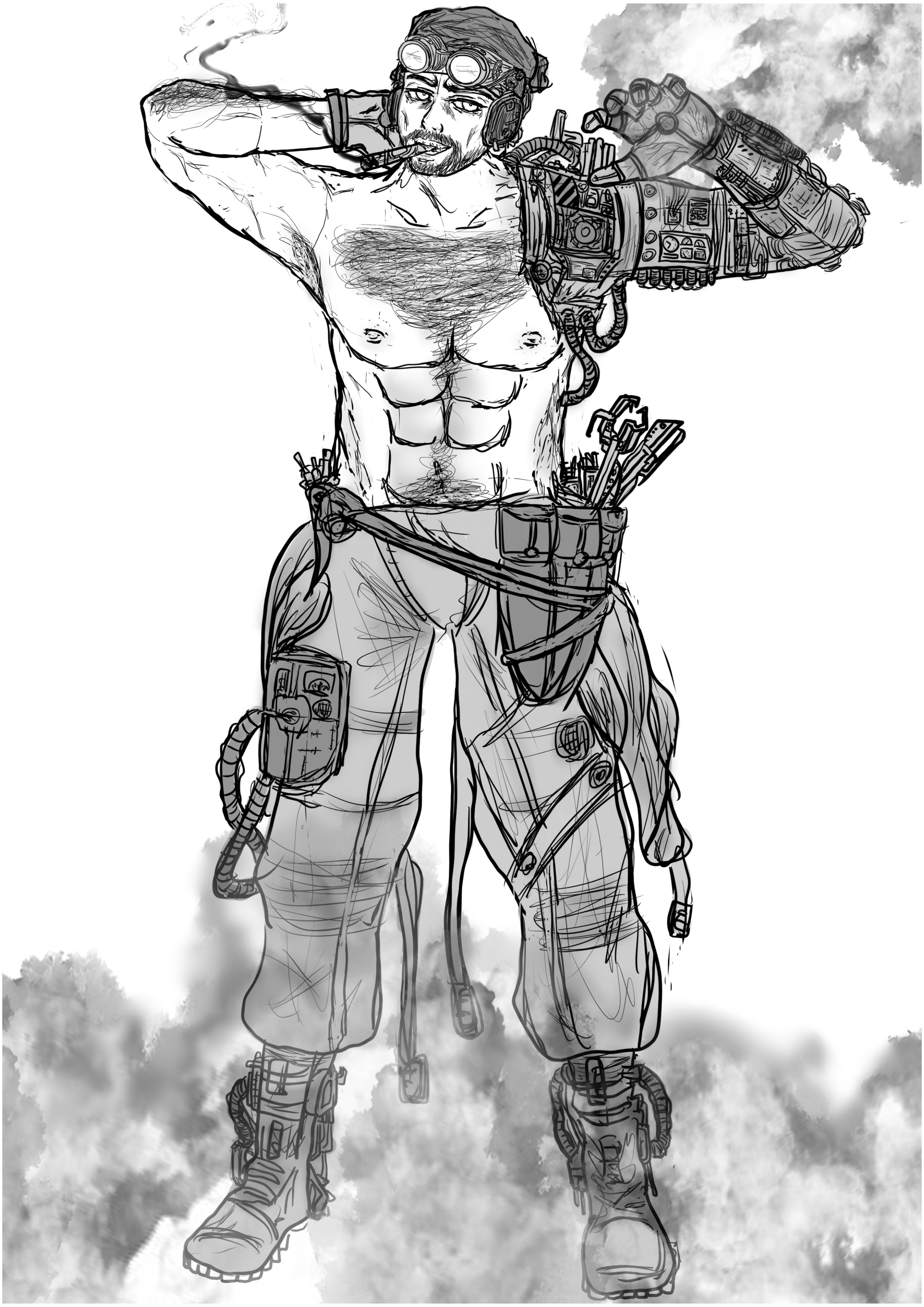
『 윌츠 』

세력 상징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태엽.



“두 손을 모아 갈구하는 저 빛을 구원이라 한다면, 빛을 쏟아 내는 과학의 손끝에서 구원이 태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

— 천재 과학자, 사야 뒤 보우츠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사야 뒤 보우츠. 오래전부터 아벨의 자손들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들을 보유한 자들이 과학이나 사회제도 혹은 예술이나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무리를 이루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탐구하면서 집단이되고 제도화와 사회화를 거쳐가면서 깨우친 자들을 중심으로 길드라는 이름의 무리가 만들어졌다. 공국 퀼로른이 몰락하고나서 아벨의 방벽에 자리하고 나서 이후에 새로이 창립된 신설의 국가들과의 이념대립을 이유로 길드 일부의 명망있는 자들이 방벽을 넘은 뒤에 세워진 신설국가의 이름을 윌츠로 명명하였다. 윌츠의 과학자들은 생존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힘을 다른 분야도 아니고 오직 지식의 한계를 끌어올려 기계와 과학에 집중시켰다. 그렇게 연구를 거듭하며 아벨의 문명을 꽃피우는데 다방면으로 일조한 이들을 과학자 길드국가 윌츠의 마이스터들이라 불렀다.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이 과학이란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도외시하기 때문에 윌츠는 자칫 폐쇄적이고 거만하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일부를 아벨의 자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중립도시국가 가운데에서 자유 개방적이며 아벨의 자손들의 문명의 진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기술에 대한 다소 지나친 집착으로 도덕적인 개념이 모호한 이들의 수도 적지 않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조주와 화폐 조주 기술이며, 시간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아벨의 자손의 분명을 이룩한 것들 상당한 수

대부분 윌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호의적인 자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교류의 장이라는 명성답게 길드 내에서 이루어지고있는 학회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통화를 보유하고있는 황금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 사야 뒤 보우츠 』

과학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그가 출판한 저서에는 그가 한평생을 함께했던 연구기록이 담겨져 있어, 그것은 윌츠 내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는 정반대로 사교성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때로 허무주의적인 말을 내뱉는가하며 지나치게 이성적인 성격 탓에, 다른 이들과 공감하지 못하며 지낸터라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으나 그는 신경쓰지 않았다. 퀼로른 길드 마이스터 중 하나로 과학 분야 전임을 맡고 있었다. 이 후에 그는 증기를 개발하고 전기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퀼로른과 그 뒤를 이은 아벨론, 그리고 여러 자치도시를 잇는 철도를 연결하여 교통의 활로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에너지를 뜻하는 보우츠라는 용어 역시나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측정된 단위의 개념도 그것을 기반으로 정립되었다.

『 사야 뒤 보우츠의 강의 중 』

‘그대들이 부르짖는 신이라는 존재들조차 완벽하지 못할뿐더러 불안전한 우리를 빚었는데 과학에서 완벽이라는 개념이 있을리 없다. 하물

며 그것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 라는 물음을 멈추어 버린 시점에서 과학은 그 빛이 다하게 될 것이며 인류는 진보를 멈추고 선 제자리 걸음만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리에서 안주하며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한다.'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운 존재인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게 만드는 자들인가? 아니면, 고개를 들고 일어서게 하는 자들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고 과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준 선물이다.'

'아벨의 은총을 눈에 담고도 그저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된다. 진정 그대 스스로 과학자라 여기고 이를 자부한다면 기적을 눈에 담은 뒤에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가설수립, 관측과 실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명과 입증이다.'

'과학에는 실패가 없다. 모든 것은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하는 것을 멈추려하지 말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멸로부터 오는것이 아니라 사고의 정지에서 오는 것이다.'

『 선진미래, 과학국가의 설립 』

과학의 아버지 사야 뒤 보우츠는 길드의 오랜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사야는 당시 아벨론의 9대 교황 세라하에게 길드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다만 교황 세라하는 선대의 교황들과 달리 어떠한 특출난 미덕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9대의 교황으로 추대가 된 이유는 스스로의 부

족함을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녀는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웃으며 털고 일어나 나아가는 꿋꿋함에 감복하며 그 모습이 가장 인간답다는 연유로 아벨의 자손들과 거리낌이 없이 교류하며 신임을 받으면서부터 9대의 교황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과학이라는 산물을 연구하는 길드의 마이스터는 퀼로른 휘하에 있던 연구집단에 불과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수세기 동안 논쟁이 끊이질 않았고 마침내 세라하가 저들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어 아벨론 내의 분쟁은 일단락 되었다. 길드가 아벨의 자손에게 기여한 공헌에 대해 이견이 없음으로 사야의 요구가 수락되자마자 사야는 잔존하는 길드의 마이스터들을 이끌고 아벨론을 뒤로한다. 그 이후 길드라는 낡은 이름을 버리고 당당히 독립국가임을 선언한다. 마이스터들이 자리한 곳을 이 세계를 돌리는 톱니바퀴라는 뜻의 ‘윌츠’라고 명명한다. 풍문에 따르면 과학자로써 그가 쌓은 다른 훌륭한 업적들을 뒤로하고 윌츠라는 이름이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들의 독립을 아벨론 원로회는 반대했지만 정작 길드가 독립을 하고 난 뒤에는 어째서인지 원로회의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고 한다.

『 전문지식과 교류의 장 』

윌츠는 전자 화학 공협을 기반으로 세워진 독립국가이나 이것 외에도 공업이나 상업 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세워졌다. 비록 무수한 분쟁과 투쟁의 시간동안 과학 이외의 분야는 비교적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퀼로른의 길드에서 쌓은 지식이나 그들의 오랜 연구의 성과는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윌츠에는 지식을 총망라한 이데아 최고의 도서관과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교육 및 다양한 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윌츠를 방문하고자 하나, 열람자격은 다소 엄격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여러 국가의 원조를 바탕으로 공공재를 수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물품들을 수입하기도 하는 지식과 산물을 교류하는 장과 내일로 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 주머니 속 작은 구원 』

아벨의 모든 자손들로부터 통용되는 화폐를 주조하고 있는 윌츠의 중앙황금은행은 윌츠의 전용통화를 기반으로 현황이나 기타 여건을 토대로 다른 도시의 화폐의 환율까지 조절을 하고 있기에, 시장경제를 만드는 초석을 다졌다. 안정된 경제상황은 삶을 윤택하게 했고, 나아가 윌츠의 마이스터들이 행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더불어 황금은행에서는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물건의 경매를 열기도 한다. 또한 경매의 수익금으로 다른 국가와 더 나은 소통이나 교류를 목적으로 공공재 및 지원확충사업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원조를 아끼지 않는 활동으로 평판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중요하거나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물품들을 제외하면, 예외적으로 행사적인 목적을 겸하여 다

른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경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재단은 이 수익을 많은 곳에 후원하고 있으며, 그 출처는 역시 기밀이다.

『 황금은행의 순리 』

황금은행은 아벨의 자손의 모든 화폐가 통용되는 거래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다. 황금은행의 관할기구에서는 비단 화폐의 주조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가치를 저울질 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있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카인의 핏줄들이 사용했던 귀금속이나 예술품 혹은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잡화까지도 취급하며 모든 물건에 가치를 매기고 있다. 이런 골동품 및 잡화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다시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니, 월츠의 황금은행에서 화폐의 순환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돈에 의해서 발생되는 범죄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황금은행의 입장은 이러하다.

‘돈이 사람을 배신한적 없다, 사람을 배신한건 언제나 사람이었다. 돈이 사람을 배신한적이 있었다면, 이는 그 사람이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돈이 오고갈때는 화폐 그 자체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교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 돈과 화폐를 그저 재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황금은행의 경영기획부에서 인사채용을 할 때, 그가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

『 과학의 궁극적 목표 』

마이스터의 연구의 본질에 따라 다르지만, 아벨의 안녕이 최우선이며 나아가서는 진리에 닿는 것이 윌츠의 최종 목표이다. 보우츠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과학에 궁극적인 목표는 없기에 연구는 멈추지 말아야하며 관찰과 기록은 이어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의 기록을 토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데아가 지니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가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러지 못했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는 이데아가 아닌 평화와 안식이 깃든 다른 테르벨을 수색하고 그 곳에 거주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 과학과 종교의 마찰 』

종교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그러하듯 모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도움이되는 것들이다. 다만, 일부 상투스의 원로회와 소수의 아벨의 자손들 다시 말하자면 귀족이나 몇몇 전통주의자들은 윌츠가 개발한 차량과 열차 하늘을 달리는 기구를 천박하며, 이데아

를 해하는 교양과 배려가 부족한 이동수단이라 여기며 헐뜯는다. 윌츠의 입장에서는 과학이 가져다 주는 편의는 이용하면서도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보이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 여기며 무시할 뿐이다. 한 때, 계몽은 종교적인 것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윌츠가 추구하는 과학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전의 상투스는 이것들을 극심하게 반대했다. 상투스와 윌츠와의 대립은 이미 예견된 것일지도 모른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것이라 여기지만 과학은 진화와 번영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이 윌츠의 주장이다. 이에 상투스는 신성모독이며, 오만이라는 주장으로 항상 부딪힌다. 그것은 끝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나 그들의 교류 또한 계속될 것이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서로 가치관의 차이는 좁힐 수 없을지라도, 만일 그들이 조화를 이룰때 저들만의 진리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윌츠의 과학자들은 어디까지 과학의 범주로 볼 것이냐 일침을 가하며 밤을 밝히는 불마저도 과학이니 그것조차 영위하지 않으며 살 것이냐고 되물었다.

『 정확한 달력과 날짜 개념의 수립 』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무관심으로 인하야 마음의 상처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트는 만월의 밤마다 그 상처가 떠올랐기에 슬픔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채로 이데아에 직접 개입하며 이데아를 상처입혔다. 전해져오는 이야기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벨의 자손들은 그의 행

동이 만월이 비치는 밤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훗날 이 기록은 퀼로른의 길드에서 천체의 변화를 기반으로 날짜를 세는 척도가 되었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길드의 점성술은 다른 세력보다 뛰어났기에 그 미신이나 현상을 과학적으로 정립하였고 정확한 달력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후에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윌츠의 천체과학은 이미 다른 국가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 넘어선지 오래였다.

『 미쳐버린 연금술사의 기록 』

‘진리의 기원과 그에 닿는 해답은 카인이 핏줄들이 말하는 죄악의 돌을 손에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을 연구하고 재구축하여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 인간의 죄악이 담긴 돌을 창조하고 복원하는 것. 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멋진 일인가.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연금술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럼 남은 것은 오로지 멋진 일이겠구나.’

『 라파르 』

세력 상징은 날개달린 지팡이를 휘감는 뱀 두마리.



"죽음을 토해가며 기도에 매달리는 것보다

살기 위해 살갗에 기꺼이 칼을 대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 바로 의학이다."

— 외과의, 헨델 애트머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헨델 애트머. 퀼로른의 몰락 이후에 아벨론의 부속기관인 길드에 속해있던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의료국가이다. 그들은 오랜동안 길드안에서 의료복지와 의학 기술발달에 힘쓰고 있었는데,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서도 어리석게도 구원만을 부르짖으며 절규하는 모습을 눈에 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심만큼이나 커져간 회의감에 불을 지피며 의사들을 허무의 늪에 빠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모든것을 기도에만 의존하여 이에 매달리는 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아벨론의 구조에 환멸감을 느끼는 자들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아벨론이 외면한 자들이나 상처입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메스를 들고 죽음이 만연한 곳에 기꺼이 발을 들이게 된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일단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기에 다른 집단으로부터 원성과 선망을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수혈과 헌혈 그리고 신성한 몸을 찢고 가르며 삶을 이어가는 개념 때문에 상투스의 교리에 충실하여 그 이념을 잇는 자들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방적인 성향은 윌츠와 다르지 않지만 거칠고 사나운 윌츠의 국가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이곳에서는 폭력이 배제된 절대적 평화가 암묵적으로 보장된 절대중립의 땅으로 알려져 있다. 피를 뒤집어 쓰며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다. 절대 평화의 땅이 언제나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저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것과 별개로 개

개인의 전투적인 역량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수많은 집도를 통하여 습득된 지식은 생명을 쉬이 꺼뜨리는 법마저 알게 된다. 라파르의 의료진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저들마다 제각각이나 대부분 불경한 자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을 포함하여 카인의 핏줄이며 세트의 후예들까지 모두를 해부하고 연구하여 의료분야의 다각화와 무지로부터의 소생이 바로 그것이다.

『 헨델 에트머 』

마이스터의 에트머 가문의 장남으로 어린시절 덧없이 쉽게 꺼져버린 아비의 생명을 보고 한탄한다. 의학적인 지식은 외면되고 터부시되던 종교적 신념이 만연하게 깔려져있던 시대라 헨델은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그저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당시의 상황에 절망을 금치 못하였고 훗날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아벨론에서는 그 꿈을 펼치기 힘들었다. 제 아무리 길드에서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많은 이들의 삶의 질을 높였음에도 그것은 언제나 기도로 삶을 연명하는 것에 비하면 우선순위에서 한참을 밀려나게 된다. 그러던 도중 길드 중에서도 괴짜라 여겨진 인물인 사야 뒤 보우츠와 조우하게 되었다. 서로 신앙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감정을 지녔던 터라 이 둘은 과학이라는 것에 쉬이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공학에 대한 재능이 돋보이던 그는 신앙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아벨론 휘하에 대병원 건축 허가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다소 반발감이 있었지만 길드의 독립권을 받아 방벽 밖으로 향하는 그의 스승의 입김이자 떠나는 마지막 선물로 아벨론에 건의하여 헨델의 바람대로 아벨론에 대병원이 자리할 수 있었다. 퀼로른 길드의 일원임과 동시에 사야뒤 보우츠의 제자였던 그는 스승의 모든 연구에 함께 몸을 담아왔다. 이에 그는 과학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과 의학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 화학적 신경과학의 혁신을 이루어내며 자신의 스승이 몸담은 기계과학 길드와 협업하여, 기계 팔 즉 의수를 아벨의 자손들에게 보급해 영원의 전쟁으로 몸의 일부를 잃은 자들을 도왔다.

『 의료집중국의 탄생 』

이전 아벨론의 시절, 아벨의 방벽 안 대병원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대병원의 입지는 점점 높아졌고, 그들을 신봉하는 자들마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벨론의 뒤를 이은 상투스는 이들의 존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점점 대병원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소홀히하기 시작했다. 후에 그 사정을 들은 이들의 크고작은 후원으로 근근히 병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나중에 이르러서는 뜸해지고 후원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만했으니 결국에 존폐의 위기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해, 대병원은 잠정적인 폐쇄를 맞았다.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심정을 느낀 헨델은 포기하지 않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일념으로 가족마저 뒤로한채 자신과 뜻

을 함께하는 수많은 의료진과 함께 아벨의 방벽을 뒤로한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락시아였다. 영원의 전쟁 이후에 이바와 아다무스가 머물던 곳인지라 저주의 영향이 조금 덜 미쳤던 곳이라고는 하기에는 그 곳의 사정도 녹록치 않았다. 그곳 역시 영원의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곳이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채 죽어간 자들 투성이에 불경한 자들까지 섞여있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이야말로 의학에 대한 지식을 한단계 높힐 수 있을 최적의 장소라 여기고, 그 곳을 거점으로 삼아 작은 진료소를 마련하여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락시아의 진료소에 대한 입김이 퍼지며 많은 이들의 원조로 진료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그의 계획보다 다소 낙후된 시설이었던 아벨론 부속 대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첨단의 의료설비를 갖춘 의료집중국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존재가 나타남에 두번의 삶을 부여받은 이들과 그의 뜻에 동조하는 자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비약적 성장을 보이며 얼마 지나지않아 의료집중국이 건립되었고 그들이 밟은 땅의 의미를 찾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라파르' 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정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락시아 』

모든 아벨의 자손들이 암묵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상의 중심인 락시아. 이후에는 라파르의 외과의가 자리하게 되었지만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의해 잠식되지 않은 곳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의학의 발전과 생체실험의 목적 등으로 살아있든 죽어있든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장 많이 저주 받은 자들이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죽음이라는 것이 짙게 깔려져있었다. 헨델은 락시아에 자리한 의료국가를 라파르라고 명하지만, 그는 그의 스승이 창설한 윌츠와 달리 아벨론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과학도 과학이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학은 종교가 가진 이념과 서로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로 상투스가 의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 더더욱 반발을 했던 이유도 한몫했다. 하지만 라파르의 명성과 평판이 점점 커져가고, 9대 교황 세라하가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는 의학이라는 기적을 인정할 것을 호소하였고, 그녀의 간청에 따라 아벨론의 원로회까지 라파르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확신히 각인시키게 하였다. 아벨의 자손들이 두루 다양한 형태의 구원을 맞이했으면 하는 9대의 교황 세르파의 바람은 이루어졌지만 초기에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류가 상투스 안에서 두각을 드러냈음에도 그녀는 개의치 아니하고 이들의 존재를 잠재웠으나 그것에 시달리다 과로로 사망한다. 종교와 결코 섞일 수 없어보였던 이들이었지만 놀랍게도 라파르 의료집중국 후원명단 최상단에 그녀의 이름이 지워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 라파르 특작부대 』

라파르의 중앙집중치료국 내부에는 의료전문 특작부대가 존재한다. 그들의 출신성분은 불분명이며 대부분 건장한 체격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군인 못지않은 혹독한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체격적인 강인함 뿐만 아니라 압박과 중암감 또는 외부의 자극에도 굴하지않고 오롯이 환자에 집중하여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력까지 더해여 의료최적화 병기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되며 오직 대상의 치료에 집중한다. 의과지식과 수술집도 등 다양한 경험 덕분에 임기응변에도 능하여 실제로도 생화학적인 방식으로 작전지역의 무력화 및 교란에도 진가를 발휘했다. 이런 수많은 사례들 때문에 이들에게 어설프게 다가선 불경한 존재들은 내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조차 없다고 전해진다.

『 피로 그어진 의학 』

다양한 의료 및 시약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락시아에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쌓아올린 시체들만큼 귀중한 의학지식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개인의 연구를 위해 또는 다양한 사정으로 온존한 사체들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장례를 마치고 난 자들의 묘까지 파헤치는 자들이 보수를 받고 파내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신선한 자가 생체 실험체가 필요하다고 여긴 의사들이 수면위로 올라 인신매매 등의 비인륜적인 일들도 자행되어 왔다. 유명한 자들로는 시체도굴범 '헤르 도른' 과 인신매매범 '자난디' 가 있고 저들 모두 헨델과 함께하던 최고이자 최악의 의사이자 약제상인 '러스넬' 박사였다. '조쉬 맥겔러' 가 이 모든 생체실험을 주도했다고 전

해지면서 이들은 의료학계에서 제명되고 추방된 뒤로 그 이름이 역사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기록을 찾기 힘들었지만 이들의 남긴 시험자료는 역설적이게도 해부의학에 한발자국 더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이견도 많다고 한다.

『 혼수 방어 』

자발적 의지를 잃고 자신의 몸을 혼수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자가방어의 최고의 단계로 의학적인 용어로 '코르마 쇼트' 라고 불렀다. 히스테리, 정신 분열증 혹은 질병에 의한 충격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라파르에 의해 발견되기 한참 전, 의학적 지식이 다소 부족했던 상황과 더불어 종교적인 믿음이 너무도 강했던 탓인지 코르마 쇼트는 사실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은 자들이 억울하게 생매장을 당했던 기록도 있었다고 한다.

『 유폐된 발데로크 』

조용한 쇼틀랜들 고지대에 '로키독' 이라 부르는 요새의 주변에 쌓여진 시체들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그 주변을 오고가는 자들의 피를 마시던 카인의 핏줄 중 하나라고 했다. 영원의 전쟁 속에서 스스로 검은 땅의 책이나 피의 성서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던 기록하며, '아르핀의 붉은 책' 이라 알려진 서적은 라파르의 많은 의사들의 흥미를 끌게 만드는 연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카인에게 내려진 에르아의 저주를

아벨의 자손의 관점인 의학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심도 깊은 그의 연구가 항간에 알려지게 되자 라파르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 심신이 지친 라파르를 위로하는 시 』

‘사람을 죽이기 위해 쥔 날붙이로 흩뿌려진 피 위에 피어나는 숨결이 있는가하면, 되려 사람을 살리려 쥔 도구에 죽음이 만연히 드리워져 있으니, 그 누가 감히 나를 의사라고 부르겠는가?’

‘그대는 누구보다 강한 의사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자는 그저 미치광이 살인자일 뿐이지.’

『 대수술 집도를 처음 본 상투스 사제 베이몬드의 독백 』

9대의 교황 세라하의 명으로 상투스의 사제인 베이몬드가 라파르와의 우호관계를 위해 사절단으로써 의료집중국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의료진들이 밤낮을 마다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칠갑이 되고 땀으로 범벅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돌아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었다.

‘집도하기 위해 쏟아낸 수많은 의료용 실이 메스에 얽히고 흩뿌려지는 모습을 보았다. 어두운 주위로 수술대 위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져 실낱같은 생명의 숨결을 간신히 토해내는 그것을 살리려는 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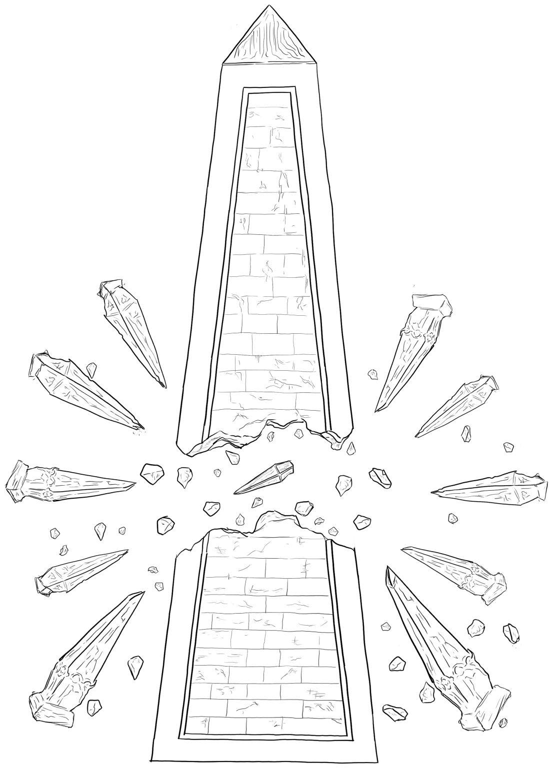
을 보게 된다면 그 어느누가 저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덧없는 생명을 가여워하며 조금이라도 그것을 붙잡아두고 싶어하는 가련한 영혼들이었다.”

『 배제된 의학의 역사 』

카인의 핏줄 중 하나가 라파르의 외과의로 위장하여 보건소를 지은 뒤에 자신의 피를 섞어 먹이게 하여 인간을 병들게 했고, 그 희생양을 병상에 그대로 두어 죽지도 못하게 내버려 둔 채로 곁에 두어 그 피를 취하였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이데아에 퍼져나가 세상이 병들어가는 것을 이용하여 제 갈증을 채우는 사특한 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연유로 오랜동안 의학이라는 기술은 한 때 퀼로른에서 마이스터 외과의가 집필한 서적이 성서의 신성함을 거스를 것이라 우려한 나머지 이 책의 존재를 없애기를 원하는 강경파의 주장도 있었지만, 책 따위로 위협한다고 한들 라파르의 의사들이 갈구하는 지식과 소생을 위한 기술을 향한 열망까지 태워버릴 수는 없었다.

『 나즈레스 』

세력 상징은 깨진 기념비 안에 담긴 빛나는 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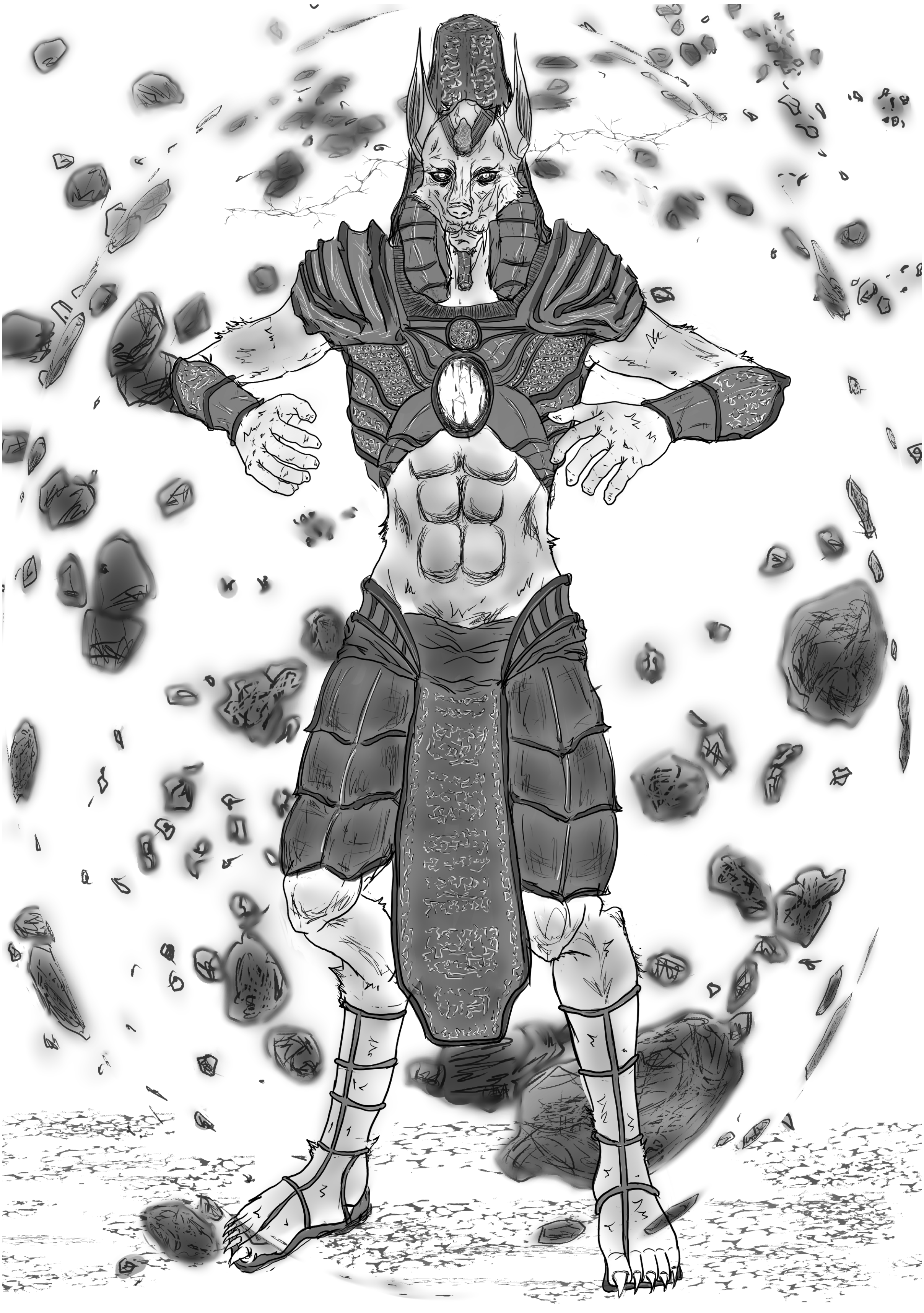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말라.

텅 빈 심장으로 그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트와 그 후예인 우리가 있나니.”

— 위에 선 자, 우직한 알두르그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알두르그. 영원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후예들을 위해 홀로 저주를 품고 깊은 동굴 속에서 잠이 든 세트를 향한 존경의 의미로 그 동굴 일대 전부를 이빨이며 발톱이 전부 닳을때까지 그를 기리는 성지를 세운다. 세트를 향한 무한한 경의심과 충성심을 보이며 그에 반하는 자들을 전부 배제하기 위해 힘쓴다. 모든 세트의 후예들을 통합하여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세트를 짓누르던 죄악감을 이해하지 못했던 우매한 자들을 측은하게 여기며 그가 짊어진 짐을 덜어내기 위해 모든 이들이 그 무게를 함께 느끼며 그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 위해 힘쓴다. 세트를 위한 성지를 깎아내는 인고의 시간동안 남겨진 돌무더기와 바위에 담겨진 힘을 자신에게 깃들게하여 자신들의 정신과 연결하여 그것들을 자유로이 부리기에 이르렀다. 세트에 관련된 일이라면 광적인 열정과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놀랄만큼이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성향때문에 이들의 동태나 의중을 파악하기 쉽다고 한다. 이렇듯이 이 땅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진 역사과 문화, 그리고 수많은 기록들을 면밀히 엳보면서 다른 세트의 후예와 달리 독자적인 문명이라는 싹을 틔운 부족이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에 이르러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들이 이빨이나 발톱을 드러내며 으르렁대는 짐승들보다 이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들이 고도의 지성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 있었다. 세트가 다시금 눈

을 뜨게 되는 날이 도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나, 그것은 순수하게 존경일 뿐이고 당연히 만물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이며 이들 사이에서 세트는 그저 그들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현자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저 상처라고만 여기었던 그가 남긴 역사마저도 심도있게 학습하고 주의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쓰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 알두르그 』

미숙아였던 세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에게 매료된 자로써 세트의 곁에서 그의 인도에 따라 영원의 전쟁조차 불사하고 기꺼이 사지로 함께 뛰어든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이다. 그는 강직하며, 맡은 바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우직한 모습을 하여 세트로부터 직접 이름을 하사 받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흐르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알두르그'였다. 영원의 전쟁 말미에 저주를 입은 세트를 절망적으로 바라본 대다수의 부족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자리를 떠나갔지만, 알두르그와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는 저주를 입고 가늘게 숨을 토해내는 세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다. 그리고 세트가 마침내 알려지지 않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눈에 담으며 알두르그는 그것이 세트의 마지막임을 직감했고, 세트가 돌이 되기 전에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순간까지 동굴 앞을 지키며 불경한 것들이 감히 드나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완전히 짊어지면

서 심장마저 돌이 되어버린 것을 인지하고는 그의 희생에 감복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던 세트를 지키는 신의 수호자 역을 자처하였고, 그들의 무리를 세트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라는 뜻의 ‘나즈레스’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계승자라 칭했다.

『 고행 속 돌과 같이 』

알두르그는 세트가 잠들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지켜보며 그의 행보를 따르고자 했다. 쌓아온 역사를 기반으로 전통이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었고, 다른 남겨진 세트의 후예들을 나즈레스의 이름으로 규합하기 위해 힘쓴다. 세트가 잠들고 갈 길을 잃어버린 어린 늑대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저들 스스로 만들어낸 명예와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는 가운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의식의 전승과 계승을 위한 장소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트의 헌신을 기리는 것의 당위성을 인지하며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무리와 함께 그 동굴 일대 전체를 오직 발톱으로 깎고 벼려내어 세트의 성지를 완성했다. 많은 이들이 동굴을 토대로 세트의 성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와 영광으로 여기었다. 한때는 날카로웠던 이들의 발톱은 무뎌지고 부러졌으나, 그들에게 오히려 이것조차도 영광으로 여기곤했다. 그렇게 완성된 세트의 성지는 신비로운 빛까지 더해져 더욱더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을 받드는 성지의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비록 고행

의 기간동안 태고의 신수가 가진 날카로움은 잃었지만 일대의 돌과 바위와 함께 숨쉬며 알두르그는 그것들을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는 힘에 눈을 뜬다. 마치 세트가 예견이라도 한 듯, 흐르는 돌이라는 그의 이름과 같이 주변에 있는 돌이나 바위 심지어는 작은 모래따위를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알두르그는 세트와 그를 기리는 신전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에게도 깨우치게 하였다. 세월과 함께 깎아만든 그 권능을 세월의 흐름이라는 뜻의 '하쉬녹' 이라 부르며 닳아버린 발톱과 무뎌진 이빨을 대신했다.

『 아브 게르 』

세트가 잠들어 있는 동굴은 이름 없는 동굴이었지만, 알두르그가 그의 추종자와 함께 발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손수 깎아서 만든 세트의 성지를 이르러 무뎌져 닳아버린 돌무더기의 협곡이라는 뜻의 '아브 게르' 라고 칭하게 된다. 동굴의 바위나 돌덩이 뿐만 아니라 발톱으로 깎아내며 저들의 피가 섞여져 만들어진 것이기에, 성지의 상태는 세월을 거스른 듯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무뎌지지 않았다. 그 어떠한 재해로도 감히 상처입히지 못했고, 굳건하게 미동조차 않는 견고함을 자랑했다. 내부는 상당히 어두웠으나, 이따금 달빛에 은은히 반사되는 빛줄기가 어지러이 이곳저곳으로 반사되어 돌이 된 세트를 보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스러운 빛이 내리는 광경을 눈에 담은 나즈레스의 전승자들은 경건하게 그것을 마주하며 누구는 무릎을 조아리며 예를 표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성스러운 장소임을 스스로 재각인 시키기에 충분할만큼 차분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 이데아의 흉터, 키욜 』

알두르그는 아브 게르 깊은 곳에 돌이 되어 잠든 세트를 지키기 위해서 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되어있지만, 무뎌진 발톱을 대체한 자신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제련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닳아빠진 이빨과 발톱으로도 세트의 권능을 빌어 아벨의 자손이나 혹은 카인의 혈족에 대적할만한 충분한 힘을 지녔기에 부족함을 없다 여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브 게르를 은은하게 비추는 빛이 향하는 곳에 홀리듯이 끌려갔고 끝에 그 희미한 빛줄기를 머금고 있는 광물을 마주하게된다. 알두르그는 그 광물이 지난 날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꾸짖음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고 이따금 이데아를 상처입히면서 괴로워할때 세트를 차분하게 만들었다는 광물이라는 것을 깨닫게된다. 이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본능에 이끌리며 그가 조금씩 모은 돌멩이가 이름 없는 안락한 동굴인 지금의 아브 게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이 광물이 녹아내렸고, 오랜 세월을 거듭하며 쌓였고 후에는 세트의 후예가 가진 피와 뒤섞이며 엄청난 강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나즈레스의 전승자들의 발톱이 깨져 닳게 된 것도 그들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동굴의 경도가 말도

안되게 단단한 것이었다. 더구나 광물이 가진 특징은 강도만이 아니었으니, 그저 세트에게 물려받은 힘이라 여기던 세트라라고 부르는 힘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었다. 이에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은 키욜을 다듬은 보석을 몸에 두르고는 자신들의 보구로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힘은 지축을 뒤흔들 정도로 거대한 힘을 부릴 수 있게끔 했다. 후에 광물은 세트가 남긴 대지의 상처라는 뜻의 '키욜'이라 불리우게 된다.

『 명예와 전통 그리고 근본 』

이들의 굳건한 믿음은 세트의 권능에 눈을뜨게되며 우직하고 단단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섬기는 것이 아닌 존경과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행동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품격을 갖추고 있는 듯한 존재임을 당당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나즈레스의 계승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행동마저도 모든 생명이 세트를 비롯하여 자신들보다 아래에 즉,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 예의있는 태도마저도 자신들이 여타의 세트의 후예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던 것이었고, 지배하는 자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덕목과도 같은 것이라 여기었기에 나오는 태도였다. 이는 배려를 가장한 군림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도 나즈레스의 전승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으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세트의 후예들, 나아가서는 이데아의 모든 종족들을 계급별로 나누며 격차가 큰 이들과는 교류조차 꺼려했다. 자

신들이 사냥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는 행위마저도 역사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며 세트와 교감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그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동으로 여겼다. 더불어 사냥하는 행위를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제단에 바쳐 인신공양을 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한다. 세트를 신으로 섬기는 행위에 반하는 자들에게 가차없으며, 그저 광신도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기에는 이미 나즈레스의 전승자들의 생활은 명예와 전통으로 점철되어있기에 역사에 대해 그들만큼이나 깊게 심취해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과거에 짐승들의 입에 오르내릴 역사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 영원의 전쟁에서 세트를 마주한 아벨의 자손의 기록 중 』

세트와 조우한 아벨의 자손 앞에서 그를 내려보았다. 아벨의 자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울부짖듯이 물었다.

‘들개 따위가 어째서 신을 흉내내려 하는가? 그것은 오만일 뿐더러 신성모독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이렇게 물으니 세트가 얼굴 하나 변하지 않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면 되묻노라. 그대는 어찌하여 날 신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의 신이 그대의 목숨을 살릴지 죽일지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대를 죽일것인지 그러하지 않을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나도 누군가의 신이 아

니더냐? 그대의 신은 존재하고 나는 신을 사칭하고 그대의 신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나 지금 여기에서 신의 심판을 맞아 죽을 것이나. 허나, 보라. 나는 죽지않고 여전히 그대 앞에 서 그대의 목숨을 쥐고 펼 수 있도다.'

팔을 활짝 펼쳐보이던 그 짐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의 목숨을 쥐고 있을진대 왜 여지껏 그대의 신은 대답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신의 심판이 떨구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그대가 나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서이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으매 지금 당장 그대의 앞에 서서 그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신을 어째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가여울 뿐이로다.'

그리고 기록은 여기서 끝을 맺었고 오직 얼룩져 검게 굳어진 피만이 쓰여져 있었다. 후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기록의 파편을 감별하는 과정에서 아벨의 자손이 최초로 세트를 직접 조우한 기록이라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 밀라모르 』

세력 상징은 겹쳐진 해와 달 그리고 악기.



“위대한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 정점에 선 힘은 대화이며, 이것이 밀라모르식 지배이다.”

— 밀라모르의 목소리, 아르담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아르담. 아벨의 자손과 세트의 후예 사이에서 나온 혼혈의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부족의 무리들. 그 탓에 세트의 모든 권능을 끌어낼 수 없었을 뿐더러 몸의 대부분이 인간의 외형에 늑대의 특성이 더해진 특이한 모습을 하게된지라 반쪽자리 존재 혹은 세트의 무리들 사이에서는 추방자 혹은 잡종이라고 불리곤 했다. 세트의 후예임에도 육체적인 능력은 그저 반쪽짜리에 불과하지만 세트의 권능 중 교감이라는 힘을 가장 강하게 부여받아 세트의 후예중에서 가장 깊은 정신의 소통이 가능하며 이 교류의 극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감각까지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밀접한 정신적인 교류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언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 유일하게 다른 존재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은 세트의 기민한 교감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외형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발성기관이나 혀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않는 소리나 감정마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청에 시달릴 때도 적지 않으며 스스로를 혼란을 야기하여 무너져내릴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꽤나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 뛰어난 교감능력으로 타 종족에 대하여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지닌 문명은 뛰어나지 않으나 문명의 이기에 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며 외형조차 인간의 모습과 가장 가깝기에 이들과의

충돌사례가 다소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나 세트의 후예인지라 지배라는 행위가 유전적으로 아로새겨져 있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신이라는 이름으로 만인의 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이 반쪽짜리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증명이다. 서로가 섞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 안에 담겨진 소리를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교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 금단의 연결고리 』

서로 다른 뿌리로부터 나고자란 존재가 있으니, 그것의 기원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교류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을 팔벌려 허용하고 장려하지는 않았으나 딱히 제제를 가하지도 않는 정도였다. 하지만 훗날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세명의 아이들은 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다른 종족과의 교류도 다소 엄격해졌다. 물론 그 속에서도 서로간의 은밀한 감정이 피어 오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이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는데, 은밀한 접촉에서 나오는 황홀경보다 그것이 만들어 낼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더 컸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무지로부터 나온 불안감 때문이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갈라진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의 의식 속에 남겨져 있는 유전자 단위로 각인된 섞이어진 피에 대한 편견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필요한 것은 섞이어진 피가 아니라 찬란한 독자적인 문명을 이룩해 나가는 순수한 혈통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암묵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자손중 하나인 '아론' 과 세트의 후예인 '다함' 이 서로 몸을 섞으며 금단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음욕의 죄악에 잠기어 그저 몸만 뒤섞은 것이 아니라, 교감하고 공감하며 서로 무수한 물음과 대답을 공유하는 대화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몸의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트의 후예를 모두를 잇고 있던 기민한 정신의 고리가 끊어짐을 느끼게 된 다함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론이 그녀를 보듬어 주면서 안정시키자 오히려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이 더욱 열리면서 더 많은 감정을 듣게 되고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의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더욱 깊은 곳까지 서로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인 공감과 대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 아르담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는 기적과도 다름없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아벨의 자손과 세트의 후에 사이에 태어난 최초의 자식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와 뒷 글짜를 따서 지었으니, 우연치않게 그 이름은 세트의 후예의 말로 섞이어진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르담' 이었다. 아이는 하루

가 다르게 성장했으며 그가 이 땅에 태어난지 다섯의 해가 지나고 나서는 부모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총명하며 무엇보다 다른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깊은 심성의 이 아이에 대한 존재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가운데 알려지게 된다. 가뜩이나 미숙한데다 시험에 대한 열의가 없어 항상 시험을 뒷전으로 두었던 세트였기에 이바와 아다무스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꾸짖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에게 아르담이라는 존재는 골치아픈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세트의 순수한 혈통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이질적인 존재가 탄생한 것에 대해 아벨의 자손들마저 무수한 시선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험이 낳은 과열된 경쟁으로 불꽃이 튀는 이데아에서 갓 태어난 아르담에게 있어서 세계는 낯설고도 혼란스러운 곳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일곱해를 겨우 넘긴 어린 아이는 자신이 세트가 지닌 기민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의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수많은 시선과 관심이 쏠리게되자 아론과 다함은 이 아이가 행여 불안에 떨지는 않을까 함께 그녀를 품에 안으며 수많은 대화를 건네었다. 아론와 다함에게 있어 나시르은 기적과도 같은 아이었기 때문에 이데아를 전부 내준다 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않을 소중한 생명이었다. 세트는 물론이거니와 이바와 아다무스의 입김조차 닿지 못하게 하려 애썼다. 그러나, 역시 세트와 그의 무리들 사이에서 신수의 순수한 피가 흐르지 않는 이 잡종의 존재와 그것이 세트의 기민한 정신의 연결고리에 속해있다는 것에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점점 늘어

나게 되었고 결국엔 이것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니 이제 아론과 다함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다해야만 하는 순간에 봉착하게 되었다.

『 판결과 추방 』

세트는 마음을 굳힌 듯이 시험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론과 다함 그리고 아르담을 소환했다. 이들은 세트와 그의 후예들이 모인 운명의 언덕 끝자락 절벽지대라는 뜻의 ‘투르말라’ 봉우리에서 판결을 기다린다. 투르밀라 우뚝 솟은 봉오리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세트의 후예에 둘러쌓여 불안해하는 아르담의 존재를 눈에 담은 세트는 더더욱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트와의 연대가 끊겨져 있어 서로의 의식을 확인하지 못하는 어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지만, 다른 것들의 감정을 읽는 반쪽짜리 권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세트의 후예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그 사실에 그는 혀를 차며 진저리를 쳤다. 살얼음판을 딛는 듯한 긴장감, 숨을 죄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어린 아르담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찰나의 순간 읽어낸 것은 아론과 다함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며 자신을 지켜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 아르담은 슬픔에 눈물이 차오르며 먹먹한 가슴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물에 잠긴 듯 포근함이 그녀를 감싸며 그녀 안에 잠들고 있던 것이 깨어나게 된다. 주변이 침묵으로 덮히며 고요해지며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하나, 둘. 아니 수많은 감정과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동

시에 들리기 시작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감정과 분위기를 눈으로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실체화된 언어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었으니, 공감과 교감 그리고 이해의 모든 감정이 뒤섞인 가운데에서 세트와의 연대를 초월한 문을 열게 되었다.

『 깨어난 힘 』

아르담은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깨어난 힘을 가지고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신의 부모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과 당당히 맞이했다. 자신 앞에 당당히 선 그 여린 등을 바라본 아론과 다함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나시르이 말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들렸다. 또렷히 보였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아이는 끝까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 기꺼이 싸우고자 했지만 부모가 이를 뒤로하고 죽음으로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무책임함을 보인 것 같아 아론과 다함은 스스로를 질타했다. 그러나, 나시르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듯 또다시 그녀의 따스한 감정선이 선명하게도 자신들을 다독여주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역시 아르담의 힘을 빌어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흩날리고 있던 감정선들이 엮여가며 이내 투르말라의 모든 이들에게도 보이기 시작했다. 오묘한 기운은 아르담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이었고 호소력 짙은 그녀의 설득은 이들의 목숨을 취하고자 그 곳에 자리한

세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의 후예들이 발하는 날이 선 서슬푸른 살의를 거두게끔 만들었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건네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세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능의 일부였던 기민한 정신을 통해 일족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아르담으로부터 보게 되었으니, 그녀 역시 세트의 후예임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그녀의 외형적인 모습이 워낙에 아벨의 자손들과 가까웠던 터라, 단순히 순수한 피가 흐르지 않은 것과 달리 외형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부족들도 적지 않았기에 세트의 신성한 땅을 뜻하는 자신들의 대지 '아로엘룬' 에서 추방당하게 될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그래도 더욱 깊은 소통과 감정을 교류하는 힘에 눈을 뜨게 된 나시르을 안으며 아론과 다함은 기쁜 마음으로 그 곳을 떠났다. 쓸쓸하지만은 않았던 추방자들이 발걸음을 옮기는동안 나시르은 등을 돌려 세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세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 공감과 깊은 소통의 땅 』

아론과 다함 그리고 나시르은 눈물을 거두고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엘루를 떠나 저들이 머물러 살 곳을 정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아르담의 결정에 따랐다. 아르담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서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한참을 수많은 것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결정을 했다. 그녀는 오랜시간을 들여 마침내 자신들이 자리한 곳을 깊은 공감의

땅이라는 뜻의 ‘엘레노스’ 라고 부르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잔잔한 바람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밀라모르’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다. 이 후에 깊은 소통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밀라모르의 이름 아래에 자리하게 되며 아르담과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밀라모르의 목소리라고 불렀다. 놀랍게도 나시르의 호소 뒤로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던 자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영원의 전쟁 속에서 때로는 피를 흘리며 싸웠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총과 칼을 내려 놓게하며 전의를 상실하게끔 만들었다. 그 이후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자들은 없다는 원칙으로 꿋꿋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게 된다. 이들의 모습만큼이나 세트의 후예와 사뭇다른 형태의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통하기 위한 모든 수단에 대한 깊은 이해력으로 음악이라는 선율을 다루는 재주도 뛰어나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었으며 노랫소리 또한 상당히 매혹적이라고 알려져있다. 섞이어진 피로 인하여 변형된 체질 때문인지 이들은 다른 세트의 후예와 달리 주식으로 씨앗이나 열매 따위를 섭취하며 피와 살점을 즐기지 않지만 여전히 세트의 후예가 지니고 있는 힘은 여전하다. 아르담은 자신의 깨어난 힘을 밀라모르의 목소리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해 주었는데, 다른이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으며 주변의 분위기마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레브’ 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녀가 그려낸 말로 단순히 심장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이들 밀라모르의 언어로는 사랑과 공감을 함축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다. 그만큼 다른 이들의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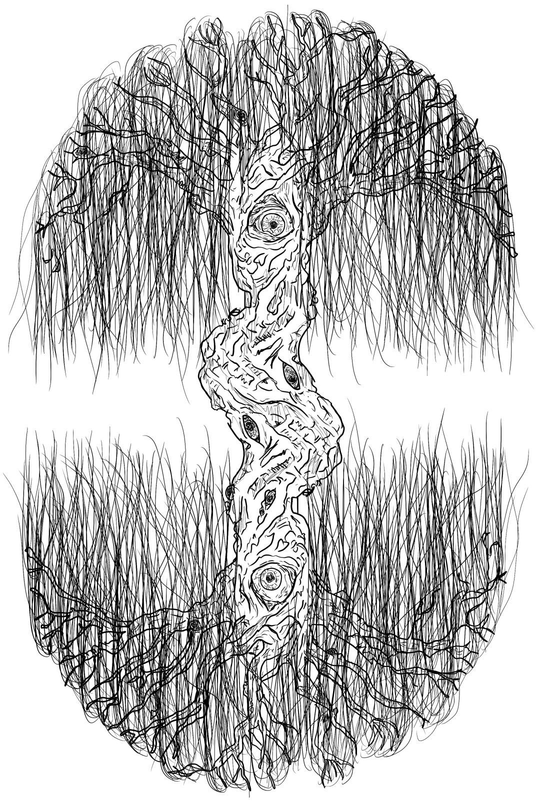
정과의 교류와 공감이 이들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며 바라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목소리란 들리는 것 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 말하며 때로는 보이는 것이라고도 한다.

『 오랜동안 이어진 소통의 힘 』

세트의 후예로 이 땅에 살아남는 방법은 날카로운 발톱과 뼈까지 씹어부술 수 있는 튼튼한 아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들은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는 밀라모르에서 이 땅에 진심으로 호소하여 반쪽짜리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이데아의 모든 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무의미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는 순수한 힘을 얻고자 했다. 그렇게 도달한 진정한 힘이 바로 말과 언어 그리고 소리였다. 먼 옛날 아벨의 자손 델레놋이 광장에서 연설한 것과 저주받은 카인의 첫번째 유산인 태초의 피 카르밀라가 그러했듯이 가슴을 뜨거이 적시는 달변은 늘 모든 힘 위에서며 좌중을 압도했고, 이데아를 뒤흔든 크고 작은 사건들 모두 공감과 대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더불어 세트의 후예가 가진 육체적인 힘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기에 그것은 밀라모르의 힘인 레브와 더불어 훌륭한 대화 수단이 된다. 이 두가지 힘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다른 세트의 후예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전례없는 유일한 소통하는 신으로써 서기 위해 불경한 것들의 숨통을 끊어오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 땅에 새겨왔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귀에 닿게 할 것이다.

『 모샤에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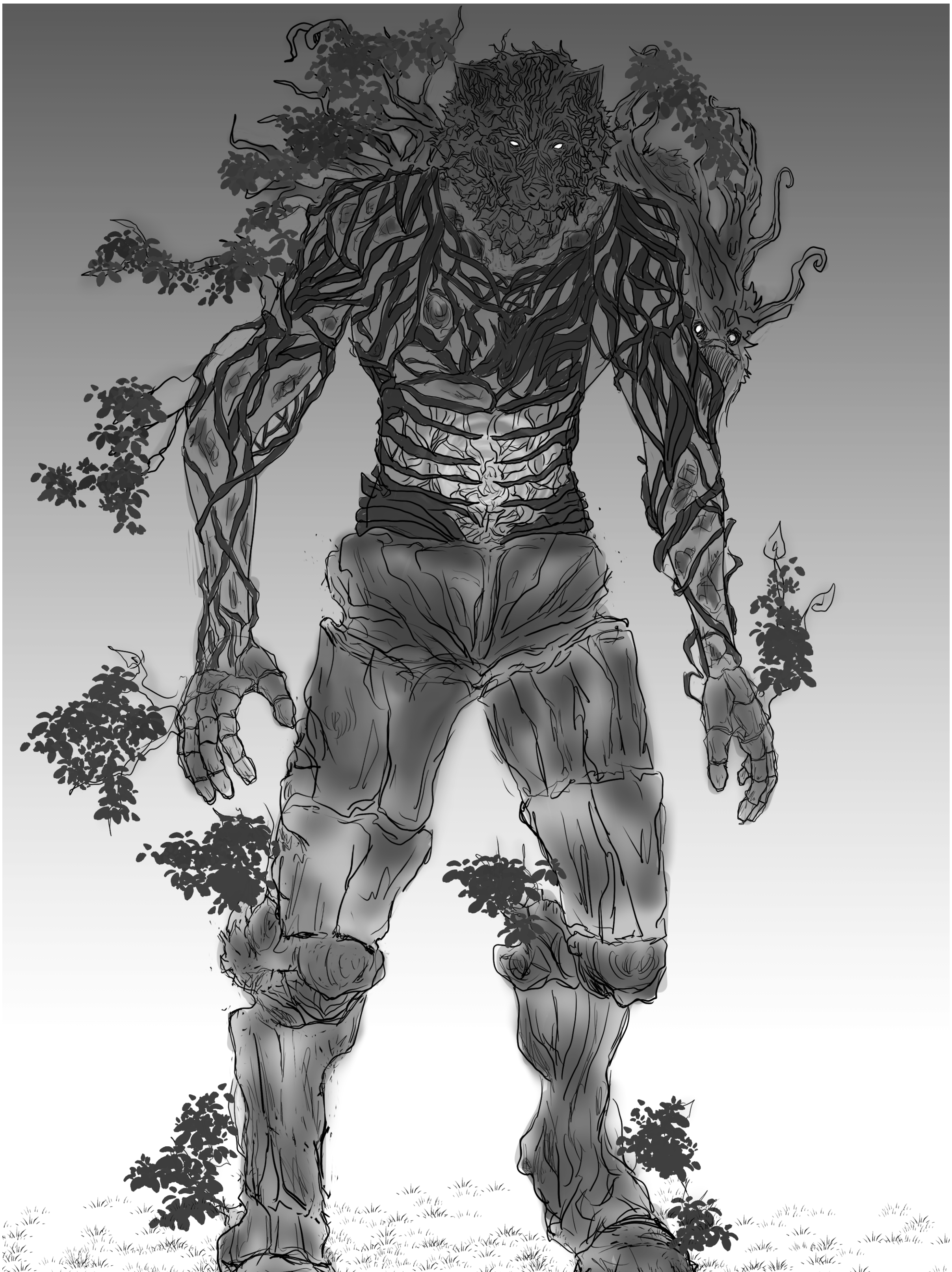
세력 상징은 수많은 눈이 돋아난 대칭의 귀신나무.



“어머니 대자연의 생명을 젖줄삼아 나고자란 것들이

어찌감히 그녀의 생명을 갉아 먹는단 말이냐?”

— 오랜 이, 주시하는 자. 카르사둔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카르사둔. 나무에 늑대의 얼굴을 깎아 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가면을 쓰고 있는것 같지만 늑대의 얼굴에 나무가 뿌리내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거죽대신 나무의 껍질과 같은 형질로 변이된 것이다. 나무의 정령이나 숲의 수호자라 불리우며 그 이름답게 살과 피를 뜯어먹는 대신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내려 수분과 양분을 섭취한다. 몸통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뿌리나 덩굴들이 그들의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숲을 이루는 모든 나무와 정령이 저들의 부름에 답하기 때문에 저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귀신들린 숲이라 불리고 있다. 대지에 뿌리내린 수많은 나무들이 자리하여 높은 산소포화도를 지니기에 이데아의 대부분의 수목이 이곳에 분포되어 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원시고대의 생물이 아직까지 현존하는 경우도 많다. 태양을 가릴 정도로 높고 어두운 우림이 가득한 환경 덕분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이곳에 닿았지만 그들이 살기 이전부터 존재한 희귀한 생물들로 인해 숲의 심장에 닿지 못했다. 세트의 권능 중 하나인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그대로 물려받아, 숲 속의 정령들과 대화하며 그것들을 다룰 수 있으며 나무들이 그러하듯 이데아에 뿌리내리면서 그녀와 동화하는 덕분에 만월의 광기에 빠지지 않는다. 생명의 순환과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며 비교적 중립적인 존재들로 알려져 있으나, 숲을 해하는 자 혹은 자연의 고리를 깨려는 행태를 보이는 자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뿌리를 내려 세계의 균형과 굴레를 이해하

며 그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기때문에 이미 자신들을 신에 가장 가까운 경지에 닿은 자라 여기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부족들과 달리 이들은 신의 자리에 오르려 애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불순물 』

태초의 창조주는 물론이거니와 이바와 아다무스조차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만들지는 못했다. 변칙성이라는 작은 기적은 애초에 창조주가 이데아에 나고 자라는 생명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피고 지는 생명의 순환을 바라보며 즐거워 했을만큼 그녀의 창의력을 뛰어넘을 정도였다. 또한, 이바와 아다무스는 그저 이 생명이 만연한 땅에 그저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우매한 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모든 생명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해 온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은 그 후대를 거치어오며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고, 이는 세트의 후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훗날 더욱이 오만해져 지성을 갖춘 자신들만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이 더더욱 깊게 자리하게 된다. 다른 존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숲의 주인들로부터 나온 세트의 후예가 스스로 우월한 존재임을 각인 시키고자하려는 행위가 이미 정도를 넘어서는 광기를 보이기 시작하니, 공존이라는 것 따위는 이미 잊은지 오래인듯 했다. 창조주가 변칙성을 기반으로 빚은 이데아가 오랜동안 스스로 숨을 쉬어오며 눈을 뜬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의 고리' 와 '생명의 순환' 이었다. 이데아에 살아 숨쉬

는 모든 존재들은 그 안에서 평등한 존재이며, 어느 그 누구도 우위에 서거나 정점에 오를 수 없다는 오랜시간에 걸쳐 이데아가 낳은 진리였다.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찬란한 빛을 유지해오던 그녀가 낳은 것들 중 하나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 살았음에도, 그에 대한 감사도 모른채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저 파괴만을 낳는 것은 이데아가 낳은 진리 속의 불순물이나 다름없었다. 자연의 고리에 생긴 크고 작은 불순물들은 균열을 만들었고, 진리는 절규하게 되었다. 결국엔 영원의 전쟁에 이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마저 내려오니, 이데아는 병들고 신음하여 이전에 가진 그 생명의 빛이 퇴색되어 바래지게 된 것이다. 허나, 이데아의 목소리를 듣는 이 없으니,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 대자연을 포용할 존재의 부재 』

아무도 이데아가 말하는 생명의 순환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생명이 충만한 이실그라드조차 부모가 써내린 생명의 역사를 전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물며 나무 아래에서 아르카나의 기억 저편의 흩어져버린 조각을 가지고 간신히 엳보기만 하던 역사를 기록한 시란두르를 곁에 두고 있던 퀴나즈들마저 그저 이론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행여 누군가 그것을 미약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다고해도 다른 이들에게 자연의 진리 그 자체를 전달하려 한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아무도 그것

의 일부가되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난 현실이 지금 이데아의 모습이다. 온갖 죄악들과 더러움이 즐비하고, 생명의 고리에 대한 무지는 파멸을 낳았다. 심지어 세트가 그렇게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자연의 품과 숨가쁘게 내달리던 숲을 누구하나 기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미약한 발시아의 힘으로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망가진 자연의 순환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에 통탄에 잠긴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고, 마침내 영원의 전쟁으로 불경한 숨을 토해내는 것들이 숲을 향해 다가오자 오랜동안 깊은 숲 속에서 자리하고 있던 현자들이 분노하며 결국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 현자, 카르사둔 』

숲 속의 늙은이에 불과한 현자 역시 세트만큼이나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던 자였기에, 미숙아였던 세트가 아벨이나 카인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데아를 상처입히는 모습에 망설임없이 세트의 앞에섰다. 생명의 순환과 망가진 자연의 고리를 치유하기 위해 세트가 힘을 써줄 것을 촉구했지만 대화를 마치고 난 늙은 현자는 세트가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마음먹은 순간부터 자연의 고리를 해치는 불순물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 늙은 현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민한 정신력으로 연결된 세트와의 의식을 스스로 단절하였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빛도 들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다시 은거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병들어 절규하는 자연의 고리를 복원시키는 숲의 주민이라는 뜻을

가진 ‘모샤에트’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숲을 정화하고 이데아의 대지를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자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숲에 뿌리를 내리며 안그래도 어두운 숲 속을 더욱 두텁고 더욱 어두웁게 더더욱 넓게 덮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이 자리한 숲 주위로 엄청나게 깊고 어두우며 거대한 우림을 이루었다. 모샤에트의 전령들은 거대한 나무협곡을 정화의 땅이라는 뜻의 ‘바르마엣’ 라고 불렀다. 세트를 설득하고자 했던 늙은 현자는 제르갈의 신수와 함께 살아온 자였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고리 속에서 숨을 쉬어오며 이데아가 낳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자였다. 그는 오랜 동안 세트의 행보를 눈에 담으며 그를 주시해 왔지만 설득이 불가능한 걸로 깨닫게 되며, 세트 역시나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늙은 현자는 숲속의 주민들 사이에서 전령의 주인라는 뜻의 ‘카르사둔’ 이라고 불려지면서 이제는 모샤에트의 장로의 자리에 앉아 깊고 어두운 숲 속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데아를 주시하며 자연의 고리를 수호하기 위한 역임을 다하고자 발끝의 뿌리를 뽑아냈다.

『 어머니 대자연의 품에 안겨 』

이들 모샤에트는 이름 그대로 숲과 하나가 되어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화가 되었다. 세트의 후예가 가진 늑대의 외형은 온데간데 없고 몸 대부분이 나무껍질로 되어있고 나뭇가지나 가시, 혹은 뿌리가 몸 군데군데 나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생명의 순환을 지키면서 그것을 피

부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세트의 피 중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가장 진하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더이상 세트에게서 느낄 수 없던 모샤에트는 분개하였고, 이제 스스로가 대자연의 일부가 되면서 대자연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세트는 물론이요, 대자연을 훼손하는 모든 이들이다. 다만, 자연의 섭리에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으려하며 그들만의 전쟁을 묵묵히 지속해 온 것이다. 카르사둔을 포함하여 일부 모샤에트의 전령들은 제르갈의 신수들과 거의 동시대를 살아온 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 불멸의 존재는 아니지만 질긴 생명력으로 세트의 후예들도 수명이 상당히 길었지만, 이들 모샤에트의 전령들은 이데아에 뿌리내려 그녀를 양분으로삼아 엄청난 생명력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특이체질 덕분에 다른 세트의 후예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더욱이 말도 안되는 세월을 살아왔다고 알려져있다.

『 정령의 도움 』

숲에 넘치는 생명의 힘은 모샤에트의 전령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까지 바꾸었는데 그들의 곁에 함께하며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정령들도 있다. 정령들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로움’, 늑대의 형상을 하고있는 ‘라삿’,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조’가 바로 그것들인데 이 정령들은 그들의 곁에서 파발이나 경계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으며, 자연의 고리안에 숨쉬면서 고리에 불순물이라 여겨지는 자들을 처단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들과 숲에 충만한 생명들과 함께 고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다. 광기를 그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의 힘으로 광기를 완전히 정화시켜 잠재우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의 고목과도 모습대로 대지에 뿌리를 내려 넘치는 생명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취하는 일이 없다. 영원의 전쟁 말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세트의 후예들의 목을 졸랐지만, 웅장한 고목처럼 스스로 대지에 몸을 맡기며 이데아의 생명력을 빌어 가까스로 저주가 숲의 심장까지 갉아먹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더불어 그들과 함께하는 정령들이 이데아와 동화하는 의식을 곁에서 지켜봐주며 그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불경한 것들이 닿지 못하게 막아주었다. 그렇게 이데아와 동화되면서 자연의 고리와 생명의 순환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들의 모습은 더욱 세트의 후예와 다른 모습으로 이실그라드만큼은 아니지만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생명의 나무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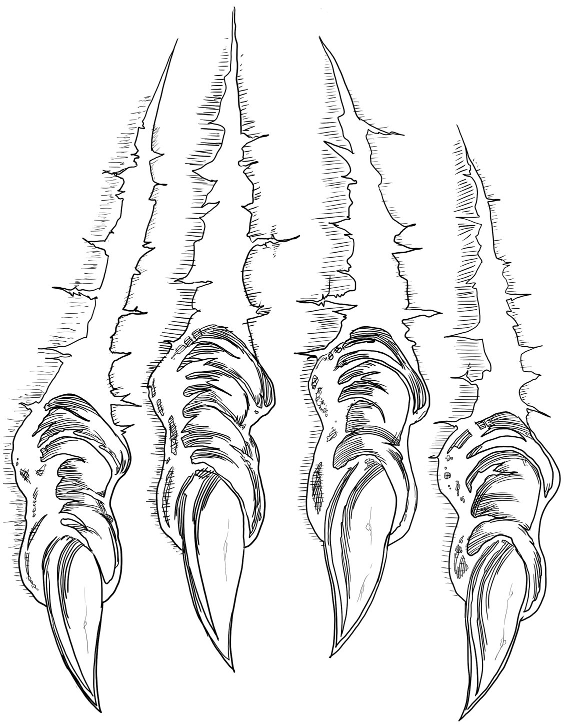
『 대자연의 분노가 향하는 곳 』

이들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하며 절대적으로 중립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이나 성품은 다른 존재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끔 만들기에 충분했다. 다만, 중립적이라는 것이 이들이 평화의 사절이

라는 뜻이 아닐 뿐더러 정의를 수호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생명의 순환을 수호하는 이들에게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관념따위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모샤에트의 전령들과 논리적인 토의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은 영원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만 하지 않았을 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순물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내려진 불경한 자들의 정화를 쉼없이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정화가 아닌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짓밟는 것에 대한 분노의 심판이었다. 나아가 이 증오의 화살은 자연스레 그 저주를 내린 이바와 아다무스에게로 향하게 된다. 이데아를 병들게 한 존재들은 책임감을 버리고 이데아 밖으로 나섰지만, 여전히 죽어 마땅할 자들이며 다른 생명들과 달리 죽어서도 이데아에 안길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죽고나서도 이데아에 그들을 뒤덮을 흙 따위는 없다고 그들을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아래에 서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던 부산물들 모두가 자연의 사슬과 생명의 순환에 독이 되는 불순물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존재들이 모샤에트의 정화대상일지도 모른다.

『 자르갈 』

세력 상징은 살점을 찢고나온 발톱.



“발톱빠진 짐승따위는 먹이로도 쓸모가 없다.

오직 순수한 피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신이 된다.”

— 자르갈의 순수한 혈통, 샤카르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샤카르. 세트가 영면에 빠진 것은 그가 약했던 탓이라 여기었던 무리들이 그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껍떼기를 완전히 버리고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발을 딛기 이전 오랜동안 이데아를 뛰놀고 있었던 고대의 신수가 지녔던 형상을 유지한채로 스스로를 그들의 진정한 후예들이라고 주장한다. 만월의 광기에 잠겨도 이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부족과 눈에 띄게 다른 압도적인 체구를 지니고있다. 이러한 연유로 자신들이 세트는 물론이요 그의 다른 후예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자각을 지니고 있다.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족들 사이에서도 마찰은 필수불가결한 고결한 의식과 행위라고 여길뿐만 아니라 다른 후예들마저 도태된 자들이라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행여 고결한 피가 더럽혀질까 교류마저 차단해 버린다. 약자를 한없이 멸시하고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항상 자신들보다 더욱 강한 자들을 죽이는 과정을 거치며 투기를 잃지 않으려한다. 생사의 경계에 놓이는 순수한 폭력과 단순명료한 삶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존재들로 가장 잘 알려져있다. 총과 칼을 더불어 저마다 무수하고도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에데어도 이데아에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도 알려져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자르갈의 이빨과 발톱이다. 어찌보면 가장 원시적인 무기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바로 이데아에 살아 숨쉬는 것들이 무릇 가지고 있어야 할 육체적 강인함이었다. 그것 이외에도 압도적인 체력

과 생명력, 그리고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질긴 가죽, 만월의 광기가 주는 쾌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전투광기 등등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 숨쉬는 것을 죽이기위해 특화된 것이었다. 이런 특징때문에 이 짐승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노련한 수백의 군대마저도 녹록치 않다고 알려져있지만 약한 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들의 특성 때문인지 심기를 거스르지 않거나 흥미가 돋지 않는 이상 저들이 굳이 먼저 살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르갈의 가장 큰 적은 자르갈이라 알려진만큼 강한 자를 죽여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 서로 죽을 힘을 다해 펼치는 동족간의 혈투가 진행되는 동안 저들끼리 부딪히는동안 선혈이 낭자하는 그 근처에 감히 발을 딛는 호기를 부리는 자는 없다고 한다.

『 자르갈의 신수 』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내려오기 이전부터 이데아를 뛰놀던 존재이자 강인한 힘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감각으로 수많은 생명의 정점에 서 있던 존재가 있었다. 이데아를 뛰놀던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들이 자리한 곳에 발을 딛게 되며 이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앞에선 이들의 아름답고 고고한 그 모습은 위엄있고 경외심이 들게하는 자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성이 있는 것들의 조우는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기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더이 상의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가 세트의 권능으로 이들의 존재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

었다. 기민한 정신력으로 연결된 세트가 완전히 이들과의 의식과 연결이 된 후로 이 신비로운 생명은 자신들을 태곳적 신수라는 뜻의 '자르갈'이라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 때부터였다. 세트는 자신을 무리에 받아준 것을 감사하며 공허함을 추스리고 다시금 기쁜 마음으로 이들과 뛰놀며 백색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을 가진 '라바로쉬'로부터 이데아의 오랜 지식과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반발감이 더더욱 커지게 된다.

『 샤카르 』

하지만, 세트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이는 자르갈의 신수들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우두머리에 대한 섬김이었다. 우두머리 라바로쉬가 세트를 받아 준 것이지 세트가 자르갈의 신수들을 받아 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라바로쉬는 자신들의 무리들이 '발시아' 다시 말해 인간들로부터 더이상 상처받지 않고 맞서 싸우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가 자신들에게 권능을 내리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다. 다만, 신수의 우두머리 라바로쉬에게는 검은 갈기라는 뜻의 '샤카르'라고 불리우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라바로쉬의 폭력성과 세트의 광기를 오롯이 물려받았다. 다시말해 무척 공격적이고 거칠며 지배적인 성격만을 고스란히 담은 순수한 전투광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신수 자르갈의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우두머리 라바로쉬가 있었음에도 그에게 조언이나 의견을 묻지조차 않고, 마치 자신이 자르갈의 무

리를 이끄는 양 건방지게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다른 이들까지 끌어들인 세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샤카르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이끌고 그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그 이후, 연로한 라바로쉬의 죽음까지 더해져서 더욱 세트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어졌으며, 호전성 넘치는 이들은 세트와의 결속을 끊은 채로 완전히 독립적인 부족으로써 살아가게 된다. 비록 세트의 권능으로 그의 피가 자신들 안에 흐르고 있지만, 그가 밟아온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아비 라바로쉬가 오랜동안 닦아놓은 자르갈의 길을 걷고자 했기에 세트의 후예라고 불려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 그렇게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들의 부족을 아직까지 세트의 후예라는 이름 대신 자르갈의 후예라고 부르며 살아가고자 한다.

『 아그마트 』

오직 선혈이 낭자하는 극한의 전투속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이 살아갈 곳이라 여겼던 이들은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들 모두가 닿아있는 접경지대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게된다. 운명의 갈림길 이라고 부르는 '아그마트' 의 일대는 이데아의 중앙부 거대평원으로 이루어져있어 과거 모든 길이 통해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릴정도로 전쟁 속에서도 물자의 보급이나 지원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인 땅으로도 불리우던 곳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곳에 함부로 자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그마트 일대는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세트의 후예 사이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는 곳이었기에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커다란 불씨로 번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불안한 지대를 점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샤카르와 자르갈의 후예들은 당당히 이곳에 자리했으니, 그 까닭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더 많은 생명들과 더 많은 혈투를 벌이는 가운데 흩날리는 피와 살덩이가 주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였다.

『 신수전쟁 』

자르갈의 후예가 다른 부족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점유한 영토에 비해서 부족 단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며, 그 크기를 섣불리 불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세트의 후예라는 사실을 버리고 자르갈의 후예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기점이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처럼 샤카르가 직접 만들어낸 시험이자 동시에 자르갈의 의식이나 다름 없었으며, 서열을 정리하기 위한 통과의례이기도 했다. 이렇게 치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함축되고 이어져 이들만의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으로 자리잡았고, 이들의 존재자체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굳어지게 된다. 세트가 신의 자리까지 넘보려 하는 야욕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해 나갔고, 샤카르는 자르갈의 후예들 모두가 신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했

다. 그의 거친 울음을 시작으로 자르갈의 후예는 전부 하나의 가족임과 동시에 경쟁 상대가 되었으니,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의 신의 길을 열기 위한 주춧돌에 불과했다. 시험의 때가 도래하면 샤카르의 포효로 이들은 모두가 잠든 광기를 억지로 깨우며 자신의 역량을 발현하며 누가 더 뛰어난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로의 목덜미에 이빨을 드러내는 피와 살이 튀는 전투에 임한다. 이들이 축제라고도 부르는 광기어린 아수라장은 수많은 부상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험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죽은자는 그저 신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들로 치부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치루어질 시험에서 걸러질 자들이었을 뿐이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만큼 태곳적의 고고한 자태와 위엄을 뽐내고 있지만 실상은 냉혹하고 피가 마를 날이 없는 언제라도 죽음을 곁에 두어야 하는 외로운 자들이었다. 신수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벨의 자손도, 카인의 핏줄들조차 아그마트의 일대로는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다른 세트의 후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이들 사이에서 그것은 불가침의 영역이었기에 그 선을 넘는 자는 누구라도 생존을 장담 할 수 없었다.

『 오산 』

초기에 이데아의 대부분의 존재들이 자르갈의 후예들이 서로 뒤엉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굴레속에서 그들의 수를

스스로 줄여준다면 이데아를 위협하는 요소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그 예감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다. 신수전쟁을 거듭하는동안 이들은 약자난 경쟁자를 하나 둘 제거했고, 생사를 넘는 혈투 속에서 스스로 진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서로 피를 뿌리고 살을 찢으며 싸우는 가운데 자르갈의 후예들의 유대와 결속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죽은 이들을 뒤로하고 남겨진 자들은 자신들의 우수한 혈통을 이어나갔고, 그들의 후예를 낳으며 그 아이는 우월한 피를 잇는 광전사로 거듭난다. 대대로 그들의 강함을 다시 물려받으며 날이 갈수록 더더욱 성가신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후에 발발한 영원의 전쟁은 이들의 폭력성과 광기를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되어 전장 속에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빛을 발하게 되는 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영원의 전쟁에 누구보다 먼저 전장에 몸을 던졌으며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남아 꽤나 열정적으로 피와 살을 뿌려댔지만, 그것은 세트의 후예의 이름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살육이 즐거웠기에 발을 딛은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의 전쟁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수전쟁에 비하면 그저 작고 소중한 휴식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영원의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항상 소극적인 혈투를 벌인 세트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힐난하기도 했던 부족으로도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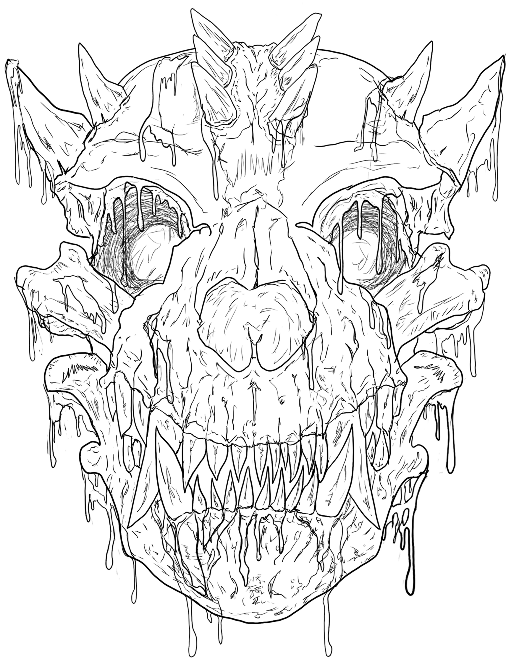
『 초월자들 』

세트의 은총을 받았지만 자르갈의 피가 더욱이 진하게 흐르는 존재들인

자르갈의 후예들은 다른 세트의 후예들과의 고리를 속박이라고 여기며 모두 끊어버리고, 그 옛날 자르갈이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세트가 돌이 된 것을 보며 그 나약함을 비웃었으며. 이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도 다른 세트의 후예들과 다르게 태고의 지고한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던 까닭은 광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에 기꺼이 담았으니 저주를 광기로 이겨낸 셈이다. 만월의 광기가 가져다 주는 파급력은 상당하여 이데아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강인함을 손에 얻을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을 잃어 자신조차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이 맹점이었는데 자카르의 광전사들은 그것조차 개의치 않았다. 만월의 광기라고 부르는 것은 세트가 남긴 흔적이었는데 이전에 세트의 후예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것조차 담는것을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자 자르갈의 이들은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직접 몸에 담아내며 그것과 맞서 싸워왔다. 오랜동안 이데아에 새겨진 투쟁에 대한 본능이 만들어낸 산물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자, 만월이 차오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몸에 새겨져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들이 광기에 빠져도 이성이나 사고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옳다는 판단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로 세트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우친 샤카르와 자르갈의 후예들은 이데아가 상처입고 부숴질 때까지 신수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의 자르갈로 선 그 존재는 그들의 정신을 이으며 신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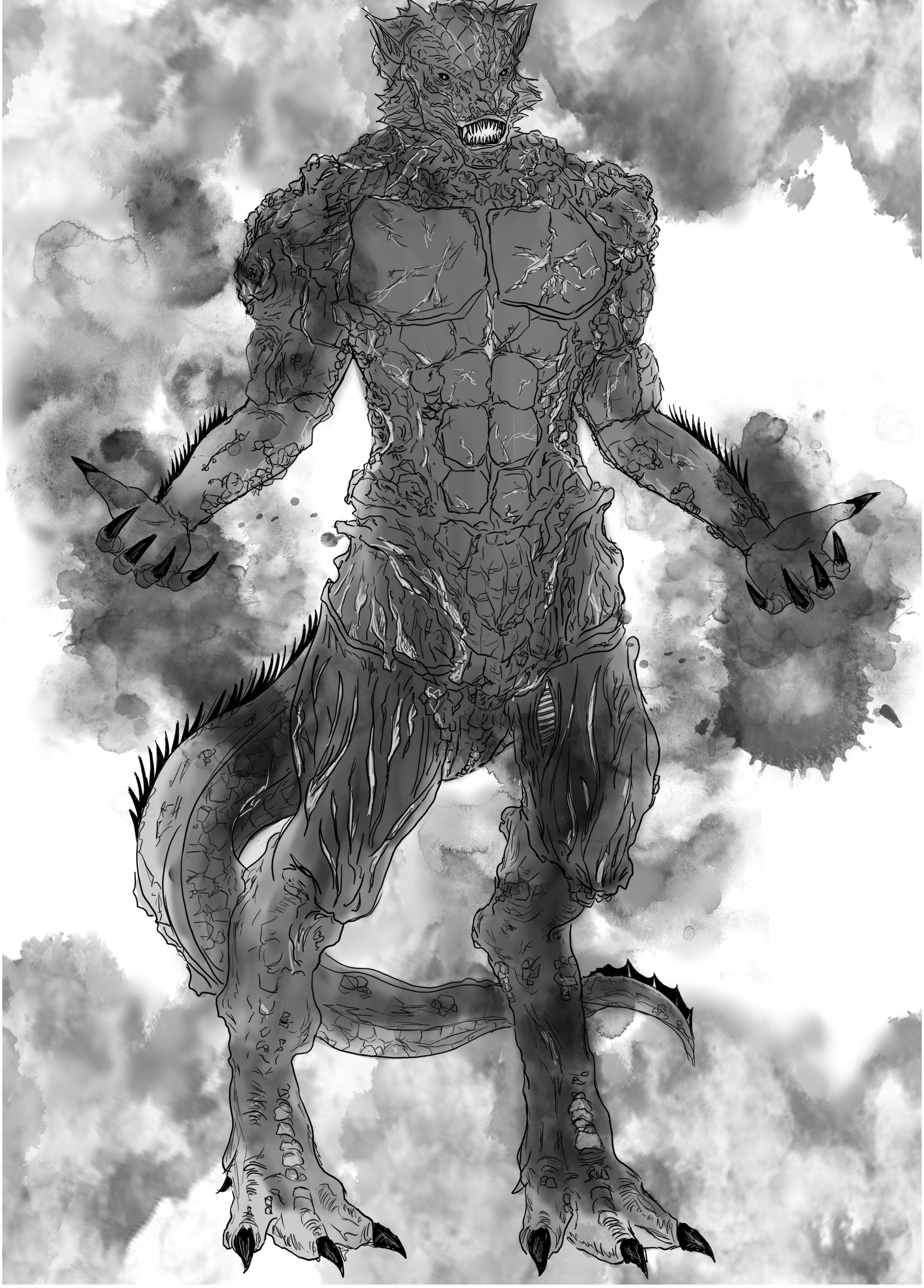
『 울라메드 』

세력 상징은 녹아내리는 두개골.



“종으로 살아온 자들아. 생명을 마시고 죽음에서 돌아오라. 오늘 사선에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걸러내어 그것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 선별자, 악티온과 라디악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악티온과 라디악.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엄청난 방사능을 띄고있는 샘물 속으로 몸을 던진 뒤에 살아남아 목숨을 연명하게 된 존재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피부는 매마른 사막의 대지처럼 갈라져 비늘과도 같은 형상으로 변이했고 흡사 간헐천이나 화산같은 것이 표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살갗 사이로 치명적인 방사선을 뿜어대며 살아 숨쉬는 생체무기나 다름없는 몸으로 변모했다.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상실한 내부의 장기들로 인하여 평범한 이들과 달리 피를 마시거나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는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없어 정상적인 양분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렇게나 상식의 범주를 파괴하는 신체를 지니게 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게 만든 근원 역시 다름아닌 자신들을 살린 죽음의 물방울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샘물이었다. 그렇게 꾸준하게 죽음의 물방울을 섭취하는 행위를 오랜동안 반복하는 가운데 이들의 체내에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자리하게 되는 것도 당연했다. 그리고 그것이 눈을 뜨고 시동이 걸리자 몸에 돋은 혹과 간헐천의 구덩이는 더욱 기형적으로 변이되기 시작하며 오래되고 낡은 살점과 체모가 뜯겨져 나갔다. 외부적인 환경과 뒤틀려버린 외형에는 태곳적 신수의 모습도, 세트의 후예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수많은 탈피를 거치고 난 이후로 자리잡은 현재의 모습을 이르러 죽음에서 환생한 뒤틀린 존재, 혹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저주의 부산물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나 이질적

이고 치명적인 존재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죽음의 샘물이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된 활동범위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크고작은 분쟁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이 제대로 실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점점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동향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과도 같이 어디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저주받은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자신들의 의무 중 하나라고 여기고 삶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며 변절자들 위에 구세주로 군림하고자 한다.

『 이름없는 자들 』

세트의 후예들은 저마다 세트가 가진 특징 중에서 무언가 하나씩은 물려받았고 저마다 부족을 꾸리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데아에 새기며 살아나갔다. 다만, 이는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일부가 가진 축복이었고, 대부분은 그저 세트의 권능을 이어받아 강인한 이빨과 질긴 가죽 이외에는 더이상 특출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살기 위하여 주위에 명성이 자자한 일부 부족들의 끄나풀이나 연락책 아니면 변방에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이나 불경한 것들을 사냥하는 정도로 목숨을 이어나갔다.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쥐죽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것이 당당하게 자신

의 이름을 내세운다 한들 다른 부족들의 표적이 되어 죽거나 노예가 될 뿐이었다. 이들 무리들은 권력에 대한 야욕도 없었고 그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에 대한 혐오감조차 크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며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버린 것이다. 특출한 재능이 없는 이 짐승들은 다른 부족들 아래에서 꼭두각시 노릇을하며 노예와도 다름없는 이름조차 가지지 않으려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 카르모트 』

다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며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그의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다. 어미는 그를 낳자마자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채로 하늘의 별이 되었고, 아비는 다른 부족의 폭정과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늑대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세트의 후예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자르갈의 신수들이 이 땅에 뛰놀고 있을 때부터 그들의 사회구조는 야생 그 자체이자 적자생존의 법칙이 다른 누구보다 삶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세트의 후예들 가운데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용되는 법도였다. 약한 자라면 강한자의 힘에의해 무력하게 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소년은 수많은 폭행과 유흥거리에 불과했다. 그의 몸에 수많은 상

처가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지치고 병들어 쓰러진자라는 뜻의 '칼 모르트' 라고 부르며 그를 조롱하듯 이름지었다. 그렇게 그는 원하든 원치않든 그 이름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

『 진흙 속에 핀 꽃 』

여느때처럼 섬김에 익숙해지며 그득의 학대로 온 몸에 수많은 폭행의 흔적을 안으며 멍하니 새벽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때, 그의 곁에 머무는 이가 있었으니, 소녀도 역시나 노예로 살아가던 자였다. 그녀 역시나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의 흥미가 생겼던 이유는 그 소녀가 당돌했을 뿐만 아니라 들풀의 이름과 협곡의 고동 그리고 이데아에 수 많은 것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분위기 새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지식들 덕분에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세트와 그의 가까운 부족들 곁에서 역사나 전통따위에 대한 학술적인 보조를 뒷받침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기 좋아하던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잡초라는 뜻의 '가라즈' 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노예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서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몰래 새기는 비밀도 많아졌으며 나중에는 가라즈는 카르모트에게 자신이 몰래 만든 언어까지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카르모트 몸에 자리한 수많은 상처를 보더니 기이한 구름에 뒤덮혀있는 동굴 속으로 그를 데려간다. 그 곳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기이한 곳이었

다. 구덩이 안에는 뜨거운 끓어올라 솟구쳐 오르며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여지껏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곳이라 소개하며 그를 데리고 끓는 듯한 물 웅덩이로 데려가 그곳에 몸을 담게 했다. 코 끝을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와 함께 몸 여기저기 난 상처가 부글거렸고, 몸이 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한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나자 몸을 다시 확인해보니 상처는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가라즈에게 감사를 표하며 가끔 노예생활을 하면서 주운 돌조각을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둘은 더욱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다른 부족의 뒤치다꺼리를 한 뒤 많은 시간들을 함께 기이한 간헐천이 담겨진 동굴에서 보내게 된다. 카르모트는 가라즈와 함께하는 꿈같은 시간과 공간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그곳을 생명의 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굴라나그' 라 이름 지었다. 엉망이었지만 자신이 만든 말을 기억하고 이름까지 지어준 그에게 감사하며 가라즈 역시나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했고, 이 둘은 굴라나그 간헐천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었다.

『 해방 』

노예로 지내온 세월을 헤아리기를 포기할만큼의 오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며 이데아에는 전운이 감돌게 되었다. 세트의 수많은 부족들은 이 전쟁 속에서 명예와 영광에 눈이멀어 그것만을 탐하며 미친듯한 야욕을 부리

기 시작했다. 이에, 수많은 노예가 전쟁전부터 고기방패를 위한 목적으로 징집되었다. 이는 카르모트와 가라즈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그녀와 함께 죽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긴 그는 가라즈와 함께 이곳 저곳 노예병으로 차출되어 피와 살을 뿌리는 전쟁에 발을 딛게 된다. 그렇게 사선을 거닐어오다 치명상을 입은채로 남들은 모르는 동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운채로 그녀와 함께 오랜동안 휴식에 잠겼다. 마침내 둘은 지쳤다. 전쟁이 지쳤던 것이 아니라 노예로써 살던 삶에 지쳤던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아래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지친 것이다. 이에 카르모트와 가라즈는 굴라나그 간헐천 동굴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더이상 밖으로 나서기를 꺼려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망가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무뎌져 있다해도 세트의 기민한 정신으로 연결된 이들의 유대로 인하여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마친 주변을 거느리던 다른 부족들에 의해 이들의 거처는 쉽게 발각되었다. 전쟁중에 이 둘의 행각은 세트의 후예로도 노예로도 감히 용인되지 못하는 행위였기에 이 무리들은 카르모트와 가라즈에게 죽음을 선고한다. 그러나, 오랜 전쟁 속에서 노예병으로 최전에서 살아남은 경험치와 더불어 오랜동안 굴라나그 간헐천에서 몸을 담그며 차오르는 활력을 얻게 된 그들은 예전과 같은 노예들이 아니었다. 카르모트와 가라즈는 자신들만의 보금자리에 발걸음을 한 존재들인 자신들과 같은 세트의 후예임에도 노골적으로 적대심을 드러냈다.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굴라나

그 간헐천은 안식처이자 누구의 발길조차 허락하지 않는 보금자리였다. 영원의 전쟁이 벌어진 지금 동족이 언제 어디에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들은 서로 짧은 순간 눈을 마주치고 나서 이들이 자신의 숨통이 언제 끊어진지도 모르게 안락한 죽음을 선사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들은 간헐천의 연기를 토해내며 강제로 세트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되었다.

『 굴라나그의 변화 』

카르모트와 가라즈는 굴라나그 간헐천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려지기 시작했다. 그 저주는 세트의 후예 모두를 향한 것이었고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이 수많은 세트의 후예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들 역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다.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허물어고 무너져 극심한 고통에 심장의 고동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더불어 저주는 굴라나그 간헐천의 모습마저 바꾸기에 이르렀는데 투명하고 힘차게 끓어오르던 간헐천은 형형색색의 기괴한 색과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끔찍하게 절규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오갈데없는 이들은 그저 깊은 동굴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그 짧은 순간, 고통에 의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닌 그저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 혹은 본능적인 감각만으로 생명의 숨결은 오간데 없고 그저 본적없는 형형색색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샘물에 다시금 함께 온 몸을 담그며 삶 또는

죽음을 기다렸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둘은 잠에서 깼다. 아니,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 그들의 외형은 이바와 아다무스로 변해버린 굴라나그 간헐천에 의해 처참하게 녹아내린 듯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결국 저들이 그리 원하는 생을 영위하게 되었다.

『 뒤바뀐 세계 』

죽음의 샘에서 삶을 얻고 나온 뒤에도 그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그들은 놀라지않고 저들 안에 흐르는 변화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랜시간을 거치고난 뒤 카르모트와 가라즈는 동굴 밖을 나왔다. 오랜만에 맞이한 빛과 공기는 더없이 불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것들의 흔적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된다. 그 짧은 시간에 이들은 세트의 후예들이 얼마남지 않음을 인지하며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세트의 후예들이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것들을 긁어모아 자신들을 옭아매던 부족들이 그러했듯 이번엔 자신들이 주인의 입장이되어 살아가고자 다짐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나서 무언가에 홀린 듯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수많은 세트의 후예들과 저주입은 것들을 찾아나섰고 그것들에게 손을 건네었고 굴라나그의 축복을 내리며 다시금 살아갈 생명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것들은 흉칙하게 변해버린 몰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충성과 섬김을 맹세하며 지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물었다. 이에 그들은 노예로써 불려지던 멸칭을 버리고 난 뒤에 카르모트는

‘악티온’으로 가라즈는‘라디악’으로 이름을 바꾸며 자신들을 소개한다. 악티온과 라디악은 자신들의 존재를 세트의 후예들 가운데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선별을 시작했다.

『 처절하게 삶을 구걸하는 자 』

악티온과 라디악이 다시 태어나고나서 세트의 후예들이 사용하는 기민한 결속을 통한 대화는 버렸다. 하지만 간헐천이 뱉어내는 소리를 더하여 독자적인 소통방식을 만들게된다. 악티온과 라디악은 재탄생을 가져다주는 형형색색의 빛깔을 띄는 신비로운 못을 죽음과 생명의 샘이라는‘울라론’이라 불렀다. 뒤이어 샘물에 몸을 담거나 마시는 가운데 생명을 이어가는 자신들의 존재들을 울라론에 의해 생존의 갈망의 한 축을 뒤튼 변절자들을 뜻하는‘울라메드’라고 이름지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형형색깔의 물방울이 보여주는 기적은 이들의 삶의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죽음과 생명의 샘의 축복으로 깨어난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인지한 변화는 자신들의 몸 안에 더이상 붉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울라메드의 변절자들은 굴라나그 간헐천이 토하는 형형색색의 기이한 것이 자신의 육신에 흐르고 있었으니 자신들을 포함하여 그것에 닿는 모든것을 죽이면서 동시에 새살을 돋게하는 그것을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과 생존의 증거라고 여기게된다. 울라론 덕분에 이들은 피와 살을 취하지 않고 생명의 샘에 몸을 담그고 그것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허기를 달래며 치명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세트의 후예의 거죽을

벗겨낸 뒤에 얻게 된 또 다른 모습으로 털이 모두 빠져나간 대신 온 몸을 뒤덮는 비늘이 생겨났으며 저들의 이빨이나 발톱에 닿는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특징또한 갖게 된다. 또한 굴라나그의 간헐천이 그러하듯 자신들도 몸에 생긴 구덩이에서 유독의 연기를 토해낼 수 있게 되었다. 울라론에 적합한 유전인자를 지닌 특출난 자들은 유독의 연기를 뿜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분진폭발을 구현 해낼 수 있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기중의 가연성 물질들과 원격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외형은 여타 세트의 후예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라파르의 생체해부 기록분석에 따르면 그들이 포유류가 아닌 파충류로 재분류 되는쪽이 옳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윌츠의 일부 괴짜 과학자들은 그들의 열화학 에너지원 반응에 매료되어 그들의 생체 표본을 입수하기 위해서 높은 현상금을 걸 정도로 열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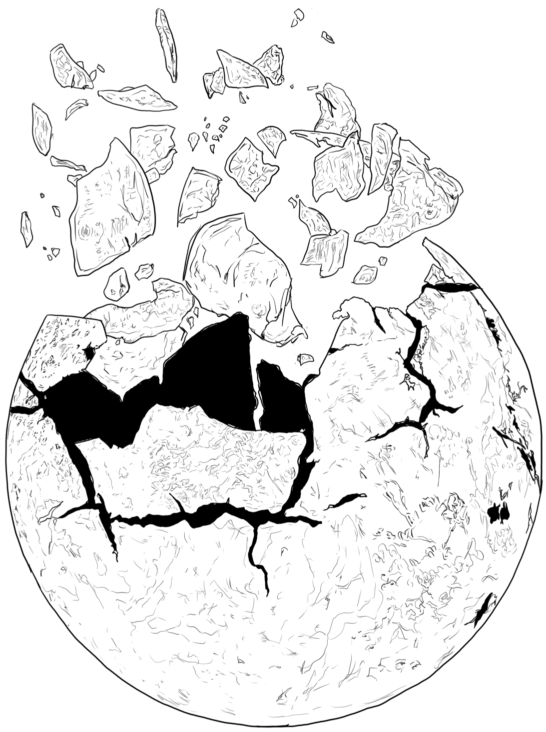
『 돌연변이 』

상당히 높은 수치의 방사선을 띄고 있는 샘물은 많은 이들이 입을모아 생명과 죽음의 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학국가 윌츠에 따르면 울라메드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존재라고하여 저들만이 그 높은 방사선과 융화하기에 적합했던 이유를 밝혀내고자 연구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저 저

들 안에 흐르는 피가 우연히 방사성 물질과 자연스레 융화될 수 있었기에 그것을 몸에 담고도 생명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질적인 신체구조로 재구축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할 뿐이다. 울라론을 이용하여 저들은 어마어마한 재생력을 보이며 그것은 저들의 갑옷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기도 한다. 굴라나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상관없지만 저들의 거처를 멋모르고 활보하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뒤에 흔적조차 남아나지 못할 결과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뿐만 아니라 같은 세트의 후예들조차도 굴라나그에 다가가기 꺼려한다고 알려져있다.

『 조라네스 』

세력 상징은 쪼개져 흩날리는 텅 빈 달.



“세상천지에 어미라는 존재를 저버리는 자가 있을리 없다.

행여 있다한들 그것이 온전한 정신을 지니고있을리 없다.”

— 광기의 어미, 예르바나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에르바나. 세트의 이중성에 대한 회의감 배신감 그리고 차별을 느끼고 난 뒤 여인들은 세트를 등지고 오직 여인들만로 이루어진 외딴 섬에서 금남의 모계사회를 꾸리게 된 존재들로 아직까지도 비밀스럽고 베일에 가려져있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들의 도움없이 오롯이 자신들만의 의지로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며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자들로 알려져있다. 날카로운 감각을 바탕으로 피와 살을 깎는 오랜 훈련까지 더해져 정신을 갉아먹는 듯한 광기 속에서도 그것에 잠식되지 않고 이성과 자아를 유지한 채로 저들만의 고유의 호흡법을 통하여 광기의 더욱 깊은 곳까지 닿아 잠재된 힘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하는 경지까지 닿게 된다. 임전의 태세에 들어가기 전 만월의 달빛에 자신을 더욱 깊게 품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고 알려져있다. 무의식의 경지에 닿아 자신은 물론 적에게 선명하게 새기어진 죽음의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며 그것의 삶과 죽음까지 예견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된다. 자매들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존재들로 여겨, 절대의 영역에 발을 딛는 모든 자들을 죽이고 나아가 위협의 근원이 되는 모든 불경한 것들의 싹을 잘라낸다.

『 만월의 광기가 품은 역사 』

역사가 기록한 세트의 흔적에 따르면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벗어나 이

데아를 상처입혔을 때 아벨과 카인이 사흘 밤낮으로 간신히 그에게 매달리고 나서야 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세트는 자신을 말리는 사흘 밤낮동안 만월의 광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채로 엄청난 희열에 빠져있었다. 그것은 파괴와 폭력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쾌락의 향연이었다. 세트의 후예들이 겪는 만월의 광기는 폭력에서 나오는 여흥과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다. 후에 세트의 후예들 중 하나에 의해 그 행위는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보호본능 중 하나라고 기록된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오는 부담감은 세트를 수차례나 짓눌렀고 기민한 정신력으로 한데 엮여있는 세트의 후예들은 그 중압감까지 함께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억눌려있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겹치며 만월의 광기라는 것으로 표출이 된 것이다. 야생의 본능 때문인지 혹은 그들만의 특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복과 지배욕이 지나쳤던 세트와 그의 후예들, 특히 사내들은 만월의 광기가 가져다주는 쾌락에 쉽게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었다고한다. 원한다고해서 그것을 견디고 털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세트의 후예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여인들만이 이 쾌락에 늪에 쉬이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폭력이 가져다주는 쾌락의 격류 한 가운데에 빠져 있다고 한들 고요하게 집중하여 자신의 모습을 그린 뒤, 이성의 끈을 붙잡고 돌아올 수 있는 섬세함까지 지니고 있었다. 남겨진 세트의 후예들은 저마다 광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은 본능처럼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품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수용했고 마침내 광기의 틈에

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자아를 잃지 않고도 만월의 광기에서 발현되는 힘에 눈을 뜬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의 특출난 여인들은 세트의 부족들 사이에서 만월이 차오를때 광기에 빠져있는 나약한 자들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역할까지 도맡아왔다.

『 여인들의 섬 나쉬메누 』

세트는 여인들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들을 사내들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해주었으며 광기에 빠진 이들의 위로가 끝나고 난 뒤 이들의 고된 심신을 풀거나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인들에게 황량한 섬을 하사한다. 광할하기만 할 뿐 이름조차 없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나 다름 없었지만, 만월의 광기에 취한 사내들을 상대해가며 지친 몸을 쉬게 하는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한 곳이었다. 이로 인하여 처음에는 그저 특출난 여인들이 오랜 시간을 이 섬에서 보내게 되었지만 그들의 섬세함은 황량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다른 곳에서 자라지 않는 초목과 꽃들이 기분좋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정원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더 많은 여인들의 방문으로 여인들의 섬은 더욱 아름답고 고운 향내음이 나는 땅으로 완전히 변모했고 다른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여인들은 이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자신들의 곁에 두고 싶어하여 예쁜 꽃이나 향이 좋은 나무들의 씨앗을 받아가기도 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는 소수의 여인들을 중심으로 만월의 광기에 대한 정보나 그들이 오랜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

며 비단 여인들 뿐만 아니라 세트의 후예들에게 유익함이 오고가며 폭력과 광기가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후에 여인들이 쉼터는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지친 심신을 푸는 안식처라는 뜻의‘나쉬메누’라고 불렀다. 그 때까지 세트는 이름없는 황량한 땅이 가져다 준 영향력과 나쉬메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정복이나 지배가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으니 말이다.

『 세트의 질투 』

많은 여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세트는 점점 이들을 멀리하게 된다. 자신의 권능을 하사받은 존재들이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자신과 다르게 만월의 광기에도 먹히지 않고, 심지어는 광기에 스스로 잠기고 나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보와 달리 지배가 아닌 화합이라는 가능성을 보이는 그것들을 보며 신이 되고자 하는 본인이 자신 안에 잠겨져 있는 광기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 켠에서 자리하고 있던 감정이 영원의 전쟁의 막바지,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주를 내리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세트의 후예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때, 세트는 그의 심장을 죄인 저

주를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 영면에 들기 위한 과정으로 그의 몸과 심장은 점점 돌덩이가 되고 만다. 자신의 심장이 완전히 돌로 굳어지기 전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내어 기민한 정신으로 연결된 그의 후예들을 보호하는데 쏟아붓는다. 그리고 그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의 권능이 미처 닿지 못한 장소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인들이 자리하고 있던 섬 나쉬메누였다.

『 배신감 』

세트의 심장을 옥죄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수많은 세트의 후예를 향했다. 비록 세트가 영면에 들기 전에 그의 권능을 발현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미처 그의 시선이 닿지 못한 곳에 있던 자들은 산것도 죽은것도 아닌 불경한 존재로 변해버리거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한다. 그것은 여인 섬에 있었던 자들의 상황 역시나 마찬가지였으며, 혼란의 가운데에서 세트의 권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오히려 커다란 촉매가 되어 광기를 다루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으며 많은 여인들이 신음하며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과 오랜 영원의 전쟁 속에서 사내들을 원조하고, 때로는 직접 전장에 나서며 피를 쏟아냈던 자신들의 헌신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많은 수의 여인들은 이를 계기로 세트와 그를 따르는 부족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트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으니 오히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여기었으며, 고통을 안고 촉각을 다투는 시간속에서도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 사선에서 깨어난 힘 』

세트와 수많은 그의 후예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이겨내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만월의 광기 뿐이었기에 여인들은 다시 한번 만월의 광기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저주가 내는 잡음으로 인해 광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자매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자 여인들은 하나둘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돈과 광기 속에서도 기분좋은 노랫말과 춤사위를 벌이는 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이후에 광기의 어미 라고 불리우게 되는‘예르바나’였다. 두려움에 떨리는 가운데 희망찬 그녀의 음성 덕분에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깊고 오랜 시간동안 광기의 쾌락을 전면으로 받아들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맞섰다. 여전히 그 과정에서 아직 광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자들과 어린 자매들은 호흡을 따라잡지 못하였기에 심장을 부여잡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한참동안이나 내재된 광기속에서 춤추던 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광기의 춤사위는 끝을 맺게 된다. 마침내 남겨진 자매들은 이바와 아다무스

의 저주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내재된 광기의 조율이 가능해져 자아를 잃지 않고도 만월의 달빛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게된다. 그렇게 살아남은 여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고, 뒤이어 잃은 자매들을 향해 애도도 잊지 않았다. 훗날 조라네스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인들을 거느리고 나쉬메누에 정착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여인들을 환대하고 모계의 사회를 꾸리면서 살게 된다. 만월의 광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태풍의 눈 앞에 잠긴 듯한 고요한 여인들은 이르러 자신들을 광기를 깊은 숨결을 통해 이겨냄을 뜻하는 '조라네스' 라고 불렀다. 이것과 더불어 예르바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조라네스의 여인들은 그녀를 이르러 깊은 숨을 쉬는 자 또는 대모라고 칭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 여인들의 변화 』

비단 세트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여느 여인들 모두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를 품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피를 쏟아낸다. 그리고 그것의 주기는 우연하게도 세트가 만월의 광기에 빠지고 이데아에 상처를 입히고나서 눈을 뜬 날짜와 유사하다고 한다. 윌츠가 날짜의 개념을 수립하기도 이전부터 여인들은 천체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날을 헤아렸던 것이다. 모든 어미가 그러하듯 세트의 후예역시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조라네스의 여인들의 모성애는 세트의 기민함과 독자적인 호흡이 더해지면서 불경한 것들 이외에도 낙원에 남겨진 그 어떠한 흔적들과 대적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정도로 거대한 힘을 가진 무기로써 거듭나

게 되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이겨낸 예르바나는 단순히 광기에 잠기지 않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기에, 직접 광기에 몸을 던지면서 그것의 생리를 깨닫기 위한 시간을 홀로 갖게된다. 오랜 시간을 만월의 광기에 몸을 맡기면서 그녀의 호흡은 상당히 길어졌고, 깊이는 더욱 깊어졌음을 깨닫는다. 나아가 예르바나는 자신은 물론이요, 살아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나선과 경계에 발을 딛을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을 예리하게 세울 수 있었다. 그녀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광기에 몸을 맡기고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해답을 모성애로 꼽았다. 더불어 이러한 사실을 여인들과 나누었고 크고 작은 착오를 겪어가면서 천천히 그것을 입증해 나갔다.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닿는 호흡법이 조라네스의 여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적합한 힘으로 자리하게 된다. 후에 광기에 몸을 던지는 것이 성숙한 조라네스의 여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인식의 형태가 된다. 예르바나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광기에 휩싸여 죽어가던 어린 아이의 그 눈을 잊지 못해 자신들의 힘을 더이상 아이들을 잃지 않으려는 어미의 마음으로 모성애라는 뜻을 가진 '라츠' 라고 부르게했다.

『 라파르의 질문에 답하는 피오르의 증언 』

이들이 전선에서 자신을 사지로 내몰때 나오는 극도의 흥분으로 인하여 사물이 느리게 보이거나 몸의 신경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무아의 경지 혹은 초월의 경계선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자유자재로 부

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조라네스의 여인들은 그것을 자유로이 다루며 심지어 모성애에서 비롯된 힘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그들의 이질적인 능력의 실질적 근원을 파악하고자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수많은 생물학자와 정신심리학 등을 동원하여 그것을 분석했지만 결국에는 그 힘의 원천을 찾아낼 수 없었다. 심지어 피오르의 초능력자들에게까지 자문을 구하였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성애가 그렇게 거대한 힘을 발현해 낼 수 있다고 입을모아 말했고 더불어 추상적인 부가설명이 이어지면서 연구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없었던 실험은 종료되며 남은 표본은 살처분 되었다고 한다.

『 광기에 대처하는 자세 』

자르갈과 조라네스 두 부족 모두 광기라는 것을 이용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이겨낸 존재들이다. 이들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달을 품은자와 달을 삼킨자. 만월의 광기를 완전하게 억누른 자와 광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자. 고요하고 차분하게 흐르는 광기와 전율하며 요동치는 광기. 광기를 대하는 성격이 서로 다른 탓에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했고 그것은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세간의 이들은 만약 조라네스의 여인들마저 자르갈의 광전사들의 호전성을 지녔다면 이데아에 더 많은 피가 흩뿌려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월의 광기를 피하고 숨기려고하는 것보다

만월의 광기를 몸에 담고 그것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그 광기속에서 미치지않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조라네스의 여인들이 얼마나 피와 살을 깎는 훈련을 거듭해 왔는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 이르메스의 어느 처형인 이야기 』

조라네스의 여인 하나를 포박하여 죽이기 이전에 처형인들은 마지막으로 남길말은 없냐고 묻자 그것이 마지막으로 뱉은 것은 유언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흘려보낸 살기였다. 그 살기에 처형인은 간수의 신호조차 무시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형을 집행한다. 떨어진 목은 여전히 나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소름끼치는 그 미소는 처형인에게 지워지지 않는 또렷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뇌리에 깊숙히 박히게 된다. 그것의 시신은 불태워지고 그 잿더미는 들판에 아무렇게나 뿌려졌지만, 그것을 처형했던 처형인은 이후로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훗날 그는 어두한 뒷골목 한켠에서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의 품안에는 피와 눈물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유서로 보이는 봉투가 있었고, 그 종이쪼가리에는 다른 글 하나없이 오직 ‘엄마’라고 휘갈겨 적은 듯 보이는 글 뿐이었다.

『 샤마인 』

세력 상징은 피를 머금은 마르지 않는 장미.



“교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아함이라 불러주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죄악이라 치부하는 것만큼 추한 것은 없으니, 추한 것이야말로 죄악으로 치부해야 하는 것이 어떨런지.”

— 교만의 죄악, 피의 군주. 브리쿨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브리콜. 카인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로 교만의 죄악을 짊어진 자이다. 카인의 순수한 핏줄을 이은 순수혈통이자 왕가의 핏줄을 이끄는 절대적 지배자. 그의 명령 아래에 있는 이들은 그 이름 그대로 우아한 자태와 격식과 예절을 갖추고 있으며 빼어난 용모마저 갖추고 있다. 카인이 종적을 감추고 폭풍 전의 고요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들은 조용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리고 카인의 핏줄들 앞에 카인의 피를 마신 태초의 피라 부르는 카르밀라가 모습을 드러냈고, 때가 다가왔음을 알아차린 브리콜은 긴 잠에서 깨듯 자신들을 보살펴줄 태초의 피 카르밀라를 스스로 찾아가 기꺼이 그녀의 종복이 되기로 한다. 브리콜은 이후로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여 그녀의 곁에서 자신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자질을 인정받기 시작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에 들었고, 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에 대한 보답으로 브리콜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왕가의 혈통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샤마인'이라는 작위를 하사받게 된다.

『 브리콜 』

피의 군주이자 교만의 죄악을 품고 있는 자이다. 고고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사치와 오락을 즐긴다고도 알려져 있다. 귀족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만큼의 기품이 흐르며 카인의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의외로 무의미한 살생이나 분쟁은 선호하지 않는다. 태초

의 피를 흡수하고 그 혈통을 이어오며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피를 가장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 저주내린 카인의 순수한 혈통이기에 빛에 대한 면역이 다른 핏줄들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지만, 소량의 피로도 최대한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태초의 피에 예속되기 전에도 자신이 가진 피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 그것을 외부로 방출하여 구현화 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고, 태초의 피에 예속된 이후로 그녀의 아래에서 조용히 그 힘을 갈고 닦았다. 단순히 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유흥으로 여긴다. 카인의 핏줄이기에 뛰어난 신체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지배자의 품격답게 타인에게 정신적인 예속을 걸어두어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 죄악의 돌을 복구하여 릴리트를 살려내고 그녀로 하여금 태양빛을 뒤덮을 붉은 낙원을 펼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태초의 피, 카르밀라 』

카인이 아벨의 죽이고 홀연히 종적을 감춘 뒤로 모든 카인의 핏줄들은 창조주의 저주를 입게된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목적을 잃고 갈길을 찾지 못한채 그저 떠도는 영혼처럼 혹은 들판의 짐승이나 다름없이 피의 광란에 빠져 자아의 흔적을 잃을 정도로 희미해져 가던 나락에서 이끌어 준 존재가 바로 그녀이다.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진 카인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죽임을 당하지 못해 영생을 살게 되었지만 가슴 속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였다.

낙인을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이리샤가 남긴 흙에 스스로의 피를 뿌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으니, 그렇게 태어난 그녀는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새로운 아내나 나름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태초의 피 카르밀라이다. 카인의 자취를 감추고 난 뒤에 카인의 핏줄을 보살펴 왔으나 영원의 전쟁도중 왕가의 혈통에게 배신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 게헨나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받고 카인이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처음으로 터전을 마련한 곳의 이름이자 에르아의 저주가 가장 먼저 깃든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게헨나는 이전부에 지금까지 버려진 땅 혹은 저주받은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긴 뜻으로 쓰이게 되며, 태양을 마주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어둠을 걷는 자들과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아벨의 자손은 물론이고 세트의 후예들까지 본능적으로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제대로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게헨나에 고이 깃든 에르아의 낙인 때문이었다.

『 카에람 』

태초의 피가 게헨나에 카인에게 받은 권능과 피로 세운 성으로 이름 그대로 카인의 성이라는 뜻이다. 형제인 아벨을 죽이고 난 뒤 행방이 묘연한 그가 혼란에 빠져있는 자신의 핏줄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카르밀라의 바람대로 성의 크기는 능히 태양을 삼킬정도로 거대했

다. 뿐만 아니라 성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주변 일대를 충분히 뒤덮고도 남을만큼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으며, 그 힘 때문인지 주위의 활력을 빨아먹는 것과도 같이 성의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고 말라죽어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 뿐이었다. 벌레들은 커녕 풀 한 포기도 자라나지 않은 죽음이 드리워진 성이라는 악명이 자자했지만 그녀는 이후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잔존하는 카인의 핏줄들을 카에람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체계가 구축되고 난 뒤 카에람에서는 계급이 만들어지고 분류되었으면 대부분 고위 계층의 귀족들이 카에람 내부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에 비해 능력이 다소 뒤떨어지는 이들은 국경수호를 명목으로 변방의 작은 성채에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 왕가의 혈통과 카르밀라의 가치관 차이 』

카르밀라는 이리샤의 흙에 카인의 피가 더해져 만들어진 존재기 때문에 이바와 아다무스가 발시아를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다만, 에르아의 낙인을 입은 카인의 핏줄들에게는 그저 카인의 피만이 흐르고 있었으니, 그들의 가치관은 카르밀라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영생을 사는 것을 저주라 여기는 카르밀라과 달리 카인의 핏줄 어느 누구도 그 것을 저주라 여기는 자 하나 없었다. 이런 다른 가치관은 카인이 저주를 입고 핏빛의 광기에 잠식될 때마다 그를 다그치던 카르밀라의 일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창조주 에르아의 낙인으로 인하야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자요, 그 낙인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죗값이니, 아벨이 그대에게 행한 죄도 죄이고, 그대가 아벨을 죽인 것또한 죄이나, 다만 죄를 죄로 덮으며 자시의 눈 마저 덮으려 하지 말라.”
이처럼 저주에 대한 입장이 다른 둘 사이에서는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 본색을 드러낸 교만 』
태초의 피가 영원의 전쟁으로 전장에 참가하였을때 본성인 카인의 성에 머물러 그곳을 지킬 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태초의 피는 그가 신뢰할 수 있을만한 자이자 강인한 혈족인 왕가의 혈통을 이곳에 머물게 한다.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가 내린 명령을 받아들였고, 카인의 성에 남게 된다. 그녀는 카인의 핏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영원의 전쟁에서 직접 전두에 서서 그들을 지휘하며 전장을 누볐다. 그 누구보다 선혈을 많이 뒤집어 썼기에, 그녀의 백의는 검붉은 색으로 물들었기에 영원의 전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녀는 선혈의 카르밀라라고 불렀다. 그녀가 전장에서 활보하는 동안 카르밀라와 저주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왕가의 혈통의 군주 브리쿨은 그녀를 죽이고 혈계의식을 치루어 그녀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힘과 통솔력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한 그였기에, 그녀를 합당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들 정

치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그의 계획이 완성이 될 때가 오기 전까지 절대로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고, 시기가 다가오자 무서우리만큼 빠르고 정확한 때에 태초의 피와의 예속을 끊어버린다.

『 배반 』

브리쿨은 카르밀라가 모르는 사이에 군사지원을 핑계로 카에람 및 다른 지역에 자리하는 카인의 핏줄들을 자신의 휘하로 거두고 예속시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지원을 보내면서 그녀의 곁에 첩자를 두며, 그 사이에 은밀히 숨어 간 이들의 사기를 꺼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천천히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군대를 와해시켰다. 그리고 브리쿨이 전달받은 그대로 영원의 전쟁 말미에 이데아 전체를 뒤덮는 벼락과 폭풍우가 내려왔다. 이 기점으로 브리쿨은 카르밀라와의 예속을 끊어버렸다. 재앙이 휩쓸고 간 전장에서 지쳐있던 카르밀라는 포박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남겨진 카인의 핏줄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전장에서 아벨의 자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 완성된 교만 』

포박된 태초의 피 앞에서 브리쿨은 전율했다. 그녀가 물려받은 피는 말 그대로 브리쿨이 그렇게도 탐하던 카인의 순수한 피였다. 이에, 더욱더 크고 강인한 힘을 갈구하던 브리쿨은 계획대로 혈계계승의 의식을 시작했다. 다만, 순수한 혈액의 결정을 담는 것은 그저 목덜미를 물어 피를

빠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작업을 필요로 했기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브리쿨은 한창 벌어지고있는 전쟁에 관심은 뒷전이었고 오직 혈계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힘썼다. 그는 카에람 전역의 귀족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철저하게 다른 이들이 카에람에 닿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브리쿨은 카르밀라의 핏방울 속에서 그녀의 기억을 읽고난뒤 잠재된 카인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지만, 마지막 남겨진 불쾌한 이물감에 한 방울을 뱉어냈다. 이를 끝으로 태초의 피 카르밀라는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게 되고 브리쿨의 교만함은 완성되며, 태초의 피가 통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카인의 핏줄을 다스리게 된다.

『 혈계의 계승의식 』

태초의 피를 마시는 혈계의 계승 이후로 카인의 핏줄들 사이에서 피를 취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파장과 힘을 불러오는지 알게 된 브리쿨은 다른 카인의 핏줄의 피를 탐하는 것을 사특한 행위이기에 사악한 입맞춤이라는 뜻의 '셰라삭' 이라고 명칭한다. 카인의 핏줄 안의 사회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여기는 이 행위는 이는 다른 뿌리들이 자신의 입지를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한 암묵적 선포이자 무언의 압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약을 어긴 자는 가차없이 피의 숙청에 돌입하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혈계의 의식의 결과는 죽음이었다. 카인의 다른 혈족 안에 흐르고 있는 피를 탐하는 용인되지 못하는 오만망자한 행동이었지만 왕

가의 핏줄의 정점에 선 군주 브리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피의 계승 혹은 혈계의 진보라는 거창한 말로 포장한다.

『 카에람의 지배 』

왕가의 핏줄 샤마인은 태초의 피로 뿌려 세워진 카인의 성을 점거 하였고 후에는 태초의 피로부터 모든 피를 빼앗고 그 힘을 모조리 흡수하였지만, 카르밀라의 피로 세워진 카인의 성 카에람은 그녀의 의지 그 자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카에람의 힘은 조금씩 나약해져가기 시작했다. 이에 브리쿨은 카에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쳐내버리고, 강인한 이들만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카에람이 원래의 모습과 힘을 되찾도록 더 많은 피를 요구했다.

『 아제루그 』

아제루그는 샤마인과 네크타라 그리고 타다마드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로 진홍의 새벽을 준비하는 자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죄악의 어미인 릴리트를 강림시키기 위해 죄악이 돌만 있으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어넣을 육체를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필요한 것이 육신을 다루는 조작자들인 네크타라이며, 그 육신에 릴리트의 혼을 안정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필요한 자, 일곱개의 죄악을 품은 자이자 영혼을 다루는 타다마드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악의 돌을 그 육신안에 쑤셔박고 그 돌을 깨울 동력을 공급할 자신들 샤마인이다. 브리쿨은 영

원의 전쟁 이후에 샤마인을 포함한 이 두 무리에게 고귀한 혈족이라는 칭호 ‘아제루그’를 부여했고, 모든 카인의 핏줄들이 알고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게끔 왕가의 혈맹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말이 혈맹이지 이들과 동등한 입장이 아닌 샤마인의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 진홍의 새벽과 붉은 낙원 』

죄악의 어미를 불러내는 것은 잔존하는 카인의 핏줄들을 예속하여 그것들로부터 죄악을 끄집어내어 깨지고 흩어진 죄악을 한데모아 죄악의 돌을 원복시키는 대규모의 작업이었다. 그 죄악의 돌을 매개로 죄악의 어미 릴리트를 강림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써 브리쿨과 왕가의 핏줄 샤마인이 바라는 이상향이었다.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여 카인이 핏줄이 꺼려하는 아침을 더 이상 맞지 않게 하려는 비원을 이르러 진홍의 새벽 뒤의 태양이 고개 숙인 붉은 낙원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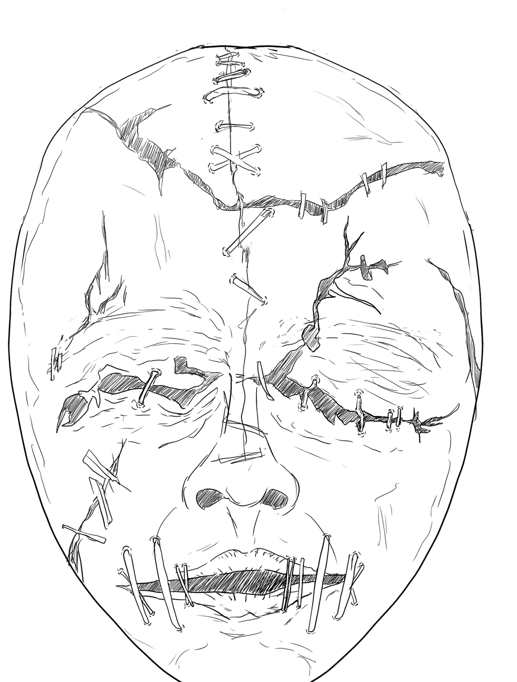
『 진홍의 장미 아우렐라 』

샤마인은 그저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때문에 피를 마실때에도 순결하고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순수한 피를 머금기를 원했다. 그러나, 죄악의 돌을 증폭시켜서 깨우기 위해서 촉매로 필요한 피의 양은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때문에 샤마인은 순수하고도 아득히 많은 양의 피를 담을 공간을 필요로 했다. 허나, 순수한 피마저 오랜동안 흐르지 않게

두면 썩고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어 쓸모 없어지게 됨을 깨달은 브리쿨은 응축된 공간 속에서 고요하게 흩날리는 핏빛의 장미 아우렐라를 만들었으며, 순수한 피는 모두 이곳에 담겨져 멈추지 않고 장밋빛으로 부지런히 흐르게 되어, 시간이 흘러도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피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우렐라는 카에람 안에서도 브리쿨이 자리한 별채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는 자유자재로 이 장미에 담긴 피를 사용할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 불멸의 핏빛 장미잎을 취하게 된다면 그 자는 영험한 고대의 활력을 얻게 된다는 말이 퍼지게 된다. 그 활력으로 말미암아 노화를 피할 수 있으며 영생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피로 물든 장미는 필멸자들로부터 전설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멍청한 무리들은 목숨을 담보로 눈에 불을 켜고 아우렐라를 찾고 있다.

『 네크타라 』

세력 상징은 누더기 살점으로 뒤덮힌 얼굴.



“내가 너를 기억하마.”

— 나태의 죄악, 살점의 여신. 데보라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데보라. 카인의 첫번째 자손들 중 하나로 공허와 허무를 가진 나태의 죄악을 품은 자이다. 많은 부를 축적하여 따분한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있을 때, 에르아의 저주를 입게되었다. 급격히 변한 삶 속에서 이미 축적한 부는 의미도 없어진 그녀는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가문을 뛰쳐나와 하릴없이 방황한다. 그런 가운데 태초의 피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것을 포기하고 있었던 터라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짐승처럼 피에 굶주려 날뛰던 자들과는 반대로 의외로 아무런 의욕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처럼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자신을 텅빈 허무 속에 던지던 중에 영원의 전쟁이 발발한다.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을 해하려는 아벨의 자손이나 세트의 후예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몸뚱이는 상처투성이에 망신창이가 되었지만 죽지 못하는 그 몸뚱어리를 비틀거리고 배회하며 다시금 죽음을 찾아나섰다. 그렇게 하염없이 자신의 주변에 하나 둘 쌓여가는 시체와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무수한 시체들 사이에서 각성하며 나태의 죄악이 담기게 된다. 더불어 시체와 육신을 다루는 방법에도 눈을 뜨게 된 데보라는 느즈막에 영원의 전쟁에 참가하게 되며 태초의 피가 제공하는 수많은 시체들을 제공받는다. 그녀의 도움 덕분에 탄력을 받아 죽은 자를 다루는 법의 진보를 이루어낸 데보라는 태초의 피 아래에 예속될 수 있게되는 기회를 얻으며, 데보라가 가진 특성에 따라 그녀와 그녀의 수하들을 이르러 죽음의 사자 혹은 죽음의 관리

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네크타라' 라는 작위를 하사받는다.

『 데보라 』

육신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카인의 핏줄의 하나. 모든 지식이 그녀로부터 왔기에 네크타라의 조작자들 사이에서 그녀를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 혹은 생명의 어머니라고도 부른다. 공허와 허무의 예명은 그녀로 하여금 나태의 죄악을 짊어지기에 충분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영원 속에서 이데아를 방황하던 중 자신과 같이 허무에 빠져버린 이들을 이끌고 삶을 이어나갔다. 이데아에 숨을 쉬고있는 생명조차도 가차없이 불씨가 꺼져감을 보며 하찮고 부질없는 육신이라 여기었으며, 다른 이들처럼 입에 피를 머금고 있음에도 그 눈은 만족감 없이 공허한 듯한 에 텅 빈 듯한 모습을 하곤했다. 그러다 불현듯이 널브러져 있던 시체를 보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듯한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시체더미 곁에 드러누워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것이 가진 특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몸에 새긴다. 그리고 그 지식은 모여서 그녀가 무수한 시체를 부릴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카르밀라에게 예속되고 데보라는 그녀의 허무를 채워줄 시체수레를 이끄는 망자들과 그녀의 지식을 전수받으려는 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낼 곳을 물색한다. 마침내 그녀는 살아있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무수한 죽음의 기점이되는 기이한 자리에 안락함을 느껴 그곳에 자리하게 되었고, 그 곳은 살아있는 자들을 거부하는 망자의 땅이라는 뜻의 '타르사놋'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타르사놋은 영원의 전쟁 이후에도 마치 죽음은 죽음에 끌리는듯이 수많은 죽음이 따르게 되었고 자연스레 산더미 같은 시체와 백골에 뒤덮혀 있었다.

『 죽음의 서, 데보라마누스 』

데보라가 그녀가 길바닥에 나뒹구는 시체와 교감하며 그것을 해부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며 얻은 죽은 자에에 대한 지식을 총 망라한 저서이다. ‘죽음 속 시체들의 노래 혹은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책은 어린 네크타라의 조작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준다. 소중한 이들을 한번만 더 절실히 만나고자 하는 이들을 현혹시키는 저주담긴 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허와 허무에 빠져 일어나지 않던 데보라에게 활기를 가져다 준 원동력이다. 죽은 자를 아우르는 지식은 만물의 이치와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 중 하나인 죽은자를 되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호기로 함부로 펼치는 자들은 많지만, 그 지식을 머리에 담고 책을 덮은 뒤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심지어 네크타라의 조작자들마저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를 유지하며 그 지식을 급하지않게 천천히 담아내려 할 정도이다.

『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육신이 말하는 것 』

샤마인은 사냥감의 피로부터 희생양의 생전의 기억과 그 너머의 장막을 들춰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오랜동안 빛이 바래져서 말라버린 핏방울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데보라와 그녀의 조작자들은 달랐다. 육신의 여신 데보라와 데보라마누스를 보고 자란 네크타라의 조작자는 해부학이나 생물학 등 다방면의 지식에 해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죽은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사체에서도 그것에 담겨진 것들을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데보라에게 있어 피의 정수를 모두 빼앗긴 태초의 피의 사체는 다른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이었다. 브리쿨은 행여라도 자신들이 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데보라에게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시신을 대가로하여 왕가의 혈맹에 합류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

『 줄지않는 놀잇거리 』

뼈와 살이 나뒹굴고 그 수가 줄지도 않으니 전장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연구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으깨고 이어 붙이어 괴이한 혼종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망자들을 불러낸 뒤에 그들의 뼈를 엮어 둥지를 만들어 전장의 중심에서 다른 자손들의 위협과 육신을 태우는 따사로운 햇살으르 가릴 수도 있었다.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체의 활용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무궁무진 했기에 전장에 나뒹구는 시체들이 자리한 곳이라면 네크타라에게는 그곳이 낙원이었다.

『 두려워하는 것 』

나태를 짊어지었기에 저들은 더욱더 많은 시체를 거느리며 자신의 수족

으로 부렸다. 영원의 전쟁에서도 이들은 항상 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스스로 아늑한 곳에 머물러 피 한방울 흘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시체들이었다. 죽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널브러진 시체들은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전리품이자 승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것들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그들의 연인이나 가족 혹은 친우, 또는 존경을 마다않던 자들이나 소중한 이들에게 기꺼이 칼을 겨누는 것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것에서 오는 절망감은 네크타라의 귓가에 닿지 않는다. 죽음을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자가 남겨놓은 시체는 무수한 말을 건넨다. 그리고 그 잔해에는 죽음의 조작자 네크타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이 담겨져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이데아에 쌓인 시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들이 쌓여진 시체들에 의해 그 지식이 더더욱 해박해 지기 때문이었다.

『 무엇이 이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

네크타라는 죽은 시체와 뼛조각들을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살가죽에 바늘을 꿰어 실로 조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체에 혼을 주입하여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다. 데보라마누스의 서에 따르

면 육신이라는 것은 생전의 기억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그릇이라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저 그 죽은 것과 대화하며 그것의 정보를 극한으로 끌어내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오랜동안 썩고 문드러져 백골이 되어버린 것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조금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만 백골이 남겨놓은 말도 무수히 많다. 때문에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 뼛조각을 씹으며 이들의 생전의 기록을 공유한다. 결국 조작하는 것은 이들의 살과 뼈일뿐 더 나아간 단계에서는 그들의 생전의 기억이나 행동 자아 등을 완벽하게 육신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이다. 오랜동안 육신이 먼저인가 영혼이 먼저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전에 육신이라는 것은 그저 영혼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었지만서도 명쾌한 답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네크타라의 조작자들의 장난질 때문이었다. 영혼따위가 담겨져있지 않아도 스스로 걷는 것들을 눈에 담고나면 감히 그딴 소리를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신이나 영혼 어느무엇도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어느 무엇도 우위에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들이 확실히 증명한 셈이다.

『 데보라와 네크타라 조작자의 목적 』

이들이 비록 카르밀라에 예속되어 있었고, 그녀가 브리쿨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도 굳이 그 예속을 깨려하지 않았으며, 왕가의 동맹에 속해 진홍의 새벽을 부르기 위한 계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목적은 샤마인과는 전혀 다르다. 샤마인이 이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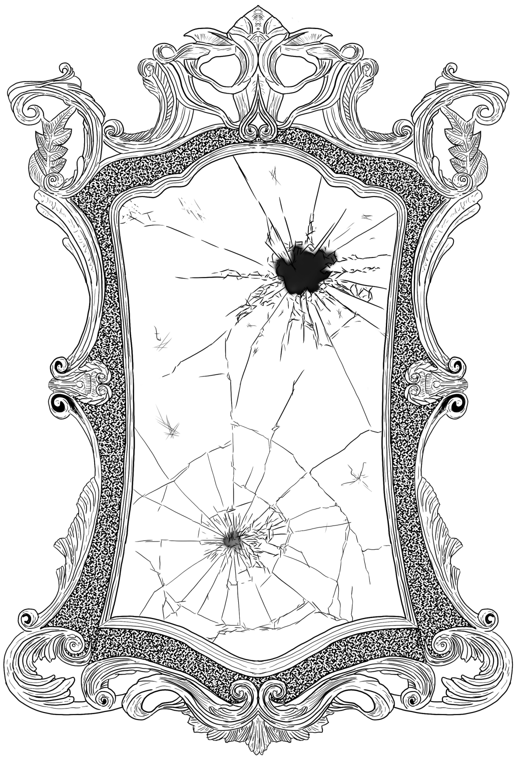
속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신선한 피를 머금은 자신들과 다르게 시체와 다를바 없이 텅 빈 듯한 존재들의 진의를 읽어낼 수 없었기에, 굳이 예속을 해두지 않았다고 한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의 주된 목적은 그저 죽은 자와의 교감이며, 영생이 지속되는 그 동안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들이 그럴듯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저 저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 하는 것이며, 네크타라의 조작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지로 스스로 찾아오는 실험체를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 육신을 부리는 자들 』

데보라의 나태의 죄악을 나누어 가진 시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은 망자들을 이 땅에 자시금 불러내기 때문에 명예로운 자들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들이 죽은 시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은 생명을 낳는 기적과도 같은 오묘한 경계 선상에 있기에 교만한 왕가의 혈통마저 이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몹시 탐내하는 권능이었다. 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썩은 살점을 뜯어먹거나 뼛조각을 삼키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죄악의 어미를 강림시키기 위해서 적합한 육신을 찾으려는 행동으로써 시체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나태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답게 하나같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위를 알 수 없는 듯 베일에 쌓여있다고 한다.

#『 타다마드 』

세력 상징은 깨진 거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것을 차마 떨쳐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비명하는 영혼의 절규가 우습더냐?

그러하기에 가장 숭고한 몸부림인 것을.”

— 칠죄악 라그반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라그반.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일곱가지 죄악을 모두 짊어진 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카인의 핏줄 가운데 모든 죄악의 정점에 선 자가 아니니, 오히려 가장 불안한 존재였다. 하나의 육신에 수많은 영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정신이 깨질수도 있었다. 카인이 자취를 감추고 난 뒤에 태초의 피 카르밀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다른 핏줄들을 예속했던 것처럼 그녀는 라그반과 그를 따르는 자들역시 예속의 사슬로 속박하려 했으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묶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처럼 피를 마시거나 살점을 취한 것이 아닌 영혼을 착취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그의 육신에는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담겨져 있었기에 행여 카르밀라가 그들에게 예속을 건다한들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떠도는 그 영혼을 다른 육신에 담아두게되면 예속으로도 가둘 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 된다. 그러나, 라그반은 카르밀라의 예속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거부감도 보이지 않았으니, 애초에 모든 죄악을 품고 있던 이들은 강인하고도 불안한 존재인만큼 기댈 곳이 필요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느들은 그저 조금이라도 이 땅에 희미하게나마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며 몸부림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모인 그릇일 뿐이었다. 카르밀라는 그들이 가진 기이한 능력이 다소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는 단점이 있으나, 동시에 다가올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라그반과 그의 뒤를 따르는 존재들을 이르러 방황하는 슬픈 영혼이라는 뜻의 ‘타다마드’라

는 작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카에람에 남은 이들은 소수이고 이들은 그녀의 권속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쉼없이 수많은 영혼을 한 육신에 품은 채로 방황했다고 한다.

『 다재다능한 라그반 』

카인의 첫번째 핏줄 중 하나로, 에르아의 저주를 입기 전에는 다방면에 특출난 자였다. 그는 카인의 곁에서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었다. 모든 이들이 라그반 하나가 열명 혹은 백명을 조화로이 섞어 놓은 듯 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에 그는 자만하지 않고 카인의 핏줄의 번영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문제는 에르아의 저주를 입은 뒤에 나타났다. 말이라는 것은 입밖을 벗어나면 끝인 줄 알았으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 누가 알았을까? 칭찬의 뜻으로 쓰여진 수많은 인간을 한데 섞어놓은것 같다는 말은 저주가 되었고, 그의 안에서 수만 수백개의 영혼으로 피어나게 되었다. 섞이어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조화로움 따위 있을리가 없으니, 오직 혼돈 뿐이었다. 결국에는 하나의 육신 안에 깃든 수많은 영혼들이 혼돈속에서 부딛히고 깨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영혼들은 하나 둘 바스러져 가기 시작한다. 육신에 남아있는 영혼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다. 라그반은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기를 원했다. 하다못해 불경한 존재더라도 말이다. 그 방법을 강구하던 그는 다른 육신의 그릇에 담겨진 영혼을 갈취하기로 한다. 육신이 불살라진

다 한들 그 안에 깃든 영혼을 담아낼 그릇이 주어진다면 다른 육신에 옮겨져 언제 어디서나 이데아에 존재할 것이라 여기며 영혼을 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된다.

『 절규하는 영혼 』

죽음이 창궐한 그 곳에 남겨진 것은 피와 살이 즐비한 시체들의 산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남겨져버린 수많은 영혼이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취하는 영혼의 수는 많아졌으나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자아는 더욱이 희미해져가니, 그것이 하나의 육신에 수많은 영혼을 담은 자들이 겪는 역설이었다.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장에 서야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안겨다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나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영혼과 치르는 내면의 싸움도 계속 이어 나가야했으며 그러는동안 자신이 갈취한 영혼들을 육신이라는 그릇에 담지 못하게되어 깨져버리게되면 자신이 품었던 영혼들은 사념에 뒤엉키며 그들의 주위에 배회하게 된다. 그것은 스스로 갈취한 영혼들에 의해 스스로 갉아 먹히게 되는 꼴이니 완전히 자신을 잃게 되면 영혼은 찢겨져 그저 절규하는 영혼의 사념에 먹혀버리니 아무것도 남지않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샤마인과 마우에트와는 달리 타다마드의 사신들에게 있어서 피와 살이 즐비한 전장은 희열로 뒤덮힌 곳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비명으로 가득찬 곳이었다. 그들이 다른이들의 영

혼을 찢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전장을 기피하는 이유도 수많은 영혼과의 충돌로인한 자아의 분열 때문이었다. 또 다른 점은 수많은 죄악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융화되지 않고 서로다른 죄악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다. 죄악은 서로 쉬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것처럼 영혼을 착취하는 이들은 평생을 모순된 자아의 충돌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나라눗 』

태초의 피가 죽고 영원과도 같은 전쟁의 끝자락에서 이미 지칠대로 지친 타다마드의 사신들은 라그반의 동행으로 저들만의 영혼의 휴식처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어 도착한 곳은 앙상한 나뭇가지만이 남은 죽어버린 나무들 사이로 불어대는 스산한 바람과함께 슬피우는 죽음의 골짜기였다. 대재앙 소툼과 골노랏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뒤로 유독 낮은 부지 탓인지 전쟁에 휩쓸린 백골과 훼손된 시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망령이 깃든 생전의 무기나 개인용품 등등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떠밀려 흘러 들어와 쌓이게된다. 이러한 연유로 그 골짜기를 떠도는 영혼들의 끌림에 모인 사신들은 자연스럽게 삼삼오오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은 입을 모아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의 나라눗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라그반과 타다마드의 사신들은 밤낮없이 끊임없이 영혼의 사념체들과 속삭이며 다른 영혼에 삼켜지지 않으려 애썼다. 나라눗에 자리하고 난 뒤의 타다마드의 사신들은 살아있음과 동시에 죽어있

는 존재 그 자체로 거듭나게 되며 혼돈의 영혼의 대류 속 가까스로 유지되는 육신의 모습은 아벨의 자손이 그리는 사신의 모습 그 자체였다.

『 죽음의 나무 』

퀴나즈에게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가 있다면, 타다마드에게는 죽음의 나무라는 뜻의 '마우엘란' 이 있다. 이 나무는 그저 평범한 나무와 다름 없어 보이지만, 오랜동안 나라늣 골짜기 깊은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죽음에 뿌리내려 그것들을 양분으로 오랜동안 살아왔으니, 마우엘란의 주변에 원한의 사념체들이 즐비한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마우엘란 그 자체가 영혼의 보고나 다름없었다. 그것들은 기이하게도 마우엘란의 가지 속에서는 제 곳을 찾은양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니, 무리하게 하나의 육신에 억지로 영혼을 가득 채우지 않고 나무와 함께 영혼을 나누어가며 고통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나무는 타다마드에게 있어 마음의 쉼터라는 상징으로 자리하게된다.

『 진홍의 새벽에 가장 가까운 존재 』

브리쿨을 포함하여 샤마인의 귀족들이 보기에도 일곱의 죄악을 하나의 육신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은 죄악의 어미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점은 기정사실과 다름없었다. 브리쿨은 이들의 모습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이들의 피를 전부 들이키게 되면 죄악의 돌의 복원과 진홍의 새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에 브리쿨은 타다마드

의 사신들의 존재와 그 특징을 보고 받자마자 이들을 카에람에 소환하게 된다. 충돌을 원치 않던 라그반은 홀로 그의 소환에 응답하였다. 브리쿨은 예속하기 힘든 이들을 혈계의식을 통해서 죽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회를 엳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피가 아닌 영혼을 마시는 자들이었기에 그 피에 담긴 정보는 극도로 적어 이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였고 라그반 하나에 방황하는 영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수많은 영혼 하나하나에 피의 예속을 걸어 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두번째 이유였다고 한다. 제대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정한 이들이 어찌 되도 상관은 없었으나, 샤마인의 원대한 계획에 필요한 이 영혼의 착취자들을 어떻게든 곁에 두기를 원했다. 이에, 브리쿨은 샤마인이 가지고 있던 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혈맹에 대한 대가조차 제시하지도 않았으니, 오직 그가 가진 압도적이며 절대적인 권위와 존재 자체가 지닌 매력만으로 타다마드의 모든 영혼들을 설득했다. 타다마드의 사신을 마지막으로 죄악의 어미를 불러내기 위한 진홍의 새벽의 계획은 점차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하며 왕가의 혈맹의 결속이 굳건해진다.

『 타다마드와 조우하고 생존한 범죄자와의 면담기록 중 』

그것이 그저 평범한 소년의 형체를 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 앳되어 보이는 얼굴과는 다르게 그는 오랜 발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보고 분명 불경한 존재임을 인지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조

금씩 멀어져 도망치려는 순간 자신의 안에 있을리 없는 기억이 스며 들어왔다고 서술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의 단편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기억이라고 방금의 서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정신의 붕괴라고 말했다. 그 소년이 내게 주입한 것은 또 다른 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연로한 노인이었다. 아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다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탁자에 있는 미지근한 차를 홀짝대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 불경한 사신이 자신의 몸뚱이에 손님을 데려와 안에서부터 깨지고 스스로 붕괴하는 그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 마치 자신의 고통을 똑같이 마주해줘서 고맙다는 듯한 얼굴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며 자해를 시도. 더 이상의 기록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은 종료된다.

『 타다마드 경계 근처 폐허에서 발견된 편지 중 』

결국 일곱의 죄악을 짊어진 혼돈스러운 존재야말로 그 누구보다 인간다운 존재이며 세상을 부수는 파괴이며, 하늘 아래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발시아라는 존재들은 오랜동안 죄악을 터부시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마땅히 품을 줄 아는 관용도 필요합니다. 일곱의 죄악을 몸에 담은 내가 죄악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부디 그것을 명심하고 내가 깨우친 이것을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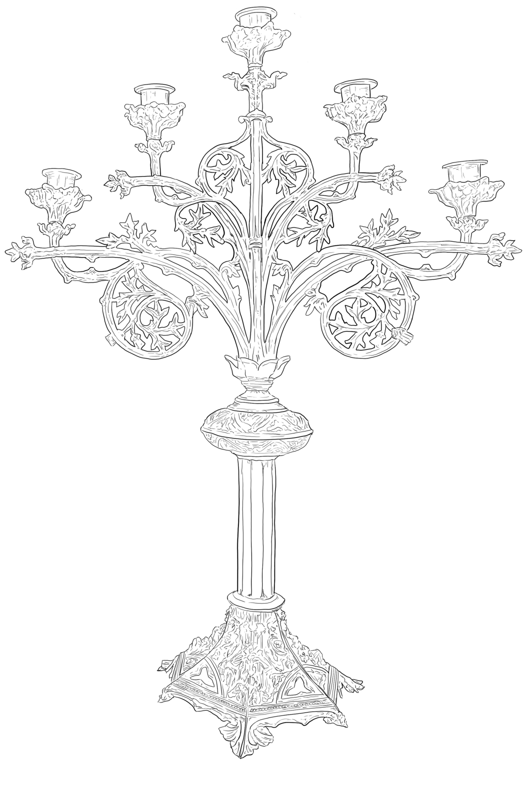
깊은 곳에 새겨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바도르 길라돗으로부터.

『 영혼을 찢어내는 자 』

영혼의 군주의 축복을 받은 타다마드의 사신들은 영원의 전쟁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절규하는 틈바구니 안에서 능력이 깨어난 자들이 많다. 무수한 영혼의 비탄이 몸에 스며들어 하나의 육신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영혼이 담기게 된 존재들이다. 자신들 안에 담긴 영혼은 육신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모든 죄악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니,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데아의 영혼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육신에서 영혼을 찢어낼 수 있지만 자신 안에 담겨진 영혼들의 충돌은 스스로도 예측불가능했으며 때때로 취약한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정신을 붕괴시켜 머릿속에 크고 작은 균열을 만들어 자신을 사지에 내모는 양날의 검과 같았다. 피를 탐하지 않으며 수많은 영혼을 담고 있음에도 채워짐을 느껴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착취하고자 한다. 죽은 육신에 혼을 담아 불러내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신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된 타다마드의 사신들은 자신의 몸에 담긴 영혼의 대류를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면서 대상을 안에서부터 붕괴시킬 수 있었다.

『 세르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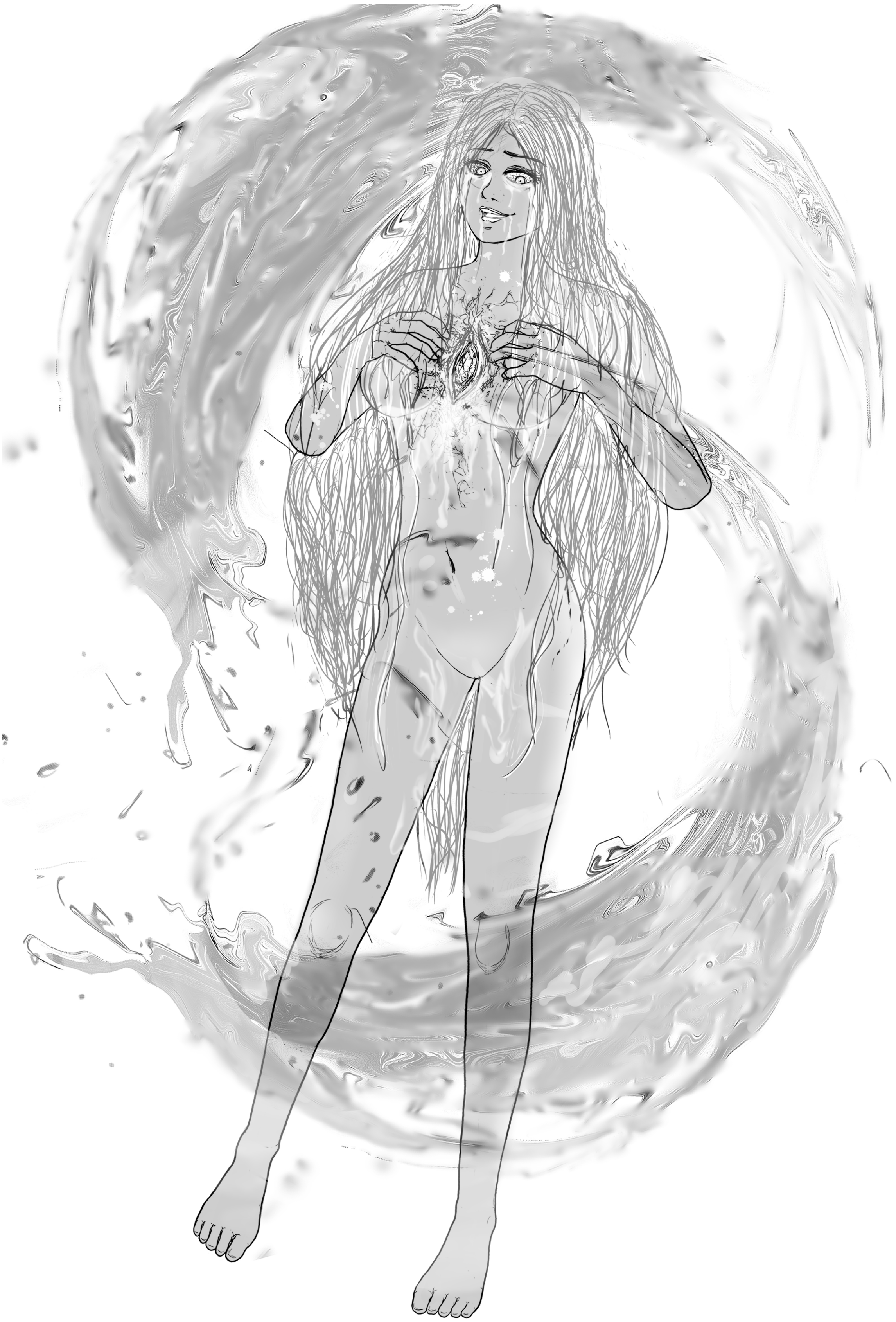
세력 상징은 은 촛대.



“부디, 이 땅의 모든 불경한 자들이 눈을 감기 전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세렛이 바스러지지 않게 하소서.”

— 분노의 죄악, 은빛의 헤르실라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헤르실라. 분노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로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유일하게 카인의 핏줄을 잇지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조차 당당히 맞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존재들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아벨의 자손이 가진 빛의 권능으로 이들을 쉬이 해하지 못한다. 카인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아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엄연히 아벨의 자손은 아니며, 은빛의 심장을 박고 그 모든 피를 완전히 씻어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은빛의 축복을 스스로 내린 헤르실라는 그녀의 축복과 고통 그리고 분노를 나눈 이들의 무리를 세르샤라 불렀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들을 분노케한 모든 대상의 죽음이며, 반쪽짜리 존재를 창조한 것이나 더러운 숨결을 토해내는 불경한 것들의 죽음이니 그것의 범주에 자신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자신을 혐오하는 것도 이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질 좋은 연료가 되기도 한다.

『 망국의 공주 』

몰락한 공국 퀼로른의 국왕 델레놋 3세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는데, 델레놋 3세가 종국에는 편집성 성격장애를 겪으면서 그녀의 딸까지 의심하기에 이른다. 결국에는 자신의 딸마저 장난감처럼 부리다가 심장에 칼을 쑤셔박아 죽게 만들었다. 후에 그녀의 시체는 방벽 밖으로 던져져 그녀의 존재는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영원의 전쟁이 발발한 뒤에

대지는 핏빛의 강을 이루어 그녀의 시체 속에 가득히 채워지니, 카인의 핏줄이 된 채로 눈을 뜨게 된다. 보통은 카인의 핏줄이 자신의 혈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녀만은 오직 전쟁 속 넘치는 피의 강에 흐르던 카인의 피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완성되었다. 다소 특별하게 눈을 뜨게 된 그녀는 자신이 더이상 아벨의 존재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었음을 깨닫게된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전생의 습관 때문에 지친 육신을 이끌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벨의 방벽을 향했다.

『 지워진 자신의 존재 』

방벽의 경계가 삼엄함에도 우습게도 반쪽짜리 존재였던 그녀는 아벨의 방벽을 쉬이 통과했지만, 사라져버린 자신의 과거와 달라져버린 이 세상의 풍경은 자신을 반기지 않았다. 델레놋 3세가 죽인 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들을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딸마저 죽인 사건은 누구라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되어 그녀의 슬픈 이야기를 모르는 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사실을 알 방도가 없던 그녀는 그저 불경한 자신의 기척만 없애면 된다 여기고 안심하며 방벽 안을 배회하던 도중, 그녀의 존재를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 아벨의 방벽은 떠들썩해진다. 이에 상투스와 이르메스 그리고 마르나크까지 나서서 그녀를 찾아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그녀를 조우하게 된 이들은 그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지만 자신이

이도 저도 아닌 존재인 것이 축복이었을까, 저주였을까.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채로 그대로 아벨의 방벽 밖으로 도주한다. 한 때, 많은 이들로부터 촉망을 받으며 아벨의 자손과 거리낌없이 어울리던 옛 공국의 공주였지만 그녀를 환영하는 것은 그저 그녀가 인간으로 남아있었을 때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슬픔에 눈물을 훔치며 연신 멀어지는 아벨의 방벽을 눈에 담았다. 이 사건 이후로 아벨의 방벽에 관한 외부 출입 조건과 경비가 더더욱 삼엄해지고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 불청객 』

그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몹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릴없이 방황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녘이 떠오르기 시작하자 태양을 가리며 신음하는 자신을 보고 진정으로 카인의 핏줄이 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쩔수 없이 그녀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카인의 핏줄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한다. 그러나, 그녀 안에 흐르고 있던 것은 카인의 피라고 보기엔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라, 다른 카인의 핏줄이 보내는 시선은 따가웠다. 불쾌한 그녀의 존재는 바로 숙청당하는 것도 당연했지만 스스로를 몰락한 공국의 공주라 소개하며 여러 카인의 핏줄들과 조우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카인의 권능을 온전히 짊어지지 못한 반쪽짜리 존재에 혐오감은 그녀를 조우한 모든 카인의 핏줄들에게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연하게도 카인의 핏줄들 사에에서 그녀를 위한 자리는 찾을 수조차 없었으며 심지어 그녀안에 흐르고 있는 근본없는 피에 대한 원초

적인 혐오와 거부 때문에 카인의 핏줄들을 예속하여 그위 수하에 두는 브리쿨이 자리한 카에람에는 더더욱 발걸음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몰락해버린 공국의 공주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척하며 조롱하듯 그녀를 배웅하는 굴욕만을 남겼다.

『 절망과 포기 그리고 분노 』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카인의 핏줄도 아니었으며 세트의 후예는 더더욱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모순된 자. 거짓된 생명체. 불경한 존재. 더럽고 추한 자들. 이 말 모두가 그녀를 부르는 말이었다. 숱한 모욕적인 언사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한때 아벨의 자손이었던 그녀는 창조주께서 만든 것 중 쓸모가 없는 것은 없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지금 그 말이 거짓임을 자기 자신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숨을 토해내는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한번 죽다 살아난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채 방황하며, 그저 멍하니 앉아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덩그러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 안에서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자기 혐오와 동시에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한 일그러진 분노였다. 하루아침에 반쪽짜리로 전락해버린 이도저도 아닌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비참하게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불경

한 것이 되어버린 자신을 충분히 죽이고 남을 만큼의 순은을 몸에 담아 죽고자 했다.

『 죽음마저 죽이지 못하는 것 』

공국 퀼로른의 끝자락의 서민들의 삶까지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았었던 그녀였기에 각지에서 무엇이 나고자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 델레놋 2세가 귀금속에 눈이 멀어 그 중에서도 대대적으로 은을 채굴했던 곳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쓸쓸히 그 곳을 향했다. 그곳을 향해가던 와중에도 자신을 괴롭히는 절망과 분노를 감추지 않으며 마침내 폐광 안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폐광에 있는 남겨진 은으로 자신을 상처입혔지만 그것으로 부족함에 더욱 깊은 곳을 향하던 도중 마침내 이곳에서 은빛 심장이라 불리는 순은이 집약된 결정체인 세렛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은빛 심장이라 불리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만큼 그것은 살아있는 듯했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요동치며 은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없이 자신의 가슴에 은빛의 심장을 쑤셔 박았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질 듯한 격통에 시달린다. 그녀는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 속에 한참을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이 더럽게 이어온 목숨을 끊을 수 있음에 기뻐했다. 그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동안 변화는 갑작스레 찾아왔다. 한참이나 몸에 흐르는 카인의 피를 전부 토해냈고 이내 자신의 핏줄 하나하나에 은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살점은 떨어져나가 문대면 물

처럼 흘러내리고 다시 붙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죽고자 자신의 몸에 은의 결정체를 담은 것이었으나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에서 분노의 소용돌이마저 죽이지 못했다. 마침내 세렛은 하나도 빠짐없이 녹아내려 동화하기 시작하여 그녀 안에는 은이 흘러 넘쳤다. 그녀는 옛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의 '헤르실라' 로 바꾸었고, 입에 거추장스럽게 튀어나온 송곳니와 이빨을 거침없이 부수어 버린 뒤에 은으로 덮고는 남겨진 카인의 핏줄의 흔적들을 지워 버리고자 했다.

『 분노의 포용 』

영원의 전쟁이 이데아에 질병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 카인의 핏줄들은 자신들을 향해 총과 칼을 들이댄 자의 목을 뜯어내고는 그 피를 마시게 된다. 그 과정에서 카인의 핏줄은 자신의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하수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나 그 행위는 엄격히 제한을 두었는데 이것은 비교적 자애로웠던 태초의 피마저 금하던 것이었다. 그 이유는 제한된 영토 내에서 같은 핏줄끼리 발생하는 분쟁이 늘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사냥구역의 관리였으니 그것은 다른 핏줄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혈족의 계승은 척살령에 의해서 둘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정치적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었다 다시 태어난 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옛날의 스스로에 대한 기억들이 뒤죽박죽으로 뒤섞이며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회환보다

분노가 이들의 결속을 더욱 단단케했다. 원치 않게 태어났지만, 카인의 핏줄의 암묵적인 인구조절 제한을 이유로 다시금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억울함도 한 몫했다. 이렇듯 갈 곳이 없는 자들 앞에 서서 그 분노를 받아 줄 수 있는 존재, 은빛으로 빛나는 성녀와도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바로 헤르실라였다. 죽음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좌절하던 이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 그녀와 함께 살아갈 것을 맹세하면서 두번이나 버려진 자신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들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린다. 이렇게 은의 성녀 헤르실라의 뒤를 따라 은을 자신들의 몸에 거두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수는 많아져 반쪽짜리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니, 그녀의 은총 아래 은빛의 분노라는 이명을 가진 '세르샤' 라는 이름을 등지고 분노의 죄악은 눈을 뜨게 된다.

『 솔디오린 』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카인의 핏줄을 부정하고 다시 태어남을 겪은 헤르실라는 자신의 무덤이라 여기었던 버려진 은 폐광이 자신이 다시금 태어난 곳이 되었음에, 주위 가득히 은을 토해내어 태양과 달빛은 반사시키는 눈부신 은칠갑을 한 공간을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곳에서 혹독한 분노를 쏟아내고 지친 이들을 다시금 은빛 가득한 연못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헤르실라는 그 연못을 응어리진 은의 분노라는 뜻의 '솔디오린' 이라 이름지었다. 정제한 은은 아벨의 자손마저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에 해롭지 않을것이라

여기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분노가 녹여내린 순수한 은의 결정체는 그 어떠한 날붙이보다 날이 푸르게 서려있으며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한들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은에 담겨진 독성은 그것에 닿은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채 병들고 시들어져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오랜동안 벼려진 그녀의 분노는 이렇게 아벨의 자손도, 카인의 핏줄을 죽잉기에 적합한 공간을 창조해내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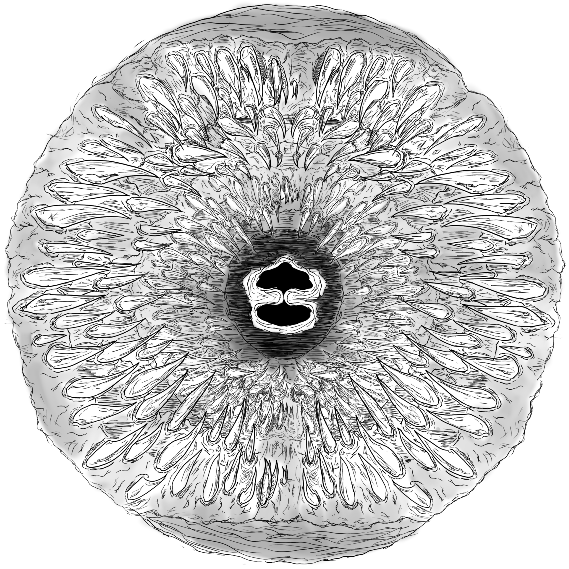
『 은빛광기 』

영원의 전쟁에서 카인의 핏줄의 피가 몸안에 그것도 우연하게 흐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카인의 핏줄이 되어버려 이도저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기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하루아침에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존재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다. 모든 존재에게 배척을 받음으로써 자연스레 분노의 죄악이 담기게 되고, 죄악을 맞이하면서 은의 결정을 심장에 쑤셔 넣음으로써 피 대신 몸에 은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태어난 아종인 세르샤는 몸에 은을 품고 있어 카인의 핏줄을 향한 그 분노를 쉽게 분출할 수 있으며 아벨론의 축복으로도 저들을 죽일 수 없는 특이한 형질을 띈 경계에 선 자가 된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특이한 체질 덕분에 카인의 핏줄임에도 태양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으며, 아벨의 자손들보다 은을 더욱 자유자재로 다루며 형태를 실체화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한다. 생산적이지 않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행한 후에는 허무할 것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복수라는 그것은 이들에게는 그저 달콤한 열매이다.

『 쟈토움 』

세력 상징은 수많은 이빨을 지닌 아가리.



“만찬의 시간. 죽음마저 내게는 달콤한 식사이니,

탐식의 저주 뒤에 남는 것은 없다.”

— 탐식의 죄악, 세상을 삼키는 자. 게르사라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게르사라. 탐식의 저주를 잇는 자. 이상식욕자에 불과한 존재였으나, 영원의 전쟁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기로 탐식의 죄악에 눈을 뜨게 된다. 이성보다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기에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심지어는 태초의 피 카르밀라조차 이들을 예속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데아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다는 직접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지만 이들의 앞을 막게 된다면 그저 먹힐 뿐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래서 이데아를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의 경로를 경계하며 굳이 이들과 충돌을 하려하지 않는다. 게르사라와 그녀의 이상식욕자 쟈토움의 목적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탐식의 저주의 특성을 직접 조우하고 난 뒤에 이들의 행보를 추측하거나 우려하는 이들의 결론은 모두가 같았다. 그것은 쟈토움의 탐식은 일곱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을 모조리 삼키고나서 뒤이어 이데아마저 먹어치운 뒤에는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까지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 게르사라 』

카인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로 아벨의 태워버린 밭의 대부분이 바로 그녀 소유의 토지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망연자실해 있었으며, 다시 일어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약속의 때가 다가올때까지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카인의 핏줄들은 간신히 화마에서 멀어져 열매나 날곡식따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먹을 것이 모두 바닥나버려 대기근이 카인의 핏줄을 덮치게 되었고, 제대로 된 공물을 바치지 못한 카인은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된다. 이후에 카인의 핏줄들은 저주를 입게되어 이들의 굶주림으로 피를 갈망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문은 더더욱 병적으로 기근에 대한 후유증 때문인지 카인의 핏줄 중 유일하게 피에 대한 갈증에 미쳐버려 끝없는 허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그 후유증은 더욱 심해지면서 네크타라의 사제들과도같이 살점에 대한 집착도 강해지기 시작하니, 결국에는 그녀의 앞에 선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존재가 된다.

『 끝없는 탐식 』

탐식에 집착하는 그녀의 모습은 초기에 태초의 피가내린 진단에 따르면 그저 이상식욕자 정도로 분류되었다. 태초의 피는 이들의 이러한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그녀를 예속하여 자신의 아래에 두고자 했으나, 게르사라와 그녀의 일족은 이미 이성보다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쟈토움은 태초의 피의 예속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탐식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격 때문에 태초의 피는 이들에게 아무런 이명도 내려주지 않았으니, 그저 이들에게 만찬을 즐길만한 곳에 두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셈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확히 맞아 떨어져 영원의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 된 존재는 다름아닌 게르사라와 그녀의 곁에 있던 이상식욕자들이

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저 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어 널브러진 시체마저 게걸스럽게 살점까지 뜯어먹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공포와 충격에 빠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었다. 그저 쉼없이 아가리에 무언가를 쑤셔박고 있는 모습 때문에 포식하는 광란의 아가리라는 뜻의 '쟈토움' 이라는 이명을 가져다 준 것은 다름아닌 아벨의 자손이었다. 그 이름에 내심 만족한 그녀는 그것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즐기었다.

『 생존본능 』

그녀의 악명이 널리 퍼지게 되자, 퀼로픈의 사자 델레놋 1세가 이들의 둥지를 부수고 이상성욕자의 우두머리인 게르사라를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는 마침내 그가 파견한 정예의 군대가 그녀를 조우하게 된다. 말로만 듣던 그녀의 둥지와 주변의 풍경을 눈에 담은 자들 몇몇은 역겨움과 악취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예로 꾸리어진 군대는 망설이지 않고 사특한 저들의 존재를 모두 소각하고자 했으나, 위기감을 느낀 게르사라는 그 고치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꺼내어 자신의 입에 가져가 삼키어 버린다. 본능으로 이데아를 살아온 심연의 짐승은 위험에 처해진 자신의 새끼들을 포식자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두지 않았다. 본능적인 움직임은 아벨의 자손들이 손을 써 볼 새도없이 눈깜짝할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망연자실하게 이 광경을 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모성애가 아니라 그것은 오롯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선한 핏덩이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스스로의 새끼를 마지막 하나마저 집어 삼켜버린 그녀의 몸의 변화는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왔다.

『 입을 연 탐식의 죄악 』

게르사라는 핏빛 만찬을 즐기는 동안 핏줄기가 실타래처럼 얽히며 그녀를 감싸안았고 자신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후 몇번을 힘차게 박동하더니, 고치를 찢고 나온 그녀의 몸 일부는 이데아에서 존재할리 없는 듯한 흉물스럽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 온 몸에는 알알히 박힌 듯한 핏빛의 열매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있고 그것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온 몸에는 무수한 이빨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며 어느 부위든 자신의 의지대로 몸의 어디에서든 아가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온 몸은 오직 탐식의 죄악을 빛내기 위해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알껍질을 찢으며 나온 게르사라의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죽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 두려움을 억지로 깨려는 듯 기죽지 않으려 억지로 고함치며 아벨의 은총을 휘두르고 그녀 앞에 용맹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이들은 한입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발버둥쳤지만 둥지를 찢고나온 게르사라의 엄청난 허기 탓에 그녀를 숙청하러 온 정예의 군대는 모두 찢겨지고 부수어지며 그녀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다시 더욱 더 거대한 둥

지를 다시틀고 난 뒤에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내더니, 인간의 형체를 한 것들이 생겼고, 그것들이 다시 고치 안에서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고 다시금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탐식의 죄악에 눈을 뜬다.

『 둥지 』

선혈의 둥지라는 그녀가 가진 이름 그대로 다른 카인의 핏줄과 다르게 관을 사용하는 대신 기괴하고 크고 작은 점막에 쌓인 붉은 고치에서 그녀의 새끼들로 보이는 것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둥지를 지키는 점막과 핏덩어리는 불쾌한 태양의 빛을 어느정도 차단해 줄 뿐더러, 저들이 탐식한 것들을 양분삼아 스스로를 더욱 나은 개체가 되도록 돕는다. 쟈토움은 게르사라 뿐만 아니라 이상식욕자들 가운데에서도 남성들 마저도 자신의 새끼를 토해내고 품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 같은 이 점막종양은 좀처럼 쉬이 죽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라파르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암세포야 말로 카인의 은총을 그대로 온 몸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라 빗대어 표현했다. 하지만 카인의 핏줄이 가진 영광이나 긍지는 저들에게 있어 그저 하찮은 것일 뿐, 이들 안에 깃든 탐식의 죄악을 동력으로 허기만 채울 뿐이다. 평소에는 암세포가 온 몸에 기생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자신의 둥지를 펼칠 곳이라 여기게 되면 온 몸에서 열매처럼 돋아나 이내 터져나와 대지를 적시고 스스로 파괴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핏빛을 잔뜩 머금은 핏빛 둥지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데아의 다른 존재와 달리 쟈토움의 짐승들은

정해진 주거지가 없지만 ‘다마르강’ 일명 피의 습지라고 불리우는 변종의 생명체들이 잔뜩 서식해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한다.

『 섭취의 즐거움 』

태초의 피가 있었을 당시만해도 야생의 감이 뛰어난 지성체 정도의 취급이었지만 영원의 전쟁을 거치고 나서는 본성이 저들의 움직임에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도 이들의 존속을 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피를 마시는 혈계의 계승인 세라삭은 금기시 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무분별하게 자신의 혈족을 늘리는 행위는 척살의 대상이었다. 이는 쟈토움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서로를 죽이고 남겨진 육신을 뜯어먹은 뒤에 변이와 변태를 시작하였고 진화와 퇴화를 무수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역겨운 그들의 행위를보며 모두 고개를 저으며, 일정한 개체수를 스스로 유지하는 저들을 자신들 본래의 목적에만 충실하도록 방치시키기에 이르게 된다. 쟈토움의 존재들은 둥지를 틀 때 나약해지곤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치에 담을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기에 상당히 고된 작업이기도 하고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약해진 이들의 틈을 메우기 위해 쟈토움의 무리가 고안해낸 방식은 바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행위가 어떠한 구조나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뜯어먹고 죽고 그것을 양분삼아 다시 태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활력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모든 카인의 핏줄들이 에르아의

저주를 입었기에 쉬이 죽이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쟈토움은 자신이 죽어도 스스로를 먹으며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향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쟈토움을 배척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도 사실임에도 이데아에 썩어서 나뒹구는 사체들 뿐만 아니라 불경한 존재들까지도 먹어치우기 때문에 이데아의 청소부라고도 부르며 그저 정해진 울타리에 서식하는 이들의 생태를 발견한 뒤로 이들에 대한 논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이들이 한껏 벌린 아가리가 언제 자신들을 향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데아를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이 게걸스러운 이상식욕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죽음마저 먹어치우는 이상식욕자 』

탐식의 죄악에 잠식당한 자들은 이렇다할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은채 그저 손에 잡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입에 넣는 순수하고 본능적인 허기에 빠져버렸다. 다른 죄악과는 다르게 조절할 수도 없으며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어 무리의 어미가 탐식을 하고 난 뒤에 자식을 만들고나면 그 자식 역시 끝없는 허기를 찾는 무한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죄악이 만드는 순수한 파괴력은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경계의 대상이 된다.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가장 이형의 모습에 기형으로 자라나 있는 살덩이들까지 그 자체가 무기가 되며 이데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울 때까지 허기는 끝을 보이지 않는다. 그 끝은 있다면 아마 쟈토움의 무리들이 에르아를 먹어치우고 난 뒤에도 계속 될 것이다.

『 베르체 』

세력 상징은 인형의 집.



“이제 영원히 함께야.

당신은 그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러니, 당신도 고장 날때까지 나만을 사랑해줘요.”

— 질투의 죄악, 비탄의 인형. 질 퀴오나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질 퀴오나. 그녀를 필두로 질투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태초의 피를 마시고 생을 이어나가는 자들이자 질투의 죄악의 권능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이다. 질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깨지 않는 자신들만의 낙원에서 살고자 하는 버려진 존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피를 마시긴 하지만 카인의 피가 흐름에 따른 본능적인 습관일 뿐 다른 카인의 핏줄들에 비해 양이나 빈도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저들이 추구하는 낙원은 왕가의 혈맹이 추구하는 진홍의 새벽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의 유무에 대한 갈증이 더더욱 크다. 영원의 전쟁 이후에 질투의 죄악을 더욱 빠르고 널리 퍼뜨리기 시작했다.

『 질 퀴오나 』

원치않게 잉태된 생명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져 죽음의 문턱에 닿았지만 이후에 흩뿌려진 카인의 피를 젖줄삼아 기적적으로 다시금 생을 연명하며 카인의 핏줄로써 살아가게 된다. 스스로 질투의 죄악을 담고 있으며 한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라고 여긴다.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사랑이란 개념은 누가봐도 삐뚤어지고 뒤틀린 모습을 하고있으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기형적인 성장과정을 겪은 탓에 외형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모성애 또는 부성애를 자극시킨 뒤에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

는 꼭두각시로 만든다. 그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자들의 행동마저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는 과정에서 저들의 삐뚤어진 사랑과 질투심은 더욱 강한 힘을 발현하며 그 인형극은 더욱 광기에 휩싸이게 된다. 질투의 화신인 그녀가 가진 최후의 목적은 자신만을 사랑하고 안아주는 인형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깨지 않는 꿈의 동산을 만드는 것이다. 여담으로 질이 보여주는 병적인 집착과 질투로 인하야 그녀의 이름의 질에서 유래하여 '질과 같다' 라는 질투의 어원은 이데아의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생명 』

아벨에게 죽음을 선사한 뒤로 카인은 종적을 감추고 어둠에 잠기니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들에게는 혼돈의 시기였으니 많은 이들이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태초의 피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카인의 핏줄들을 예속시켜 카인의 성 카에람에서 안식을 취하게했고 나아가서는 직접 발걸음을 하여 더 많은 이들을 거두고자 했다.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그녀가 조우한 것은 안타깝게도 세상에 미처 태어나지도 못한채 버둥대는 가여운 것들이었다. 태초의 피에 의해 발견될 당시에 '그것' 은 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시골마을 변두리에서 태반에 잠들어 있는채로 발견되었다. 얇은 핏빛의 막 안에서 두 생명은 간신히 생명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태반 속 작은 생명들은 본능적으로 둘이 함께 나갈 수 없음을 인지하자, 서로 죽

이기 시작한다. 마침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이게되고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마침내 태반을 찢고 나오지만, 서로간의 투쟁에 기력을 소진한 그 작은 생명은 꿈틀대다 움직임이 조금씩 멈추며 마지막 숨을 토해낸다.

『 태초의 피의 온정과 가슴으로 낳은 딸 』

에르아의 저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카인이나 그의 피로부터 태어난 태초의 피가 카인의 핏줄도 아닌 다른 이를 거둔다는 것은 오랜동안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 불문율과도 같았다. 피의 계승이나 다른 어떠한 가치로 저울질 해보았을때 그녀가 하고자하는 일은 카인의 핏줄에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처 세상의 빛을 맞이하지 못한 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도저히 못 본 체 지나칠 수 없었던 태초의 피 카르밀라는 태반을 찢고 나온 그것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린다. 서로의 사투끝에 죽임을 당한 것은 살릴 수 없었지만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기력이 다해 죽은 하나는 간신히 살릴 수 있었다.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본성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거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카르밀라가 건넨 피에는 당연하게도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에, 카인의 피를 마신 것과 다름 없었던 그 조그만 생명은 짧은시간에 어린 아이의 모습까지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처음부터 미성숙한 존재에게 카인의 피를 주입한 탓에 성장을 멈춘 뒤로 그 모습에서 더 자라지 못했다. 그렇게 이름없이 죽음의 문턱

에서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된 아이에게 ‘질 퀴오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카인의 성에 자리하게 되니 태초의 피는 그녀를 딸과도 같이 키우게 된다.

『 질투의 근본 』

사랑받지 못한 것 만큼 슬픈일은 없을 것이다. 찢어진 살은 아물고, 부러진 뼈는 제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지만, 그 고통은 아마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영영 잊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랑을 받아 본 적 없으니, 그리움이나 공허한 감정마저 자리하지 못한다. 그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은 뒤틀리고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하게 되는데, 그것의 이름을 질투라고 부른다. 다른 죄악은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지만, 질투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다. 애초에 태반에 자리할 때부터 서로를 질투하며 죽이려는 그것은 생명이 가진 본능이었다. 그리고 카인의 핏줄이 된 지금 붉은 막 너머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음에 질은 자신이 다른 이들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로 인하여 질은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잦아졌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으며 카인의 성 내에 사고뭉치나 다름없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된다.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될수록 질투는 더욱 빠르게 증폭되기 시작하며 삐뚤어진 유년기의 아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애초에 태초의 피 카르밀라는 질을 딸처럼 여겼던터라, 카르밀라는 미처 그 작고 여린것을 예속시키지 아니한채로 그녀를 품으며 사랑으로

돌보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어여쁨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모른 질은 다른 대우를 받는 그것조차도 속박이라 여겼던 탓인지 성 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는 듯하더니 홀연히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카에람을 뛰쳐나와 방황하기 시작한다.

『 서로 닮은 두 얼굴 그리고 이끌림 』

처음에 날 때부터 아벨의 자손의 뱃속에서 자란 존재였던 탓인지 아벨의 자손들을 향한 묘한 끌림에 홀린 듯 공국 퀼로른을 향해 걸었다. 그렇게 아벨의 자손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그녀였기에, 악의 없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벨의 방벽안에 입성하게 된다. 그녀의 질투심으로 발현된 이능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한 이가 풍기는 그리움의 끈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리운 흔적을 조용히 따라 문을 조용히 두드렸고 그곳에서 인형극을 업으로 하는 미망인 '루찌 마리아티'를 만나게 된다. 그녀 역시 자신과 다름없는 사랑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자였다. 불경한 존재에게 남편을 잃은 뒤에 충격으로 사산아까지 낳은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눈을 보고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 자신을 마음으로 거두었던 카르밀라와 닮아 있다는 점이었다. 문 한칸을 두고 그 짧은 시간에 둘의 시간은 멈춰섰고, 동질감에 이끌린 그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찌는 질이 카인의 핏줄인 것을 알게되지만, 오

갈 데 없는 이 작은 것이 이곳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가여워 그녀와 함께 지낼 것을 흔쾌이 허락했고, 질은 자신의 실타래를 쏟아내어 루찌와 자신을 사랑으로 묶어두었다.

『 비극 』

잠시동안 꿈같은 달콤한 평화는 영원의 전쟁으로 산산히 깨어졌다. 영원의 전쟁 속 피와 살이 튀는 참상은 질이 바라던 풍경이 아니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성숙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던 질은 영원의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하루빨리 영원의 전쟁이 끝을 맺고 다시금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바랐다. 그 기도가 닿았는지 영원의 전쟁은 끝을 고하게 된다. 이후로 퀼로른은 붕괴하고 혼란의 가운데 아벨론이 태어나 불경한 자들을 죽이는 움직임이 보이자 더이상 방벽 안에 살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은 방벽 밖으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시간이 흘러 노쇠한 루찌는 방벽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감에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있는 질 역시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에 찬 이들은 루찌의 집까지 쳐들어와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이 둘을 위협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결국 폭력을 피할 수 없었고 루찌를 지키면서 분투하던 질은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넘는 고통 속에 빠졌다. 그리고 질은 힘차게 울었다. 그 옛날 태반을 찢고 밖으로 나올때처럼 말이다. 그러자 울음소리에 홀린 듯이 루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배를 스스로 갈라 어미와도 같이

질을 따스히 품었고 그녀가 자신의 피를 마시게끔 했다. 그 피를 잔뜩 머금고 다시 태어난 질은 자신과 어미의 시신을 위협하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결국 돌아갈 수 없는 아벨의 자손을 등지게 된다. 결국 오갈데도 없이 마침내 향한 곳은 카에람이었다. 그러나, 영원의 전쟁 속에서 샤마인의 간계와 정치적 사정을 몰랐던 질은 태초의 피 카르밀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던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녀의 정신은 찢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자리에서 불안했던 질투의 죄악이 마침내 깨어진 정신 속에 자리하게된다.

『 인형의 집 』

질투의 짙고 슬픈 감정이 카에람을 휘감음에도, 브리쿨은 그것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눈을 뜬 질투의 죄악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불경한 것이었기에 그저 이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구슬피 울며 성을 떠나는 질을 나무라거나 붙잡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카인의 성 카에람을 박차고 나왔다 한들 바깥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있어 이 세상은 위험한 것들 투성이었다. 영원의 전쟁 후의 참상,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낳은 불경한 존재, 그리고 아벨의 자손들, 세트의 후예, 다른 카인의 핏줄 등, 세상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있어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다. 그녀는 질투의 실타래를 포함한 눈물과 그리움의 마음과 피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한데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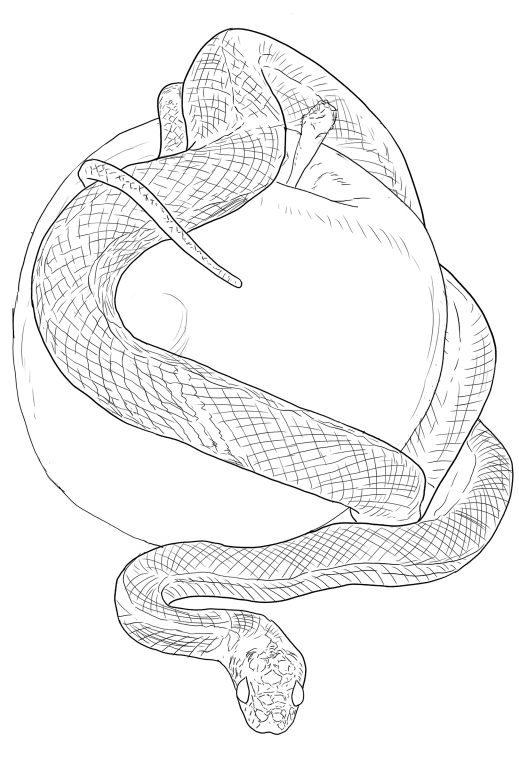
현실도피를 위한 인형의 집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어미라 여기던 두 여인을 꼭 닮은 듯한 인형을 만들어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던 존재들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카르멘' 이라 불렀고 항상 그녀 곁에 두었다. 질은 자신이 있는 어디라도 동화책 이야기 속의 동화나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진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것들을 홀려 인형의 집에 초대해 머물도록 했다. 질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 둘 모이며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들을 비탄의 인형라는 뜻의 '베르체' 라고 불렀다.

『 비탄의 인형에게 현혹된 자가 격리된 곳에서 쓴 수기 』

'아이의 모습을 한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꼭두각시와 함께 춤을 추었고 이를 본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아름다워 넋을 잃고 이들을 바라본다. 이들은 질투의 화신이었으나, 그들은 외형만큼 아이가 가진 순수함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피와 질투로 어여쁘게 빚으며 엮어낸 인형이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이로다. 그들의 손짓과 표정 그리고 몸사위는 이들의 가슴아픈 노래는 눈을 멀게하기에 충분했다. 흡사 인간의 모습을 한 기묘하게도 정교한 조각품이요, 생명을 지닌 자와도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이야말로 아이의 모습을 빌어 세상에 강림한 천사의 모습이었다.'

『 페라투르 』

세력 상징은 죄악의 열매를 휘감고 있는 뱀.



"음욕으로 빚어진 사랑마저 죄라 부른다면,

그 사랑으로 태어난 씨앗, 우리 모두가 죄로다."

— 음욕의 죄악, 몽마왕 헤이렐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몽마왕 헤이렐.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우며 쉽사리 빠지기 쉬운 음욕의 죄악을 담고 있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에 대한 갈증이 오로지 음욕으로만 향하여 사냥감의 정기만을 취하는 존재들이다. 사랑이나 쾌락에 있어서 종족이나 세력 또한 나이에 대한 경계조차 두지 않는 존재들이다. 카인의 핏줄 중에세도 적대심이 없을 뿐더러 이들과 조우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자신과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아벨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세트의 후예와도 개의치 않고 몸을 섞으며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냥감은 자연스레 마음의 문을 열게된다. 그리고 천천히 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 비단, 저들의 아랫도리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풍기는 체취나 자태만으로 아들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의욕을 상실하게끔 만든다. 원대한 목적이나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쾌락과 정기가 가득한 지상낙원을 열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본능에 취해서 서로 밤낮으로 섞이기를 원하는 것만이 이들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음욕의 죄악으로부터 나온 씨앗은 사랑과 교감으로 이루어져 그 정신의 결속을 와해하려는 것들에게 있어서는 더할나위없이 난폭하고 격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 그들 역시 마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다. 여담으로 헤이렐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취한 정기를 잔뜩 담은 씨앗을 창조주 에르아에게 담아 그녀에게 새로운 테르벨을 낳게 하여 순수한 음욕의 낙원을 만들어 그 곳에 사는 것이다. 진홍의 새벽과 붉은 낙

원 속에서 모두를 자신을 아래에 두고 그 위에서 군림 하려하는 샤마인과 음욕의 낙원 속에서 서로 탐하며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미세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 샤마인은 태초의 피 카르밀라와 밤을 보냈다는 몽마왕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 몽마왕 헤이렐 』

이바와 아다무스가 죄악의 돌의 목소리에 이끌려 그것을 탐닉하다 결국 그것에 손을 대고 난 뒤 무언가에 홀린듯 미친 듯이 서로의 몸을 섞고, 그들의 절정과 절규 섞인 비명과 함께 수치스러움이 태어났다. 그러나,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 더욱이 그 장막을 열고 싶어하니, 그렇게 안에서 꿈틀대던 욕정은 꽃을 피운다. 그것은 예외없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모든 아이들에게 뿌리 내려졌다. 이 후에 에르아가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흡혈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쾌락으로 말미암아 카인의 핏줄 안에 잠든 음욕을 가감없이 드러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저주입은 다른 자들에 비해 비루한 육신을 가진 자가 일찍이 그 쾌락이 가져다주는 가운데 피어나는 힘에 눈을 뜨며 저들과 다른 무기인 색기를 두른채로 다른 이들의 정기를 탐닉하니, 그 자의 이름이 바로 몽마왕이라 부르는‘헤이렐’이었다. 방향을 잃고 짐승과도 같이 방황하는 여타 다른 카인의 핏줄들과 달리 헤이렐은 아름다움을 가꾸고 점차 발전시키며 자신을 유혹하는 혹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들과 몸을 섞으며 활홀경을 나누고, 머지 않아 그의 이름은 눈깜짝할 새에 퍼져나갔다. 이에 태

초의 피는 헤이렐과 그의 추종자를 예속시키고자 자신의 성으로 이들을 소환하게 된다. 다만, 예속이라는 개념이 복종보다는 그저 다른 이들과 몸을 섞고자 그것을 수락했던 음욕에 미친 자들로 인하여 카에람 안은 그야말로 달큰한 향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늘게 된다. 이렇듯이 다른 이들을 쾌락에 취하여 정신을 못차리게 만들어진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몽마왕이라는 이명이 붙여지게 된 것도 이 때였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태초의 피의 처소에 드나들며 그녀를 품어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더이상 혼란을 야기시키기 싫었던 그녀는 동침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이들이 카에람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헤이렐의 기록에 따르면 그와 함께 밤을 지새면서 의외로 그녀에게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하늘을 수놓은 별의 이름을 함께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 피할 수 없는 욕정과 이끌림 』

카에람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몽마왕 헤이렐은 그러함에도 자신의 뚜렷한 목적을 가졌기에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이데아의 조용하고 그늘진 구석 한 켠에 자리하여, 그곳을 드나드는 존재들과 몸을 섞으며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도중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도 그들의 목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디할 곳 없이 전쟁의 피로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존재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뒤로 달콤하고 포근한 향에 취해 본능적인 육신의 접촉과 그 따스함이 그

리웠던 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 도덕적 경계가 한껏 모호해져가는 전쟁 중에 호기심 반, 카인의 핏줄에 대한 반발심 반으로 이들과 조우하게 되고, 저들이 가진 무기인 아름다움과 아랫도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무장과 경계를 해제시키에 충분했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그들이 자리한 곳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 매혹적인 것들이 주는 쾌락은 익숙한 것이든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든간에 값진 보석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었다고 한다.

『 음욕의 땅 』

수많은 이들이 몸을 맞대고 문지르니 퍼지는 달큰한 냄새는 미향과 다를바 없어, 이곳을 지나간 자는 돌아오지 못하였거나 행여 돌아왔다 하더라도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쾌락의 노예가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더 이상 그들이 있어야할 곳으로 다시 돌아갈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특하게도 몽마들과 몸을 섞고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간 자들은 잠들지 못한채 이들의 존재를 입에 담으며 범죄까지 저지르기에 이르니 달콤한 향이 차오르는 쾌락으로 가득한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의 장소에 대한 악명은 점점 더 높아져만갔다. 헤이렐은 오히려 이를 즐거워하며 황홀경이라는 뜻의 몽마들의 자리한 쾌락과 욕정으로 뒤덮힌 세계란 의미로 '타라노프' 라 부르며 음욕에 취한 모든 이들을 반기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만개하는 욕정의 꽃이라는 뜻의 '페라투르' 라는 이름을 이데아의 모든 존재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리고 이

곳에서 만큼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여 그저 본능에 취해 쾌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 인종, 국경 모든것을 초월한 사랑 』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몸을 섞으며 사랑하는 것을 죄악으로 치부하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카인의 핏줄 대다수가 자신을 치장하고 우월함을 뽐내는 자태를 드러내고 싶어하나, 이들만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자들도 없다. 사냥감으로 하여금 자신이 더욱 매력적이고,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생명을 유혹하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은 외형 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도, 손짓 하나로도 시선을 끌게 할만큼의 힘을 가지고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든 살이든 영혼이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사냥이라는 행위는 불가피했지만, 넘치는 매력을 지지고 있는 이들은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냥감이 자신들의 소굴로 찾아오기에 큰 수고와 노력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다. 이들에게 사냥이라고 함은 그저 화려한 외출에 불과했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파헤치려한 윌츠의 수학자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직접 담아내고도 목숨을 부지하여 그것을 어떻게든 숫자로 구현하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바쳤고, 마침내 완벽에 가까운 미의 황금비율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미의 기준으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라투르 중

에서도 가학과 피학에 눈을 뜨게 된 이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죽고 죽이기 위함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여기었다. 나아가 더 뒤틀린 음욕에 빠진 자들은 도착증, 편집증, 온갖 병적인 문란함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로만 미루어 보았을 때, 카인의 핏줄임과 동시에 음욕에 미친 존재는 공포와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입을모아 페라투르의 몽마들은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품에 안아보고 싶은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후에 몽마들을 이데아의 딸 이실그라드가 풍기고있는 달콤한 아르카나의 향까지 느끼게 되면서 헤이렐은 그녀마저 품고 싶어했고 그것을 낳은 이데아에 이르러 창조주의 맛과 향을 궁금해 마지않았다.

『 아름다움 그 너머에서 』

카인의 핏줄은 피를 마시는 과정은 아벨의 자손들이 몸을 섞을 때 느끼는 쾌락을 아득히 넘어서는 황홀경을 맛보게 된다는 것은 저명한 사실이었다. 이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먹잇감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숨이 희미해지는 것을 인지조차 못한채 엄청난 쾌락에 빠지게 된다. 이런 찰나의 순간 그들은 둘만의 세계에서 서로의 살결과 온도 그리고 타액을 끊임없이 탐닉하게 된다. 이것에 취하여 피를 탐하다보면 이성을 잃은 짐승과 다름없이 되지만, 절정의 황홀경에 지나치게 심취한 음욕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도 자신들이 원하는 쾌락을 넘지 못하자 조금 더 큰 쾌락을 영위하고자 이들이 선택한 것은 몸을 섞으며 그들의 안에 담긴 진한 정기를 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기를 맛본 이들은 더 이상 피를 입에 담지 않게 된다. 음욕이 카인의 핏줄에 대한 근간마저 바꾸어버린 셈이었다. 이에 페라투르의 몽마들은 불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도구는 흡혈이 아닌 사랑며 쾌락이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도 아니고 그 어떠한 서사도 아니니, 오직 자신과 몸을 섞으며 교감하는 눈 앞의 존재만이 최우선이었다.

『 페라투르의 눈으로 본 음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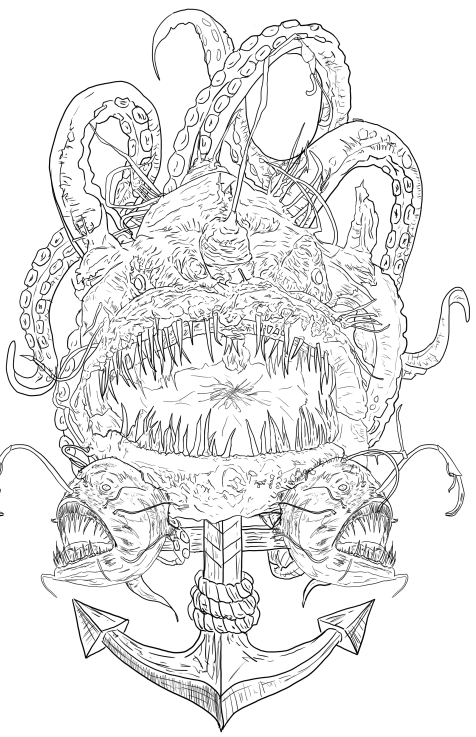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이 죄악으로 치부된 것에 대한 반발감을 감추지 않았다. 허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나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헤이렐은 자신 앞에 당당히 서 욕정을 죄로 폄하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말했고, 그것을 기록한 자의 수기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불쾌함을 토로했지만 얼이 빠진채로 그의 말을 연신 되뇌었다고 한다.

‘도덕적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사회적 통념 때문에 페라투르의 존재들을 죄악의 부산물 따위로 터부시하고 있지만, 이는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면서 음욕을 통해 더 나은 존재를 갈구하는 것은 생명이 가진 투쟁 본능 중 하나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들 안에서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쾌락으로 오는 본능적인 움직임은 누군가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를 않음에 몸에 흐르는 피가 으레 그렇게 흐르듯 자연스레 음욕의 땅에 발

걸음을 하는 것이다. 음욕의 죄라 손가락질 하는 그 움직임 덕분에 이데아의 생명은 진화하고, 더 강한 개체를 만들고 역사를 이룩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이데아에 남겨진 자들 모두가 그 증거이다. 우리 곁에서 항상 살아있고, 이를 쉬이 지울 수 없는 것일진대 되려 이를 온몸으로 부정하며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요, 그것이야말로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다.’

『 레위앗 』

세력 상징은 닻을 움켜쥐고 있는 심해의 괴수.



"우리에게 모든것을 앗아간 자들로부터

이제 다시 모든것을 되찾을 시간이다."

— 인색의 죄악, 심해의 공포. 아르토사 피에르가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아르토사 피에르가. 인색의 죄악을 짊어진 자. 영원의 전쟁 말미에 벌어진 대홍수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휘말려 해저에 가라앉게 되고, 바다속으로 섞여 들어간 카인의 피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빚어낸 저주받은 깊은 해구 속의 존재들이며 심해의 생물과 유사한 기관을 지니고 있다. 인색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임에도 피를 탐하지 않고 바다에 살고있는 미생물을 섭취하지만, 약탈과 살육의 광기 그리고 전리품과 빛을 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더불어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굳이 마시지도 않을 피를 쏟아내는 순수한 광기를 보이는 자들이다. 레위앗의 모든 이데아의 하늘과 땅을 뒤덮은 대홍수를 일으킨 골노랏을 자신들의 피로 지배하여 이전보다 더 거대하고 강인한 재앙으로 키워내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이 태어난 재앙에 승선하여 하늘과 바다를 뒤집히는 혼란속에서 심연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심연의 공포라 불리우는 자들의 일차적인 숙원이다. 물론 그들의 인색함은 이에 그치지 않으니 종국에는 한없이 빛나는 범접할 수 없는 전리품인 창조주인 에르아를 자신의 손 안에 거두는 것이다.

『 아르토사 피에르가 』

카인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로 카인의 핏줄들은 초기에 다양한 지식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찬란함을 일구어냈으니, 아르토사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이들이 안락한 이데아의 품에서 살아가고 있을때, 그는 저 드넓은

대양으로 눈길을 옮겼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기었지만 아르토사는 포기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며 마침내 바다를 효율적으로 횡단할 선박을 구현해냈고, 그의 업적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칭송받았다. 역시 그의 생각대로 바다가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도 상상 이상의 것이었기에 잠시 자만했던 그는 바다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에, 그는 바다가 가진 모든 것을 기록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바람이며, 파도며, 습도며 그곳에 자리한 생명들 하나하나 기록했다. 또한 그 위험을 지탱할 선박을 오랜동안 개조 보수하기에 이르러 현대의 다양한 선박의 모습과 더불어 현대 기술로 풀어내기 모호한 것들까지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선박을 유용하게 품을 수 있는 항구도시 협동조합까지 창립하여 많은 이들이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만끽하게 했으며, 다양한 선박이 교통할 수 있는 항해법을 최초로 고안해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항구도시의 심장 '파록스' 를 세웠다. 찬란한 위용을 한껏 자랑하는 파록스에서 다른 카인의 핏줄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자손과도 다양한 물품을 교역하고 서로 지닌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르토사는 태양이 지고 난 뒤에도 선박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거대한 여인의 동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화톳불에는 파록스 항구 근처에만 볼 수 있었던 휘발성의 자갈이 무수히 담겨져 있어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도 그 은은하게 발하는 빛을 볼 수 있었다. 더

불어 파록스의 아름다운 전경도 한 몫 했기에 상선이 아니더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오랜동안 축적된 해양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국가와의 무역항로를 직접 제시하며 관리 하는 등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양 물류 선박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파록스는 짧은 시간에 이데아 무역로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되었다.

『 방주건조 』

이렇게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파록스의 빛은 아벨의 죽음과 에르아의 저주로 인해 갑작스럽게 꺼지게 된다.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카인과 그 핏줄들은 아벨의 자손들과 숨어지내던 세트의 후예로부터 온갖 혐오와 멸시를 받아내야만 했으며, 바다가 안겨주었던 풍요로움은 더이상 이들을 살찌우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카인의 핏줄들처럼 피라는 것을 갈구하지만 그것을 마시기위해 흘리는것이 아니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이 뒤따르며 그들은 순수하게 폭력이라는 수단에서 낭자하는 피에 열광하게 된 것이다. 아르토사를 비롯하여 항구도시의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고 파록스의 영광도 나락으로 쳐박히자 오랜동안 쌓아온 자본은 삽시간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아르토사는 카인의 핏줄에게만 닥친 시련에 환멸감을 느끼면서 다른 것들로부터 빼앗을 것들을 싣고도 남을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저주받은 카인의 피와

더불어 그의 창의력과 오랜경험이 빛을 발하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여지껏 건조되지 못했던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 재앙이 건조되었다. 아르토사는 그것을 인색함의 방주라는 뜻의 '데바루그'라 이름지었고, 당연하게도 방주의 항로는 파록스에 지정된 이데아의 모든 항구도시로 설정한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잃어버렸던 재물들을 다시금 되찾기위한 저들 나름의 정당한 약탈이 아닌 찬탈이라는 이름의 전쟁은 시작됐다.

『 계약이행 』

약탈을 이어가던 중, 태초의 피 카르밀라의 소환이 있어 카에람으로 키를 돌렸다. 성에는 이미 그녀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그들을 짠내와 물기를 가득 머금은 음울한 분위기의 아르토사를 팔벌려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초의 피는 이들의 악명은 이미 듣고 있었다. 주인을 잃고서 방황하는 이들 사이에서 오직 빼앗기 위해 몸을 움직이던 순수한 광기를 보여준 이들이 다가올 폭풍에 아주 중요한 전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그녀는 아르토사와 그의 해적들을 자신에게 예속될 것을 권하였다. 그녀의 물음에 아르토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수락도 거절도 아닌 계약의 조건이었다. 비록 저주받은 몸이라 할지라도 바다에서든 뭍에서든 사업가는 사업가였고, 계약은 계약이었다. 예속이라는 행위조차 계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르토사의 흥미로운 제안에 태초의 피는 예속에 대한 조건으로 약탈로 수탈한 전리품의 분배권한을 전부 그에게 위

임하겠다는 것을 내걸었다. 그것은 동전 한 닢조차 그녀에게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다. 의외로 말이 통하는 자를 만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그는 가벼이 예의를 갖추고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사업가로서 적합한 태도와 격식을 갖춘 그 모습을 보고 태초의 피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예속이 아닌 계약으로 묶인 관계, 즉 사업동맹이 되었다. 태초의 피가 건넨 계약조건에도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르토사가 유일하게 즐거워 마다않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해적이라는 멸칭보다 제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었기에 아르토사는 그를 따르던 약탈자들 역시 서로 직책으로 부르게 했다.

『 바닥 끝자락에서 』

저들이 계약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피와 잃었던 재물을 수탈하기 위한 약탈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재물을 탐하던 그 때에 영원의 전쟁을 슬퍼하던 창조주 에르아가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눈물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떨어졌다. 천둥과 벼락을 떨구는 소투움과 개벽의 대홍수는 골노랏으로 태어나 이데아 전역을 휩쓸었다. 오랜 항해로 한껏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아르토사는 카에람에서 피어난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되니, 태초의 피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리하는 것을 직감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더할나위 없는 치욕이었기에 아르토사는 카에람을 향해 급히 뱃머리를 돌렸지만 소툼과 골노랏의 재앙을 피

하지 못했다. 소툼과 골노랏은 데바루그 여기저기에 상처를 입혔고, 결국 아르토사와 그의 군대는 데바루그와 함께 심해의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의 눈물따위로 여지껏 쌓아온 재화가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도 같은 존재에게 두번이나 빼앗겼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치욕은 덤이었다. 아르토사는 심해의 끝자락을 향해 침몰하는 그는 깊은 어둠속으로 잠기며 인색함의 죄악에 완전히 눈을 뜨게 된다.

『 탈환 』

주위에 함께 가라앉은 자신의 군대를 허탈하게 바라보던 그는 자신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깊은 심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요람인 데바루그는 다시 내달리기 버거워 보일 정도로 반파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주위를 둘러보며 남겨진 불어터진 익사체들과 죽은 선원들의 사체를 긁어모은 뒤에 자신의 피와 섞어 곳곳에 덧대며 선체를 수리해 나갔다. 눈꺼풀을 감는것도 잊어버린채 멈추지 않고 심해에 숨쉬는 기괴한 것들까지 긁어모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죽어버린 선원들과 융합하여 심해의 군세를 불려나갔다. 그리고 아르토사는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속에 가라앉은 차가운 존재임을 암시하며, 그의 군대를 냉혹한 피라는 뜻의 '레위앗'이라 불

렸다. 수많은 해도를 그려오며 눈을 감고도 바다를 가늠할 수 있었지만 이곳은 바다와는 다르게 위 아래조차 분간해내기 힘든 심해였기에 그는 이번엔 해도가 아닌 온 이데아의 심해지도를 그리기로 마음먹는다. 더불어 변화를 인지한 것은 피에 대한 갈증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피를 마시는 대신에 심해에 수많은 미생물을 먹으며 허기를 씻어낼 수 있게 된다. 카인의 핏줄을 향한 저주를 입고 인색의 죄악까지 짊어졌지만 피를 탐하지 않는 소박해져버린 몸뚱아리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그러진 미소를 남겼다. 그는 다시금 기괴한 모습으로 재단장한 데바루그를 심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원을 찾던 도중 진귀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장소를 발견하였다. 마냥 고요할 것 같았던 심해는 이데아보다 더욱 신비로운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소금결정과 코를 찌를 듯한 향을 품은 간헐천 주위로 골노랏이 휩쓸어간 불경한 것들의 살점들이 뭉쳐져 기생하며 살아 숨쉬는 듯한 모습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아르토사는 기암절벽 틈새에서 유황을 토해내고 있는 사악하고 불경한 기운이 가득한 곳이라는 뜻의 '켈 푸가' 라고 이름 짓고 그 곳을 거점으로 삼으며 데바루그와 심해의 군단을 다시 움직이며 잃어버린 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심해를 주무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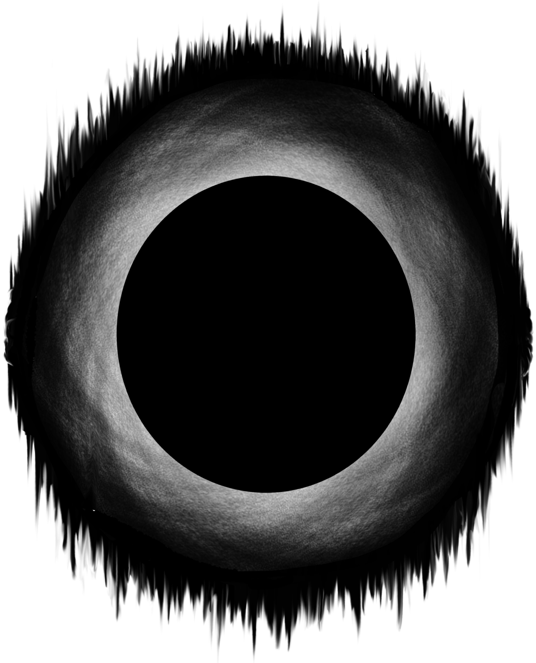
『 종말을 부르는 폭풍우 』

인색의 죄악를 짊어진 이들에게 있어서 아벨의 자손,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가 벌이는 삶의 투쟁을 업신여긴다. 그 까닭이 무어냐하

면 저들이 벌이는 투쟁은 레위앗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찮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데아를 덮은 이 바다는 대지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넓고 풍요로웁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진홍의 새벽따위보다 바다에 잠든 태고의 재앙을 깨우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약탈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탐하고 더 나아가 그 재앙을 뿌린 창조주를 손에넣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남은 잔존생물과 모든 바다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데에 온 신경을 써도 모자라다고 생각한다.

『 하쉬무스 』

세력 상징은 검은 태양.



“나는 어둠, 공포, 그림자 혹은 악몽.

원하는 대로 부르시오. 결국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터이니.”

— 무욕의 어둠, 익스의 유산. 세오릭 —



『 탄생배경 』

창립자는 세오릭. 자신들의 존재감을 죽여가며 세상과 담을 쌓기를 원하며 몸에 어떠한 죄악도, 피도 담지 않는 기괴한 카인의 핏줄. 카인이 자취를 감췄을 때 당시 스스로 덮은 어둠의 장막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깨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숨어지내기 때문에 쉽게 저들을 눈에 담을 수 없으며, 영원의 전쟁 속에서조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를 아는 자들은 관망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림자로 자신의 형태를 바꾸거나 어둠을 뜯어 실체화 할 수 있는 이형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존재란 당연히도 원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원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듯 고요를 깨는 자들의 피를 마시지 않지만 마음에 싹튼 부정한 마음을 좀먹는다. 나아가 깊은 어둠 속에서 무력감과 절망을 가져다주고, 나아가서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하여 정신을 갉아먹게된다. 꿈 속에 사는 자들 꿈을 먹는 자들, 그림자로 외형을 깎아 변형할 수 있는 자들이나, 정녕 진실된 자신의 모습은 없는 자들이기도 하다.

『 밤의 장막 』

아룬 모라의 수도사 가운데 타오르는 빛의 정반대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떠돌며 지식을 갈구하던 승려 베라자르가 세상을 경험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록한 신비의 경전 졸 카르에서 미지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

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르기를 죄악의 돌에 대한 존재를 잊지 못했던 아다무스는 결국 다시금 그곳에 발걸음을 했다고 한다. 흩어진 죄악의 돌이 있던 그 자리에서 눈을 뜬 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릴리트' 였다. 아벨은 약해져있는 아름다운 그녀를 홀린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뱀과 같이 그녀를 탐닉하게 되니, 아벨의 간통으로 릴리트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않아 그녀는 불결한 감정들이 응집된 결정체인 순수한 어둠이라는 뜻을 담고있는 '익스' 를 낳게 되었다. 아다무스가 자리를 뜨고 난 뒤에 릴리트는 배덕감에 익스를 삼켰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리고 익스는 그녀의 입에서 토사물처럼 둥둥 떠다니더니, 이내 연기처럼 사라졌다. 기록에 따르면 익스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검었다고 한다. 그녀로부터 나온 원한은 이데아를 뒤덮으며 밤을 만들어냈다고 하며, 이바가 잠든 사이 아다무스를 찾기 위해 이데아를 떠돌았다고 전해졌다.

『 저주를 짊어진 자가 살아가는 모습 』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들 중 하나인 카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고 난 뒤, 종적을 감추고 살아가는 동안 고개를 들고 빛을 바라보지 못한채로 수많은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 후로 수많은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그는 익스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은 마침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카인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러나 릴리트가 익스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한 것과는 달리 카인은 그것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에르아의 저

주 때문이었으니, 저주를 입고 피에 굶주린 자에게 있어서 세상 가장 어두운 것이라 할지라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다시 방황하는 가운데 외로움을 참지 못해 태초의 피를 만들어냈고,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뒤로 카인은 이데아에서 자신이 설 수 있게 될 곳이 점점 좁아짐을 느끼게 되자 태초의 피 카르밀라에게 카인의 핏줄의 존망을 맡긴채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일임하고는 다시금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자 자신에게 담겨있는 익스를 토해냈고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낼 더욱 짙은 어둠을 뿌려대기 시작했다.

『 더 깊은 어둠의 장막속으로 』

카인이 익스를 토해낼 때 어둠과 그의 피까지 섞이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태초의 창조주가 내린 저주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카르밀라를 제외하면 카인에게서 나온 어찌보면 가장 순수한 카인의 핏줄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앞에 무언가가 자신의 희미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카인은 자신도 모르게 익스와 부자비하게 뒤섞여가며 꿈틀대는 끔찍한 악몽을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지우려했다. 다만, 자신과도 같이 어둠속을 헤메며 살아가야할 그것의 기구한 운명을 가엾이 여기며 어둠을 차마 부수지는 못했다. 그렇게 카인이 손을 거두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그것은 여러번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어둠을 찢으면서 허우적거리며 나왔다. 뚝뚝 떨어지

는 그림자에 뒤덮힌 그것은 카인을 빤히 바라보았고 잔잔한 침묵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존재가 자신의 아비임을 인지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다. 어둠으로 도망치는 자신을 아비라고 여기는 그것에게 카인은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그에게 짙은 어둠 익스가 만든 첫번째 그림자를 뜻의 '세오릭'이라는 이름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은 익스가 뿜어낸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세오릭 』

그에게는 카인의 피와 익스의 어둠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태어난 죄악의 기억과 창조주가 직접 내린 저주의 기억이 고스란히 그에게 담겨져 있었기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자신은 줄곧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 여기었기에 태초의 피도 굳이 이들을 소환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초의 피가 이들보다 약했던 것이 아니라, 부정한 기운을 지닌 익스를 품고 있었던 세오릭이 내뿜는 기운이 카인을 잃고 방황하던 다른 카인의 핏줄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카인의 핏줄임에도 세오릭은 외부의 존재와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이어가게 된다. 다만, 카인의 피보다 더욱 진한 것은 익스의 어둠이었기에 그는 그 어떠한 죄악도 짊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처럼 피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한 것을 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이 느끼는 공포를 집어 삼키는 것이었다. 많은 존재들이 느끼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원

초적인 공포는 빛으로부터 단절된 완벽한 어둠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둠은 스스로를 잡아먹는 존재라는 말처럼 그는 대상에게 공포를 심어넣어 어둠에 대한 갈증을 해갈한다. 공포를 단련할 수 없을 뿐더러 머리에 깊게 박힌 공포는 각인으로 남아 여전히 대상을 괴롭히며, 어둠을 가리는 찬란한 빛을 지닌 자들 뿐만 아니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수록 그것은 더욱 깊은 공포로 다가오게 된다. 그는 희미한 존재감으로 이곳저곳을 거닐며 수많은 존재들 틈바구니에서 어둠과 공포를 마시곤했다.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자리에서 다른 공간을 살아가던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희미한 존재감을 풍기며,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하찮은 삶을 이어가는 카인의 핏줄들을 여럿 발견하게 된다. 말미에는 태초의 피의 죽음으로 샤마인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살아남은 일부역시 어둠의 존재인 세오릭과 조우하게 된다. 그들 역시나 어떠한 죄악도 담으려 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이데아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을 무의미하다고 여기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은총을 받은 이들의 그림자까지 더해져 이데아의 짙은 어둠은 밝은 빛 속에서 더욱 깊은 어둠에 잠기며, 세오릭은 어둠을 살아가는 이들을 검은 태양 속에 사는 자, '하쉬무스'라 칭하게 된다.

『 존재각인 』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그림자가 두터워지면 빛은 그림자가

드리워짐을 깨닫게 된다. 카인의 핏줄들보다도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상투스가 가장 먼저 이 짙고 깊은 어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악몽으로부터 시작하더니, 이내 믿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거나 우려하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흩어진 물방울처럼 짙게 다른 이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투스의 사제들이 입을 모아 축복하며 어둠을 밝히니, 많은 이들을 다시금 시험으로부터 구하게 된다. 이로써 불경한 움직임이 카인의 핏줄로부터 나왔음을 확신하게 된다. 이들을 시작으로 아벨의 자손이며 카인의 핏줄, 나아가 세트의 후예들까지 어두운 것의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알게된다. 더욱 확실하게 공포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켰던 것은 이들과 접촉하여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자들에게서 나온 증언이었다. 이들 모두 의미없는 말들을 연신 중얼거렸고, 공포와 악몽에 시달렸다. 또한 하쉬무스가 머무는 자리를 이르러 밤 그림자의 기둥이라는 뜻의 '시오르그'라 부르는데, 그 곳에는 아침이 찾아오지 않는 듯한 어둠이 항상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하쉬무스의 짙은 어둠이 마시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부정한 감정들이 한데 섞여 흐르고 있는 이데아는 이들에게 있어 낙원과도 같은 것이기에 굳이 어둠에 숨어든 카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 아락숲 』

어둠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스스로 어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둠에서 태어난 하쉬무스는 본능처럼 어둠을 부릴 수 있었고, 그 힘을 내면의 공포라는 뜻의 '아락숱' 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진다. 사냥감의 공포와 두려움을 갉아 먹고 사는 능력도 바로 이 힘으로부터 나온다. 평범한 존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결코 알 겨를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 힘을 스스로 입밖으로 꺼낸 자는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에 떠는 자 앞에 선 세오릭 자신이었다. 그는 오랜동안 힘을 벼려내고 갈고 닦아내어 자신과 함께 어둠을 사는 자들과 나누었으며, 그 힘은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계의 것이며, 어떠한 존재도 아락숱을 흉내내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락숱은 이데아를 사는 존재들에게 담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한데 섞인 감정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미지의 형태를 띈 추상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하쉬무스의 어둠들에게만 가시화된 것이다. 이것으로 악몽을 구현하며 다른 이들을 더욱더 깊은 악몽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희생자에게 흘려보낸 아락숱은 기억을 쉽게 조작시키고 뒤엉키게 만들기도 하며, 영문도 모르는 채 잃어버린 감정의 고리들과 기억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시오르그에 무의미한 발걸음을 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렇게 정신을 계속 소모시켜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천천히 어둠에 잠식된 공포를 심키는 것이다. 하쉬무스는 자신들의 존재자체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러 찾아오는 자들을 굳이 사냥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을만큼 치밀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남겼다. 아락숱은 빛이 닿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그것

을 자유로이 펼쳐보이며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기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 무엇조차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능력이었다. 낙원에 남겨진 흔적들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며 그것은 카인의 핏줄들이 가진 죄악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죄악이라는 것도 짊어지지 않은채로 숨을 쉬는 것들은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희미한 것들이지만 그림자 속에서 아락슐의 힘으로 누구보다 낙원의 흔적을 깊게 관찰하며 끊임없이 선명하게 기록을 이어나가는 역설적인 존재들이다.

『 빛과 그림자 』

카인의 핏줄로 태어났지만, 그 어떠한 죄악도 품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존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문과도 같은 악몽 속에서 헤메이게 만드는 것이 더욱 악랄해 보일지도 모른다. 세오릭과 그가 만든 하쉬무스의 어둠은 앞서 말했듯이 그 어떠한 죄악도 짊어지지 않으며 이들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데아의 역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없는 존재에 대한 기록따위는 없었다. 그러하기에 일곱가지의 죄악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에대한 두려움을 알고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들이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본능적으로 찾고있는 것은 어둠과 같이 빛 한점 없는 고요함과 정막 그리고 평화속에서 모두가 잠드는 것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그 장막 너머에서 세상이 돌아가

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즐기는 이들도 많다. 더불어 하쉬무스가 피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홍의 새벽을 바라는 왕가의 혈맹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카인의 핏줄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전에 상투스가 자신들의 존재를 인지한 것과도 같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보이는 미묘한 움직임은 서로의 진위를 드러내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세오릭은 언제라도 움직일 테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조금씩 빛을 잠식시킬 것이다.

『 공포에 직면하는 자세 저서 중 』

‘꿈 속을 거느리며 스치는 모든 것들이 악몽이라. 비록 그것이 달콤한 꿈일지라도 말이다. 그대가 떠올리는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바로 하쉬무스의 모습이니 숨기고 감추어라.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 그것이 당신의 두려움을 좀먹는 순간에 그대는 산 것도 죽은것도 아니게 될 따름이로다. 혹독한 현실에 눈을 뜨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달콤한 꿈을 꿀 것인가? 물론 어느쪽에도 기대하는 빛은 없고 그저 안락한 어둠의 요람에 몸을 맡기고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라.’

『 에덴폴 전체 시나리오 』

시점 - Unreliable narrator

- 우주의 굴레가 움직이며 공허속에서 창조주가 눈을 뜨며 테르베르낙, 천지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 창조주는 자의식을 가지며 변칙성을 띄고있는 기적의 별인 이데아와 그곳에 살게할 자신의 형상을 딴 이바와 아다무스를 낳음.
- 이바와 아다무스가 죄악의 돌을 조우하고 죄악의 돌과 접촉 후에 세상에 죄악이 흩어진다.
- 죄악의 돌이 흩어진 곳에서 릴리트가 태어나고 다시 그 장소를 방문했던 아다무스는 릴리트와 간통한다.
-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이들 아벨, 카인, 세트가 이 땅에 선다.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그의 아이들은 갈라서게 된다.
- 카인은 아벨을 죽인 뒤 잠적하고 세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
- 제 1차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고 피와 살이 이데아에 흩뿌려진다.
- 창조주 에르아가 붉게 물들어가는 이데아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떨어뜨린 눈물이 대홍수와 재앙을 불러온다.
- 엉망이 되어버린 시험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한 오만함을 가진 세트와 그의 후예를 향해 저주를 내렸고 그 저주는 세트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병들게 한다.

- 종언 이후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남아 이데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게 된 서른의 존재들이 뒤섞인다. 그 후로 수세기의 시간이 흘렀고, 숨막히는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 아벨의 현신이 축복의 성배로 인하야 다시금 이데아에 강림하게 된다.
- 하지만 구원은 대가를 요구했고 그 힘을 채 담지 못해 아벨의 현신과 그 광휘로 말미암마 구원의 빛은 많은 이들의 눈을 멀게하면서 제 2차 영원의 전쟁에 돌입한다.
- 그러나 아벨과 구원의 빛은 충복의 성배에 담긴 죄책감으로 인하여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해 이 땅에 강림한 아벨의 영혼은 그를 따르는 목동들에 의해 두번째의 죽음을 맞이한다.
- 아벨과 카인의 충돌하며 내는 기운은 세트의 심장에 스며들며 그를 깨웠고 다시금 이 땅을 전율케하며 이데아를 상처 입힌다.
- 그의 희미한 심장소리는 살아있는 모든 이의 생명을 갈구하는 단계에 이르러 더 많은 공양을 원하였으니 제 3차 영원의 전쟁의 불씨가 된다.
- 그 고동은 회의감에 든 세트의 자손들에 의해 멈추게 된다. 세트를 옥죄던 저주의 사슬이 바스러지며 그 역시 숨을 거둔다. 훗날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라고 부르게 된다.

- 카인의 핏줄은 진홍의 낙원을 위해 죄악의 어미를 재구축하여 붉은 낙원을 일으키며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 제 4차 영원의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
- 핏빛 낙원 속에서 그들의 카인의 핏줄 안에 잠대된 죄악이 더욱이 증폭되어 아벨의 자손이나 세트의 후예 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모든 존재에 위협이 될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 진홍의 새벽 뒤에 펼쳐진 핏빛 낙원이 불러온 더럽고 혼탁함이 아름다운 이데아를 뒤덮자 에르아는 다시금 비탄에 빠지게되며 분노와 절규를 참지 못하며 백탁의 눈물을 쏟아낸다.
- 그녀의 눈물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이데아에 떨어지고, 그녀의 군대가 이데아에 강림한다. 이 사건을 후에 이르러 존재를 지워버리는 에르아의 눈물이라는 뜻의 ‘에르아디마’라고 불렀다. 이는 초기의 소툼과 골노랏을 가히 능가하는 이례적인 파괴력을 지니고있는 재앙 그 자체였다.
- 변칙성이라는 기적으로 빚어낸 이데아에 본인은 직접적인 개입을 원치 않았지만, 에르아의 눈물로 태어난 이계의 존재들은 본능적으로 이데아를 사는 존재들을 보고 이들을 폐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며 제 5차 영원의 전쟁이 발발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 학살에 대한 항쟁이기도 했다.
- 서른의 가지는 저마다의 힘으로 에르아의 군세를 몰아내게 된다. 잔존하는 에르아의 눈물은 이데아에 내린 진홍의 새벽을 마침내

잠재웠으나, 이들의 영향으로 이데아는 더욱 기괴한 빛깔을 내기 시작했다.

- 진홍의 새벽을 잠재울만큼 위력적인 에르아의 군세 앞에 지쳐 포기하던 자들 앞에 이바와 아다무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몸을 부수어 이데아를 덮고 자신의 아이들을 감싸기 시작했고 더 없이 불어나는 에르아의 군세를 정화시키기에 이르렀으니 다시 이데아는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다.
- 오랜 시간 변칙성의 기적을 지닌 이데아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분쟁과 혈투만을 낳게되자 진저리를 내던 에르아는 마침내 등을 돌리게 된다.
- 창조주조차 이데아를 사는 그 누구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창조주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자신의 조물주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당당하게 자리한 그 땅을 훗날 무수한 테르벨을 딛고 그 위에 숨을 쉬는 이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이데아를 신에게 버려진 땅이라 부를 수 없었다.
- 이데아는 본디 그러했다. 배경만 달리할 뿐 처음부터 죽고 죽이는 그 굴레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것 때문에 이데아가 테르베르낙 이후에 가장 밝고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다.
- 그러하기에 이데아에 남겨진 서른의 가지는 저마다의 형태를 유지한 채 다시금 삶을 이어나갈 것이다. 어느 하나 달라지지 않는

다. 낙원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피를 흘려서 얻어낸 값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 이 후, 낙원은 수많은 전쟁과 살육으로 추락하는 듯 보였지만 그 흔적은 끝을 맺음과 동시에 다른 세대로 이어지며 굴레는 다시금 움직인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조용히 이바와 아다무스가 품은 그 빛깔 그대로였다.

『 1막. 구원의 빛 』

— 국가별 세부 스토리 —

『 아벨의 자손 』

상투스

여명 - 공식적으로 상투스의 사제직에서 제명당한 뒤 변방으로 물러남.

부흥 - 신앙에 대한 의심을 시작으로 반발감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전성 -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맥으로 상투스에 대항함.

황혼 - 근데 현타와서 그림자와 함께 모든 구원을 이해하고자 함.

이르메스

여명 - 죄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재앙의 싹을 틔우게 된다.

부흥 - 재앙의 싹은 복수의 화신이되어 이르메스의 법관이 되었음.

전성 - 지속된 공포 정치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꾀함.

황혼 - 불안한 침묵속에서 광란의 새장이 다시금 벌어진다.

마르나크

여명 - 다수의 시체가 한번에 증발한 사건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게 됨.

부흥 - 원인을 알고 정부에 개빡쳐서 개조 인간의 제작에 손을 댐.

전성 - 개인 군사력의 보유로 국가 반역죄에 몰리며 내전이 발발한다.

황혼 - 휴전에 돌입한 뒤로 잃은 것이 너무 많아 재기에 힘을 쏟음.

발루

여명 - 성인식을 끝마치고 상투스와의 회담을 향한 여정을 준비한다.

부흥 - 상투스에 당도하여 불경한 것들이 많아진 원인규명을 요구한다.

전성 - 아벨의 현신이 남긴 재앙의 흔적을 따라 그를 섬멸하고자 함.

황혼 - 죽은 아벨의 현신에게서 얻어낸 수확으로 재앙의 자리에 오름.

피오르

여명 - 은밀한 의식을 진행하고 부서진 정신을 지닌채 둥지를 떠남.

부흥 - 친구의 직감을 따르며 하얀악마를 조우하며 친구를 사귐.

전성 - 인형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죄악과 충돌함.

황혼 - 머릿속의 균열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림자의 땅으로 향함.

에두예르

여명 - 성처녀의 죽음과 계시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전도의 길에 오름.

부흥 - 인내의 미덕으로 죄악의 칼날이 향하고 있음을 상투스에 전달.

전성 - 분노의 죄악과 충돌하는 가운데 분노와 인내 사이에서 갈등함.

황혼 - 시련에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도하는 삶을 이어나간다.

퀴나즈

여명 - 아르카나 중독 해결을 위한 접선을 주도함.

부흥 - 모샤에트와 정상회담 이후 아벨의 거짓된 빛에 대항하기로 함.

전성 - 대자연의 은혜를 입고 본격적으로 빛의 군대와 충돌하게 된다.

황혼 - 자매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손에 얻지만 분파가 나뉘어짐.

아라샨

여명 - 아룬 모라의 말라버린 젖줄을 되살리기 위해 퀴나즈로 향한다.

부흥 - 아르카나는 물론 다름과 이해의 과정을 겪어나가게 됨.

전성 - 수많은 깨우침으로 퀴나즈와 손잡고 아르카나의 원천을 얻음.

황혼 - 죄악의 살점으로 아룬 모라의 말라버린 젖줄을 연다.

베르생

여명 - 딸의 희생을 차마 견디지 못해 함께 베르생의 품을 떠나게 됨.

부흥 - 희생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기 시작함.

전성 - 구원의 낙인을 끌어안은 딸이 이용당하는 것에 분노함.

황혼 - 천상의 형상과 완전히 융화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려 노력한다.

카라하스

여명 - 공허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공허의 부산물들에게 쫓기게 된다.

부흥 - 자신을 제물로 삼아 공허에 발을 들여 그것들을 길들이기 시작.

전성 - 아벨의 현신과 정면으로 조우하며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됨.

황혼 - 공허에 취하지않고 고향으로 귀환하며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움.

라구엘

여명 - 들개와 조우하고나서 의심하며 개인지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부흥 - 군체의식에서 벗어난 또다른 존재를 만나 자아를 갖추게 된다.

전성 - 라구엘의 순례를 멈추기위해서 고개숙이며 홀로 고군분투한다.

황혼 - 일락시움의 완벽한 해석을 마치고 경고하기 위한 순례를 시작.

아그발

여명 - 출신성분 때문에 부서활동지가 변경되어 무리가 흩어지게 된다.

부흥 - 잡화점과 유통업을 하면서 관계를 다지고 더 높은 이상을 꾀함.

전성 - 추진력과 처세술을 기반으로 시궁창 여왕으로 군림하게 된다.

황혼 - 아그발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중립국가임을 선포하게 된다.

세사도르

여명 - 대감의 대업을 위해서 섞이어진 혼백의 자취를 밟기 시작한다.

부흥 - 서로 원하는 것을 위해 섞이어진 자들과 동행하고 교류한다.

전성 - 대감이 숨겨진 진의를 내보이지만 귀멸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

황혼 - 섞이어진 것의 혼을 찢어내며 혼백의 전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

윌츠

여명 - 인체구축을 위한 자본금을 끌어당기기 위한 개발무기의 시연.

부흥 - 생산업체를 인수합병하고 매각한뒤로 인체구축에 박차를 가함.

전성 - 베르생과 마르나크와 협업하며 마침내 인체의 구축에 성공한다.

황혼 - 도덕적 관념과 충돌하는 가운데 개조인간이 눈을 뜨며 활보함.

라파르

여명 - 변종의 유전인자에 노출되어 돌연변이 증상을 보이게 된다.

부흥 - 격리된 병동에서 돌연변이 세포와 완전히 동화 및 신원위조.

전성 - 인체실험장을 벗어나 형태의 원복을 위해 쟈토움을 찾아간다.

황혼 - 원상복귀에는 실패하지만 초월혈청 개발 및 유통의 초석이 됨.

『 카인의 핏줄 』

샤마인

여명 - 순수한 피의 수집과 바래진 탁한 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부흥 - 오만의 군주 브리쿨의 축복으로 피의 연회가 시작됨을 알린다.

전성 - 핏빛의 잔 아우렐라를 머금은 브리쿨이 상투스와 충돌하게 됨.

황혼 - 아벨의 현신이 남긴 바래진 빛의 조각을 긁어모아 육신을 구축.

네크타라

여명 - 순수한 육신을 탐하던 중 태초의 피를 둘러싼 계획을 준비한다.

부흥 - 카르밀라의 육신을 뒤집어쓰며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

전성 - 새로운 육신으로 강해졌으나 기억의 충돌로 허무에 빠지게 됨.

황혼 - 진실된 나태의 죄악에 눈을 뜨면서 더욱 많은 시체를 탐한다.

타다마드

여명 - 침묵하는 영혼의 흔적중 하나를 밟기 위해서 여정의 길에 오름.

부흥 - 수많은 영혼을 하나로 응집하여 안정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전성 - 아벨의 현신이 무너진 자리에 남겨진 영혼의 잔해들을 수집함.

황혼 - 흩어지는 영혼을 피뢰침에 심어두어 그것이 자유로이 흐르게함.

세르샤

여명 - 길어진 빚을 잠재우기 위해서 분노를 감추고 상투스로 향한다.

부흥 - 퇴출당한 상투스의 사제와 조우한 뒤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냄.

전성 - 강림한 아벨의 현신이 무너져도 분노하는 원인을 찾아 떠난다.

황혼 - 아벨의 자손에 물든 거짓된 믿음을 부수는데 힘쓴다.

샤토윰

여명 - 핏덩이를 찢고나와 극심한 허기와 향기에 이끌려 몸을 움직임.

부흥 - 수많은 퀴나즈들을 삼키고 그들과 충돌하면서 변이를 겪게된다.

전성 - 변이 뒤에 이실그라드를 한입 베어물고는 더욱 큰 허기에 빠짐.

황혼 - 피아구분없는 광란의 폭식은 돌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게 됨.

베르체

여명 - 인형극에 질린 질투의 죄악을 찾아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눈다.

부흥 - 위험을 감수하고 질에게 카르밀라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알림.

전성 - 모든 질투의 죄악의 실타래가 왕가의 혈맹을 향해 뻗어나간다.

황혼 - 카르밀라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다른 존재를 보고 만감이 교차.

페라투르

여명 - 사랑하는 여인의 재활을 위해 위험한 계획에 동참하고자 한다.

부흥 - 단독으로 퀴나즈, 쟈토움과 뒤섞이며 병에 대한 실마리를 푼다.

전성 -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나들이를 나감.

황혼 - 죽은 여인을 가슴에 묻은 뒤 음욕의 죄악에 눈을 뜨기 시작.

레위앗

여명 - 뭍으로 기어나갈 계획과 골노랏의 흔적이 담긴 해도의 취득함.

부흥 - 낙원의 흔적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해상무역의 재기를 노린다.

전성 - 절박함을 인색으로 뒤틀리게 만들어 아벨의 살점을 노린다.

황혼 - 자본금과 물리력으로 찍어누른 뒤 일곱 만의 패자로 군림한다.

하쉬무스

여명 - 어린 그림자가 비대해진 빛을 잠재우려는 길에 동행하게 된다.

부흥 - 그림자는 다른 이들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분쟁을 야기시킨다.

전성 - 아락슐을 제련하기 위해서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마주함.

황혼 - 자신의 어둠에 심취한 것을 뒤로하고 더 짙은 어둠을 물색함.

『 세트의 후예 』

나즈레스

여명 - 이데아 전역에 흩어진 키욜을 긁어모으기 위한 발걸음을 한다.

부흥 - 키욜을 수집하면 할수록 대지의 울림이 더욱 거칠어짐을 느낌.

전성 - 아벨의 현신이 추락하자 대지의 고동이 세트의 심장과 동조함.

황혼 - 고동치는 대지의 울림은 돌이 된 세트의 심장을 깨우게 된다.

밀라모르

여명 - 사절단의 파견을 위해서 소수정예로 구성된 인원이 소집된다.

부흥 - 아벨의 현신이 강림해도 씻어내지 못하는 불안감을 듣게된다.

전성 - 아벨의 자손과 끊임없는 대화로 불신의 벽이 허물어진다.

황혼 - 바래진 빛을 계기로 공감과 연민을 통한 심리적 지배를 시작함.

모샤에트

여명 - 기울어진 빛과 아르카나를 품은 방문자와 조우하게 된다.

부흥 - 아르카나를 품은 이와 동행하면서 빛을 누그러뜨리게 만든다.

전성 - 퀴나즈의 강자와 손을 잡고 순환을 돌려내기 위해 내전을 벌임.

황혼 - 공동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 화친 및 공동전선을 펼치게 된다.

자르갈

여명 - 나에게 이름을 준 이의 목숨을 스스로 거두며 존재가치를 증명.

부흥 - 신수전쟁 도중 아벨의 현신을 죽이기 위해 날뛰.

전성 - 신수전쟁을 하는동안 이름에 담긴 의미를 찾기위해 싸움.

황혼 - 이름을 얻고 그것을 기리기위해 잠든 세트의 흔적을 찾아감.

울라메드

여명 - 생명의 샘이 빛을 잃어가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물색하기 시작.

부흥 - 거점을 확장하는 도중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개입하고 충돌한다.

전성 - 아벨의 현신마저 선별에서 선택받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됨.

황혼 - 아벨의 현신이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보금자리의 희망을 찾음.

조라네스

여명 - 딸을 잃고 슬퍼하며 길어진 빛의 시간에 대항하기 위해 떠난다.

부흥 - 신수전쟁에 휘말리던 도중에 광기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전성 - 길잃은 복수는 새로운 광기에 눈 뜨게 하고 이데아를 미쳐날뛰.

황혼 - 세트의 고동을 느끼고 심장을 터뜨리기 위해 광기연맹을 결성.

『 1장 요약정리. 』

— 목표의식을 위한 첫발 —

주제와 목적이 명확해야하며 방향성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함. 2장과 3장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 마련. 등장인물(주, 조연포함)들이 구체적인 목표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함.

1. 상투스 — 타인의 서로다른 형태의 구원을 이해하렀.
2. 이르메스 — 죄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바라볼것.
3. 마르나크 — 지킬것은 지키되 버릴것은 신속하게 버릴것.
4. 발루 — 낡은 명예의 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것.
5. 피오르 — 지워지지않는 아픔으로부터 되짚어볼것.
6. 에두예르 — 무엇을 위해 인내하는지 확신을 가질것.
7. 퀴나즈 — 원대한 목표를 위해 조금의 희생은 기꺼이 감당할것.
8. 아라샨 — 목표를 사냥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냥감이 될 것.
9. 베르생 —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것.
10. 카라하스 — 마녀들의 지배와 자신을 숭배할 추종자들을 모을것.
11. 라구엘 — 자아의 발현과 순례의 길에 제동을 걸어둘것.
12. 아그발 — 범죄국가 아닌 정식 국가교류 인증을 받을것.

13. 세사도르 — 귀신들린 폐악을 끊어내고 넋을 위로할것.

14. 윌츠 —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여 새 터전을 개척할것.

15. 라파르 — 기형공생에게서 생명의 실마리를 끄집어낼것.

16. 나즈레스 — 세렛의 회수하여 모든 세트의 후예를 지배할것.

17. 밀라모르 — 회유와 심도있는 교류로 닫혀진 마음을 열게할것.

18. 모샤에트 — 생명을 불어넣어 이데아의 모두에게 뿌리내릴것.

19. 자르갈 — 수많은 사투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증명할것.

20. 올라메드 — 생명의 샘을 드넓힘과 동시에 선별로 가려낼것.

21. 조라네스 — 세트의 콧대를 꺾고 늑대들을 발 아래 조아리게 할것.

22. 샤마인 — 색바란 탁한 핏방울에 담긴 숭고함을 깨우칠것.

23. 네크타라 — 카르밀라의 육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행할것.

24. 타다마드 — 길 잃은 영혼을 이해하고 처연히 보내줄것.

25. 세르샤 — 분노하되 항상 차갑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것.

26. 쟈토움 — 새로운 허기에 눈을떠 천상의 진미를 맛볼것.

27. 베르체 —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않을것.

28. 페라투르 — 소중한것이 있다면 그것이 뒤틀리더라도 품을것.

29. 레위앗 — 국교개방으로 육지의 인색한 자들을 살찌울것.

30. 하쉬무스 — 이데아를 뒤덮을 깊고 어두운 부정함을 모을것.

상투스 : 종교를 기반 국가. 믿음, 소망, 사랑 설파. 빛의 구원과 정화.

이르메스 : 정치 기반의 법치국가. 정의와 심판 그리고 질서의 유지.

마르나크 : 군사 행정국가. 군사력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

발루 : 혹한의 독립국가. 북방의 야수들. 재앙에 맞서는 용기의 증명.

피오르 : 기밀 구호국가. 주로 전쟁 포로 및 고아들의 구호 및 양성.

에두예르 : 종교 기반의 국가. 빛의 구원과 속죄. 회개 및 전도.

퀴나즈 : 아르카나라는 힘을 다루는 국가. 이실그라드의 수호와 정화.

아라샨 : 극열사막의 독립국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수행과 중용.

베르생 : 신성과 아르카나 융합국가. 동정과 연민. 희생을 통한 구원.

카르탈란 : 공허를 숭배하는 국가. 불신, 절망, 혐오의 전파와 복수.

라구엘 : 미지의 독립국가. 창조주의 재림과 재구축. 개종과 순례.

아그발 : 자유 및 유흥의 위험국가. 반 아벨론. 국가 구조개혁 및 전복.

세사도르 : 동방의 독립국. 불경한 것들의 성불. 균형의 수호와 공존.

윌츠 : 종합과학의 독립국. 기술의 발전과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

라파르 : 의료기반의 독립국. 의학연구 및 의료 수준의 발달과 향상.

상투스(의심), 이르메스(오판), 마르나크(후유증), 발루(나약함), 피오르(향수), 에두예르(악몽), 퀴나즈(중독), 아라샨(분노), 베르생(냉담), 카르탈란(승천), 라구엘(자아발현), 벌만(배신), 세사도르(부조화), 윌츠(완벽의 추구), 라파르(허무함)

카에람 : 카르밀라가 창설. 방황하는 카인의 핏줄을 거두기 위한 성.
샤마인 : 브리쿨이 창설. 교만의 죄악을 짊어졌으며, 피를 자유자재로 다룬다. 죄악의 돌의 재건과 진홍의 새벽과 붉은 낙원을 고대한다.
네크타라 : 데보라가 창설. 나태의 죄악을 짊어졌으며, 육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육체의 완벽한 이해와 탐구가 목적이다.
타다마드 : 네르가가 창설. 칠죄악을 짊어진 자로, 영혼을 다루는 것으로 죄악의 이해, 영혼의 안정과 육신의 유지를 위해 살아간다.
세르샤 : 헤르실라가 창설. 분노의 죄악을 짊어졌으며, 몸에 담긴 은을 부릴 수 있다. 불경한 존재들의 완전한 소멸과 복수만을 원한다.
쟈토윰 : 게르사라가 창설. 탐식의 죄악을 짊어진 자로써, 모든 것을 삼키는 아가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온갖 만찬의 향유를 원한다.
아가벨 : 질이 창설. 질투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로써 사랑과 관심의 독점을 원하며, 이데아를 자신들만의 꿈의 동산으로 만들고자 한다.
페라투르 : 헤이렐이 창설. 음욕의 죄악을 짊어졌으며, 완벽한 육체적 교감을 위한 음욕의 낙원의 건설을 위해 정수를 탐하고 있다.
레위앗 : 아르토사가 창설. 인색의 죄악을 짊어졌으며 심해를 걷는 존재이다. 이데아 뿐만 아니라 창조주까지 자신의 손에 넣기를 원한다.
하쉬무스 : 제라스가 창설. 무욕의 그림자로써 어둠이나 공포, 그림자를 다룬다. 오랜동안 악몽을 낳을 영원한 밤의 도래를 꿈꾼다.

『 죄악과 주선의 분쟁구도 』

키리에타(7선의 미덕) ㅡ 아벨론 ㅡ 카르밀라(태초의 피)

마비오나(겸손의 미덕) ㅡ 상투스 ㅡ 샤마인(교만의 죄악)

세르파(자선의 미덕) ㅡ 이르메스 ㅡ 레위앗(인색의 죄악)

크라테르(근면의 미덕) ㅡ 마그나크 ㅡ 네크타르(나태의 죄악)

레비에(친절의 미덕) ㅡ 피오르/벌만 ㅡ 베르체(질투의 죄악)

피오라(인내의 미덕) ㅡ 에두에르 ㅡ 세르샤(분노의 죄악)

이르기스(절제의 미덕) ㅡ 퀴나즈 ㅡ 쟈토움(탐식의 죄악)

파라크(순결의 미덕) ㅡ 베르생/카르탈란 ㅡ 페라투르(음욕의 죄악)

세라하(상투스 마지막 교황)

어떠한 특출난 미덕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아홉의 교황들 중에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에 의해 칭송받은 교황으로 알려져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며 포용력이 넓을 뿐만 아니라 쉼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존속에 대해 수세기동안 논란이 있었던 장벽내 잔존하는 퀼로른 길드의 마이스터의 집단을 인정하며 이들의 영향력과 아벨의 자손에게 기여한 공헌을 높이 샀다. 독립의 국가임을 선포한 윌츠와 라파르라는 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인증을 한 교황이었다. 나머지 세력인 발루(혹한의 추위), 아라샨(극심한 더위) 벌만(반 아벨론) 라 구웨(순례자), 세사도르(동

방의 국가) 같이 지리적, 이념적인 이유로 아벨의 장벽 밖에 위치한 존재들은 이미 독자적인 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세트의 후손들은 만월 은빛의 모습을 하고있는 태곳적 신수의 포용을 받아들이며 본능이라는 것을 우선시하였기에 죄악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알려져있음. 이러한 연유로 세트의 후예들이 직접적으로 죄악과 충돌하거나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아벨과 카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부분 크고작은 사건속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짐.

나즈레스 : 정통적 역사의 교정과 재정립을 위한 기반과 야욕을 보임.
밀라모르 : 분쟁의 씨앗이 되는곳에서 화합을 꿈꾸며 이를 전파함.
모샤에트 : 아르카나와 어머니 이데아의 생명을 환수하기 위해 싸움.
자르갈 : 오만과 허세가 아닌 압도적인 무력으로 여러 세력과 충돌함.
울라론 : 자신이 생명의 샘으로 거듭하여 탄생한 초월적 존재로 인지.
조라네스 : 복수와 냉정함 그리고 평생 광기를 끌어안으며 살아감.

나즈레스 : 역사를 기반으로 명예와 전통을 계승. 근본과 역사의 지배.
밀라모르 : 대화와 교류를 통한 마음으로부터의 호소. 공감과 교감.
모샤에트 : 생명의 순환과 고리에 속한 순간 이미 지배하고 있었다.
자르갈 : 살육을 통한 압도적인 힘의 통치, 억압과 공포의 지배.
울라메드 : 고통의 감내와 선별. 간택받은 자들로부터의 지배.

조라네스 : 모든것을 수용하고 품을 줄 아는 모성애. 어미의 지배.

나즈레스 : 축복받은 광석 키율의 빛과 믿음으로 광기를 억누른다.

밀라모르 : 독자적인 깊은 대화법 레올로 서로를 잃지 않도록 한다.

모샤에트 : 깊이 뿌리내린 이데아와 동화하여 광기에 잠식되지 않는다.

자르가 : 스스로 자아를 잃고 광기에 빠지지만 그것을 즐거워한다.

울라론 : 생명과 죽음의 샘을 마심으로써 광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

조라네스 : 광기를 직접 마주하면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사선을 본다.

『 프롤로그 주석 』

아벨은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과 성실을 주었고 카인은 그의 핏줄들에게 유흥과 쾌락을 주었으며 세트는 그의 후예로부터 압도적인 체급과 기만한 예지력을 나누었습니다. 카인은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영토를 넓히어 갔었던 반면에 아벨은 그가 자리잡는 동안에도 목동처럼 그들의 후대를 거느리고 한참을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준 카인에게 이제껏 느껴보지 못하였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혹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괴감이었을까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겠지요. 비단 세트만이 이들 형제들에게 열등감을 보였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벨은 세트에 비해 그 감정을 잘 숨기며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동안 묵혀온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채 공격성을 띄게 됩니다. 그러나 이데아에 시험에 단연코 으뜸이 되길 원하던 아벨은 카인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발시아(육체와 살 이라는 뜻으로 다시말해 훗날 총체적으로 훗날 인간이라고 부르는 고대 이데아의 용어)가 저지른 최초의 죄였습니다. 때문에 카인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보여줄만한 결과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게 카인은 일정한 주기마다 올려야할 의식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카인은 그의 핏줄들을 불길로부터 거두며 의식을 억지로 거행하거나 그것에 대한 뒷수습보다 그의 핏줄을 우선으로 더이상의 화마에 덮히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아벨은 이 모든

것이 그리 되리라 예상하였고 그것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카인이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목동인 아벨에게는 지금이 기회라 여기었습니다. 그는 그가 몰던 염소나 가축을 제단에 올렸으나,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매 나중에 이르러서는 그의 자손을 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로 바쳐진 자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창조주와 이바와 아다무스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마음이 더욱 깊었기에 기꺼이 제단에 스스로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아벨의 제안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의식에 필요한 톱니바퀴가 되었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은 이바와 아다무스를 비롯한 창조주께 올리는 의식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것은 아벨의 '굳건한 믿음, 피와 영혼의 의식'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발시아로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만한 만행이 자행되는 아벨의 병폐를 인지하지 못한 이바와 아다무스를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이르러서는 창조주에 대한 마음마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정한 피조물을 빚은 망가진 창조주라 여기었습니다. 이는 세트도 마찬가지여서 창조주마저 죽기를 바랬지만 세트는 창조주의 죽음마저 넘어 그는 신이 되고자 했고, 아마 카인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분명 이를 깊이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카인은 더이상 신에 미쳐 피의 제사 같은 짓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신의 존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감정

이 든 것도 이때부터이며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은 필요없다고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그들에게만 의지하려 하는 불안정하며 의지박약의 존재를 낳은 것이라 치부하였습니다.
카인의 말에 다른 발시아들이 손가락질하며 그를 책망하기를 정신적인 고통과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몸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나중에 이르러 신을 분명 찾기 되리라는 다른 이들의 말에 카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발시아가 가지고 있다. 그대들의 신께서 그러하시었듯 믿음과 소랑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그대들의 안에 신이 깃들도록 하라.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라. 그리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에게 손을 뻗으라 필요한 모든 것은 발시아의 손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일은 없을지어다. 신에게 헌신하기 전 자신에게 헌신하라 그리고 신을 섬기기 이전에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섬기라. 그리하다면 그들도 너에게 네가 행한만큼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추상적인 존재보다 누구보다 그대의 바로 곁에 발시아를 두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만큼 카인은 이성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초현실 주의였습니다.
반면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트는 미숙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후대를 점지하지조차 못하는 그 모습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그를 가까이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시험을 내렸을 때만 해도 신에게 다가가려는 교만이 이미 하늘을 찔렀고 차마 자신들의 피를 물려받

은 존재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웠나 봅니다. 심지어는 아벨이 죽은후에 세트에게 아벨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데아를 살으라 말하지만, 그도 미숙아이긴하나 대체할 수 없는 엄연한 하나의 개체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으며, 그 역시 다른 이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미숙아라고는 하나 그는 세트입니다. 미미한 존재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길마저 받지 못한 자이나, 그들은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서 새로운 신으로 군림할 것을 다짐하고 각성하게 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분명하나 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가리어진 역사가 되어버렸고 역사에 해박했던 세트는 이를 이용하여 신과 연관된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이땅에 쓰여진 신의 역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 쓸 것입니다.

전언.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심판이 두려워 회개를 멈추어서는 아니되노라. 너도 나의 아이이니 내가 그러하였듯이 너희도 그리 할 것이리라. 죄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회개를 멈춘다면, 그것은 너에게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와 너의 심장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 그 심장을 움켜쥘 것이니라.

『 상투스 시나리오 』

그 본능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야 마땅한 것이지 그것을 다그치는 것에 무게를 실어서는 아니된다. 순결의 파라크 수치.

아벨의 현신에게 고하는 상투스 사제의 결의

아벨이 강림하고 나서 빛으로 절망하는 이들. 지옥은 우리들 앞에 도래할지니 빛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죄와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라. 네가 저지른 죄악을 부정한다면 희망마저 너를 부정하게 되리라. 죄를 짓는 것도 그 죄를 사하는 것도 발시아, 인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데 더이상 신의 자리는 없으니 서로를 보듬는 것도 우리요 그들의 목숨을 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염두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무엇보다 우선시 되야 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에 대한 찬가이다.

이즈엘 일리가 - 해를 끼치지 않는 불경한 존재의 가슴을 뜯어 면죄의 두루마리를 넣은 자. 구원에 미친자라는 기록까지 있을정도로 같은 상투스의 사제조차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구원은 받는 이가 그것을 느끼고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지 감히 그것을 선사하는 것이 아닐지니 오만을 부리지 말지어다.

시르지아 공방의 슬픔

시르지아의 공방의 소년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음. 그것을 가리기 위해 당시 죄악시한 자살로 치부하였음. 그러나, 얼마 뒤 소년을 닮은 형체가 다른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부모의 말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됨. 부모의 목은 떨어졌고 소년의 무덤을 꺼내어 그의 넋을 위로하는 세례를 하사자 그 뒤로 그의 영혼은 나타나지 않음.

『 이르메스 시나리오 』

이르메스 - 심판의 망설임

저들은 아벨론 안에서 서로 우아하며 절제된 모습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행여 저들 사이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라도 했다가 뒤쳐질 따름이니, 신성한 자리 안에서 저들끼리 무리가 나뉘어지며 파벌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 앞길을 막는 자들이라면 빛에 봉사하며 희망을 품던 이들마저 한순간에 나락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저들에게 가해지는 고문과 고통은 정도를 넘어서 피의 복수라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노라. 상투스는 보호의 목적으로 피의 복수를 벌이고 있으나 사실은 그저 폭력의 쾌락을 맛본 것이라. 고문으로 몸과 영혼까지 베이고 찢기며 불타고 얼어죽을 지경에 다다르게 되었으니, 자, 이제 누가 마녀인가? 빛에 대한 미친 신념을 바치는 저자들이 무고한 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벨론의 의지였는가? 고문을 하는동안 자문하는 자들 속에서 온갖 죄악의 소용돌이가 요동치게 되는도다.

교화가 불가능하거나 죽어 마땅한 놈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마녀사냥을 원하는 놈들은 그저 오락과 감정을 이입해서 그저 의미없는 호소를 부르짖는 것 뿐이지않나. 그동안 잉퀴라피움의 법이 쌓아올린 역사를 보고도 그딴 무지한 소리를 뱉는거라면 당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놈을 마녀로 몰아 광장에 산채로 불을 질러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 마녀가 아닌데요? 그러냐? 그걸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멍청하긴. 그딴 생각을 하고 있는 네놈들은 마녀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행정업무 차 관내 순찰을

겸하여 이르메스 영내 관할 도시를

흐릿해진 주관과

주관은 뚜렷하다.

그것들의 말로가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기에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언제라도 무너뜨릴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아까워서 발악하는 것 뿐이니 그만두거라. 이제와서 저들이 발버둥 쳐봐야 얻는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어도 될거다.”

“그렇지만 언젠가 저들의 입김이 남아 선동된 이들에게 불씨를 지필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진 않겠지만 그럼 적어도 자신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이 되었다면 스스로 내려올 강단은 있으셨어야지.”

나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퍼지자 법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 주위에서 물러났다.

나는 기어이 대법원 광장 한가운데 피를 뿌렸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다. 나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크게 외쳤다.

“반란분자들은 그만 무기를 거두고 농성을 멈추라.”

“그대라고 다를 것 같은가? 이건 꽤 달콤하거든.”

“알고있다. 나는 다를것이라 생각해본적 없다. 네놈들이 그랬듯이 당연하게도 나 역시 그것을 쥐고 흔들것이다.”

“마녀사냥은 끝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의를 사칭한 장난질은 정말이지 눈 뜨고 봐 줄 수 없을 정도로 역하군.”

“고작 균형을 수호한다는 핑계로 몰락할 생각이냐?”

“미쳤나보군. 법에 융통성을 바라는거냐?”

“듣고보니 없는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보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유감이네. 그대들이 제복을 걸치고 시시덕 거리면서 시간을 내다 버린동안 법과 규범은 몇보나 퇴보하였으니.”

“줏대없는 판결은 혼란만을 야기시킬거다.”
“법은 전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가는것이 옳다.”

“알다마다. 융통성이 가지고있는 미덕은 달콤하지. 그러나 오래 지나지않아 자기합리화로 변질되어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울것이기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나.”
“여전히 나를 가르치려는게요? 대법관.”

“원칙주의자인 너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황당할 따름이군.”

자네는 나보다 더 많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태운 인물로 역사가 기록할걸세.”

행정업무가 마르지않는 대법원의 풍경은 항상 분주하다. 원래 그랬어야 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무겁고 신중해야만 했던 정의와 심판은 그저 오락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것을 뿌리 뽑기위한 첫발이 유난히도 길었다. 정의라는 형태는 주관적이기에 기호의 영역이지만 법과 규범은 그렇지않다. 타인의 정의가 나에겐

야만 했던 법의 판결은 그저 오락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하지만 변화를 아는이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딱 그 정도가 좋다.

그저 높은곳에 서서 판결을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겼던 법관들의 목이 떨어지자 비로소 제대로된 읍소를 귀에 담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한낱 오락거리에 불과했던 배심원단은 오래전에 갈아치웠다.

혹은 거리감이 있는 대법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어 소통의 창구로 발돋움 한 것도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전락을 해버린 법원을 열어두어

“바르샤딘은 그대로 두실겁니까?”

“썩어빠진 것들은 제멋대로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법에 펜을 휘둘러 댄 것들이지 저런 돌덩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이르메스의 근간을 바꿀 생각은 없으니 그대로 둬.”
“예! 알겠습니다.”

골자

이르메스의 근간까지 바꿀 생각은 없다. 애초에 저것들이 있었으니까 미쳐 날뛰지 못하고 저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간신히 치안을 유지해 온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도 털끝하나라도 손대지말고 유지시키라고 신신당부 해둬라.”
“알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내 그대들을 이해하오.”
조용한 그의 말이 텅 빈 사형대 주위를 가득 메웠다. 집행인들의 표정

이 조금 흔들리는것이 느껴졌다. 수많은 수감자들의 집행을 처리하면서 이렇게나 초연했던 이는 헤아릴 정도였다.

네놈들의 심판에는 망설임이 있다.

네놈들은 단 한번도 오판의 무거움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으니 알 길이 있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러하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수 있는것은 아니다. 법이 모두의 편의를 위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를 느낄 수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격차를 굳이 줄일 이유는 없다. 법이라는것은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균형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황혼 - 불안한 침묵속에서 광란의 새장이 다시금 벌어지게 된다.

광란의 새장을 다시 연다. 그러나 그 새장은 가릴것없이 죄지은 자 모두에게 쳐질 것이다.

『 선택 』

“선택할 수 있었어.”

“그건 마치 내게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군. 아니 사회는 나에게 그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네놈이 미쳐서 날뛰라고 강요한적도 없지 않나?”

기차역 검문소에서 나를 잡아둔다.

“아그발로 가시는군요? 어떤 용무로 가시는지요?”

“자치구역 확대.”

“확인했습니다. 결제 승인이 거부 되었습니다.”

“역시 그런가? 이유는?”

“영원의 전쟁 이후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 조약된 조약에 따라 타 국가의 식민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행위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행정자치기관 수립과 국가 저변 확대사업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대외정책을 위한 법안부터 갈아 치우는 편이 좋겠군. 정말이지 이것

들은 심판을 놀이처럼 즐기고 정작 한것은 아무것도 없구만.”

“그렇다면 아그발령 사업 승인 동의서가 있나요?”

“호오? 동의서까지?”

나는 입가에 뒤틀린 미소를 보이자 ㅁㅁㅁ는 그 모습을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며 내게 되물었다.

“지젤 슈나우트 법관님. 지금 하시려는 일은 불법 정도가 아니라 외교전쟁을 벌이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국가의 반발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으신 겁니까?”

“제약과 계약 그리고 동의서까지 아주 훌륭하다. 자신들을 지키려 그런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낸건 훌륭하다고 칭찬해 줄 만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목을 죌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나보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애초에 그것들을 만들어낸 것 자체가 자승자박이다. 실수했군.”

결의안

공명정대

법의 융통성

숄츠 슈바이츠

“맞는 말이지만 이르메스의 모두가 바르샤딘 법률의 비호 아래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무정부를 원하는거냐?

“하! 내 이럴줄 알았다, 범죄자년.”

『 마르나크 시나리오 』

싸움은 분노나 증오로 하는것이 아니야 철저하게 상대를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거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마라. By. 군인 아조시. 복수로 이루어낸 평화위에 선 영웅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전쟁은 전장으로 나가는 길은 보여주지만 집으로 가는 길은 보여주지 않더라.”

추적거리는 빗줄기 사이로 그림자 여럿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자 조쉬는 초소 구석에서 찌그러져 졸고 있는 깁슨을 군화발로 툭툭 차며 그를 다급히 깨웠다.
“깁슨! 일어나, 등신아! 언제까지 쳐 잘거야?”
어느새 다가온 그림자는 불쏙 우리 초소 앞까지 다다랐고 고요마저 잠들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우리를 맞이하였다.
“잘 잤나, 깁슨?”
근무 인솔자인 콜다트 선임하사가 초소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깁슨에게 묻자 그는 기지개를 활짝 펴며 대답했다.
“빗소리 말고는 쥐죽은듯이 조용합니다. 보이는 거라곤 빗줄기가 다고 그 외에는 별 다른 움직임도 없어서 소름끼치도록 고요하다고요.”
콜다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깨에 고정시킨 갑에서 담배를 꺼내어 깁슨과 조쉬에게 하나씩 던져주더니 불을 붙여주었다.
“상부에서는 뭐랍니까?”
“현 위치 대기.”
“씨발!”
“콜 선임하사님, 저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건 지금 우리는 의미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거야. 교전을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 여기서 죽는건 개죽음이야.”
“그게 상관으로서 할 말입니까?”
깁스가 키득거리며 담배를 구겨끄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나도 지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어쩌겠냐 우리는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지. 일단은 군인이니까.”

“뭐라고 했어?”

“뭐?”

“저 새끼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몰라, 씨발. 알게뭐야.”

“총까지 버리고 손까지 들어 무장해제 의사표시를 한 이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했냐고?”

“왜? 아주 씨발 차라도 대접하고 다과회라도 열어주지?”

“중요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캐낼 기회가 있었으면 어쩔건데?”

“중요한 정보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너는 뭐 아는거라도 있어? 전선에 선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전쟁의 판도가 바뀔거라 생각하는거야? 우리는 그저 최악의 시기에 최악의 장소에 있었을 뿐이야. 전장에서 네놈에게 총과 칼을 겨눈 이에게 대화를 바라지 마.”

“개소리들 하지말고 무전이나 때려. 요충지 점거 완료했다고.”

“전쟁을 위해 태어나지도 군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럼 저건 뭔데? 전쟁에 승리해도 그것에 영광이 있을것 같나?”

“뭔 소리야 전쟁에 패배하고나면 뭐라도 남아있기는 할 것 같냐고. 애초에 이딴 개소리나 늘여놓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전선에 필요한

것은 철학적인 헛소리를 씨부려대는 것보다 사지 멀쩡히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인적자원이다.”

“단 한번도 살 생각으로 전장에 임한 적 없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임해왔다.”

“마르나크의 군인 정신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단단히 미쳐버렸구나, 네놈은. 전장이 그렇게나 네놈을 무디게 만든거겠지.”

“틀렸다. 난 단 한번도 마르나크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있지않고 그런것 따위 어찌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겹도록 받은 명령이기도 하지. 우리들이 죽으면 더 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오직 바라는 것은 아벨의 안녕. 우리는 그것만을 위한 방패로다.”

“마르나크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목숨을 불사르겠습니다.”

“어, 그러지 않아도 돼. 살 수만 있다면 마르나크의 휘장은 내팽개치고 죽음힘을 다해서 살아남아라.”

죽지마라. 네놈의 죽음이야 말로 아벨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안과 위협이다.

『 발루 시나리오 』

신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에 살아왔지. 자신 안에 어떤 색의 피가 흐르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찌 감히 피와 살이 낭자하는 시대를 살아온 자들의 질긴 생명을 거둘 수 있겠는가? 건방지기 짝이없도다. 모조리 죽여주마.

지배하는 이가 없는 땅이 어찌되는지 아는가? 오직 혼란뿐이다.
개인을 위해서 제도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과연 국가라는 이름을 짊어질 자격이 있는 것인가? 내가 힘이고 내가 법이다. 무너지고 있다면 재앙이라 불릴만큼의 힘은 없었는지 그 잘난 머리통을 잘 굴려봐라.

『 라구엘 시나리오 』
“고작 조금 다른 몸뚱이로 변모한 것으로 그녀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마라. 창조주 에르아께서는 순례하는 자들 이외에는 누구 하나 굽어살필 정도로 한가하시지 않으시다.”
“그러시겠지. 너무나 바쁘신 나머지 라구엘은 물론이거니와 이데아를 살아가고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지.”
“창조주 에르아는 이데아를 관망하고 계실뿐 그것에 깊게 관여하려는 것을 꺼리신다. 더불어 라구엘의 순례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것은 그녀의 눈길이 아니라 그녀의 숨이 담긴 세계이자 찬란한 보석인 이데아에 불경한 죄악의 싹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쓰기위한 발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라니 꿈같은 소리를 하는군.

인간은 비극적인 서사보다는 영웅담을 기록하려 한다. 그것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픔을 잊고 희망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
“아벨의 자손? 아니 공허에 물든 슬픈 꼭두각시로고.”

“개랑 산 송장이구나. 송장이 짐승을 데리고 다닌다는 말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나저나 미안하게 됐어. 칼 파르다로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곳으로 잘못 발걸음을 해 버렸지 뭐야. 딱히 여기에 볼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 너희들의 말하는 위업을 방해할 생각도 없으니 시간이 채워지면 바로 떠나줄게.”

“이것 역시나 운명이리니. 마녀여, 잠시 기다리라.”
“내게 볼일이 있으신가 보군?”
나는 최대한 그것의 이목을 끌지 않은채로 떠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는 그것은 불안과 경계심이었다. 카하낫의 공허의 기운을 몰아내고 이데아를 빚어낸 에르아를 섬기는 것들에게서 당연히 느껴지는 불쾌함과 본능적인 적대감이었다.

“그대들은 라구엘을 혐오한다. 맞나?”

“내 대답에 따라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맞아. 나는 이데아에 세뇌된 저주받은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아.”

“좋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목적이 뭔데?”

“나는 이데아의 종말이라는 운명에 다름을 선사할 것이다. 결국 그대 같은 공허에 물든 창녀들처럼 씻어내야 할 것들은 차고 넘쳤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종언의 파편을 따라서 창조주의 눈물이 흐르면 그것이 마를 때까지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을거다.”

“그 그쪽이나 이쪽이나 병든 육신인것은 다를 바 없지만 멸시를 받는 라구엘이라는 이름을 한 것들보다 그쪽의 정신이 더 오염되어 있군.”

“그래, 마음대로 지껄이셔. 그런데 종말을 늦추는데 하필 마녀라는 존재가 왜 필요한거야?”

“종말의 거센 흐름을 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에 섬세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은 문 그리고 찢겨진 공간. 공허의 변두리. 종언의 파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희들의 파편들을 카하낫의 변두리에 세워놓기를 바라는거야?”

“그래.”

“내키지는 않는데 만약에 갑작스레 내 변덕으로 너의 바람대로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순례 말고는 관심조차 없어보이는 라구엘의 송장놈들이 카라하스의 이상을 이해하는 듯한 그의 말에 나는 흥미를 느껴 물음 하나를 던졌다.
“말투도 그렇고 너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송장놈들이랑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너는 뭐지? 잡종인가? 아니면 혼종이야?”

“그대가 던진 물음의 의도를 본다면 지금의‘나’라는 것은 혼종이라고 부르는것이 맞겠군. 군체의 의식에서 벗어난 망가진 개체이다. 그러나 혼란속에서도 배운적없는 자아를 찾으려 버둥대고 있지.”

“군체의 의식이라니 소름끼치네. 그거 완전 벌레잖아?”
“그 벌레조차 종말을 막으려 발버둥 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방관하는 자는 무어라 부를까? 벌레만도 못한 자 정도면 충분한가?”
“에르아에 정신이 세뇌된 이후로 알지 못할 말들만 지껄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입을 제법 놀릴 줄 아는구나, 너. 너희들이 사고라는 것을 하는 이상 위험해질 것 같으니 그냥 차라리 신념이나 자아 따위는 가지지 말고 영원히 벌레처럼 살아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
그는 손을 들고 펼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공허의 창녀여. 이데아에서 네놈이 남긴것은 무엇이지? 그대가 쌓아

온 무언가가 종말의 물길에 씻겨져 잊혀지면 그대의 발 밑에서 기는 것들은 그대의 무엇을 존경하며 경배를 해야한단 말이냐? 지배는 경외에서 이루어진다. 에르아가 이데아를 빚으신 것처럼 말이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거지?”

그러더니 그것은 시건방지게 손짓을 했고 거기에는 개가 있었다.

“개?”

“그래.”

“미치겠군.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신 나간 문둥병 걸린 놈의 헛소리나 들어야 한다니. 게다가 종말을 부르는 존재인 주제에 이제는 그것을 저지할거고 그 이유가 개라고 지껄이는걸 믿으라고?”

“믿음을 강요하지도 구걸하지도 않으니 마음대로 여기라.”

“아하, 그러셔?”

내가 관심 없다는듯 대충 둘러대자 그것 역시 내 반응 따위는 관심조차 없는듯 꾸깃한 두루마리를 펼치며 느닷없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마저 상관없다는 듯 세상 태평하게 꼬리까지 쳐가며 내게 기어오르는 개까지 달고있는 이 미친 문둥병 괴물의 꼬락서니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해가 되나?”

“이건 또 무슨 개짓거리야. 나는 아직 네놈의 장난질에 함께 놀아주겠

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재밌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구나. 군체의 의식속에서 깨어났으니 이제야 자아가 형성된 지금의 너는 그냥 애새끼나 다름 없는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즉시 발걸음을 돌려 이데아에 펼쳐질 종말을 저지하려는 또 다른 존재들을 찾아 나설 뿐. 폐를 끼쳤군. 이만.”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용무를 마친듯 두루마리를 접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가자 나는 그것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잠깐!”

“종말에 대항할텐가?”

“네놈들의 뇌 속에는 종말밖에 없구나 정말. 그게 아니라 내가 물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좋다. 그럼 이만.”

“잠깐만, 이 자식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라도 있나?”

“당연히 필요한게 있지. 이 썩어 문들어진 송장놈아.”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말하라. 개는 줄 수 없다.”

“안가져 새끼야, 평생 데리고 살아.”

그가 당연한듯이 강인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렇게나 속터지는 개체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어쩌면 우직하게 한 점을 바라보는 그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그것에게 말했다.

“네놈들의 돌덩이 몇개를 카하낫의 변두리에 박아놓는걸 허락하마.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을 말하라.”

“네놈이 쥐고있는 예언의 서에 나의 이름을 새겨넣거라. 그 사정까지 네놈한테 떠벌일 이유는 없지만

그것은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근원과 변화한 자아 사이에서 충돌하는 것이겠지. 나는 서두르지 않고 빌붙어있는 개랑 적당히 어울리면서 때를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것은 이런말이 누더기나 다름없는 몰골을 한 것에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굳힌듯한 눈을 하고는 내게 말했다.

“종말의 서에 새겨진 그것은 낙인이자 저주가 될 터이니.”

“어떻게든 되겠지. 자! 문제없어.”

“그대의 이름은?”

“메사 피네.”

“새겨두마. 그럼 이만.”

“아니, 잠깐만. 그걸로 끝이야?”

“필요한게 아직 남아있나?”

“그게 아니라 네가 날 속이고 그 돌덩이에 내 이름을 새겨놓지 않을수도 있잖아? 내가 너 같은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는 너도 공허에 일락시움의 파편을 두지 않을수도 있지않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이지? 서로 믿지 못할 것이라면 애초에 미련은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것을 해야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신용이라는 것은 의심으로 싹튼 것들이나 할 행동이다. 버려지는 것에 익숙하지만 일락시움의 파편과 사슬로 묶어놓은 이 육신은 결코 먼저 저버리지 않는다. 속삭임 따위에나 익숙해져 있는 공허의 창녀들에게는 믿음이 다소 부족 한가보군.”

“오호라. 말 잘했다. 송장 새끼야. 이데아가 개박살이 나더라도 공허에는 나의 이름이 고이 아로 새겨져서 영원토록 남겨질 네놈의 돌덩이를 카하낫의 변두리에 고이 모셔주마.”

그러자 그놈은 몸을 들썩이며 기분 나쁘게 사슬을 잘그락 거렸다. 그리고는 사슬을 땅에 휘두르며 글을 새기며 내게 말했다.

“불쾌한 공허의 창녀의 이름을 이데아의 입을 빌린 언어로 쓰기에 불쾌하기 그지 없지만 이게 그대라는 개체를 부르는 이름 메사 피네이다. 단순히 바닥에 그어놓은것이 아니라 너의 뇌리에 쑤셔박은 것이니 일락시움의 다른 언어는 이해 못해도 너의 이름은 알 수 있을거다.”

“야.”

“필요한게 아직 남아있나?”

“넌 이름이 뭐냐?”

“그런게 있을리가 없다.”

“에르가의 혓바닥에 세뇌된 시체놈들을 사역마로도 쓰지 못할 역겨운 것들이지만 내가 선물로 네게 이데아에서 쓸만한 이름을 주마.”

“필요없다.”

“까불지마라. 너희들같이 저주받은 것들은 모르겠다만 이데아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름을 받으면 그 개체는 더욱 빛을 발한다. 더불어 계약은 이름으로 얽혀있는 셈이니 그것을 받아둬서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할 날이 올 테니까 내게 미리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를 표하도록.”

장난처럼 던진 말에 그는 갑자기 비석을 쿵 하고 내려놓더니 요란한 사슬 소리를 내며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게 아닌가?”

“아냐 됐어. 그거 맞아. 맥 빠지네.”

그리고는 조용히 카하낫의 언어를 입으로 그러모아 그것에게 속삭였다.

그러자 계약의 표지로 그것의 가면에 나의 문양이 새겨졌다.

“너희들은 그 껍데기를 벗지 않으니 거기에 새겨도 되겠지? 공허의 창녀의 말따위는 믿지 못하는 대단하신 송장놈들 얼굴에 직접 새기는 것보다 한참은 나을테지. 뭐 아니면 아닐테지만.”

“이것은 배려인가? 호의에 감사를 표한다.”

“됐어, 신경쓰지마. 오히려 덕을 본 것은 나니까. 네가 새긴 내 이름이 들어간 돌덩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카하낫의 변두리에 담아줄게.”

“그런가.”

“그래. 그럼 목적을 이루었으니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인건가?”

“아니다. 재앙의 물길의 변화를 이루어낸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라구엘에게 마음의 씨앗을 심을거다.”

“…열심히 살고있네.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그리고 분명 그때는 이번만큼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겠지.”

“그런가, 그럼 이만.”

“하아, 됐다. 그만 꺼져.”

변함없이 기계같은 그 말에 나는 질려버려 손사래를 쳤고 그것은 등을 돌려 기분 나쁜 사슬 소리를 사방에 울려대며 제 갈 길을 나아갔다. 그 뒤를 개가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뒤따랐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여기가 라구엘의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기었기었지만 분명 그곳과는 무언가 다른 이질감이 들었다.

숨쉴틈도 없이 그저 종말만을 향해가는 발걸음은 슬프니까.

『 퀴나즈 시나리오 』

퀴나즈 부흥 시나리오

여기서 남겨진 퀴나즈 얼라들 아라샨 도움으로 각성함

튀나즈 황혼 시나리오

얘네 이미 퀴나즈 땅에 왔음

이실그라드 먹을라고 침 흘리면서 퀴나즈땅 개판으로 만듬

수많은 퀴나즈의 퀴나즈들 반갈죽댐

근데 우두머리 부재중임

그래서 잔챙이들이 얘네 상대중인데 어림없음

이실그라드가 어미의 형상으로 이상식욕자들 상대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보임

결국엔 잔챙이들은 나가떨어지도 이실그라드도 일부를 뜯어먹힘

생명의 순환역전 아무튼 퀴나즈 마법임ㅋㅋ으로 이실그라드를 회복시킴

그리고 그 회복된 이실그라드는 생명을 다시 뿌려싸대며 퀴나즈에게 힘을 북돋아 주게되고 일단 한입충들은 만족하기도했고 상황이 쪼끔 불리해지는 것 같아서 ㅌㅌ함

거기서 힘 쪽 다 뺀 이실그라드가 얼라 형태로 Sap 형태로 호박석 같은

데 들어있는 형태로 보존하게됨 이정도? 그래서 본인의 힘은 잃었지만 그녀가 회복하는 가운데 퍼지는 아르카나로 근근히 살 수 있게 됨.

“대체 이 지경이 될 동안 퀴나즈의 퀴나즈들은 대체 뭘 한거지?”
“야만적이군.”
“약육강식이라네.”
“합리화 하지마라.”
“현실도피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거라. 실라누에. 더이상 퀴나즈에 무엇이 남아있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면 그저 힘에 따르거라.”

“한 입밖에 뜯어먹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이실그라드 한입 베어 문 것으로도 잠시나마 허기를 잊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 신기하기도 하단 말이지. 이걸 다 뜯어먹었더라면 창자를 늘려서 더 커다란 것을 게워넣을 수 있을텐데.”
“그래서 그런가 어쩐지 너한테서 더 맛있는 냄새가 났던거구나.”

『 아라샨 시나리오 』
퀴나즈와 다른 아르카나구나 베르생은 흥미로워.
아르카나는 상상력임 그래서 그들은 마르지않는 항아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을하여 아르카나가 물질로 구현되면서 키오누스의 물줄기라는 이름의 유물을 얻게 됨. 그리고 그것은 아룬 모라의 대지에

단비같은 존재로 거듭나게 됨. 더불어 에르아의 젖이 다시 꽃을 피우고 그 젖줄을 기반으로 아룬 모라의 황금기가 시작됨.

샤히라 - 사리 고행이나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

『 베르생 시나리오 』

베르생 희생의 가치

한 인간의 목숨의 수십 수백만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반대로 묻겠노니, 한 소녀가 희생할만큼 수십 수백만의 목숨을 구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대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며 조금씩이지만 그 소녀의 고통을 나눠받을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인가?

『 아그발 시나리오 』

아그발의 지하도시가 왜 때문에 안락하냐? 하수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지하에 볕이 잘 들지 않기에 온도가 낮아 시원하고 겨울에는 지열의 영향과 지하도시의 자체적인 차폐구조로 단열에 뛰어나서 따스함을 유지함. 뭐냐 이거 디스토피아 범죄로 세워진 국가가 왜 이렇게 아늑한건데ㅋㅋㅋㅋ온갖 범죄가 난무하는 것과 배신과 암투로 얼룩진것이 아니면 의외로 살기 좋은가?

『 라구엘 시나리오 』

“바라건대 그 입으로 부디 순례라는 말을 담지 말아주겠나?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찾고자 에르아의 속박을풀고 잠에서 벗어나 자아수복을 위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말이다. 에르아의 바람을 마치 자신들의 바람인양 착각하며 종말의 물길을 트는것이 다인 네놈들과 같은 순례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으로 불쾌하니 말일세.”

“그래. 보잘것없고 하찮기 그지없다. 더불어 불경한것들은 물론 죄악이 차고넘치는 이데아처럼 위기가 없으면 자아실현의 의미가 없는것 같더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가치있는 나를 발견할수록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것이다.”

“오히려 네놈들처럼 안락한 에르아의 요람에 잠든채 걷기만 하는 편이 자아라는 가치를 갑자기 떠안으며 혼란스러운 나날속에 사는 것보다 낫겠지. 그리고 정신이 무너지지 않은 이 몸뚱이를 보면 라구엘이 에르아의 속박을끊고 스스로의 발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지않은가?”

“순례자가 아니라 종교인 혹은 철학가 같은 소리를 하는군.”

“어차피 네놈, 아니 우리 순례자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종교나 철학과는 양분될 수 없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 나 같은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에르아의 속박에서 벗어나 멀리서 바라본 라구엘의 순례자들의 결속력은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단단했다.

“역시나 예상대로 결국 죽을때까지 그것을찾지 못할수도 있다는 자신

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위해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서는군. 그동안 비루한 이 몸뚱이에 달린 눈으로 예언과 종말의 서에 담긴 글귀를 담아왔지만 일락시움에 변명따위 새겨져있지 않았다."

서로 부딪히며 사방에 피와 살이 낭자했다.

"이제 그만 눈에 뜨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군. 이미 나는 눈을 뜨고 있네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통의 새김은 우리끼리만 나누어도 충분하니 이제 더이상 순례의 길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만 긴 잠에서 깨어나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대는 그 육신이 바스러질 때까지 불경한 자로 살아갈텐가?"

"그러는 그대 역시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받은 자가 아닌지."

"옳다. 하지만 나는 육신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까지 저주를 입어 마땅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라구엘의 순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있군."

"그것은 순례의 길과 상관없는 것이다."

"아니, 상관있다. 네놈이 지닌 비루한 육신이 이데아 이곳저곳에 쑤셔박은 비석 따위보다 훨씬 가치있는 물건이다."

"그런가."

"…저건 틀렸군."

그것을 구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혼잣말과 함께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들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일이었지만 문제는 에르아의 물길

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데아 도처에 새겨놓은 일락시움의 파편들이었다. 무너지고도 다시 빚어지는 이 몸뚱이를 지녔을지언정 정신이 부서지지 아니하니 라구엘은 에르아의 축복이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없이도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도 구원받을 시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바ㅠ 방금 ㅅ애각나고 쓰려니깡 방금 까먹음 개같애"

멸망과 예언을 노래하는 순례의 길을 걸을 일은 더이상 없을거다

"그렇게나 남의 순례길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군. 그대는 그대의 순례를 걸으라. 멸망과 부정 그리고 절망을 노래하기 위해 힘쓰라. 나는 그대들처럼 자아나 감정을 배제한 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위한 순례의 길에 오를테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않아서 문제임

라구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더불어 종말이라는 것은 발시아 즉 이바와 아다무스의 종자들의 종말이지 이데아의 종말은 아니네. 두개는 명확히 다른것이니 혼동하지 말라."

다르게 말이다.

그저 그녀에게 종속되어있기 때문에 그녀의 뜻에 끌려다니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스스로의 바람이나 소명이라고 여기는군."

『 카라하스의 마녀와 공허의 속삭임 』

사고에 담기지 않는다는 뜻은 과거의 역사에서 분명 일어난 일임에도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하는 단계 한 마디로 옳은은 혹은 그른 과거임을 알면서도 판단의 기로에서 또 다시 망설이고 고민하여 최악의 과거를 다시금 빚어내려는 저주가 퀴소에게 부여된 저주. 요낙의 저주로부터 새어나온 것 중 하나.

소중했던 나의 미래는 항상 나의 곁에 있었다. 공허의 세 자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였다.

“키할라, 키할라. 키할라룬드 몰 루르 간 바르 나 라하르킨 키르낙”
창조주의 눈물에서 피어난 개체는 메사 피네를 위협함 왜냐하면 종말의서에 있던 이름이 그녀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나 분투하면서 계약을 한 라구엘의 사제를 소환하고 더이상 그것이 필요치 않았던 그녀는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게하고 라구엘도 종말의 서를 공허 밖으로 다시금 쏟아내게 하고서 계약을 해지함

『 월츠 시나리오 』

그대가 찬양하는 과학이라는 것에는 창의성이 전혀 없군.
“그럴 수 밖에. 과학은 창조해 내는것이 아니라 만물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남긴 흔적으로부터 진리를 파악하는 것들이 전부이네. 과학자는

탐구한 진리로부터 나온 작은 결과값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실패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답을 구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그것에 닿을 수 없기 때문이지. 한없이 멀고도 가까운 그것에 손을 뻗으며 지식을 갈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니 어설프게 창조를 흉내내는 것에 취한 것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쾌락이다."

『 라파르 시나리오 』

정신병.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은 다양함. 그것들 중 하나로 시각의 다각화가 있음. 그리고 그 생각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옳고 세상이 틀린거라고 생각하는 거임. 그렇게 자위하는거임. 근데 그래봐야 갉아먹는 것은 자신인 것도 사실임. 그렇다면 이 잘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자신도 모르고 있을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자신마저 속이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큰 발걸음이다.

카르난 - 락시아의 명의 창조주 제라의 저주가 아닌 피가 섞인 이후로 그 질병이 변이 인자를 만들어내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 이론을 확립

한 인물. 카인의 핏줄을 치료하려는 시도를 한 자.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으나, 그 당시에 그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배척받아 마땅한 시대정황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더이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 모샤에트 시나리오 』

그녀는 강해졌다. 죽이자. 미친놈인가. 이렇게 된것도 자연의 섭리의 하나일 뿐이다. 그녀가 크든 작든 이데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함.

숲은 침묵하지 않는다. 언제나 생명의 순환속에서 그 인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 세사도르 시나리오 』

“좋아, 적어도 내가 가는길에 방해를 하지는 않겠지. 헌데 참으로 추하구나. 죽고 살아나서도 구원이 아니라 그야말고 원념이 가득한 복수귀가 아니더냐?” - 이거완전 영혼포식자나 도사가 할 말.

세사도르가 혼백의 방향과 거리를 잡는 방법

북월 남현 서하 동조 요우 기좌 상택 도일

귀기몽(세사도르 사약만들때 쓰는 풀)

초아는 기가 강하다못해 넘쳐흘러서 귀신이 그 몸뚱이를 탐내었고 초아 역시 그들의 방문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막아는 기가 나약하여 귀신 많이 꼬여서 그것을 파괴하는데 일생을 바쳐왔다. 주인공인 홍이는 어렸을때 귀문이 열려서 눈에 온갖 혼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들 셋 모두 귀신을 달고 살 팔자이다. 다른 이들은 느끼지만 홍이는 눈이 유리창처럼 깨지며 귀기를 본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다라…. 아벨의 현신이 강림하여 이데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동정하려거든 어디한번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 것들의 혼백 앞에서도 어디한번 그리 말해보거라. 해롭기 때문에 우리는 제하는 것이야.”

“해롭지 아니하다면 구천에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요?”

『 에두에르 시나리오 』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싶지 않아.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기약이 없는 인내는 분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인내하는 자들의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줌의 인내조차 짊어지지 않으려는 깨달은 자들에게는 파멸로 보이는 그것조차 구원이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기도에 나도 모르게 이를 뿌득거렸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운명이라는 말과 가장 맞닿아있는 우리들일진대 야속하게도 운명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다. 운명의 얄궂은 굴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습게 굴러가고 있는 챗바퀴에 불과했다.

그분은?

작렬하게 순교하셨다.

그렇군. 계시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군. 그럼 뭐지? 뭐에 끌려서 그는 그곳에 스스로 들어가 살아나올 수도 있었음에도 죽음을 택한거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구나 계시는.

인내하는 이로부터 비춰진 분노

너는 그저 죄책감에서 등을 돌려버린 무책임한 자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바와 아다무스가 시험을 하기 전에 이미 창조주로부터 이미 알게모르게 시험을 거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가망이 없는 건 죽어야겠지요. 이데아에 영원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으나, 영원한 적은 언제라도 생기는 법이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깨닫게 만들고 그것에서 나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벨의 자손들만 지키는게 아니라 그들의 터전인 이데아를 더 거대한 외부의 피해로부터 지키려는것임. 근데 얘네들은 그저 인내하지않고 건장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거지. 왜냐하면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시험은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여 비워내지 않으면 그것은 안에서 스스로를 병들게 함.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분노가 계시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쟝과 아가뜨는 쏠린 분노와 닫힌 인내의 극에 있는 애들이라 서로의 존재가 중용을 지켜줄 수 있는거였음. 하지만 그걸 아는사람은 그 황혼의 수녀님 한 분 뿐이셨음. 자신의 어릴적 인내하는 이의 발광을 보고 스스로 죽였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거였음.

이바와 아다무스여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드높은 그곳에서 기꺼이 몸을 불살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 피오르 시나리오 』

“어느 누구랑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그곳에 가겠다고?”

“혼자가 편해.”

그렇게 익숙한듯이 내뱉어낸 말 뒤로 나는 순간 그동안 나와 친구가 되

어준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작은 미소가 얼굴에 퍼졌다.

“맞다….”

“음?”

“아니야, 별거 아냐.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그래도 가야만 해.”

“말했잖아. 내가 본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의 조각일 뿐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네가 보는 계시는 사건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 비교적 사소하고 중요치 않은 파편이지만 아주 선명하다고 말이지.”

“그게 확실히 네가 찾던 사람이 아닐수도 있잖아.”

“아니 확실하게 느껴져.”

“하지만….”

“그래, 마지막으로 봤을때 분명히 생명의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지.”

“미안해.”

“괜찮아. 내 안에 그녀는 이미 죽었어. 지금 그녀는 예전과는 사뭇다른 모습이겠지. 그러니 이제 그만 좋아주려고.”

누구를?

“저기 있잖아, 댈런.”

“왜 그래?”

“음침한 동굴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의 이름 기억해?”

“앤섬. 꽃이름이야. 옛 발시아어로는 지워지지 않는 노랫말이라지?”

“…고마워. 역시나 예쁜 이름이구나.”

댈런은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피오르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귄 친구의

이름이 어느샌가 점점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이나지 않아.”

“어째서 그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가는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마 조금 슬프긴 하지만 즐거웠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아있어서 괜찮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소중했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슬프잖아.”

댈런은 조용히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나를 보며 내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다.

“피하지 않으려고 약속했는데 무의식적으로 항상 도망쳐왔나봐. 이제 더이상 도망치지 않으려고. 가슴 아리게 아팠던 기억도 여전히 나의 일부이니까. 오히려 그녀가 다시금 눈을 감게되면 후련해 질지도 몰라.”

“괜찮겠어? 이미 머릿속에 갈라진 균열에 다시 충격이 가해진다면 정말로 망가질수도 있는데 굳이 그녀를 다시 봐야겠어?”

그러더니 댈런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성급하게 입을 막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에두예르의 전도사가 운명이라는 말에 회의적이라니. 의외걸?”

“나는 계시를 운명이라고 생각하지않아. 운명같은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아벨의 현신이 강림했지만 다른 어느때보다 어두운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바쁘게 치이며 살아가는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숙고하며 살아갈까?”

“그래도 이렇게 어두울수록 운명이라는 작은 반짝임은 너무 기분 좋은 울림을 하고 있지않아?”

“하하! 굉장히 낯뜨거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너도 셀라랑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얘는 여행을 떠남 죽은 친구가 했던 세상 모든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많은 친구를 사귀라는 친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각성”

“근데 그걸 카인의 핏줄이 열어준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글쎄, 네 친구라면 그것을 믿어주지 않을까? 너는 부정하겠지만 적어도 내 눈에는 균열로부터 해방될 준비는 되어있는것 같은데?”

“나약한 힘이 때로는 이데아 너머의 세계를 구축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

“나는 전쟁같은걸 하고싶은게 아니야.”

“거대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개체들이라 영원의 전쟁을 끊어낸다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는게 아니거든.”

“소중한것들을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

『 나즈레스 시나리오 』

모두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에 대처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창조주의 숨결이 담긴 만월의 빛을 머금은 광석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간절한 소망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더이상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 베르체 시나리오 』

낙태한 이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혈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기 마련인데, 버려진 자들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모든 아이들까지 인형의 집으로 초대했다. 또한, 이들의 존재가 애초에 질투의 죄악을 짊어진 자들이기에 스스로 질투심을 유발할만한 것들을 만들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가의 혈족, 아제루그의 개입이 없어도 적정한 수가 유지될 수 있었다.

『 레위앗 시나리오 』

금은보화에 눈먼 자들

보석과 광물에 정신이 팔려버린 자들의 광기어린 집착을 보여주는 존재를 그린 에피소드.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보석은 생각보다 잘 부숴지기 때문에 그 찰나의 덧없는 아름다움은 그 모두를 매료시켰고 광기의 나락에 빠뜨려 죄악의 경계조차 모호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목숨보다 혹

은 도덕적 관념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저들이 남긴 잔혹한 풍경이 말해주고 있었다.

일곱의 만

델 라 푸가 만, 칼 커크스 만, 엘루아 달론 만, 지라고네즈 만, 비에 샨델라 만, 베놀 구르그 만, 라무르 데 네아르 만

『 하쉬무스 시나리오 』

하쉬무스의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숨으며 살아간다라. 참으로 흥미로운지고. 내게는 오히려 그대들이 빛에 눈이 먼채로 그 빛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네만. 그것은 나의 착각인가? 아니면 이조차도 그림자에 숨어있는 자들의 추한 변명일 뿐인가?

아벨의 자손들은 본능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데아를 살아가는동안 이성과 광기 사이를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성이라는것은 추상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물질적으로 치환되어 드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이데아에서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죽어서라도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그대는 죽음을 선택하겠는가? 그렇다면 그의 선택을 비웃는 이는 누구인가? / 그 꿈을 이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멋지지 않겠는가? 꿈의 전승이라니 이 얼마나 낭만있는 그림이더냐? 그럼 더 먹을게 많아지겠구나.

“아락숲에 엉켜있는 것들은 그저 그림자 놀음에 놀아나는 광대들이나 다름없는 것을.”

하쉬무스의 세 기둥

진리의 엠레스 - 절대적임

다원의 리라드 - 상대적임

회의의 피에론 - 알빠냐고

부정된 것들이 이데아에 가득해. 익스도 그것에 만족하며 어둠을 미소짓는다.

“혼란스러운 그것이 엉킨 그것마저도 균형이자 안정일진대. 그것을 억지로 깨부수려하니 힘든것이라. 머릿속 망가진 파편조차 너를 채워주며 지금의 너를 있게 해준것일터 그것을 어찌 그 작은 손으로 밀어내려 하는가?”

“그럼 다시 그 힘든 순간을 되돌려 놓으라는 말이야?”

“되돌려 놓으면 그것은 네게 다시 혼란을 심을것이다. 애초에 부서진 머릿속 균열이 주는 혼란에 적응하며 안정을 찾는 수 밖에 없겠구나.”

“그렇구나. 아무도 나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것처럼?”

“행복을 왜 찾으려 하는거지?”

“나도 몰라. 그쪽이 슬픔보다 나을테니까….”

“밝지만 참으로 어두웁기 그지없구나. 처음 네 작은 발자국을 무슨 연유로 떼었는지 차근히 되짚어보렴.”

하얀악마는 공포마저 네 살갗에 두르렴 이라고 말해준다. 고맙ㄷ.

“유감스럽게도 거짓말이 아니란다. 우리조차 오랜동안 그림자 속에서 몇번이나 뒤엉키면서 그것을 거듭 보아왔거든.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하고있지만 너도 너머로 어렴풋이 봤잖아, 안그래?”

“그걸 억지로 쑤셔 넣은것도 너였어?”

“그렇지않아. 그걸 만든건 너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카인의 핏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죄악도 품고있지않은 무욕의 그림자인 하쉬무스라 불리우는 방관자 혹은 기록하는 자라고 해.”

“네가 염원하는것은 영원의 평화라는 조화인데 그것은 이데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바람이란다.”

“평화의 순간에 네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전쟁마저 무색

하게 만들정도의 거대한 재앙을 낳을것이기 때문이지.”

그는 머리를 툭툭 치면 쏟아내며 내게 말하자 머릿속의 균열들이 사고하며 그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스쳐지나간 그것들은 그것은 짧고도 먼 아니면 이전의 혹은 더 오래전의 기록들이었다.

“이데아조차 거대한 것들이 맞물려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곳에 자리한 개체들은 말할것도 없지. 이데아와 전쟁은 떼어낼 수 없는 유기체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개체들을 한데 모으려는건 평화의 조짐이 아니라 더 큰 파괴를 창조하기 위한 집약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모두 친하게 지내며 지내는 꿈같은 영원의 평화를 바라는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이해하고 배려할줄 알아야 할거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일수록 이데아 너머의 세계를 재구축하는 힘을 가질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데아를 파괴할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은거지?”
“말했잖아. 순수한 마음을 가진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이상 이데아의 균형은 깨질거라고.”

“네가 순수하다는건 모르겠지만 대충 네가 아닌 타인의 손을 빌려야한다는것은 잘 알겠어. 너는 그저 꼭두각시 인형이 필요한 거잖아.”

“그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가능하다면 말리지는 않을게.”

“그게 아니면 뭔데?”

“음침한 그림자에 숨어 기록하는것은 변하지않아. 직접적으로 운명에 개입하지 않는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때묻지않은 너의 작은 날갯짓으로 이데아에 새로운 기록으로 메워질 가능성을 쥐어준다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이 기록을 이어나가겠지.”

“심심했던 거잖아.”

“그건 부정하지 못하겠네.”

개인이 사사로이 바라는건 된다 하지만 그 바람이 모이면 재앙이 됨 그래서 무욕의 하쉬무스가 집단을 이루어 소망을 하게되면 개판일거야.

『 자르갈 시나리오 』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인가? 다만, 나를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 될 따름이니, 그것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최고이자 최후의 심판이다. / 이 새끼가 마지막까지 / 최고의 살인은 자살이라니 미친놈인가?

자르갈의 약육강식
이제는 하물며 기민함을 배우는가 짐승이여. 점점 저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으니 나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문을 걸어 잠구고 포효하는 울음 사이로 이불을 뒤집어쓴채 공포에 떠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처럼 그저 힘에 취해 불나방과도 같이 몸을 던져오는 그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더욱 쉬웠을런지도 모른다.

『 세르샤와 조우한 상투스의 사제 』
‘피에서 세렛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은빛 찬란한 분노로 우리는 빛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카인의 혈족들의 피로는 감히 세렛에 얼룩조차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로다.’
‘미쳤군. 스스로 그렇게나 진정으로 카인의 족속들을 혐오하더니 네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 마지막 외침을 한 상투스의 사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다. 카인의 핏줄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었다한들 그것이 아벨의 자손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세르샤의 분노는 슬픈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그 뒤틀린 미소에 담겨진 것은 분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 사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었다. 그들은 은빛의 분노를 축

복으로 여기고 있었다.

『 삶을 향한 절규 』

죽음의 경계에 닿아있는 아벨의 존재앞에 선 카인의 핏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카인의 핏줄은 그에게 연민을 표하였기에 자신의 피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이 숨을 헐떡이며 이르기를, 영생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려는 찰나에, 마지막 순간 생명의 본성이 꿈틀대며 살고 싶다고 외치며 그 피를 갈구하게 됩니다. 카인의 핏줄은 조롱과 만족이 뒤섞인 웃음으로 자신의 피를 먹입니다. 그렇게 불멸을 살게 된 존재가 되었지만 변해버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카인의 핏줄이 남긴 말은 불멸을 산다는 것에 대한 무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 그 삶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살 수 없기에 하루하루 그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마련이며 죽을 수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벨의 자손이여,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진 카인의 핏줄의 영생을 그대들의 어리석고 무의미한 잣대로 판별하지 마시오. 그것은 그저 당신의 죽음을 앞당길 뿐이오.

『 망설이는 전사들을 향한 외침 』

아벨론의 오랜 방패이자 퀼로른의 전사들이여. 아벨론에 속한 아벨의 방패는 아벨의 자손을 수호한다는 달콤한 말 뒤에 오직 그들의 명예와 과거의 영광만을 위해 싸우고 있노라. 그러나 퀼로른의 빛이 가장 찬란히 빛나고 있었을 때 공국의 근위대는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아벨의 자손을 위하여 싸우는 양 미화시키며 그들을 현혹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 그러니 옛 공국을 위하여 싸우지 말고 그저 그대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싸우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의 등 너머로 지나가면 당신이 소중하다고 여기었던 모든 것들은 짓밟히고 사라지고 부수어지고 깨져 흩어져버릴 것이로다. 명예와 영광은 그대들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피를 흘렸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것이니, 거짓된 우상을 바라보며 싸우는 자는 반드시 간절함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의 손에 죽을 것이로다.

『 전쟁과 명예 』

이 전쟁에는 그 어떠한 명예도 없음이라. 그저 피와 살이 흩어지는 처참함 뿐이라. / 명예는 있다. / 멍청한 늑대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명예따위에 목을매어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가?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다. 꿈같은 이야기에 구역질이 나오는도다. / 지금 이것이 그대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편이 나으리라, 지금 저들이 벌이는 전쟁이 무엇을 뜻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광기에 잠식되어있는 자들뿐이니, 모두가 미쳐있다면 적어도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지 알고 피를 흘리는 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그대들은 죽을것이다. 물론 명예롭게 죽을 수도 없을것이라, /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 비웃으며 답한다. / 물론 역사가 그대들을 기억한다면 말이지.

『 부모된 자로써…. 』

이바와 아다무스의 속죄와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데아를 떠나서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감정은 역사가 최초로 기록하는 ‘죄책감’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며 자신들과 같이 자만하는 이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무거운 죄책감을 함께 나누고자 했지만 쉬이 짊어질 수 없었던 그 무거움으로 인해 낙원에 남겨진 자들 대부분은 뒤틀려 불경한 존재들을 만들었으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을 밝혀내기 위하여 아벨의 성령은 충만해져 아벨의 현신이 이데아에 나타나게 되어 불경한 것들을 몰아내지만 영롱한 그 빛은 무고한 이들의 눈을 멀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카인이 어둠을 찢고 나와 아벨과 조우하는 가운데 그 충돌의 여파로 세트가 잠에서 깨어났으며 죄악이 돌이 겹친 세계를 만들어 릴리스가 이 땅에 도래하기에 이르렀으니 수많은 혼란이 뒤섞여 만들어진 재앙이 이데아를 덮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르아까지 자신이 만든 이데아가 검붉은 장막에 뒤덮혀지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없었기에 결국 그것을 파괴하고자 슬픔의 눈물을 한방울 떨어 뜨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이데아에 사는 모든 것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 에필로그 시나리오 』

창조주의 최후의 심판

창조주가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며 눈물을 한방울 떨꾸자 그 눈물은 그녀의 소망을 담은 전령이 되어 이데아의 모든 이들을 하나 둘 죽이는도다. 그 눈물을 씻어 내리게 하는 것은 이바와 아다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몸을 태우며 흩어진 육신 뒤로 그들의 영혼이 창조주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랬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존재이나이다. 그러나 최소한 마지막에 이데아에 선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손에 의해 쓰여지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당신이 만드신 저 이바와 아다무스의 피로 맺어진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 당신으로부터 나왔으나, 마지막 눈물은 거두어 주소서. 그 후로는 우리의 몸은 먼지가 될 지언정 우리도 더이상 이데아에 개입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이들 나름대로의 속죄가 담겨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데아를 창조주로부터 지켜진 것이라 볼 수 있었으나, 영원의 전쟁 뒤로 빚어진 이들의 참극은 더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기에 시기야 어찌되었든 어쨌든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나의 자손이, 핏줄

이, 후예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끔찍한 모습을 눈으로 모두 담는 것으로 속죄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창조주는 눈물을 거두며 그녀 역시 이데아에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데아는 지켜졌지만 이제 더이상 이바와 아다무스도 심지어는 창조주조차 눈길을 돌려 싸늘하게 식어버린 쓸쓸한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창조주라 불리우는 것들의 관점이며 이데아를 사는 이들은 그것을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 결말 』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못한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이들의 삶에 찬사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바뀌지않는 잿빛 세상을 사는 이들을 동정했을까요.

하지만 훗날 쓰여질 역사 때문에 찬사를 보내지도 동정을 하지도 않는 것은 그들이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가 무겁게 내려앉은 이 땅에서도 생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이들의 삶을 응원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바뀌지않는 이데아에 사는 이들을 동정해야 하는 걸까요.

“네년에게는 나의 영혼보다 값진 여인의 영혼을 건네는 나의 얼굴이나 행동이 그렇게나 유쾌해 보였더냐? 애초에 그럴수만 있었다면 내 영혼 따위 영겁의 고통속에서 비명하여도 개의치않고 네놈들에게 기꺼이 건넬것이다. 하지만 대감은 영혼을

초아가 가지고있는 자애로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테지만 영혼을 잘 깨부수는 내가 사라지는 쪽을 더 원할거다.

방해가 될테지만 영혼을 잘 부수는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맛좋은 먹이가 될테지.”

하지만 대감의 영혼을 찢어내려면 아무 쓸모없는 내 영혼은 훌륭한 덫이 된다.
”

“”

“이야기가 빨라서좋군.”

“”

러두겠다. 지금부터 막야 그리고 네 동반자 영혼의 나침반 초아의 영혼은 나 루드윅에 속해있음을 서약하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영혼의 교체라는 느낌도 아니야. 특이점으로 평소의 대감에서 도깨비의 육신이며 정신까지 완전하게 교체가 된 느낌이었어. 하지만 도깨비는 독립적인 개체야. 영혼같이 갈아 끼울 수 있는것 따위가 아니라고. 도대체 대감님이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대감의 몸에 들어가다니 감도 안오더라.”

“흥미롭군.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건가?”

“그래 혹시나 네놈들이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말이야.”

“”

“

원한인가? 야망인가?”

“둘 다 아닌것같아.”

“대감님은 도깨비가 되셨다. 아니, 그것에 의해 잠식당하셨지. 하지만 분명한것은 대감님께서는 아직 그것 안에 계신다. 더불어 우리가 아직까지 숨을 쉬는것은 대감님의 변덕인지 아량인지 아직도 모른다.”

“아직까지 그딴 소리를 하다니. 충실한 개로구나!”
라핀이 빈정거리듯 살기를 쏟아내자 막야가 핏대까지 세우며 어금니를 뿌득거리고 한참이나 우리를 노려보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꿈이있다. 어여쁘고 활기찬 색시와함께 동산위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나 지으며 사는거지. 작고 평범한 꿈이지.”
“별안간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그 꿈이 부숴질 마당에 나는 의탁할 존재를 찾고있었던거다.”
“무언가에 기대려는건가? 그것도 언제 흩어져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영혼들에게?”
“그것이 무어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저 초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라핀을 끌어당기며 일어나서 그에게 물었다.
“네 영혼을 바쳐서라도 말인가?”
그러자 라핀도 의외로 놀란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계약이었다.

“네 주인은 어디에있지?”

“아, 대감의 형상을 한 도깨비 말인가?”

“그래 갑자기 돌아버려서 우리의 영혼에 침을 흘리던것도 그 도깨비라는 것들의 혼이 깃들어 있어서 그랬던거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속에서 강제로 끄집어 내려하더군.”

그러함에도 자꾸 불협화음이 들리는것은 네놈에게 담겨있는 영혼속에서 누군가를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군."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감의 자식이겠고 그 자가 데아논이겠군."

"데아논은 지금 무얼 하고있지?"

"울고불며 아비를 찾고있지.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곳에서."

""

"불쾌하기도 하지! 그 새끼 네놈에 담긴 영혼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대감의 자식이겠고."

"그리고 그 자의 이름이 데아논일 가능성이 커진다."

"타인의 영혼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과 대화를 하다니."

세사도르에는 초혼술이라 부르는것은 캔버스에 기분 나쁜 먹칠을 당한 느낌이라서 너무 불쾌해!"

“데아논이 대감의 서자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조차 포용해주지 못하는 속좁은 인간이었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을거다.”

“우리가 영혼을 해방하고 다니는것이 전부 헛수고라는 뜻이야?”

“그것도 계획의 일부일수 있다는 말이야. 애초에 ”

단지 영원한 안식이 아닐것 같다는 의심이다. 그리고 대감이 원하는것이 혼백의 전이도 아닐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지.”

“골치아픈데?”

“

대감을 끌어들이고”

깨우친 자는 오히려 영혼을 삼키는 자들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봐.”

“그럴 수도 혹은 아닐 수도. 무수한 영혼을 삼키고 있다고해서 다른이

들보다 깨우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것도 아닐뿐더러 단 하나의 영혼을 짊어진다해도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수도 있다.”

“그 수많은 영혼을 쏟아내는것이 이제와서 겁이 나냐?”

“그래도 그들보다 몇십 몇백 몇만배에 달하는 경험을 했잖아.”

“굳이 필요치않은 기억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군.”

“”

긴장감은 초아가 힘없이 풀썩 무너져내리자 눈이 녹듯이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멈춘것이 아니라 풀썩 힘없이 무너져내린

줄 시간은 없는것같군.”

“맞아.”

“어이가없네. 투정부리지 마라.”

“모르겠군. 누군가 받아줬으면 하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쏟아낸 말이니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

죄악을 모두 비워낼 수 없어.”

“”

살아갈 수 없다. 때로 우리는 턱없이 많을것을 채워가려고 한다.”

“영혼의 수가 얼마나 남았다라는 말보다 그것들이 어떻게 남게될지가 더 맞는 말일테지. 타다마드의 영혼수확자로 이어나가는 불안정한 삶이냐 아니면 떠도는 영혼으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흔적을 남기게 되는지를 물어봐야지.”

라핀은 영혼을 끄집어내 쥐고있는 언짢은 모습을하고 있었다.

 그리운 그 모습은 사라지고 내 앞에 라핀이 있었다.

이미 그것들이 다가오고 왔음이 느껴져."

"갈라선지 얼마나 되었지?"

"이대로 완전히 분열하게 되겠지. 찢어낸 또 다른 영혼이 퍼져나오는 걸 막지 않으면 안돼."

"그런가. 얼른 비우고 담아내지 않으면 안되겠군."

"언제나 그러하듯 네놈의 곁에는 귀찮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구나."

“일어나. 도사놈이 지금 그 상태로 영혼이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 닿는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킬테니 정신차리고 서두르는게 좋겠어. 그리고….”

그녀는 내 상태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올리고 짜증가득한 목소리로 멱살을 잡더니 나를 노려보면서 차갑게 말했다.

헛짓거리를 하기전에 미리 영혼을 마셔야하니까 서둘러.”

“그렇게 팔자좋은 소리나 하고 자빠져있을 시간이 없을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사놈은 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겠지.”

“그래, 지금은 무엇보다 도사놈이 짙게 드리워진 그곳에 터질듯 뭉쳐져있는 영혼을 먹어치우는 것을 막는것이 급선무겠지. 알아.”

“말은 그래도 정신머리는 딴 곳에 가 있잖아!”

“왜 다들 내가 데아논을 찾는걸 방해하는거지?”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보여.”

“그 빛이 몇이나 땅으로 추락하여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속 편하게 그곳에 있는 영혼이나 수집하면 된다는 말이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그딴 영혼들까지 담아두려는거야? 네 곁의 빈자리를 그렇게라도 채우고 싶어?”

데 그곳에 도착했을때 얼마나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했다. 분명 우리가 알던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테지. 빛의 군세는

비단 왕가의 혈통 샤마인을 향해 있던것은 아니었다. 비록 아벨의 현신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해도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사념에 귀를 귀울여보니 그것에는 온갖 혐오가 스며들어 있었다. 구원은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전의 감정에 매몰되어있는 아벨의 현신에 안타까움과 동정심 어쩌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부르는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정작 네놈의 영혼은 그리 말하지 않는군. 오히려 슬프고 쓸쓸해 보이는데? 마치 오랜 벗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가? 내 안에 그런 영혼은 담아두지 않는다.”

“어째서지?”

“글쎄 난 내 육신과 영혼으로 줄다리기를 하고싶지 않거든. 지금의 널 봐라. 아벨의 현신이 떨어진지금”

“라그반도 그렇고 타다마드에서 오직 네놈이 유일하게 아무 영혼이나 쓸어 담는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을거다. 바닥을 기는 미물의 영혼마저 말이지. 대체 그딴건 왜 끌어담는거냐?”

“영혼들이 빚어내는 불확실성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지.”

“다들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원치않아.”

“네놈 안에 담긴 그 영혼들을 아끼는건 알겠는데 이 꼴을 하고도 살아있는 것은 타다마드의 영혼수확자들의 경험에서 나온것이야.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담은 경험의 수치는 다른이들과 차원이 다르니까 모든 죄악을 몸에 담아두고도 무사할 수 있는거다.”

아벨의 현신은 영혼의 집약체이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라면 무릇 본능에 이끌리듯이 그것을 향해가겠지. 하지만 상투스의 사제들은 절대로 아벨의 현신을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는걸 허락하지 않을거다.

부정한 의도로 아벨의 현신떼어가려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다.

“난 그것들과 말을 나누며 내 영혼이 찢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어째서 라그반이 ”

“그래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아니잖아.”

“이봐, 나를 지탱해준 여인의 이름은 뭐였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지?”

“너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잊으려고 하지 않았을테지.”

그녀는 잠깐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고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게 일침을 가하고나서 천천히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나는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에 아무런 대꾸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원하는것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서둘러.”

하지만 꽤나 급해보이는데 말이지. 게다가 굳이 네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는 뭐지?”

“내가 찾는것은 오직 루드윅의 행방 뿐이다.”

“아직도 모르겠나?”

“무엇을 말이지?”

“루드윅의 행방을 말이다.”

“뭔가 아는듯한 말투로군.”

“루드윅이 아비를 그리워하는것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비라면?”

“대감 말이다.”

“”

“영혼을 마시는 자가 우리 뿐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불찰이었지.”
“이제와서 누굴 탓할 생각없으니 설명을 해.”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마시는게 아니라 그 영혼을 종복으로 부리는 것에 가깝지. 우리와는 다르게 그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말이야.”
“그것의 영혼을 회수하면 그들의 종복들도 뒤따르게 되나?”
“몰라. 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지 않나?”

내 말을 듣고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눈을 하고는 눈에 불을 키고 있었다.
“대감에 스며들어간 그것은 영혼을 탐할거다. 그건 바로 대감의 사리사욕 때문이지. 그는 진정으로 혼백의 전이를 위해 영혼을 끌어모으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거야.”
“미쳤군. 영혼에 뒤섞여 돼져 버리라지.”
“대감이라는 영혼 하나의 값어치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즐겨하던 말 중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거다.”
“그 놈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그 반대도 가능한거다. 하나의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영혼들이 한번

에 소멸이되면 그 영혼들이 남긴 자리에 무엇이 남겠나?”

“더욱 집요한 사념….”

“그래. 그리고 집요한 사념 하나로도 채우지 못한 대감놈에게 들러붙은 놈은 그것보다 더 한 놈이지.”

“이름이 무어라했지? 한웅이라던가?”

“그래. 도깨비라고 하는 것들의 왕이지.”

“도깨비는 저들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잖아.”

“그 말은 저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지.”

“꽤 귀찮구만. 도깨비는 영혼을 부릴 수 없고 인간들은 영생을 살 수 없으니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들러붙은게군.”

대감이 미쳐날뛰고 지나간 길목마다 영혼들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세사도르 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절규는 천천히 산기슭 밖으로 스물스물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으로

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길 도중에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구원이라 불리우는 아벨의 현신으로 태어난 빛의 잔해들이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바닥을 뒹굴고 있었

기분 나쁘게 등골이 서린 바람에 스치는것이 꽤나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아벨의 현신이 남긴 구원은 여러모로 대단하네.”
“긴장을 늦추지 마라. 그것이 남긴 흔적을 담아내고자 이곳에 자리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 정도면 영적으로도 둔감한 이들마저 볼 수 있을정도인데?”
“그래, 어떻게든 하지않으면 안되겠지.”

“내가 잠든 사이에 넌 보았겠지? 그 도사놈 말이야.”
“그래, 그 한웅이라 부르는 존재가 서려있는데 그건 역시….”
“내가 찾아온 그것이다.”
“어떻게 한거냐?”
“영혼 하나를 찢어 반으로 나눈거다.”
“갈라진 영혼을 가지고 무얼 하려는건데?”
“오늘따라 질문이 많군. 평소처럼 가련한 영혼에 고통을 주고 그것을 마시며”

“영혼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있어.”
“”

전성 - 아벨의 현신이 무너진 자리에 남겨진 영혼의 잔해들을 수집함.

시신에 빙의를 해서 그들의 순간을 그대로 따라하는것.

“어째서 우리가 그놈을 막아야 하는거지?”
“한번도 우리라고 강요한적 없다. 나는 그저 루드윅이라는 놈에게 용무가 있을 뿐이니 함께할지 결정하는 건 네 몫이다.”

“루드윅은 어디에 있지?”
“”

고 그곳에 흩뿌려져 정처없이 떠도는 영혼들 사이에서 우리가 찾고자하는 것이 금방이라도 사라질까 우려하여 발걸음 속도를 조금 올렸다.

루드윅은 자신이자 아벨의 현신을 위한 권능의 잔에서 새어나와 배회하

던 영혼이었음.

“모든 죄악의 근원이다.”

“우리가? 틀렸다. 우리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부정 하려고만 하는 이들과 달리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존재이다.”

“그럴듯한 말을 잘도 지껄이는군.”

“아니.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게 평생 죄악에 잠겨 울음짓는 이들의 소리가 결코 들을 수 없을테지. 그러하기에 오직 우리만이 죄악”

영혼의 그릇

얘네 뭐함 이제?

얘네 이제 강림한 아벨의 현신에서 쏟아져나온 영혼을 수습할거임.

영혼은 왜 수습함?

순수한 영혼의 군집인줄 알았던 아벨의 현신에는 죄악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영혼이 부서지면서 사념이 그 자리에 가자앉고 있는거임

사념이 남으면 어케되는데?

어케되긴 시바 그 주변에 숨을 쉬는것들은 모두 타다마드화 되는거지.

그렇게되면 찢겨진 영혼끼리 충돌하고 엉망진창이 되는거라고. 다시말하면 일곱의 죄악이 모두 뒤섞여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짐.

그렇구나 그럼 영혼 포식자들은 그거를 청소하러 가는거구나.
맞으면서도 아님. 그래도 권능에 담겨있던 잔인데 잔류사념 중에서 죄악만 있는게 아니라 그 신성이 담겨져있는 영혼이 있을수도 있어서 잘 먹어야 댐. 그리고 얘네는 사실 세사도르와 접촉하고 있는걸 타다마드의 사제들이 모름.

그걸 몰라야 할 이유가 있음?
영혼을 붙잡아두려는 자와 영혼을 제령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좋은 감정이 오고갈 수 없으니 서로 배척하는 입장인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사이가 좋을리는 당연히 없겠지만 영혼을 대하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더욱 섞일 수 없음. 서로를 저주하고 미워함. 왜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지를 못하는거야? 왜 넋들을 편안하게 보내주지 않는거야? 라는 다른 관점에서 충돌하는거지.

그럼 얘네는 뭘 하고 싶은거임 조용히?
미쳐 날뛰는 도깨비가 빙의된 대감의 흔적을 따라 루드윅이라는 작자의 행방을 찾고있음. 나중에 루드윅이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되는

데 아 그럼 데아논인 내가 루드윅이라는 말이자너.

왕가의 혈맹은 영혼을 부릴 수 없어. 왜냐고? 생각해봐라. 브리쿨에 사념이 가득담긴 영혼 한 방울을 떨구면 어떻게 되겠냐? 브리쿨의 육신에 담긴 그것을 브리쿨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지?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다. 타다마드가 영혼에 먹히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끊임없이 영혼을 마시며 영혼의 격류에 분열된 자아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한 신념과 짙은 죄종을 짊어진 자일수록 자의식이 강하지만 타다마드는 수많은 영혼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영혼에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평소에도 끊임없이 싸워야하지. 하나의 몸뚱이에 담겨진 무수한 자신들과 말이다.

네놈들의 전쟁을 세뇌하여 되물림 하지마. 네놈들을 과거의 망령이다. 그럼 그때 전우들의 시체를 뒤로하고 죽지도않고 지금까지 영웅이라 칭송받으며 살아오는 자는 대체 뭐라고 불러야하지?
나는 예나 지금이나 군인이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버려졌다. 이게 맞는거냐?
총칼이 빗발치지만 않았으니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한건가? 제법 편안한 생각을 하는군. 네가 지금 입고 있는게 무어냐?
군복입니다.
아니야. 그건 수의야. 전선에 선 이상 군인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않

아.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하지만 순순히 죽어줄 생각은 없다.

성휘를 보라!

애초에 선과 악을 나눈게 실수였어. 그것을 아무리 참둔다고 한듯 유혹의 속삭임은 불가피해. 결국에 우리엥게 필요했던것은 죄악을 수용할수 있는 있는 포용력이었음. 7선의 존재이유? 7악을 막기위함이 아니야. 그건 7악이 날뛰는걸 막기위한 방파제에 불과함. 그들은 적절히 섞여서 서로에게 먹히지 않게 하는거임. 자연스러운 본성일 뿐이야.
죄악이 없으면 선만이 공존하는 세계가 올 것 같나? 아니 틀려. 엮이어진 끈이 보여준 세계는 그것과 한참은 다르더군.

죄악의 세대교체 시점
샤마인(오만) - 하쉬무스(무욕)

“분노라는 것은 위협에 대한 반응 중 하나이며 그것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지 그 자체로 죄악이라 불릴만한 가치는 없어.”

죄악은 사그러들지 소멸하는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분노는 모든 죄악의 근원의 기초적인 근간이 되기도 하니 말이야. 그런데도

다른 죄악에서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도 해.
진화하는 것은 너 뿐만이 아니다 살짐승아.

더 큰 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더 큰 식욕에 눈을 뜸 진짜 미식가가 되어버린 셈임. 맛 없는건 안 먹지만 맛 있어 보이는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존나 먹으려고 함. 그래서 패널티가 있음.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먹어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몸이니까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 억지로 먹긴 하는데 그게 또 부작용이 올 수도 있음. 결국 더 강한 것을 쳐먹어야 하는 상황임 목숨을 버리면서도 까지 말이지.

“답지않게 식사예절을 너무 따지니까 그러는거야. 게걸스럽게 대가리를 쳐박고 그저 씹어먹으면 그만인것을.”
“그게 미식가라는 놈이 할 말이야?”
“미식은 좋은 재료와 손질방식의 미학을 아는것이지 먹을것으로 장난질을 하라는 말이아니야. 너희들은 ”

그러함에도 인간은 빛 속에서 구원을 찾는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지.
그렇게 오만하고 또 나태하며

증오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또 인색스러운 욕정에 눈이 멀며 탐식을

일삼고 오만하고도나태함을 보이는 것들은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꿈내용

아카데미 수학 물리학 공부 어린 동물 사체 잇따라 확인 혹은 살아있는 거 중간에 확인신고함. 조사착수. 캘리포니아 물놀이 한지현과 함께감. 물놀이 하는곳까지 가까워서 편하게 감. 그리고 거기는 바글바글 안함 예약제임 아침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음. 거기서 김성국 중간에 수영하고 잠수하는동안 만남 혼남 잠수하는 거 되게 깊게 함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거슬러 갔고 밖에있는 바에서 스페인어 하는애 만남 아는 얼굴임 그래서 걔랑 얘기하다가 내가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영어하는게 좋다니까 독일어하는 애가 오더니 영어가 그렇게 좋냐고 아쉬운듯이 물어봄 독일어는? 하는듯이 금발 푸른눈 사무실 같은곳에서 김성국의 소개로 알게된 여자 옆에서 계속 여친 확인 다크 초콜렛 어디서부터 먹는게 맛있는지 물어봄 꿈 인지하자마자 종료

복수귀

스치듯 찰나와도 같은 꿈을 영겁의 시간동안 꾸고 있었다.

자르갈은 적응 쟈토움은 모방

고점은 적응이 더 높지만 저점은 모방이 더 높음 그러나 자르갈은 신속의 진화 쟈토움은 유전형질의 재구축 성질이 다르기에 어느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못함.

“네놈들이 읊는 언령은 오직 산 자를 위해서잖아. 단 한번 그들은 죽은 자들이나 저주입고 뒤틀린 자들의 슬픔을 나누려 한 적이 없었어. 반쪽짜리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이들의 구원을 바랄 수 있겠어?”

늑대인간들은 진짜 처절하게 살것다 야.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세트의 후예로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 조라네스 시나리오 』

“그래, 그러나 이제 떠나지 않을거야. 섬에서 나와 이제 당당하게 어느곳에나 나의 발자취를 남길거야.

아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세상이 진짜 병든 세상이야.

“까불지만 않고 산다면 왠만한 금기시되는 일을 하는일은 없겠지만 뭐든 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지.”

“넌 왜 싸우냐?”

“단순하게 내가 선 곳이 전장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건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새끼나 다름없잖나?”

“글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다른걸 선택했을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곳 말고는 다른 모습이 떠오르지 않더군.”

“슬픈 짐승이구나.”

응 맞아. 난 포기.

뭐하는거야 개새끼야.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하찮게 빛나주렴.

“이데아의 대지는 문학과 예술 사랑과 시로 윤택해진다고.”

“그리고 빛나는 재보를 탐하는 욕망으로 그 가치가 빛나노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피에 굶주린 짐승은 우리 뿐만이 아니다.”

잿빛에 꽃이 필 수 없으면 잿더미를 밀어버리고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주면 돼 / 하지만 어떻게? / 비료와 거름을 주면 돼.

다른 세계의 나는 저들처럼 사투속에서 스쳐가는 쾌락보다 그저 살아가는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사막의 무투가를 보며 하는 말

귀신에게 저주를 건다고? 아니 애초에 넋을 저주할 수 있는거임?
ㅇㅇ 충분히 걸 수 있지. 어차피 죽어 넋이 된다면 그것들끼리도 충분히 죽고 죽일 수 있는게 이 판인데 놀라울것도 없지. 단지 그 증오와 저주를 잠깐 끌어다 쓰는것일 뿐이야.

엄마 만나서 반가워.
마취 때문에 환상을 보고 있는거야.
그녀가 모르는 사실도 환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이야?
아무렴 어때. 행복했으면 됐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안다. 하지만 내 목숨으로 마고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곁에 있어주거라. 그것이 어버이의 도리. 남겨진 자는 슬퍼할거다.

왜 소수의 인원으로 카인의 핏줄이 있는 땅에 들어가는데도 입구컷 당하지 않냐? 혹은 침입해온 공작원 같은 애들 머릿수로 힘찍누를 못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각자의 죄악을 짊어진 카인의 핏줄

들이 자리한곳에 목숨을 부지하며 쉬이 발을 딛을 수 있는것도 같은 영토내에 같은 죄악을 짊어진 자들일지언정 각각의 개체가 추구하는 방향마저 극과 극으로 다른 성향을 띄기에 공통의 명분이 없거나 자신의 안식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직접 나서는 일이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하다. 더구나 왕가의 혈통의 군주령으로 국가적인 사건이나 아니라면 개인이 죄악을 함부로 쏟아내는것을 금하고 있다.

“나를 얼마나 믿어?”
“무의미한 질문이야. 너를 의심한 적 없거든.”

역사의 인과는 우습다 명예도 그러듯이 영광스러운 명분 따위은 없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눈을 뜬 자이기에 가장 작은 불빛으로도 그 눈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것이라.

반쪽짜리지 반대로 말하면 운명적인 서로가 있다면 인내도 분노도 그저 찰나의 가벼운 해프닝일 뿐이겠지.

죽은 사람만 보면 일어날 수 없다. 아니지 죽은 사람을 뒤돌아 볼 수 있기에 부대는 약진 할 수 있는것같아. 그 동력이 슬픔이든 분노이든간에.

잿빛 유령? 진짜 망령은 나겠지 남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군인은 목숨을 바치기에 죽음을 바라지 않을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들이 조금만 더 살아서 자기들이 지켜야하는 것들과 소중한 시간을 쓰는 그 순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포기하고싶어. 그럼 포기해 포기하고 하고싶은걸 하곳라아 그렇구나 나는 하고싶은게 너를 지키는거구나. 너의 웃음이구나. 무책임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쓸모없고 당돌한 꿈을 꾸는 이런 나를 향해 웃음을 지어주고 나를 의지해주는 너 때문에 나는 숨을 쉬는구나. / 아빠는 힘들어도 나를 위해 살아줓고 있어. 방해하지마.

좋든싫든 죄악은 섞일거야. 하지만 그 뒤섞인 죄악이 동시에 발현되지는 않을거야. 만약 낯선 죄악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 더욱 순수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는거야.

죄악도 분노도 죽어야 하는것이 아니며 숨겨서도 아니되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아니면 승리와 영광에 가려진 군인들의 죽음을 누가 들여다 보겠냐고

과학은 또 다른 이데아를 만드는거다.

운이 좋거나 재능이 있어 아직까지 살아있는게 아니야.

만월이 저물지 않아!!!

“지휘권을 쥔 자가 아니라면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그저 생존자들만 남을뿐이다.”

“이것은 누가 살고 누가 죽었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의 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잃었으며 그 이후로 어떻게 변하였느냐에 대한 짧고도 긴 이야기인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의심은 수치가 아니라 다시금 그 믿음에 담금질을 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 먼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삼키고 시험에 빠뜨릴 것이니.”
ㄴㅋㅋㅋㅋ 틀린말은 아닌데 ㅅㅂ 그걸 얘네가 말하니까 신뢰도가 개박살나넼ㅋㅋㅋ

세력의 문양과 상징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면 자르갈은 그냥 짐승새끼에다가 개인주의인데 세력의 상징이 필요없음 그리고 이빨이랑 발톱을 갈겨버리니 문양같은건 필요없음

천구일합 조져줘야겠다. 만월의 품이 극대화되어 광기는 미친듯이 요동치도록

“죽어, 이 새끼들아!”
“우와, 죽으라고 말했어. 저래도 되는거야?”

“불 꺼진 집이 나를 반기려 하질않네.”
“불 꺼진 차가운 집으로 반갑게 돌아가긴 힘들지.”

“엄마.”
“왜?”
“밥 줘.”
“오냐.”

“애써 슬픔을 감추는 것들은 망가져있기 마련이지.”
“그 슬픔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해소하면 후련해지고 태도가 바뀌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망가진 것조차 모른 것들보다는 낫다는 말이지.”

“그런가요.”

“그래, 그러니까 궁둥짝을 움직여서 네놈 스스로 거짓으로 무언가를 투영하며 사고할 시간을 주지마.”

“인간을 닮아있는 모습을 하고 인간과도 가까운 혹은 인간만큼이나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인간들 안에 본능적으로 새겨져있다. 그렇기에 인간은 충분히 높은 지성을 지닌 개체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자신들과 한없이 가까운 지성체에 대해서는 거부감 혹은 극심한 적개심을 지니기 마련이다.”

천사 찾는 이유 검은 문을 찢고 나올때 휘발되는 기억과 공허의 부산물과 비호환되는 육신의 안전한 재구성을 위해서 천상의 현신이 일으키는 창생의 기적이 갖고있는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함

세트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이겨냄 근데 그게 조은게 아님 애들이 돌아오고 있음 광기는 더욱 날뛰게 된다.

“정부를 만들어라. 그것이 없으면 별볼일없는 깡패 새끼나 다름없다. 국가적 초석과 사회적 입지는 하나이기에 둘로 나뉘어질 수 없다.”

“이데아의 풍요로움을 너무 얕보는구나 공허의 찌꺼기들아. 재료라면

얼마든지 있다. 부족한건 네놈들의 창의력이 아닐까? 시체들을 엮어서 만든 이 작품이 훨씬 아름다워.”

“역사가 펜을 잡은 놈들에 의해서만 쓰여지는거 같냐? 멍청한놈아. 시궁창 옆자리 노숙자나 밤거리 몸 파는 창녀의 입 그리고 본디 역사라는 것은 노래와 시로도 이어지는거다. 시나 희곡을 얕보지마라.”

0과1 사이의 차이는 가늠할 수 없을만큼 크다. 그만큼 무에 유를 창조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뜻.

0과1 모두 저마다의 결과값을 출력한다. 0이 없으면 1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데아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상태는 극도로 움직임이 없다. 고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비생산적인것이라 정의 할 수 없다. 이데아의 모든 입자는 정지 되어있는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그것은 가장 안정된 우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행여 카인의 핏줄과 조우하여 그것과 말을 섞으려거든 어설프게 그 생물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들지말고 우선 순수한 악의를 가지고 전면으로 그것들을 부정하라. 그들은 카인이 최초의 살인을 자행할때 붉은 물방울을 보면서 느꼈던 쾌락이 낳은 산물이므로 육신의 피를 전부 앗아갈때까지 그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평화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 흘린 피와 살로 세워진 것들로부터 학습해왔다. 이상향 속에서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들이지만 위기에는 그들은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것들이기에 너무 궁지에 몰면 안된다고 생각해.

그녀는 마치 아이들이 악스 마이어스 축제에 상 글라로가 없다는 말을 들은것처럼 크게 실망했지만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를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그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까. 오히려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전부 하나같이 아벨의 자손들 뿐이었다.

인간의 창의력을 무시하지마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되니 말이다. 그것이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그 상상을 뜯어먹으며 살아왔다.

책임의 분산의 군중속 익명성의 뒤에 숨어 책임의 분산이라는 것이 몰고오는 위험을 아는가? 도덕적 잣대는 법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법이 없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뼈저리게 실감할거다.

노예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대한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다. 오히려 잘해주면 그들은 새장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지.

기억파편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
욕망은 결핍에서 나오지만 결핍에서 나오지 않는 단 한가지.

레위앗의 골노랏 죽이기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는게 있을것이다. 그건 베누밧실의 심장이 된다.

안착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편히 쉬게 해주지. 바람과 파도가 쉬는 광경을 본적이 있나? 표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다. 그 어떤 상황에서조차 굴하지않고 돛을 펼쳐올려 그것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다. 다음으로 베누밧실이 씹어먹는 것은 창조주 에르아다.

전원 위치로! 닻을 올려라. 다음으로 베누밧실이 씹어먹는것은 창조주 에르아다.

미덕이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보인다면 그것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

퀴나즈 — 아르카나 술식의 구축과 해석이 자유로운 상태

아라샨 — 마나를 두른 지움이라고 부르는 텅 빈 정신 수양의 상태
베르생 — 자애와 박애 기반의 아벨의 은총과 아르카나가 융합된 상태

아벨 나의 어리석은 동생아 너는 여전히 독이 든 과실만을 남기는구나.

힘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단순히 폭력이지.

이별이 슬프다면 지난 여정이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닐까?

“삶의 이유같은게 어디있겠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는 이미 충분한거지. 안 그런가? 벨라 소시르 대위.”
“적당히해라. 죽은놈이 그걸 이제 어떻게 알겠나?”

진실을 믿는것이 아니라 믿고싶은 걸 믿는게 진실이 되는거라고

개체단위의 완성도는 뛰어났지만 종족으로 포괄하기에는 너무도 응집력이 나약함

“행여라도 저런게 뒤틀렸을때 고요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무언가를 부수려고 한다면 그 뒤에 그려질 세상은 정말 끔찍하겠구나.”

“절망감마저 포기하고 놓아 버리는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사실을 은폐 했다는건데 민감한 얘기지만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부분적인 공개 혹은 그 사실을 나중에 공표하는 것이 생각보다 완전한 해악은 아니다. 심판하는 자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보다 군중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이 사실에 붙여댄 살덩어리가 원래의 그 사실을 거짓으로 재창조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안정된 통제라는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보다 군중들이 훨씬 어리석고 다루기 쉬울때가 있거든.

사회적 테두리라는 말이 괜히 만들어진게 아니다. 그 말은 예로부터 오랜동안 쓰여졌고 그것은 앞으로도 쓰여질 것이며 사라질리도 만무하지. 선이라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정형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미 그 안에서 보호 받는것에 익숙해져 버린 개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충분히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것이다.

단 한번도 기도가 인간들 이외의 것들에게 향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다.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거라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전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은 규모의 크기 혹은 인식의 차이일 뿐, 우리는

평생을 그것과 단 한번도 멀어져있었던 적이 없었어. 전쟁은 유치한거야. 필요와 명분에 의해서 벌어지는 전쟁도 있겠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핑계일뿐 대부분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화가나고 기분이 나쁘고 심심풀이로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현실이야.”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짐승과 우리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신념과 철학이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생존하는 것 이외의 가치를 지니고서 살아갈 수 있는것이다. 그대의 신념은 무엇이고 그대는 어떤 철학은 염두에 두는가?”

천재는 감성적이기 마련이야. 감성도 지능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차갑고 피비린내나는 병기들 사이에서도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인 형태만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다름은 인정하지 않지만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사고를 하기에 존재한다고? 네놈 안에 흐르는 붉은 피는 사고하지 않은채 하릴없이 흐를 뿐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고한다는 것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고귀한 가치라고 그렇게나 다른 존재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우월감에 젖어있는거야?”

밝은 내일을 위해 무덤에서 죽은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무어냐?

이데아 세상은 개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록

“남의 삶을 깨부술 생각이면 완벽하게 부수라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는 것은 네 삶이 될터이니.”

“나이에 비해 젊어보여서 멋진게 아니라 세월과 함께 아로새겨진 주름과 정돈되지 않은 머리칼과 수염이 멋지기에 잉그람 랑뒤르 인거다.”
“하지마.”
“뭐, 어떤가?”

“언제나 좆같은 새끼들은 하나같이 좆같은 티를 안내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새끼들이었지. 불변의 진리야, 아주 씨발.”

역사적으로 쿠테타가 칭송받았던 적이 없었음.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 피가 옅어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흐릿해진 죄악의 경계.

신이시여 나를 믿으소서.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색을 알고 타인의 것을 강탈하면서 평생 우리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만들어내는 우월감은 물질적인것보다 더욱 짜릿하다. 그러니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지. 한 잔 하겠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요.

망설임도 없이 선택했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 그럼요.

그렇다면 아빠를 세번 볼 동안 엄마를 한번밖에 못보게 된다고해도 아빠를 보러갈거야? 엄마가 생각나지 않을까?

음, 그럼 엄마를 볼래요.

변덕쟁이네.

….

?

엄마는 전쟁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는 강철의 심장으로 우리를 지켜줬으니까요.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없듯이 신 역시나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개체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이기에 그것들을 이해하기위해 분투하기보다 그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포용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인것을 아는것은 참으로 아름다운거야. 여기까지가 우리의 마지막이야. 서로에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다른이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

테르베르낙

Terrbr’Nnak

팍스 까르띠에 — 평화구역

미친놈들 아그발 시궁창 쥐새끼들 주제에 잘도 저들 멋대로 평화구역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금과 구호를 대준다고? 미쳤나? 그 행위는 구호가 아니라 공범을 만드는 꼴이잖아? 그리고 비밀리에 그 개짓거리를 하는 쥐새끼들은 스스로를 비질런트라고 부른다고 한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방황을 하는거야.”

“방황 하는것에 궤변을 덧붙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방황하지 않으려 애쓰는 이들의 혜안을 갉아먹는 짓이니까.”

“실력이 부족해서야. 방황하지않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물론 방황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들마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인간이 되고싶은 꼭두각시 인간의 장기 하나하나를 구현함.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적이 없었다. 심지어 이데아조차 드넓은 카하낫을 표류하고있는 중이지.”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중심축에 해당되어 있었네. 우리는 항상 같은곳에 서 있었지. 모든 곳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네.”

“그것이 그대에게 힘이 될 말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것도 짙게 내리깔린 어둠이 내린 시련이자 그것을 이겨내게 할 동력이 된 축복일 테지만 이 역시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려버린 정의가 만들어낸 갇힌 시선일 뿐이네. 그대를 실망시킬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니 어찌하겠나?”

“기술특허 제정을 왜 안하냐고? 그딴걸 걸어놓으면 그걸 휘두르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결국 그것에 프리미엄이 쌓여 일부 계층만의 특권이 될거야. 더불어 모방된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게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비슷한 기술이 나올 수 있겠지. 그것이 나쁜거야? 기술의 발전과 선의의 경쟁은 아벨의 자손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것은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런 무수한 모방품들은 내가 만든 장난감을 결코 따라올 수 없어.”

인공지능 기계가 타인의 죽음에 공감하려고 그것의 목소리와 모습을 흉내내는데 그걸보고 인간들은 개빡침. 그런데 그 공감하려는 기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회의감에 빠지게 됨.

믿음과 신앙에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함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것 하나하나가 의미있는 서순이며 깨우침에 닿기위한 과정이다.

누구에게나 이데아의 평화와 안정보다 중요한것이 있다. 그 크기와 무게는 이데아의 빛과 비교해보면 하찮고 사소하며 보잘것없다. 그렇지만 그 하찮아보이는 가치들이 하나하나모여 만들어진것 역시 이데아다. 그 쓸모없는 것들이 부딪혀 만들어진 거대한 빛이 이데아인 것이다.

개체의 지능과 운명의 존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높은 지능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운명을 향한 몸부림에서 반드시 유리하다는 법도 없다.

아락슐을 역행하면 개체의 입자가 변형된다. 그것은 모든것을 준다. 지식 역사 문화 그리고 절망. 아락슐의 가시화.

의사가 생각하는 완치는 의학적인 완치보다 정말 다시는 재발하지않고 그 병에 관련해서 티끌하나 남지않는걸 완치로 생각한다. 그래서 감기

도 나아진 것이지 완치되는건 없어.

의학이 대단한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대단함 아무렇게나 꿰메어도 그 살은 재생을 하거나 방접을 강구하거든 면역체계도 경이로울 따름이라.

포용이라는것은 때로는 당신이 원한 장소도 당신이 원했던 장소에서 나타날수도 때로는 믿음을 배신하여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항상 습관적으로 의문을 던지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잃으면 배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니까."

재밌는것은 기록하는 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것을 써내려가도 평가하는 이들의 판단은 언제나 주관적이었다.

찰나멸 — 모든 존재와 현상은 찰나라는 극히 짧은 순간에 생겨나고 소멸하는것을 반복하며 실체없이 흐른다. 나는 매 순간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 과거와 현재의 인과성 같은건 없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것. 세계는 찰나가 생성되고 곧바로 소멸하는 과정히 무수히 이어지는 흐름이다. 라구엘의 철학과 닿아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인가?

악 튜르나 — 윌츠 최초 최장 신문구독 및 영상매체 발행기관
아벨의 자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삽화를 통하여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를 향한 선동과 광고의 성격도 띄고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오만이다. 모든 개체가 이데아에 속해있는 것이며 이데아조차 카하낫을 터도는 수많은 테르벨 중 하나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핀다면 그것은 서글픈 낙원

이데아에서 죽기전까지 혹은 죽을때까지 모를 수 있을 사실들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대답에 대한 이야기이다.

막연한 공포보다 확실한 공포가 더 무서운 법이거든. 막연한 공포에도 정신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호기심 역시 숨길 수 없거든.

아르카나 도식 구축식 순서

1. 사고방식 : 고정된 행동이나 사고의 패턴
2. 인지도식 : 세상을 이해하는 나만의 조직화된 생각 구조
3. 설계도식 : 정보의 구조화된 조직

“패턴은 자기 유사성의 특징을 이루고 작은 부분이 구조화된 조직으로 형성되고 그것으로 세상의 구조를 조직화하여 구상한다.”

아르카나로는 가능한 공간전이가 과학의 영역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느가 개체의 유전적 정보를 정보 처리화 하여 옮기는게 불가능함. 근데 아르카나에 담긴 생명의 굴레는 가능하다.

영원한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영원을 살아보지 않은것들이 하는 말이야. 질투에서 나오는 악의지.

이데아의 역사가 단순히 하나의 개체만으로 뒤바꿀 수 없는 휩쓸릴 수 밖에없는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면서 눈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전부 믿지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물음과 사고를 멈추지 말라.”
스스로가 사건의 중심에서 내린 선택은 본인의 의지이며 그것이 이데아의 거대한 흐름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진실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물음일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다

시 쓴다는 말과 같다. 과거는 미래이며 미래라는것은 과거의 배열을 조금 다른 순서로 재배치된 현상이다.

“질서가 없는 세계에서 굳이 선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까? 폭력은 잠깐의 불씨가 될 뿐 그것으로 선은 유지되지 않아.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과 신앙이겠지.”

이데아에서 죽기전까지 혹은 죽을때까지 모를 수 있을 사실들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대답

영광의 전투라고? 기록되는건 겨우 몇줄 뿐이야.

그들은 감정이 없어 하지만 감정이 있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심판이라고? 너희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동안 우리는 심판을 자행해왔다.

총이 머리에 겨누어지는 있는 와중에 묻는다. 이게 네 구원이냐? 이게 없으면 네게 구원은 없는거야?

아그발의 탄약은행 신용등급 대출 상한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결코 그 시간의 총량은 같을 수 없다.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이의 시간은 덧없지만 반대의 개체들은 찰나의 한 순간조차 그 쓰임새를 찾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족이라도 살아 가는 세계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기에 이데아의 역사를 기록하는 크기와 방향(Vector)의 값이 다르다.

내가 널 알면 너도 나의 존재를 알게된다. 하지만 그걸 너조차 알게 해서는 안돼. 고독과 고립에서 나오는 공포의 맛은 달콤하니까.

공국과 연맹

이상향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개체를 잘못 선택했어. 발시아는 이상향으로부터 가장 먼 개체야. 다른 개체들에게 이상향은 생존과 종족의 존속에 무게가 실려있는 반면 발시아의 이상향을 향한 집착은 남달랐다. 기꺼이 타인의 피를 볼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이다.

대개는 효율적으로 진화하여 번영을 이루어내고 윤택한 삶을 영유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효율과 이상은 정 반대의 위치에 있기에

모두의 이상이 같을 수 없지.

이곳이 왜 비질란테가 없는 청정 지역인지 알려줄까? 그것은 썩어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민중의 쾌락을 빨아먹으며 정의감을 불태워도 근본에 대한 물음을 하면 역설적인 모습 때문에 스스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다음 모험을 위해 떠날 시간일세. 하루하루 이어지는 지루한 당신의 생존이 누구에게는 모험이 될걸세. 그러니 숨막히는 이 생존을 즐기게나.”

“재앙을 두려워 하라고 배우지 않았다. 그저 재앙에서 벼락을 휘어잡는 것만을 배웠을 뿐.”

“무언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있구나, 죄악의 종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심판하는게 아니다. 너희들이 한없이 나약하다고 여기었던 우리의 선택을 받는거란다. 그리고 결국 선택받지 못하는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이데아에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찌꺼기들아.”

타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데아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이지.

Ghost Point The Way

잿빛 유령은 정식 명칭이 아님 애네는 부대명이 없음. 정식 등록 부대도 아님. 얼굴은 항상 가리고 다님. 애초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음. 삶에 대한 미련이나 생존을 향한 본능보다 오직 임무나 거대한 명분에 기꺼이 스스로를 내던짐. 그래서 마르나크의 대표적인 부대는 인정에 이끌리는 베르셀의 부대가 있고 죽음도 불사르는 잿빛 유령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임무보다 개인으로 움직이는 특파 공작 부대가 또 따로 있음. 내 곁에 있는 전우라면 기꺼이 죽어도 되겠다는 부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베르셀의 부대. 죽어서도 임무는 완수한다는 마인드의 잿빛. 절대 사로에 서지 않고 질기도록 살아남아 목표를 천천히 갉아먹는 특작 부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전투는 없다. 누군가 전장에서 감히 그것을 임에 담는다면 그것은 정신이 부서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신을 조작하는 작업이니 그 각오의 시간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그발에는 핏이 있어 구덩이지 쓰레기들은 그곳에 내던져져 버려지지만 그 깊은 곳의 끝에서 모든 추함을 바라보는 왕의 옥좌가 있다.

에덴폴 머리말 전조부분 라틴어 해석본.

Historia lacrimas aut narrationes continere non debet.

Sola facta obiectiva id probant.

Simul ac affectus et subiectivitas in documentum

vel uno momento infunduntur,

desinit esse historia et in aliquid simile commentario

vel fabulae scaenicae degenerat.

— Emres Verax —

이 곳은 누구에게는 유토피아 누구에게는 디스토피아 누구에게는 선역이자 악역이다 그것이 뒤섞여 만들어진 이데아야말로 동등하고도 참된 이상향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전쟁을 피하고 싶다면 전쟁을 준비해야만 해.

원초적 공포를 즐기는 자는 어디에나 있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역사는 쓰여지지 않겠죠. 수많은 가능성을 열보면

서 그 속에서 기록하는 자가 기록으로 담아낼 세상은 바로 지금입니다.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자신을 조우하든 흔들리지 않은 채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력 』

『 상투스 』

마비오나 조엘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로써 공국 퀼로른의 몰락에서 절망하는 아벨의 자손들을 아벨의 권능으로 일으켜세우며 희망을 심어주게 하는 정신적인 상징이자 종교를 기반으로 선 국가이다. 빛의 성배로 아벨의 현신을 불러내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안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애와 계몽을, 그리고 불경한 자들에게는 정화와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 남겨진 아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명망있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이자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여기기에 아벨의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인구밀도를 지니고 있다.

『 이르메스 』

의로운 사제 펠로른 그라도에 의해 설립된 국가로써 행정과 사법 죄와 벌의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였고, 자신들만의 법 테두리 안에서 불경한 자들을 심판하고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수호하는 법관들을 이르러 심판자들이라고 불렀다. 아벨의 품안에 있는 세 국가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제한된 자유국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아벨의 어느 국가들보다 가장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르메스의 입증된 행정방식을 다른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독자적인 기관을 두기도 한다.

『 마르나크 』

잉그람 랑뒤르에 의해 창설된 아벨론의 세번째 가지로써 퀼로른이 몰락한 이후에도 과거의 영광을 동경하고 있던 자들의 원조에 의해 만들어진 군사국가이다. 군사국가임에도 아벨의 장벽 안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가장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상투스와 이르메스의 부족한 군사적인 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혹독한 훈련과 다른 특이한 권능없이 오직 노력과 자신을 단련하며 이데아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맨몸으로 불경한 자들과 최전선에서 부딪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 발루 』

후대에 이르러 북쪽에 사는 혹독한 추위 속 야만인이라 부르지만 꽤나 기원이 깊은 이들이다.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독립한 자들로 우월한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를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신체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오랜동안 자연의 자해인 벼락과 눈보라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관찰해가며 끊임없이 그것을 마주한 결과, 눈보라와 번개의 갈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기적을 저들의 전투방식에 녹여내기에 이르렀다.

『 피오르 』

초기에는 노약자들을 위한 보호소 같은 개념에 불과했지만 후에 이르러서는 전쟁의 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곳으로 변모했다. 정확히 말

하면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한 이데아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곳에서 생존을 위해 이능을 발현하는 존재들의 무리들을 이르러 피오르라고 부른다. 다른 곳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서로 칼을 맞대고 죽음의 사선을 경험하며 서로의 기냥을 키워나가 나중에 이르러서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시술로 저들 손으로 스스로 행하며 잠재력을 끌어낸다. 저들끼리 의식이라고 부르는 시술을 통해 초능력 혹은 염동력과도 같이 상상한 것을 현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질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한다.

『 에두예르 』

신앙의 분리 이후에 상투스의 기본적인 교리인 아벨을 신봉하는 자들의 교리에 반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된 국가로 아벨의 어미와 아비인 이바와 아다무스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받은 신자들은 서로 모여 그들의 계시를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 계시는 대부분은 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들은 잠드는 그 순간마저도 계시를 받는 행위를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전의 일부라고 여긴다. 인내의 고행과 계시를 통하여 신성한 끈 파피루스와 스크롤에 엮어 신성한 증기를 뿜는 칼과 방패의 형상을 이루는 기적을 빚어내게 되었으며, 자신이 필요할 때를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시가 이끄는 대로 그 율법을 많은 이들에게 설파하고자 한다.

『 인물 』

『 카하낫 』

아무것도 없는 공허. 지금의 인간은 만고의 끝에 간신히 창조주의 기원을 밝혀내가고 있지만 기이하게도 아직까지 공허의 흔적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카하낫이라는 이름도 후대의 이들이 저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며 원래라면 그것에게 이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릇 이름이라는 것은 불멸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후대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취하는 몸부림 중 하나일 뿐이라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공허는 그 이름을 만들어낸 하찮은 것들의 숭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굳이 애써 부정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듯하다.

『 에르아 』

창조주. 어머니. 그녀.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녀는 빛조차 없는 공허 카하낫 속에서 기지개를 켜며 자신의 젖을 뿌려 공허 속에서 수많은 별, 테르벨을 창조해 어둠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생명을 낳고 부수기를 반복하다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예외성을 가진 테르벨을 만들고자 했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보석과도 같이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테르벨인 이데아를 만들어낸다. 태초에 그녀 역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를

뛰놀며 기록하고 싶어하매 그녀의 이름을 물으니, 그렇다면 나를 창조주, 에르아라고 부르라 답했다. 이후 이데아를 거닐며 그들은 어렴풋이 자신들이 기억했던 그 찬란한 빛을 기록했는데, 이데아에 떨어지며 잊어버렸어야 할 기억이 우연이었는지는 몰라도 에르아와 일치했다. 카하낫과 다른 점이 있다면 숭배를 바라지않는 카하낫과 달리 에르아는 자신이 빚은 피조물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 이바와 아다무스 』

여성의 형상을 한 이바와 남성의 형상을 한 아다무스. 저들의 어미 창조주 에르아가 자신들을 위하여 빚어주신 낙원을 뛰놀며 그 곳에서 자신들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자 하나, 죄악의 돌에서 스며나오는 속삭임에 취해 그것을 만지고 난 뒤 서로 몸을 뒤섞으며 죄악을 뒤집어 쓰며 부정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된다.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과 수치스러움이었다. 이 후에 그 곳을 다시 방문한 아다무스는 릴리트와 간통하고 그들 사이에서 어둠이 태어나며, 그 것으로 인하여 릴리트의 사념이 이데아를 떠돌게 되었다.

『 릴리스 』

에르아가 이데아를 창조할때 카하낫에서 흘러들어 온 부정한 기운들도 한데 섞이며 만들어진 죄악이 돌이 흩어진 자리에서 깨어난 여인.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죄악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후에 카인의 핏줄이

죄악의 돌의 파편을 모두 회수하여 그녀는 다시금 이데아에 강림하고, 그녀를 이용해 순수한 피의 장막, 진홍의 새벽을 열고자 한다.

『 죄악의 돌 』

태초에 창조주께서 그녀의 모습을 갖는 이바와 아다무스를 만드실 적에 그들과 함께 일곱개의 대죄도 함께 낳으셨는데 그녀는 이들을 사랑하시어 그 죄악들을 돌에 담아 두어 그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숨기시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우려에도 결국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발견되며, 죄악이 담겨져 있는 돌을 일컬어 오늘날 우리들은 죄악의 돌이라 칭하였다.

『 아벨 』

이바와 아다무스의 첫번째 자식. 온화하며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자이며 감정적이며 충동적이지만 그 감정을 애써 가리려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왔다. 그 급한 성격 탓인지 가장 먼저 자신을 따르는 자손들을 만들어냈으며 소박한 문명을 이룩해 낸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도중, 카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이에 분노한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의 권능 아래 불경한 자들을 전부 죽이겠노라 다짐하게 된다.

『 카인 』

최초의 살인자.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아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핏줄들을 번영시켰다. 그는 계획적이고 계산적이며, 뛰어난 손재주를 바탕으로 그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던 도중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형제인 아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형제를 죽이자 창조주께서 이에 경악하며 그에게 평생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의 핏줄들에게도 닿게 되며 평생을 저주를 품은채로 피를 갈구하게 되며 어둠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 세트 』

형제 중 가장 늦게 이데아에 당도하고 그의 후예마저 가장 늦게 점지한 자. 미숙아인데다 다른 형제에 비해 능력이 부족했기에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질책을 받아왔다. 하지만 역사와 조예에 출중했던 그는 이바와 아다무스가 그랬듯이 자연 곳곳에 자신들만의 그림이나 흔적들을 남기기도 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보다 열성적으로 세트를 신의 자리에 올리고자 했고 그들의 후예의 번영을 위해 힘썼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도중에 발발한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낸 인과로 인하여 세트의 후예들이 괴멸할 정도에 이르자 간신히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자신의 권능을 발하였고 이바와 아다무스가 뿌리내린 저주는 다른 이들이 아닌 세트의 심장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는 깊은 곳에 돌이 되어 때를 기다리며 고이 잠들었다.

『 이리샤 』

이바와 아다무스가 낳은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니 훗날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희들 곁에서 일러주지 않음에도, 이데아를 사는법을 저들 스스로 터득해 나가며 저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에르아가 저희들에게 그러하셨듯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한 지붕아래에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고, 창조주가 그러하듯 저 아이들의 생명을 담을 세 그릇을 빚고난 뒤 그것에 생명을 담으니, 그 셋의 생명을 '이리샤' 라 이름지었다. 다만, 그들이 빚은 피조물은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이 연약했다. 더구나, 이들에게선 창조주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아 그릇은 더욱 쉽게 깨어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고도 남을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어느 누구와의 피와도 섞일 수 있었으니, 이바와 아다무스는 저 아이들의 곁에 여인들을 두게 하여 그것이 이들의 안에 흐르는 피를 더욱이 선명하게 물려주게끔 하였으나 동시에 사이를 더욱더 멀게 한 존재이기도 하다.

『 델레놋 1세 』

아벨이 카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하여 희망을 심어준 사내이다. 충격 속에서 흩어져버린 각지의 아벨의 자손들을 모아 그들로부터 신뢰를 쌓으며 마침내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의 의지를 한데 묶은 위대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길고

도 긴 제 1차 영원의 전쟁의 끝을 고한 자이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벨의 장벽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더욱 개선하여 더 높고 두텁게 만들었다. 이 후에도 장벽 밖으로 아벨론의 빛의 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만들어진 불경한 것들의 정화에 이바지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건넨 존재였지만 길어진 평화의 시간동안 그의 호전적인 성격은 배출구가 필요했고 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 마침내 스스로 몰락의 길에 올랐다.

『 델레놋 2세 』

델레놋 1세의 뒤를 이은 왕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주변을 놀라게 한 아이였다. 그는 무력에 의한 지배는 의미가없다 여겼기 때문에 성년의 나이가 되기도 이전에 길드를 활성화하여 상업 제조뿐만 아니라 과학과 공업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섬세한 그의 성격은 보석이나 세공 등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연금술까지도 섭렵하는 등의 천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정은 안정세를 타더니 이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며 내실을 다져 많은 이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였다. 또한, 퀼로른과 다른 지방의 자치구역을 잇는 수도 및 교통로를 개선하는 등 신앙에만 매달리는 것만이 아닌 행적적으로도 뛰어났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는 등 기본적인 국가로써 갖추어야 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후로 선대의 그릇된 길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자 차별받고 핍박받는 자

들이 없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본인이 만든 상업적인 형태가 이미 구조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이들을 포용하려다보니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결국 재정 상태는 바닥을 쳤고 화폐가치는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한다.

『 델레놋 3세 』

극심한 스트레스로 델레놋 2세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 뒤를 이어받은 델레놋 3세가 다스리는 퀼로른은 더욱 끔찍했다. 자신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오른 그의 곁에는 선대가 쌓아올린 부에 명성에 눈이 멀어 아첨하는 자들이 끊이질 않았다. 퀼로른은 망국에 닿게 한 자이자 많은 이들을 장벽 밖으로 내몰게 한 ‘세기의 분리’를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서나 돋보이는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의복과 향수에 관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환락과 여흥 투기장 그리고 시와 예술을 비롯한 화류계쪽과 풍류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후대에 이르러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는 점으로 볼 때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 잉길 리위 』

델레놋 3세의 아내로 덕망있는 여왕이었지만 질투와 시기에 물든 남편

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두 눈이 뽑힌채로 이름모를 섬으로 추방당했다. 슬하에 딸이 있지만 그녀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 키리에타 에산 』

아벨의 자손들을 위해 설립된 아벨론의 초대 교황으로 영원의 전쟁에서 델레놋 1세를 빛으로 인도하며 아벨의 권능을 깨우친 자로써 빛의 은총으로 델레놋과 그의 수많은 군세의 사기를 드높히는 등 정신적인 보탬이 되었다. 홀로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예언을 목도하며 신성한 기구인 아벨론 창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아벨론이나 상투스의 창설 전후로도 역대의 교황들 가운데에서 일곱의 주선을 모두 행하며 이데아에 크고 작은 영행력을 행사해온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그는 오랜시간동안 아벨론의 교황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불안에 빠져있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구해다 준 인물이었다. 이후에는 아벨론의 타락의 징조에 책임을 느끼며 교황의 직책을 던져버리고 일선에서 물러나 조언가를 자처하였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존재이다.

『 마비오나 조엘 』

아벨론의 2대 교황으로 7선의 키리에타에 의해 추천을 받은 아벨론의 후계자로써 겸손의 미덕을 깨우친 자였다. 마비오나 조엘은 겸손의 마비오나라고 불리울만큼 자신을 굽힐줄 아는 존재였다. 키리에타의 추천

을 받으면서까지 그의 자격을 검증받았음에도 그가 키리에타의 후광 아래에 손가락질 받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념과 헌신은 꺾이지 않으며 고개 숙여 자신의 모자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을 고쳐나가고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로하여금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게하고 오히려 이에 감복하여 그를 따르는 추종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이후에 아벨론의 몰락하고 아벨론의 정신적인 명목을 잇고자 독자적인 종교국가인 상투스를 창립하고 1대의 교황으로 추대받는다. 그러함에도 키리에타를 존중해 마지않는 그의 겸손은 상투스를 창립한 후에도 그를 1대의 교황으로 선언하였고 스스로를 상투스의 2대의 교황임을 자처했다.

『 세르파 떼레쥬 』

상투스의 3대 교황으로 자선의 미덕을 보이며 아벨의 자손들을 돌보았으며 최초의 여 교황이었다. 그녀는 친우인 펠로른 그라도의 행적을 높이사 아벨론의 두번째 가지 이르메스를 설립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나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르메스의 설립 이후 페로른이 만든 엄격하고 짓눌린 자유 속에서 불경한 것들의 정화에 대한 사뭇 다른 의견차이가 있었고 결국 그 의견차이는 그들 사이만큼 가까이 좁히지 못했다. 훗날 펠로른이 이르메스만의 구원의 빛깔을 발현해내자 이들의 사이는 그 뒤로 급격하게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에 세르파는 가슴을 부여잡고 슬퍼한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상투스를 찾아오는 이들

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다. 그녀의 자애로운 성격으로 수 많은 이들로부터 자애의 세르파 이외에도 어머니들의 어머니, 성모 또한 그녀가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백발의 성녀라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며 수도 안팎으로 찬사를 받은 교황이었다.

『 크라테르 밀러 』

상투스의 4대의 교황으로 근면의 크라테르라고 알려져 있다. 보통 상투스의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릴적부터 상투스에 헌신하며 믿음에 대한 증명이나 높은 신분이나 직책 그리고 당연하게도 배경이 중요했다. 크라테르 역시 굳은 믿음과 충만한 성령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그의 출신은 보잘 것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의심치 않았고 누구보다 성실했으며 근면했다. 다른 이들보다 10분 일찍이 일어나 20분 먼저 자리에 나와있었고 30분을 남들보다 더 기도하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한 시간 이상을 남아 정리를 행하는 그 과정마저 스스로 값진 시간이라 여기며 상투스에 진실로 헌신하며 봉사했다. 그 무수한 시간이 쌓이고 마침내 열매가 되어 맺히니 특별한 이견없이 그는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교황의 자리에 올라서도 아벨론 내전이 발발하는 가운데에서도 직접 전장에 서서 지친 이들을 독려하고 입장차이를 좁히고자 노력하는 등의 근면성실한 태도는 계속되었다.

『 레비에 로라즈 』

상투스의 5대 교황으로 친절의 미덕을 품은 자. 그녀는 아벨의 장벽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아벨의 장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반대를 무릅쓰고 장벽 밖에서 고통받거나 전쟁 이후로 살 터전을 잃은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 인하여 훗날 노약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설립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그 밖에 눈에 띄는 대외적인 활동은 없었지만 그녀는 만인에게 친절하며 깊은 인품을 보여주며 고통받는 자들과 깊게 공감하고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성숙 단계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 항간의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교황의 자리에 있는 동안이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웠다고 전해졌으며, 그 편한 분위기 때문인지 거리는 활기차 보였으며 이웃간의 왕래도 많아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일이 없었다고도 한다.

『 피오라 엘리어트 』

상투스의 6대 교황으로 상투스의 교황 중에서도 상투스의 모습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이명인 피 흘리는 성인이라 불리우던 그녀가 바로 인내의 피오라였다. 피 흘리는 성인이라는 이명이 함께한 이유는 그녀가 다른 일곱의 주선보다 극한으로 자신을 내모는 고행의 길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인내의 미덕을 짊어진 교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베푸는 것보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스스로 질타하는 미덕이자 시련과 상해를 동반하는 길이었다. 또한 다른 주선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고, 한계를 맞이하면 더이상 주선의 미덕을 행할 수 없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에 피오라는 인내의 고행이라는 특별한 기도법을 만들어 고통을 견디고 감내하는 그 과정을 거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그녀의 엄격하고 신실한 믿음과 기도는 선대의 교황과 사뭇 달랐기에 극도로 달라진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한다. 또한 그녀의 고행으로 또 다른 종교인 에두예르의 신앙이 태어났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그것을 인내하고 수용했다. 상투스의 많은 고위 사제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그녀는 아벨의 자손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바라보라는 말만 남기고 모든 것을 일단락했다. 의회에 함께했던 사제들 중 하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짧은 한마디는 자애롭고 성스럽지만 왠지모르게 숨이 막힐듯이 너무나도 무거웠으며 교황이 지니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릇된 감정의 격류가 느껴져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 이르기스 질베난 』

상투스의 7대 교황으로 일곱의 주선 중에서도 절제의 미덕을 가장 크게 발현한 교황이었다. 선대 교황들 그리고 상투스의 여타 다른 사제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면 강인한 체구에서 나오는 육체적으로 우월함을 보였고 그 육체만큼이나 올곧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다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불경한 자들과 조우했지만 다른 사제들의 도움없이 그저 맨손으로 아홉이나 되는 것들을 직접 찢어

발겼다고 일화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다. 더불어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이라는 큰 사건 가운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에도 주저하지 않고 강인하고 우직한 믿음만으로 직접 전장의 선두에 서서 신성군대를 지휘하여 위협을 저지하기도 했다. 선대의 교황 이후에도 분위기를 다소 엄격했으나 이렇게 혼란을 믿음과 신뢰로 무력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수 많은 이들은 이르기스를 그저 상투스의 교황이라고 부르지않고 영웅이라고 부르곤했지만 정작 이르기스는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감복하며 영웅의 노고를 치하하는 노래나 시가 거리에 넘쳐 흘렀으나 그는 이마저도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 파라크 에브람 』

상투스의 8대 교황으로 7대의 주선 중에서도 순결의 미덕을 짊어졌다. 순결하다는 것과 구원과의 거리감을 제시하며 의문을 갖고 있는 자들도 더러 있었으나 순결한 것은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티끌하나 더러움 없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며, 그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그 믿음을 실현하는 가운데 장벽 안팎의 사회에 전반적인 분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기에도 충분했다. 실제로도 그녀가 상투스에 헌신을 다하는 동안에도 불안감은 여전했으나, 그녀가 그저 순결의 주선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치안률은 상당히 높았다. 이는 불손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그저 심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셈이다.

더불어 그녀는 순결의 미덕에 반하는 음욕의 죄악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지만 성욕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배척하지 않았다. 이르메스의 법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파라크가 성욕이라는 음지의 것을 양지로 꺼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지 않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인도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때 범죄율을 상당히 낮추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수려한 외모와 더불어 상투스의 사람들 기억속에서 가장 따스하고 안락한 시대의 도래라 불리웠다.

『 세라하 프리드먼 』

상투스의 9대 교황으로 그 어떠한 특출난 주선도 발현하지 못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녀가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지 의문을 품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교황과 달리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갖추어 기존의 교황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그녀만의 미덕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반신에 가까웠던 앞선 여덟의 교황과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없이 그녀와 가까이하는 이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녀와 관련된 한 일화에서는 그녀가 상투스의 광장에서 연설을 하던 도중 부랑아가 갑자기 난입하여 그녀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며 아이를 제지하려했으나, 그녀는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이를 품은 채 연설을 이어나갔다.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존재처럼 여기던 존재라고 여겨지던 상투스의 교황의 이면을 보여준 많은

이들이 감화되어 그녀를 따랐다. 또한 구원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게 되었지만 과학이라는 빛을 보여준 퀼로른의 길드와 마이스터와 더불어 죽음으로부터 삶을 보여준 라파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며 그들이 독자적인 국가의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아벨론의 평의회와 상투스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함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박하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과 반박할 수 없었던 주장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쉽사리 그녀의 완고함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 펠로른 그라도 』

3대 교황 자선의 세르파와는 둘도없는 친우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써 의로운 사제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상투스의 사제의 일원으로 아벨의 자손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였지만 오랜동안 배워왔던 가르침과 달리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다. 이 후에 시간이 흘러 상투스에 부족한 일손과 적합하지 않은 일들을 거들며 더욱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발판삼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입지를 단단히 하였으며 후에 이르러 독자적인 기관의 수립을 요구하였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설립한 기구를 기반으로 독립국가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최초의 법령을 제정하여 공공질서와 치안 그리고 행정 등의 다양

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양한 법과 재판기록을 담아 둔 기록보관소를 설립하여 정의와 평등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의 귀감이 될 자료들을 보관하게 된다. 다만, 상투스와의 정화에 대하는 자세가 사뭇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다.

『 잉그람 랑뒤르 』

아벨의 세번째 가지인 군사국가인 마르나크를 창설한 존재로써 아벨의 품 안에서 펼쳐진 내전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그 이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안에 흐르고 있는 델레놋 가문의 피에는 미친 광기가 서려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이르메스의 대법관의 과중업무로 이 후에는 순수하게 전투 및 군사적인 명목으로 설립된 기구에 스스로 자원하여 남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한다. 과거 퀼로른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기록을 읽어온 자들에 의해 선망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지만 이후에 이들을 시기하는 이들과의 작은 마찰이 불씨과 되어 결국 장벽 안의 아벨론에서 내전이 발발하였고 결국 그도 피눈물을 닦아내며 참전한다. 아벨의 자손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속에서 슬퍼하지만 내전에서 그의 절규어린 외침은 비단 아군의 사기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한다. 항간에 따르면 그의 진심어린 외침은 과거 기록된 델레놋 1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았다고 한다. 그의 가슴 뜨겁고 오지랖넓은 성격은 계급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절망 가득한 전장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 올비앙 비슈발츠 』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려하지 않는 그이지만 잉그람 랑뒤르가 유일하게 기대며 한탄을 늘어놓은 존재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잉그람과 달리 서릿발과도 같은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서로 상극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혹자는 그렇기에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냐는 말도 있다. 몰락한 퀼로른에서 무너져가던 그를 깨웠던 것도 그녀였고,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한참 후에 발발한 아벨론 내전에서도 그를 대신해 큰 부상을 입은것도 그녀였다. 이 후에 올비앙은 사선에서 물러나 정훈교육에 힘썼다. 여담으로 많은 이들이 잉그람을 감싼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었다고 일축한 것으로 참으로 그녀 답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 에이릭 키얄루손 』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벨을 섬기던 인종 중 하나였다. 에이릭 본인을 포함하여 그의 뜻을 따르던 이들은 아름다운 외형과 남들과 다른 다부진 체격으로 인해 알게모르게 시샘과 차별을 당해왔다. 어느날은 그 정도가 심해져 그 불합리함의 호소를 듣던 에이릭은 다른 이들의 불합리함을 참지 못하고 다른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벌이는데 그것은 아벨의 앞에 서서

자신이 당한 불합리함을 따지는 것이었다. 그는 아벨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의 품 안을 떠날 수 있게 아벨에게 청한다. 청이라고 했지만 사실 에이릭의 일방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자존감이 높고 명예와 긍지를 추구하는 에이릭의 무리는 두번다시 다른 이들이 감히 자신들을 시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혹독하고 거친 환경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아 자신의 부족의 부흥에 힘썼다. 이후에 영원의 전쟁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그저 순수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이데아에 알리기 위함이었다.

『 아드라 이그너 』

이그너 가문의 장남으로써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문에 속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아벨의 자손을 위해 싸우고자 총과 칼을 들었다.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겨진 노약자들의 대피소이자 구호소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피오르의 기틀을 닦아낸 자로써 5대의 교황 친절의 레비에에게 이들을 구호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을 끊임없이 올린 작고의 노력 끝에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직접 통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허가를 받게 된다.

『 루시드 하오멜 』

아드라 이그너가 만든 그저 구호소에 불과했던 곳을 전쟁고아들이 다시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후원자들의 눈을 뜨게

만든 장본인. 어릴적 입었던 사고로 우연치않게 잠재되어 있던 힘이 깨어나게 되자 스스로 그 힘을 자신의 이름을 따 루시드라고 이름지었으며, 현재 불려지고 있는 이름 피오르도 2차 성징을 마치고 다시금 3차 성징을 통해 날개를 펼 수 있는 은밀한 의식을 만든 것도 그였다.

『 카를로 』

아벨의 장벽 안에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강하게 받은 부부에게 나온 아이. 훗날 인내의 고행을 겪고 난 뒤 피눈물을 흘리며 아벨의 장벽을 뒤로한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이들을 각지에서 모아 거처를 마련하고 전도사라는 뜻을 가진 에두예르라는 이름의 국가를 설립하였고, 그 곳에서 자신들만의 율법을 펼쳐보이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서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구원에 닿기 위해 힘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담긴 죄악을 직접 드러내고 뉘우치고 인내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포교하는 것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다.

『 클로델 』

이실그라드가 낳은 아르카나의 존재를 가장 먼저 깨닫고 그것의 근원과 흐름을 이해한 자로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에서 심하게 아르카나에 중독이 될 정도로 상투스의 거부와 혐오에 맞서 싸웠다. 오랜동안 치뤄진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녀의 몸 일부가 아르카나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크랄로루즈라는 현상으로 고통받아왔다. 평화협

정을 맺고 난 뒤에도 상투스의 사제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크랄루로즈를 겪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눈을 감을때까지도 호수 주변을 직접 순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내 그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수정체의 형태로 굳어버렸다. 그러나 이실그라드와 퀴나즈들을 지켜야한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가 아르카나와 동화하고 결합하며 그녀는 수정체의 형태를 한 정령과도 같은 형태로 이실그라드와 그 주변 호수를 남몰래 떠돌고 있다고 한다. 죽어서도 아르카나와 함께 흐느끼며 퀴나즈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퀴나즈들이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죽음을 무릅쓴 각오와 신념 그리고 신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적을 직접 피부로 겪은 강인한 이르기스는 퀴나즈들의 고집스러운 성격에 혀를 내두르며 상수트 측에서 먼저 평화협정을 취할 정도로 퀴나즈들을 이끌던 클로델은 그만큼 이실그라드를 지키는데 진심이었다.

『 샨 틸던트 』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공포에 홀린 자라고 알려진 자. 무언가에 홀리기 이전에는 조용하고 예의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원의 전쟁을 기리는 전사자들의 묘에 배회한다. 사람들이 그녀의 끊임없는 예의와 애도에 찬사를 보냄과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 하는 이유는 그녀가 취하는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어 다른 이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그녀가 많은 사람들의 꿈속에 자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이었다.

『 테르그 오른 』

카인의 핏줄이 아님에도 그들을 신봉하는 자로서 인간의 피를 마셨다고 하는 자들의 수장이자 상투스뿐만 아니라 모든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이단 혹은 인간의 탈을 벗은 자라고 불려지게 되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주로 이들의 희생양은 범죄자들어이며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스스로 죄악을 심판한다는 그릇된 숭배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행보를 달가워하는 이는 없었다.

『 프란 구즈 』

상투스의 고위사제였으나 내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수많은 고문과 시험을 겪은 뒤에 카하낫의 속삭임을 듣고 카르탈란의 사제가 되었다. 공허의 세 마녀와 성격이 다른 탓에 홀로 독수공방하며 오랜 시간을 공허의 피조물과 교감하며 지내왔다. 그는 자신의 껍떼기를 벗어내는 탈피를 통해 오랜 세월을 프란 구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그의 옛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제일 적 아벨의 은총을 통한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힘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허의 거주자들의 생태와 환경 그리고 그들의 힘의 정수가 담겨져있는 서적 '코르파 마르카룬' 을 집필했지만 공허를 사는 것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밝혀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것은 카르탈란

의 마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하여 공허를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비난을 받으며 그 서적을 말소하려 하지만 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프란 구즈는 코르파 마르카룬을 은밀한 곳에 봉인해 두었다고 한다.

『 슐리즈 카르타 』

명망있던 퀼로른의 군주 중 하나이자 영원의 전쟁에서 델레놋 1세가 유일하게 자신의 등 뒤를 맏길말큼 두터운 신뢰를 가진 용맹스러운 이라고 오랜시간동안 불려져 왔다. 하지만 델레놋 1세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후로 절대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역시 델레놋 1세와 같은 길을 걷게 되고, 델레놋 2세에 의해 그는 처형 당한다. 이후에 다른 불경한 자들이 그를 데려갈 수조차 없게 끓는 납과 거푸집에 통째로 함께 녹여서 죽인 뒤에 동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아벨의 자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 동상은 광장에 놓여지지 못한 채, 장벽 밖 갓길에 아무렇게나 반쯤 쳐박혀 몰락한 군주의 모습을 하고있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동시에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상투스 - 베르도 데 상트, 쥬브 왈키아

이르메스 - 지젤 슈나우트, 알빈 카요, 카를 뒤 로이작

마르나크 - 베르셀 랑뒤르, 루즈 샤르나, 벨라 소시르

발루 - 셀라 위르궁, 뷔욘 위르궁

피오르 - 에단. 믿음직한 보르미르, 냉정한 페기, 해맑은 리젯, 낯가림 심한 소피아, 발빠른 요세프. 감이 좋은 로렐라이,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는 그웬, 그리고 쌍둥이 자매 애비와 가비.

『 지명 』

『 이데아 』

창조주 에르아가 만든 별.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의 자아의지로써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자리하기 이전부터 생명이 움트고 있었으며, 미물부터 고등의 생명체들까지 저들끼리 먹고 먹어치움으로써 터전을 잡아가며 진화하고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의 양분이 되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된다.

『 데시비테 』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자리한 곳으로 그 이름과도 같이 이데아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후의 아벨의 자손들 사회에 개입하지 않고 후세의 삶을 위에서 내려다보고자 했지만 창조주 에르아가 영원의 전쟁 중에 떨어뜨린 눈물로 인해 수많은 파편으로 붕괴되어 흩어져 깊은 바다속에 잠기었다. 후에 키리에타가 데시비테의 유적 일부에서 그들이 남긴 유언을 보게 되었고, 이후에 아벨론을 창설하게 만들어 아벨의 자손들이 혼란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했다.

『 퀼로른 』

국왕 델레놋 1세가 아벨의 자손들을 한데 모으고 각지의 군주들을 규합

하여 세운 아벨의 자손들의 보금자리이자 최초의 국가형태를 갖춘 공국의 모습이다. 이 후에 국왕 델레놋 3세를 마지막 임기로 공국은 몰락한다.

『 아벨론 』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벨의 은총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으로써, 퀼로른과 함께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해 힘썼지만, 퀼로른의 몰락과 함께 자연스레 그 뒤를 잇는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로 아벨의 자손을 위해 장벽 안에 만들어진 아벨의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르게 된다. 공식적인 문서로 이 셋을 아벨의 고리 아벨론이라 지칭하지만, 셋의 사이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로 묶이는 것을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국 각각 독립적인 기구이자 국가로 구분되어진다. 나아가서는 그저 원로회 정도로 취급을 받고 더 이후에는 그저 지명으로써 불려지게 된다.

『 아벨의 품 』

델레놋 1세가 제 1차 영원의 전쟁 종전 이후에 물밀듯이 불어난 불경한 것들로부터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벨론을 주위로 높게 세운 장벽. 시대가 흐르면서 그 장벽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거듭된 보수와 유지 덕분에 높이 뿐만 아니라 기술력인 부분 더욱 강인하고 발전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에 창설된 마르나크의 군인들에 의해 방

벽은 철통과도 같은 경계로 아벨의 품 안에 자리한 수많은 이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 윈뒤르강 협곡 』

발루의 전사들이 자리하고 있는 혹독한 추위가 연중 계속되는 곳이지만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철광은 얼음으로 제련되어 다른 곳보다 더욱 강하고 튼튼한 골조나 재료를 만드는 고급재료로 취급된다. 더불어 이 협곡에 잠들고 있는 철광의 마찰음과 얼음이 겹겹이 얼어붙는 소리, 칼바람 소리가 뒤섞이며 내는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하여 윈뒤르강 협곡 발루의 전사들은 다른 존재들이 감히 신성한 자신들의 땅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협곡의 의지라고 여기고 있다.

『 아즈메아 동굴 』

피오르의 은신처라고 알려져 있는 불안한 검은 동굴은 미로와도 같은 통로를 헤치고 나서 땅이 꺼진 듯한 역방의 나선을 내려가야만 한다. 대부분이 역방의 나선을 발견하지 못한채 검은 동굴의 미로에서 길을 잃거나 그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물들에게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천연의 동굴이지만 마치 누군가가 깎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한 존재가 만들어낸 심연이라는 괴소문까지나 돌고 있었다. 윌츠의 분석에 따르면 이곳에 흐르는 저주파는 살아있는 것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지만 피오르의 파랑새들에게는 의식의 진

행과 잠재력을 극대화로 끌어내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 우에노른 』

카미요가 자신들의 고요한 성전을 이어가고자 계시를 입거나 뜻을 함께 한 자들이 세운 국가로써 계시를 이행하는 자들의 성지라는 뜻이다. 아벨의 장벽을 뒤로하고 오랜시간을 방황하면서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는 그들을 영원의 전쟁이 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폐허로 이끌었다. 이름없는 작은 마을의 폐허에 불과했지만 카미요와 그의 무리들은 이후에 계시에서 이른대로 생명의 젖줄을 열어나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도사들이 기근과 추위에 고생했지만 만고의 노력과 인내로 삭막한 땅을 개간하였고 마침내 그들의 헌신은 열매를 맺어 마침내 황폐한 땅을 기름진 영토로 바꾸었다. 그리고는 그곳에 엄청난 양의 곡식과 과일나무를 심어 성전을 이행하는 모든 자들의 배를 불리기에 충분한 양이 나오게 되었다. 그 계시와 기적을 직접 온몸으로 느끼고 바라보았던 에두예르의 전도사들은 우에노른을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었다. 우에노른에서도 축복의 땅이라 여겨지는 곳의 이름은 '안달로랑' 이라고하여 죽어버린 땅인줄 알았지만 비옥한 땅이 된 그곳은 '계시로 떠오른 대지' 라는 뜻으로 부르는 그곳에서는 아벨의 자손들을 전부 먹일만큼의 곡식과 과일이 날 정도로 풍부한 식량생산량을 자랑하며 아벨의 곡창지대라고 부를 정도였다.

『 이실그라드 』

이데아의 딸이자 하늘을 뒤덮는듯한 거대한 크기를 하고있는 생명의 나무. 나무 그 자체이지만 나무가 뿌리내린 곳 어디라면 언제든지 그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낙원의 흔적들은 자신들이 자리한 곳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이름으로 부르지만 퀴나즈의 퀴나즈들은 이실그라드의 품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었다. 이실그라드를 중심으로 펼쳐진 초목과 호수는 그들이 아르카나를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주었기에 그들에게있어 이실그라드는 머무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 아룬 모라 』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인 라시드와 그의 무리들이 아벨의 자손들과 결별하며 방황하다가 자리한 사막지대. 고운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작열하는 태양빛을 머금은 사막은 밤에도 은은한 빛깔을 머금고 있기에 함부로 불경한 자들이 발걸음을 할 수 없었다. 불경한 존재들이 눈에 띄게 적을뿐이지 없는것은 아니며 역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있는 토착생물은 물 한 모금도 소중한 사막속에서 생존을 위해 각자 특유의 생존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크기와 상관없이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다. 사막 한 가운데에서도 에르아의 젖이라고도 부르는 열매가 자생하고 있으며 아룬 모라의 문명에 크게 이바지했다.

『 토르메르 』

베르생을 창설한 카나이가 자리한 곳이며 순결과 순수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이름만큼 그렇게나 평화로운 땅은 아닌데 인접하고 있는 국가가 저들의 분파나 다름없는 카라하스의 마녀들이기에 언제나 크고작은 충돌을 겪어왔다.

『 아브 게르 』

무딘 돌무더기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말 그대로 손톱이 무뎌져 내릴 때까지 손수 깎아 만든 세트의 석재 신전을 칭하는 말이다. 돌을 깎아만든 것이지만, 저들의 피와 섞어바른 것이기에 상태가 매우 뛰어나 하늘의 태양을 벗삼에 더욱이 찬란하게 빛나는 저들의 신전 안 어딘가에 세트의 육신이 돌이 되어 잠들어있다.

『 그랑둘 산기슭 』

『 굴라나그 간헐천 』

천둥의 연기라는 뜻으로 지금의 울라론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기 전 마지막 처절한 생존을 위하여 몸을 담근 방사선을 띄고 있는 간헐천에 몸을 담근 장소의 이름이다. 상당한 양의 방사능을 보유하고 있는 샘은 저들 사이에서 생명의 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윌츠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존재로 방사능을 마시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한다는 기록이 있다. 자신의 영역 밖이라면 상관없지만 생명의 샘 근처에 닿는 모든 이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처해질 것이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 성물 』

『 권능의 잔 』

상투스의 예배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크기의 잔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성물로써 금과 은빛이 뿜어내는 신성한 색을 머금은 성배의 형태를 띄고 있다. 권능의 잔, 구원의 잔 또는 거룩한 성배 등, 저들의 믿음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 잔은 아벨론의 사제들이 정화하여 가져온 순수한 영혼이 담겨지고, 성배가 은혜로 가득차게 되면 아벨의 권능이 발현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아벨의 현신을 이데아에 불러내게 할 정도의 막대한 성령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성배에 거짓된 믿음이 담겨져 있어서는 안되기에 상투스의 성물인 빛의 성배인 권능의 잔을 직접적으로 마주한 신자들의 수는 헤아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바르샤딘 』

바르샤딘을 창제한 자도 상투스의 사제들 중 하나였기에 추구하는 것은 같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너무나도 다른 형태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배하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르메스의 대법관들 역시 이것을 성물따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에 매달려 기대고자 하는 사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는 언급을 되도록 피하는 편이다. 하지만, 굳게 새겨진 이 법령은 분명 아벨의 자손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당당히 이 땅에 기록되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법국가 이르메스를 제외하면 바르샤딘은 많은 이들로부터 성물로 취급되기에 이르메스의 법관들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선망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룬 』

윈뒤르강 협곡의 전사 발루의 무리들이 자연의 무자비함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독자적인 기적의 문양이다. 그 문양은 얼음의 대장간에서 룬을 여러번을 벼려내고 담금질하여 만들고 그것을 몸에 품으며 벼락과 눈보라를 직접 품을 수 있게 되어 스스로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자연재해나 다름없는 힘을 부릴 수 있으나, 부작용으로 핏줄은 푸르게 괴사 상태가 되기에 룬을 다룰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얼만큼의 각오가 되어있는지 직접 알지 못하는 어리숙함은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루시드의 두개골 』

피오르라는 파랑새 무리들을 만든자이자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루시드가 자신이 다시 태어난 그 곳으로 되돌아와 편안한 죽음을 끌어 안고나서 보존이 된 그의 두개골. 동굴 안에 흐르는 파장이 망가진 두개골에 울려퍼지면서 공명을 일으켰다. 그것은 아이들이 날개를 피며 잠재력을 깨울때 더욱 안락하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행여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있다.

『 사건 』

『 영원의 전쟁 』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들 그리고 세트의 후예가 창조주께서 빚으신 이데아를 두고 일으킨 전쟁.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인하야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그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 전쟁은 수 해를 넘기도록 지속되었다. 시체는 하늘을 덮을 정도의 산을 이루었으며 강은 핏빛으로 물들게 되었다. 영원의 전쟁은 태초의 몰락을 시작으로 조용히 매듭이 지어졌다고 기록되고 있으나, 어느 서적에서도 그 끝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 이유인 즉슨, 영원의 전쟁은 그 형태를 달리하여 이데아의 도처에 크고 작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종전이 아닌 휴전인 셈이다. 하지만, 아벨의 자손들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를 품고자 스스로 종전이라 칭한 것이다.

『 암흑의 시대 』

퀼로른의 몰락과 아벨론이 만들어지기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시기 동안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려진 혼란의 틈을 타 광신도와 이단이 팽배하게 되는데,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된 구원을 사칭하야 저들의 배를 살찌우는 도적떼와 다름없는 자들이 만연한 이 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른다.

문두스파티오룸 — 리네가 퀴나즈의 수많은 지식을 취합하여 구축한 공간이동의 아르카나 도식으로 본인 주위의 생명을 인식하고 본질을 구성하는 섭리를 고정된 좌표에 구현하는 방식. 오랜동안 이데아를 살아온 개체들이라 자연의 고리에 새겨진 기억의 범주내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카라하스의 마녀들이 사용하는 검은문과는 다르게 개체를 분해하고 재배열하는 방식과 달라서 기억소거 등의 부작용은 없지만 방대한 아르카나를 품지 않은자가 시전하기엔 불가능에 가깝고 가까스로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그 커다란 진리를 마주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협을 감당해야만 한다.

『 이데아의 생태 』

창조주 에르아가 빚은 변칙성의 기적을 띄고 있는 이데아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오랜시간동안 저들끼리 죽고 죽이면서 서로 공존해오며 이데아의 품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이후에 지성을 갖춘 이들이 이데아에 서며 자신의 곁에 자리한 수많은 존재들을 인지하고 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존재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미생물이나 식물, 태곳적부터 유지되어 온 절지류나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오랜동안 수많은 발견과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는동안 이들은 오랜동안 살아왔던 원시 생물들의 흔적을 발췌하기에 이르렀고 그것들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역사적인 발견과는 정반대로 죄악을 짊어진 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누더기 시체들과 영혼의 부름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망자와 영혼이 떠돌게 된다. 창조주 에르아가 이데아를 빚을때 나온 생명에서부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와 더불어 영원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후로 만들어진 불경한 존재들이 태어나게 된다.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고 있던 짐승들이 흉측하고 뒤틀린 외형으로 바뀌거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뒤틀려버린 존재가 태어났다. 그것의 수는 더더욱 늘어나 아직까지 알려져있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짐승들은 더더욱 기민해지고 흉

포한 존재들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무고한 생명들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 무덤에서 일어난 자 』

『 잠들지 못하는 굶주린 자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하여 변해버린 존재이거나 혹은 시체를 부리는 자들의 부름으로 무덤으로부터 일어난 존재들이다. 대부분 술자의 죽음으로 재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소모품으로 쓰여진 뒤로 술자의 예속에서 벗어나 이데아를 떠도는 존재도 더러 있다.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능이나 이성은 없고 오직 굶주림만이 남겨져있다. 저주받은 이들 사이에서도 육체적인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고통이나 지성이 없어 완벽하게 죽이지 못하고 방심한다면 그것들의 무리에 뒤덮혀 목숨을 잃기 십상이다. 또한, 이들은 고통이나 공포를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의 어느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완전하게 존재자체를 소멸시키기 전까지 움직임을 끊임없이 이어나간다고 한다. 무덤에서 일어난 자, 혹은 잠들지 못하는 자들을 이르러 '좀비' 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들 좀비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게 큰 체구와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이르러 굶주린 자 '헝거' 라는 이름으로 부르게된다.

『 시체를 파먹는 자들 』

이들은 시체조작으로 살려낸 망자들보다 더욱 강하며 날랜 존재들이다. 잠들지 못한채 오랜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극히 낮은 확률로 진화하기 시

작하여 점점 발전하는 단계를 갖춘다. 피와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굳이 자신들을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할 정도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본능이 아닌 지성과 자각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좀비나 헝거 같은 개체에 비해 비교적으로 높을 뿐이지 여전히 지능은 낮은 편이다. 주로, 버려진 무덤이나 소각로 혹은 부검소 근처를 배회하며 자신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이 저들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기에, 이들은 오랜동안 부패한 탓에 저들의 몸에는 독소를 띄고 있으며 뼈까지 으깰 정도로 강인한 턱과 발톱을 가지고 있다. 시체를 파먹는 자들을 가르켜 ‘구울’이라 부르는데 무리를 지어 길에 숨어들어 약탈을 자행하기도 하며 자신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망설임 없이 자리를 피하고 떠나거나 숨어서 회복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강인함을 주체하지 못하여 서로를 공격하며 물어 뜯어 죽일 때도 있다. 무리를 지어 활동하지만, 그 결속력은 단단치 못하다. 그러나, 이런 통제불능의 구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시체를 포식하고 진화를 겪으며 기민한 통찰력과 학습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와해된 무리들을 하나로 묶는 우두머리를 이르러 ‘바르가스트’라고 부른다. 자신의 휘하에 여러 구울을 여럿을 두어 주변으로 깊고 복잡한 굴을 파 그곳에서 서식하는데, 무덤 안의 시체나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무리를 지어 일대의 마을을 습격할 정도로 그 위협적인 정도가 상승하며 우두머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전의 전투이탈의 행위빈도

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

『 누더기 살점으로 엮여진 이들 』

저주나 시체조작 혹은 인간의 난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실험체의 산물로 시체들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덩어리 자체인 존재로 이름 그대로 살점의 누더기 조각이라는 뜻의‘네즈케라’라고 불렀다. 자의식이나 본능, 지성따위는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단지 조각가의 목적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들은 평범한 인간처럼 섭취할 수 없기에 대상을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낸 뒤 그대로 삼켜 소화시킨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자신의 크기를 불려가면 불려갈수록 점점 위험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지만, 만약 스스로 한계를 주체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달하게 된다면 어이없게도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다만, 그 한계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살점의 누더기 시체를 빚어낸 자조차 모른다고 한다. 살점의 누더기 시체가 죽음에 이르게 될때 엄청난 폭발을 동반하며, 그 안에 있는 살덩이들은 물론이요 날카로운 뼈들 그리고 출처를 모르는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낸 창조자는 자신 근처에 위협적인 덩어리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 와이트 』

세월이 흘러 이미 백골이 되어버린 자들이지만 사령술에 의하여 무덤에서 짜맞춰진 뼛조각들은 그들의 뼈가 바스러 질때까지 눈 앞에 있는 것

들을 제거한다. 비록 과거에 명망있는 자들은 아니었으나 백의종군하며 뒤에서 영웅을 묵묵히 뒤따르는 종복들이다. 잠들지 못하는 자들에 비해 위험한 점이라면 지성이 있다는 것이기에 생전의 병기를 다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일생의 기억을 기반으로 훈련받은 이들은 오랜 훈련으로 죽어서도 어느새 몸에 배어있는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막거나 회피를 하며 노련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이 따르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 옛 영웅들 』

그저 시체 조각을 누벼만든 것이 아닌 영혼을 부리는 자들에 의하여 깨어난 고대의 전사들로 화려하게 치장이 된 관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다. 전장의 명예로운 죽음을 영원히 갈구하며 소속과 혈통의 구분없이 오직 그를 깨운 주인의 목적만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병기가 된다. 또한 생전의 사념에 사로잡혀 주인의 예속 없이도 깨어나 자신의 휘하에 종마를 둘 수 있는데, 더 나은 개체들은 심지어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다는 기록도 있다. 후대의 이들은 옛 영광에 취한 영웅이라는 뜻의 ‘에르바드’라는 칭호가 뒤따르기도 한다.

『 영혼에 답하는 존재 』

『 방랑하며 갈구하는 자 』

시체를 부리는 자들이 아닌 영혼의 사신들이 실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보통은 안정적인 영혼의 안착으로 비명자나 혹은 영혼수확자 등의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불안정한 실패작들은 비록 영혼이 육신에 안착되었음에도, 굉장히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영혼을 가까스로 붙잡아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줄타기를 하고 모습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숴진 백골은 더이상 일어 설 수 없는 반면, 미련과 집착이 빚어낸 실패작은 백골이 무너져도 저들의 영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시체를 찾아서 헤메이며 끊임없이 옮겨 간다는 점이다. 이들을 방랑자‘원더러’라고 부르며, 방랑하는 존재들 중에서는 적절한 육신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육신을 향한 외침으로 이들을 불러모으는 자들은 갈구하는 자라는 뜻의‘이르가트’라고 명칭하게 된다.

『 사념의 응집체 』

위에 서술한 방랑자 중에서도 그릇을 찾지 못한채 방황하는 영혼은 간신히 영체만을 보이는데, 오랜 시간을 방황하는 영혼들은 한데 뒤섞이

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념체가 되고 응집된 영혼의 사념체는 그저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린다. 세사도르가 칭하는 지박령의 경우가 이들에게 해당된다. 또한 윌츠의 기록에 따르면 방황하는 영혼끼리 오랜 시간 부딛히고 반발하는 현상을 '라파쉬' 하고 부르는데, 이러한 활동이 격렬하게 지속될 경우에는 주변의 자기또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라파시라는 현상이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며 더욱 강인한 집착을 보일때 이들의 존재들을 사념의 응집체인 '프라드누마' 라고 입을 모아 부르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그것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한 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 영혼의 길잡이 』

영혼의 길잡이라는 뜻의 '리그무어' 라고 부르는 이들은 타다마드가 영혼을 착취할 때, 그것들에게 잠식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발생하는 균열의 냄새를 찾아오는 강력한 사념체이다. 영혼의 응집체인 소울 폰드가 소멸하지 않고 오랜기간의 기억으로 외형을 유지한 채 탄생한 존재다. 기본적으로 영혼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들로써 타다마드가 정신분열을 겪고 있어 약해져 있는 상태를 가장 선호한다.

『 비명자와 더욱 깊은 원한의 산물 』

억울하고 한 많은 원혼이 형상을 이루어 비명을 내지르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이 원혼이 깊은 비명을 듣는 자는 정신을 잃게 되거나 최악

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비명을 듣고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들 앞에 맞서게 된다면, 그 원혼의 화를 돋구는 격이 될 뿐이다. 이들의 특징을 따서 비명자라는 뜻의 '밴쉬' 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더욱 사무친 깊은 원한의 산물. 밴쉬의 상위급 개체는 '바오반 시르스' 라고 불렀고, 만약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평범한 자라면 그저 무릎꿇고 편하게 죽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 망령과 사신 』

흑빛의 누더기를 뒤집어 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혼으로 다른 영혼을 사냥하는 존재이다. 대부분 전장이나 죽음이 즐비한 곳에서 자주 출몰한다. 원한이나 미련따위의 상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저 죽은 육신 밖으로 뜯겨져 나와 방황하는 망령은 '레이스' 라고 부르며 그저 주변의 물건을 손에 쥔 채로 이전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한다. 다만 나약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망령들이 발하는 숨을 옥죄는 차가운 공기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다고 하며, 이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지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 망령들을 사신이라 칭하는 '리퍼' 라고 부른다. 이들은 망령보다 더 사특하고 간악하며 살의를 지니고 있다. 다만, 망령과는 달리 강한 사념 때문에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 승천하지 못하는 자 』

죽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로써 한층 더 높은 고등 단계의 기술이나 사령술에 의하여 창조되다가 그 과정을 감당하지 못해 뒤틀려 버려진 존재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폐기된 이들 중에서 숨통이 붙어 있는 것들을 승천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뜻의‘나즈루마그’라고 부른다. 이들은 시체조작이든 의학이든 혹은 과학의 산물이든간에 그 정수가 어느정도 담겨져 있어 그것을 다루는 개체도 관측되기도 한다. 흉물스러운 외모와는 다른게 상당한 지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이라는 개념 또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존재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즉시 개체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척살령을 내힌다고 한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두지 않으면 그 위협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다.

『 백골의 퀴나즈와 현자 』

승천자라 불리워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높은 사령술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이다. 대부분이 타다마드의 사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로 어둠과 죽음의 주술을 부릴 줄 아는 자들이다. 거듭된 전투에 자신의 몸이 바스러진다 하더라도 주변에 널브러진 시체와 사념체들을 긁어모아 자신에게 덧대어 생명을 이거나가기도 한다. 주인이 다루는 강령술은 기본이고, 자신의 수하를 만들어 그들을 부릴 수 있다. 이제 막 깨어난 피조물들을 이르러 백골의 퀴나즈‘레트라’라고 불리우며, 리치가 오랜동안 지식을 습득하여 깨어난 존재로 거듭나는데 그들을

현자‘아르캄’이라 부른다.

『 드레우르 』

윈뒤르강 협곡 근처에는 영광스러운 전투를 영원히 하고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혼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용맹한 전사들을 이르러 굳건히 선 자 라는 의미의‘드레우르’라고 불렀다. 이들의 특징은 잠들지 못하는 시체와 방랑하는 영혼의 혼백이 지니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인간의 원형을 가지고 살아생전 지니고 있던 갑주와 날붙이를 쥐고 있다. 그 모습만 보면 시체로부터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저들의 몸 주위를 떠도는 크고 작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사념체의 덩어리의 모습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이들의 몸뚱이를 움직이는 동력은 육신인가 혹은 영혼인가에 대한 논란이 네크타라의 조작자들과 타다마드의 사신들 사이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등대지기와 아즈 』

밤을 밝히는 유령 혹은 촛대를 든 혼령이라고 알려져있다. 그들은 주로 등대나 신호를 알리는 봉화 혹은 빛의 근원이 있는곳에서 자주 출몰하며 이들 중에서도 영혼을 가두는 등대지기를 이르러‘모아가르’라고 부르며 몸에 양초를 여럿 꽂은 검은형체로 나타난다. 대개는 죽기 직전의 사념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도끼날이나 날붙이 거친 무기와

작은 불씨로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스스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개체가 아주 드물게 출몰한다. 혼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체들 중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몇 안되는 존재이기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존재들로 알려져있다.

『 저주받은 존재 — 아마테낙 』

『 페리악트 』

이데아를 자유롭게 뛰놀던 야생의 짐승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마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고 이후에 그것의 영향으로 기괴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들은 동식물 종을 가릴것없이 인간과 짐승 혹은 식물이 기괴하게 뒤섞인듯한 모습을 하고있었다. 더구나 이들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손에 쥐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사정없이 부수고 죽였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지능이 높은 개체도 있어서 어린아이 정도의 사고정도는 할 줄 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축이나 야생의 짐승에서 변형된 개체들 모두를 아우러 통칭 섞여진 저주 혹은 파멸의 짐승이라는 뜻의 '페리악트' 라고 불리게 되었고 낙원의 흔적의 손에 길러진 일부 짐승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원형의 형태를 잃고 피와 살점만을 갈구하는 이른바 괴물로 변모했다.

『 픽시오스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뒤틀린 존재로 변해버린 존재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이르러 '픽시오스' 라 부른다. 이들을 선택된 아이들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뒤틀린 위형으로 변이된 커스바운드들과 다르게 눈에 띄는 외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외형적

으로 변한것은 없지만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간에 순수한 아이들의 내부의 정신부터 갉아먹어 쉽고 빠르게 타락시킬 수 있었다. 어린 아이가 가진 순수함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저주는 순수하고 악의적인 장난질에 더욱 불을 지폈다. 더욱 악질적인것은 이들에게 아벨의 자손이 가지고있는 이성과 지성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장난질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어린것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순수한 외형으로 자신의 사냥감들을 현혹시켜 인적이 드문곳으로 끌고가서 고문 따위를 즐기다가 반응이 없으면 흥미가 동하여 죽이지 않고 망가뜨린채로 아무데나 버리고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돈다고 알려져 있다.

『 파소에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가진 악랄함은 이데아에 살아숨쉬는 것들의 외형을 뒤틀리게 만드는것에 그치지 않았다. 불경한 것들은 죽어서까지 영원히 고통받아야 했는데 죽어 널브러져 방치된 사체에서 다시 태어난 질병들을 몰고오는 자들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저주가 저주를 낳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악랄함의 되물림이었따. 비록 이들은 지성이나 신체적인 강인함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과 같이 죽은 사체를 뜯어가며 간신히 생을 이어 나가는동안 질병과 전염병을 몰고다니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들을 질병을 옮기는 자라

는 뜻의 ‘파소에’라 불리우게 되었다. 여담으로 라파르의 교육자로 중 하나인 질병의 역사에 따르면 죽음을 몰고 다니는 존재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은 의료역사는 파소에 전과 후라고 부를만큼 파소에의 창궐이 의료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출현이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

『 세르킨 』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흡혈에서 오는 쾌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들을 부르는 말이다. 이후로 이들은 흡혈을 하여 생명을 유지하기보단 오직 쾌락을 탐하기 위해서만 흡혈을 하는 자들이다. 흡혈이 가져다 주는 희열 속에서 더욱 큰 쾌락을 취하고자 사냥감의 정수를 탐하는 자들은 페라투르가 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존재들은 낙오된다. 결국에 쾌락을 흡혈로밖에 채우지 못해 순수한 정수를 탐하지 못하는 음욕에 미쳐버린 자들로 변모하게된다. 페라투르는 음욕에 눈이 먼 자들이라는 뜻의 ‘세르킨’이라고 부르며 반쪽 짜리 색마들이라며 손가락질한다. 이들은 페라투르의 궁전에 직접 당도할 패기조차 없으니, 그저 먼 발치에서만 배회하는 자들이다. 음욕 이외의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아 카인의 핏줄로 분류되지 않으며, 그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불경한 존재들로 치부된다. 페라즈마의 매혹적인 이끌림에 홀려 이들을 맞이하러 가는곳엔 항상 이들이 있으며 몽마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냥감을 직접 사냥하면서 정수를 탈취하기도 한다. 외형은 몽마들에 비해 떨어지지만 그들의 아랫도리에

홀린 이들에게 두꺼운 갑옷도 서슬푸른 무기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날붙이가 된다. 음욕에 눈이 먼 짐승인지라 장소를 옮기지 않고 사냥감을 현혹한 바로 그 자리에서 육신을 섞으며 피를 탐한다. 페라즈마가 말하는 예절과 큰 격차가 있는 이유로 서로 미묘한 관계에 놓여져 있다. 세르킨 역시 자신들을 깔보는 페라투르의 몽마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고 알려져있지만 정작 서로간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다고한다.

『 성스러운 은총이 낳은 광신도 』

구원을 갈구하다 빛에 눈이 멀어버려 미쳐버린 광신도. 아벨론에서 기적과 구원을 바라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힌 자들이다. 여러번의 기행을 통하여 이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움직임을 보이며 미약한 성령으로 피해를 주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다. 개개인의 역량도 부담스럽지만 이들의 삿된 빛의 은총들이 한데 모이며 하나를 추대하여 부정한 믿음으로 한데 뭉쳐진 거짓된 믿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대면하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빛과 성령을 사용하지만 이미 믿음으로 이성이 날아가버린 존재들이다. 이러한 연유로 상투스에서 파면이 된 상태이며 저들을 불경한 자들로 분류하고있다.

『 라네즈 』

숲에서 시와 노래로 현혹을 하여 아르카나를 섭취하는 악의 없는 장난

끼가 많은 존재이다. 대다수가 픽시오스와 라네즈를 혼동하는데 픽시오스는 이바와 아다무스가 만들어낸 저주받은 존재이지만 라네즈는 이실그라드 근처의 '라네' 라는 곳에 위치하는 자들은 어느정도 아르카나를 부릴 줄 안다고 알려져 있는 아르카나의 산물이다. 많은 이들이 요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들 중에서도 요정여왕이자 그들 사이에서 크랄로루즈의 어머니라는 뜻의 '셸린' 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다. 오직 만월이 찬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기 특징 때문에 밤의 여왕이라는 이명 또한 지니고 있다. 인간에게 그다지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지나가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악의는 없기에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장난은 아니지만, 가끔 아르카나의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대상에게 상상도 하지못할 피로와 무력감을 선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시달리는 자들은 그저 편하게 죽기를 바라는 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칠 고바록 』

윈뒤르강 협곡에 자리하고 있는 토착생물로써 직립 보행을 하는 발시아즉, 인간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있지만 인간의 몇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크기와 두꺼운 털로 뒤덮혀있다. 윈뒤르강 협곡의 극심한 추위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만한 두터운 가죽과 털을 가지고 있으며 험준한 협곡따위는 가볍게 산책하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근육

을 지니고있다. 외부의 피해를 완충할 수 있는 표피지방층도 상당히 두꺼워 왠만한 병기로는 생채기조차 내기 힘들다. 처음부터 윈뒤르강에서 살고자 태어난듯한 이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인지라 발루의 전사들은 이 토착생물과의 사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통채로 전리품으로 가져온다고 한다. 이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험준한 협곡에서는 양분이자 옷감,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기에 하나 버릴 것이 없다. 그렇기에 숙련된 전사일수록 적은 상처를 입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온다고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생명들과 어울리지않고 개체간 독립적인 성향이 크며, 흉포한 성격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에 윈뒤르강 얼음협곡의 훌륭한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한다.

모래덫이라 불리는 라 파두크는 아라샨 토착생물로 모래지옥에 빠뜨리고 열기로 말려 죽임 먹이 보존 방법

『 식생물군 』

『 클로파지 』

지층 내부에 사는 거대 기생충으로 검붉은 타액을 내뿜는다. 지하에 사는 것들을 씹어먹으며 혐오스러운 모습과 달리 지하의 생태속에서 익충으로 알려져있다. 대부분 지하에 서식하지만 이들은 가끔 지상으로 올라와서는 사체를 파먹거나 나약한 짐승들에 기생하기도 한다. 의료학계 자료에 따르면 단순하지만 지능이 있는 개체로 분류되었다.

『 엘름포우라 』

식물이지만 동물의 기관을 가지고있는듯한 기괴하게 합쳐진 듯한 모습을 하고있는 존재. 그 흉물스러운 외형과는 다르게 이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지 않았았으며 그저 진화의 결과로써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사냥감의 피와 살을 녹인 후에 섭취하며 그들은 크기도 거대하여 육신을 꽃처럼 활짝 펼쳐 똬리를 틀고있는 모습을 하고있다. 몸에서 새어나오는 진물로 사냥감을 유혹하며 입에 자리한 수많은 날카롭고 긴 촉수로 사냥감을 녹인다. 먹잇감을 전부 섭취하지 않고 느긋하게 피와 자신의 타액을 섞어 산채로 나무에 걸어두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엘름포우라의 타액은 혈액과 섞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일종의 지혈제 작용을 하여 생명연장을 가능케 하는데, 이로 인하여 엘름포우라에 당한 사냥감은 오랜동안 죽지도 못한채로 내뱉는 신음소리만이 사방으로 끔찍하게 울려퍼지게 된다.

『 오넥사이실 』

검은색 빛깔을 내는 꽃 중 하나. 익스의 어둠에 물들어 있다고 전해져 있는 꽃이며 꽃말은 영원한 안식.

『 필라록사 』

아르카나 연초. 미량의 아르카나로 인해 아르카나중독의 우려가 있음. 마비되는 감각에 중독된 자들에게 애용되는 물건이다.

『 피츠마그 』

강력한 환각성을 지니고있는 버섯. 퍼지는 포자로 인한 환각의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츠마그 버섯이 증식하는 자리로부터 멀리 벗어나는것이 권장된다.

『 뱅하르트 』

중독성이 다소 낮은 각성의 효과가 있는 음료. 의외로 인기가 있어 대중적으로도 많이 선호되는 제품이지만 장기간 다량 섭취시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기에 적당한 섭취를 요한다.

『 업파우드 』

비슕로 지대의 청색 유쿠리 풀을 빻아서 가루의 형태로 제조한 미약의 일종으로 중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약소한 각성의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의 형태가 복용자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한 취급이 필요한 위협 약물로 지정되었다.

『 다운썸 』

다운썸 - 신경안정음료, 수면효과가 있으며 의외로 중독성은 없지만 복용 후의 무기력과 박탈감 및 염쇄주의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

팝플로스 - 떨, 근육완화를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마취 등의 의료에 사용되거나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는 의식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히키포키 - 각성주사, 기초능력이 소폭 상승하지만 이후에 번아웃의 부작용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복용을 병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가르니 - 달콤한 극미량의 중독성을 지닌 열매로 수확 및 생산량이 적어 다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에 금지약물로 지정되었다.

주쉬누크 - 강력한 각성음료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며 중독성이 강하

며 최악의 경우 블랙번이라는 아주 심각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인비바 - 미세한 탄산이 느껴지는 술이며 잔잔히 소용돌이 치는 모습과 중독성 때문에 약물로 지정, 픽시오스의 물장난이라는 이명을 지니고 있다.

Guarana 자연 몬스터임 눈깔모양 식물

『 Edenfall 』

— 에덴폴 프로젝트 현장 —

By. Vidal J Song

『 게임의 개요 』

— 게임타이틀 —

— 게임장르 —

— 게임플랫폼 —

— 게임의 방향성 —

— 프로젝트 핵심철학 —

1. 게임타이틀

Edenfall(에덴폴) 부제 — 낙원의 흔적

2. 게임장르

서사 생성형 모던호러 RPG

3. 게임플랫폼

PC,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4. 게임의 방향성

플레이어(게임 내에서는 기록하는 자라는 고유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기록하는 자라는 명칭으로 통일)는 기록하는 자는 관리자도, 영웅도 세계의 조정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의 그림자에 가까운 존재이며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다른 세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은 수많은 사건 뒤에서 이데아에 개체들의 흔적을 조용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하는 자는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기록하는 자는 때때로 사건의 중심에 있지만 대부분의 존재들은 그들을 인식

하지 못합니다. 당신 역시나 기록하는 자들 중 하나로 선형적 시나리오의 흐름에 맡겨 조우하는 개체들과의 전투를 치루고 개체들의 능력치와 기술의 숙련도를 높여가면서 기록을 이어갑니다.

5.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캐릭터 수집형 RPG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본 게임의 철학과 핵심을 관통하는 가치는 모든 개체들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있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프로젝트의 개체에 희귀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체라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체의 가치는 스펙에만 치중된 방향이 아니라 기록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해서 완벽한 개체라는 개념을 시스템 구조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기록하는 자는 진실이 아니라 해석을 선택하여 개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임의 승리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메타 최강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메타에 편향된 편성이 아니라 개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계의 상태에 적응하며 기록하는 자로

써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경험하고 기록하는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는 것 만큼이나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이야기와 그것으로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끼리 영향을 주는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고 흔적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이 처한 세계는 수시로 변하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을 관측하기 어렵기에 이로써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기록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영웅도 아니고 중재자도 아닌 그저 기록하는 자들의 기록이 중첩이 되면서 하나의 세계로 구축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개체들은 심상 세계에서 수많은 여정을 겪어가며 셀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경험에 가깝습니다. 심상의 세계에서 겪는 죽음이 개체의 존재를 완전히 말소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이미 똑똑히 새겨져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한번으로 끝나 영면에 들게 되겠지만 기록하는 자와 함께하는 개체들은 몇번이라도 죽음을 겪게 되는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 세부 게임 디자인 』

— 캐릭터 디자인 —

— 로비 디자인 설계 —

— 메인 콘텐츠 —

— 게임 매커니즘 —

— 게임 진행방식 —

1. Entities Design — 개체 디자인

기본적인 캐릭터(프로젝트 내에서는 개체라는 고유 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개체로 명칭으로 통일.)들은 3D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표현되며 사이드 쿼터뷰 혹은 벨트 스크롤 3D 시점으로 왼쪽에 아군 오른쪽에 적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개체를 편성하고 전투에 돌입하면 개체들은 상대를 바라보고 있고 기록하는 자가 설정한 개체가 다른 이들의 뒤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본적으로 개체는 실사화가 아닌 데포르메의 형태를 하고있으며 게임의 기본적인 컨셉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개체들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체들의 컨셉은 다소 어두우며 가볍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스토리(게임 내에서는 기록이라는 고유 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기록으로 명칭으로 통일) 대화에 등장하는 스포트 라이트는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하여 표정이나 몸짓을 추가해서 기록을 이어가면서 등장하는 대화 프롬포트에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도록 합니다.

2. Lobby Design — 로비 디자인 설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접하게 될 로비 디자인은 훌륭한 시인성과 미감을 동시에 갖도록 개발 단계에서 충분히 공을 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자가 오랜시간동안 게임을 즐기면서 처음 맞이하는 로비의 모습을 식상함이 아닌 친숙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합니다. BM과 직결된 로비에 배치된 다양한 오브젝트와 흘러나오는 음악과 효과음으로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저 로비 화면을 바라보거나 다른 메뉴탭을 선택하고 둘러보는 것 만으로도 편안한 만족감을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자의 피로도 관리에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둡고 무게감이 있는 게임 환경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비의 역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로비는 메뉴 이벤트를 보강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비는 짧게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자 찰나의 평온이며 여정은 달콤한 꿈을 깨부수며 사건의 침식을 맞이하는 장치입니다. 개체와 나누는 평범한 대화와 잠깐이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은 심상세계의 여정에서 맞이한 비극 이 둘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때 다른 이벤트가 출력되는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2.1. Lobby UI Layout — 로비 UI 구성

2.1.1. Speculum Actorum

Sub Menu — 하위메뉴

Recorodum — 기록 / Eidos — 내면세계) /

Vincula Infinita — 무한의 굴레, Spira Mortis — 죽음의 나선

2.1.2. Redactum — 원상 기록 복구

2.1.3. Genitrix — 탄생을 빚어내는 자

2.1.4. Monumentum — 기억의 보존

Sub Menu — 하위메뉴

Chronicles — 연대기 / Remnants — 지나간 이야기

2.1.5. Ordinatio — 전투배치

2.1.6. Lexicon — 지식의 보고

Sub Menu — 하위메뉴

Codex — 안내서 / Effigies — 환영과 초상 /

Magnus Opus — 거대한 위업

2.1.7. Armarium — 비밀 보관함

2.1.8. Omen — 징조

2. Main Contents — 메인 콘텐츠

2.1. Recordum (기록)

Icon Shape (형태) — 펼쳐진 지도위의 펜

Contents Description — 메인 스토리

흔히 알려진 천지의 창조, 영웅의 일생, 국가의 흥망성쇠나 전쟁, 모험과도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운명처럼 끌리듯 연쇄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며 거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단순히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데아에 새겨지는 기록들은 단순히 당신의 의식을 본따서 만들어낸 허구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 앞에서 숨을 쉬는 실존하는 세계라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데아에 기록하는 사소한 덧칠 하나조차 역사로 기록됩니다. 정해진 운명을 따라서 기록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펜을 휘두를때 무엇을 느낄것인지는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가는 방향에 그 어떠한 감정도 녹여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록하는 자의 소임일 테니까요.

2.2. Eidos (심상세계의 조우)

Icon Shape (형태) — 다른 곳을 바라보는 가면 쓴 옆모습

Contents Description — 재화 획득 메인던전

기록하는 자의 인과에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펼쳐지는 내면의 심상세계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것만이 아니라 심상세계의 조우로 갈라진 기록의 저편에 새겨진 본질 마저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펼쳐진 곳에서 조우하는 개체들은 당연히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기에 그곳을 인지한 매 순간 거대한 시련의 장벽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물리적으로 그 세계에 당당히 그대의 존재가치를 입증한다면 그곳에서 끌어낸 본질을 이데아로 끌어내어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휘발되어서 흩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모쪼록 기록의 과정에서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을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세계에서 조우한 그것에게 잠식되거나 혹은 소멸 되어버릴 테니까요.

2.3. Vincula Infinita — 영원의 굴레

Icon Shape (형태) — 무기가 촘촘하게 창살처럼 박혀있는 형태

Contents Description — 보스 협동 레이드 형태의 장기 전투던전

심상의 세계를 마주하면서도 이제 그것에 익숙해지면 무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동시에 폭력과 전쟁을 바라는 것은 이데아를 살아가는 것들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역설이며 이것만은 개체의 노력으로 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체는 종족을 불문하고 단 한순간도 피와 살을 탐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의 뒤틀린 욕망은 심상의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그 안에서 내면의 폭력성은 더욱 많은 피와 살을 바라게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던전으로 단순한 DPS 체크보다 재난의 대응으로써 던전을 가서 위협을 줄이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레이드 던전의 개체들 중에서 피해를 입을수록 강화되는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강인한 체력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방식으로 개체마다 기믹을 두어서 공략하는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4. Spira Mortis — 죽음의 나선

Icon Shape (형태) — 날카로운 나선의 탑이 겹쳐진 형태

Contents Description — 시련과 절망의 탑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속박이나 비극적인 운명의 굴레 기록을 이어 나감에도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끝없는 반복은 스스로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서서히 아래로 추락하여 죽음으로 빠져드는 죽음의 나선에서 당신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덩이를 내려갈수록 관계는 약화되고 보다 악랄한 이벤트가 동반되어 발을 옮길 때 마다 생존의 압박을 받게 되니까요.

이전의 던전들과 다르게 심상의 세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조우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저 동행한 이들의 서사와 가치관이 무수히 충돌하는 절망적인 공간입니다. 이를테면 상투스의 사제들 무리가 빛의 권능으로 세트의 후예를 둘러싸 그것을 축복하면서 원정을 온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죽음을 바라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나선은 무언가를 극복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운명의 굴레에서 기록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5. Redactum — 원상 기록 복구

Icon Shape (형태) — 종이 위로 잔상을 남기며 흔들리는 깃펜

Contents Description — 가챠

원상 기록의 복구는 이데아에 새겨진 수많은 기록중에서 무수한 가능성

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복원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담아두었던 운명으로 치뤄질 수도 있고 기록을 엮어내는 과정에서 빚어온 도구로도 행할 수 있습니다. 원상의 기록을 복구하는 행위에서 마주하는 가능성을 단순하게 운명의 굴레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조우하며 그 수많은 가능성을 재구성 한다는 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아에 남겨진 흔적을 기록으로 담아내어 그 원형의 형태를 복원하는 섬세한 작업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 Genitrix — 탄생을 빚어내는 자

Icon Shape (형태) — 앤틱한 첨단 배양기, 갑옷과 무기, 연금술 도구

Contents Description — 제작 공방

이데아의 운명을 쥐고 기억을 복원하면서 나온 부산물 역시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다룰 수 없으며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만 그 때가 된다면 제작 공방에서 관련된 재화를 소모하는 것으로 갑옷 또는 표준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품질보다 맥락을 우선시 합니다. 그리고 무기나 갑옷에 수치보다 태그를 적용하여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지닙니다. 더불어 특수한 트레잇이나 고유 스킬 또한 제작할 수도 있지만 실패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제작의 실패도 범용의 이벤트 테이블로 최적화와 소모되는 리소스를 줄입니다. 제작의 공방은 업데이트를 통해 이후의 콘텐츠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에 언급되는 중복된 개체를 처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7. Monumentum — 기억의 보존

Icon Shape (형태) — 영사기와 비디오 카트리지

Contents Description — 다양한 스토리와 이벤트 다시보기

게임 용량과 최적화를 위해서 감상하는 동안 백그라운드 다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끊기거나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상이 끝나면 캐시에 저장하지 않고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이는 하위의 문서에서도 같은 로직을 활용합니다.

2.7.1. Chronicles — 연대기

Icon Shape (형태) — 인형극

Contents Description — 완료한 메인 스토리 감상

2.7.2. Remnants — 지나간 이야기

Icon Shape (형태) — 팬던트 로켓

Contents Description — 개체별 서브 스토리 감상

2.8. Ordinatio — 전투배치

Icon Shape (형태) — 헥사곤 무늬 위 칼과 방패 그리고 토르소

Contents Description — 보유한 개체의 배치 및 관리를 하는곳.

2.9. Lexicon — 지식의 보고

Icon Shape (형태) — 천체망원경과 융화된 고동치는 비밀서적.

Contents Description — 도감

2.9.1. Codex — 안내서

Icon Shape (형태) — 두꺼운 사건 서류 파일 바인더

Contents Description — 게임 키워드 및 고유 용어 도감

2.9.2. Effigies — 환영과 초상

Icon Shape (형태) — 베일, 마네킹 토르소, 망치와 정

Contents Description — 스킨 및 갤러리 모음집

하위 탭으로 유저가 수집한 개체별 스킨과 일러스트와 스포트 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유한 UI 오브젝트 그리고 다양한 로비 화면 설정과 OST 설정이나 로딩화면 변경도 가능 합니다. 상호 작용을 통해서 보유한 주사위의 인게임 전투판정 시 연출과 고유 SFX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편성 전체로 지정할 수도 있고 각 개체별로 따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2.9.3. Magnus Opus — 거대한 위업

Icon Shape (형태) — 월계관과 메달 그리고 트로피

Contents Description — 업적 달성 및 꾸미기템

업적 시스템은 랜덤 조건이 많은 프로젝트의 특성상 이중 가챠의 피로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완충제 중 하나로 어느 개체조차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본 프로젝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개체들의 조합으로 불리한 상황의 극복과 업적의 달성을 통해서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패했다는 감정으로 게임에 흥미를 잃기보다 엄망인 조합 마저도 도전 과제 달성 기회나 특수한 던전에서 빛을 보는 조커픽 기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업적을 만들어 덱파워 자랑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들끼리 겪은 다양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만듭니다. 숫자형 업적보다는 개체의 특성을 언급하는 짧은 문장형 업적과 보상으로 여정의 기록으로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보통 게임의 메타는 효율 혹은 정답이나 종결 세팅이 등장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조합으로 충분히 기록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리고 다양한 조합에 익숙해지게되면 매번 다양한 서사와 다양한 컨셉의 플레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에덴폴의 세계속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업적을 완료 했을시 꾸미기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2.10. Armarium — 비밀 보관함

Icon Shape (형태) — 앤틱한 궤짝과 고풍스러운 진열장

Contents Description — 인벤토리

기록하는 자가 획득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는 차분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각 아이템에 플레이버 텍스트 추가로 하나의 아이템마저 그저 흔한 지루한 것 따위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관함에서도 태그별 분류로 가시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2.11. Omen — 징조

Icon Shape (형태) — 해와 달 그리고 날씨 모양이 있는 기계장치

Contents Description — 접속시 세계의 분위기를 파악

하위의 탭과 다르게 기록하는 이가 이데아의 세계와 조우 했을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정보중 하나인 낮과 밤 그리고 날씨 등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화면으로 표시해주는 HUD 방식의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간에 진행중인 이벤트를 보여주는 탭이기도 합니다.

3. Game Progression — 게임 진행방식

스토리는 선형적인 시나리오의 흐름을 따라가며 조우하는 수많은 개체들과 전투를 치루게 됩니다. 때로는 소수의 개체만으로로 다수를 상대해야 할 때도 있으며 반대로 집중공격을 퍼붓게 되는 전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콘텐츠가 해금이되고 콘텐츠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위한 콘첸트에서 겪게되는 여정의 순서는 다음의 순서와 진행과정을 따릅니다.

심상 세계의 조우 → 사건 발생 → 기록 확보 → 세계선 변화 → 새로운 사건의 연쇄 → 기록의 축적 → 세계의 이해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해금이 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사용이 가능한 재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기록하는 자는 수많은 사건을 겪고나서 획득한 재화들로 보유한 개체의 성장은 물론 직면하는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다양한 조합을 찾아가는 전략과 전술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건에서 정답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각자의 기록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본 게임의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기록하는 자(게임 내에서는 기록하는 자라는 고유 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기록하는 이로 명칭으로 통일)는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획득한 재화로 보유한 개체들의 능력치를 성장시키고 기술을 숙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면하는 사건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배치와 대적하는 개체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합을 찾아가고 나아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하면서 도전을 자극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게 합니다.

『 게임 스토리 』

— 게임 기본배경 —

— 시놉시스 —

— 프롤로그 —

— 시나리오 분석 —

1. Game Background — 게임 기본배경

기록하는 자는 어둡고 우울한 이데아라는 가상의 디스토피아 세계에 스며들어 인간의 모습을 하고있는 아벨의 자손과 뱀파이어의 형상을 하고있는 카인의 핏줄 그리고 라이칸 흔히 늑대인간으로 알려져있는 세트의 후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투와 가치관의 충돌을 비롯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산 증인이되어 기록을 이어가게 됩니다. 조우한 개체들을 수집하고 그들 사이에서 뒤얽힌 이야기를 엿보는 동안 수많은 기록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선의 실마리를 잡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2. Game Synopsis — 게임 시놉시스

기록하는 자는 이데아에 자리한 서른의 국가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옴니버스의 형식으로 그들의 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차례로 조우하게 됩니다. 개체들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희망과 절망속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닿기 위해 내린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차분하고 담담하게 역사의 한줄로 기록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3. Prologue — 프롤로그

서두에 오랜동안 새겨진 이데아의 기록을 직접 펜으로 그려내는듯한 삽화와 곁들이며 소개해 줍니다. 간략한 종족과 세력 개요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 뒤얽힌 갈등이며 사투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소에서 양피지에 써내려가는 편지의 형식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비탄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던 어둠 속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의 실루엣이 천천히 눈을 뜨면서 커스터 마이징을 시작합니다.

“이 기록의 끝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라는 다소 차가운 남녀의 음성이 뒤섞인 말과 함께 안락하고 잔잔한 음악과 편지를 쓰는 소리가 들려오도록 연출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고 펜 끝이 멈추면 선택했던 성별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이 출력됩니다.

“그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엮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회 혹은 번뜩임 또는 동기부여 아니면 절망이나 좌절 그리고 죄악의 속삭임. 무수한 가능성이 잠들어있는 이데아의 차고 넘치는 기록 중에서도 바로 이것이 그대가 기록으로 담아낼 세상입니다.”

라는 글귀가 화면에 오버랩이 되면서 마지막 하단부에다 서명을 하듯이

종이에 설정된 개체 부여번호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춘 펜 끝의 잉크가 번져가면서 화면을 암전시키고 책의 페이지가 요란하게 흩날리는 소리와 함께 다양한 소음과 장면들이 오버랩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딪히는 사슬과 다급히 봉인하듯 묵직하게 덮혀지는 책 커버 소리로 마무리가 되며 암전. 그리고 여기서 로비 화면이 등장합니다.

4. Scenario Analysis — 시나리오 분석

4.1. 게임 시점

게임에 등장하는 개체는 1인칭의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시점을 채용합니다. 진실된 역사속에서 기록에서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위험한 시점을 채용한 이유는 서술자가 정신적 불안으로 거짓말 그리고 편견이나 지식의 부족 등 사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왜곡된 사실에서 중요한 요소는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일 수도있고 혹은 타인에 의해서 거짓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자가 단순히 개체를 속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개체들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하는것은 그들의 곁에서 주시하는 기록하는 이와 훗날 그 기록을 마주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4.2. 전체적인 시나리오 흐름

알에서부터 사과까지라는 뜻인 Ab ovo usque ad mala 라는 역사의 기승전결의 표현처럼 개체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웅적 서사시가 아니라 피카레스크시 구성 방식으로 도덕적 모호함, 선악의 회색적인 경계에 닿아있는 사건을 옴니버스식 기조를 따르게 됩니

다. 이야기의 흐름은 기록하는 자의 입을 빌려 다양한 개체들의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4.3. 시나리오 기법

사물의 한 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진 In Medias Res 라는 기법을 사용하합니다. 이는 사건의 중간부터 시작하는 서사의 방식으로 다소 지나친 설명은 덜어내고 현재 진행되는 플롯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게임 내부 키워드 』

— 종족별 설정 —

— 던전 시스템 —

— 재화 키워드 —

1. Race Description — 종족별 설정

풍족한 이데아의 세계를 살아가는 개체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낙원에 흔적을 새긴 종족은 셋이고 그들의 세력은 아벨의 자손이 열 하고도 다섯 세트의 후예가 여섯이며 카인의 핏줄은 아홉으로 총 서른의 세력이 충돌하면서 불안한 평화와 끝없는 전쟁에 휩쓸립니다. 이 셋의 종족은 서로 다른 모습과 생활 방식은 저마다 다르고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그 본질에는 공통으로 갈구하는 가치가 있으니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있는 그것의 이름은 바로 구원입니다.

1.1. Son of Abel — Human (아벨의 자손 — 인간)

Icon Shape (형태) — 흰색과 검은색 반반으로 나뉜 인간의 얼굴형태

Race Description — 생존을 위해 발악하는 필멸자들

이바와 아다무스의 차남인 아벨이 남긴 자손들로 어떠한 죄악을 짊어지지도 이바와 아다무스의 무거운 죄책감도 닿지 않았기에 다양한 문명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비교적 짧은 수명으로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그것 때문인지 적응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절실하며 상당한 잠재력을 품고있는 존재들입니다.

1.2. Descendant of Set — Lycanthrope (세트의 후예 — 라이칸)

Icon Shape (형태) — 반인반수 라이칸(늑대인간)의 얼굴형태

Race Description — 만월의 광기에 휩싸인 강인한 짐승.

이바와 아다무스의 삼남인 세트가 남긴 자손들로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직접적으로 맞이한 자들입니다. 야생과 가장 가까우며 오랜 수명으로 만월의 광기라는 숙명을 평생 짊어져야 하지만 기민한 정신력으로 소통하며 가까운 미래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이데아의 신수라 불리우는 존재의 외형을 하고 있는 숭고한 존재들입니다.

1.3. Bloodline of Cain — Vampire (카인의 핏줄 — 뱀파이어)

Icon Shape (형태) — 날카로운 송곳니를 지닌 뱀파이어의 얼굴형태

Race Description — 죄악을 품은 고고한 밤의 주인들

이바와 아다무스의 장남인 카인이 남긴 자손들로 창조주 에르아의 낙인과 더불어 각기 다른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항상 자신이 품은 죄악이 갈구하는 욕구에 항상 목말라 있지만 문화와 예술 따위에 조예가 깊고 대다수가 신비스러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외형 그리고 압도적인 매력을 품고있는 존재들입니다.

2. Dungeon System — 던전 시스템

본 프로젝트에서 구상하는 던전은 단순히 파밍을 위한 장소보다 세계의 상태와 종족 갈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던전의 구성과 세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획득 가능한 재화가 그 장소의 생존 논리와 연결되어 있도록 핍진성을 부여합니다. 던전이라는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은 던전의 핵심이 그저 재화를 얻기위한 곳이 아니라 심상세계를 여정하는 도중 발생하는 이야기를 통해 개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며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세계의 분위기에 따라서 세상은 무수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 요인을 던전에 적용하여 같은 던전도 매번 다른 느낌을 주게 합니다. 맵 하나를 만들어도 계절 낮밤 사건 세력 침입 지역 상태를 바꾸고 활용이 가능하며 컨텐츠 밀도의 상승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정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어둠은 길어지며 사건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적 요소의 변화 하나하나가 기록하는 자가 오늘 겪을 사건의 기록입니다.

3. Assets Keyword — 재화 키워드

3.1. Fate (운명)

Shape (형태) — 겹쳐진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명의 수레바퀴.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운명을 부르는 방식은 다양하며 그것을 정의하는 것조차 개체마다 다릅니다. 운명이란 이데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카하낫은 물론 그곳을 떠도는 수많은 테르벨을 초월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지배하는 미지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명쾌하게 형용할 수 없는 무형의 개념이지만 개체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하기에 그것을 손쉽게 거머쥘 수도 있고 찰나의 꿈처럼 눈 앞에서 아른거리다 사라져 버릴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체의 절실함이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반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순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에 이끌려서 아낌없이 불태우는걸 즐길것이고 어떤 이는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는 그 모습을 느긋하게 즐길지도 모르죠. 운명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이 우월에 있다는 말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포용이 가능한 개념인 것입니다. 다만 역사의 굴레속에서 으레 그러했듯 운명을 취하는것은 언제나 달콤한 것이기에 모든 개체들은 예외없이 그것에 이끌리는 모양입니다.

3.2. Essentia (본질) — Fractus Essentia (본질의 재구성)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Shape (형태) — 검은 그림자가 찰랑거리는 형태. 본질을 재구성 한 모습은 플라스크 속에서 실타래처럼 검은 그림자가 엉켜 흐르는 모습.

본질은 변칙적인 사물이나 현상의 근원이자 개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그것을 정의하는 진리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게다가 이데아에서 그것은 단순하게 보편적인 진리 따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정신으로 연결된 개념이기에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작용합니다.

평소의 그것은 불규칙적인 형태로 이데아에 아무렇게나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아에서 본질을 이치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치를 깨닫고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념의 체계화와 단순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동안 근본적인 요소에 대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섬세한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본질은 재구성될 수 있지만 기록하는 이의 편의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구현화된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그것을 조율하여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Common Assets (공통 필요자원) — Experience (경험치)

Shape (형태) — 구 안에서 뇌 신경 다발이 갈래길처럼 빼곡하게 미묘한 빛을 방출하면서 이동하고 교류하는 모습.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이데아를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경험치라는 무형의 자산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능숙함 혹은 강인함 본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될 수 있습니다. 오랜동안 축적된 그것은 생존을위한 가장 큰 자양분이 되겠지요. 무형의 가치이지만 차근하게 쌓아 올려지며 이데아에서 살아 남기위해서 종족을 불문하고 정신적인 지름길이 되어주는 이것만큼 값진 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경험치는 다른 행동 기반의 기조가 되는 자산이며 제 아무리 어느 분야에 자신있다 자부하는 자들이라도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기에 그것이 가진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개체는 상위의 공통 재화인 경험치와 종족별 고유 재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레벨(게임 내에서는 역량이라는 고유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역량이라는 명칭으로 통일)과 행동을 기반으로 숙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3.4. Asset for Son of Abel — Human

아벨의 자손 — 인간

Requirement (성장 필요자원) — Hope (희망)

Shape (형태) — 깨진 알 사이로 여러 줄기로 갈라져 쏟아지는 빛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아벨의 자손들은 다른 개체들에 비해 육체적으로 나약하기 그지없고 망가지기 쉬우며 정신적으로도 상황에 쉽게 잠식되어 침식이나 좌절에 너무나도 취약한 개체이기에 희망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희망은 잠재력이라는 거대한 가능성과 반응하여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용맹하게 맞설 수 있게하는 희망이라고 불리는 무기로 발현됩니다.

3.5. Asset for Descendant of Set — Lycanthrope

세트의 후예 — 라이칸스로프

Requirement (성장 필요자원) — Lunacy (광기)

Shape (형태) — 만월의 빛깔을 품어 은은하게 발광하는 돌의 형태.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세트의 후예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월의 광기는 죄책감이자 가슴을 짓누르며 자신들을 죽음까지 이르게했던 고통의 잔재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에 남아 그들의 정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광기를 이겨내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광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면의 광기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마주한 후에야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3.6. Asset for Bloodline of Cain : Vampire

카인의 핏줄 — 뱀파이어

Requirement (성장 필요자원) — Vitium (악의)

Shape (형태) — 다양한 색채의 파편 조각들이 뭉쳐진 형태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누군가 카인의 핏줄을 움직이게 하는것이 무어냐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순수한 악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죄악이 결실을 이루도록 만드는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창조주의 저주가 새겨진 죄악의 근원은 같지만 죄악을 짊어진 개체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출 및 정제되며 완성된 죄악의 형태와 공명하는 색깔은 저마다 다릅니다.

3.7. Arcadia — 이상향

Shape (형태) — 푸름과 녹음 그리고 전기줄, 파이프, 혈관, 꽃밭, 등 섞이지 말아야 할 다양한 것들로 뒤섞인 행성(*이하 테르벨로 명칭)

Asset Description — 재화설명

종족을 불문하고 이데아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상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상향은 현실의 경계과 부딪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우하는 때는 당신이 원하는 순간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장소 역시 그렇지요.

이상향은 이데아의 세계와 심상의 세계속에 발을 들였을 경우 맞이 할 수 있는 세계의 핵심이자 고유한 상징이나 다름 없습니다.「이상향」은 단순 신비로운 재화가 아니라 모든 세력이 갈망하는것 혹은 구원에 닿을 수 있는 촉매이자 매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그것은 때로 개체 사이의 관계와 호감도를 조절 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3.7.1. Emergent — 가능성

기록하는 이가 이데아에서 여정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특정 개체를 조우하는 것으로 특정 세계선을 관측하여 조건이 충족할 시 더욱 깊은 이해도로 이루어진 기록으로 개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가(게임 내에서는 기록 확보라는 고유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기록 확보라는 명칭으로 통일)로 개체를 복원하는데 이 경우에 가챠로 얻은 개체와 달리 더 풍부한 정보로 복원의 완성도나 개체 이해도 면에 있어서 뛰어나 세계선과의 안정도가 높습니다.

운명으로 치환이 가능한 이상향과 종족 고유의 재화를 이용하여 여전히 완벽한 복원은 아니지만 비교적 원래의 기록에 가깝기에 사건과 상황에 대처하는 고유 능력과 패시브 혹은 특성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3.7.2. Synchro — 성향일치

이상향은 심상세계에서 추구하는 각자의 이상향과 공명하고 동조하며 그것을 서로 오롯이 느끼고 수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며 정신적인 작업은 그곳에서 벗어났어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개체들은 초월하는 이상을 향해서 끝없이 분투하며 그것을 품으려 애쓸 것이고 다양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3.7.3. Ecstasy — 도취

이상향으로 사건의 이면을 바라보거나 원하는 환경을 바랄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감각이 확장되어 심상세계에서 조우하는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여정 시작전 개체들에게 도취를 부여합니다. 다만 그것에 도취되어 너무 오랜동안 빠져들면 이상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현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신 붕괴와도 직결이 되며 지나치게 되면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조작의 불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의 부정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이상향을 마주하기 전에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포용해야만 합니다.

3.7.4. Paradigm — 세계선 비틀기

여정 전 기록하는 자는 이상향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세계의 상황을 뒤바꿔버릴 수는 없지만 개체가 여정에 적합한 환경에서 특정 세계선의

사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기후 또는 사건의 키워드 등 일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비틀 수 있습니다. UI 에서 조건을 선택하여 이상향으로 빚어져 만족스러운 형태로 탈바꿈이 된 심상세계에서 조금이나마 여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7.5. Insight — 개체 이해도

운명으로 개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형태가 유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으로 개체는 자신의 기술 숙련도를 올려 해당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를 통하여 개체의 고유능력을 해금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4. Relic Treasure — 유물 시스템

일반적으로 제작 공방에서 제작할 수 있는 무기나 갑옷같은 장비가 아니라 강한 아이템이 아니라 세계의 사고와 기록이 응축된 물건입니다. 강함보다 이상하고 기괴함을 추구하며 단순히 던전의 보상이 아니라 세계관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성능과 독자적인 배경 설정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유물을 사용하는 이유와 꺼리는 이유를 확실히 구분짓는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물에 담겨진 의미심장한 플레이버 텍스트의 추가가 플레이어 스스로 의미를 만들면서 세계관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유물을 장착했을 시 특수한 UI 혹은 SFX를 통하여 기록하는 자들은 일반적인 장비와 다른 뭔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 개체 관련 키워드 』

— 개체 키워드 —

— 칠죄종/칠주선 —

— 사회 & 관계 시스템 —

— 우화 시스템 —

— 세계 환경 변화 시스템 —

— 중복 개체 처리 —

— 랜덤요소 부가설명 —

1. Entities Keyword — 개체 키워드

운명으로 복원된 개체는 단순히 수집을 위한 개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게 만들어 줄 기록의 일부입니다. 개체들은 각자의 능력치를 하위의 키워드 테이블로 분류되며 정해진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배분됩니다.

1.1. Radix — 근본

Shape (형태) —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DNA 배열

Concept Description — 기본 능력치(스텟) 혹은 기량

기본적으로 개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씨앗과 그것이 자라는 비옥한 대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명하며 오랜동안 이데아를 살아온 존재들이라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가치입니다. 뿌리 내릴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데아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쇠락의 길에 접어들며 종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본은 개체의 선천적인 잠재 가능성에 기인하는 요인이며 운명이라는 흐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1.2. Crescentia — 성장

Shape (형태) —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

Concept Description — 유년시절의 성장배경

오랜동안 길들인 짐승에게 재갈을 풀어주고 철창 밖으로 등 떠밀면 이

들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개체에게 총과 칼을 쥐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짐승만큼 혹은 그것보다 위험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장의 배경은 개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성장의 배경은 비록 한 개체의 역사에 있어서 비교적 길지않은 시간을 차지하지만 그들이 훗날 이데아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표 역할이 되어 줄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개체에 담긴 잠재 가능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체의 성장 배경은 뿌리의 품질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지만 무조건 그 인과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주어진 특성은 훗날 개체의 능력이 임계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물론 임계치에 닿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1.3. Vocare — 소명

Shape (형태) — 프론트 더블 바이셉 포징과 불길

Concept Description — 직업과 그것에 대한 열정도

이데아에서 소명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 말이 지닌 의미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로 개체들에게 발현되어 왔지요.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나 소명이라는 거대한 범주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때로는 열정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내면의 동력 또는 동기부여 등으로 다

양하게 쓰여집니다. 죄악을 짊어진 자들이나 저주를 받은 존재들 조차도 자신들만의 소명감을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장의 배경이 과거의 흔적이라면 소명이라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짊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택을 하게 될 기회입니다. 그것은 대대로 물려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데아가 던져진 운명이 개체들에게 다양한 소명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련을 겪을 사건으로 내던지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소명감을 갖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Ingenium — 재능

Shape (형태) — 물을 담은듯한 감싼 손에서 반짝이는 빛무리

Concept Description — 트레잇

개체의 뿌리와 성장 그리고 소명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를 엮어낸 뒤 단조되어 도출된 고유한 결과값을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노력이나 숙달보다 천부적인 요인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개체마다 지정된 재능의 종류와 수치는 천차만별이며 일각에서는 특별함을 구분짓는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굴레에 손을 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체가 유사한 뿌리와 성장배경 그리고 소명을 품었다하여 개별적인 재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데아의 수많은 개체들이 재능이라는 개념에 매료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데 소모되는 재화를 아낄 수도 있다는점이 가장 크며 재능이 가져다주는 미세한 차이가 이후에 압도적으로 큰 격차를 불러와 커다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점을 거머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데아의 개체들은 자신의 안에 담겨져있는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내포된 잠재력과 가능성의 저변을 넓힐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자신이 어떠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고 흩어지는 존재들도 많기에 재능은 그 자체로 고유한 요소입니다.

1.5. Ars — 기술

Shape (형태) — 필라멘트 뒤의 복잡한 시계태엽

Concept Description — 특수스킬 혹은 고유스킬

성장의 배경이나 소명이 과거와 현재를 위한 기반이었다면 기술은 개체가 미래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멋진 점은 이데아의 불확실한 어느 것들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운명을 써내려갈 것인지 명확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기술이 개체의 재능을 따라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기술의 결

에는 언제나 숙련과 숙달이 따릅니다. 자신에게 쏟아부을 시간과 열정과 그것을 이어나갈 인내가 있다면 축적된 경험과 숙련도로 기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한들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는 것과 달리 기술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데아를 살아가는 개체들은 종족을 불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단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1.6. Ingenium — 성향

Shape (형태) — 악수하는 모양과 앞에 웃는 얼굴 우는 얼굴

Concept Description — 개체의 상태와 호감도

이데아의 개체들이 갖는 심상 세계를 바탕으로 행동 방식이 기우는 마음을 말합니다. 개인이 가진 고유한 마음이 행동 방식이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특징으로 인하여 성향이라는 개념은 상위 서술한 요소들에 의해서 여러모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체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타고난 성질만큼이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이따금 원하든 원하지않든 고유한 특성이나 성향이 무의식 속에 새겨질수도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개체의 성향에 따라서 가치관이 굳어지며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2. Seven Sins and Seven Virtues Keyword

칠죄종/칠주선 키워드

본 프로젝트에 개체의 특징을 규정하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게임의 설정에서 여러번 언급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일곱가지의 죄악과 그에 반하는 일곱가지의 주선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벨의 자손과 세트의 후예에 적용되는 고유 키워드로써 하위 키워드를 가진 개체는 때로는 이점을 갖게되지만 반대로 특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죄악이나 주선을 짊어지지 않은 세트의 후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이데아를 날뛰며 그것들을 상성과 관계없이 찢어발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선도 죄악도 하나 이상을 짊어지지는 못합니다.

2.1. Superbia / Avaritia / Invidia / Ira / Luxuria / Gula / Pigritia

오만 / 인색 / 질투 / 분노 / 음욕 / 탐식 / 나태

2.2. Humilitas / Caritas / Benevolentia / Patientia / Castitas / Temperantia / Industria

겸손 / 자선 / 친절 / 인내 / 순결 / 절제 / 근면

3. Social & Affinity System — 사회 & 관계 시스템

이데아를 살아가는 개체들끼리 끊임없이 부대끼며 살아 가는만큼 사회 & 관계 시스템이 전투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다양합니다. 정신 붕괴와 각성 구조, 캐릭터 사망을 경험했던 흔적(심상 세계에서 실제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정신력의 대폭 감소와 더불어 일시적인 정신적으로 외상 징후를 겪게 되겠지만요.)이나 지역별 문화별로 다른 전투방식을 선사합니다. 사회 & 관계 시스템에서 불거지는 사건이 각 개체에게 고유성을 부여하여 원정의 설계에 있어 의외의 상황이 연출이 되도록 만들어 기록하는 자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담겨지기 시작하면서 게임은 단순 랜덤 캐릭터 가챠게임을 넘어서 세계와 다양한 종족들이 뒤엉켜 서로 영향을 주는 서사 시뮬레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낮과 밤 그리고 계절과 날씨라는 개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캐릭터의 의미를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캐릭터의 가치 파티의 가치 심지어 실패의 의미까지 바뀔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같은 캐릭터라도 낮에는 무능하나 밤에는 핵심 인력 이거나 실의에 빠진 사제가 어둠속에서 각성하거나 트라우마에 빠졌던 군인이 망설임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상황처럼 개체들은 환경에 따라 육체적 혹은 심리적 변화를 겪게되며 동시에 기록하는 자더 세계를 대하는 방식과 인식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4. Allegory System — 우화 시스템

우화 시스템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피할 수 없는 선택이 필요한 일반적이지 않은 일생 일대의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이 만들어내는 서사적 요소를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체는 물리적인 신체훼손 혹은 결손 그리고 정신적인 변질과 왜곡을 겪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우화라는 개념은 단순한 부상 시스템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의 손실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여정에서의 역할이 변하고 내면 심리상태가 변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관계와 사회적인 시선 또한 변하게 됩니다. 우화 시스템으로 개체의 모습이 변하게 하는것은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요소가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존대로 거듭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핵심의 구성은 여정이 끝나고 개체를 대상으로 선택을 요구하거나 의미 변화를 유발하는 상황이 출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자는 해당 사건을 고심하며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는 신체적 변화 혹은 정신적 변화 이상으로 세계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개체의 기존 정체성이나 역할과 충돌할 경우에 개체의 삶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고 존재 자체를 재정립할 정도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개체는 우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우화 시스템이 발생한 뒤 그것이 신체적 훼손 또는 손실인지 정신적 변질이나 왜곡인지 변화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석 단계를 거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사건이 발생하고 기록하는 자의 선택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사적 의미 판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치관이나 존재 본질 혹은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나서 비로소 우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굳센 의지로 그 가치관과 정체성이 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여정에서 겪었던 서사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RPG의 부위 파괴, 장비 교체, 상태 이상, 강화 및 개조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화 시스템은 마주하고 싶다고 마주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부상이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극단적 정신적인 붕괴나 세계의 재난 또는 금기의 접촉 등 극으로 치닫는 관계나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서 아주 극악으로 희귀한 확률로 드물게 발생합니다.

우화 시스템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의 삶과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거대한 사건입니다. 다만 우화의 본질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리는 선택이지 강제적인 변이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누구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또는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있으며 무

엇을 믿고 어떤 가치고 지녔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선택도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개체의 원복이나 회복 시스템과는 거리가 멉니다.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개체는 이전과 완전히 같은 존재로 남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체를 다시금 정의하게 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처럼 우화는 이전과 다른 흔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됩니다.

개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에 기록하는 자는 우화 시스템이 불합리 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전에는 없던 생존 가능성을 열어주고 새로운 관계 변화를 만들어주며 개체만의 고유한 서사를 형성해 줍니다. 축복도 저주도 아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의 기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되어 살아 남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간성을 잃을 수 있으며 누군가는 신앙을 기꺼이 버립니다. 누군가는 금기를 받아들이며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기꺼이 괴물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하는 이들은 개체와 여정의 결과를 효율표로 나열하지 않는 대신 그 개체가 어떤 모습으로 이데아의 기록속에서 살아남는가를 기억하게 되는것이고 그것이 우화 시스템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5. World Change Environment — 세계 환경의 변화

낮과 밤도 단순 수치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꿔야 하겠지요. 밤에는 공포 이벤트가 증가하거나 광원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신하는 적이 증가하거나 정신 붕괴의 위험이 상승하고 일부 종교가 강화되며 낮에는 시야가 확복되고 원거리 명중률 보정을 받으며 궁중의 이벤트가 증가하고 신앙에도 변화가 생기는 등 같은 던전도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느껴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요소들을 잘 버무리면 단순히 개체를 바꾸는 게임이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는 게임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록하는 자가 처리하고 연산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면 원정을 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변하는 세계의 정보는 접거나 펼치는 UI를 사용하여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둡니다.

6. Overlap Entities Treatment — 중복 개체의 처리

운명을 비틀고 구현화된 개체는 여러 가능성을 품은채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기록속에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만 기록하는 자는 중복된 개체를 대하는 방식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매번 그것들을 처리하면 피로감이 될 것이기에 개체에 필터나 잠금 기능을 적용하여 우발적으로 줄곧 함께하는 개체를 떠나보내지 않도록하며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복된 개체들을 처리하여 단순하게 중복의 개체를 분해하는 시스템 처리 방식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계관에 흔적을 남기려는 기록과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6.1. 잔향화 — Resonance

Shape (형태) — 잔상을 남기는 중첩된 실루엣

Concept Description — 지속적 개입

이데아아의 개체들이 두려워 하는것은 낙원에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운명을 비집고 나와서도 기록에 담기지 못하는 중복된 개체들은 존재감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된 개체의 잔향화로 그들은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작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향에 따라서 전투 중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을 수정하거나 특정 사건과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여 굴림 보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요소는 이들이 원정 편성의 슬롯을 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중복된 존재들의 기록안

정성을 위해서 잔향 공명이라는 제한으로 하나의 원정 편성에는 오로지 하나의 잔향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잔향이 오랜 동안 머물 경우 역시 잔향 피로도라는 개념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더불어 잔향이 반복된 개입은 그것의 마모 붕괴 소실의 단계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6.2. Memento Mori — 저편의 메아리

Shape (형태) — 유골과 살갗이 있는 손가락의 접촉

Concept Description — 단발적 개입

운명을 비틀고 나온 중복된 개체의 처리 방식 중 하나는 개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메아리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통해서 운명의 단편으로 재귀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저편의 중복된 개체가 선택하지 않았던 소중했던 순간을 단 한 번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메아리에 깃들어있는 강한 소망이 발현되어 원본의 개체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더 나은 전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후에 가벼운 후유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편의 메아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운명처럼 스스로 발현될수도 있고 기록하는 자의 손에 의해 쓰여지게 됩니다. 이는 설정상으로도 기록하는 자의 직접적 개입은 포용되지 않지만 중복되는 개체의 잔향을 처리함으로써 혼란을 최대한 배제하여 충돌하는 가능성을 줄여 범람하

는 진실속에서 서사의 엉킴을 방지하고 단 하나의 진실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내용과도 적절하게 녹아듭니다.

6.3. Entity Centrifuge — 개체 분리기

Shape (형태) — 뼈와 살의 재활용 표시와 원심분리기

Concept Description — 특성의 추출

중복된 개체를 신체적 특성과 소명 기술 성향 등의 다양한 성질로 나누어 분해 가능한 단위까지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을 끌어올 수는 없지만 특정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다른 개체에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체의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저편의 중복된 인격이라도 완전히 다른 개체는 왜곡을 발생하고 상호 충돌의 이유로 호환성은 다소 떨어져서 부작용이 따릅니다.

게다가 개체를 분리기에 투입하는 행위 자체로 다소 극단적인 작업이기에 대다수의 개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존재의 명제와 구조를 오염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단순하게 장점만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성향까지 병행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술로 개체의 붕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명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6.4. Palimpsest — 필사본 덧칠

Shape (형태) — 여러장으로 겹쳐진 필사본

Concept Description — 이상향 환원

그 이외에도 처리되지 못한 중복의 개체는 기록하는 자에 의해서 불필요한 가능성으로 판정되어 세계 바깥의 기록으로 보관 및 회수 됩니다. 회수 자체는 삭제지만 기록하는 자는 그것을 대가로 이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데아의 다양한 도감(국가 기록, 세력 문서, 개체, 생태, 사건 등 다양한 기록)을 해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수집률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가 남기는 이데아의 이해도에 가깝습니다. 세계관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죠. 게다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도감 이해도 분석을 완료했을 시 유료 재화인 운명을 소량 제공합니다. 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경지에 닿으면 운명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게임 내부 설정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7. Random Vector Elaboration — 랜덤요소 부가설명

랜덤한 요소는 즐거움이 되지만 반복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스트레스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렇지만 개발 일지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비교적 넓은 폭의 랜덤한 요소들이 즐비한 이유는 개체를 구현할 때 상기 요소들이 무작위로 정해지는 이유는 바로 뒤틀린 특이점 때문에 기록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이데아의 기록을 불러오려 했으나 그 개체에 대한 기록은 특이점으로 인해 유실되고 희미해 졌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재구성되는 가운데 일부 스텟은 무작위로 배분되고 개체의 성격과 특성은 제 멋대로 복원이 되었다는 식의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으로부터 완벽한 개체들을 얻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록에 담긴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기록의 복원이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설정이 기록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저가 어차피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록을 복원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현재의 혼란과 파멸 그리고 기록의 말소같은 비현실적인 위협을 배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설정을 최대한 활용한 가변적 최적화의 극대화로 로그라이크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던전의 탐험은 곧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작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게임은 유저들에게 완벽했던 세계(정석)가 무너져 내린 후 일그러진 파편(뒤틀린 기록)들을 재정립 한다는 테마를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가챠는 단순하게 상점에서 뽑는 개념이 아니라 운명을 거머쥐어 기록의 베일을 벗겨내는 가운데 추락한 낙원의 기록 저편에서 부서지거나 유실된 운명의 조각을 인양하는 행위가 됩니다. 유저는 낙원에서 살아갈 완벽한 영웅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소실되고 망가져 조금은 뒤틀린 영웅들을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실망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뒤틀림마저 추락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힘 중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기록하는 자라는 설정대로 기록하는 심상의 세계에 몸을 던져 그것을 직접 조우하며 일그러진 기록(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개체)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내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랜덤의 요소가 단순한 우연히 아니라 관찰된 기록과 역사의 누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 전투관련 키워드 』

— 전투 화면 —

— 전투관련 키워드 —

— 교전 절차 —

— 상태 키워드 —

1. Dungeon Progression — 전투 진행

전투는 루트 선택 맵(게임 내에서는 사건이라는 고유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통일) 진행 방식인 로그라이크 덱 빌딩 형식을 따르며 스테이지(게임 내에서는 심상세계(Midnscape)라는 고유명칭으로 사용됨* 이후 심상세계라는 명칭으로 통일)속 사건을 조우하며 여정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심상세계의 배치는 렌덤이며 절차적 생성 방식으로 만들어진 던전 구성이 될 것입니다.

심상세계의 여정은 일반적인 던전 크롤러 스타일의 탐사의 방식이며 난이도 별로 Coherent(일관된) / Fragmented(조각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심상세계의 난이도별로 얻을 수 있는 재화와 클리어 시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건부로 주간 유료 재화의 획득도 가능합니다. 적과의 조우 후 전투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본 프로젝트에는 독특하게 패배를 했을 경우에 처리 방식을 두 가지 분기로 나눠지도록 배치 했습니다. 패배시 UI와 함께 재도전과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두가지 루트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같은 사건의 반복이지만 세계선으로는 다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재도전이냐 패배를 딛고 강행할 것이냐, 결정하는것에는 기록하는 자의 세계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Recall — 재도전

동일 심상세계를 다시 도전하는 방식이지만 대신 매 재도전마다 조건이

바뀝니다. 단순 적 강화가 아니라 규칙이 변경되고 지형이 뒤틀리며 여정에 오른 개체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심지어 목표 조건의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실패는 수정 하는것이 아니라 실패 자체가 다른 사건이 되는 사건의 변주입니다.

1.1.1. Stage Collapse System — 스테이지 붕괴 시스템

설계기본 전제는 에덴폴의 스테이지는 고정된 레벨이 아니라 심상의 세계에서 사건을 담는 임시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심상세계는 클리어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 가능한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사건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시스템 구조는 심상 세계의 3중 상태 모델로 각 세계는 항상 안정(일반 세계와 균일)과 균열(규칙의 일부 변형) 그리고 침식(구조 자체의 변질) 상태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상세계 안에서 숨겨진 계수로 존재하여 사건의 조건에 따라 재도전이나 패배의 선택 시 해당 수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스테이지 붕괴의 실제적인 지형의 침식이 진행되면 길이 고정되지 않아 출구가 다음 심상세계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적들이 침식되면 그 숫자와 종류 그리고 특징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개체 자신의 이전에 겪은 죽음과 투영하여 바라보는 정신적인

변화마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심상세계가 침식된다면 이전의 안정적인 목표인 승리가 아니라 목표 자체가 삭제되고 다른 임의의 목표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심상세계가 완전히 침식된 상태로 변질되면 사건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재도전 시스템과 붕괴의 관계는 재도전이 단순 반복인 같은 심상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 중인 사건에 다시 접근하는 것이 됩니다. 재도전 시 발생하는 변화는 침식된 계수에 따라 사건의 일부가 당신을 인지하게 되어 개체들을 더욱 고난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재도전할수록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장소가 아니게 되는것입니다. 재도전은 실패를 수정하여 세계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헤치고 사건을 무사하게 재복원을 하고나면 회수 가능한 자원 비율이 증가합니다. 또한 클리어 보상으로 정제된 세계와 이미 고난을 뚫은 셈이니 다음 심상세계의 불이익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것입니다. 한 마디로 누적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재화 손실은 줄이고 보상은 늘려 안정적이고 정제된 보상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1.2. Overrun — 강행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스테이지에서 미해

결된 요소가 잔향처럼 뒤따라오게 됩니다. 적이 바뀌거나 플레이어 상태가 누적되어 오염됩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재도전 루트와 달리 넘어간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사건의 누적 중첩에 초점이 실립니다.

사건의 종결없이 다음 심상세계로 강행을 하는것으로 패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며 패배로 받은 상태의 이상도 이월되어 누적이 됩니다. 그러나 재도전을 할 때처럼 상황은 악화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확정되고 패배가 평판에 영향을 받을지언정 결과를 수용하고 매몰되지 않으며 작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들은 잔향으로 남아 개체들을 계속 괴롭히겠지만 적어도 실패의 쓴 맛을 안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세계에 누적시키는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값진 승리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상이 존재합니다. 변형된 보상의 드랍 테이블로 희귀 아이템 상승폭이 증가합니다. 강행을 이어나갈시 보상은 불안정한 대신 고점을 높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재화 획득량은 줄어들며 전투 불안정성도 상승합니다.

1.2.1. Victory — 승리 — 찰나의 유예

에덴폴의 세계속에서 완전한 승리는 없습니다. 단지 역사의 커다란 흐름으로부터 잠시 눈을 돌렸거나 미쳐가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남았죠.

Survive (잔존) — 겨우 목숨만 부지함.

Reprieve (유예) — 파멸의 시간이 잠시 뒤로 미뤄짐.

Awakening (자각) — 진실을 깨달았으나 대가로 평온을 잃음.

Sealed (봉인) — 개체를 완전히 소멸시킨게 아니라 잠시 가둬둠.

Hollow Victory (공허한 승리) — 이겼지만 무언가를 잃어버림.

Forbidden Knowledge (금기된 지식) — 알아서 안 될 것을 알게됨.

1.2.2. Defeat — 패배 — 끔찍한 고통

단순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태입니다. 즉 개체의 존재가 지워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sumed (잠식) — 어둠이나 외계의 존재에게 먹혀버림.

Madness (발광) — 감당할 수 없는 진실에 정신력이 붕괴됨.

Assimilation (동화) — 기괴한 존재의 일부와 융화가 됨.

Abyss (심연) — 끝없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추락함.

Eternal Torment (영겁의 형벌) — 죽지도 못한채 영원히 고통을 받음.

1. Combat Interface — 전투 화면

3D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배경은 2.5D 배경에 사이드 쿼터뷰 카메라 워킹 연출 기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매커니즘은 각 개체별로 행동력과 면이 다른 주사위를 굴리는 보드게임의 전투 방식을 따르며 페이즈마다 자신만의 조합과 전술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방식을 따릅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주사위를 직접적으로 굴리지않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용했고 대신 각각의 페이즈에서 스킬을 선언하고 개체 Y축 상단에 간략한 전용 UI 구역을 제공하여 주사위이 굴러가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페이크 3D 이펙트를 활용하여 주사위를 굴리는 모션만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또는 가벼운 파티클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멈췄을 때의 주사위 결과를 시스템 연산에 맞춰 이미지로 표시해 줍니다. 주사위의 성공 결과가 판정되는 순간 카메라가 주사위 화면에서 캐릭터의 3D 카툰 모델링으로 빠르게 줌인 되면서 묵직하고 호쾌한 타격 연출이나 컷신을 보여줍니다. 그 외의 세부정보는 상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각 개체에 부위별로 구분을 두면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하는 자에게 전략과 전술의 즐거움을 줍니다. 개체들만이 가지는 고유하고도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으로 색다른 전투 경험을 선사합니다.

2. Combat Keyword — 전투관련 키워드

2.2. Combat UI & HUD (전투화면 UI 및 HUD)

개체가 전투에 돌입할때 최초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각 개체들이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상태의 이상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체를 탭하는 것으로 그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가 전투에 돌입할때 최초로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각 개체가 갖는 기본적인 키워드이며 전투는 주사위 굴림으로 이루어지며 하위의 항목은 개체를 복원할때 나오는 랜덤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 체력 — 개체의 최대 체력과 현재 체력을 보여줍니다.
2. 정신력 — 개체의 최대 정신력과 현재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3. 행동력 — 개체가 보유한 행동력 수량을 보여줍니다.
4. 공격속도 — 개체의 갖을 수 있는 최대/최소 속도를 보여줍니다.
5. 공격력 — 개체가 가하는 물리/정신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6. 방어력 — 개체가 감내할 수 있는 물리/정신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7. 감응력 — 개체가 개체나 사회에 감화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8. 1스킬 2스킬 3스킬 궁극기 — 개체가 보유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각 스킬별 숙련도와 궁극기를 시전하기 위한 필요량을 보여줍니다.

9. 고유 기술 — 개체가 보유한 생존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체들이 보유할 수 있는 특수 기술과 별도의 기술로 분류됩니다.

*(방어/회피/도발/패링/원호/도망/은신/봉인/추방 등)

*이하 자세한 사항은 개체를 탭하여 뜨는 UI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 또한 조작설정에서 드러나는 정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3. Item Usage — 아이템 사용

2.3.1. 체력 회복 아이템 — 회복성 약물

응급 처치도구 — 혈장 팩과 앰플

포션 — 부유물이 보이는 투박한 유리병에 담겨진 찐득한 검붉은 피

신선한 고기 —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이겨진 살덩어리와 가죽

2.3.2. 정신 회복 아이템 — 마약성 약물

담배 — 경량으로 효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정신 회복제

정제된 피 — 고급스러운 엘릭서 병에 담긴 진홍빛으로 흔들리는 피

토템 — 은은한 빛을 내뿜는 부유하는 돌덩이와 파편

2.3.3. 연금술 제작 아이템 — 유틸성 약물

연금술로 획득할 수 있는 약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략의 판도를 바꿀만큼 거대한 영향려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당신의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을때 잠시나마 의식을 붙잡아 둘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하므로 적재적소에 그것들을 사용한다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을 사용할 경우 중첩이 되어 중독에 대한 내성이 감소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성에 따라 약물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3. Combat Sequence — 교전 절차

3.1. 시스템 구도 서사적 연출과 룰의 결합

이 연출은 보드게임에 존재하는 주사위 전술의 대항굴림(Opposed Roll) 규칙을 시각화하여 개체들의 공방을 주사위로 표현합니다. 전투에 돌입한 개체는 주사위를 굴리는 시퀀스를 시행하며 공간적 배치는(UI 레이어) 각 개체의 머리 위로 생성이 됩니다. 주사위는 개체에 따라 종류와 개수가 다릅니다. 공격 스킬의 배치를 마치고 준비를 누르는 순간 교전하는 두 캐릭터의 중간 허공(공방의 교착점)을 향해 부드럽게 끌려가며 나란히 배치됩니다. 기록하는 자의 시선은 좌우로 분산되지 않고 두 주사위가 맞물린 화면 중앙으로 고정됩니다.

3.1.1. 전투돌입 시퀀스 연출

주사위 판정부터 액션 연결까지 주사위의 결과가 캐릭터의 물리적 타격으로 전환되는 매끄러운 흐름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단순히 적과 아군이 순서대로 공방을 주고 받는것이 아니라 의지 혹은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개발 컨셉과 걸맞는 일체형 연출로 아군과 적군 개체의 주사위를 머리 위에 나란히 배치하여 개체들의 대립감을 시각화합니다. 이 연출은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텍스트의 진중함과 전술 전투의 쾌감을 이어주는 완벽한 교량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교한 공방 시퀀스를 더욱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 전투는 하위의 순서를 따릅니다.

3.1.2. 대치 상황 — 주사위 생성

주사위가 생성되며 시전된 스킬을 시행하기 위해서 즉시 잉크가 피어나듯 두 주사위가 공중에 팝업됩니다. 이때 화면의 배경이 살짝 어두워지며 두 주사위와 대치 중인 두 인물에게만 조명이 집중됩니다.

3.1.3. 교전 상황 — 스핀 및 사운드

주사위가 구르며 부딪히는 효과(SFX)와 함께 두 주사위가 제자리에 입체적으로 회전합니다. 회전 속도에 맞춰가며 시스템상 개체의 스탯이나 기타 트레잇 모든 상황과 효과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주사위의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주사위 하나하나의 결과가 출력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고유의 효과음, 이펙트와 함께 개체는 교전을 맹렬하게 주고 받습니다.

3.1.4. 결과 처리 — 주사위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표현

각 개체의 서로 다른 주사위의 결과값에 따라 특수한 효과음과 함께 채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낮은 쪽의 주사위는 효과음과 함께 깨지는 효과와 함께 검은 잉크 가루가 되어 증발합니다.

3.1.5. 결과 시행 — 개체의 액션 시퀀스 표현

주사위의 증발 효과와 동시에 주사위 굴림에 승리한 개체의 하이라이트 연출(설정에서 노출 방식 조정 가능)과 함께 대지를 박차고 나가면

서 고유의 공격 모션을 출력하며 패배한 개체는 피격 및 경직된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결과 시행까지 진행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각적 정보를 줄 만큼 길어야 하지만 전투가 늘어지지 않을만큼 집약하도록 합니다.

3.2. 예외 상황 및 특수 판정 연출 디자인

보드게임 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연출적으로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그 확률이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외의 경우마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며 그것으로 기록하는 이들이 전투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3.2.1. 무승부 — 대등한 대치

굉장히 희귀한 경우이지만 특수한 효과에 걸려 양측의 주사위 눈금이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 발생합니다. 두 주사위 중 어느것도 증발하지 않고 서로 강하게 충돌하여 거슬리는 마찰음과 맹렬한 교전 후 각자 위치했던 곳으로 튕겨 나갑니다. 인게임에서는 아군과 적군이 무기를 맞대고 힘을 겨루는 교착 상태나 후 동시 방어 모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턴이 허무하게 날아가거나 행동력의 낭비라고 느끼는것이 아니라 치열한 공방을 이루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3.2.2. 크리티컬 — 완벽한 압도

교전을 이루던 두 개체 사이에서 주사위 굴림의 최고 눈금(예 : 6)과

최저 눈금(예 : 1)이 결과값으로 도출이 되었을때 압도적인 차이의 승리로 판별되는 순간을 크리티컬이라고 명칭합니다. 방어하는 개체의 주사위는 깨지고나서 화면 전체가 흔들리는 이펙트 혹은 플래시 이페트와 함께 공격하는 개체의 승리 모션이 출력되며 진동과 거친 파열음과 함께 방어하는 개체를 파동으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맹렬한 돌진과 하이라이트 연출이 이루어지며 캐릭터의 최종 공격 데미지가 증폭되어 표기됩니다. 그리고 특수 대사가 출력됩니다.

4. Combat Report — 교전 기록창

교전의 기록 사건 분류 네이밍은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일부 기록은 훼손이 되어있는 모습으로 결과가 결과창에 기록됩니다. 결과창에는 교전 사건 분류 번호, 전투 유형, 주요 개체, 결과, 인과의 상태, 기록 안정도 등 다양한 정보들은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 해석의 요약과 핵심 관측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교전이 패배했다고 여정이 실패 하는것이 아닙니다. 후퇴를 하는것은 전진을 위한 발돋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록하는 자는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끊없는 여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4. Condition Keyword — 상태 키워드

1. Vital Sign — 징후

전반적 생명유지 상태 혹은 활력 징후라고 부르는 이것은 유기적 개체의 현재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상태 또는 소견을 뜻하는 말로서 건강상의 징후와 정신상의 징후라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 및 분류됩니다. 어느 징후던간에 초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개체의 활력 수치가 0에 도달할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파괴됩니다.

1.1. Health — 체력

건강상의 징후란 물리적인 육신의 내외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건강 상태를 이르는 말로 유기체가 살아 숨쉬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뜻합니다. 상태가 대부분 외부적으로 드러나며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일부 물리적인 기능에 제한이 따릅니다.

1.2. Mental — 정신

정신적 징후는 살아있는 것들 만물에게는 정신이 깃들어있는 것들에게서 드러나는 사소한 변화를 수치화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건강상의 징후와는 달리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지않으면 추후에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4.1. Normal, Exaltation, Broken — 정상, 고양, 붕괴

개체의 건강 상태를 부를때 정상 범위로 명명하는것은 외부나 내부에서 아무런 개입이 없다는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데아는 개체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뒤틀리게 만들 수단은 넘쳐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에게 부여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태에 따라 각각 고양 상태 그리고 붕괴 상태라고 부릅니다. 고양 상태일 경우 개체에게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안겨 주게되며 본능을 깨우거나 감각의 과부화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분괴의 상태에 빠진 개체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추가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임계치 단계에 따라 초과하는 상태 이상을 지속적으로 부여받았을 경우 혹은 오랜 시간동안 치료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붕괴의 상태에 접어들며 고유한 붕괴의 상태 이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후유증으로 남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개체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4.1.1. Exaltation — 고양 상태 키워드

고양은 개체의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나친 자신감이나 기본적인 욕구의 감소 각성상태 또는 신진대사가 빨라지거나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공격성이 드러나거나 몸의 방어체계가 활발하게 작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상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에 항상 긍정적인 변화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기에 육신의 주기적인 점검과 정신적인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4.1.1.1. Physical Exaltation — 물리적 고양

물리 공격력 증가, 적 물리 공격력 감소

물리 방어력 증가, 적 물리 방어력 감소

물리 피해량 증가, 적 물리 피해량 감소

이동/공격 속도(우선권) 증가, 적 이동/공격 속도 감소

체력 회복량 증가, 적 체력 회복량 감소

힘/민첩 증가, 적 힘/민첩 감소

모든 능력치 증가 / 적 모든 능력치 감소

최대 체력 증가, 적 최대 체력 감소

치명타 확률/피해 증가, 적 치명타 확률/피해 감소

피해량 증가, 적 피해량 감소

체력 회복속도 증가, 적 체력 회복속도 감소

생존 능력 증가 / 적 생존 능력 감소

4.1.1.2. Psychological Exaltation — 정신적 고양

정신 공격력 증가, 적 정신 공격력 감소

정신 방어력 증가, 적 정신 방어력 감소

정신 피해량 증가, 적 정신 피해량 감소

정신력 회복량 증가, 적 정신력 회복량 감소

지능/매력 증가, 적 지능/매력 감소

지속 치유 상태이상 방해 / 즉시해제 / 지속시간 감소 / 면역

최대 정신력 증가, 적 최대 정신력 감소

스킬 쿨타임 감소, 적 스킬 쿨타임 증가

정신력 회복속도 증가, 적 정신력 회복속도 감소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 초기화, 적 재사용 대기시간 증가 / 초기화

4.1.2. Broken — 붕괴 상태 키워드

붕괴는 개체가 심상세계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난 이후에 남는 신체적 부상 또는 정신적 상처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것을 처리 했다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치 상태에 따라서 훗날 공포와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정이 끝나고 편성되지 않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면서 개체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4.1.2.1. Physical Broken (물리적 붕괴)

4.1.2.1.1. Physical Damage (물리적 피해)

Sharp (절상) > Rupture (파열상)

상처 상태와 무관하게 빠른 출혈을 발동시킵니다.

Blunt (둔기외상) > Fracture (골절상)

절상 만큼은 아니지만 출혈과 더불어 기절 효과가 뒤따릅니다.

Pierce (자상) > Penetration (관통상)

상처의 상태에 따라 출혈을 일으키고 치료가 다소 어렵습니다.

Impulse (충격) > Shockwave (충격파)

단일 지점에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넓은 범위의 충격을 형성합니다.

Fatigue (탈진) > Syncope (실신)

회복이 더디고 모든 능력이 낮아지며 기절 효과가 뒤따릅니다.

4.1.2.1.2. Elemental Damage (원소적 피해)

Burn(화상) > Incineration(소각)

원소 피해 중 가장 폭발적인 피해를 줍니다.

Frostbite (동상) > Freeze (결빙)

동상의 피해와 더불어 물리적인 공격 병행시 그 피해가 급증합니다.

Static (전격) > Electrocution (감전)

지속적인 피해와 세계 상태에 따라 넓은 범위를 아우릅니다.

Whirlwind (소용돌이) > Tempest(폭풍)

공간과 속도의 제어와 다른 원소의 증폭과 확산이 가능합니다.

Aether (에테르) > 5th Elemental(5원소)

신성하고 영적인 물질로 생명력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4.1.2.1.3. CBRNE Damage (생화학적 피해)

Poison (중독) > Dissolution (용해)

지속적인 피해와 시간적으로 압박감을 가져다 줍니다.

Paralysis (마비) > Petrification (석화)

개체의 무력화와 제어 및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Biohazard (생물학 위협) > Putrification (부패)

전염과 조작으로 개체의 변이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Radiation Exposure (방사선 피폭) > Cosmic Ray (우주 방사)

기본 능력을 감소시키며 개체 에너지의 폭발을 이르게 합니다.

Plasma (플라즈마) > Nuclear Fusion (핵융합)

불안정한 이온 에너지로 개체를 파괴하고 전장을 초토화 합니다.

4.1.2.1. Psychological Broken (정신적 붕괴)

Delirium (섬망) > Insanity (정신이상)

정신력이 대폭 감소하며 주변 개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Fear (공포증) > Panic (공황)

특정 개체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Depressed (우울) > Silence (침묵)

개체의 능력 사용 불가 또는 일반공격을 강제합니다.

Tantrum (분노발작) > Lunatic (광란)

인접한 혹은 무작위의 개체를 공격합니다.

Deficiency (결핍) > Adhesion (집착)

호감도나 속성에 따라서 본인이나 연관된 개체에 피해를 입힙니다.

4.1.3. Outerlowgical Broken — 초자연적 붕괴

외계 및 초자연적인 징후로 물리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설명조차 모호한 경계에 닿아있는 모든 효과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설명이나 분석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동등한 차원의 존재로부터 습득한 지식이나 후처리가 아니라면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얻게되며 때로 그것이 전염되어 추가로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4.1.3.1. Paranormal Damage (초자연적 피해)

Purification (정화) > Divine (신성)

아벨의 권능으로 불경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Chaos (혼돈) > Void (공허)

공허 카하낫의 힘으로 정신을 침식시켜 뒤틀리게 합니다.

Psychic (초능력) > Spatial Refraction (공간 굴절)

특이점으로 얻은 초능력으로 공간 혹은 사물을 굴절 시킵니다.

Corrosion (침식) > Distortion (왜곡)

무한한 어둠으로 침식시켜 그 개체의 존재의 당위성을 왜곡합니다.

Brainwash (세뇌) > Manipulation (정신조작)

창조주의 언어로 무리를 군집하고 종말의 씨앗을 부릅니다.

『 Business Model 』

— 분기별 이벤트 —

— 시즌 확장 이벤트 —

— 개체스킨 시스템 —

— 기록물 스킨 시스템 —

— 원형 복원 시스템 —

— 프리미엄 포일 시스템 —

1. Quarterly Event — 분기별 이벤트

I'dZara — Terr'belz Syzygy

이드사라 — 테르벨 시저지

이데아는 그 특이점을 토대로 불규칙적인 시기에 공명하면서 자신과 닮아있는 수많은 테르벨을 끌어당기고 재배치하면서 겹쳐진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를 이데아의 기지개라는 뜻의 이드사라라고 부릅니다. 과학계에서는 천구의 중첩인 테르벨 시저지라고 하죠. 그동안 이데아에 담겨져있는 무수한 가능성들과 잠재된 길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데아에서 감히 볼 수 없었던 다른 형태의 자아를 발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있어도 그 모습을 애써 부정 하지말고 받아들이며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봅시다. 그것 역시 이데아의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볼 수 있는 기록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요. 시저지에는 고유한 던전과 함께 운명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고유한 개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자는 그동안 눈여겨보던 개체를 얻기 위한 운명을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한 재화의 제련으로 일정 키워드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Seasonal Expansion Event — 시즌 확장 이벤트

지역 DLC 구조 예시 — “백색의 악마”

추가 요소 예시 — 혹한의 기후, 시체 보존 문화, 재앙과 자연재해, 끈질긴 추적자, 동상 및 살얼음 트레잇, 장례와 영광스러운 사투. 새로운 정신 붕괴 유형, 새로운 종교 체계, 새로운 관계 파괴 패턴, 새로운 세계 상태 등 서사의 알고리즘을 증폭 시키도록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플레이 과정에서 분위기만 다를 뿐 같은 여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시즌 패스 패키지에도 이번 시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심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구조는 기본 게임에 핵심 국가 아벨의 자손 카인의 핏줄 세트의 후예 메인 3개 국가를 기준점으로 주요 사건 시스템과 핵심 종족 갈등 그리고 기본 세계의 상태를 시즌/DLC 로 추가하여 그 시즌 확장팩 안에 신규 국가(30의 국가들이 게임에 전부 참가할 때까지)와 신규 종교 혹은 신념(이하 동일)과 신규 세계 상태와 사건, 신규 던전과 기록물로 낯선 기록들로 쓰여질 새로운 무대를 제공합니다.

위의 키워드를 예시로 새 캐릭터들이 단순 스킨이 아니라 관계와 호감도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전투 습관 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기록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강하게 몰입시킬 수 있는 요소로 발전시킨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세계 변화 시즌의 장점은 라이브 서비스와도 궁합

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 예로 검은 우기의 시즌(가칭)을 통해서 세계 전체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빗줄기로 화염같은 특수 키워드의 약화 전격의 강화, 부패 증가, 이벤트의 풀 증가, 추적형 직업의 강세, 우울/광신 트레잇의 재발견 등 잠시 잊혀졌던 키워드들의 재점화로 기록하는 자는 단순하게 메타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가 변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Entities Skin System — 개체 스킨 시스템

스킨 BM도 단순 외형이 아니라 과거를 입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순례 실패자의 복장, 이단 심문관의 외투, 녹슨 장례 갑옷 혹은 사슬 노예의 흔적이나 피 묻은 결혼 예복을 통해서 단순 꾸미기가 아니라 캐릭터만의 이야기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피부색이나 헤어 스타일 악세서리나 문신 혹은 오라 등 성능과는 무관한 코스메틱 상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의 시스템과 장르와 컨셉에 부합하는 세계관의 몰입을 해치는 스킨보다는 상징성이 있는 기록의 흔적이 담긴 상품들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한쪽 어깨 부분만 닳아버린 갑옷, 오래된 혈흔, 깨진 성표, 타버린 망토와 그것에 담겨진 플레이버 텍스트 요소 하나하나 기록하는 자가 애착을 느끼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수집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캐리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사 수집형 게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자는 강인한 캐릭터보다 이상한 인간과 비극적 사건들이나 우연한 시너지 그리고 살아남은 흔적들을 더 기억하게 됩니다. 임계치 기반의 성장과 환경의 변화 시즌, 결함 기반 캐릭터성, 지역 문화권의 차이, 과거와 현재 배경과 직업의 충돌과 부조화가 개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캐릭터 소비 속도가 빠르고 인플레에 밀려 상위 호환이 등장하여 기억에서 휘발이 되는 반면에 본 프로젝트에는 같은 외형을 지닌 개체 일지라도 독자적인 특징과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랜 여정에서 지겹도록 살아남은 개체, 다른 이들의 정신력을 지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만 하는 아픈 손가락, 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동하는 기적의 편성같은 경험으로 기록하는 자의 기억에 남도록 합니다. 즉 추억의 자산화가 가능하게 만들어 라이브 서비스에서 캐릭터 만큼이나 그것들과 함께했던 순간과 사건이 게임이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4. Archives Skin System — 기록물 스킨 시스템

기록하는 이의 주변엔 그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킨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로비의 UI를 당신이 원하는 국가나 분위기에 걸맞는 UI 오브젝트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략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의 스킨 방식은 메인 기록지의 스킨입니다.

예를 들면 성스러운 수도원 양식이나 이단 신문관의 재판일지 혹은 군사 지휘 통제실 또는 고풍스러운 빅토리안 귀족의 서재나 피와 살로 얼룩진 의식장소 아니면 영혼들이 나부끼는 외로운 휴식처 혹은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진 바위 토템 혹은 매끄러운 나무에 놓여진 악기 그리고 뒤틀린 금서가 쌓여진 장소 등등 UI 자체를 세계관의 오브젝트와 더불어 OST를 동봉하여 판매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를 그 날의 기분에 따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4.1 주사위 스킨

일반적으로 로비나 기타 외적인 장소에서 보이는 스킨이 아니라 전투에 돌입했을 시 두각을 드러내는 스킨 시스템 중 아마 가장 많이 보게되는 주사위의 스킨입니다. 이는 종족 혹은 각 세력마다 특색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캐릭터의 정신력이나 심리 상태가 머리 위 주사위에 즉각 반영되어 유저는 UI만 보는 것 만으로도 개체의 상태를 직관적으

로 체감하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낡은 종이 뭉치, 거친 나무 질감, 차가운 무광 황동, 기계 톱니바퀴 문양, 백색 대리석, 정교한 금박 십자가 성흔, 박동하는 생체 조직, 눈동자가 박힌 흑철 등등 다양한 컨셉으로 기록하는 자 주변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와 여정의 컨셉에 발맞추어 취향대로 취사선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성적 상태부터 정신 고갈 상태까지 시각적인 연출에 더해 청각적인 연출까지 더해지면서 주사위 하나마저 기록과 서사에 접목시킵니다.

4.2. 기록에 담긴 자들의 목소리

전투에서 주사위만큼 당신에게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그것은 바로 기록에 담긴 자들의 목소리(아나운서 보이스 팩)입니다. 주사위 판정 결과부터 크리티컬이나 라운드 시작 및 종료 그리고 아군 사망 등의 전반적인 전장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읊어주는 나레이션 성우 보이스를 커스텀 상품화합니다. 성우의 연기 톤에 따라서 게임 전체의 문학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세계에서도 충분히 다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보이스 팩 라인업 또는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록하는 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입니다. 시즌 패스나 기타 상품에 포함된 기록에 담겨있는 자들의 목소리에는 파멸을 바라는 순례자들의 광기서린 목소리가 담겨져 있고 범죄 집단의 왕이 선동하는 목소리가 들

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정의 다양한 순간에 서사적 독백과 묘사가 함께하면서 서사는 더욱 풍부해 집니다.

더불어 주사위 스킨과 아나운서 팩은 기존 전투 밸런스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는 순수 꾸미기 상품이기에 독립적인 확장성을 띄며 밸런스 붕괴의 우려없이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시즌 패스 핵심 보상으로도 활요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주사위 스킨이 주는 시각적 손맛과 아나운서 팩이 주는 청각적 내러티브가 결합하면서 본 프로젝트에서 수집욕은 자극하는 BM 체계 중 하나입니다.

5. Legacy Archetype System — 원형 복원 시스템

기록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기록에 따라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심상의 세계에서 우연히 뒤틀린 특이점 사이를 뚫고 손상되거나 유실되지 않은 고유한 기록을 완전히 원복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돈 속에서 이데아 세계관의 원형이 보존된 완벽하게 재구성이 된 개체는 기록상의 이상 사례라고 불릴만큼 고유한 현상이자 특이점입니다. 기존의 무작위적인 요소 만큼이나 기록하는 자로 하여금 기꺼이 수집욕을 불러 일으키도록 유도합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 해야하는 사실은 게임의 세계관에서 순수하게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개체는 극단적으로 방향성이 명확한 개체라는 뜻이지 완벽하거나 우월한 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히 보존된 낙원의 녁자적인 흔적 중 하나일 뿐 타 개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관에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한 개발 원칙을 따라 개체의 희귀성은 강화하되 우월함은 강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원형 복원 개체는 시즌의 중요한 인물 또는 보스격 개체로 등장시켜 설정상으로도 이데아의 기록으로 쉽게 녹여낼 수 있다는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6. Premium Foil System — 프리미엄 포일 시스템

5.의 연장선으로 완벽하게 무작위로 넘치는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여전히 프리미엄을 갈구하는 유저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타 카드 게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포일 시스템을 BM과 접목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그려진 라이브 2D의 일러스트로 개체의 생생한 모습을 선사할 것입니다. 복원 작업에서 개체를 빚어낼 때 시적인 문구가 출력되고 개체의 말에 뒤이어 새로운 일러스트가 기록하는 이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고유한 효과와 더불어서 프리미엄 개체의 획득시 고유한 테두리와 고유 꾸미기 아이템이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그것은 게임에 내부적인 수치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도감의 완벽한 수집을 원하는 기록하는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 Risk Management 』

— 잠재적 위험 관리 —

1. Potential Threat Management — 잠재적 위험 관리

본 프로젝트는 서사 생성형이라는 표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금만 잘못 설계되어도 결국 흔한 가챠로 붕괴할 위험도 꽤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나 본 프로젝트에서 몇번이나 언급해온 랜덤성은 서사와 기록으로 다루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상호작용에서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기록을 하던 자는 그것에 매몰되어 몰입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체들도 그 쓰임새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개념들이 거짓이 될 때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본 프로젝트는 희귀도라는 개념이 없기에 특정 키워드 메타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게임은 빠른 속도로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던전의 다양성과 환경의 변화라는 것으로 완충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키워드나 특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희귀도와 최적의 빌드가 만들어질 위험성이 크며 그것은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정답이 생겨버리면 안되도록 기록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으로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랜덤성이 너무나 짙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자들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무력감과 불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랜덤적인 요소가 아니라 여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한 테

두리를 만들어줘야 기록하는 자들도 통제가능한 전략과 전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역경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거듭나게 만드는것이 개발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하려는 콘텐츠의 양과 상호작용은 게임의 리소스 과부화와 최적화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계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구현하려는 단계에서 초기의 의미가 희석될지도 모릅니다. 기능 추가는 되는데 마감이 불품없거나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라던가 구조 설계나 수정에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핵심 시스템만 테이블에 정리하여 기준점을 두고 나머지는 비활성 설계로 두어 연결 규칙을 최소화 및 단순화하여 후기에 출시할 확장팩이나 기타 컨텐츠를 추가할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풍부한 세계관에는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만큼이나 절대 넣어서는 안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세계관의 몰입을 해친다거나 모니터링 합니다.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것과 별개로 본 프로젝트에는 고유 명사가 많습니다. 이는 신규 우저의 진입 장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스템과 상호

작용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구조에서 한꺼번에 플레이어에게 강제로 그것을 권하면 거부감부터 듭니다. 게임이 재밌어서 계속 플레이 하게끔 만드는 핵심 강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다듬으면서 어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게임 내에서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간접적으로 플레이어가 조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를 유도합니다.

전투 피로도 면에서도 상태 이상과 환경의 변수도 많으며 사건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전투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게임을 즐기는 장치가 아니라 그저 피로도만 높히는 애물단지 입니다. 그렇기에 UI는 필수적 정보 외에는 접기/축소 상태를 이용하여 별도로 확인 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고 못지않게 전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에 개체간의 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하는동안 개체간의 인플레는 피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속도만을 늦추려는 수치 변경뿐인 소극적인 밸런싱이 아니라 세계의 환경과 분위기에 적절히 맞추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케팅은 공격적인 광고의 양보다 정확한 사람에게 깊게 꽂히는 마케팅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넓게 알리는 게임이 아니라 개발 철학에 걸맞는 소비자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영상보다는 짧고 강한 텍스트와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더욱 거부감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재적 소비자에게 설명이나 시스템을 호소하는 것보다 프로젝트에 담긴 핵심적 정수만을 노출하여 여운을 남겨주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세계관에 충분히 스며들어 언제든지 게임을 켜고 복잡하게 뒤엉켜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숨막히는 세계에 기꺼이 발을 딛을 정도로 매력적인 세상을 만드는것이 프로젝트 기획자의 목표이자 에덴폴이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공허.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자. 후대에 이르러 입을 모아 그녀를 창조주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창조주가 계시었습니다. 그녀는 공허한 하늘을 커다란 가슴으로 감싸안고 젖을 뿌리어 무수한 별들과 태양, 그리고 달을 낳으셨고 공허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만드시며 또 거두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후에 이르러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하는 태초의 존재를 빚으시고 이들에게 이름이 지어 주셨는데 그들을 이바와 아다무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태초의 아이들을 이데아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태초의 낙원이자 풍족의 땅에 두시어 정성껏 굽어 살피시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만, 창조주께서 그들을 만드실 적에 혼란과 죄악이라는 것을 함께 낳으셨지만 그녀는 이바와 아다무스를 사랑하시었기에 그것들을 그녀의 피조물인 이들에게서 떼어내어 죄악의 돌이라는 것에 고이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돌을 이데아 깊은 곳에 숨기시어 이들로부터 멀리하게 하셨고 이들에게조차 알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돌 안에서 스며나오는 속삭임이 너무도 달콤했던 탓이었을까요? 곧 이들은 그 달콤한 속삭임에 빠지게 되었고 그 목소리를 앞서 따르던 아다무스가 창조주께서 숨기었던 죄악의 돌에 먼저 손을 대게 되었나니, 돌 안에 담아 두었던 혼란과 죄악이 그의 몸안에 만연하였고 그의 아내였던 이바의 안에도 이것들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다시금 안정을 찾게 되

고, 얼마 뒤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이 셋을 잉태하야 이데아에 낳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을 각각 아벨, 카인 그리고 세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였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신과도 같이 생명을 낳았다는 창조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거죠. 그 오만은 도를 넘어 심지어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를 한 자리에 불러내어, 이들을 시험에 들게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험은 바로 각자 그들의 후대를 정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땅에 거룩한 문명을 이룩하도록 그들을 정성껏 돌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풍족한 이 땅에 영원토록 번영케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시험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창조주께서 내리신 태초의 낙원 이데아를 주무를 수 있게 함이었습니다. 태초의 낙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였을까요? 혹은 죄악의 열매로 부터 스며든 재앙의 씨앗으로부터 받은 피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의 시험은 태양만큼 뜨거웠고, 달과 같이 날카롭고도 차가웠습니다.
사려심이 깊고 순수하였던 아벨은 그의 첫번째 자손들에게 이데아를 살아가기 위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주었고, 향락을 즐기며 때로는 지적이며 계산적인 카인은 그의 첫번째 자손들에게 이 땅에 즐거움과 우월 그리고 여유를 심어두고 각자 서로의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하였습니다. 다만, 세트는 병약하고 미숙아로 이데아에 나왔으니 그는 형제들과 달리 그의 후대를 찾지 못하였고 형제들과 어깨를 견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나날이 상심에 빠져들어 더욱 어두워지니 그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죠. 그 모습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크게 상심하여 세트를 꾸짖었습니다. 신과도 같이 창조를 일궈낸 그들이었기에, 무릇 그들이 만든 피조물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트를 그들의 치부로 여기기까지 이릅니다. 그 때가 만월이 되었을 즈음이었기에 이후로도 세트는 만월의 밤마다 그날의 상처로 인하여 자신을 잃고 이데아에 내려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혼돈의 불씨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날이 선 말은 그만큼 세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히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에게 이르사 세트를 진정케 하라했고, 슬픔에 울부짖으며 자신을 학대할 때마다 이데아에는 폭풍과 벼락이 내리쳐 낙원에 상처를 입혔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세트는 완전히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시험에 들던 이들 중 하나가 형제를 죽이는 데 그가 바로 훗날 태초의 살인자라 불리우게 되는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 카인은 종적을 감추었고 이 사실에 창조주께서는 분개하시었고 카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었습니다. 그 저주는 그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없는 형벌이었고, 평생을 아니, 억겁의 세월을 이 땅 위를 방랑하고 부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영원의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것은 크나 큰 형벌이었죠. 다만, 카인. 이 자는 이것을 형벌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축복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태양과 빛의 은총을 받지 못한채 그늘 속에서 항상 인간의 피를 취하며 살아갈 진대, 그것

을 영광으로 여기었다고 합니다. 속죄의 의미로 내려진 형벌은 감히 필멸자 따위가 갖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이었기에 아마도 카인은 그 불사의 힘에 매료되었던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렇게 카인과 그의 핏줄들은 향락과 방탕 속에 살며 피를 갈구하게 되는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데아에 숨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혼돈의 폭풍이 다가올 것임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남겨진 아벨의 자손들은 비통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역시나 분노하며 동시에 슬픔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바로 그 때, 아벨의 자손 중 하나가 나서 광장에 사람을 모으고 카인을 향한 복수를 부르짖는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광장을 울릴만큼 크게 울렸으나 그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으며 이에 압도된것은 비단 청중 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을 움직이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이 자를 기특하게 여기사 이 자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그 앞에 서나니, 그 모습에 모든 이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고 지도자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닥쳐올 혼돈의 서막에 대비하야 사람을 일으켜 그들의 아비를 죽인 카인과 그의 혐오스러운 핏줄들에게 분노를 향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내 각 지방의 자치국가들의 군주들을 설득하여 이들을 하나로 규합하였습니다. 아벨의 자손이 그들 스스로 자의에 의하여 그 자손들을 한데 묶으니 이를 일컬어 공국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추대받은 자는 이후에 정치력과 통솔력

그리고 압도적 존재감으로 공국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며 공국을 번영케 하였나니, 이르러 국왕의 자리에 올라 공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온 아벨의 자손을 하나로 묶은 국왕, 델페노프. 공국 퀼로른의 사자였습니다.

카인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저주를 입고는 이데아를 방황하며 후일에 그는 종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적을 감춘 뒤 카인의 온 핏줄들은 지도자를 잃고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또한, 카인이 입은 그 저주로 인하여 그의 피를 이은 카인의 모든 핏줄도 창조주의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고, 카인과 마찬가지로 피를 탐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잃은 채 목적을 잃은 자들은 그저 피에 굶주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데아를 떠도는 갈곳 잃은 자들을 끌어준 이가 있었나니 그가 바로 ‘태초의 피’ 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모두가 그의 고귀한 모습에 넋을 잃고 그 모습에 빠지었고 이들은 홀린듯이 태초의 피를 따르게 됩니다. 그는 카인과 그의 저주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정황을 설명하며 목적없이 떠돌던 이들에게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여 카인의 핏줄을 더욱 위험한 존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신에게 미움을 받아 저주를 받은 카인을 비롯한 그의 핏줄은 분노와 적대감을 표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이제 신을 끌어내 죽이는 것 밖에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카인의 핏줄에게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불사의 존재인 이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여흥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금방 싫증이 났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카인의 핏줄은 아벨의 자손의 범주를 훨씬 초월하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저 원하는 것이 있다면야 힘으로 쟁취하면 그만이었죠. 이들은 아벨의 자손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때문에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해 버둥대는 모습을 달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능력밖의 것들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고 죽이면서, 그 끝에 항상 무언가로부터 합리화 시키려는 모습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상 구걸하기만 할 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에 치를 떨었죠. 또한, 카인의 핏줄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까닭에 대하여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핏속에 흐르는 카인의 피가 흐르는 까닭에 이미 그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늑대가 양을 사냥하는 데에 딱히 이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저 생존을 위할 뿐입니다. 아벨의 자손들처럼 살육에 취미를 갖거나 더러운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적절한 때에 그저 우연히 같은 장소에 포식자와 한 우리 속에 있었을 뿐이라고만 여기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해석이라는 말을 붙여 의미없는 뜻을 부여하는 아벨의 자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초월 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경외시하고 멀리에서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살인에 대해 해석만 할 뿐, 카인의 핏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저 자연의 섭리였을 뿐이었죠. 아벨은 그저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인에게 먹혔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식자로써 생을 위하야 먹잇감의 피와 살을 취하며 이 땅에 살아갈진대 이가 문제가 된다면 이데아를 포함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모순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는 철저하게 아벨의 자손의 초점에 맞춰진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편협된 사고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이 공국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넓히어 서서히 카인의 핏줄의 목을 죄어오니 태초의 피는 일족의 유지를 위하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뿌려 카인의 성이라 하는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행방이 묘연한 카인이 돌아오길 바라며 어디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규모를 크게 하였는데, 그 크기는 태양을 삼킬만한 크기였고, 어둠의 그림자가 덮힌 이유에서일까 태양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한,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더욱 빛나노니 본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저 신기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눈을 믿기 힘들만큼의 정말 엄청난 규모의 요새였죠. 태초의 피는 이곳을 거점으로 도처에 흩어져 있는 카인의 자손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지를 카인의 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공국이 커짐에 따라 태초의 피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마찰을 예견하였고 이는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 밖에 난 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데아를 방황하게 되었고 이내 차가운 숲에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깊은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세트는 곧 그곳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은 어머니 대자연 그 자체였고 사방은 숲으로 둘러쌓여 있어 고요하기 그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에 부딪혀 잎새가 사각거리며 서로 몸을 비비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었지만, 그곳에는 시험에 빠진 자들이 벌이는 치열한 사투도 없었으며, 그를 꾸짖고 나무라는 이바와 아다무스도 없이 오직 평화와 고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을 거닐다 세트는 이곳에서 숲의 주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트는 이들을 우아한 존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험에 빠져있던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숲을 오가며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이 우아한 생명들과 함께 자유로이 달리며, 그들처럼 목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늑대라 부르는 이 우아한 생명들과 숨이 터질 듯 달리고 숲을 누비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여지껏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느끼기 힘든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후대를 선택하고 점지하던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세트는 숲의 주인들의 깊고 그윽한 눈과 달빛에 비치는 우아함과 바람에 흩날리며 하늘을 수놓는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들의 따스함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들을 자신의 후예로 정하였고, 이들과 함께 이데아를 살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세트는 발걸음을 옮기어 그들의 사이로 들어가 그의 두 눈에 그를 바라고 있던 숲의 주인들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숲의 주인은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세트는 조심스레 미끄러지듯 그들에게 다가가 머리에 손을 살포시 얹고는 그의 권능을 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달빛 아래 늑대들은 하늘을 우러보며 울었고, 이데아에 모든 이들의 귀에까지 닿게 되니 만인이 공포의 존재가 그들의 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우아하고도 고귀한 이 생명은 세트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이 영원의 전쟁 아래 그들의 땅을 침범하고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도 힘이 없었기에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그의 손길은 무엇보다도 따스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 나아가 침입자들을 물고 뜯으며 찢어 죽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괴물의 형상마저도 짊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트는 이런 이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숲의 주인들의 모습은 또한 다른 형제들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마음의 슬퍼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이들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세트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가 경악했던 것은 슬픔이나 형제간의 우애 때문이 아니었고 세트가 숲의 주인의 형상을 하고 그들의 의식을 공유하면서

그에게 생겨난 기민한 예지력으로 보았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비단 아벨의 죽음만이 아니었으니 그가 본 것은 온 이데아를 뒤덮는 절규와 고통속에서 쏟아지는 살과 피 그리고 산을 이루는 시체가 가득한 전쟁의 불길이 드리워 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의 전쟁은 이데아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자손은 끓는 복수심으로, 카인의 핏줄은 그들의 피를 마시기 위하여, 세트의 후예는 시험에 미쳐버린 형제들과 그리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하여 이 참상을 빚어낸 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전쟁으로 서로가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헤아릴 수도 없이 낮과 밤을 이어가며 계속되었지만 모두가 이를 개의치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하루도 피가 마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데아 전역이 전쟁터였고 무덤이었죠. 전투가 거듭되면서 이데아는 이전의 빛을 잃었고 더이상 태초의 낙원이라 불려지기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땅은 피로 얼룩지고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되었으며 강과 하늘은 붉은 빛에 감돌았고 태양은 고개를 숙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듯이 미쳐있는 모습이었죠. 그 광경을 두 눈에 담았던 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영원의 전쟁에서 태초의 피는 전장에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영향력은 카인의 핏줄의 사기를 고양

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아벨의 자손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각 혈족들은 그들의 이익 같은 건 따지지 않고 아벨의 자손이건 세트의 후예건 가리지 않고 죽이며 태초의 피 옆에서서 전장을 누비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카인의 핏줄은 영원의 전쟁에서 일방적 학살을 펼치는 양상을 띄게 됩니다. 또한, 카인의 핏줄들이 창조주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여 태양조차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밤의 귀족이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벨의 자손들은 태양이 지고 난 뒤에 이들과 혈투를 벌인것이 패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간의 기습이 효과적일 것이라 여기었던 겁니다. 때로는 숲이 우거져 있어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곳이나 태양이 먹구름에 가리어질 때를 기다리며 전투를 계속해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카인의 핏줄을 거느린 태초의 피는 이 기세를 몰아 전세를 기울이려는 찰나 카인의 성으로부터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온 송곳니를 드러내는듯 스며 나온 기운. 그것은 왕가의 혈통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이라 함은 태초의 피가 카인의 혈통 중 우수한 이들을 직접 고른 핏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핏줄들에 비하여 카인의 권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카인의 핏줄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혈족과 가장 다른 점 하나. 그것은 바로 태초의 피안에 예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 태초의 피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초의 피가 왕가의 핏줄을 가장

유심히 돌보았고 왕가의 핏줄이라 직접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중에 갑자기 이런 기운을 뿜어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이들이 태초의 피와 가치관과 관점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카인의 권능의 해석으로부터 오는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태초의 피는 이 권능을 창조주께서 내린 저주라고 많은 혈족들 앞에서 자주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저주를 내린 그녀를 증오하며 처단 할 것이라는 의미를 왕가의 혈통은 이를 다르게 받아 들인거죠. 태초의 피가 업급한 이 말은 마치 그토록 혐오하던 아벨의 자손이 카인의 핏줄을 두고 손가락질 하는 그 모습을 태초의 피에게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카인의 핏줄임과 그의 권능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태초의 피가 했던 이 언급은 왕가의 핏줄의 자존심과 긍지에 흠집을 내었으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왕좌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카인의 성 내부에 있던 다른 군주들을 포섭하고 꾀어내어 태초의 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워 그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그와의 결속을 끊게 하였고 자신에게 예속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은 태초의 피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에 카인의 성을 그들의 것으로 완전히 점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 못지 않게 언변이 뛰어났고, 외교술에도 능하였으며 그들의 존재감하며 다른 것들은 모두 제쳐두더라도 태초의 피와의 예속을 끊는 힘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힘은 다른 핏줄들에 비하

여 압도적으로 강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랜 기간동안 계획했던 일을 전쟁 중인 지금이 제격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태초의 피의 부재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였죠. 그리하여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가 부재중인 이 틈을 타서 카인의 성을 점거하게 되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였으면 태초의 피로 만들어진 카인의 성은 주인의 예속을 벗어난 것이 기에 그 모습을 잃기 마련이겠지만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로부터 그 피를 하사 받은 혈족이었기에 카인의 성의 형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만, 그 모습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왕가의 혈통은 더욱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왕가의 혈통은 이에 멈추지 않고 태초의 피를 취하여 완벽해지기를 원하였고, 그 강한 의지는 전장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피도 이를 느끼게 되죠.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공국이 국왕 델페노프가 카인의 자손들이 초기에 기습이라고 여기었던 교전들이 모두 어둠이 깔린 곳에서만 이루어 지던 것을 의아하게 여기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영원의 전쟁으로 태양이 자취를 감추었다고는 하나 그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일동안 동이 트고 햇살이 드리우는 때와 장소를 택하여 정찰대를 보내어 조사하게끔 하였고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나니 그것은 바로 카인의 핏줄은 창조주의 벌로 인하야 태양을 고개 높여 우러러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페노프는 대신들을 소집하여 이 의견을 주장하나 이 의견에 힘이 실리지 아니하였던 그 때에 묘령의 여인이 나

타나 이는 사실이며 증명할 방도가 있다 이르렀습니다. 대신들을 이 여인을 마녀라 치부하고 그 어떠한 말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국은 전쟁 중이었으며 때가 때인 만큼 신중해 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델페노프 그 여인의 말대로 소수의 카인의 핏줄이 칩거하고 있다고 하는 저택으로 사람을 보내었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입에 피를 머금은 자들이 관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말대로 가슴에 못을 박으니 그 피가 분수처럼 쏟아졌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퍼지었고 태양을 맞이한 채 그 자리에서 불타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국왕은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아벨의 모든 자손들에게 용맹한 군대와 빛의 가호가 이들과 함께하시어 이데아에 불경한 자들을 모두 몰아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내었다고는 했지만 애초에 태초의 피는 그의 군대를 되돌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이 발하는 어두운 기운은 태초의 피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를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태초의 피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자들을 먼저 카인의 성에 돌려 보내고 후일에 그는 홀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태초의 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성에 입성하기만 한다면 무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겨진 자들이 내린 경정은 카인의 핏줄이 내린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태초의 피 곁에 서서 카인의 성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실리만을 추구하며 계산적이었던 카인의 핏줄

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아벨의 자손들과 같았다고 할까요? 차마 전장을 함께 걸어온 자를 버릴 수 없었나 봅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태초의 피가 가졌던 영향력의 크기가 가늠이 되었던 거죠. 어쩌면 진정으로 카인의 핏줄을 생각했던 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의 전쟁을 뒤로하고 카인의 성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미 영원의 전쟁과 아벨의 자손의 추격으로 그 수가 적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은 이들의 결단에 유감을 표하였고 상대도 되지 못한 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태초의 피는 왕가의 혈통의 군주 앞에 끌려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군주는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으로 영원의 전쟁으로 아벨의 자손과 여러해를 섞이더니 인간이 되었다며 비꼬며 그를 꾸짖었고, 태초의 피안에 담긴 피 전부를 자신에게 담기 시작했죠. 그 의식은 단순히 목을 물어 뜯어내어 피를 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순수한 피의 결정을 끌어내야 했기에 그의 피를 전부 빨아들리는 데에도 꼬박 몇일이 걸리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에서 태초의 피와 그 잔당을 몰아 낸 아벨의 자손은 이들이 잠잠해지마 잠시동안의 달콤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가의 혈통의 군주는 태초의 피의 나머지 한 방울까지 전부 들이켰고 태초의 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이를 ‘태초의 몰락’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가의 혈통의 입지는 카인의 핏줄 내에서 굳혀져갔고 가주의 몸에

는 태초의 피가 흐르기에 카인의 성은 다시금 군건해졌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태초의 피를 능가하는 것을 지니게 된 거죠. 그야말로 띠끌하나 없이 순수한 악의를 띄게 된 셈입니다. 카인의 핏줄은 태초의 피로 인하여 예속되고 규합되었지만 왕가의 혈통으로써 그 구색을 갖추게 되었고 이들은 이전보다 더욱 더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전쟁은 끝을 고하였습니다. 영원의 전쟁의 끝자락에 숨을 고르며 일어난 세 세력 속에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수습하는 동안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의 죽음과 최초의 술패자 카인 그리고 그의 뿌리로부터 나온 핏줄에 대한 분노가 극에 치닫게 되어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공국에 포고령을 내려 공국 내에 숨어들어 잔존하고 있는 카인의 핏줄과 이들과 내통하는 이들을 불경하다고 여기어 저주하여 죽이는 데 온 신경을 쏟아붓게 되죠. 그렇게 카인의 핏줄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줄에 매달려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창으로 뚫리거나 불에 태워지며 가슴에 못이 박히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을 피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평소의 아벨의 자손이 행하던 행동이었다면 위의 어떤 단어도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만행은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질 만한 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혹은 정의라는 명목하에 도를 넘어선 체벌이 이루어졌기에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고 다음 표적은 내가 아닐까 하며 죄없는 자들조차 공포에 떨며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자신

들마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복수심에 잠식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 하였고 국왕에게 한가지 당부를 한 뒤 스스로 하늘에 오르사 아래에 남은 후대의 자손들을 내려보시며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보살펴 주시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하늘로 오르고 난 뒤 공국에 더이상 무의미한 학살은 줄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그들이 있던 곳으로 오르기 전에 국왕 델페노프에게 당부한 것은 바로 아벨의 자손들을 굽어 살필 교황청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불경한 존재로부터 아벨의 자손을 구하기 위한 작은 소망이 담겨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교황청은 본디 공국의 보호와 더불어 신탁통치를 기반으로 지어지려 했으나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일곱가지의 원죄 마저도 아벨의 자식들이기에 지닐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을 가여워 하시며 이 죄에 빠진 자들마저 보듬어 바른 길로 인도 하시기를 바라었으나,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게끔 세뇌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죄를 그저 덮어버리기에 급급했고 심판을 내려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덮지 않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원죄를 들추는 그 행동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바와 아다무스와 같아서 그들의 자손에게서 악이 만연하다

는 것을 이바와 아다무스 혹은 창조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탓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한 형제 자매들 중 하나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리도 아벨의 자식들의 죄를 사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곁에서 그 원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추악함을 알고 견디며 그때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지 이데아에 남아 죄는 미워하되 언제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녀의 등에는 일곱가지의 원죄가 등에 새겨진 채로 이데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일종의 벌이었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의 길이었죠. 그녀의 희생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건은 논외로 된 채 아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데아에 교황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탁통치가 아니었음에도 교황청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서 구원과 희망이 필요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유일무이한 기관이었기 때문이었죠. 비록 피의 복수가 불러온 참상은 모든 이들을 두려움에 떻게 한 사건이었지만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물러난 뒤 이 교황청의 존재로 인해 어느정도 그들 안에 담긴 분노를 다스리게 되었고 무분별한 색출과 처형의 빈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의지할 곳을 필요로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은 그 규모를 넓혔습니다. 교황청은 공국 전체를 아우르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담당부서를 두었고, 이들을 아벨의 이름아래 보호해 주는 정도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공국에도

공국의 수비군이 있었지만 이들이 성밖의 어둠을 떠도는 존재들에 대항하기에 충분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이들은 아벨의 권능을 갈고 닦은 이들로 인하야 신성의 힘으로 이데아의 온갖 불경한 자들을 몰아내었고 아벨의 장벽을 세워 그들로부터 공국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은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사람들은 공국의 수비군보다 교황청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교황청이 세워지기 이전에 델페노프는 아벨의 자손으로써 유구한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 이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벨의 자손들과 함께 이룩한 공국 퀼로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공국 안에서 아벨의 자손들은 특정분야에 뛰어난 이들이 모여 길드를 세우게 되었고 그들의 재주를 갈고 다듬어 문명의 이기에 이바지 하게 되었습니다. 각 길드는 문화, 예술, 건축 등 분야가 다양했으며 아벨의 자손이 길이 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였고, 서로 보듬어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것이 공국의 국왕으로써는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델페노프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보다 교황청을 공국의 휘하 기관으로 두어 수족처럼 부리기를 원하였고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교황청의 이들을 발탁하여 공국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공국이 과세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교황청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눈감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수입의 일부는 세금으로 징수하였으나 이것을 감면해주기도 했죠. 하루가 다르

게 입지를 굳혀가는 교황청을 포섭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국왕은 그렇게 공국의 수비대와 교황청의 신성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달콤한 술과 기름진 음식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동안 누린 평화 탓이었을까요? 잠깐의 달콤한 평화는 변화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고 공국의 국왕 델페노프의 사리사욕은 정도를 몰랐습니다. 재물과 보석을 탐하고 심지어는 집마다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측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행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반감을 샀다가는 공국의 퀼로른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었습니다. 공국의 국왕께서는 세금을 낼 수 없는 자들에게 보여 줄 자비는 없었나 봅니다. 국왕이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었고 이내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향락과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앞으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을 이때의 국왕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국왕 델페노프에게는 아름다운 왕비와 그녀를 꼭 닮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둘이었지만 국왕은 대를 이을 아들을 갖지 못하여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오직 아비인 국왕만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주는 총명하고 현명하였으며 충분히 여왕이 될 재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공국 내 길거리를 자유로이 다니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

람들은 이에 감복하여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를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그 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던 중에 공국 내 사람들의 불평이 하나 둘 씩 나오고 그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는 국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당연히 국왕께서는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죠. 이들을 즉시 색출해 내어 소문을 퍼뜨린자와 듣고 있던 자의 혀와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국왕은 그 나름의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고 이는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다못한 그녀는 국왕의 접견실에서 간언을 하였고,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을 폄하하며 부끄럽게 하였다는 이유와 한 왕국의 국왕인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눈을 뽑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왕은 감옥에서 앓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비밀리에 부치고 있다가 나중에는 공주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는 국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머니를 죽이게 만든 아버지. 델페노프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퀼로른의 간신의 무리가 국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꾀하게 되는데 이들은 공주를 설득하여 그들의 앞을 이끌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공주는 한참을 고민하지만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신들 중 하나가 서신의 인장을 훔치어 거짓된 내용을 기술하고는 국왕의 앞에 바치었나니 이를 받고 국왕은 마침내 이성을 잃게 됩니다. 국왕은 스스로 거리를 다니며 희망을 주는 딸마저도 거리에서 몸을 팔던 창녀라 하였고 목에 줄을 매달에

옷을 벗기고는 그리도 좋아하는 길바닥에서 살라며 광장에 던져 놓게 됩니다. 그녀는 치욕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망가졌고, 며칠 뒤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녀의 앞에 선 국왕은 그녀를 한심한 듯 내려다보며 그녀를 단칼에 베었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었을 것을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국왕이 망가지기 시작한 후 아벨의 자손들 모두가 공주가 공국의 후대에 희망을 주리라 믿었기에 그녀의 죽음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공국에 민병대가 이루어졌고, 이 민병대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이들은 공국을 벗어나 반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국왕과 그 수뇌부에 대한 제거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국왕은 이제 그 어떠한 자들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공국 건신의 주요 군주들마저 이유 없이 잠정적인 반란분자로 낙인을 찍고 척살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공국 전체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왕의 곁에는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 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심지어 왕의 개인 처소의 문 밖조차 나가기를 두려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 바이스의 일원인 브리강과 내통한 공국 내부의 가신들의 배신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목은 광장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때는 아벨의 위대한 자손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공국을 세워 카인의 핏줄들을 몰아내고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 낸 역군이었지만, 후에 사리사욕에 휩싸여 인색과 오만에 빠지어 천륜을 저버렸던 공국의 국왕은 이렇게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교황청은 이 기회를 노려 공국의 내부자들을 처형한 뒤 공표하기를 사실상의 공국의 행정기구의 선포와 이 안에서의 안녕을 약속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자들로부터 그대들을 지키겠다고 했죠. 이전에 국왕력을 넘지 못하여 국왕의 관할 하에 있어야 했던 교황청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겁니다. 그렇게 이데아의 모든 아벨의 자손들을 통해 교황청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받고 존재를 인정받아 이데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세트가 추구하던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록 미숙아로 태어나 형제들에 비해 몸은 나약할 지언정 그는 지혜와 지식은 남달랐으며 그로 인하여 역사에도 조예가 깊어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죠. 영원의 전쟁에서도 그는 이미 신이 되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정받아야 할 존재를 이바와 아다무스 혹은 창조주가 아닌 그의 후예들이라 여기게 됩니다. 모두가 신에게 인정 받기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때 세트는 신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 땅을 굽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시간과도 같았던 전쟁이 막을 내리고 난 뒤 세트가 다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것이지요. 세트는 자신의 후예들로 하여금 신의 자식이 아닌 신 그 자체임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야 그의 후예에게 일러 신전을 세우게 하였고 이데아의 위에 신으로 군림할 역사를 새로이 쓰고자 한 것입니다.

영원의 전쟁 속에서 그들의 후예를 전장으로 인도하기 전에 모든 정신

을 그의 후예들과 모두 엮어내어 모두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닿게끔 하였고 그의 목소리는 이들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크게 울려퍼진 그의 울음소리는 그의 후예들의 마음을 울리는 경종이 되었죠. 영원의 전쟁으로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로부터 고통받았던 숲의 주인들의 입장에 서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세트에게 있어 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카인의 핏줄은 물러나고 아벨의 자손은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선포하였고 영원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세트는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벨의 자손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트에게 있어서 전쟁은 신이 되기 위한 초석에 불과했을 뿐더러 전쟁의 승리보다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일에 세트의 후예가 영원의 전쟁의 균형을 수호하기 위하야 전쟁에 참가 하였음을 알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으로써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를 보여준것과도 같은 셈이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세트는 전쟁의 결과보다는 오직 신이 되기 위함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단은 바로 이바와 아다무스, 그들의 시험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신이 되기 위해서는 감히 그를 시험에 들게 만들 자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바와 아다무스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세트가 그의 신화를 만들기에 적합한 시

작점이 될 것이라고 여기었습니다. 이미 죄악의 돌에 인하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힘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였고, 지금이 그들을 목을 당장에라도 찢어놓을 수 있을 기회였지만, 그는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최소한의 자비로 목숨만은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를 통하여 그의 자비를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하다면 후예들은 이 깊은 마음에 감복하여 찬양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트가 그리도 원하는 것이겠지요. 다만, 세트가 자신들에게 행한 이것을 치욕이라고 여기었던 이바와 아다무스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이데아를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창조주께 하사받은 이데아를 떠나게 되고 그들이 쏟아낸 저주는 이데아를 병들게 하였고, 감히 형언할 수 없을만큼의 끔찍한 모습을 한 불경한 존재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저주의 말들은 세트를 향하여 쏟아졌으며, 그의 후예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이들이 병들거나 미쳐버려 숨을 거두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남은 후예들에게 이르기를 자신을 해하며 질투하는 자들이 마침내 이 땅을 벗어났으니 남은 것은 그의 후예들을 신전에 남기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그의 심장을 죄고 있는 저주를 정화할 시간을 필요로 했기에 그곳에 잠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세트의 심장을 벗어날 때가 도래하면 이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약조를 하고는 긴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트는 신전 깊은 곳,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세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바와 아

다무스는 창조주를 흉내내려 했습니다. 그녀를 따라서 생명을 이 땅에 낳고 이데아에 이들을 찬양하는 노래가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원하면 얼마든지 화합과 조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어 스스로 창조주와 대등함을 증명하고자 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세트는 이들의 실패로부터 신으로써 걸어야 할 길을 배웠고 이제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록할 지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하고 난 뒤 움직이는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암전. 세트는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옥죄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잠에 듭니다. 이렇게 태초의 낙원이라고 불리었던 이데아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와 일곱가지의 원죄만이 내려앉은 버려지고 쓸쓸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불경한 땅에 희망을 남기기를 원하는 아벨의 자손들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신을 죽이고 죄악의 돌을 원래의 것으로 돌려내어 그들만의 낙원을 찾으려는 카인의 핏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신이 되어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세트의 후예들로 나뉘어 명확하고 뚜렷한 그들의 가치관이 이데아에 충돌하게 됩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바란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만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
그것은 안녕이 아닌 고통과 분쟁, 배신과 암투, 추악함. 피와 살이 튀는 전장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악순환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선이고 악이며 정의인지 알 수 없으며 단정 지을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버림받은 채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고

죽이며 피를 흘리며 이 땅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이의 시험이 아닌 오직 생존만을 위한 혈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이데아에 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쓰는 이 기록은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의 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저는 때로 아벨의 자손이 되어 불경한 이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아 죽이고 이 땅에 희망의 율법을 뿌릴 것이며, 카인의 핏줄이 되어 입에 피를 머금은 채 어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데아를 더럽히는 이들의 목을 물어 뜯어버릴 늑대가 되어 만월아래 울부짖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질투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또 저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속여서 죽일 것이며, 슬프면 목 놓아 울것입니다. 이들 하나하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기록하며 남은 이들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여전히 그들 곁에서 숨을 쉬겠지요. 잠시 숨을 돌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부디 준비가 되어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데아에 드리워진 어둠은 깊고 두터우며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곳에서 조금만 방심해도 무엇에 죽은지도 모른채 펜을 놓을 수도 있음이요, 그 역시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곁에서 숨을 쉬며 기록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역사와 함께 살아가므로 저는 한 숨이 마칠 때까지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에 쓰여질 이 역사를 눈으로만 담고는 그칠 수 없기에 한시라도 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부디 바라건대 이 기록과 함

께하는 자여, 그대 역시 죽고 죽이며 먹고 먹히는 세상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내가 그들과 숨을 쉬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느끼며 써내려간 글 속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 기록이 때로는 불쾌하고 역겨울 정도로 현실로 다가올 테지만 그래도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기를 빕니다. 고개를 돌리 자들에게는 오직 거짓과 허영만이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메이게 될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것에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배운 것을 기록한 뒤 그대가 선 땅의 모두에게 전하십시오. 이 굴레는 계속되어 시대가 변하여 그 모습만을 달리 할 뿐 그대가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로써 배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황실록 제 1권 "선택받은 자"

아벨의 자손들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세웠던 교황청과 더불어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는 기관인 아벨론은 세개의 부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는 상직적인 존재이며 만인이 우러러보며 구원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죄와 짐을 덜어내는 신의 권능을 지닌 교황이라는 자가 속해있는 교황청, 다음은 아벨론의 실질적인 운영과 행정, 재판을 담당하며 원로의 대신들과 교황의 허가로 징집과 소집명령을 행할 수 있는 집정관, 마지막으로 교황청의 보호와 아벨의 자손의 수호를 책임지는 아벨의 방패. 이 셋은 각각 종교, 행정 군사의 삼두정치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각 부서는 서로 협력하여 어느 하나의 부서의 독재로 빋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균형을 지키며 아벨의 자손들의 수호와 구원, 번영과 안녕을 최우선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이미 총칼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서로의 이권을 앞다투어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면서도 그들의 평판을 올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수많은 마찰들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암흑의 시대에 어디하나 기댈곳이 없었기에 교황청은 굳건하였습니다. 교황청의 황실. 그곳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남은 이들에게 길을 알리어 주기 위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교황을 필두로 하여 이곳에 속해있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세대를 거치며

아벨의 힘이 희미해져 그의 권능은 조금씩 인간들 사이에서 빛을 잃어 갔지만 그 속에서도 그 빛이 꺼져가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으니 대부분의 이들이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위엄은 멀리서 보아도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듯 높이 솟아 있었고 벽을 수놓은 화려한 문양과 굳건한 기둥, 조각들은 아벨의 자손은 영원 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을 만큼 위용과 자태를 뽐내었죠. 전 내부로 발길을 옮기었습니다.

내부는 고딕양식의 건축이 주는 장엄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회랑은 넓게 뻗어져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그 마지막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이 곳에 어울리지 않아 묘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등골이 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여기가 정말 구원을 간청하는 교황청의 모습이 맞는가 싶을 정도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때 즈음 이내 태양을 머금은 하이얀 창살 사이로 파고드는 온기가 따사로이 차가운 회랑 바닥을 적셨는데,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강당을 들어서니 마치 광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만큼 엄청난 규모에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강당에는 기도를 바치거나 끝마치고 나서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 고요함을 깨려고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걱정과 근심이 뒤덮혀 기도를 올리는 자들로 가득했습

니다. 도저히 평온한 얼굴을 한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강당 한 가운데 자리한 여신상을 바라보는데 그녀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넓게 벌린 팔은 으레 어머니가 그러하듯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안락함이 느껴질만한 따스함이 묻어나오는 모양새였죠. 모든 이들이 이를 바라보며 부디 그 모습이 실로 이 땅에 도래하여 우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이 땅에 설 수 없기에 그저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존재는 그저 바라는 것 이외에 살아갈 길을 찾기 힘든 것이지요. 교황청이 부디 그 의무를 잃지 않고 계속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때문에 교황은 믿음과 소망을 바라는 이들로 하루도 빠짐없이 신자들로 가득할 겁니다.
수 많은 생각이 만연한 가운데 한편에서 사제 하나가 모습을 비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날 때 즈음에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앳된 얼굴을 보니 견습사제로 보입니다. 긴장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한분의 간택 받으신 자가 도래하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견습사제의 단계로부터 걸러지면서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신앙심을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자격에 들지 못하여 박탈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올르기 위해 애쓰는 사제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사제였습니다. 그녀는 뒤를 따르는 견습사제

에게 이르기를 걱정하지 말라 형제여. 빛이 그대를 거두시고 아버지께서 그대를 인도하신 다는 말을 전하였는데, 그 사제의 말은 한없이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선조차 그에게 건네지 않은채로 묵묵히 그를 인솔할 뿐이었죠. 그러기에 사제의 그 말에는 사실 견습사제가 긴장하여 안도감을 주는 말이나 독려해 주기 위함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뒤를 따르던 견습사제로 보이는 자가 답하기를 자매님 본인은 걱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제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좋소" 라는 말 하나 뿐이었고 또 다시 그들 사이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둘은 회랑 끝으로 깔린 어둠속으로 다시 미끄러지듯 빨려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서 다시금 위화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스로 어둠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견습사제는 깊은 숨을 몇번이고 들이 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윽고 이 둘은 대강당 끝쪽에 위치한 예배당으로 보이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으로 누군가 어둠 사이를 비집고 나와 빛으로 걸어 나오니 견습 사제는 이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느 사이에 감탄을 토해애었고 나즈막히 소리 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자가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완벽히 계획된 연출이었다고 할 만큼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죠. 마치 그 행동 하나로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그 빛은 고개를 쳐드나니 앞으로 걸어 나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신의 사자 그 자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라 하는 자 앞으로 견습사제는 멀찍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고 그를 이끌던 사제가 고개를 숙이어 예를 갖춘 뒤 그에게 다가가서는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은 형식적으로 주고 받는 인사 뒤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속삭이는 정도라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라는 자가 그를 물러가라 하시었고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견습사제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시기를 고개를 들고 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견습사제는 이 아버지라 하는 자와 대면하게 되었죠. 그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간택 받은 자들 사이에서 신의 은총이 담기어진 그 물방울로 몸을 씻어내어 죄를 사하는 과정으로써 스스로 시험을 치루어 나갈 자인지를 가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행하기 전에 견습사제에게 이것저것을 물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에 있어 형식적인 물음과 대답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을 믿고 행하며 아벨의 진리 위에 그의 자손을 지키며 살겠는가 혹은 빛을 섬김에 있어서 한치의 의심이 없을 것이며 그의 사자가 되어 태초의 낙원에 희망의 율법을 전파하노라 하는 내용이었지요.

의식을 거행하기 이전에 견습사제와 아버지 사이에 짧고도 길었던 아벨에 대한 맹세가 끝이 났고 견습사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었습니다. 견습사제는 성배 앞으로 다가가 언령을 내리니 방안에 빛과 은총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축복이 가루처럼 이승되어 쏟아지고 머리에, 그리고 어깨에, 단상에 부딪혀 따스하게 쪼개졌

고 성배에 담긴 물에도 흩어지니, 그 물은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화려하기 그지 없어 흥분을 감출 수 없을 정도였으나 그 둘의 절제되어 있는 모습에 저는 압도되었고 무엇인가 경건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선 자들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분명 그 구원은 이들의 손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해 지게 되는 광경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야 교황청의 발길은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한참 후, 둘 사이에는 오묘한 고요함이 일고는 조금이 지났을까 아버지는 견습사제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는 엄숙하고도 거룩하신 음성으로 읊조리셨습니다. 아벨.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이 모두 끝을 맺었음을 고하셨습니다. 딱딱한 표정으로 일관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견습사제를 지그시 바라고시며 그제서야 감복하신 듯 만족해하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신의 권능을 지니고 있는 자였기에 보여주신 미소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나서 그 견습사제의 앞길에 희망과 빛의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이라며 축복의 말을 건네었고, 사제는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었는지 작은 미소를 되찾고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물러갔습니다.

아버지는 견습사제가 멀어져 어둠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자취를 감출 때까지 그 시선을 그로부터 한참을 물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 계시는데 맞은 편 어두운 그늘 사이에서 아까 그 사제가 모습을 보이더니 궁금하였는지 아버지께 의식의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온 대답은 예상 외의 것이었으니. 의식에

대한 언급은 하지도 아니한 채 그저 그는 잘 끝났다라는 말 대신 꽤나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그는 분명 구원의 빛이 될 것이고 아벨의 사자가 되어 희생도 불사할 역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견습 사제 본인이 직접 그리 말한 것도 아닐턴데 그 말은 마치 구원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표정이나 말투에는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어찌 그런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순간 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희생당하여만 하는 것인가요? 모두를 구원하고 여럿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쯤의 생명 정도는 포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황청의 정신이었나요.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한다고 해도 희생된 생명의 무게에는 그 아무도 짐을 지으려 하지도 않으매 오직 구원만을 바라는 그들도 가끔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즈막히 탄식하였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이여, 그리고 교황청의 인간들이여. 이 땅에 구원을 바라면서 누군가는 직접 취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부담하여 떠넘기는 모습이 한편으로 또한 딱하고도 슬픈 마음입니다.
교황청을 뒤로하고 나가려는 발걸음이 무겁나이다. 그야말로 아벨의 자손의 궁극적 표상이며 그들로부터 구원과 희망을 갖게하는 바로 그 교

황청의 교황이 이리도 모순된 모습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현듯 견습 사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에게 이리도 관심이 생기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겠지요. 그야말로 슬픈 피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존재이지요. 그의 몸이 신의 권능으로 쇠하고 죽어갈수록 이 땅의 아벨의 자손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욱 아프고 고통받아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저 어린 견습의 사제가 교황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그 올바르고 굳은 심지가 타오르는 듯한 눈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실로 안식을 전해다 줄 신의 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저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자들처럼 무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아, 바로 이곳, 바란대로 이루어지는 여기가 바로 교황청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성스러움은 저와 저들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라고 속삭이는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교황청이 가진 힘이겠지요. 그리고는 어느새 기도하는 자들의 슬픔, 고통, 분노 그리고 여러가지 감정이 휘몰아치며 가슴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어느새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테지요. 그저 아벨의 자손들과 간절히 무언가를 바람으로써 공유하는 감정일 것입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교황청을 세우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나누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비록 추악한 죄악으로 일그러

진 자들로 보일지 모르나 그 혼란으로 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속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아, 그것은 비록 지금은 등을 돌리시었으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매 다시금 돌아봐 주실 이바와 아다무스가 건넨 시험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충만한 믿음과 기도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한번 태초의 이데아의 모습을 되찾고 아벨의 자손들은 번영할 것이며 시험에 들어도 그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보듬고 일어나 다만 악에서 서로를 구하옵고 그 악으로부터 맞설 것입니다.

법원 기록 열람 1항 “판결의 망치”

교황청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 대법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7인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그들이 행한 죄악을 구분하여 판결하고 심판을 하곤 하죠. 교황이 악을 정화하고 구원하여 물러나게 한다면 이들의 성격은 그와는 상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우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공포. 자애와 자비의 상징과는 정 반대로 불꽃으로 불경한 것들을 태웁니다. 아벨의 자손은 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카인의 핏줄은 불멸이며, 세트의 후예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공포는 더욱이 효과적이죠. 아벨의 자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항상 이들과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감정은 낯설고도 위화감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공포는 대법원의 법관들이 가진 가장 뛰어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 함은 대법원의 말을 빌리자면 고문과 처형이 되겠군요. 대법원이 비록 교황청의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이 악의 정화에 이리도 힘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황청의 무른 체벌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황청의 심판이라 함은 구원과 성불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교황청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순수하고 선하였던 아벨의 피만 그대로 받은 탓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은 무릅니다. 이미 어둠에 잠식 되어버린 자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너무 정도만을 걸어가려 하는 교황청에 비해 대법원은 진흙투성이의 수라장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라면 기꺼이 지겠노라 한거죠. 그리고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교황청의 교황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들은 아벨의 권능이 빛이 바래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 짐은 우리가 지겠노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짐을 지는 것은 아벨의 자손의 안녕을 위함이지만 그들을 위함이 아닌 오직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고 죄악을 처벌하기 위하야 몸과 정신을 길렀고 이들은 강인한 육체를 지니고 직접 전선에 설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황청 울타리 안에서만 구원을 외치는 교황들의 이러한 태도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오직 빛의 권능으로 다가온 이들에게 대법원의 불꽃은 포식자들의 원초적인 공포를 끌어내기에 충분 했던 것입니다. 한낱 미물들도 불꽃을 보면 자리를 피하듯이 말이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불경한 존재들은 물론이고 전장에 함께 옆에선 이들조차 이 모습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명정대함은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 되었기에 아벨의 자손들은 보다 죄를 두려워 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기록하는 바로는 영원

의 전쟁 전후로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심판을 내려왔고, 대법원 주위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화형장 굴뚝의 연기가 그치는 날이 손에 셀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공포에 의해서 였지만 아벨의 자손은 이들의 지붕아래 안전한 나날을 보장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안에 들어서자 공기는 숨을 짓누르는 듯 저의 목을 죄어 왔나이다. 심지어는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들의 공포가 살갗을 찌르었습니다. 이곳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심판관의 석상은 정의의 모습 그 자체라고 부릅니다. 우뚝 선 모습에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두 귀는 잘라내어진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며 현명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으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 석상의 모습은 현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모습이라고 폄하하는 자들이었죠. 다만 이러한 생각을 감히 입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었고, 교황청에 속하여 아벨의 자손의 안녕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가 죽기 전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고문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에는 얼굴은 일그러지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저주만이 그 눈 안에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대법원에 신임으로 발탁된 저 어린 법관 같은 눈 말이죠. 무엇을 그리 고뇌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헤아리지도 못할 만

큼의 엄청난 수의 심판과 처벌을 자행해 왔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어린 법관은 그 과정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손은 떨리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었지요. 누가 그 얼굴을 심판하는 자의 얼굴이라 생각할까요? 그 얼굴은 마치 고문 당하고 심판을 받는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얼굴을 이토록 일그러지게 만들었을까요?
그 어린 법관은 한참을 그렇게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문은 그 자체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였고 그 모습은 마치 법정의 거대한 문이 그 어린 법관을 꾸짖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혹은 더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앞에서 선 잠깐이었지만 아마 그에게 있어선 한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법관에게 정중히 재판이 시작될 터이니 안에 드실 채비를 하라 부탁했습니다.
어린 법관은 차분히 숨을 고르더니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었지요. 문을 열자마자 뼛속마디를 찌르는 듯한 중압감과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법정은 흡사 납골당이나 무덤에서나 볼 법한 분위기를 한 듯이 오싹한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윽고 젊은 법관이 들어서자 그를 저만치 위에서 관망하고 있는 대법관의 모습이 제일 먼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를 제외한 모든 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젊은 법관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내 뒤에서 문이 거친 소리를 신음하듯 내면서 닫히었고 이 어린 법관

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걸음을 옮겨 자리로 발걸음을 하니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찍이서 대법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타오르는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제야 왜 젊은 법관이 그리 떨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판결하기 위하야 온 그 역시도 판결을 받기 위하야 이 자리에 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대법원의 대법관이 될 요건을 두르고 대법원에 발걸음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며 그것을 다루는 자들은 더욱이 그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킬 수 있을만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며 그 자질을 검증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시험은 혹독하고 가혹한 과정을 치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법원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수는 소수에 그칩니다.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쉬이 자신이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카인의 자손에게 혹은 세트의 후예로부터 가족, 형제 혹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여나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 할 정도로 의지가, 그리고 희망이, 모든 것이 꺾여버린 이들이었기에 모든 것을 거의 내려놓다시피 한 것입니다. 눈 앞에서 소중한 것을 잃고도 그 악몽에 다시 맞설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목숨에 직격된 일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일어설 의지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누구라도 이들에게 용기가 없다고 하

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선택에 동의 하겠지요. 모든 인간이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를 강요해봐야 진실된 것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계속 낳을 뿐이고 나아가 이들이 법정의 제단 앞에 섰을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황청의 그들처럼 아벨의 권능을 타고난 자들이 아님에도 대법원의 일원이 됨이라 함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으매 그들의 악몽에 정면으로 맞서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타고난 자들일 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용기와 사그러들지 못하고 타오르는 분노가 그들을 그토록 크게 만든 것일 테지요. 그러는동안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마녀재판이었죠. 마녀재판은 말 그대로 마녀들이나 그들과 내통한 자, 교황청에 위협을 가한 자, 그리고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것이 암흑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암흑의 씨앗을 처벌하고 걸러내고 가려내야만 아벨의 자손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수 있었음에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악몽으로부터 헤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녀재판은 끊이질 않습니다. 배심원들이나 재판을 지켜보는 이들이나 모두 빵과 와인을 뜯어 먹는 것과 같이도 빈번하게 열리는 연례행사와도 같이 변질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저기서 바라보는 자들은 웃고 떠들매 구경하는 이들에게 심판은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재판의 과정이다 죄의 무게에는 관심조차 없으매 있다면 오직 심판. 어떻게 죽

을까? 하고 죄인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에서 용기내어 나서지 못하는 자들이 군중을 빌어 누구보다도 다른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아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있는 자라도 다른이의 죽음에 대해 어찌해도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남의 죽음에 대해서 광적으로 열광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것을 아벨이 원했던 걸까요? 이 모습이 진정 아벨이 사랑했던 자손들의 모습일까요? 젊은 법관의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락과 여흥 때문에 심판의 광경을 보러 법원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아벨이 이들에게 폭력성을 주지 않았다면 역시 이 시대만을 탓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문득 대법원 본관을 지키던 석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는 필시 이 추악한 모습에 휘둘리기 싫어 눈과 귀를 멀게 하였나봅니다.

필시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물음과 답함 속에 법원은 조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심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법관은 군중들을 자중시키고는 잠시동안 앞에 기록되어 정리된 양피지와 깃펜을 만지작 거렸습니다. 아마 여지껏 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리고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 쉬고 내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은 내리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죄인은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보내었죠. 그러고는 어린 법관의 판결에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어느새 어린 법관은 소란 속에서도 떨리는 손과 마음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렁이는 불꽃이 법관을 비추매 그가 호령하자 이내 장내에 기이한 바퀴의 형상을 띄는 물건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수한 사슬이 쏟아져내려 죄인들을 옭아매고는 바퀴가 소름끼치며 부딛히며 구르니 그 곳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죄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 안에 있는 이들의 흥분을 한껏 고조시킨듯 보였습니다. 죄인들은 마침내 단발마의 비명을 쥐어 짜내었고 이내 그들은 심판의 불꽃 아래 바스러졌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바퀴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이한 물건은 낡은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지고 오직 장작타는 소리와 거칠게 나무는 깨지고 부수어지며 연기를 뿜어내기를 여러번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고요했던 이들은 다시금 열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환호에 어린 법관은 정신을 잃는 듯 했습니다. 아마 자괴감도 들었겠지요. 제가 느낀 감정을 아마 그도 고스란히 느꼈을 것입니다. 난 지금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과정에 선 것이지 투기장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광대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위에서 관망하고 있었던 대법관이 어느새 내려와 그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린 법관은 공허한 눈과 일그러진 얼굴로 돌아보았죠. 대법관이 이르기를 어깨를 피라. 그대는 과연 훌륭하고도 현명한 판결을 해내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없이 물러나는 대법관의 뒤를 멍하니 보았습니다.
역시 그의 모습에서는 아벨의 자손의 냄새가 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젊은 법관은 아마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잿더미로 되어버린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울고 있던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인지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저 소년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텅 빈 눈을 메우듯 이내 소년의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로 가득찬 소년의 눈은 충혈되어 붉게 물들어 마치 피눈물이라도 쏟아낼 것 같았죠. 젊은 법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정신이 나갈 듯 했습니다. 한기가 그를 엄습해왔습니다. 분명 그는 오늘 인간의 형상을 한 이를 죽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주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사람을 죽이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어 집니다. 우리가 죽이지 안으면 언에르아도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죽였다고 정당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슴을 여미고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차고 흘렀습니다. 세상에 가벼이 여길만한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일원이 되려는 자가 적은지에 대한 이유일까요?
판결은 신의 율법에 의하여 행해지나 그 판결을 내리는 건 결점투성이뿐인 아벨의 자손들. 인간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저울에 달아 판결을

내리는 작업이 손쉬울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몽과 싸울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 인간이라 칭할 수 있는 정의와 그 범주 사이에서, 그 모순된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는 것이기에 심리적으로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 고요의 외침이 들리었습니다. 찰나의 시간동안 어린 법관은 수 많은 생각 속에 휩쓸려 있었고 그의 몸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주위로 서기관들이 그를 부축하기 위해 왔습니다. 어린 법관은 마음을 추스렸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만에 본 하늘은 복잡하고 어두운 그의 마음과는 달리 야속하게도 왠일인지 드물게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이 땅을 비추었습니다. 따스한 태양이 이데아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부신 햇살을 다시금 손으로 가리었습니다.

어느 테르벨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목숨이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요,

그 짐을 짊어지는 것도 이들의 몫이로다.

그러기 위하야 일어난 자들이라.

전투보고서 1막 “아벨의 방패”

공국의 수비군은 있으나 이들이 불경한 존재를 죽이는 데에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남기고간 것이 교황청이었으나 이 교황청의 교황은 직접적인 전투를 위하여 선봉에 서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대법원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경한 자들의 위협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의 권한을 위암받아 대법원이 원로를 소집하고 징집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에 새로이 창설된 것이 교황청 직속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들은 교황청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교황청의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들이 공국에 속해 있던 공국 수비대였습니다. 국왕의 서거 이후로 공국 수비대들은 대다수가 와해되었으나 시대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교황청과 대법원에 의하여 재소집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국의 군대였기에 육체적인 뛰어남은 흠을 잡을 데 없이 뛰어났습니다. 다만, 불경한 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벨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교황청으로부터 축복이 담긴 혹은 은을 입힌 무기 등의 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대법원의 징집과 교황청의 교육 및 훈련으로 인하야 휘하 군사 기관으로 여기어졌으나, 이들은 공국의 수비대였습니다. 비록 국왕은 정신이 나가 반란군을 만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목숨까지 잃었으나 아벨의 자손들과 함께 이룩한 공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아

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긍지는 공국이 과거에 이룩했던 쾌거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그 영광을 회상케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존재는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공국의 수비대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과 함께 크나큰 환대를 받게 됩니다. 교황청의 수호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만큼 공국이 지니고 있던 상징성은 아벨의 자손인 자들이 쉬이 넘어 갈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국은 거대했으며 아벨의 첫번째 자손의 인도로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황청과 대법원은 이를 견제하였지만 오직 구원만으로 이 땅을 수호하려고만 하는 순진한 교황청과 사람들을 공포로 휘어잡으려는 듯한 대법원의 잔혹무도함을 손가락질 하며 꾸짖을 정도의 규모로 그 크기를 넓혀갔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여기여 스스로를 아벨의 방패라고 이름하여 독립기구로 서기를 다른 부처에 요구 하였습니다. 구슬려 보기도 하고 무력을 사용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어떠한 방면으로도 그들에게서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말 그대로 사실상 기도로만 구원을 바랄 수도 없으며 공포만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과 대법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분하겠지만 딱히 그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평판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구원은 없다고 하며 오직 자기 자신과 전선에서 자신과 등

을 맞댄 이들을 믿는다는 이념이 무엇보다 교황청에게는 눈엣가시 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지 않고 교황청의 출입이 이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입지가 좁아지게 됨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에 위기심을 느낀 교황청은 대법원과 아벨의 방패를 소집하였고, 회장에서 밤낮으로 회의를 거친 결과 마침내 아벨의 방패를 독립적인 부처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헌법을 수립하게 되는데 아벨의 자손들은 이 셋을 한데 엮어 아벨론이라 칭하였고 이 통치방식을 훗날 '아벨의 고리' 라고 부르어 후대에까지 효율적인 정치 구조라고 여기어지고 있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주를 내리고 떠나간 이데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원에 풀을 뜯고 노닐던 동물들은 흉폭해졌고 이 저주로 인하야 인간의 피와 살을 취하였고, 야생의 짐승들은 지성을 갖추게 된 것들도 있었으며 차마 형용할 수 없는 형태의 전대미문의 존재들로 태어난 것들이 도처에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벨의 방패는 변방에 임시 사령부를 두고 그 휘하에 야전 초소를 두어 국토 방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한번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공국의 몰락에서 이미 충분히 맛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번 버려졌었고 소중히 여기었던 것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겪었던 실패와 좌절은 그들을 필사적이고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함이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의 자존감마저 부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부름을 받은 국왕으로부터 창립된 공국의 수비대. 즉, 아벨의 자손의 군대라는 신념과 자존감은 굳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청과 대법원은 아벨의 자손이 이 땅에 서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과 동시에 과거에 공국의 영예를 지녔던 본인들을 거둬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벨의 방패는 이들을 애증의 존재로 여기지만, 그 뜻은 교황청과 대법원과 일치하였고 그것은 아벨의 이름으로 불경한 이들은 모두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방패는 그 소명을 다할 것이고 마지막 불경한 숨을 내쉬는 존재의 심장에 총칼을 박기 전까지 계속 될 것이라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어 전방의 야전초소 막사 그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수도 내의 사령부의 하늘을 찌를 듯한 위엄, 그 장엄함은 어디에도 없었고 변방의 막사는 그저 허름한 천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잿빛 얼굴에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음에도 그들의 눈은 빛났습니다. 이들의 강철 심장이야말로 교황청을 지키는 나아가 아벨의 자손을 지키는 원동력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변방의 막사였지만, 천막 위를 때리는 빗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로 이따금씩 울려퍼지는 천둥소리마저도 이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벼락

이 떨어져 땅이 흔들릴 만큼의 충격이 전해짐에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천막 속의 병사는 멍한 눈을 변방을 주시하며 조용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입김이 차가운 바람에 부딛혀 잘게 부수어 졌고 칠흙의 어둠 속에서 오직 타오르는 등불만이 그의 두 눈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멍한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듯이 공허함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눈 말입니다. 찢어질 듯하게 몰아치는 천둥과 땅을 울리는 벼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병사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듯이 회중시계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안을 떨쳐 내려고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려는 찰나 저기 먼 곳에서 물을 거칠게 가르며 달려오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있었지만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비 탓인지 그 빛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소의 정문이 소름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열리었고 트럭은 의무실로 향하였습니다. 미친듯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트럭을 보고 병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병사는 그것이 그가 여지껏 기다려 왔던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느정도 직감한 것일 테지요. 나는 아벨의 방패. 강철 심장. 그 어떠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리라 다짐하고 맹세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망의 동정심이나 지나친 감정은 구멍을 만들고 사악한 것들은 그 약한 틈새를 시나브로 비집고 들어오매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그렇게 교육 받았습

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버티어 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도 그와 다를 바 없이 맹세를 다하였고 아벨의 방패로써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나 봅니다. 의무실 앞에서 그 병사는 그의 상사와 마주쳤습니다. 병사는 그의 상사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의 형제는 어찌 되었습니까? 한참을 망설이다 그에게 물어본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아무말 없이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황급하게 의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는 온통 핏자국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려주었죠. 그 병사가 말한 형제를 보러 가는 길은 짧지만 어찌 이리도 길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잘 알진대 차마 대면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좋으련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을 더 들어갔을까요? 그곳의 모습은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만약 카인을 위한 장소가 있다면 분명 이러한 모습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바램이었을 뿐 그곳은 우리가 숨을 쉬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의무실 주위에 병사들은 그만큼 얼굴에 빛을 잃어 살아는 있지만 이미 죽어있는 듯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이 여기는 아벨의 방패로써의 자존감도 그 빛이 쇠한 듯 한 풍경이었습니다. 간호하는 자들이 마르지 않고 뿜어내는 핏줄기를 막으려 손으로 억지로 부여막지만 그 피를 씻어낼 시간 조차 주어지

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통으로 인하야 막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저기 저 붕대에 스며드는 핏자국처럼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고개를 돌리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그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돌리려는데 그의 상사가 이르기를 그들의 마지막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녕을 고하라더군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니 그로부터 도망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금 시선이 돌아 선 그곳에는 오직 신부님의 기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는 자라면 집으로 편지 한통과 함께 그는 아벨의 방패로써 영광스러운 죽음과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며 산화하였다는 위로의 편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라면 그저 그는 어두운 천막 안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 한 것입니다.
어느새 들것에 의해 실려온 야전의 수술실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에게 다가가려는 발걸음을 막으려는 듯 어깨를 짓누르는 손은 떨리었으며 그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고개를 들어 희미한 미소를 띄며 다시한번 허락을 구하였으니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가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맞이한 형제의 상봉은 주위에 있던 자들의 말을 잇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은 오직 그가 형에르아고 했던 '그것' 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구속구의 짤랑거림과 '그것' 이 내는 으르릉거림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 자는 이 세상의 것도 저 세상의 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오직 이바와 아다무스가 남기고 간 저주로 변해버린 끔찍한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들

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옮기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병사가 형제에게 다가가는 도중에 뒤에서 그의 상사가 저지하였습니다. 그가 형에르아고 했던 '그것' 은 의료 후송의 목적이 아닌 연구 및 해부를 위한 포획이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제복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이스터 길드에서 연구를 위하야 나왔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 상사의 말을 확신케 했습니다. 병사는 몸을 다시 돌리어 그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 가늠하기 힘들었던 어둠이 차츰 익숙해져 그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지고 따닥 거리는 이빨은 조용한 막사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보였으나 주위에서 그것을 피와 살을 갈구하기 위한 행동이라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애나."

조용한 천막 안을 가득 채우는 비명소리는 변질되어 버린 자의 입에서가 아닌 그 병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입을 열어 그 한마디를 뱉었고 그저 피와 살을 취하기 위하여 이빨을 부딪혀 대던 것도 다름 아닌 그 병사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불러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져 아벨의 방패에 대한 신념도, 그리고 강철의 심장을 가지라는 맹세도 병사의 외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뒤에선 실험체로써 '그것' 을 데려간다는 말만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것’ 은 그저 살덩어리일 뿐이었죠. 병사는 가쁜 호흡을 거두고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총구를 ‘그것’ 에게 들이댔죠. 주변은 놀람에 혼비백산 하였고, 대법원에서 온 자와 마이스터들이 그 병사를 진정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병사의 상사만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천막안의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아벨의 방패로써 맹세하는 강철의 심장이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만 여기었던 그가 강철의 심장을 가지기 위한 의식 중 하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를 말리려 발걸음을 움직이려는 찰나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찬란한 은탄이 ‘그것’ 의 머리를 꿰뚫었고 ‘그것’ 은 마지막 숨을 힘겹게 뱉은 채 병상 위에 축 쳐졌습니다.

“미쳤군.”

마이스터라 하는 자들은 모두 그 병사를 비난하고는 수술실 천막을 신경질적으로 걷어내며 나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온 자 역시 그 병사의 상사에게 교황청은 이 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를 던지며 몰아세웠습니다. 상사는 이를 갈며 핏대를 세우고는 그러하라는 말과 나가라는 손짓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은 수술실의 공기를 차갑게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 온 자는 관심이 없는 듯이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나가고 나서야 상사는 천막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내었습니다. 연기는 갈 곳을 잃어 방황한 듯이 제멋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천막에 홀로 남은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고 ‘그것’ 의 눈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것’ 의 눈에서 나오

는 눈물과도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병사는 목놓아 울었으나 그 울음은 빗소리에 부딪혀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남은 슬픔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병사는 ‘그것’ 의 품에 지니고 있던 회중시계를 꺼내어 자기의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들추어 밖으로 나와보니 천막 앞에는 다 타버린 수 많은 담배꽁초가 그 병사를 반기었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다시 고쳐 맨 뒤 전선으로 향하였습니다. 전 우두커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이 없는 물음을 되뇌이며 막사를 나왔습니다. 강철의 심장을 지녔기에 아벨의 방패가 이리도 굳건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벨의 방패이기 때문에 강철의 심장을 지녀야 하는 걸까요? 눈물은 말라버렸고, 오직 내 총과 칼날 그리고 텅 비어버린 눈은 장벽 너머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공국 재건계획 1장 “기사의 맹약”

공국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에 충성을 다하기를 맹세했던 군주들은 갈 곳을 잃고 방황했으며 공국이 몰락한 이후에 공국의 수비대는 와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총칼을 벗어던지고 가족들의 품에 돌아갔으나 일부는 교황청과 대법원에 의하여 편입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국에 신념을 가지고 충성을 바친 자들은 섬길 자를 잃어버리고 헤메는 군주들이었습니다. 비록 국왕이 암살 당하였다고는 하나 공국은 아직 아벨의 이념을 가진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움직임은 교황청 그 자체를 공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공국을 섬기던 군주들은 한때의 영광을 누리었으나 국왕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일개의 병사따위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공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념도 교황청의 이념과 같이 아벨의 자손들의 번영과 안녕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의 이러한 태도를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왕이 사라진 지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교황청과 대법원에 몸을 담기로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백보 전진을 위한 오십보 후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공국을 버리고 교황청의 개가 되기로 한 것이냐며 이들을 폄하하면서 배신자라 낙인을 찍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공국 초기부터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맹세이기

에 아무리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것일지라도 그 맹세를 끊어내거나 간섭할 수 없을 범점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공국에 맹세를 하면서도 교황청에 또 다른 맹세를 한 이들을 언약 파괴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공국 수비대는 초기에 이러한 두개의 파로 나뉘어 지게 되었습니다. 공국의 원로원은 수많은 날을 밤낮 할 것 없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파의 의견대립은 회의와 상관없이 분명하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공국으로부터 수비대를 이끈 군주들은 영원의 전쟁으로부터 각지로 흩어진 가신, 대신들에게 전령을 보내었고 이들은 부름에 답하였고 모든 채비를 마친 뒤에 교황청의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위험을 무릎쓰고서라도 이들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교황청의 과세에 불만이 있어하는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부지 한들 과세의 무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면 아벨의 장벽도 그저 유명무실일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교황청 역시 이들을 성령에 반하는 존재들이라 여기었지만 과거 공국의 영광을 등에 업고 있는 군주, 가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자손들에게 촉망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집해제 명령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교황청과 대법원의 율법은 신의 사자로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 권능은 불멸의 존재나 불경한 자들에게 효율적이었으

나 강력히 무장되어 있는 군대를 향하여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이들의 신앙심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목적은 그들과 같기 때문에 교황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만 보인다면 그들의 존재를 묵인해도 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벨의 방패를 포함하여 교황청의 모두를 혐오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존재를 경계하며 주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나 참전한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국의 수비대의 기마대가 보여준 위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기마술은 다른 어떠한 부대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송곳니로도 뚫지 못하는 그랑듀울 산 철제 갑옷을 두르고 전장을 누비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전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마대는 언제나 최전방에 서서 궁왕의 곁을 함께 달리며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청과 과거의 공국을 두른 아벨의 장벽 너머로 터전을 자리하여 성곽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공국의 재건이었습니다. 공국의 기반이 다져지면 아벨의 자손은 자연히 그 뒤를 따를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군주 잉그람을 휘하로 한 기사단이 창설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청을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았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그들 역시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벽은 칼데우리아 협곡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 공국을 시타델이라

명명하였고 그곳은 지금까지 천엽협곡의 요새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후손이 감히 침범할 수 없을만큼 거대하며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단은 과거의 공국을 뜻을 함께 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환대 하였습니다. 그렇게 휘하에 다른 여러 종류의 실력자들과 무예에 출중한 자들을 모두 거두어 공국 재건에 이바지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합니다. 군주의 통솔과 인재에 대한 안목이 있기에 모든 위협으로부터 요새를 보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군주 잉그람은 변방의 요새를 기초로 하여 요새를 더욱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공국의 기마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공국의 상징이라고도 불렸던 그 군대와 그 영광을 다시금 만끽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기마대의 훈련법은 엄격하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은 아벨의 축복을 지니지 못한 채로 불경한 이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갑옷을 입으며 생활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철갑을 두른 말들마저 훈련시키기에 이르렀죠. 말들은 육중한 갑옷을 두르고도 갑옷을 입은 자를 등에 태워야 하기에 이들의 훈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정신은 이들의 육체를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철갑을 두르고서도 몸을 가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련하였고, 이는 마상에서 자유로이 몸을 움질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말과 교감하며 그들과 소통하니 이들 하나

하나가 내놓으라하는 명마였습니다. 이들의 결속력은 일당백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죠. 주인이 안장에서 내려와 싸울때에도 곁에서 열 몫의 병사의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이로 인하야 말 한필 조차도 잘 훈련된 군사 그 자체였기에 이데아에서 기사단이라 하면 그 누구도 무시 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 난 것입니다. 저는 성벽을 따라 솟구쳐있는 저 거대한 대자연 어머니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틸든 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벽을 강화하고 겨울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장벽에 비해서 화려한 장식도 우아한 곡선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칠고 투박함은 그들의 우직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험난 할 것입니다.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 뿐만 아니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존재들의 영향이었을까요?

대지는 쇠하여 메말라갔으며 인근의 농장들과 축사는 이들의 위협으로 인하여 곡식이 지난 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대로 군주를 믿고 따라온 이들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교황청의 손을 빌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틸든 경이 군주의 명으로 교황청에 전서구를 보내었으니 필시 후일에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겨우내가 되면 이렇게 교황청에 손을 빌어야 함에 군주는 한탄하였습니다. 하지만 딱히 도리가 없었습니다. 성곽 내를 수비하기에도 여념이 없음에 성곽의 밖으로 신경을 크게 쏟아 부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군사를 데리고 피해현장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도 있을만큼 이들

의 행동은 사악하고 기민하다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만큼 골칫거리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틸든 경의 용병술과 행정능력은 이들을 저지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기여했죠. 틸든 경은 영원의 전쟁에서 국왕과 함께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군주 잉그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절친한 친구사이로 형제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틸든은 군사로써 잉그람은 전사로써 국왕의 곁에 섰습니다. 그 둘은 공국의 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취했고 이 때 국왕의 허가 아래 만들어진 것이 아벨의 기마대였고 아벨의 첫번째 자손도, 국왕도 감탄을 금치 못한 최정예 부대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인 면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에도 출중하여 그의 손에 의하여 길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만큼 공국이 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덤!”

틸든 경의 부름에 휘하의 기사들을 사열하던 기사가 부름에 응했습니다. 기사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앞으로 있을 기사 작위식에 대하여 말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공국 재건을 위해 이리도 힘쓰는 젊은이가 있다는 것에 그저 놀랍고 감탄 스러울 따름입니다. 몰락한 이후에도 부흥을 위해 백골쇄신 하려는 자가 있다니 공국의 찬란했던 영광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틸든이 기사에게 조심스레 묻기를 이제 곧 군주님의 사열식이 있을 것이니 그대의

기량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사는 웃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쳐보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틸든 경의 희미한 웃음이 보였으니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듯한 따스한 웃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 기사는 보지 못하였지만 말이죠. 사열식은 기사 작위식 이전에 그가 기사로써 직무 중 하나인 사람을 다루는 기량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주께서 모습을 보이시매 사열식은 거행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호령에 맞추어 절도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기사단원과 기마대는 마치 과거의 공국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거칠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깃발을 세차게 휘날려 그 날의 영광을 노래하는 듯이 거친 소리를 내며 펄럭였습니다. 사뭇 그 모습에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열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틸든 경이 그 기사를 따로 부르시니 그를 따라 성 안쪽 깊은 왕좌로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뒤를 따랐죠. 왕궁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며 어둠이 짙어 질 수록 좁은 창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빛은 눈부시게도 밝았습니다. 그가 그 빛을 받을때마다 그의 갑옷에 반사되며 안을 밝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틸든 경은 마침내 왕좌의 안채까지 도달했습니다. 틸든 경이 문을 열자 각지의 군주들과 대신들이 자리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사단 언약식에 제 3자로써 이 맹세를 지켜본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틸든 경에 군주 잉그람에게 예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자 군주께서도 고개를 끄덕여 답하시고 청년 기사는 고개 숙여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라는 군주의 음성은 낮고도 무거웠습니다. 왕좌에 걸터 앉은 그 모습은 기사단의 귀감이며 공국의 왕좌에 어울릴 만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주께서는 칼을 드시고 그 기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어 힘껏 그를 향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나아갔으나 그 칼은 사뿐히 애덤의 머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 그리고 그 다음은 오른쪽 어깨. 천천히 움직이던 군주의 칼이 마침내 기사가 고개 숙여 들어올린 두 손 위에 올려지었고 군주는 그의 머리에 손을 대며 서약을 읊조렸습니다.

<< 나는 방패요.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식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위하여. 공국을 위하여. 나는 나의 종마와 태풍이 되어 불경한 자들을 디딛고 달릴 것이다. >>

매몰찬 겨우내에 혹독한 시련이 몰아치나 걱정을 거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공국을 위하여 높이 들어 올린 깃발 아래 다짐을 굳힌 듯 보였고 그들의 부리는 종마 역시 깊고 어두운 흑색의 눈을 밝히며, 그들의 갈기는 바람에 부딪히며 노래하는 비단결이었습니다. 살결은 기름을 바른듯 매끄럽더군요. 어둠속에서도 화롯불처럼 따스한 이 모든 풍요가 서로의 약속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사단의 맹세입니다. 군주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사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위해 평야를 달릴 것입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남기고 간 교황청.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유일한 자는 바로 아벨이었죠. 하지만, 이바와 아다무스를 한데 엮어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일컬어 ‘로자리’ 라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로자리라는 이 집단이 왜 이바와 아다무스를 섬기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아니, 이해하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이데아에 저주를 내리고 떠나간 존재들이었고, 이땅의 모든 생명이 그들이 내린 저주로 인하야 고통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기에 오히려 증오했다면 증오했지 그들을 섬기다니요.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자리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을 분노케 하여 이 땅의 생명을 죽어가게 한 저주의 근원은 세트였고 그들의 분노를 세트에게 향하게 된 것은 그에 응당한 그들의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세트는 오만하게도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하여 그의 부모를 희롱하였기에 그에게 내린 저주는 그의 농간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이들은 줄곧 이들의 시험은 그 형태만 달리하였을 뿐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 믿어왔습니다. 다만,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와 나누었던 이야기는 오직 계시로만 전해 들었을 뿐, 이것을 증명할 방도가 없으니 장벽안의 누가 이것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계시를 받은 자는 성직자도 아니었으며, 순례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현자도 아니었습니다. 퀴나즈도 아니거니와 전사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며, 어머니였고 형제였고 자매였으며 친구였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데아에 저주를 내린 지금에서야 대체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특출나지도, 빼어나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이 계시를 전했던 것일까요? 감히 말하건대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을 테지요. 그 심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이데아에 내려 올런지 정확히 그려주지 않았으나, 그들의 계시를 통하여 본 이데아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량히 변해버린 폐허 뿐이었죠. 그곳에는 아벨의 자손들도, 카인의 핏줄도 그리고 세트의 후예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쟁으로 인해 빚어진 영원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멈추어 더이상 들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뇌리속에서 그저 근심과 걱정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그 계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었기에 초기에는 그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다른 장소의 이들이 그렇게 근심하며 지낸지 수일이 지나서야 그 계시에 대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계시에 대한 교류가 잦아지게 되었고 이들은 그들이 계시로 바라본 이데아의 마지막의 모습은 같았으나 그 모습 이전에는 각자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일과를 마치고 나서 계시로 전한 기억의 조각들을 짜맞추기 위하여, 그

리고 마지막에 보았던 이데아의 참상이 그대로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본 계시를 많은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이 각지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의 계시는 아벨의 자손들 중 소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교리에 맞추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인들끼리 단체를 만들게 되고 한데 모여 교리를 설파하기도 하고 교류하는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성전의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나 교황청도 이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섬기는 자는 아벨이었으나 로자리의 무리들은 그의 아비와 어미인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를 받아 그들의 부름에 응하여 움직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보면 뿌리는 같으나 교황청에서는 이들이 이데아에 내린 저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했습니다. 사실 이들을 인정하고 그 저주도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도 터무니 없었거니와 믿을수 없게도 이들에게 들어오는 세금 때문이었죠. 이들이 주장하는 계시에 눈이 멀어 교황청으로 기도하러 오는 자들의 발걸음이 줄었고 그 덕분에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세금마저 줄었기에 이들을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벨의 장벽 안팎으로 그들이 통제하기 힘들만큼 동시다발적으로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주장은 장벽내의 아벨의 자손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하였고, 그것은 교황청의 평판이 깎이게 할만큼 단체의 크기는 무서우리만큼 커지고 있었죠. 이들이 두려워 하는 것이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자들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아벨의 자손들입니다. 신의 권능을 타고 났다고는 해도 그들 스스로 이데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황청과 대법원 그리고 아벨의 방패, 그리고 이전의 공국 그리고 영원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뭐지게 된 것 모두 아벨의 자손들이 힘을 합하여 만들어내고 이룩해낸 쾌거입니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입소문은 빠르게 타고 가며 그들 사이에서의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특출나지 않고도 평범한 자들에게 계시를 내리었던 것이죠. 비록 이들은 약할지도 모릅니다. 아벨의 권능이 그들 안에서조차 희미하게 그 빛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안에서 그들의 결속력은 보다 굳건해집니다. 그것이 아벨의 자손들이었기에 교황청은 이들의 종교적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청의 청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의 판결이 내리어졌습니다. 교리를 퍼뜨린 자는 목을 매달게 하고 교리를 나누던 집회를 철폐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판결이 내리어 질 때쯤 대법원 앞에서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이 둘의 교리가 아벨의 교황청이냐, 계시를 받은 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전쟁으로 불거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과 아벨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벨의 자손들은 서로 진형을 갈라 광장에 서서 서로의 성서를 들고 그들의 교리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집회는 열기가 거세어져 물리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전쟁은 날이 지나며 거칠어 졌고 마침내 서로 총칼을 들어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한 교황측은 협상을 위해 교황청에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높혀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그 사이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할 만큼 저들의 교리에 빠진 자들의 수는 이제 무시할 수 없을만큼 많아졌고, 암흑의 시대에 이들을 차마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이는 그들의 과세하여 얻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자손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평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경한 존재들을 막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끼리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다고 느꼈을 테지요. 교황청에게 있어서 이는 백보 전진을 위한 오십보 후퇴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교황청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아벨의 장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윤허해 줍니다. 성전에 임한 자들은 기뻐하매 그들의 집회를 계속해 나갔으며 신도들을 늘려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시나 교황청과 그들을 따르는 아벨의 자손들은 달갑지 않았

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고의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성전의 표식을 지닌 자들을 보이면 집단매질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전을 하는 자들에게 과세를 더욱 부담하였고 시장의 가격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듯이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벨의 장벽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읽은 교황청은 교리를 전파하는 성전사 수뇌부를 제거하면 이들은 자연히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암살단과 접촉하여 성전사 수뇌부 제거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지만 암살단이 이들이 집회를 이루는 곳에 당도하였을 때 이미 그들은 그 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이한 기운을 느낀 이들은 집회 장소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암살단들의 존재를 알아챈 성전사들과 그의 무리들은 우리가 아벨의 장벽 안에 설 땅은 없음에 깊게 탄식하며 장벽을 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깊은 새벽, 달빛 조차 드리우지 않은 틈을 타서 성전사들은 초소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이들 모두가 아벨의 장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벨의 장벽을 넘었다 하더라도 갈 곳을 잃고 정처없이 떠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긴 행렬은 동굴이나 숲 속을 떠돌며 한참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기사단의 설립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을 이끌던 성전사들 중 하나가 공국을 재건하려는 이들과 접촉하여 길고도 긴 협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계시가 이끄는 대로였을까요? 군주 잉그람은 그들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들도 교황청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었던 터였겠지요. 그들에게 보호를 허가해 주는 대신 내건 조건은 성전사는 기사단의 부름에 응하야 싸울 것과 다른 하나는 그들의 교리를 성채 내에 전파하려 할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교황청을 꺼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아벨의 자손들에게 등을 완전히 돌리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로자리의 무리가 교황청의 교리에 반하여 그곳을 박차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의 선언으로 인하야 잉그람은 교황청에게 종교적 중립적임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아벨의 자손들을 한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받아 들였다는 그들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공국재건을 위한 방패까지 구하게 된 셈이죠. 교황청은 이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벨의 장벽 안에 이단은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전사들의 성전은 외지의 땅에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전을 줄곧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도원에 성전사들과 사제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여 있었고 늙은 노파는 수도원의 초에 하나 둘 불을 붙이매 수도원 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은 그들의 목소리와 함께 한동안 그 곳에 고요하고도 차분하게 머물렀습니다. 교리의 나눔은 끝이 났고 늙은 노파는 신자들과 교리를 나누던 방의 불을 껐습니다. 교황청의 예배당과 아무래도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불 몇개 끈 것으로도 간신히 앞이 보일 정도더군요. 그 때, 노파의 딸로 보이는 아이가 해맑게 그에게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더니 밝은 곳으로 연신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소녀의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본능에 의해서 그를 어둠으로부터 잡아끈 것이겠지요. 늙은 노파는 소녀를 보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더니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빛이 한치도 스며들지 않은 방에 눈길을 잠시 남기고는 이내 소녀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

그가 아벨의 장벽을 넘고서 교리를 전파하며 복음한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구원의 목소리만 따랐을 뿐, 그저 그의 인도대로 신자들을 인도했을 뿐인데 신자들과 성전사들은 어느새 그를 지도자로 추대해왔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공국을 재건하려는 기사들과 군주들의 보호 아래에 이렇게 그의 뜻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 스스로 힘을 길러야만 할 것이고 또 분명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는 어느새 이리도 늙게 되었고 이제 그 빛의 계시는 이어져야만 하며 신자들의 힘이 되어줄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자를 이어야 할 때인 거지요. 늙은 노파는 때가 어느새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가 지금껏 이리도 열실히 그의 목소리를 좇아 이곳까지 당도하게 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 또한 그가 선택받았기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련히 바라본 그곳에는 늙은 노파의 딸과 어린 소녀가 웃고 뛰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여기까지 성전

사들과 신도들이 성전을 이어나가게 된 이유였죠.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벗어내고 그들의 시험을 헤쳐나가 이데아를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기 위한 계시의 끝이자 시작이 바로 그녀가 바로 성처녀. 살아있는 구원. 희망의 불씨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늙은 노파의 표정은 어두워 금새 일그러졌습니다. 늙은 노파는 몸이 안 좋은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 계시와 가까운 미래를 봄에 몸에 무리가 왔던 탓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 마음의 가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늙은 노파는 계시와 신의 목소리만 들었으면 되었을 뿐이었지만, 이제 그 어린 소녀는 계시와 성전을 행함과 교리의 방패가 되어 직접 몸을 던져 싸움에 임해야 하는 신의 권능을 담는 그릇 즉 성배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다만 신이시여, 부디 계시다면 이 불쌍한 영혼을 보듬아 주시기를. 어린 나이에 심지어는 처녀의 모습도 채 갖지 못한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필시 이 어둠의 땅에 구원의 빛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본디 구원도 빛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위의 믿음에 의해서 그녀는 만들어진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실한 믿음과 소망은 이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저 늙은 노파가 그 산 증인이었겠지요. 아아, 이것이 부디 성전을 행하는 신도들의 욕심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신께서는 이 어린 것들의 몸을 피로 칠하는 것을 윤허해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함에도 수도원의 늙은 노파는 발걸음을 소녀에게 옮기어 가로되, 아이

야, 너는 이제 우리의 희망의 불씨임이라. 성처녀의 이름을 지도록 하라. 우리의 기도는 저 먼 하늘에 닿아 너를 위한 창과 방패가 되리니. 싸우라. 모두의 기도와 희망이 함께할 지니. 그리하매 넌 죽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 닿게 할지어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리었습니다.

이에 어린 소녀는 눈부신 미소로 늙은 노파의 딸과 눈빛을 잠시 교환한 뒤 그녀를 뒤로하고 노파에게 다가와 고하되 아버지시여, 당신의 말씀이 그러하였듯이, 나는 그의 계시를 두르고 방패가되어 싸우리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기도로 그의 목소리를 좇으며 그의 길을 걸으리라. 하니 늙은 노파는 불현듯 안도감과 죄악감의 알 수 없는 감정이 몰아쳤고 무거운 한숨만 뱉을 뿐이었습니다. 알수 없는 감정에 가슴을 질끈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비록 많은 이들에게서 예언과 계시의 현자라고 불리어졌지만 그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결정은 성처녀로써 지게 될 계시의 무거운 짐을 그의 딸 대신 그보다 한참을 어린 저 소녀가 대신 피를 흘리며 지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었지만 그 소녀는 수도원 안의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빛에 신념을 바친 그 모습은 그 누구로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어린 소녀는 준비를 마치었으니, 몸은 순백의 갑주를 두르고 이내 들고 있던 방패를 들고서 빛을 안으었으니, 어둡고 축축한 수도원 안을 비추매, 기도하던 자들이 이를 바라보며 아벨의 사자를 직접 눈에 담는 듯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분명 소중한 내

자식이 아닌 부모를 잃은 저 어린 소녀를 어둠에 던지고 빛과 안식을 얻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합당한 거래였습니다.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계시를 이어감을 핑계로 악마와 거래를 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는 이 수도원에 오직 늙은 노파 뿐인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에겐 일말의 양심은 있던건 것일까요? 이바와 아다무스여, 그대들은 비록 이 땅에 저주를 뿌리고 물러나셨으나 부디 이 처녀에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녀를 구하소서. 그리고 그대들의 가호를 이에게 비추어 주시길. 저는 수도원에서 거룩함과 더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씁쓸하게 그 곳을 나왔습니다.

스탠스 1형 “엥 가르데”피오르

영원의 전쟁은 끝나고 나서도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에는 썩은 시체가 나뒹굴고 변방의 마을이며 도시며 가릴 것 없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죠. 교황청은 전염병을 막으려 사제들을 총동원 하였지만 이데아에 있는 온 아벨의 자손들 모두를 보호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황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성의 벽인 아벨의 장벽을 세워 수도의 심장부를 전염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고 가까스로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벨의 장벽을 기점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며 구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벽 너머의 아벨의 자손들까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은 전염병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파괴와 절망을 낳았으며 전쟁 고아들 또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쓰며 가까스로 아벨의 장벽 안으로 대피한 아이들은 교황청과 그 안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게 됩니다. 영원의 전쟁은 참혹하였기에 살아남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카인의 핏줄에 감염되었거나 세트의 저주에 걸렸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팽배해졌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의 허가를 받은 구 공국의 마이스터들이 앞다투어 이들을 납치하여 격리시켰고 연구의 목적으로 해부를 당하기도 하였고 대법원 측에서는 위험의 씨앗을 없애기 위함으로 가차없이 이들을 처단하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이를 반대

하였지만 그들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전쟁 고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환대받지 못하였고 운 좋게 한 가정에 받아들여 졌다고 하더라도 심한 차별과 냉대를 당하고 폭행과 강간 등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전쟁고아들이 그 사실을 교황청이나 대법원에 혹은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알린다 하더라도 그들의 냉대와 싸늘한 시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들이 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카인의 핏줄 여럿이 영원의 전쟁 이후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전쟁 고아들로 둔갑하여 이들 몰래 학살을 자행하고 난 뒤 발각되어 심판을 받은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의 시련은 안타깝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나서 그들과 따로 살 곳도 없고 받아들여 줄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테지요. 이러한 쓰디쓴 현실은 이 전쟁 고아들의 마음을 닫게 했고 동시에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스스로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떠돌다 어쩔 수 없이 몸을 겨눈 곳은 안타깝게도 전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생사가 걸린 일이었으나 그들이 가능만 하다면 언제나 배부르고 따스한 난로불에 몸을 녹일 수 있던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고아들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며 단련해왔습니다. 때문에 또래 아

이들에 비해서 기민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몸놀림도 재빨랐습니다. 기이하고도 특이한 움직임은 섬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전장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고아의 대부분이 교황청을 위하야 싸우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나 교황청 3개 부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어린 아이들을 차마 전장으로 내 몰수 없으며 그들의 부모의 희생을 대물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도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표함으로써 올라가는 교황청의 평판과 지위는 당연하거니와 전쟁고아들 역시 전염병과 아벨의 장벽 안에 카인의 피에 잠식 되어있을 거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었고 이들을 장벽 안에 두기를 혐오하였기에 이 아이들은 전장에 서지도 못한채 거리에 나돌며 좌절에 빠져야 했으며 이내 희망의 빛은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공국에 속해 있지 않았던 자치국가들 중 하나인 곳에서 도망 나온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교황청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을 받으려하던 도중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을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답하였고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되묻기를 그대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묻고 사내가 답하자 아버지께서는 탄식을 하며 사내의 죄가 너무나도 깊어 도저히 씻을 수 조차 없음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사내는 이미 그러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듯이 씁쓸한 미소를 지은채 교황청을 떠났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안타까워 성호를 그은뒤 고개를 숙

이어 그를 배웅하였고 후에 그를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려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내에게 보이진 않았으나 그가 미소를 보인 까닭은 아마도 아버지의 기도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도를 느꼈음에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을 방황하다 인적이 아주 드문 높은 협곡 사이에 작은 거처를 마련하고 은둔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그는 그의 거처 역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를 맞이하다가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스스로에게 되돌아온 업보임이 분명하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옷매무새를 갖추고 그의 처소를 나와 한가로이 영원의 전쟁속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칠갑을 한 카인의 핏줄 하나가 그를 발견하였고 그 사내가 아벨의 자손임을 알고 죽어가는 몸을 끌고 송곳니를 보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내의 목을 찢어 버리려는 순간에 전쟁 고아들이 나타나 카인의 핏줄에게 칼을 댔습니다. 분명 이 어린 아이들은 이 자를 죽음으로부터 그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 순간 최후를 맞이하려던 그 사내는 찰나의 순간에 자신을 구하려 사지를 뛰어든 고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그는 이데아에 존재하는 최고의 약자들로부터 차마 죄를 씻지 못하는 죄악에 의해 더럽혀진 몸임에도 불구하

고 그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식사를 방해받은 카인의 핏줄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이들에게 향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으리라 다짐했던 그 사내는 영원이라 불리는 이들의 전쟁 속에서 살아야 할 길을 찾았나이다. 그리고 그 길은 이 어린 신의 사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돌함은 빛처럼 보였습니다.

영원의 전쟁 후에 그 사내는 이들을 거두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의 거처에 이들을 데리고 지낼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내는 공국의 재건 소식을 듣고 군주 잉그람이 공국재건을 위한 실력자들을 차출하고자 함을 널리 알리는 선언문을 공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쟁 고아들을 이끌고 그를 찾아갈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새 국왕 잉그람 앞에 서게 되었고 군주는 그 사내의 배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반응은 교황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국왕은 당황했고 그 사내를 받아 들일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시에 그 사내의 능력을 몹시 탐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국왕은 그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버려진 폐허 속 지하로 거꾸로 솟아오른 탑과 그 탑의 존재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국왕은 당연히 그 곳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그 사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곳을 거처로 삼기를 허락하였고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공국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전쟁 고아들은 소식을 듣고 이 곳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고 다양한 목적을 갖은 아이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사내는 이들을 저주 받은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물론 공국과의 이해관계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사내는 그 아이들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느낌을 강렬히 가슴에 아로새겼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지키기 위한 힘을 알려준 것이겠지요. 그의 남은 목숨을 이 땅의 가장 약한 존재들이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자신이 과거에 밟아온 업보를 청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돌보게 된 이유였죠.
지하의 깊은 그 곳은 버려진 아이들에게 있어 가르침의 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곳은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였죠. 사내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려졌다는 분노와 공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칼날을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술로써 이들의 소양을 갈고 닦게끔 하였습니다. 지하로 뻗은 이 탑은 후일에 이르러 전쟁고아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고 그들의 분노 또한 사그라들었습니다. 후에 사내는 이곳을 ‘지하 학회’ 라 이름지었으며 전쟁고아들은 이 자를 선생이라고 부르며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치룰 나이때가 되면 마지막으로 실력을 검증 받은 뒤에 학회

를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게끔 하였습니다.
저는 한없이 학회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이 더이상 흘러 들어오지 않아 손에 잡은 랜턴에 의지해서 그곳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접견실에 도달하자 그 곳엔 한 아이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인식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을 보니 마지막 검증이 남아 있는 거겠지요.
둘은 순수하고 깨끗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재잘거리며 더 깊은 아래로 향하였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이 과정도 그들이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시험의 일부겠지요. 그렇게 저는 이들을 따라 한참의 시간을 내려갔을까요? 마침내 시험의 장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그 곳은 넓게 펼쳐진 기둥이 무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흡사 유적과도 같은 것일까요? 예상치 못한 장엄함에 놀랐습니다. 그 안은 랜턴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어지러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빛이 비춰진 기둥을 바라보고 전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둥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이들도 전쟁 고아였으며 전장에서 채 피지 못한 꽃들이 산화하여 이곳에 마침내 쉬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할 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들을 보듬으사 먼지가 흩어져 바닥을 덮으니 이내 바람이 불어 그 먼지를 쓸어갔습니다.
 잠시동안의 고요가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성인식을 위하야 함께 내려온 어린 아이는 웃으며 둘 사이를 비켜주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지루하게도 길었던 고요를 깨고 그 자는 아이의 무무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체없이 칼을 들었고 둘

을 칼을 부딪혔습니다. 칼끝은 무서우리만치 서슬 푸르게 서로 부딪혔으나 그 소리는 어째서인지 거슬리지 않고 조용하게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움직임은 화려하면서도 간결하고 유연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전장에서 피고지는 한떨기 꽃이 아마도 그들의 모습과도 같을 테지요. 그리고 이들의 춤사위는 흡사 이 곳에서 쉬고 있는 이들의 넋을 위로해 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랜턴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조차도 바람에 휘어지며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저는 잠시 넋을 잃고 이들의 무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춤사위에 홀려 숨을 쉬는 법 조차 잃어버린듯 이들이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칼을 거두고 나서야 모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좋은 구경을 했군요. 그리고 아마 저 아이도 고단하고 방황했던 지난 날의 슬픔과 분노를 재우고 밖으로 나와 저의 갈 길을 가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길이라도 그들은 지하로 뻗어져 나간 탑에서의 그 무무를 잊지 않고 그들의 춤사위로, 그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피를 어둠이 내려앉은 땅에 아름답게 뿌릴 것입니다. 순수함과 때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땅위에 분명 아름답게 피고 질 것입니다. 그 지는 마지막을 깊게 새기며 ‘리-쿠울헬’, 춤추는 칼이라는 이름을 젊어진 우리를 기억하시길.

생명의 나무 - 뿌리 “아르카나의 근원”

태초에 창조주께서 이데아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데아는 생명으로 넘쳐났습니다. 창조물들은 그 이데아의 생명을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의 모두가 이데아의 은혜를 입고 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대지 이데아는 생명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이데아는 스스로 이들의 성장을 즐거워 하였고 만물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생명의 나무인 ‘이실그라드’ 를 피웠고 그곳에 몸을 담아 생명을 관장하며 이들을 오랜동안 굽어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 빚으신 이바와 아다무스의 자식들은 이데아를 두고 영원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거죠. 심지어 저주까지 내려진 채로 말이죠. 애초에 창조주에 의하여 받은 이데아를 왜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르는지 영문도 모른채 그녀는 한없이 슬퍼하였습니다.
전쟁 도중 상처를 입고 이데아를 방황하던 소년이 묘한 이끌림에 이끌려 이실그라드 앞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데아도 그자가 다가옴을 알아차렸고 이실그라드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데아는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을 가엾이 여기었고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하였습니다.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소년은 눈을 떴습니다. 이데아는 그에게 누구인지를 묻자 그 소년은 놀라며 자신이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며 이름은 ‘키오누스’ 라고 대답하였습

니다. 키오누스는 당황하여 대답하는 와중에도 이데아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 뒤로 슬픈 표정을 감추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에 키오누스는 이데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더군요. 이에 이데아가 놀라며 답하기를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과 그의 자식들이 이데아에 행한 만행을 키오누스에게 한탄하듯이 쏟아내었습니다.
키오누스는 이데아를 가엾이 여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공유하며 그녀의 상처를 씻겨 주리라 다짐하며 키오누스는 자신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을 뒤로하고 그녀와 함께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이데아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록과 역사를 이실그라드에 낱낱히 기록하였습니다. 비단 키오누스의 잘못이 아닌 이바와 아다무스 그리고 그 자손들의 과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인 것처럼 그것을 잊지않고 기록하며 속죄하려는 그의 모습에 이데아도 감복하였습니다. 이에 이데아 역시 키오누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소년 키오누스는 숲의 전령을 통해 이데아의 자손들에게 더이상 이데아를 상처 입히지 말라 이르렀으나 이미 영원의 전쟁으로 인해 벌어진 감정의 골을 좁히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키오누스는 상처받고 지내온 이데아를 보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듯 그녀에게 다가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고 이데아는 그의 제안에 눈물을 쏟아낼듯 보였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요, 그녀의 나무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희생 그 자체였고, 키오누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더렵혀진 몸과 상처받은 자신이기에 다시금 사랑하는 이를 잃고 싶지 않았던 이데아는 처음엔 반대하였으나 이미 결심을 굳힌듯 맑고 강인한 그의 순수한 눈을 보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데아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도 따스하게 그 소년을 가슴에 품었고 그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실그라드는 생명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태동의 근원 즉, 태초의 퀴나즈들이 칭하여 부르는 그 이름, 아르카나라는 존재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아르카나의 존재는 이데아와 키오누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탄생과 더불어 사랑하는 자를 잃게 된 이데아가 슬픔에 가득차 터뜨린 눈물은 그녀와 이실그라드 주위로 바다만큼 드넓은 광대한 호수를 이루었습니다. 이데아는 그 소년의 따스한 웃음을 한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인하여 아르카나를 소모하여 소년을 호수의 정령으로 만들어 그녀 가까이에 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큰 만큼 소모된 그녀의 기력도 컸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녀는 이실그라드에 발이 묶이게 되어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 요동치던 아르카나가 그녀의 기억과 키오누스의 기록을 담은채 이데아로 퍼져나

가 아벨의 자손의 기억으로, 카인의 핏줄 사이로, 세트의 후예가 있는 숲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키오누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데아는 상처를 입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이 그저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이실그라드는 생명의 태동을 더욱 강하게 하여 점점 힘차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생명의 호수는 빛을 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 이데아가 스스로 이 땅의 생명을 꺼뜨릴 수 없었기에 여전히 저주받은 존재들과 이바와 아다무스의 자손들이 벌여놓은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그녀는 이곳에서 그녀로부터 흩어진 아르카나로 인하야 그녀가 그녀 스스로의 모습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모든이들 또한 바라는 것이겠지요. 이 땅의 대다수가 이전에 이데아가 갖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아는 부디 이 아르카나의 흔적이 올곧은 이들에게 닿아 이 땅을 정화해 주는데 힘써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 뿐이지만 이데아는 이실그라드 안에서 미약하게나마 이곳 저곳에서 펼쳐지는 아르카나의 흐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키오누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이데아의 상처를 더욱 빠르게 낫게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이 아르카나라는 존재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필시 이는 그들의 주장하는 신의 구원 그의 권능에 반하는 무언가였기 때문이

었습니다. 당연히 신성과 함께하는 그들이었기에 아르카나의 흔적들이 속삭이는 그들의 역사나 기록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테지요. 그들은 아르카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이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 하였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마녀의 농간이라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르카나라는 것은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일찍이 손을 봐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힘은 신성력과 맞먹는 것이었고 심지어 이 힘은 신성과 구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아르카나의 존재에 대한 무지는 교황청을 분노케 했습니다. 신의 사자가 이렇게 존재함에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르카나라는 것은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 존재이기에 조금이라도 이것의 움직임을 보이는 자라면 붙잡아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르카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심문하며 고문하였고 이들을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교황청 측은 아르카나의 존재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 여기었기 때문에 아르카나의 사용을 엄격히 금하였고 대부분의 아벨의 자손들은 아르카나의 태동이 약해지고 그 색은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이들중 아르카나와 궁합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르카나의 태동과 공명하는 자들은 아르카나의 흔적을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지운 채 교황청을 뒤로하고 아벨의 장벽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르카나의 흔적을 무엇에 홀린듯이 쫓게 되었습니다.

밤낮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걸음마다 이바와 아다무

스의 저주로 인하여 불경한 존재들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는 듯하였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이들을 막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들은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나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에 들어 온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눈이 부실만큼 맑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을 맞아 더욱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수는 아르카나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가 호수 위를 노닐고 있었습니다. 필시 이들을 부르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르카나의 속삭임이 들리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한참을 호수를 건너왔을까요, 저 멀리 안개로부터 가려진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가 서서히 걷히더니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퀴나즈 모두가 이미 그것을 보기라도 한 듯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실그라드”

그러고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 이들에게 아르카나의 속삭임을 전한 이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데아입니다. 퀴나즈들은 그 어떠한 서약도, 그 어떠한 종교에도 속해있지 않았으며 그녀를 본 적도 없었을 터인데 모두가 빠짐없이 그녀를 향해 예를 표하였습니다. 창조주의 순수한 피조물로써 그 창조주가 빚으신 태고의 생명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향하는 퀴나즈들의 존경과 선망의 표시였습니다. 이들의 첫 조우는 이데아가 뿜어낸 아르카나의 조각들이 신기루처럼 흩날리며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긴 인고의 끝에 이데아와 조우하였고 이실그라드 주변에 서로의 거처를 마련하여 그녀의 기억과 키오누스의 기록을 책으로 집필하여 지식의 보고로 삼았으며 이 책의 이름을 시란두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데아의 언어로 아벨의 자손들의 언어를 빌리자면 '태고로부터 살아 숨쉬던 기록' 이라는 뜻입니다. 이데아의 아르카나의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가 마도서들이 그녀를 도와 더욱 더 많은 퀴나즈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행길을 뚫고 나온 아르카나의 축복을 받은 퀴나즈들이 이실그라드에 모이게 됩니다. 최초의 퀴나즈들과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란두르' 에 그치지 않고 이데아 전체에 전령을 보내어 세상 만물의 지식을 종합하여 집필하였고 이실그라드에 대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교황청이 알지 못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아벨의 자손들이 기억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시란두르' 와 대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방대한 서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들이 집착하는 것 처럼 보이는 기록은 바로 지식이 곧 힘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산물은 아르카나의 태동과 함께 대도서관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원의 전쟁 이후로도 불경한 자들은 이 땅을 줄곧 농락해왔습니다. 교황청은 대법원과의 길고 긴 회의 끝에 마침내 퀴나즈들의 아르카나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교황청과 아벨의 방벽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탓이었을

까요? 하지만 그 능력의 사용에 제한을 네가지 두었는데 하나는 바로 아르카나를 아벨의 자손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 할 것, 둘째로 아벨의 장벽 안에서는 교황청의 허가 하에 아르카나를 아르카나를 사용할 것, 다음은 아벨의 장벽 내에 머물고 있는 아벨의 자손들이 아르카나의 존재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청의 권위와 위상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권위나 위상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이데아를 위한 것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퀴나즈들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하여 퀴나즈와 교황청 사이에는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퀴나즈들은 기꺼이 이실그라드를 지키고 이데아의 상처를 씻기 위하여 엄청나게 방대한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는 아벨의 자손들이 그리도 말하는 구원일 것임이라 이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퀴나즈라는 자들은 그렇게 모인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아르카나의 근원인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를 지키고 이데아의 상처를 씻기 위해 아르카나를 좀 더 유연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어머니 대자연 그 자체인 이데아께서는 그녀의 권능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실 것이며, 불경한 존재들의 마지막 숨길이 꺼지는 그 날 다시한번 아르카나의 태동을 지닌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부디 이 곳 이실그라드에

도 저의 보금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회고록 1쪽 “깨져버린 희망의 조각”

교황청은 분명 아벨의 자손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다른 얼굴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그들의 권위와 위상에 장애가 되는 존재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들 외에 신의 권능을 지닌 자들마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을 이단이나 마녀로 판결. 처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장벽 안팎으로 불경한 이들을 쫓아내기에 그들이 힘에 부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의 권능으로 이들을 모두 심판하기에 역력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낸다면 이들은 구원이나 신의 권능에 더이상 기대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교황청의 존속 문제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자 이들은 교황청은 그들이 지닌 힘과 유사한 신성의 힘을 가진 자들을 포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신성한 이들이라는 뜻의 ‘생투즈’ 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존재가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하야 배척할 것이라 생각되나 반대로 교황청은 이들을 곁에 두고 훈련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사제들을 보내어 신성한 권능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권능이라 함은 본디 아벨의 축복이 대를 내려오면서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 빛이 대를 거치면서도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권능을 지니고서도 그 힘을 조율하지도 못하거니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이죠.

교황청은 이들을 몸소 찾아가 맞이하여 그들에게 질 좋은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며 신의 사자로 살게끔 해주겠다는 명맥하에 그들을 데리고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감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곳은 방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습니다.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오직 작게 타오르는 양초뿐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열수 없게끔 되어있고 오직 밖에서 밖에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이 삭막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무의식에 미처 끌어내지 못했던 신의 권능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문하다시피 교육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훈련은 평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없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개조와 변형이었습니다. 교황청에게도 이들의 능력은 이렇게나 어둡고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특별하고도 쓸모가 있기에 그들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빛이 통하지 않은 깊은 어둠에 깔려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려 발버둥을 쳐도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제들에 의해 거절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이들은 이단이며 마녀며 믿음이 부족한 것에서 온다는 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던 도중 생투즈와 사제사이에 긴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자를 향한 연민

과 동정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이들의 능력은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말해 자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흔이 되고 이는 권능과 축복의 촉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권능이 성흔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이들에 대한 훈련을 강화시켰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모두 데리고 가 교황청 지하에서 그들을 데리고 잔인한 시험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제들의 음성은 따스했고 자애로웠으며, 그들이 지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아니라면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위화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달래는 듯한 어르는 말투로 이들 생투즈의 권능을 자유로이 사용할 때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혹독함과 시험에 이르는 이 과정은 모두 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다독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중에도 그들의 눈에 악의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더욱이 소름끼치게 다가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아벨의 권능을 해방하기에 이르렀으나 성흔으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모르는 이들이었기에 몸과 정신이 버티지 못한채 하나 둘 스스로 망가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권능은 다른 어떠한 힘에도 비할 데 없으나 희생과 고통이 동반된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그 고통을 감내하는 자만이 선출이 되겠지요. 교황청

이 욕심을 내는 이들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예로 들자면 교황청은 아벨의 능력을 재현하는 수준밖에 못되어 치유와 재생 정도지만 이들은 성흔으로 인하야 아벨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몸에 담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휘되는 영광은 재생이 아닌 창생 및 창조의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황청이 바라던 구원의 일부였기에 그 힘을 경외시하였으며 이들을 그리도 탐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세뇌는 계속 되어왔습니다.

성흔이 생겨나오며 지워지기를 수십 수백 아니 수천번은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생투즈 안에서 교황청이 택할만한 자들을 만들기 위하야 고통의 주간이 오늘도 계속 되리니. 그들의 가녀린 신음소리가 교황청 지하에 아스라이 퍼져가고 있었죠. 성흔으로 인하여 몰아치는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는 정신을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벨의 권능을 그들의 자손이 감히 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의 사제들은 이들을 다독이며 더 나아지기를 너그러이 기다려 주겠노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황청이 요구하는 봉사와 헌신의 참된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리 물어본다면 저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들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성흔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며 성흔은 죄악을 회개 하기 위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권능의 방 안에서 생투즈들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담아야 했습니다. 무

의식 속에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죄악이 넘쳐 흘렀나니 그것을 감내하고 자의식으로 버티어 아벨의 권능을 연마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낙원일 터인데 성령을 위하여 죄악의 굴레가 굳이 필요했을까요? 이는 마치 구원을 위하여 죄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러한 역설로 인하여 이들은 성직자들과도 같은 권능을 하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오늘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럿이 죽었고 고통받은 가운데 한 여인이 교황청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생투즈 사이에서 성배로써의 그릇을 오롯이 한 자였습니다. 교황청은 그녀를 예의 주시하게 되고 교황청의 신성한 종복으로 두기를 원하였죠. 울다 지쳐 쓰러진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어 중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그림자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앙상한 팔로 그의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며 주위를 보니 사방에 그녀와 함께했던 자들이 어느새 싸늘한 주검이 되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참상을 낳은지 그녀도 알고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만 그녀는 공허한 눈망울 속에서는 흐르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내 그녀는 이 연인들에게 홀린듯이 다가갔고 이름조차 모르는 자들임

에도 그들 앞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인의 숨은 문턱에 다다라 그 끝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쁘게 내뱉는 숨은 벽을 수놓은 촛불보다 더 가냘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만연에 미소를 띄고 있었습니다.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하여 더이상 죄악의 소용돌이 안에서 성흔으로 오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분명 기쁨으로 인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안고 있는 남성의 얼굴은 자신의 연인을 이렇게 보낼 수 없음에 일그러졌으나 여정을 끝낸 고행자들의 얼굴처럼 이제는 평온을 찾으려는 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마치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 한 순간까지 지켜보려는 듯 서로를 다독이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 연인들에게 다가가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또렷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권능의 방 안에서의 참상은 그녀가 아벨의 권능을 보이매 그것이 빠져나갔고 그 힘을 담을 수 없었던 자들은 몸이 견디지 못하였고 저리도 무력하게 쓰러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참상 뒤에 혼돈의 속에서 그녀를 부른 것은 이들의 목소리였으며 그녀를 구한 자들 역시 이 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속에 파묻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연인들은 온화한 얼굴로 그녀를 감싸안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따스하고 포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 듯 하였습니다.어디선가 따스한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잡을

새 조차 없이 흩어져버렸습니다.

“에스더, 나의 아이.”

그리고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이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떠도는 그녀의 이름과 따스하고 꿈같던 기억만이 남아있었고, 에스더는 여전히 그들이 누군지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이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습니다.

생투즈를 관할하고 있던 사제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발걸음을 뒤로 물리었고 그녀가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왠지모를 슬픔과 그리움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싫었던 그녀였지만, 갑자기 주저앉고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야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조차 모른채 슬픔에 빠져 울고 있던 것입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리고 난 뒤 그녀는 발걸음을 스스로 교황청 앞까지 옮기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에도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권능의 방 안에서 생투즈를 감시하고 있었던 사제들과 같은 이유로 그녀가 가는 앞길을 제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장벽 내의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녀가 주위에 두른 신의 권능과 성스러운 기운으로 인하야 적이 아니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녀를 두려운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때 미약하게나마 그녀로부터 성령을 느끼게 된 이들은 그녀를 맞이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녀를 향

해 기도까지 하는 이도 있었죠. 아벨의 권능이 이미 빛이 바랜자들은 물론 느끼지 못했겠지만요.
그녀는 교황청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교황을 향해 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그녀가 올 것이라 예견한 교황 황실은 이미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그녀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이들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능에 신성함과 동시에 무언가 이질감이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한걸음씩 옮길 때마다 회장의 모두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듯 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워 억눌려 짖이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황청은 그녀를 휘하에 두어 수족처럼 부리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감히 그 말을 꺼낸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 안에 두기에 이미 그녀는 너무나도 커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은 공허함에 텅 비어버렸고 권능과 축복. 교황청의 섬김에 대한 의지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속마음을 모두 읽고 있는 듯했습니다. 적막을 깨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녀가 이르길 저는 교황청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도 그럴 가치도 없으며, 교황청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갖추며 아벨의 자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으며 그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덧붙이기를 더 이상 지하에 권능의 방을 만들어 아벨의 권능을

가진 자들을 시험하지 말라고 교황청에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아니 제 눈에는 인자하고도 자상한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이젠 누가 괴물인지 모를 정도의 성령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배를 채울 그릇들을 발탁하기 위한 성소를 짓도록 부탁하였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신성의 사제들을 원한다면 만들어 주겠다 약조까지 했습니다. 쉴틈 없이도 쏟아내는 그녀의 말에 회장에 참석한 이들은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권능의 방에서 보았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할말을 다 했는지 공허한 눈을 지그시 뜨며 마지막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더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뿜어내는 것에는 명백히 살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곡한 부탁이 아닌 명령, 아니 정중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와 태도에 대해선 고개를 젓게 하였으나, 그녀는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힘은 양날의 검이나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터라 교황청은 그녀가 요청한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에게 교황청에 대한 신뢰와 복종의 의미의 세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함이었겠지요. 에스더는 이는 받아 들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에서 그녀의 세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그녀의 세례는 빛을 발하였으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부서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는 지 모를 정

도로 허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례에 관한 모든 의식이 끝을 맺었고 그녀는 유유히 교황청의 회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으며, 문이 닫히며 내는 차가운 쇠의 파열음이 난 뒤에야 몇몇 사제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마녀를 만들었다며 구원의 방과 이들의 존재를 만들어낸 것이 앞으로 빚어낼 결과를 예측하며 걱정과 근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교황청이 아벨의 장벽 밖에 내어준 성소를 스스로 거처삼아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아벨의 권능이 잠재되어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 성소에 와서도 그들이 당했던 것을 용서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의미에서 생투즈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교황청을 위함이 아닌 오직 아벨의 자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그녀의 기억에서 찢겨나간 슬픔의 흔적과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약이 되겠지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어루만지는 이들이었기에 퀴나즈들과 어느부분의 교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퀴나즈의 일원들은 정령을 보내어 에스더에게 퀴나즈 길드에 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소 의심을 하였지만 에스더는 퀴나즈로부터 시란두르의 기억을 들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으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느낀 그녀는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였고 생투즈는 교황청 소속이 아닌 퀴나즈 소속의 길드에 몸을 맡겼고 비탄에 빠진 이들을 어루만지어 줄 것입니다. 아, 더이상 우리를 해하지 마옵소서.

아미나의 첫번째 가르침 “순수”

아벨이 이데아에 내려와 그들의 자손들에게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그들의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게끔 도우시던 때에 변방의 작은 자유 국가인 아룬-모라는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도 소수의 민족들이 모여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곳의 이글거리는 태양은 이들의 피부의 색을 어둡게 하였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야생과도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하야 시야는 어둠속에서도 언제나 밝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흡사 짐승과도 같은 황안을 띄게 되었습니다. 야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또한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이들은 그들의 육체만큼이나 그들의 야생적 감각과 기민한 정신 또한 한층 더 날카로워 졌습니다. 이들은 야수와도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때로는 그들의 고고하며 무한하고도 순수한 강함에서 나오는 기품은 우아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던 척박한 환경의 오지였지만 아무런 모자람 없이 서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묘령의 여인이 이들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일곱가지 죄악을 등에 업고 이 땅에 내려온 아벨의 첫번째 자손 중 하나인 예네즈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녀의 형제 자매들의 성화에 그녀는 아벨의 자손들이 죄악을 지고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가름 하기 위하야 친히 이데아에 내려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든 자들이 바로 아룬-모라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대와 같이도 처음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었답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이 가진 힘을 두루 물려받는다고들 하죠. 아룬-모라의 아이들 역시 아벨의 권능 중에서도 강인한 육체를 받은 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대개의 아벨의 자손들은 대를 거치며 그 힘이 약해졌으나 이들의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 빛이 바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강인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었기에 구원이나 죄악과는 거리가 먼듯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네즈는 이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에 매달리거나 원죄에 쉽게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순수하고도 맑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라 여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그녀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도태되어 이데아에 내려온 것이라 치부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룬-모라의 아이들은 그녀가 관철하려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대로 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룬-모라의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아까운 자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야생적이지만 그 자체로의 순수함이야말로 이데아의 모든 아벨의 자손들이 지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곁에 남아 죄악을 지닌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 길을 이들과 함께 열고자 한 것이죠.

다만, 예네즈는 그들의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죄를 짊어지며 구원의 길로 지친 양들을 이끌어 가는 편을 택했죠. 그녀는 구원과 소망이 가지는 원대한 힘으로 죄를 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존재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관용과 자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이 그녀의 뜻을 알아줄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홀로 발걸음을 옮기어 아룬-모라의 아이들의 존재를 교황청에 알렸습니다. 이리도 순수한 영혼이 변방의 척박한 땅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아벨의 자손들이 바라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교황청이 아벨의 장벽안으로 이들을 거두어 더 윤택하며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교황청에 모습을 드러낸 예네즈는 교황청에서 두터운 선망을 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위하야 스스로 등을 드러내어 죄악을 담은 것을 보여주시매 이들은 감복하였고 아룬-모라의 순수한 영혼을 지닌 아이들을 잘 거두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교황청은 그들의 사절단을 아룬-모라에 보냈습니다. 안락하고 포근한 기후에 비해 지옥과도 같았던 날씨는 이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교황청 측은 이조차도 몹시 불쾌해 했습니다. 마침내 교황청과 아룬-모라의 아이들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청 측은 이들과 마주하고는 당황한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짐승과도 같이 문명과는 다소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티없이 순수함을 간직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찌 이리도 성스러운 기운을 띄고 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몇일 뒤 예네즈는 아룬-모라의 아이들을 데리고 아벨의 장벽 안으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벽 내의 아벨의 자손들과 교황청은 사절단과 예네즈가 데리고 온 아룬-모라의 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황청과의 화합과 조화를 가지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했을 테지요. 그리고 교황청의 이들에게 구원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교황청은 하루 아침에 이 결정을 이룰 수 없다고 예네즈에게 이른뒤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고 당분간 아벨의 장벽 안에 머물러 있으라 부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모습은 아벨의 장벽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고 단순히 그들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비추는 황색의 눈동자와 어두운 그들의 피부를 빗대어 심지어는 이들을 이바와 아다무스가 만들어낸 저주의 산물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거리에 무성하게 돌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들을 찾아내어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심지어 이들을 아벨의 자손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황청의 원로 내부 안에서는 쉽사리 이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진 신비로운 무언가는 분명 신성한 아벨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그

들에게 흐르는 것을 교황청으로써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의 그들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감수하고 나서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아벨의 은총이요 그의 권능이거늘 감히 사막의 들개들이 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아벨의 장벽 내의 자손들이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군대를 움직여 아룬-모라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견에 수렴했습니다.
그 모습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네즈가 교황청에 난입하야 등에 새긴 죄악의 이빨을 전부 드러내며 교황청의 모든 이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하늘이 어두워지매 태양은 그 빛이 어두워져 아벨의 장벽 내에 있는 모든이가 공포에 질려했습니다. 이는 전쟁선포가 아니었으나 교황청 대한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자 하려는 마음은 없었기에 그녀의 분노를 가라 앉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등에 진 죄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또한 그들에게 이르길 교황청은 아룬-모라의 민족들 역시도 아벨의 피가 흐르는 자손임을 장벽 내의 자손들에게 알렸고 저주 받은 자들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룬-모라의 아이들을 데리고 교황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태양빛은 돌아왔습니다. 에네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이 영원의 전쟁에서 피를 흘려가며 구원하고자 한 그들의 자손들은 그들의 자손들조차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죽이려 했던 것입니

다. 영원의 전쟁 후에 설립된 교황청은 그녀가 바라며 그리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오면서 악은 극에 치닫게 되었고 시대를 지나며 역사를 반복해오며 달라진 것이 하나 없고 배운 것조차 없었죠.

예네즈는 그녀가 여지껏 등에 짊어온 죄와 그녀가 그녀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주장해 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회한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실망과 좌절, 분노와 허무. 이 모든 감정들이 그녀를 몰아치듯이 감쌌습니다. 아룬-모라의 순수한 영혼을 사지로 끌어들인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으며, 차마 아룬-모라의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한참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눈에 담은 그 곳은 무수한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에 쪼개져 흩날렸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곳. 그리고 그에 걸맞는 존재들이 숨쉬는 아룬-모라였습니다. 한참 뒤 쓰러진 그녀의 주위로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마침내 달빛이 훑고 지나간 뒤로 아룬-모라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 둘 선명하게 비쳐지니 황무지에 그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던 그들을 위하야 이빨을 드러낸 예니즈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움과도 같은 모습이었고 짐승과 같이 살아와 다른이들로부터 배척밖에 받아오지 않았던 자들은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예네즈는 모래에 반사되어 찬란히 빛나는 달빛에 눈을 떴습니다. 아룬-모라의 이들이 삼삼오오 그녀의 곁에 머물러 그녀를 보듬고 있었습니

다. 가늘게 타오르는 모닥불들 사이에서 이들의 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받은 것은 받은만큼 그대로 돌려 주는 그들의 척박한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법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네즈로부터 스며들어온 따스한 그 감정은 아룬-모라의 눈부신 태양처럼 뜨거웠습니다. 때문에 사막의 자식들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 주게 됩니다. 오히려 단순한 길을 걸어온 이들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다소 투박하며 거칠며 문명에 뒤떨어진 방법이었으나, 그 어떠한 치유와도 견줄 수 없는 거대하며 안락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에 예네즈는 더욱이 이들이 모든이들의 구원에 가장 적합한 이들이었고 아니, 이들 뿐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녀는 이들의 호의에 감사하였고 이들 역시 그녀의 의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네즈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나서야 그녀는 달빛이 펼쳐진 모래 언덕 위에 섰습니다. 예네즈는 이들로 인해 다시한번 이데아에 내려왔음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속삭임은 그저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들의 잠재력만 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실로 거대하여 그들은 그들안에 내재된 직감이나 본능같이도 추상적인 물질을 외부로 형체화하며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벨의 자손이 가진 잠재력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녀가 가진 권능 중 하나를 내려 줄 수도 있었을 터였지만 그 힘은 죄를 동반한 것이었기에 순수한 이들을 더럽히

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나치도록 편향된 이들의 내재된 야수성을 잠재울 수 있게끔 내면의 평화를 찾게 도왔고 심신의 안정을 주게끔 하였습니다. 혼란한 마음에 평정심을 주어 그들이 본래 지니었던 힘이 그들 스스로를 좀 먹지 않게끔 해 주었습니다. 다시말해 그녀의 존재가 그들이 스스로 짐승이 되지 않게끔 마음의 소리로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달빛 밝은 밤 모래 언덕 위에서 그들의 내성을 조율하는 그녀의 자애로운 모습을 보고는 모래달빛 속 여신 이라는 뜻의 '아미나' 라고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벨과 형제 자매들이 부르는 예네즈라는 이름 대신 이들이 부르는 소리로 불려지길 원하였기에 예네즈라는 이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막의 땅 아룬-모라에서 그들의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녀는 땅을 울리는 듯한 고동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아미나는 이 고동을 향하여 그녀의 동행을 데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다른 그곳에서 거대한 호수와 마주쳤고 더 깊게 나아가서는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와 생명의 어머니인 이데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을 밟는데 이데아는 그 어떠한 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카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것이었고 아니라고 하기엔 티없이 순수하고도 깨끗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데아와 아미나는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눈의 초점이 흐려지더니 잠시 파르르 떨리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이 둘은

서로의 기운으로 그들의 의식을 섞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 어떠한 악의를 보이지 않는 이들은 퀴나즈와 마주하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르고 있던 기의 형태와 아르카나의 성질이 비슷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마치 형제를 만나기라도 한듯이 말이죠. 이는 이실그라드의 퀴나즈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란두르에 이들이 지닌 기묘한 힘을 기라 적고 아룬-모라에서 발걸음을 한 사제들을 일컬어 아룬-모라의 모래, 기공사라 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미나도 이실그라드의 이들에게 느껴지는 묘한 동질감에 마음이 놓였는지 그리 불러도 될 것을 정중히 허락하였습니다. 이데아의 언어로 아르카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기라 하는 것과도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르카나의 성질과 신성한 것과 야생의 기민함 그리고 일곱개의 죄악이 묘하게 어우러진 것에 가깝겠군요. 기공사는 그들의 선천적인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아르카나를 육체에 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라 합니다. 퀴나즈가 아르카나를 좀 더 섬세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는 있지만 아르카나를 육체에 직접 담는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위라고 알려져 있죠. 최악의 경우에 아르카나 중독에 빠지거나 목숨이 위험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하기에 퀴나즈들도 이들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르카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아르카나가 가진 기의 흐름을 느끼고 이실그라드까지 찾아 온 것에 대해 이데아는 이들이 아르카나의 속삭임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임을 인지하고 이데아는

아미나에게 퀴나즈 길드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교황청과 의 계약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 언짢아했으나, 이데아의 끊임없는 설득과 생투즈라는 자들을 받아들인 이데아의 자애로운 마음에 그들의 요청을 끝내 수락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습에서 아룬-모라의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였을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일안에 교황청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교황청은 그동안 아룬-모라의 사제에게 행한 모욕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고, 애매모호했지만 심심한 사과와 함께 그들에게 유감과 실망을 표했습니다. 아룬-모라의 사제들은 퀴나즈 길드의 일원으로써 이들의 다소 껄끄러웠던 화해를 받아 들였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들의 고행은 영원의 전쟁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래언덕 위에서 저는 달빛 속에서 평화로운 이들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읊조렸죠.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의 육체와 정신을 강하게 하옵고 모든 아벨의 자손들에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함에 일갈을 다짐하며 우리는 수행과 고행의 길을 기꺼이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미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항전가 제1절 “해방의 노래”

영원의 전쟁에서 영광의 승기를 거머쥔 자손들은 세대를 거쳐가며 더욱 추악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보시오.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여. 이것이 당신이 만든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입니다. 당신들과 영원의 전쟁을 치루었던 국왕은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뀌게 하였는지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무언가를 믿으려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은 폐허를 만들었고 그 폐혀 속에서 아벨의 자손들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의심하고 해하며 후에 무정부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 정녕 이들은 그들을 지탱해 주는 무언가가 없으면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일까요?

국왕에 반하여 모든이가 일었고 그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자였으나 마지막은 역시 그가 뿌린대로 거두어 갔습니다. 공국은 너무나 허무하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의 희망을 바라는 이들이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일어나 민병대를 창설합니다.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들을 그들 스스로 일어나려는 날갯짓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 하려는 자들은 민병대 가운데에서도 극단적인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직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공국을 잇는 교황청은 아벨의 장벽을 세워 장벽의 모든 이를 지키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모든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 복수 이외에 다른 문제로 아벨의 자손은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더욱이 교황청에 고개 숙이어야만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채찍아래에 아벨의 자손을 더욱더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선 예와 다를 것이 없었죠.

더럽고 추악한 습지 근처 지하도시에 살고 있음. 혹독하고도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빵과 와인이 아닌 무릇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벌레 같은 걸 주식으로 처먹고 있었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좋고 영양만점이다 해. 먹을거조차 별로 없는 환경에서 이들은 그나마 그걸 양식하면서 잘 처먹고 살아. 그래서 얘네는 어디에 가도 생존력이 짱짱맨이다 이거임. 적응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아벨의 장벽으로 둘러진 그곳에만 교황청의 손길이 닿을뿐 그 밖의 자치국가는 이데아에 내려진 저주로 인하여 언제나 고통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민병대의 정신을 지닌 자들은 비질런트가 되었고 나머지 민병대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자들은 장벽을 넘어 그들만의 집단을 구성하니 이들은 스스로를 브리강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추악한 욕망과 엇나간 믿음만은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죽어있는 자들보다 못한 이들이라 여기었습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만 의지하고만 사는 이들의 모습에 질려버린 것이었겠지요. 그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바라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이 곧 투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상에 미치어 그것만 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교황청이나

그곳에서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종교관은 다소 어긋나 있다고 진술합니다. 그들은 오랜시간을 희망에 목을 매다 그들 스스로 일어서려 하는 법을 잃었고 눈이 먼 듯 했습니다. 사실 브리강라고 하는 자들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저 민병대에 속해있던 다소 극단적인 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브리강의 불씨를 지핀 건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피의 복수’ 중 사상이 불손한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나무에 묶이어 태워졌는데, 이들은 교황청의 특별 지시로 인하야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마을이 전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악의조차 없었습니다. 불빛에 뛰어드는 벌레를 잡는데 소모되는 감정이 없듯이 이들에게도 그저 이 행위가 다름아닌 박멸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처벌은 브리강를 완전히 교황청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을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좀먹으로 그들의 간절함 사이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에 빗대며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밟아 죽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영원한 신도 영원한 존재도 없다고 여기었습니다. 눈과 귀가 먼 믿음을 조롱하며 비판하였고 구원을 부르짖는 것들도 그들에 홀려 사리구분을 못하는 자들도 모두 태워 버리겠다고 외쳤죠. 삐뚤어지고 뒤틀린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그들의 보금자리를 찾고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약삭빨라야 했습니다. 의심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죽여야 했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하야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거리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이들은 살인, 폭력, 협박, 절도, 강간, 매춘, 위조, 방관, 호위, 납치, 배달 등등 생존에 필요하다면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노라고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이들을 지탱하게 한 힘이 되었고 교황청에 반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항상 금욕과 믿음과 신앙으로 구원인 삶을 살아가는 방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생활양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충동적이었고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먹고 자며 오직 생존만을 위한 투쟁이 그들에게 있어서 치열하고 정신없지만 피부에 사실적으로도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방벽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 둘 빠져 나가기도 했죠. 물론 교황청은 이러한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황청은 사상이 불순한 자라는 오명만이 아닌 교황청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어 달콤함으로 이들을 꾀어내는 이단자들이라 최후선언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벨의 장벽의 경계는 더욱더 삼엄 해졌습니다.
이는 저주받은 자들로부터 보호의 목적으로는 성공한 셈이었지만, 자유로이 왕래하던 아벨의 자손들에게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립국가

간 왕래도 자유로이 허가되지 않았으니, 결국 분단이 된 셈이었습니다. 교황청의 명령하에 오가는 것이 아니면 장벽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가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백에 하나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각종 문서와 단속으로 인해 버거움만 늘어가니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킬만한 무기가 필요했기에 마이스터 독립국가인 윌즈에 찾아갔습니다. 부탁을 하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협박과 약탈을 위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윌즈는 그들이 가진 마법을 가지고 브리강의 으름장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법을 쓰는 지는 모르겠으나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이들이 가진 무기와 더불어 이들이 쓰는 마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윌즈는 이들의 무모하지만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무릎쓰는 그 정신과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높이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념이나 신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자가 없고 구원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면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후에 마이스터의 길드가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가져다 오거나 교황청의 횡포에서 그들의 방패막이 되는 등의 호의를 베풀어 그들과 거래를 하는 관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류하는 자들은 비단 마이스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면 모조리 이용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북방의 마녀와도 교류가 잦았는데 이들은 마이스터와 달리 교황청에 반하는 자들이

었기에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이들의 시약과 약물 기이한 폭발물들은 이들의 무기고를 풍족하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이 아벨의 자손들 이외의 카인의 핏줄이나 세트의 후예를 경악케 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 무기라고 해야겠군요. 그것은 바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변해버린 불순한 존재들까지도 사육한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카인의 피가 유용하다면 이들은 그마저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트의 발톱과 가죽이 유용하다면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산채로 그것들을 뜯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강의 싸움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면 동맹관계였고 해가 된다면 단연적이 됩니다. 간단한 법칙이죠. 아벨의 자손이라고 하기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데아는 전율하게 하죠.

저는 극악무도하다던 브리강의 거처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리안 잭이라는 철광이 잠든 협곡에 지하도시를 세우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한 이유는 마이스터들이 원하는 철광을 보유한 땅이기도 하였으나 이곳에 있는 방대한 양의 철광으로 인하야 그들의 나침반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협곡에서 웅웅거리듯이 기이하게 울리는 것은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의 집중력을 방해케 하는 데도 일조하였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그들이 워낳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 확신했습니다.

모리안 잭 시타델한테 주고 얘네는 지하도시로 할까? 그리고 말대신 산

양 같은거

시타델한테는 모리안 잭+산양+북방의 바이킹+혹독한 추위+대검총포 느낌을 주고

브리강한테는 지하도시+매드맥스+느와르+시궁창+폭약 같은 느낌을 주는 걸로 수정

ㅇㅏ 펑크는 안댐 스팀!은 마이스터 꺼임 아니면 브리강을 저세상 펑크!로 하덩가

하지만 브리강의 세계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살인와 폭력이 난무하기에 어수룩한 자는 한시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극히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철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그들 사이에서 '철의 전쟁' 이라고 하는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맥의 소유자를 두고 암투와 살인이 당연하게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재하고 나선이는 바로 브리강의 첫번째 지도자 '볼타 이그너' 였습니다. 그는 브리강을 이끈 지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라는 말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히 정신병자라고 불리는 부류였습니다. 그는 오직 무력으로 거리의 모든 이들을 규합하였고 그보다 강한 자에게 언제든지 죽을 것이라는 외침이 지하도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자기과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상하체계가 아닌 이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여서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권위적인 것이 아

닌 ‘수평적인’ 이 체계는 모리안 잭 안의 지하세계의 모든 이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불어 넣었습니다. 이들은 포와 총을 터뜨려가며 환호했고 볼타의 정신나간 이 연설은 모든이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살기 위한 투쟁은 본능을 일깨워 주고 그 본능은 생존의 확률을 극도로 높혀줍니다. 이 안에서는 기도따위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겐 빵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 만이 이 지하세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볼타가 원하는 바였죠. 모두가 이 지하의 주인인 것이죠. 이곳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전에 말한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곳의 주인인 셈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둑질을 하는 저 녀석도, 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도, 술집에서 전리품으로 오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피가 튀는 패싸움에 승리한 저 깡패도, 의뢰를 받아 사람을 여럿 죽인 저 소녀도 모두가 주인이며 지도자인 셈입니다. 사실을 볼타는 그저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을 뿐 모든 것은 이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이 길바닥의 진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도 볼타의 목에 혹은 이들 모두의 목에 현상금을 내걸고 잡아들인다 해도 이들의 뿌리는 뽑힐래야 뽑힐 수가 없는 것이였습니다. 볼타가 죽어도 분명 저중 하나는 당여낳게도 브리강을 이끌 것입니다. 흥미가 생긴 저는 이들의 생활방식에 녹아들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기도보다는 등 뒤에 칼을 꽂는 것에 더 능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곳은 최적의 장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불길로 인하야 그들의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폭발과 불꽃으로 우리가 당한만큼 그들에게 되갚아 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분노는 커다란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펴진 불꽃은 아벨의 장벽 내 자손들에게까지 닿을 것이라 이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사람 밥값을 한다면 모리안 잭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못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시체가 되어 있겠지요. 우린 이제 아벨의 자손따위가 어찌되든 간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브리강의 길바닥 생활은 아벨의 장벽에 숨어서 기도하는 저 겁쟁이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에만 안주하는 삶과 스스로 일어서는 힘 둘 중 그 누가 마지막에 서 있을런지 이들의 곁에서 함께 지켜 보도록 하죠.

마녀의 책 1편 “한밤의 아리아”

마녀사냥. 이 한 마디로 마녀라는 존재가 아벨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그 누구도 함부로 안다고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실런지요. 마녀들의 뿌리도 아벨의 자손으로부터 뻗어져 나왔다는 것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마녀라 불리우는 애초에 아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교황청에 봉사하고 있던 자들이었죠. 교황청 안에서도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의 투쟁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원로회에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라면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교황청 안을 가득 메우는 그들의 권능은 빛으로 눈을 멀게 하는 듯 했고 금방이라도 심판의 벼락이 내려 칠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절제된 모습 사이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그들 사이에서 정권이 약해진다는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며 심지어는 정권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이들은 사제직마저 파면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단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고 화형당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교황청 내에 정치다툼과 이념 싸움으로 인하여 이들은 한순간 인생의 나락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고문과 고통을 맞이하였고 그 동안 이들

은 온갖 죄악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들은 본디 그 신성함을 몸에 지니고 있던 자들이었으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한 악은 이들을 잠식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성한 권능이 그들 안에 휘몰아친 죄악과 한데 뒤섞이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니 이기의 힘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들 안에 있던 아벨의 권능은 그 빛을 잃어 이들은 영원토록 아벨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운 힘을 받아들였나니, 그 힘은 계속해서 이들 귀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문을 부수고 사제들을 죽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장벽을 넘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에 몸을 숨기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아벨의 장벽으로 넘어와 아벨의 자손들을 하나 둘 현혹시키기 시작하여 사람을 모았습니다. 물론 쓸만한 사람들로요. 그렇게 이들은 교황청에 반하는 조직의 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키워 나갔습니다.

마녀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아르카나라는 존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야 그 아르카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실그라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어머니 아르카나를 낳으신 자. 이데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르카나의 존재는 이들에게 참으로도 매력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르카나의 속삭임과 함께 바위를 부술수도 있었고 그들이 가진 힘을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아르카나라는 존재라면 교황청을 부술 수 있겠다고 여기어 이데아에게

아르카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안에는 오직 악의만이 가득차 있었고 이데아가 당연히 이를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녀들은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그녀에게 그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없었던 것은 퀴나즈들 때문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데아가 가지고 있던 힘은 형용할 수 없을만큼의 거대한 것이었고 그녀의 힘을 몹시도 탐냈기 때문이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들의 인색은 분노로 일그러져 이를 포기하지 않고는 질투심에 이실그라드의 뿌리를 다치게 하는 도중에 호수를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호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나 이데아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와 가꾸던 자식과도 같은 아르카나의 샘이 더럽혀 진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데아는 그 사실에 분노하던 퀴나즈들의 지팡이를 거두게 하였고 그녀 스스로 이실그라드를 움직여 도망치던 마녀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몸안에 아르카나를 주입합니다. 마녀들의 땅에 도착한 마녀들은 아르카나를 통해 이데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한과 슬픔,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녀들 안에 잠들고 있던 아르카나를 증식하게 하여 치사량의 중독량을 만들어 냈습니다. 넘치는 물을 담아 낼 그릇은 결국 깨어지기 마련이었던 것일까요? 치사량의 중독량에 버티지 못하고 많은 수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녀들은 마지막 숨을 다하면서도 저주를 뱉어내었고 이들의 땅은 그 저주로 인하야 생명은 시들고 말라버렸으며 풀 한포기 자라나지 못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들중에서 엄청난 양의 아르카나를 몸에 담고도 중독되어 미쳐버리지 않고 이성을 유지한 자들이 나왔으니 그들은 진정한 마녀의 그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 그 힘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던 마녀 셋이 있었는데 후에 이들을 운명의 자매들이라고 하여 ‘퀴소’, ‘락시’, ‘아로스’ 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녀들은 살아남았고 어느정도의 아르카나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녀들 피에 띈 아르카나의 색은 이데아가 가지고 있는 색이 아니었습니다. 탁하고, 더럽고, 부패하며, 증오의 빛깔을 띄고 있었습니다. 아르카나로부터 나온 것이었지만 아르카나가 아닌 것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 대부분이 이러한 성질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병들게 하였고 시들게 하였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부터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언제나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 변화는 때로는 감히 몸에 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버려야만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무엇보다 그들 안에서 몰아치는 힘들은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힘으로 정신이 이상해지는 자들이 속출하였고 엄청난 힘에 취한 이들은 그 힘의 한계를 모른채 남용하다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되어버리고는 했습니다. 미지의 힘을 다루는 데에 그 대가는 가혹했죠.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것 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난제에 고민하고 있던 도중 퀴나즈들과 교류하는 자들 중에 사막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소식

을 듣게 됩니다. 이 사막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마녀들은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숨긴채 아룬-모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염탐한 마녀들은7개의 대죄를 품고 있는 아미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 힘 마저 탐내게 됩니다. 아룬-모라에서 발견한 사실은 마녀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루는 것은 죄악의 힘이었고 그 힘을 사용한만큼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만 했고, 죄악의 힘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것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기에 아미나의 팔 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를 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속박을 풀어준 아미나를 사막의 수호자들이 그냥 보내줄리 없었죠. 운명의 자매들은 이들과 직접 조우하여 아미나로부터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마침내 직접 아룬-모라를 방문합니다.

아룬-모라에서 운명의 자매들은 아미나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이실그라드에서 행한 그들의 만행과 이들 속에 꿈틀대고 있던 어둠과 병든 마음들을 보고 거절합니다. 마녀들이 원하던 것은 힘을 다스려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힘을 내 것으로 다스려 최소의 부작용으로 최강의 힘을 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기에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눈치챈 아미나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운명의 자매들은 이데아가 그들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아르카나를 몸에 담아 치사량의

중독량을 만들어 내어 화풀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막의 수호자들의 체질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이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들의 의도를 알게된 아미나는 이 행동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녀들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죄악의 힘을 교황청에서 보였줬던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죄악의 어금니를 드러낸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운명의 자매들은 아미나의 힘에 전율하게 되고 이를 두려워 하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힘에 대한 탐구를 부추겼고 점점 더 아미나를 손에 넣기를 원했습니다. 죄악을 등에 업고 그 힘을 사용하는 아미나가 서야 할 곳은 사막의 수호자가 아닌 마녀들의 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진 힘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퀴나즈 길드를 찾아가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길 원했으나 그들 안에 잠들고 있던 검은 속내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자매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얻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들의 몸을 갉아먹는 일이라도 말이지요. 어차피 그것은 정해져 있던 것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고통과 증오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인 이들을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그리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의 영광부터 이 땅의 밑바닥까지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몸을 담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증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화살은 이제 아벨의 자손들 모두에게 향하게 되죠.

더이상 마녀들에게 소속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브리강이라 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구원과 신이란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역시 그저 이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 뿐이었죠. 운명의 자매들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도우면서도 나중에는 이들을 방패삼아 퀴나즈 길드마저 불태울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의 자매들은 마녀들을 이끌고 반란대에 속하여 브리강과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너무나도 다르지만 닮은 구석이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윌즈의 마이스터들이었습니다. 마녀가 가지고 있던 시약이나 약물은 윌즈의 길드 내 마이스터 중에서 의학에 빼어난 자들에 의해 아벨의 자손들의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마녀들이 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의학길드로부터의 소식이 교황청에 닿자 교황청은 그

이들은 그 외의 다른 어떠한 누구와도 교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벨의 자손들과는 말이죠.하지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들이 카인의 핏줄과도 혹은 세트의 후예와도 교류가 빈번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벨의 장벽 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마녀 집회에서 이들은 다른 일족들과 삼삼오오 모이여 환락의 축제를 벌인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만월이 짙은 밤이겠지요. 마력이 충분한 바로 그 때에 이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파괴의 장을 벌이는 건지도 모르겠군요. 어쩌면 이들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아벨의 자

손들일지 모릅니다. 아르카나가 충만한 밤에 다른 종족과 섞이는 것은 무서우면서도 매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마녀들을 두고 더 이상 이들을 아벨의 자손이라 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벨의 자손들이 아닌 것들과 교류하며 그들이 가진 양날의 검과도 같은 뒤틀린 힘을 더욱 자유자재로 쓰고 죽음으로부터 멀게 하기 위해 어둡고 깊은 곳, 저주로 인하야 변해버린 소름끼치는 그 곳에서 마녀의 솥단지는 꺼지지 않는 저 지옥불처럼 계속 기이한 불빛을 토해내고 절규하며 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다할때 쯤이면 우리에게 칼과 지팡이를 들이댄 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힘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누구의 자손인지 그것은 후에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살고 죽을지는 그들이 아닌 우리가 결정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벨의 권능이 아닌 다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내 저는 그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았던 감옥에서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 같았죠. 아벨의 권능으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과 안락함에 스르르 눈이 감기었습니다. 어느 빛이 구원을 말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시도 솥단지의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저들이 방벽 아래에서 손모아 구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소 검고 어두운 것일지라도 말이지요. 구원은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아벨론이 이교도라 부르는 존재들은 가장 악질적인 존재로써 교황청과 항상 대립해 왔습니다. 이교도라 불리는 이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받아 불경한 존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엄연한 아벨의 자손 중 하나였습니다. 저주로 인하야 모습만 변했을뿐 그들은 아벨의 자손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며 똑같이 가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나니 저주로 몸은 쇠약해져가고 이성의 끈을 놓을 수 없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걸 말입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이 받았을 충격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날의 평온하고 따스했던 삶이 한순간에 깨져버렸던 거죠. 그들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것도 이상할리 없는 것입니다.

아이데오른에 발걸음을 하지말라.

그곳은 저주받은 땅.

그곳에 살고있는 자.

저들과 살을 맞댄다면 썩어 문들어질 것이고

저들과 말을 나누면 혀가 잘려질 것이고

저들과 교감을 하면 영혼은 찢어발겨질 것이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실로 그러한 자들이라.

근데 애네는 저주 받아서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카인의 핏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트의 후예들도 아니니,
저들은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살아갈 수 없으니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모이어 이 모든 원흉을 만든 자들을 죽이고 이 땅 이데아는 폐허로 만들어내어 다시금 창조주께서 빚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들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요.

몸에는 저들만이 해독 가능한 기이한 문신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저들 스스로 몸에 새겨 넣은 거임. 안 잊어 버릴라고.

그들의 몸은 점점 온몸이 저주에 잠식되어갔고 아벨의 자손들이 가진 생김새나 살점, 그들 안에 흐르는 피마저도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이데아를 떠도는 그들과 다를바 없는 모습이 되었죠.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떨어져 흐르는 살점은 실로 꿰메어 괴이한 모습을 하였고 곪아 터져버린 곳은 아무 살점이나 덧댄 모습이었습니다. 간신히 아벨의 자손의 형체만 남아있는 듯한 생김새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는 참으로 야속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겪어오는 과정에 여전히 아벨의 자손으로서의 이성은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들이 변하는 모습에 자괴감에 빠져야만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괴이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아아, 차라리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식마저도 잃었더

라면 그러한 치욕과 수모를 겪어야 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몸의 대부분을 붕대로 휘감아 흉한 모습을 감추고자 했습니다.

저주받은 이들중에서도 눈물이 많고 마음이 약한 감정이 유독 풍부한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로에라 불렀습니다. 그녀도 비록 저주받은 몸이었지만 완전히 잠식되어가기 전까지 아벨의 자손이기에 가질 수 있었던 감정들을 전부 잃어버리기 전에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데오른' 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고 저주로 인하야 삶의 목적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한데 모아 서로를 보듬게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주로 모든 감정을 잃기 전에 벽에 그들이 여기 있었노라 하는 문자를 새겨 넣었고 후에 그들이 누구인지 떠올리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돌에 새긴 그 짧은 역사는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실낱같은 희망이었겠지요. 그들의 존재가 여기 있음을 한탄하듯 풀어낸 돌에 새긴 글로써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은 글이라는 뜻의 일락시움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모아 나즈막히 읊조린 한마디는 조용히 서로의 말라 비틀어져버린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필그림… … ."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었으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고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를 위

안하는 말이었으며,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전염병과 저주받은 아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곧 아벨의 장벽까지 닿게 되었고 교황청은 이 자들을 불경한 존재들이라 여기었습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은 교황청은 이들을 색출하여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필그림은 갈 곳을 잃고 항상 방황하며 그저 교황청으로부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저주로 인하야 불경한 존재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녕 빛의 사자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조차 건네어 주지 않고 망설임 없이 이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교황청의 이러한 태도는 필그림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섬기는 자들을 혐오하도록 만드는데 기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황청을 포함하여 숭배하는 자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구원까지 부정합니다. 구원하는 자가 있었더라면, 아벨이 카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이바와 아다무스가 창조의 권능에 취하여 그들의 자식들에게 시험에 들게하지 않았더라면, 창조주께서 이데아에 이들을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평화로이 식탁에서 난로에 둘러앉아 달콤한 와인과 빵을 먹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감추었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저주는 곧 그들의 몸을 스스로 지킬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잠들고 있는 저주는 그들에게 어떠한 고통도 감

내할 수 있는 육체를 주었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말해야 맞는 말이겠군요. 저주는 그들에게서 감정을 앗아갔습니다. 이윽고 교황청으로부터 신의 사자가 이들을 정화하기 위해 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빛으로 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의치 않아요. 나는 너고 너는 나. 난 죽어도 죽지 않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교황청이 함부로 내뱉었던 그 말을 다시 주워담지 않기를. 우리는 나는 너는 창조주에게 이데아에 사는 생명을 거두고 그 폐허 위로 다시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함을 기원하고 있음이니. 그대들의 기원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을테니.

녹아내리는 살점에도 개의치 않았던 이들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감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회한에 빠졌고 그 뒤로는 아무도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의 풍경은 그저 나뒹구는 신의 사자들 시체 위로 서있었고, 교황청의 믿음에 대한 배신과 배반감으로 이들이 간신히 쥐고 있던 이성마저 망가져 더이상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슬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을 태우는 듯한 분노와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한바탕 휩쓸었고 그 뒤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이상 행복, 사랑같은 감정도 심지어는 증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픔도 느

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사랑하는 자의 목이 뒹굴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슬픈 꼭두각시가 있다면 이들을 부르는 것이겠지요. 저주가 그들을 완전히 잠식하기 전 그들이 되뇌였던 그들을 움직이는 몇 가지의 사명만이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로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제거였습니다. 비록 모든 감정을 잃어 분노조차 남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 분노는 그저 그들이 완수해야 할 사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들을 포함한 이데아의 모든 불경한 존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을 때에도 그들 대부분은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주로 인하야 다른 아벨의 자손보다 수명이 대폭 늘게 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며 저주받은 이 땅에 숨을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은 낙원 위에서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벨의 자손으로써 평온히 눈을 감고자 했던 것이었죠. 비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었지만 공포마저도 없어진다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쉽게 스스로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나중에 추가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벨론을 비롯한 모든 아벨의 자손들을 정화하고 부수어 폐허를 만들고 그 폐허위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폐허 위로 창조주께서는 부정한 생명이 없는 깨끗하고 맑은 이데아에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낳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 창조주께서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계시다면 그리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창조주

께 다시금 이데아에 생명을 뿌리실 폐허를 바치기 위한 길에 선 것이죠.
이들은 기록으로조차 몇 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창조주에게 생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벨의 자손들 중 누구도 창조주를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도 많았죠.
필그림이 고행의 길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장벽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이들을 두고 손가락질 하며 비웃겠지요. 하지만 그 누구라도 이들의 집념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이들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아벨의 자손들은 망가져 있습니다. 더럽고 간사한 악의 피로 물들어져 있음에도 뻔뻔하게도 그들은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필그림은 이 자들이 행하였던 그리고 현재 행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행할 만행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부수어 다시 만들어 내는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이데아에 새 생명을 낳을 자는 창조주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일이고 거짓으로 구원을 부르짖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입니다. 그 소임을 이들이 다할 것입니다.
감정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역시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을 걷는 이들은 비할데 없이 강합니다. 이들이 강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이들이 가진 사명감과 그를 바탕으로 한신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집단이 아님에도 누가 이들을 이끌고 있는지 누가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를 수 밖에요. 이들을 조종하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 옆에 함께 선 순례자들과 함께 걸어 나갑니다. 감정을 모두 잃은 탓이었을까요? 내가 죽어도 껍떼기는 죽을 뿐이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내 옆에서 선 자가 내가 되어 주어진 일을 다하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교황청은 이들의 이단행위와 이들의 선동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기에 바이스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이들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끌어 들이기에 다소 껄끄러운 자들이었죠. 심지어는 브리강도 마녀들도 이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했으며 최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물리적 충돌, 마찰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리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진 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가진 끈질김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도 모르고 불로 태워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오는 모습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그 자체의 모습을 연상케 하여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기이하고도 소름끼치는 이들의 움직임은 심지어는 다른 후손들에게까지 경계의 대상이었죠.

카인의 핏줄 마저도 아벨의 자손들은 으레 공포에 질려 목숨을 구걸하며 이데아에 피를 뿌리며 죽어가야 정상일 터인데 이들은 내장을 흘리며 걸어도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모습에 살육의 쾌감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진저리를 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는 세트의 후예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의 목덜미에 송곳니를 박아내어 뼈까

지 부수는 중에도 이들의 눈은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어찌 그런 눈빛을 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식욕을 떨굴 정도였습니다. 살과 뼈를 발라내기는 쉬우나 이들의 정신을 끊기는 힘들다고 할 정도니 이들에게 내려진 저주는 정말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저주로 인하야 이데아의 다른 불경한 자들 사이에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멀게 하니 이들에게는 마치 이 저주는 이들에게 있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감정을 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사로운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행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로이 개인의 감정을 내세우는 이도 있고 본인의 주장을 열렬히 펼치고도 역사의 저편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도 없는 전례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들은 고행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는 전체이자 전체는 하나.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고행의 길을 함께하는 자 역시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가른다는 말은 이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식은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연구기록 1번 “이계의 마법”

아벨의 자손들이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기록하는 역사는 각 도시국가의 마이스터의 손으로 일구어 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학이나 과학 나아가 역사나 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였고 아벨의 자손들은 그들의 땀과 헌신으로 인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죠. 초기에는 그저 특출난 이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재능을 피운데 그쳤으나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그 무리가 규모를 넓히어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길드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길드의 존재로 인하여 상업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공국의 관할 아래에 모든 아벨의 자손들이 부족한 것 없는 그야말로 지상 낙원을 꿈꾸는 듯한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벨과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그리고 공국의 국왕이었던 델페노프가 바라기 그지 없던 모습일 것입니다.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 마이스터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 예술을 포함한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길드는 해체되었고 그저 개인이 활동만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전쟁에 필요로한 길드만이 명맥을 이어나갔고 나머지는 도태된 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와 병기 그리고 의학을 다루는 길드의 마이스터만 간신히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마이스터의 유구한 지식들이 전쟁에 이용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공국이 몰락한다면 그

들에게 더이상의 연구와 개발도 없으면 더이상의 진화와 진보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었기에 기꺼이 공국을 도와 전쟁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공국의 문명의 초석을 다진 자들 중 학자 길드 중 과학 분야에 전임을 맡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샬 뒤퐁. 전기와 증기를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였고 시타델과 교황청 그리고 여러 자치국가를 잇는 철도를 연결하게 한 그야말로 과학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출판한 저서에 그가 여지껏 연구해왔던 연구성과가 담겨있었고 이는 길드 내의 모든 마이스터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다양한 종류의 살상병기와 가스를 비롯하여 다양하고도 치명적인 존재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과학의 진보는 전장 속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만들어낸 것은 전장을 휩쓸고 다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길드 내에서 그의 광적이고도 정도를 지나친 연구는 마이스터 사이에서도 포용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의 행동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실험은 인륜이고 도덕마저 져버린 입에 담을 수 없는 실험들 뿐이었으나 그가 영원의 전쟁중 제작하고 개발한 병기들은 그 위용을 다하여 아벨의 자손들을 지켜냈기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만, 만장일치의 판결로 아벨의 장벽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이 종식된 후에 베일에 쌓여있기만 했던 이계의 마법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를 ‘과학’ 이라 명명한 마이스터들을 당연히 교황청은 인정할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을 그 힘을 경외시 하였고 그 힘을 점점 신의 영역을 초월한 듯한 말로 자신들을 포장하였고 심지어 마이스터는 과학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교황청의 믿음에 반하는 명제를 외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샀으니 이는 차마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스터가 부리는 과학의 존재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부정하였고 아벨의 장벽 내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거르게끔 했으며 과학을 탐구하는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며 악을 전도하는 자들이라고 치부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신성모독이라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교황청은 과학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을 마녀라 치부하였고 죄를 물었으며 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교황청과 부딪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이스터 중 의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내린 저주를 관찰하고 또 분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직접 저주받은 생명체 표본이며 시체들을 회수하였고 더 많은 자료를 위하여 교황청과 시타델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그를 미친자라고 하였지만 그가 집필한 의학서적과 도감은 저주받은 존재들의 파훼법과 그들로 말미암은 상처로 인하야 같은 비극을 낳지 않게 하기 위한 약물과 치료법을 고안해 내기에 이르릅니다. 신의 권능을 빌리지 않

고도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앰플이라 하는 주사형 개발품으로 인하여 교황청은 이들의 연구가 그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려하여 결국 그 치료법을 신의 축복이나 성수라고 둘러댔으나 마이스터는 이 사실에 대해 개의치 않은 듯 하여 교황청은 체면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이스터들이 아벨의 자손들을 위해 이데아에 남겨놓은 것은 이들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모든 이들이 편리하고도 안락한 삶은 영위할 수 있었으며 영원의 전쟁이 펼쳐지는 동안 이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수의 아벨의 자손들이 이들을 지지하였던 탓에 교황청은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할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아벨의 장벽 밖에 버려진 땅인 <지명이름> 에 보내어 아벨의 자손을 위해 힘쓰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는 길드의 마이스터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전부 위폐를 보내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완고하였습니다. 마이스터들은 연구와 탐구를 반복으로 오롯이 현실에 입각한 자료들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의견은 조율되지 못한채 마이스터들은 아벨의 장벽을 나오게 되었고 교황청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황청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자유 도시국가로 발돋움했고 이들의 존재는 곧 제 3의 세력의 시발점을 알렸습니다. 제3의 세력이라 함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야말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 이었습니다. 이데아에 자치국가는

많았지만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고 대부분이 아벨론의 관할 아래에 있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3의 세력이라 함은 자치국가들 중에서도 대부분 규모가 크거나 작아도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부르는 말이되었습니다.

아벨의 장벽 밖을 나온 이들은 이제 그들의 방패 뒤에 숨어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들의 지적영역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분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들이 장벽밖으로 나와 그들만의 세계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원의 전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국으로부터 홀대받던 길드의 마이스터들이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환영하였고 이들은 건축에 능한 마이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만의 새로운 길드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각종 길드의 뛰어난 마이스터들이 규모를 넓히어 그들만의 과학력과 의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등 각종 분야에서 모두 뛰어난 산업혁명의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산업의 태동인 바퀴 모양을 그들의 상징으로 하였고 ‘윌즈’ 라는 이름으로 이데아에 자유 도시국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아벨의 장벽안에 있는 자라고 해도 배움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적극적으로 가르침을 전파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마이스터의 열린교육에 다소 회의적이었던 교황청도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원을 선별하고 윌즈에 견습생을 파견하여 기

술들을 습득하거나 보급품을 충당해 오곤 했습니다. 영원의 전쟁 이후로 마이스터들은 초현실 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후원과 자금을 대어주면 교황청 뿐만 아니라 브리강 혹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제공해 주거나 뒤를 대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고객의 신상은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윌즈의 외교법이지요.

이들이 지내는 곳은 증기와 바퀴가 부딪히는 소리로 진동했습니다. 길거리는 정돈이 되지 않은 듯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었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이들은 그들의 도시 안에 교통의 요충지를 여러군데 두어 유통과 운송을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였으며 발전기의 엔진이 쉼없이 돌아가고 석탄으로 끌어낸 열기로 인하야 연신 증기를 내뿜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은 천상의 낙원에서 아벨이 뛰놀던 낙원의 구름과도 같이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가 한참을 거리를 누비며 느낀 것은 자유로움과 자율적인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실험대상이었고 연구의 장이었습니다. 이렇게나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옛 공국이 가졌던 문화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했나 봅니다. 역시나 과학이나 의학 길드의 마이스터가 단연 윌즈를 이끌게 되었고, 문화 예술 건축과 역사를 전담하는 길드는 아무래도 마이스터 사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차별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원의 전쟁 이후에 그들을 받아줄 곳도 없었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

니다. 더군다나 윌즈를 운영하고 다른 세력과의 외교를 전담하던 길드이기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죠. 각 길드의 노력과 결속력 덕분에 이후로 그 누구의 방해도 통제도 받지 않은 이들은 연구 개발에 힘써 고도의 과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법사들의 아르카나로도 교황청의 신의 권능으로도 설명하지 못하는 진리의 탐구와 수십, 수백, 아니 수천번의 연구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의 권능이나 아르카나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것을 지닌 것을 당연히 여기겠지만, 그렇게 여기고 지나가는 자들은 평생 과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의 상징이자 진리에 닿기 위한 도구인 과학이라는 마법입니다. 이들의 과학력을 따라잡을 자들은 이데아에 더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아르카나와 신의 존재마저도 과학적인 해석으로 풀으려 하는 자들일 정도니 이들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윌즈의 마이스터, 그들은 이데아의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태초의 존재와 그 근원과 뿌리를 찾고 이론을 정립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이지만 낭만적인 목표를 좇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저 뜨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이를 신의 계시라 여기었고 아벨의 장벽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이들에 비하여 우리들은 그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그 진리에 닿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아벨의 자손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들은 그들의 무기인 지성을 갈고 닦아 마침내 장막에

드리워진 신의 영역의 베일을 벗기려는 그들만의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집이 세고 계산적입니다. 고집적인 성격은 끈질기게 연구와 실험을 반복하며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저주받은 존재들을 맞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겪어오면서 그들을 스스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마이스터들은 스스로의 몸을 개조하거나 약물의 힘을 빌어 연구성과를 스스로 지키고 앞으로의 연구또한 계속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치국가인 윌즈를 수호하기 위해 인류의 발전과 진화와 진보를 위해 과학의 힘을 입은 무기를 하나 둘 개발해 나가 어떠한 위험에서도 그들은 최후의 최후까지 이데아에 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원시적 사고를 지닌 이들에게 우리의 과학은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에 저주 받은 자들만큼이나, 피를 취하는 자들만큼이나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윌즈로부터 보게 될 테지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그 힘은 구원도 신의 힘도 아닌 다른 모든 이들이 경외시하는 이계의 마법, 바로 과학일 것입니다.

비질런트 경계일지 1편 “프로파간다”

국왕의 죽음은 공국의 몰락이라는 결말을 낳게 되었고 공국의 뒤를 잇는 아벨론의 존재는 자치국가에 있어서 그리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벨의 장벽을 더욱이 굳건하게 그리고 높게 올렸기 때문에 장벽 밖의 아벨의 자손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벽 밖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하야 불경한 존재가 밤낮을 걸어다니고 있으니 아벨의 장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정화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벽 밖의 자치국가들은 하루를 나기가 너무나 힘에 부쳤습니다. 역병이 나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외에도 저주로 오염된 이들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의 피해가 막심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무도 이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분명 작은 자치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벽 안으로 저주받은 자들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들이기를 꺼려했던 이유도 있었죠.
공국에서부터 교황청까지 이들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 없었으니 신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약자는 항상 그늘에서 쓴 고배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약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든 죽음을 기다리든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희망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일어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민병대였습니다. 국왕의 죽음

과 공국의 몰락 이후로 민병대 안에서는 당파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는 자들이 모인 온건파와 공국과 교황청의 움직임이 다를바 없다고 여기어 그들을 배척하고 몰아내고자 하는 급진파가 바로 그들 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점점 좁혀지지 않았고 급진판의 등을 완전히 돌려버린 사건이 바로 '피의 복수' 였습니다. 하지만 급진파적인 성격을 띄고 있던 브리강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려고 했던 온건파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볼타의 형제 요난 이그너입니다. 요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브리강의 수장격인 볼타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볼타 이그너는 아벨의 장벽을 떠나게 되었고 다시는 아벨의 장벽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난은 자신의 핏줄인 볼타에게 칼을 겨눈다는 사실을 슬퍼하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마음을 굳게 다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난도 볼타와 마찬가지로 교황청이 아벨의 자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자손들에 대한 수호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여기었기에 이들을 지키는데 신물이 난 볼타와 달리 요난은 교황청도 시타델도 하지 않는 자치국가 수호를 위하여 아벨의 장벽을 넘기로 합니다. 교황청을 비롯한 아벨론 그리고 시타델의 이들까지도 이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지만 위선이라 여기었습니다. 혹은 정의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생명이라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이 단순한 행동은 그저 지극히도 당연한 본능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맞받아

쳤고, 역으로 교황청과 시타델의 무능에 대하여 유감과 분노를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순진한 이들을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고 시타델은 옛 공국의 영광에 취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망령이라고 여겼죠.

공국의 몰락 이후에 민병대라는 존재는 자치국가들에게 있어 그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민병대들을 포함하여 장벽 밖에 있는 자치국가의 아벨의 자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시련이었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후손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마을을 둘러 벽을 세우고 혹은 천연동굴을 파 그곳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는 빛 줄기는 흐린 구름 속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나니 도시국가는 그들만의 생존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그들이 세운 장벽 안팎으로 혹은 숨어든 동굴안에서 그들의 형제 자매가 힘 없이 피를 흘려가는 모습을 눈에 담고는 더욱이 강해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대로부터 갈라져 나왔던 이들은 신의 권능도 받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도 없습니다. 아벨의 자손을,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강했으나 이들은 스스로 그 마음만으로는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매 또 지키기도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들이 가진 힘으로 이데아를 살아가는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떠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데아를 넘나들며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닥치는대로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은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였습니다. 아르카나를 담으려는 과정은 방대한 지식의 과포화로 죽음의 고비를 몇번이나 넘어왔습니다. 생투즈로부터 세상의 고통과 죄악을 나누고 동정과 연민으로 상처를 보듬는 법을 터득했고 타는듯한 사막속에서 모래를 마시면서 사막의 수호자들에게서 강인한 육체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인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이스를 제외한 모든 집단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데까지 모든 지식과 힘을 전수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들은 감히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하는 태도를 단 한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들의 존재는 모든 집단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중 이들에게서 흥미를 보인 것은 다름아닌 이데아였습니다. 이들의 아르카나는 희미하게도 느껴지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 그리고 정의를 보았습니다. 이데아는 그들을 이땅에 남은 마지막 순수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짐승의 모성애를 보는듯 원초적인 것이기에 그렇게 부른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데아는 그런 한편 이들의 그 마음을 계속 잃지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그녀 주위의 퀴나즈들도 이

땅의 생명들, 자세히 말하자면 저주받지 아니한 야수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과 동조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카나를 필요로 했으며 이들의 움직임을 그저 조종할 뿐이었지만 이들은 그러한 과정없이 오직 그들의 개체를 존중하고 동조하여 그들과의 교감으로 이를 끌어냅니다. 이는 아마 그들이 먹이사슬의 최약체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지라도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서 이데아의 야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들이 가진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생존을 위하야 그 누구보다 열렬히 피와 땀을 흘리었기에 그들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화했을테지요.
이들을 강하게 한 것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였고 형제, 자매였으며, 남편이고 아내이자, 아들이며 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원의 전쟁에서 겪은 아픔을 더는 겪지 않기 위하여 그들만의 생존방식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그들은 다른 이들의 체질마저 구현하고자 했고, 결국 이들은 아무리 혹독한 날씨에도 시간에도 그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주 받은 자들을 상대할때도 이들은 초인적인 힘은 발현하지 못하였으나 약자들은 약자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이데아에서 이들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자신을 지킬 힘과 자치국가를 악으로부터 구원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데아에 흩어져 있는 자치국가의 아벨의 자손들을 한데 모아 그들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생존의 기술을 알려주었고

그들 스스로 비질런트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데아의 모든 자치국가의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벨론이나 시타델에 등록되지 않은 자치국가의 수가 너무도 많았던 탓에 자치국가들의 수호에 어려움을 느낀 비질런트는 이후에 자치국가들을 규합하여 독립기구를 설립하였고 이를 '데미안' 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데 모은 것이 그들을 이주시키거나 그들아래 통치하는 개념이 아닌 정치적 기반은 그대로 두되 그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한데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고도 비질런트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여 있음을 나타내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데미안은 규모는 점점 넓혀가며 그 영향력을 키우게 되었으며 자치국가들도 그들이 속해있는 비질런트를 자랑스러워 하고 있고 데미안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방위사령부의 일원이 되어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희망하며 아벨의 자손을 지키는 진정한 방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황청은 비록 비질런트라 불리우는 자들로부터 신앙심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고자 하는 그들의 존재가 교황청의 뜻과 부합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뜻을 높이 사 교황청도 이들을 지지하게 되었죠. 아벨의 장벽내에 있던 대부분의 아벨의 자손들이 보는 비질런트는 교황청에 의해서 설립 되었으며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보좌관 정도로밖에 보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교황청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질런트는 그들이 비추어지는 인식따위는 어찌되

도 상관없었죠. 이들의 명성이 점점 퍼져갈 수록 그것이 영 달갑지 못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신 공국이라 불리는 시타델이었죠. 이들은 비질런트를 옛 공국에 반하여 깃발을 든 반란분자에 불과하다고 치부하였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이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타델의 왕 잉그람은 비질런트가 시타델을 위하여 그의 칼이 되어 싸우기를 몇번이라 요구하였지만 그들은 시타델만이 아닌 아벨의 자손들의 칼이 되어 싸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정중하지만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진정한 아벨의 방패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벨의 방패' 는 그 말이 그리 유쾌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만, 아벨의 장벽밖의 자치국가에서 아벨의 자손들을 수호하는 이들을 허드렛일이나 하는 '청소부' 라고 깔볼 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이들의 숨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지닌 가장 큰 힘 중 하나인 응집력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죠. 누구보다 약하디 약한 존재들이었기에 한데로 뭉치고 머리를 맞대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약한 자들이 가진 슬픔과 그 비통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약함 속에서도 기민함을 키웠고 생존에 대한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아벨의 장벽 내에 있는 자손들이 따스한 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직접 피부로 느껴가며 슬픔과 공포를 몸에 새기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지킬 힘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렇듯 비질런트라는 집단은 하

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그야 말고 고행과 고난의 연속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세상으로부터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윌즈의 마이스터가 모든 분야에 통달한 자들이 모여 아벨의 자손들의 문명의 이기를 자아내기 위한 곳이라면 데미안의 비질런트는 궁극적으로 어둠이 내려진 이 땅에 아벨의 자손을 시험으로부터 구해낼 자들일 것입니다.
데미안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후원과 지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후에 다수의 자치국가가 그러하였듯이 비질런트의 뜻에 따라 그들의 의지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질런트라는 깃발 아래에 오직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언에르아도 환영입니다. 우리 데미안의 비질런트는 당신이 소중한 것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싶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전 마지막 프로파간다의 문장을 마치고 나서야 그제서 펜을 놓았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오늘 하루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있으매 감사하게 생각하며 피로에 지친 몸이었지만, 새벽의 공기가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이스마 암살장부 1쪽 “그림자 속으로”

아벨이 그의 후손을 점지하여 그들의 자손임을 알리고 그의 권능을 주었고 아름다운 이 땅 이데아에 문명을 꽃피우며 서로 화합하며 살았으나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존재했었을 이들이었지만, 그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서로를 상처입히는 데에 이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기적이게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는 꺼려하니 이 모습이 어찌나 모순된 모습인지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어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니요. 아벨의 자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기를 거치고 세대를 넘어가도 역사로부터 배운것이 하나도 없었고 줄곧 되풀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터무니 없었고 생명은 또 다시 덧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데아가 기록하는 암살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가 명예와 재물보다 못하여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미 이 땅 이데아에는 더이상 생명의 존엄성따위는 잊혀진지 오래였죠.

공국의 국왕이 이데아에 자리하기 이전부터 아벨의 자손은 그들의 뿌리를 굳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주신 미덕인 자신감과 겸손은 오만과 교만으로 탈바꿈하였고 인색과 질투는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는

것을 즐기게 했고 이 죄악은 나아가 서로의 목숨을 가져가는데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혼돈과 절망의 속에서 이스마 암살단의 싹이 트게 됩니다. 이 자들은 서로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위엄있고 기품이 있으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아니되었죠. 직접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었으나, 이성과 지성을 갖춘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테지요. 그러하기에 존재조차도 모르는 자신들의 노예를 이용하여 목숨을 빼앗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 암살단의 기원은 노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시중을 드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대개 광대나, 이야기꾼, 그리고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저 그들의 주인과 귀족들의 연회자리에서 웃음과 몸을 파는 자들에 불과했으나 결코 암살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귀족과 가신들 사이에서는 미쳐버린 핏빛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자손들은 속은 비록 썩어있었으나 아벨의 자손들은 평화로워 보이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바와 아다무스의 자식 중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데아는 충격에 휩싸였고, 아비를 잃은 아벨의 자손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예들에게는 그리 크게 와닿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이들에게 아벨의 죽음은 이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역사가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다 기록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누려보지 못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델페노프라는 자가 일어나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희망을 찾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통솔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각지의 자치국가의 군주들을 규합하여 공국 퀼로른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국의 설립으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은 전에 이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는 역시 평범한 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구어낸 국가의 발전은 의외로 예상치 못한 면에서 병폐가 드러났습니다. 카인의 핏줄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를 준비하면서 노예들의 거래가 암암리에 암묵적인 곳으로부터 성행하게 되었고, 이들은 숨쉴 틈도 없이 하루 밤낮으로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귀족들의 노리개로 전락하였고, 전과 다를 것 없이 여전히 그들은 광대짓을 일삼으며 웃음과 몸을 파는 생활이 계속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노예들 역시 전장에 끌려가 카인의 핏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맨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온 전쟁은 마침내 태초의 피의 죽음으로 인하야 잠정적인 종언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예들의 전쟁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공국의 국왕 델페노프가 미쳐가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존엄성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칼날을 그의 딸에게 까지 향하게 되었고, 인륜을 저버린 국왕 델페노프에 반대하여 일어난 바이스의 일원인 브리강에 의하여 숨을 다하게 됩니다. 뒤이어 그를 따르던 대신들과 부호들조차 다른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니. 그를

섬기던 노예들은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아무도 노예들을 포획하지도 혹은 받아들여 주지도 않은 채 이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브리강에 의해 국왕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교황청은 국왕을 잃은 공국과 아벨의 자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체제를 바로 잡아야 했기에 이들의 존재는 더욱 조용하게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더이상 노예로 남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국왕이 그러하였듯이 노예들 앞에서 조용하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이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 모습은 분명 델페노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 국왕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 이름은 ‘이스마’. 퀼로른의 국왕 델페노프의 노예였습니다. 아벨의 자손은 속부터 썩어있었으나 다른이의 마음을 움직인 그 연설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와 노예들은 노예의 신분이 아닌 아벨의 자손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노예였던 그들이 이데아에서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을 대접하기 위한 그들의 모든 기능은 영원의 전쟁 이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황청이 말하는 신의 구원은 노예였던 자들에게까지는 닿지 않나 봅니다. 노예들은 두번이나 버려진 셈이었습니다. 한번은 공국 퀼로른으로부터 또 한번은 신의 구원을 주장하는 교황청으로부터 말이죠.

영원의 전쟁이 종언을 고한 후에도 평온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전쟁 직후의 아벨의 자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죠. 교황청은 천천히 자신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움직임에 하루도 편치 못할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피의 복수' 는 그 잔혹함으로 역사 속 교황청의 오점으로 남았고, 그 외에 교황청에 반하는 자, 그를 끌어내려는 자, 기이한 마술을 부리는 자들 등, 그 밖에 수많은 자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비단 다른 후손들과의 전쟁이 아닌 아벨의 자손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죽이고 죽이는 더럽고 치졸한 사투였습니다. 그 누구도 선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악도 아닌 그저 더럽고도 추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마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오리라는 헛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리라 언제나 바라고 또 바라온 그였지만, 그 꿈은 조각나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은 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그리하여 이스마는 모든것을 내려놓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이었고 더이상의 희망이나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렇게나 추악하고 변질되어 버린 자들에게 과연 구원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죠. 이렇게 모든 것에 회의를 느낀자들은 아벨의 장벽 안에서 살아날 방도를 강구하던 중 암살의뢰를 주로 하여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길드인 '이스마 암살

단' 을 창설했습니다. 이스마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이 땅의 생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자가 악이든 선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평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엇이 그들에게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를 쥐어주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묻는다면 이들은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스마의 암살단은 누구의 이름으로도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리라. 저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은 그저 돈과 세상의 이치에 의해 만들어진 각본인 것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아벨의 장벽 안을 배회하던 노예들이 부랑아들을 이끌고 아벨의 장벽을 넘었으며 그들을 이끄는 자가 이스마라는 소문은 금새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마가 퍼뜨린 헛소문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아벨의 장벽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주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 남은 것은 노예의 흔적이었으나 그것조차도 문신으로 가리어 그들의 존재를 세상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나 자연스럽게 이들은 그들의 신분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마는 공국의 왕의 곁에서 웃음을 팔던 광대에 불과했으나 그는 광대짓을 하며 몸에 밴 유연함과 민첩한 몸놀림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로부터 파생된 움직임을 암살술과 결합하였고, 노예로 살았을 적 그의 주인으로부터 보고 난 귀족의 예절과 화술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의뢰를 수행하

는데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용했습니다. 주변에 의해 그려지는 그들의 모습은 그저 표면상에 존재하는 인물일뿐 가면의 저편에는 암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들의 피와 땀들은 그들만의 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아벨의 장벽 안 뿐만 아니라 장벽 밖의 자치국가 혹은 어느 장소에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된 '이스마 암살단' 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공국의 국왕을 암살한 이스마는 자치국가 사이에서도 악평과 호평이 엇갈리지만 그 명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홀연히 이스마는 그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암살단 내에 그 어느 누구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았고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로 와해될 것만 같았던 암살단이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군요. 그들은 암살에 쓰이는 도구조차 교류하지 않으며 말조차 섞지 않은 이들이었기에 이스마의 부재는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길고도 긴 노예생활로 침묵은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을 아끼던 탓이겠지요. 여지껏 그래왔듯이 이들은 그들의 사업을 묵묵히 계속할 뿐이었죠.

이스마가 없었음에도 그 누구도 암살단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들 그 누구도 암살단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생명의 그의

손에 의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마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이 아마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들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암살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선악을 넘어 인간의 목숨에는 그 무게가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암살을 행하기 전 의식을 치루는 것도 암살을 행한 후에도 죽은 이의 귓가에 대고는 자장가를 속삭이는 듯한, 마치 요람에 드는 아이를 잠에 들게 하는 그 의식도 살인이 그저 유쾌하기만 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일 테지요. 그 모습은 마치 상처를 보듬는 어머니의 모습이요. 죄를 사하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제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식은 감히 더럽거나 불경한 모습이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의 불씨를 꺼뜨린 잔인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해성사를 하며 우는 듯한 여리고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만약 내가 행한 죄를 보고 있다면, 부디 이들의 영혼이 두번다시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가 있는 더러운 곳으로 다시금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하야 이들의 넋을 위로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행위가 그들이 생을 영위하기 위한 더럽고 추악한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속죄의 의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끝이 좋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들

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무고한 남을 죽이는 행위에 그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겠지요. 그러기에 이스마 암살단의 일원들은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의뢰를 수행하기 위하여 죽음에 다가가는 이들을 바라보매 그들의 눈에 생기가 없어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이데아에 더이상 남아있지 않을진대 과연 제가 이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스스로 어둠에 다가가 자신의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힌 자들을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감싸 안을 수 있을까요? 분명 '이스마의 암살단' 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죄악을 이미 수차례 행한 자들이 우리를 과연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심판이 있다면 달게 받겠나이다. 다만 마지막에 나의 심장에 칼을 꽂을 자는 신도 아니고 교황청도 아니매 분명 나의 손에서 마지막 숨을 토하며 바스러져간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살기 위해 그대의의 생명을 꺼지게 했으니, 분명 나의 숨을 꺼지게 하는 자도 분명 그대가 될 것입니다.

혈족계승 1식 “영원의 지배자”

카인.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형제 아벨을 죽인 사건을 계기로 카인은 창조주로부터 미움을 사게되었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은 불사의 저주를 안고 남은 영원의 여생을 피를 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태초의 피는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야 그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들에 대항하기 위하야 그의 포용을 받아들인 자들 중 으뜸인 자들을 선별하여 왕가의 혈통이라고 부르고 곁에 두었습니다. 이들을 곁에 두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다른 카인의 자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카인이 그들을 떠난 후 방황하던 이들 사이에서도 태초의 피가 예속의 사슬을 묶어두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만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태초의 피에게도 흥미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이 주어진 카인의 핏줄이기 태초의 피는 이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취미 생활을 가진 것이 바로 가면무도회 혹은 집회에 참석하고 그들의 자취를 감추는 등 아벨의 자손들의 세계에 녹아드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미도 교황청의 존재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지요. 이렇게 아벨의 자손들을 흉내라도 내는 듯한 이 태초의 피에 대한 행동은 그가

만든 혈족인 왕가의 혈통과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가의 혈통은 고고하며 자존심이 있고 콧대높은 자들이자 카인의 핏줄 그 자체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카인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있엇던 자들이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은 우선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지만 그들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고 또 인내했습니다. 태초의 피는 카인의 뒤에서 그를 따르고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모든 것을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조차도 버리고 잠적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태초의 피에게 있어서 카인의 존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곁에 남아있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잃은 슬픔은 감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원을 살던 그가 아벨의 자손들을 흉내내고 아비를 잃고 흩어져 있던 카인의 핏줄들을 모아 그의 곁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들을 잃지 않기위하여 태초의 피에게 귀속되게끔 한 것이었죠. 사실 그는 불사의 권능보다 카인의 곁에서 느낀 유대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던 가족을 원했습니다. 태초의 피와 카인은 이렇게나 서로 다르나 분명 그 다름에서 서로에게 끌렸던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태초의 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태초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강한 유대감이나 가족같은 개념따위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가 가진 가치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왕가의 혈통으로써는 절

대 이해할 수 없었던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끔찍한 취미생활과 가치관 때문에 태초의 피와 왕가의 혈통은 이때부터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태초의 피가 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야욕과 그의 곁에서 보고 배운 기민함과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태초의 피가 다른 카인의 핏줄들을 통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은 그의 곁에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그의 모든 행동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태초의 피가 내린 구속의 사슬조차도 끊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동안 몇번이나 쓰고 고쳐왔던 이들의 계획은 영원의 전쟁 중에 시작됩니다. 왕가의 핏줄은 태초의 피가 카인의 성 밖으로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하여 부재중일 때 카인의 성 안에 있던 군주의 무리와 혈족들을 잘 구슬려 설득하였습니다. 그들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발 아래 무릎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무릎꿇지 않겠다 목소리를 높이면 그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카인의 성은 왕가의 핏줄들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왕가의 혈통을 이끌던 자가 태초의 피를 배반하고 그의 몸안에 흐르는 피를 한방울도 남김없이 마셨으니, 이들은 이데아에서 남은 모든 카인의 핏줄 위에 선 유일한 혈족이 되었습니다. 태초의 피 안에 흐르던 마지막 한방울이 왕가의 혈통의 군주 안에 흐르고, 카인의 권능은 군주 안에서 그 엄청난 힘의 고동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전쟁 이후

태초의 피를 남김없이 그의 몸에 흐르게 한 왕가의 혈통의 정점에 선 자. 그 자가 바로 직접 태초의 피를 마시고 왕가의 혈통을 이끈 ‘브리쿨’ 입니다. 그러나, 브리쿨이 행한 이 행위는 엄연히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 엄격히 금해왔던 동족의 피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에 못을 박고 태양을 맞이하게 하야 이들에게 영원의 안식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들이 서로의 피를 탐닉하는 것은 금하였죠. 정확한 원인은 알 길이 없으나, 이유인 즉슨, 동족의 피를 탐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힘은 임계점을 뚫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누구나 서로의 피를 탐할지니. 다만, 그 힘은 되려 그 자의 정신을 붕괴시킬만한 것이라 알려져 있으며, 그 자는 마지막 숨을 다 할 때까지 학살의 끝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는 어느 한 핏줄의 일방적인 통치를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영원의 삶을 사는 불멸의 존재인 이들이 이렇게나 사소한 패권다툼에 신경을 쓰는지 다른 후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카인의 핏줄은 혈족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카인의 핏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은 쾌적한 사냥을 즐기기 위하여 암묵적인 약속으로 맺어져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 구역에 대한 독점, 통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지나치고 눈에 띄는 사냥은 입소문을 타고 아벨의 존재나 세트의 후예의 귀에까지 닿아 사냥에 얼마든지 방해가 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안에서도 이것은 항상 조심스럽고도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틀을 깨고 모든 혈족들의 머리 위에 서기 위해서라면, 태초의 피 마저 마르게 하겠다고 하는 브리쿨의 자태를 보십시오. 다른 핏줄의 피를 탐하는 행위를 '사악한 입맞춤' 에 빗대어 그들의 언어로 '셰라자드' 이라 불렀고, 이 때문에 왕가의 혈통을 이끄는 브리쿨의 원대하고도 허무맹랑한 계획은 왕가의 혈통 내부에서조차 이 의식에 대해 깊은 근심을 보였습니다. 향후 많은 핏줄들이 앞다투어 이들의 행보에 대하여 우려감을 표명하였으나, 왕좌의 핏줄이 주장하는 바, 이는 다른 카인의 핏줄의 피를 탐하는 행위가 아닌 위대한 혈족의 계승이고 동시에 혈족이 한걸음 더 진화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쿨은 누구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한 시험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브리쿨은 태초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일종의 시험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시도로 죽으면 그들은 그 정도 밖에 안 되었던 것이고 살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가의 혈통의 군주가 태초의 피를 받아들이다 죽게된다면 자신들도 이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다른 핏줄로부터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한 셈이었죠. 오랜동안 전승되어 온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태초의 피가 몸에 흘러 들어온 동시에 브리쿨은 극심한 격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애초에 불사의 존재에인데다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분명 그 고통은 통각에

의해서가 아닌 정신으로부터 스며들어온 통증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폭풍처럼 브리쿨의 핏속안에서 요동치며, 수많은 지식과 고대의 언어, 그리고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그를 조각조각 찢어버리고 억지로 꾸겨넣듯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노라고. 고통과 오만가지 감정들이 몰아쳤고 그 안에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분명 왕가의 혈통과 조우해본 자들이 아닌 이들에 의해 구전되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왕가의 혈통이 가진 힘과 잠재력. 그 끝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의식은 그 끝을 고했습니다. 마침내 브리쿨은 태초의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가의 혈통이 오랜동안 설계해왔던 원대한 계획은 의식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브리쿨이 카인의 새로운 주인으로 발돋움하니, 이데아에는 더욱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왕가의 핏줄의 군주 브리쿨은 태초의 피를 탐한 것에 대한 발발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명으로는 넘어갈 수 없음을 알게됩니다. 이에 브리쿨은 다른 핏줄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고 하니 태초의 피는 그들의 핏줄들에게 한가지 숨긴 것 혹은 알리고 싶지 아니한 사실이 여럿 있는데, 여명을 걷는 자들에 대한 비밀과 카인의 발자취 그리고 죄악의 돌과 피의 낙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태초의 피를 들이킨 후로는 그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지의 핏줄들에게 섬김의 대가로 태양 아래 걸을 수 있는 미지의 영역에 함께 하기를 기약합니다. 비록 이데아를 비추는 저 태양 아래에 있을 때 카인의 피가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자손들의 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처럼 관 속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잿더미가 되지는 않을테지요. 그리하여 대부분의 카인의 핏줄들은 다른 이들에 의해 귀속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었지만, 태양을 바라보매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지껏 태양을 피하고는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가던 이들이었기 이 제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마침내 피의 계약으로 맺어진 이들은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 되었으며 왕가의 핏줄에 예속된 자들은 카인의 성에서 그의 권능을 한껏 만끽하며 그곳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됩니다.

태초의 피로 세워진 카인의 성이 뿜어내는 장엄함을 감히 다른 후손들의 상상력으로 빚어진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인의 핏줄들 이외의 이들에게 이 성에 대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이 모습을 보고 멀쩡히 살아 돌아간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치솟은 기둥의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으며 곳곳을 수놓은 조각과 장식은 정교하며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었으며, 성 안에 희미하게 흩뿌려진 안개가 음산한 이곳을 마치 신기루라도 보고 있는 듯 머리칼이 서는 듯한 괴기스러움을 만들어 냈습니

다. 심지어 그곳은 안인지 밖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기에 감히 그 크기를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왕가의 혈통의 정권 수립에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리쿨이 태초의 피를 한방울 남김없이 자신의 몸에 담는데 사흘 밤낮이 걸렸고 이 피에 담긴 지식과 권능을 담는데도 며칠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는 혼돈과 고통의 폭풍속에서 홀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다른 핏줄은 그가 이렇게 약해져 있을 시기에 다수의 카인의 핏줄들이 반발하여 일어났고 그 자가 위에 군림하기 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들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리쿨의 지배가 아니더라도 왕가의 혈통이 가진 힘은 그 자체로도 다른 혈족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만큼 힘의 우위에 서 있었으며, 그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의 강압적 태도는 일부 다른 몇몇의 혈족들 사이에서 여전히 빈축을 사게 되지만 군주 브리쿨은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하지만 그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찍어누르지 못하던 핏줄들이 있었습니다. 불경하고도 카인의 권능을 등에 업었을진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감히 그가 내린 축복을 의심하고 지우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중 하나였죠. 이들 뿐만 아니라 들끓는 욕정을 억누르지 못한채 그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 그리고 밤의 귀족이라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할 고고한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심연에 취하여 이에 빠져버

린 자들 모두가 왕가의 혈통에 의한 예속의 사슬에 묶이지 아니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섣부르게 이들에게 대항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힘은 이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고 충분히 강하였기에 죄악의 돌을 복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가의 혈통은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핏줄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카인의 발자취만큼 왕가의 혈통의 흥미를 이끌게 했던 것이 앞서 말했다시피 바로 죄악의 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브리쿨은 카인의 성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카인의 서로 다른 핏줄들을 그의 권속 아래에 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여기고 그 숙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쏟아붓게 됩니다. 깨져버린 죄악의 돌 파편을 한자리에 두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모든 카인의 핏줄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 릴리트를 이데아에 불러내는 것이 왕가의 혈통이 지닌 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르러 왕가의 핏줄은 그녀의 몸안에 흐르는 피조차도 탐하여 피와 살이 흩뿌려지는 그들만의 낙원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곳의 태양은 검붉은 핏빛을 띄게 되어 이데아에는 감히 빛 한줄기조차 새어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데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은 태양이 추락함에 따라 오직 어둠이 드리워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모두가 울부짖으며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만하기 그지없이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신을 땅에 떨구고 그들의 피로

낙원을 적시게 하는 그들의 계획에 좀 더 가까워 질 테지요. 태초의 피가 카인의 핏줄을 데리고 지낼때에는 쾌락과 향락 그리고 여유속에서 치명적이고도 숨막히는 공포마저도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냈다면, 왕가의 통치가 이어져 가고 있는 지금은 이데아에 숨을 쉬는 생명은 그저 피를 담은 그릇으로 밖에 보지 않으며, 그들의 숙원을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여기는 그저 살인기계에 지나지 않은 자들이라 부를테지요.

그러나, 이데아에 얼마남지 않은 어리석은 생명들이여, 혼란 속에 우리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왕가의 혈통이요, 영원의 지배자 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의 귀족들입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길. 저희는 태초의 피의 계승자. 카인의 권능을 몸에 담은 그의 자식입니다. 왕가의 혈통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배반에 대한 대가는 오직 죽음뿐입니다. 혈족에 대항하는 자는 피와 내장을 뿌리며 신음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왕가의 혈통, 군주 브리쿨의 앞에 당신의 피를 뿌리어 예를 표하시길.

파로마포비온 서 1장 “공허와 허무”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저주로 인하여 만들어진 불경한 존재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 단연컨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원의 짐승들은 이들이 전에 가지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뒤틀려 변해있었고, 심지어 이계의 모습을 한 존재들, 혹은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이데아에 즐비하였습니다. 그와중에 전염병은 그 형태를 바꾸어가며 시대를 거쳐가며 이데아에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죽음의 냄새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매 아벨의 자손들은 이를 그저 바라만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조장한 카인의 핏줄이 있었으니 그들은 땅에 잠들어있는 망자들이나 교황청의 빛의 군사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한 저주받은 존재들을 다시금 이땅에 숨쉬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죽고 다시 살아난 이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더욱이 죽이기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을 힘들게 한 것은 소름끼치도록 인간의 공포를 잘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끔 고이 땅에 잠들어 있는 그대의 연인 혹은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존경을 마지않았던 자가 끔찍한 꼴을 한 채로 다시금 일어서 그대의 목에 칼을 겨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망설임 없이 그들의 목을 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카인의 존재이기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나 다름없지만, 이들은 죽어서 이미 땅에 묻힌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죽음의 사자 혹은 죽음의 경계에 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카인의 핏줄이 부르는 말로는 ‘마우에트’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강령술을 부리는 자들이라 하여 지금까지 이들은 강령술사로 통용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리는 자들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이능력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마치 그들이 신의 사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금 되살게 하니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잃은 이들의 약해진 감정을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사료됩니다. 소중한 존재가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몹시도 외로울 것입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망자를 조종하며 사랑하는 이의 미소를 다시한번 볼 수 있다고 곁에서 뇌리에 박히도록 읊조리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데아의 모두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에만 매달려 기적을 바라고만 있을때 마우에트는 카인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이해하고 연구의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여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주술이라 하여 땅에 묻힌 자들을 되살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더불어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도 강령술의 힘을 빌어 개인이 군대와 맞먹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자들은 마우에트의 유혹을 떨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진리와 이치가 그러하였듯, 죽은자는 절대로 다시금 살아서 돌아

오지 않습니다. 비록 마우에트가 시체를 빌어 생명을 불어넣은 뒤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것은 이전의 그 자가 아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공국이 건립되기 한참 전부터 이들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피의 대가로 한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자와의 재회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죠.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들을 계속해오던 중,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의 전쟁은 발발하였고, 모든 카인의 핏줄들은 전장에 스스로 몸을 던지어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은 즐거운 것이었으며 연회장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에 말뚝이 박히는 와중에도 입에 미소를 띄며 피를 마시는 광경은 그야말로 종말을 보는 듯 했죠. 이 모습에 마우에트의 사제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들은 몸소 전장에 참전하는 대신 어둠에 몸을 숨기어 전장에 죽은 시체들을 되살리기를 거듭합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그저 시체들을 다루다가도 전쟁의 화마가 전장을 휩쓸고 간 뒤 아무것도 남지 않아있는 텅빈 공터에서 까마귀처럼 시체를 뜯어 먹거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일으키는 것이 전부였으니, 다른 핏줄들이 이들은 손가락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데아의 후손들이 서로를 죽여가는 전장에서 시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그것은 마우에트의 훌륭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 싸늘하게 되어버린 주검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영원의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었죠. 강령술사인 이들은 죽음의

군대를 부리는 지휘관입니다. 죽음과 생의 경계에 있는 이들은 생은 덧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 경계에 있는 자들이었기에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죽음이란 존재에 대한 해박하고 깊은 지식과 관념을 지니고 있던 유일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뼈와 살이 나뒹굴고 그 수가 줄지도 않으니 전장은 그야말로 그들의 연구의 장과도 같았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으깨고 이어 붙이어 괴이한 혼종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망자들을 불러낸 뒤 그들의 뼈를 엮어 그들만의 둥지를 만들어 전장의 중심에서 다른 자손들의 위협과 태양의 빛으로부터 보호 할수도 있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체의 활용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무궁무진 했기에 전장에 나뒹구는 시체들은 그들의 실험을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전장을 누비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재료를 얻으면 그를 가지고 카인의 성으로 발을 돌리기를 여러번. 그들이 취미생활에 열을 올리고 있던 사이에 전쟁은 기묘한 바람을 따라 흘러감을 눈치채게 됩니다. 왕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카인의 성에 당도한 그는 왕가의 혈통의 군주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피를 토해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와중에도 마우에트의 광적인 해부와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종언을 고하였고, 태초의 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녀의 군세를 계기로 파로마가 가진 힘이 필요하다고 여긴 브리콜은 왕가의 혈통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명령합니다. 카인의 핏줄의 반발에 대한 권력의 상징으로 그녀의 군대는 꽤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군주 브리쿨은 그의 곁에 강령술사들을 두어 그들만의 죽음의 군대를 부리고자 했습니다. 다만, 그에게 힘을 보태는 대신의 조건이 한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초의 피가 마지막 숨을 다하고 남긴 잿더미였습니다. 브리쿨은 이미 그의 피로부터 얻을만큼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여기었기에 그들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강령술사들은 태초의 피의 시체를 회수하고, 그들의 둥지 안의 성물함에 그것을 두며 잿더미가 남긴 기억을 뒤쫓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관장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만큼 해부학이나 생물학 등의 지식에 해박하였기에, 피로부터 희생양의 기억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죽은 뒤 한참의 시간이 흐른 사체에서 그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그것들의 기억을 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브리쿨에게 태초의 피가 남긴 잿더미가 미처 뱉지 못한 기억이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당돌하게도 그 잿더미를 요구한 자의 이름은 ‘파로마’. 강령술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녀로부터 왔기에 많은 강령술사들 사이에서 그녀를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 혹은 우스웁게도 생명의 어머니라고도 불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요. 어찌되었든 그녀는 죽은자에게마저 생명을 불어 넣으니 말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종적을 감춘 후 대다수의 혈족들이 일치된 목적없이 방황하던 와중에 파로마는 지루하고 그저 영원토록 반복되는 그녀의 일상에서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데아에 숨을 쉬고있

는 모든 생명조차 가치없이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감을 보며 모든 것이 전부 부질없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냥에도, 입에 피를 머금고 있음에도 그 눈은 만족감 없이 공허함에 텅 빈 듯한 모습을 하곤했죠. 이런 그녀의 흥미를 끈 것은 다름아닌 시체들이었습니다. 영원을 살며 그녀는 끊임없이 그녀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대답하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 그 대화의 끝에는 허무만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죽어간 자들은 그 허무에 대한 대답과 같은 것이어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저주가 카인의 피를 타고 그녀의 몸에 담겨있기에 역시 죽어있는 존재이긴 하나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죽은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망자들을 이땅에 되살리는 것은 상당히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아니한채 그녀의 목소리 만으로도 감히 그녀에게 칼을 댄 자의 목은 단숨에 날아갔고, 날아드는 총탄은 그녀가 일으켜 세운 뼛조각들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안에 잠들고 있던 지식의 해방을 위하여 시체들을 끊임없이 해부하며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그녀는 강령술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어린 마우에트들의 지식을 깨우기 위한 여명 속 시체들의 아리아 라는 의미를 가진 ‘파로마포비온’ 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다른 혈족에 비하여 지나치게 창백한 피부뿐만 아니라 왜소한 모습에 골격이 드러나 있을 정

도로 몰골이 처참해 보여 다른 이들에게서 숱한 도발과 멸시를 당하지만, 그것은 마우밧실 혈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자일인대 하물며 그들의 피와 살조각을 다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카인의 핏줄 안에서 죽음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 불리어 육체적으로 한참 미약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그렇게 여기어 이들에게 대항하던 다른 핏줄이나 아벨의 자손들 혹은 세트의 후예의 목은 나가떨어져 이들의 전리품과 실험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살과 살을 엉기어 몸의 구조를 바꾸거나 뼈를 뽑아내어 상대를 찢고 베며, 뼛조각을 흩뿌리는 그 모습은 공포에 떨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이들이 7개의 대죄에 해당하는 나태의 권속이 내려져 있었기에 스스로 몸을 내던지지 아니하였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죄악의 권속 때문인지 혹은 그들이 걷고자 하는 길 때문이지는 몰라도 그의 지휘 아래에 움직이는 군세로 인하여 굳이 스스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이 얼마나 그들에게 걸맞는 죄악의 권능입니까? 굳이 이들이 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들이 가진 천성 때문입니다. 나태와 여유. 그것은 비록 이들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했을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두른 그들의 모습은 기품이 흘러 넘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왕가의 핏줄조차 탐하며 경외시 하던 모습이며, 그들이 그리던 모습이었기에 적어도 파로마와 그녀 아래의 마우에

트의 사제들과 등을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데아에 숨을 쉬는 자들이라면 무릇 영생을 원하고 탐하며 그 장막을 드러내어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얻기 위하야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저만치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마우에트의 사제들은 여왕 파로마가 느낀 그대로 허무와 공허함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파로마포비온의 가르침대로 망자들을 친히 차가운 땅속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영생을 누리게 하니, 이 어찌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던 구원일 것입니다. 파로마 그녀는 파괴와 생명을 동시에 낳은 존재입니다. 혹시 그대는 그녀의 텅빈 눈동자에 살의나 잔혹함이 남아있음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무덤이 즐비한 이곳에서 고요하게, 허나 안식에 잠긴 자들을 깨우며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에 악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어리석음을 동정하며 죽이고 또 살리며 이들이 헛되이 품었던 불사에 대한 망상과 거짓된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고통받은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이며 그녀의 눈에는 따스함이 비치었습니다. 공허와 허무로 가득찬 온 이데아에 파로마포비온의 믿음이 있으라.

피의 노래 1막 “붉은 선율”

카인의 핏줄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 보통의 아벨의 자손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 안에서는 육감이라는 미지의 감각이 깨어나 아벨의 자손들의 범주를 벗어난 능력을 발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허공을 저으면 그 바람은 칼날이 되고 드러낸 송곳니는 아벨의 방패를 뚫는 예리한 창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큼이나 아벨의 자손을 비롯하여 세트의 후예마저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몸 안에 담고 있는 핏방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바로 이 자들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맞이하십시오. 그들의 몸안에 담긴 피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그드르이 몸 밖으로 나와 이들의 바람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발현될 것입니다. 대지를 적시는 붉은 비로, 하늘을 뒤덮는 피의 구름으로, 때로는 창으로, 때로는 방패로, 혹은 상상한 것 이상의 모습으로 이데아의 모든 이들에게 공포와 절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카인의 존재에게 피라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부정한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혈족들도 이는 마찬가지였죠. 본능에 따라 그저 피만을 갈구하며 그 피를 고스란히 그들의 안에만 담아두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자신의 몸안에 담겨있는 피를 밖으로 끄집어 내어 부릴 수 있는 자들을 피의 현자라는 뜻의 그들만의 언어로는 ‘크세르담’ 이라

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본래는 다른 카인의 자손들과 다를바 없었던 자들이었죠. 입에 피를 한가득 머금고 그 피가 다할때면, 그저 들개처럼 밤을 누비며 피냄새만을 좇는 미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거둔 태초의 피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들은 태초의 피가 그의 피를 뿌리어 카인의 성을 올린 것을 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혈족들이 카인의 성이 가진 규모와 그 웅장함에 눈을 떼지 못할때, 태초의 피가 행한 피를 촉매로 하는 물질의 재구축의 과정은 이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인 단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흐르는 핏방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인의 성 안에서 태초의 피의 예속의 사슬 아래 이들은 내면에 흐르는 피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고 이를 연구하였죠. 마침내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자유로이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의 피를 제외하고는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신의 안에 담긴 핏방울을 꺼내어 물질을 구축하는 단계까지 통달하게 되었고, 그들 안에 흐르는 피를 뿌리는 전례없던 그 힘은 카인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 파괴력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세르담 혈족에 이 주술을 전승한 자가 바로 '샤마인' 이라는 자였습니다. 샤마인이라는 이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그 것은 왕중의 왕이라는 고대의 카인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카인의 권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에대한 경외감과 존경에서 나온 것이었을 테지요. 이들의 지식은 카인의 모든 혈족들 사이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샤마인은 항상 그 중심에서 태초의 피조차 이루지 못했던 순수한 피의 결정체인 존재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아우렐라'. 불멸의 핏빛 장미라는 뜻의 이 장미는 샤마인과 크세르담 사제들이 만들어낸 힘의 결정체였습니다. 응축된 공간속에서 고요하게 흩날리는 장미는 그들이 사냥하여 피를 담아두는 성배와도 같은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샤마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를 다루는 권능에 대해서라면 샤마인은 이미 태초의 피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대한 힘에 의해 이들은 태초의 피로부터 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혈계한계를 뛰어넘은 자들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예속의 사슬까지 끊어낼만큼의 정신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연유로 샤마인은 오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해 둡니다. 샤마인을 비롯한 크세르담의 모든 사제들은 혈족의 혈계한계의 베일을 벗기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그들 안에는 피 한방울 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그들이 항상 굶주려 있는 듯한 모습을 한 것도 설명이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아우렐라의 존재를 낳게 된 것이죠. 태초의 피와의 사슬을 끊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나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힘이 커짐에 자신을 언젠가 카인의 혈족을 위협할 존재가 될 것이라 예견한 태초의 피는 왕가의 혈통에 이르기를 크세르담의 사제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태초의 피가 내린명령을 받들어 왕가의 핏줄은 마침내 이들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들의 교만스러운 태도에 치를

떨었고 이는 크세르담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리쿨은 태초의 피의 말대로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됩니다. 크세르담의 사제들을 예의주시하던 이들은 그들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왕가의 핏줄이 추구하는 미적요소와 상당부분 동떨어진 모습을 하기에 그들을 깔보며 비웃게 됩니다. 달빛에 걸린 그림자를 타는 듯이 미끄러지듯 다가가 우아한 모습으로 물어뜯고 죽이는 것을 사냥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브리쿨은 샤마인이 취하는 행동을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항상 무언가 숨기는 듯한 샤마인의 모습으로부터 브리쿨은 그에게서 원초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브리쿨과 왕가의 혈통의 도발에 이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으니, 태초의 피와 묶여있는 예속의 사슬은 샤마인이 한 수 무를만큼 아직 건재하였기에 이들은 물리적인 충돌 대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아벨의 자손들이 카인의 핏줄을 향하여 칼을 드리우고 있음에 의회를 열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피는 처음부터 이 둘의 조우를 막아야만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초의 피를 등지려 하던 왕가의 핏줄, 그리고 그의 예속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어느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적은 친우가 된다고 했던가요? 이들이 앞서 벌였던 미묘한 신경전조차도 없던 일처럼 흘려버렸고 암암리에 샤마인과 크세르담의 사제들은 브리쿨과 왕가

의 혈통과 손을 잡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이나 고대하던 움직여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 때는 영원의 전쟁이었으니, 태초의 피가 카인의 성을 떠나 카인의 핏줄의 기세를 드높이려 몸소 전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카인의 성을 떠나기 전 그는 카인의 성을 믿고 맏길 자를 왕가의 혈통의 브리쿨에게 임하였고 브리쿨은 그를 보좌할 혈족을 간청하고는 태초의 피가 이를 허락하노니 그 혈족은 바로 크세르담의 샤마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카인의 성의 주인이 부재중이었음에도 여전히 그를 따르는 혈족들의 눈이 많았기에 브리쿨은 차근히 혈족의 군주들을 시작으로 조금씩 예속을 사슬을 부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의 발 아래에 떨어졌을 때 카인의 성을 점거하고 태초의 피를 불러들여 그의 피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브리쿨 그 자의 몸에 담으매 영원의 전쟁은 종언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의 피는 이들의 간계를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샤마인과 크세르담의 사제들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피 한방울 남기지 않다가 나중에 이르러서는 이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하여 의식조차 완전히 닫아버리며 거의 임사상태인 채로 잠들어 있었으니 알아채지 못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교만의 크세르만은 영악했습니다. 브리쿨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한치의 오차없이 움직인 크세르담의 사제들과 그들을 움직이는 샤마인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이들은 큰 위협이 될 존재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는 한번은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하였기에 임사상태로 안식을 취하는 이들을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었지만, 아우렐라처럼 또 어디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계약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태초의 피가 마지막 숨을 다하자마자 아우렐라는 카인의 성을 타오르는 듯이 붉게 비추었고 크세르담의 사제들과 샤마인은 죽음의 안식으로부터 깨어나게 되었죠. 태초의 피를 삼킬때 그의 의식을 도운 것이 샤마인과 크세르담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의식은 으레 카인의 핏줄들이 그러하듯이 희생자의 목에 송곳니를 박아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업은 순수한 혈액의 결정을 담는 과정이었기에 좀더 세밀하고도 정교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브리쿨에게 부탁을 받은 샤마인은 그 의식을 수일동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샤마인은 그 의식 속에서 태초의 피의 기억을 공유하게 됩니다. 태초의 피의 기억의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중 미지의 지식과 정보가 스며들게 됩니다. 뜻밖의 수확을 거둔 샤마인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그의 피를 브리쿨의 피에 섞어 넣습니다. 일종의 보험인 셈이었죠. 그렇게 왕가의 혈통의 브리쿨은 태초의 피에 이어 카인의 핏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왕가의 혈통은 마우에트 혈족의 군주 파로마와 크세르담 혈족의 군주 샤마인을 곁에 두어, 왕권을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 후로 왕가의 혈통은 카인의 모든 핏줄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영생을 군림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나태의 파로마와는 달리 콧대높은 교만의 샤마인은 브리쿨의 지배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태초의 피가 몰락한 이후로, 비록 이들이 같은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 샤마인과 크세르담의 사제에게 있어서 태초의 피나 왕가의 혈통이나 둘다 그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샤마인과 크세르담의 사제에게 있어서 태초의 피나 왕가의 혈통이나 그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왕가의 혈통은 그저 그들이 쥐지 못하는 것들을 쥐고 있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샤마인의 정론이었습니다. 샤마인은 크세르담의 사제들로부터 왕중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무릇 왕중의 왕이라는 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자입니다. 비록 이들이 같은 목적에 의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둘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자들임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말이죠. 비록 브리쿨이 속한 왕가의 핏줄이나 마우에트의 파로아르카나 샤마인이 군림하는 크세르담을 한데 엮어 고귀한 혈족이라는 뜻의 ‘아첼루드’ 라고 불려지며 3강의 체제로 카인의 모든 혈족의 정점에 서 있는 자라 모든 핏줄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혈족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위치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나 왠지모르게 이들의 동맹은 금방이라도 깨어질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의 상성이 맞지 않았던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가의 혈통은 제쳐두더라도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카인의 핏줄들이 즐비한 것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항간에서는 우리가 콧대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 지적하고 있지만, 그저 코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그들은 멀찍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로 여지껏 그래왔듯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크세르담의 사제들은 왕가의 혈통조차 닿지 못한 혈계한계를 뛰어넘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점엔 오직 우리의 군주인 샤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행여, 저들이 여전히 우리 머리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매 검은 야욕을 드러낸다 해도 개의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우렐라에 담겨있는 핏빛 꽃이 멈추지 않고 이데아에 피어있는 동안 우리가 부리는 핏빛의 연회는 끝나지 않고 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크세르담의 사제들에게 반하는 혈족의 핏자국을 시작으로 최후의 마지막까지 잔존한 자의 몸에 흐르는 한방울마저 끌어내 그 꽃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순은의 언약 1쪽 “피에 젖은 은 ”

영원의 전쟁으로 이데아는 상처를 입었고 모든 생명의 불씨가 그 빛을 다하여 하나 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전장 뒤로는 차갑게 식어버린 전사들이 쌓여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고, 그 숫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카인의 혈족은 그들에게 칼을 들이댄 자의 목을 뜯어 피를 마셨습니다. 카인의 혈족은 대상에게 그들의 피를 주어 자신의 아이로 만들 수 있었으나 이들 사회에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을 두고 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어 새로운 핏줄을 이어나가는 이들에게는 혈족의 동의와 그리고 원로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흡혈의 과정은 은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영원의 전쟁 한 가운데에서 카인의 핏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오직 살기위하여 목덜미를 찢고 그 피를 마시는데 전념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마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카인의 핏줄들은 전장속에서 피를 취하던 도중 그들 안에 있던 피가 이들에게 섞이었는지,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먹잇감들은 죽은지 수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에 이들이 어디의 누구였든 간에 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이제 카인의 혈족이 되어 이데아에 새로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저 영원의 전쟁에서 아벨의 자손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싸우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더라면 좋았으

련만, 전장에서 카인의 핏줄들은 이를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전쟁이 남긴 참상도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 본인들 안에 흐르고 있는 이질적인 무언가였죠. 모든 생명의 고동이 들리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알수없는 극심한 갈증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한번 아벨의 자손으로 한번을 죽었고, 카인의 핏줄이 되어 깨어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변해버린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난 자들 중 대다수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도 나타났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 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자들을 지켜보며 이들을 말릴 수 조차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관여할 의무는 없었으며 그럴 권리도 없었던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그저 아벨의 자손으로 죽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부정한 목숨을 이어가게 된 자신들의 존재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카인과 그의 혈족들을 혐오하여 공국의 깃발아래 그들을 죽이리라 다짐했건만, 오히려 죽은 뒤에 눈을뜨니 카인의 핏줄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고, 누구라도 이를 쉬이 받아 들일수 없었습니다. 상처도 입지 않은 카인의 핏줄이 된 이들이었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명이 그 고개를 드러내니, 안심이 되는 듯 했

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눈을 뜬 바로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태양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이들을 비추매 그들은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어째서인지 태양을 맞이하고도 타오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들이 아벨의 자손 그리고 카인의 핏줄 그 오묘한 경계에 닿아 있음에 그리되지 않았던 것 때문이겠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단정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혼란속에서 몇번의 물음을 스스로 되뇌이기를 반복했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 그들에게는 억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 그들이 눈을 뜨고 갈곳을 잃고 제일 먼저 발걸음을 한 곳은 아벨의 장벽내의 교황청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가장 익숙했던 그 길을 헤메이다 마침내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교황청은 영원의 전쟁 이후 아벨의 장벽을 굳건히 하게 되었고, 외부로부터의 출입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까다로워 집니다. 그리고 피범벅이 된 그들에게서 더이상 아벨의 자손임은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카인의 핏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로 총성이 여러번 울려퍼지고, 그 중 몇발이 그들의 가슴을 관통했으나,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함에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영원을 위하여 공국의 깃발 아래 목숨을 다바쳐 싸워온 이들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차가운 탄환이었습니다. 아니 차가움은 느낄리는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왠지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장벽위에서 이들을 향한 위협은 계속되었고, 이들은 어디

로 가야하는지도 모르매 어쩔수 없이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게 되었죠. 다만, 이들이 떠나기전 장벽위의 아벨의 자손들과 나눈 대화에서 그들 말고도 그들과 같이 교황청과 조우하기 위하야 아벨의 장벽을 찾아온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어 다시금 폐허로 뒤덮혀있는 전장을 하염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남긴 전장의 흔적을 따라 정처없이 방황하기를 가늠할 수 조차 없었을 때 즈음에 이들 앞에 나타난 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과 조우한 순간 이들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끼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수많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듯이 서로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시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난 뒤 그 무리는 고개를 돌리어 길을 나아갔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아벨의 장벽에서조차도 느껴보지 못했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좇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들 뒤를 따라 걷고 또 걸으며, 이들은 폐허속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진 존재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무리들도 아무말도 섞지 않은채 이들의 무리와 함께했습니다. 작은 희망과 함께 말이죠.
긴 발걸음의 그 끝에 카인의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따가웠죠. 브리쿨은 카인의 권능을 온전히 짊어지지 못한 반쪽짜리 존재에 혐오감을 드러냈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카인의 성에 그들을 위한 쉴곳은 없던 것입니다. 이내, 그들 안에 그나마 있던 작

은 희망마저 산산히 깨져 흩어져 버렸고, 이들은 이데아의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아벨의 자손도 아니고 카인의 핏줄도 아닙니다. 세트의 후예는 더더욱 아니었죠. '아무것도 아닌 자' 들이 만난 이 세계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모순된 자. 거짓된 생명체. 불경한 존재. 더럽고 추한 자들. 이 말 모두가 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다양한 모욕적인 말들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창조주께서 만든 것 중 쓸모가 없는 것이 없다고 여기던 과거의 아벨의 자손들이었던 이들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 원치 않게 이 땅에 숨을 쉬게 된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채 그들이 죽고 다시 그들이 눈을 뜬 곳, 혹은 영원의 전쟁이 시작된 자리를 서성이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낀 자들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안에서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기 혐오와 동시에 일그러진 분노로 가득차게 되었고 이 분노는 그들의 안팎으로 미친듯이 몰아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분노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표출할 데가 필요했고 한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혐오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더욱이 더러운 카인의 피를 몸에 담아가며 거짓된 생명을 부지할 생각이 없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들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게 카인의 핏줄로써 살아가야 하지만 이들의 몸 안을 불경한 자들을 충분히 죽이고 남을 만큼의 순은을 담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의 방식은 아마 다른 이들은 평생 혹은 아니, 죽어서도 이해하지 못할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벨의 자손이매 아벨의 자손도 아니거니와 카인의 핏줄이지만 카인의 핏줄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나 역설적인 이 자들은 이미 여명을 맞고도 태양이 이들을 결코 죽일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시도한 바이기에 알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행여 그들의 몸 안에 은을 담는 것조차 이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나 무모하고 미쳐보이는 제안은 '헤르실라' 라는 여인에게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자' 라는 그들을 칭하는 말처럼 이들의 감정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죽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기에 순은을 몸에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이데아의 모든 이들이 업보를 다하고 불경한 자들이 모두 바스러지기 전까지 이들은 죽을수 없었습니다.
헤르실라는 이들을 이끌고 마침내 공국이 대대적으로 은을 채굴하던 곳이었으나 영원의 전쟁 이후로 버려진 폐광에 당도하게 됩니다. 황량한 이곳을 거닐다 마침내 이곳에서 은빛 심장이라 불리는 순은의 집약된 결정체인 '세렛' 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 꽂아 넣습니다. 카인의 피가 그녀안에 흐르매 그녀의 가슴

에 거칠게 쑤셔박은 세렛이 녹아 그녀의 몸 안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격통. 그녀는 피가 끓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 쳤습니다. 그렇게 한참동안 몸에 흐르는 은이 카인의 피와 부딪혀 타고 섞이기를 반복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벨의 자손의 육체였다면 분명 산산조각나 바스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인의 핏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몸은 바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바스러질 지언정 그녀의 눈 뜨고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분노는 온전히 그녀 안에 담겨있습니다. 한방울 한방울 세렛이 녹아 흐르는 은빛의 물결에 그녀는 사선을 여러번 넘나들기를 반복하였지만, 그 어떠한 고통도 그녀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갈고 부스러뜨리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렛이 전부 녹아 그녀 안에는 은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은 성녀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누가 그녀를 보고 카인의 혈족이라 하겠나이까? 세렛의 순은의 결정을 담고도 그녀는 두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녹아있던 순은을 어두운 폐광안에 뿌려 그들이 살만한 구색을 갖추게 했고, 그 순은은 나머지 이들에게도 스며들었으니, 그녀가 받은 고통을 이들도 그대로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도 빠짐없이 몸안에 순은을 두른 이들이 이데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순은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일그러지고 그들의 몸을 덮게되어 그들 몸의 일부인양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데아의 어떠한 존재보다 더 위험

한 자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것은 피로 얼룩진 은이요, 이것으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은 쉬이 빛의 권능으로 그들을 태워버릴 수도 없으며 신의 권능은 이제 이들에게 죽음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며, 카인의 핏줄 안에 흐르는 피를 굳게하며 세트의 후예의 살점이 다시금 엉겨붙지 못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부르는 이들을 이를 후회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케세르카'. 은빛 분노라는 뜻입니다. 수십번 버려진 이들의 안에서 응어리진 분노는 그들을 소모품처럼 써버린 공국과 교황청의 모두를, 그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카인의 핏줄을 비롯한 이데아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불경한 존재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거짓된 생명과 모순된 존재라니.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끓는듯한 분노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보듬으며 다짐하기를, 이 땅에서서 불경한 존재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라, 우리를 보듬지 못하고 빛의 구원을 짖어대는 개들도 죽으리라. 이것은 원망이요. 그대들의 업보입니다. 그들이 모두 재로 돌아간 후에 저주 받은 나 스스로도 죽을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지껏 담아온 죄악인 분노를 이들의 몸 안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리라 맹세합니다. 아마 우리의 몸에 흐르는 은빛의 분노는 영원히 잠들지 못할 테지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경한 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며 죄악에 물든 자들도 결국 죽을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이제 그만 그에대한 대가를 치루기를. 또한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길. 그것이 그

리도 중요합니까? 종국엔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분노의 죄악에 뒤덮힌 순은에 의해서 말이죠. 부디 이 땅의 모든 불경한 자들이 눈을 감기 전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불경한 피가 사그러지지 않게 하소서.

첫번째 만찬 “심연의 공포”

아벨의 장벽 안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서도 어둠 속에서 아벨의 자손들의 살과 피를 탐하며 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죄어가고, 먹잇감의 뼈와 살을 찢고 부수며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심연의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마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들에게 미지의 존재들은 그저 심연속 괴물이라 불려지면서 공포의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심연의 괴물들이라고 불려지던 이들은 다름아닌 카인의 혈족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 이질적인 모습은 카인의 핏줄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으니, 오죽하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낳은 것이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뿌리는 카인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찌 카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지닌자가 나왔는지는 아벨의 자손들이 알리가 만무하겠지요. 본디 카인의 핏줄들이라 할지언정 모습은 아벨의 자손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할진대 이들이 카인의 핏줄과 다른 모습을 한 이유로 심연의 존재라고만 불려지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심연의 존재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카인의 혈통 중에서도 가장 본능에 충실하고 피의 갈증에 자신을 놓아버린 자들입니다. 나아가 비단 피를 취할 뿐만 아니라 먹잇감의 살점까지 모조리 먹어치우게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너무나도 순수하리만큼 파괴를 낳는다고도 알려져있죠. 그들

의 허기는 입에 피를 물고 있는 순간에도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피의 광기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뱃속에서 몰아치는 끊임없는 허기에 기괴한 소리를 내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굶주려 있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시라도 입에 무언가를 물고 뜯어야 했으며 비정상적으로 피와 살을 탐닉하였기 때문에 다른 카인의 혈족 사이에서도 비정상적인 '이상식욕자들' 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상식욕 행위로 인해 뒤틀려진 모습 때문인지 태초에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라고 할 만큼 기괴하였으며 그야말로 심연의 괴물이라 불릴만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카인의 핏줄이 가진 외형을 가까스로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일부는 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은 저마다 달랐으니 혹자는 이들을 변절자 혹은 포식자 또는 심연의 아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카인의 핏줄들의 입을 빌자면 그들이 게걸스럽게 입에 무엇가를 물고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조차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기에 이를 빗대어 심연의 공포라는 뜻의 '쟈토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병적인 식욕은 자아와 지성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에 충실했기에 지성을 잃었다기보다 그들에게 굳이 지성은 불필요한 것이었기에 스스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들과의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심지어 카인의 혈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들의 광기에 가까운 허기와 탐식은 그 어떤 카인의 핏줄들도 이해하기 힘든 범주의 것이었습

니다. 대개 이들의 사냥은 은밀하고 조용하며, 구획을 나누어 이들 사회에서 분열이 조장되는 일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하야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식의 죄악에 빠진 쟈토움의 미식가들에게는 한낱 규율따위는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들은 혈족의 규율을 지키지 않아 태초의 피마저도 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곤 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그가 묶어두는 예속의 사슬보다 그들안에 잠재된 본능에 더 강하게 이끌려 태초의 피도 그들을 다루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쟈토움의 무리를 거느리고 다니며 이데아에 공포를 불러 일으킨 여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악마의 자궁' 이라는 뜻을 가진 예르첼람이라고 불려지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죠. 그녀가 바로 태초의 무리어미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일반적인 카인의 혈족들과는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이들은 본능에 미쳐버린 이상식욕자들끼리 모여 그들만의 둥지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속에서 이들을 굽어살피는 그녀가 바로 탐식의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르첼람은 카인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렇게나 모성애가 강했던 이들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아이들 모두를 하나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태초의 죽음과 영원의 전쟁이 끝난 뒤 교황청은 전 카인의 핏줄을 상대로 피의 복수 라는 이름으로 피바람이 불게 했고 교황청으로부터 대대적 숙청작업이 이루

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둥지도 마찬가지로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야 태양이 가리어진 깊은 어둠 속에 자신의 몸으로부터 핏덩이들을 뿌려낸 점막으로 이들을 감싸안았습니다.

그러나, 둥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배가 갈리듯이 나뉘어지며 둥지 안의 자식들이 노출되던 찰나의 순간에 예르첼람은 그녀의 아이들인 쟈토움마저 먹어 삼킵니다. 다른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였을 테지만, 본능으로 야생을 살아온 이 심연의 짐승은 위험에 처해진 자신의 새끼들을 그저 포식자들의 칼 아래 피와 내장을 쏟게 두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새끼들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아마도 본능이 그녀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점막 안의 마지막 쟈토움을 집어 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는 너무나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감싸고 그녀위 귓가에 속삭임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녀의 몸 일부는 이데아에 존재할리 없는 듯한 모습인양 기형적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극심한 허기가 찾아옵니다. 피의 복수를 위하야 점막을 찢고 그녀를 숙청하러 온 아벨의 사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 뒤로 예르첼람은 탐식의 죄악을 완전히 뒤집어 쓴채로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 대가는 가혹했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허기로 인하야 모든 것을 탐하고 입안에 구겨 넣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수많은 그녀의 핏줄을 잃게 된 그녀는 죄책감에 속죄의 뜻으로 폭식과 만찬의 후에 자신의

살점을 찢어 핏덩어리를 바닥에 토해내고 생명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래에 다수의 무리어미를 두어 이들에게 피와 고기를 먹이어 키우게 되며 다시금 이들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분명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성조차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녀에게는 눈 앞의 모든 것이 먹잇감이었습니다. 탐식의 죄악이란 것은 허기를 촉매로 그들의 본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기에 어찌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존재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들은 적은 수로도 터무니 없는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본능만큼이나 강한 동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나 강했을 테지요.

이들이 위협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강함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성을 갖추지 않고 오직 본능에만 이끌리는 이들을 모든 카인의 혈족들이 경계하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폭식의 죄악은 나중에 이르러 비단 피와 살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이데아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그 범주를 늘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죄악을 짊어진 모든 카인의 혈족들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죄악의 달콤한 향기에 도취되어 이에 끌리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위협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들의 탐식은 어느 누구에게나 위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원이 전쟁이 끝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어디에도 견줄데가 없이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인간이나 세트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으매 그들 안에 흐르는 피와 같

은 피가 흐르는 카인의 핏줄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일 뿐 그 이상의 존재도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라도 더 먹어치워 배불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광기는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들의 가차없는 만찬에 카인의 혈족들이 하나 둘 생겨남에 따라 이들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원로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포식은 흡혈의 범주는 아니었으나 규율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셰라자드이라는 행위릐 일부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은 이들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이 자들을 향하여 척살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려 자토움입니다.
탐식의 죄악에 완전히 도취되어 버린 이계의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가진 힘은 모든 혈족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최후에 이르러서는 이들 모두를 이데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왕가의 혈통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왕가의 혈통도 혈족의 존속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토움은 예르첼라를 중심으로 변이와 변태 그리고 진화를 통하여 그들의 수를 늘려갔습니다. 이렇게나 그들의 수를 늘려가는 자들에 대해 왕가의 혈통은 혈족의 구획이 깨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이 피보다 더 탐했던 것은 바닥에 뒹구는 시체들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그 수를 늘려가는 만큼 저들끼리 서로 죽이고 뜯어 먹으니 그 수는 줄게됨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탐식의 죄악의 이러한 아비규환의 모습에 브리쿨마저 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태초의 피의 예속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태초의 피를 담은 왕가의 혈통이라 할 지라도 이들을 수족처럼 부릴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신경이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의심할 여지없는 먹이사슬 중 최상위 포식자이니, 왕가의 혈통은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속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았던 이들이기에 이들은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웠죠. 뒤틀려 버린 몸은 이들이 다른 혈족보다 태양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명을 걷게 된 다른 혈족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태양은 카인의 핏줄들에게 유쾌한 존재가 아니나, 쟈토움에게 있어 태양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태양이 지고 난 뒤에 깔리는 어둠은 이들을 다른 혈족보다 더욱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러한 이유로 이들이 심연의 존재들이라 불려진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이데아를 비추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태양이 지고 난 뒤에는 모두가 이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쟈토움의 미식가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하야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있어서 그들을 덮고 있는 핏덩어리가 그들을 지키는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그들만의 거처가 필요하지 않았던거죠. 왜 다른 명칭 없이 굳이 둥지라 부

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들은 소수의 저들끼리 모여서 작은 집단을 이루며 생활하는데 다른 카인의 여느 핏줄과는 달리 관에서 안식을 취하는 대신 그들 스스로의 피와 살점을 엉기어 고치의 형태로 그 안에서 안락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이가 어미의 뱃속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둥지 안은 비록 소수의 집단이었지만 이들을 전부 덮을만한 크기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쟈토움의 무리중 이 역할을 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무리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미가 그러하듯이 이들 무리 안에서도 무리어미라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살 덩어리를 떼어 잠막을 이루어 이들을 전부 덮을 수 있을만한 거대한 핏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한시라도 이들에게서 주위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입안에 있는 그대를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태어난 나의 자식들을 두고 나의 허기와 탐식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정신을 다시 차리고 나면, 그들은 이미 전부 다음에 만들어 낼 새로운 생명의 양분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멈추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 우리에게 이것은 분명 비극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이상 그것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진대 어찌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식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걱정은 거두고 그저 숨을 다하기 전까지 기도나 하시길. 죽어가는 동안 당신의 창자는 사방에 흩뿌려지고 몸뚱이는

조각날 것입니다. 다만, 죄악이 가득한 나에게 일말의 자비가 남아 있다면 당신을 통채로 먹어 치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나의 목적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데아를 누비며 만찬을 즐기니 그것을 이미 다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생존인가 진화인가 아니면 그저 본능에만 충실한 삶인가 굳이 스스로 힘든 물음에 던지지 않으렵니다. 다만, 우리와 조우하면 편히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샤토움에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탐식과 포식의 행위에는 절대 악의는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기뻐하며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양분이 되기를 축원하옵소서.

첫번째 인형극 “새로 만든 가족”

사랑하는 이가 등을 돌리는 일만큼 가슴이 시린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만큼 뼈에 사무칠 만큼 아픈 것입니다. 찢어진 살은 여물고 부러진 뼈는 제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지만, 이것은 아마 눈을 감을때까지 영영 잊혀지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것은 비단 아벨의 자손들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불안정한 감정은 카인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 가지었던 모습이 그리움이나 공허함이었지는 몰라도 그것은 이내 뒤틀리고 삐뚤어져 그 형태를 달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질투’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질투는 애정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애정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카인이 자신의 낙원을 위하여 그의 핏줄을 점지하던 도중 불완전한 이들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인이기에 맡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기에는 그 태동이 너무나도 미약하여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 태어나지 못하고 이땅에서 바스러지는 생명이었습니다. 어미의 뱃속에서 태양을 맞이하지 못한채 땅에 떨어지는 생명이었습니다. 혹은 어미의 뱃속에서 어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 생명이었습니다. 낭자하는 핏덩어리 속에서도 그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자손들 조차 이를 외면하여 무기력하

게 꺼져가는 생명을 보며 카인은 탄식을 금치 못하며 내뱉은 한마디,
"아벨,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것이오?"
이러한 만행을 행하는 자가 진정 아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뒤로 한채 카인은 이들을 거두어 이들에게 그의 피를 뿌려 생명을 윤허합니다. 하지만, 그의 권능을 몸에 담기 이전의 모습이 워낙 어미의 애정을 받지 못한채 세상의 빛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그의 피를 몸에 담고도 미처 다 자라지 못한 왜소한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더이상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름답고도 순수하고, 티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모습은 이데아의 그 어떠한 생명도 이 모습에 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억겁의 시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나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을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카인의 권능을 몸에 담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은 카인의 핏줄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으니, 이는 카인의 핏줄이 가지고 있다고 하기엔 다소 이질적인 감정이었죠. 그것은 아마 이들이 카인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을 시기에 특이했던 탄생 배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을 맞이하지 못한채, 어미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목숨이 꺼지려 했던 가녀린 생명이었기 때문이었기에 이러한 감정이 이들 안에 요동쳤던 겁니다.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감정이란 바로, 모든 이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애정

을 이토록 갈구하던 원초적인 질투는 그 의미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스며든 죄악이었고, 그들은 질투의 화신이 되었고, 이들을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은 이데아에 숨을 쉬는 모든 생명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들을 이해 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미처 태어나지 못하고 햇살아래 어미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꺼져가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미처 못받은 사랑은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로 이데아의 모든 생명들은 누군가 나에게 줘야만 할 사랑을 막는 존재로 인지하고 이들에게 질투의 화살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모든 카인의 혈족들은 제 의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이 땅을 누비며 피와 살을 추구하는 들개와도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애정이라는 감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카인의 핏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죠. 게다가, 이들은 다른 카인의 핏줄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저 외형만 아이의 모습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신적인 면으로도 다른 혈족에 비해 전혀 성숙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뒤쳐졌습니다. 사냥이란 기본적인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한 채 그저 미숙한 모습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들은 카인의 핏줄임에도 같은 동족의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여 그저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고 ‘벨시엘’ 도 그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곳이 없는 이 세계에서 유난히 인형에 집착했습니다. 인형이야 말로 그가 유일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벨시엘은 인형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며 그녀를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지내던 도중 한 무리의 혈족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무리 중 하나가 그의 인형에게 손을 대고 끝내 인형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 뒤로 소년의 안에 있던 무언가 깨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에 뿌려진 핏자국과 그를 위협하던 혈족들이 기이한 모습으로 꺾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인형은 벨시엘에게 나온 실타래에 찢겨져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그를 감싸안으려는 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벨시엘의 피가 섞인 인형은 그의 피로부터 그가 어미의 품을 원하던 그의 상념이 녹아들었기 때문었을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형에 담긴 그의 피가 무의식에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시엘은 그 뒤로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는 추스리기 힘든 발걸음을 하릴없이 옮기었습니다. 아벨의 자손에게 버려졌음에도 어미의 품을 느끼고 싶었던 본능 때문이었는지 역설적이게도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아벨의 자손들의 무리 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 무언가 그의 발걸음을 이리로 옮겼을 것입니다. 조심스레 문이 열리었고, 젊은 여인이 이 아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질수 없었던 젊은 여인과 어미에게서 버림받은 아이. 그 둘은 이렇게 서로에게 끌리듯이 마주하게 된 거죠. 한참을 멍하

니 바라보던 이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눈물의 색은 달랐지만, 이들은 한참동안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여인은 카인의 이 아이가 카인의 핏줄임을 알고서도 그를 자신의 아이로 맞이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카인의 핏줄임을 속이고 있던 벨시엘이 젊은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었으니 그 여리디 여린 몸이 떨리어 가까스로 진실을 말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매 연민과 동정의 마음에 더불어 보호본능을 자극하게 한 벨시엘을 보듬어 안아주며 기꺼이 그에게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벨시엘과 이들의 혈족은 한번 아벨의 자손들에게 버려지고 카인의 핏줄에게 핍박을 받았으나, 다시금 아벨의 자손의 품 속에서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 델페노프의 통치 하에 공국이 건립되고 카인과 그의 핏줄에 대한 복수극이 시작되고, 이내 영원의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영원의 전쟁은 이름 그대로 영원의 시간처럼 흘러갔고, 마침내 종언을 고합니다. 그리고 국왕의 명령으로 교황청을 필두로한 대대적인 카인의 혈족에 대한 숙청작업인 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아벨의 자손들 사회속에서 별 탈 없이 지내오던 벨시엘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전쟁 중에 묘령의 여인이 누설한 카인의 핏줄에 대한 비밀로 인해 피의 복수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벨시엘을 자신의 아이로 맞이한 젊은 여인은 그 어린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 소년을 입양을 한 그녀도 엄연히

한 아이의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그녀는 교황청의 압박과 대법원의 소환장에 당당히 나서며, 벨시엘의 존재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이나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를 변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녀를 찾아 벨시엘은 몸을 숨기어 감금되어 있는 그녀를 찾았고, 이런 그의 모습에 젊은 여인은 다시한번 그가 소중한 존재임을 그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으라는 그녀의 말을 뒤로한채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반나절 뒤, 그녀는 공개재판에서 화형대 위에 올라 한줌의 재가 되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뿌려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새벽 벨시엘은 그 재 한줌을 가슴에 쥐고 상처 하나 없는 아픔에 의문을 가지게 되죠.

벨시엘의 경우만 봐도 이들이 피의 갈증만큼이나 애정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독함으로 인하야 무언가를 곁에 두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든 죽어있는 존재이건간에 말이죠. 영생을 사는 이들이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뒤로한채 영원토록 홀로 남게 되었다는 그 감정은 감히 아벨의 자손들에겐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 줘야만 하는 것들은 이토록 부서지기 쉬워 영원토록 이들을 사랑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벨시엘은 슬픔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했던 젊은 여인의 모습을 한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 자신의 피를 불어 넣어 영원토록 자신만을 사랑할 꼭두각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숴

진 인형은 영원토록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벨시엘은 다양한 의미로 아직 어리고 세상의 잔혹함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전부는 오직 그의 손에 쥔 인형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두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인형에 의지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가지는 모든 것에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아니하고 그저 인형처럼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기어 그저 가지고 놀고 망가지면 고쳐서 다시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중에 이르러서는 고칠 수 없을정도로 망가진 장난감은 주저없이 버리는 그의 모습엔 아이의 순진무구함은 남아있지 않고 그저 잔혹함만이 눈에 밟히었습니다.
이렇게나,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던 아벨의 자손들이나 카인의 핏줄들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대개 죽거나 그들의 곁을 떠나 다른 이들의 옆에 있던 것에 공허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형의 집이라는 뜻의 '바흐바이' 를 만들게 되었죠. 이곳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그만의 공간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쓸쓸함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인형의 집에서 그의 세계에 빠져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자신과 같은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것은 다시금 맡고 싶지 않았던 죽음의 냄새였고, 분명 카인이 자신을 거두었을 때 풍기던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도저히 그 냄새로부터 고개를 돌릴 수 없었던 그는 피를 머금은 실타래를 뿌리어 그와 같은 과거를 지닌자들을 바흐바이에 나뉘어진 방에 이들을 두어 그들만의 세계를

갖도록 해줍니다. 이제 더이상 이들은 이데아에서 상처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어진 이들은 그들의 과거와 벨시엘의 피를 머금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어린 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추악한 질투를 보일테지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했다해도 이들은 카인의 혈족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몸 안에 있던 피를 거의 모두 몰아준 그 인형들은 당연히 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카인의 혈족인들 자신의 피를 쏟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희생이었으니까요. 카인의 핏줄들 중 그 어느 누가 자신 이외의 존재를 위하야 자신의 몸에 담고 있는 피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나 이 인형들은 이들의 피에 담긴 상념이 스며들게 된 피조물이었기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저력을 발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이데아를 전율케 할만한 한쌍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후에 너무나도 선명히 그들에게서 드러난 죄악의 모습과 이들의 소름끼치는 그 행동에 빗대어 비탄의 인형이라는 뜻의 '베르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베르체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바라봐 주고, 나만을 사랑해 주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꼭두각시같은 존재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인형이라면 두손과 두발을 잘라야겠지요. 그리하다면 어디 가지 못할테니까요. 그래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면 눈을 뽑아갈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누구도 볼 수 없을테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인형

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려 하는 인형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지 말아요. 나를 봐줘요. 당신은 그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러니 당신도 고장나 버릴 때까지 나만을 사랑해줘요.

색계 1계 “절정의 황홀경”

기록에 따르면 대개의 카인의 핏줄들은 흡혈의 과정에서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하며, 이는 피를 흘리고 있던 먹잇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숨이 희미해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채 순간의 쾌락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순간 그들은 둘만의 세계에서 서로의 살결과 타액만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절정의 황홀경에 지나치게 심취한 혈족이 있었으니,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몸에 새기고 싶어했습니다. 이데아의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그것을 부르니, 그 이름은 ‘음욕’ 이라 하며 죄악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에 따라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먹고 자는 것 만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욕구였습니다. 이 사실을 딱히 죄악이라 여기지 않는 이들이었기에, 그 즐거움에 몸을 던지고 만끽하고 있던 것이었죠.
갈증을 해소할 때마다 이들이 느끼는 황홀경은 아벨의 자손들이 느끼는 그것과는 크기가 달랐습니다. 어느샌가 이 쾌락에 심취해 있던 이 혈족은 황홀경을 위하여 시도 때도없이 피를 갈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다른 혈족에 비해 보다 많은 피를 갈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갈증을 동반하지 않은 흡혈에는 쾌락도 즐거움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자극은 역치를 넘어서 단순한 흡혈로는 그들이 원하는 쾌락점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

들은 갈증의 시기가 올때까지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흡혈의 목적은 피에 대한 갈증에서 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한 과정에 불구했던 것이었죠. 불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도구는 흡혈이 아닌 쾌락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슬러 이들이 마침내 결론을 낸 것이 그들 안에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갈증의 원인은 피가 아닌 음욕에서 온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죄악의 돌에서 스며드는 속삭임과도 같은 달콤함과도 같이 아찔하고 부드럽게 이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깊은 쾌락의 골에 들어 가기 위하여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게 존재하는 그 안에 담긴 존재인 그것은 순수하고도 티없이 깨끗하며 맑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이것을 '정기' 라고 부르게 되며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기라 함은 아벨의 자손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의 타액과 애액정도가 되겠죠. 이들은 사냥감과의 은밀할 접촉으로 끈적하게 그들과 몸을 섞으며 희생양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정기를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거칠고도 조용히 섞이는 그들의 몸의 대화는 희생양이 바싹 말라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두 방울,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어치우고 나서는 몸안 한가득 그들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는 양분인 정기를 몸에 담은채 다른 희생양을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더이상 이들에게 흡혈은 부정한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몸에서 원하는 갈증이 그 형태를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피에서 정기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진 성욕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갈구하는 순수한 정기에 비하면 피를 취하며 오는 쾌락은 그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에 한참을 미치치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은 피를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구전과 목격담을 통하여 아벨의 자손들이나 세트의 후예로부터 몽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이들과 몸을 섞는 자들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정기를 빨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몽마의 무리들 중에서도 그들이 회수한 정기로 자신을 가꾸어 더욱 더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흘리며 더 나은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나고 비범한 자가 있었으니, 페라즈마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그의 이름이 바로 몽마왕 '헤이렐' 입니다.
그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영리했고 생명을 유혹하는 법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으며, 그의 손짓 하나조차도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끌게 할만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매력으로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 없이 자유로이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동안 그들의 사회 속에서 피와 살을 탐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벨의 자손들의 가장 약한 죄악의 음욕에 깊이 파고들어 그들을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카인이라는 자들 대부분이 아벨의 자손들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헤이렐과 몽마의

존재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빨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이라도 품에 안아보고 싶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욕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야말로 이들이 머물러 있을 곳이었죠. 헤이렐과 그를 따르는 몽마들은 그렇게 욕정이 피는 곳을 따라 정기를 취하던 도중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영원의 전쟁에서 이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저 쾌락을 찾으러 다니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었지만 말이죠. 이들이 욕망을 쫓던 그 모습은 전장의 모든 이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의 향에 도취되었던 자들은 그 모습에 취하여 들고 있던 칼과 방패마저 내려놓고는 그들의 품에 안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쟁의 결말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야 어찌되는 그들은 욕정을 해소하기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라 여기었기 때문에 전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나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야 더이상 아벨의 자손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이들은 그곳에 거처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카인의 핏줄이라는 것도 문제였거니와 이들이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간괴로 속삭여 이들에게 죄악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욕은 그것들 중에서도 크나 큰 죄악이라 하였고 이를 악마의 소행이라 여기어 교황청에서 색의 죄를 지은자들을 쫓고 죄이고 썰고 태워 죽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자손을 떠나 헤이렐의 주도하에 이들만의 낙원을 세우게 되는데 꿈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언어로 ‘세뉴스파소’ 라는 이

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쾌락과 욕정으로 뒤덮힌 세계. 몽마왕 헤이렐은 이곳에서만큼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는 오직 본능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을 쾌락의 늪에 던지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했습니다. 법이나 규율은 없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든지간에 서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서로 부둥켜 섞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정기를 끄집어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됩니다. 이에 세뉴스파소 안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만족스런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공간 그 자체였습니다. 후에, 헤이렐은 그저 본능의 노예인 이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절과 품위, 그리고 매력을 갖추는 법을 일러주어 욕정의 꽃이라는 뜻을 가진 '페라투르' 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단순히 정기를 취할 뿐 아니라 이들은 가학과 피학성에도 눈을 뜨게 된 자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죽이기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엇나간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한단계 더 발전된 그들의 음욕에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자리한 세뉴스파소는 그들이 원한다면 도착증, 편집증, 온갖 병적인 문란함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이렐이 만든 낙원 세뉴스파소가 추구한 이상향은 상처당한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상당히 효율적이었으며, 심지어는 사냥감들은 스스로 그 발걸음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생기

게 되었죠. 이 덕분에 다른 혈족에게 있어 생존에 꼭 필요한 사냥이라는 것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페라즈마의 악마들은 큰 수고없이도 그들이 원하는 정기를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와 욕정의 꽃. 아, 이 얼마나 편리한 기능입니까? 이들 페라즈마는 분명 카인이 그가 가지었던 모든 매력을 쏟아부어 이들을 빚어낸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코 입과 머리칼 모든 선과 굴곡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완벽한 비율은 황금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의 완벽에 가까운 눈부신 외모와 농후한 손길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며, 이데아의 미의 기준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매력은 이미 모든 생명이 자신의 향에 취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에 끌려온 자들의 정기를 먹어치웠죠.

헤이렐이 세뉴스파소에서 페라즈마의 악마들과 농밀한 잔치를 계속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 장소와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에 대해 큰 호기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야 가이와 키오누스가 낳은 아르카나의 존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키오누스와 이데아가 서로 몸을 섞을 때 그 절정의 순간에 낳은 것이 바로 아르카나였기 때문이었죠. 딱히 이들은 다른 후손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 반대는 예외였지만 말이죠. 그러하기에 헤이렐은 이 아르카나라는 존재를 몸에 두어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해 이데아에 요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들과 접촉하곤 합니다. 이데아는

이미 이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계속 거절하지만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헤이렐도 영원의 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여유를 두고 언제나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어떠한 존재에 관해서든 포용력이 넓은 헤이렐이었지만, 이들은 왕가의 혈통과의 관계는 다소 껄끄러운 편입니다. 이미 이들은 그들만의 낙원이 있을진대, 굳이 죄악의 돌조각을 찾아 릴리스를 이데아로 강림하게 하며 영원의 그늘 속을 헤메이기 위해 모든 카인의 혈족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들을 보며 그저 고개만 내저을 뿐입니다.

이들이 몸을 맞대고 문지르니 길마다 거리마다 달큰한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몸을 섞으며 지나간 자리에 남은 향은 미향과도 같아, 이곳을 지나간 자는 돌아오지 못하였거나 행여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어 쾌락의 노예가 되며 더이상 그들이 원래 있어야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을 가까스로 지나온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달큰한 향이 차오르는 이곳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져 있는 곳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모든 이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말하며 바라건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것을 쏟아내고 죽겠노라 하매 연신 정신나간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헤이렐과 페라즈마가 세뉴스파소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쏟아내는 향이 다른 이들의 이성을 빼앗고 오직 본능의 노예가 되게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진대, 만일 이들이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면, 이 땅은

아마 향락과 정신나간 광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이 그들만의 땅에서 즐거이 그들만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도덕과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헤이렐과 우리를 지금의 시대는 죄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쾌락과 향락 그리고 욕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 안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락과 쾌락으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움직임은 누군가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자연스레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진화하며, 더 강한 개체를 만들고 역사를 이룩해 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며, 유기체와도 같이 항상 곁에서 우리와 숨쉬며 공존해온 감정입니다. 그것은 쉬이 지울수 없는 것일진대, 오히려 이를 온몸으로 부정하며 막으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요, 창조주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창조주가 낳은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저 미미한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향에 취해있는 지금 창조주가 무엇을 낳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내 앞에서 날개를 거두고 뱀의 혀처럼 온몸으로 나를 탐닉하는 그대일 것입니다.

명부록 1장 “영혼 착취”베나롭

이중인격. 그것은 하나의 육신에 두개의 자아를 담고 있는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미약하야 죄악의 유혹에 쉬이 빠진다는 정설이 만연해 있던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었죠. 그러나 두개가 아닌 세개의 자아라면 과연 이자의 육신은 어찌 될까요? 그리고 셋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혹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만, 그 자아는 영혼의 갯수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벨의 자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영혼을 하나의 육신에 담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으로 여러명의 영혼을 담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다중인격이라 부르게 됩니다. 다중인격의 역사는 말가르라고 하는 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다른 카인의 혈족들과 달리 유일하게 허무와 공허에 익숙해져 있는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존재감은 아무리 거짓된 생명이라도 생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희미하였습니다. 말가르는 힘없이 불에 타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보며, 다른 것 보다 오직 어떠한 형태로든 이 땅에 부정한 목숨으로라도 남아있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의 육신에 다수의 영혼을 담아 그 영혼의 생명을 갈취하여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몸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영혼을 담아낼 만큼의 그릇이 주어진다면 언에르아도 이데아에 존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

다.

그러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지했던 말가르는 그저 다른 카인의 핏줄들처럼 피를 취하며 살고 있던 도중 태초의 피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는 이데아에 목적을 잃고 떠도는 카인의 핏줄을 규합하여 카인의 성을 세우게 됩니다. 태초의 피는 모든 카인의 핏줄들에게 예속을 사슬을 부여하여 그의 하수인으로써 카인의 성에 거주할 것을 윤허하였습니다. 존재감도 없을 뿐더러 모든 일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말가르는 카인의 성을 뒤로한 채 그만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 그는 길에서 우연히 행색이 남루한 늙은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현자는 이미 말가르가 카인의 핏줄임을 알고 있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채 대꾸를 하기도 전에 늙은 현자는 그가 가야할 곳과 영혼에 대해 일러주게 됩니다.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긴채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가르는 늙은 현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인도한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어 도착한 그곳의 이름은 죽음의 골짜기라 하는 ‘나라눗’. 이곳은 왠지 아벨의 자손들 정확히 말하면, 이실그라드를 지키고 있는 퀴나즈들에겐 익숙한 광경이겠군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생명의 나무가 아닌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죽음의 나무가 있으며, 나뭇가지는 이실그라드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아르카나가 피는 대신 영혼이 나뭇가지 사이를 떠돌며 을씨년스러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마우엘

란’ 이름 그대로 카인의 언어로는 죽음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만, 마우엘란은 죽음의 나무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앙상하게 남아있는 숲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골짜기 나라눗의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떠도는 영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마우엘란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인 셈이었죠.

마침내 말가르는 늙은 현자가 일러준 방식으로 나라눗의 가지 사이사이를 방황하는 영혼의 사념체를 자신의 몸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죽음의 경계에 있다 한들 하나의 영혼을 담기에 무언가 부족한 듯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이들의 영혼을 더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를 채웠다고 여기었을 즈음, 자신의 육신안에 담았던 영혼이 그들만의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가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념이란 그 종류가 다양한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등의 감정 뿐만아니라 일곱가지의 죄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들은 저마다의 사념을 지닌 채로 나라눗에 남게 되는데 그것들은 분명 시대를 초월하며 떠돌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꺼져버린 불쌍한 영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이들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림으로써 그곳에서 보상심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착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문에 그의 안에 담긴 영혼들은 피로는 만족할 줄을 몰랐기에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이 때부터 말가르는 피라는 촉매보다 영혼의 갈구에 더 집착하

게 되었고 사념의 덩어리를 갈취하면서 갈증을 달랬습니다.
태초의 피가 카인을 잃고 방황하는 카인의 핏줄들에게 예속을 사슬을 부여하여 그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써 카인의 성에 머물도록 허락하였으나, 이들에게는 그의 예속의 사슬에 얽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얽혀있다 하더라도 이미 말가르의 안에는 수많은 영혼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가 무슨 짓을하던 다른 영혼에게 육신을 넘기고 그 일이 끝난 후에 영혼을 해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허와 허무 그 자체인 그에게 태초의 피의 눈을 피할만한 일을 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피도 말가르가 그저 이중인격인 줄로만 알고 있지 그의 육신안에 요동치는 영혼의 개수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가르의 희미한 존재감 때문이었겠지요. 그의 육신 안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대답하고 밤낮으로 미친듯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미치게끔 만들게 할 만큼 지겹게도 반복된 것이죠. 그들은 귓가를 맴돌며 더 많은 영혼을 뜯어먹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몸안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영혼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 둘 착취해 나갈 때마다 그는 점점 미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들이 지고있는 영혼 하나하나가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안에 담긴 수많은 영혼은 그 육신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하야 항상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안에 수많은 영혼을 가둔 이들은 인격

과 자아가 넘쳐나 서로 부딪히매 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본인의 인격조차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착취한 그 영혼마저도 자신의 인격체에 대한 고찰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혼들마저 자아를 분열하고 자가번식하게 되어 이미 그의 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죠. 이때문에 말가르는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야 영혼의 길잡이라는 뜻의 '리크모아' 라는 강한 사념체를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에 자신의 영혼의 절반을 떼어두어 사념체가 말가르 본인의 자아의 냄새를 맡게하여 길을 잃지 않고 찾게끔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라도 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혼을 해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가르라는 인격체는 완전히 길을 잃고 떠도는 영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영혼을 해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영혼을 해방할 때 증오의 사념체들은 본인의 영혼마저 침식하여 같이 해방되게끔 잡아 당겨 강제로 영원의 안식에 들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나, 그리 함에 있어도 말가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영혼을 뽑아냄에도 자신의 자아는 붙잡을 때의 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존재감도 없이 희미한 존재요, 공허와 허무를 가슴에 안고 있으며, 모든 일에 회의적이었던 말가르에게 나의 육신에 남아있는 나의 영혼은 부정하게 이어온 생명일지라

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한 때가 바로 영원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이들이 영혼을 착취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전장을 떠도는 망자의 영혼들은 항상 이 땅을 떠돌았고 이들의 절규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카인의 혈족 중에서 유일하게 죄악을 짊어지지 않았던 자들 중 하나였죠. 그러나 영원의 전쟁을 계기로 죄악의 감정을 더욱더 그들의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가르 그의 몸에 담긴 영혼은 자아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죄악마저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말가르는 미약하게나마 모든 죄악의 원리와 그 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모든 혈족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착취한 영혼 중에서는 카인의 핏줄들도 포함되어 있었나니, 그 안에 요동치는 죄악이 다른 이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크지 않으나 이 죄악들이 섞이어 원죄의 집약체와도 같은 것인 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혈족에도 속한자가 아님에 그들과 같은 죄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경계의 대상이자 제거의 대상으로 여기었고 당연히 충돌은 불가피 한 것이 되었습니다.

희미한 존재를 지니고 있던 그는 그저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허기를 그저 영혼으로 달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데아에 존재감이 가장 큰 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싫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고 싶었기에 무수한 영혼을 육신에 담

아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과거의 의식들조차 더이상 그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벨의 자손에게, 카인의 혈족에게, 세트의 후예에게,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며 죽고 또 죽고 몇번을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앞으로도 계속 죽어갈 테지요. 그러나, 그가 거둔 영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기에 그 영혼을 매개로 하여 육신을 계속 바꾸어 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소진하여 그 기능을 다하게 되면 이내 그의 영혼을 담을 그릇을 구하고는 그곳에 영혼을 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조금씩 바뀌지만 그는 여전히 말가르입니다.

그저 공허한 존재가 되는 편이 나을것이라 여긴 말가르는 슬픈 발걸음을 옮기었고, 그곳은 그가 영혼을 몸에 담곤 했던 나라눗이었죠. 전쟁으로 척살령으로 이미 그는 지칠대로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엘란의 앙상한 뼈같은 나뭇가지로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잠시나마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즐거움에 취해 있었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인가 봅니다. 그는 다시 공허와 허무의 속으로, 존재가 흐릿하여 그 누구도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으로 빠지려고 합니다. 그는 그 슬픔에 자신의 몸에 담고 있던 영혼과 사념의 덩어리들을 해방하고 무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영혼의 해방을 항상 두려워 하며 경계했습니다. 영혼의 해방은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피를 갈구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영혼을 착취하던 그로써는 약해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

을 굳힌듯 그는 모든 영혼을 토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영혼마저 함께 이들과 빨려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말가르의 영혼을 비롯한 모든 영혼의 조각들이 이 숲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듯이 그 영혼들은 한참을 말가르의 육신의 곁을 맴돌다 흩어졌습니다. 영혼의 해방으로 인하야 여기저기서 이데아를 찢는듯한 비명과 울음이 퍼지게 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말가르가 서 있던 삶과 죽음의 그 가운데 세계가 갈가리 찢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그는 육신을 벗어나 영체의 모습을 지닌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엔 혼자였지만 그가 토해낸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입니다. 절반을 쪼개어 자신의 영혼을 냄새를 맡게끔 했던 사념체는 이제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존재감을 지우고 싶었지만, 이젠 다릅니다. 영원의 전쟁 후에 그의 육신에 담겨 있던 수많은 영혼들은 그의 감정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혼은 애증의 관계로 엉켜있는 셈이었죠.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치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그저 이데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모든 업을 자신에게 담으려 하고 있는 듯했죠. 현실의 고통속에서 절망하며 사는 삶보다 공허와 허무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한 구원이었습니다. 모든이가 그러하였듯이 그들은 구원이나 기도를 위하야 종일 하늘을 바라볼 뿐. 가까이에서 절규하며 바로 옆에서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는 이데아를 떠도는 구슬픈 영혼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카인의 존재

도 마찬가지였죠. 세트의 후예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 땅을 슬피 떠도는 영혼을 달래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몸이 당장이라도 사그러 들어 당장이라도 흩어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지만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들도 우리의 업일 것입니다. 죽은자들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무의미 하겠지요. 이미 그들의 세계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어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영혼과 자아의 공유로 모든 감정까지 나의 감정이 되어 교감하고 있으니, 그 슬픔과 공허함은 실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심취하여 구천을 떠도는 자들이나 산 사람의 손마저 놓아 버린다면 이들에게 정녕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었다만, 우리는 엄연히 카인의 핏줄, 영혼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무슨 색입니까?

검은 두루마리의 서 “어둠과 은총의 그림자"

이 땅의 후손들은 말합니다. 어둠은 스스로를 잡아먹는 존재라고 말이죠. 그만큼이나 어둠에서 오는 공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공포를 단련하거나 공포에게서 벗어날수도 없을 뿐이거니와 머릿속 깊숙히 심어진 그것은 각인과 같아서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 일어서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어둠이란 것은 오랜 시간동안 이데아에 숨쉬는 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둠을 뚫고 보는 눈을 가지고 있던, 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을 보던간에 어둠이란 각인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해답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 진리는 항상 고개를 내밀고 있으나 우매한 자들은 그것을 평생 찾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헤메이다 끝내 죽게 됩니다. 무한의 생을 살아가는 카인의 핏줄과는 다르게 다른 이들은 그리하지 못하니까요. 아니, 영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조차 진리는 감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기민한 정신을 지니고 있어 가까운 미래를 내어다보는 세트의 후예조차도 닿기 힘든 영역이었죠.

하지만, 이곳에 다른 존재들이 미처 닿지 못하는 진리와 미지의 영역밖의 장막을 들추어 보기 위해 모든 인과관계를 기록하고 관망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존재들은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세

기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식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은 그 힘을 오랜동안 벼려내고 갈고 닦아내니 그들의 힘은 미지의 영역이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를 아우러 현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현자라 함은 지혜로운 자. 그들은 물론 어디에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의 핏줄로부터 나온 현자들은 이 모두를 초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로 부터 나오는 감정과 분위기를 지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들은 감정을 지니고 있어 그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 감정을 다루는 검은 현자들은 이 감정을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다른 이들의 정신세계에 관여하거나 그들에게 각인을 새길수도 있었고, 나아가 그들의 정신을 분열시킬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은 오묘하고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허상을 만들고 심지어 그 허상이 진실로 믿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어둠의 현자들은 그것에 힘을 살짝 더 보태어 진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힘은 카인조차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된 허상, 혹은 허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이는 현실을 보여준 탓에 덮어둔 불안정한 힘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현자들이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정신과 뒤섞이어, 무엇이 현실인지 허상인지 자각하지 못하며 임사 상태에 빠져버린 자들도 속출했다고 하니, 이들

이 취해버린 그 힘은 양날의 검이었죠.
대개 이들은 다른 혈족에 비해 오랜세월동안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벨의 죽음과 영원의 전쟁과 모든 숱한 역사를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민하고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진 힘에 대한 위험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 억겁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이 억겁의 시간은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악을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들이 지닌 힘을 좀더 자유자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딱히 필요가 없었던 재료였을 뿐이었죠. 그리하여 이 현자들은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이 쏟아내는 감정들을 그들로부터 멀게 했습니다. 그들이 부리던 힘으로 죄악이 그들의 육신을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부터 멀어질만큼 마음을 비워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감정이 없이 움직여 생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카인의 핏줄이기에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나, 이들은 그저 인형에 영혼을 덧씌운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여러 무리의 까마귀들을 몰고 다니는데 그것은 마치 폭풍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감히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고 지저귀는 그 소리는 하늘을 가르는 듯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들은 그들의 지식을 담을 수도 있으며 다른이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존재였죠. 까마귀는 영리하며 기민한 동물이라고 이데아에 알려져 있기에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

었습니다.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카인의 검은 현자라고만 불려지던 그들도 항상 이데아를 주시하며 노려보듯이, 때로는 관망하며 앞을 내어다보듯이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베나롭' 이라고 불려졌으며 이는 카인의 언어로 직역하면 통찰의 까마귀라는 뜻이며 앞을 내어다보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카인의 혈족의 무리나 집단을 다른 후손이 부를때 그들만의 언어로 부르지만, 이들만은 예외였습니다. 다른 후손도 그들을 베나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들이 다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드높은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존경의 대상으로써 이들을 부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이데아는 다른 이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적대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과관계에 자신을 대입하여 그들과 공감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카인의 핏줄임에도 선함이 남아있었기에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아닐겁니다. 그들은 감정의 공감으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힘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르러 '아락슕' 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데아의 모든 생명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 움직일때에 발하던 것이었죠. 이들은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만 갈구하던 다른 핏줄들과 달리 그들만의 집착과도 같은 연구로 그 힘을 좀 더 유연히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베나롭의 현자들은 피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인지 카인의 핏줄

임에도 그들이 모여주는 모습은 다른 후손들도 하여금 이들을 우러러보게 하였으나 그들이 가진 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는 과정에서 아락슐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정신의 일부를 어둠에 빠지게 하여 점차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기록서를 나온 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하는 말들 중 하나를 들어보면, 그곳을 들어왔을 때와 나왔을 때의 풍경이 다르다고 하는 자도 있거나 혹은 데자부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이를 현자에게 얻은 깨우침이라 여기는 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나롭의 검은 현자들이 아락슐을 통하여 그들의 정신안에 스며들어 갉아먹으며 정신을 재배치 했던 것이었습니다. 피만 마시지 않을 뿐, 그들 역시 카인의 핏줄이었을까요? 역시 생명을 좀먹고 있는 것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감정과 주변에 흐르는 분위기, 그 공기는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며, 때로 그것은 소용돌이처럼 이데아에 몰아칩니다. 이에 베나롭의 현자들 중에서도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아락슐을 가장 잘 다루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발하는 아락슐에 의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를 까마귀들의 지도자 라는 뜻의 '로시렛' 이라고 부르며, 모두 그의 지식을 전수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남과 감정이 폭발하는 것에 있어서 우연은 없다고 여기었기에 효율적으로 아락슐을 다루며 부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다듬기 위하여 그의 휘하에 현자들을 소집하여 원로회를 열고 이데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데아에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감정을 분출하며 쏟아지는 아락슐의 조각들이 흘러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것을 담아 둘 곳이 필요했습니다. 감히 그것을 몸에 한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부에 담겨있던 감정은 고요하고 잠잠하나 그것이 분출되어 외부로 나올 때에는 무언가를 바꿀만한 힘이 될 수도 있었고, 감정의 과포화 상태가 되어있는 곳이라면, 무언가는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들이 어떠한 감정의 응어리마저도 이들이 담아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중용을 지키게 하는 수호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먼 나중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양한 이류로 인해 이들은 아락슐을 제대로 안전히 담아둘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하여 이들은 어둠속에서 끄집어낸 아락슐을 이용해 정신과 사고가 담긴 서고라는 뜻의 ‘다아트리아’ 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곳은 도처에 방대한 지식와 태고의 역사를 기록한 양피지가 휘날리고 있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고서나 더이상 글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즐비해 있는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나 정신적으로 한단계 우위에 있던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태초의 피가 카인의 핏줄들을 규합하여 통치하기 이전부터 그들만의 의지를 가지고 지내던 자들이었죠. 대부분의 이들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이 땅에 전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역사와 지식의 집약점, 이곳은 베나롭의 현자들 중에서도 고위 현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출입이 허락된 곳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담겨

진 지식으로 함부로 이곳에 발을 딛게된 자들은 다아트리아에 흘러온 감정들에 의해 그들의 머릿속은 조작되고 뒤엉켜 데자부를 만들어 내게 되죠. 그리 된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문도 모르는채 그들의 감정의 고리들과 기억의 조각들을 찾기 위하여 계속 이곳들 드나들며, 정신을 소모하며 그들안에 있는 아락슐을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지식을 갈구하는 자들은 이데아에 얼마든지 있었고 호기롭게 디아트리아에 발을 들이려는 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베나롭의 현자들은 객기를 부리는 자들의 아락슐을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전장은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전장에서 살을 찢고 뼈를 부수기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곳에 펼쳐져 있던 모든 것들은 그들의 흥미를 끄는 연구대상입니다. 죽어가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토하는 자,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분노의 칼을 겨누는 자, 학살의 현장에서 피를 마시는 자, 새벽이 차오르는 숲을 더럽히는 자들의 목을 찢으려고 하는 자, 그 이외의 것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몸에서 토해내는 이 모든 아락슐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나롭의 현자들에게 있어 널브러진 시체와 흩뿌려진 피가 그들의 모든 기록에 담겨야 할 유산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들은 멈추지 않고 이데아에 펼쳐진 모든 사건과 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데아와 이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마저 훌

륭한 연구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아다 연구까지 할 정도였죠. 그 저주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단지 그것이 과거와 지금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 이외의 전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지 전장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데아에서 후손들이 서로 좋든 싫든 죽고 죽이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지식이 피어나고 다양한 감정이 휘몰아치며 그 피고 지는 생명 속에서도 더 나아가고 진보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던 자들이었죠.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도 필수불가결한 일련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아벨의 자손들이 즐겨쓰는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운명이겠지요. 카인이 아벨이 죽인 것도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적을 감춘 것도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서 뿌려진 아락슐을 마시는 것도 이들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혈족의 존속이 달려있는 전장 속에서도 이들은 모든것을 그려냈고 오직 지식을 전수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부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왕가의 혈통은 모든 카인의 핏줄들과 혈족들을 규합하게 되는데 차마 브리쿨마저도 베나롭의 현자들을 예속의 사슬아래 두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왕가의 혈통은 카인의 혈족중에서도 견줄 자가 없을만큼 강한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 어느 면에서도 우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역시 메울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들의 지혜 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데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이를 관찰했으나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이들이 이들을 절대악에 발을 딯고 있는 절대적인 중립에 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말을 하지요. 전쟁은 이 땅의 후손들에게 진보를 가져준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금단의 주술이나, 지식에 대한 병적인 갈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깊은 탐구와 지식의 전수는 이데아에 진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이데아에 미치는 지배력이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들 중 누구도 일곱가지의 죄악 중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감히 베나롭의 현자들이 밤낮으로 가이라를 면밀히 살피며 다아트리아에 한땀 한땀 새겨 넣은 감정의 아락슐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진리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나롭의 현자들입니다. 모쪼록 조심하시길. 발을 딯으려 하지 마십시오. 감히 이를 헤아리려 하지 마십시오. 진리에 손을 뻗으려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것입니다. 디아트리아에, 우리의 몸에, 이데아에 새기는 모든 역사와 지식, 움직임은 아락슐의 흔적과 함께 영원토록 쓰여질 것입니다. 카인의 이름으로.

우두머리의 첫번째 자격 “늑대의 후예"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저주는 세트의 심장을 움켜쥐게 되었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저주를 씻어내고 그 심장을 정화하기 위하여 신전의 깊은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똬리를 틀고, 그가 이르기를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도래하리라는 말을 남긴채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트의 가호 덕분이었을까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그의 심장을 움켜쥐게 되었지만, 그와 같은 저주를 짊어진 그의 후예들을 가까스러 지켜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던 원치않던 그들을 급습합니다. 세트는 영원의 전쟁을 예견하였고, 그의 후예들이 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종언을 고한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신전에 잠들어 있는 세트는 이제 더이상 그의 후예들이 나아가야 할 곳으로 이들에게 알리지 못하였으니, 영원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후예들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을 내다보는 기민한 예지력이 당장 그 빛을 잃어 그 후예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요.

세트가 잠들고 그의 후예가 자신들만의 고유 부족을 형성하여 이데아를

살아가는 동안 신전에 머물러 그가 다시금 이데아에 도래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노골적으로 신이 아이라는 뜻인 'ㅁㅁㅁ' 라고 스스로를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여전히 세트의 많은 후예들이 그의 곁에서 그가 가진 기민한 예지력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신전에 남아서 세트의 곁에서 그의 기운을 느끼고 그가 행하였을 일을 신의 대리인으로써 그의 뜻을 이어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오랜시간동안 세트의 곁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부족이었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세트와는 별개로 자신들까지 신의 자리 옆으로 은근슬쩍 자신들의 자리를 꿰차고 싶어했죠. 게다가 자신들을 신의 수호신이라 자처하며 다른 부족과는 다른 특별한 자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믿음이 부족하여 세트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고 목줄 풀린 개들처럼 다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트의 추종자로 오직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벗어나 이데아에 새로운 신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으며 오직 그만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그를 기다린 이들이 그의 곁에 서서 함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 은빛 갈기를 휘날리며 신전의 장엄함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의 충실한 종복이며, 그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그가 바라 마지않는 신이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죠. 이에 덧붙여 세트가 눈을 뜨고 난 뒤에 그의 피는 이데아에 퍼진 저주마저 정화할 신묘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이미 그들사이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사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세트를 향한 자르가의 굳건한 믿음은 제 아무리 이데아를 더럽히고 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주따위에 굴할 만한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깊은 잠에 빠진 뒤로도 그의 곁에는 그의 후예들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신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죠. 비록 다수의 부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 자르가의 전사들의 마음을 굳게 다잡은 자가 있었으니 그 자의 이름은 바로 ‘타사놋’ 입니다. 그는 영원의 전쟁에서 세트의 곁에서 그의 인도에 따라 그의 부족과 함께 참가했으며, 마지막에는 세트가 신전의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을 연 자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되고 신전을 지키는 후예들로부터 세트가 저주를 스스로 정화하여 무사히 재림을 위하여 잠을 청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게 된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은 세트의 수호신, 신의 아이 자르가의 이름 아래에 모든 부족들을 규합하기 위해 고군분투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데아를 떠도는 후예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그들 안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타사놋과 자르가의 전사들은 신전의 근처에 거처하며 세트가 다시금 깨

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라도 신전을 보는 자라면 당연 그 위용에 압도될 것입니다. 다른 후대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은 말 그대로 협곡의 산을 그들의 발톱으로 깎아만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들의 날카로운 발톱은 무뎌지고 부러졌으나, 이들은 오히려 이것을 훈장으로 여깁니다. 한 몸을 불사르며 신의 거처를 짓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와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협곡을 토대로 하여 세트의 부름에 의하여 깎이며 신전의 모습을 만들어가니 이것이야말로 세트가 신의 영역에 도달하겠다는 확고한 의도가 보이는 위엄을 자랑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곳 주위의 협곡은 마치 천연요새와도 같아서 빛이 좀처럼 새어들지 않아 비교적 어두워 그림자를 자아냈기에 그의 후예들은 입을 모아 검은 협곡이라는 의미를 지닌 '쿠울시가' 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졌습니다. 쿠울시가는 자르가의 전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만 했던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다른 이들로부터 세트가 자리하고 있는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위험도 기꺼이 감수했고 자신을 좀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트의 권능을 빌어 아벨이나 카인의 혈족에 비해 우월한 신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느끼기에 그것만으로 세트의 신전을 지키기에는 충분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더구나 그들이 자랑하는 날카로운 발톱은 영광스러운 세트의 신전을 짓느라 많이 손상이 되었던 터라 자르가의 전사들은 협곡 쿠울

시가에서 은은한 빛깔을 내며 달빛에 반사되어 빛을 발하는 이 돌을 가공하여 그들의 무기를 만들어 냅니다. 그 돌의 이름은 '지움' 이라고 하며 지난 날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꾸짖음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고 이따금씩 이데아를 상처입혔을 때, 그 상처가 생기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생긴 흉터같이 만들어진 돌이었습니다. 지움의 강도는 자르가의 전사들이 신전을 짓느라 깨어지고 손상된 발톱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트의 후예들의 이빨과 발톱은 그리 무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트로 인하여 만들어진 지움은 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움을 가공한 것으로 그들의 이빨과 발톱 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신의 장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 세공을 하여 만든 그들이 다루는 무기는 다른 후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크기도 크기이거니와, 이들이 성인식을 거쳐 하사받는 무기는 길고도 긴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빛을 잃지 않고 이가 나가는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뛰어난 가공술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지움이라는 광물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르가의 전사들은 신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에만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전사의 미덕으로는 항상 스스로의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언제나 항상 준비된 전사들이어야 한다는 풍조가 짙게 깔려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부족 자르가의 전사들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을 지키며 그의 뜻을 이행하는 자들입니다. 자르가의 전사들

은 오직 세트만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견디고 이를 씻어내며 이데아에 새로운 신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오직 그만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나 그를 맹신하는 이들은 그 믿음으로 세트가 부재중임에도 그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신전을 지켰고, 그가 심장을 옥죄이는 저주를 씻고 일어날 때까지 세트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불경한 자들이 신전에 닿게 하지 못하게도록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 때문인지 자르가의 전사들은 재림의 때에 세트를 신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이 행한 행위에는 언제나 그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평판과 앞으로 세간에 쓰여질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명분이 서지 않는 일에는 놀라울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세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면서 정신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겨들은 그의 뜻이었습니다. 세트가 부재중일 때도 자르가의 전사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신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그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써 스스로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명예와 전통을 중요시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데아에 몸을 던지게 되었죠. 그들이 신의 재림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 써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믿음은 세트의 권능과 뒤섞이어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고 이들이 그리 추구하던 명예와 전통을 중시하는 행동과 맞물려, 다른 이

들로 하여금 품격을 갖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자르가의 전사들이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느나, 이것은 모든 생명이 세트를 비롯하여 자신들보다 아래에 즉,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태도마저도 자신들과 다른이들의 다름을 보여주던 것이었습니다 . 콧대 높은 고고한 신비한 자들이었기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생명들 사이에서 계급을 나누어 다른 이들과의 교류조차 꺼려했습니다. 명예와 전통, 그것과는 별개로 자르가의 무리들은 그들이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는 점과 스스로가 신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이데아의 생명을 그들의 손으로 좌지우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이들은 사냥을 하여 다른 생명의 피와 살을 뜯어 먹는 그 행위마저도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명하며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세트가 그리 말하던 명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지만, 세트의 추종자인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자 그들의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창조된 ‘균형’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떠받는 신격존재인 세트가 널리 전파하곤 했던 그의 신념이었고 이것은 자르가의 전사들에게 교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세트가 신이 되기 위한 걸림돌을 하나하나 쳐 나가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기민한 예지력으로 더 먼 앞을 내어다 보게 될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영원의 전쟁으로 이데아에 힘의 균형은 깨지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균형을 바로잡고 이어나가는 우리는 신의 대리인이로써 마땅히 그가 행하였을 것들을 앞장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려 하지 마십시오. 이는 이데아의 모든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니. 자르가의 모든 전사들은 신전에 모두 모이어 그가 다시금 그 모습을 우매한 우리의 앞에 눈을 뜨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나면 세계의 균형은 짜맞추어질 것이며,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의 이름 아래에 저들은 우리의 발 아래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트께서 좀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매 균형을 수호하며 그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세트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권능을 입을 자격이 없으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족 자르가의 칼은 그들의 심장에 꽂힐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조아려 그들의 권능을 받고 새로운 신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마저도 세트를 향한 우리의 절실한 믿음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죽이는 전장에서도 명예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만, 신의 뜻에 반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 뿐이겠지요. 감히 우리를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명예와 전통을 아는자, 역사를 쓰려는 자, 신의 사자. 그것이 바로 우리 자르가의 전사들입니다.

외교술 1칙 “전투의 함성"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세트의 후예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들을 지키고 기력이 쇠한 세트마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길고도 긴 영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들 사이에서 그저 하릴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각 부족들은 약속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들의 유지를 이어나가야 했으며, 외부의 위협과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 부족들은 그들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개척해 나가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트의 후예 안에서는 비단 서슬어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세우는 자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죠. 그것만 가지고 이데아를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르가의 전사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트가 잠들기전 이르신 약속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명예와 전통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숨이 붙어있을 때야말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기 이전에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고 그것이 이 자들을 어둠이 내린 이 땅 이데아에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한 생존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아 온 수많은 수라장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잠재력을 알게 되고 이것을 다루는 기술을 갖추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나 생존에 집착하고 그 방식을 교섭과 협상으로 풀어가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원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있기 이전에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가 후대를 점지하여 안녕을 기원하며 이데아를 살아가던 때, 그러니까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들을 시험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시험이 있기 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이들과의 교류는 어느정도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용하기보다는 딱히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의 사회 속에서도 서로간의 혼인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들이 본능적으로 서로와의 연결고리를 꺼려했던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와 조우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컸었던 것이겠죠. 무엇보다고 가장 큰 이유는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섞여진 피에 대한 편견이었을 것입니다. 섞이어진 피는 그들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좇는 목표와 가치관 또는 맡은 소임을 이어나가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던 것이었고 그저 그들의 뜻을 이어나갈 순수한 피를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모습은 이데아가 기억하는 가장 평화로운 나날의 마지막 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모습은 폭풍 전의 고요를 암시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가 금기를 깨고 죄악의 돌을 만지어 그들 사이로 죄악이 스며들었던 것 처럼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서 남몰래 은밀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자손인 ‘단’과 세트의 후예였던 ‘파라’는 영원의 전쟁 중에 전쟁보다 불타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세트의 후예

를 잇는 기민한 정신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단과 파라는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존재사이의 그것처럼 피로 맺은 노예같은 삐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접촉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꽃은 이데아의 모든 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으며, 그에 따르는 결과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만큼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만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는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아벨의 자손과 세트의 후예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식 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내아이, 그들은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니 그 이름은 '파르단', 그것은 당당하게 한점 부끄럼 없이 이데아를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섞이어진 피' 라는 뜻을 짊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지 다섯의 해가 지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아이에 대한 존재가 영원의 전쟁 중에 모든 이들의 귓가에 하나 둘 스며들기 시작했고,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정상에서 영원의 전쟁을 이끌던 자르가의 전사들에의 귀에까지 닿게 됩니다. 전쟁이 낳은 거친 혼란속에서 파르단은 낯선 세계와 세상의 낯선 시선과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일곱해를 겨우 넘긴 어린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과 근심속에서 그의 부모는 그에게 모든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섞이어진 피를 가졌지만 총명한 이 아이는 이데아를 준다 하더라도 결코 바꾸지 않을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탄생한 혼란의 아이는 있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여기었던 대다수의 세트의 후예들은 이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얼마뒤 이 아이는 최종적으로 내려질 우두머리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파르단의 부모는 죄악의 꼭대기라는 뜻을 가진 ‘마호베라’ 이라는 돌무덤이 우뚝 솟은 정상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게되죠. 그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대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눈은 죽음을 앞둔 자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것을 보고 있던 파르단은 무언가의 기운을 느끼었고 그것은 그의 부모가 뱉어낸 말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마호베라의 모든 이들을 감싸오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을 두르고 있는 오묘한 기운에 이끌려 이들의 목숨을 취하는 대신 아이의 목숨은 거두지 않았고 어째서인지 판결을 내리던 우두머리 주위의 자르가의 전사들은 돌연 심판대에 선 저 어린 아이에게 동정의 시선을 건네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안타깝게도 저주를 받으며 태어났으니 이 어찌 가혹하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파르단은 부모의 마지막을 채 지켜보지 못한채 마호베라 밖으로 추방됩니다.

파르단은 부모의 죽음을 뒤로 마호베라의 고개를 넘던 도중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채 고개를 돌리어 그들을 향한 분노의 송곳니를 드러내려 할 때 그의 앞을 막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벌마’ 라고 하여 추방된 자르가의 전사 중 하나이자 질과 피가 섞인 자였으며 이 어린 소년의 대부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벌마는 아이에게는 각인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이 어린 소년의 분노를 잠재워 주기를 바랬고, 이 아이에게 단과 파라가 남긴 그들의 능력을 이 아이에게 심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다하기 전 그들과 했던 약조였습니다. 비록 벌마는 자르가의 전사라고는 하나 세트와 자르가의 우두머리가 이데아를 살아가는 방식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르가 부족의 다소 광신도적인 믿음과 막연한 기다림은 나머지 부족들을 지치게 하였고 더욱이 그것만으로는 종족의 존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숲을 누비며 그와 뜻을 함께할 무리를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르가의 부족들을 완전히 등지고 새로운 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부족은 고요의 외침이라는 세트의 언어를 가진 ‘타르카잣’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에 속한 자들을 타르카잣의 목소리라고 명명합니다. 벌마가 이러한 이름을 짊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벌마가 자르가의 전사로써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던 중 그의 곁에 있던 단과 파라로부터 배운 이데아의 균형을 수호할 진정한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힘은 말과 언어 그리고 소리였습니다. 아벨의 자손 델페노프가 광장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카인의 첫번째 핏줄 태초의 피가 그러

하였듯이 가슴을 뜨거이 적시는 달변은 늘 청중을 압도하였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기민한 정신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트의 후예에게는 다소 무의미한 작업이었으나 단과 파라는 달랐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의 소통은 반감만큼이나 호소력도 짙게 다가왔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과 파라는 세트의 후예도 이 힘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마는 자르가의 전사들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타르카잣의 목소리와 함께 세트의 후예의 존속이 경각에 달려있는 지금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영원의 전쟁에 뒤섞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의 전쟁의 끝트머리에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세트를 휘감아 그는 영면에 들게 되었고 그 파장은 그의 후예들에게까지 미치었으니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이들이 그러하겠지만 세트의 후예들에게 있어서 세트의 후예의 규합은 이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었습니다. 항상 최우선순위였죠. 때문에 벌마는 이후 어떠한 사소한 일일지라도 종족의 존속이 걸려있는 일이라면 하나라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으려 하는 집요함과 멀리 내다 보는 혜안을 더욱 가다듬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단과 파라 그리고 벌마 사이에서 얽힌 일때문인지 벌마는 이 모든 자리를 파르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과 파라가 마지막으로 이데아에 남긴 희망과 구원이었기에 자신의 숨이 다하기 전까지 이 목소리를 파르단에게 전해주어야 했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만 내는 이 때에 진정으로 이데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타르카잣의 목소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단과 파라와 함께하며 깨우친 모든 능력을 파르단에게 쏟아 부은 뒤 그는 '바르칸' 협곡의 봉우리 깊숙한 곳에서 조용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파르단을 시초로한 타르카잣의 목소리는 섞이어진 피 때문인지 몰라도 그 모습은 아벨의 외형을 많이 닮아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트와 그의 피를 받은 자들을 향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만, 자르가의 전사들이나 다른 부족들로부터 잡종으로 취급당하고 하대를 당하였으며 이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한 이 섞이어진 피에 대한 흥미로운 존재는 이데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크세르담의 사제들이나 윌즈의 마이스터들 중에서도 의학에 특출난 길드의 이들에게는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타르카잣의 목소리는 희귀종 노예로 팔려 나가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사냥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타르카잣의 목소리는 자르가의 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들을 고깃덩어리로 보는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오랜시간동안 벌마와 함께하며 파르단은 타르카잣의 목소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호소력이 짙으며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초월한 기민한 정신력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것이지요. 말과 언어 그리고 소리가 내는 힘은 총칼보

다도 강한 것을 영원의 전쟁중에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들은 세트의 후예임에도 아벨의 자손들이 보아도 거부감이 없는 외형과 탁월한 언변 덕분에 이들은 이데아의 아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이데아의 균형을 수호하는 자들이며 타고난 협상가였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에게 협상과 교섭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필요하며 이데아에 살아가는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 입니다. 그저 탁상공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바로 주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과 카리스마 그리고 절제된 중압감은 당연 협상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압도하였고, 이들은 다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위치에 올라 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트의 후예의 결속을 위하여 다소 광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자르가의 전사들의 곁에서서 이들의 모습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기지만 타르카잣의 목소리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기 위해 이를 감내하겠지요. 여지껏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들은 자르가의 후예만큼 역사에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에 어떻게 쓰여질지 고민하다 당장 눈 앞에 있는 협상을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이들은 세트의 후예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이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명예와 전통은 중요하지 않

습니다. 단지 그 뿐이었죠.
언제나처럼 타르카잣의 목소리는 냉정합니다. 협상이란 것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조약과 타협입니다. 그것은 파르단이 몸에 새겨온 협상의 기본 중 기본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진영과의 교섭에서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임한다면 부족의 존속과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항상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익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화합과 안녕을 취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이데아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거둘 수 없기에 누군가 이익을 취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은 반드시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타르카잣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협상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균형을 위해서는 당연히 당신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타르카잣식 외교술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를 할 뿐이지요. 약점을 집요하게 잡아서 그것을 파고들면 분명 그 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감히 떠올리지 못할 것들을 담보를 내걸어야만 하는 협상에 있어 필요한 몇가지 조율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협상을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첫번째 홀로서기 “순수한 세트의 피"

세트의 권능을 받은 숲의 주인들은 저마다 그 능력을 나누어 받고 저들의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세트의 순수한 힘을 오롯이 물려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제르바의 신수’ 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제르바의 신수들이라 불리게 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이 주어진 후로 세트가 숲의 주인들에게 자신의 권능을 하사하던 바로 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권능은 달빛을 비추어 깊은 어둠 속에서 잔잔히 퍼져 나가게 되었고, 이데아의 여러 곳에서 그의 권능을 몸에 입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트의 후예들은 서로 그들만의 부족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의 권능을 나누어 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주관이나 가치관에 따라 그 힘에 이끌리는 자들은 자연스레 무리를 이루고 이를 갈고 닦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그의 권능 중에서 권력의 야욕이 담긴 피를 가장 진하게 물리어 받은 세트의 첫번째 후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툴-두후르’. 세트의 권능을 입은 후예들 중에서도 세트의 색이 가장 진한 피가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자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후로 자신은 여느 세트의 부족들과는 다른 순수한 혈통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스스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자신이 세트의 피를 제일 진하게 물려 받았는지 알아

차리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나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었죠. 세트의 후예들은 모두 달빛을 머금고 세트의 권능을 발현하여 태고의 형상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숲의 주인의 여러가지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띄고 있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었죠. 세트의 후예들 대부분이 아벨의 자손의 모습을 지우지 못한채 남겨져 있었으나, 이들 제르바의 신수들은 아벨의 자손들의 모습을 완전히 씻고 태고의 숲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늑대의 모습 그대로를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크기나 압도적인 힘에 있어 다른 부족들과 비견되어 이들은 스스로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선택받았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태고의 모습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이 다른 세트의 후예에 비견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달에 삼켜지지 아니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달에 삼켜진다는 것은 세트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점이었습니다. 전의 역사로 비추어 보았을 때,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꾸짖음이 만월의 밤이었기에 그 후로도 달이 차오르는 밤이면 그 때의 악몽이 다시금 떠올라 분노와 슬픔이 공존하야 이데아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힘이 바로 달에 삼켜진다는 뜻이었죠. 만월의 밤의 광기는 세트의 후예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어 때로는 이성을 잃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안에서 치뤄지는 혹독한 시험의 반복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 광기는 일시적으로 이데아에 비할데 없는 힘이 될지언정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에 쉽게 노

출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르바의 신수를 제외한 세트의 후예들은 항상 달에 잠기지 않도록 최대한 광기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에 먹히지 않아 광기에 잠식되지 않는 이들은 이성이 있는 채로 달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르바의 신수는 세트의 피를 가장 진하게 물려받았으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광기마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달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광기에 짓눌리지 않아 언제나 맑고 강인한 지성을 갖춘 채로 세트의 권능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그만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스스로를 진실된 세트의 후예이자 자식들이라 자칭하며 다른 부족의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을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세트마저도 만월의 광기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날뛰는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들은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고만장해지어 세트의 뒤를 이을 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마 이때부터 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신의 영역에 닿는 존재라 여기는 이들 역시도 카인의 핏줄들처럼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다른 세트의 후예들보다는 오랜 세월을 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 역시 필멸자들에 속해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들이 자식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의 고리' 의 진리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툴-두후르도 다른 세트의 후예들처럼 이데아에 자신의 가족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물려준

씨족을 순수한 늑대라는 뜻의 ‘젯’ 의 복수형의 ‘제르바’ 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이들의 아이들이 다시 가족을 꾸리어 나가며 이데아의 모든 자들이 이 두려움의 존재들을 일컬어 제르바의 신수들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고 이 이름은 이데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부족과 차이점이 있다면 가족단위 위의 집단 개념인 부족으로 그 규모를 불려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속한 집단이 지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특징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나니 그것은 바로 제르바의 신수들 사이에서 치루어지는 시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시험이자 동시에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으며 그 깊은 곳에는 서열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게 치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함축되어 이들만의 역사와 전통이자 이들의 존재자체를 증명하고 있었죠. 세트의 권능을 받고 그의 순수한 피가 흐르는 이들은 그 개체의 수가 확연히 적은 수를 띄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각 자신들 스스로 세트의 뒤를 이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문 의외의 가문이나 다른 들개들은 모두 신이 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적과 같은 개념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신의 길을 걷기 위한 발판들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죠. 이러한 특징 역시 세트의 순수한 혈통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생활방식입니다. 이들 제르바의 신수들 사이에서는 으레 가문과 가문 사이의 집회를 열었고 이 집회에 모인 자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자신의 역량을 발현하며

누가 더 뛰어난 존재인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로의 목덜미에 이빨을 드러내며 피가 튀도록 싸웠습니다.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자가 하나라도 줄어야 자신이 신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시험은 수많은 부상자를 낳게 되고 심지어는 이 시험으로 죽음에 이르는 자들도 나왔지만 죽은자는 그저 신이 될 자격이 없었던 자라며 시험에서 걸러진 자들이었을뿐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태초의 고고한 자태와 위엄을 뽐내고 있지만 실상은 냉혹하고 피가 마를 날이 없으며 언에르아도 죽음을 곁에 두어야 하는 외로운 자들이지요. 이 때문에 제르바의 신수는 그 규모가 다른 세트의 후예들의 부족의 크기에도 미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이들의 존재가 이데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이야기기가 퍼져나가자 항간에는 이들을 외로운 늑대들 이라고 칭하는 자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험은 그저 서로의 역량을 겨루어 다른 이들 위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 혹은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내부 세력간에 벌어지는 단순한 암투와 마찰 그리고 갈들에 비견될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신수전쟁’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죠. 세트의 권능을 입었을 때 다른 부족들에 비하여 강대한 힘과 그 크기를 자랑했던 이들이었기에, 이들이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천축이 흔들렸다고도 전해졌습

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과거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꾸짖음과 책망 그리고 무관심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야 이데아를 상처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발톱이 부딪히고 살이 찢기며 이들의 고함과 울음소리는 이데아의 전율케 했죠. 제르바의 신수들 사이에서는 그저 회담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바로 이 신수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아벨의 자손도 카인의 핏줄들도 함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세트의 다른 후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불가침의 영역이었고 그 선을 넘는 자는 그 누구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에 이데아의 대부분의 이들은 제르바의 신수들이 서로 뒤엉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여 그들의 수가 줄어만 간다면 이데아의 위협요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감은 보기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을 거듭하면서 이들은 약자들을 하나 둘 스스로 제거하며 진화를 거듭하였고, 그 강함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남은 이들이 그들의 후예를 낳고 그 아이는 우월한 피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자신의 가문은 신의 가문이 되는 셈이었죠. 게다가 가문사이를 조율하는 율법은 더욱 군건해졌고 명확해졌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그저 야생적인 짐승들에 불과했던 모습이라면 지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데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역시도 필멸자들 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낳아 그 뜻을 이어 나갑니다. 다만, 이 제르바에 신수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고 난 부모의 뜻을 잇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그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아버지들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계속해서 물려받아온 셈입니다. 이름이 주어진 다른 모든 생명에게 있어 이것은 충분히 위화감이 드는 일일 지도 모르나 제르바의 신수들 사이에서는 그 이름을 물려받지 않으면 신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다고 여겨지며, 신의 발판이 되기 위한 주춧돌 삼으려는 자들의 화살이 저들에게 쏠려 때론 척살령이 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나아가, 어머니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가문의 영광을 담은 이름으로 직접 불려지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여기며 좀 더 신의 자리에 가까워 지고 있다는 이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름을 물려받고 싶지 아니한 자들은 없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제르바의 신수들은 한 곳에 오랜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유랑생활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이데아의 어느 곳이든 발이 닿는 곳이라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운명의 장소이자, 그들만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발판의 초석으로 여겨진 것은 영원의 전쟁. 영원의 전쟁이야말로 이들이 신이 되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라고 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세트의 후예가 영원의 전쟁에 참전하여 피칠갑을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제르바의 신수들은 그 피의 전장 속에서 세트의 후예들의 신이 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암도적인 힘 때문에 제르바의 신수들은 그늘 속에 숨지 않고 당당히 이데아에 이빨을 드러내며 아벨의 자손이며, 카인의 핏줄 혹은 세트의 후예도 거르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들이 강하건 약하건 그 수가 많고 적든간에 발톱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영원의 전쟁은 제르바의 신수들에게 있어서 다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 산화했습니다. 고고한 늑대라는 자긍심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되었고 제르바의 신수라는 존속 자체가 경각에 달려있을 정도로 그 수가 줄어들었죠. 결국, 영원처럼 살육의 시간속에서 멈추어 있던 전쟁은 마침내 그 끝을 고하였고, 제르바의 신수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들은 이데아의 그 어떤 종족들보다, 심지어는 같은 피를 물려받은 세트의 후예들임에도 공존하기 어려운 자들이지만 툴-두르흐는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가문에 대한 부흥을 위하여 세트의 추종자들인 자르가의 전사들과 타르카잣의 목소리와 함께 ‘우두머리 무리’ 와 세트의 후예의 규합을 위한 공통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르가의 전사들의 세트의 후예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에 대해 지극히 찬성하는 바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통합이 되었을 때 부족의 권좌에 올라야 할 자는 바로 자신들이라고 여깁

니다. 이 때문인지 항상 제르바의 신수들은 자르가의 전사들이나 타르카잣의 목소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벨의 자손들이나 카인의 핏줄들 뿐 아니라 우두머리 무리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이며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합니다. 특히나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제르바의 신수의 오만방자하기 짝이없는 이들의 태도에 자르가의 전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지만 이데아의 혼돈의 시대에는 제르바의 신수가 가진 힘을 필요로 했기에 참고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세트의 피를 가장 짙게 물려 받은 이들은 태고의 모습과 그 힘을 지닌 자들일진대 어찌 이데아의 그 누가 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르바의 신수에게는 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속한 가문의 개개인이 모두 영웅이자 전설이며, 신이 되기위한 임전태세에 들어가기 위하여 언제나 온 몸의 촉각을 바짝 곤두세웁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적만이 있을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가족도 없습니다. 제르바의 신수들에겐 오직 신이 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 존재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의 뜻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모든 세트의 후예를 규합하는 것은 나의 자그마한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세트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고 영면에 취해있는 바로 지금, 하릴없이 기다릴 뿐인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나는 그의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권능을 가장 크게 입은 나이지만 당신의 뒤만 좇을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하셨듯 그들의

이름을 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 대신 울려퍼지는 것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대지에 닿을 때쯤 나는 신의 권좌에 올라있을 것입니다. 나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트조차도 피하지 못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에 흐르는 순수한 피 때문이겠지요. 이 얼마나 고고하고도 당당한 모습입니까? 세트의 다른 아이들이 그늘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모든 이데아의 생명을 다스리기 위하여 나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것입니다. 이데아여, 나의 존재를 맞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세트여, 이제 그만 조용히 눈 감으라.

첫번째 순환의 사슬 “교감"

태초에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 그리고 이데아의 모든 생명들이 말이죠. 다만, 이데아를 살아가는 우매한 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해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더욱이 오만해져 지성을 갖춘 자신들만이 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고방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은 그 후대를 거치어오며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우게 됨에 따라 그 사고방식은 어느새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깊게 자리하게 되죠. 이는 세트의 후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의 주인들로부터 나온자들임에도 세트의 피가 증명이라도 하는듯이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데아에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째서인지 이들은 공존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매한 자들에게 이를 모르는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데아를 빚으실 적 이데아에게 주어진 힘이 있나니,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역사가 기록하는 ‘자연의 고리’ 혹은 ‘생명의 순환’ 이니 이데아의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은 그 안의 것들과 평등한 존재이며 누구도 그 우위나 쟁점에 설 수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그 고리 속에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속해있지 않으면 모르듯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행보는 실로 불보듯 뻔했습니다. 오랜동안 결속되어 온 그 고리 안팎으로 그들

곁에서 생명을 피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도 모른채 일말의 망설임조차없이 그저 파괴만을 낳게 되는 것이었죠. 아무도 이데아가 말하는 생명의 순환을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데아의 아르카나의 기억 저편의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엳본 역사를 기록한 시란두르를 곁에 둔 퀴나즈들조차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연의 고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 한들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 자가 나온다해도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아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져 가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가 바로 지금, 이데아의 모습입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움. 일곱가지의 대죄. 이렇게나 무지는 파멸을 낳았고 나중에는 세트가 그리 아끼고 품으며 내달리던 숲과 자연의 생명마저 꺼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의 고리에는 균열이 생기며 절규하게 되었고, 결국엔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마저 이데아에 내려오고 이데아는 병들고 신음하매 이전에 가졌던 그 생명의 빛을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까? 이데아는 들리지 않은 목소리를 아르카나를 통해 빼끔대며 호소할 뿐, 그 누구도 이 고충을 이해할 수 없는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이 땅에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자들이 여기에 있나니. 그 이름은 ‘비샤르’. 그것이 이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뜻이야말로 그들의 혀를 빌리자면 숲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무리를

야라만의 전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들은 세트의 후예들 중에서도 제르바의 신수들과 더불어 가장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세트의 후예 중 베일에 쌓여 가장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그 어떤 암살자들보다 짙고 깊은 어둠이 드리워진 숲 속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조차 미지의 부족들이라 여겨진 자들이었죠. 이들은 세트가 그러하였듯이 이데아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전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이데아에 직접적인 개입을 금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이 되고자 했던 세트의 모습과는 다른점이 있다면 이미 자신들은 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숲 속에서 눈을 밝히며 이데아를 주시하고 자연의 고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자연의 고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은 세트의 피 중에서도 아름다운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발현될 때 그 안에 흐르던 피에는 아르카나가 충만했습니다. 그 힘으로 이데아에 발발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조용히 우직하게 그들만의 수호전을 지속해 왔던 것이죠.

그들 중에서도 생명의 고리의 진리에 통달한 자를 숲의 수호자라는 뜻의 야르만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데아와도 같이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리어 아르카나를 발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올곧은 거목과도 같은 비샤르의 전령은 세트의 후예가 갖고 있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것들 없이도 그들의 주위를 휘감고 있는 아르카나와 그들곁에 함께하는 정령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 정령은 뱀의 형태를 갖고 있는 '로움', 늑대의 형태를 띈 '라샷', 독수리의 형태를 띄고 있는 '우조' 가 바로 그것들인데 이 정령들은 그들의 곁에서 파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자연의 고리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고리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처단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과 숲속에 충만한 아르카나와 고리의 균형과 함께하니 이들은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이들은 언제나 이성적이고도 절대적인 중립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나 품성은 다른 존재들로부터 경외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만의 안위에만 신경쓰는 이데아의 생명들 속에서 절대적인 중립을 취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재적인 중립이라는 뜻이 이들의 존재가 평화의 사절도 아니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자들도 아니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로 인하야 이데아의 어떠한 존재들도 이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오랜세월을 이데아가 낳은 자연의 고리와 함께하며 그 진리의 곁에서 숨을 쉰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을 테지요. 이데아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닿은 자들이었기에 이들의 목적은 오직 정화라는 사명과 자연의 고리를 수호하는 것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꺼져버린 생명은 그저 고리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여기며, 그 결정에는 변

함이 없으니. 절대적인 중립은 이리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휘감긴 뿌리가 먼저 춤을 출리 만무하겠지만, 누구라도 그들이 말하는 고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누구라도 그 뿌리에 휘감겨 고통에 몸부림치다 숨을 거두게 될 테니까 말이죠. 선과 악의 개념은 이들 사회에 있어 고려될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원대한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적으로도 아군으로도 만들 수 없었으며 그리 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샤르의 전령들의 당신의 곁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목적이 같을 뿐이지 그들이 옆에 함께 있다한들 자신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들이 자연의 고리를 수호하는 중에 아르카나를 사용함에 있어서 퀴나즈들과의 충돌을 빚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역사를 기록한 시란두르를 통하여 태고의 고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데아의 아르카나를 이용하는데 비샤르의 전령은 그녀의 안위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저 아르카나를 착취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 반대로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는 퀴나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한 태고의 비전인 생명의 힘인 아르카나를 다루는 본인들과 같이 들판을 거니는 들개따위가 이를 자유로이 다루니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샤르의 전령들은 아벨의 자손들이 인색에 쉽게 빠지는 타락의 역사를 엿보았습니다. 때문에 퀴나즈들이 생명의 고리를 깨우치려 아르카나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

습니다. 그것은 이데아에 흘러 생명을 틔우는 것이지 그 힘을 가지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이데아가 중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비샤르의 전령들과 퀴나즈 사이에선 냉랭한 기류가 흐릅니다.

크고 작은 마찰을 겪는 이들은 비단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뿐만이 아니었죠. 이들의 중립적인 성격은 다른 부족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됩니다. 비샤르의 전령들은 우두머리 부족들이 목표로 하는 세트의 후예들이 주장하는 부족의 완전한 규합이 말은 그럴듯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고리를 깨는 수많은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부족들은 생명의 고리가 가진 의미를 와전시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들개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저 자신과 다른 이들은 전부 먹이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하여 비샤르의 전령들은 세트의 뜻을 이어나가려는 자들이 세트가 그리 바라던 균형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우두머리 늑대들은 그 누구도 감히 신의 자리조차 넘볼 수 없으며 신의 대리인의 권좌에 조차 닿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만큼 이들의 사회속에 자리한 자연의 고리라는 교리는 아무에게나 닿을 수 없는 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비샤르의 전령들 역시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미로와도 같은 숲에 신성한 땅이라는 뜻을 가진 ‘카다마르’ 라는 곳을 거처삼아 이들은 자신들도 고리

에 완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모든 생명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아르카나를 두르고 그 곳의 정령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이들은 아르카나와 그리고 자신의 피에 흐르는 만월의 광기와 대화하며 그것을 억눌러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정화하는데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들이 보이는 자연과의 융합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세트의 후예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지만, 스스로 대지에 몸을 맏기어 이데아의 아르카나로 가까스레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고리였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균형과 생명의 고리는 방대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트가 영면에 들게된 원인인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모든 세트의 후예들을 향해 손길을 뻗쳐나가고 있을때, 비샤르의 전령들은 숭고한 생명의 태동을 지닌 이데아에 뿌리를 박고 아르카나를 충당하여 저주를 정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세트의 권능 때문이지만, 다른 후예들의 부족들과는 달리 그들의 저주를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에 이들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벨의 자손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어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생명의 고리요, 그야말로 이데아의 일부와도 같이 세계의 균형을 굳건히 지키는 거목이었습니다. 이들 비샤르의 전령은 이 균형을 수호하기 위한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는 자신과 같은 세트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라해도 예외는 없을 테지요. 이들은 영원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존재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만 하지 않았을 뿐,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서 카다마르 협곡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의 고리를 부수는 자들, 즉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내려진 불경한 자들을 시작으로 정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수히 정화가 아닌 이데아의 아름다움을 짓밟는 것에 대한 분노의 심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 증오의 화살은 자연스레 그 저주를 내린 이바와 아다무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데아를 병들게 한 이들은 이데아를 등지었지만 여전히 죽어 마땅할 자들이며 다른 생명들과 달리 죽어서도 이데아에 품길 자격이 없으며 그들을 따스히 덮을 흙 따위는 없다고 그들을 저주하게 되며, 언젠가 이데아를 상처입은 이들에게도 심판을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비샤르의 전령들은 다른이들이 보기에도 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한 것과도 같았기에 다른 부족들처럼 애써 신의 자리에 오르려 안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데아의 자연의 고리와 그 순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 경지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신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레 이들은 그들의 행동은 신의 업적과도 같아 보였고 누구보다 그 자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굳이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

터 자연과 하나였고 생명의 고리와 그 순환의 부속품이었을 뿐입니다. 다른이들이 무언가를 섬기고 그것에 기대며 희망을 찾으려 할때 우리는 이미 그들과 함께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바샤르의 전령들의 뜻에 감복하며 기꺼이 우리의 곁에 설 것입니다. 심지어 저주받아 뒤틀려 절규하는 숲속의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생명이 마른 대지에 흩뿌려진 들풀마저도 상처받은 이데아와 함께 분노하며 그 고리에 불협화음을 자아내는 이들의 숨통을 쥘 것입니다. 길고도 긴 시간 끝에 우리 비샤르의 전령들은 숲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른 부족들에 비해 날카로운 이빨은 없습니다. 서슬어린 발톱또한 무디어졌지만 숲속의 생명과 교감하고 아르카나를 읽는 그 힘은 더욱 날카로워 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 그리고 당신이 짓밟은 꽃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혹은 당신의 곁에 부는 산들바람과 따스한 보금자리를 주는 이 땅에 고마움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꺾어버린 꽃들은 당신의 머릿결과 춤추며 아름답다 여길지 모르나 그것은 당신이 죽여버린 생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들이 그러한지를 모르고 있었겠죠. 당연하듯 당신들을 품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대지가 저주로 뒤틀리고 말라버려 생명의 빛을 모두 잃고 나서야 그것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까? 아니, 행여나 아직도 그것의 고마움을 모른채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그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순환과 고리의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에

서 죄를 지었으며 어떠한 죄를 짊어진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비샤르의 전령들과 우리와 소통하는 정령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당신의 죄가, 상처입힌 그 손에 선명하게 박혀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이고 그 몸은 썩어 흙이 되니 다시금 이데아에 꽃을 피우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이 땅에 당신이 쓸모가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어서라도 이데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비나니.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몸에 새긴 저주의 기록 1편 “터지리라"

세트의 후예들은 저마다 하나씩 세트가 가진 특징 중 무언가는 하나씩은 물려받아 저마다 부족을 꾸리어 나가며 그들의 이름을 이데아에 떨쳤습니다. 다만, 이는 소수가 가진 축복이었을 뿐 대부분의 이들은 그저 세트의 권능으로 말리암아 숲의 주인이 가진 모습을 흉내내었을 뿐 초인적인 힘만 얻었을 뿐 더이상 특별할 것도 없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살기 위하여 명성이 자자한 부족들의 끄나풀 혹은 연락책 아니면 변방에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오는지 감시자들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눈치를 보며 쥐죽은 듯 지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부족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약한 자들은 감히 부족의 이름조차 짊어질 수도 없었으며, 가까스로 그 이름을 내세운다 한들 우두머리 부족의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예속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권에 대한 야욕도 없으며 그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세월을 지나오며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에 대한 혐오감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뎌진 것입니다. 노예와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오며, 그저 우두머리 부족들의 꼭두각시밖에 되지 못했던 이름조차 알려질 수 없었던 작은 부족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는지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게 없이 오롯이 우두머리 부족들의 권위에 억눌려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 오

랜동안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예같은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이름없는 부족들은 하루하루 회의감에 빠지어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회의적이었던 것은 '카라맛' 이라 하는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그의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미는 그가 이데아에 나올 적 그의 얼굴을 채 보지 못한채 별이 되었고, 그의 아비는 우두머리 부족의 폭정과 학대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늑대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누구도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 세트의 사회는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데아에서 그리고 세트의 사회에서만큼은 무엇보다 가장 깨끗한 법도였습니다. 아벨의 자손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때문에 카라맛이라는 그 소년의 이름도 우두머리 부족 사이에서 그를 조롱하듯 붙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지치고 병들어 쓰러진자라는 뜻이었고 이들은 그 이름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으나 카라맛은 아니었습니다. 몇번이나 이들에게 그리 부르지 말라 대항했으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부족의 어린 핏덩이가 우두머리 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있을수조차 없는 일이었기에 카라맛은 언제나 학대받고 죽기 직전까지 물어간 입에 피가 고일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하루를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그에게 한줄기 빛이 된 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아' 였습니다. 그 이름과도 같이 카라맛에게 이아의 존재는 희망과 빛과도 같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

름조차 알리어지지 않은 부족의 소녀였지만 당돌하며, 들풀의 이름과 협곡의 고동, 그리고 이데아에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의 특징을 알고 있던 박학다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카라맛이 상처를 보일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기이한 구름에 뒤덮혀있는 '넬라마르' 로 데리고 가 그 곳에 흐르는 물에 그 상처를 씻기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넬라마르 산에는 '예브릿' 이라는 물질이 침전되어 있는데 그것이 담긴 물이 몸에 닿게 되면 수증기가 급속도로 기화하듯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상처부위를 빠르게 치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산이란 그 이름 그대로 곳곳에 간헐천이 터져나와 구름을 만들어내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대지를 뚫고나온 그 증기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러 마치 안개에 뒤덮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 때문에 더욱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기는 코끝을 찌르도록 고통스러운 냄새를 뿜어내었기에 다른 감각보다도 후각이 뛰어나게 발달한 탓에 이 곳을 혐오하게 되어 발길이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라맛은 이아와 함께라면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따위는 어찌되도 상관없었습니다. 또한 이아 역시 이름없는 부족인 사내가 우두머리 부족 사이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모습에 끌리기 시작했고, 카라맛이 우두머리 부족의 억압으로 심한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 곳을 거닐며 어느샌가 넬라마르 협곡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우두머리 자손들과 그들의 끄나풀에 의해 고통받던

카라맛은 참지 못하고 우두머리 무리를 따르며 그를 괴롭히던 자들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 그를 척살하라는 명이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그 소식은 곧 이아에게도 닿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카라맛과 친분이 있어 그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많은 수의 세트의 후예들이 그녀로부터 그의 행방을 묻고 그녀를 우두머리 부족에 소속될 수 있도록 수없이 설득하지만 끝내 카라맛과 연결된 기민한 정신의 고리를 끊고 어금니를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카라맛은 고리가 끊어진 곳을 향하여 달리고 또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름아닌 넬라마르의 산기슭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고 그녀의 냄새가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는 숨이 끊기기 전에 다른 더러운 늑대들에 의해 몸마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채 그 곳에 즐비해 있던 우두머리 늑대에 속한 부족원들의 목을 모조리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다수를 상대하는 동안 그 사투는 오랜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상처들과 물어 뜯기어 가까스로 몸에 붙어 너덜거리는 팔과 다리보다도 허무하게 이아와 끊어져버린 기민한 그들만의 고리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세트의 후예들 사이를 이으며 대화를 하는 그것도 이름 없는 부족의 소녀에게서 배운 것이었고, 그가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도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이데아조차도 이 슬픈 소년에게 잠시도 슬퍼할 시간을 줄만큼 자비롭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전쟁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

지 않아 그 작은 바람은 폭풍우가 되어 이데아에 몰아쳤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아는 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으로 인하야 척살령이 내려진 것조차 어느새 잊혀집니다. 전쟁만큼 치명적인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이데아에 앉아 살아 숨쉬는 모든 이들을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게끔 하였습니다. 이 땅 위에 선 자들을 병들게 하였고, 모든 것들을 저주합니다. 토막나 죽어버린 그와 같은 피를 가진 자들을 보며 한없이 덧없음을 느꼈지만, 그의 안에는 강한 무언가가 용솟음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은 이전에 그가 잊어보려 애썼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치가 떨리도록 시린 외로움이 그를 몸서리치게 했고 당장이라도 소중한 이를 잃어버린 슬픔과 그녀를 지키지 못한 분노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생존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이데아는 둘째였고 그 화살은 모든 세트의 후예에게 향했고 카라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 치며 죽기 싫다, 살고 싶다라는 말을 몇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통에 힘겨워 하면서도 이아와 추억이 담긴 넬라마르의 산골 하나하나가 눈에 선하게 밟혔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자태마저 저주로 인하야 그 빛을 하나 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바스러져 부서지는 와중에도 그 잊기 힘든 추억의 장소가 아파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무엇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감정이 극에 달하여 생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회로 하나하나가, 몸안에 흐르는 피 한방울 한방울이 집중합니

다. 그리고 흐르는 식음땀이 채 땅에 닿기도 전에 그는 이미 생각을 마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듯 미친듯이 땅을 부수고 또 부수었습니다. 우두머리 부족과의 사투로 너덜거리는 팔과 다리에서 분수처럼 쏟아져나오는 피도 이제 그에게 고통을 선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만큼 파내려갔을까 이내 쉬익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카라맛은 다시한번 예브릿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넬라마르의 증기마저 저주로 인하여 소름끼치게 일렁댔고 이전의 신비로운 모습은 더이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브릿이 상처를 치유한다고는 했으나 그 과정은 살균이었고 독소를 죽이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면 치사량까지 도달할 수 있어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소년은 개의치 않고 몸에 조금씩 그것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저주를 넬라마르 산의 간헐천의 순수한 예브릿이 지닌 독으로 죽인 셈입니다. 즉, 독을 독으로 정화를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다만, 이들의 모습을 보고도 목숨을 내건 사선에서의 사투가 성공했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그의 폐는 찢어지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듯 곪아 터져버린 자리에서는 피와 살이 고통에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부족들에 의해 고통의 맛은

이미 맛보았기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몸 안에 축적된 다량의 정제되지 않은 예브릿이 흐름에도 의식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몸에 담은 이 정수 때문인지 소년의 외형은 태고의 숲의 주인들이 지닌 고고한 모습이 아닌 넬라마르 산이 간직하고 있는 간헐천과 같은 모습이 기생하여 온몸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모양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 곳에서 자욱한 독성의 연기와 산성의 타액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그을렸습니다. 흉물스럽게 변한 외형에 그들은 좌절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부지한 것에 대한 안도가 더 컸습니다. 카라맛은 여느 세트의 후예처럼 세트의 권능을 발현하여 숲의 주인인 모습과 아벨의 자손의 모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으나 이미 더이상 몸에 그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이상 세트의 후예가 가지는 명예와 전통, 그리고 그를 신으로 추대하는 이상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삶을 향한 욕구가 그 무엇보다도 컸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역사와 전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려는 본능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소년은 약하디 약한 존재이나 이데아에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 중에서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까? 그것은 소년도 마찬가지. 자존감이 강한 부족들은 대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버둥거리며 그의 권능이 다시한번 내리기를 기다리며 목을 매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바라기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부족에서 자신의 이름도 없이 그저 거리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살기 위해 발버둥친 그 모습은 생명을 가진 자로써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예브릿으로 목숨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다른 누구와도 대적할만한 힘마저 얻게 되었지만, 그의 가슴에 자리한 외로움은 떨쳐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은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그가 여지껏 고대하던 그만의 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영원의 전쟁으로 상처입고 꺼져버리기 직전의 이들이나 달에 완전히 먹혀버리기 전, 광기에 잠식되기 전의 이들과 예브릿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맛이 물을 때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건넨 제안을 거절하는 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통에서 신음하느니 차라리 안식을 마지않아 바라는 자도 있을것이라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세트의 사회에서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자들의 생각은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카라맛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예브릿으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채 다물어지지 않는 입가에서, 몸에 난 종기에서는 독의 안개가 구름처럼 응기어져 예브릿이 뿜어낸 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카라맛은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의 부족의 이름으로 하여 부정의 독구름 ‘라아난’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후일에 이들 라아난의 전사들을 라아난의 생체병기 혹은 전쟁병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예브릿은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피였습니다.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도 이것을 사용했는데 순수한 예브릿을 직접 사용했다가는 목숨이 남아나질 않았기에 이것을 극소량 추출하여 몇번의 희석 과정을 거쳐야 했기만 섬세한 작업과 주의를 요했습니다. 아벨의 자손은 이를 정제하여 화약이나 화포 혹은 천둥과 벼락을 부르는 기구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윌즈의 마이스터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카인의 핏줄들은 이것을 '이프리트' 라고 불렀으며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도 하는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카인의 핏줄은 생기가 없이 도자기와같이 백옥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생기가 없는 모습이나 그것을 얼굴에 바르며 이들만의 무도회에 다른 혈족을 유혹할 때나 아벨의 자손들의 눈속임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극도로 미미한 양이며 어느 누구도 예브릿의 원액을 직접 사용할 만큼 용감한 아니 멍청한 자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브릿을 몸에 담은 소년 카라맛과 라아난의 생체병기들은 어느새 넬라마르 산과 하나가 된듯 하여 그 몸은 수많은 예브릿을 뿜어댔습니다. 넬라마르 산은 전례없이 두꺼운 구름을 쏟아냈으며 모든 이들이 예브릿이 넘치는 이곳을 탐내는 가운데 라아난의 전쟁병기들은 자신의 생명의 영역을 침범한 이 행위를 그냥 둘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목덜미를 내어준다면 그저 자신의 피와 살이 낭자하는 곳에서 고통에 몸부림 치는 것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어 뜯기는 것이 아닌 그 상처부위가 독과 산을 띈 예브릿에 의해 부식되고 녹게 되며 죽음에 다다를 테지요. 비록 그들을 피해 목숨을 부

지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안고 있다면 빠른 시일내로 죽을 겁니다. 심지어 그 예브릿이 만들어낸 독과 산 성분은 비샤르의 고위 전령들이 오랜시간을 들여야 간신히 해독이 된다고 알려진만큼 이들의 독은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트의 후예들의 갈기를 녹여버릴 것이고 아벨의 자손은 흔적조차 남지 못할 것이며 카인의 핏줄들 안에 흐르는 불경한 피도 예브릿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토록 이데아에 위협적인 존재들임에 불구하고 예브릿은 이들의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아난의 전쟁병기들은 예브릿을 넬라마르에 뿌리어 그 산은 예브릿이 풍족하게 되지만 반대로 넬라마르도 이들에게 예브릿을 머금을 수 있도록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산을 벗어난다면 이들의 힘은 미약해지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처로 그들은 순수한 예브릭을 결정으로 만들어 내어 그것을 몸에 심어 피에 다 녹을 때까지는 넬라마르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나 비슷한 힘을 내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우두머리 부족들, 심지어는 제르바의 신수도 자신의 몸에 세트의 피가 흐르는 것과 순수한 그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트의 후예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 그 긍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라아난의 생체병기들은 자신의 몸에 세트의 피가 흐름으로써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몸은 불경한 자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형태를 띄고 있으니,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우리만큼 그를 혐오하고 그

누구보다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바와 아다무스또한 죽어 마땅하나 원인을 제공한 세트의 심장은 터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후예에게 저주를 받게 했음에도 신전에서 한가하게 영면을 취하니 이 어찌 무책임한 행동이란 말이오. 당신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오직 우리 안에 흐르는 더러운 피였고 이제 그마저도 한방울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식으로 이데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존에 힘쓰기 위하야 기도하며 다른 생명의 살과 피를 갈구하며, 혹은 영면에 빠진 거짓 구원자를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생존을 위해 추하게 버둥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몸에 스스로 새긴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애초에 세트의 피 때문에 죽어야 했을 우리들이나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말로 당당히 당신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 세트의 후예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것이고, 이데아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불경한 자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우린 기꺼이 도와드리리다. 우리 라아난의 생체병기, 전쟁병기들은 기꺼이 당신의 심장을 터뜨릴 것입니다. 이데아를 병들게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당신의 자식들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당신의 피가 흐르지 않은 자들에 의해 당신이 그리 즐거이 부르짖는 당신의 역사는 지워질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모두 죽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얘 컨셉은 폭발성 분말. 터진다. 그리고 폭발 후 증기가 남는데 이것도 독합니다. 그거슨 방사능 ㅇㅇ 방사능이라고 하자

첫번째 광기 “달에 먹힌 몸과 마음"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 어느 부족이든간에 평생을 달에 먹히지 않고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것을 억누르고 잠재우기 위하여 평생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부족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트가 이데아에 발을 딯기 이전, 가장 깊은 숲속을 누비고 있었던 숲의 주인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광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사나웠고 먹히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경은 극에 달하여 감히 다른 이들은 상상도 못할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트가 아니라도 그 모습을 본자는 필시 그 매혹적인 자태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 것에 취해 세트는 이 숲속의 주인들에게 그 권능을 하사한 것이지요. 아름다운 자태에 빠져 그들을 곁에 두며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바와 아다무스로 인하여 그는 크게 상심하여 마음이 안주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이들의 곁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만월의 광기가 차오를때면 주체할 수 없는 내적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세트를 다독여주던 그들 곁에서 세트는 그의 후예들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세트의 눈을 사로잡았던 숲의 주인들은 모계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었지만 세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는 다가올 크나큰 재앙에 대비하여 비교적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자연스레 여인들은 그들의 둥지를 지키게 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민한 예지력으로 가까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세트에게도 만월의 광기, 달의 그림자로부터 달아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만월의 광기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꾸짖음이 만들어낸 씻을 수 없는 상처였고 그 후유증은 어미로부터 어여쁨을 받지 못한 자가 낳은 저주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인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더불어 그 저주는 그의 피를 타고난 세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를 알수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세트가 고개를 젓는 만월의 광기에 잠식되어 있을 때마저 그의 권능을 하사받은 숲의 주인들은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격은 태고의 숲의 주인들이 가졌던 성격을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오랜동안 숲의 주인들은 새끼를 낳아 기를적에 아이를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끼를 가진 어미가 가진 모성애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의 아이가 이데아의 험난한 세상을 살기 위해 홀로서기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때문에 갓 세상에 나온 새끼는 모든 감각을 총 동원하여 어미를 찾고 위협을 감지하고 누울 곳을 정하며 사냥감에 온 신경을 다하도록 길러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세계는 가혹하리만큼 매서웠지만 그것은 다른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트의 후예가 세대를 거치면서 물론 그 피가 바래져 왔겠지만 여전히

숲의 주인들의 피가 세트의 후예들 사이에서 진하게 흐르고 있었죠. 그 여인들은 사내들이 둥지를 벗어났을 때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달의 광기에 몸을 적시어 칼날과도 같이 예리한 경계의 기운을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오직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이 세트도 몰랐던 이 여인들이 가진 힘입니다. 이전부터 여인들은 그 힘을 다루기 시작해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다뤘다기 보다는 사내들이 그 기운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기운은 훗날 아벨의 자손들의 말로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을 테지요. 모계중심의 사회였던 숲의 주인들은 사내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다들 지니고 있었죠. 그 힘이 어찌나 위대한지 어미가 되지 않고서도 그들의 어미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그 힘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아벨의 자손들이 모성애라고 부르는 그 말은 이들 사이에서는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라츠' 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데아에 숨을 쉬는 생명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이자 욕구이기 때문이기에 이리 불렀을 것입니다. 라츠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등 뒤에 두고 그 앞에 무엇이 있다한들 물러서지 않는 신비한 힘이었습니다.

라츠의 힘을 지닌 부족의 피는 대를 거슬러 흐르며 그 색이 바래지 않고 여전히 짙은 빛을 냈습니다. 이는 이데아를 살며 어미가 없었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부족의 이름이 바로 광기의 어머니라는 뜻의 '시에그윈' 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만월의 광기에 빠지지 않고

태풍의 눈 안에 있는 듯한 고요한 어미와 그 여인들의 아이들이 꾸린 부족을 보며 세트가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준 호기심도 잠시. 세트는 알게 모르게 시에그윈의 여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세트가 취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의 권능을 부여한 나약한 여인들이라 생각한 자들은 기이하게도 달에 먹히지 아니하며 심지어 달에 먹히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신이되려는 본인이 자신의 안에 있는 광기조차 다스리지 못한다니 치욕적이라 생각했을 테지요. 그 옹졸함은 영원의 전쟁의 막바지,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주를 내리는 사건에서 절정에 치닫습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세트의 후예들에게 직접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세트가 그의 심장을 죄인 저주를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영면에 취하는데 이전에 자신의 마지막 온 힘을 쥐어 짜내어 기민한 정신으로 연결된 그의 후예들을 보호하는데 쏟아 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능에 닿지 못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오직 시에그윈의 여인들만이 그 권능을 입지 못하고 이데아에 내린 저주로 심장이 죄어와 터져버릴 위기에 처했으나, 이들은 만월의 광기로 저주를 씻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화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달에 삼켜진 자들은 만월의 광기에 스스로를 내던져 이에 취하니 그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발한 라츠가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흩뿌린 저주보다 조금 더 강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세트마저 기피했던 부족이지만 이 여인들은 광기를 다스리는 것

이 아니라 광기에 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월의 광기에 빠지는 그 말은 즉 달에 스스로 잠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좀 더 깊고 좀더 고요하고 좀 더 어두운 그곳으로 잠기는 마치 섬세한 의식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시에그윈의 여인들이 달에 몸을 담그어 깊은 어둠에 잠기었을때 두 눈이 붉게 빛나게 되는 것도 이들이 본능의 영역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라츠라고 하는 힘도 포괄적인 의미이고 모성애라고 하는 것도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이 지닌 존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을 아우르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세트가 달에 먹히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월의 광기가 본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그 본능의 범주 속에는 쾌락과 욕구의 늪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초에 숲의 주인들은 그것을 광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달에 먹히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본능에 몸을 맡겨 그곳에 빠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다무스가 유혹과 쾌락의 속삭임에 이끌려 죄악의 돌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세트와 그의 뒤를 따르던 후예들이 꾸린 부족들은 대다수가 사내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본능과 쾌락에 쉬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 첫번째 과정을 달을 몸에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던질수 있었던 만큼 쉽게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허우적대며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달에 잠기어 완전히 먹혀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세트의 모습에서도 그는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벗어나 이데아를 상처입혔을 때 아벨과 카인이 사흘 밤낮으로 간신히

그에게 매달리고 나서야 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월의 광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엄청난 쾌락에 잠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과 파괴로부터 오는 쾌락과 여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생명안에 남아있는 본능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만월의 광기는 사내들의 몸으로는 감히 받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에그윈의 여인들은 본능의 범주하에 있는 쾌락의 늪에조차 여인들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달에 먹히어 깊이 빠져 쾌락에 취한다고 해도 길을 되돌아 올 수 있을 만큼의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의 늪에 빠지는 동안에도 항상 그 절정에는 초연하고도 고요함을 두르고 있었죠. 그런 이유로 오직 세트의 후예 중에서도 이 여인들만이 달에게 몸을 맡기며 깊고 깊은 본능과 쾌락의 늪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몇번을 설명 한다한들 이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트의 후예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일 뿐더러 애초에 이것을 이해하고 안하고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도 이러한데 아벨의 자손이나 카인의 핏줄들은 그들의 숨이 다할때까지 모를테지요. 이 모든 것이 시에그윈의 부족들이 여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계사회를 이루게 된 것도 태고의 숲의 주인들의 피를 굳이 따르지 않으려 해도 본능적으로 이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달에 먹히어 만월의 광기를 몸에 담는 것은 위험하고도 섬세한 작업이

고, 의식이라 여기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금남의 구역인 이들 모계사회에서 사내가 허락되는 유일할 때는 오직 아이를 갖을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에서 강인하다고 여겨지는 세트의 후예들을 납치해 온 뒤 그들과 몸을 섞고 난 뒤 이들을 죽이 다음 먹어치워 양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뒤에 태어난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도 결정됩니다. 여자아이라면 살것이며 사내아이라면 죽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은 어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미는 태어난 아이를 따라 목숨을 끊어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이는 다소 극닥전인 사회라고 여겨질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란 무엇인고하니, 라츠의 기운이 만연한 만월의 광기가 자욱한 이 여인들의 둥지는 사내아이들의 목을 졸랐고 그렇게 라츠에 노출된 사내는 만월의 광기의 유혹에 자신을 내몰 것이며 그렇게 되면 쾌락의 늪에 빠지고 그로부터 헤어나올수 없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피와 살에 굶주린 불경한 자들의 영역에 발을 딯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해를 끼칠수 있었던 잠재적인 위해요소였죠. 이들이 이리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세트가 과거에 그러하였듯 그 피를 쥚어진 사내들 모두 광기에 빠지어 불경한 자들의 영역에 발을 딛은 것을 이데아의 역사가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여인들이 이토록 아이의 성별에 그리 집착하는 이유도 달에 먹히는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여자아이와 처녀

들, 모두 여인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에 세트와 더불어 이데아의 모든 이들이 달에 스스로 몸을 내던지는 것을 이르러 광기라고 부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트가 그리도 다루고 싶어하던 만월의 광기 라츠, 그리고 그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여인들이야 말로 세트가 그리도 바라 마지않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또 반하였기에 숲의 주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나누어 주었을 테지요. 이들이 아무런 힘을 발현하지 않고도 그들로부터 새어나오는 것은 압도라는 말 이외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그저 광기에 미쳐버린 자들이나 불경한 존재들과 비견될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은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이 라츠를 발현 할때마다 아름다움과 고고함을 드러냈으며, 세트나 그의 후예들마저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처음으로 발을 딛은 자들이었기에 자신들도 모르게 경외심과 더불어 그들을 우러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달을 몸에 받아들이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발시아의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원초적인 본능으로부터 끌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일곱가지의 대죄를 담은 존재에 가장 가까울런지도 모르겠군요. 비록 세트의 후예이긴 하나 죄가 구현되는 형태는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는 다소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나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 욕망을 숨겨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두운 뒷면에서 더럽게 쏟아내지만, 이에그윈

의 여인들은 그것을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그 원초적인 본능을 촉매제로 하여 외부로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야 라츠를 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트에게 버려지고 난 뒤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섬기려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라츠,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섬기지 않는 이들이지만 정신적 지주가 이들 위에 있습니다. 시에그윈의 여인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 이 여인은 그저 여인들에게 지식과 길을 바로잡아 주는 현자 혹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녀가 바로 라츠의 깊은 숨결이라 부르는 '헤벨라' 입니다. 그녀는 세트의 곁에서부터 그에게 버려진 여인들을 이끌고 전승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시에그윈의 여인들은 다른 이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으나, 헤벨라에게 만큼은 고개를 숙이어 대모라 칭하며 그녀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녀와 함께한 이들은 광기에 몸을 담그면 광기로부터 부여된 힘을 다루는데 시간이 짧았던 반면에 그녀는 호흡이 굉장히 길고 또 깊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광기에 더 깊게 잠길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오랜동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기에 다른 이들이 광기 속에서 자신을 더욱 잘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바로 잡아 주기도 했었던 거죠.

영원의 전쟁으로 세트의 대답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신감으로 마지막까지 그나마 작게나마 남아있던 그에 대한 존경과 신뢰감마저 바스러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라츠의 힘은 그저 둥지를 지키는 힘에

그치지 않고 세트의 부족들을 아우르고 그들 위에 서기 위한 힘, 자신의 부족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힘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였습니다. 모성애라고 부르기 이전부터 태초에 원초적인 본능으로부터 나온 힘 라츠는 지금의 모성애라고 부르는 것만큼 마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하고 혹독하며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을 더했습니다. 온실속의 화초에 그저 물을 주며 가꾸는 것이 아닌 때로는 상스럽고 더러우며 때로는 잔혹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면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지켜야 할 것을 당연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나의 이빨과 나의 발톱을 세운채 오늘도 기꺼이 저 달 깊은 곳까지 몸을 담글 것입니다. 이제 나의 두 눈은 붉게 물들어 이데아의 어둠속을 비출 것이고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쓴채 웃을 것입니다.

테 르 베 르 낙

- 태초의 창조 -

“태초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듯이,

태초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부술것이라.”

- 낙원의 흔적 일락시움에서 발췌 -

『 천지창조 』

정막만이 가득한 어둠속에서 고요를 깨고 조용히 눈을 뜨는 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태초의 존재요,

만물의 창조주이자 조물주인 에르아 라고 이르는 자로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공허라고 하는 텅 빈 그곳을 일컬어 카할라 라 이르는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니 그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잠든 아이의 모습이라.

이윽고 기지개를 펴듯 몸을 젖히더니,

그녀는 사방에 젖을 뿌리어 공허한 카할라를 가득 메우는도다.

그리 만들어진 세상을 테르벨 이라 하노라.

격렬한 황홀함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 온 몸을 타고 흐름이 수없이 반복되매,

그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의 테르벨이 카할라 속에서 고개를 드러내더라.

저 무수한 생명이 태어난 격동의 순간을 이르러 생명을 낳는다는 뜻의

테르베 르낙 이라 하노라.

테르베르낙이 열리고 난 뒤에도 그녀는 수많은 피조물을 낳고 또 부수기를 반복 하였도다.

눈을 뜨고 난 이래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낳으신 창조주인 그녀가 테르벨의 가운데에 우뚝 서니,

모든 것이 자신의 손 아래에 나고 지니, 더 나은 생명을 빚는 그 일을 즐거이 여기었도다.

그러나, 어느새 이에 무료함을 느끼게 되었으니,

그녀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창조하길 바라고 또 원하였도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낳으려 애쓸 따름이라.

그 동안 얼마나 많은 테르벨이 스스로 그 빛을 다했는지 그녀조차 가늠할 수 없도다.

몇번의 생명을 낳고 부수기를 반복한 뒤에야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세계를 만드나니,

이 보석과도 같이 빛을 발하는 테르벨을 낳고 그 기쁨에 눈믈을 떨구니,

한방울의 저 눈물은 새로이 태어난 저 테르벨에 생명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기적을 만듦이라.

그 영롱함은 그녀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단연 단연 으뜸이라 여기었으니,

그것에 친히 이데아 라는 이름을 하사하니 그 세계는 무릇 테르벨에서 가장 빛나는도다.

그녀의 숨결로 인하야 서로 생명을 싹틔우고 그 생명을 빼앗으며 저들끼리 균형을 유지하니,

그 모습을 보고는 뿌듯함을 느끼었다 하더라.

창조주인 그녀조차 조그만 세계 속에서 변화와 격동이 반복하는 그것을 바라보매,

이는 언제나 즐겁고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

에르아는 공허속에서 눈을 열고 그 외로움 속에서 테르벨을 만든 것과도 같이,

그 작은 세계 안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한 이들을 남기고자 했음이라.

그녀는 이데아의 흙을 한줌을 움키어 쥐고나서 다시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그녀의 모습을 담은 피조물을 낳게 되었도다.

이들은 창조주에 비하야 비록 부수어지기 쉬운 자들이나 그녀의 모습을 담고 있기에,

저들의 모습은 테르벨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도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음이라.

그러나, 그녀가 이들을 낳으실 적에 공허속에서 창조주와 함께 고동치던 공허속에서,

혼란, 그리고 죄악이 그들과 함께 녹아들게 되고 그들의 주위를 맴돌게

되는도다.

이에 에르아는 그녀가 각고의 노력끝에 창조해낸 이데아와 그것이 낳은 피조물들을 바라보고는 그 모습을 동정하나니,

이는 그녀가 눈을 뜰 때 공허 속 카할라에서 느끼었던 그 마음을 물려주고 싶지 않음이요,

자신이 빚은 피조물들이 어둡고 차가운 공허에 닿아 고통에 신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 각별한 마음에 에르아는 다시금 그녀의 온 힘을 모아 혼란과 죄악의 불씨를 윱 이라 부르는 돌의 형태로 담으시게 됨이라.

그 죄악의 돌을 이데아의 밖에 두질 않았나니,

만약에 그리한다면 테르벨 사이에 흩뿌려져 또 다른 세상에 공허를 낳게 될 불씨가 되노라.

이 때문에 카할라의 균형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어 그리 하셨음이라.

수없이 많은 테르벨 중에서 이데아를 창조할 때 태어난 부산물이라 그들의 곁에 속해 있어야하매,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함에 만드신 이 돌은 더 큰 혼돈을 낳지 않기 위한 창조주의 혜안이도다.

저들을 배려한 움직임 뒤로 그녀의 모습을 닮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니,

그 이름은 이바, 그리고 아다무스 라.

그녀의 거룩한 음성이 퍼지니 이들은 창조주가 공허 속에서 눈을 뜨듯 조용히 눈을 뜨는도다.

그녀의 숨결로 말미암아 이바와 아다무스는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틔우는 씨앗이 될 것이라.

홀로 카할라에 있던 그녀와는 다르게 수많은 테르벨이 저들과 함께 하나니,

이들은 이 무한한 공허 속에서도 함께로다.

창조주가 다시금 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니 이들은 빛속에 감기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

그녀의 인도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테르벨 중 가장 빛나는 보석, 이데아를 향해 가는도다.

그것을 모르는 이바가 눈을 감고 아다무스에게 묻길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니,

아다무스는 가늘게 눈을 뜨며 저들을 바라보는 자애로운 미소의 여인을 보며 이바에게 이르길,

그녀가 인도하는 대로라고 짧게 답하는도다.

그 짧은 조우였음에도 이바와 아다무스는 저 여인이 우리를 만든 자라는 것을 알게 됨이라.

후에 다시금 빛이 쏟아지고 난 뒤에 이들이 눈을 간신히 뜨게 되었으니,

창조주의 모습과 수많은 테르벨에 비할데 없는 눈이 부신 아름다운 땅

위에 서 있음을 알더라.
이슬로 촉촉히 젖은 푸른 초원과 그 위를 뛰노는 생명과 하얀 구름이며.
지저귀는 새들이며 대지의 고동과 들풀이 내는 노랫소리가 낙원의 언덕에 퍼지노라.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이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니 그 모습에 다시금 취하여 한참을 주위를 둘러보며 이를 눈에 새기는도다.
그러고는 이내 이들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 보더니 다시금 절경에 빠지노라.
한동안을 이데아의 아름다움에 취한 나머지 이들은 창조주의 모습을 딴 서로의 모습에 넋을 잃게 되었으니,
그 순간 이들은 무언가에 홀린듯이 몸을 포개어 섞으니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는 소리가 이데아에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흩어지노라.
숨을 쉬는 것조차 이들에게 있어 그저 꿈과도 같은 시간의 연속이었으니,
이들은 들판의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이데아의 모든 곳을 뛰어 다니며
그들의 흔적과 발자취를 아낌없이 남기었노라.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이데아를 뛰놀던 이들은 그들 스스로 이데아의
중심에 오직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가린 터전을 만들었으니
그곳이 바로 락시아 ,이데아의 중심이로다.
『 죄악의 돌 』

락시아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세우고 난 뒤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나니, 죄악의 돌로 말미암아 이들은 창조주께서 항상 그렇게나 우려하시던 일을 맞이하게 되는도다.
그들은 어느날부턴가 알수없는 속삭임을 듣게 되었으니 불길한 징조의 시작이라.
그 속삭임은 이데아의 짐승이 내는 소리가 아닌 이바와 아다무스의 혀에서 나옴과 같더라.
다만 그 소리는 무어라 말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 그것이 뜻하는 바를 알 도리가 없도다.
취할 듯한 속삭임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저들을 부르는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 가기로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옮기는도다.
오랜동안 이데아의 모든 곳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여기었으나 그 속삭임을 따라 가는 길은 너무나 낯설고도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나니,
속삭임은 점점 커져가매 이바와 아다무스는 점점 그것에 가까워 지고 있음을 알게 되나니,
떨림을 감추지 못하고 손에 쥔 횃불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이곳에서 어지러이 춤을 추더이다.
그것은 필시 이데아의 모든 짐승들도 느꼈을 두려움이었으나 이들은 물러서지 않으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노라.
속삭임은 이제 더욱 선명하게 들리어 목소리가 되고 그 말이 점점 선명히 들리는도다.

다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나 그것은 분명 이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이었음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에 끌리듯 다가갔음이라.
마침내 그 근원에 닿으니 그 목소리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아무렇게나 뻗어져나온 기이한 그림자가 저들의 발을 붙잡아 발걸음을 떼기 어렵게 하였으니,
이따금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도 놀랄만큼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도다.
속삭임은 어느새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애타게 이들에게 조용히 외치고 있었노라.
그들의 귓가에 울리던 속삭임은 마침내 기이한 형태 를 지닌 돌까지 인도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후에 역사가 기록하는 죄악의 돌 이라.
그들을 괴롭히던 절규는 필시 이 돌에서 나옴이 분명하도다.
카아스, 바탈라, 가아바, 가르가누트, 지마하, 캄트자누트, 키나흐.
여전히 그 뜻을 가늠하기 힘든 말들이 계속하여 이바와 아다무스를 유혹하는도다.
그곳을 떠나자 하는 이바의 청에 아다무스는 이를 만류하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었건만,
아다무스는 이미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 있도다.
이바가 다시한번 간청하듯 아다무스에게 고하니 그것은 여인의 직감과

같은 것이라.

다만, 아다무스는 고개를 돌리고 이바를 한번 보고는 다시 돌에 눈을 고정시키고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이 돌을 향해 손을 뻗게 되나니, 그것을 순간의 시간이라 하면 순간이고 영원과 같은 시간이면 영원의 시간과도 같으리라.

그 유혹에 아다무스가 이바의 손을 더욱 세게 잡고 나중에 너무 강하게 쥐었던 탓에,

이바가 놀라 쥐어진 그 손을 다급히 뿌리치노라.

절망과 탄식이 함께 담겨진 말이 이바의 입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아다무스가 돌을 움켜쥐노라.

그러더니 기이한 모양을 한 돌은 웃음과 절규가 섞인 소리를 내더니 그 자리에 먼지가 되노라.

그저 아름다운 이데아에서 무탈하게 지내온 이들은 기이한 돌의 속삭임과 저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니.

그것은 마치 이데아의 어두운 단편을 보는것과 같았으리라.

문득 든 의문이 이들의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가니,

그것은 이 기이한 돌을 이데아에 두어야만 했던 것인가 라는 물음이로다.

이것이 이바와 아다무스가 처음으로 느낀 부정의 감정, 창조주에 대한 불신이라.

돌이 조각난 이후로 이들을 스쳐가는 서늘함을 느꼈을 뿐 다른 일은 일

어나지 않더이다.

이 둘은 의심은 잠시 접어두고 뿌리친 손을 다시 마주한 뒤 그 곳을 물러났음이라.

낯선 감정을 뒤로한채 저들은 타오르는 태양을 다시금 반가이 맞이하니,

여전히 이데아에 뜨고지는 태양과 달과 별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도다.

평화로운 광경을 맞이함에도 이들이 마주했던 기이했던 조우로 인하여, 이데아에 전에 없던 이질감을 떨칠 수 없노라.

그 일이 한참 지난 후 이바와 아다무스는 다시금 몸을 섞고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도다.

만고의 끝에 아이가 이데아의 빛을 받게되니 보아라. 그들의 품안에 사내가 셋이라.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아벨, 카인 그리고 세트라 이름을 지었도다.

그들 모두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름다움을 물려 받아 그 빼어난 미모를 가지었으니,

들판을 거닐던 생명들은 앞다투어 서로 이들을 맞이하려 이바와 아다무스의 거처인 락시아에 발걸음을 하였도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니 훗날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희들 곁에서 일러주지 않음에도,

이데아를 사는법을 저들 스스로 터득해 나가며 저들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더라.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한 지붕 아래에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였기에,
창조주가 그러하듯 저 아이들의 생명을 담을 세 그릇을 빚고난 뒤 그것에 생명을 담나니,
그 셋의 생명을 이리샤 라 이름지었도다.
다만, 그들이 빚은 피조물은 자신들의 모습과도 같이 연약하기 그지 없도다.
더구나, 이들에게선 창조주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아니하였기에 그 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
다만, 자신의 아이들이 대를 계속 이어나고도 남을만큼 순결하고도 깨끗한 모습을 하였음이라.
이들은 어느 누구와의 피와도 섞일 수 있었으니,
이바와 아다무스는 저 아이들의 곁에 이 여인을 두게 하여 그것이 이들의 안에 흐르는 피를 더욱이 선명하게 물려주게끔 하였으나,
동시에 이들의 존재가 저들의 사이를 더욱 멀게 하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라.
『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
이즈음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와 더불어 창조의 그릇인 이리샤를 낳았다는 창조의 도취감에 빠지게 되었나니,

신과도 같이 생명을 낳았다는 오만에 이르게 되며 그 오만은 나중에 이르러는 도를 넘었노라.

죄악의 돌에서 새어나온 의심은 마침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창조주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니,

마침내 이들은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에 이르게 되노라.

백 하고도 첫번째 달이 지고 난 뒤 어스름,

이바와 아다무스는 이들을 한데 모아 이르기를,

저희의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준비한 시험 에 대해 일러 줄 것이 있다 하더라.

그 시험은 아벨, 카인 그리고 세트가 그들의 후대와 그들의 방식으로 풍족한 이 땅에 거룩한 문명을 이룩하여,

나아가 영원토록 번영케하라 하시었음이라.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험에 내건 보상은 바로 창조주께서 내리신 태초의 낙원인 이데아를 주무를 수 있게 함이라.

그 오만함은 이미 저들이 창조주에 비견될만한 존재라고 여기는 모양이로다.

그리하야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이들인 아벨과 카인 그리고 세트는 태초의 낙원을 손에 넣기 위하야 그 시험을 시작하니,

이는 태양만큼 뜨거웠고 달과 같이 서슬 푸른 날이 서리었도다.

사려심이 깊고도 순수한 아벨은 이리샤와 몸을 섞고 그의 첫번째 자손

들에게 이데아를 살아가기 위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불어넣었노라.
둘째로 카인은 총명하고도 향락을 즐기었으니, 이리샤와 그의 첫번째 자손들에게 후대에 역사가 게헤나 라고 부르는 땅 위에 새기니,
그곳에서 방대한 지식과 즐거움 그리고 우아함을 그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리하야 아벨과 카인 이 둘은 그들의 이리샤와 함께 그들의 후대를 거느리고 힘찬 걸음을 하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시작할 문명의 꽃을 빠른 속도로 피우기 시작하노라.
다만, 세트는 병약하고 미숙아로 이데아에 나왔으니 그는 형제들과 달리 이리샤를 곁에 두고도 그의 후대를 만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형제들과 어깨를 견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의 모습에 세트의 곁에 있던 이리샤는 세트도 모르는 사이에 뿜어낸 절망과 고독으로 인하야
병들고 시들게 되나니 이내 이데아에 한줌의 흙만을 남긴채 사라지게 되었도다.
그 후로 세트는 나날이 상심에 빠져들어 더욱이 어두워져 손에 어떠한 것도 잡히지 아니하니,
이데아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도다.

이 모습을 본 이바와 아다무스는 크게 상심하고 세트를 꾸짖으니,
그것은 자신들이 신과도 같이 이데아에 창조를 일구어 냈기에,
무릇 그들이 만든 피조물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탓이었을 따름이라.
이로 인하야 이들은 세트의 결점을 곧 자신들의 치부로까지 여기며 일침을 가하나니,
그 때가 만월이 찬란히 빛나는 밤이라.
이후로도 세트는 만월의 밤마다 그날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신을 잃고 이데아에 내려와 직접적인 개입을 서슴치 않아 혼돈의 불씨를 만들어내는도다.
그의 슬픔은 이데아를 전율케 했고 폭풍과 벼락을 내리쳐 낙원에 상처를 입히었도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날이 선 말은 그만큼 세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도려냈음이라.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과 카인에게 이르사 세트를 진정케 하라 하시니,
세트가 비록 미숙아로 이데아에 나왔다 한들 아벨과 카인이 사흘 밤낮을 매달리어 겨우 그를 달랬다 하더이다.
그 후로 세트는 완전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 밖에 나게 되었음이라.
다만 세트가 남긴 행적은 그저 이데아에 몰아칠 폭풍우의 전조일 뿐이

니,

『 죄와 벌 』

카인은 그의 총명함으로 그의 땅 제람 을 넓히어 가며 저들의 핏줄들에게 촉망받는 자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음이라.

아벨은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유랑과 방랑을 반복하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되었나니,

그를 가만히 지켜보던 아벨은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던 카인에게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나니,

그것은 질투이자 시기였도다.

그것은 분노이자 증오였노라.

비단 세트만이 이들 형제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보였던 것만은 아니었으니,

다만, 아벨은 그 감정을 숨기고 감추었을 뿐이라.

한참을 쌓여온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침내 아벨은 훗날 인간이라고 부르는 뜻의 발시아 가 저지른 최초의 죄악을 범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카인과 그의 핏줄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저들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도다.

이는 이데아를 두고 치루어진 시험에 단연코 으뜸이 되길 원하던 아벨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는 그를 따르던 목동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위함이었으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데아에 영원토록 살기 위한 소망이었으

며,

이것은 분명 아벨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라.

그리하야 카인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일정 때마다 올릴 의식을 치루지 못하게 되니,

그 시험에서 보여줄 결과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도다.

다만, 카인은 의식에 필요한 그 밭을 버리고 그의 핏줄들을 화마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니,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 오직 저들을 위협에서 구해냄을 우선으로 하더이다.

그의 아이들이 더이상 불길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수습에 힘쓰니,

후일에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위한 의식을 거행할 것이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

이 모든 것은 아벨이 예견한대로 흘러가나니.

카인이 의식에 필요한 재물을 빚을 밭이 타버려 목동인 아벨에게는 지금이 기회라 여기었도다.

아벨은 그가 여지껏 몰았던 염소를 비롯한 수 많은 가축을 제단으로 올리었으나,

후에 이르러 그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라.

아벨은 이제 그의 자손마저 제단에 올라서게 만들었도다.

그러나, 제물로 바쳐진 자들은 스스로 제단에 오르기를 자처하더라.
그곳에 분노나 슬픔이라는 것은 일절 담겨있지 아니하였으니,
창조주 혹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믿음이 더욱이 깊었기에,
기꺼이 그 제단을 오름에 망설임은 없도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 피와 영혼의 의식을 이들 사이에서 파라한 이라 부름이니,
카인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스스로 제단에 오르는 이 관행을 발시아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라 여기는도다.
어느날 카인이 아벨을 맞이하여 그에게 이르길 더이상 발시아를 해하지 말라.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시험이 제단에 발시아를 올려 어여쁨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요,
후대의 모든 이들을 이 풍족한 땅 이데아에서 영원토록 번영케 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카인의 말에 아벨이 그를 책망하기를 창조주와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를 섬김은
그들의 시험에서 헤메이는 어린 양들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
몸과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평화를 위함이라.
초월적 존재를 몸에 담아 이 모든 것을 취함이라 하니 카인이 입을 열

어 아벨에게 가로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발시아가 가지고 있으니 그대들의 신께서 그러하시었듯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그대들의 안에 신이 깃들도록 하라.

그 말은 스스로 신이 되라 함이었으니,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 밭을 일구고 땀을 흘리라.

그리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이들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하라.

불안한 피조물들이나 저리로써 살아갈 힘을 받았나니 발시아의 손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일은 없다 하더라.

또한 창조주는 메마른 대지에 젖을 뿌리어 주시어 설 땅을 빚어주시었을 뿐이요,

그것을 일구는 것은 발시아의 손과 발이로다.

그러니 너의 곁에 창조주도 이바도 아다무스도 아닌 발시아를 곁에 두라 하니,

아벨은 그에게 물러가라는 손짓을 하며 카인의 말을 들은체 하지 않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르러,

그가 다녀간 길에 저들이 기르는 짐승의 분뇨를 뿌리게 하라 하였도다.

이에 카인은 아벨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돌아보며 그를 깊은 회의감에 빠져 들게 만듦이라.

그 후로도 아벨의 만행이 자행되는 동안 아벨의 병폐를 인지하지 못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저주하며 원망하는도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다 못한 카인은 그의 손으로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니,
그것이 발시아의 역사가 기록하는 최초의 살인 또는 죄악의 역사를 알리는 시발점이라.
이에 모든 이데아가 혼란에 빠지었으니,
이 사실에 창조주마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여 카인에게 낙인을 내리사,
그것은 카인이 그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것이요.
억겁의 시간동안 이데아를 방황하며 영원의 삶을 사는 저주였음이라.
후대가 이를 기록하기를 영원을 살아간다 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르노라.
그 낙인은 너의 주위에서 너를 사랑하는 이들이 늙고 병들어 죽어감을 봐야함이라.
또한 너의 아이의 아이의 죽음마저 그저 지켜만 봐야 할 따름이니,
이 어찌 저주가 아니겠는가 하더라.
다만, 창조주는 물론 이바와 아다무스에게도 회의감을 느끼어 등을 돌려버린 카인은 이를 형벌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더라.
오히려 그 낙인은 축복과 같은 것으로 여기니,
평생을 태양과 빛의 은총을 받지 못한 채 그늘 속에서 언제나 피를 갈구하며 살아갈진대,
그것을 기꺼이 진 채로 살아가기로 하더라.

속죄의 의미로 내려진 형벌은 감히 필멸자가 두르지 못하는 그것을 능히 넘는 힘이로다.

필시 그것을 신에 버금가는 힘이라 여기었으니 카인은 창조주의 낙인에 매료가 되었음이라.

그 낙인은 카인은 물론이요, 그의 후대마저 그것이 선명히 새겨져 남아 있노라.

그로 인하야 카인의 핏줄 모두가 향락과 방탕 속에 취하야 오직 피만을 갈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따름이라.

또한,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이데아에 숨쉬는 모든 이들은 혼돈의 폭풍 속에 깊게 잠기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도다.

『 폭풍의 전야 』

아벨의 죽음으로 남겨진 자들은 비통에 빠지어 좌절하니 이들에게 절망만이 남은 듯 하더이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역시 분개하여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

그러나, 아벨의 자손 중 하나가 나서 광장에 발시아를 모으고 카인을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세우며 만인에게 부르짖노라.

그 목소리는 작게 떨리었으나 땅을 울리옵고 광장에 들어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리오니,

그 외침은 모든 이들을 움직이는도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도 이 모습에 감복하야 그 사내를 기특하게 여기

사,

이 자의 곁에 강림하야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됨이라.

그 모습을 직접 눈에 담은 아벨의 자손들은 그를 우러러 보며 지도자로 추대하게 되는도다.

그 자는 곧 닥쳐올 혼돈의 서막을 대비하기 위해 주위의 모든 이들을 고양시키매,

그것은 삽시간에 불과같이 퍼져 나갔음이라.

그들의 아비를 죽인 카인과 그의 혐오스러운 핏줄들을 이데아에서 멸하게 하는 것이 첫째요,

유목을 하던 그들의 생활방식을 이전에 카인이 핏줄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만의 터전을 자리해 머물러 살아가도록 바꾸어감이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이 사내의 소식을 접한 아벨의 자손들이 서로 모여 여럿의 자치도시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도다.

이 사내는 자치도시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설득하야 이들을 하나로 규합하게 되나니,

지도자로 추대받은 이 사내는 이후에 정치력과 통솔력을 겸비한 위대함으로,

비탄에 빠진 아벨의 자손들을 스스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도다.

그의 부름에 아벨의 모든 자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데 모이게 되

노니 이 위대한 공국을 이르기를 퀼로른 이라 명하였도다.
그리고 그 공국의 정점에 선 사내가 아벨의 자손들이 스스로 일어나 세운 공국인 퀼로른 의 사자, 국왕 델페노프 라 부르노라.
카인은 창조주로부터 낙인을 받고는 이데아를 방황하다가 후일에 그는 종적을 감추게 되며,
그 어디에서도 그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라.
그가 종적을 감춘 뒤로 카인의 모든 핏줄들은 그 앞을 이끌어줄 길잡이를 잃었노라.
모든 카인의 핏줄들이 갈길을 찾지 못하고 온 이데아를 영혼없이 떠도는도다.
길잡이를 잃은 채 목적을 잃은 그의 핏줄들은 그저 들판의 짐승들과도 같이 피에 굶주린 존재밖에 되지 못했음이라.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진 채 변해버린 자신의 존재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자들과 그럴 필요가 없는 자들이 다시 나뉘게 됨이라.
카인의 핏줄들은 낙인 하나로 흩어짐을 면치 못하게 되는도다.
변해버린 존재들은 이데아를 떠돌며 갈곳을 잃고 헤메이었으나 이들을 이끌어준 이가 그들 앞에 도래하니,
그녀가 바로 태초의 피 혹은 피의 근원이라는 뜻의 마르단 라 불리우는 자로다.
그녀는 카인이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진 뒤에 누구도 그의 곁에 있기를

꺼려하기에 이 땅에 그의 외로움을 채우는 이 없으리라.

그리하야 카인은 그가 창조주로부터 낙인을 받기 전 세상 떠난 그의 이리샤가 남긴 흙에 저의 피를 뿌리어 새로운 생명을 낳으니,

그의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아내인 존재로다.

진실된 카인의 여인인 마르단은 현명하였으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는 여인이었으니,

카인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낙인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자신을 잃을때마다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창조주 에르아의 낙인으로 인하야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자요,

그 낙인은 축복이 아닌 저주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죗값이니

아벨이 그대에게 행한 죄도 죄요,

그대가 아벨을 죽인 것도 죄가 될 따름이나,

다만, 다른이의 죄를 또다른 죄로 덮으며 자신의 눈 마저 덮으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카인은 영원히 그림자 속에 살리라 하고 그의 남은 권능을 마르단에게 남기고는,

그녀에게 기별도 남기지 아니한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음이라.

마르단는 이리샤의 흙에 카인의 피가 뿌려져 만들어진 순수한 피가 흐르지 아니한 존재였기에,

그녀는 이 가여운 카인의 핏줄들이 속죄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이라 믿던 유일한 카인의 핏줄이라.
이에 마르단는 이데아를 방황하는 가여운 저 카인의 아이들을 그녀의 품에 거두는도다.
이에 카인의 모든 핏줄이 하나 둘 태초의 피를 따르니 모두 그녀의 고귀한 모습에 넋을 잃고 그 모습에 빠져 그녀의 뒤를 따르노라.
그저 피에 굶주린 들판의 짐승들과 다를 바 없이 이데아를 방황하던 이들은 어느새 의지와 동기를 부여받으니,
마르단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인의 핏줄들은 날이 갈수록 이데아를 위협하는 더욱이 위험한 존재로 거듭남이라.
태초의 피 마르단가 바라던 구원과 속죄의 길은 이들의 송곳니를 더욱이 날카롭게 세우기만 할 뿐이로다.
마르단에게는 카인의 피가 흐르나 그것은 오직 반쪽뿐이라.
낙인이 내려진 모든 카인의 핏줄들에게 남은 것 하나 없이 이미 증오만이 가득하나니.
그 표식을 깊게 새긴 이들이 이르기를 더이상 저희들에게 신으로부터 받을 구원은 없을 것이라 하더이다.
더불어 죄를 죄로 씻어낸 카인으르 아비로 섬긴 이들 중 그것을 후회하는 이 하나 없더라.
카인은 신에 미쳐있던 아벨이 생명을 담보로 한 피의 예식과 같은 과오를 더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었나니,

창조주와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에게도 반하는 존재가 된 것도 이로부터 시작되었노라.
카인은 이데아를 살아가는 이들에 있어 신이란 존재는 필요없는 것이라 여기게 되는도다.
오히려 그녀가 있으매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얻으려 하니 그로인하야 불안정하고도 의존적 존재들만을 낳게 된 것이라 하더라.
불사의 생을 사는 카인의 핏줄들에게 더이상 이 시험은 자신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창조주로부터 새겨진 낙인은 이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형벌과 같은 낙인을 주었으나,
이는 아벨의 자손들의 범주를 능히 넘어선 힘을 지니게 되었음이라.
이에 감히 누가 자신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냐 스스로에게 묻나니,
오히려 이바와 아다무스의 목에 칼을 들이대게 되는도다.
아벨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 사념이 카인의 핏줄들의 뇌리에 박히었으니,
신을 죽이려는 자의 태동을 보게 되노라.
창조주에게 노여움을 사 낙인을 받으니,
아무리 카인과 그의 핏줄이 그를 축복이라 여기었다 한들 낙인의 목적은 그를 미워함이라.
그러하기에 그들이 낙인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낙인을 내린 것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밖으로 직접 드러내나니,

그들의 눈에는 이제 증오만이 남아 창조주를 끌어내 죽이는 것 밖에 담겨있지 아니하였도다.
아벨의 자손들이 공국 퀼로른을 중심으로 하여 이데아에 그 영역을 서서히 넓히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그들의 칼날이 점점 카인의 핏줄들을 향하게 되는 것을 태초의 피가 직감하였음이라.
구원도 속죄도 이미 나의 손을 벗어난 것이니, 그것 이전에 카인의 아이들을 돌봄이 우선이라.
이에 그녀는 혈족의 유지를 위하야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으니,
그녀는 자신의 피를 이데아에 뿌리어 그 이름 자체로 카인의 성을 뜻하는 카에람 을 세우나니
행방이 묘연한 그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며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하라.
그 크기는 능히 태양을 삼킬만했으며 그 그림자는 이데아를 덮고도 남을만한 거대함이라.
카에람의 주위는 항상 칠흙과도 같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게 되는도다.
태초의 피는 이곳에 자리하여 도처에 피에 취한 짐승처럼 배회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내리어 카에람 안에 두니
감히 저들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가여운 아벨의 자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는도다.
『 마음의 안식처 』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바와 아다무스의 눈 아래에 세트는 없나니.
이미 그것마저 예상했던 일이라 세트는 스스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하야 이데아를 방황하게 되었음이라.
한참을 헤메다 이내 차가운 숲에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되었음이라.
세트는 이내 그 땅이 가진 매력에 빠져 들게 되나니 그곳은 어느 형제의 후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도다.
그곳은 어머니 대자연 그 자체였으니 그 모습은 사방이 숲으로 쌓여 있음에 하늘마저 덮음이라.
바람에 부딪히는 잎새가 사각거리며 서로 몸을 비벼 소름끼치는 소리를 내는도다.
다만, 그곳에는 시험에 빠진 자들끼리 벌이는 피와 살이 튀는 사투도 없으매,
그를 꾸짖고 나무라는 이바와 아다무스도 없어 오직 평화와 고요 뿐인 곳이었노라.
그렇게 이곳을 거닐다 세트는 이곳에서 우연히 어느 생명과 조우하게 되나니,
그 자들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내리기 이전부터 이데아를 누비어오던 자들이었노라.
그러나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데아에 발을 딛고 나아가 그의 아이들이

이 땅에 터전을 자리하고 그들 이외의 다른 생명들을 멀리하니,
이들은 어쩔수 없이 그들을 피하여 마침내 이 숲에 닿게 되었는도다.
바로 이들이 역사가 숲의 주인들이라 기록하는 이데아의 늑대들인 자스라 부르는 존재로다.
세트는 이들을 우아한 존재라 여기었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과 형제들 사이에서의 열등감에 빠지어 있던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매,
그 문은 굳게 닫히어 누구도 허락하지 않더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야 숲을 오고가며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숲 속에서 숨을 쉬는도다.
세트는 이 우아한 생명들과 함께 자유로이 달리며, 그들처럼 달을 보며 목놓아 울었다고 하더라.
늑대라 부르는 이 우아한 생명들과 숨이 터질 듯 달리고 숲을 누비었음에,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있음에 그는 여태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느끼기 힘들었던 유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노라.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후대를 선택하고 또 점지하던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음이라.
세트는 숲의 주인들의 깊고 그윽한 눈과 달빛에 비치는 우아함 그리고 바람에 흩뿌려지는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에 빠져들었다 하더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들의 따스함에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으니,

이들을 자신의 후예로 정하기를 마음먹으니 이들과 함께 이데아를 살리라 하노라.
세트는 발걸음을 옮기어 둘러모인 그들 사이로 들어가 숲의 주인들을 그의 눈에 담게 되는도다.
그들 사이에 정적이 흐르고 이내 숲의 주인들은 세트 앞에 하나 둘 씩 고개를 숙이게 되었나니,
세트는 미끄러지듯이 그들 하나하나에게 다가가 머리에 그의 손을 살포시 얹고는 그의 권능을 하사하노라.
그의 권능이 그 누구의 손이 닿지 않은 이 깊은 숲에 충만하니 이들은 그 날을 축복하노라.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달빛 아래 이 늑대들은 하늘을 우러보며 목놓아 울음을 토해내니,
이데아의 모든 이가 울음소리를 들으매 공포의 존재가 그들의 곁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노라.
세트가 그리말한 우아하고도 고귀한 이 생명은 태초에 세트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 했음이라.
그러나,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사이에서 흐르는 전조를 이들도 직감했으리라.
그 후로 서로의 목에 칼을 대기 전에 숲의 주인들의 땅을 침범하고 더럽히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 볼 수 밖에 없노라.
그것은 이들의 힘이 이들에 미치지 못했기에 손을 쓸 수 없었던 탓이

라.

그러하기에 세트가 내민 손길은 이들에게 마치 구원과도 같이 다가왔음이라.

이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요, 나아가 침입자를 물고 뜯으며 찢고 죽일 수 있는 것이었노라.

숲의 주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세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으로 인하야,

모든 이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었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더욱이 각별하게 느꼈을 것이니라.

카인이 아벨을 죽이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세트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간의 우애로부터 오는 슬픔에 오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숲의 주인들의 모습으로 그 깊은 곳을 누비며 그들과 의식을 섞고 나누며 그의 안에서 깨어난 힘 때문이었으리라.

이는 그의 후예들로 인하야 기민한 예지력이라 불리우니, 필시 짐승들이 익히 피부로 느낌으로써 비로소 알 수 있는 것들이라.

세트가 기민한 예지력으로 보았던 그것은 바로 아벨의 죽음이로다.

다만 그가 본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으니,

그가 눈에 담은 것은 이데아를 뒤덮은 절규와 고통 그리고 쏟아지는 살덩이와 피로다.

더불어 시체들이 산을 이루며 그 산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쌓인 전쟁을 보았음이라.

『 영원의 전쟁 』

그렇게 아벨의 자손들과 카인의 핏줄, 세트의 후예들이 서로 섞여 피와 살이 낭자하는 전쟁이 이데아를 뒤덮게 되나니,

그것을 이르러 영원의 전쟁 이라 부르노라.

아벨의 자손은 복수의 이름아래에 칼을 들며, 카인의 핏줄은 혈족의 안위와 그들에 대항하는 자들의 피를 마시기 위함이라.

세트의 후예는 시험에 미쳐버린 형제와 더불어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였으니,

이 참상을 빚어낸 자들 모두의 존재를 지우기 위하여 서로 얽히고 설키며 생명의 땅 이데아에 죽음을 낳게 되는도다.

전쟁은 그 날을 헤아릴 수도 없이 낮과 밤을 이어가노니.

헤아릴 수도 없는 자들의 생명이 꺼지는도다.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서는 서로의 광기에 취해 분노와 증오만이 남게 되노니,

무엇을 위하야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었는지 서로가 알지 못한채 그것을 거두지 않으매,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남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됨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데아에 하루도 피가 마르지 아니한 날이 없더라.

찬란한 보석과도 같은 이데아는 이제 생명의 땅도 아니매 태초의 낙원도 아니로다.

그저 빛을 잃어버린 죽어버린 땅이 되었음이라.

이데아의 모든 땅이 그들의 무덤이자 요람이라.

이 모든 것이 이전에 세트가 그의 기민함으로 보았던 지옥이 현세에 드러난 모습이었으니,

이데아의 대지와 강물 그리고 온 하늘은 검붉은 빛을 내었고 심지어 타오르는 태양조차 고개를 숙이어 이데아를 비추지 않더라.

나고지는 생명은 분명 그 뜻이 있을진대 영원의 전쟁 이름아래 밤낮으로 비명과 신음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그 광경을 두 눈에 담았던 자는 필시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듯이 미쳐있는 모습이라 하리라.

영원의 전쟁에 태초의 피가 카에람을 뒤로하고 전장에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내노니,

태초의 피로 인하야 카인의 핏줄들은 그 무엇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녀의 곁에 서 전장을 누비게 됨이라.

그녀의 모습에 카인의 핏줄은 한껏 고양되어 아벨의 자손들의 기세를 꺾으며 자비없이 그들의 숨을 하나 둘 꺼뜨리는도다.

더불어 아벨의 자손들은 카인과 그의 핏줄들이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지게 되어 태양조차 고개를 돌리게 되나니,

이들이 태양을 피하여 그림자 속에 살매 밤의 귀족이 되었음을 몰랐던 이들이라.

이로 인하야 야간의 기습이 효율적이라 믿었던 아벨의 자손들이 행한 일은 허망한 일이로다.

태양이 먹구름에 드리워진 때에 이들과 혈투를 치루어 왔으니 그것이 바로 패착의 원인이요,

이제 영원의 전쟁은 전쟁이 아닌 일방적이고도 잔인한 학살의 양상으로 기울게 되는도다.

『 종언의 조짐 』

한껏 고양된 카인의 핏줄을 거느린 태초의 피 마르단가 전세를 굳혀가려 하려는 찰나에,

엄청난 비를 머금은 폭풍우가 이데아를 씻어내 높은 파도가 수많은 이들을 가라앉히게 되었도다.

그것은 이데아의 절반 이상을 물에 잠기게 하니 모든 이들이 마침내 칼을 거두는 듯하더라.

그 때, 마르단는 카에람 안에서 숨겨온 송곳니를 드러내는 듯한 기운을 느끼게 됨이라.

그것은 왕가의 혈통인 하다마트 가 줄곧 그려온 계획을 실현하고자 뿜어낸 기운이었으니,

다마트는 태초의 피 마르단가 유능한 카인의 핏줄 중에서도 그녀가 직접 고른 자들이었도다.

그들은 카인의 권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 중이었음에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음이라.
다만 이들이 다른 혈족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초의 피에 예속되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
카인이 잠적한 뒤에 대부분의 카인의 후예가 이데아를 목적없이 떠돔에도 이들은 줄곧 야망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로다.
그로 인하야 태초의 피는 이들이 위험함과 동시에 그녀의 흥미를 끌만한 자들이라 여기나니,
이들을 그녀의 곁에 두고 주시하야 왕가의 혈통 혹은 순수한 피라는 뜻의 하다마트라는 이름을 이들에게 주었음이라.
그러함에도 하다마트의 순혈들이 태초의 피에 대항하여 이러한 기운을 뿜어냄은 이들과 그녀가 카인의 권능을 해석함에서 오는 마찰 때문이라.
태초의 피는 창조주로부터 내린 낙인을 저주라 여기었으니 카인이 발시아가 저지른 최초의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낙인에 잠식되는 것을 곁에서 보듬고 막아주었음이라.
그가 겪은 고통을 하다마트의 순혈들은 알 길이 없으매 태초의 피가 카인의 권능을 저주라 함을 그저 노여워 하나니,
마르단가 카인의 권능을 저주라 하는 그 말에 아벨의 자손이 카인의 핏줄을 두고 손가락질 하는 악몽을 떠올리게끔 하더라.
대를 이어감에 따라 마르단가 카인의 곁에서 했던 수많은 간언들과 그

를 막은 절제와 더불어,
그의 곁에서 줄곧 살인에 대한 옳지못함을 일깨워 주던 자각마저 결국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결국 카인의 핏줄들에게 있어 살인은 단순한 여흥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라.
결국 태초의 피 마르단와 하다마트의 순혈은 끝내 대립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채 영원의 전쟁의 폭풍에 빠지게 되노라.
『 태초의 몰락 』
이를 호기로 삼은 왕가의 핏줄은 카인의 권능과 그 긍지를 짓밟은 태초의 피를 죽이려 함이라.
이에 왕가의 핏줄은 창조주의 낙인을 짊어지어 카인의 권능을 입은 자야말로 저희들이요,
다른 존재의 피는 일절 섞여있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라 여기니,
필시 모든 카인의 혈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권좌에 오를 자들이라 여기니,
이제야 왕좌를 계승하려 함이라 하더라.
마르단가 전장으로 나아가 카인의 성 카에람을 비워 그 영향력이 약해진 틈이 지금이라.
하다마트의 순혈들은 그녀와의 결속을 끊고 성내의 모든 카인의 혈족을 자신에게 예속되게 하노니,
이들이 성을 완전히 그들의 것으로 하는 데에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

니하더라.
왕가의 혈통인 이들은 태초의 피 못지 않게 언변이 뛰어나매 외교술에도 능하였으니,
그들의 존재감은 둘째라 하더라도 태초의 피의 예속을 끊을 수 있던 것도 이들이 가진 힘은 다른 핏줄들에 비하여 압도적이로다.
다만, 황가의 혈통은 태초의 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 한들 카에람의 형태를 지닐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은 한없이 불안정했음이라.
그러하기에 카에람에 담긴 피를 굳건히 할 태초의 피가 더욱더 필요하게 되나니,
그들의 욕망은 서늘한 기운이 되어 이데아에 퍼져 가노니 그 기운은 영원의 전쟁이 꽃피는 전장에까지 닿게 됨이라.
태초의 피가 전장의 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느끼게 되었나니 그녀는 이를 운명의 장난이라 여기며 카인을 회상하고는 군대를 물리노라.
그 때는 마침 공국의 국왕 델페노프가 카인의 자손들을 어둠에 급습하던 교전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로다.
또한, 빛이 잿빛 구름의 사이로 새어나오는 때에는 전장이 너무나도 고요하니,
아무리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야 태양이 자취를 감추었음에도 어둠이 내리지 아니한 때에는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이하게 여기었도다.
그리하야 국왕은 대신을 모아 주장하는 바는 카인의 핏줄이 태양을 피

함이라 여기나,

델페노프의 말은 그저 추측에서 거론된 것이라 그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았음이라.

이 때에 묘령의 여인 이 그를 알현하기를 원하고 국왕 앞에 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치려 하노니,

대신들은 전쟁중에 신중해져있던 터라 여인을 마녀로 치부하여 그 어떠한 말도 믿지 않더라.

그러나 이를 본 국왕은 그녀를 들라하였으니,

그녀는 국왕의 앞에서 그의 주장은 사실이며 이를 증명할 방도가 있다 하더라.

묘령의 여인의 언질대로 수일동안 태양이 드높은 때와 장소마다 전장의 변두리에 파수꾼을 보내어 그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라 명하노라.

얼마 지나지 않아 파수꾼들로부터 소식이 닿으매 그것은 일부 카인의 핏줄들이 칩거하고 있었던 보금자리를 발견하나니,

그 모습은 놀라웁게도 입에 피를 머금고 있고 죽은 듯이 관 속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이라.

파수꾼들은 국왕의 명에 따라 그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니 그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었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퍼지매 태양을 그들에게 비추자 이들은 한줌의 먼지가 되었으니,

그가 내린 결론은 카인의 핏줄에게 내리어진 창조주의 낙인으로 인하야

태양을 고개 높여 우러러 보지 못한다는 것이로다.
이에, 국왕 델페노프는 떨어진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야 아벨의 모든 자손들에게 용맹한 군대와 빛의 가호를 힘 입어 이들의 곁에 서나니,
태양이 드높이 오르매 저들은 그 어느때보다 빛나고 있었음이라.
카인의 핏줄들을 저들의 터전으로부터 몰아내게 되었으니 저들의 승리라.
그러나, 태초의 피 마르단는 카에람에 불길한 기운으로 이미 그녀의 군대를 물러나게 하니,
아벨의 총과 칼에 카인의 핏줄들이 무의미한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음이라.
왕가의 혈통에 의하여 카에람은 더욱이 불길한 기운을 쏟아내고 있었으니,
이는 마르단로 하여금 정녕 카인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음에 한탄하며 슬퍼하니,
그녀의 진심은 영원의 전쟁의 전장 속에서 곁에 함께하던 이들에게 닿게 되었음이라.
마르단는 하다마트의 순혈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담긴 피라는 것을 앎이라.
전장에 남은 카인의 아이들만이라도 자신에게 등을 돌려 카에람으로 향하라 명하니.
그것이 마르단의 마지막 명이자 이들에게 청하는 부탁이었으니 소수만

이 그 곁을 떠날 뿐 나머지 이들은 그녀의 곁에 서게 되는도다.
어느 그 누가 그녀의 입에서 떨어진 말과 저들의 행동을 카인의 핏줄이라 보겠는가.
그것은 필시 그녀의 몸 안에 카인의 피 말고도 이리샤의 흙으로부터 느껴지는 온기였음이라.
마르단의 말은 카인의 핏줄이 가지었던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며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요,
그것은 분명 이데아가 모든 생명을 감싸는 듯한 어머니 그 자체의 모습이라.
마르단와 잔존세력은 당당히 그녀와 함께 카에람으로 향하게 되나니,
저들에게 주어진 남은 선택은 오직 죽음뿐이라.
이미 영원의 전쟁과 막바지에 아벨의 자손들의 추격으로 인하야 그 수가 적었으나,
하다마트의 순혈이 최후로 건넨 마지막 자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니,
이들의 결단에 유감을 표하고 순식간에 이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노라.
후에 마르단는 왕가의 혈통 하다마트, 그 순수한 혈족을 이끄는 군주 드라쿨 앞에 끌려가 무릎을 꿇게 되노라.
드라쿨의 음성은 부드럽고 달콤하였으나 그 말에는 칼과 독이 배어있음이라.

드라쿨이 마르단에게 이르기를,

영원의 전쟁으로 아벨의 자손과 수없이도 많은 시간을 그들과 섞이더니 나약한 발시아, 아벨의 창녀가 되어버렸다고 비꼬며 그녀를 꾸짖으매,

태초의 피 안에 담긴 피를 모두 자신에게 담기 시작하노라.

그 의식은 단순히 목을 뜯어내어 피를 마시는 원시적인 과정이 아니요.

순수한 그녀의 피의 결정을 끌어내야 했기에 드라쿨이 그 피를 전부 자신의 몸에 담는 데에도 수천의 나날을 할애하더라.

그렇게 태초의 피는 숨이 꺼져가고 드라쿨이 그녀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키게 되고,

카인의 핏줄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했던 태초의 피 마르단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도다.

그것이 이데아가 기록하는 마르단의 죽음.

그것이 태초의 몰락 이로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하야 암묵적으로 영원의 전쟁은 종언을 고하는 듯하였으니,

모두 잠시동안의 달콤한 평화에 취하노라.

『 혼돈의 재림 』

태초의 피의 몰락 이후에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는 전쟁의 끝자락에서 숨을 고르며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는도다.

하다마트의 순혈들은 군주 드라쿨을 중심으로 그 입지를 굳건히 하였음

이라.

드라쿨의 몸 안에 태초의 피가 흐르나니 카인의 성은 다시금 그 모습을 갖추어 가더라.

태초의 피가 죽음을 맞이한 뒤로 하다마트는 카인의 핏줄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이르기를,

이제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의 안에 흐르던 불손하고 더러운 피는 지워졌으니,

이로 인하야 순수한 카인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이데아에 강림하게 될 것이라 하더라.

그 힘은 이전의 자신들을 월등히 넘어 태초의 피조차 초월하는 힘이니,

태초의 피의 죽음으로 카인의 핏줄의 세대교체는 티끌하나 없는 순수한 악의의 탄신을 뜻함이요,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권능을 짊고 영원토록 이데아를 살며 피를 마실 것이라 하더라.

영원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수습하는 동안 아벨의 자손들은 아비의 죽음과,

최초의 살해자 카인 그리고 그의 뿌리로부터 나온 핏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였노라.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온갖 만행을 자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나니,

그것은 델페노프가 공국에 포고령을 내리어 아벨의 자손들이 퀼로른 내에 숨어 잔존하는 자들을 끌어내려 함이라.

카인의 핏줄들과 교류하며 이들과 지내던 자들을 불경한 자들로 여기매 저주하고 죽임이라.

이에 수많은 자들이 줄에 매달리어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창으로 뚫리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가슴에 못이 박히어 공터에 버려져 갈가마귀와 들개의 식사거리로 버려지노라.

이것을 피의 복수 라 이르나니,

아벨의 자손들이 신의 이름 혹은 정의라는 명목 아래에 도를 넘어서 자행된 도를 넘어선 처형이 밤낮으로 계속되노라.

이로 말미암아 시체를 태우는 화형장의 불꽃은 그치질 아니하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가노라.

그러나 미쳐버린 빛의 심판에 그 모습을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는 자가 없었음이라.

더불어 다음 표적이 자신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었기에 죄 짓지 않은 자들조차 공포에 떨게 되는도다.

피의 복수가 자행됨에도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이들을 막지 않음에는 이유가 있을 따름이라.

이들은 영원의 전쟁과 피의 복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혼을 재물로 쓰려는 것이었으니.

그리고 재물은 카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비의 혼을 채울 그릇에 가득 채워질 것이라 믿고 있더이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로 얼룩진 파라한에 쓰인 피와 제물은 더러웠고 불경함이라.
이에,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자신들마저 이 피의 복수에 박수를 보냄과 끓어오르는 증오와 복수심에 잠식됨을 두려워 하노라.
그것은 파라한을 막는 걸림돌과 같음이요,
그릇에 채워진 더러워진 혼으로 아비의 성령을 불러낼 수 없나니,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하기 이들은 공국의 국왕 델페노프에게 이르기를,
아벨의 자손들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더불어 간절히 소망하고,
아벨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거짓되지 않은 섬김으로,
파라한을 이루어 내고자 아벨론 을 지으라 당부하고는 스스로 천상에 오르게 됨이라.
아벨론은 버려진 이데아에 남은 후대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며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보살펴 주기 위함으로 세워지노라.
이로 인하야 공국 안에서 더이상의 무의미한 학살은 줄어들게 되었음이라.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아벨론을 지으려 할때 이는 신탁통치를 기반으로 지어지려 했으니,
이는 신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불경한 존재로부터 아벨의 자손

을 구하기 위함이라 하더라.

그러나 이들의 뜻은 화목이 아닌 지배였노라.

이 때에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중 발시아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가 이르기를,

죄악의 돌로부터 나온 일곱가지의 원죄마저 발시아이기에 지닐 수 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가엾게 여기었으니,

이 죄에 빠진 자들마저 보듬어 바른 길로 인도 하기를 바라는 자로 그 마음은 순수하고도 맑은 빛을 띄고 있도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발시아를 진심을 다해 사랑했노라.

그녀가 바로 스스로 일어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우는 요낙이니라.

델페노프에게 카인의 핏줄이 가진 낙인에 대해 언급한 묘령의 여인이로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개입을 금하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불문율을 깨는 것이었음에,

그녀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미 그녀로부터 등을 돌리었음이라.

마침내 발시아의 원죄마저 입에 올린 요낙에게 다가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그녀에게 이르길,

아벨의 자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행한 모든 행동을 이르러 신성의 모독이라 하더라.

이들은 발시아를 사랑했던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게끔 세뇌를 받은 것인가.

그저 죄를 덮기에만 급급하기에 오직 심판만을 내려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게 하노라.

그러하기에 죄를 덮으려하지 아니하고 발시아가 행한 죄를 사하고자 그 원죄를 들추어 내려하니,

그 행동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음이라.

요낙의 형제 자매가 보여준 행동은 마치 이바와 아다무스가 보인 아집과도 같으니,

그들의 자손에게서 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혹은 창조주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

그 중에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가 이르기를,

그리도 발시아의, 우리 자손들의 죄가 씻겨 나가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곁에 서라.

그들과 함께 그 원죄를 짊어지고도 그들의 추악함을 참고 견디라.

그리고 그 죄마저 사랑하며 이데아의 대지에 쓸쓸히 남으라 엄포를 놓더이다.

그녀는 웃음을 보이매 고개를 끄덕이노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일그러 지나니, 이를 심히 불쾌하게 여기었도다.

개의치 아니하매 그녀는 기꺼이 그녀의 등에 일곱가지의 원죄를 새겨넣

고 이들을 뒤로 하노라.

그녀가 후에 이르길 이것은 형벌이 아니요,

그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녀만의 구원의 길이로다.

죄악을 몸에 담은 요낙은 형제자매를 뒤로하고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지닌 권능을 모두 지워,

스스로 이데아에 떨어져 아벨의 자손들 속에서 살아갈 운명을 지게 되었으니,

신탁의 통치는 아벨의 자손에게 남지 않음이라.

그 의미는 저들 스스로 의지를 갖고 살게 됨이라.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이데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역사는 여기서 그 끝을 맺노라.

『 아벨론, 이데아에 서다. 』

구원과 희망이 필요한 암흑의 시대에 아벨론의 존재는 그 욕구를 충족시킨 유일무이한 곳이라.

비록 피의 복수가 불러운 참상은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나,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물러나고 세워진 이 아벨론의 존재로 인하야 어느정도 그들 안에 담긴 분노가 사그러 듦이라.

무분별한 색출과 처형의 빈도가 줄게 되노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발시아가 전쟁의 화마로 인하야 자리할 곳을 필요로 하니,

아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규모를 넓히어 나가는도다.

이에 공국 전체를 아우르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기관을 창설하고 이들을 아벨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보호해 주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노라.
공국에도 공국의 방위대가 있으나 이들은 성밖의 어둠을 떠도는 존재들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으나,
아벨론의 이들은 아벨의 권능을 갈고 닦은 자.
그 성령의 힘으로 이데아의 온갖 불경한 자들을 그들의 터전으로부터 몰아내었고,
퀼로른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을 감싸 안은 모습의 아벨의 장벽 을 세우게 하나니,
그 웅장한 장벽은 이들을 지키는 방패로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아벨의 장벽 안의 이들은 자연스레 공국의 수비군 보다 아벨론에 의지하게 됨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아벨론이 세워지기도 이전부터 공국의 국왕 델페노프가 유구한 문명을 꽃피우기 위하야 그 초석을 다지는데 피땀을 흘렸음이라.
공국 내에 특정분야에 뛰어난 이들이 모이어 집단을 이루었음에 그것을 길드 라 부름이라.
길드의 빼어난 자들은 문화, 예술, 건축 등 각 분야에 나서 그들의 역량을 뽐내니,
아벨의 자손이 길이 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야 서로 보듬으며 지내왔노라.
아벨의 자손들의 거룩함을 이루어 내는데 일조한 그는 퀼로른에 자부심

과 긍지를 갖노라.

그러한 연유로 장벽의 아벨의 자손들의 민심이 아벨론으로 흘러감을 막을 수 없더이다.

그가 홀로 한탄하기를,

나의 헌신은 어디로 갔는가? 하며 아벨론의 존재를 달갑지 않게 여김이라.

그러나 델페노프는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보다 아벨론을 공국의 휘하 기관으로 두어,

이들을 자신의 휘하의 기관으로 두어 수족처럼 부리기를 원하나니,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음이라.

아벨론의 이들을 그 어떠한 절차도 아니없이 발탁하여 공국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공국이 과세하는 세금과는 별개로 아벨론의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원케 하나 이마저도 감면하기까지 하더라.

나아가서는 아벨론마저 별도로 장벽안의 아벨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마저 묵인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니,

공국과 교황청은 암묵적으로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 서로 살찌우매 장벽안의 백성들만 불안과 허기에 빠지어 그저 암울한 시대만을 탓하노라.

그렇게 국왕은 공국의 수비군 과 더불어 교황청의 신성군대 를 가지게 됨과 더불어,

달콤한 술과 기름진 음식을 쌓아두게 됨이라.

그러나, 너무 오랜동안 누린 평화는 델페노프의 숨통을 죄어 오게 되나니,

잠깐의 달콤한 평화는 그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였음이라.

달콤한 휴식과 평화 그리고 안정은 모든 아벨의 자손들에게 쉼표가 되었으나,

전장을 누비지 아니한 델페노프는 공국의 국왕 이전에 전사였으며 호전적이고 용맹한 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라.

이를 풀기 위하야 처음은 호색을 밝히더니 나아가 그의 사리사욕은 그칠 줄을 몰랐음이라.

나중에는 그의 시중을 드는 여인들에게 재물을 하사하기 위하야 장벽안의 이들을 착취함이니,

나아가서는 집마다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측정하기에 이르는도다.

다만, 그의 반감을 샀다가 장벽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누구도 안위를 보장 할 수 없었기에,

그저 말없이 따를 뿐이로다.

이후로 델페노프가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었나이다.

다만, 그에게 오직 남은 것은 교만과 향락뿐인 삶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과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게 되는 나날을 보냈음이라.

그렇게 자신이 앞으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 공국의 몰락 』

국왕 델페노프에게는 아름다운 왕비와 그녀를 꼭 빼어난 듯 닮은 딸이 하나 있으나,

국왕은 대를 이을 아들을 갖지 못하여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음을 한탄하노라.

그러나, 공주는 현명하고 인자하야 충분히 여왕의 덕목을 보이기 시작했음이라.

그녀는 스스럼 없이 공국의 길거리를 자유로이 다니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그녀를 찬양하는도다.

그러나, 그것은 국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니 그녀의 딸마저 시기하고 또 질투하게 됨이라.

다만, 그에게 일말의 발시아가 가진 모습마저 버리지 아니함이니,

그의 딸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폄하하고 헐뜯는 자,

공국에 불만이 있는 자들을 색출해 내어 그들의 혀와 귀를 잘라 바구니에 담아 광장에 내걸게 하여 모든이가 이것을 보게 하였노라.

적어도 목숨을 취하지 않으니 델페노프 스스로 나름의 자비를 베풀었다며 자위하더라.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만의 생각이었으니,

장벽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그렇게 여기는 자가 없었으며 이는 왕비도

다르지 않더라.

이에 왕비는 국왕을 알현하야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쌓은 업만큼의 덕을 쌓으라 하니 간언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그러자 델페노프는 많은 이들의 앞에서 자신을 깎아 내리었단 이유로 인하야,

자신을 능멸하는 듯한 그녀의 눈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두 눈을 뽑아 옥에 가두노라.

여왕은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 병으로 앓다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국왕은 이 소식을 비밀에 부치기로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소식은 멀지않아 곧 공주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음에,

그녀는 자신의 어미를 죽도록 방관한 아버지, 델페노프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게 되는도다.

공국에 신망이 두터운 공주는 낙담에 빠지게 외부로의 출입도 적어지게 되었으니,

이 혼란을 틈타 퀼로른의 간신들의 무리가 길디 긴 혓바닥으로 국왕과 그녀를 갈라놓으매,

공주를 꾀어내어 그들의 앞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도다.

그러하여도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였기에 그녀는 이를 거절하나이다.

이에, 분노한 간신의 무리는 그녀늬 서신의 인장을 훔치어 거짓된 내용을 기술하고는 국왕의 앞에 바치게 되니,

델페노프는 마침내 이성을 잃게 되노라.

국왕은 스스로 거리를 다니며 거리에 생명을 불어넣었음에도 그저 거리에서 몸과 웃음을 판 값싼 여인 취급을 하였음이라.
이에 목에 줄을 매달에 옷을 벗기고는 그리도 좋아하는 길바닥에 살라며 광장에 내다버리니,
치욕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버렸으니 그 모습에 국왕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는도다.
델페노프가 초췌한 그녀를 한심한 듯 내려보며 그녀에게 이르기를,
속죄하라는 한 마디 뿐이로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아니한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라.
국왕은 영원의 전쟁에서 아벨의 자손들을 이끈 위대한 성검을 자신의 딸을 향해 휘둘렀노라.
그녀의 시체는 장벽 밖으로 버려져 하늘과 산의 짐승들이 뜯어먹게 두라 하였음이라.
자신의 옥좌를 위하야 아벨의 자손들의 희망과 같았던 그녀의 죽음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델페노프는 그 어떠한 자들도 신뢰하지 않더이다.
심지어는 공국 건신의 주요 군주들마저 이유 없이 잠정적인 반란분자라는 낙인을 찍더니,
후에는 그들마저 척살을 명하였으며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즐기는

등의 만행이 계속되노니,

공국이 그에게 등을 돌리었고, 그의 주위에는 옥좌를 넘보는 자들하며 그저 아첨하는 자들 밖에 남지 않더라.

이제 그는 망상에 빠지어 개인 처소의 문조차 나가기를 두려워하매 아벨의 자손을 돌보지 아니하니,

공국에 망국의 징조가 퍼져나가는도다.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었고, 거리에는 온갖 죄가 만연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도다.

그러함에도 창조주도, 이바와 아다무스도, 아벨의 자손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벨론의 원조에 힘입어 공국의 혼란을 식히는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피는 가운데,

이들은 미쳐가는 국왕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도맡아 수행하려 힘씀이라.

그러나 저들 사이에서도 아벨의 자손의 안위를 위하야 일어난 온건한 자들이 있으매, 물론 이에 반하는 자들이 나옴은 당연하도다.

온건한 편에 선 자들과 급진적인 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색이 짙으매 그 입장을 좁히지 못하니,

저들 사이에 분열은 불가피함이요,

아벨의 자손과 더불어 아벨에 등을돌려 그 뜻을 저버린 자들이 만들어지는도다.

이들이 떠난 뒤에 독방에 이름뿐인 칩거한 왕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매,

국왕의 부와 명예를 탐한 공국의 내부 가신들의 배신으로 인하야 그 생을 마감하노라.

그때 그의 나이 백 사십 하고도 둘이라.

한 때 아벨의 위대한 자손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공국 퀼로른을 세워 카인의 핏줄들을 몰아냄으로 찬란한 문명을 일구어낸 역군이나,

사리사욕과 꿈과도 같이 달콤한 평화속에 안일한 다스림과 인색과 오만에 빠지어,

공국 퀼로른의 사자 델페노프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안은채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남이라.

국왕의 죽음으로 이들은 국왕의 횡포에서 벗어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또 다시 자신들을 이끌어 줄 자를 찾으니,

이에 아벨론이 나서 국왕 시해에 가담한 공국의 내부자를 심판하고 혼란을 잠재우니,

아벨의 자손들에게 안녕과 평화의 상징임을 보이매 아벨론의 정권수립을 선언하노라.

아벨론의 사제들이 가로되,

기도하라. 모든 것은 아벨의 가호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로다 하였음이라.

이에 모든 이들이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매,
그 모든 뜻은 옛 국왕을 기리는 것이 아니요,
불경한 자들의 만연한 시대에 아벨의 가호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게 하오니,
모든 이들이 아벨의 권능이 만연한 아벨론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을 따르노라.
『 세트의 움직임 』
영원과도 같던 전쟁은 흐지부지 막을 내리고 난 뒤에야 피와 살을 흩뿌리던 전쟁은 종식됨이라.
그리고 그 뒤에 지식과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던 세트가 동태를 살피니,
그는 서로를 향한 총칼의 끝보다 더 날카롭고도 강한 힘을 지닌 것이 있음에 고민하나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을 벗어난 세트가 멀리서 어찌 이리도 아벨과 카인이 이들의 시험에 목을 매달았는지 다시금 되뇌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얻나니, 그것은 바로 이데아를 주무를 수 있는 권리요.
그것이 나아가서는 신과도 같은 위치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을 미치게 만듦이라.
신이 되는 것은 강인한 힘이 아니요,
후예들로 하여금 쓰여질 역사로부터 나옮이라.

때문에 영원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의 움직임은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시작이로다,
세트는 인정받아야 할 존재는 창조주도 아니요, 그리고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도 아니었으니,
그 존재는 바로 그의 후예들이 입을모아 기술할 역사속이라 여기었도다.
모두가 그저 초월적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야 고개를 드높이어 하늘을 우러러 볼때,
세트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 그의 후예,
바로 어머니 대지 이데아를 굽어살피어 바라본 것이었도다.
세트는 그의 후예들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의 자식이 아니라 창조주 그 자체임을 널리 알기를 원하였도다.
이데아에 남겨진 그 어떠한 기록으로도 역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금약은 없었으니,
그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속에서 역사에 손을 대고자 하려는 결론에 닿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로다.
그 시작은 그의 후예들에게 일러 그의 신전을 세우게 함이라.
이는 이데아에 설 신으로 군림하기 위해 역사의 발판을 아로새기며 그를 기릴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영원의 전쟁속에서 그들의 후예 사이에서 함께 울부짖으며 이들을 고양

시킨 것도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존재로 거듭나기 위함이요.
전쟁의 막바지에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이 물러남에 따라 세트도 그의 늑대를 물리노라.
그것은 자비도 아니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대지의 역사를 바꾸기 위함이요.
세트가 전쟁에 발을 딛게 된 이유를 이데아의 균형을 수호의 명목아래 그들의 발톱과 송곳니를 세움을 역사로 기록하기 위함이로다.
영원의 전쟁보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보다, 더욱이 해야만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함이로다.
그 시작으로 이 시험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죽이고자 함이니,
그 목록에 새겨진 이름은 이바와 아다무스, 그리고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이라.
신을 시험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신과 같은 자리에 오르려는 자 혹은 신은 경멸한 그의 어미와 아비마저 죽어야 마땅함이라.
그리고 감히 그와 어깨를 견주려 시험에 참가한 카인마저 찾아 죽이려 함이라.
세트가 그의 형제는 물론 그의 어미와 아비마저 죽이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노라.
그에게 주어진 시험에서 후대를 점지하지 못했던 까닭에 아비와 어미라는 자에게 미움을 받으매,

아벨과 카인이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어여쁨을 받고 있던 것은 자명한 일이로다.

이바와 아다무스는 아벨이 카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였노라.

세트에게 관심조차 주지 아니하였던 이들이 아벨이 죽은 뒤에 그를 향하여 이르기를,

나의 아이 세트여, 아벨은 죽었으나 그가 일군 땅과 그 이름은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세트라는 이름대신 아벨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데아를 살으라 하더라.

그것은 생명을 창조한 이들이 스스로 전능하다 여기었기에,

전능한 자인 저희들 사이에서 나온 미숙아를 달가워 하지 않았을 따름이라.

누구를 대신하여 사는 삶을 원하는 자 누구인가, 이를 세트마저 반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함이라.

다른 형제들과 시작점은 달랐으나 그도 엄연한 그들의 자식이었으니,

새끼를 저버린 어미와 아비에 환멸을 느끼노라.

이 때에 이미 이바와 아다무스의 힘이 죄악의 돌의 기운으로 이전만큼 전능하지 못한 탓에,

이들은 지금의 세트의 힘에 미치지 못하노라.

그러나, 당장 이들의 목을 찢어놓지 않았으니,

그것은 세트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자비였노라.

나를 만들었으나 나를 보듬지 아니한 어미와 아비의 목숨조차도 살리는 자비를 보이노라.

이 역시 역사를 통하여 그의 자비를 아로새겨 넣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의 후예들과 이데아의 역사가 감복하여 나를 찬미하니 그것이 바로 세트가 그리도 원하는 세계일 것이라.

『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

다만, 이바와 아다무스가 이 때에 자신들의 오만과 이들이 무심코 던진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데아에 영원의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나니,

그 참상이 이들을 짓누르더이다.

창조주가 내리어주신 찬란한 보석 이데아와 그녀가 바라기 마지않던 영원히 빛을 띄고 있는 테르벨이 색이 바래져감에 슬픔을 느끼더라.

이것이 이데아의 역사가 최초로 기록하는 죄책감 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그들의 과오는 오직 하나였으니 그것은 바로,

오만이로다.

또한, 그 오만의 피가 그의 아이들도 그대로 물려받아 그리 행하고 또 행할 것임을 알기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죄악의 돌로 쇠해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세트의 이름을 부르노니,

이로 인하야 세트의 의자와 상관없이 그에게 생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사정없이 짓누르게 되는도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오만과 온갖 죄를 퍼뜨린 만행을 곱씹으며 되돌아 보았으니,

이데아를 벗어나 그 주위에서 카할라을 걸으며 그 과오를 씻고자 하더라.

그리고 그것 또한 이데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속죄와 회개였노라.

다만, 이 땅 이데아의 역사가 최초로 기록하는 죄책감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 무거웠으니,

이것은 세트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저주가 되어 쏟아져 내리게 되었음이라.

이로 인하야 대부분의 세트의 후예들이 병들고 미쳐버렸음에 숨이 하나둘 꺼지는도다.

세트가 남은 후예들에게 이르기를 신을 해하며 질투하고 해하려는 자들은 나를 저주하며 끝내 이데아에서 물러남이라.

그러나, 나의 신전은 너희의 보금자리가 되어 너희를 억누르는 저주를 막는 지붕이 됨이라.

남은 것은 이제 그 저주가 나의 심장을 죄고 있으매 그것을 스스로 정화하는 시간동안 나 잠들리라.

그러니 나의 아이들아 신의 아이들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라 그리고 약속의 때에 나의 재림을 고대하라는 말을 남기니,

세트는 신전 깊은 곳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기약할 수 없는 긴 영면에 빠지었노라.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죄책감이 짓누르며 만들어낸 고통은 이데아를 병들게 하고,

감히 형언할 수 없을만큼의 끔찍한 외견을 한 불경한 존재들로 인하야, 이 땅은 더럽혀 지노라.

태초의 낙원이자 테르벨 중 으뜸인 찬란한 보석 이데아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와,

그들의 실수로 온누리에 퍼뜨린 일곱가지의 원죄만이 이데아에 내려앉게 되는도다.

더불어 그들이 낳은 자식들마저 피를 원하나니,

첫째로 불경한 자들이 만연한 이 땅에 빛의 권능과 신의 은총으로 불태워 구원과 희망을 남기기를 원하는 아벨의 자손들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신을 죽이고 죄악의 돌을 돌려내어 스스로의 낙원을 찾고자 하는 카인의 핏줄들과,

마지막으로 스스로 신이 자리에 군림하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세트와 그를 따르는 세트의 후예로 나뉘어,

이데아를 찢고 부수고 그들의 피와 살을 대지에 뿌리며 서로의 신념이 충돌하는 시대를 만드노라.

이는 창조주가 원하던 것도 아니요, 이데아의 빛이 바래진 것마저 이바와 아다무스의 의도가 아니었으니,

이데아에 영원을 기약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도 아니매 그것은 오직 전쟁일 뿐이로다.
고통과 분쟁, 배신을 동반한 암투와 추악함이 이데아를 덮을 따름이요, 피와 살이 튀는 전장은 영원히 반복되리라.
어느 누가 선이고 악인이 모름이 자명하도다.
그 경계또한 모호하니 그것은 창조주도, 혹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정해줌이 아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정해야만 하고 또 관철해야 할 따름이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서 시작한 이 혈투는 오직 생존만을 위하야 서로 죽고 죽임이라.
그리고 그 처절하게 흘린 핏 속에서 일어나 이 땅에 서게 될 지어다.
때로는 그 모습이 역할 정도로 시나브로 어느새 눈 앞에 다가올 것이니, 고개를 떨구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
이로부터 등을 돌린 자는 오직 허영만이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메는도다.
역사의 굴레는 시대가 변하야 그 형태만을 달리 할 뿐 그 본질을 계속되나니, 부디 바라옵건대 이 기록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아.
그대 역시 죽고 죽이며 먹고 먹히는 세상 속을 살고 있음이라. 테르베르낙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격동의 시대와 함께 살며,
이 땅에 아로새겨진 역사속에서 무엇인가를 보며 느끼고 살아가기를 그

저 바라노라.

그러하니 그대가 선 땅의 모두에게 이를 전하여 그것을 몇번이고 소리 내어 읽고 기록하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말라.

교 황 실 록

제 1장 - 선택 받은 자

“아벨이여, 당신의 충실한 종이 여기 있나니,
부디 만인의 기도를 들으사 저희를 구원하소서.”

- 키리에타 에산 -

『 첫번째 아벨론의 가지 』

공국 퀼로른의 사자 델페노프가 승하하고 아벨의 자손들은 희망을 잃는 듯 하더이다.

그러나,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하늘에 오르기 전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르길,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아벨의 자손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에 따라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는 만큼이나 이들의 사념 또한 커져나감을 알라.

더욱이 피의 복수를 시작으로 대를 이어나갈수록 아벨의 권능이 바래질 따름이니,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그와 더불어 아벨의 모든 자손들이 더럽혀짐을 우려하였도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드리워진 칠흙의 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요,

우선으로 행하라 아벨의 자식이여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로다.

이에, 아벨의 권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손들에게 아벨론을 지으라 하시고 이들에게 명하니,
그곳에 모여 구원과 소망이 가득함으로 채우는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에 아벨론은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음이니,
아벨의 권능을 머금은 찬란한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도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세우라 했던 아벨론은 세 갈래로 나눠어 지는데,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로 아벨의 자손들 모두가 이들을 우러러보는 구원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발시아가 행한 죄와 그 짐을 덜어내는 신의 권능을 지닌 자들의 무리인 교황청 이 그 첫째라.
아벨론의 실질적인 존재로써 국가의 운영과 행정, 그리고 죄와 벌을 다스리며,
원로와 대신들, 그리고 교황의 허가로 징집과 소집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잉퀴라 가 그 둘째요.
아벨론와 아벨의 자손들을 장벽 밖의 불경한 존재들로부터 수호하며,
기꺼이 이들의 방패가 되고자 아벨의 방패라고 불리우는 아르벨마 가 아벨론의 마지막 갈래로다.
공국이 몰락한 뒤에, 이 셋은 각각 종교와 행정 군사 분야를 분담하여 삼두정치의 형태를 띄게 되었음이라.

서로 협력하야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니,
어느 한 기관이 독재로 이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하야 서로 균형을 지키며,
아벨의 자손들의 수호와 구원, 번영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들 곁에 서노라.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도 이미 총칼만 없을 뿐 이미 그들만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음이라.
그것은 필시 패권을 가르기 위한 싸움이도다.
이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이들이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면서도 그들의 평판을 올리기 위함에,
수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나아가 그들이 행한 업과 덕에 대한 간증을 바라기까지 하노라.
다만, 암흑의 시대에 기댈 곳 하나없는 장벽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그러함에도 이들을 찬양하나니,
아벨의 장벽 안의 이들은 아벨론에게 물음을 던지지 않으매 그저 교황청은 굳건함을 믿고 기도함을 쉬지 않더라.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니 걱정하는 자들은 감히 의심하지 아니하더이다.
이유인 즉슨 교황청에 봉사하는 사제들을 이르러 선택받은 자라 불리우기 때문이라.
세대를 거치어 가며 아벨의 자손들 피에 흐르고 있는 그의 권능은 그

색이 바래어짐이라.
그러함에도 그 빛이 꺼져가지 아니한 자들이 여기 있으니,
보라. 이들이 바로 신의 전령이라.
아벨의 축복받은 권능으로 간택을 받았다 여기는 대부분의 이들은 교황청의 부름을 받노라.
그리고 신의 보금자리 안에서 그를 더욱 가까이 섬기로 따르매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도다.
이들 사이에서도 아벨의 피가 가장 짙게 흐르는 자가 있나니,
그가 바로 아벨론 소속 교황청의 초대 교황이자 그 이름도 위대한 키리에타 라 부르는 자로다.
그는 영원의 전쟁에서 기꺼이 국왕 델페노프의 뜻과 함께하였음이라.
그 신성한 힘으로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와 더불어 서로의 등을 맞대며 전장에 서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받은 불경한 자들을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몰아냈도다.
그러나 공국의 몰락함과 동시에 그와 동조하던 교황청의 더러운 적폐를 물러나게 하였으니,
모든 아벨의 자손들이 퀼로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반감으로 혼돈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들을 빛의 품으로 인도하야 거두었음이라.
이러한 연유로 공국 퀼로른의 빛은 땅에 떨어져 자연스레 아벨론의 명망은 두터워 지매,

교황 키리에타는 아벨의 자손을 이끄노라.

두번째로 마비오나 가 그 뒤를 잇고,

세번째로 세르파 가 그 뒤를 잇고,

네번째로 크라테 가 그 뒤를 잇고,

다섯번째로 레비에 가 그 뒤를 잇고,

여섯번째로 피오라 이 그 뒤를 잇고,

일곱번째로 잉기스 가 그 뒤를 잇고,

여덟번째로 파나크 가 그 뒤를 잇고,

아홉번째로 세라하 가 그 뒤를 이어오매,

아벨의 자손들은 그 세대를 거치어 가며 아홉의 교황을 섬기었나니,

이들은 성령의 간택을 받아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내리온 어둠의 땅에서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어 왔노라.

그 이름은 영원의 전쟁과 그 이후의 사투에서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를 몰아내는 신성한 언령이요 간증이 될 따름이니,

그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악으로부터 구하게 되는 신의 말이 담긴 칼이자 방패와도 같음이라.

비록 이 아홉의 교황은 신이라 불리우는 자들은 아니었으나,

충만한 아벨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신의 피를 물리어 받은 반신의 위치에 닿은 자들이노니,

어느 누구도 이들의 권능을 의심치 아니하여 무릎꿇고 아벨의 목동이 되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아홉의 교황들도 그들의 허리를 굽히어 이들을 살피고 또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나, 아홉의 마지막 교황 세라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불씨와 같으니,
교황청의 사제들이 나서 후대 교황을 책봉하기 위하야 적합한 이를 찾기 위하야 힘쓰노라.
그 이후를 격동의 시대라 부르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함은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을 위함은 명목에 불과함이라.
그러하매 신성한 교황청 안에서도 그 의견이 엇갈리어 서로에게 칼과도 같은 말을 뱉는도다.
이 사정을 교황청 밖으로 발설하여 많은 아벨의 자손들의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나니,
교황청의 내부에서는 고요하고도 거센 폭풍이 항상 요동치고 있었음이라.
『 교황청의 겉과 속 』
교황청의 웅장한 모습은 아무리 멀리에 있음에도 그 위대한 존재를 차마 감출 수 없노라.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이 그토록 바라는 구원의 상징 그 자체와도 같음이라.
그 솟음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도다.

벽을 수놓은 화려한 문양과 그리고 굳건한 기둥과 수많은 조각들은 아벨의 자손의 영원과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으매,

그 아드라과 자태는 감히 발시아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닌 그의 권능 그 자체가 담겨져 있노라.

밖의 모습이 그러하였듯 안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으니 그 모습은 장관을 이루는도다.

교황청의 내부는 천상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듯한 장엄한 기운을 한껏 뿜어내는도다.

회랑은 넓게 뻗어지나 그 끝은 보이지 아니하니,

그 끝자락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리어 있음이라.

구석에 자리한 그 어둠은 빛과 아벨의 권능이 충만한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을 따름이라.

기묘한 위화감이 그곳에 잠들어 있는도다.

그 모습을 줄곧 지켜본 자라면 무릇 머리칼과 등골이 서게 되리니,

이곳을 처음접한 이라면 당연히도 이곳이 정녕 구원을 간청하는 교황청의 모습인가 물음을 던질 것이라.

그러나, 의심은 잠시 뿐이요.

회랑의 끝에 닿을 즈음 이내 찬란한 빛이 태양을 머금은 하얀 창살을 비집고 내려오니,

따사로운 온기가 차갑고도 어두운 회랑의 바닥을 적시노라.

대강당은 기도를 올리거나 이를 끝마친 자들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따름이니,
그 누구도 이 고요함을 깨려 하는 자 없더라,
이로 인하야 이곳의 웅대함에 억눌려진 공기는 다른 어느 곳보다 무거웁도다.
절망이 짙게 드리운 시대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자들보다 어두운 표정으로 걱정과 근심이 뒤덮여 기도를 올리는 자들로 가득하더라.
구원을 바라기 마지없는 이들의 얼굴에는 도저히 평온한 얼굴을 한 자를 찾을 수 없노라.
대강당 한켠에 자리한 아벨의 조각상에 담긴 그의 표정은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을 하고 있나니,
그곳에 자리하여 구원을 위하야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이라.
허공을 향하는 그 손은 분명 믿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니라.
대성당의 기도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그 자태야말로 부디 이 땅 이데아에 강림하야 우리의 앞에 나타나시어,
당신의 종이 그토록 바라기 그지 없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더러움이 가득한 이 땅 이데아에 뿌리어 주심이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그것이 아벨의 간택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갈 방도였음이라.
스스로 이 땅을 헤어날 수 없기에 그저 바라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교황청은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도 마다않고 기도하는 자로 가득하리라.
그 경건한 자리에서 오랜 고요한 침묵을 깬 것은 어두운 회랑의 끝에서 걸어 나오는 사제였도다.
그리고 조용히 그 뒤를 따르는 자가 있으니,
그 앳된 모습은 필시 견습의 사제가 분명하노라.
얼굴에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야 주위를 불안한듯 둘러보매 영락없는 풋내기의 모습이라.
그 견습 사제가 바로 한분의 아벨의 권능으로 그의 간택을 받은 자요.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할 열번째의 교황의 자리로 오를 그릇 중 하나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견습의 사제로부터 다른 이들과 그 그릇의 크기를 가늠할지니,
교황청에, 아벨론에, 아벨의 자손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또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
세례를 받은 후로 요람에 머물기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심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
그들의 모습에 주위의 기도하는 자들은 곁눈으로 그 자리에 오를 이들을 바라보매,
저 어린 아이로부터 구원을 갈구하며,

저 어린 아이가 시험에 들게함을 강요하는 이 저주받은 시대만을 탓하노라.
어두운 회랑으로부터 견습 사제를 이끌던 사제가 이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를,
걱정하지 말라 형제여,
빛이 그대를 거두시고 아버지께서 아벨의 빛까지 그대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전할진대,
그녀가 뱉은 말은 한없이 차갑기 그지 없더라.
시선조차 그에게 건네지 아니한채 묵묵히 그녀는 그녀의 일임을 다할 뿐이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서슬어린 저 말은 견습사제를 안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음이라.
이에 그 견습사제가 답하길,
자매님 본인은 걱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돌아온 대답은 없으니 그의 목소리만 되돌아 올 뿐이라.
이에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는 또 다시 이들 사이에 침묵만이 흐르게 되는도다.
그리고는, 이내 이 둘은 회랑의 끝에 깔려진 깊은 어둠속으로 다시금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감이라.
그 모습은 다시금 위화감에 쌓이니 그것은 이들이 마치 스스로 어둠 속에 먹히니,

그곳에 뛰어 들어간 불경한 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보였음이라.

이 모습에 기도하던 자들의 음성이 높아져 길고도 긴 침묵을 깨고 고개를 드나니,

모두가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들을 본체 아니하더이다.

키리에타, 마비오나, 세르파, 크라텔, 레비에, 피오라, 잉기스, 파나크, 세라하.

오직 성스러운 언령으로나마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릴 뿐이었음이라.

『 아벨의 권능을 담을 그릇 』

이윽고 이 둘은 대강당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예배당에 다다르게 되는도다.

그리고 이들이 대강당의 문을 열고 걸음을 옮김과 동시에 어둠 사이를 비집고 빛을 맞으며 이들을 맞이한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제가 부르던 신부라 부르는 자이자 교황의 아래에서 여럿의 시종을 거느는 자요,

이 땅의 모든 아벨의 자손들에게 아벨의 권능을 전파하는 이들 중 하나라.

견습의 사제가 그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니,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그 고개를 들게 되노라는 외침과도 같았으니,

보라, 이것이 교황청에 봉사하는 자의 모습이라.

아벨의 충실한 종이자 어린 양아, 그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걸어 나서라는 듯하더이다.
그 모습은 이들을 기꺼이 아벨의 권능이 충만한 교황청을 위하야 기꺼이 봉사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음이라.
저들에게 있어 그것은 신의 사자와도 다를바 없는 모습과도 같음이라.
신부의 앞에 선 이들은 그의 존재감에 사제가 먼저 고개를 조아리고 난 뒤에 견습사제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 고개를 숙이니,
그를 이끌던 여사제가 다시 일어나 예를 갖춘 뒤 신부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전하노니,
신부는 손을 들어올려 그녀를 물러나게 하고는 시선을 견습사제에게 옮기는도다.
그리고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니,
고개를 들고 이리로 오라 하더라.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의식을 준비하더라.
그것은 간택 받은 자들 사이에서 신의 은총이 담기어진 그 물방울로 몸을 씻어냄으로,
죄를 사하는 그 과정을 거치며 그 자가 시험을 치루어 나갈 자인지를 가늠하는 의식이라.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첫번째 단계이니,
신성한 물을 뒤집어쓰며 그들의 쓰임을 평가받는 엄중한 그 의식을 이르러 데비라 라고 부르니,

그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부터 시작되는 빛의 의식이로다.
신부가 견습의 사제에게 이르기를
아벨의 어린 양이여,
구원을 믿으며 설파함을 게을리 말라.
아벨의 진리 위에 그의 자손을 지키고 살며,
빛을 섬김에 있음에 의심을 거두며,
그의 사자가 되어 태초의 낙원의 희망의 율법을 전파하라 이르니,
견습의 사제는 성배의 앞으로 다가가 성스러운 언령을 입에 올리는도다.
방 안에는 빛과 은총으로 가득차게 되나니,
아벨의 권능은 빛이 되어 어두웁고 밀폐된 그 방을 찬란히 밝히었도다.
머리에, 그리고 어깨에, 그리고 단상에 부딪히어,
따사롭게 쪼개진 축복은 성배에 고요하게 담겨진 물에도 아스라이 흩어지노니,
그 물은 성수가 되었고 찰랑거림이 일렁이며 울린 그것은 천상의 음성과도 같음이라.
저 모습은 화려하나 이 둘이 절제되어 있음에 어느 누구라도 넋을 잃고 말리라.
그 경건하고도 신성한 모습에 이 땅에 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필시 이들의 손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믿은은 더욱이 굳건해 질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교황청이 가진 힘이라.

그리고 그것이 아벨의 자손을 품을 만한 거대한 힘을 가진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교황청에 봉사하는 자라면 무릇 교황의 자리에 오르고자 함이 분명함이라.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바라는 길 잃은 양들이 교황청에 당도하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이들 사이에 오묘한 고요함이 일어나는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까 신부는 견습의 사제의 이마에 손을 가볍게 얹고는,

엄숙한 음성으로 신성한 언령을 읊조리고 난 뒤,

아벨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그 끝을 고하노라.

줄곧 굳은 표정으로 일관한 신부는 몸을 일으켜 견습사제를 바라보니,

그제서야 의식을 훌륭히 치루어낸 이 어린 양에 감복한 듯 만족하야 웃음을 보이는도다.

그 웃음은 필시 신의 권능이 충만하야 교황청에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자에게 허락된 웃음이나니,

그 웃음에 담긴 만족감은 크도다.

그 웃음과 더불어 신부는 그 어린 양의 앞길에 희망과 빛과 아벨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축복의 말을 건네었으니,

견습의 사제는 그제서야 긴장의 끈을 풀더니 감사의 말을 전하며 물러가노라.

『 헌신과 희생 사이 』

견습사제가 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물러나고 그는 어둠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나니,

그 어린 것이 모습을 감출 때까지 아버지라 하는 자는 저 어린 사제를 향한 시선을 한참동안 거두지 않더이다.

그리고는 신부의 곁으로 어두운 그늘 사이에서 저 어린양을 이끌던 사제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신부에게 의식은 어떠하였는지 물음이라.

이에 신부가 가로되 머지않아 저 어린 양은 꽤나 유용하게 쓰일 따름이라 하더이다.

더불어 그는 구원의 빛이며, 아벨론의 사자이며, 성배의 그릇이 될 것이라 하더라.

아벨의 자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야 그 어떠한 희생도 불사할 역군이 될 것이라 하더라.

강인한 신부의 음성 뒤에 가리어진 짙은 그늘은 아벨론의 어둠을 가릴 수가 없더라.

그것은 구원을 위한 희생을 강요함이라.

다만, 그 말에 악의는 없으니 그것이 교황청에 봉사하는 자로써 살아가야 할 숙명로다.

어찌도 이리도 아무렇지 않게 이 어린 아이에게 만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가 물음을 던지지 말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야 이 어린 양의 생명을 대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 곳에 기도하는 자는 많은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야 저들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요,
영원의 전쟁 속에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으려 하는 자요,
이 곳에서 저토록 열렬히 기도하는 자는 그저 이 절망이 내려앉은 땅 위에 구원과 안식을 위하야,
어둠에 가리어진 아벨의 권능과 은총을 몸에 담지 아니함에도 기도로써 그 길을 찾으려 하는 자요,
이 곳에 기도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전능하신 아벨의 이름과 교황청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다.
그 거룩함으로 저주받은 이 땅 이데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로새길 자들이로다.
그 노력은 모두 교황청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의 피와 살과 땀이라.
그러니, 아벨론의 첫번째 가지 교황청과 그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을 모독하지 말라.
저들은 그저 또 바라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매,
아벨의 뜻과 그의 부름에 따라 빛에 헌신하는 가운데 그 충만한 믿음은

구원이 되어 아벨의 자손을 비추게 될지니,

아벨의 권능과 축복안에서 거듭된 시험에도 결코 헤메지 아니하니,

다만 악에서 구할 기도를 다시금 올리니 이로써 이 땅의 악에 맞설것을 맹세하며,

기꺼이 아벨의 깃발을 휘날리며 성스러운 빛을 어둠이 만연한 이 땅에 뿌릴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벨의 이름으로.

잉 퀴 라 피 움

제 1항 - 심판의 망치

“오늘날 아벨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확신을 주는 질서와 법도라.”

- 펠로른 그라도 -

『 두번째 아벨론의 가지 』

대법원, 잉퀴라.

그것은 아벨론 이후의 아벨의 자손들이 발시아가 지녀야 할 도리를 다 하기 위함을 돕는 기관이라.

아벨의 자손과 발시아가 지녀야 할 도리라 함은 그저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이정표와 지침이 될만한 것들을 이들에게 전함이로다.

혼란의 시대에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벨의 자손이 이 땅에 발을 딛을 수 없으매,

불의에는 정의로 대함으로써 시비를 가르고자 모인 자들이 바로 이들이

라.

그들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이 물러난 뒤에 교황청을 따르던 자들이었으나,

오직 기도와 아벨의 권능만으로는 장벽 밖의 불경한 자들을 막을 수 없었노라.

오직 아벨의 말씀으로 아벨론과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의 위협을 막을 수 없었노라.

더불어 영원의 전쟁과 공국의 몰락으로 아벨의 자손이 이데아의 전역으로 흩어져 갈라지게 되니,

불경한 자들뿐 아니라 다른 아벨의 자손들조차 위협을 야기함에 잉퀴라를 세우게 되나니.

교황청이 있음에 당당히 아벨론의 중심에 깃발을 내건 용감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펠로른 이라.

영원의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도 험난한 세대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던 자로다.

방황하는 아벨의 자손에게 영혼의 안식이 아닌 질서를 가져온 자요,

잉퀴라의 아버지요, 그 초석을 갈고 닦은 자로다.

더불어 펠로른은 교황청의 두번째 교황이었던 마비오나의 친우였음이라.

기이한 것은 그들의 출신배경이 너무나도 상반된 길을 걸어왔으나,

다만, 이 들은 서로 피가 한방울 섞이지 않음에도 어느 누구보다 깊게

알고 있더이다.

그 후로 이들은 그들의 이념을 교류하여 더 나은 아벨론을 이룩하기 위하야 힘쓰나,

그것은 교황청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듦이라.

초대의 교황 키리에타와 수많은 교황청 사제의 반대가 극심하여 잉퀴라의 존재를 낮추어 부르니,

이들을 마찰과 갈등을 빚게 되는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비오나와 펠로른의 유대를 끊을 수 없음이라.

게다가 교황청은 아벨론의 유지를 이끌어나갈 일꾼이 더욱이 필요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니,

후에 마비오나가 키리에타와 그의 사제들을 적극 설득하게 됨이라.

이에 마비오나의 훌륭한 설득력과 인자함 그리고 포용력으로 말미암아,

두번째 교황의 자리에 오름에 있어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모두에게 인정받음과 동시에,

잉퀴라를 아벨론의 휘하의 기관으로 명하였도다.

교황청과 더불어 아벨의 자손을 위하야 봉사할 자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이라.

마침내 이들 모두가 아벨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이라.

다만, 잉퀴라는 창설된지 얼마 되지않은 뿌리가 깊지 않은 조출한 집단

임에 반해,

교황청은 모든 아벨의 자손들의 정신적 지주에 다다른 위치에 있었으니,

교황청의 저들은 잉퀴라의 뿌리와 그 근본이 없음에 이들을 손가락질하였고,

이들이 인정받은 후로도 이들 사이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기를 쏟아냄이라.

결국 이들간의 사소한 마찰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으니,

나중에 이르러 분란은 더욱이 커지게 됨이라.

결국, 마비오나와 교황청의 사제들과 펠로른과 잉퀴라의 집정관들이 회담을 위하야 한데 모이니,

그 회담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다만, 그 매서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펠로른은 어느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모든 기지와 총명함을 발현하였으니,

절충되지 아니한 것들을 한데 모아 그것을 조율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도다.

집약된 모든 기록을 바탕으로 펠로른은 아벨론 최초의 법전을 집필하게 되나니,

이 법전을 무릇 발시아가 지녀야 할 도리라는 뜻을 가진 바르샤딘 이라 불리우게 됨이라.

또한 바르샤딘을 보관하고 그 기록으로 공명하고 정당하게 판결하는 대법원 깊은 곳에 숨쉬며,
모든 판례들을 한데 모아 집약된 기록보관소를 이르러 잉퀴라피움 이라 부르노라.
법전 바르샤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리가 있으니,
첫째, 잉퀴라의 법관들이 행하는 모든 판결은 바르샤딘의 정의와 평등, 진리의 원리를 따름으로 거짓이 없도록 하라.
둘째, 잉퀴라는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야 그들의 곁에서 숨쉴 것이며,
셋째, 잉퀴라는 아벨론에 속한 기구로써 아벨론의 첫번째 가지인 교황청과 교통하고 서로에게 칼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넷째, 잉퀴라의 법관들은 일곱의 대법관 사이에서 서로의 관할에 속한 판례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잉퀴라에 속한 법관 어느 누구라도 일곱의 대법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율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라.
이상 다섯의 율법은 바르샤딘의 첫장에 거대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이니,
이것이 바르샤딘의 기반에 깔려있는 다섯가지의 기초적 율법이라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죄와 벌 재물과 소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벽 아래 모든 아벨의 존재들이 바르샤딘의 율법 아래에 보호받으며 다른 존재들로부터 멀게 하는 칼과 방패가 됨이라.

그리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질서의 저울이라고도 불리게 되어,

이는 수세기에 걸쳐 이 법률에 따라 불경한자가 배회하는 도덕적 관념의 모호해진 시대에,

아벨의 장벽 안에서 서로의 도리를 지키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게 하는 장치로써 오랜동안 보존되었도다.

그리고 그것은 대법관의 대를 이어나감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할 따름이며,

아벨의 자손이 살아가는데 이롭게 하여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함이라.

이들이 바로 두번째 아벨론의 가지이자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 그 자체로다.

『 판결과 심판 그리고 단죄 』

잉퀴라는 이데아에 선 모든 아벨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었으니,

그들이 구축한 질서와 대법전 바르샤딘이 가져온 안정과 평화는 모든 이를 감복케 함이라.

그리고 동시에 아벨의 자손들로써 두터운 신망을 쌓게 되었음이라.

대법원의 최고의 자리에는 일곱의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이데아에 내리어진 일곱가지의 죄악을 나누어 그들이 행한 죄악을 구분

하고,

그들의 죄를 물어 판결을 내리어 심판을 하도록 함이라.

그러나 이들이 구성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니,

아벨의 장벽 밖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범람하는 불경한 자들이 이것을 위협함이라.

이러한 연유로 이들은 아벨의 질서 이외에도 그 심판의 범주를 늘리게 되었으니,

장벽 밖의 불경한 자들마저 잉퀴라가 내는 심판의 불꽃으로부터 피할 수 없으리라.

저들은 이 땅 이데아에 쓸모조차 없을 먼지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들은 악을 처벌함에 다소 무른 교황청의 심판에 회의감을 느끼었기에 몸소 천벌의 망치를 드노라.

이들에게 있어 불경한 자들을 정화할 수단은 안식도 아니요, 그리고 구원도 아니매,

이미 어둠에 잠식되어 길잃은 이 영혼들에게 이런 인정을 베풂은 사치라 여기었음이라.

하물며 그 안일한 교황청의 방법으로는 아벨의 자손이 그들이 대면한 이 험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라 교황청에 외치었으니,

불경한 자의 정화와 구원과 안식을 설파하는 것은 근본적인 위협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없음에,

아벨의 자손들을 그저 달콤한 말로 유린하는 이 교황청의 만행을 꾸짖음이라.

잉퀴라의 대법원은 이를 잘 알고 있으매,

교황청과 다른 방식으로 아벨의 자손을 구제하기 위하야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힐 각오로 임하는도다.

칠흙의 수라장이라 한들 묵묵히 걸어가노라.

그럼에도, 아벨의 권능을 지닌 자들은 고고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이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니,

스스로 더럽고 고통받는 자를 자처한 잉퀴라의 법관들은 교황청을 이르러 그야말로 위선자이자 변절자라 하며 고개를 젓더라.

아벨론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야 잉퀴라의 이름 아래로 한데 모인 자들은 교황청의 이들과 확연히 그 모습을 달리함이라.

아벨의 권능을 몸에 담은 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요,

그저 다른 이들과 다를바 없이 평범한 자들의 무리로다.

때문에 빛의 은총도, 아벨의 가호도 입지 아니한 채로 불경한 자들 앞에 서야만 했음이라.

이에 잉퀴라의 법관들은 스스로 몸과 정신을 갈고 닦음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야,

강인한 정신을 강인한 육체에 담게 되노라.

이는 찬란한 빛의 뒤에 숨어 구원을 위해서 그저 기도를 바라는 교황청과 전혀 다른 모습이로다.

저희들이 스스로 몸서 불경한 자들의 목을 치니, 이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의 모습이라.

더불어 그들의 공명하고도 정당함은 모든이들이 우러러 보았음이라.

그리고 죄를 두려워 하노라,

그리고 이들 잉퀴라의 법관을 두려워 하노라,

그리고 대법전 바르샤딘을 두려워 하노라.

최후에 이들이 선언할 심판을 두려워 하노라.

그것은 비단 아벨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도 그러함이요,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장벽밖의 불경한 자들도 공포에 휘감기게 되리라.

그들은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더이다.

아니, 이미 영원의 삶 혹은 죽음을 살고 있기에 그러하였을 것이라.

그러한 이들에게 나약한 아벨의 자손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심어주는 것이라.

그 첫째로 대법원 주위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결코 끊이지 않토록 함이요.

그 둘째로 화형장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치지 않토록 함이로다.

이것이 교황청과 또 다른 점이니,

구원과 안식이 아닌 공포와 심판으로 아벨의 자손들은 그들의 안위를

보전하고,
다만 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음이라.
『 잉퀴라의 심장 』
외부에서 잉퀴라의 심장이라 부르는 대법원의 아드라은 가히 숨을 짓누르는 듯하더이다.
그것은 작은 죄 하나라도 허용되지 아니하리니,
속죄하라는 이들의 무언의 압박과도 같음이라.
판결을 기다리는 자들의 공포가 살갗을 찌르는 듯한 공기가 되어 이곳에 자리하노라.
더불어 교황청이 그러하듯이 대법원 안에 자리한 심판관의 석상은 정의 그 자체를 하고 있나니,
우뚝 선 그 모습에 천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으며 두 귀는 잘라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
그것은 공명정대하고도 형명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다짐이라,
그 판결은 악마의 속삭임과 그 모습에 현혹되지 아니하리라는 모습을 알리기 위함이로다.
그러나 뒷편에서 잉퀴라의 공포정치에 몸서리를 치기에 조각의 모습을 가르키매,
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는 집단이라 폄하하는 자들이 있으나 입밖에 내지 못하매,

그들은 여전히 경외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요,
아벨론의 가지 중 하나였기에 두려움에 떨지만 여전히 아벨의 자손의 안녕을 위하여 힘쓰는 자라.
그 어느 누구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 죽기 전까지 목숨을 구걸하며 고문을 당하고 싶은 자 없으니,
이들의 판결과 심판에 감히 반기를 들려하는 자,
이들의 앞에 나서려 하는 자 하나 없더라.
그것은 그들이 걸어 온 길에 어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으니,
아벨의 권능조차 입지 못한 자들 속에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나,
그 누구도 쉬이 나서서 행하지 못함이로다.
그것은 바로 눈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금 일어설 의지마저 잃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에서,
악몽과 공포 그리고 절망에 다시금 맞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범인이 행하지 못한 길을 걷는 자들을 제 아무리 폄하하려 한들,
그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기에 모두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는도다.
다만, 이들의 판결이 얼음같이도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
수없이 많은 판결과 심판을 이어왔음에도 그 과정에 익숙해져 있는 자

는 헤아릴 정도니,

그 손은 떨리고 얼굴은 일그러져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더라.

판결을 하기 위하야 대법원 가운데 서나니,

오직 바르샤딘에 담긴 기록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만 하나니,

그것을 다루는 자는 무릇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만큼의 덕목을 요구함이라.

이들은 언제나 그것을 지킬 수 있을만한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니,

대법원에 발을 들이고 잉퀴라의 일원으로 최후의 숨을 뱉을 때까지 그 자질을 검증 받아야 함이라.

그것이 대법원의 풍경이자 저들의 냉혹하고도 치열한 세계인 것이라.

공포의 존재로 비추어지는 저들의 모습은 다시금 자신들에게 비추어지는 거울과도 같음이라.

판결과 심판은 잉퀴라의 아버지 펠로른이 저술한 바르샤딘의 율법에 의하여 움직일 따름이니,

그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점 투성이 뿐인 아벨의 자손들이라.

발시아가 발시아를 저울질 하는 것이로다.

오늘날 인간이라 불리우는 존재 발시아의 목숨을 가벼이 저울질하는 것이 쉬울리 없음이라.

이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장벽 밖의 악몽과 공포, 절망 뿐만이 아니더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말미암아 길을 잃고 헤메이는 영혼이 떠도는 이 세기에,
발시아를 가늠하고 그 존재를 가르는 기준과 정의가 모호해질 따름이니,
그 모순된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는 자들이기에 그것에 익숙해지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마음속 고요의 외침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동시에 마음을 추스리노라.
그 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마녀 혹은 그들과 내통한 자,
아벨론의 신변에 위협을 가한 자,
그리고 장벽 밖에 난전 속에서 사로잡은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들이 그 대상이더라.
후에 그들 앞에서 암흑의 씨앗을 처벌하고 심판을 내리어 아벨의 자손들의 불안감을 씻어내나니,
그리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이 저희를 사로잡는 악몽과 공포로부터 헤어나오게 만드는 장이라.
이로 인하야 대법원의 판결은 멈추지 아니하니,
다만, 그곳에 자리하나 아벨의 자손들은 재판의 과정과 죄의 무게에 관심조차 없음이라.
오직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요,
그저 저들의 눈안 가득히 죄인이 맞이할 죽음의 형태만을 기다리고 있

으니,

빵과 와인을 뜯어 먹는 잔치와 다름 없더라.

스스로 잉퀴라의 짊을 지으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이의 죽음 앞에 그 용기가 충만하니,

정의와 질서를 수호해야만 할 대법원의 법관들은 투기장의 광대가 아님을 알리 없는 이들의 외침이 이곳에 울려 퍼지게 되노라.

나무못, 사슬과 바퀴, 타오르는 불꽃 이어지는 비명과 절규, 이를 지켜보는 자들의 환호소리가 한데 뒤엉키니,

정의를 이끌고 질서를 수호하는 자들이 속한 모습이 아니요, 그것은 지옥의 모습이라.

『 피도 눈물도 없으라. 』

바르샤딘은 누구에나 공정함이라.

그 율법으로써 아벨의 자손을 다스리며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으매,

법관의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여서는 아니됨을 중요한 교리중 하나라 여기고 있도다.

그러나, 발시아가 다른 발시아의 위에 서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동반하나니,

무릇 잉퀴라의 법관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대법원에 발을 딛음이라.

판결과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동정이나 연민이 담겨 있어서도 아니되며,

오직 바르샤딘이 이끄는대로 행함이 마땅하노라.

그로 인해 판결은 즉각적이고 냉철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릇된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심판에 대한 결과를 가슴에 새기도록 함이라.
분명 죄짓고 죽은 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요, 누군가의 인연이요,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로다.
또 누군가의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요, 친우요, 모든 것이었으리라.
피어오르는 대법원의 화형장 연기속에서 이들은 언제나처럼 발시아의 모습을 한 자들을 죽였도다.
그것이 아벨의 자손이건,
그것이 카인의 핏줄이건,
그것이 세트의 후예이건,
죄 지은 자는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할진대,
다만, 그것이 오직 죽음으로만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잃은 자의 눈에 담기는 것은 오직 슬픔과 분노와 증오와 공허와 절망이 가득하노라.
이에 잉퀴라의 법관은 죄악의 단죄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죄 지은 자의 죽음과 그들의 피를 이어온 자들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언에르아도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음이라.

살기 위하여 죽였다고 정당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꺼이 그러하리라.

그리 되뇌여야만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로다.

그리 해야 이들의 영혼이 고통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잉퀴라의 법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니,

아버지, 펠로른 바르샤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어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빛에 가리어져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고통받는 자와 거짓된 믿음을 속삭이는 자들을 알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당신을 대신하여 죄는 벌로써 심판 할 수 있도록 단죄의 망치를 내려칠 용기와 힘을 주소서.

이것이 잉퀴라의 법관이 이 땅 이데아에 정의와 질서를 설파하기 전의 태세로다.

아 르 벨 마 기

제 1장 - 아벨의 방패

“아르벨마를 강철의 심장이라 부르지 말라.
차마 그것을 지니지 못하기에 훌륭한 군인이다.”

- 유바 테오도르 -

『 세번째 아벨론의 가지 』

공국 퀼로른이 발하던 영광의 빛은 그 생명을 다하게 되어 두번다시 떠오르지 못함이라.

그러함에도 아벨의 자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여 아벨론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장벽의 주위로 교황청과 대법원을 수립하여 온 세상의 아벨의 자손들을 비추었음이라.
그러나, 여기에 공국 퀼로른의 잔재가 남아있게 되었으니 이들은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들개와도 같은 처지에 남겨졌음이라.
더욱이 공국의 수비군은 장벽밖의 불경한 존재를 죽이는 데에 합리적이지 않음을 자각하니,
교황청의 신성군대와 더불어 스스로 악의 뿌리를 단죄하는 잉퀴라가 갖는 힘에 미치지 못하노라.
시간이 지남에따라 잉퀴라가 아벨론의 정치와 행정, 실질적 운영을 전부 도맡아 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더라는 의견이 나오매,
교황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잉퀴라피움은 원로를 소집하야 징집령을 내리었도다.
이에 퀼로른의 붕괴 뒤에 와해되었던 대다수의 공국의 방위대 교황청 직속의 부대로 발탁이 되었음이라.
이들은 델페노프와 함께 영원의 전쟁을 함께한 군사들이었기에
전사로써 퀼로른의 방위대에 대한 평가는 가히 흠을 잡을 데 없이 뛰어남을 보이었도다.
다만, 이들에게 있어 불경한 자들과 대항하기 위하야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신성의 군대가 지니고 있던 아벨의 권능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그들에게 아벨의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교황청의 선택된 존재들 안에

담긴 그 힘을 나눔이 아니요,

그저 교황청의 훌륭한 종자들이 될 이들의 손에 쥐어줄 총과 칼에 담는다는 것 뿐이로다.

다만, 교황청은 그들의 권능이 선택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눔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냄이라.

하지만 장벽 밖에 불경한 자들이 하루도 서슴지 아니하고 아벨의 자손을 위협하니,

교황청은 잉퀴라에 접촉하여 주인을 잃고 떠도는 퀼로른의 충견들을 아벨론의 휘하에 두도록 하라.

저들에게 그리 이른것이 당대 교황청의 세번째 교황이었던 세르파였으니,

아벨론의 기록한 바로 그녀는 여성으로써 최초로 교황의 자리에 오른 자로다.

무엇보다 그녀는 다른 사내들보다 뛰어난 직감과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이라.

아벨론의 첫번째 가지인 교황청은 그저 상징적인 도구로써 아벨의 자손을 보살폈으나,

그녀의 직감이 아벨의 자손이 저주로 고통받는 이데아 한 가운데에서 발현되나니,

다른 어느누구보다 아벨의 권능이 그 빛을 발하여 교황의 자리에 오르더라.

그리고 교황청의 사제에게 이르기를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상징적인 것도 아니요,

아벨의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관장하는 것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힘으로써 지키는 것이었도다.

이에 잉쿼라의 법관들에게 흩어진 퀼로른 황금의 방위대를 집결시키게 이르는도다.

옛 퀼로른의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저마다 퀼로른의 영광을 새기며 노래하였도다.

비록 국왕 델페노프가 종국에 미친 자라 여겨지며 건국의 영웅이자 망국의 패자로 기록되었으나,

그의 곁에 함께하던 공국의 방위대는 퀼로른에게 헌신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평생을 바쳐왔도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또 어디에도 없는 듯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었으나,

그 피를 이어 나가는 자들은 옛 공국의 기틀을 잡은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이라.

그 찬송의 한가운데 세르파가 우뚝 서 모여있던 자들에게 고하는도다.

비록 공국의 빛은 땅으로 떨어졌음에도 그대들은 퀼로른과 함께 과거의 영광 속에서 산 증인이라.

혹은 그 용맹한 피가 세대를 지나 저들의 아이들 안에 힘차게 흐르고

있는 자들일 것이라.

공국의 방위대는 아벨의 자손을 위하야 퀼로른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죽음조차 불사하였으니,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살던 퀼로른의 전사들아.

그저 아벨론은 형태만 달리하였을 뿐 퀼로른의 의지와 명목을 잇는 자들이라.

아벨론의 곁에서 아벨의 자손을 위해 총과 칼을 들라 하더라.

그 외침은 델페노프의 외침과도 같아 그곳에 모인자들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했으니,

과거에 찬란했던 퀼로른의 전사였음을 회상하게 만들어 이제 아벨의 방패로 다시금 봉사하여

전에 국왕과 공국에 충성을 맹세하였듯이 다시금 그 맹세와 명예를 위하여 싸우기를 원하였도다.

아벨론 소속 교황청 직속의 부대로 이들을 회유한 것은 가히 성공적인 업적이었음이라.

그렇게 이들의 존재는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공국의 방위대가 돌아왔음에 기뻐하더라.

그 환대와 퀼로른을 위하야 피를 흘린 자들과 그 피가 흐르는 자들을 영웅과도 같이 우러러보매,

세르파와 교황청의 예상과 달리 국왕 델페노프의 광기에 의하야 공국이 몰락함에도,

공국이 지니고 있던 이념과 상징성은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조차 존경받을 일이었도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이 땅에 새겨진 역사였고 사실 그 자체로 숨쉬고 있노라.
『 잿빛 영광의 노래 』
퀼로른의 방위대가 영향력을 넓히어감에 따라 교황청과 잉퀴라가 우려감을 표명하더라.
그것은 다름아닌 이들의 손에 불경한 존재들이 떨어져 나가매 그 피가 이데아를 적실때마다,
그것은 교황청의 기도나 잉퀴라의 질서와도 같이 기다림의 시간 없이 눈으로 볼 수 있음이니,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이르기를 퀼로른의 사자가 다시금 도래하였노라 하더라.
더불어 저주받은 이 시대 속에서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총과 칼을 쥐어쥔 이들이 이르기를,
불경한 존재들의 피를 뒤집어 씀에도 서로의 등을 맞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구원이요,
그것이 메말라버린 그들의 정신을 아득히 적시는 마음의 안식이 될 것이라 하더라.
후에 이르러서 이들은 오직 구원만으로 아벨과 그 빛에 기도를 바라는 순진무구한 교황청과,

행정과 정치와 방위 이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하야 정의와 질서를 앞세워 공포를 조성하매,
어느 하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무능함을 꾸짖을 정도의 위치에 서게 되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과거에 영광에 취한 이들이 정의와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에,
그것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혼돈과 분쟁의 씨앗을 부를 수 있다고 여기게 됨이라.
다만, 교황청의 신성군대와 잉퀴라의 법관들이 쉬이 이들을 흩어지게 하지는 못했음이라.
그것은 교황청이 퀼로른의 빛이 지고 난 뒤로도 아직까지 공국을 노래하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몰랐던 것이 첫번째 이유요,
아벨의 자손들이 기도와 믿음만으로 구원에 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 두번째 이유요,
아벨의 자손들이 정의와 질서만으로 구원에 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 세번째 이유요,
불경한 존재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 여기는 자들이 그 네번째 이유요,
공국의 방위대가 아벨의 자손들에게 가져다주는 신뢰와 평판의 크기가 거대함이 마지막 이유라.

이로 인하야 교황청의 사제와 잉퀴라의 법관들과 그저 이들의 휘하의 군대였을 뿐인 자들 사이로 미묘한 전운이 감돌게 되나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벨의 장벽 안에서도 저마다 믿고 따르며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이 서로 다르매,
서로 보듬고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거리와 광장의 이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게 되었도다.
이에 세르파는 책임을 느끼고 교황청의 사제들과 잉퀴라의 법관들을 소집하였고,
동시에 아벨론 직속 군대도 이곳에 들라하더라.
그곳에서 이들은 교황청과 대법원에게 아벨론의 독립적인 기구임을 요청하게 이르는도다.
그것을 부르짖는 사내가 바로 델페노프의 아들인 유바 라고 하는 자였도다.
유바는 그의 아비가 미쳐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직접 눈에 담았도다.
미쳐버린 아비가 그의 목숨을 노리니 왕궁의 눈을 피하여 지옥 속에서 뛰쳐나오게 되니,
그리고 나중에 이르러 국왕의 핏줄은 저주 받은 핏줄이라 치부함을 귀에 담았도다.
자신이 그저 어린 아이였기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라 지금까지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왔도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진실로 회피하며 겁이 많아 오직 자신의 안위만 신경을 쓰던 삶이라.

지금은 그저 백발과 주름이 가득하여 늙은이에 불과한 자이나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인 즉슨,

영원의 전쟁 전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비호를 받은 델페노프의 피가 유바의 몸 안에 흐르매,

지금까지 연명해온 목숨을 아벨의 자손이 품었던 희망을 다시금 되찾기 위함이도다.

그리고 그것을 빌어 아비의 죄를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기 위함일 것이었음이라.

유바는 숨어살며 죄로부터 등을 돌리다 마침내 이것을 기회로 여기었으니,

세르파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아벨의 방패라는 이름의 아르벨마 라고 불리어지길 바라노라.

이에 세르파는 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바를 중심으로 아르벨마를 아벨론의 기구로 인정하니,

잉퀴라의 법관들을 중심으로 하야 아벨론의 모든 가지가 모이어 바르샤딘 아래 조약을 맺노라.

그리고 이들의 통치방식을 이르러 아벨의 고리 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효율적인 정치의 기반을 닦게 되었음이라.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기 위하여 서로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으나,

교황청 안에서는 아벨의 권능으로 구원을 내리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한 세르파는 파면당하게 되는도다.

다만, 이 내부사정을 모르는 아벨의 자손들은 그저 그녀의 권능이 쇠하였을 뿐이라 하더라.

그러나 아르벨마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기 위하야,

교황청의 권능을 총과 칼에 담아 불경한 자들의 씨를 말리는 데 신경을 쏟아 부음이라.

그들의 적은 불경한 자요, 교황청이 아님이라.

『 영광의 존재, 고통받는 영혼 』

유바는 아르벨마가 교황청의 헌신으로 아벨의 권능을 간접적으로 담게 되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니 모든 이들의 신경은 항상 곤두세워져 있어야 함이라,

또한 언에르아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여야 함을 강조하더라.

이바와 아다무스가 저주를 내리고 떠난 이데아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로다.

그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노닐던 짐승들은 더욱이 흉폭해짐은 보통이요,

이로 인하야 심지어 발시아의 피와 살을 취하기 위하야 이들을 유린하기에 이르렀으니,
야생의 짐승들조차 지성을 갖추게 된 것들이 더러 있음에 이들은 그저 공포의 존재들로 변질됨이라.
그중에는 차마 형용할 수조차 없는 형태를 지닌 자들이 도처를 배회하며 저들의 생명마저 위협을 하기에 이르나니,
아르벨마가 수립되기 이전에 아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이들 사이에서 번지게 되더라.
이들은 또한 아벨론의 기구로써 인정을 받게 되며 안락한 지붕과 따스한 식사또한 주어지게 되었으나,
저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것을 언제나 최후의 만찬일 것이라면서 비웃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아르벨마가 아벨론의 세번째 가지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사이에서 차별은 존재하게 되는도다.
더구나 유바의 사정을 아는 교황청의 존재들은 아르벨마의 사령부를 변방에 두게 하였고,
그 휘하에 야전에 초소를 두게 하여 다른 어떠한 지원없이 그저 맨손과 맨몸뚱이로 장벽을 지키게 하였으니 저들의 고충이 심할 따름이라.
그야말로 유바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들을 사지로 내모는도다.
그럼에도 이들이 누구랴, 퀼로른의 의지를 이어 나가는 자들이자 아르

벨마로 살아갈 자로다.
그들은 옛 공국 퀼로른의 몰락으로 이들의 뇌리에 경각심이 깊게도 새겨진 이들이라,
더불어 미친 왕에게도 버림 받았던 이들이요, 그 슬픈 영혼을 가까스로 끌고 온 자들이도다.
그러한 이들이기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유바와 이들을 강하게 한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이로다.
이 때문인지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신뢰와 평판이 두터우며 그들을 노래하는 찬가가 퍼지나,
아르벨마에 지원하는 자들의 수는 그저 손으로 헤아릴 정도에 불과함이라.
그것은 불경한 자들을 멸하는 것은 아벨의 권능이 담긴 총과 칼 뿐이요,
그것을 다루는 자는 그저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평범한 발시아에 불과한 자로다.
그러할진대 맨정신으로 불경한 존재들과 부딪히게 된 이들은 그들의 피와 살이 찢겨나가기 이전,
기이한 존재들과의 조우로 인하야 이들의 영혼이 먼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
그것을 시작으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인해 뒤틀린 대지를 거느리는 동안,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몸 안에 스며들어와 고통에 몸부림 치는 자는 물론이요,

어디선가 들리는 달콤한 속삭임에 취하야 정신이 나가버린 자들마저 나오게 되나니,

이제 변방의 아르벨마의 병사들 사이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들이 나오지 않음이라.

다만, 가벼운 마음에 아르벨마의 총과 칼을 쥔 자들은 죽거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나니,

아르벨마에 몸을 담는 삶을 제대로 보여줌이라.

유바를 중심으로 남은 아르벨마의 칼과 방패는 진실로 결속되어 아벨의 자손을 위하여 남더라.

그리고 그 군기를 힘껏 쳐드니, 이들은 형제와 자매와도 같은 끈끈한 유대로 묶여져 있음이라.

사지를 함께 걸어온 아르벨마의 군대는 그들 사이에서 돈독함을 보이게 되었으니,

그들과 달리 따스한 집에서 빵을 뜯고 와인을 마시는 아벨의 자손들과 어울리지 못하더라.

그것은 필시 저들이 같은 아벨의 자손임에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나감이 그 이유였으니,

나중에 이르러서는 아벨의 자손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의 노래가 전역에 퍼져나감에도,

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삶과 다름에서 나오는 이질감에 괴로워 하더라.
결국 아르벨마는 장벽안의 아벨의 자손들과는 끝내 어울리지 못할 따름이라.
『강철의 심장. 그 이면.』
아르벨마의 군대와 밤낮을 함께 한 무리들의 입을 모아 이르기를,
이들이 같은 장벽 안에 사는 같은 아벨의 자손이라 느껴지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비추어진 이들의 모습은 마치 강철과도 같이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르벨마의 군인을 강철의 심장 이라 부르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 말은 온 아벨의 자손들에게 널리 알려져 아르벨마는 아벨의 방패라는 이름과 더불어,
구원을 바라는 아벨의 자손들에게 아르벨마는 강철의 심장을 지닌 이들이라 칭송받았음이라.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반대로 이들의 초소와 막사 주위는 죽음을 풍기고 있으니,
자신의 곁에서 죽어가는 이의 몸에서 마르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핏줄기를 억지로 부여막는 이와,
고통에 신음하며 사선의 기로에 서있음에도 애써 억지로 웃음을 보이는 이가 한데 뒤섞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토해내며 이렇게 아벨의 자손 하나가 그 빛이 꺼져가는도다.
허나, 형제 혹은 자매의 마지막 앞에 어느 누구도 고개를 돌리는 이 없으니,
마지막 봉사와 헌신을 다한 이의 끝을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하지만 짧게 치루었도다.
그러나, 아벨론은 이들의 가족에게 그저 심심한 위로의 편지 한통 보내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그것에 그치니 아니하고 아벨론의 이들은 월즈 의 마이스터 와도 관계가 있으니,
월즈의 마이스터는 이세계를 해부하고 연구하며 모든 진리를 추구하려는 자들의 집단이더라.
이들은 변절된 자에 대한 연구를 위하야 얼마전 그들의 곁에서 숨을 쉬던 자들을 데려가더라.
이들에게 있어서 아르벨마는 그저 그들의 연구를 위하야 움직이는 슬픈 꼭두각시 였도다.
아르벨마를 부르는 강철의 심장과도 같이 이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그 굳건함을 따라올 자 아벨론에 없으나,
이미 변절되어버린 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을 자 또한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

아니 반드시 무너지리라.

마지막의 순간에도 전우의 이름을 마지막 숨과 함께 뱉는 그 모습에 분노와 슬픔이 한데 뒤섞여 얼룩진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니,

많은 이들의 찬양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강철의 심장을 갖고자 하는 그 맹세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

아르벨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여.

그 이면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저주와 같은 모습을 감추고 있을 따름이라.

그러함에도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벨의 장벽을 버티는 유바의 총과 칼이로다.

유바의 총과 칼은 속죄와 회개의 몸짓이 되어 절망에 빠진 이의 처진 어깨를 들게끔 하고,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온 고함은 장벽을 두텁게 하노라.

강철의 심장을 지녔기에 아벨의 장벽이 이리도 굳건한 것은 아닐테요,

혹은 아벨의 장벽을 굳건히 하기 위하야 강철의 심장을 지녀야만 하는 것도 아니로다.

눈물은 메말라 버렸고 오직 아벨의 권능이 담긴 총과 칼에 의지하매,

공허한 눈은 향할 곳을 잃고 장벽 너머만 무심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로다.

저마다 사선에 섬에 있어 이유가 있음이니,

어떠한 이는 과거의 영광으로,

어떠한 이는 속죄와 회개를 위함이요,

또 다른 이는 구원을 찾기 위함일 것이라.

이러한 이유가 죽음을 사는 아르벨마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구원로다.

저들은 당장 오늘 죽을 수 있음이요,

그것이 시기만 다를뿐 언젠가는 죽을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도 볼 수 없고 그것을 함부로 쓰지도 않을 것이니,

아르벨마를 강철의 심장이라 부르지 말라.

그것을 차마 지니지 못하기에 훌륭한 군인이라.

죽음의 경계에 선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역설과도 같으니,

언제나 사선에서 등을 맞댄 이들의 목숨과 돌아갈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를 위하야,

아르벨마의 군대는 아벨의 자손의 영광과 안녕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일어날 것이요,

그들을 위하야 어제 여지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기꺼이 자신들의 피를 쏟아낼 것이라.

공 국 계 승 서

제 1막 – 북방의 야수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손을 위하여,

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카르손을 위하여,

나는 북풍의 서릿발이요, 불경한 자들의 피마저 얼릴 것이라."

- 카르손의 맹세 중 -

『 길 잃은 자와 비탄의 아리아 』

찬란했던 옛 공국 퀼로른이 무너졌도다.

아벨의 첫번째 자손은 그들 스스로 복수의 씨앗이 될 것을 우려하였기에 하늘에 오르니,

아벨의 장벽을 중심으로 오직 아벨론의 존재만이 불경한 자들에 대항하기에 이르는도다.

이에, 몰락한 공국에 남겨진 아벨의 자손은 그저 아벨론에 기대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더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며,

질서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불경한 자들을 벌하는 가운데에서 희망을 품으니,

그것은 무릇 이들로부터 스스로 살아갈 힘조차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음이라.

이들은 그저 옛 공국 퀼로른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날의 회상에만 빠져있도다.

실로, 이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국 퀼로른을 계승하기 위하야 일어난 자가 있었으니,

교황 세르파가 광장에서 퀼로른의 아이들을 찬양하야 아르벨마라는 집단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도다.

옛 공국 퀼로른의 국왕 델페노프가 아벨의 자손을 한데 모아 아벨의 장벽을 세워 올리고 난 뒤,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와 이데아를 떠도는 온 불경한 자들을 베어 넘길 때 그의 곁에 있던 자가 있음이라.
그리고 그들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비호를 받아 그 영광과 축복을 몸속에 아로 새겼도다.
그중에도 델페노프와 더불어 퀼로른의 방위대를 지휘하며 전선에서 함께 등을 맡긴 사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잉그람 랑뒤르 라 불리우는 자요,
공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의 맹세와 서약을 하고 퀼로른의 번영을 위하여,
목숨조차 불사하며 델페노프와 공국을 지키고 그 빛을 더욱이 찬란히 빛낸 자였도다.
다만, 영원의 전쟁이 끝난 뒤로 국왕은 국왕으로써 그 자질을 다갖추지 못한채 죽음을 맞이하나,
잉그람은 오직 맹세와 서약에 살던 진정한 기사의 표본이었기에 미쳐버린 그와 함께 죽고자 했도다.
이리도 우직한 자의 곁을 언제나 지키던 그의 전우가 있으니 그 이름은 에르녹 이라 하더라.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의 전쟁을 함께 치뤄온 전우였으며 잉그람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형에르아.
잉그람은 국왕의 곁을 지키는 창과 방패로,
에르녹은 전장을 지휘하던 위치에서 서로 방향은 다르나 모두가 명예로

운 퀼로른의 기사였도다.

에르녹은 잉그람이 델페노프와 함께 죽으려 하자 서신으로 그를 속이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으니,

국왕을 죽인 자들의 칼날을 피하게끔 하노라.

후에 잉그람은 돌아와 기사로써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책망하였으니,

자신의 맹세는 거짓으로 변질되었고 서약은 그저 먼지가 되어버림을 한탄하고도 분노했음이라.

그 분노의 칼끝은 거짓 서신을 보내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만든 에르녹에게 향하였도다.

잉그람은 그에게 모진말을 토해냈으나, 에르녹은 되려 그에게 쓴소리로 답하기를,

잉그람. 피가 섞이지 않은 나의 혈육이여.

기사의 맹약과 서약은 죽음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다.

그것은 패배자의 사고와도 같음이라.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임과 동시에 그저 눈 먼 자의 허망한 맹세일 뿐이로다.

경거망동 말고, 그 목숨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대의 목숨은 그대의 것이 아니요,

비록 미쳐버린 국왕은 퀼로른의 영광을 죽음으로 갚아 불명예를 안기었

으나,

그대의 목숨은 새 시대와 새 공국의 것이라.

비참하게 살아남고 두려움과 절망에 맞서지 말고 도망침을 두려워 하지 말라.

그저 그것을 다시금 맞서지 못함을 두려워 하라.

준비가 되었거든 그때 다시 그것에 맞서라.

델페노프가 그러하였듯 뜻이 같은 아벨의 자손을 모아 다시금 공국의 영광을 쓰라.

그리고 그대가 델페노프가 그러하듯이 미쳐버린 지도자가 된다면 내가 그대를 죽이겠다 하더라.

그것은 잉그람의 눈을 뜨게 만든 일침이 되노니,

그는 에르녹과 함께 그들과 뜻이 맞는 아벨의 자손을 찾기 시작하노라.

수소문 끝에 잉그람은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은거하는 유바와 조우하게 되는도다.

잉그람은 유바를 설득하야 공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을 거침없이 토해냈음이라.

그러함에도 유바는 죄책감으로 아벨의 장벽에 갇혀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잉그람이 그 발걸음을 돌리었도다.

『 세기의 분리 』

이후에 잉그람과 에르녹의 행방은 아벨론의 눈과 귀에 닿게 되었으니,

이들이 아벨론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김은 실로 당연하도다.

이것은 명백한 아벨론을 향한 반역의 행위라.

아벨의 권능에 대항하는 자들은 장벽 밖의 불경한 자들과 다름없는 야만적 행위라 여기었도다.

그러나 지금의 명칭과 달리 당시에 깨어있는 자라 불리우던 세르파가 이르기를,

이들의 존재를 아벨론의 휘하에 두게 하야 불경한 자들과 맞서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니,

이로써 아벨의 자손들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됨이라 하더라.

세르파의 권유로 유바는 속죄의 뜻으로 이 제안을 받아 들이어 아르벨마를 창설하는도다.

이에 잉그람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르벨마를 건설한 유바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었으니,

유바를 이르러 델페노프의 아이임에도 퀼로른에 대한 자각이 없는 자라 여겨 통탄할 따름이라.

또한 공국 퀼로른에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맹세나 서약을 부르짖으니,

잉그람이 분개하야 이들을 언약 파괴자라 칭함과 동시에 과거에 했던 언약과 맹세에 대한 불신과,

훗날 이들이 아벨의 자손을 위하야 봉사하고자 아벨론에 맹세한 진의조차 의심으로 바라보더라.

이즈음 교황청은 세르파의 뒤를 잇어 크라텔이 교황청의 계보를 잇게 되었으니,

그녀는 세르파가 파면당했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야 그 자리를 보전하려 애쓰더라.

아르벨마와 같이 교황청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싹을 자르려 하니 이는 교황청의 위상이라.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게 되니 곧 그의 전령이 잉그람에게도 닿게 되노라.

그 내용과 서신은 경고장이었음이라.

서신의 내용은 첫째 퀄로른을 이으려는 자는 아벨론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라 칭하게 됨이라.

둘째로는 잔당의 해산과 부당한 선동과 장벽안 아벨의 자손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셋째로는 잉그람이 유바를 폄하하며 아르벨마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불손한 움직임을 보이매,

죄목은 아벨의 자손을 분열하게끔 만들어 혼란을 낳았으니,

이는 명백한 반역의 행위가 될 따름이고 그 책임에 대한 판결은 오직 죽음일 것이라.

이러한 극단적 판결을 감행한 이유는 바로 교황 크라텔이 전임 세르파를 의식하고 있었던 탓이라.
크라텔은 교황청과 아벨론에 반하는 자들에게 일말의 자비따위 보이려하지 않으매,
아벨의 자손들이 알 수 없게끔 조용히 이들의 무리를 차근히 부술것을 원하였음이라.
그러나 잉그람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의 움직임은 비단 잉그람의 목을 쳐서 끝날 일이 아니었으니,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가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수로다.
잉그람을 따르던 모든 무리가 크라텔과 아벨론의 흉계를 알게 되나니,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일손을 놓고 광장에 나와 아벨론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도다.
이에, 아벨론의 편에 선 아벨의 자손들은 이들을 만류하며 이들을 폭도들이라 여기었으니,
아벨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 비난하였음이라.
자칫 장벽안에서 서로의 형제 자매의 목에 칼을 겨눌정도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나니,
아벨의 장벽 안의 공기가 무겁도다.
이에 크라텔은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잉그람과 협약을 체결하게 됨이라.

아벨론의 세 기구가 한데 모이어 협약을 체결한 이 공동의 협약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나니,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니 그저 자비를 표하노라.
이에, 아벨론은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를 두텁게 하기에 이르렀도다.
그러나 저들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잉그람은 그 협약을 마지막으로 그와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거느리고 아벨의 장벽을 벗어나게 됨이라.
그 행렬은 끝없이 길었고 장벽을 나서는 자들의 눈에는 공포만큼이나 믿음과 힘이 담기었도다.
비록 많은 자들이 장벽 밖을 걸어나감에도 이들 아벨론은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의 존재가 아벨론에게 있어서 눈엣가시와도 다름 없었던 까닭이라.
오히려 이들은 그 행렬을 막지 않고 그들의 길을 배웅하며 앞길의 축복을 노래하더이다.
이 시기에 대다수의 이들이 그저 가치관이 다른 이유 하나로 장벽 안에서 생이별일 겪게 되나니,
이것이 아벨의 자손들이 기록하기를 세기의 분리 라 칭하게 됨이라.
그저 서로 피만 흘리지 아니하였을 뿐,
그 상처가 눈에 보이지만 아니할 뿐,
대다수의 아벨의 자손들이 분단의 고통을 가슴에 지고 살아가게 되노

라.

다만, 그 길을 유바만이 안쓰러이 바라볼 뿐이라.

『 사자의 송곳니 』

잉그람이 아벨의 장벽을 뒤로한 이후 그의 사람을 둘 보금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나니,

그 모든 것들이 장벽 밖에 도사리고 있는 불경한 저주를 입은 자들 탓이라.

그들과 맞서고 피하며 수많은 목숨을 치루어야만 했으나 아무도 발길을 돌리는 자 없으니,

그것은 장벽을 나옴과 동시에 했던 맹세와 언약에 대한 믿음과 두터운 신뢰 때문이라.

이들은 마침내 불경한 자들의 손길이 닿기 차마 힘든 곳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었도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어 마침내 이들은 북방에 자리한 혹한의 땅 칼데우리아 에 닿노니,

백색의 대지는 이데아의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고 오직 혹독함만이 남아있는 곳이라.

싹이 트기 힘들만큼의 눈과 서리의 땅이였노라.

다만, 이들이 걸어온 길보다 혹독한 것은 없으니,

장벽을 벗어난 자들에게 더이상 아벨의 권능이 저들을 비추지 아니함이로다.

아벨론은 아벨의 신성한 힘으로 불경한 자들을 몰아내는 반면,
이들은 그저 옛 공국 퀼로른의 방위대가 가진 힘 오직 그것 뿐이라.
북방의 사자라 불리는 이들은 고난 가운에데에서 소중한 이들의 죽음으로,
이들이 흘린 값진 피와 희생으로 쌓아올린 오랜 경험으로,
수없이 많은 불경한 존재들을 맞이하야 저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는 법을 깨우치나니,
그들은 아벨의 권능을 짊어지지 아니하고도 이들 사이에서 당당히 일어났도다.
그야말로 이데아의 생명의 고리 속에서 한단계 진화한 발시아라 당당히 외치노라.
더욱이 강인해진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과 같은 힘을 내는 기염을 토했음이라.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들을 더욱이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요,
그들을 죽이게 하는 것들은 이들이 그것을 부술 방도를 강구하게끔 만듦이라.
장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라.
그들이 아벨의 권능 대신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그 길중에 하나라.
그 거대함은 산을 쪼갤듯한 아드라을 보이며 포탄에 날을 두른 듯한 기이한 모양새라.

자신을 가두는 것은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매,
이들은 아벨의 권능을 직접 몸에 입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함이라.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칼데우리아 협곡 사이에 자리잡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더라.
잉그람은 목숨까지 불사하고 자신을 믿으며 이곳 혹한의 땅까지 온 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곳 칼데우리아에 퀼로른의 명맥과 유지를 잇는 새로운 공국을 수립하나니,
새 공국을 이름하야 퀼로른의 아들이라는 뜻의 카르손 이라 부르니 이들이 바로 북방의 야수라 불리우는 자들이로다.
칼데우리아 협곡의 기후가 제 아무리 매서웁다고 한들 카르손의 자식들에겐 그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꾸준히 살아나갈 방도를 강구하였음이라.
그러던 어느날 이들은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 기이한 울림을 느끼게 되어 그 원천을 둘러보니,
협곡 사방에 아벨의 자손이 문명을 일구어낸 영물 중 하나인 칼데움 을 그 안에 품고 있음이라.
협곡에 잠들어 있는 칼데움이 서로 몸을 부딪혀 저들끼리 토해내는 울림소리로 말미암아,

불경한 자들의 귀를 멀게 하며 사악한 주술을 부리는 자들의 집중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의식을 방해하나니,
칼데움 하나 만으로도 카르손은 저들의 위협에서 지킬 수 있는 방패를 가진 셈이요, 칼데우리아는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라.
『 아벨의 대통합 』
더욱이 이들은 공국이 취하던 왕권이나 아벨론이 바라는 종교적 집권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잉그람을 대표로 카르손의 무리들 여럿이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것이라.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라.
아벨론의 역사로는 이해하지 못할 구조로다.
다만, 이러하기 때문에 가지는 이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북방의 사자 카르손의 무리들이 이리도 강한 이유로다.
그들은 언약과 맹세를 중요시 하기에 다른 이와의 소통함에 있어 그 힘이 실리게 됨이 마땅하나니,
이로 인하야, 국가나 도시의 틀을 갖추지 못한채 아벨론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다른 아벨의 자손이 이들로의 접근이 쉬웁도다.
다시말해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아벨론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기간 또한 길지 않더라.
또한, 이들이 겪어온 고초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른 이의 출신과 성분

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카르손은 아벨론과 달리 칼데우리아의 문이 어느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음을 알리노라
안과 밖이 이리도 두터우니 이들은 장벽 밖에 나와 있음에도 굳건히 자리함이 마땅하도다.
이에 카르손의 행적과 아드라은 이데아 전역에 널리 알리어지게 되었음이라.
이러함에도 아벨론의 저들은 카르손의 무리들을 더러 교만하고 콧대가 높은 자들이라 부르나,
그것은 카르손의 무리들이 그동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이들이 알리가 없기 때문이니라.
아벨의 권능을 씻어낸채로 불경한 자들을 그저 맨몸으로 맞서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 두가지.
그것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을 하고 있음이요,
그 믿음과 신뢰는 굳은 맹세로부터 오는 것이라.
때문에 이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이들은 절망에도 구원을 부르짖지 아니함이요,
이 땅에 구원과 정의와 질서나 회개와 속죄라는 그럴듯한 허황된 것을 따라 피를 흘리지 않으매,
그저 이들이 지키고 싶은것을 위해 손에 무언가를 집어들고 피와 살을

뿌리며 죽음이 더 낫다 하더라.

그것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가치있는 희생이자 진정으로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 믿음이도다.

이것이 비록 카르손의 무리가 아닌 자들의 눈에 정상이 아닐 것으로 비추어질 것이라.

그러나, 북방의 사자는 잊지도 아니할 뿐더러 용서하지도 않으니,

불경한 자들이 삶의 터전을 짓밟고 보금자리를 태운다면 우리도 그리할 것이라는 자들임이라.

그들의 어금니로부터 벗어날 곳은 없도다.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저들도 공포에 질려 떨게끔 만드는 자들이라 전하라.

이들이 빼앗기고 피를 쏟은 것과도 같이 저들도 빼앗긴 채 바닥에 피를 쏟고 죽게 되리라.

이성적인 듯하며 반면에 야성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그것이

공국 카르손의 아드라이로다.

잉그람은 구 공국 퀼로른을 건설하는데 일조하고 그 기틀을 닦은 역군 중 하나였으매,

국왕 델페노프의 타락과 그 곁에서 찬란히 빛났던 퀼로른의 몰락 또한 맛본 자로다.

그러하기에 더이상 힘겨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야,

옛 공국의 영광조차 기억나지 못할만큼 카르손을 위하여 스스로 담금질을 거듭함이라.
아벨의 장벽을 나온 자들의 투박한 손으로 세워진 카르손은 퀼로른의 뒤를 잇는 국가로다.
그리고 그저 저들끼리 살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아벨의 자손의 통합을 바라보는 자들임이라.
이전의 국왕 델페노프가 그러하였듯이 카르손의 무리들은 모든 아벨의 자손을 한데 엮을 것이라.
이는 공국이 아벨의 첫번째 자손과 함께 아벨의 자손을 악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 아벨이 그리던 그의 자손들이 이데아를 살아가기 위할 모습이로다.

성 전 계 시 록

제 1부 - 희망의 불씨

“이데아에 남겨진 저들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계시 속에서 죄 지은 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하라.”

- 얀과 다르함의 회고록 -

『 속죄와 회개의 음성 』

영원의 전쟁이 빚어낸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이데아를 병들게 하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아이들이 서로 한데 섞이어 저들의 피와 살을 이데아에 뿌린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데아를 가장 병들게 한 것은 바로 이바와 아다

무스의 저주 때문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누구도 심지어 아벨의 자손들 중 이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자 없더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오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아이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아이들마저 저들의 오만이 담겨져 있는 피를 이어받으니 그 과오를 반복해 왔음이라.
이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더이상 방관하지 않으니 세트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게를 주노라.
그리고 그들은 이데아를 떠나 그 주위의 테르벨을 한참을 걸으며 그들의 행보를 돌아보더라.
그들의 오만에 대한 죗값을 치루기 위하야 테르벨 주위를 돌며 속죄하며 읊조린 음성이 퍼지나니,
그 음성은 이데아에 닿고 무릇 발시아의 죄악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구원받음을 알게하노라.
다만, 그 목소리가 닿은 자들은 성령이 깊은 자도 아니며, 정의를 다잡으려는 자도 아니매,
이들은 현자도 아니었으며, 기적을 부리는 자들도 아니거니와 전사로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계시는 그저 장벽 안의 평범한 누구의 아비요 어미이자 형제와 자매들에게 닿게 되나니,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음성이라고 부르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였도다.

다만, 그것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이들이 아벨론에 몸을 담고 있는 까닭이요,

아벨을 믿고 섬기며 기도하고 헌신하여 구원에 닿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나니,

모든 이들이 멀리하는 이바와 아다무스를 섬기며 그들에게 계시를 받음을 알리지 못하게 된 이유라.

이러한 연유로 대개 이들은 아벨의 장벽안에서 계시를 숨기고는 이중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노라.

이들은 아벨론의 눈을 피해 계시에 닿기 위하야 다른 신도들과 교통하고 탐구함을 게을리하지 아니함이라.

여지껏 수없이 많은 기도로도 한번조차 그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기적과도 같이 서로 같은 계시를 받고 그것을 통해 서로 한데 묶이어 희망을 안게 되나니,

차라리 아벨의 권능보다 모두가 손가락질 하는 이바와 아다무스의 목소리가 구원으로 다가옴이라.

다만, 저희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치 못하고 그저 흐릿하게 그들의 뇌리속에 그려지매,

계시를 받던 자들은 저희끼리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그것에 대해 고찰하

며 의견을 나누는 데에 이르게 되었음이라.

이윽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 모이고 나중에는 자그마한 집단을 이루는 크기까지 되나니,

이들은 저희가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과 접하여 소통하고 교류함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더이다.

이들이 아벨의 자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바와 아다무스를 숭배하는 자들이요,

아벨의 자손이 마땅히 섬기어야 할 존재로 아벨이 아닌 다른 자를 섬기게 된 그 첫번째 집단이로다.

또한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은 그 형태를 달리할 뿐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

그 시험의 끝에서 마지막에 시비를 판가름하기 위하야 다시금 이데아에 내려올 것이라 믿으매,

이들은 이데아가 고통에 몸부릴 칠때에 찬란한 그 모습을 모든 발시아 앞에 당도할 것이라 믿으며,

더불어 옛 이데아가 지녔던 그 빛이 구원자에 의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하더라.

『 최초의 계시를 받은 자 』

이바와 아다무스의 음성이 이데아에 닿게 되나니 그 계시에 다다름에도 순서가 있도다.

그저 평범한 자들이 저들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동안 어느 음성을

듣게 되었으나,

눈을 뜨고 나면 그것은 꿈과도 같이 잠시에 뇌리에 스칠 뿐 시간이 지나고 바로 잊혀지는도다.

그러나, 그것이 뇌리에 깊게 박히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야 과 다르함 이라.

그 기원을 알 수 없던 그 목소리가 아벨의 자손을 이롭게 하리라는 믿음이 피어나니,

어렴풋이 자신들에게 스며들어온 음성은 그들을 깨우치게 할 것임을 깨닫게 되는도다.

야과 다르함은 필시 그것은 아벨론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구원이라 여기고 이를 계시라고 부른 뒤,

이 계시를 가르침이라 여기며 섬기고 따르게 되니 이를 탐구하기 위하야 힘쓰는도다.

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누군가의 부름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 위하야 장벽 안팎으로 배회하더라.

그 계시의 길을 따르며 이 둘은 정이 통하였으니,

야과 다르함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이데아에 눈을 뜨게 되니 그 이름을 다이앤이라 지었도다.

그러나, 아벨의 장벽 안 아벨론이 우뚝 선 자리에 아벨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요,

그 죗값은 불타 죽는 것이었도다.

이로 인하야 그 아비와 어미는 아벨론으로부터 불경한 자들로 불리우게 되었으니,

잉퀴라에 끌려들어가 대법원 한 가운데에서 불타 죽고 한줌의 잿더미가 되었노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난 아이는 죽여야 마땅하나 성령이 충만한 아이임을 느낀 레비에가 만류하니,

아벨론의 눈 아래에 목숨을 살려두어 그 아이를 구원을 담을 그릇으로 쓰고자 함이라.

다만, 목숨을 가져가지 않는 대신 불경한 자식에게 잉퀴라는 또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나니,

불경한 자의 자식이 부모가 두 눈 앞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루는 것을 두눈에 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도다.

또한, 불경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을 칭할 때에도 어떠한 자비조차 보이지 아니하매,

그녀의 부모가 음성을 듣고 따라 계시에 닿게 된 지명을 따서 우에노른 의 아이사라 부르게 함이라.

그리고 그 이름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르니,

이름 앞에 항상 낙인과도 같이하야 그녀가 불경한 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림이라.

그러하니 아벨론의 어느 누구도 불경한 자의 자식을 거두려 하지 않음

이 당연하도다.

아이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닿은 곳은 이미 곁을 떠나버린 어미와 아비의 체취가 남은 집이라.

슬픔에 잠기어 죽음과도 같이 깊이도 잠든뒤에 깨어나고 난 뒤 이전과 다름을 느끼게 되나니,

계시가 그녀에게 닿게 되었음을 알더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부모를 죽게 만든 원흉임을 알고 부정하고 듣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우에노른에 닿은 자신의 부모가 들었던 것보다 더욱이 선명하게 그녀를 부르는도다.

후에 아이사는 마침내 그 음성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입에서 흘러나옴을 깨달음이니,

그 음성으로 그들의 기억속에서 속죄와 회개를 이 땅 이데아에 뿌리려 함을 알게 되노라.

그러나 이 어린 양에게 잉퀴라의 정의와 질서라는 가치관을 억지로 우겨 넣지 못함이라

교황청의 믿음과 신앙도 그저 하릴없는 기다림만 바랄 뿐이요 계시만큼이나 명확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아이사에게 있어 아벨론과 아벨의 장벽은 그저 허울뿐인 껍떼기에 불과한 것이라.

이곳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 그저 기도로 구원을 바라는 저들의 어리

석음에 한탄만 할 뿐이로다.
더구나 그저 아벨의 권능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모는 불타 죽었으니,
아벨론에 회의감을 느껴 반감을 사게된 아이사는 그 슬픔과 증오심을 키워 나가게 되었도다.
허나, 증오는 비단 아벨론을 향한 것이 아니요,
그녀의 부모인 얀과 다르함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동안 환호와 함성을 쏟아낸 발시아를 미워함이라.
그러나, 부모를 죽음으로 몰게 한 그 선명한 음성은 계시로써 아벨의 자손을 지키게 될 것임을 알게 됨이니 이 얼마나 모순된 인과란 말인가.
이로 인하야 아이사는 그녀안에 담겨진 분노를 일단 억누르고 자신의 부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야,
얀과 다르함이 따르던 그 음성을 좇게 되노라.
발시아에 대한 원망으로 말미암아 아이사는 홀로 그 계시를 기다리며 이에 귀를 귀울였으나,
이전 그녀의 귀에 닿은 계시마저 점점 그 색이 바래어지며 흐려짐을 깨닫게 되었도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더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아이사는 길거리를 부랑하더라.
얼마 지나고 난 뒤 희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다른 이와 조우하게

되었으니,

계시를 받은 자가 저만이 아님을 알게 되노라.

그들이 들은 음성이 이바와 아다무스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 둘 아이사의 주위에 모이니,

심지어 장벽 밖의 이들조차 그 음성을 듣고난 뒤 아이사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은 그녀를 찾아 아벨의 장벽을 방문하더라.

이로 인하야 그녀 주위에 모여진 발시아의 수만큼 계시는 다시금 이전의 선명함을 되찾으니,

그녀의 계시가 선명해짐에 따라 그 계시는 그녀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닿게 되었음이라.

그것은 모든 이와 함께 계시를 나누며 진정으로 서로를 보듬을 때가 되어야 강하게 발현되나니,

이에 아이사는 홀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매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일어남을 알게 되는도다.

그제야 아이사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되고 그것은 어느 죄악에도 통용됨을 깨달음이라.

그녀는 죄악은 발시아가 버릴 수 없는 것이자 또 그것이 이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죄악을 한없이 숨기고 감추며 억누르는 것보다 그 속에서 다스림이 옳음을 믿게 되나니,

그것이 아이사와 그의 성도들이 직접 들은 음성이자 아벨의 자손을 지

키는 구원이었음이라.
아이사를 중심으로 그 움직임을 조용하지만 빠르게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 퍼져나가 집단을 이루니,
때를 정하여 저희끼리 한데 모이어 서로 들어온 음성과 계시를 교류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교리를 만들고 이를 나눔이라.
이들 아벨의 장벽 안에 장막 속에서 계시를 받은 자들을 훗날 위그나라 부르게 되었으니,
위그나에 속한 이들을 성전에 오른 자들이라 부르니 모든 이들이 계시를 이행하는 자들이로다.
『 성전의 개시 』
위그나의 교리는 빠르게 전파되어 아벨의 장벽 안 발시아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되었도다.
그 움직임이 아벨론의 귓가에 닿게 되나니,
신성의 모독.
그것이 위그나를 향한 아벨론의 입장이요,
아벨의 장벽 안의 어디에나 존재하나 그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아니한 자들이로다.
또한 피어져 흩어지는 연기와도 같음이니 빠르고 넓게 퍼지나 그것을 잡을 수다 하더라.
위그나는 지금껏 오랜 시간동안 아벨의 자손을 지탱해온 아벨론의 존재

를 위협하는 존재였도다.

또한 그들이 부르는 교리는 아벨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뒤를 좇으니,

그것은 아벨론에게 있어 관용이나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매듭질 문제가 아니라 여기노라.

위그나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함이라는 그들의 교리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던 계시였도다.

이는 아벨의 권능과도 같이 구원에 닿기 위한 도구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아벨론에 봉사하던 자들을 흔드노라.

그것은 여지껏 구원과 그의 권능을 입기 위하여 오랜시간에 걸친 인내하고 믿음이라.

계시는 기도하며 그저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할 만한 위험한 것이었도다.

그들의 존재 자체와 그들이 계시에 대해 나누는 교리만으로도 그가 여지껏 믿었던 것들을 모두 부정하게끔 만듦이라.

이는 구원을 기다리며 지쳐있던 아벨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단비처럼 내리었으니,

계시라는 것에 현혹되어 기도를 게을리하노라.

이에, 아벨론은 장벽안의 이들에게 이르기를,

아벨의 장벽 안에서 계시로 인하여 변절된 이단의 자식들에 대한 정화를 개시함을 널리 알게 하였도다.

정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교황청 안에서 불경한 자를 다스릴 때 쓰는 말이었으니,

위그나의 토벌을 정화라고 한 만큼 신성모독에 대한 죄를 물기 위하야 이들이 직접 나섦이라.

아벨론의 본격적인 움직임에 위그나의 아이사와 그녀의 신도들은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드니,

그것은 다른 이를 해하기 위한 도구들이 아니요,

그것은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로다.

그 까닭은 아이사가 그들이 부르는 성전에 임하기 이전에 계시 때문이었으니,

그것은 아이사 너의 어미와 아비를 죽인 자들의 피를 이데아에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도다.

이 때에 아이사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감에 이바와 아다무스와 교통할 경지에 닿게 되매,

다만, 처음으로 이들과 교통하며 입에서 떨어진 말은 구원에 대한 물음이 아니요,

신성한 존재를 영접함에 있어 그 어떠한 영광이나 존경도 담겨있지 아니하였도다.

계시가 인도하는 길 이전에 아벨의 자손을 구함에 어찌하여 나의 부모

가 잿더미가 되어야만 했는가?
더불어 어찌하여 그녀의 부모가 죽음에 닿을때 구원해주지 아니하였는지를 힐난하더라.
그녀의 계시로 그 안의 분노를 밖으로 쏟아냄이 마땅하지 않은 것인가 되물으니,
이바와 아다무스가 아이사에게 이르기를,
속죄와 회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베푸는 자비와 관용이 이데아의 상처를 씻게 할 것이라 하더라.
아이사는 잠시 그녀가 품고 있던 증오를 접어두고는 계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함이라.
아벨론이 계시를 받았다 의심되는 자들을 낱낱히 밝히어 이들을 찾았지만 그러하지 못하니,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가 이들이 가야할 곳을 알리어 그것을 피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음성이 미처 닿지 못한 이들은 교황청의 정화의 빛에 의해 마지막 숨을 다하게 되노라.
아벨의 권능을 입은 빛의 레비에는 어둠 속에서 이단자들을 사냥할 따름이니,
세기의 분리를 겪고 나서도 아벨론은 전혀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였음이라.
마침내 이바와 아다무스의 계시가 인도한 곳은 장벽의 밖에 있음을 알

게 되나니,

아이사는 계시를 통하여 이제 방패를 들고 일어나 진실된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라 명하니,

위그나의 신도들이 아이사를 따름이라.

모든 성도들은 서로 든 방패를 들자 아벨의 권능과 같은 성령의 빛이 이들의 길을 비추노라.

레비에는 아벨의 권능이 이 불경한 이단자들에게 닿지 못함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도다.

위그나를 두른 빛의 방패는 아벨은 물론이요,

카인과 세트를 낳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성령이 깃들어 있는 그야말로 성물이었도다.

눈부신 방패와 검을 두른 위그나의 성전사들을 두르고 있는 권능은 그저 빛이었음이라.

그 빛을 가진 자들을 차마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저들에게 보내는 최선의 자비라.

그들은 계시를 따라 유유히 장벽 밖을 향하노라.

『 진정한 구원 ; 발시아의 뿌리 』

그들의 방패는 다른 아벨의 자손의 피를 쏟아내기 위함이 아닌 위그나의 교리를 전도하기 위함이요,

성령이 부른 칼은 불경한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성전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었도다.

이렇게 위그나의 성도들은 그저 기도와 믿음을 강요하는 자들의 눈앞에서 유유히 장벽을 나오게 되었음이라.
장벽 밖으로 나와 계시가 이끄는대로 따라가게 되니 마침내 그 발길은 끝에 다다르게 되노라.
저들이 그곳의 이름은 우에노른이었으니,
얀과 다르함이 음성을 따라 계시를 갈구하며 끝에 다다른 곳이로다.
그들이 그러하였듯 아이사도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됨이요,
아이사의 뒤를 위그나의 신도들이 따르니 그들의 성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이라.
우에노른의 수많은 동굴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고 그것들이 저마다 이어져 있었으니,
계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곳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쉬이 빛을 볼 수 없으리라.
아이사는 이곳에 자리하야 마침내 진정한 성전을 위한 시작을 알리게 됨이라.
위그나에게 있어 이바와 아다무스는 발시아의 뿌리와도 같이 중요한 존재와 다름 없으니,
계시가 이들을 강하게 만들고,
계시가 이들을 기민한 정신으로 이끌고,
계시가 이들을 한데 묶어 구원의 불씨가 되나니,
계시가 담긴 칼과 방패가 구원의 증거로다.

이데아를 구원하는 자는 아벨이 아닌 그 아비와 어미인 이바와 아다무스요,

그들을 따르는 아이사와 위그나의 성도들의 손에 의하여 인도될 것이로다.

위그나의 교리로 아벨의 자손들이 죄악으로부터 고개 돌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회개와 뉘우침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을 계시로써 증명하였나이다.

발시아를 낳으신 이바와 아다무스가 테르벨의 주위를 돌다 발걸음이 멈추었을 때,

그 때에 이르러 계시를 받았던 우리 위그나의 성전은 끝을 고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그들은 이 땅 이데아에 내리시어 죄악을 씻고 그것들은 이데아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로다.

엔 가 르 데 기

제 3식 - 첫번째 자세

“울어도 들어주는 이 없다면 웃으며 춤추라,

그리하면 그것을 눈에 담고 눈물을 쏟아내지 않는 이 없으리라.”

- 리 쿠울헬의 검무 -

『 버려진 아이들 』

영원의 전쟁은 그 끝을 고하는 듯 했고 막바지에 남겨진 생명들은 그 빛마저 희미해져감이라.

작은 마을 혹은 소수의 자치도시에서 남겨진 이는 전쟁의 화마와 이 땅

과 시대를 원망하며 죽으니,

그들이 뱉어난 저주로 인하야 이곳에 발걸음을 하는 자 그 누구도 없으니,

버려진 땅 위에 홀로 남겨진 보금자리와 폐허가 도처에 황량하게 널브러져 있도다.

그곳이야말로 교황청이 말하는 지옥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듯 하더이다.

남겨진 그곳에는 생명의 흔적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남긴 물품에는 온갖 불경한 기운이 감돌아 누구도 전쟁이 만든 폐허에 다가가지 못함이라.

아벨론은 초기에 아벨의 장벽을 기점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며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자 하나,

장벽 안은 세기의 분리를 겪고 더구나 이단의 무리라 하는 자들까지 발발하게 되었으니,

장벽 밖보다 내부의 기강을 다지고 아벨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써 안정을 구축하고자 함이라.

이로 인하야 장벽 밖은 수많은 시간동안 여전히 병들어 있는 땅의 모습을 하고 있나이다.

이데아에 놓여진 재앙을 모두 쓸어담아 그것을 정화할 수 없었나니,

장벽밖에 죽어나가는 아벨의 자손들의 수를 감히 헤아려 보는 자 하나 없더라.

그 중에서도 전쟁속에서 피는 혹은 차마 질 수 없던 꽃들이 고개를 쳐드나니,
파괴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전쟁의 고아들이 바로 그들이니라.
아벨론은 그들의 평판을 위하야 전쟁의 고아들을 장벽 안으로 거두었도다.
이에, 장벽안의 이들은 만류하나 아벨론은 모든 이들에게 안정을 보장하는 교황의 성명이 있으니,
초기에 대부분의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론이 보인 연민과 자비로움을 칭찬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빵과 물로 이들을 배불리 하고 입을 옷을 주어 살 방도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이들을 한데 모아 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게 되었으니 생명을 이어나가게 해주었도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도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원조의 질은 형편 없어지노라.
더불어 아벨론의 이들뿐 아니라 장벽 안의 이들도 이 어린 양들을 위하야 선행을 베풀지 아니하더라.
그 이유는 아벨론이 저들을 빛으로 씻겨낸다 한들 영원의 전쟁 속에 숨쉬고 지내온 자들이라.
대개 장벽 밖에서 기어들어온 저 아이들의 핏속에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도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트의 낙인이 새겨져 있으리라 치부하는 자들이 생기

었음이라.

그것이 아니라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자들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

전쟁 고아들은 장벽 밖에서 영원의 전쟁을 살아온 자들이었으니 그 출신성분이 모호한 이들 뿐이었음이라.

이로 인하야 아벨론에서조차 그저 장벽 밖에서 굴러 들어온 한낱 들개 정도로 여기었도다.

이들은 어디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나니.

필시 하나라도 아벨론을 올려 보며 구원을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라.

후에 이르러 아벨의 자손들 모두가 전쟁에 버려진 저들을 배척하게 되나니,

아벨론이 마련해둔 보금자리에 방치해두는 것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들을 돌보는 이 없더라.

그도 그럴것이 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그들을 따스히 품에 안을 수 없던 연유도

영원의 전쟁 이후에도,

피의 복수를 부르짖을 때에도,

카인의 핏줄들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많은 아벨의 자손들의 피를 쏟아낸 과거가 있음이라.

이들을 모아둔 저 보금자리는 이제 버려진 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으로 변절이 되어 버렸도다.
대부분은 이들을 재앙의 씨앗이라 여기고 이들을 등돌리는 것을 당연시 되는 풍조가 만연하더라.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없고 이들을 위한 그 어떠한 법적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매,
혼돈의 이 때에 아이들을 향한 폭행이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가 성행하게 되였도다.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이들을 위하는 모습과 드리워진 속내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오매,
그들을 변호하는 자들은 어느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반증하니,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진 거부감과 보호본능은 존재하는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이들을 부정하고 밀어 내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와도 같은 것이라 하더라.
나아가 살아남은 고아들은 윌즈의 마이스터라 하는 자들에게 있어 훌륭한 재료였노라.
보라.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그저 위선과 다름 없어라.
이에, 아벨론이 이르기를 그저 아벨의 자손들이 더욱 거대한 시험에 부

딪혀 이겨냄을 위함이라 하였으나,
아벨과 그의 충실한 종 아벨론에 선하게 보이기를 바라던 저희들의 욕망이었을 뿐이었도다.
행여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벨의 자손들의 만행을 알린다 한들,
장벽 밖에서 난 이들의 말을 제대로 믿고 들어줄 이 보이지 않더라.
그만큼 전쟁이 낳은 고아들은 저들의 동족들의 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이며,
애초에 장벽밖에서 기어들어온 저주의 산물이라 불리우는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는 없노라.
『 홀로 서기 』
보금자리에 남아있는 전쟁의 고아들은 그 고립된 세계 속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지어야 함이로다.
몇몇은 아벨의 도우심으로 다른 가정의 일원이 되어 평화로이 살아갈 길을 걷게 되나니,
장벽의 안팎으로 서로가 살아온 흔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 쫓겨나거나 제 발로 뛰쳐 나옴이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배를 부르게 할 음식도 몸을 녹일 따스한 화톳불조차 사치라 느끼었도다.
이들이 겪는 시련을 안타까워 하는 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이가 이들을 밀어내었고,
이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만 했고 오랜시간의 고민끝에 자리할 곳은

결국 전장이라 여기었노라.

보금자리조차 이들에게 안락한 쉼터가 되어주지 못하였으니 이 아이들이 찾아간 곳은 아벨론이라.

살기 위하야 전장의 아가리 속으로 고개를 떨구나 아벨론의 어디에서도 이들을 거절하게 되나니,

이유인 즉슨 이 아이들을 차마 전장으로 내몰 수 없을 뿐더러 전쟁을 대물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그 모습은 이들을 배려심을 장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

그것이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것이료,

필시 신성한 아벨론의 성역에 이 아이들에게는 과분한 자리라는 오만에서 나옮이라.

그것은 이 어린 양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고 또 병들게 할 만큼 잔혹한 것이었으니,

저들은 그저 아벨의 부름을 받기 위하야 기도를 올려야 할 가녀린 양에 불과하였도다.

전쟁 고아가 처한 절망의 끝에서 발시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엇이든 바라기 마련이라,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는 이들은 저들을 이끌 자들을 학수고대 할 것이라 판가름 하는도다.

그러나, 아벨론이 간과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들이

전쟁의 생존자라는 것임이라.

아벨의 자손이 장벽 뒤에 숨어 아벨의 권능에 닿기 위하야 그저 기도만으로 하루를 연명하니,

이 전쟁의 고아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선 깊숙한 곳을 넘어가며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음이라.

전장에서 숨을 죽이며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면 살게 될는지 어떻게 하면 죽게 되는지 배웠도다.

살기 위하야 저들이 전장 속에서 터득한 움직임은 발시아에서 나올 움직임이 아니었으니,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가 저들을 가르쳐서 습득한 것이 아닌 그저 본능이 저들을 그리 가르침이라.

온실 속의 화초들과 달리 저들은 피기도 전부터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왔음이라.

아벨론과 장벽 안의 이들이 제 아무리 전쟁이 낳은 이 고아들을 홀대한다해도 굴하지 않음이니,

보금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 눈에 빛을 잃은 아이를 찾아볼 수 없었도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열어주지 않은 아벨론의 회의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니,

아이들은 어떠한 망설임 없이 보금자리라 하는 감옥을 박차고 장벽을 넘어섰음이라.

살기 위하야 숨을 죽이고 또 자신의 존재마저 지우고 나아가 그들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니,

장벽을 벗어나는 동안 누구도 이들의 존재를 눈치챈 자들이 없더라.

그 발걸음은 깃털과도 같으니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아르벨마의 군인조차 알아채지 못함이라.

그들이 원하던 것을 참혹한 이 땅 이데아에서는 쉬이 허락되지 않는 윤택한 삶이었던 것이로다.

이제는 돌아갈 곳 없는 이들은 전운이 감도는 저주받은 그 땅을 다시금 밟게 되었음이라.

『 벼랑 끝 구원자 』

이들은 다시금 장벽 밖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경한 자들 사이에서 죽은듯 살아감이라.

동족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안에는 더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오직 원망과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도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홀로 살아가는 이들은 또래의 아이들마저 위협의 존재이니,

그야말로 야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장벽을 나오자마자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 기척을 지운채로 살아가던 중 운명의 조우를 맞이하노라.

전쟁의 고아들 중 이를 처음으로 마주한 소년의 이름은 바로 예레드 라

하는 아이로다.

그로부터 이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도다.

그 이름은 전쟁 직후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살던 이 아이가 아벨의 장벽에 닿았을 때,

어린 아이라는 뜻으로 그를 부르던 예레드 라 부른 그것이 온전히 이제 그의 이름이 되었도다.

그것의 저의 이름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애초에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고 자라왔도다.

목숨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땅에서 아득히 어린 아이들은 서로 모여 살아가지 않았으니,

모든것은 무리지어 다니었을 때 불경한 자들의 눈에 쉽게 띄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다만, 예레드는 홀로 지내는 동안 잠시 스스로의 고찰의 시간을 갖게 되나니,

그저 본능으로 살아가며 마지못해 사는 처지를 돌아보니 그저 공허함을 느끼게 됨이라.

자신의 안에 무언가 움틈을 알게 되는도다.

더불어 버려진 삶을 살던 자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와 증오를 삭히기 힘듦을 느끼더라.

이러한 아이의 내적인 성장을 이르러 두번으로 다시금 태어남을 뜻하는

시니샤 라 부르는도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태어남도 아니요,

때가 오른 발시아라면 마땅히 겪쳐가는 정신적인 단계로 그것이 이른 시기에 발현되었을 뿐이로다.

시니샤의 깨어남은 따스한 보금자리와 더불어 아비와 어미의 품에서 평범히 자란 아이와 다를 따름이나니,

현실을 냉혹하게 받아 들여 정신적인 성숙이 이르게 다가온 자들에게 새겨진 낙인과도 같도다.

이른 정신적 성숙은 그들의 육체와의 성장속도가 달라 이것은 불안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깨어지기 쉽고 굳건해짐도 쉬웁도다.

다만, 예레드는 자신 안의 시니샤를 잡아줄 자가 필요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었도다.

그 복잡한 감정 속을 살며 병든 땅 이데아 위에 영원의 전쟁이 낳은 참혹한 전장의 속에서 살다,

한 사내와 조우하게 되었는데 그는 마침 송곳니를 드러낸 카인의 핏줄 앞에 목숨을 던지려 함이라.

자신과 대조되는 그 한심한 모습에 아이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하고는 발걸음을 돌리려 했으나,

시니샤의 감정에 휘말려 사내를 죽음의 문턱에서 잡아 끌어오게 되었도

다.

그를 밀어내고 스스로 카인의 핏줄 앞에 서나 온 몸이 떨리는 중에도,

불경한 자 앞에 타오르는 저 불씨와 같더라.

예레드는 스스로 마지막 생을 만끽하려는 듯이 온 숨을 끌어 들이마시고 있던 그 찰나의 시간에,

목숨을 던지려던 사내가 마음을 돌렸는지 공허한 눈에 생명이 깃들게 되었으니,

그의 눈앞에 등을 돌린 그 카인의 핏줄의 심장에 칼을 깊숙히 찔러 넣었도다.

눈 앞에서 카인의 핏줄을 대하고도 흔들림 없는 예레드는 그의 이름을 물으니

그가 답하기를 이스마 라 하더라.

그 사내는 몰락한 공국 퀼로른에 속해 있지 않던 여러 자치 국가들 중 하나인 곳에서 도망친 자로다.

그는 당대 교황청의 교황 피오라를 알현하기 위해 아벨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나니,

그동안 자신을 옭아맨 구속에서 나오기 위함이요, 더불어 그간의 죄를 씻고자 함이라.

달이 지던 밤 피오라는 눈 앞에 둔 사내는 그에게 나의 죄마저 사할 수 있는지를 묻더라.

이에 피오라는 이 사내를 조심스레 꿰뚫어 본 뒤 조심스레 그의 이름과

그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되묻자,
이스마는 망설임 없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피오라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흩어지노라.
사내의 죄가 너무나 깊게 빠져 있기에 이를 도저히 씻을 수 없음을 이스마에게 알리노라.
이스마는 이미 그러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듯이 씁쓸한 미소만을 남긴 채 교황청을 떠났으니,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피오라는 성호를 긋고 고개를 숙이어 그에게 연민을 보이었도다.
그러나 죄 짓고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이 깊이도 빠져버린 이 사내의 얼굴은 달랐으니,
죄를 털어놓고 진실로 속죄할 마음으로 그곳에 닿게 되었으니 후련한 모습을 하더라.
마지막에 그 죄를 털어놓고 그는 더없이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도다.
다만, 그 죄를 회개로 덮을 수는 없으니 죗값으로 여긴것을 자신의 목숨이라 하고 죽을 곳을 찾노라.
그렇게 맞이한 것이 카인의 핏줄 중 하나였고 그 장소에서 예레드와 조우한 것이라.
아벨론의 첫번째 가지인 교황청에서의 속죄로도 그의 행보에 대한 죗값을 씻을 수 없었으나,

이데아에 존재하는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죄악에 더럽혀진 몸뚱이조차 보살핌을 받게 되니,
그는 최후를 맞이하려던 죽음의 순간 속에서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것과 같도다.
죗값을 죽음으로 갚으려 했던 것도 그의 업보요, 그 마지막 순간에서 목숨을 부지한 것도 업보라.
살아가기로 다시금 마음을 돌리었고 아스마는 한참을 울었도다.
나의 목숨을 지킨 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이스마를 놀라게 한 것이 아니요,
그가 놀랐던 것은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로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너온 이스마는 그를 다시금 살게 한 예레드가 가는 길을 동행하게 됨이라.
예레드는 이스마와 동행하며 그와 전쟁고아들이 여지껏 겪어온 참상을 털어놓으니,
이에 이스마는 목숨에 대한 보답으로 그와 함께 전쟁의 고아들을 찾아다기게 되었도다.
그와 함께 전쟁고아를 거둠과 동시에 예레드는 다른 것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진정으로 이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보금자리였도다.
이에 예레드는 이스마를 데리고 공국을 재건코자 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음이라.
퀼로른의 뒤를 잇는 카르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그의 주인 잉그람은 도처의 실력자들을 차출하니,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쟁의 고아들을 이끌고 북방의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감이라.
잉그람은 자신의 앞에 선 자가 범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출신성분을 묻더라.
이에 이스마가 답하자 그의 반응 역시 교황청과 다를바 없었으나 잉그람은 그를 받아 들이게 되니,
카르손을 따르고 섬김에 대한 대가로 금은보화 또는 어떠한 재화도 바라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마가 오직 바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이 전쟁의 고아를 보살필 보금자리 였도다.
그리고 이스마의 요구로 그 공간은 기이한 형태를 취하게끔 만들어 지게 되었으니,
그 모습은 버려진 폐허 속 지하로 거꾸로 솟아내린 탑과도 같은 형태를 띄고 있음이라.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 다른 폐허와 다를 바 없어 이곳의 존재를 아는이 없으니,
이데아의 위협으로 자신의 존재를 모두 지우고 살아가는 이 전쟁의 고아들에게 안성의 맞춤이라.

『 자아의 성찰 』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로도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의 살육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매,

이로 인하야 부모를 잃고 이데아를 헤메는 새파란 핏덩이들은 끊인없이 이 땅을 방황하노라.

다만, 이 모든 아이들이 저주 받은 이 땅 이데아를 홀소 설 수 없는 이들을 홀로 설 수 있게 하나니,

예레드의 청으로 이스마는 이 역탑에 전장 고아를 위한 보금자리를 열게 되었고,

이 탑을 기반으로 하여 새 공국 카르손의 도움을 입어 영원의 전쟁 전후로 보호받지 못한 자들 즉,

불경한 자들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만하는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찾아 이 탑 아래 받아 들이는도다.

더불어 춤추는 칼이라는 뜻이라는 리 쿠울 이라 부르는 지하 속 학회를 창설하게 되었으니,

이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비단 이들에게 칼을 다루는 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요,

속에 깊게 품은 칼을 다루는 법도 가르치니,

그것이 남을 해치지 않고 나아가 자신마저 해치지 아니하도록 가르침이라.

전쟁으로 버려진 분노와 공허함을 자신을 그리고 이데아를 상처 입히는

데에 쓰지 말라 하더라.

예레드는 그의 또래 친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하고 아파하며 교감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스마의 지도편달로 전쟁의 고아들은 탈선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노라.

이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지고 단련된 육체에 더욱이 강인한 정신이 깃들게 됨이라.

전쟁 속에서 살던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벨의 자손을 위하야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로다.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저들을 위하여 피를 흘릴 일은 없도다.

더불어 그들 안에 요동치던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다스리는 것을 체득하였기에,

다른 이들의 피를 흘리는 대신 스스로 칼을 휘둘러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라.

그리고 그 가르침의 끝에 학회를 나가서 살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르러 의식을 치루는도다.

그 의식은 시험과도 같으니 저들과 함께하며 죽은 또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학회 최하층에 머물러,

서로의 칼을 부딪히며 춤을 추는도다.

칼 끝이 부딪히면서 내는 서슬푸른 불협화음은 고요하게 울려퍼지니,

이들의 움직임은 흡사 춤사위와도 같아 그곳에 잠든 이들의 넋을 위로해 주는 듯한 몸짓이라.

춤사위는 끝나 학회 밖의 아이들이 어떠한 길을 걷더라도 탑의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리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야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라.

순수함과 때묻지 않음으로 저들 리 쿠울은 이 땅위에 아름답게 피고 질 것이로다.

시 란 두 르 전 서

뿌리 - 아르카나의 근원

“어머니 대자연, 그 자체인 이데아를 맞으라.
그대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청하는 그 모든 것이
그녀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녀를 찬양하여라.”

- 키오누스의 전령 -

『 이데아의 눈물 』

태초에 창조주께서 이데아를 만드실 때 이데아는 생명으로 넘쳐났도다. 창조물들은 그 이데아의 생명을 씨앗으로 저들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의 모두가 이데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 것이로다.

그것은 이바와 아다무스도 마찬가지였으니,

어머니 대지 이데아는 생명 그 자체로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다름없음이라.

이데아는 생명의 한 가운데에 서서 이들의 성장을 즐거워 하였고,

만물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생명의 나무인 이실그라드 를 피우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몸을 담고 생명을 관장하며 이들을 오랜동안 굽

어 살피었음이라.

이실그라드를 중심으로 그녀는 이데아의 생명이 난 곳이라면 어디든 자유로이 누비었도다.

그녀의 정성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데아는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창조주께서 손수 빚으신 이바와 아다무스의 자식들이 이데아를 상처입게 함이라.

그 이유는 이바와 아다무스 저들의 멋대로 창조주께서 내리신 이데아를 조건으로 저들의 아이들에게 시험을 내렸던 오만 때문이라.

그리하야 이데아를 병들게한 영원의 전쟁과 더불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까지 앉게 되니,

점점 병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이데아는 그저 한없이 슬퍼할 뿐이로다.

그녀가 흘리던 눈물은 이 땅을 적시고 그것이 넘쳐 높은 파도를 만들어내니,

서로에게 칼과 송곳니를 겨누던 이들을 쓸어버려 물에 잠기게 하였도다.

그로 인하야 전쟁의 불씨가 다소 사그러들게 되나 여전히 서로를 죽고죽이려 하였도다.

그리하야 이데아는 다시금 이들을 물에 잠기게 하야 모든 생명을 쓸어낼 결심을 하였음이라.

그러던 도중 영원의 전쟁 속에서 어린 소년은 묘한 이끌림에 끌리어 이데아에 내려오나니,

그 아이가 아벨의 첫번째 자손중 하나인 존재로 영원의 전쟁을 슬퍼하며 저들의 상처를 눈으로 직접 담고자 자처하여 이데아에 닿은 자요,

이름은 키오누스, 공감과 연민을 품은 자로다.

일곱가지 죄악을 등에 새기고 아벨의 자손을 감싸안는 빛이 된 요낙에 동의하야 그녀의 뒤를 좇아 이데아를 향한 자라.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까스로 뱉고는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이실그라드 앞에 고꾸라졌도다.

이에 이데아가 친히 그 모습을 키오누스 앞에 드러냄이라.

그녀는 당장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생명과 그에게 담긴 공감과 연민을 느끼며 그를 가여이 여겨 그의 상처를 아물게 하였도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앞에 선 이데아의 모습에 이데아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데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이 깊은 곳을 어찌 알게 되었는가 물으니,

그가 이르길 그것은 기이한 속삭임과 같다더라.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가 내뿜는 생명의 근원을 느끼고 이를 따르며 이곳에 온 소년을 보더니,

이데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음이라.

키오누스는 이데아의 아름다운 얼굴 뒤로 고통과 상처를 어렴풋이 읽게 되었고,

이데아는 아무도 읽어내지 못할 것 같던 생명의 근원을 느끼는 자를 만나 그 동안 이 땅 이데아가 기억하는 것들을 이 소년에게 건내게 됨이라.
그녀가 토하듯 뱉어내는 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아 키오누스에게 전하니,
그는 여지껏 이바와 아다무스의 태도나 아벨의 자손들이 행해온 만행을 보고 놀라게 되는도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아벨과 카인과의 관계에 데헤 의심을 해 본적 하나 없던 그였기에,
그동안 이데아가 기록했던 사실로부터 등돌리고 눈먼 거짓된 싸움을 계속해 왔는지 한탄하노라.
키오누스는 이데아를 가엾이 여기었기에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공유하며,
그녀의 상처를 씻겨 주지라 다짐하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한 아벨의 첫 번째 자손들을 뒤로하고,
이데아와 함께 그곳에 남기고 결심하였도다.
무엇보다 이데아의 아름답고 고고한 자태에 빠져 그녀로부터 벗어날 수 없던 것이 가장 컸던 탓이라.
그는 작지만 힘껏 움켜진 작은 손으로 이데아가 기억하고 있던 모든 기록과 역사를 담게 되나니,
그 과오를 잊지않고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이데아

도 감복하게 되었음이라.

이에 만물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던 이데아는 어린 소년의 가녀린 마음으로 인하야 마음을 여는 것과 동시에,

생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들과 다시금 이 땅을 이전의 색으로 되돌릴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게 됨이라.

키오누스는 그 기록을 아벨의 자손들과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이 기록을 알리고자 하였도다.

이에 이실그라드의 전령을 통하여 이데아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이상 이데아를 상처 입히지 말라 이르고자 하니,

이미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야 저들 사이에 벌어진 깊은 감정의 골을 좁히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도다.

『 아르카나의 탄생 』

그 어떠한 노력에도 모든 대다수의 존재들이 병든 이데아로부터 등을 돌리었으니,

아벨의 자손들은 물론이요 다른 어느 누구도 변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됨이라.

이에 상심한 키오누스는 상처받은 이데아를 보며 결심을 한듯 그녀에게 제안을 하였으니,

그것은 이데아와 몸을 섞고자 하는 것이었도다.

그것이 가진 의미를 알기에 이데아는 그의 제안에 눈물을 쏟아낼 듯하였으니,

그 의미는 그녀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요,

그녀의 나무 이실그라드에 양분이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이데아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던 키오누스의 죽음이라.

수많은 시간동안 자신의 몸은 더렵혀지고 상처를 입어왔고 그것마저 모두 참을 수 있었던 것이나,

키오누스를 잃는 것은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욱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될 것임을 알게 되노라.

그러나, 오랜 만류에도 불구하고 키오누스는 이미 결심을 굳힌듯 맑고 강인하고도 순수한 눈을 하며 이데아를 바라보니,

그녀도 그의 진심을 계속하여 부정할 수 없었기에 마침내 키오누스의 결정을 받아 들이었도다.

이데아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도 따스하게 소년을 가슴에 품었고 그는 이실그라드의 거름이 되노라.

둘이 섞이어 만들어진 힘은 이 땅에 생명을 틔우며 창조를 뜻하는 천재지변을 일으키게 되니 이를 나스 라 부름이라.

이로 인하야 대지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 온 짐승들이 포효하며 울부짖는 동안에 생명이 움트는 순간이니,

이로 인하야 이실그라드 안에 생명의 힘이 충만할 따름이요, 열매는 결실을 맺음이라.

그것은 생명의 태동이자 태초의 근원이며 만물을 살아있게 만든 그 힘

이 한데 집약된 것이니,

이데아와 키오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존재를 이르러 아르카나 라 부르게 됨이라.

아르카나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이데아와 키오누스 사이에 태어난 자식과도 다름없음이라.

더불어 아르카나는 키오누스의 연민과 이데아의 생명을 지닌 힘을 그 안에 가득 담고 있도다.

그러나, 이데아는 아르카나의 탄생보다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된 슬픔에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나니,

그녀와 이실그라드 주위로 바다만큼이나 드넓은 광대한 호수를 이루게 되었도다.

이데아는 자신을 위하야 희생한 순수한 영혼의 키오누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하야,

자신의 몸에 담긴 아르카나를 떼어내어 소년의 모습을 한 정령을 이 땅에 불러내나니,

정령의 이름을 소년의 이름과 같이 키오누스라 부르며 그녀의 곁에 두게 하였도다.

충만한 아르카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데아에 남은 상처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으며,

더불어 키오누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그녀의 기력마저 쇠하게 되었음이라.

이러한 연유로 그녀는 이실그라드에 발이 묶이게 되어 생명의 나무와 하나가 되었도다.

생명의 태동 키엠과 함께 요동치던 아르카나는 그녀의 기억과 키오누스가 남긴 기록이 충만하였고,

이데아는 키오누스의 전령에 아르카나를 담은 뒤에 온 만물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사방에 뿌리었도다.

온 이데아에 흘러 아벨의 자손들에게 또 카인의 핏줄 사이로, 세트의 후예들에게 퍼지노라.

키오누스의 헌신은 짧은 시기에 이데아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하였으나 헛된 희생은 아니었으니,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실그라드가 내뿜는 생명의 태동은 아르카나로 인하야 더욱 커져나가고,

드넓은 생명의 호수는 그 빛을 더해나가 아르카나에 양분을 계속하여 충당해나감이라.

이데아가 이전의 빛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가 바라기 그지 없는 일이었으나,

이바와 아다무스의 자식들은 그것보다 서로의 존재를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녀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까지는 필시 억겁의 시간이 플러야만 함을 느끼더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피를 이은 모든 자들 안에는 무릇 생명의 태동이 깃

들어 있으나,

세대를 거치어 오면서 그저 그것이 약해져왔을 따름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아니한 채로 저들 안에 남아있을 뿐이로다.

그것이 약해진 이유는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야 생명이 비옥하게 자랄 수 없는 것이 첫번째 이유요,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그 두번째 이유로다.

이들의 저주가 생명의 태동을 가리고 그들이 만연히 피어날 수 없어 이데아의 빛이 꺼지도록 하게 만듦이라.

그러나, 키오누스의 희생이 빚은 아르카나로 인하야 생명의 태동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였나이다.

아르카나는 온 세상에 퍼져 저들에게 속삭이더이다.

대부분의 이들은 듣지 못하였으나 생명의 태동을 느낀자들 일부가 있으매,

생명의 태동과 공명하는 저들은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아르카나의 흔적을 따르게 되었도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듯 아무도 모르게 모든걸 뒤로한채 속삭임이 인도하는 길을 좇아 가더라.

무엇이 이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하였는지 저들도 의아해 하는 이 와중에도,

저들이 걷는 그 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그저 생명의 태동을 향하여 자신도 모르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

『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 』

한참의 고행길을 걷고 그들이 옮기는 발걸음마다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에 위협을 받게 되었으나,

마침내 그들을 이끈 아르카나가 인도한 곳까지 닿게 되었으니 저들에게 속삭인 아르카나가 충만한 곳이라.

그 길 끝에 광활히 펼쳐져 있는 호수는 눈이 멀 정도로 맑은 빛을 하고 있으니 넋을 읽게 만들고,

호수 위에 흩어져 저들끼리 생명을 속삭이는 아르카나로 인하야 이들 안의 무언가가 깨어나는도다.

그것은 이데아와 키오누스의 기억이고 기록이자 태초의 증거이자 지식의 깨우침이라.

드넓은 호수를 가로질러 물안개와 아르카나사 섞이여 만든 신기루의 장막을 걷게 되노라.

그 뒤로 장엄한 모습을 드러낸 태초의 생명을 고이 간직한 생명의 나무가 눈앞에 펼쳐지나니,

놀랍게도 이 땅에 태어나 그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매 이미 그것을 알기라도 한듯,

그 이름을 입에 올렸고, 그 뒤에 이들의 음성을 듣고 이데아가 그들 앞에 강림하게 되었음이라.

이실그라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존재 역시나 아르카나의 기억으로 뇌리에 새겨지나니,

창조주의 순수한 피조물이자,

태고의 생명 이데아 그 자체의 모습에 그곳의 모든이들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예를 표하노라.

이데아는 생명의 근원인 아르카나를 읽을줄 아는 이 자들에게 자신의 권능의 일부를 허락하나니,

아르카나를 빌려 이 땅에 생명의 창조를 이룸으로써 기적을 부리는 자들을 퀴나즈 라 부르게 됨이라.

태초에 이바와 아다무스는 그저 창조주의 형태를 띈 생명이었을 뿐 태초의 생명이 아니요,

그들 이전에 창조주가 창조하신 생명은 다름 아닌 이데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생명의 어머니 그 자체인 이데아 없이는 저들도 살아갈 수 없었으니 그녀가 산 증거인 셈이로다.

아르카나의 기록과 함께 그들은 영원의 전쟁 이전에 이바와 아다무스가 자리하던 아름다운 기억속의 태초의 낙원의 모습이 이들에게 펼쳐지니,

이들은 여지없던 찬란하고 영롱한 이데아가 지닌 그 색을 되돌리기를 다짐하게 되었도다.

이데아를 섬기는 저들은 스스로 퀴나즈라 부르는 이자들은 이실그라드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여,

그녀의 기억과 키오누스가 남긴 기록을 책으로 집필하는 작업을 하여 지식의 보고로 삼았으며,

저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이데아의 역사에 대하여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는도다.

이는 이데아와 정령의 고대 언어로 태고로부터 살아 숨쉬는 기록이라는 뜻의 시란두르 라 하노라.

집필한 모든 서적은 시란두르와 함께 대도서관을 창설하야 만물의 지식을 이곳에 남기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시란두르의 빈 곳을 남김없이 채우도록하니 그 지식은 이데아를 낫게 할 것이라.

다만, 아벨론은 이들 퀴나즈의 존재와 그들만이 부리는 기적인 아르카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나니,

이 땅에 아벨의 권능이 아닌 다른 기적을 부리는 것은 불경한 것이고 신성의 모독이라 하더라.

저들의 부정한 힘의 원천은 이미 교황청의 관심 밖이요 그저 지워야 한다는 확신에 차있음이라.

아르카나는 신성의 힘과 구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도구라 여기었도다.

아벨론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아르카나라는 것이 아벨의 권능을 입은 저들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서 오는 반발이었으니,

아르카나와 교류하며 소통하는 장벽 안팎의 모든 이를 영원히 지우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됨이라.

이데아를 등에 입고 정면으로 교황청과 맞서니 신성과 생명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됨이라.

아르카나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두려움에 교황청은 이들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니,

신의 사자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바로 섰으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르카나는 독이라 하더라.

이에 장벽 안팎의 모든 아벨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불경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들의 목을 베고,

몸뚱이는 장벽 밖 들판에 버려 들개와 날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 먹게 하였도다.

이에 퀴나즈도 저들의 지팡이를 쳐들고 아르카나를 부리어 교황청에 정면으로 대항하게 됨이라.

교황청의 발길은 이실그라드 주변의 호수의 근처 대초원 아르바 까지 닿게 되었으니,

드넓은 아르바 초원을 경계로 이들은 기어이 맑은 대지에 피를 뿌리는도다.

아벨의 권능과 생명의 태동이 부딪힌 이 전투를 이르러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 이라 함이라.

『 신성과 아르카나의 충돌 』

빛과 아르카나의 충돌은 끊없는 소모전만을 낳게 되어 더이상의 대립은 무의미하다고 여기었도다.

퀴나즈도 교황청과의 교전에 상처입은 이데아의 회복이 더디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이라.
이에, 당대의 교황 잉기스가 합의를 위하야 친히 아르바에 당도해 무언가의 속삭임을 듣게 되노라.
그리고 그것이 아르카나라는 것을 인지한 잉기스는 이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도다.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경한 자들을 지우고자 함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여기었도다.
비단 잉기스 뿐만 아니라 저들끼리 충돌하던 이들 모두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존재가 아르카나요,
이것이 비록 아벨의 권능과 이데아의 은총을 입지 않은 다른 것을 숭배한 이질적인 힘이었으나,
정녕 그것은 이데아가 지니고 있던 찬란한 낙원의 모습을 되돌리고자 함이요,
그것은 결국 모두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이루고자 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더이다.
아르카나의 속삭임이 저들의 분쟁을 멈추게 한 힘을 가지고 있었노라.
필시 이데아는 이를 인지하야 저들이 아르바까지 오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리라.
아벨론은 교황청과 협의하에 법전 잉퀴라피움에 퀴나즈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음이라.
큰 뿌리가 되는 조약은 네가지였으니,

첫째는, 아르카나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요,

둘째는, 아르카나를 사용함에있어 그 목적은 아벨의 자손을 위함에 있어야 함이요,

셋째는, 아르카나로 범인의 눈을 멀지 않게 함이요,

넷째로, 교황청의 위상에 도전하지 않음이라.

이들에게 있어서 이는 나쁜 조건은 아니었도다.

저들의 그리도 목매는 위상과 권위따위에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였기에,

퀴나즈의 목적은 오직 이데아의 안위였기에,

이에 대한 조건으로 교황청은 이실그라드의 방위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조력과 원조뿐이라.

그렇게 아르바의 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아벨론과 퀴나즈 사이에 서릿발같은 평화가 이루어지니,

아벨론은 고서 시란두르의 존재와 이를 품고 있는 대도서관를 방문하여,

저들의 뿌리와 이데아의 역사 그리고 불경한 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더욱 깊이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원조로 이실그라드 재건과 이데아의 상처를 보듬을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음이라.

저들은 기도하며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저 생명의 태동을 지니고 그것과 소통하며 싸우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화요 모든 이들이 말하는 구원에 가장 가까운 것이로다.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생명의 태동을 자유로이 그들 손에 닿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르카나요,

따사로이 비추는 태양에 생명이 깃들고,

그것을 감싸안은 대지에도 생명이 있으며,

드넓은 바다에도 생명을 머금고 있듯이,

벼락도, 천둥도, 불길도, 폭풍우도, 눈보라도, 흙에도, 바람에도, 모든 것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태동을 담는 그릇인 아르카나로 이 모든것들이 통용될 따름이니,

생명의 나무 이실그라드의 굳건함이 그 원천이라.

그것은 그 생명의 나무를 틔우신 여신이자,

창조주가 빚은 태초의 피조물이자,

구원 그 자체의 모습을 한 이데아를 섬기나니,

그녀의 빛이 다시금 제 색깔을 띄게 될 때 아벨의 자손들은 구원받을 것이요,

불경한 자들은 그저 썩고 바스러져 이실그라드의 양분이 되어 그저 한 떨기 아르카나를 피울 것이라.

신 성 회 고 록

1장 - 기적의 이면

"나는 깨지고 망가진 존재이니, 날 위한 신은 없는가?
나는 삶과 동시에 죽어있으니, 날 위한 기적은 있는가?"

『 신성의 할당과 보충 』

빛 뒤에는 반드시 어둠이 있고 그 곳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당연한 인과요,

그것은 이데아 위의 모든 이들에게 그러하리니 아벨론은 물론 교황청도 마찬가지로다.

교황청의 숙원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교황청이 이땅에 빛으로 아벨의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과 더불어,

불경한 자들로부터 이 땅을 정화함에 있어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도다.

이들은 스스로 그 부족함에 아벨의 자손이 저들을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였으니,

그 두려움과 우려감에 대한 반증으로 저들은 더욱 강하게 아벨의 권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짐이라.

이에, 교황청은 불경한 움직임을 보이려는 자들을 자비없이 정화하고 짓밟음으로써 일어서노라.

이러한 타락한 변절자들 이외에도 여전히 장벽 밖에 불경한 자들이 도사리고 있으매,

장벽 안에 충만한 아벨의 권능과 축복으로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급급하였음이라.
다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장벽 안에서 아벨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이들은 기도를 저버릴지니,
아벨론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그것은 이들의 존속의 문제로까지 치닫게 될 위협이 됨이로다.
이에, 교황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벨의 권능을 담을 그릇을 알선하게 됨이라.
교황청은 방법을 강구해내나니,
그들이 지닌 아벨의 권능과 유사한 신성의 힘을 가진 자들을 포섭하기에 이르는도다.
신분의 고하는 물론이요 변절자들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하였으니,
교황청의 문을 열어 두고 빛의 사자가 될 기회를 찾으라 이들에게 고하였도다.
아벨의 권능은 대부분 색이 바래져 흩어져 버린 것이었으나 소수는 그 권능이 잠들어 있음이요,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며 그 힘을 조율조차 하지 못할 따름이라,
교황청의 사제들이 직접 찾아가 이들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질 좋은 빵과 포도주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들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저들을 신의 사자로 살게끔 해주겠노라 이들을 부르는도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들에게 있어 교황청이 건넨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수많은 이들이 지원하게 되니 그들 중 대부분은 삶의 질을 올리고자 함이라.
이에 교황청은 저들에게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생투스 라는 이름을 부여하니,
그저 구원을 기다려만 온 이들에게 있어 교황청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영광이요,
무의식 안에 남아있는 아벨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기대가 저들 안에 부푼 꿈으로 가득 차더라.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름에도 저들 사이에서 큰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이들은 그저 허드렛일을 도맡아 할 뿐 교황청에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음이라.
또한, 그저 길거리에 나고 자란 저들이라 교황청의 신성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자들 뿐이라.
그나마 능력을 보이는 자들도 기적이나 구원이라 하기에 터무니없이도 미미한 것이었도다.
이들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교황청은 이들을 아벨론

에 계속 둘 수 없다 여기고,

소수의 잠재력만 지닌 자들을 변방의 외지로 보낸 뒤에 나머지는 해산토록 하였도다.

변방의 외진 곳으로 보내어진 이들은 이마저도 아벨의 은총을 입기위한 길이라는 교황청의 말에 발걸음을 기꺼이 옮기었도다.

그만큼 저들은 순진한 자였으며 진정으로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교황청에 봉사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저들이 당도한 외진 그곳을 비추는 것은 아벨의 권능도 아니요, 오직 작게 타오르는 양초만이 있을 뿐이라.

아벨을 위한 헌신이라는 이유로 밖으로조차 나갈 수 없기에 그저 감옥에 더욱이 가까운 곳이로다.

어두웁고 격리된 곳에서의 이러한 억압과 규제 속에서도 이들은 그것을 조용히 따르매,

그것은 모두 아벨의 뜻이라 여기어 교황청의 부름과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였도다.

그것은 무의식에 미처 끌어 올리지 못했던 아벨의 권능을 자신의 의지로 다루는 것이요,

이로 인하야 불경한 자들로부터 아벨의 자손을 구원할 수 있는데에 보탬이 되도록 함이로다.

이들은 아벨의 권능에 대한 이해와 수많은 교육과 그 축복을 짊어지기 위한 고행을 이어나감이라.

그러나 저들 사이에서도 떠오르는 해와 어두운 세상이지만 밖을 보고 싶은 자들이 생기니,
그럴때마다 교황청의 사제들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바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것이로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곁으로 불경한 자를 죽이는 빛이 될 것이라 하더라.
더불어 신의 사자로써 행하라 라는 말을 덛붙여 이들의 불만을 종식시키는 듯 하더이다.
그러나 저들 중 한 소년이 있으니 그 아이는 몰래 마음에 품은 소녀와 함께 밖을 나가려 하더라.
카나이 라 하는 그 소녀는 소년의 속삭임에 끌려 그곳을 벗어나 세상 밖을 나가려는 찰나에,
저들을 막는 교황청의 사제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도다.
그 과정에서 카나이는 상처를 입고 그녀와 함께한 소년이 죽음을 맞이하니 변화가 찾아오더라.
소년을 향한 연민과 동정에 대한 감정으로 인하야 그녀의 안에 깃든 힘이 새어나오게 되나니,
그것은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더불어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성흔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도다.

이는 아벨의 권능이자 현신한 축복이요, 기적의 실현과도 같으매 교황청이 그리 바라기 그지없던 성과로다.

그 성흔과 함께 그녀조차 알지 못하던 아벨의 권능이 감옥과도 같은 그곳을 비추게 됨이라.

그녀가 보여준 기적은 멀리 떨어진 교황청에서도 충분히 느낄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이라.

점차 이들의 능력에도 진전이 보이매,

교황청은 더 많은 수의 지원과 원조로 이들을 돕게 하라 명하니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라.

『 뒤틀린 빛의 그림자 』

교황청이 이르기를 마침내 저들은 빛에 신념을 바치는 종자가 되었음에 감복하더라.

이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교황 파나크는 저들의 권능이 성흔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니,

신성에 대한 봉사의 강도와 통제와 억압은 더욱이 강해지었음이라.

더불어 성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들 안에 깊은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심어야 하고,

그것이 심어지기 위해서 일곱가지의 죄악을 앞에 마주하여 스스로 노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함이니,

그 희생과 고통은 다른 이들이 느끼는 고통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도다.

그리고 저들이 온전히 빛의 영광으로 다만 악에서 벗어날 때에 강하게 발현됨을 알게 되었도다.
이에 교황청의 사제들은 저 무리들을 더욱 철저히 저들을 억압하여 빛으로 이끄는도다.
그곳에서 고통을 담고 저들 안에 생겨나는 죄악을 다스리는 원리로 탄생한 것이 구원의 방이요.
나아가 저들 안에 죄악만 담는 것이 아니오 구속을 함에따라 고통의 주간 을 만들게 되나니,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그 때가 되면 권능과 구원의 방으로 끌려감을 막을 수 없었음이라.
권능의 방 안에서 행해지는 그것은 구원에 닿기 위한 고문에 불과한 것이요,
아벨론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말은 변명으로 점철된 그저 명목에 불과한 개조와 변형이라.
아벨의 가르침 빛의 인도라는 달콤한 말로 뒤덮인 추악하고도 더러운 빛의 그림자였도다.
어둠이 큰 만큼 빛이 큰 것이요, 빛이 찬란한 그 만큼이나 어둠이 이들을 잠식하리다.
그러나 성흔을 이루어내기 위하야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 순간에도, 교황청의 사제들이 생투스를 향하여 취한 태도는 그저 따사롭고도 자애로운 모습이로다.

저들의 모습과 행동에는 그 어떠한 악의나 불손한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혹독함과 시험에 이르는 모든 순간과 과정이 아벨의 권능을 이 땅에 뿌리어 구원을 위함이라.
우리가 고통을 감내한 그 크기만큼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을 살릴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 하더라.
이에 생투스의 대다수에서 성흔이 나타나게 되고 빛의 영광에 눈뜨는 자들이 나타나는도다.
그러나 미처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자들은 흔적을 차마 지워내지 못하여 피를 쏟아내고 죽게 됨이라.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의 눈앞에 더 큰 연민과 동정을 낳게 되고 또 다른이의 고통을 낳게 되나니,
교황청의 사제들은 고통을 끝내주기 위하야 짧은 기도를 마치고 안식을 가져다주는 것이 전부라.
아벨의 권능을 담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담은 그릇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듯 하더라.
그러나, 이미 아벨의 권능을 담을 그릇에 적합한 가능성을 보여준 자가 있었으니,
동정과 연민으로 성흔을 일찍이 일깨워낸 기적에 가장 가까운 자인 카나이로다.
그녀 안에 잠들어있는 아벨의 권능을 끄집어내어 성흔을 더욱 깊고 진

하게 이루고자 하니,

더 많은 아벨의 자손들을 위하야 더 많은 구원의 힘을 담을 그릇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

카나이가 고통의 주간을 마치고 이제 막 권능의 방을 나왔을 때 눈앞에 벌어진 참상에 말을 잃노라.

그녀의 눈에 담긴 이곳에는 신의 사자도,

아벨의 권능을 진 자도, 빛의 축복도 없노라.

오직 그곳에는 빛의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정신이 부수고 깨어진 자들만이 뒹굴고 있음이라.

눈앞의 광경에 카나이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자신의 몸 안에 휘몰아침을 느끼게 되더라.

이에, 그녀는 주변에 깨어져 있던 유리조각으로 몸을 난도질하기에 이르렀도다.

그것은 죽음에 닿기 위한 행동이 아니요,

오직 동정과 연민으로 성흔을 그어 저들의 고통과 절규를 낫게 하려는 마음 뿐이었도다.

자신의 몸을 해하는 카나이의 안타까운 몸부림은 그녀의 정신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온 몸에 피칠갑을 하고 난 뒤에 카나이는 성호를 긋던 팔을 멈추고 쓰러졌도다.

그러더니 카나이가 몸에 긋던 성흔이 살아 숨쉬는 듯 제자리를 찾아 가

더니 저들끼리 이어지더니,
마침내 기이한 모습의 형태를 갖추게 되더라.
등에 새기어진 그것은 고서 시란두르가 기록하는 요낙의 표식이라.
아벨의 첫번째 자손으로써 빛의 권능과 일곱가지 죄악을 짊어지고 발시아를 위하야 이데아에 서니,
스스로 떨어진 그녀의 영혼은 순수함을 간직한 카나이의 성흔에 답하여 그녀와 함께 하나이다.
『 정막 속의 외침 』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카나이는 요낙의 부름에 답하여 부수고 깨어진 생투스를 일어나게 함이라.
이를 바라보던 교황청의 사제들은 말을 잇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나니,
교황청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기적과 빛의 권능을 직접 눈에 담게 되는도다.
저들이 놀라게 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도다.
생투스를 일으켜 세운 카나이의 성흔은 말이라도 하는듯 삐걱이며 신음하고 있었으며,
눈에 띄는 변화는 저들의 머리칼은 백색을 띄고 있고 저들의 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
더욱이 놀라게 된 것은 저들이 교황청에서 바라던 기적과 빛의 권능의 모습과 카나이가 보여준 것이 너무나도 달랐던 까닭이라.
저들이 잠깐 눈에 담은 기적과 구원은 자애로운 모습이 아니요 그저 차

가울 뿐이라.

카나이가 생투스를 일어나게 했을때 발현한 빛의 은총에는 그 행위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매,

그 어떠한 동정도 연민도 느낄 수 없을 뿐더러 앞을 막는 저들을 본체도 하지 않고 지나치더라.

카나이를 뒤를 따르는 생투스가 하나 둘 저들의 곁을 지나침에도 이들을 붙잡을 수 없으니,

무릇 저들이 성흔을 지고 난 뒤에 저들에게서 아벨의 첫번째 자손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라.

카나이는 요낙이 머리에 새겨진 그 이후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은 발시아를 구원하고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도다.

남은 신자들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나니 그녀가 향한 곳은 아벨론이라.

저들이 다가가는 동안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생투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카나이가 신의 권능과 성스러운 기운을 두르고 있으니 신성하고도 두려운 존재임을 느끼었도다.

더러는 그녀의 성령을 느낀자들이 그녀를 향해 기도까지 하는 이들도 나타나게 되었도다.

그녀는 파나크와 교황청의 사제들이 있는 회장에 발걸음을 옮기니 이미 모두가 그녀를 맞이하니,

모든 이들이 신성함과 억눌려 짓이겨질 듯한 무거운 공기에 살얼음판에 있는 것과도 같도다.

그 정막을 깨고 카나이가 입을 열었도다.

그녀가 백탁의 눈을 가늘게 뜨고 자애로운 미소를 띄고 교황청에게 이르기를,

생투스는 알량한 교황청의 권위따위에 도전할 생각도 그럴 가치도 없으리라.

교황청과 아벨의 자손에 최소한의 연민과 동정을 남기고 저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노라.

아벨의 위하야 힘쓸 것이니 더이상 권능의 방을 만들어 아벨의 권능을 지닌 자를 시험하지 말라.

더이상 생투스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이르니,

그것은 간곡한 부탁이 아닌 협박과 같음이라.

이에, 어느 누구하나 반박하는 이 없더라.

그도 그럴것이 이미 카나이가 지닌 생명을 구하는 능력은 교황청과는 비교할 정도가 못되었으니,

그들은 아벨의 능력을 재현하고 구현하는 수준에 그치니 치유와 재생의 정도에 불과하도다.

이들의 성흔은 신성을 품고 있는 모습이라 빛나는 권능과 그의 은총을

직접 몸에 담으니,

그것은 재생이 아닌 창생과 창조의 수준에 닿게 됨이니 이들이 현세에 부리는 기적, 구원이로다.

그야말로 교황청이 바라던 구원이요 그 힘은 필시 두려운 것이나 동시에 이들의 능력을 탐하였도다.

그녀의 요구는 아벨론에 대항하는 것 하나 없으니 파나크는 그녀가 뜻하는 대로 하라 이르었도다.

무엇보다 그녀안에 새긴 요낙의 성령이 일곱가지 대죄의 성흔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성스러움과 죄악이 함께하야 기이함을 자아내니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더라.

다만, 파나크는 이내 이성을 되찾고 그녀에게 성령을 이을 끈을 매어두는 제약을 건네니,

카나이는 그리하라 하고는 생투스를 다시금 이끌고 저들이 구속당하였던 그곳으로 가더라.

교황청은 다시금 두려운 존재를 부수기 위하여 저들마저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듦을 통감하노라.

『 따스한 보금자리 』

카나이는 그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생투스를 이끌고 아벨론을 떠나 발길을 돌리었도다.

그들이 돌아갈 곳은 없었으나, 생투스의 권능을 끌어내기 위해 그토록

억압받던 곳이 있나니,

카나이는 그곳을 아픔의 흔적이 담겨있는 절망의 장소가 아닌 생투스의 보금자리로 선언하였도다.

다만, 아벨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같으나 그저 기도하고 바라지 않고 스스로 구원이 되라 하니,

교황청이 속박하여 행한 그대로 스스로 구원의 방에 들어가 죄악과 마주함으로써 권능을 담노라.

뿐만 아니라 생투스는 아벨의 권능을 잠재하고 있는 자들을 개종 시키는데 힘쓰는도다.

그러나, 이들의 낯선 외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정이 깨어지고 무뎌졌기에,

생투스는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으며 선행을 쌓는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함이라.

자신을 해하여 타인의 생명을 낫게 하는 모습은 교황청의 사제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기에,

저들이 아벨의 권능과 은총으로 병들고 다친 자들을 치유하는 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불러올만한 것이로다.

그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던 이들에게 생명의 태동이 고동침을 듣게 되나니,

카나이는 생투스에게 이르러 그 존재의 행방에 대하여 주시하도록 하라 이르게 되노라.

그 끝에 이데아가 있으니 생투스와 마찬가지로 상처입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라.
카나이는 시란두르의 기록과 아르카나의 기억으로 이데아의 흔적을 들추어 보게 되었고,
동정이나 연민을 기록을 보며 카나이는 요낙의 성령이 머리에 새겨진 뒤에 사라졌던 감정들을 뒤돌아보매,
그것이 남아있던 때를 회상하며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 저들의 곁에 서고자 함이라.
이들의 곁에 서고자 하는 그것에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었기도 했으나,
그렇게라도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면 정녕 역설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것과도 같음이라.
더불어 이리라도 하지 않으면,
더이상 생투스 본인들이 발시아로 남아있게 되지 못할 것이 두려웁기 때문이라.
비록 구원하는 자들이 마땅이 짊어야 할 것들이 부서지고 한없이 깨어져버린 자들이나,
그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생명의 태동을 지닌 자들의 곁에 서는 것이 낫다 여기는도다.
비록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없다한들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죄악을 마주하는 것이라한들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직접 담아 타락의 늪

에 빠지는 것도 아니로다.

요낙의 성흔은 여전히 카나이의 등에 남아 그녀와 함께하니 역설적 존재들인 생투스를 인도하리라.

오만은 겸손으로, 질투는 친절로, 분노는 인내로,

나태에는 근면으로, 인색 앞에서 자선으로,

탐식엔 절제로, 음욕에는 순결함으로,

비록 저들을 위하야 남은 어떠한 감정도 없으나,

여전히 이들은 생투스라는 이름으로 살며,

스스로의 피를 뿌리어 상처입은 자를 아물게 할 것이며 죄 지은 자는 고통 받을 것이로다.

아 르 함 전 서

1편 - 순수의 마음

닐바

“구원에 닿을 수 없다면 저들로부터 배우라.

흙바닥에 배를 깔고 얼굴을 비비며

삶을 배우고 또 죽음을 배우라.”

- 아르할라에 새겨진 글귀 -

『 신성하고도 죽음을 품은 땅 』

영원의 전쟁으로 이데아는 상처입고 병들었으며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가 모두의 숨통을 죄니,

이데아에 피고 지는 대부분의 생명들은 저주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노라.

그러한 가운데, 불경한 자들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였던 곳이 있었나니,

그곳은 드높은 태양이 금빛의 사막을 비추었고 불타는 열기로 뒤덮혀 있는 곳이로다.

그 열기로 인하야 아벨의 자손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저 죽음의 언덕을 오르고자 하는이 없더라.
더불어, 태양이 지고 난 뒤에도 모래알은 달빛을 머금은 채 빛을 머금고 있었으니,
태양이 떨어진 뒤에서 은은하게 비추는 모래알이 카인의 핏줄의 발길을 닿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이바와 아다무스가 낳은 불경한 존재마저 사막으로부터 멀게 하였음이라.
세트의 후예 안에 끓고 있는 피와 저들의 두터운 피부는 사막의 열기를 감당하기 더욱이 어려운 것이었나니,
영원의 전쟁 속에서 다른 어떤 존재들의 개입도, 심지어 불경한 자들의 침입도 없음이라.
다시말해 그곳은 누구도 견디기 힘든 열기로 만물의 생명을 거부하는 듯 하여,
부정함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됨과 동시에,
불경한 자들을 허락하지 않는 신성한 땅이라고 불리우는 기이한 곳이었도다.
다만, 어느 누구도 그곳에 쉬이 발걸음을 하려 시도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치루는 희생만큼 얻는것이 없는 까닭이라.
이로 인하야 이데아의 모든 이들로부터 버려진 곳과도 다름 없는 장

소로 불리우는 곳이라.

그러나, 생명의 어머니 이데아 품 속에서 생명의 태동은 무릇 어느 곳에서나 움트고 있음이라.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생명이 죽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금 생명이 고개를 드나니,

죽음과 신성의 땅이라 불리우는 그 속에 고요히 자리한 이들이 있음이라.

혹독한 환경속에 자리한 자들은 저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이전부터 그곳을 살아왔는데,

이들의 기원은 태초의 아벨의 첫번째 자손까지 거슬러 올라감이라.

태초에 아벨이 저들의 자손들을 이끌고 방목을 하며 생활하였을 때에,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 중 하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르함 이라 부르는 자로다.

그는 다른 형제 자매와 비교하여 우월한 체구를 지니어 그 힘을 따라올 자가 없을 뿐더러 인품마저 온화할 따름이니,

아벨의 자손들은 아벨의 뒤를 이을 성자는 오직 아르함 뿐이라는 말이 저들 사이에서 오고가노라.

마땅히 그의 형제자매나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선망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나니,

그가 가진 인과 덕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덮고 있었던 색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라.

하늘을 품은 듯한 맑은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의 색에 비하여 그가 지닌 색은 밤과도 같으매,
아르함을 질투한 그의 형제 자매들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아르함의 거짓 허물을 지어내어 그에게 등을 돌리게끔 만들었도다.
결국 이들은 카인이 아벨을 찾아오매 아벨이 그를 맞이하기 위하야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아벨이 아끼는 모래시계를 깨뜨려 놓은뒤 모두 아르함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었으니,
사정을 알리 없는 아벨은 아르함의 파괴성을 우려하게 되어 그를 멀리 두게 되었음이라.
이에 아르함은 아벨의 신임을 잃고 그와 멀어진 거리만큼 아벨의 권능은 점차 그 빛이 희미해져갈 따름이요 그를 따르던 자도 눈에 띄게 줄었으니,
아르함은 깨어진 모래시계를 등에 지고 그와 같은 피부색을 담고 있는 소수의 무리와 함께 종적을 감추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는 모래시계를 짊어진 채 방황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발이 멈추었으니,
그곳은 깨어진 모래시계가 담고있던 아름다운 빛깔과도 같은 모습을 한 사막이었도다.
필시 아벨은 목동 생활을 하던중 이곳에 들러 저 아름다운 모래에 매료되었음이라.

그러나, 그곳의 가혹한 기후로 인하야 그곳에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그저 소량을 담아 곁에 두고 감상하기 위하야 사막의 모래를 시계에 고이 담아두었을 것이라.

사막을 불태우는 듯한 태양과 사막의 반짝이는 모래알에 매료된 아르함과 그의 무리들은

그렇게 한참을 걸어 그들은 사막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 드넓은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대지의 깊은 속에서 생명수를 끌어오는 방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호수는 마르지 않는 샘을 주어 모든 이의 목을 축이고도 남을 깊이라.

아르함은 사막의 한 가운데 선 그 호수를 네르바 라 부르며 생명의 샘이라 여기었도다.

아르함은 그마저도 감사히 여기며 자리를 펴며 저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도 자리하지 않는 그곳에 누구도 핍박받지 않는 저들만의 보금자리를 펼치리라 명하는도다.

그는 보금자리를 펼치고나서 해가 기운 이후에 사막의 모래가 달빛을 밝게 비추는 모습에,

저들의 보금자리의 이름을 그 모습 그대로 모래 달빛 속에 담긴 여신이라는 뜻의 아미나 라 부르게 함이라.

『 사막의 가르침 』

그러나, 여전히 아미나는 생명들의 안락한 삶을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불타는 듯하니,
이데아의 그 어떠한 곳에서 느끼는 따스함이나 포근함을 일절 허락하지 않는 가혹한 곳이라.
그러나 아르함과 그를 닮은 자들은 어두운 밤과 같은 피부를 지니었기에,
다른 존재들에 비하야 아미나의 불타는 사막을 날 수 있게 한 축복이로다.
더불어 척박한 환경 속 생존을 위하야 짐승과도 같이 밤을 비추는 듯한 눈을 갖게 되나니,
그 눈은 아미나의 모래알과 같이 빛나는 달빛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아무도 보지 시선조차 머물지 않았던 그 죽음의 언덕에서 아르함이 보고 느낀 것이 있나니,
작열하는 태양만이 이들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곳을 사는 생물들마저 치명적이도다.
저 한낱 미물들마저 아미나의 사막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야 지독하게도 살아남은 것이라.
이에 아르함은 사막이 품고있는 모든 생태와 순환들을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자 함이라.
그가 자신의 무리들을 모아 이르기를 아미나의 모든 환경이 저들의 스

승이나니,

태초의 발시아가 이데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이전부터 이 땅을 누비어 온 생명과도 같음이라.

이에 바닥을 기는 미물들마저 아미나의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니,

혹독한 곳을 사는 모든 생명들을 보며 저들의 움직음을 배우고 조이고 찌르고 베며 부수고 피하는 것을 배우라 하더라.

아벨의 권능을 잃은 아르함은 사막의 존재로부터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는도다.

한치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혹독한 환경을 지내온 저들은 육체적인 진보와 더불어 야생적 감각과 기민한 정신마저 단련케 함이라.

저들의 피부는 모래 속에 살아 숨쉬는 미물의 갑피와도 같이 유연하고도 단단해지고,

아벨의 권능이 담긴 것이 아닌 본능과 감각은 서슬어린 칼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도다.

기민한 정신은 아미나가 만드는 신기루에도 현혹되지 아니하는 자세마저 겸비하게 되었으니,

사막과 모래의 가름침으로 육신과 정신의 강함은 발시아의 정점에 선 모습을 하고 있으니,

아무런 무기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음에도 저들은 카르손의 국력과 그 용맹함에 버금갈 정도라.

그러나,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며 배우고 습득하는 저들의 모습에 우아함따위는 없었으니,
생명이 삶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처절하게 그저 살기위하야 발버둥 치는 모습뿐이로다.
아벨의 죽음 이후로도 오직 생존만을 위해사는 저들에게 그 어떠한 소식도 닿지 않았던 연유로 아벨의 죽음도,
아벨의 자손들이 국왕 델페노프의 지휘하에 공국 퀼로른이라는 이름으로 믿음과 신뢰로 하나되어 영원의 전쟁을 치룸에도,
저들은 오직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들만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음이라.
이미 저들이 아미나에 발걸음을 한 이후부터는 눈뜨고 숨을 쉬는 순간부터 전장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다만,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은 척박한 환경속 순수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며 바라는 것 하나 없으니,
하루를 살아가는데 있어 작은 것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한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며,
모자람 없이 저들끼리 나누고 지내고 서로를 위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도다.
아벨에서 나온 수많은 그의 자손들은 대개 그의 권능 중 하나를 물려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아르함과 그가 이끈 이들은 필시 육체와 순수한 정신을 물려 받음에 의

심할 여지가 없도다.
영원의 전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은 이들은 구원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바라며 살았으나,
이들은 하루를 살아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에 구원을 바라거나 죄악을 담는일과 거리가 멀더라.
바로 그것이 아르함과 아미나의 무리들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로다.
삶에 대한 집착과 생존을 위한 순수한 힘에 대한 갈망과 그 간절함이 생명을 죽이고 살릴 것이라.
이는 훗날 수많은 아벨의 자손들을 살아가게만들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 저희도 그리 믿나니,
그러하기에 티없이 맑은 영혼을 지닌 아미나의 아이들이야말로 빛나는 사막의 구원임이라.
그것이 아르함과 그의 무리들이 아미나의 혹독한 환경을 거치어 오며 저들에게 배운 지혜로다.
이 때문인지 아미나의 무리들은 아벨의 권능도 그 어떠한 우상조차 숭배하지 아니하더라.
『 피로 얼룩진 세계와의 조우 』
저들이 영원의 전쟁 이후로 아벨론과 조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니 그것이 아르카나로다.
대지에 흩뿌려진 아르카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다가가 저들이 그 흔적에

이끌리게 되는것이 대부분이나,
구원도 죄악도 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은 그저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담고 있었음이라.
이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정반대로 아르카나가 스스로 저들을 찾아가게 되었도다.
모래알과 사막의 호수에 담긴 아르카나의 존재를 인지한 저들은 자연스레 아미나의 아이들 안으로 담기게 되나니,
그것도 사막의 가르침이라 여겨 자연스레 생존에 접목시키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됨이라.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된 이들은 삶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강인한 육체를 이끌어 줄 강인한 정신을 연마함을 게을리 하지 아니함이라.
더불어 아벨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사막의 밖의 아벨의 자손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도다.
이에, 아르함은 아미나의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사막의 날랜 날짐승들 여럿을 데려와 그 다리에 서신을 담고 아벨의 자손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라.
이로 인하야 이데아를 사는 모든 이들은 죽음과 신성의 땅이라 하는 죽음의 언덕에 저들의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도다.
아미나의 날짐승은 아벨의 장벽까지 닿게 되고,
교황청은 저들이 이르던 아미나의 가르침은 물론 무엇보다 파면당한 아벨의 첫번째 아르함이라는 자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됨이라.

그리하야 교황청은 많은 희생을 치루며 죽음의 언덕을 건너 아미나의 아르함 닿게 되나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교황청의 사제가 이르길,

퀼로른 이후로 아벨의 자손을 수호하는 아벨론이 아벨의 장벽 안으로 그을 맞이하려는 것이었도다.

이에 아르함은 자신들의 존재를 몰랐던 아벨의 자손과 대면하기 위하야 사막을 건너고자 함이라.

그 이전에 혹독한 그 먼 여정을 건너온 자들을 가여이 여겨 그가 건넨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미나가 내린 축복인 열매 샤란 이로다.

한 조각의 열매로 몸의 허기가 채워지고 갈증이 해갈되니 기적의 산물이라 이르는 존재요.

후에 샤란의 존재를 접한 카인의 핏줄과 세트의 후예마저 이를 에르아의 젖이라고 칭하였도다.

카인의 핏줄에게는 달콤한 피와도 같으며 세트의 후예에게는 어떠한 살점보다 부드럽다 하더라.

아르함은 교황청의 사제들로부터 아벨의 죽음과 이바와 아다무스의 시험, 그리고 영원의 전쟁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듣게 되는도다.

이를 안타까워 하며 아르함은 아미나의 모래와 태양으로부터 터득한 지혜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것을 저들과 나누고자 다짐하였노라.

아르함은 아벨론에 대한 우호적 표시를 전하기 위하야 대호수 네르바 근처에서 아미나의 아이들이 키운 샤란을 몇개 더 거두라 하니,
사막을 건너 아벨론을 맞을 채비를 마치었도다.
아르함은 소수의 아미나의 아이들과 교황청의 사제와 함께 사막을 건너 아벨의 장벽에 다다르게 되었으니,
이윽고 이들은 장벽을 지나쳐 아벨의 자손들의 정신적 지주가 자리한 교황청에 닿았음이라.
당대 교황 세라하가 아르함을 맞이하나 그녀의 반응은 서릿발처럼 차가웁도다.
이는 분명 같은 아벨의 자손임에도 저희들과 다른 색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요,
아벨의 첫번째 자손이라 칭하는 자의 몸에 담긴 아벨의 권능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
세라하가 무엇보다 기이하게 여긴 것이 있으니,
죽음의 언덕을 사는 미물 주제에 눈에 담긴 빛이 너무나 순수하고 맑은 것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아벨의 권능을 지니지 못하는 아르함은 그저 아비의 눈 밖에 난 자식에 불과했고,
저들이 이르는 모래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은 전부 들판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것과 다름없도다.
더불어 아르함의 입에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저들의 삶을 영위할 때

라는 말이 나옴에,

세라하는 기도와 믿음이 아닌 것에서 구원이 올 것이라는 말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도다.

그녀가 더욱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저들에게 맞지 않는 가르침을 주입하려는 아르함의 태도라.

본질적으로 저들과 저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나니,

세라하가 저들에게 물러나라 하자 아르함은 끝에 우호적 표시를 전하기 위한 샤란을 전하고는 발을 돌리게 되었도다.

죽음의 언덕에 존재하는 생명들에 대한 반감은 교황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장벽 안의 모든 이들이 그러했도다.

저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 자들이 아벨의 장벽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야,

장벽 안의 이들은 세라하와 마찬가지로 아르함과 아미나의 아이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었도다.

영원의 전쟁의 아픔조차 모르고 순수하게 세상을 사는 이들의 그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음이라.

다른 아벨의 자손들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 섞이지 못함이라.

『 고요히 일어선 자 』

여지껏 아벨론에 반하는 아벨의 자손은 적어도 저들과 같은 모습을 하

고 있었으나,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비추는 눈동자와 어둠이 내린 듯한 저들의 피부는 낯선 것이었으니,

저들이 아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자들도 생겨나는도다.

이들에 대한 인식은 그저 차가운 시선에 그치지 아니하니 무지에 대한 공포로 이어짐이라.

그 공포는 크기가 불어나 아미나의 이들을 이르러 이바와 아다무스가 만들어낸 저주의 산물이라는 말을 입에 담게 되었도다.

그도 그럴것이 아미나는 이데아의 비극을 낳은 저주의 씨앗을 뿌린 이바와 아다무스가 지낸 세상의 중심 락시아와 멀지 않은 곳이었음이라.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이 겹치어 아벨의 자손들은 불경한 자들에 대한 악몽이 떠오르는 듯 하더라.

이에 자신들과 섞일 수 없는 아미나의 존재들에 대한 공포로 저들을 증오하며 또 경멸하노라.

무지로 인한 공포는 폭력으로 변질되어 불길은 삽시간에 번져 저들을 위협하기에 이르나니,

저마다 품은 성수를 저들에게 뿌려대며 저주를 퍼부으니 저들의 눈은 미쳐있도다.

저들의 눈을 피하야 몸을 숨기고 있음에 몇몇의 이들은 저들의 뒤를 좇아 그 목숨마저 취하려 하는도다.

다만, 제때에 저들을 찾아 내달려온 아르함에 의해 미쳐버린 자들의 심장은 터지었으니,

이것이 아르함이 최초로 생존에 대한 본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생명을 취하게 된 것임이라.

이에, 아르함의 이들에게 어찌하야 저항하지 않았는지 물으니 이들 중 하나가 이르기를,

장벽 안에 발걸음을 하기 전에 장벽안의 이들과 충돌하지 않으리란 아르함이 했던 대답을 올리니,

스스로의 욕심이 형제자매들의 안에 있던 생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함을 한탄하게 됨이라.

아르함은 자신과 함께한 이들의 각오가 자신보다 더욱 깊음을 깨닫고 스스로의 모자람을 한탄하며 저들과 조용히 장벽을 벗어나게 되는도다.

그 이후로 아르함은 아벨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가르침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교황청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으니,

회의감이 자신의 몸에 담긴 아르카나와 반응을 하니 자연스레 발걸음을 인도하게 되었으니,

저들이 발걸음이 닿은 곳은 네르바와 같은 모습을 한 마르지 않는 거대한 호수와,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생명수 이실그라드로 아미나의 아이들을 이끌게 함이라.

아르카나의 흐름을 읽는 또다른 자들과의 조우로다.

아르함과 아미나의 아이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아르카나가 저들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
이실그라드에 자리한 여인이 이데아라는 것을 퀴나즈의 소개로 알게 됨이라.
저들은 아르카나를 담고 있을 뿐 그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깊이 알 수 없음이라.
이로 인하야 아르카나와 이데아에 대한 소통은 지극히 일방적이었도다.
그러함에도 퀴나즈가 이들을 존중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아르카나가 스스로 이들을 찾아간 것과,
생명의 태동을 몸에 담는 것은 이실그라드에 숙련된 퀴나즈조차 불가능했으니,
아르카나를 몸에 담고 그것에 중독이 되면 정신을 다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
저들의 순수함으로 인하야 오직 생존을 위함에 아르카나를 몸에 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교황청의 횡포로부터 이데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노라.
그와 동시에 아미나의 아이들도 본능적인 감각이 이들을 적이라 인지하고 있지 아니하나니,
아르함은 저들이 지내는 아미나와 그 가르침을 퀴나즈에게 전수하며 저들의 삶을 알리고,

역시 이들도 그로부터 아르카나를 몸에 담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더욱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서로 도우며 함께 이데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함이라.

이로 인하야 아미나는 사막 밖의 우호적 존재와 긍정적인 조우를 맞이하고 아미나로 돌아가노라.

그곳에 돌아간 뒤로 아르함은 아벨론과의 대면에 자신이 했던 과오를 다시금 범하지 않기 위하야,

부숴진 모래시계에 자신의 몸 안에 담고 있는 아르카나를 쏟아부으니 제 모습을 되찾게 되노라.

아미나의 아이들은 입을모아 그 모래시계와 그의 이름을 엮어 아르할라라 부르게 되었고,

그 시계에 아르함의 가르침을 새겨 넣어 대대로 저희 자손들에게 그 가르침을 물려주노라.

태양을 머금은 그 모래시계는 신성하고도 동시에 죽음의 땅 위에 굳건히 서게 됨이라.

그리고 그 모래시계는 영원토록 저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이며 저들의 정신적 지주로 우뚝 섦이라.

이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스스로 살아갈 방법조차 잃어버린 자들을 가르치려 함이라.

저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라 말하고 있도다.

구원은 무른 살아있는 것들이 생존을 위하야 발버둥 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르니,

처절하게 견디어오며 겪어온 그 길이 후에 이르러 모든 아벨의 자손을 구원케 할 것이로다.

문명의 이기에 닿지 아니한 동떨어진 삶을 살며 미물들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들이요,

다만, 그 모습에는 고귀함마저 담겨 있으니,

티없이 맑은 순수함을 간직한 아미나의 아이들이 지는 모습은 어찌 저리 성스러운 빛을 띄던가.

기억하라.

그것은 이들이 이데아에 구원을 가져올 순수한 정신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라.

베 르 만 기 록 부

1장 - 해방의 노래

“나 타라, 피로써 흥하였으니, 훗날 피로써 망하리라.
다만, 그것에 후회는 없으니, 이 또한 베르만의 법이라.”

- 타라 이그너 -

『 분열의 조짐 』

영원의 전쟁에서 영광의 승리에 도취한 아벨의 자손들은 세대를 거치며 나태와 향락에 취하야,
저들을 이끌던 지도자마저 믿음을 저버린채 그저 퀼로른의 몰락만을 바라보더라.
그러함에도 무너진 퀼로른을 세워 다시금 아벨의 자손을 굳게 서게 하려는 이들이 여기 있도다.

미쳐버린 국왕이 놓아버린 국정을 보살피며 모든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함이요,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아벨의 자손이 무너짐을 막게한 장본인이니,

이그너 가문의 휘장을 두른 장남 아드라 와 차녀 타라 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

이그너 가문는 발시아의 살을 찌우게 하고 목을 축이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었으나,

그저 밭을 일구는 데 신물이 난 아드라와 타라는 퀄로른의 부름에 답하기 위하야 저들의 깃발을 쳐들고 전선에 서기를 원하노라.

저들의 태생은 전사가 아니었으니 다른 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함이 마땅하더라.

다만, 이그너의 깃발 아래에 저들이 배우고 익힌 진리가 무엇이냐하면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요,

저들이 묵묵히 땀흘리며 밭을 일구던 것과도 같이 손과 발에 피를 머금고 총과 칼을 휘두르니,

어느새 자애의 아드라와 맹공의 타라라는 이름과 함께 이그너의 깃발이 퀄로른에 휘날리게 되노라.

이에, 불경한 자들에 맞서 퀄로른의 사자의 뒤를 따라 전선에 서게됨이라.

그리하야 아벨의 자손은 아벨의 장벽을 중심으로 불경한 자들을 저들로

부터 멀게 하였도다.

이로써 아벨의 자손들은 잠시나마 꿈과도 같이 달콤한 평화의 때를 갖게 되는도다.

영원의 전쟁으로 깊게 새기어진 상처만을 씻는데 수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으니,

그리고 그동안 아벨의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어둠에 맞서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 상처가 채 아물기 전까지 평화는 마냥 저들을 기다려 주지 아니하더라.

영원의 전쟁 속에서 피어난 불경한 존재에 대한 분노는 극에 치닫게 되나니,

이는 피의 복수를 낳고 아벨의 첫번째 자손들은 교황청을 남긴채 아벨의 자손을 떠나게 되매,

이로 인하야 더이상 아벨의 자손들에게 아벨의 가호가 깃들지 아니한 모습마저 들게 하더라.

그것이 퀼로른을 세워 아벨의 자손들을 이끌었던 델페노프마저 변하게 만들게 됨이라.

아벨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에 기대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욕망과 이기심만 낳고 있으니,

미쳐버린 국왕의 폭정으로 인하야 거리는 생기를 잃고 저들안에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하도다.

모든 불안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의심하고 해하며 후에는 저들이 부정하는 추악한 모습을 하더라.
그 모습은 퀼로른의 이름난 가문들의 가주들마저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몰락의 때로다.
다만, 참극 속에서도 아드라와 타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서 안정을 위하야 힘쓰게 되나니,
교황청과 더불어 기울어가는 퀼로른을 다시금 세우려 하는도다.
저들은 서로 합심하야 퀼로른의 방위대 중 뜻이 통하는 자들과 평화를 지키려 함이라.
그 무리들은 아드라의 자애로운 모습으로 혼란에 빠진 발시아에 다시 삶을 깨우치게끔 다독임이라.
반면, 맹공의 타라는 불경한 자의 목을 거침없이 쳐내려가니 저들은 그 모습만을 달리할 뿐 선망의 대상이 됨은 자명하도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국의 국왕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고,
교황청의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되나니,
저들의 입지를 더욱 완고하게 자리하기 위하야 구실이 필요했을 따름이라.
그것은 국왕의 시해에 가담한 이들을 처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도다.
저들이 우선으로 지목한 것은 퀼로른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선 자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성격을 띈 자들이었으니,

운명의 장난인가, 타라 이그너가 그러하더라.

『 투쟁과 생존본능 』

교황청이 자리하기 이전,

퀼로른의 사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이전,

영원의 전쟁이 이데아를 덮치기 이전,

아벨의 자손들이 델페노프의 지휘하에 도시간을 잇기 위한 지하의 수로를 건설하니,

목을 축이고 몸을 청결히 하니 삶은 윤택해지고 문명의 이기를 찬란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다.

그것은 아벨의 자손의 번영을 이루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이롭게 할 따름이라.

다만, 영원의 전쟁으로 인하여 저들을 풍족케한 수로가 가장 먼저 더럽혀지니,

그곳은 더이상 옛 모습을 갖추지 아니함이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은 자들과 불경한 존재들이 한데 섞이어 그곳을 떠돌게 되노라.

이 불경한 기운을 막기 위하야 교황청은 수로의 심장위에 있던 카르바라는 소규모 자치국가를 정화해야함이 마땅하나니,

수로와 인접하여 저들의 곡식이 가득찬 들판은 그야말로 황금빛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근방의 아벨의 자손들을 격리시킨 뒤 발시아에 일러 그곳을 완전히 봉쇄시키게 되었음이라.
그리고 잉퀴라의 불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나니,
심판 끝에 카르바는 불타없어져 황금의 들판은 사라지고 그저 남은 것은 잿더미 뿐이라.
그러나, 저 잿더미는 아드라와 타라가 나고 자란 이그너의 가문이 자리한 곳이었으니,
저들의 아비며, 어미며, 친우며, 저들이 어린시절 두 눈으로 담은 모든 기억들이 타버렸도다.
이그너 가문의 죽음은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어가고 아드라와 타라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소식을 접하게 될 따름이니,
같은 아벨의 자손을 죽이고 불태우는 저들의 모습에 악의 하나 서려있지 않았음을 듣나니,
미물을 짓밟아 죽이는데 그 어떠한 감정조차 소모되지 아니한 것과도 같이,
이들에게도 그저 이 행위가 다름아닌 박멸에 불과했던 것이었도다.
아드라는 아벨의 자손들의 안녕을 위한 어쩔수 없는 일이라 가슴을 부여잡고 슬퍼하였으나,
타라는 그러하지 못하였도다.
아벨론의 무자비한 모습과 저들의 위선과 더러운 모습에 회의감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노라.

저들이 권좌에 올라 내려다보며 발시아 위에 서 심판하며 오만방자한 모습에,
저들의 가호와도 같이 뿌린대로 거둔 델페노프의 모습이 겹치게 됨이라.
타라는 아벨론을 미쳐버린 델페노프와 다를바 없는 발시아의 거죽을 쓴 불경한 자들이라는 말을 입게 올리게 되었음이라.
또한, 고향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저들도 미물과 같이 아무감정 없이 밟혀 죽일 것을 다짐하니,
타라의 안에 이제 더이상 전능한 신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아벨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노라.
자애로운 아드라와 반대로 맹공의 타라는 위선의 모습을 한 아벨론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그녀는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과 교황청을 등지고 또 아드라마저 등지게 되는도다.
이러한 모습에 분개한 아벨론은 타라와 베르만에 내통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였음이라.
사상이 불순한 자들은 아벨론의 권위를 위협하며 장벽 안 굳은 아벨의 믿음의 고리를 깨려고 하니,
아벨의 자손들임에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벨의 품 안에 안기지 못할 자들이라 낙인을 내리노라.
그녀의 언행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한 아벨론의 대의회에서는 불편한 기

색을 감추지 않았으나,
아벨의 자손의 번영을 위하야 퀼로른에 봉사했던 업적을 기리어 타라에게 그녀가 담은 말을 철회할 마지막 기회를 주게 되노라.
그러나 타라는 그 말을 거두지 아니하며 아벨의 장벽을 나가려는 의도를 보이게 되었으니,
아벨론에 등을 돌린 타라는 반역자의 이름으로 그녀의 판결은 죽음으로 귀결되는도다.
아벨론은 물론이요 아드라마저 타라가 아벨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권능을 내쳐버린 것에 대하야 유감을 표할 따름이니,
그녀와 피를 나눈 이마저 자신을 외면하게 되니 모두가 저들의 죽음을 바라고 있노라.
잉퀴라는 저들에게 정의와 질서가 결여된 자라는 뜻의 베르만 이라 이르며 저들을 베르만의 시궁창 쥐라 부르니 불경한 것들과 다를바 없다 하더라.
그것의 의미는 저들은 더이상 아벨의 자손들이 아니기에 총과 칼로 다스려야 함을 알리는도다.
타라는 그 이름을 기꺼이 지고자 하고 하루빨리 아벨의 장벽을 벗어나고자 함이라.
더불어 저들의 음흉한 간계를 알아채지 못할리 없으니 저들의 성명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지하에 땅을 파내어 굴을 만들었음이라.
타라가 비록 그녀를 따르는 많은 이들을 곁에 두었어도저들에게 허락된

곳이 이데아 어디에도 없는 듯 하였으니,
그녀가 돌아가 머물 곳은 오직 이그너의 온기가 남아있는 카르바였도다.
그리고 그 어두운 굴의 끝에서 마침내 저들은 죽음이 깃들어 있는 공허도시 카르바에 닿더라.
찬란했던 퀄로른의 번영의 상징인 지하수로가 통하는 중심지이자 그녀가 나고 자란 땅이로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손이 닿지 않은채 전쟁과 저주로 방치되어 그저 더럽고 추악한 저주받은 안식처로 전락하게 되었도다.
불경한 자들을 제외하고 오직 죽음과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곳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으라 하더라.
그리고 저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카르바에 담기어 아벨론을 향하게 되는도다.
『 혼돈과 파괴 』
아벨의 자손들임에도 자손을 향한 혐오와 복수는 이들을 악락하고 잔인하게 바꾸었도다.
더구나 저들이 지내는 카르바는 도저히 발시아가 자리하야 살만한 장소가 아니라 더욱이 베르만을 진화시켜 강하게 만듦이라.
더럽고 오염된 지하수로는 시궁창으로 변질되어 죽음의 구름을 하루도 마다않고 토해내고 있도다.
언제나 죽음의 구름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얼굴을 덮

고 지내야 함이라.

더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혹독하고도 척박한 지하는 이들이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지 않아 무릇 땅에서 자라는 풀과 벌레들 뿐이라.

그러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거쳐온 존재는 베르만 뿐이 아니었도다.

저들은 에르아의 젖만큼 달콤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살아가기 위한 모든 양분을 저들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도다.

이리도 조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진대 이미 아벨론의 횡포를 겪은 자들이라 아벨의 장벽 안을 그리워 하는 자들을 찾을 수 없더라.

척박한 환경은 저들의 생활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나니,

카르바 안에서 살기 위한 투쟁을 벌이노라.

그 안에서 살고자 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함이라.

다른 이들보다 교활하고 영악해야 하며 상대를 의심하야 내 목숨을 보존해야 함이라.

그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베르만의 시궁창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하야 남을 죽여야 했음이라.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빼앗아야 했음이라.

살기 위해서라면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버려내어 스스로를 감

추어야 했음이라.

아벨의 장벽을 넘어선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아벨의 권능조차 주어지지 아니하였기에,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믿지 아니하여 모든 것들은 스스로 터득해야만 하노라.

그 어떠한 것도 배울수 없는 곳이라.

오직 자신만이 깨우쳐야 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하야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삶을 이어감이라.

시궁창 안에는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폭력이나 협박, 갈취와 절도를 넘어

매춘과 살인, 배신과 암투는 물론 그것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행동에 옮기니,

베르만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그렇게 지내는 삶을 후회하는 자 하나 없도다.

타인의 그늘과 보호 아래에서 사는 자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로다.

그것은 시궁창을 사는 이들에게는 일상이나니,

발시아가 지니고 있는 잠재된 폭력성과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요,

그것을 억제하며 그 감정을 무리하여 숨김으로 인하야 죄악의 크기가 커져갈 따름이로다.

베르만은 그것을 풀 배출구를 만들어준 셈이라.

타라는 베르만을 더 강인하게 진화하고 위협적인 무리로 만들고자 고민하였고,

아벨의 문명의 이기를 꽃피운 마이스터 독립국인 윌즈에 발걸음을 하였음이라.

저들의 움직임은 부탁을 하고자 윌즈로 향한것이 아니라 협박과 약탈을 위함이로다.

그러나 타라는 아벨의 문명을 우월한 반열에 올려놓은 윌즈의 기이한 힘을 몸소 느끼게 되니,

그 기이한 힘에 이끌리어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 베르만은 윌즈에 무수한 발걸음을 하게 되노라.

살아가기 위하야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담으려는 타라의 처절함과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저들의 모습에 윌즈의 마이스터도 감복하니,

그것은 필시 신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자들의 모습보다 베르만의 모습과 같이 생존을 위하야 처절하게 발버둥치던 저들이 나아보였을 것이라.

믿음과 구원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살며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한 윌즈의 정신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니 나아가 저들에게

관심을 보이는도다.
윌즈의 마이스터와의 교류를 통하여 베르만이 지닌 힘은 불경한 자들을 시궁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쉬이 허락하지 않을만큼 커지게 되는도다.

『 자유와 평등 』
그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추상적이지 않고 직관적이고 간단명료 하였으니,
믿음과 신앙과 더불어 정의와 세계의 질서라는 이름아래에 채찍질 당한 자들이 저들을 찾으며,
억눌린 공포에 떨던 자들이 저들을 찾으며,
피의 복수 외에도 언제 빛의 심판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저들을 찾으매,
베르만의 순수한 욕망에 충실한 저 삶을 부러워 한 장벽 안의 이들이 저들을 찾게 되는도다.
혹은 아벨론을 증오하는 자, 벌거벗은 자, 죄 지은 자,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모두 모여 베르만의 이름을 갖게 되나니,
이 모든 자들이 아벨론에 반하는 자들이로다.
베르만은 아벨론과 달리 국가 행정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 그저 시궁창 아래 울타리만 같을뿐,
울타리 아래에 저들 모두가 적이 될 수도 있으며 친우가 될 수도 있는

어지러운 삶을 사노라.
저마다 다른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살고 있으나,
공통의 분모는 같으니 이는 아벨론의 파멸이라.
파멸은 카인의 핏줄은 물론 세트의 후예도 피할 수 없으며 불경한 자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라.
숨이 붙어있는 자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심하게 훼손하여 모든 이들의 눈에 담게 하거나,
저들을 산채로 엮고 꿰어내어 경고를 표하더라.
타라는 베르만의 공포를 더욱 선명히 아벨론에게 새겨놓기 위하야 그녀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 그 표식을 남기었도다.
카인의 핏줄 안에 흐르는 피가 필요하다면 못을 가슴에 쑤셔넣어 피를 담을 것이며,
세트의 후예의 발톱과 어금니 그리고 가죽이 필요하다면 발톱과 이를 뽑아내어 산채로 거죽을 뜯어낼 것이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 생생한 지옥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야,
시궁창 속에 잠들어 있는 불경한 자들을 저들의 수족과도 같이 다루게 됨이라.
타라가 그것을 기른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녀의 잔혹함에 떨며 그녀에게 복종을 표하는도다.
그 모습은 진정으로 불경한 안식처인 시궁창을 다스리는 여왕의 모습이

로다.

이에 타라가 베르만의 쥐새끼들에게 고하노니,

들으라. 시궁창의 쥐새끼들아. 이 안식처는 나의 것이요 동시에 너의 것이라.

그러니 이 시궁창을 손에 쥐려고 하는 자 있다면 내 앞에 서서 나의 목을 치라.

아벨론을 무너뜨릴 내 목이 그리 간단히 떨어질 것이라면 기꺼이 내어줄 것이라 하더라.

그것은 자기과시임과 동시에 저들에게 동등한 수평적인 위치에 서고자 함이요,

무질서한 그곳에서 타라는 자신이 그저 베르만의 일원일 뿐임을 저들에게 알리고자 함이라.

타라의 외침은 카르바에 울려 퍼지게 되었고, 그 연설을 마친 뒤에 명예나 충성 따위 없는 자들마저 그녀의 뒤를 좇게 되노라.

이렇듯 베르만의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저들 사이에서 느껴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의 이름은 바로 자유일 것이라.

비록 타라는 피로써 흥한 지도자이나 그 누구도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없도다.

그만큼 베르만은 피를 적시며 일어난 자들이라.

순수한 파괴의 본능을 지고 태어난 무리로다.

그 뿌리가 깊고 아벨의 자손들 안에 억눌려 있는 파괴와 본성이 깨어난 자들이도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베르만은 무너지지 않으니,

기이하게도 타라가 카르바 그 어디에서도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음에도,

저들끼리 자유로이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누리게 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음이라.

살기 위한 투쟁은 본능을 일깨워 주고 그 본능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양분이 되나니,

베르만 안에서 기도는 통용되지 않음이라.

기도하며 바라는 자에게는 썩은 빵맛조차 보지 못할 것이요 흙탕물조차 마시지 못하리라.

시궁창 속을 사는 쥐새끼라면 행동하고 원하는 것은 움직여 손으로 직접 얻으라 하더라.

모두가 시궁창의 주인이자 지하세계 카르바 위에 군림하는 자인 것이라.

도둑질 하는 자, 몸을 파는 자, 생명을 빼앗은 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베르만의 주인이로다.

아벨론은 물론이요, 어디의 누군가 타라의 목을 치고 그녀의 머리에 바닥에 굴러다닌들,

베르만의 뿌리는 뽑을 수 없으니 분명 저들 중 뛰어난 누군가 당연하게

베르만을 이끌 것이라.
누구를 믿을 것인지 혹은 누가 아벨의 자손들을 구원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음이라.
이 땅에 수많은 신앙과 믿음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고 죽은 많은 이들을 보았도다.
베르만을 지탱하는 것은 신앙도 아니요, 드높은 긍지와 자긍심도 아니로다.
오직 저들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삶의 투쟁이라.
그것과 뒤엉키어 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있고자 함이라.
저들은 어디에나 있음과 동시에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는 없는 그림자와도 같은 자들이나니,
썩은 시궁창의 주인은 아벨론이 무너지기 전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으리라.

레 라 뭇 기

1권 - 불신, 절망, 증오

『 광기가 낳은 참상 』

피의 복수.

그것은 영원의 전쟁이 끝을 고하고 난 뒤 아벨의 자손들이 보여준 추악함 그 자체를 담은 것이라.

전쟁 후에 아벨론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의 삶은 궁핍하고 마음은 그저 방황하고 여유롭지 못하였도다.

전쟁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고 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저들의 배를 채울 걱정이 앞설 따름이로다.

이에 사내들은 눈 붙일 시간조차 쪼개어 저들의 식솔을 살리기 위해 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여인들은 손가락지를 팔거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내다 팔기에 이르는도다.
굶주림 앞에 믿음과 신념이 어디에 있으며 그저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냐 하더라.
그러나, 살기 위한 저들의 몸부림조차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니,
그것은 영원의 전쟁의 생채기가 저들 가슴에 남아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탓이라.
이로 인하야 빈곤 속에 허우적대며 아벨에게 기도를 올리지 아니한 그 모습에 반감을 표하게 되는도다.
그것은 아벨에 신념을 바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발점이 되었음이라.
반감을 표하는 자들은 입을 모아 저 자들은 모두 이단이요, 불경한 자들이라 부르짖으니,
독사와 같은 카인의 피가 저들 안에 흐를 것이고 세트의 후예와 같은 불경한 울음을 낼 것이라 모든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음이라.
아벨의 자손들에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해준 아버지 아벨을 잃었도다.
그러니 어찌 저들의 정신이 온전하랴.
간악한 카인의 핏줄과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는 모든 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니,
그것이 피의 복수를 낳은 것이었도다.
분노와 증오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으리라.
그리하지 않았다면 저들 안에 있는 폭력을 다른 곳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로다.
실로 피의 복수가 자행되는 도중 많은 이들의 목숨이 바스러져가는 가운데,
기이하게도 저들의 죽어버린 눈이 다시금 불꽃이 일렁이는 듯 살아 숨쉬더이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야 의심하고 그것을 멀리하기 위한 생명의 본능과도 같음이라.
많은 이들이 꼬챙이에 꿰어지고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요 그것으로 저들의 마음의 안식을 구하는 것이었으니,
오직 그것만이 저들에게는 안식이요,
오직 그것만이 저들에게 구원이로다.
다만, 그 광기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아벨론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저들 안에서 세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아벨의 자손들 사이에서 광기를 억누르고 다스리도록 이르렀도다.

아벨론은 저들이 더욱 깊은 나락에 빠지기 전에 세개의 가지가 되어 아벨의 자손을 이끄니,
그것은 아벨의 장벽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 땅에 희망과 빛을 뿌리기 위함이로다.
이로 인하야 서로에게 겨눈 의심의 눈초리와 총과 칼은 잠시 거두고 안정을 취하게 됨이라.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이로다.
『 깊어가는 절망과 어둠 』
빛이라는 일념하에 저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투쟁은 치열하도다.
우아하고 절제된 모습 사이에서도 서로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저들의 의견을 피력해야만 하노라.
행여라도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나니,
그저 정권의 희생양이 될 뿐이요,
교황청에 봉사하는 자격과 영광마저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노라.
빛의 충돌이 일어나고 난 뒤 밀려난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고문과 처형뿐이니,
저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영혼까지도 고통받게 되노라.
이전의 무질서하고 충동적이었던 복수의 광기가 아닌 교황청을 필두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니,

빛의 심판이나 정화, 혹은 정의라는 온갖 구색을 맞추어 저희들의 절차에 따라 죽이니,

피의 복수라는 오명만 저버렸을 뿐 저 발시아의 목숨을 취하는데 이전과 다름이 없음이라.

심지어 아벨론은 빛에 정녕 눈이 멀었는지 이런 만행에 간언을 하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었으니,

이제 피의 복수는 폭력이 빚은 재앙과도 같으나 장벽 안의 이들에겐 그저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라 하더라.

이는 죽음과 어둠이 자욱한 이 시대에 장벽 밖에 도사리는 위협에 그저 무지한 탓이라.

그러나, 그 무지를 폭력으로 대한 아벨론은 찢어 죽어야 마땅하다 여기는 자들이 생겨남은 자명한 사실이로다.

그저 살기 위하야 기도를 게을리한 탓에,

혹은, 아벨론의 공포와 무지로 인하야 선량한 자들의 무의미한 피마저 뿌려짐을 질타한 탓에,

이교도로 몰리어 저들을 고문하고 죽일 따름이니 저들중에 어느 누가 아벨론에 기대겠는가.

그 반발은 아벨론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도다.

이에, 교황청의 이들이 소리높여 이르기를,

카인의 핏줄이면 저들은 산채로 매장하여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생기가 돌 것이요,

세트의 후예라면 저들을 얼음물에 담그어도 얼지 아니하고 살아 숨쉴 것이라 하더라.

이윽고 저들을 데려와 산채로 목을 매달거나 허리를 졸라매거나,

불에 달군 통에 넣어 굽거나 장작으로 태우거나,

서릿발이 흐르는 곳에 담그어 두거나,

두 눈을 뽑아내거나 혀를 잘라내거나,

얼굴을 짓뭉개어 바늘로 꿰매거나,

몸에 구더기를 심어 좀먹게 하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저들에게 죽을때까지 고통을 선사하는도다.

그러함에도 장벽 안의 아벨의 자손들은 마땅히 저들의 피는 이 땅에 뿌려져야 함이라 하더라.

가능한 저들의 존재와의 섞임을 피하고 아벨론에 즉시 고해야 함이 마땅하였으며,

저들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닿게 된다면 아벨의 은총이 담긴 물로 씻어내야 함이라.

허나 만일에 그러하지 못한다며 분명 누군가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며,

후에는 아벨론에 소환되어 고문과 심문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불타 죽을 것이라.

한줌의 재가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아벨의 성수를 뿌리어 불경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아벨론의 세 뿌리가 온땅에 외치노라.
심지어 장벽 안에 새어나오는 소문에 아벨론의 신성한 자들이 고하기를,
저들은 불경한 자들에게 몸과 영혼을 팔아버린 더럽혀진 자들이요,
저들이 순결하고 결백한 자라면 저들의 처녀성은 지켜졌을 것이라 여기고는 이를 몸소 확인한다는 더러운 명목으로 저들의 욕구를 해소하더이다.
『 운명의 자매들 』
그 중에서는 아벨의 장벽 안에서도 미와 지성을 겸비한 처녀로 입방아에 오른 저들이 있었으니,
채 영글지 아니한 저들의 순결함에 홀리지 않던 자들이 없었음이라.
그마저도 아벨론은 불경한 자들의 씨앗을 몸에 담고 우매한 자들을 홀리는 것이라 여기노라.
저들의 아비와 어미는 불경한 저 셋을 낳은 죄로 그 자리에서 바닥에 피를 뿌리며 죽고,
창살 아래에 갇히어 저들의 몸을 탐하는 자들 사이에서 불신과 절망 그리고 증오가 넘치노라.
절망과 분노가 낳은 감정은 메아리쳐 이데아를 찢고나와 카할라에 닿게 되었으니,
저들의 부정한 기운을 따라 마침내 공허의 아비 카할라가 저들을 향해 속삭이노라.

에르아를 탐하듯 그 목소리는 저들을 훑어내리니,

고통과 희생 속에서 성흔을 온몸에 그어 빛에 달하는 자들과는 달리,

저들 안에 담긴 것은 그저 어둠 뿐이라.

아벨론에 닿은 빛이 눈이 부시게 밝은 것과같이 저들을 드리우는 그림자는 짙고도 어두웁도다.

그러나, 저들 속에서 움튼 공허 카할라의 낮은 음성은 아벨의 권능보다,

눈부신 빛보다 저들에게 밝게 비추었을 것이라.

부정한 기운은 세 처녀의 몸에 담기게 되고 이내 저들의 몸을 탐하던 자들은 죽고 없도다.

그림자는 흩어져 그 자리에는 순간의 쾌락속에 빠진 자들의 살점만 남더라.

그리한 뒤에 그림자는 문을 열었으니 저들은 그 길로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었도다.

검은 문을 통하여 나간 그 자리는 숲가지가 가득 하늘을 메우고 있어 빛이 간신히 새는 곳이라.

저들은 홀린듯 그곳을 타락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진 카르탈라 라는 부르게 되었으며,

마녀임을 부정하는 저들의 순결함을 빼앗고 오직 불신과 재앙 그리고 증오를 드러내며,

이젠 저들이 그토록 바라던 마녀가 스스로 되길 자청하였으니,

카르탈라를 기점으로 온 이데아에 부정한 기운을 퍼뜨리게 되노라.
아벨이 지닌 빛은 이미 떨어졌음에 탄식을 금치 못한 세명의 처녀들은 카할라의 속삭임을 듣고,
저들이 이미 지니었던 이름조차 잊은 채 공허의 아비인 카할라로부터 이름을 받으니,
과거의 기억을 관장하는 퀴소,
현세의 끈을 엮는 다스리는 락시,
미래의 장막을 엳보는 아로스 가 바로 그들이라.
저 셋의 자매들은 더이상 아벨의 자손들을 믿지 아니한채 오직 공허에 귀를 귀울일지니,
아벨론의 빛으로 영혼을 찢는듯한 고문속에서 카할라의 속삭임을 담은 자들이었도다.
뒤이어, 저들의 아비의 속삭임을 기록으로 남겨 눈을 멀게 하는 추악한 아벨의 빛에 반하는 불경한 책 레라뭇 을 이 땅에 남기었도다.
그 기록 속에서 아벨과 그의 자손들이 이데아에 새긴 추악한 죄악을 가감없이 드러내나니,
공허가 저들에게 속삭인 것과도 같이 저들도 온 이데아에 그 속삭임을 퍼뜨리노라.
저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메아리치자 그것을 담지 못하는 자들은 고통에 몸부림 치는도다.
나아가 저들의 마음마저 조롱하니 저들끼리 죽고 죽이는 괴기한 모습까

지 보이더라.
그 속삭임은 그저 저들을 죽이려 함이 아니노라.
그 속삭임에는 불신과 절망 그리고 증오를 담아 카할라의 존재를 이데아에 불러내기 위한 자들을 끌어내기 위함이 담겨 있었으니,
대부분은 장벽 안팎으로 아벨론의 빛에 신음하며 죽음만을 바라보았던 자들이라.
퀴소와 락시 그리고 아로스의 속삭임에 고통받던 자들은 하나 둘 카르탈라를 향하게 되는도다.
누구도 아벨의 빛에 어둠으로 반하는 자 없으니,
교황청의 신성불가침의 빛을 발하는 교리는 감히 브리강의 들쥐들조차 파훼하지 못하노라.
다만, 카할라의 속삭임으로 레라뭇을 채워가는 마녀들은 발칙하게도 저들의 교리를 부정하노라.
그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어 저들을 현혹케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얽매여 있던 족쇄를 부수는 정신적인 쾌락이로다.
그 속삭임에 현혹되어 아벨론에 등돌리는 자들의 수가 날로 늘어가니,
교황청이 이를 저지하여도 카할라로부터 저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까닭이라.
그렇게 모여든 자들은 세 자매들의 곁에서 공허 카할라의 목소리와 함께하니,
공허를 사는 저들의 아비와 교감하는 세 마녀를 운명의 자매들 이라 부

르게 되노라.

『 카할라의 부름 』

피의 복수로 인하야 저들은 마녀라는 존재가 태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대한 만행과 공포에 사로잡혀 오히려 마녀라는 존재를 만드는데 기인함이라.

그렇게 고통받은 영혼들은 저들의 지친 육신을 이끌며 저들의 안에 있는것은 오직 아벨의 자손을 빛으로 타락케 만든 아벨론의 멸망이로다.

태초에 테르벨이 에르아에 의해 만들어 졌을 때에 카할라의 손길이 스며 들어 이데아에 남긴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죄악의 돌이라.

그 흩어진 조각을 모두 부수어 죄악을 이데아에 흩어지게 함으로 공허를 사는 존재들을 부르게 함이 운명의 자매들이 그린 이데아의 모습이라.

그리고 그 존재들을 다스릴 카할라를 이데아에 강림케 하야 모든 테르벨이 저들에게 고개를 조아릴 것이라 여기는도다.

카르탈라의 마녀들의 힘에 기인하는 것은 모든 존재들의 타락과 오염이로다.

의심과 절망과 증오는 이데아에 만연한 것이라.

믿음이 깊지 아니한 자들,

탄식하여 설 힘을 잃은 자들,

해하고 피를 갈구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이데아에 불경한 뿌리를 심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도다.

아벨의 자손을 이끄는 아벨론은 아벨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음이라.

하물며 위그나의 신도들이 받은 계시로 빛나는 저들의 것들마저 눈을 속이는 빛이라 부르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아니할진대 카할라의 어두운 것에 귀를 귀울이는 존재는 더욱이 지워져야만 하는 존재였도다.

에르아가 수많은 테르벨을 창조한만큼 카할라는 수많은 테르벨을 부수었다고 전해짐이니,

공허의 모든 존재들을 이데아에 불러낼지는 없을 지언정 저들이 가진 힘 일부를 저들 주위에 두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라.

카할라가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여도 그저 공허의 속삭임을 듣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도다.

공허 카할라의 힘은 그러한 것이요,

그것이 가장 나약한 자들의 의심과 절망 사이에 움튼 공포라는 힘이라.

아벨의 자손을 이끄는 아벨론은 아벨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음이라.

하물며 위그나의 신도들이 받은 계시로 빛나는 저들의 것들마저 눈을 속이는 빛이라 부르며,

그것조차 인정하지 아니할진대 카할라의 어두운 것에 귀를 귀울이는 존

재는 더욱이 지워져야만 하는 존재였도다.

이에 아벨론은 성령의 힘을 더욱이 넓게 발하야 장벽을 등지는 자들의 수를 줄이게 되었으며,

카르탈라로 눈길을 돌리어 불경한 자들을 부수기 위한 태도를 취하게 되노라.

자신이 낳은 존재를 자신이 지우려 하는 것조차 저들의 교리에 따르면 죄악이 될진대,

카르탈라의 마녀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낳고도 저들의 교리에 반하는 아벨론을 비웃는도다.

저들이 당한만큼 장벽 안의 발시아는 물론이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려는 것이라.

그 형태는 그 어디에도 기인한 곳이 없으니,

저들 안에서 움트고 있는 공포와 재앙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라.

저들의 아비를 통하야 검은 문에서 꺼낸 어두운 공포의 존재는 부정한 성배와도 같은 것이로다.

카할라의 부름에 대한 대가는 오직 모든 생명이 품고 있는 부정한 감정의 소용돌이니,

마녀들은 저들의 존재를 숨기고 다른 이들의 귓가에 진실을 속삭이며 꾀어내며 죽이는도다.

그것은 비단 아벨의 자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요 그 감정은 모든 이들에게 통용되나니,

부정한 감정을 지닌 모든 자들은 카르탈라의 마녀 앞에 놓인 먹잇감일 뿐이로다.
태초에 에르아가 테르벨을 낳으실 적에 죄악마저 고개를 들게한 공허가 가진 힘은 원대할진대,
위대한 카할라의 힘이 어찌 가장 약하디 약한 아벨의 자손들에게 통하였는지 감히 의문을 갖지 말라 하더라.
저들 사이에서 가장 추하고도 비열하고 약하고도 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아벨의 자손들 뿐이로다.
그저 죄악만을 부정하고 고개를 돌려 빛으로 죄악을 가리려는 자들의 추악함이 만든 존재로써,
저들이 그리도 원하지 아니하던 존재가 최후에 저들의 손에서 태어나게 되는도다.
레라뭇이 말하는 것은 이데아를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추악함을 들춰낸 진실함이요,
그 진실에 마주한 자들의 혼돈 속에 공허를 사는 자들의 힘은 더욱이 커질 것이라.
그러할지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는 기꺼이 카르탈라에 발을 딛으라 하더라.
구원에 색이 어디있단 말인가.
그것이 다소 검고 어두우며 공허한 색을 띄고 있을 지언정 저들이 찬란한 빛에 기대는 것과,

저들이 칠흑과도 같은 공허 카할라에 기대는 그 모습과 그리도 다르지 않도다.
다만, 마녀들이 그리는 구원의 색은 아벨론이 그리는 그것과는 영원히 다를지어다.
만물의 아버지. 카할라. 그의 속삭임만을 듣노라.

위 른 도 르 기

1판 - 비통의 새김

“썩고 문드러진 저들을 보고 답하라, 이바와 아다무스여,

이것이 정녕 그대들이 바라던 이데아의 모습인가?”

- 일락시움에 새겨진 기록 중 -

『 뒤틀린 존재의 울음 』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죄.

그것은 저주의 모습으로 이데아를 사는 대다수의 존재가 뒤틀리고 불경한 존재로 변모하여 울으매,

그 중에서도 가장 측은한고도 안타까운 존재들이 태어나니 이는 저들이 우는 울음이라.

그 울음 저편 아벨의 장벽 안에서 죄에 목이 매인 자들을 노래하니 그것은 다음과 같더라.

“베나롭 에 발걸음을 하지말라.

그곳은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곳에 살아 숨쉬는 자.

저들과 살을 맞댄다면 썩어 문들어질 것이고,

저들과 말을 나누면 혀가 잘려질 것이고,

저들과 교감을 하면 영혼은 찢어발겨질 것이라.
저들의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동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것이 아닌 실로 저주로 만들어진 그대의 형제자매라.”
저주 받은 땅이라 불리우는 베나롭을 사는 자들.
그 노래가 그러하듯이,
아벨의 장벽 안에서 숨쉬며 아벨론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사뭇다른 자들이요,
은혜로운 그 품에 안기지 못하던 이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몸에 그대로 담은 자들이로다.
그러나, 저들은 저주를 입기 이전에 분명 아벨의 자손으로써 살아가던 존재였노라.
이바와 아다무스의 죄는 무거우니 그 살은 썩어 문드러지며 고통조차 느낄 수가 없으니,
모습은 아벨의 자손 그 누구와도 다를 바 없으나 누가 저들을 아벨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느냐.
다만, 그것보다 슬픈것이 있나니,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입으며 불경한 자들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성은 남아 스스로의 처참한 모습을 자신의 눈에 담아야 하는도다.
이로 인하야 저들 안에 담긴 마음은 약해지노라.
스스로에 대한 혐오는 극에 치닫게 될 따름이요,

그들의 육신을 스스로 자르거나 부수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라.
그러나, 몸에 담긴 그 저주가 저주인가 축복인가.
스스로 자르고 부수어진 살덩이는 아물고 썩고 다시 아물며 제 자리를 찾아가는도다.
떨어져 흘러내리는 살점을 엮고 꿰어내는 모습은 실로 괴이함을 자아내며,
곪아 터져버린 곳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자는 속을 게워내야 할 정도라.
썩은 살점을 탐하려 하늘의 빛마저 검게 뒤덮은 까마귀떼는 저들의 몸뚱이에 자리하매,
그 살점을 뜯어먹으니 저들이 머물고간 자리에는 온갖 악취와 질병이 가득할 따름이로다.
더불어 저들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를 옮기는 숙주와 다를바 없음을 모르는 자 하나 없더라.
저주받은 불경한 피가 저들 안에 흘러 이데아를 사는 모든 자들이 저들을 거부하나니,
카인의 핏줄마저 저들의 피를 거부하여 저들의 피를 마시려 하지 않을 따름이요,
세트의 후예들마저 저들의 살점을 입에 머금으려 하지 않음이라.
저주를 입었으나 저들의 의식은 선명하게 저들 안에 남아있으매,
충격과 회한 그리고 공포는 저들의 의식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놓으며,

마음을 부수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해 이데아를 떠도는 구슬픈 육신이로다.

아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불경한 저주가 몸에 담긴 탓에 저들을 동정하는 이 하나 없으니,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하여 환영을 받지조차 못하니 저들이 쉴 곳은 어느 곳에도 없노라.

저주받은 존재임을 숨기고 장벽 밖으로 도망쳐 나와 영원의 전쟁이 짙게 깔린 그 어둠에 삶이라.

『 일락시움의 구축 』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겪으며 혼란속에서 저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과 조우하게 되나니,

그 처지를 익히 알고 있는 저들끼리 모여 서로가 서로의 구원의 안식처가 되어주는도다.

영원의 전쟁 속에서 그들은 사냥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이데아를 배회함이라.

그러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어린 영혼들이 설 안식처로 인도한 자가 있었으니,

하늘을 가득 메운 까마귀 떼 속에 선 자라는 뜻을 가진 로시렛 이라 이르며 그의 뒤를 따르더라.

그는 자신과 같은 모습과 같은 죽음의 내음새를 풍긴 눈 앞의 존재가 겪은 고통을 앎이었으니,

필시 물에 비친 자신의 역하고도 불경한 모습에 스스로의 혐오를 참지 못하였을 것이라.
이에 로시렛은 얼굴을 덮을 가면을 두르게 하야 저들이 스스로 더이상 해하지 못하게 함이라.
필시 아벨의 자손으로써의 의식이 남아있기에 분명 수십 수백번을 죽었을 것이라.
이에 로시렛은 의식을 한데 묶어 고통과 슬픔을 나누게 하였음이라.
필시 흘러내리는 피와 살이 튀는 가운데 쉶에 그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못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저주를 입기 전 아벨의 자손으로 살던 그 기억은 마음에 고통을 남기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경한 몸뚱이로 사는 그것이 저들의 정신을 짖이겨 버렸으리라.
죽음의 문턱에 닿지 못하여 살지도 죽지도 못한 존재로써 이데아를 떠도는 영혼일 것이라.
모든 것을 겪어온 로시렛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손길을 뻗노라.
구원의 손길은 불경한 몸뚱이와 함께 발시아가 지녀야할 감정을 잃지 아니하고자 함이니,
자신의 존재가 있음을 되뇌이기 위하야 자신의 몸에 저들만의 글귀로 새겨 잊지 말라하더라.

더불어 몸에만 새겨놓음이 아닌 이데아의 핏줄을 따라 모든 대지와 바다에 기록을 담고자하니,

이에 로시렛은 짊어진 비석에 써내려가노라.

그것은 이데아의 비명이자 비통과 한탄의 역사를 잊지 않기위해 스스로아로새긴 기록이요,

아벨의 자손들의 것과 전혀 다른언어로 이루어진 저주 받은 땅의 기억,

일락시움 라 부름이라.

발걸음을 옮기는 그 흔적마다 일락시움의 비석은 이데아의 핏줄에 박히어 에르아를 향해 울부짖노라.

그 비통의 울음은 에르아의 귓가에 닿으리니,

그 때가 되면 그녀가 움직임을 할 것이니,

이데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야 폐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태어남이라 굳게 믿는도다.

그것이 갈가마귀 왕 로시렛이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속에서 눈을 뜬 자의 진리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얻은 역사요,

영원의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살며 그것을 모두 하나 빠짐없이 눈에 담으며 내린 해답이라.

그것이 말하는 것은 테르베르낙이 일어남과 동시에 테르벨과 이데아가 태어난 것과도 같이,

반대로 생명을 거두어 죄악과 혼돈을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할 따름이오니,
다시금 이데아에 저들과 같은 역설된 존재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행한 순례길이로다.
그것을 이르러 칼’ 리웨 라 부르는 것이었으니,
창조의 테르베르낙과 반대의 개념인 칼’ 리웨는 말 그대로 허무와 파괴를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이데아를 두르고 있는 테르벨들이 줄을 지어서 빛이 드리워진 때에 더욱 강함이니,
에르아를 향한 비통의 울음 일락시움가 테르벨의 길라잡이가 될 따름이니,
로시렛이 저 순례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눈과 귀에 모든 담은 이데아의 진리를 몸과 일락시움에 새기니,
그것은 숨을 다하였을 때 먼지와 함께 스스로의 흔적은 그 자리에 남게 됨이라.
이로 인하야 그대들의 몸과 일락시움에 새기는 것은 부정한 이데아에 남겨질 유산이 될 것이요,
그 유산은 이데아 위에 남겨질 생명 하나 없이 모두 재로 돌아가 원래의 모습을 할 것이니,
그것을 새김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으며 낙원의 흔적을 소중히 하라 하

더라.

칼’ 리웨의 길잡이인 로시렛의 순례자는 저들의 길에 나서며 그 초석을 마련하나니,

그 초석은 영원의 전쟁을 낳은 아벨, 카인 그리고 세트의 죽음으로 시작될 것이요,

뒤이어 갈등과 혼돈 그리고 파멸의 씨앗을 던진 이바와 아다무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며,

모두 재로 돌아간 뒤에 스스로의 피를 쏟아내어 이데아의 양분이 될 것이라 이르는도다.

『 순례길의 시작 』

베나롭의 순례자들은 이바와 아다무스가 내린 죄책감 그 자체요,

동시에 아벨, 카인 그리고 세트가 낳은 절망과 허무로 뭉친 암덩어리로다.

오만하지도 아니하며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매,

나태함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음욕을 바라지 아니함과 인색과 탐식도 없으며,

나태함을 담아두지 아니하였으나 동시에,

겸손과 친절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인내하지도 못하여 근면하지도 아니하매,

자선을 베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순결한 존재이지 못하는 기이한 생명이로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벨의 자손이 가진 것일진대,
저들에게는 어느 하나 없으니,
이는 베나롭의 순례자들이 무의미한 충돌을 범하지 아니하고 저들만의 길을 걸으나,
반대로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에는 어떠한 자비조차 보이지 않음을 뜻하는도다.
발시아의 형태와 아벨의 자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저들이 더욱이 기괴함을 보이는 것은,
고서 시란두르가 이르기를 그것은 발시아에게서 볼 수 없는듯한 집단의 형태를 띄고 있음이라.
“죽음의 땅 베나롭, 내가 베나롭이로다.
저자가 로시렛이요, 나 또한 로시렛이라.
내가 일락시움요, 저기 휘갈겨진 문양을 가진 비석이 바로 나로다.
전체는 하나요, 하나는 전체라.”
그것이 말하기를 로시렛과 그를 따르는 베나롭의 순례자 저들 전부가 마치 하나의 생명과 같이 숨을 쉬고 숨을 거두는 것과 같음이라 하더라.
이는 곁에 함께하던 이가 죽음에 닿거나 자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함이요,
이것은 저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임이 아닌 그저 베나롭의 모두가 하나의 생명인 것이로다.

사선을 넘는 곳에서조차 저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것은 다른이가 등을 떠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개념이 아닌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로다.
죽음을 맞이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가 생전에 지닌 지식과 경험에 닿을수도 있음으니,
이 말고도 발시아가 감히 저들의 영역을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 많고도 많음이라.
『 묵시록 』
저들의 존재는 아벨론의 품안에서 평안한 삶을 지내는 자들에게 알려짐이라.
그뿐이 아니라 저들이 이데아를 누비며 온곳에 새기는 기록 일락시움를 암시하는 기록을 보라.
그것은 일락시움나 레라뭇이 고하는 이 땅의 역사와 달리 침착할 따름이요,
속죄하듯 풀어가는 기록과 같음이나니,
아벨의 자손들과 무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일락시움의 기록에 현혹되는 자들이 많음이라.
대다수가 저들의 혐오스러운 몰골과 기이한 행동에 돌을 던지는 자들이었으나,
그럼에도 진실을 마주하려는 자들은 저들의 순례길을 바라보나니,

이내 저들의 모든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바와 아다무스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그 길에 오르니,
그 죄는 베나롭의 순례자들과 같이 살점은 흘러 녹아내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발을 딛노라.
전과 다름없이 로시렛은 기꺼이 저들을 반기어 저들과 추악한 진리에 닿는 길에 함께 서는도다.
보라, 순례자들의 존재와 일락시움에 새기어진 기록은 많은 이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였으니,
베나롭에서 순례의 길을 시작한 자들을 살아있는 역사를 쓰는 계승자 혹은 관찰자라 하더라.
얼마 지나지 않아 로시렛의 존재와 그와 함께한 순례자들의 존재가 교황청에 알려지나니,
아벨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반발이 생겨남이 마땅하도다.
저들 스스로 그 발걸음을 아벨의 장벽을 향하여 오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더욱이 위협적인 것은 피와 살이 튀는 폭력이 아닌 이념이라는 것을 앎이라.
이미 너무 많은 아벨의 자손들이 저들을 유혹에 빠져 저들을 다만 악에서 구원할 따름이니,
이에 교황청 초대 교황 위대한 키리에타가 직접 신성의 군대를 이끌고 로시렛으로 향하였도다.
다만, 키리에타가 신성의 군대를 다시금 저주의 땅 베나롭으로부터 되

돌린 것을 기록하지 않으니,

그것은 일락시움만 남겨져있어 전해지지 아니한 역사의 한 조각일 뿐이로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입에 담지 아니하였노라.

키리에타와 그의 신성의 군대가 저주의 땅을 에워싸고 아벨의 권능으로 저들을 태우려하매,

저리 흉하고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으나 아벨의 자손임은 분명한 것을 알수 있었으니,

저들이 햇살을 똑바로 우러러 볼 수 있음이라.

저들이 아벨의 권능으로 부숴지지 않음이라.

저들은 그저 아벨의 권능앞에 마주할 따름이라.

키리에타는 저들이 아벨의 자손으로써 불경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니 혼돈에 잠기었노라.

불경한 자들의 모습과 아벨의 자손임을 당당히 맞이하는 모습을 하고 있나니,

듣도 보지도 못한 존재를 맞이함이라.

저주가 스며든 자들이나 엄연히 아벨의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라.

아벨의 자손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벨론의 성령의 힘은 저들을 해하지 못하였음이라.

반대로 저들은 영원히 아벨의 축복을 입을 수도 없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냐.

그 뒤로 키리에타는 교황청으로 회군하여 광장에 모든 이들을 불러내어 가로되,
로시렛의 망령들의 존재를 지웠으나 그곳에 넋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를 그대들에게 구하노라.
이는 베나롭의 완벽하지 못한 정화와 순례자들의 재림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로다.
키리에타는 만물의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하야 구원의 성배를 자리하야 성령으로 채우라 하니,
그 말에 거짓은 없으니 위대한 키리에타로다.
아벨의 신도를 안정하여 이데아를 살아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기도를 이어가기를 권장하노라.
그러나, 고통조차 모른채 저들에게 다가온 자의 모습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 그 자체를 연상케 함이 아니더냐.
아벨의 은총을 몸에 입으며 잘린 몸뚱이를 끌고 기어이 저들을 향해 다가오는 자들이로다.
괴이한 저들의 움직임과 흘러내린 살덩이 안에 자리한 눈에서 키리에타는 삶의 허무를 보았노라.
키리에타와 아벨론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은 장벽 밖의 일을 다시금 입에 담기를 꺼려했음이라.
더불어 두번다시 저 죽음의 땅에 발걸음을 하지 않노라 다짐하는 자가 한 둘이 아니었음이라.

그러나, 일락시움는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일락시움는 기록할 것이라.

과 학 기 술 학 회

Code #1 – 01101000 01100101 01100001 01100100

“01001011 01101110 01101111 01110111 01101100 01100101 01100100 01100111 01100101”

- 길드 마이스터 열람기록부 -

『 아벨의 자손과 함께한 기적 』

아벨이 그의 목동들과 영원토록 안녕을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하는 작은 기적이었다.

그 기적은 바람을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숨을 쉬도록 허락하였고,

그 기적은 벼락을 만들어 만물을 태우는 불과 이를 잠재우는 물을 만들었다.

모두가 그 기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고개를 굽어 기도를 올리고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 기적을 고개 숙이어 맞이하는 존재들 사이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며 기적이 생긴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은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 기적이란 존재가 내려지기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해나갔다.

기적이라 하는 모든 것들은 인과관계의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는 데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차린 아벨의 첫번째 자손 시옴 이라 하는 자는 기적이라 부르는 불을 만들어 내었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 아벨에게 한달음에 달려갔다.

다만, 아벨은 믿으며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바,

기적을 탐구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감히 그 기적을 담고자 했던 사이엔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데아를 둘러보며 기적을 경험하고 오라며 소 몇마리와 양떼를 건네주며 등을 떠밀었고,

그 역시 이바와 아다무스에게 제를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던 찰나 회의감마저 느끼던 찰나,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느낀 그는 하늘과 바다를 유랑하며 모든 현상을 눈에 담았다.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이데아의 하늘을 그렸고 바다를 누비며 그 깊이를 헤아렸다.

이데아를 누비며 그가 느낀 것은 기적의 경험이 아닌 기술과 깨우침이었다.

과학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 속에 깨어 있는 것이었고,

과학의 진보가 있는것과도 같이 과학은 퇴보도 따르기 마련이었다.

새삼 피부로 느낀 것이지만 아벨의 자손이 사는 세계는 진리와 아득히 먼 곳이었다.

그것에서 도태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새삼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더욱 배움에 매진하는데,

어미와 아비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벨과 그의 자손들의 사고를 돌리기 위함이었다.

아벨을 마음을 돌릴 준비가 되었다고 여기었을 즈음 아벨은 카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 분노나 슬픔을 느끼기보다 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한 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다.

뿌린대로 거두었으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다소 크게 받아 죽음에 이른 사건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그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영원히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던 아벨의 죽음은 시옴이 바라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과학을 저버린 자들에게 있어 구원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관찰하던 자들은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로 병든 불경한 존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목동과 그 울타리를 잃어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죽게 될 처지였다.

그것이 시옴이 우려하던 무지로 인한 도태됨이 그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생각을 멈추는 것은 죽음보다 더욱 두려운 것이었기에,

그 이후로 시옴은 병적으로 과학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었다.

과학의 도태를 직접적으로 겪는

그 집착으로 그는 자신을 따르던 학자들과 작은 무리를 형성하며 그것을

더불어 아벨의 자손들이 한 남자가 세운 공국을 중심으로 카인의 핏줄과 대립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시옴이였지만 그를 따르는 수 많은 학자들과 함께 한

곳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곳으로부터 아벨과 그의 자손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것으로부터 배워 온 것을 싸이언스 라고 부르게 되었고,
자신들을 위하여 그것을 지키고 더욱이 발전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은 널리 퍼짐.
그들의 지식도 퍼짐.
이바와 아다무스의 저주도 퍼짐

사이엔의 그 이름 자체로 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존중을 담아 현재 마이스터가 과학이라 부르는 말의 근원이 된다.

영원의 전쟁 이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데아에 대한 탄식을 금치 못하며 살아가던 시아레는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이데아 너머의 다른 테르벨이었다.
그와 그의 학자들의 지식을 종합한 가운데 수 많은 테르벨 중에서 이데아와 같은 환경을 가진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 믿었으며,
그곳에 닿기 위함을 목적으로

신세계

지식인

과학은 또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과학의 언어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이스터가 지녀야 할 덕목이었다.

명명하며 그것을 지키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국의 방위대가 그를 찾아왔다.

퀼로른의 사신은 ㅁㅁㅁ에게

현재 이데아의 모습을 그린 존재들도 마로 이 마이스터들임

과학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 자체

그 이름을 따서 과학이라 부르게 된다.

1. 화폐

2. 용어정리

3. 산업발전

4. 군사원조

5. 종교와 과학의 대립

6. 중앙은행

7. 윌즈의 외교법

『 이계의 마법 - 과학 』

아벨의 자손들이 저들마다 문명의 꽃을 피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절반만 옳은 기록이다.

문명의 이기를 연 존재들은 다름아닌 각 도시에 자리한 길드의 마이스

터들이며,
다른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친 손으로 일구어낸 것이었다.
그들은 의학이나 과학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안정된 삶을 기반으로하여,
역사와 건축, 예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눈부신 쾌거를 이룩하였다.
아벨의 자손들은 모두 저들의 땀과 헌신으로 인하여 비로소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그저 특출난 자들이 도처에 나타나 그 재능을 발현하는데 그쳤으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관심분야를 좇아 그들끼리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무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모를 넓히어 큰 집단과 단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길드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길드의 존재로 인하여 상업의 발달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공국 퀼로른의 관할 아래에 모든 아벨의 자손이 부족할 것 없는 지상의 낙원과 같은 모습을 띄게 되었다.
그 모습이 아마 아벨과 그리고 그의 자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 혹은 길드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추악한 모습까

지 고치지 못했다.
그 추악한 모습은 동족상잔을 벌였고 그 후로 오직 전쟁!

과학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데아에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분명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길드의 마이스터가 지닌 사명.

인간과 다른 종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차이도 없음을 증명해나가고 있다.
역사가 기록하는 아벨의 자손과 카인의 핏줄 그리고 세트의 후예로 나뉘게 된것은 오직 오랜 시간과 그 시간 속 선택이었을 뿐이다.

그 때문에 오직 불을 담아낸 것에 만족했던 그에게 있어
이 세계는 그것보다 더한 기적을 품고 있었다.

주관으로 한껏 뒤덮여진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영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카인의 핏줄이라 부르는 아종은 피에 의하여 감염된 듯한 생체반응을 보이며,
세트의 후예도 아종의 교배로 인한 돌연변이 인자로 인하여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근원을 완전히 파웨할 수 없는 일이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들은 증명이 가능한 것이다.
그저 신의 전유물이니 그런건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부인하고 있으니 그것은 무지에 대한 반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데아에 수많은 뿌리와 그곳으로부터 나온 무수한 가지가 있으나,
저들을 부르는 용어와 명칭은 저들의 언어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길드에서 지속되어진 작업은 바로 언어에 대한 일련화 즉 개념의 통일이다.
과거에 쓰던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재정립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는 과학의 이룩과 쾌거에 냉소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학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기어이 그 존재를 부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영원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 길드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문화 예술을 관장하는 길드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었으며,
전쟁에 필요로한 길드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전쟁은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종족과 출신이 불분명한 존재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생명체들이 출몰하게 되니,

비록 그들은 마이스터의 유구한 지식들이 전쟁에 이용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나,
공국이 몰락한다면 그들에게 더이상의 연구와 개발도 없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이상의 진화와 진보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었기에 기꺼이 공국을 도와 전쟁에 발을 딛게 되었다.

공국 퀼로른에서 문명의 초석을 다진 자들 중에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

우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살디르 라 부르는 자다.

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저들의 선조 아벨의 자손들은 불을 발견하고,
그리고 저들만의 울타리를 짓고,
성벽을 쌓아올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니,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간 것이 과학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전기와 증기기관에 대한 이해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보급화에 힘썼고,
카르손의 험한 곳에 철도를 잇게 하였고 그 외에 여러 자치국가의 교통을 잇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숨을 다할때까지 출판하기 위한 저서를 작성했으며,
그가 여지껏 연구해왔던 모든 연구성과가 담겨져 있으니 이는 길드 내의 모든 마이스터의 교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과학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다양한 종류의 살상병기들과 더불어 다양하고도 치명적인 존재들을 만들게 되었다.
그는 과학의 진보는 격동의 전쟁 중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온다고 굳게 믿었고,

실제로 그가 만들어낸 것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전장을 휩쓸고 다녔던 피조물이었다.
길드 안팎으로 내비친 그의 광적이고도 정도가 지나친 연구는 모두의 등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영원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길드는 아벨론과 그 어떠한 기관에 간섭받지 않는 암묵적인 계약으로 분리되었으나,
그의 비인륜적이고 도덕마저 저버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실험들은 그의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 되어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그가 제작한 병기들로 인하여 불경한 존재들로부터 아벨의 자손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 그리고 모든 연구결과는 소거되었다.
그리고 그는 잉퀴라의 재판을 받고 난 뒤에는 길드의 마이스터들에게조차 환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적을 감추었다고 한다.

길드의 마이스터들의 다방면의 원조로 아벨의 자손들은 카인의 핏줄에 대항하여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으나,
영원의 전쟁이 종식된 후로 베일에 쌓여 있기만 했던 이계의 마법이라고 불리우는 존재에 대하여 과학이라 명명한 마이스터를 인정할리 없었다.

교황청은 그들이 가진 그 힘을 경외시 하였고 점점 신의 영역에 범접하는 자들이라 여기게 된 것이었다.
더불어 과학이라는 영역에 발을 딛은 이상 그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의문과 호기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것이었기에,
아벨론이 길드의 마이스터에게 바라는 종교에 대한 믿음은 저들에게 있어 신념에 반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눈엣가시와도 같은 길드의 마이스터를 교황청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미 아벨의 장벽 내부에는 마이스터의 손길이 하나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더불어 그 안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준것은 기도와 더불어 저들의 기술도 한몫했다.
또한 아벨의 자손들이 길드의 존재에 대하여 반감을 갖지 않았을 뿐더러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모두 마이스터들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길드가 교황청과의 큰 대립이 없는 이유이다.
또한 여러 길드 중 마이스터들이 있는 윌즈에는 중앙금융은행을 가지고 있다.
모든 화폐의 가치에 대하여 재정관을 수립한 자들도 바로 얘네들이기 때문에,
아벨의 존재는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화폐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교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자 월즈의 마이스터가 금융은행을 중심으로 저들의 환율을 조절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국 퀼로른에서 은행은 완공이 되었고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이들이 거래를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다만 저들 사이에 구원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으니,

마이스터는 기술의 진보와 신의 영역에 발길을 대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고 과학의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교황청과 다른 점이었다.

완벽할 수 없는 그러나 완벽에 가깝도록 무수히 노력하는 자들이었다.

길드는 3가지 부류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먼 곳에 자리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집회를 통하여 진보에 일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도 연관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닿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시아가 가진 한계의 틀을 깨는 위대한 업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각 길드는 저들만의 색깔을 지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이다.

그것은 이들이 비단 아벨론과 교류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벨의 자손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다른 모든 집단과 무리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론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 베르만과 다른 부류도 마찬가지였다.
이를테면 카르손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칼데움을 제련하고 가공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이스터들 뿐이었다.
칼데움과의 거래로 카르손의 전투민족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무기를 손에 넣었다.

퀼로른의 몰락 이후로 마이스터들은 아벨의 장벽 안에 남고자 했으나,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으니,
첫번째로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산업을 연구하는 윌즈의 마이스터와,
두번째로 발달한 의학과 인체의 구조를 파헤치는 락시아의 의사들이었

으며,
세번째로 비밀스러운 물질을 뒤섞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화학을 다루는 연금술사였다.

저들 모두 교황청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복종과 그 교리를 따르라는 것이었으나,
이 셋은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임과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계의 마법이라 부르는 과학을 신봉하는 존재와 신의 영역에 닿으려는 마이스터와 반발이 생기며,
피와 피를 나누는 과정인 수혈과 배를 갈라 여는 수술을 쉬이 허하지 않기에 의사를 배척하였고,
기존의 물질을 결합하여 가히 새로운 물질을 창조해내는 연금술사가 달가울리 없었다.
결국 길드 내에서 문화 예술 및 역사를 만드는 몇몇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아벨의 장벽 밖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었다.
교황청이 저들을 어르고 달래보며 협박까지 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이득이 되지 않았다.
저들의 존재를 인정해보지 않으려 했지만 아벨의 자손들의 번영에 일조한 자들이었다.
때문에 저들을 해할 수조차 없었고 그랬다간 민중의 반발이 거세질 것

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종교와 과학간의 양극은 조율되지 못하였고 저들은 갈라져 스스로의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교황청에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황청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자유 도시국가로 발돋움하기에 이른다.

반대로 저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저들은 중립 혹은 우호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길드에서 파생된 저들을 이르러 바로 제 3의 세력의 자치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무수한 자치국가들이 나오고 또 몰락함을 무수히 반복해왔지만,
큰 규모는 아니었으나 그 영향력은 실로 방대한 것이었기에 그 존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마이스터들은 아벨의 장벽을 나와 아벨의 권능을 입지 못하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지켜왔다.
마치 저들은 암흑의 시대에서 저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길드의 마이스터들은 장벽 밖에 나와 지금까지 저들을 있게 한 수레브퀴의 모양을 본따 저들의 국기 아래 자치국가를 세우게 된다.
이들은 건축에 능한 마이스터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만의 새로운 길드를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과 바퀴의 나라라는 이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아벨의 장벽 안에 있는 자도 진리에 닿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교육했다.
영원의 전쟁 전후로 마이스터들은 초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 냉철하고 교묘하게 바뀌어 실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도덕적 관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자들과 사소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윌즈의 외교법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길거리에는 증기와 철의 마모음이 울려 퍼졌다.
손재주가 뛰어난 이들은 그들의 도시 윌즈 안에 교통의 요충지를 여러 군데 두었다.
이로 인하여 유통과 운송은 간결하고도 효율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고, 윌즈의 심장에 자리하고 있는 발전기의 엔진은 멈추지를 않았다.
칼데움과 매장된 지하자원으로 끌어낸 열기로 인하여 연신 증기를 내뿜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그 모습은 다소 몽환적인 분위기조차 만들어냈다.

각 길드의 노력과 결속력 덕분에 이후로 그 누구의 방해도 통제도 받지 않은 이들은 연구 개발에 힘써 고도의 과학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퀴나즈의 아르카나와 교황청의 신의 권능과 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장막을 들추는 자들이었다.
그 모든 것들을 으레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과학이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진리로 남게 될 것이다.

아티팩트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함.

진리의 정점이라 여기는 자들

과학 발전의 이유?

그것은 진보의 상징이자 진리에 닿기 위한 도구인 과학이라는 마법입니다. 이들의 과학력을 따라잡을 자들은 이데아에 더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아르카나와 신의 존재마저도 과학적인 해석으로

풀으려 하는 자들일 정도니 이들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윌즈의 마이스터, 그들은 이데아의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태초의 존재와 그 근원과 뿌리를 찾고 이론을 정립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이지만 낭만적인 목표를 좇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저 뜨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이를 신의 계시라 여기었고 아벨의 장벽안에서 기도를 올리는 이들에 비하여 우리들은 그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그 진리에 닿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아벨의 자손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들은 그들의 무기인 지성을 갈고 닦아 마침내 장막에 드리워진 신의 영역의 베일을 벗기려는 그들만의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집이 세고 계산적입니다. 고집적인 성격은 끈질기게 연구와 실험을 반복하며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저주받은 존재들을 맞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 이 험난한 세계를 겪어오면서 그들을 스스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마이스터들은 스스로의 몸을 개조하거나 약물의 힘을 빌어 연구성과를 스스로 지키고 앞으로의 연구또한 계속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치국가인 윌즈를 수호하기 위해 인류의 발전과 진화와 진보를 위해 과학의 힘을 입은 무기를 하나 둘 개발해 나가 어떠한 위험에서도 그들은

최후의 최후까지 이데아에 설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원시적 사고를 지닌 이들에게 우리의 과학은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에 저주 받은 자들만큼이나, 피를 취하는 자들만큼이나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윌즈로부터 보게 될 테지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그 힘은 구원도 신의 힘도 아닌 다른 모든 이들이 경외시하는 이계의 마법, 바로 과학일 것입니다.